Oriental Medical Terminology

표준한의학 용어집

한의학용어제정위원회 편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발간사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학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의학교육, 한방진료 및 각종 공문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년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을 위해 우리 학회 산하 19개 분과학회가 참여한 한의학용어제정 실무위원회와, 이 실무위원회를 통괄하는 한의학용어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이는 한의학계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방대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동안은 표준한의학용어의 선정원칙을 제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용어선정 작업을 완료하여 5천8백여개의 대표표제어를 선정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동안은 선정된 대표표제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표준한의학용어 해설작업을 완성하여, 총 6여년의 긴 시간을 거쳐 비로소 표준한의학용어집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문은 뿌리가 없는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는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시간적으로는 최소한 2000여년을 관통하는 한의학의 표준용어집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때마침 WHO에서도 국제한의학용어의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표준한의학용어집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차후 남북한의학용어표준화 사업 등을 위해서도 이번 표준한의학용어집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표준한의학용어제정 사업에 참여한 한의학용어제정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드리고, 또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대한한의사협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표준한의학용어집의 부족한 부분이 계속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전 한의학계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발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6년 2월

대한한의학회 회장 박동석

축 사

반만년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하여 온 한의학은 실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보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952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된 이래, 현대 한의학 교육을 통해 1만 70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어 국민보건의 일선에서 이룩한 사회적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의계는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 한의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학문의 근본이되는 한의학용어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되고 사멸된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의학 교육, 한방 임상 및 각종 공문서 등에서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에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용어의 표준화 사업이 필수임을 자각하고, 2000년도부터 대한한의학회에서 주관한 표준한의학용어제정 사업을 지원하였는데, 이제 6년의 각고 끝에 드디어 표준한의학용어집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한의계가 함께 축하하여야 할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표준한의학용어집은 우리 한의학 연구와 교육에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의학의 세계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제1집이 나왔지만, 결코 표준한의학용어집은 제1집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계속하여 제2집, 제3집이 출간되어 표준한의학용어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표준한의학용어집 발간을 주관하여 주신 대한한의학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표준한의학용어집이 발간되기 까지 길고긴 6년 동안 수고를 하여 주신 이영종 한의학용어제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각 분과학회 실무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2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종희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의 목적 및 경과

1.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의 목적

표준한의학용어제정사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의학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의학교육, 한방진료, 각종 공문서의 작성의 표준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2.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의 경과

1) 한의학용어 제정위원회 구성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은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 한의학용어 제정 심의위원회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의 심의 규정을 설정, 실무위원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하였다.

(2) 한의학용어 제정 실무위원회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의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과정 중 발생된 이견이나 협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실무위원회 회의에 논의한 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

2) 제정사업 진행 내용

(1) 표준한의학용어 선정작업(2000~2002년)

① 각 분과학회별로 기본자료 수집
② 중복 용어 정리, 규정에 따른 분류 작업
③ 추가 용어, 삭제용어 선정
④ 대표 표제어 선정 및 유사어, 확장어, 이음어 분류

○ 각 분과학회별 최종 검토 작업 후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한의학용어 선정 작업을 수행함.

(2) 표준한의학용어 해설작업(2003~2005년)

① 선정된 대표 표제어를 중심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자 하였고, 정의를 내리기 힘든 경우에는 정의에 준하는 간략한 해설을 하였음.

② 용어 정의는 용어를 제출한 분과학회에서 작성함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용어와 관련되어진다고 사료되는 분과학회에도 용어를 발송하여 해설 작업을 의뢰하였음.

③ 분과학회에서 내려진 정의 및 해설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였으며,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여러 분과학회에서 해설을 서로 달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해설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였음.

④ 각 분과학회에서 작성한 용어 해설의 기술 방법이 통일된 형태가 아니므로, 형태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기술방법을 통일하였음.

(3) 표준한의학용어집 발간(2006년)

표준한의학용어 선정 작업과 표준한의학용어 해설 작업의 결과물을 검토한 후 표준한의학용어집을 발간함.

3. 최종 작업 내용

1) 원표제어 수 : 18,617 개

2) 대표표제어 수 : 5,712 개

3) 표제어 수 : 8,831 개

4) 유사어, 확장어 수 : 3,119 개

표준한의학용어 선정 및 해설의 원칙

1. 표준한의학용어 선정

표준한의학용어는 “현재, 한국에서, 공인되어, 사용되는, 한의학의 학술용어”로 하였다.

1) 현재 : 고어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삭제 또는 대체하였다.

예 각궁사(角弓痧) [병증] : 삭제

2) 한국에서 : 외래어(중국의 신조어 등) 중 양방 용어는 삭제하고, 대체 가능한 용어는 대체어를 설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예 탈위(脫位) [병증] : 삭제

3) 공인되어 : 신조어의 공인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였다.

예 태음인위완한증온병(太陰人胃脘寒證瘟病) [사상] : 수용

4) 사용되는 : 여러 음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표제어를 선정하여 음의 혼용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 때 기준은 한자사전 상의 음으로 하며, 잘못된 음은 제외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미 음이 굳어져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異音語로 인정하였다.

예 전중(膻中) [경혈] / 단중(膻中)

5) 한의학의 학술용어 :

(1) 양의학이나 생물학 등 타 학문의 용어는 제외하였다.

예 말초신경(末梢神經) [해부]: 삭제

(2) 일반용어, 생활용어는 제외하였다.

예 약효(藥效) [약물] : 삭제

(3) 서술형 용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예 비개규어구(脾開竅於口) [생리] : 삭제

(4) 복합어의 경우 단순 복합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개별 단어들이 합쳐졌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용하였다.

예 양성음허(陽盛陰虛) [병리] : 삭제
토목체질(土木體質) [진찰] : 수용
원방보사법(圓方補瀉法) [침구] : 수용

(5) 사전적 의미로 단순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제외하였다.

예 질속(疾速) [병리] : 삭제

(6) 처방명, 인명, 서명, 학파명 등은 제외하였다.

(7) 약물명 중 한글 약물명은 제외하였다.

예 양꿀벌 [약물] : 삭제

(8) 경외기혈은 차후에 추가 보완하기로 하고, 경혈학회에서 선정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제외하였다.

(9) 해부학 용어의 경우 현재 서양 해부학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대부분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10) 재활, 추나, 예방의학 용어의 경우 분과학회의 특성상 신조어와 외래어가 많으며 아직 분과학회 내에서 통일된 용어를 선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분과학회에서 통일된 용어만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1) 사상의학 용어의 경우 사전적 의미 혹은 기존 한의학용어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어는 수용하였다.

(12) 약침학회 용어의 경우 학회의 특성상 대부분의 용어가 신조어로서 기존 한의학의 용어와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한의학 용어와의 혼동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였으며, 약침 처방명은 제외하였다.

(13) 하나의 대표 표제어로 통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차후에 해당 분과학회에서 용어의 통일을 꾀하도록 하였다.

6) 표기법은 한글맞춤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7) 표제어 중 이명, 유사 용어, 대체된 용어, 異音語 등을 각 분과학회에서 결정한 대표 표제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8) 용어의 분류는 [약물], [포제], [경혈], [기혈], [경락], [침구], [추나], [기공], [치법], [생리], [병리], [병증], [증상], [징후], [변증], [진찰], [운기], [사상], [기구], [해부], [기타]로 하였다.

2. 표준한의학용어 해설

1) 해설 내용은 용어의 정의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하며, 가급적 용어집 내의 쉬운 말로 설명하였다.

2) 해설 내용 중 의사학적 내용, 단순한 글자의 뜻, 단순한 생리적 내용, 문헌의 인용을 통한 설명 등은 지양하였다.

3) 병증, 변증의 해설 내용에는 主症狀까지 넣도록 하였다.

4) 다른 인접학문 분야(예, 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해설할 경우 그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였다.

5)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용어 해설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일러두기

1. 본 용어집의 대표표제어는 “대표표제어 [분류명] 동의어 : (관련 학회명) 용어정의”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2. 용어의 분류명은 [ ] 부호로 표시하였다.
   예 [약물], [포제], [경혈], [기혈]

3. 용어 관련학회명은 음각으로 표시하였다.
   예 약물, 포제, 경혈, 기혈, 경락, 침구, 추나, 가공, 치법, 생리, 병리, 병증, 증상, 징후, 변증, 진찰, 운기, 사상, 가구, 해부, 기타.

4. 대표표제어의 유사어와 동의어는 ‘동’ 기호 뒤에 나열하였다.
   예 고정(固精) [치법] 동 고신삽정(固腎澁精)

5. 유사어와 동의어가 표제어인 경우는 정의를 따로 내리지 않고, ⇒ 부호를 사용하여 대표표제어에 연결하였다.
   예 고신삽정(固腎澁精) [치법] ⇒ 고정(固精)

6. 대표표제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할 용어는 → 부호를 사용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예 안미도(眼眉跳) [병증] : 정신 안(眼)의 상포(上胞)가 떨리고 눈썹까지 파급되는 것.
   → 안륜진도(眼輪振跳)

7. 대표표제어의 정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①, ②, ③, …’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예 기분(氣分) [병증] [변증] : 병리 ① 기의 범위에 속하는 기능 활동 및 그 병변을 가리킴. 보통 혈분(血分)에 상대하여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재기분(邪在氣分), 기분습열(氣分濕熱) 등이 있음. ② 온열병의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중의 한 단계. →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③ 양기(陽氣)가 허한 틈을 타서 한기가 기분에 뭉친 병을 가리킴.

한의학용어제정 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위 원 장	이영종	경원대
위 원	박영배	경희대
위 원	박종형	경원대
위 원	백태현	상지대
위 원	손낙원	경희대
위 원	이종수	경희대
간 사	전찬용	경원대

한의학용어해설 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위 원 장	이영종	경원대
위 원	이충열	경원대
위 원	전찬용	경원대
위 원	송호섭	경원대
간 사	문영춘	경원대

한의학용어제정 실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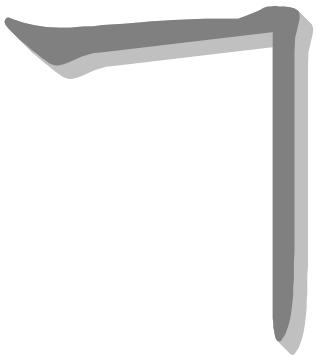
	학회명	성 명	소 속
위원장	대한한방내과학회	전찬용	경원대
간 사	대한한의학회	문영춘	경원대
위 원	대한한방내과학회	정희재	경희대
위 원	대한침구학회	남상수	경희대
위 원	대한외관과학회	김윤범	경희대
위 원	대한한방부인과학회	김동일	동국대
위 원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이진용	경희대
위 원	대한본초학회	김인락	동의대
위 원	대한원전학회	백상용	매란국죽한의원
위 원	한국의사학회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위 원	사상체질의학회	박성식	동국대
위 원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강형원	원광대
위 원	생리학회	김호현	세명대
위 원	동의병리학회	김정범	세명대
위 원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이명종	동국대
위 원	대한방제학회	문한주	원광대
위 원	약침학회	강대인	고은하늘한의원
위 원	대한추나학회	이종수	경희대
위 원	대한진단학회	김태희	푸른하늘흰구름 한의원
위 원	대한경락경혈학회	박히준	경희대
위 원	대한예방한의학회	소경순	세명대

한의학용어해설 실무위원회

	학회명	성 명	소 속
위원장	대한한방내과학회	전찬용	경원대
간 사	대한한의학회	문영춘	경원대
위 원	대한한방내과학회	정희재	경희대
위 원	대한침구학회	남상수	경희대
위 원	대한외관과학회	김윤범	경희대
위 원	대한한방부인과학회	김동일	동국대
위 원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이진용	경희대
위 원	대한본초학회	김인락	동의대
위 원	대한원전학회	백상용	매란국죽한의원
위 원	한국의사학회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위 원	사상체질의학회	박성식	동국대
위 원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강형원	원광대
위 원	생리학회	김호현	세명대
위 원	동의병리학회	김정범	세명대
위 원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이명종	동국대
위 원	대한방제학회	문한주	원광대
위 원	약침학회	강대인	고은하늘한의원
위 원	대한추나학회	이종수	경희대
위 원	대한진단학회	한경숙	유림한의원
위 원	대한경락경혈학회	임사비나	경희대
위 원	대한예방한의학회	소경순	세명대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

	성 명	소 속
학 회 장	박동석	경희대
부 회 장	김중호	김중호한의원
부 회 장	김장현	동국대
부 회 장	김기현	토당한의원
기획총무이사	고창남	경희대
학 술 이 사	김상우	자상현한의원
고 시 이 사	전찬용	경원대
교 육 이 사	이영종	경원대
재 무 이 사	남상수	경희대
제 도 이 사	한창호	동국대
국제교류이사	김용석	경희대
편 집 이 사	이재동	경희대
정보통신이사	권종훈	가람한의원
무임소이사	김정곤	김정곤한의원
감 사	유한길	자생한방병원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ㄱ

가(痂) [병증] 동 결가(結痂), 가피(痂皮), 가병(痂病) : 안이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온 진물이 말라붙어 생긴 딱지.
가(瘕) [병증] 동 하(瘕) 내과 뱃속에 기(氣)가 울체(鬱滯)되어 덩어리가 생기는 병증.
가감(加減) [기타] : 처방을 구성하는 약물의 가짓수나 분량을 늘이거나 줄이는 것.
가구자(家韭子) [약물] ⇒ 구자(韭子)
가려늑(訶藜勒) [약물] : ⇒ 가자(訶子)
가미(加味) [기타] : 이미 구성되어 있는 처방에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것.
가병(痂病) [병증] : ⇒ 가(痂)
가사(瘕瀉) [병증] ⇒ 대가설(大瘕泄)
가산(瘕疝) [병증] ⇒ 산가(疝瘕)
가속도맥파(加速度脈波) [진찰] : 진단 the second derivative of photoplethymogram waveform (SDPTG). the acceleration photoplethymogram (APG). 용적맥파나 압맥파를 시간으로 2차 미분하여 얻어지는 파형. → 맥파(脈波)
가신(假神) [진찰] : 진단 구병(久病)·중병(重病)으로 정기(精氣)가 극도로 약해진 환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잠시 정신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태. 정기(精氣)가 쇠하고 음이 양을 수렴하지 못해 허양(虛陽)이 부월(浮越)하여 남아있는 정기(精氣)마저 외설(外泄)되려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가열(假熱) [병리] : 병리 병의 본질은 한(寒)인데 겉으로는 오히려 열증(熱證) 비슷한 가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 진한가열증(眞寒假熱證)
가자(訶子) [약물] 동 가려늑(訶藜勒) : 본초 사군자과(使君子科 : Combret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訶子 *Terminalia chebula* Retz. 또는 융모가자(絨毛訶子 *T. chebula* Retz. var. *tomentella* Kurt.)의 성숙한 과실.
가자(茄子) [약물] : 본초 가지과(茄科 : Solanaceae)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인 가지 *Solanum melongena* L.의 과실(果實).
가취(瘕聚) [병증] : 부인 징가(癥瘕)는 여성 생식기관에 발생하는 종괴(腫塊)를 통칭하고 적취(積聚)는 부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종괴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치료법이 서로 비슷하였는데 경악(景岳)은 징(癥)은 적(積)의 종류이고 하(瘕)는 취(聚)의 종류이며, 징적(癥積)은 혈분(血分)의 병으로 유형이며 어혈(瘀血)로 인해 성립되었고 가취(瘕聚)는 기분(氣分)의 병으로 기체(氣滯)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임증대법(臨證大法)을 세워 치료한다 하였다.
가태(假苔) [징후] ⇒ 염태(染苔)
가통(嫁痛) [병증] ⇒ 음통(陰痛)
가피(痂皮) [병증] ⇒ 가(痂)
가한(假寒) [병리] : 병리 병의 본질은 열(熱)인데 겉으로는 오히려 한증(寒證) 비슷한 가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 진열가한증(眞熱假寒證)
각괴독(脚拐毒) [병증] ⇒ 외과저(外踝疽)
각궁반장(角弓反張) [증상] : 내과 몸이 뒤로 젖혀지는 증. 등이 뒤로 휘어 반듯이 누울 때 발뒤축만 바닥에 닿고 등이 들리는 증상.
각권(脚拳) [증상] : 내과 다리의 근육에 경련이

ㄱ

생기며 오그라드는 증상.
각근통(脚跟痛) [병증] ⇒ 족근통(足跟痛)
각기(脚氣) [병증] 동 완풍(緩風), 각약(脚弱), 연각풍(軟脚風) : 내과 다리가 저리고 지각이상이 생기면서 다리 힘이 약해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증. 발병이 완만하다 하여 완풍(緩風), 다리 힘이 약해지는 병이라 하여 각약(脚弱) 또는 연각풍(軟脚風)이라 한다.
각련근(脚攣根) [병증] ⇒ 족근저(足跟疽)
각로(覺勞) [병증] ⇒ 노채(勞瘵)
각발(脚發) [병증] ⇒ 족발배(足發背)
각법(角法) [침구] ⇒ 부항(附缸)
각손(角孫)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20)로 귀바퀴(耳輪; helix)를 앞으로 접을 때 귀바퀴에서 가장 높은 점에 위치하는 혈.
각심독(脚心毒) [병증] ⇒ 용천저(湧泉疽)
각심옹(脚心癰) [병증] ⇒ 용천저(湧泉疽)
각약(脚弱) [병증] ⇒ 각기(脚氣)
각연(脚軟) [병증] 동 족연(足軟) : 소아 다리가 약하며 힘이 없는 병증. 걸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 서거나 걷지 못하는 병증.
각저천심정(脚底穿心疔) [병증] ⇒ 용천저(湧泉疽)
각지흑사(脚指黑痧) [병증] ⇒ 탈저(脫疽)
각탕(脚湯) [치법] 동 각탕요법(脚湯療法) : 재활 발과 다리를 따뜻한 물에 담가 전신의 혈행 및 기의 순환을 왕성하게 하는 목욕법.
각탕요법(脚湯療法) [치법] ⇒ 각탕(脚湯)
각혈(咯血) [병증] ⇒ 객혈(喀血)
간(癎) [병증] ⇒ 간병(癎病)
간(肝) [생리], [해부] 동 간장(肝臟), 용연(龍烟), 장군지관(將軍之官) : 생리 ① 오장(五臟)의 하나로 인체 기기(氣機)에 대해 승발소설(升發疎泄)하고 장혈(藏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오행 중 목(木)의 특성과 부합하는 장기. ② 횡격막 아래, 오른쪽 협륵부(脇肋部)에 위치하는 장기.
간(癎) [병증] ⇒ 간병(癎病)
간(奸) [병증] ⇒ 간(黔)
간(黔) [병증] 동 간(奸), 간반(肝斑), 간증(黔黯), 면간(面黔), 여흑반(黎黑斑), 황갈반(黃褐斑), 간증(黔證) : 부인 여성들 안면의 관부(顴部), 이마, 코에 황갈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병증.
간감(肝疳) [병증] 동 근감(筋疳), 풍감(風疳) : 소아 오감(五疳)의 하나. 주요증상은 얼굴과 손톱이 푸르고, 눈동자가 깔끄러워 뜨지 못하며, 눈이 흐리고 밤에 잘 안 보이며 감안(疳眼)이 나타남. 또 배가 크고 근육이 아프며, 몸이 마르고, 대변색이 푸른 증상을 수반.
간격구(間隔灸) [침구] ⇒ 간접구(間接灸)
간결(肝決) [병증] ⇒ 동인축소(瞳人縮小)
간경두(肝經痘) [병증] : 소아 두창(痘瘡) 증상의 하나. 천연두를 앓을 때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고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눈이 충혈되고 숨결이 거칠어지며 또 발진의 색이 검붉으면서 순조롭게 돋아나지 못하는 것.
간경습열(肝經濕熱) [병리] : 병리 습열(濕熱)이 간경(肝經)에 맺혀 있어 간의 소설(疎泄)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리 상태. → 간담습열(肝膽濕熱)
간경습열증(肝經濕熱證) [변증] 동 습열범간증(濕熱犯肝證) : 병리 간경습열(肝經濕熱)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 협륵창통(脇肋脹痛), 번조이노(煩躁易怒), 구고음식무미(口苦飮食無味), 구오복창(嘔惡腹脹), 소변단적(小便短赤)등이 주증이고, 한열왕래(寒熱往來), 고환종창열통(睾丸腫脹熱痛), 대하황취(帶下黃臭), 외음소양(外陰瘙痒), 대변불상(大便不爽) 등이 차증(次症)이며, 설 태(舌苔)는 황이(黃膩)하고 맥(脈)은 현활삭(弦滑數)하다.
간경실화(肝經實火) [병리] ⇒ 간화상염(肝火上炎)
간경실화증(肝經實火證) [병증] ⇒ 간화상염증(肝火上炎證)

간곽(艮廓) [진찰] ⇒ 혈륜(血輪)
간기(肝氣) [생리] 동 간기증(肝氣證) : 생리 ① 간의 정기(精氣) 및 기능. ② 전신의 기기(氣機)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간의 승발(升發)·소설(疏泄) 또는 혈을 포산시키는 기운.
간기(間氣) [운기] : 원전 운기학설에서 그 해의 기후를 주관하는 사천지기(司天之氣)와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좌우 사이에 있는 기(氣)를 말함.
간기능계(肝機能系) [생리] 동 간계(肝系) : 생리 간을 중심으로 담(膽)·근(筋)·목(目)·조갑(爪甲)·절(節) 등 간(운동, 발생기능)의 생리기능을 발휘하거나 병리적 변화를 반영하는 기능계통.
간기범비(肝氣犯脾) [병리] 동 간기승비(肝氣乘脾), 간비불화(肝脾不和) : 병리 간의 기(氣)가 횡역(橫逆)하고 소설(疏泄) 기능이 지나치게 세어져서 비(脾)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병리상태.
간기범비증(肝氣犯脾證) [병증] ⇒ 간비불화증(肝脾不和證)
간기범위(肝氣犯胃) [병리] ⇒ 간위불화(肝胃不和)
간기범위증(肝氣犯胃證) [변증] ⇒ 간위불화증(肝胃不和證)
간기불서(肝氣不舒) [병리] ⇒ 간기울결(肝氣鬱結)
간기불서증(肝氣不舒證) [병증] ⇒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
간기불화(肝氣不和) [병리] ⇒ 간기울결(肝氣鬱結)
간기상역(肝氣上逆) [병리] 동 간기상충(肝氣上衝), 간기역(肝氣逆) : 병리 간기(肝氣)의 소설(疏泄) 기능 실조로 간의 기기(氣機)가 정상적으로 승발(升發)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위로 치솟는 병리상태.
간기상충(肝氣上衝) [병리] ⇒ 간기상역(肝氣上逆)
간기승비(肝氣乘脾) [병리] ⇒ 간기범비(肝氣犯脾)
간기승비증(肝氣乘脾證) [병증] ⇒ 간비불화증(肝脾不和證)
간기역(肝氣逆) [병리] ⇒ 간기상역(肝氣上逆)
간기울(肝氣鬱) [병리] ⇒ 간기울결(肝氣鬱結)
간기울결(肝氣鬱結) [병리] 동 간기불화(肝氣不和), 간기울(肝氣鬱), 간기울체(肝氣鬱滯), 간울(肝鬱), 간울기체(肝鬱氣滯), 간기불서(肝氣不舒) : 병리 간기(肝氣)의 소설(疏泄)기능 실조로 간기가 울체되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는 병리상태.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 [병증] 동 간울기체증(肝鬱氣滯證), 간기불서증(肝氣不舒證) : 병리 간기울결로 인한 병증. 그 증상은 협륵창통(脇肋脹痛), 심번이노(心煩易怒), 정신억울(精神抑鬱), 흉민(胸悶), 선태식(善太息) 등이 주증이고, 다의욕곡(多疑欲哭), 월경전 유방창통(乳房脹痛), 소복창통(少腹脹痛), 월경부조(月經不調) 등이 차증이며, 설홍(舌紅), 맥현(脈弦)하다.
간기울체(肝氣鬱滯) [병리] ⇒ 간기울결(肝氣鬱結)
간기증(肝氣證) [생리] ⇒ 간기(肝氣)
간기통(肝氣痛) [병증] : 내과 간기(肝氣)의 장애로 가슴과 옆구리가 아픈 병증.
간기횡역(肝氣橫逆) [병리] : 병리 간기(肝氣)의 소설(疏泄) 기능 실조로 간의 기기(氣機)가 정상적으로 승발(升發)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위(脾胃)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 병리상태.
간담습열(肝膽濕熱) [병리] : 병리 간담(肝膽)의 장부 또는 간담의 경맥 순행부위에 습열(濕熱)의 사기(邪氣)가 정체되어 있는 병리상태.
간담습열증(肝膽濕熱證) [변증] : 병리 간담습열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 주요 증상으로는 협륵부창통작열(脇肋部脹痛灼熱), 납매복창(納呆腹脹), 구고범오(口苦泛噁), 대변부조(大便不

ㄱ

調) 혹 소변단적(小便短赤), 한열왕래(寒熱往來), 황달(黃疸), 음낭습진(陰囊濕疹), 소양(瘙痒), 고환종창열통(睾丸腫脹熱痛), 대하황취(帶下黃臭), 외음소양(外陰瘙痒), 설홍태황이(舌紅苔黃膩) 등이 나타난다.

간로(肝勞) [병증] 동 간로(肝癆), 간로증(肝勞證) : 내과 면목(面目)이 마르고 검으며, 정신이 불안하여 혼자 누워있지 못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며 자주 눈물이 흐르는 병증. 오로(五勞) 중 하나.

간로(肝癆) [병증] ⇒ 간로(肝勞)

간로증(肝勞證) [병증] ⇒ 간로(肝勞)

간맥(肝脈) [진찰] : 진단 오장맥(五臟脈)의 하나로 간(肝)의 맥상(脈象). 사시맥(四時脈)에서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오장맥으로 봄에는 간맥인 현맥(弦脈)을 배속한다. → 사시맥(四時脈)

간반(肝斑) [병증] ⇒ 간(黔)

간병(肝病) [변증] ⇒ 간병증(肝病證)

간병(癎病) [병증] 동 간(癎), 간(癇), 간증(癎症), 간증(癎證), 간질(癎疾), 간풍(癎風) : 정신 발작적으로 의식장애와 함께 근육경련과 감각, 행동의 이상을 동반하는 병증. 그 증상은 졸도(卒倒)·인사불성(人事不省)하고, 축닉(搐搦)으로 면목(面目)까지 땅기며 흰 거품을 토하고 후간(喉間)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놀라서 잘 우는데, 발작 후 단시간 내에 원래대로 깨어남. 하루에 한 번, 혹은 십일이나 몇 개월에 한번 발작하기도 한다. 그 병인·병리 및 증상유형에 따라 오간(五癎)·음양 이간(陰陽二癎)·풍경식 삼간(風驚食三癎)·폭간(暴癎)·장간(腸癎)·태간(胎癎)·식간(食癎)·담간(痰癎)·한간(寒癎)·열간(熱癎)·충간(虫癎)등으로 분류.

간병증(肝病證) [변증] 동 간병(肝病) : 병리 오장병(五臟病)의 하나로 간에 생긴 여러 가지 병증의 총칭. 한사(寒邪)나 습열사(濕熱邪)가 간경(肝經)에 침범하거나, 칠정내상(七情內傷)으로 간의 소설(疎泄)기능이 장애되거나, 출혈을 많이 하거나 병으로 음혈(陰血)이 부족해져서 생긴다. 주요 병증으로는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 간화상염증(肝火上炎證), 간음허증(肝陰虛證), 간양상항증(肝陽上亢證), 간혈허증(肝血虛證), 간풍내동증(肝風內動證), 한체간맥증(寒滯肝脈證), 간경습열증(肝經濕熱證)이 있다.

간비(肝痺) [병증] : 내과 비증(痺證)의 하나. 협하만민(脇下滿悶)하며, 야와즉경(夜臥則驚)하고, 근맥(筋脈)이 연축(攣縮)하며, 요복(腰腹)이 인통(引痛), 혹 출식(出食), 다음(多飮), 다소변(多小便)한 병증을 동반.

간비부조증(肝脾不調證) [병증] ⇒ 간비불화증(肝脾不和證)

간비불화(肝脾不和) [병리] ⇒ 간기범비(肝氣犯脾)

간비불화증(肝脾不和證) [병증] 동 간기범비증(肝氣犯脾證),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 간비부조증(肝脾不調證), 간기승비증(肝氣乘脾證) : 병리 간과 비 두 장의 관계 실조로 생기는 증으로, 양협창만동통(兩脇脹滿疼痛), 완복창만(脘腹脹滿), 식욕부진(食欲不振), 번조이노(煩躁易怒) 등이 주증이고, 선태식(善太息), 복통욕사(腹痛欲瀉), 장명실기(腸鳴失氣), 월경부조(月經不調) 등이 차증이며, 설태백니(舌苔白膩), 맥현완(脈弦緩)하다.

간비양허(肝脾兩虛) [병리] : 병리 간과 비 둘 다 허약해진 병리 상태. 비위(脾胃)가 허약해서 간을 자양(滋養)하지 못하거나 간비(肝脾)의 기능이 장애되어 생김.

간비혈어(肝脾血瘀) [병리] : 병리 간기울결이 오래되어 간경(肝經)에 어혈이 생기고 그것이 비(脾)에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병리상태.

간사(間使)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경혈(PC5)로서 경금혈(經金穴)에 해당하며, 손목관절 손바닥쪽 가운데에 있는 대

릉(大陵) 위 3촌으로 노쪽손목굽힘근(요측수근굴근; flexor carpi radialis)과 긴손바닥근(長掌筋; palmaris longus)의 중간에 위치.

간산(肝疝) [병증] : 대개 간경(肝經) 습열(濕熱)로 인해 발생. 증상은 음낭이 벌겋게 붓고 딴딴하면서 통증이 오며, 혹은 음낭습양(陰囊濕痒), 전신한열(全身寒熱)이 발생하고, 요도구(尿道口)에 백색의 고름 같은 분비물이 있음.

간상(肝傷) [병증] 동 간상증(肝傷證) : 내과 기문(期門) 아래 협륵(脇肋)에서 오른쪽 복부까지 뻗치는 동통이 있고, 정충경계(怔忡·驚悸)가 있으며, 만지면 통증이 심해지고, 야간에 통증이 심한 병증.

간상증(肝傷證) [병증] ⇒ 간상(肝傷)

간수(肝水) [병증] : 내과 수기(水氣)가 간에 침범하여 복만축수(腹滿蓄水)하여 두복(肚腹)이 팽대되어 전측(轉側)하기 곤란하며, 때때로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난삽(難澁)한 병증. 오장수종(五臟水腫)의 하나.

간수(肝俞)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18)로서 근축(筋縮)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간수열이열병(肝受熱裡熱病) [사상] ⇒ 태음인간수열이열병(太陰人肝受熱裏熱病)

간승격(肝勝格) [침구] ⇒ 간승방(肝勝方)

간승방(肝勝方) [침구] 동 간승격(肝勝格) : 침구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실증(實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경거(經渠) 중봉(中封) 보(補), 소부(少府) 행간(行間) 사(瀉).

간신동원(肝腎同源) [생리] 동 을계동원(乙癸同源) : 생리 간과 신은 근원이 같아 생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 이것은 간음(肝陰)과 신음(腎陰)이 서로 자양(滋養)하고, 정과 혈이 서로를 자양하며 화생하는 관계를 말한다.

간신음허(肝腎陰虛) [병리] 동 간신휴손(肝腎虧損), 간신음휴(肝腎陰虧) : 병리 간음(肝陰)과 신음(腎陰)이 모두 소모되어 허해진 병리상태.

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 [병증] 동 간신음휴증(肝腎陰虧證), 간신휴손증(肝腎虧損證) : 병리 간신음허로 인한 증으로, 요슬산연(腰膝酸軟), 양목건삽(兩目乾澁), 흉협동통(胸脇疼痛), 오심번열(五心煩熱) 등이 주증이고, 건망실면(健忘失眠), 관홍순적(顴紅脣赤), 두훈목현(頭暈目眩), 이명여선(耳鳴如蟬), 인건구조(咽乾口燥), 도한(盜汗), 유정(遺精), 여자월경량감소(女子月經量減少) 등이 차증이며, 설홍강소태(舌紅絳少苔), 맥세삭(脈細數)하다.

간신음휴(肝腎陰虧) [병리] ⇒ 간신음허(肝腎陰虛)

간신음휴증(肝腎陰虧證) [병증] ⇒ 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

간신휴손(肝腎虧損) [병리] ⇒ 간신음허(肝腎陰虛)

간신휴손증(肝腎虧損證) [병증] ⇒ 간신음허증(肝腎陰虛證)

간실(肝實) [병리] : 병리 간(肝)의 기(氣)가 지나치게 왕성하여 나타나는 병리 상태. 대개 간경(肝經)에 한사(寒邪) 또는 열사(熱邪)가 침범하거나 간기가 울체되어 생긴다.

간실열(肝實熱) [병리] : 병리 간에 열이 왕성한 실증. 실열(實熱)을 내리는 방법과 소간해울(疏肝解鬱)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간실열증(肝實熱證) [변증] : 병리 간실열(肝實熱)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 일반적으로 열증(熱證) 증상과 함께 옆구리가 그득하면서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입 안이 쓰고 마음이 조급해지며 성을 잘 내는 증상이 나타난다.

간실증(肝實證) [병증] : 병리 간실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 간한(肝寒), 간열(肝熱),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 등이 이에 속한다.

간심통(肝心痛) [병증] : 내과 간(肝)과 관련된 심통. 얼굴빛이 퍼렇게 되고 가슴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병증.

간양(肝陽) [생리] : 생리 간의 양기로, 간의 승

발(升發)과 소설(疏泄)하는 기운을 말하며, 간음(肝陰)에 상대하여 사용.

간양부족(肝陽不足) [병리] ⇒ 간양허(肝陽虛)

간양상승(肝陽上昇) [병리] ⇒ 간양상항(肝陽上亢)

간양상역(肝陽上逆) [병리] ⇒ 간양상항(肝陽上亢)

간양상항(肝陽上亢) [병리] 동 간양상승(肝陽上昇), 간양편항(肝陽偏亢), 간양상역(肝陽上逆) : 병리 간신음허(肝腎陰虛)로 간양(肝陽)을 제어하지 못하여 양기가 지나치게 상승한 병리상태.

간양상항증(肝陽上亢證) [병증] 동 간양편왕증(肝陽偏旺證) : 병리 간양상항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 양항(陽亢) 위주의 증상 때문에 실증(實證)처럼 보이나 본질은 음허(陰虛)로서 본허표실(本虛標實)임에 주의해야 한다. 양항(陽亢), 음허(陰虛) 및 신음부족(腎陰不足)의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고 특히 양항(陽亢)이 뚜렷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 증상은 현운(眩暈), 이명(耳鳴), 두통창감(頭痛脹感), 면적홍열(面赤烘熱) 등이 주증이고, 실면다몽(失眠多夢), 번조이노(煩躁易怒), 두중각경(頭重脚輕), 요슬산연(腰膝酸軟), 인건구조(咽乾口燥)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舌質紅), 맥현세삭(脈弦細數) 혹 현경유력(弦勁有力)하다.

간양편왕증(肝陽偏旺證) [병증] ⇒ 간양상항증(肝陽上亢證)

간양편항(肝陽偏亢) [병리] ⇒ 간양상항(肝陽上亢)

간양허(肝陽虛) [병리] 동 간양부족(肝陽不足), 간양허쇠(肝陽虛衰) : 병리 간의 양기(陽氣)가 부족하거나 약한 병리상태. 간기(肝氣)가 부족하거나 신양부족(腎陽不足)이 간에 파급되어 발생한다.

간양허쇠(肝陽虛衰) [병리] ⇒ 간양허(肝陽虛)

간양허증(肝陽虛證) [병증] : 병리 간양허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

간양화풍(肝陽化風) [병리] : 병리 간신음휴(肝腎陰虧)로 음이 양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간양이 항역(亢逆)하여 풍이 발생한 병리상태.

간양화풍증(肝陽化風證) [병증] 동 궐음화풍증(厥陰化風證) : 병리 간양화풍(肝陽化風)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 평소에 간양상항(肝陽上亢)의 병력이 있으며 두통이 뚜렷하다. 그 증상은 축닉(搐搦), 구련(拘攣), 지체마목(肢體痲木), 구안와사(口眼喎斜), 어언불리(語言不利), 반신불수(半身不遂) 등이 주증이고, 졸연강부(卒然僵仆), 두통(頭痛,경련성), 현훈욕도(眩暈欲倒), 요슬산연(腰膝酸軟), 면홍구건(面紅口乾), 신지불청(神志不淸) 등이 차증이며, 설홍강(舌紅絳), 맥현(脈弦)하다.

간열(肝熱) [병리] : 병리 ① 간에 여러 가지 열이 생긴 병리 상태. 간화(肝火), 간양상항(肝陽上亢), 간실열(肝實熱), 간기열(肝氣熱) 등이 있음. ② 간담(肝膽)의 습열(濕熱)이 화(火)로 변한 것.

간열병(肝熱病) [병증] ⇒ 간열증(肝熱證)

간열열증온병(肝熱熱證瘟病)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肝受熱裡熱病論〉에 기재된 병증명. 태음인(太陰人)은 간(肝)에 열을 받아 간의 울열(鬱熱)증상이 생기기 쉬운데, 간열열증온병(肝熱熱證瘟病)은 온병(瘟病)에 걸린 상황에서 간화(肝火)가 망동하여 나타난다. 증상은 오한이 심하고 열도 많고(增寒壯熱) 머리 · 얼굴 · 목 · 뺨이 모두 벌겋게 붓고(頭面項頰赤腫) 목구멍도 붓고 아프며(咽喉腫痛) 혼수상태(昏憤)에 이르기도 한다. 처방은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 ·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

· 조각대황탕(皂角大黃湯)을 사용. 만약 배가 창만(脹滿)하고 설사를 하던 사람이 열이 성(盛)하면 이증(裏證)이니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을 사용하고, 한이 성하면 표증(表證)이니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에 승마(升麻) · 황금(黃芩)을 가하여 사용한다.

간열증(肝熱證) [병증] 동 간열병(肝熱病) : 병리

간에 생긴 여러 가지 열증.

간옹(肝癰) [병증] 동 간옹증(肝癰證) : 내과 안이 간경(肝經)의 모혈(募穴)인 기문혈(期門穴)에서 발생하는 옹저(癰疽). 처음 발병할 때 통처(痛處)가 종기(腫起)하면서 양쪽 갈비뼈 부위가 그득하고 아프며(兩脇滿痛) 옆으로 누우면(側臥) 경계(驚悸)하고 변뇨(便尿)가 난삽(難澁)하다.

간옹증(肝癰證) [병증] ⇒ 간옹(肝癰)

간울(肝鬱) [병리] ⇒ 간기울결(肝氣鬱結)

간울건구(肝鬱乾嘔) [증상] ⇒ 건구(乾嘔)

간울기체(肝鬱氣滯) [병리] ⇒ 간기울결(肝氣鬱結)

간울기체증(肝鬱氣滯證) [병증] ⇒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 [병증] ⇒ 간비불화증(肝脾不和證)

간위(肝痿) [병증] 동 근위(筋痿) : 내과 위증(痿證)의 하나인 근위(筋痿)와 같은 뜻. 힘줄이 오그라들고 점차 약해져서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되고 입안이 쓰며 손발톱이 마르는 병증.

간위불화(肝胃不和) [병리] 동 간기범위(肝氣犯胃) : 병리 정서적으로 울체가 심하여 간기의 소설(疏泄)이 안 되므로 위(胃)가 영향을 받아 화강(和降)작용이 안 되는 병리상태. → 간기범비(肝氣犯脾)

간위불화증(肝胃不和證) [변증] 동 간기범위증(肝氣犯胃證) : 병리 간위불화로 인하여 생기는 증. 위완비만시통(胃脘痞滿時痛), 양협창통(兩脇脹痛) 또는 찬통(竄痛) 등이 주증이고, 조잡구역(嘈雜嘔逆), 애기탄산(噯氣呑酸), 선태식(善太息), 두통(頭痛) 등이 차증이며, 설태박백(舌苔薄白) 혹 박황(薄黃), 맥현(脈弦)하다.

간음(肝陰) [생리] : 생리 간양에 상대되는 말로서 간(肝)의 음혈(陰血)과 음액(陰液)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간음부족(肝陰不足) [병리] ⇒ 간음허(肝陰虛)

간음부족증(肝陰不足證) [병증] ⇒ 간음허증(肝陰虛證)

간음허(肝陰虛) [병리] 동 간음부족(肝陰不足) : 병리 간(肝)의 음액휴허(陰液虧虛)로 자양유윤(滋養·濡潤) 기능이 부족한 병리 상태.

간음허증(肝陰虛證) [병증] 동 간음부족증(肝陰不足證) : 병리 간음허로 인해 나타나는 증. 두훈목현(頭暈目眩), 양목건삽(兩目乾澁), 협륵은통(脇肋隱痛), 오심번열(五心煩熱), 구건인조(口乾咽燥) 등이 주증이고, 지마근연(肢麻筋攣), 조갑불영(爪甲不榮), 번조이노(煩躁易怒), 양관홍적(兩顴紅赤), 뇨황변건(尿黃便乾), 조열도한(潮熱盜汗) 등이 차증이며, 설홍소태(舌紅少苔), 맥현세 혹, 현세삭(脈弦細或弦細數)하다.

간일자모(間日子母) [병증] ⇒ 간일학(間日瘧)

간일학(間日瘧) [병증] 동 간일자모(間日子母), 자모학(子母瘧) : 내과 날을 걸러서 발병하는 해학(痎瘧).

간장(肝臟) [생리] [해부] ⇒ 간(肝)

간저(肝疽) [병증] : 내과 저(疽)의 하나. 간(肝)의 깊은 곳에 생긴 고름집.

간적(肝積) [병증] 동 비기(肥氣) : 내과 오적(五積)의 하나로 간과 관련되어 생긴 적. 좌협하(左脇下)에 잔을 엎어 놓은 모양(覆杯狀)의 적괴(積塊)가 형성되는 것으로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해역(咳逆)을 발하며 평생토록 해학증(痎瘧證)을 발하기도 한다.

간절(肝絶) [병증] 동 간절증(肝絶證) : 내과 간기가 거의 끊어져가는 병증. 입술 둘레가(脣吻) 오히려 퍼렇고(反靑) 사지(四肢)에 축축하게 땀이 나는(漐習) 병증.

간절증(肝絶證) [병증] ⇒ 간절(肝絶)

간접구(間接灸) [침구] 동 간접뜸(間接뜸), 간격구(間隔灸), 격물구(隔物灸), 무흔구(無痕灸) : 침구 뜸 요법의 하나. 뜸 뜰 자리에 직접 쑥뜸을 올려놓지 않고 다른 약물이나 물질을 놓고

ㄱ

그 위에 쑥뜸을 놓고 뜸을 뜨는 방법.
간접뜸(間接뜸) [침구] ⇒ 간접구(間接灸)
간정(肝疔) [병증] : 정창(疔瘡)의 하나로 색이 퍼렇고, 간경(肝經)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엄지발가락의 끝과 협륵(脇肋)에 자주 발생. 그 증상은 한열왕래(寒熱往來), 두항통(頭項痛)이 발생하고, 눈 안에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며, 구고(口苦), 협통(脇痛), 소변곤란(小便困難), 면청(面靑) 등이다.
간정격(肝正格) [침구] ⇒ 간정방(肝正方)
간정방(肝正方) [침구] 동 간정격(肝正格) : 침구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허증(虛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음곡(陰谷) 곡천(曲泉) 보(補), 경거(經渠) 중봉(中封) 사(瀉).
간조열증(肝燥熱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 기재된 병증명(病證名). 태음인(太陰人)이 폐소(肺小)하여 간화(肝火)를 억제할 수 없어 폐음(肺陰)이 실윤(失潤)함으로써 조(燥)하게 되어 나타나는 병증. 이러한 병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치와 향락(侈樂無厭)으로 욕화외치(慾火外馳)하여 간열(肝熱)이 성하고 폐가 조(燥)하게 된 까닭이다. 조열증(燥熱證)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양이 많은 소갈증(消渴證)과 손가락이 검게 타는 수지초흑반창병(手指焦黑瘢瘡病)이 있다. 처방으로는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藁本)·대황(大黃)을 가하여 사용한다.
간증(肝蒸) [병증] : 내과 신열(身熱)하여 이수안진(以手按診)하면 열이 기육지하(肌肉之下) 골절지상부(骨節之上部)에 있으며, 외증(外證)은 안흑증(眼黑證)을 나타내는 병증.
간증(癎證) [병증] ⇒ 간병(癎病)
간증(癎症) [병증] ⇒ 간병(癎病)
간증(黕證) [병증] ⇒ 간(黕)
간증(黕黬) [병증] ⇒ 간(黕)
간지(干支) [운기] : 원전 십천간(十天干)과 십이지지(十二地支)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
간지당(肝之黨)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 중하초(中下焦)인 간(肝)의 계열을 지칭하는 말로 소장(小腸)·배꼽(臍)·코(鼻)·요척(腰脊)·육(肉) 등이 이에 해당. 소장(小腸)에서 수곡의 양기(凉氣)가 유(油)로 화(化)하여 배꼽으로 들어가 유해(油海)가 되고 유해의 경청(輕淸)한 기운은 코로 나와서 혈(血)이 되고 요척(腰脊)으로 들어가서 혈해(血海)가 되며, 혈해의 청즙(淸汁)은 안으로 간의 근원을 북돋우고 탁재(濁滓)는 안으로 소장을 돕고 밖으로 육을 형성한다. 그래서 소장·배꼽·코·요척·육은 모두 간의 무리(黨)가 된다.
간질(癎疾) [병증] ⇒ 간병(癎病)
간착(肝着) [병증] 동 간착(肝著) : 내과 흉협(胸脇)이 비(痞)하고 고만(苦滿)하며 불쾌감을 느끼고, 심하면 창만(脹滿)하여 항상 흉부(胸部)를 압도(壓蹈)하기를 좋아하며, 고통이 없을 때에는 열물(熱物)을 마시고 싶어 하는 병증.
간창(肝脹) [병증] 동 간창증(肝脹證) : 내과 협하창만(脇下脹滿)하며 소복(小腹)까지 당기면서 아픈(引痛) 병증. 주로 간경(肝經)이 한사(寒邪)를 받아 생긴다.
간창증(肝脹證) [병증] ⇒ 간창(肝脹)
간평맥(肝平脈) [진찰] : 진단 → 평간맥(平肝脈)
간풍(肝風) [병증] ⇒ 내풍(內風)
간풍(癎風) [병증] ⇒ 간병(癎病)
간풍내동(肝風內動) [병리] : 병 간(肝)의 음양기혈(陰陽氣血)이 실조되어 간풍(肝風)이 발생한 병리. 허(虛)로 인한 경우는 오랜 병이나 열병(熱病)의 후기에 간신(肝腎)의 음(陰)이 휴손(虧損)되어 음이 양(陽)을 제어하지 못하면 간양상항(肝陽上亢)하게 되는데 심하면 풍(風)이 된다. 실(實)로 인한 경우는 외감열병(外感熱病)의 과정 중에 사열(邪熱)이 치성하여 전신의 양(陽)이 모두 승(勝)하면 간양(肝陽)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양기(陽氣)가 마구

승동(升動)함으로써 생긴다. 간양화풍증(肝陽化風證), 열극생풍증(熱極生風證), 혈허생풍증(血虛生風證) 등의 유형이 있음.

간풍내동증(肝風內動證) [변증] 동 간풍증(肝風證) : 병리 간풍내동으로 인해 나타난 병증으로 외감풍사(外感風邪)가 아니고 내풍(內風)의 범주에 속함. 간풍(肝風)으로 약칭. 간(肝)은 근(筋)을 주관하며 눈에 개규(開竅)하므로 간풍이 동하게 되면 사물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거나, 근이 축동(搐動)하거나, 목상찬(目上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간풍내동증은 간양화풍증(肝陽化風證), 열극생풍증(熱極生風證), 혈허생풍증(血虛生風證)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풍산(肝風疝) [병증] : 내과 산증(疝症)의 하나. 외감풍사(外感風邪)를 받아서 생긴 간산(肝疝). 열이 나고 아랫배 속이 조여들고 아프며 힘줄이 당기는 병증.

간풍증(肝風證) [변증] ⇒ 간풍내동증(肝風內動證)

간풍협담증(肝風挾痰證) [병증] ⇒ 풍담증(風痰證)

간한(肝寒) [병리] : 병리 ① 양기(陽氣)가 부족하여 간기(肝氣)가 엉긴 것. 내한(內寒)에 속함. ② 한사(寒邪)가 간맥(肝脈)에 응체된 것. → 한체간맥(寒滯肝脈)

간허(肝虛) [병리] : 병리 간(肝)의 기, 혈, 음, 양이 다 허약하거나 부족한 병리 상태. 간기허, 간양허, 간음허, 간혈허 등으로 나뉜다.

간허작목내장(肝虛雀目內障) [병증] ⇒ 소아작목(小兒雀目)

간허증(肝虛證) [변증] : 병리 간허에서 나타나는 병증. 일반적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눈이 깔깔하거나 잘 보이지 않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잘 들리지 않으며 겁이 많아진다. 간기허증, 간양허증, 간음허증, 간혈허증 등이 있음.

간혈맥(間歇脈) [진찰] : 진단 촉맥(促脈), 결맥(結脈), 대맥(代脈)을 가리킴.

간혈(肝血) [생리] : 생리 간(肝)이 저장하고 있는 혈(血).

간혈부족(肝血不足) [병리] ⇒ 간혈허(肝血虛)

간혈부족증(肝血不足證) [변증] ⇒ 간혈허증(肝血虛證)

간혈허(肝血虛) [병리] 동 간혈부족(肝血不足), 간혈휴허(肝血虧虛) : 병리 간혈(肝血)이 부족하여 근(筋), 목(目), 맥락(脈絡)이 영양을 받지 못하는 병리 상태.

간혈허증(肝血虛證) [변증] 동 간혈휴허증(肝血虧虛證), 간혈부족증(肝血不足證) : 병리 간혈허로 발생하는 병증. 그 증상은 현훈(眩暈), 시물혼화(視物昏花), 야맹(夜盲), 지체마목(肢體麻木), 근맥구련(筋脈拘攣), 면색담백소화(面色淡白少華) 등이 주증이고, 협륵면면작통(脇肋綿綿作痛), 근척육순(筋惕肉瞤), 조갑고취(爪甲枯脆), 구순지갑담백(口脣指甲淡白), 이명(耳鳴), 월경량소이색담(月經量少而色淡)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맥세(脈細)하다.

간혈휴허(肝血虧虛) [병리] ⇒ 간혈허(肝血虛)

간혈휴허증(肝血虧虛證) [변증] ⇒ 간혈허증(肝血虛證)

간화(肝火) [병리] : 병리 간기(肝氣)의 기능항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상(熱象).

간화범폐(肝火犯肺) [병리] : 병리 간경(肝經)의 화기(火氣)가 폐(肺)에 상역(上逆)하여 폐의 숙강(肅降)기능이 상실된 병리 상태.

간화범폐증(肝火犯肺證) [병증] 동 목화형금증(木火刑金證) : 병리 간화범폐로 인하여 나타난 증. 해창기역(咳嗆氣逆), 흉협동통(胸脇疼痛), 흉협불서(胸脇不舒) 등이 주증이고, 성급이노(性急易怒), 담소점(痰少粘), 담대혈(痰帶血), 목적구고(目赤口苦), 인건성아(咽乾聲啞), 두훈두통(頭暈頭痛), 소변단적(小便短赤), 대변비결(大便秘結)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舌質紅), 태황건(苔黃乾), 맥현삭 혹 맥세삭(脈弦數或弦細數)하다.

ㄱ

간화상염(肝火上炎) [병리] 동 간경실화(肝經實火) : 병리 간화(肝火)가 간경(肝經)을 따라 상역(上逆)한 병리상태.

간화상염증(肝火上炎證) [병증] 동 간경실화증(肝經實火證) : 병리 간화(肝火)가 간경(肝經)을 따라 상역(上逆)한 증으로서 간기울결증(肝氣鬱結證)의 병력이 있거나 평소 성격이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경우에 많음. 그 증상은 두창통(頭脹痛), 현훈이명(眩暈耳鳴), 목적종통(目赤腫痛), 번조이노(煩躁易怒), 면홍구고(面紅口苦) 등이 주증이고, 협륵작통(脇肋灼痛), 실면다몽(失眠多夢), 구갈(口渴), 소변단적(小便短赤), 대변비결(大便秘結) 등이 차증이며, 설홍태황(舌紅苔黃), 맥현삭(脈弦數)하다.

간황(肝黃) [병증] : 내과 황달이 있으면서 얼굴이 청색을 띄는 병증.

갈근(葛根) [약물] : 본초 콩과 (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 등본(多年生藤本)인 칡 *Pueraria lobata* Ohwi의 주피(周皮)를 제거한 뿌리. 중국에서는 칡(野葛) *Pueraria lobata* (Willd.) Ohwi 혹은 감갈등(甘葛藤 ; 粉葛) *Pueraria thomsonii* Benth.의 근을 기원으로 한다.

갈우(鶡羽) [경혈] ⇒ 구미(鳩尾)

갈조화(葛條花) [약물] : 본초 ⇒ 갈화(葛花)

갈화(葛花) [약물] 동 갈조화(葛條花) : 본초 콩과 (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 등본(多年生 藤本)인 칡 *Pueraria lobata* Ohwi의 꽃봉오리.

감(蚶) [약물] ⇒ 와릉자(瓦楞子)

감갈(疳渴) [병증] : 소아 감병(疳病) 중에 갈증이 심하여 물 마시기를 좋아하는 병증. 대부분 소아가 단 음식을 좋아하여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것이 쌓여 열이 생기고, 그 열이 비위의 진액(津液)을 소모시켜 발생.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지만 계속 갈증이 나며, 번열불안(煩熱不安)한 증상이 나타난다.

감감(甘疳) [병증] : 소아 감질의 하나. 비가 허한데 기름지고 단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생긴다. 눈이 깔깔하거나 때로 흰 막이 생기며 입술은 희고 몸은 검누르게 되고 찬 곳에 눕기를 좋아하며 머리와 코에 헌데가 잘 생기고 머리털이 성글고 엉켜 있으며 머리는 크나 목은 가늘고 몸은 여위나 배는 크고 배에 정맥이 노창되어 있으며 누르스름한 거품이 섞인 대변을 누는데 때로는 피고름이 섞이기도 한다.

감갑(嵌甲) [병증] ⇒ 탈저(脫疽)

감고(疳蠱) [병증] : 소아 감질의 하나. 감질로 생긴 고독을 말함. 배가 끓고 대변 첫 부분은 검고 굳으며 뒷부분은 묽고 온몸에 늘 가려운 감이 있다.

감곽(坎廓) [진찰] ⇒ 동신(瞳神)

감극(疳極) [병증] : 소아 감질(疳疾)이 몹시 심해진 상태를 말함.

감두(疳肚) [병증] : 소아 배가 부르고, 배에 푸른 힘줄이 나타나는 소아의 병증. 과식으로 비위를 손상하여 비위가 운화기능을 상실하여 발생하며, 경맥(經脈)이 막혀 복벽에 푸른 힘줄이 나타난다.

감로(疳癆) [병증] : 소아 폐감(肺疳)에 속하는 위중한 병증으로 노(癆)는 골증해로(骨蒸孩癆), 동자로(瞳子癆)라고도 하는데, 대개 결핵병과 유사. 증상은 감열(疳熱)로 골증(骨蒸)이 나며, 해수(咳嗽), 성한(盛汗) 등을 수반.

감리(疳痢) [병증] : 소아 감질(疳疾)에 이질(痢疾)이 겸한 병증. 대부분 불결한 음식과 한온실조(寒溫失調)에서 생김. 감증 증상 외에 복통, 이급후중(裏急後重), 하리농혈(下痢膿血) 등의 증상이 있다.

감모(感冒) [병증] : 내과 감(感)은 감수(感受), 모(冒)는 촉모(觸冒) 혹 역범(逆犯)의 뜻으로, 기후변화, 한난실상(寒暖失常), 저항력감소, 풍한사(風寒邪)의 침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외감(外感)의 일종. 오한(惡寒) 발열(發熱) 두통(頭痛) 전신피로(全身疲勞) 비색성중

(鼻塞聲重) 다체류체(多嚏流涕) 인양해수(咽痒咳嗽) 등의 증상이 나타남.

감모협경(疳冒挾驚) [병증] : 소아 신기(神氣)가 나약한 소아가 외감(外感) 후 외부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물건을 보고 놀라는 병증. 사열(邪熱)의 자극을 받아 신지(神志)가 편치 못하여 생기기도 함. 정신이 불안한 것이 주된 증상이며, 신열번조(身熱煩躁), 면색청백(面色青白), 수와불안(睡臥不安), 담전심경(膽戰心驚) 등이 나타난다.

감모협식(感冒挾食) [병증] : 소아 감모에 식적(食積)을 겸한 병증. 발열, 오한, 두통, 몸살 등의 감모 증상 외에 항상 완민애기(脘悶噯氣)하고 시큼한 구취가 나며,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토하고 배가 더부룩한 증상 등을 수반.

감모협열(感冒挾熱) [병증] : 소아 감모에 이열(裏熱)을 겸한 병증. 체질이 연약하고 소화력이 약한 소아가 음식을 잘못 먹어 담(痰)과 열(熱)이 생겨 장부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풍한외사(風寒外邪)가 침입하면 외사와 내열이 서로 싸워서 울증화화(鬱蒸化火)하므로 발생. 면홍(面紅), 순초(脣焦), 구비건조(口鼻乾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때때로 오한이 나고 발열, 구갈희랭(口渴喜冷), 심신번조(心身煩躁), 섬망(譫妄)과 이변폐결불통(二便閉結不通) 등의 열상(熱象)이 있다.

감벽(疳癖) [병증] : 소아 소아에게 나타나는 감(疳)으로 인한 벽질(癖疾)로, 감(疳)과 벽(癖)이 모두 있는 병증. 벽괴가 우협(右脇) 밑에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빗살 같고 만지면 은근하게 아프다. 또한 기육(肌肉)이 말라 점차 수척해지며, 조열(潮熱)이 있거나 배가 점점 커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감비(疳鼻) [병증] ⇒ 비감(鼻疳)

감사(疳瀉) [병증] : 소아 감(疳)으로 인한 설사. 감과 사(瀉)의 합병증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설사를 먼저 치료하되, 감의 허실(虛實)과 경중(輕重)을 감안하여 부비화위(扶脾和胃)의 방법을 써야한다.

감석(甘石) [약물] ⇒ 노감석(爐甘石)

감송(甘松) [약물] : 본초 ⇒ 감송향(甘松香)

감송향(甘松香) [약물] 동 감송(甘松) : 본초 마타리과(敗醬科 : Valeria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多年生草本)인 감송향 *Nardostachys chinensis* Batal.과 관엽감송(寬葉甘松) *N. jatamanse* DC.의 근과 근경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 쇄건(曬乾)하여 사용.

감수(疳瘦) [병증] : 소아 감으로 몸이 여위어 뼈대만 앙상한 병증. 대부분 젖 먹은 것이 쌓여서 열로 변하고 이로 인해 비위가 손상되어 운화작용을 못함으로써 음식물의 정미(精微)를 기부(肌膚)에 충분히 영양, 공급하지 못하여 생긴다. 면색위황(面色痿黃), 피부건조(皮膚乾燥), 복요여주(腹凹如舟) 등의 증상이 나타남.

감수(疳嗽) [병증] : 소아 감으로 일어나는 해수(咳嗽)로서, 대부분 감열(疳熱)로 폐기가 손상 받아 생기는 병증. 감 이외에 해수객담(咳嗽咯痰), 흉민기급(胸悶氣急), 소수(消瘦), 도한(盜汗), 오심번열(惡心煩熱) 등의 증상을 수반.

감수(甘遂) [약물] 동 감택(甘澤) : 본초 대극과(大戟科 : Euphorbiaceae)에 속한 다년생 육질초본(肉質草本)인 감수 *Euphorbia kansui* T.N. Liu et T.P. Wang의 괴근으로, 봄에 개화 전 혹은 늦가을에 경엽(莖葉)이 고위(枯萎)한 후 채취, 외피(外皮)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감수곽(坎水廓) [진찰] ⇒ 동신(瞳神)

감수성(感受性) [병리] : 병리 인체가 어떤 질병에 특히 쉽게 걸리는 경향. → 체질(體質)

감식기(減食期) [기타] : 재활 절식요법의 첫 번째 단계로 단식 전의 예비기간이자 절식을 위한 준비기간. 보통 단식일수의 1~1/2의 일수에 해당하며 점감식(漸減食)을 한다.

ㄱ

감식창(疳蝕瘡) [병증] : 소아 승장혈(承漿穴) 부위가 빨갛게 짓무른 것.
감안(疳眼) [병증] ⇒ 소아감안(小兒疳眼)
감열(疳熱) [병증] : 소아 감질(疳疾)로 인해 발생하는 열.
감질상목(疳疾上目) [병증] ⇒ 소아감안(小兒疳眼)
감저(甘疽) [병증] : 안이 과도한 사려(思慮)나 우울(憂鬱)로 기가 울결되어 중부혈 바로 아래(中府穴直下, 手太陰肺經)에 발생하는 옹저(癰疽).
감적(疳積) [병증] : 소아 감(疳)에 적체가 겸하여 생기는 병증. 적은 대부분 날 것, 찬 것, 단 것, 기름진 것, 끈끈하고 느끼한 음식물을 즐겨 먹어, 이것이 중완(中脘)에 적체되고, 비위가 소화시키지 못하여 생긴다. 증상은 복창(腹脹), 복통, 구토, 설사가 생기고 배설물에서 시큼하고 썩는 냄새가 나며, 오래되면 몸이 마르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배 부위에 근육이 경직되어 푸르게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보인다.
감적토(疳積吐) [병증] : 소아 감적(疳積)이 오래되어 먹으면 곧 토하는 병증. 식적(食積)으로 일어나는 감은 오래되면 위 속에 열이 생겨 진액을 손상시키니, 위 속에 진액이 마르면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감종창(疳腫脹) [병증] : 소아 감에 부종이나 복창이 겸하여 나타나는 병증. 폐기(肺氣)가 잘 퍼지지 않고 비(脾)가 건운(健運)하지 못하면 흉격(胸膈)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며 숨을 헐떡이는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감증(疳症) [병증] : 소아 비위(脾胃)의 운화(運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만성 영양 장애성 병증. 대부분 5세 이내의 소아에게 발생. 주요 병인은 음식물을 잘못 조절하여 비위(脾胃)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육음역독(六淫疫毒), 각종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오랜 열병으로 비위가 허약해진 것. 이 증상은 대부분 영양불량, 만성소화불량 후 또는 소아가 결핵을 앓은 후나 기타 만성전염병 후에 나타난다.
감질소단(疳疾消癉) [병증] : 소아 감질(疳疾)로 인해 소갈(消渴)이 된 것.
감질식역(疳疾食亦) [병증] : 소아 감질(疳疾)이 있어 음식을 잘 먹는데도 몸이 마르는 것.
감창(疳瘡) [병증] 동 하감창(下疳瘡), 투정창(透頂瘡), 정창(精瘡), 치창(恥瘡) : 안이 음경(陰莖) 및 음기(陰器)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성기병(性器病)을 지칭.
감초(甘草) [약물]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 초본(多年生 草本)인 감초(甘草, 만주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 광과감초(光果甘草, 유럽감초) *G. glabra* L.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뿌리와 주출경(走出莖)을 그대로(껍질이 붙어 있는 감초)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껍질을 벗긴 감초)이다.
감초수자(甘草水炙) [수치] : 본초 제법(製法)의 일종. 감초를 달인 물에 약재를 담갔다가 굽는 것을 말함. 이 방법을 쓰면 해독작용이 강해지고, 약성이 조화, 완화된다.
감충(疳蟲) [병리] : 소아 뱃속에 충(蟲)이 생겨 발생하는 감병(疳病).
감태(甘苔) [약물] ⇒ 해조(海藻)
감택(甘澤) [약물] ⇒ 감수(甘遂)
감한(感寒) [병리] : 병리 한사(寒邪)가 침입한 것. 감모(感冒)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감홍(甘汞) [약물] ⇒ 경분(輕粉)
감황(疳黃) [병증] : 소아 감(疳)으로 온몸이 누렇게 되는 병증. 감으로 인해 중초(中焦)에 습열(濕熱)이 울증(鬱蒸)하여 비(脾)가 운화 기능을 잃거나 또는 감이 오래되면 혈허(血虛)로 황종(黃腫)이 오는 경우가 있다. 증상은 온몸이 누렇게 되면서 붓는 것이 마치 황달 같으나 눈은 노랗지 않고, 항상 피로하고 정신이 흐릿하며, 간혹 누런 물을 토해내고, 머리카락

이 곧추서면서, 이상한 것을 먹으려고 한다.
갑저(甲疽) [병증] ⇒ 탈저(脫疽), 대지(代指)
갑착(甲錯) [병증] ⇒ 기부갑착(肌膚甲錯)
강(綱) [진찰] : 진단 중경십이맥(仲景十二脈)의 하나. 고맥(高脈)과 장맥(章脈)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맥으로, 맥이 올 때 충만한 상(象)을 말함.
강간(强間) [경혈] 동 대우(大羽)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18)로서 후정(後頂) 뒤 1촌 5푼에 위치.
강강(剛强) [병증] ⇒ 강경(剛痙)
강경(剛痙) [병증] 동 강치(剛痓), 강강(剛强) : 정신 발열오한, 두요구금(頭搖口禁), 수족경련구급(手足痙攣拘急) 혹은 축닉(搐搦), 심하면 각궁반장(角弓反張), 맥현긴(脈弦緊)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병증.
강구법(薑灸法) [침구] ⇒ 격강구(隔薑灸)
강궁(絳宮) [생리] ⇒ 심(心)
강기(降氣) [치법] 동 하기(下氣), 강기법(降氣法) : 방제 기가 상역(上逆)하는 것을 끌어내리는 치법으로, 천식, 해수, 애역(呃逆) 등의 증상에 적용.
강기법(降氣法) [치법] ⇒ 강기(降氣)
강랑주(蜣螂蛀) [병증] : 안이 수지골절(手指骨節)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점차 종(腫)이 단단해지며 형상은 선두(蟬肚)와 같아짐.
강반하(薑半夏) [약물] : 본초 반하를 생강 달인 물이나 즙으로 법제한 것.
강상(强上) [증상] : 내과 목이 뻣뻣하면서 눈을 치뜨는 것으로 상한태양병(傷寒太陽病), 파상풍, 중풍 전구증(前驅症) 때 주로 나타남.
강설(絳舌) [진찰] : 진단 설질(舌質)이 짙은 홍색을 띠는 것. 이것은 온병열사(溫病熱邪)가 영분(營分)으로 들어간 설상(舌狀)이다.
강양(强陽) [경혈] ⇒ 낙각(絡却)
강양부도(强陽不倒) [병증] ⇒ 양강(陽强)
강음(强陰) [치법] ⇒ 보음법(補陰法)
강잠(姜蠶) [약물] ⇒ 백강잠(白殭蠶)
강중(强中) [병증] ⇒ 양강(陽强)
강중증(强中證) [병증] ⇒ 양강(陽强)
강즙자(薑汁炙) [포제] 본초 한약 포제법의 일종. 한약재를 생강 달인 물이나 생강즙에 담갔다가 볶는 것을 말함.
강직(强直) [병증] : 재활 관절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뻣뻣해지는 것.
강진향(降眞香) [약물] 동 강향(降香)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낙엽교목(落葉喬木)인 강향단(降香檀) *Dalbergia odorifera* T. Chen.의 변재를 제거한 근의 심재. 중국에서는 수간(樹幹) 심재도 사용.
강치(剛痓) [병증] ⇒ 강경(剛痙)
강향(降香) [약물] : 본초 ⇒ 강진향(降眞香)
강활(羌活) [약물]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강활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의 뿌리 또는 같은 과의 중국강활 *Notopterygium incisum* Ting 혹은 관엽강활(寬葉羌活) *Notopterygium forbesii* Boissier 의 근경 및 근.
강황(薑黃) [약물] 동 조강황(條薑黃)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숙근초본(宿根草本)인 강황 *Curcuma longa* L.의 근경으로, 겨울에 경엽이 마를 때 채취하여 세정(洗淨)한 다음 삶거나 쪄서 쇄건(曬乾)하여 사용.
개(疥) [병증] ⇒ 개창(疥瘡)
개규법(開竅) [치법] ⇒ 개규법(開竅法)
개규법(開竅法) [치법] 동 개폐(開閉), 개규통신(開竅通神), 개폐법(開閉法), 개규(開竅) : 방제 사기(邪氣)가 심규(心竅)를 가로막아 발생하는 정신혼미를 치료하는 방법. 사감기실(邪感氣實)의 폐증을 치료하는데 적용하며 량개법(凉開法)과 온개법(溫開法)이 있다. 신향주규(辛香走竅)하는 사향, 빙편, 소합향, 석창포 등의 약물을 상용. 또 청열개규(淸熱開竅)·

ㄱ

화담개규(化痰開竅)·축한개규(逐寒開竅)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개규통신(開竅通神) [치법] ⇒ 개규법(開竅法)

개금(開噤) [치법] 동 개금통관(開噤通關), 개금법(開噤法) : 방제 개폐법(開閉法)의 하나. 중풍으로 인한 아관긴폐(牙關緊閉), 혼미불성(昏迷不醒)을 치료하는 방법.

개금법(開噤法) [치법] ⇒ 개금(開噤)

개금통관(開噤通關) [치법] ⇒ 개금(開噤)

개선(疥癬) [병증] ⇒ 개창(疥瘡)

개울(開鬱) [치법] 동 관중(寬中), 관흉(寬胸), 해울(解鬱), 개울법(開鬱法), : 방제 정지억울(情志抑鬱)로 야기된 기체(氣滯)를 치료하는 방법.

개울법(開鬱法) [치법] ⇒ 개울(開鬱)

개위(開胃) [치법] : 방제 소법(消法)의 하나. 즉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

개자(開刺) [침구] ⇒ 관자(關刺)

개자(芥子) [약물] 동 겨자, 개채자(芥菜子), 황개자(黃芥子), 백개자(白芥子) : 본초 십자화과(十字花科 : Crucifer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인 갓 *Brassica juncea* (L.) Czern. et Coss.의 성숙한 종자로 늦은 여름과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중국에서는 백개(白芥) *Sinapis alba* (L.)도 인정.

개자구(芥子灸) [침구] 동 겨자뜸 : 침구 뜸 요법의 하나로 백개자(白芥子)를 갈아서 가루 낸 후 개어서 관련된 혈 자리 위에 붙여 놓고 살갗에 물집이 생기게 하는 것.

개자습포법(芥子濕布法) [치법] : 재활 개자를 곱게 분말하여 식초에 개어서 환부에 붙이는 방법. 질타손상(跌打損傷), 관절동통을 치료할 때 사용.

개창(疥瘡) [병증] 동 개(疥), 개선(疥癬) : 안이 풍열습사가 울결되거나 개선충(疥癬蟲)을 보유한 개창환자(疥瘡患者)와 접촉하여 전염되어 가렵고 아프며 황색의 삼출물(滲出物)이 흐르는 창증(瘡症).

개채자(芥菜子) [약물] ⇒ 개자(芥子)

개폐(開閉) [치법] ⇒ 개규법(開竅法)

개폐법(開閉法) [치법] ⇒ 개규법(開竅法)

개합보사(開闔補瀉) [침구] 동 개합보사법(開闔補瀉法) : 침구 침을 뽑은 후 침구멍을 열고 닫는 것으로 보(補)하고 사(瀉)하는 방법.

개합보사법(開闔補瀉法) [침구] ⇒ 개합보사(開闔補瀉)

개합운기법(開合運氣法) [침구] ⇒ 운기법(運氣法)

개합추(開闔樞) [생리] ⇒ 관합추(關闔樞)

개혈(開穴) [침구] : 침구 발침(拔針)한 후 혈(穴)을 손으로 눌러 닫지 않고 열어두는 것.

객기(客氣) 원전 ① [운기] 동 천기(天氣) : 천기를 말함.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땅의 기를 주기(主氣, 地氣)라고 하며, 천기(天氣)는 외부(하늘)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객기라고 한다. 운기학에서는 이를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서, 삼음삼양(三陰三陽)의 분화에 따라 육기(六氣)로 나누고 있다. ② [병리] : 외부로부터 침탈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외사(外邪)를 말함.

객사(客邪) [병리] : 병리 밖으로부터 인체에 침입한 사기(邪氣).

객색(客色) [진찰] : 진단 망진(望診)에서 기후·환경 및 당시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안면색을 지칭. 정상 피부색인 주색(主色)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객색과 주색은 모두 정색(正色)의 범주에 속함. → 정색(正色), 주색(主色)

객열(客熱) [병증] : 소아 소아에게 나타나는 발열로 발생과 휴지가 일정하지 않은 병증. 마치 손님이 일정하지 않게 왕래하는 것과 같다 하여 붙여진 명칭.

객오(客忤) [병증] 동 중객오(中客忤), 중오(中忤), 소소객오(少小客忤), 졸오(卒忤) : 소아 신

기(神氣)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소아가 별안간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또는 이상한 물체를 보고, 놀라서 울며 심하면 안색까지 변하는 병증. 풍담(風痰)이 서로 엉클어져 비위(脾胃)에 영향을 주면 수곡의 운화(運化)와 수납(受納)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며, 구토, 설사, 복통, 반측계종(反側瘈瘲)이 일어나 경간(驚癎)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객오경(客忤痙) [병증] : 정신 소아경병(小兒驚病)의 하나. 소아가 신기겁약(神氣怯弱)함으로 인해 놀라서 발생하는 병증. 열이 나면서 유한(有汗) 혹은 무한(無汗)하고, 안색이 파래졌다 벌개졌다 하며, 잠꼬대를 하고, 수족이 연동(蠕動)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객오야제(客忤夜啼) [병증] ⇒ 야제(夜啼)

객운(客運) [운기] : 원전 주운(主運)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주운이 일년의 오계(五季) 즉, 춘·하·장하·추·동 오계절의 상규(常規)변화(규칙적 변화)를 말한다면 객운은 오계절의 특수 기후 변화를 말한다.

객주(客主) [경혈] ⇒ 상관(上關)

객주가임(客主加臨) [운기] : 원전 해마다 윤전(輪轉)하는 객기가 고정된 주기의 위에 가임(加臨)하여 기후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

객주인(客主人) [경혈] ⇒ 상관(上關)

객혈(喀血) [병증] 동 각혈(咯血) : 내과 폐, 기관지로부터의 출혈증상. 해수와 함께 객출(喀出)되기 때문에 담(痰)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갱미(粳米) [약물] 동 경미(硬米)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벼 (稻) *Oryza sativa* Linne의 외과피를 벗긴 종자.

거(擧) [진찰] : 진단 맥진(脈診)할 때 사용되는 운지법(運指法)의 하나. 맥진 부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놓고서 순(順)하는 것으로 부맥(浮脈)의 종류를 진찰하는데 사용됨. → 운지(運指)

거각(祛殼) [포제] : 본초 약재 가공법의 일종. 열매나 씨앗의 딱딱한 껍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거경(居經) [병증] : 부인 병이 없는데도 월경이 3개월에 한 번 오는 경우를 가리킴. 병리적 현상이 아니다.

거경(祛莖) [포제] : 본초 근을 사용하는 약물에서 비약용 부위인 잔경(殘莖)을 제거하는 방법.

거골(巨骨)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6)로서 빗장뼈의 봉우리끝(쇄골견봉단; acromial end of clavicle)과 어깨뼈가시(견갑극; spine)와의 사이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거구맥(巨句麥) [약물] ⇒ 구맥(瞿麥)

거궐(巨闕)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4)로서 심의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전정중선(前正中線)의 배꼽 위 6촌에 위치.

거궐수(巨闕兪) [기혈] : 경혈 경외기혈(經外奇穴)의 하나로서 첫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측 각 1촌에 위치.

거근(祛根) [포제] : 본초 경(莖)을 사용하는 약물에서 비약용 부위인 잔근(殘根)을 제거하는 방법.

거담(祛痰) [치법] ⇒ 거담법(祛痰法)

거담법(祛痰法) [치법] 동 소담(消痰), 화담(化痰), 척담(滌痰), 활담(豁痰), 거담(祛痰), 화담약(化痰藥) : 방제 가래를 없애는 치료법을 통틀어 이른 말. 거담법에는 화담·소담·척담법이 있는데 이 중 화담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가래가 잘 나가도록 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거두(祛頭)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동물성 약재에서 두부(頭部)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거래심통(去來心痛) [병증] 동 거래통(去來痛) : 내과 증상이 있다 없다 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심통(心痛).

ㄱ

거래통(去來痛) [병증] ⇒ 거래심통(去來心痛)

거로(祛蘆) [포제] : 본초 노(蘆)는 노두(蘆頭)라고 하며, 근두(根頭), 근경(根莖), 잔경(殘莖), 엽기(葉基) 등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 거로(祛蘆)하는 약물로는 인삼, 당삼(黨參), 현삼, 길경, 지유, 방풍, 속단, 우슬, 초오, 천초(茜草) 등이 있음.

거료(居髎)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9)로서 위앞엉덩뼈가시(전상장골극;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와 큰돌기(대전자; great trochanter)의 가장 높은 점 중간에 위치.

거료(巨髎)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로서 앞을 똑바로 보고 있을 때 눈동자를 지나는 수직선과 콧구멍 끝을 잇는 수평선과의 교차점에 위치.

거모(祛毛) [포제] : 본초 약재의 표면이나 내부에 있는 융모를 제거하는 것. 이는 융모가 인후를 자극하여 해수나 기타 유해 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거백(祛白)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진피나 지각 등의 약재에서 껍질 안쪽의 흰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거병체(祛柄蔕)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식물성 약재에서 과실에 달려 있는 꼭지, 입 자루, 꽃대, 꽃받침, 잎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거사(祛邪) [치법] 동 거사법(祛邪法) : 방제 병사(病邪)를 몰아내는 것으로, 그 목적은 공하(攻下)하면서도 정기(正氣)를 보전하려는데 있다.

거사법(祛邪法) [치법] ⇒ 거사(祛邪)

거습(祛濕) [치법] : 방제 습사를 제거하는 방법. 화습(化濕), 조습(燥濕), 이습(利濕) 등의 방법으로 나누는데, 습사가 상초에 있을 때는 화습법을, 중초에 있을 때는 조습법을, 하초에 있을 때는 이습법을 적용한다.

거심(祛心) [포제] : 본초 근경이나 열매, 종자 속의 목질부를 제거하는 것. 천문동, 맥문동, 원지 등이 이에 해당.

거쌍인(祛雙仁)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약재에서 속 알이 2개인 것을 제거하는 것. 고서에는 쌍인에 독성이 있다고 하였지만 그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다. 도인, 행인 등에 적용.

거안(拒按) [증상] : 병리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아픔이 더 심해져서 손을 대지 못하게 거부하는 현상. 희안(喜按)에 상대되는 말.

거양(巨陽) [생리] ⇒ 태양(太陽)

거양(祛瓤)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열매 중에서 약용하지 않는 속을 파서 제거하는 것을 가리킴. 지실 등이 이에 속함.

거어(祛瘀) [치법] 동 화어(化瘀), 화어약(化瘀藥) : 방제 치법의 일종. 활혈약(活血藥)으로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함.

거엽(祛葉)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줄기를 약용하는 약재에서 잎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거유(祛油)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약물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 육두구는 젖은 종이에 싸서 불에 구워 기름을 제거하고, 파두, 속수자(續隨子) 등은 절구에 찧은 후 한지에 싸서 눌러 놓음으로써 기름을 제거하며, 어떤 약물은 빻아서 물에 담가 놓아 기름이 물위에 뜨면 제거한다. 목적은 맹렬한 독성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거자(祛刺)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약재에 달려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불에 그을리는 방법, 볶는 법, 기계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백질여, 창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거자(巨刺) [침구] 동 거자법(巨刺法) : 침구 구자(九刺)의 하나. 병이 있는 환측(患側) 대신 건측(健側)의 정경(正經) 수혈(兪穴)을 자침(刺鍼)하는 침법.

거자법(巨刺法) [침구] ⇒ 거자(巨刺)

ㄱ

거재(祛滓)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수전(水煎)한 후 약물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거절(祛節)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약재의 마디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발한(發汗)할 목적으로 마황을 쓸 때는 지한(止汗)작용이 있는 마디 부분을 제거한다.
거침(去鍼) [침구] ⇒ 발침(拔鍼)
거침(巨鍼) [침구] : 경혈형태가 호침(毫鍼)과 비슷하나 몸통이 조금 더 굵고 긴 침.
거침법(巨鍼法) [치법] 동 거침요법(巨鍼療法) : 침구 거침(巨鍼)으로 몸에 자극을 주어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거침요법(巨鍼療法) [치법] ⇒ 거침법(巨鍼法)
거풍(祛風) [치법] 동 설풍(泄風), 소풍(疏風) : 방제 풍사(風邪)를 소산(消散)시키는 것으로서, 표리, 장부, 경락에 유체(留滯)되어 있는 풍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풍은 외풍(外風)과 내풍(內風)으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외풍은 소산(疏散)하고, 내풍은 식풍(熄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개 거풍법(祛風法)은 외풍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거피(祛皮) [포제] : 본초 비약용 부위인 표피(表皮, 코르크층), 과피(果皮) 또는 종피(種皮)를 제거하는 것.
거피첨(祛皮尖)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씨를 약용하는 약재에서 씨의 속껍질과 끝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인, 도인이 이에 해당.
거한(祛寒) [치법] ⇒ 온법(溫法)
거한법(祛寒法) [치법] ⇒ 온법(溫法)
거함(祛鹹)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약재를 물에 담가 짠맛을 없애는 것. 해대(海帶), 염부자(鹽附子), 전갈(全蝎) 등에 적용.
거핵(祛核) [포제] : 본초 과실류 약물 중 과육(果肉)만 사용하고 핵(核, 종자)은 제거하는 것.
거화독(祛火毒) [포제] : 본초 포제법의 하나로서 고약(膏藥)의 화독(火毒)을 제거하는 방법. 예컨대 고약을 만든 후에 화독을 제거하지 않고 피부에 바르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며, 심하면 짓물러 터지기도 하는데, 거화독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거활니(祛滑膩)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 약재에서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건각기(乾脚氣) [병증] : 내과 족슬(足膝)이 붓지 않는 각기병(脚氣病).
건각법(乾角法) [치법] : 침구 피부표층의 음압에 의한 일혈(溢血)반응을 이용하여 체내에 정체된 담(痰)과 변조된 혈액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건감(乾疳) [병증] : 소아 소아가 젖을 잘못 먹어 심폐(心肺)에 열이 쌓여 진액(津液)이 허손(虛損)되어 발생한 병. 증상은 몸이 여위고, 피부가 건조하며, 양 눈은 건조하고 움푹 들어가며, 또 구건순조(口乾脣燥), 경항도사(頸項倒斜) 등이 나타난다.
건강(乾薑) [약물]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생강 *Zingiberis officinale* Rosc.의 근경을 건조한 것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혹은 미화(微火)로 홍건(烘乾)하여 사용.
건개(乾疥) [병증] : 안이 폐경(肺經)의 조열(燥熱)에 기인하여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며 백색의 인설(鱗屑)이 떨어지는 개창(疥瘡).
건곽란(乾霍亂) [병증] 동 교장사(攪腸痧) : 내과 복창교통(腹脹絞痛)하며, 번조민란(煩躁悶亂)하고, 토(吐)할 것 같으면서 토하지 못하고, 사(瀉)할 것 같으면서 사하지 못하는 병증.
건구(乾嘔) [증상] 동 간울건구(肝鬱乾嘔), 곽란건구(霍亂乾嘔) : 내과 구토(嘔吐)할 때에 소리만 나고 토물(吐物)이 없는 증상.
건율(乾栗) [약물] 동 율자(栗子) : 본초 참나무과 (斛科 : Fagaceae)에 속한 다년생 교목인

ㄱ

밤나무 *Castanea crenata* Siebold.et Zuccarini의 종피를 벗긴 종자. 중국에서는 판율(板栗) *Castanea mollissima* Bl.의 종자를 기원으로 함.

건기(愆期) [병증] ⇒ 월경후기(月經後期)

건리(建里)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1)로서 배꼽 위 3촌에 위치.

건망(健忘) [증상] 동 선망(善忘), 희망(喜忘), 다망(多忘), 호망(好忘) : 정신 기억력 감퇴로 인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킴. 대부분 심, 신, 뇌의 정(精)·수(髓) 부족으로 인해 발생.

건목욕(乾沐浴) [치법] ⇒ 건욕(乾浴)

건비(健脾) [치법] 동 익비(益脾), 보비(補脾), 배토(培土) : 방제 보법(補法)의 하나. 비허(脾虛)로 인한 운화기능 감퇴를 치료하는 방법. 비기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건비이강음(健脾而降陰)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서 언급된 용어. 소음병(少陰病)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면서 입이 마르고 깔깔한 것으로 온몸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는 표병(表病)을 겸하고 있다. 이것은 표리(表裏)가 모두 병이 든 것으로 대장(大腸)의 차가운 기운이 위중(胃中)의 따뜻한 기운을 이기면서 상승한 것이다. 이는 결국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핍박하여 생기는 설사이므로 온위(溫胃)하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미약하여 건비(健脾)하면서 강음(降陰)하는 방법을 취한다.

건선(乾癬) [병증] : 안이 가려운 증상과 함께 운모(雲母) 모양의 은백색의 큰 인설(鱗屑)이 부착되어 있고, 건조되어 있는 선증(癬證).

건수(乾嗽) [병증] ⇒ 건해(乾咳)

건애식취(乾噯食臭) [증상] ⇒ 애부(噯腐)

건약법(乾藥法)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법의 일종으로 약재를 말리는 방법을 가리킴. 약재를 건조시키는 목적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유효성분을 보존하며, 운반 및 보관의 편이를 위해서인데 한약은 건조온도와 조건에 따라 유효성분이 변질되거나 함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건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방향성이 많은 약물은 30~40℃에서, 배당체와 알칼로이드가 주성분인 약물은 50~60℃에서, 비타민이 많은 약물은 70~80℃에서 건조시킨다. 또한 햇볕이나 건조실을 이용하여 말리기도 하는데 뿌리나 열매, 전초(全草)는 햇볕에서 말리고, 꽃이나 방향성분 및 색소가 들어 있는 전초와 잎은 그늘이나 건조실에서 말린다.

건욕(乾浴) [치법] 동 자가추나법(自家推拿法), 건목욕(乾沐浴) : 재활 손으로 지체(肢體)를 문질러 열이 나게 함으로써 소풍산한(疏風散寒)하고 경락이 소통되도록 하는 방법.

건위(健胃) [치법] : 위(胃)의 소화기능을 강하게 하는 방법.

건저(乾疽) [병증] : 안이 견전렴(肩前廉, 大腸經) 즉, 좌우의 쇄골 외측 아래 부위에 해당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옹저.

건지황(乾地黃) [약물] : 본초 현삼과(玄參科 : Scrophular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지황 *Rhe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itz의 뿌리로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말려 사용.

건칠(乾漆) [약물] : 본초 옻나무과(漆樹科 : Ana- cardi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옻나무 *Rhus verniciflua* Stokes의 수지(樹脂)로, 여름에 경간(莖幹)과 수피(樹皮)에 자상(刺傷)을 입혀 흘러나오는 수지를 건조하여 만듦.

건해(乾咳) [병증] 동 건수(乾嗽), 건해수(乾咳嗽) : 내과 가래가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기침.

건해수(乾咳嗽) [병증] ⇒ 건해(乾咳)

건혈(乾血) [병리] ⇒ 어혈(瘀血)

건혈로(乾血癆) [병증] : 내과 기혈허손이 심한 위증(危證)중 하나. 기육일소(肌肉日消), 면목회암(面目晦暗), 근연무력(筋軟無力), 관절활동불리(關節活動不利), 골연난행(骨軟難行), 한온난적(寒溫難適) 등의 증상이 나타남.

건협통(乾脇痛) [증상] : 내과 허로증이 심하여 협하(脇下)에 항상 일점의 동통이 그치지 않는 증상.
건황(乾黃) [병증] : 내과 황달 중에서 습보다 열에 편중된 것.
건흘(蹇吃) [병증] 동 구흘(口吃) : 내과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병증.
검경정동(瞼硬睛疼) [병증] 동 검경정통(瞼硬睛痛) : 안이 내맥립종(內麥粒腫)이나 검판선(瞼板腺)의 화농성 염증으로도 오며 안검 주변부에 경결과 동통을 동반하고 충혈이 있는 병증.
검경정통(瞼硬睛痛) [병증] ⇒ 검경정동(瞼硬睛疼)
검급안소(瞼急眼小) [병증] : 안이 피급긴소(皮急緊小)와 유사. 안검내반(眼瞼內反)으로 인해 눈썹이 도첩(倒睫)되어 외피(外皮)가 축소되고 잘못된 치료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가 다시 도첩되기를 반복하는 병증.
검발(瞼發) [병증] : 안이 아래 눈꺼풀의 사백혈(四白穴)과 거료혈(巨髎穴)에 생기는 부스럼을 말함.
검실(芡實) [약물] 동 검인(芡仁), 계두화(鷄頭花) : 본초 수련과(睡蓮科 : Nymphaceae)에 속한 일년생 수생초본인 가시연꽃 *Euryale ferox* Salisb.의 성숙한 종인(種仁)으로,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과실을 채취하여 과피를 제거하고 씻은 뒤 다시 외종피(外種皮)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검인(芡仁) [약물] ⇒ 검실(芡實)
검척예(劍脊翳) [병증] : 안이 횡예(橫翳), 횡개예(橫開翳)와 유사하며 내장(內障)이 전극(前極)이나 후극(後極)에 부착되어 검 모양과 같으므로 방추상 백내장(紡錘狀 白內障)이라 하고 회백색에 초황색(焦黃色)을 띠고 동공(瞳孔)을 덮는다.
검현적란(瞼弦赤爛) [병증] 동 안현적란(眼弦赤爛), 풍현적란(風弦赤爛), 영풍적란(迎風赤爛), 연광적란(沿眶赤爛), 난현풍(爛弦風), 태풍적란(胎風赤爛), 난안변(爛眼邊), 홍안변(紅眼邊) : 안이 안검 주변이 홍적색을 띠고 붉게 짓무르는 질환으로 안검연염(眼瞼緣炎), 안검습진(眼瞼濕疹), 안각안검염(眼角眼瞼炎) 등을 말한다.
겁자(劫刺) [침구] ⇒ 쉬자(焠刺)
게순(揭脣) [증상] : 안이 입술이 위로 치켜 올라가는 증상.
겨자 [약물] ⇒ 개자(芥子)
겨자뜸 [침구] ⇒ 개자구(芥子灸)
격(格) [병리] : 병리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
격강구(隔薑灸) [침구] 동 강구법(薑灸法) : 침구 약 3mm 두께의 생강(生薑)조각에 가느다란 바늘로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뜸쑥을 올려놓은 후 혈 자리 부위에 놓고 뜸을 뜨는 방법.
격경(激經) [병증] 동 구태(垢胎), 임신경래(妊娠經來) : 부인 임신 후에도 일정 기간 월경과 같은 양상의 출혈이 나타나지만 태아에는 이상이 없는 병증.
격관(膈關)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6)로서 지양(至陽) 양쪽 각 3촌에 위치.
격물구(隔物灸) [침구] ⇒ 간접구(間接灸)
격법(擊法) [추나] : 추나 추나 수법 중의 하나. 격법은 손끝이나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근육을 두드리는 수기법으로서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 빈주먹으로 두드리는 공권격법(空拳擊法), 손가락을 모두 편 채 장근(掌根)부위를 이용하여 두드리는 장근격법(掌根擊法),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벌려서 약지측면이나 소어제(小魚際) 측면으로 두드리는 장측격법(掌側擊法),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지첨격법(指尖擊法), 상지봉(桑枝棒) 길이의 1/2이상 부위로 체표에 닿도록 가격하는 봉격법(棒擊法) 등이 있다. 격법은 서근해경(舒筋解痙)하는 작용이

ㄱ

있으며 주로 오래된 근상이나 피로손상 부위에 사용한다.

격병구(隔餠灸) [침구] ⇒ 격부구(隔附灸)

격부(擊仆) [병증] ⇒ 졸중(卒中)

격부구(隔附灸) [침구] 동 부병구(附餠灸), 격병구(隔餠灸), 약병구(藥餠灸) : 침구 혈자리 부위에 부자(附子) 등과 같은 맵고 따뜻하며 방향성 있는 약물로 만든 떡을 깔고 뜸을 뜨는 간접구의 하나.

격산구(隔蒜灸) [침구] 동 마늘뜸, 격산구법(膈蒜灸法) : 침구 약 3mm 정도 두께의 생마늘 조각에 가느다란 바늘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뜸쑥을 올려놓은 후 혈 자리에 놓고 뜸을 뜨는 방법.

격산구법(膈蒜灸法) [침구] ⇒ 격산구(隔蒜灸)

격색(隔塞) [병증] ⇒ 열격(噎膈)

격색불통(隔塞不通) [병증] ⇒ 열격(噎膈)

격소(鬲消) [병증] ⇒ 격소(隔消)

격소(隔消) [병증] 동 격소(鬲消) : 내과 열이 심에서 폐로 옮겨가서 전변된 병증.

격수(膈嗽) [병증] : 내과 기침이 격상(膈上)에서 나타나고 뱉어낸 가래가 원괴상(圓塊狀)을 나타내는 기침증상

격수(膈俞)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17)로서 지양(至陽)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격양(格陽) [병증] : 진단 ① 양기(陽氣)가 극도로 왕성해서 음기(陰氣)와 조화되지 못한 결과 기혈이 삼양경(三陽經)에 가득 차서 삼음경(三陰經)과 교류하지 못하고 서로 격거(格拒)하는 병증. 증상은 인영맥(人迎脈)의 박동이 촌구맥(寸口脈)보다 4배 크게 뛴다. ② ⇒ 진한가열(眞寒假熱)

격열(膈噎) [병증] ⇒ 열격(噎膈)

격염구(隔鹽灸) [침구] : 침구 깨끗하고 가는 식용소금을 볶아 배꼽에 1.5cm 정도 두께로 깐 다음, 그 위에 큰 뜸쑥을 올려놓고 뜸을 뜨는 방법.

격인(鬲咽) [병증] ⇒ 열격(噎膈)

격중(膈中) [병증] ⇒ 열격(噎膈)

견경(堅硬) [병증] : 내과 신체의 일부분이 굳어져 촉진시 단단하고 굳게 느껴지는 것.

견관절반법(肩關節扳法) [추나] : 재활 견관절을 최대한 선전 또는 신전시켜 교정하는 수기법.

견관절발신법(肩關節拔伸法) [치법] : 재활 조수가 환자의 몸을 고정시킨 자세에서 시술자가 두 손으로 환자의 팔을 잡거나 한 손으로 그 주관절을 잡고 점차 힘을 주어 잡아 당겨주는 방법.

견관절이완법(肩關節弛緩法) [치법] : 재활 근육의 구축이나 경직으로 인해 발생된 견관절의 운동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견인, 도인, 안마 등의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

견납(牽拉) [추나] ⇒ 견인법(牽引法)

견납법(牽拉法) [추나] ⇒ 견인법(牽引法)

견료(肩髎)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14)로서 팔을 밖으로 벌렸을 때 봉우리(견봉; acromion)의 뒤쪽 아랫면으로 어깨 관절의 어깨세모근(삼각근; deltoid)이 시작하는 부위의 뒤쪽에 생기는 오목한 곳에 위치.

견맥(肩脈) [경락] ⇒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견배통(肩背痛) [병증] : 재활 견배부의 근맥, 근육통을 가리키는데 대부분 풍습 혹은 장부내상, 기혈손상으로 인해 발생.

견비통(肩臂痛) [병증] : 재활 팔과 어깨에 동통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킴. 대부분 풍한습사나 외상으로 인해 야기되며 치료할 때는 풍한습사를 제거하고 기혈을 소통시킴.

견순(繭脣) [병증] 동 견순(繭唇) : 안이 비위의 화가 축적되어 생긴 입술부위의 암종(癌腫)을 지칭.

견순(繭唇) [병증] ⇒ 견순(繭脣)

ㄱ

견식(肩息) [증상] 동 견식증(肩息證) : 내과 숨이 가빠 소리가 나며 어깨를 들썩이면서 호흡하는 상태.

견식증(肩息證) [증상] ⇒ 견식(肩息)

견외수(肩外俞)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4)로서 도도(陶道) 양쪽 3촌으로 어깨뼈 안쪽모서리의 위쪽에 위치.

견우(肩髃)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5)로서 팔을 바깥쪽으로 벌렸을 때 어깨 관절에서 어깨세모근(삼각근; deltoid) 위쪽에 봉우리(견봉; acromion) 앞쪽 아래에 생기는 오목한 곳에 위치.

견우자(牽牛子) [약물] 동 흑축(黑丑) : 본초 메꽃과(旋花科 : Convolvulaceae)에 속한 일년생 등성초본(藤性草本)인 나팔꽃 *Pharbitis nil* Choisy의 종자로 7~10월에 과실이 성숙하였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견음(堅陰) [치법] ⇒ 보음법(補陰法)

견인골절(牽引骨節) [치법] : 제환 골절, 탈구 부위에 중복적으로 이위(移位)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본 수법. 양손으로 각각 골절 부위의 상단, 하단을 잡아당기거나, 혹은 기계의 힘을 빌려 서로 반대방향으로 끌어당긴 후 중복적으로 발생한 이위를 교정하여 정복(整復)하는 것.

견인법(牽引法) [추나] 동 견인요법(牽引療法), 견인추나(牽引推拿), 견인추압법(牽引推壓法), 수기법견인(手技法牽引), 발신법(拔伸法), 견납법(牽拉法), 견납(牽拉) : 추나 추나 수법 중의 하나.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사지 원위단 부위를 잡고 지속적으로 당겨서 견인하는데, 견인하는 부위에 따라 견부견인법(肩部牽引法), 주부견인법(肘部牽引法), 지지견인법(指趾牽引法)으로 구분. 견인법은 신체의 각 관절에 시술하며 당겨주는 힘에 의해 관절간극과 경련위축(痙攣萎縮)된 근건(筋腱)이 당겨져서 유착이 풀어짐으로써 관절을 교정시킬 수 있다. 특히 견인 하에서 각종 수기법을 진행하면 치료효과는 더욱 우수해진다. 견납법은 해경지통(解痙止痛), 활혈통락(活血通絡), 이근정복(理筋整復) 등의 효과가 있으며, 관절변위나 근상(筋傷) 및 지체연통(肢體攣痛), 마목(痲木) 등에 응용할 수 있다. 견관절 견납법에서는 조수가 환자의 몸을 고정시킨 자세에서 시술자가 두 손으로 환자의 팔을 잡거나 한 손으로 그 주관절을 잡고 점차 힘을 주어 잡아 당겨주며, 완관절 견납법에서 시술자는 한 손으로 환자의 전완 하단을 잡고 다른 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아서 양방향으로 협조적으로 힘을 가한다.

견인요법(牽引療法) [추나] ⇒ 견인법(牽引法)

견인추나(牽引推拿) [추나] ⇒ 견인법(牽引法)

견인추압법(牽引推壓法) [추나] ⇒ 견인법(牽引法)

견정(肩貞)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9)로서 겨드랑 뒤쪽 횡문 위 1촌에 위치.

견정(肩井)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1)로서 대추(大椎)와 봉우리(견봉; acromion)을 이은 선의 중점, 결분(缺盆12) 위쪽으로 빗장뼈(쇄골; Clavicle)와 어깨뼈가시(견갑극; Spine)의 중간에 위치.

견중수(肩中俞)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5)로서 대추(大椎) 양쪽 2촌에 위치.

견중저(肩中疽) [병증] : 안이 견중렴(肩中廉, 三焦經과 膽經) 즉, 좌우의 어깨 정중앙에서 발생하는 옹저.

견창(肩瘡) [병증] : 안이 어깨가 눌리거나 마찰로 인하여 생기는 창양(瘡瘍).

견풍독(肩風毒) [병증] : 안이 수양명경(手陽明經)의 견우혈(肩髃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결가(結痂) [병증] ⇒ 가(痂)

결가(結瘕) [병증] 동 결하(結瘕) : 부인 결병(結病)과 가병(瘕病)의 합칭으로 결(結)은 적취가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하

(瘕)는 복내(腹內)에 부유하면서 손으로 눌러 보면 형(形)이 있는 것을 말한다.

결근(結筋) [병증] : 풍랭(風冷)이 근맥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결절.

결담(結痰) [병리] ⇒ 울담(鬱痰)

결맥(結脈) [진찰]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오는 것이 느리면서 불규칙한 맥. 주로 음성기결(陰盛氣結), 기옹담체(氣壅痰滯), 적취징가(積聚癥瘕)의 병증에서 나타난다.

결명(決明) [약물] ⇒ 결명자(決明子)

결명자(決明子) [약물] 동 결명(決明)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결명 *Cassia obtusifolia* L.과 긴강남차(小決明) *C. ssia tora* L.의 성숙한 종자로, 가을철에 열매가 성숙할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

결분(缺盆)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2)로서 빗장위오목(쇄골상와; supraclavicular fossa)으로 빗장뼈 윗면의 중점, 천돌(天突) 양쪽 4촌에 위치.

결분자(缺盆子) [약물] ⇒ 복분자(覆盆子)

결분저(缺盆疽) [병증] 동 두저(蠹疽), 쇄골저(鎖骨疽) : 안이 유두(乳頭) 바로 위의 결분혈(缺盆穴)에서 발생하는 옹저(癰疽).

결양(結陽) [병증] 동 결양증(結陽證) : 기혈불창(氣血不暢)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지부종.

결양증(結陽證) [병증] ⇒ 결양(結陽)

결유(缺乳) [병증] ⇒ 유즙불행(乳汁不行)

결음(結陰) [병증] : 내과 사기가 음경(陰經)에 결(結)한 병증. 대변에 피가 많이 섞여나오는 증상으로 음경, 특히 족궐음간경과 족태음비경에 사기가 몰려 생김.

결찰요법(結紮療法) [치법] : 침구 치질을 다스리는 외치법의 하나로서 치핵의 밑동을 실로 동여맨 다음 조금씩 조여 썩어 떨어지게 하는 치료법.

결찰주사법(結紮注射法) [치법] : 안이 내치(內痔)를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 치핵을 실로 묶은 후 10%의 명반액이나 내치고위액(內痔枯萎液)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결하(結瘕) [병증] ⇒ 결가(結瘕)

결핵(結核) [병증] : 안이 피부내측, 근막외면에서 발생하며, 부인에게서는 항부(項部), 이(耳)의 전후, 흉협 등에서 많이 발생. 과일의 씨와 같이 단단하며 한열왕래하고 혹 종통(腫痛)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근막외면에 나타나고 동통이 없으므로 임파선결핵이나 장기결핵(臟器結核), 유중결핵(乳中結核)과는 다르다.

결후옹(結喉癰) [병증] 동 맹저(猛疽) : 안이 익외(嗌外) 정중앙(正中央)인 인후외면에서 발생하는 옹저.

결흉(結胸) [병증] 동 결흉증(結胸證) : 내과 가슴이 긴통하면서 번조하고(心緊痛而煩), 물이나 미음을 먹지 못하며, 몸을 뒤로 젖힐 수 있으나 앞으로 숙이지는 못하여 뻣뻣함이 유경상(柔痙狀)과 같은 병증.

결흉증(結胸證) [병증] ⇒ 결흉(結胸)

겸증(兼證) [병리] 동 부증(副證), 차증(次證) : 병리 몇 가지 병증이 함께 나타날 경우, 주(主)가 되는 병증을 주증이라 하고 부차적인 병증을 겸증이라 한다.

겸태증(兼胎症) [병증] ⇒ 임신목병(姙娠目病)

겹법(掐法) [추나] : 추나 추나 수법 중 하나. 무지(拇指) 손톱을 사용하여 특정 혈위를 누르면서 점차 힘을 주어 혈위의 깊은 곳까지 자극이 미치도록 하는 수기법. 시술자는 겹법을 시술할 때 무지를 약간 안으로 굽혀서 손끝에 힘을 모으고 힘을 줄 때는 가볍고 느리게 주어야 하며, 거칠게 해서 피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겹법의 강도는 산(酸)·창(脹)·통감(痛感)을 느낄 정도가 적합하며 주로 혈위에 많이 사용한다. 겹법에는 통경활락(通經活絡), 개규제신(開竅提神)의 효능이 있으며, 景岳全書 〈雜證謨·厥逆〉에는 "故取致卒仆暴死, 宜先掐人中"이라 하여 겹법이 오래 전부터 급증(急

症)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경(經) [경락] 동 경맥(經脈) : 경혈 인체 내의 기혈운행의 통로로 종행(縱行)의 대간선(大幹線)을 말함. 12경맥, 12경별, 기경팔맥이 이에 속한다.

경(痙) [병증] 동 치(痓), 경치(痙痓), 치경(痓痙), 경치증(痙痓證), 경병(痙病), 경증(痙症) : 정신 항배강급(項背强急)하고 사지축닉(四肢搐搦)하며 심하면 구금(口噤), 각궁반장(角弓反張)을 일으키는 병증으로 급하게 발병하고 신속한 것이 특징.

경(驚) [증상] 동 경해(驚駭), 경증(驚症) : 정신 어떤 사물을 보고 잘 놀라는 것. 주로 예기치 못한 물체, 소리, 빛에 의해 놀라는 것을 말함.

경(竟) [진찰] : 진단 맥진(脈診)할 때 사용되는 운지법(運指法)의 하나. 손가락을 상하(上下)로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장(長)·단(短) 등의 맥을 진찰하는데 사용. → 운지(運指)

경간(驚癎) [병증] : 정신 소아 놀라서 발생한 간질(癎疾)을 가리킴.

경간기출혈(經間期出血) [병증] : 부인 규칙적인 월경 주기와 주기 사이에 나타나는 비정상 출혈을 말함. 대개 양이 많지 않으며 난소주기에 따른 자궁내막의 음양전화 과정의 이상으로 생김. 보음(補陰)을 기본으로 하면서 겸증을 고려한 치료를 한다.

경감(驚疳) [병증] ⇒ 심감(心疳)

경거(經渠)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8)로서 경금혈(經金穴)에 해당하고 손바닥 쪽 손목관절 횡문 위 1촌에서 노동맥(요골동맥; radial artery)이 뛰는 곳에 위치.

경계(驚悸) [증상] : 정신 놀람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말함.

경계정충증(驚悸怔忡症) [병증] : 정신 어떤 자극이 있든 없든 잘 놀라고 두려워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한 것을 가리키는데 불안장애(anxiety disorder)에 해당.

경골(京骨)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4)로서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5 번째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 뒤, 가쪽(외측)에서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에 위치.

경궐(痙厥) [병증] : 내과 ① 갑자기 몹시 놀라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며 몸이 싸늘해지는 것. ② 소아 경풍증상의 하나.

경궐(驚厥) [병증] ⇒ 경풍(驚風)

경근(經筋) [경락] 동 십이경근(十二經筋) : 경혈 십이경맥(十二經脈)의 순행부위 상에 분포된 체표근육계통(體表筋肉系統)의 총칭. 전신의 체표근육을 십이경맥의 순행부위에 의거해서 분류한 것.

경근무늬검사(經筋무늬檢査) [추나] : 추나 인체에서 기준점간의 거리, 둘레, 길이, 각도,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방법. 근육에 빛이 투과되는 영역에서 교차되어 나타나는 무늬에 따라 척추의 변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하나.

경근추나(經筋推拿) [추나] : 추나 손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각종 파동과 압력을 경혈과 근육에 전달하여 근육의 위축상태 개선 및 경결상태를 풀어주는 수기법.

경기(驚氣) [병증] ⇒ 경풍(驚風)

경기(經氣) [생리] 동 경락지기(經絡之氣), 맥기(脈氣) : 경혈 경맥(經脈) 속을 운행하는 기(氣).

경기(經期) [생리] [진찰] : 부인 월경 주기나 월경 기간을 말함. 월경 주기는 월(月)에 응하여 28일을 기준으로 하며, 21일에서 35일까지를 정상범위로 본다. 월경 기간은 3~7일 정도를 정상으로 본다.

경기연장(經期延長) [병증] : 부인 월경 주기는 기본적으로 정상이면서 월경 지속기간이 7일 이상인 것을 말함. 월경과다의 한 유형으로 때로는 경혈(經血)이 임리부단(淋漓不斷)하여 15일 가까이 출혈이 지속되기도 한다. '월수

ㄱ

부단(月水不斷)', '월수부절(月水不切)', '경사연장(經事延長)'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기허(氣虛), 비신양허(脾腎陽虛), 음허내열(陰虛內熱), 습열온결(濕熱蘊結), 기체혈어(氣滯血瘀) 등이 원인.

경단부래(經斷復來) [병증] 동 도경(到經) : 부인 여성의 월경이 1년 이상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것을 말함.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경우 영혈(營血)의 유여(有餘)에 의한 것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폐경 이후의 출혈인 경우 각종 악성 질환을 배제하여야 한다.

경대극(京大戟) [약물] ⇒ 대극(大戟)

경락(經絡) [경락] : 경혈 '경(經)'은 경로(徑路)의 의미로 종행(縱行)의 대간선(大幹線)을 말하고, '락(絡)'은 나망(羅網)의 의미로 경(經)의 분지로 횡행(橫行)하는 소노선(小路線)을 말한다. 이것은 인체 내의 기혈운행의 통로로서 표리, 상하를 통하고 장부와 기관을 연계하는 독특한 계통이다.

경락변증(經絡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경락 및 관련 장부의 생리·병리를 바탕으로 경락 및 그 관련 장부에서 나타나는 병증을 분석하는 것. 증후의 성질이 명확하고 응용이 광범위한 변증임.

경락지기(經絡之氣) [생리] ⇒ 경기(經氣)

경란(經亂) [병증] ⇒ 월경선후무정기(月經先後無定期)

경래요복통(經來腰腹痛) [병증] : 부인 월경이 내조할 때 요통과 복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월경 곤란증을 의미.

경량(經量) [생리] [진찰] : 부인 한 번의 월경주기에 내조하는 월경량. 보통 30~80ml정도. 경량의 감소와 증가에 따라 월경과다 및 월경과소의 병증을 구분한다.

경력(頸癧) [병증] ⇒ 나력(瘰癧)

경련(痙攣) [병증] : 재활 전신 또는 국소의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

경루(經漏) [병증] 동 경맥부지(經脈不止), 경수부지(經水不止), 경행부지(經行不止) : 부인 정상 월경 기간이 초과하였음에도 월경이 멎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것. 혈열(血熱)에 의한 포락(胞絡) 손상, 기허불섭(氣虛不攝), 충임맥(衝任脈)의 손상 등에 의한다.

경륜(經綸)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언급된 용어. 주책(籌策)·행검(行檢)·도량(度量)과 함께 인체의 전면부에 해당하는 함억제복(頷臆臍腹)에서 이루어지는 지(知)의 네 가지 요소로 경륜(經綸)은 억(臆)에서 발생하며, 많은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의미.

경리(驚痢) [병증] : 소아 소아에게 나타나며 놀란 것이 원인이 되어 생긴 이질(痢疾). 팔리(八痢)의 하나. 소아가 놀라서 간기(肝氣)가 역란하고 기기(氣機)가 막힘으로써 습이 대장으로 몰려 생기는데, 대변색이 푸르며 복통, 심번불식(心煩不食) 등의 증상이 있다.

경만(硬滿) [증상] : 내과 견경(堅硬)하고 창만(脹滿)한 증상.

경맥(經脈) [경락] ⇒ 경(經)

경맥부조(經脈不調) [병증] ⇒ 월경부조(月經不調)

경맥부지(經脈不止) [병증] ⇒ 경루(經漏)

경맥불리(經脈不利) [병증] ⇒ 월경부조(月經不調)

경맥불통(經脈不通) [병증] ⇒ 경폐(經閉)

경맥불행(經脈不行) [병증] ⇒ 경폐(經閉)

경맥지해(經脈之海) [경락] ⇒ 충맥(衝脈)

경면설(鏡面舌) [진찰] 동 설면여경(舌面如鏡) : 진단 설상(舌象)의 하나. 설태(舌苔)가 없으면서 혓바닥이 거울처럼 번들거리는 것.

경문(京門) [경혈] 동 기부(氣府)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5). 신(腎)의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12 번째 갈비뼈 끝 장문(章門) 바깥으로 비스듬하게 1촌 6푼 아래에

위치.
경미(硬米) [약물] ⇒ 갱미(粳米)
경방(經方) [기타] : 방제 한대(漢代) 이전의 방제를 말함. 세 가지 설이 있는데, ① 후한(後漢)의 반고(班固)가 저술한 한서 예문지(漢書·藝文志)의 의가류(醫家類)에 '경방십일가(經方十一家)'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한대 이전의 임상 저작을 말한다. ② 소문(素問), 영추(靈樞)와 상한론(傷寒論), 금궤요략(金匱要略)에 수록된 방제를 가리킨다. ③ 오로지 상한론(傷寒論), 금궤요략(金匱要略)에 수록된 방제만을 가리킨다. 대부분 ③의 의미로 쓰인다.
경벽(驚癖) [병증] : 정신 소아 소아 경증(驚症)으로 인해 생기는 벽질(癖疾)로 경과 벽의 합병증. 벽은 경기(驚氣)와 담연(痰涎)이 상박(相搏)하여 발생. 협간(脇間)을 돌아다니면서 좌측에 있다 우측에 있다 하는데, 항상 경제(驚啼)를 일으킨다.
경별(經別) [경락] : 경혈 십이경맥에서 갈라진 경맥. 십이경맥의 사지주슬(四肢肘膝)이상 부위에서 분출, 체강내부로 진입하여 각 경맥이 각기 표리관계를 가진 장부와 연계를 맺고 다시 체표로 천출(淺出)하는 순행노선을 갖는데 이것은 표리관계에 있는 양경과 음경, 장부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강화한다.
경병(經病) [병증] : 병리 경증(經證)을 달리 부르는 말.
경병(痙病) [병증] ⇒ 경(痙)
경부조(經不調) [병증] ⇒ 월경부조(月經不調)
경분(輕粉) [약물] 동 감홍(甘汞) : 본초 수은과 기타 물질(담반(膽礬), 식염(食鹽), 홍토(紅土)을 혼합하여 가공한 염화제일수은 Hg_2Cl_2의 결정체.
경붕(經崩) [병증] ⇒ 붕(崩)
경사(驚瀉) [병증] : 소아 비위가 허약한 소아가 놀라서 설사하는 병증. 경축(驚搐)과 설사가 함께 나타난다.
경상상엽(經霜桑葉) [약물] ⇒ 상엽(桑葉)
경색(經色) [진찰] : 부인 월경 색을 말함. 약간 어두운 붉은 색이 정상적인 월경색.
경색부정(經色不正) [병증] : 부인 월경색의 이상을 말함. 월경색에는 열, 한, 습, 풍 등 원인에 따라 각기 상응하는 병증이 반영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절대적인 임상 적용기준은 되지 못한다.
경소(經少) [병증] ⇒ 월경과소(月經過少)
경수(經水) [경락] : 경혈 인신(人身)의 경맥을 비유한 말. 십이경맥 기혈운행의 정황을 영추(靈樞) 당시의 지도에 있는 12개의 하류(下流)에 비유한 데서 유래한 이름.
경수(經兪) [경혈] ⇒ 경수(經腧)
경수(經腧) [경혈] 동 경수(經兪) : 경혈 ① ⇒ 경혈(經穴) ② 오수혈의 경혈(經穴)과 수혈(兪穴)을 합하여 이르는 말.
경수단절(經水斷絶) [병증] ⇒ 경폐(經閉)
경수부지(經水不止) [병증] ⇒ 경루(經漏)
경수불리(經水不利) [병증] ⇒ 월경부조(月經不調)
경수불리하(經水不利下) [병증] ⇒ 월경부조(月經不調)
경수선후무정기(經水先後無定期) [병증] ⇒ 월경선후무정기(月經先後無定期)
경열(驚熱) [병증] : 소아 소아의 경오(驚忤)로 인해 발생하는 병증. 놀라면 기가 흩어지고 신(神)이 부월(浮越)하여 온몸에 열이 나는데 밤에는 더욱 심하며, 겉으로는 아무런 표증이 없다. 숙체(宿滯)가 없으나 이마와 양미간이 붉으며 인당이 푸르고 번초불녕(煩焦不寧)함. 또 잠을 자다가 놀라 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경옹(頸癰) [병증] : 안이 목덜미에 생기는 옹을 말함.
경외기혈(經外奇穴) [경혈] ⇒ 기혈(奇穴)
경음저(脛陰疽) [병증] ⇒ 황추옹(黃鰍癰)
경자(經刺) [침구] 동 경자극(經刺戟) : 침구 ①

ㄱ

구자(九刺)의 하나. 경맥이 맺혀서 통하지 않는 부위(울혈, 압통부위)에 자침하는 방법. ② 병이 있는 경맥의 혈(穴)을 자침하여 치료하는 방법. ③ 거자(巨刺)의 이명.

경자극(經刺戟) [침구] ⇒ 경자(經刺)

경자침(輕刺鍼) [침구] : 침구 약자극(弱刺戟)으로 자침하는 것.

경저(頸疽) [병증] : 안이 경옹(頸癰)이 우측에 생기는 것.

경적(驚積) [병증] : 소아 소아에게 경증이 나타난 후 다시 음식이나 담열(痰熱)에 의해 손상된 적증(積證).

경전설수(經前泄水) [병증] : 부인 월경이 내조하기 전 먼저 설사가 2~3일 나오다가 월경혈이 배출되는 것을 가리킴. 이는 비(脾)가 허하여 수습(水濕)이 운화하지 못하여 발생.

경제(驚啼) [병증] : 소아 ① 소아가 놀라서 우는 병증. ② 소아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울면서 놀라 깨는 병증.

경조(驚釣) [병증] ⇒ 내조(內釣)

경조(經早) [병증] ⇒ 월경선기(月經先期)

경종구비출(經從口鼻出) [병증] ⇒ 착경(錯經)

경종상역(經從上逆) [병증] ⇒ 착경(錯經)

경중험위(輕重險危)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서 언급된 용어.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는 약물의 용량이나 복용횟수, 의약(醫藥)과 조리(調理) 중 어느 것을 위주로 치료할 것인가에 관하여 병증을 경중험위(輕重險危)의 4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경중험위에 따른 병증 분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의 명맥실수(命脈實數)의 정도에 따라 병증을 외감(外感)·내상(內傷)·뇌옥(牢獄)·위경(危傾)으로 분류한 것과 유사하다.

경증(痙症) [병증] ⇒ 경(痙)

경증(驚症) [증상] ⇒ 경(驚)

경증(經證) [병증] : 진단 상한병 분류방법의 하나로 상한병사가 특정 경(經)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고유한 증후.

경증(輕證) [사상] : 사상 사상의학에서 병증의 단계를 분류하기 위한 개념. 경증은 병증의 초기 단계로 약물 치료가 없이도 적절한 조양(調養)이 이루어지면 병증이 회복될 수 있다고 인식.

경지(經遲) [병증] ⇒ 월경후기(月經後期)

경진(經盡) [병리] : 병리 '경(經)을 다했다'는 뜻으로서, 외감병의 전변을 가리킴. 여기서 경은 일경과 육경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예컨대 사기가 태양경에서 다른 경으로 옮아간 경우에 '태양경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경은 하나의 경(一經)을 뜻한다. 또 이 용어는 육경의 전변을 모두 끝냈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경진내장(驚振內障) [병증] : 안이 원인 면에서 오장허로나 간기부족으로 인하거나 두뇌(頭腦)의 타격으로 담즙과 악혈(惡血)이 정내(睛內)에 유입되어 오랜 시일이 경과하면서 내장(內障)을 형성한 것.

경천(景天) [약물] 동 계화(戒火) : 본초 돌나물과(景天科 : Crassulaceae)에 속한 다년생 육질초본(多年生 肉質 草本)인 꿩의 비름 *Sedum erythrostichum* Miquel.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지상부.

경체저(莖體疽) [병증] : 안이 봉와발(蜂窩發)이 악화하여 창형(瘡形)의 길이가 1척(尺) 정도로 근핵이 횡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형태.

경추견인(頸椎牽引) [치법] : 재활 경추디스크나 경추압박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견인요법을 경추부위에 시행하는 것.

경추노손(頸椎勞損) [병증] : 재활 경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간신허로 인해 초래.

경추증(頸椎症) [병증] : 재활 경추 추골관절의 경직 또는 골관절염에 의한 변화의 총칭. 경추부 추나수기법의 적응 대상이 됨.

경축(莖縮) [병증] ⇒ 음축(陰縮)
경치(痙痔) [병증] ⇒ 경(痙)
경치증(痙痔證) [병증] ⇒ 경(痙)
경타법(輕打法) [추나] 동 고타법(叩打法) : 재활 추나수법명(推拿手法名). 힘껏 치료 부위를 때리는 것으로서 박법(拍法)과 비슷하다. 타법 중에서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을 경타법이라고 한다.
경토(驚吐) [병증] : 소아 정신 소아가 놀란 후에 토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이 나며, 수면이 불안한 것.
경폐(經閉) [병증] 동 불월(不月), 월폐(月閉), 월사불래(月事不來), 경수단절(經水斷絶), 경맥불통(經脈不通), 경맥불행(經脈不行), 혈폐(血閉), 혈폐불통(血閉不通) : 부인 월경이 내조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무월경은 임신이나 산후 수유기간에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분비질환이나 해부학적 이상에 의한 증상이 대부분이다. 무월경은 원발성 무월경과 속발성 무월경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원발성 무월경은 2차 성징의 발현 없이 14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이거나 2차 성징의 발현은 있으나 16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고, 속발성 무월경은 월경을 하던 여성이 6개월 이상 월경이 없거나, 평소 월경 주기의 3배 이상 기간 동안 월경이 없을 때를 말한다.
경풍(驚風) [병증] 동 경궐(驚厥), 경기(驚氣) : 소아 정신 소아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축(搐)·철(掣)·전(顫)·익(搦)·반(反)·인(引)·찬(竄)·시(視) 등의 8가지 증후를 그 특징으로 하는 병증. 위 8가지 증후를 경풍8후(驚風八候)라 한다. 연령이 적을수록 다발(多發)하는데 5세 이하의 유아에게서 상견(常見)되며 7세 이상이 되면 점차 감소한다. 병정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위급하며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으로 크게 급경풍(急驚風)·만경풍(慢驚風)으로 분류.
경풍(痙風) [병증] : 정신 경증이 발작할 때 몸이 뻣뻣하고 오랫동안 정신이 혼미한 병증.
경풍담열사(驚風痰熱痧) [병증] : 소아 소아가 열이 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수족이 축닉(搐搦)하며, 두 눈을 위로 치켜뜨고 담천(痰喘)이 멈추지 않는 병증.
경풍번갈(驚風煩渴) [병증] : 소아 경풍(驚風) 후 진액(津液)이 손상되어 번조(煩躁), 구갈(口渴)이 발생하는 병증. 소아경풍으로 진액이 손상되면 허열(虛熱)이 생겨 번조가 있고 갈증이 나며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경풍사증(驚風四症) [증상] : 소아 급경풍의 4가지 증후. 즉 경증(驚證), 풍증(風證), 담증(痰證), 열증(熱證)을 말함. 경증은 헛소리를 하면서 놀라 울고 겁먹으며 불안해하는 증상이고, 풍증은 아관(牙關)이 꽉 다물어지고 입아귀가 땅기며 눈을 치켜뜨며, 등이 위로 젖혀지는 증상이며, 담증은 담연(痰涎)이 옹성(壅盛)하여 담말(痰沫)이 입에 가득하거나 담소리가 마치 톱을 켜는 소리 같은 증상이고, 열증은 고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며, 입술과 뺨이 붉어지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번거롭고 갈증이 나서 찬물을 잘 먹는 등의 증상이다.
경풍선조(驚風先兆) [증상] : 소아 소아경풍이 발생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증상.
경풍열(驚風熱) [병증] : 소아 열이 나면서 경궐(驚厥)이 있는 병증.
경풍팔후(驚風八候) [징후] : 소아 경풍의 8가지 증후로 축(搐), 익(搦), 철(掣), 전(顫), 반(反), 인(引), 찬(竄), 시(視)를 말함. 소아가 열이 있을 때 열이 성(盛)하면 담(痰)을 생하고, 담이 성하면 경(驚)을 생하고, 경이 성하면 축닉(搐搦)을 발하며, 축닉이 성하면 아관긴급(牙關緊急)해서 팔후(八候)가 나타남. 휵은 양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고, 익은 열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며, 철은 견두(肩頭)를 서로 부딪힐 것같이 하는 것이고, 전은 머리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며, 반은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고, 인은 팔을 마치 활을 당기는 동작처럼 하는 것이며, 찬은 눈을 마치 노(怒)한 것처럼 똑바로 뜨고 있는 것이고, 시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피(經皮) [경락] : 경혈 십이경맥에서 갈라져 나온 낙맥(絡脈)이 분포하는 살갗에서의 구역.

경피병(硬皮病) [병증] 동 공피증(鞏皮症) : 안이 피부가 점차 굳어지고 위축되는 것.

경피한열검사(經皮寒熱檢査) [진찰] : 진단 인체 피부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인체의 통증부위 및 기타 질병부위의 미세한 체열변화를 컴퓨터가 컬러영상화하여 표시함으로써 경락학설에 의거하여 신체의 이상유무, 호전, 악화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

경함나력(頸頷瘰癧) [병증] ⇒ 나력(瘰癧)

경항강급(頸項强急) [병증] ⇒ 항강(項强)

경해(驚駭) [증상] ⇒ 경(驚)

경행과다(經行過多) [병증] ⇒ 월경과다(月經過多)

경행부지(經行不止) [병증] ⇒ 경루(經漏)

경행선기(經行先期) [병증] ⇒ 월경선기(月經先期)

경행선후무정기(經行先後無定期) [병증] ⇒ 월경선후무정기(月經先後無定期)

경행유방창통(經行乳房脹痛) [병증] ⇒ 유방창통(乳房脹痛)

경행장조(經行臟躁) [병증] ⇒ 동 경행정지이상(經行情志異常)

경행정지이상(經行情志異常) [병증] 동 경행장조(經行臟躁) : 부인 월경 전에 불안, 긴장, 우울, 민감, 슬픔, 감정의 불안정, 분노 등의 정서적 변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충분히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함.

경행후기(經行後期) [병증] ⇒ 월경후기(月經後期)

경혈(經穴) [경혈] 동 경혈 ① 경락상에 기혈이 모이는 곳이며 침구 치료를 비롯한 모든 경락을 조절하는 치료방법을 시행하는 자리로서 14경맥 위에 위치한 수혈을 말함. ② 오수혈(五兪穴)의 하나.

경혈(經血) [생리] : 생리 월경혈(月經血)

경혈지압(經穴指壓) [치법] ⇒ 지압(指壓)

경혈추나(經穴推拿) [추나] : 추나 혈성(穴性)에 따라 선택된 경혈(經穴, meridian point)만을 주로 자극하는 수기법.

경황(驚黃) [병증] : 내과 황달이 있으면서 경계(驚悸)가 있는 병증.

경후(經候) [생리] ⇒ 월경(月經)

경축(驚搐) [병증] : 소아 의식이 불안하면서 사지가 축닉(搐搦)한 병증. 경축은 놀라서 궐(厥)이 일어나고 목적(目赤), 아관긴급(牙關緊急), 구안와사(口眼喎斜), 사지축닉(四肢搐搦)이 나타나는 병증을 말한다.

경흉추관절 이근추나(頸胸椎關節 理筋推拿) [추나] : 재활 경흉추관절 주위 근육의 위축상태 개선 및 경결상태를 풀어주는 추나법.

계(悸) [병증] ⇒ 심계(心悸)

계관단(鷄冠丹) [병증] 동 적단(赤丹) : 부인 소아단독의 하나. 피부가 홍색을 띠면서 참깨를 깔아 놓은 것처럼 오톨도톨한 것이 마치 닭의 볏 같으며 대부분 등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진다.

계관창(鷄冠瘡) [병증] : 안이 음정(陰挺)이 빠져 나와 빨갛게 부어터진 병증.

계관현(鷄冠莧) [약물] ⇒ 청상자(靑葙子)

계관현육(鷄冠蜆肉) [병증] 동 계관현육외장(鷄冠蜆肉外障) : 안이 외장눈병의 하나. 통증은 없으나 결막에 여포(濾胞)같은 결절이 생겨 서로 융합하여 닭 벼슬이나 식육(瘜肉)모양이 되며 중심부에 괴사를 일으킨다.

계관현육외장(鷄冠蜆肉外障) [병증] ⇒ 계관현육(鷄冠蜆肉)

계관화(鷄冠花) [약물] : 본초 비름과(莧科 :

Amaranthaceae)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인 맨드라미 *Celosia cristata* L.의 화서(花序)로 가을철에 꽃이 화사할 때에 채취 쇄건(曬乾)하여 사용.

계기(戒忌) [기타] ⇒ 금기(禁忌)

계내금(鷄內金) [약물] : 본초 꿩과(雉科 : Phasianidae)에 속한 닭 *Gallus domesticus* Brisson의 모래주머니 내막(內膜).

계독(溪毒) [병증] ⇒ 수독(水毒)

계두화(鷄頭花) [약물] ⇒ 검실(芡實)

계등감(雞膝疳) [병증] : 안이 고환(睾丸)이 아프고 당기며 음낭(陰囊)이 붓고 늘어지는 감창(疳瘡).

계락(系絡) [경락] : 경혈 십오락맥(十五絡脈)에서 갈라져 나온 가늘고 작은 낙맥(絡脈).

계맥(瘈脈)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의 경혈(TE18). 각손(角孫)과 예풍(翳風) 사이에 가상선을 긋고 3 등분하여 각손(角孫)으로부터 노식(顱息), 계맥(瘈脈), 예풍(翳風)을 각각 취함.

계병(繼病) [병증] ⇒ 기유(魌乳)

계수(癸水) [생리] ⇒ 월경(月經)

계심(桂心) [약물] : 본초 육계의 코르크층과 내피층을 제거하여 석세포층 안쪽만 남긴 것으로 정유성분이 풍부.

계심통(悸心痛) [병증] 동 허심통(虛心痛) : 내과 칠정(七情)으로 인해 생기며 명치 부위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통증이 있다 멎었다 하며 아픈 곳을 눌러주면 시원해 하고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고 배가 고프면 심해지며 맥은 허약한 병증.

계안(鷄眼) [병증] ⇒ 육자(肉刺)

계온(溪溫) [병증] ⇒ 수독(水毒)

계족자(鷄足刺) [침구] ⇒ 계족침(鷄足鍼)

계족침(鷄足鍼) [침구] 동 계족자(鷄足刺), 계족침법(鷄足鍼法) : 침구 오자(五刺)의 하나로 침을 처음에는 곧추 찔렀다가 피하까지 뽑아 올린 다음 좌우로 2번 다시 비스듬하게 놓아서 침이 들어간 자리가 닭의 발 모양으로 갈라지게 놓는 자침법.

계족침법(鷄足鍼法) [침구] ⇒ 계족침(鷄足鍼)

계종(瘈瘲) [병증] : 내과 재활 근맥(筋脈)이 오그라들거나 펴지며 전동(顫動)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뇌염(腦炎), 뇌류(腦瘤), 전간(癲癎), 간성뇌병(肝性腦病), 요독증(尿毒症), 고열중서(高熱中暑), 파상풍(破傷風), 약물중독(藥物中毒) 등의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증상.

계지(桂枝) [약물] 동 유계(柳桂) : 본초 녹나무과 (樟科 : Lauraceae)에 속한 상록교목(常綠喬木)인 육계(肉桂) *Cinnamomum cassia* Blume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어린 가지. 중국에서는 육계 *Cinnamomum cassia* Presl. 만을 기원식물로 함.

계치(齘齒) [병증] 동 교아(齩牙), 교아(咬牙) : 내과 이(齒牙)를 가는 것.

계혈등(鷄血藤) [약물] : 본초 콩과(荳科 : Legu- minosae)에 속한 낙엽 목질대등본(落葉 木質大藤本)인 밀화두(密花豆) *Spatholobus suberectus* Dunn.의 등경(藤莖)을 건조한 것으로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지엽(枝葉)을 제거하고 절편(切片)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계화(戒火) [약물] ⇒ 경천(景天)

계흉(鷄胸) [병증] 동 구흉(龜胸) : 소아 흉곽이 기형적으로 돌출하여 마치 닭 가슴이나 거북등처럼 생긴 병증.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기부족으로 비신(脾腎)이 휴손(虧損)하고 골질(骨質)이 유약하여 생김. 몸이 여위고 쉽게 피로해 하고 호흡이 짧고 힘이 없는데, 골격발육부전과 구루병에서 주로 나타남.

고(蠱) [병증] 동 고병(蠱病) : 내과 증상이 충(蟲)의 침식(侵蝕)과 같아 붙여진 이름. 음경(陰莖)이 양통(痒痛)하고 우유 같은 점액(粘液)이 유출되며 심하면 음경(陰莖)이 정종(挺縱)하여 수축되지 않는 병증.

고(枯) [병증] ⇒ 골위(骨痿)

ㄱ

고(膏) [생리] [해부] [약물] [기타] : ① 지고(脂膏)를 가리킴. ② 심하(心下)부위를 가리킴. ③ 비만한 사람을 가리키며 곧 체형의 한 유형을 말함. ④ 기름지다, 윤택하다는 뜻. ⑤ 제제(製劑)의 하나로서, 고제(膏劑)를 가리킴.

고가(固瘕) [병증] ⇒ 고하(固瘕)

고거(固居) [병증] ⇒ 고비(痼痹)

고격법(叩擊法) [진찰] : 재활 촉진(觸診) 방법의 하나. 사지원위단(四肢原位端)을 여러 방향으로 두드렸을 때 충격력이 전달되어 오는 것을 이용하여 상골질환(傷骨疾患)과 상근질환(傷筋疾患)의 감별 진단 등에 활용하는 진찰 방법.

고골상(尻骨傷) [병증] ⇒ 미저골상(尾骶骨傷)

고기(固氣) [치법] ⇒ 보기법(補氣法)

고두근(苦豆根) [약물] ⇒ 산두근(山豆根)

고랭(痼冷) [병증] 동 고랭증(痼冷證) : 내과 진양(眞陽)이 부족하여 음한(陰寒)이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나타나는 병증. 늘 오슬오슬 추워하며 손발이 싸늘하고, 찬 것을 싫어하며 때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며 음식을 적게 먹고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으며 멀건 침을 토하고 소변이 잦으며 맑고, 때로 허리와 다리가 무겁고 물속에 앉은 것처럼 차며 음위(陰痿)와 유정(遺精)이 있고 온 몸의 관절이 아픈 것이 겸해 나타나는 병증.

고랭증(痼冷證) [병증] ⇒ 고랭(痼冷)

고량(高粱) [기타] : 고량후미(膏粱厚味) 즉 기름진 음식을 가리킴.

고량강(高良薑) [약물] 동 양강(良薑)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고량강 *Alpinia officinarum* Hance의 근경(根莖)으로 9월에 채취하여 경엽(莖葉),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고련근피(苦楝根皮) [약물] : 본초 ⇒ 고련피(苦楝皮)

고련피(苦楝皮) [약물] 동 고련근피(苦楝根皮) : 본초 멀구슬나무과(楝科 : Meli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멀구슬나무 *Melia azedarach* Linné var. *japonica* Makino의 수피(樹皮) 또는 근피(根皮)로, 봄과 가을에 껍질을 벗겨 쇄건(曬乾)하거나 조피(粗皮)를 없애고 쇄건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천련(川楝) *Melia toosendan* Sieb. et Zucc.도 약용으로 사용.

고림(膏淋) [병증] : 내과 소변이 쌀뜨물(미감수米泔水)같거나 기름(지고脂膏) 같이 혼탁하고 요도가 열삽동통(熱澁疼痛)한 병증. 임병(淋病)의 일종.

고목(苦木) [약물] : 본초 소태나무과(苦木科 : Simarubaceae)에 속한 낙엽관목(落葉灌木) 혹은 소교목(小喬木)인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Bennet의 나무껍질을 벗겨낸 목부(木部). 중국에서는 소태나무의 가지와 잎을 사용.

고발(痼發) [병증] : 안이 수족 혹은 장심(掌心), 요(腰), 둔부(臀部), 퇴부(腿部)의 신축활동(伸縮活動)을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통증이 통풍(痛風)과 비슷하고 만종(漫腫)으로서 창두(瘡頭), 창면(瘡面)이 없고 담홍색(淡紅色)을 띰.

고발(藁茇) [약물] : 본초 ⇒ 고본(藁本)

고방(庫房)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14)로서 젖꼭지 수직 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고방(古方) [기타] : 옛 처방, 또는 옛날의 한방 치료법을 가리킴.

고배(枯瘁) [병증] : 안이 백배(白瘁)가 고백색(枯白色)을 띤 것. 습울(濕鬱)이 오래되어 기(氣)와 음(陰)을 모두 상하여 나타난다.

고병(蠱病) [병증] ⇒ 고(蠱)

고본(藁本) [약물] 동 고발(藁茇)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고본 *Angelica tenuissima* Nakai (= *Ligusti- cum tenuissimum* Kitagawa), 중국고본 *Ligusti- cum sinense* Oliv. 또는 요고본(遼藁

本) *Ligusti- cum jeholense* Nakai et Kitagawa의 뿌리줄기 및 뿌리.
고부(孤府) [생리] ⇒ 삼초(三焦)
고부(孤腑) [생리] ⇒ 삼초(三焦)
고비(痼痺) [병증] 동 고거(固居) : 내과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비증(痺證).
고산(股疝) [병증] : 부인 복내의 내용물이 서혜관을 통해 서혜인대 아래로 빠져 나온 것을 말함. 서혜부 탈장.
고산(蠱疝) [병증] : 부인 사열(邪熱)이 신(腎)을 작상(灼傷)하여 소복급통(少腹急痛)하고 소변을 볼 때 백색의 점액이 배출되는 병증.
고삼(苦參) [약물]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 s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고삼 *Sophora flaves- cens* Aiton의 주피를 벗긴 근(根)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근두(根頭)와 곁뿌리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고삽(固澁) [치법] ⇒ 고삽법(固澁法)
고삽법(固澁法) [치법] 동 고삽(固澁), 수삽(收澁), 수삽약(收澁藥) : 방제 진액이 과다하게 배출될 경우에 이를 막아주는 방법을 말함. 땀, 소변, 정(精)의 배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출혈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배출량을 줄여 정상적이 되도록 조절하는 방법이 이것에 해당.
고섭(固攝) [생리] : 생리 체내의 장기와 혈액, 정(精), 진액, 한(汗), 요(尿) 등의 대사산물(代謝産物)에 대하여 제어하고 섭납(攝納)하는 조절작용.
고수(高水) [병증] : 내과 부종의 하나. 아랫배부터 붓기 시작하는 병증.
고신(固腎) [치법] ⇒ 보신(補腎)
고신삽정(固腎澁精) [치법] ⇒ 고정(固精)
고약(膏藥) [약물] 동 박첩(薄貼) : 안이 종기나 상처에 붙이는 외용약.
고약풍(膏藥風) [병증] : 안이 고약 등 외용약으로 인해 생긴 피부병.
고양저(股瘍疽) [병증] : 안이 고관절 대전자의 후방 상(後方 上, 고외측고첨후 股外側股尖後) 즉, 환도혈 후면 상(後面 上)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색이 변하지 않으면서 골부(骨部)로 침범하는 만종(漫腫).
고열(高熱) [증상] ⇒ 장열(壯熱)
고온습포(高溫濕布) [치법] ⇒ 습(濕) 찜질
고음저(股陰疽) [병증] 동 적시(赤施), 적시발(赤施發) : 안이 고내(股內) 합봉하(合縫下) 음낭 측에서 발생하는 옹저.
고자(叩剌) [침구] : 침구 침병(鍼柄)을 쥐고 집게손가락으로 침병 위를 누른 후 침첨(鍼尖)이 피부에 자입되자마자 곧 탄출(彈出)케 하는 방법으로 두드림을 반복하는 자침법.
고장(苦杖) [약물] ⇒ 호장(虎杖)
고장증(鼓腸症) [병증] ⇒ 고창(鼓脹)
고정(固精) [치법] 동 고신삽정(固腎澁精) : 방제 수삽법(收澁法)의 하나. 신기(腎氣)가 견고하지 못해 발생하는 유정(遺精), 활설(滑泄)을 치료하는 방법.
고정계단(固定階段) [기구] : 재활 하지의 보행장애자가 승강훈련을 하는데 중요한 보행훈련용 계단. 고관절, 족관절 및 하지의 근력 증강과 관절운동에 효과적인 기구다.
고제(膏劑) [약물] 동 약고(藥膏) : 안이 약물제형의 하나로 약엿. 내복과 외용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외용제는 일반적으로 고약(膏藥)이라고 한다.
고종(蠱腫) [병증] 동 종고(腫蠱) : 내과 기생충에 의해 생긴 창만.
고종(高腫) [병증] : 안이 옹저 등에서 피부 표면이 도드라져 부어 오른 것.
고주독리(蠱注毒痢) [병증] 동 고주리(蠱注利), 고주리(蠱疰痢) : 내과 구리불이(久痢不已)하여 독기(毒氣)가 식어장부(蝕於臟腑)함으로써 하혈여계간(下血如鷄肝), 잡농여혈(雜膿與血), 심번복통(心煩腹痛)이 있는 병증.
고주리(蠱注利) [병증] ⇒ 고주독리(蠱注毒痢)

ㄱ

고주리(蠱疰痢) [병증] ⇒ 고주독리(蠱注毒痢)
고지원(膏之原) [경혈] ⇒ 구미(鳩尾)
고창(鼓脹) [병증] 동 고창(臌脹), 고장증(鼓腸症) : 내과 복수(腹水)나 가스 등의 내용물이 있으면서 복부가 외창(外脹)한 병증, 비(脾)의 진장병(眞臟病).
고창(蠱脹) [병증] 동 지주고(蜘蛛蠱) : 내과 창병(脹病)이 극심하여 복부만 창만(脹滿)하고 사지는 수삭(瘦削)하여 거미와 같은 형상이 되는 병증.
고창(臌脹) [병증] ⇒ 고창(鼓脹)
고충(蠱蟲) [병리] 동 충고(蟲蠱) : 병리 혈흡충(血吸蟲), 오늘날의 디스토마균에 해당.
고치(叩齒) [기공] 동 명천고(鳴天敲), 탁치(琢齒) : 재활 보건기공법(保健氣功法). 상하의 치아를 부딪치는 방법.
고치(枯痔) [치법] 동 고치법(枯痔法) : 안이 약물을 치핵 위에 붙이거나 또는 주사제를 치핵 속에 주입하여 치핵이 건고(乾枯), 괴사, 탈락하게 만들어 치료하는 방법.
고치법(枯痔法) [치법] ⇒ 고치(枯痔)
고타법(叩打法) [추나] ⇒ 경타법(輕打法)
고태(枯胎) [병증] 동 태고(胎枯) : 부인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후 오랫동안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으면서 점차 메마르는 것. 서양의학의 계류유산과 유사한 개념.
고표(固表) [치법] : 안이 위기(衛氣)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방법.
고풍내장(高風內障) [병증] ⇒ 고풍작목(高風雀目)
고풍작목(高風雀目) [병증] 동 고풍작목내장(高風雀目內障), 고풍내장(高風內障) : 안이 선천성 야맹(夜盲)과 유사. 즉,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어두운 곳에서나 밤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고풍작목내장(高風雀目內障) [병증] ⇒ 고풍작목(高風雀目)
고하(固瘕) [병증] 동 고가(固瘕) : 부인 비신허한(脾腎虛寒)으로 인해 처음에는 대변이 굳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묽게 나오는 병증.
고하혈(蠱下血) [병증] : 부인 변혈(便血) 증상으로, 닭의 간과 같은 흑색의 어혈이 대변으로 나오고 심번복통(心煩腹痛)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함. 고(蠱)가 오장을 잠식하여 이 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하혈이라고 명명하였다.
고해(膏海)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나오는 용어로 전사해[前四海; 진해(津海), 고해(膏海), 유해(油海), 액해(液海)] 중 하나. 수곡의 열기(熱氣)가 위(胃)에서 고(膏)로 화하여 가슴사이로 들어가서 고해(膏海)를 형성하며, 고해는 여(慮)를 장(藏)하고 목(目)의 근본이 된다.
고황(膏肓) [경혈] 동 고황수(膏肓兪)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43)로서 네 번째 등척추뼈 아래 양쪽 각 3촌에 위치.
고황수(膏肓兪) [경혈] ⇒ 고황(膏肓)
곡골(曲骨)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2)로서 두덩결합(치골결합; pubic symphysis) 위 오목한 곳에 위치.
곡기(穀氣) [생리] ⇒ 수곡지기(水穀之氣)
곡기생(槲寄生) [약물] : 본초 겨우살이과(桑寄生科 : Loranthaceae)에 속한 상록 반기생 소관목(常綠 半寄生 小灌木)인 겨우살이 *Viscum coloratum* (Komar.) Nakai의 대엽(帶葉)한 경지(莖枝)인데, 겨울부터 다음 봄 사이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거나 증건(蒸乾)하여 사용.
곡달(穀疸) [병증] : 내과 한열이 있고 음식을 섭식(攝食)하지 못하며, 섭식하면 두현(頭眩)하고 심중(心中)이 불안하며 복부가 창만(脹滿)해지고, 오래되면 발황(發黃)하는 병증.
곡맥(谷麥) [약물] ⇒ 맥아(麥芽)
곡발(曲發) [경혈] ⇒ 곡빈(曲鬢)
곡비(曲鼻) [병증] : 안이 코 모양이 휘어진 것.

곡빈(曲鬢) [경혈] 동 곡발(鵠髮) : 경혈 족소양담경의 경혈(GB7)로서 귀 꼭지를 지나는 수평선과 귀 앞을 지나는 수직선의 교차점에 위치.

곡아(穀芽) [약물] 동 도아(稻芽)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벼 *Oryza sativa* Linné의 성숙한 과실을 싹 내어 말린 것.

곡원(曲垣)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의 경혈(SI13)로서 어깨뼈가시(견갑극; spine) 안쪽 끝으로 위각(상각; superior angle) 아래의 오목한 곳에 위치.

곡적(穀賊) [병증] ⇒ 인두이물(咽頭異物)

곡정초(穀精草) [약물] : 본초 곡정초과(穀精草科 : Eriocaul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 곡정초 *Eriocaulon sieboldianum* Sieb. et Zucc.의 꽃과 잎이 붙어 있는 전초(全草). 중국에서는 동속식물인 *E. buergerianum* Koern.을 기원으로 함.

곡주(曲周) [경혈] ⇒ 협거(頰車)

곡지(曲池)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의 경혈(LI11)로서 합토혈(合土穴), 십삼귀혈(十三鬼穴)에 해당하고 손바닥을 반대편 가슴에 대고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 횡문의 노쪽(요골측) 끝에 위치.

곡차(曲差)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4)로서 신정(神庭) 양쪽 1촌 5푼에 위치.

곡창(穀脹) [병증] : 내과 기아(飢餓)나 포식(飽食)으로 인해 비민(痞悶)하고 정산(停酸)하며, 아침에는 음소양장(陰消陽長)하여 곡기가 운행하기 쉬우므로 능식(能食)하고, 저녁에는 음성양소(陰盛陽消)하므로 곡기가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병증.

곡척치(曲尺痔) [병증] : 안이 항문주변 즉, 항문으로부터 약 3㎝ 정도 되는 곳에 저(疽)나 절(癤)과 같은 것이 있고, 창두(瘡頭)를 천자(穿刺)하면 때때로 농수(膿水)가 흘러나와 건조되지 않고, 며칠 후에는 종대(腫大)되어 화농(化膿)하고 천자(穿刺)한 곳으로 3~4개의 구멍이 발생하고 내부에는 결핵을 형성하는 치창(痔瘡).

곡천(曲泉)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의 경혈(LR8)로서 합수혈(合水穴)에 해당하고 'ㄱ'자로 무릎을 굽혔을 때 오금 횡문 안쪽 끝으로 정강뼈 안쪽관절융기(경골내측과; medial condyle of tibia) 뒤쪽과 반막모양근(반막양근半膜樣筋; semimembranosus)힘줄사이의 오목한 곳에 위치.

곡취창(穀嘴瘡) [증상] ⇒ 폐풍분자(肺風粉刺)

곡침(曲鍼) [침구] : 침구 진침(進鍼)시 침이 구부러져 염전(捻轉)이나 퇴침(退鍼)이 곤란해지는 것.

곡택(曲澤)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의 경혈(PC3)로 합수혈(合水穴)에 해당하고 팔꿈치 오목 횡문 중앙에 위치.

곤(顅) [경혈] ⇒ 이문(耳門)

곤권(困倦) [증상] 동 곤박(困薄) : 내과 피곤하여 괴롭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곤륜(崑崙)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60)로서 경화혈(經火穴)에 해당하고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꼭지와 아킬레스 힘줄의 중간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곤박(困薄) [증상] ⇒ 곤권(困倦)

곤법(滾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곤법은 완관절의 굴신 운동과 전완의 선전(旋轉) 운동을 동시에 배합하여 만들어낸 수기법. 완관절의 굴신은 제 2~4중지 지절관절 배측(背側)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므로, 곤법의 흡정점(吸定點, 수기법의 파동력을 빨아들이는 점)은 상술한 두 축의 교차점이 되는 곳, 즉 약지지절관절 배측으로서 이 점을 일정한 부위에 붙이고 주부(肘部)를 지지점(支持點)으로 하여 전완을 능동적으로 파동시키면서 완부의 굴신과 전완의 선전을 복합하여 조작하는 수기법.

곤비(困脾) [병리] : 병리 '비를 피곤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비의 생리기능을 실조케 하는 것을 말함.

곤포(昆布) [약물] : 본초 다시마과(海帶科 : Laminariaceae)에 속한 다년생 대형 갈조식물인 다시마(海帶) *Laminaria japonica* Aresch.와 시조과(翅藻科)식물인 감태(昆布) *Ecklonia kurome* Okam.의 엽상체(葉狀體)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바다 밑에서 건져내 쇄건(曬乾)하여 사용.

골감(骨疳) [병증] ⇒ 신감(腎疳)

골경(骨鯁) [병증] : 내과 생선가시나 닭 뼈 등이 목에 걸린 병증.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삼킬 수가 없으며, 심하면 선혈이 나온다.

골궐(骨厥) [병증] : 내과 배가 고픈 감은 있으나 먹고 싶지 않으며 안색이 검어지고 기침하면 객혈하며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며 명치 밑이 더부룩하면서 아프고 놀라기를 잘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워하는 병증.

골극(骨極) [병증] : 내과 치아가 흔들리며 손발이 아프고 오랫동안 서있지 못하는 병증으로 6극증(六極證) 중 하나.

골눌(骨肭) [약물] ⇒ 해구신(海狗腎)

골단(骨斷) [병증] 동 골절(骨折), 절골(折骨), 절상(折傷), 상절(傷折), 절양(折瘍) : 재활 외부 압력이나 혹은 골결핵병 등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 것.

골담초근(骨膽草根) [약물] 동 금작근(金雀根)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소교목인 골담초(錦鷄兒)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근(根). 중국에서는 근 및 근피(根皮)를 사용.

골도(骨度) [경락] 동 골도법(骨度法), 골도분촌법(骨度分寸法) : 경혈 각 사람의 뼈마디(骨節)를 주요 표지(標志)로 온 몸(周身) 각 부위를 일정한 수로 등분한 후 그 상대적인 측량도수를 근거로 혈(穴)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

골도법(骨度法) [경락] ⇒ 골도(骨度)

골도분촌법(骨度分寸法) [경락] ⇒ 골도(骨度)

골동(骨疼) [증상] 동 골통(骨痛) : 내과 지체(肢體) 특정 부위 동통이 뼛속까지 미치는 증상.

골로(骨勞) [병증] ⇒ 유담(流痰)

골로(骨癆) [병증] ⇒ 유담(流痰)

골루저(骨螻疽) [병증] : 안이 비완배측전면(臂腕背側前面)의 양명경에서 발생되는 옹저. 초기에는 속립상(粟粒狀)이다가 약 10일 이내에 도리(桃李)만한 정도의 크기로 변한다.

골루창(骨瘻瘡) [병증] : 안이 골절부위(骨節部位)나 혹은 대퇴과골(大腿胯骨) 위나 환도혈 주위에서 발생하는 창증(瘡症). 혈액이 유출되지 않고 화농(化膿)도 되지 않으며 시일이 경과하면 전신에 파급된다.

골류(骨瘤) [병증] : 안이 성생활과도로 신화(腎火)의 작용이 울결되어 골부(骨部)를 영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자백색(紫白色)을 띠고 피부가 긴축되며 견경(堅硬)하고 돌기되어 있으며 골부에 부착되어 있는 유증(瘤症).

골미(骨美) [약물] ⇒ 백미(白薇)

골반견인술(骨盤牽引術) [치법] : 재활 허리디스크 환자에 있어 골반을 견인하여 경증의 디스크 돌출에서는 음압의 조작으로 탈출된 수핵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허리뼈부위의 만곡이 감소되어 허리의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기술.

골비(骨痺) [병증] 동 신비(腎痺) : 재활 풍한습이 골(骨)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비(痺)증. 증상은 골절동통, 사지침중난거(四肢沈重難擧)하여 냉비감(冷痺感)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골산(骨痠) [증상] : 내과 골절(骨節)이 시큰거리는 증상.

골상(骨傷) [병증] ⇒ 상골(傷骨)

골선창(骨羨瘡) [병증] : 안이 등의 신당혈, 격관혈, 격수혈에 생기는 창(瘡).

골쇄(骨碎) [병증] : 재활 분쇄골절.
골쇄보(骨碎補) [약물] 동 모강(毛薑) : 본초 고란초과(水龍骨科 : Polypod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곡궐(槲蕨) *Drynaria fortunei* (Kunze) J. Sm. 또는 중화곡궐(中華槲蕨) *D. baronii* (Christ) Diels의 근경(根莖)으로, 가을과 봄에 캐어 건조시킨 후 사용.
골안(鶻眼) [병증] ⇒ 골안응지(鶻眼凝脂)
골안응지(鶻眼凝脂) [병증] 동 골안(鶻眼) : 안이 안구돌출을 표현한 것으로 그 모양이 마치 송골매의 눈처럼 튀어나와 안주가 붉으면서 고정되고 응결되어 탈출하는 듯함을 이름.
골열(骨熱) [병증] : 내과 골증(骨蒸)의 전조증상. 미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조열(潮熱)이나 불규칙한 발열이 있고, 번갈(煩渴), 도한(盜汗)을 수반한다.
골열로(骨熱勞) [병증] : 내과 골열(骨熱)로 인한 허로. 점차 마르고 기력이 없으며 음식을 먹지 않는 증상.
골위(骨痿) [병증] 동 고(枯), 신위(腎痿), 골위증(骨痿證) : 내과 위증(痿證)의 하나. 신열(身熱)이 내부에 성하거나 혹은 열사에 의해 신(腎)이 손상됨으로 인해 음정(陰精)이 소모되고 골수가 메말라 공허해져 발생한다. 그 주증은 요척산연(腰脊酸軟)으로 굴신거동(屈伸擧動)이 불리하고, 하지위약(下肢痿弱)으로 보행이 곤란하며, 면색암흑(面色暗黑), 치아건조(齒牙乾燥) 등을 수반한다.
골위증(骨痿證) [병증] ⇒ 골위(骨痿)
골위창(骨痿瘡) [병증] : 안이 화독(火毒)으로 말미암아 양쪽 고골(股骨)에 발생하는 창증.
골저(骨疽) [병증] : 내과 창(瘡)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나았다가도 재발하여 뼈가 밖으로 드러나는 병증.
골절(骨絶) [병증] : 내과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 골 결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뼈의 단절.
골절(骨折) [병증] ⇒ 골단(骨斷)
골정(骨精) [진찰] : 안이 신장이 주관하는 정미로운 물질. 등결(騰結)하여 수륜(水輪)이 됨. → 오륜(五輪)
골조풍(骨槽風) [병증] : 안이 치은골막염(齒齦骨膜炎)에 해당하며, 삼초경과 위경이 관계하여 이전(耳前)과 시협(腮頰)에서 발생하는 옹저.
골증(骨蒸) [병증] : 내과 오증(五蒸)의 하나. 발열이 골수로부터 비롯된 증상으로 음허내열(陰虛內熱)로 인한 병증.
골증로열(骨蒸勞熱) [병증] ⇒ 골증열(骨蒸熱)
골증로(骨蒸勞) [병증] ⇒ 골증열(骨蒸熱)
골증열(骨蒸熱) [병증] 동 골증로(骨蒸勞), 골증로열(骨蒸勞熱), 골증조열(骨蒸燥熱) : 내과 오후나 밤이 되면서 저열이 발생하여 마치 골내(骨內)에서 외부로 향하여 투발(透發)되는 듯한 열감이 있는 병증.
골증조열(骨蒸燥熱) [병증] ⇒ 골증열(骨蒸熱)
골출(骨出) [병증] ⇒ 탈구(脫臼)
골통(骨痛) [증상] ⇒ 골동(骨疼)
골풍(骨風) [병증] : 내과 무릎이 붓고 뻣뻣하여 잘 움직이지 못하는 병증.
골한(骨寒) [증상] : 내과 뼈가 시큰거리는 병증. 따뜻한 물이나 열기를 대어도 따뜻한 줄 모르나 떨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골회(骨會) [경혈] ⇒ 대저(大杼)
공고(控睾) [병증] ⇒ 소장산기(小腸疝氣)
공기요법(空氣療法) [치법] : 재활 일정한 시간에 피부를 드러내어 공기를 접하게 하는 방법. 피부나 전신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신진대사가 항진됨으로써 체온조절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
공독(攻毒) [치법] : 방제 사독(邪毒)을 제거하는 방법. 사독이 표(表)에 있는 경우에는 발한시키고, 리(裏)에 있는 경우는 대소변을 통해 배출시킨다.
공리(攻裏) [치법] : 방제 하법(下法)의 하나. 공

ㄱ

축이실법(攻逐裏實法)의 약칭. 사하약물(瀉下藥物)을 이용하여 대변을 통하게 하고, 적체(積滯)를 제거하며, 실열(實熱)을 씻어 내고, 수음(水飮)을 몰아내는 방법이다.

공보겸시(攻補兼施) [치법] 동 우공어보(寓功於補), 우보우공(寓補于攻) : 방제 사기를 공격함과 동시에 정기를 북돋우는 치료법. 즉, 사기가 실하고 정기가 허한 병에 공하법(攻下法)만을 사용하여 사기를 제거하면 정기가 지탱하지 못하고, 보익법(補益法)만을 사용하면 사기가 더욱 실해져 정체될 수 있으므로 공하법과 보익법을 함께 써서 사기를 제거하면서도 정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치법을 말한다.

공손(公孫)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의 경혈(SP4)로서 낙혈(絡穴),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에 해당. 太白(SP3) 뒤쪽 1촌으로 엄지발가락의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와 쐐기뼈(설상골; cuneiform)의 관절부에서 발허리뼈 안쪽의 오목한 곳에 위치.

공최(孔最)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의 경혈(LU6)로서 극혈(郄穴)에 해당하고 척택에서 손목관절 횡문 (태연)까지 1척의 골도법으로 척택 아래 3촌에 위치.

공피증(鞏皮症) [병증] ⇒ 경피병(硬皮病)

공하(攻下) [치법] ⇒ 하법(下法)

공하법(攻下法) [치법] ⇒ 하법(下法)

과견저(過肩疽) [병증] : 안이 견후렴(肩候廉, 소장경) 즉, 상박후면(上膊後面)의 상부, 견관절 근처에서 발생하는 옹저.

과궐(踝厥) [병증] : 내과 ① 장딴지가 싸늘해지면서 쥐가 나는 증. ② 족태양방광경의 시동병(是動病)으로서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을 구부리지 못하며 오금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고 장딴지가 터지는 것같이 아픈 증.

과기불산(過期不産) [병증] 동 과월불산(過月不産) : 부인 분만예정일이 반달이나 지났는데도 분만하지 않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월경을 한지 42주가 지났는데도 분만하지 않는 경우.

과기유산(過期流産) [병증] ⇒ 사태불하(死胎不下)

과다월경(過多月經) [병증] ⇒ 월경과다(月經過多)

과등전(瓜藤纏) [병증] : 안이 경부(脛部)를 둘러싸고 여러 개의 결핵이 잇달아 생기는 것. 습열이 하지에 몰려 발생한다.

과루인(瓜蔞仁) [약물] ⇒ 괄루인(栝樓仁)

과마옹(跨馬癰) [병증] 동 편마타(騙馬墮) : 안이 간신(肝腎)의 습화(濕火)가 울결되어 음낭(陰囊)의 양방(兩傍), 대퇴근내측 고봉협공중(股縫夾空中)[족소음, 족궐음경에 속함]에서 발생하는 옹저.

과소월경(過少月經) [병증] ⇒ 월경과소(月經過少)

과슬풍(過膝風) [병증] : 안이 슬안풍(膝眼風)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치유되었다가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위증(危證)에 속함.

과심(夸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함억제복(頷臆臍腹) 중 복(腹)에서 나타나는 사심(邪心) 중 하나로 과장하는 마음을 말함.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서는 만약 소양인이 과심을 경계하여 자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세의 도량(度量)이 있다고 하였음.

과월불산(過月不産) [병증] ⇒ 과기불산(過期不産)

과창(瘡瘡) [병증] : 안이 습진의 하나. 손가락이나 손바닥에서 발생하여 모양이 산수유와 같고, 창종(瘡腫)이 모이면 황백색의 농포를 형성한다.

과체(果蔕) [약물] ⇒ 과체(瓜蒂)

과체(瓜蒂) [약물] 동 과체(果蔕) : 본초 박과(葫蘆科 : Cucurbitaceae)에 속한 일년생 초질등분(草質藤本)인 참외 *Cucumis melo* L.및 동속동종(同屬同種)식물의 덜 익어 청록색을 띠는 과실의 과병(果柄)을 채취하여 음건(陰乾)

한 것.
과체루(瓜蔕漏) [병증] : 안이 치루(痔漏)의 일종. 먼저 하나의 루(漏)가 형성되고, 몇 년 뒤에 과상(胯上)에 일정치 않게 3, 5, 6, 7 등으로 파급되며, 처음에는 하나의 구멍이 생겨나서 아프고 농이 유출되다가 계속되면 서로 연결되어 구멍마다 농이 유출되는 병증.
곽란(霍亂) [병증] : 내과 상토(上吐) 하사(下瀉)가 동시에 일어나는 병증.
곽란건구(霍亂乾嘔) [증상] ⇒ 건구(乾嘔)
곽석곡(霍石斛) [약물] ⇒ 석곡(石斛)
곽향(藿香) [약물] 동 토곽향(土藿香), 배초향(排草香)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광곽향(廣藿香) *Pogostemon cablin* Bentham의 지상부로 6~7月 사이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음건하여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배초향(藿香) *Agastache rugosa* (Fisch. et Meyer) O. Kuntze의 전초(全草)를 곽향(Agastachis Herba)이라 하여 광곽향을 대용하는데, 6~7월의 개화기와 10월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음건하여 사용.
관(關) [진찰] : 진단 ① 맥을 보는 위치로서 관맥(關脈)을 가리킴. ② 완과(腕踝) 양쪽 관절을 가리킴. ③ 인체의 큰 관절을 가리킴. 주(肘), 액(腋), 비(髀), 괵(膕)의 끝이 상접하는 골을 기관(機關) 혹은 관이라 함.
관격(關格) [병증] 동 관격병(關格病), 관격증(關格證) : 내과 부득소변(不得小便)과 토역(吐逆)이 동시에 나타나는 병증.
관격병(關格病) [병증] ⇒ 관격(關格)
관격증(關格證) [병증] ⇒ 관격(關格)
관골(髖骨) [기혈] 동 관시(髖市)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양구(梁丘) 양쪽 1.5촌에 위치.
관구저(鸛口疽) [병증] 동 예저(銳疽) : 안이 미려골첨단(尾閭骨尖端)에서 발하는 옹저이며, 궤양이 되면 창구(瘡口)가 관취(鸛嘴)모양과 같다.
관동(款冬) [약물] ⇒ 관동화(款冬花)
관동화(款冬花) [약물] 동 관동(款冬)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관동 *Tussilago farara* L.의 화뢰(花蕾)로, 10월 하순부터 12월 하순 꽃이 아직 지면에 나오기 전에 채취하여 화경(花梗)과 니사(泥沙)를 제거하고 음건(陰乾)한 후 사용.
관둔루(串臀漏) [병증] : 안이 치질의 하나.
관료(顴髎)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의 경혈(SI18)로서 눈 바깥쪽 끝에서 내린 수직선과 콧방울(비익; ala of external nose)의 수평선이 만나는 부위에 위치.
관맥(關脈) [진찰] : 진단 촌구맥(寸口脈) 삼부(三部)의 하나. → 촌관척(寸關尺)
관문(關門)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22)로서 건리(建里) 양쪽 2촌에 위치.
관상(關上) [진찰] : 진단 관맥(關脈)을 살피는 부위. 양쪽 팔 촌구(寸口)의 관(關) 부위를 말함. → 촌관척(寸關尺)
관수질(寬水蛭) [약물] ⇒ 수질(水蛭)
관시(髖市) [기혈] ⇒ 관골(髖骨)
관식(觀息) [기공] : 재활 마음이 항상 대상에 있어 머물러 어지럽지 않으면 곧, 숨을 따라 닦는 것을 버리고 숨을 관찰하는 것.
관신색(觀神色) [진찰] : 진단 망진(望診)할 때 얼굴에서 장부기혈의 성쇠가 밖으로 나타나는 신(神)과 색(色)을 살피는 행위. 진찰을 할 때 정신·의식·표정 및 얼굴의 색택(色澤)과 눈빛 등의 변화를 살펴서 정기의 성쇠 및 한열허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양(關陽) [경혈] ⇒ 슬양관(膝陽關)
관양(顴瘍) [병증] : 안이 관자놀이나 광대뼈 부분에 생기는 옹(癰).
관원(關元)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4)로서 소장(小腸)의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배꼽아래 3촌에 위치.
관원수(關元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26)로서 5 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관음(關陰) [진찰] [병증] : 진단 ① 음(陰)이 극성하여 양기(陽氣)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맥상(脈象). 촌구맥(寸口脈)이 인영맥(人迎脈)의 4배 이상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하초에 열사가 울결되어 기화작용에 장애가 생겨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증을 가리킴. → 관격(關格)

관자(關刺) [침구] 동 연자(淵刺), 관자법(關刺法), 기자(豈刺), 개자(開刺) : 침구 오자(五刺)의 하나. 관절 부근을 자침하는 요법.

관자법(關刺法) [침구] ⇒ 관자(關刺)

관저(串疽) [병증] 동 유주혈비옹(遊走血脾癰), 노서찬(老鼠鑽) : 안이 배부(背部) 및 협륵부(脇肋部)에서 발생하는 옹저. 만종(漫腫)으로서 창두(瘡頭)가 없으며 궤양이 되면 관통한다.

관저(顴疽) [병증] : 안이 관자놀이나 광대뼈 등 뺨 쪽에 생기는 저(疽).

관적(顴赤) [증상] ⇒ 관홍(顴紅)

관절교정(關節矯正) [치법] : 재활 능동적 관절 가동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동적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도수 요법과 한정된 범위에 대한 다이나믹하고 강한 힘과 빠른 속도의 밀어 넣기 등을 통해 아탈구, 탈구, 변위 등이 발생한 관절을 교정하는 것.

관절굴신불리(關節屈伸不利) [증상] ⇒ 굴신불리(屈伸不利)

관정(顴疔) [병증] : 안이 관자놀이에 생기는 정(疔).

관중(貫衆) [약물] 동 면마(綿馬) : 본초 면마과(綿馬科 : Aspidiaceae)에 속한 다년생 양치식물인 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의 뿌리줄기와 잎의 잔기(殘基)로, 가을에 캐내어 엽병(葉柄)과 수근(鬚根)을 없애고 흙을 없앤 뒤 쇄건(曬乾)하여 사용.

관중(寬中) [치법] ⇒ 개울(開鬱)

관충(關衝)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의 경혈(TE1)로서 네 번째 손가락 손톱뿌리 각에서 자쪽(척골측)으로 1푼 떨어진 곳에 위치.

관한(灌汗) [병증] 동 누한(漏汗) : 내과 땀이 물 흐르듯 많이 나는 병증.

관합추(關闔樞) [생리] 동 개합추(開闔樞) : 생리 삼양경과 삼음경이 외사를 방어하는 것을 문에다 비유한 것으로, 삼양경은 외문이고 삼음경은 내문이며, 태양경과 태음경은 빗장(關)이고, 양명경과 소음경은 문짝(闔)이며, 소양경과 궐음경은 지도리(樞)의 역할을 한다.

관형찰색(觀形察色) [진찰] : 진단 형체(形體)와 색택(色澤)을 살피는 망진법(望診法)의 일종으로 체격의 대소, 체질의 강약, 영양 상태 및 안색을 살피는 것.

관홍(顴紅) [증상] 동 관적(顴赤), 양관홍적(兩顴紅赤) : 내과 관골(顴骨, 광대뼈) 부위에 붉은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 증상.

관흉(寬胸) [치법] ⇒ 개울(開鬱)

괄(刮) [침구] 동 괄법(刮法) : 침구 침을 꽂은 다음, 손가락 등으로 침 자루를 긁어주는 수기법의 하나.

괄루근(栝樓根) [약물] 동 천화분(天花粉) : 본초 박과(葫蘆科 : Cucurbitaceae)에 속한 다년생 초질등본(草質藤本)인 하늘타리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와 동속 근연식물의 성숙한 과실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 사이에 과실이 익어서 과피에 백분(白粉)이 나오고 담황색이 되었을 때 채집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괄루인(栝樓仁) [약물] 동 과루인(瓜蔞仁), 괄루자(栝樓子), 하늘타리씨 : 본초 박과(葫蘆科 : Cucurbitaceae)에 속한 다년생 초질등본(草質藤本)인 하늘타리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owicz 또는 노랑하늘타리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owicz var. *japonica* Kitamura

의 종자.
괄루자(栝蔞子) [약물] ⇒ 괄루인(栝蔞仁)
괄법(刮法) [침구] ⇒ 괄(刮)
괄사술(刮沙術) [침구] : 침구 윤활제와 괄사판을 사용한 피부의 특정부위에 대한 자극행위.
광(狂) [병증] 동 광증(狂症), 광증(狂證), 광질(狂疾), 무치(武痴) : 정신 미쳐서 상도(常道)를 잃는 병증. 그 증상은 발작이 매우 급하고, 친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욕을 한다. 심한 경우는 몽둥이나 칼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날뛰며 담을 뛰어넘는다. 힘이 평상시 보다 2배 이상 세어지며, 음식을 많이 먹거나 혹은 배고픈 줄을 모르고,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외치면서 여기저기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밤이 되어도 쉬지 않는다. 맥은 현활삭(弦滑數) 혹은 침긴실(沈緊實).
광기생(廣寄生) [약물] ⇒ 상기생(桑寄生)
광명(光明)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의 경혈(GB37)로서 낙혈(絡穴)에 해당하고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위 5촌에 위치.
광박설(光剝舌) [진찰] [징후] : 진단 설태(舌苔)가 갑자기 벗겨져 없어지는 설상(舌象). 대개가 위음고갈(胃陰枯渴), 위기대손(胃氣大損)의 징후로 대개 위기(胃氣)가 점점 끊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광비(廣鼻) [병증] : 안이 콧구멍 입구가 넓은 것.
광선요법(光線療法) [치법] 동 광선치료 : 재활 광선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 일반적으로 광선요법이라고 할 때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복사를 이용하여 질병 및 손상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광선치료(光線治療) [치법] ⇒ 광선요법(光線療法)
광언(狂言) [증상] : 정신 병태성 언어광망(病態性 言語狂忘)으로 이성을 잃은 증상. 이는 대개 심화치성(心火熾盛)에 의한 실증이다.
→ 광(狂)
광전(狂癲) [병증] ⇒ 전광(癲狂)
광전병(狂癲病) [병증] ⇒ 전광(癲狂)
광조(狂躁) [병증] : 정신 몸이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몰라 미친 듯이 날뛰는 증상으로서, 열병이나 정신병에서 볼 수 있음.
광증(狂症) [병증] ⇒ 광(狂)
광증(狂證) [병증] ⇒ 광(狂)
광질(狂疾) [병증] ⇒ 광(狂)
괴각(槐角) [약물] 동 괴실(槐實)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낙엽 소교목(落葉 小喬木)인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의 성숙한 열매로, 겨울철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괴려지기(乖戾之氣) [병리] ⇒ 역려(疫癘)
괴미(槐米) [약물] ⇒ 괴화(槐花)
괴병(壞病) [병증] 동 괴상한(壞傷寒), 괴증(壞證) : 병리 상한병의 치료 착오로 인해 병성(病性), 병정(病情)이 매우 이상하게 바뀐 것.
괴부(壞府) [병증] : 내과 내장(內臟)을 몹시 상한 것.
괴상한(壞傷寒) [병증] ⇒ 괴병(壞病)
괴실(槐實) [약물] ⇒ 괴각(槐角)
괴저루(壞疽瘻) [병증] : 안이 항문 둘레와 엉덩이 양쪽의 살에 검고 단단하면서 계란만한 덩어리가 뭉치고, 여러 개의 누관이 뚫리는 병증.
괴증(壞證) [병증] ⇒ 괴병(壞病)
괴통(塊痛) [병증] 동 아침통(兒枕痛) : 부인 산후 뱃속에 혈괴가 있어서 통증이 발작하는 것.
괴합(魁蛤) [약물] ⇒ 와릉자(瓦楞子)
괴화(槐花) [약물] 동 괴미(槐米) :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낙엽 교목인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inné의 꽃봉오리로 여름에 꽃봉오리를 말리고 잡질을 없앤 후 사용. 중국에서는 꽃도 기원으로 함. 여름에 꽃이 피었을 때 딴 것을 괴화라 하고, 꽃봉오리를 딴 것을 괴미(槐米)라 함.

ㄱ

괵혈(膕血) [증상] : 내과 오금부(위중혈(委中穴)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 오금핏줄에서 나오는 출혈.

교(膠) [약물] : 본초 약물제형(藥物製型)의 하나. 동물의 피(皮), 골(骨), 갑(甲), 각(角) 등에 물을 붓고 가열해서 만든다. 예를 들면 녹각교(鹿角膠), 아교(阿膠), 구판교(龜板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감출혈(交感出血) [병증] ⇒ 교접출혈(交接出血)

교결출혈(交結出血) [병증] ⇒ 교접출혈(交接出血)

교경무자(交經繆刺) [침구] 동 무자(繆刺), 무자법(繆刺法), 교경무자법(交經繆刺法) : 침구 침혈(鍼穴)을 선택하는 방법의 하나로, 한쪽 락맥(絡脈)에 병이 있을 때 반대쪽의 대칭되는 부위에 침을 놓는 방법.

교경무자법(交經繆刺法) [침구] ⇒ 교경무자(交經繆刺)

교골불개(交骨不開) [병증] : 부인 교골은 치골(恥骨)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교골불개는 분만과정에서 치골이 열리면서 아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한 난산을 교골불개난산(交骨不開難産)이라 한다.

교골저(咬骨疽) [병증] : 안이 대퇴내측(족삼음경)에서 발생하는 저(疽). 부골저(附骨疽)와 발생부위만 다를 뿐 그 외는 같다.

교긍벌과지심(驕矜伐夸之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함억제복(頷臆臍腹)에 나타나는 사심(邪心)을 표현하는 용어로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과장하는 마음을 말한다.

교담(膠痰) [병리] ⇒ 조담(稠痰)

교마(喬摩) [추나] ⇒ 추나(推拿)

교맥(蹻脈) [경락] : 경혈 교맥(蹻脈)의 교(蹻)는 교첩(蹻捷)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기경팔맥(奇經八脈) 중의 하나다. 음교맥(陰蹻脈)과 양교맥(陽蹻脈)이 있으며, 불면(不眠)과 기면(嗜眠)에 각각 유효한 효과를 가져 수면(睡眠) 조절에 주로 관여한다.

교상(咬傷) [병증] : 내과 짐승, 뱀, 독벌레 등 동물에게 물린 것. 또는 물려서 생긴 상처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교설(嚙舌) [병증] ⇒ 설설(囓舌)

교신(交信)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의 경혈(KI8)로서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위 2촌되는 오목한 곳으로, 부류(復溜) 앞 5푼에 위치.

교심(驕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함억제복(頷臆臍腹) 중 함(頷)에서 나타나는 사심(邪心) 중 하나로 교만한 마음을 말한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는 만약 태음인이 교심을 경계하여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 절세의 주책(籌策)이 있다고 하였다.

교아(齩牙) [병증] ⇒ 계치(齘齒)

교아(咬牙) [병증] ⇒ 계치(齘齒)

교유(交乳) [병증] ⇒ 기유(魌乳)

교의(交儀) [경혈] ⇒ 여구(鬳溝)

교이(膠飴) [약물] 동 이당(飴糖) : 본초 쌀, 보리, 밀, 수수, 옥수수, 조 등의 전분을 맥아즙으로 당화시켜 농축한 것.

교인(矯引) [추나] ⇒ 추나(推拿)

교장(交腸) [병증] 동 교장증(交腸症), 교장병(交腸病) : 내과 여자가 소변에 대변이 섞여 나오는 증. 직장·질·방광(또는 외요도) 루(瘻)에 해당한다.

교장병(交腸病) [병증] ⇒ 교장(交腸)

교장사(攪腸痧) [병증] ⇒ 건곽란(乾霍亂)

교장사(絞腸痧) [병증] 동 반장사(盤腸痧) : 내과 건곽란(乾霍亂)을 달리 부른 이름. 배가 비트는 것처럼 아픈 병증을 말한다.

교장온(絞腸瘟) [병증] : 내과 배가 꼬이듯이 아픈 온역(瘟疫).

교장증(交腸症) [병증] ⇒ 교장(交腸)
교접출혈(交接出血) [병증] 동 교합출혈(交合出血), 교결출혈(交結出血), 교감출혈(交感出血) : 부인 성관계 도중이나 후에 나타나는 출혈. 대부분 간화가 망동하여 장혈하지 못하거나 비허하여 통혈하지 못하여 생긴다. 국소적으로는 자궁경부에 발생한 용종, 미란, 경부암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교정성 선전추나법(矯正性 旋轉推拿法) [추나] ⇒ 교정성선전(矯正性旋轉)
교정성선전(矯正性旋轉) [추나] 동 교정성 선전추나법(矯正性 旋轉推拿法) : 재활 측굴기법과 굴곡전화기법을 혼합한 형태로 접촉한 주동수를 고정시키고 추나치료 테이블의 손잡이를 보조수를 이용하여 치료대의 골반부분을 좌측 또는 우측 측굴시킨 뒤 굴곡전환기법을 이용하여 다시 중앙으로 위치시키는 방법.
교차배혈법(交叉配穴法) [침구] 동 교차선혈법(交叉選穴法) : 침구 좌측 상지혈을 취할 때 우측 하지혈을 배합하고, 우측 상지혈을 취할 때 좌측 하지혈을 교차하여 배혈하는 방법.
교차선혈법(交叉選穴法) [침구] ⇒ 교차배혈법(交叉配穴法)
교태(敎胎) [기타] ⇒ 태교(胎敎)
교통(絞痛) [증상] : 내과 비트는 것처럼 몹시 아픈 증상.
교통(疞痛) [증상] : 내과 배가 몹시 아픈 것.
교편(翹片) [약물] : 본초 음편(飮片)의 변연(邊緣)이 고르지 않은 것. 약재를 연화(軟化)할 때 내부의 함수(含水)가 과다한 때문으로 빈랑, 백작약 등에서 볼 수 있음.
교합(交合) [기타] : 부인 성교를 말함.
교합출혈(交合出血) [병증] ⇒ 교접출혈(交接出血)
교회(咬蛔) ⇒ 회(蛔)
교회혈(交會穴) [경혈] : 경혈 일혈(一穴)이 여러 경에 동속(同屬)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경맥이 함께 일혈(一穴)을 지나는데 그 중 주요한 일경을 본경(本經)이라고 하고 교회하는 경을 인경(隣經) 혹 타경(他經)이라 칭한다.
구(傴) [병증] ⇒ 구루(傴僂)
구(痀) [병증] ⇒ 구루(傴僂)
구(拘) [증상] : 내과 몸과 팔다리의 근육에 경련이 와서 몹시 오그라드는 병증.
구(嘔) [증상] : 내과 사기가 위(胃)에 있어서 위기가 하강(下降)하지 못하고 기가 역상(逆上)함으로써 출현하는 음식을 게우는 증상.
구(灸) [침구] 동 뜸, 구법(灸法) : 침구 치료법의 하나로 뜸쑥 혹은 쉽게 타는 성질을 가진 약물을 혈 자리 위에 놓고 태우거나, 김을 쐬고 문질러 주는 방법.
구(胊) [병증] ⇒ 구체(胊涕)
구각궤양(口角潰瘍) [증상] 동 구각미란(口角糜爛) : 안이 구각미란과 유사. 구각에서 피부점막으로 이행되는 부위에 완두콩 크기의 궤양이 생기고 백색의 태피(苔被)가 덮이는 병증.
구각미란(口角糜爛) [증상] ⇒ 구각궤양(口角潰瘍)
구각류연(口角流涎) [병증] 동 구유연(口流涎) : 안이 입 주위로 타액이 흐르는 증상. 비위의 병으로서 비랭(脾冷)하면 차가운 타액이 흐르고 위열(胃熱)이 있으면 뜨거운 타액이 흐른다.
구각왜사(口角歪斜)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구갈(口渴) [증상] : 안이 화조(火燥)로 인한 것으로 유여한 병이며 실열증의 갈증(渴症)을 말함.
구감(口疳) [병증] : 소아 안이 주로 소아에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소아들이 설사를 계속하다가 치유되었거나 혹 아직 덜 치유된 상태에서 구강 내가 침식(侵蝕)되어 부란(腐爛)되고 또는 목구멍까지 퍼져 아파서 불편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또한 몸이 야위고 배가 불러오면서 설사를 하며 손바닥 한 가운데가

후끈거리는 등의 증상.
구감(口甘) [증상] : 진단 입안이 단 증상을 말함. 진액이 비(脾)에 정체되어 있거나 오장의 묵은 기(氣)가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병명은 비단(脾癉).
구감풍(口疳風) [병증] ⇒ 설생포(舌生泡)
구갑(龜甲) [약물] ⇒ 귀판(龜板)
구강(拘强) [병증] ⇒ 구련(拘攣)
구건(口乾) [증상] 동 구조(口燥) : 안이 진액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갈증을 느끼나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음.
구계(拘瘈) [병증] ⇒ 구련(拘攣)
구고(嘔苦) [병증] 동 구담(嘔膽), 구토고수(嘔吐苦水) : 내과 쓴 물을 토하는 증으로 쓴 물을 토하면서 입이 쓴 병증.
구고(口苦) [증상] : 진단 입안에 쓴맛의 느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열사가 담(膽)을 훈증하여 담즙이 입으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함.
구골엽(枸骨葉) [약물] : 본초 감탕나무과(冬青科 : Aquifoliaceae)에 속하는 상록 관목인 호랑가시나무 *Ilex cornuta* Lindl. ex Paxt. 의 잎으로, 가을철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구규(九竅) [해부] : 두면부의 칠규(七竅)와 전음, 후음을 가리킴.
구규폐색증(九竅閉塞證) [병증] ⇒ 기폐증(氣閉證)
구규불통(九竅不通) [병증] ⇒ 기폐증(氣閉證)
구금(口噤) [증상] 동 금구(噤口), 아관긴급(牙關緊急) : 정신 입을 벌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중풍(中風), 경병(痙病), 경궐(驚厥) 등의 질환에서 볼 수 있음.
구급(拘急) [병증] ⇒ 구련(拘攣)
구기(口氣) [진찰] ⇒ 구취(口臭)
구기(九氣) [병리] 동 구기증(九氣證) : 정신 구기는 기기문란(氣機紊亂)을 야기하는 9가지 병인으로 희(喜)·노(怒)·사(思)·비(悲)·공(恐)·경(驚)·한(寒)·열(熱)·노(怒)를 가리킴. 노하면 기가 역상(逆上)하고, 희하면 기가 완만해지며, 슬퍼하면 기가 소산(消散)되고, 두려워하면 기가 하함(下陷)되며, 한하면 기가 수렴되고, 열하면 기가 빠져나가며, 놀라면 기가 역란(逆亂)하고, 피로하면 기가 모산(耗散)되며, 생각을 과도하게 하면 기가 울결(鬱結)된다고 하였다. 구기증 증상에는 정서불안하고 심복자통(心腹刺痛), 음식무미(飮食無味)하며, 혹 기이불식(或飢而不食) 혹 불식이불기(或不食而不飢)하고, 심흉비민(心胸痞悶), 대소변난삽(大小便難澁) 등이 나타남.
구기근피(枸杞根皮) [약물] ⇒ 지골피(地骨皮)
구기자(枸杞子) [약물] : 본초 가지과(茄科 : Solanaceae)에 속한 만생관목(蔓生灌木)인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성숙한 과실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성숙한 것을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동속식물에는 영하구기(寧夏枸杞) *L. barbarum* L. 등이 있음. 보통 처음 며칠은 강한 햇볕에, 그 다음은 바람이 잘 부는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서 사용.
구기증(九氣證) [병리] ⇒ 구기(九氣)
구긴(口緊) [병증] ⇒ 촬구(撮口)
구닉(口齷) [병증] ⇒ 우치(齲齒)
구담(嘔膽) [병증] ⇒ 구고(嘔苦)
구담(口淡) [증상] 동 구담무미(口淡無味) : 진단 입안이 싱거워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위열(胃熱)로 인한 실증과 위허(胃虛)로 인한 허증을 구별해야 한다.
구담무미(口淡無味) [증상] ⇒ 구담(口淡)
구도맥(九道脈) [진찰] [징후] : 진단 맥상(脈象) 분류의 하나. 24맥을 칠표(七表)·팔리(八裏)·구도(九道)의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구도맥은 장맥(長脈)·단맥(短脈)·허맥(虛脈)·촉맥(促脈)·결맥(結脈)·대맥(代脈)·뇌맥(牢脈)·동맥(動脈)·세맥(細脈)의 아홉 가

지를 가리킨다.
구등(鉤藤) [약물] ⇒ 조구등(釣鉤藤)
구련(拘攣) [병증] 동 구련(疴攣), 구급(拘急), 연급(攣急), 구강(拘强), 구계(拘瘈) : 내과 힘줄이 오그라들고 땅기면서 뻣뻣해지는 병증.
구련(疴攣) [병증] ⇒ 구련(拘攣)
구루(傴僂) [병증] 동 구(傴), 구(疴), 배루(背僂), 대루(大僂) : 내과 늙거나 병으로 등이 굽어져서 펴지 못하는 병증. 이 밖에 선천성 척추 기형으로 오는 곱사등.
구류연(口流涎) [병증] ⇒ 구각류연(口角流涎)
구륙보사(九六補瀉) [침구] 동 구륙수보사법(九六數補瀉法) : 침구 염전(捻轉), 제삽(提揷)의 횟수를 9[양수(陽數)]와 6[음수(陰數)]을 사용하여 보사(補瀉)하는 방법.
구륙수보사법(九六數補瀉法) [침구] ⇒ 구륙보사(九六補瀉)
구리(久痢) [병증] : 소아 오랫동안 낫지 않는 이질(痢疾). 이증(痢症)이 오래되면서 비위가 휴손(虧損)되어 중기(中氣)가 아래로 꺼져 발생. 대변에 끈적한 곱과 피가 섞여 나오고 배가 살살 아프며 화장실에서 헛되이 배에 힘만 쓰게 되는데, 심하면 항문이 빠져나오며 정신이 피곤하고 무력하며 살이 마르고 식욕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구맥(瞿麥) [약물] 동 거구맥(巨句麥) : 본초 석죽과(石竹科 : Caryophyl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술패랭이꽃(瞿麥) *Dianthus superbus* Linne의 전초(全草). 중국에서는 패랭이꽃(석죽石竹) *D. chinensis* L.도 기원식물로 인정함.
구맥(鉤脈) [진찰] [징후] : 진단 사시맥(四時脈) 중 여름철의 정상적인 맥. 약간 긴(緊)하고 홍대(洪大)하며, 올 때는 성(盛)하고 갈 때는 쇠(衰)한 것이 마치 갈고리의 형상과 같다.
구미(口糜) [증상] ⇒ 구미란(口糜爛)
구미(鳩尾) [경혈] 동 갈우(鬲骨), 고지원(膏之原), 미예(尾翳)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5)로서 락혈(絡穴)에 해당하고 배꼽 위 7촌에 위치.
구미란(口糜爛) [증상] 동 구미(口糜) : 안이 궤양성 구내염이나 괴저성 구내염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창(口瘡)보다 증상이 심하며 입 안 전체가 짓무르고, 혹 인후까지 파급되기도 함.
구미루(龜尾漏) [병증] : 안이 천미골(薦尾骨) 상부나 하부에서 발생하며 신체하부와 배척골부(背脊骨部)가 모두 홍종동통(紅腫疼痛)하고 조열(潮熱)이 있고 신중(身重)하며 3~4일, 6~7일 사이에 누공(漏孔)에서 농이 많이 배출되는 치루(痔漏).
구미증(口味證) [병증] : 안이 비정상적인 맛을 자각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주로 오장 각각의 열에 의해 발생함. 구산(口酸), 구고(口苦), 구감(口甘), 구신(口辛), 구함(口鹹), 구삽(口澁) 등을 들 수 있음.
구배(龜背) [병증] 동 융배(隆背) : 소아 척골이 휘어 마치 거북 등처럼 생긴 병증. 태품부족(胎稟不足)이나 조양실의(調養失宜)로 비신(脾腎)이 모두 허하여 척골이 유약하여짐으로써 발생. 등뼈가 기형적으로 휘어 튀어나오고, 등을 구부리며 걷고, 몸이 마르는 증상인데 구루병, 척추결핵에서 발생한다.
구법(灸法) [침구] ⇒ 구(灸)
구벽(口僻)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구벽(口癖)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구변자(九變刺) [침구] ⇒ 구자(九刺)
구불능언(口不能言) [증상] ⇒ 불어(不語)
구비(久痺) [병증] : 재활 질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 기혈이 손상되고 간신이 허손(虛損)해져서 근골(筋骨)을 실양(失養)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증(痺症). 온통온산(溫通溫散)시키거나 자음(滋陰)하여 치료.
구비(鼽鼻) [병증] ⇒ 비구(鼻鼽)
구사(求嗣) [기타] 동 구자(求子), 자사(子嗣) : 부인 ①임신을 못하는 여성이 임신할 것을 바

라는 것. ②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회임할 수 있도록 섭생지도 및 치료를 하여 임신하게 하는 것.

구사충체(驅瀉蟲體) [치법] ⇒ 구충법(驅蟲法)

구산(口酸) [증상] : 진단 입안에 항상 신맛의 느낌이 있는 것을 가리킴. 간열이 비에 침입하여 운화기능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숙식(宿食)이 정체되어 위로 넘치므로 발생.

구삽(口澁) [증상] 동 구색(口濇) : 진단 입안이 텁텁하면서 깔깔하고 건조한 감이 있는 것을 가리킴.

구상매창(口上梅瘡) [병증] : 안이 구강매독(口腔梅毒)을 말함.

구색(口濇) [증상] ⇒ 구삽(口澁)

구수증(口水證) [병증] : 안이 주로 소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심, 위의 열로 염천혈(廉泉穴)이 열려 입안의 침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

구신(口辛) [증상] : 진단 안이 입안에 항상 매운맛의 느낌이 있는 것을 가리킴. 대개 폐열이 원인.

구안와사(口眼喎斜) [병증] 동 구벽(口僻), 구각왜사(口角歪斜), 구와(口喎), 구벽(口癖), 와벽(喎僻), 와벽불수(喎僻不遂), 와사풍(喎斜風), 풍견와사(風牽喎斜), 풍견와벽(風牽喎僻), 풍견편시(風牽偏視), 풍견편(風牽偏) : 내과 안면근육의 마비로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병증.

구암(久瘖) [병증] ⇒ 성아후(聲啞喉)

구역(嘔逆) [증상] : 내과 위기(胃氣)가 화강(和降)하지 못하고 역상(逆上)하여 속이 메슥거리면서 게우려는 증상.

구연(口軟) [병증] : 소아 입에 힘이 없어 맑은 침을 흘리는 병증. 소아가 젖이 모자라 비위의 기가 허약해져 발생. 입술은 비가 주관하므로 입술에 핏기가 없고, 씹는 힘이 약하며 때로 맑은 침을 흘린다.

구와(口喎)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구인(蚯蚓) [약물] ⇒ 지룡(地龍)

구자(求子) [기타] ⇒ 구사(求嗣)

구자(韭子) [약물] 동 가구자(家韭子)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부추 *Allium tuberosum* Rottler의 성숙한 종자. 가을에 과실이 성숙했을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종자를 털어내고 잡질을 제거하여 사용.

구자(九刺) [침구] 동 구변자(九變刺), 구자법(九刺法) : 침구 영추(靈樞) 〈관침(官鍼)〉에 나오는 9가지 자법(刺法). 수자(輸刺), 원도자(遠道刺), 경자(經刺), 낙자(絡刺), 분자(分刺), 대사자(大瀉刺), 모자(毛刺), 거자(巨刺), 쉬자(焠刺)가 이에 해당.

구자법(九刺法) [침구] ⇒ 구자(九刺)

구절초(九折草)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var. *latilobum*(Maxim.) Kitamura 및 동속근연식물의 전초(全草).

구조(口燥) [증상] ⇒ 구건(口乾)

구종심통(九種心痛) [병증] : 내과 9가지 심통 · ① 충심통(蟲心痛) · 주심통(疰心痛) · 풍심통(風心痛) · 계심통(悸心痛) · 식심통(食心痛) · 음심통(飮心痛) · 냉심통(冷心痛) · 열심통(熱心痛) · 거래통(去來痛), ② 충통(蟲痛) · 식통(食痛) · 주통(疰痛) · 풍통(風痛) · 계통(悸痛) · 음통(飮痛) · 냉통(冷痛) · 열통(熱痛) · 거래통(去來痛).

구중화(口中和) [징후] : 진단 외감병에서 입안이 쓰거나 메마르지 않고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미 위음(胃陰)이 회복되어 위기(胃氣)가 정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증(九蒸) [포제] : 본초 법제(法製) 방법의 일종. 약재를 찜통이나 시루에 넣고 9번 찌는 것을 말함. 약재를 그대로 찌거나, 식초(食醋), 술 등의 보조 재료에 재웠다가 찌기도 하는데

주로 구증구폭(九蒸九曝)할 때 적용. → 구증구폭(九蒸九曝)

구증구쇄(九蒸九曬) [포제] ⇒ 구증구포(九蒸九曝)

구증구포(九蒸九曝) [포제] 동 구증구쇄(九蒸九曬) : 본초 포자법(炮煮法)의 일종으로 약재를 찌고 햇볕에 말리기를 9번 반복하는 것.

구지(久持) [진찰] : 진단 진맥용어로 맥진시에 맥을 누르는 시간을 비교적 길게 유지하는 것을 가리킴. 촉맥(促脈)·결맥(結脈)·대맥(代脈) 등을 짚을 경우에 주로 활용.

구진(丘疹) [증상] : 안이 모침두대(帽鍼頭大)나 완두대(豌豆大)로 피부에 돌출하는 실질성 피진(實質性 皮疹)을 말함.

구창(口瘡) [병증] : 안이 일종의 구강 점막병으로 아프타성 구내염과 유사함. 반복 재발하는 특징이 있음.

구척(狗脊) [약물] 동 금모구척(金毛狗脊) : 본초 방각궐과(蚌殼蕨科 : Dicksoniaceae)에 속한 다년생 상록초본(常綠草本) 중 대형 고사리 종류인 금모구척(金毛狗脊) *Cibotium barometz* (L.) J. Smith의 근경(根莖). 가을과 겨울에 캐어 건조한 후 사용.

구체(鼽涕) [병증] 동 구(鼽), 비색유체(鼻塞流涕) : 안이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

구체(鼽嚏) [병증] : 안이 콧물이 나오면서 재채기를 하는 병증.

구충(九蟲) [병리] : 내과 9가지 기생충. 복충(伏蟲), 회충(蛔蟲), 백충(白蟲), 육충(肉蟲), 폐충(肺蟲), 위충(胃蟲), 약충(弱蟲), 적충(赤蟲), 요충(蟯蟲).

구충(驅蟲) [치법] ⇒ 구충법(驅蟲法)

구충법(驅蟲法) [치법] 동 구충(驅蟲), 구사충체(驅瀉虫體), 살충(殺蟲) : 방제 기생충을 없애는 치료 방법.

구취(口臭) [진찰] 동 구기(口氣) : 진단 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기가 흉격에서 상역(上逆)하여 발생되기도 하고, 허화울열(虛火鬱熱)이 흉위(胸胃)에 쌓이거나 폐화(肺火)로 인해 발생하기도 함.

구치법(灸痔法) [치법] : 안이 뜸쑥을 혈 자리에 놓고 뜸을 떠 치루를 다스리는 방법.

구침(口鍼) [침구] 동 구침술(口鍼術) : 침구 구순, 구각부에 존재하는 특정혈에 대한 집중적인 시술.

구침(九鍼) [침구] : 침구 옛날에 쓰던 9가지 침을 통틀어 이른 말. 참침(鑱鍼), 원침(員鍼), 시침(鍉鍼), 봉침(鋒鍼), 피침(鈹鍼), 원리침(員利鍼), 호침(毫鍼), 장침(長鍼), 대침(大鍼) 등.

구침술(口鍼術) [침구] ⇒ 구침(口鍼)

구탈(救脫) [치법] : 탈증(脫證)을 치료하는 방법을 통칭한 말. 구탈에는 구양(救陽-회양구역回陽救逆), 구음(救陰)이 있는데, 전자는 망양증(亡陽證)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망음증(亡陰證)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구태(垢胎) [병증] ⇒ 격경(激經)

구토(嘔吐) [병증] : 내과 사기가 위에 있어서 위기(胃氣)가 화강(和降)하지 못하고 기가 역상(逆上)하여 음식물을 게우는 증상.

구토고수(嘔吐苦水) [병증] ⇒ 구고(嘔苦)

구판(龜板) [약물] ⇒ 귀판(龜板)

구판(龜板) [약물] 동 구판(龜板), 귀갑(龜甲) : 본초 남생이과(龜科 : Testudinidae)에 속한 척추동물인 남생이 *Chinemys reevesii* Gray의 복갑(腹甲) 또는 배갑(背甲)을 채취하여 잔육(殘肉)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것. 연중 채집이 가능하나 가을과 겨울철에 주로 많이 포획하는데 복갑을 구판이라 불렀으며, 배갑을 귀갑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구폭(九曝) [포제] : 본초 약재 법제(法製) 방법의 일종. 약재를 햇볕에 9번 말리는 것을 가리킴. → 구증구포(九蒸九曝)

구학(久瘧) [병증] ⇒ 노학(老瘧)

ㄱ

구함(口鹹) [증상] : 진단 입안에 짠맛의 느낌이 있는 것을 가리킴. 신열(腎熱)이나 신액(腎液)이 위로 올라가 발생.

구허(丘墟)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의 경혈(GB40)로서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의 앞 아래쪽 오목한 곳으로 발등의 입방뼈(입방골; cuboid)와 발꿈치뼈(거골; calcaneus)의 사이에 위치.

구혈(嘔血) [병증] : 내과 구역성(嘔逆聲)을 발하면서 혈이 구토(嘔吐)를 따라 나오는 출혈증상.

구혈시간(驅血時間) [진찰] : 진단 ejection time. 맥파의 기시점에서 정점을 지나 절흔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 좌심실이 수축하여 심실내압이 하강하고 대동맥내압보다 낮아져 압력차에 의하여 대동맥판막이 폐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구후(球後) [기혈]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눈 직하방 즉, 안와하연(眼窩下緣)에서 취혈하고 안광하연(眼眶下緣) 외측 4분의 1점에 위치.

구후(九候) [진찰] : 진단 진맥할 때 증후를 예측하는 방법의 하나. 전신을 두루 진단하는 방법의 경우 두부·상지·하지를 각기 천(天)·지(地)·인(人)으로 나누면 모두 구후가 되고, 촌구맥법(寸口脈法)의 경우 촌(寸)·관(關)·척(尺)의 삼부(三部)를 각기 부(浮)·중(中)·침(沈)으로 나누면 모두 구후가 됨.

구흉(龜胸) [병증] ⇒ 계흉(鷄胸)

구흘(口吃) [병증] ⇒ 건흘(蹇吃)

국화(菊花) [약물] : 본초 국화과 (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inné 또는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uelle의 꽃.

군신좌사(君臣佐使) [약물] 동 주보좌사(主輔佐使) : 방제 방제를 구성하는 기본원칙. 군(君)은 처방 중에서 주증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주된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 일미(一味) 혹은 같은 성미(性味)를 가진 몇 가지 약물이고, 신(臣)은 주약(主藥)에 협조하거나, 혹은 주약의 약력(藥力)을 증강하는 약물이다. 좌(佐)는 주약에 협조하면서 겸증(兼證)을 치료하거나, 혹은 주약의 독성과 준열(峻烈)함을 억제하거나, 혹은 반좌(反佐)하는 약물이고, 사(使)는 각 약물이 병변 부위에 직접 도달하도록 이끌거나, 혹은 각 약물의 작용을 조화하는 약물이다.

군약(君藥) [약물] ⇒ 군신좌사(君臣佐使)

군열(皸裂) [병증] ⇒ 군열창(皸裂瘡)

군열창(皸裂瘡) [병증] 동 군열(皸裂), 준게(皴揭) : 안이 살갗이 갈라 터지는 병.

군주지관(君主之官) [생리] ⇒ 심(心)

군화(君火) [생리] ⇒ 심화(心火)

굴곡지(屈曲指) [병증] : 재활 어떤 여러 원인에 의해 손가락이 구부러진 것.

굴신법(屈伸法) [진찰] : 재활 손상부위의 관절을 붙잡고 굴신시켜 각도를 계측하여 관절운동 기능 이상 여부를 평가하고 선전법과 함께 시행하여 굴신과 회전 운동등도 비교하는 수법.

굴신불리(屈伸不利) [증상] 동 난이굴신(難以屈伸), 관절굴신불리(關節屈伸不利), 지절굴신불리(肢節屈伸不利) : 내과 관절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어려운 증.

굴주안(屈肘按) [치법] : 재활 팔꿈치를 굴곡하여 팔꿈치의 주부(肘部)로 누르는 안법(按法).

굴지안(屈指按) [치법] : 재활 모지, 식지, 중지를 굴곡하여 체표의 일정 부위를 누르는 안법(按法).

권격법(拳擊法) [추나] : 재활 격법(擊法)의 일종으로 주먹으로 두드리는 수기법(手技法).

권곡(拳曲) [병증] ⇒ 도첩권모(倒睫拳毛)

권백(卷柏) [약물] 동 자삼(紫參) : 본초 부처손과(卷柏科 : Selaginellaceae)에 속한 다년생 상록초본(常綠草本)인 부처손 *Selaginella tamarisicina* (Beauv.) Spring의 전초(全草)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하여 사용.

권삼(拳參) [약물]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범꼬리 *Bistorta manshuriensis* Komarov의 뿌리줄기로, 봄에는 발아(發芽) 전, 가을에는 경엽(莖葉)이 시들 무렵 채취하여 잔경(殘莖)과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권와(蹏臥) [증상] : 내과 몸을 구부리고 눕는 증상.

권이(卷耳) [약물] ⇒ 창이자(蒼耳子)

권태무력(倦怠無力) [증상] 동 권태핍력(倦怠乏力), 주신권태핍력(周身倦怠乏力) : 내과 피곤하여 힘을 쓰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마치 게으른 듯이 보이는 증상.

권태핍력(倦怠乏力) [증상] ⇒ 권태무력(倦怠無力)

궐(蹶) [병리] ⇒ 궐(厥)

궐(厥) [병리] 동 궐(蹶), 궐증(厥症), 궐증(厥證), 궐병(厥病) : ① 재활 기의 상역(上逆)을 의미함, ②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병증, ③ 손발이 찬 증상 → 궐역(厥逆).

궐(闕) [진찰] [기혈] ⇒ 인당(印堂)

궐두통(厥頭痛) [병증] : 내과 경기(經氣)가 거슬러 올라옴으로써 발생하며 두통이 계속되면서 이빨까지 쑤시는 병증. 궐역두통(厥逆頭痛), 뇌역두통(腦逆頭痛)이라고도 함.

궐랭(厥冷) [병증] : 내과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증상으로 흔히 손발 끝에서부터 차츰 싸늘해서 올라온다.

궐롱(厥聾) [병증] : 안이 궐기(厥氣)가 이내(耳內)로 상박(相搏)하여 청력장애가 나타남.

궐병(厥病) [병증] ⇒ 궐(厥)

궐심열심증(厥深熱深證) [변증] ⇒ 궐음한격증(厥陰寒格證)

궐심통(厥心痛) [병증] : 내과 ①사기가 심포락을 침입하여 발생하며 심장 부위가 아프며 통증은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고 등으로 뻗치며 안정할 때는 통증이 덜해지고 움직이면 심해지는 병증, ② 신심통(腎心病), 위심통(胃心病), 비심통(脾心病), 간심통(肝心病), 폐심통(肺心病)의 5가지를 포괄하는 말.

궐양(厥陽) [병리] : 병리 음(陰)이 없고 양(陽)만이 존재하는 병증을 총칭함.

궐역(厥逆) [병증] : 병리 ① 손발이 찬 병증. ② 가슴과 배가 극심하게 아프며 두 발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병증. ③ 오랫동안 머리가 아픈 병증.

궐역두통(厥逆頭痛) [병증] ⇒ 궐두통(厥頭痛)

궐역증(厥逆證) [병증] : 병리 한궐증(寒厥證), 열궐증(熱厥證), 통궐증(痛厥證) 등이 해당.

궐음(厥陰) [경락] [생리] 동 궐음경(厥陰經), 궐음경증(厥陰經證) : 경혈 ① 옛 음(陰)이 다하고 새로운 음이 싹트는 전화단계를 말함. 일음(一陰)이라고도 함. ② 궐음경 또는 족궐음간경.

궐음경(厥陰經) [경락] ⇒ 궐음(厥陰)

궐음경증(厥陰經證) [병증] ⇒ 궐음(厥陰)

궐음병(厥陰病) [병증] : 병리 임상표현이 비교적 복잡하고 동시에 또 비교적 중한 음경병(陰經病)으로 한열착잡(寒熱錯雜), 궐열승복(厥熱勝復), 궐역(厥逆)이 특징임.

궐음병증(厥陰病證) [변증] : 병리 육경병증 중 최후의 단계. 정기와 사기의 상쟁소장(相爭消長)의 최후 상태로 양기가 쇠미(衰微)하여 음양조절이 문란하게 되어 나타난다.

궐음수(厥陰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14)로서 네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궐음열박대장증(厥陰熱迫大腸證) [변증] : 병리 습열이 하박(下迫)하고 예탁(穢濁)이 옹체하여 대장내의 기의 흐름이 실상(失常)되어 이급후중(裏急後重), 복통(腹痛), 변농혈(便膿血)이 출현하는 병증.

궐음한격증(厥陰寒格證) [변증] 동 궐심열심증(厥深熱深證) : 병리 사열(邪熱)이 깊이 들어가

ㄱ

이부(裏部)에 울결함으로써 양기가 울체되고 펴지지 못해 생긴 병증.

궐음혈허한응증(厥陰血虛寒凝證) [변증] : 병리 혈맥이 평소 허한데다가 외한(外寒)의 침범을 받아 기혈이 응삽(凝澁)됨으로써 경맥이 비조(痺阻)되어 나타나는 병리변화.

궐음화풍증(厥陰化風證) [병증] ⇒ 간양화풍증(肝陽化風證)

궐음회궐증(厥陰蛔厥證) [변증] : 병리 ① 궐음한사(厥陰寒邪)가 울체되어 있다가 위(胃)로 상승하여 위기(胃氣)가 허한(虛寒)해지고 사기가 요동침으로써 회충(蛔蟲)이 불안해져 때때로 번조(煩躁)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② 궐음장기(厥陰臟器)가 한사(寒邪)를 받아 위부(胃部)가 요란해짐으로써 회충이 격부(膈部)로 상충(上冲)하여 회충을 토하게 되는 상태.

궐정(闕庭) [진찰] ⇒ 천정(天庭)

궐증(厥症) [병증] ⇒ 궐(厥)

궐증(厥證) [병증] ⇒ 궐(厥)

궤산(潰疝) [병증] ⇒ 퇴산(癀疝)

궤양(潰瘍) [증상] : 안이 저절로 헐거나 부스럼을 째 놓은 자국을 통틀어 일컬음.

궤양개구법(潰瘍開口法) [치법] : 안이 궤양 때 창구(瘡口)를 넓게 열어주는 외치법.

궤양거부법(潰瘍祛腐法) [치법] : 안이 궤양이 터진 후 부육(腐肉)과 농독(膿毒)을 적당한 시기에 제거하는 방법.

궤양생기법(潰瘍生氣法) [치법] : 안이 체표 궤양이 아무는 것을 촉진하는 방법.

귀격(鬼擊) [병증] ⇒ 중악(中惡)

귀경(歸經) [약물] : 본초 약물이 작용하는 부위를 인체의 12경, 혹은 오장육부 등으로 표현한 것.

귀굴(鬼窟) [경혈] ⇒ 노궁(勞宮)

귀궁(鬼宮) [경혈] ⇒ 수구(水溝)

귀래(歸來)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29)로서 중극(中極) 양쪽 2촌에 위치.

귀전(鬼箭) [약물] ⇒ 귀전우(鬼箭羽)

귀전우(鬼箭羽) [약물] 동 위모(衛矛), 귀전(鬼箭) : 본초 노박덩굴과(衛矛科 : Celastr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Siebold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줄기에 생긴 날개모양의 코르크.

귀태(鬼胎) [병증] ⇒ 포도태(葡萄胎)

규망세(窺望勢) [기공] : 재활 기공요법. 운동요법의 하나로 환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수련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 고대의 '토납, 도인(吐納, 導引)'에서 기원하는데 좌식(左式), 와식(臥式), 참식(站式) 등의 자세가 있고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연공법(練功法)으로는 방송공(放鬆功)과 내양공(內養功) 등이 있다.

규맥(芤脈) [진찰] [징후] : 진단 28맥의 하나. 규(芤)는 총(葱)을 말하는 데, 맥상이 부대(浮大)하고 연약하면서 누르면 속이 비어 있어서 마치 총관(葱管)같으므로 규맥이라 한다. 대량 실혈(失血) 후에 흔히 나타나는 맥상.

규음(竅陰) [경혈] : 경혈 두규음(頭竅陰)은 족소양담경의 경혈(GB11)로서 부백(浮白)의 아래 1촌에 위치. 족규음(足竅陰)은 족소양담경의 경혈(GB44)로서 정금혈(井金穴)에 해당하고 4 번째 발가락 가쪽(외측; lateral) 발톱뿌리 각에서 가쪽(외측; lateral)으로 1푼 되는 곳에 위치.

규폐(竅閉) [병증] : 안이 외상(外傷-폭음(暴音), 타박(打撲), 이내창상(耳內瘡傷) 등)에 의하여 이규(耳竅)에 이상을 초래하여 막히게 된 것.

귤인(橘仁) [약물] ⇒ 귤핵(橘核)

귤자인(橘子仁) [약물] ⇒ 귤핵(橘核)

귤핵(橘核) [약물] 동 귤자인(橘子仁), 귤인(橘仁)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ceae)에 속한 귤나무 *Citrus unshiu* Marcorvich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종자.

극맥(極脈) [징후] ⇒ 질맥(疾脈)

극문(郄門)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 경혈(PC4)로서 극혈(郄穴)에 해당하고 손목관절 손바닥 쪽 횡문에서 팔꿈치 횡문까지를 1척의 골도법으로 하여 대릉(大陵)과 곡택(曲澤) 사이 한 가운데 위치.

극수(極兪) [기혈] 동 하극수(下極兪) : 경혈 요배부의 기혈로서 3 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함중에 위치.

극천(極泉)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의 경혈(HT1)로서 겨드랑 중앙의 동맥이 뛰는 곳에 위치.

극혈(郄穴) [경혈] : 경혈 기혈이 회집(匯集)하는 골교(骨交)의 간극(間隙)이나 공극혈기(孔隙血氣)의 심집(深集)을 뜻하는 간극(間隙)의 뜻으로 경기취집(經氣聚集)의 부위를 말하며, 급성병증 치료에 이용.

근(根) [경혈] : 경혈 영추·근결편(靈樞·根結篇)에 나오는 표현으로 근은 사지말단의 정혈(井穴)이며 결(結)과 함께 경기(經氣)가 순행하는 양극(兩極)의 상연관계(相連關係)를 설명.

근(筋) [해부] : 심줄, 근육, 건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골절(骨節)에 붙어 있는 근으로서 골 외에도 근막을 포괄. 근의 성질은 단단하고 질기며, 골절, 기육 등의 운동기관을 묶어 주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근과 근막의 기능은 간이 주관하고, 아울러 간혈의 자양을 받는다.

근감(筋疳) [병증] ⇒ 간감(肝疳)

근강(筋强) [병증] : 재활 갑자기 힘을 무리하게 씀으로 인해 근이 뻣뻣하게 굳어 정상적인 유연성을 잃는 것.

근결(根結) [경혈] : 경혈 영추·근결편(靈樞·根結篇)에 나오는 표현으로 근(根)은 사지말단의 정혈(井穴)이며 결(結)은 두안면(頭眼面)이나 구간(軀幹)과 유관한 부위를 지칭하는데, 주로 경기(經氣)가 순행하는 양극(兩極)의 상연관계(相連關係)를 설명.

근결(筋結) [병증] : 병리 몸에 구슬을 꿰어 놓은 듯한 결괴(結塊)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며, 대부분 간의 조달기능이 실조됨으로 인해 기혈이 몰려서 발생.

근계(筋瘈) [병증] ⇒ 근련(筋攣)

근고(筋枯) [병증] : 병리 혈이 근(筋)을 영양하지 못해 지절활동이 불리해져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하는 병증.

근극(筋極) [병증] : 병리 육극(六極)의 하나. 근맥(筋脈)이 피로권태하고 무거우면서 땅기는 질환. 근극이 발생하면 손톱이 모두 아프고 오래 서 있지 못하며 심한 경우는 설권(舌卷), 낭축(囊縮), 순청(脣靑)이 발생한다.

근급(筋急) [병증] 동 근급증(筋急證) : 병리 근맥(筋脈)이 땅기고 뻣뻣하여 굴신이 불리한 증상.

근급증(筋急證) [병증] ⇒ 근급(筋急)

근단(筋斷) [병증] : 재활 외상으로 인해 근이 끊어지는 것.

근도(筋度) [진찰] : 진단 오도(五度)의 하나. 근(筋)의 대소(大小), 견취(堅脆)[강약(强弱)]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번침각자(燔針却刺) 등 강한 자극요법을 사용할 때 감안해야 한다.

근두채(根頭菜) [약물] ⇒ 위릉채(委陵菜)

근력(筋癧) [병증] : 안이 근축 관주(筋縮 貫珠)한 상태의 나력(瘰癧).

근련(筋攣) [병증] 동 근계(筋瘈) : 사지의 근맥이 수축되어 경련이 발생해서 굴신할 수 없는 병증. 한습(寒濕)이 침입하거나 혈이나 진액의 부족으로 경맥을 자양하지 못해서 생기며, 근련(筋攣)은 중풍(中風), 파상풍(破傷風), 경병(痙病) 등에서 볼 수 있다.

근류(筋瘤) [병증] : 안이 분노로 인한 간 손상으로, 견경(堅硬)하고 자색(紫色)을 띤 만곡(彎曲)된 청근(靑筋)이 첩첩히 싸여 있는 것이 마치 구인(蚯蚓)과 같은 모양의 유증(瘤症).

근번(筋翻) [병증] ⇒ 근번(筋䯒)

ㄱ

근번(筋飜) [병증] 동 근번(筋翻) : 재활 갑작스럽게 힘을 씀으로 인해 근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번전증(飜轉症).
근비(筋痺) [병증] : ① 풍한습사가 근(筋)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비증(痺證). ② 간비(肝痺)를 가리킴. ③ 풍비(風痺)를 가리킴. → 풍비(風痺)
근산(筋疝) [병증] : 음경(陰莖)이 가렵고 아프며 늘어져서 오그라들지 않고, 정액 같은 것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병증. 대부분 지나친 성교로 인해 발생한다.
근상(筋傷) [병증] ⇒ 상근(傷筋)
근상증(筋傷證) [병증] ⇒ 상근(傷筋)
근상증(筋傷症) [병증] ⇒ 상근(傷筋)
근영(筋癭) [병증] : 안이 분노로 인한 간 손상으로 근맥이 노출되고 종양이 돌기되는 영증(癭症).
근완(筋緩) [병증] 동 근완증(筋緩證) : 근맥이 늘어져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
근완증(筋緩證) [병증] ⇒ 근완(筋緩)
근왜(筋歪) [병증] : 재활 어떤 원인에 의해 근이 삐뚤어 진 것.
근저(筋疽) [병증] : 안이 ① 등골의 양쪽 옆을 끼고 생기는 저(疽). ② 곤륜혈(崑崙穴)에 생기는 꼭지 없는 저(疽).
근전(筋轉) [병증] : 재활 급작스럽게 힘을 씀으로 인해 근(筋)이 비틀려 손상되는 것.
근절(筋絶) [병증] : 근맥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병증.
근정(筋精) [진찰] : 안이 간장(肝臟)과 관련된 정미로운 물질. 등결(騰結)하여 안계(眼系)의 풍륜(風輪)이 된다.
근주(筋走) [병증] : 재활 외부 압력에 의해 급작스럽게 근(筋)이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근지부(筋之府) [경혈] ⇒ 양릉천(陽陵泉)
근축(筋縮) [병증] 동 축근(縮筋) : 재활 근맥이 구급경련동통(拘急痙攣疼痛)하는 것. 대부분 한사를 감수하거나, 혹은 열사에 의해 근맥이 손상되거나, 혹은 혈허로 경맥(經脈)을 영양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경병(痙病)·비증(痺證) 등에서 볼 수 있다. 만약 순청(脣青)·설권(舌卷)·낭축(囊縮) 등의 증상을 수반하면 위중한 증후에 속한다고 본다.
근통(筋痛) [병증] : 근육 동통.
근해(筋解) [병증] : 힘줄이 늘어진 것. 이때는 팔다리의 관절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근혈(近血) [병증] 동 선혈후변(先血後便) : 내과 먼저 선홍색의 피가 나오고 나중에 변이 나오는 병증.
금감(金疳) [병증] : 안이 포(泡)를 형성하고 소결절양(小結節樣)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성결막염(泡性結膜炎)과 유사.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다소의 이물감이나 가벼운 외광(畏光)과 유루(流淚)를 동반한다.
금구(噤口) [증상] ⇒ 구금(口噤)
금구리(噤口痢) [병증] : 소아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고 먹자마자 토하거나 구역이 나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이질.
금구자(金龜子) [약물] ⇒ 제조(蠐螬)
금금체질(金金體質) [진찰] → 금체질(金體質)
금기(禁忌) [기타] 동 계기(戒忌) : 원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수 있어 삼가해야 하는 것. 예로 질병에 따른 약물의 금기, 음식의 금기, 행동의 금기 등을 들 수 있다.
금기(金氣) [생리] : 생리 폐가 금(金)에 해당하여 인체의 기를 맑게 하고 하행시키는 기운.
금령자(金鈴子) [약물] ⇒ 천련자(川楝子)
금모구척(金毛狗脊) [약물] ⇒ 구척(狗脊)
금목체질(金木體質) [진찰] → 금체질(金體質)
금문(金門)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63)로서 극혈(郄穴)에 해당하고 경골(京骨)과 신맥(申脈)의 중간에 위치.
금박(金箔) [약물] 동 금박지(金箔紙) : 본초 순금을 얇게 만든 것으로 정량할 때 금(Au :

196.967) 99.0% 이상을 함유하고 있음.
금박지(金箔紙) [약물] ⇒ 금박(金箔)
금불초(金佛草) [약물] ⇒ 선복화(旋覆花)
금불환(金不換) [약물] ⇒ 삼칠(三七)
금사주입(金絲注入) [침구] : 침구 순금의 금사(金絲)를 피하에 주입하는 방법.
금사초(金絲草) [약물] ⇒ 토사자(菟絲子)
금수체질(金水體質) [진찰] → 금체질(金體質)
금실불명(金實不鳴) [병증] : 폐기(肺氣)가 실(實)하여 목이 쉬는 병증.
금앵자(金櫻子) [약물] 동 자이자(刺梨子)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상록반원관목(常綠攀援灌木)인 금앵자나무 *Rosa laevigata* Michx.의 성숙한 과실로, 10~11月 사이에 과실이 붉게 익었을 때 채취하여 건조한 후 모자(毛刺)를 제거하여 사용.
금어운동(金魚運動) [치법] : 재활 두 팔을 목 뒤에서 깍지 끼고 똑바로 누워 발끝을 당긴 채 마치 붕어가 유영하듯 허리와 둔부를 좌우로 흔드는 것. 위장병을 비롯한 각종 부인병 등 복부에 위치한 장기와 관련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
금은화(金銀花) [약물] : 본초 인동과(忍冬科: Caprifoliaceae)에 속한 다년생 반상록목질등본(半常綠木質藤本)인 인동 *Lonicera japonica* Thunb의 화뢰(花蕾)로, 여름철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금인상(金刃傷) [병증] : 내과 금창(金瘡)을 달리 부른 이름.
금작근(金雀根) [약물] ⇒ 골담초근(骨膽草根)
금저(禽疽) [병증] : 안이 배부전면(背部全面)에서 발생하며, 창형(瘡形)이 주먹으로 쳐서 자국이 난 것과 같이 홍자색(紅紫色)의 반흔(瘢痕)이 나타나 있는 옹저.
금전초(金錢草) [약물] : 본초 앵초과(報春花科: Primulac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과로황(過路黃) *Lysimachia christinae* Hance의 전초(全草)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
금정(金井) [진찰] ⇒ 동신(瞳神)
금진옥액(金津) [경혈] 동 좌금진 우옥액(左金津 右玉液) : 경혈 경외기혈. 혀 밑에서 취혈하고, 혀 밑에 있는 설소대(舌小帶) 양쪽의 정맥(靜脈)상 좌측을 금진(金津), 우측을 옥액(玉液)이라 함.
금체질(金體質) [진찰] : 진단 운기체질의 한 분류. 변증에서 현재의 병증 이외에 오행 중 금(金)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이 태과(太過)하여 금극목(金剋木)하거나, 금수(金水)의 특징인 차가운 성질을 나타내거나, 태음인 습의 병증이 나타난다. 금금(金金)체질, 금토(金土)체질, 금수(金水)체질, 금목(金木)체질, 금화(金火)체질로 세분.
금토체질(金土體質) [진찰] → 금체질(金體質)
금파불명(金破不鳴) [병증] : 병리 폐신(肺腎)의 음(陰)이 허하면 기로 화(化)할 음이 없어 기가 부족해지므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가리킴.
금화체질(金火體質) [진찰] → 금체질(金體質)
급감(急疳) [병증] : 소아 입술이 갑자기 파래지거나 하얗게 되고, 잇몸이 부어 꽉 차며, 고름과 피가 함께 나오고, 썩어 문드러지면서 쑤시고 아픈 병증. 뺨은 빨갛거나 하얀 빛깔을 띠거나 또는 검은 무리를 두르는 경우도 있음.
급경풍(急驚風) [병증] : 소아 경풍의 하나로 발작이 급박한 것을 말함. 급경풍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외부에서 여러 가지 심한 자극을 받아 일어나거나, 심간(心肝)의 화(火)가 치성하고 외감한 풍한이 울폐(鬱閉)되어 발설(發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며, 음식을 절제하지 아니하여 비위에 담이 정체되었다가 열로 화(化)하면 담열(痰熱)이 서로 훈증하여 규도(竅道)가 막혀 발생하기도 한다. 축닉이 나타는데 발병이 급작스러우며 경(驚),

ㄱ

풍(風), 담(痰), 열(熱)의 4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급맥(急脈)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의 경혈(LR12)로서 곡골(曲骨) 양쪽 2촌 5푼에 위치.

급성자(急性子) [약물] 동 봉선자(鳳仙子) : 본초 봉선화과(鳳仙花科 : Balsaminaceae)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인 봉선화 *Impatiens balsamina* Linne의 성숙한 종자로서, 여름과 가을에 열매가 성숙하였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급화구법(急火灸法) [침구] : 침구 짧은 시간동안 강한 화력으로 뜸을 뜨는 방법. 사(瀉)하는 뜸법.

급황(急黃) [병증] : 내과 졸연 발황(卒然 發黃)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면서 명재경각(命在頃刻)한 병증.

긍심(矜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함억제복(頷臆臍腹) 중 억(臆)에서 나타나는 사심(邪心) 중 하나로 뻐기는 마음을 말한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는 만약 소음인이 긍심(矜心)을 경계하여 뻐기는 마음이 없다면 절세의 경륜(經綸)이 있다고 하였다.

기(肌) [생리] ⇒ 기육(肌肉)

기(氣) [생리] : 생리 ①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 ② 인체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기(精氣), 진기(眞氣), 수곡지기(水穀之氣), 호흡지기(呼吸之氣) 등 기능 활동의 동력. ③ 사물이나 현상의 양(陽)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면.

기가(氣街) [경락] ⇒ 사가(四街)

기격(氣膈) [병증] : 내과 심중울(心中鬱), 간화역상(肝火逆上)으로 인해 대변불리(大便不利), 식입즉토(食入則吐), 흉민애기(胸悶噯氣), 장탄식(長嘆息)하는 병증.

기결(氣結) [병리] ⇒ 기체(氣滯)

기경(奇經) [경락] 동 기경팔맥(奇經八脈) : 경혈 기(奇)는 단독을 뜻하는 것으로 팔맥(八脈) 상호간에는 일정한 음양표리(陰陽表裏)의 배우(配偶) 관계가 없으므로 기경이라 하였다. 기경팔맥은 십이경맥 사이에서 종합적인 조절작용을 하며, 독맥(督脈), 임맥(任脈), 충맥(衝脈), 대맥(帶脈), 양교맥(陽脈), 음교맥(陰脈), 양유맥(陽維脈), 음유맥(陰維脈) 등의 8종이 있다.

기경납괘법(奇經納卦法) [침구] ⇒ 영구팔법(靈龜八法)

기경팔맥(奇經八脈) [경락] ⇒ 기경(奇經)

기고(氣鼓) [병증] : 내과 복부(腹部)를 눌렀을 때 고(鼓)와 같이 팽만(膨滿)한 병증. 고창(鼓脹)의 일종.

기고(氣高) [증상] : 내과 가슴이 그득하고 숨이 가빠 고르지 않은 병증.

기고(氣瞽) [병증] : 내과 기허(氣虛)로 야기된 전신부종.

기공(氣功) [기공] : 내과 옛날 양생법의 하나. 호흡조절과 정신을 안정하고 집중시키는 것을 규정대로 반복하여 기혈을 고르게 함으로써 몸을 튼튼하게 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방법.

기관(氣關) [진찰] [추나] : ① 진단 소아에서 지문(指紋)으로 진단하는 부위 중 하나. 지문이 식지(食指)의 둘째 마디까지 뻗어 들어간 것을 기관이라 하는데 병사(病邪)가 비교적 심한 것을 나타낸다. → 진지문(診指紋) ② 동 중관(中關), 묘(卯) : 추나 둘째손가락의 추나(推拿)부위를 지칭하는 지삼관(指三關)의 하나. 식지(食指)의 둘째 마디 손바닥 쪽에 있는데, 유법(揉法)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행기통규(行氣通竅)한다.

기구(氣口) [진찰] ⇒ 촌구(寸口)

기구맥(氣口脈) [진찰] : 진단 오른쪽 촌구(寸口)에서 나타나는 맥. → 촌구(寸口)

기구진법(氣口診法) [진찰] ⇒ 촌구진법(寸口診法)

기궐(氣厥) [병증] [병리] : 내과 기의 순환장애

로 오는 궐증.
기극(氣極) [병증] : 내과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며, 항상 크게 성내려고 하고, 기운이 약하여 말을 하기 어려운 병증. 육극증(六極證) 중 하나.
기기(氣機) [생리] : 생리 인체 내부의 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기의 승강출입의 기본 흐름. 장부의 생리적인 기능 활동을 의미하기도 함.
기기상역증(氣機上逆證) [병증] ⇒ 기역증(氣逆證)
기기실조(氣機失調) [병리] 동 기기역란(氣機逆亂), 기란(氣亂) : 병리 ① 장부기능 활동의 장애. ② 삼초의 승강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흉격(胸膈)에 비색불통(痞塞不通)한 증상이 출현한 상태.
기기역란(氣機逆亂) [병리] ⇒ 기기실조(氣機失調)
기뉵(肌衄) [병증] : 내과 외상에 의하지 않은 기표출혈(肌表出血). → 혈한(血汗)
기능성 족지장단분석검사(機能性 足趾長短分析檢査) [추나] : 추나 양측 다리길이의 차이를 통해 골반의 변위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진단평가방법.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단(氣端) [기혈]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열 발가락 끝에 위치.
기단(氣短) [병증] ⇒ 단기(短氣)
기담(氣痰) [병리] 동 기담증(氣痰證) : 내과 인후에 막힌 담. 헌솜과 매화씨 같아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으며 가슴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을 유발.
기담증(氣痰證) [병증] ⇒ 기담(氣痰)
기란(氣亂) [병리] ⇒ 기기실조(氣機失調)
기력(氣癧) [병증] : 안이 배부전면(背部全面)에서 발생하며, 창형(瘡形)이 주먹으로 쳐서 자국이 난 것과 같이 홍자색(紅紫色)의 반흔(瘢痕)이 나타나 있는 옹저.
기루(氣漏) [병증] : 안이 종양이 종대(腫大) 혹은 소멸되기도 하고 통창(痛脹)하여 참기 어려운 것.
기류(氣瘤) [병증] : 안이 과로로 인한 원기손상 때문에 정서 상태[희노(喜·怒)]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며 한열이 없는 유증(瘤症).
기륜(氣輪) [진찰] : 안이 눈동자의 백정(白睛). 오장 중 폐에 속하며 폐는 기를 주관하므로 그 질환은 대개 폐, 대장과 유관하다.
기리(氣痢) [병증] : 내과 이질의 하나. 배변의 상(狀)이 해발(蟹渤)과 같고 구급(拘急)이 있는 병증.
기린갈(麒麟竭) [약물] ⇒ 혈갈(血竭)
기린혈(麒麟血) [약물] ⇒ 혈갈(血竭)
기림(氣淋) [병증] : 내과 배뇨(排尿)가 삽체불쾌(澁滯不快)하고 배뇨 후 여력미진(餘力未盡)하여 소복창만(小腹脹滿)한 병증. 임병(淋病)의 일종.
기맥(奇脈) [진찰] [징후] : 진단 ① 안색과 부합되지 않는 맥상. ② 기경팔맥(奇經八脈)의 약칭. → 기경팔맥(奇經八脈)
기면(嗜眠) [증상] ⇒ 기와(嗜臥)
기모(氣耗) [병리] : 병리 기의 양이 부족하거나 그 부족으로 인해 장부기능이 감퇴되는 것.
기문(期門)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의 경혈(LR14)로서 간의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거궐(巨闕) 양쪽 3촌 5분으로 6·7번째 갈비뼈사이에 위치.
기문(箕門)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의 경혈(SP11)로서 무릎 뼈(슬개골; ptella) 안쪽 면 위 8촌으로 넙다리빗근(봉공근; sartorius) 부위에 위치.
기문옹(箕門癰) [병증] : 안이 생랭물(生冷物)을 과음한 것이 원인이 되어 비경의 기문혈(箕門穴)에서 발생한 옹저.
기미(氣味) [약물] : 본초 약물의 성미(性味).

약물이 함유하고 있는 한열온량(寒熱溫凉) 사기(四氣)와 신감산고함(辛甘酸苦鹹) 오미(五味)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리키는데, 이것으로 약물의 작용과 효능을 설명.

기방(奇方) [기타] : 방제 칠방(七方)의 하나. 약미(藥味)가 홀수(奇數)인 경우 혹은 단미방(單味方)을 가리킴.

기병(氣病) [병증] ㊐ 기병증(氣病證) : 병리 기의 부족이나 기기실조로 추동(推動), 온후(溫煦), 방어(防禦), 고섭(固攝), 기화(氣化) 등 기의 작용에 이상이 나타나는 병증. 허증으로는 기허증(氣虛證), 기함증(氣陷證), 기탈증(氣脫證) 등이 있고, 실증으로는 기체증(氣滯證), 기역증(氣逆證), 기폐증(氣閉證) 등이 있다.

기병증(氣病證) [병증] ⇒ 기병(氣病)

기본병기(基本病機) [병리] : 병리 음양, 기혈, 진액대사의 실조와 장애 등의 기본적인 병리변화. 음양실조(陰陽失調), 기혈실조(氣血失調), 진액불화(津液不化)의 3가지로 나뉨.

기부(氣府) [경혈] ⇒ 경문(京門)

기부갑착(肌膚甲錯) [병증] ㊐ 갑착(甲錯), 기약어린(肌若魚鱗) : 안이 피부가 메마르고 갈색을 띠며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까칠까칠하고 각질화 되어 벗겨지는 것.

기부실양(肌膚失養) [병리] : 재활 비의 운화기능이 순조롭지 못하여 기부가 원활한 영양을 받지 못하고 영위(榮衛)가 불통하여 기육이 마비불인(痲痺不仁)하고 육위(肉痿)가 발생하는 것.

기부족(氣不足) [병리] ⇒ 기허(氣虛)

기분(氣分) [병증] [변증] : 병리 ① 기의 범위에 속하는 기능 활동 및 그 병변을 가리킴. 보통 혈분(血分)에 상대하여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재기분(邪在氣分), 기분습열(氣分濕熱) 등이 있음. ② 온열병의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중의 한 단계. →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③ 양기(陽氣)가 허한 틈을 타서 한기가 기분에 뭉친 병을 가리킴.

기분증(氣分證) [병증] : 병리 온열병의 화열(化熱)단계, 즉 온열병사가 표(表)에서 이(裏)로 들어가는 단계로서 양열(陽熱)이 항성(亢盛)한 이열증후(裏熱證候)를 가리킨다. 열이 나되 오한은 나지 않고 설태(舌苔)가 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비(氣痞) [병증] ㊐ 기비증(氣痞症) : 내과 기가 몰려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러 오르는 병증.

기비(氣秘) [병증] : 내과 ① 기체변비(氣滯便秘), 기가 몰리거나 허해서 생긴 변비. ② 숨을 순조롭게 쉬지 못하는 병증.

기비(肌痺) [병증] : 재활 한습이 기부(肌膚)에 침입하여 야기된 비증(痺症)을 가리키는데 착비(着痺), 습비(濕痺)라고도 한다.

기비증(氣痞症) [병증] ⇒ 기비(氣痞)

기사(氣舍)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11)로서 인영(人迎) 아래, 복장빗장관절(흉쇄관절; sternoclavicular joint)의 윗부분으로 천돌(天突) 양쪽 1촌 5푼에 위치.

기사(氣瀉) [병증] : 내과 기기(氣機)가 조체(阻滯)되거나, 기울(氣鬱)이 있으면서 설사하는 병증.

기사(蘄蛇) [약물] ⇒ 백화사(白花蛇)

기산(氣疝) [병증] : 내과 기기(氣機)가 막혀 복중기통(腹中氣痛)이 발생한 것. 복중(腹中)에 기가 가득 찼다 줄었다 하면서 통증이 오는 병증.

기성취(氣腥臭) [병리] ⇒ 성기(腥氣)

기소(氣少) [병증] ⇒ 단기(短氣)

기수(氣嗽) [병증] : 내과 담연(痰涎)이 뭉쳐있는 것이 헌솜이나 매화 씨 같으며, 인후에 붙어 있어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기침.

기수(氣水) [병증] : 부인 십수(十水) 중 하나로 기기(氣機) 문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종(水腫)의 일종.

기수종(氣水腫) [병증] : 내과 폐신부족(肺腎不足)으로 수기(水氣)가 피부에 정체되어 전신종

만(全身腫滿), 천급(喘急) 대소변삽(大小便澁), 흉협번민(胸脇煩悶)이 보이는 병증.

기식(嗜食) [증상] : 내과 음식을 배부른 줄 모르고 자꾸 먹는 병증. 위열(胃熱)이나 충적(蟲積)으로 생김.

기심통(氣心痛) [병증] : 내과 칠정(七情)의 기가 몰려 심통(心痛)이 생긴 것으로 가슴 속에 기가 몰려서 일정한 곳이 없이 찌르는 것 같이 아픈 병증.

기액대사(氣液代謝)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설명되는 용어로서, 폐는 기액(氣液)을 내뿜고 간은 기액을 빨아들이는데, 이러한 간폐(肝肺)의 대사를 기액대사라고 함. 비신(脾腎)의 수곡대사(水穀代謝)와 비교되는 용어.

기액지문호(氣液之門戶)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나오는 용어로 간폐(肝肺)의 기능을 말함. 폐로는 내뿜고 간으로는 빨아들이므로 간폐는 기액(氣液)을 호흡하는 문호라고 한 것.

기약어린(肌若魚鱗) [병증] ⇒ 기부갑착(肌膚甲錯)

기양력(疽瘍癧) [병증] : 안이 유방이나 양쪽 사타구니(兩胯)와 같은 부드러운 살결에 나타나는 나력(瘰癧).

기역(氣逆) [병리] : 병리 폐·위·간 등이 외사, 식체(食滯), 화열(火熱), 담탁(痰濁), 정신적인 억울 상태 등에 영향을 받아 기가 역상(逆上)하여 불순(不順)해지는 병리.

기역증(氣逆證) [병증] 동 기기상역증(氣機上逆證) : 병리 기역(氣逆)으로 인한 병증. 그 증상은 해수상기(咳嗽上氣), 기촉천식(氣促喘息), 애역연성(呃逆連聲), 오심구토(惡心嘔吐), 반위(反胃) 등이 주증이고, 인양해창(咽痒咳嗆), 호흡기조(呼吸氣粗), 담기상옹(痰氣上壅), 후간록록(喉間漉漉), 장구태견이천(張口抬肩而喘), 온복창통(脘腹脹痛), 애기(噯氣) 등이 차증이며, 태박니 혹 황니(苔薄膩或黃膩), 맥활삭 혹 현삭(脈滑數或弦數)하다.

기열(氣噎) [병증] : 내과 기체옹색(氣滯壅塞)으로 인해 음식불하(飮食不下), 흉중열색(胸中噎塞)한 병증.

기열(肌熱) [증상] : 내과 기표(肌表)에 열이 나는 느낌이 드는 증상.

기영(氣癭) [병증] : 안이 과로로 인한 원기손상 때문에 정서 상태[희노(喜怒)]에 따라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면서도 가렵거나 아프지 않은 영증(癭症).

기옹(氣壅) [병증] : 내과 기가 몰려서 통하지 못하는 병증. 기울(氣鬱)·기체(氣滯)와 같은 뜻.

기와(嗜臥) [증상] 동 기면(嗜眠), 다매(多寐), 다면(多眠), 다수(多睡), 선면(善眠) : 정신 피로 권태하여 잠만 자려하고, 순식간에 잠드는 증상. 대부분 습승(濕勝)·비허(脾虛)·담열(痰熱)로 인해 발생한다.

기요통(氣腰痛) [병증] : 재활 정지불서(情志不舒)로 인해 기기(氣機)가 울체되어 발생한 요통.

기울(氣鬱) [병리] 동 울기(鬱氣), 기울증(氣鬱證), 기울증(氣鬱症) : 정신 정지불서(情志不舒)로 인한 기기울결(氣機鬱結)을 가리키는 병증으로, 흉고(胸苦), 흉통(胸痛), 이노(易怒), 식욕부진(食欲不振), 월경불순(月經不順), 맥침삽(脈沈澁), 흉협 혹비 혹통(胸脇或痺或痛), 부종창만(浮腫脹滿)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냄. → 육울(六鬱), 울증(鬱症)

기울증(氣鬱症) [병리] ⇒ 기울(氣鬱)

기울증(氣鬱證) [병리] ⇒ 기울(氣鬱)

기원(基原) [약물] : 본초 어떤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원 식물, 동물 혹은 광물의 특정 부위를 말한다.

기유(魌乳) [병증] 동 계병(繼病), 교유(交乳) : 부인 아이가 임신한 엄마의 젖을 먹거나 유식정체(乳食停滯)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불량성 질병.

ㄱ

기육(肌肉) [생리] 동 기(肌) : 생리 근육(筋肉).
기육소수(肌肉消瘦) [병증] 동 기육수삭(肌肉瘦削), 기육위축(肌肉萎縮) : 내과 기육이 점점 야위는 것. 대개 비기허손(脾氣虛損)으로 인해 운화기능이 실조되어 먹은 음식이 기육을 자라게 하지 못해 발생하는데, 주로 허로(虛勞), 구사(久瀉) 및 만성 소모성 질환 등에서 볼 수 있다.
기육수삭(肌肉瘦削) [병증] ⇒ 기육소수(肌肉消瘦)
기육연(肌肉軟) [증상] : 소아 기육이 허약하고 피부에 탄력이 없는 증상. 오연(五軟)의 하나로 흔히 소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기육은 비(脾)가 주관하는데 어린아이가 젖이 부족하여 비위기(脾胃氣)가 허약하면 기육이 약하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며 몸이 여위고 사물을 헤아리는 능력이 떨어진다.
기육위축(肌肉萎縮) [병증] ⇒ 기육소수(肌肉消瘦)
기음양상증(氣陰兩傷證) [병증] ⇒ 기음양허증(氣陰兩虛證)
기음양허(氣陰兩虛) [병리] : 병리 열성병(熱性病) 혹은 만성소모성 질병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음액(陰液)과 양기(陽氣)가 모두 모상(耗傷)되는 병리.
기음양허증(氣陰兩虛證) [병증] 동 기음양휴증(氣陰兩虧證), 기음양상증(氣陰兩傷證) : 병리 외감이나 내상으로 인해 양기(陽氣)와 음액(陰液)이 모두 부족해져 나타난 병증. 신피핍력(神疲乏力), 음성저미(音聲低微), 한출기단(汗出氣短), 식욕부진(食慾不振), 변당(便溏), 구건인통(口乾咽痛), 관홍(顴紅), 저열도한(低熱盜汗) 등이 주증이고, 오심번열(五心煩熱), 오후조열(午後潮熱), 건해소담(乾咳少痰), 해창각혈(咳嗆咯血), 상기천촉(上氣喘促), 완통작열(脘痛灼熱), 두훈목현(頭暈目眩), 심계지종(心悸肢腫), 요산이명(腰痠耳鳴)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舌質紅), 태소이박 혹유열문(苔少而剝 或有裂紋), 맥허세이삭(脈虛細而數)하다.
기음양휴증(氣陰兩虧證) [병증] ⇒ 기음양허증(氣陰兩虛證)
기자(豈刺) [침구] ⇒ 관자(關刺)
기절(氣絶) [병증] : 정신 오장육부, 십이경맥의 기운이 쇠갈(衰竭)한 상태.
기정(氣精) [진찰] : 안이 폐장(肺臟)과 관련된 정미로운 물질. 등결(騰結)하여 안계(眼系)의 기륜(氣輪)이 됨.
기제(旣濟) [생리] ⇒ 수화기제(水火旣濟)
기종(氣腫) [병증] 동 부허(浮虛) : 안이 ① 기울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부종. ② 기울 증상이 있는 종기. 압진(壓診)시 피부긴축(皮膚緊縮)하며 내면(內面)은 부드럽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없어지고 성을 내면 커지며, 붉거나 발열하지 않으며 피부색도 정상이다.
기주(氣注) [병증] : 내과 노체(勞瘵)와 같은 뜻.
기중(氣中) [병증] : 정신 유중풍증(類中風症)의 하나. 칠정과도로 기가 울결되거나, 혹은 분노로 간기(肝氣)가 동하여 기가 상역(上逆)해서 인사불성(人事不省), 아관긴급(牙關緊急), 수족구급경련(手足拘急痙攣), 맥침(脈沈), 신량(身凉), 구무담연(口無痰涎)하는 병증. → 중기(中氣)
기지(氣至) [침구] [치법] ⇒ 득기(得氣)
기지감응(氣至感應) [침구] ⇒ 득기감(得氣感)
기창(氣脹) [병증] : 내과 신체가 종대(腫大)하고 사지가 수삭(瘦削)하며 안면이 흑색으로 변하고 협통(脇痛)을 겸발(兼發)하기도 하는 병증. 칠정이 울결하여 기도(氣道)를 옹색(壅塞)해서 발생.
기체(氣滯) [병리] 동 기결(氣結) : 병리 병사(病邪), 외상(外傷), 정신적인 문제 등에 의해 기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울체되는 것.
기체증(氣滯證) [병증] 동 기행조체증(氣行阻滯證) : 병리 기운이 울체되는 병증. 특징적인 통증양상을 보이고 증상의 발현이 정서변화

에 영향을 받음. 그 증상은 완복흉협유방요배동통(脘腹胸脇乳房腰背疼痛), 창민(脹悶), 시경시중(時輕時重), 통무정처(痛無定處), 찬통혹공통(竄痛或攻痛), 수정서이증감(隨情緖而增減) 등이 주증이고, 애기태식(噯氣太息), 결괴취산무상(結塊聚散無常), 애기(噯氣), 시기후증상감경(矢氣後症狀減輕), 견주퇴슬유주동통(肩肘腿膝流走疼痛), 월경시소복찬통(月經時少腹竄痛) 등이 차증이며, 설태박(舌苔薄), 맥현(脈弦)하다.

기체통(氣滯痛) [병증] : 재활 장부, 경락의 기가 막혀 통창(通暢)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통증. 불통즉통(不通則痛)의 의미.

기충(氣衝)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30)로서 곡골(曲骨) 양쪽 2촌에 위치.

기치(氣痔) [병증] : 안이 우(憂), 공(恐), 에(恚), 노(怒) 등이 작용할 때는 종통(腫痛)하고 그렇지 않으면 낫는 치창(痔瘡).

기탈(氣脫) [병리] 동 탈기(脫氣) : 병리 기가 고섭작용을 잃고 과도하게 밖으로 외설(外泄)되는 병리 상태. 사기(邪氣)가 왕성하고 정기(正氣)가 쇠갈(衰竭)된 경우, 대출혈로 기가 혈을 따라 빠져나가는 경우, 한토하(汗吐下)로 기가 진액을 따라 빠져나가는 경우, 오랜 병으로 음액(陰液)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흔히 생긴다.

기탈증(氣脫證) [변증] : 병리 기탈(氣脫)로 인한 병증. 돌연 대한임리(大汗淋漓), 정신위미(精神萎微), 목합구장(目合口張), 면색창백(面色蒼白), 기단불속(氣短不續), 이변자유(二便自遺), 설담반(舌淡胖), 맥세미 혹 규대(脈細微或芤大)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폐(氣閉) [병리] : 병리 기울이 태과하여 위로 심흉(心胸)이 옹색되고 심규(心竅)가 막혀 돌연히 혼궐(昏厥)하거나, 사기가 기도(氣道)를 막아 폐기가 조체(阻滯)되어 호흡이 곤란한 병리 상태.

기폐증(氣閉證) [병증] 동 청규피몽증(淸竅被蒙證), 구규폐색증(九竅閉塞證), 구규불통(九竅不通) : 병리 풍(風)·담(痰)·화(火)·어(瘀)로 인해 기기(氣機)가 순조롭지 못하고 구규가 막혀서 유발된 증으로, 그 증상은 혼미, 아관긴폐(牙關緊閉), 양수악고(兩手握固), 대변비결(大便秘結), 소변불통(小便不通) 등이 주증이고, 조동불안(躁動不安), 설강(舌强), 언어건삽(言語蹇澁), 섬어번조(譫語煩躁), 기조비한(氣粗鼻鼾), 후간담성록록(喉間痰聲漉漉), 수족구련(手足拘攣), 반신불수(半身不隨), 소복창만(少腹脹滿), 소복통(小腹痛), 애기빈작(噯氣頻作) 등이 차증이며, 태이(苔膩), 맥현활 혹 침활(脈弦滑或沈滑)함.

기포법(氣泡法) [치법] : 안이 자극성 약들을 가루나 즙으로 만들어 피부에 붙여 물집을 생기게 함으로써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기표(肌表) [생리] : 생리 기육과 피부로 둘러싸인 인체의 외부.

기핍(氣乏) [증상] : 내과 기부족 또는 기허와 같은 증상.

기함(氣陷) [병리] : 병리 비기(脾氣)가 허하여 승거무력(升擧無力)하면 하강하는 기운이 많고 올라가는 기운이 적어 기기(氣機)가 아래로 향하게 되는 병리.

기함증(氣陷證) [병증] : 병리 기함에 의한 병증. 그 증상은 기단핍력(氣短乏力), 완복창추(脘腹脹墜), 설사, 탈항, 부인음정(婦人陰挺) 등이 주증이고, 요산욕절(腰痠欲折), 유뇨(遺尿), 경수루하(經水漏下), 유산(流産), 신피뢰언(神疲懶言), 두훈목현(頭暈目眩) 등이 차증이며, 설담반(舌淡胖), 맥세완무력(脈細緩無力)하다.

기항지부(奇恒之腑) [생리] : 생리 오장육부에 소속되지 않는 특수기능을 담당하는 6개의 장기로, 뇌(腦)·수(髓)·골(骨)·맥(脈)·담(膽)·여자포(女子胞).

기해(氣海)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6)로서 배꼽 아래 1촌 5푼에 위치.

ㄱ

기해수(氣海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24)로서 3 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기행조체증(氣行阻滯證) [병증] ⇒ 기체증(氣滯證)

기허(氣虛) [병리] 동 기부족(氣不足) : 병리 기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어 기의 기능이 감퇴된 병리 상태. 선천적으로 부족하게 타고난 경우, 후천적으로 영양이 실조되거나 혹은 폐비신의 기능이 실조되어 기의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과로(過勞), 방로(房勞), 출혈(出血), 혹은 오랜 병 등으로 기가 과다하게 소모된 경우에 발생한다.

기허증(氣虛證) [병증] 동 원기허증(元氣虛證), 원기부족증(元氣不足證) : 병리 기허로 인한 병증. 호흡기단(呼吸氣短), 신피핍력(神疲乏力), 소기뢰언(少氣懶言) 등이 주증이고, 면색무화(面色無華), 어성저미(語聲低微), 음식무미(飮食無味), 자한(自汗) 등이 차증이며, 설담(舌淡), 맥세무력(脈細無力)하다.

기허통(氣虛痛) [병증] : 재활 만성적인 노권상(勞倦傷)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특징은 통처는 고정되고 종창(腫脹)은 없으며 압통이 있고 열을 만나면 통증이 경감(遇熱則痛減)하고 냉을 만나면 통증이 증가(遇冷則痛增)하는 것이다.

기혈(奇穴) [경혈] 동 경외기혈(經外奇穴) : 경혈 십사경맥에 속하는 혈위(穴位)외에 경험적으로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혈위를 말함.

기혈구허(氣血俱虛) [병리] ⇒ 기혈양허(氣血兩虛)

기혈변증(氣血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주로 내상잡병(內傷雜病)을 대상으로 한다. 기·혈의 병증을 강령으로 삼아 변증하는 것으로 기혈진액변증(氣血津液辨證)의 일부분. → 기혈진액변증(氣血津液辨證)

기혈부조(氣血不調) [병리] ⇒ 기혈실조(氣血失調)

기혈실조(氣血失調) [병리] 동 기혈부조(氣血不調) : 병리 각종 원인으로 인해 기혈의 생성, 운행, 기능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것. 기혈의 부족, 각각의 대사나 운동실조, 생리기능의 이상 및 기혈 사이의 불협조 등 병리변화를 포괄한다.

기혈쌍보(氣血雙補) [치법] ⇒ 쌍보(雙補)

기혈양허(氣血兩虛) [병리] 동 기혈구허(氣血俱虛), 기혈허손(氣血虛損), 기혈휴허(氣血虧虛) : 병리 기허로 인한 기능쇠퇴와 혈허로 인한 조직기관의 실양(失養)이 동시에 존재하는 병리상태.

기혈양허증(氣血兩虛證) [병증] 동 기혈휴허증(氣血虧虛證) : 병리 기허가 혈허를 유발하거나 혈허가 기허를 유발하여 생성된 증. 그 증상은 면색창백(面色蒼白), 안검구순담백(眼瞼口脣淡白), 신피핍력(神疲乏力), 호흡기단(呼吸氣短), 식무미(食無味), 두훈안화(頭暈眼花), 심계정충(心悸怔忡) 등이 주증이고, 실면다몽(失眠多夢), 음성저미(音聲低微), 건망탈발(健忘脫髮), 수족마목(手足麻木), 지체위연(肢體痿軟), 기육수삭(肌肉瘦削), 월경량소 색담여수(月經量少 色淡如水) 등이 차증이며, 설담눈(舌淡嫩), 맥세약무력(脈細弱無力)하다.

기혈음양병증(氣血陰陽病證) [변증] : 병리 가장 기본이 되는 병기로서, 기·혈·음·양에 병리적 상태가 나타난 것.

기혈진액변증(氣血津液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기혈·진액 각 방면의 병리변화를 분석하고 거기에 반영된 서로 다른 증후들을 변별하는 변증방식.

기혈허손(氣血虛損) [병리] ⇒ 기혈양허(氣血兩虛)

기혈휴허(氣血虧虛) [병리] ⇒ 기혈양허(氣血兩虛)

기혈휴허증(氣血虧虛證) [병증] ⇒ 기혈양허증

(氣血兩虛證)

기호(氣戶)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13)로서 젖꼭지 수직 위, 빗장밑 오목(쇄골하와; infraclavicular fossa)에 있으며 빗장뼈(쇄골; clavicle) 중점과 첫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기화(氣化) [생리] 동 기화작용 : 생리 ① 기의 운행변화. ② 인체 각 장부기관의 기화활동. ③ 자연육기(自然六氣)의 변화.

기화작용(氣化作用) [생리] ⇒ 기화(氣化)

기훈(氣暈) [병증] : 내과 미릉골통(眉稜骨痛), 안불가개(眼不可開)하면서 어지럼증이 있는 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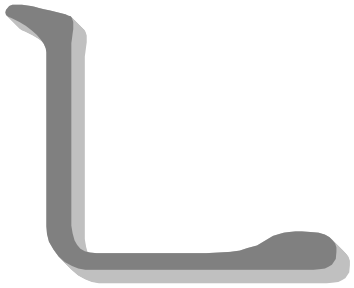
긴맥(緊脈) [진찰] 동 맥긴(脈緊) : 진단 28맥의 하나. 맥이 올 때 마치 밧줄처럼 팽팽하며 긴장감이 있는 맥상. 대부분 한사(寒邪)가 외표(外表)를 구속하거나 몸 안쪽의 한사가 지나치게 성하여 동통이 발생하는 각종 병증에서 나타난다. 이 밖에 폐에 한사가 울결되어 해천(咳喘)이 발생하는 경우, 간에 한사가 울결되어 풍간(風癎)이 발생하는 경우, 비가 한사를 감수하여 냉담(冷痰)을 토하는 경우 등에도 발생한다.

긴순(緊脣) [병증] ⇒ 순긴(脣緊)

긴후풍(緊喉風) [병증] : 안이 전후풍(纏喉風)과 흡사하나 차이점은 후내(喉內)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며 인중(咽中)이 종통(腫痛)하고 음성이 잘 나오지 않으며 담연(痰涎)이 막혀서 쉰 목소리를 낸다.

길경(桔梗) [약물] : 본초 초롱꽃과(桔梗科 : Campan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A.(Jacq)DC.의 근(根)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길초근(吉草根) [약물] : 동 힐초(纈草) 본초 마타리과(敗醬科 : Valeria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쥐오줌풀 *Valeriana fauriei* Briguet 또는 그 밖의 근연식물의 뿌리 및 뿌리줄기.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ㄴ

나(癩) [병증] 동 나병(癩病), 나증(癩證) : 안이 문둥병.

나(瘰) [병증] : 안이 나력(瘰癧) 중에서 핵(核)이 작은 것을 지칭.

나도근(糯稻根) [약물] 동 나도근수(糯稻根鬚)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찰벼 *Oryza sativa* L. var. *glutinosa* Matsum의 뿌리줄기와 뿌리로, 9~10月에 벼를 베어낸 후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나도근수(糯稻根鬚) [약물] ⇒ 나도근(糯稻根)

나력(瘰癧) [병증] 동 경력(頸癧), 경함나력(頸頷瘰癧), 누고력(螻蛄癧) : 안이 담핵(痰核)이 항전(項前), 항후(項後) 및 항(項)의 좌우양측에 관주(貫珠)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것.

나력풍(瘰癧風) [병증] : 안이 설상(舌上)의 창(瘡)이 극심하게 되어 혀가 뚫리고 볼이 뚫리게 되어 물을 먹어도 물이 새어 나오는 것.

나법(拿法) [추나] 동 나(拿), 조법(抓法) : 추나 시술자가 손가락을 병변부위의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 근건을 집어 올리는 수기법. 날법(捏法)과 동작이 매우 유사. 조작요령은 자극량이 균등하고 율동적이어야 하며, 점차 힘을 주어 집어 올리며 동작이 완만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지, 식지 및 중지 세 손가락으로 집어서 들어 올리면 삼지나법(三指拿法), 다섯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면 오지나법(五指拿法)이라고 한다. 경항부나 견부 및 사지부위에 주로 응용.

나(拿) [추나] ⇒ 나법(拿法)

나병(癩病) [병증] ⇒ 나(癩)

나복자(蘿蔔子) [약물] ⇒ 내복자(萊菔子)

나심(懶心) [사상] : 사상 나심(懶心)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천심(擅心), 치심(侈心), 욕심(慾心)과 함께 제시된 태행(怠行)으로서 요(腰)에 있다고 하였으며,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自卑)이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는 소양인의 허리에 만일 나심이 없다면 대인(大人)의 재간(材幹)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언(懶言) [증상] : 내과 기운이 없어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나증(癩證) [병증] ⇒ 나(癩)

낙(絡) [경락] 동 낙맥(絡脈) : 경혈 경맥에서 갈라진 그물모양의 크고 작은 곁가지. 15락(十五洛), 낙맥(絡脈) 및 손락(孫洛)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경맥과 협력하여 전신의 조직을 그물눈과 같이 연결시켜주고, 영위기혈(營衛氣血)을 운행시키는 작용을 한다.

낙각(絡却) [경혈] 동 강양(强陽)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8)로서 통천(通天) 뒤 1촌 5푼에 위치.

낙맥(絡脈) [경락] ⇒ 낙(絡)

낙법(烙法) [치법] : 안이 인두처럼 생긴 쇠붙이를 불에 적절하게 달군 뒤 농양(膿瘍)이나 환부를 지져주는 외치법.

낙석(絡石) [약물] ⇒ 낙석등(絡石藤)

낙석등(絡石藤) [약물] 동 낙석(絡石) : 본초 협죽도과(夾竹桃科 : Apocynaceae)에 속한 상록연원목질등목(常綠 攀援木質藤木)인 마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idium*

Nakai. 및 동속근연식물의 대엽등경(帶葉藤莖)으로, 가을에 잎이 떨어지기 전에 채집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낙석 *Trachelospermum jasminoides*(Lindl.) Lem. 을 사용.

낙속(絡屬) [경락] : 경혈 12경맥은 안으로 장부와 연결되어 있어, 음경(陰經)은 해당하는 장(臟)에 속하며 양경(陽經)은 해당하는 부(腑에) 각각 속하고, 아울러 음양경맥은 서로 표리관계가 있어 해당하는 표리관계의 장부에 각각 락(絡)한다. 즉, 음경은 장에 속하고 부에 락하며, 양경은 부에 속하고 장에 락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합하여 낙속(絡屬) 혹은 속락(屬絡)이라 한다.

낙수(絡兪) [경락] : 경혈 화기(火氣)의 작용을 받는 경혈(經穴)의 특정부위. 경혈을 천심(淺深)에 따라 그 공간적인 위치를 정할 때 혈락(血絡)이 지나는 위치를 말함.

낙자(絡刺) [침구] : 침구 구자(九刺)의 하나. 작은 낙맥(絡脈)의 혈맥을 찌르는 것.

낙저(樂疽) [병증] : 안이 지방성 음식물을 즐겨 먹었던 관계로 혈분(血分)에 열이 축적되어 전액상(前腋上) 골봉개합처(骨縫開合處-수궐음심포경)에서 발생하는 옹저.

낙침(落枕) [병증] 동 실침(失枕) : 재활 대개 잠을 자는 자세가 좋지 않거나 혹은 경부(頸部)에 풍한사기를 감수하거나 혹은 외부의 손상으로 발생. 경부가 시큰거리고 아프며 머리를 쳐들거나 구부리지 못하고 움직이기 힘드는데 치료는 안마(按摩), 자침(刺針)을 위주로 하고 열박(熱薄), 온위법(溫熨法)을 병행.

낙혈(絡血) [생리] : 생리 낙맥(絡脈) 속의 혈(血).

난각아(爛脚丫) [병증] ⇒ 취전라(臭田螺)

난간(暖肝) [치법] 동 온간(溫肝) : 온양법(溫陽法)의 하나. 간신허한(肝腎虛寒)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복동통(少腹疼痛), 산기(疝氣) 등을 이 방법으로 치료.

난경(亂經) [병증] ⇒ 월경선후무정기(月經先後無定期)

난면(難眠) [병증] ⇒ 실면(失眠)

난미(闌尾) [기혈]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족삼리(足三里)와 상거허(上巨虛)를 이은 선 사이의 압통점에 위치.

난산(難産) [병증] : 부인 분만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함. 해부학적 이상과 함께 기체(氣滯), 혈체(血滯), 기허(氣虛) 등에 의해 야기된다.

난신(暖腎) [치법] ⇒ 온신(溫腎)

난안변(爛眼邊) [병증] ⇒ 검현적란(瞼弦赤爛)

난유아(爛乳蛾) [병증] : 안이 후간(喉間)이 홍종(紅腫)하고 궤란(潰爛)된 반진(斑疹)이 있고 통증이 극심하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병증. 위(胃)와 폐(肺)에 열이 울결되어 발생한다.

난이굴신(難以屈伸) [증상] ⇒ 굴신불리(屈伸不利)

난축(卵縮) [증상] ⇒ 낭축(囊縮)

난퇴(卵癀) [병증] : 내과 음낭(陰囊)에 크고 딱딱한 종물(腫物)이 있고, 서혜부(鼠蹊部)나 하복부(下腹部)에 견인통(牽引痛)이 있으며, 심하면 제부(臍部)까지 인통(引痛), 교통(絞痛)이 발생하는 병증. 퇴산(癀疝)의 일종.

난현풍(爛弦風) [병증] ⇒ 검현적란(瞼弦赤爛)

난후비(爛喉痺) [병증] : 안이 인후(咽喉)안이 궤양 되고 종창(腫脹)하여 백색반점(白色斑點)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심한 병증. 간위(肝胃)의 열독으로 인해 발생.

난후사(爛喉痧) [병증] ⇒ 후사(喉痧)

난후풍(爛喉風) [병증] : 안이 인후(咽喉)가 짓무르는 후풍(喉風)을 가리킴. 대부분 폐위(肺胃)에 열독이 치성(熾盛)해 인후를 훈증하여 짓무르게 하거나, 혹은 고량후미를 과식함으로 인해 발생. 인후가 붓고 아프며, 회백, 회황색(灰白 · 灰黃色)으로 짓무르고 그 주위가 헐며, 입에서 악취가 남. 목젖이 부어서 아래

로 처지고, 음식을 삼킬 때 동통이 발생하며, 입술이 시뻘겋고, 오한발열, 대변비결(大便秘結), 소변삽(小便澁)이 발생하고, 설태(舌苔)는 황(黃)하거나 후이(厚膩).

날법(捏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의 하나로 손가락으로 지체를 집어서 힘을 주어 진흙을 이기듯이 주물러 주는 수기법. 엄지와 식지, 중지를 사용하는 삼지날법(三指捏法)과 다섯 손가락을 사용하는 오지날법(五指捏法)이 있다. 날법은 통경해경(通經解痙)하며 소통기혈(疏通氣血)할 수 있어 반복해서 시술하면 위축된 근장력(筋張力)을 회복시킬 수 있고, 동시에 조직의 종창과 근육산창(筋肉酸脹)을 해소할 수 있으며 근건의 연축(攣縮)을 완화시킬 수 있다.

날정(捺正) [치법] : 재활 정골수법의 하나로 의사가 한손, 혹은 양손을 뻗은 상태로 환자의 골절된 뼈나 탈골되어 외부로 돌출된 뼈를 눌러서 원위치로 정복시키는 것.

날척법(捏脊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중의 하나로 날피법(捏皮法) 또는 소피법(疏皮法)이라고 함. 미골에서 항배부(項背部)까지 척추부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집고 잡아당기면서 위로 이동하는 수법. 날척법은 주로 소아과의 여러 질병에 응용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예방의학의 측면에서 성인에게도 사용한다.

납갑법(納甲法) [침구] : 침구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針法)에서 시술할 혈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 천간(天干)을 위주로 인체 십이정경(十二正經)에 배합하여 환자가 내진한 시간의 간지에 따라 당시에 열린 혈 자리를 취한다.

납곡감소(納穀減少) [증상] ⇒ 식소(食少)

납기(納氣) [치법] [추나] [침구] 동 납기법(納氣法) : 침구 ①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추나 방법. ② 보신(補腎)약물로 신불납기(腎不納氣)에 의한 허천(虛喘)을 치료하는 것. ③ 운기법(運氣法)을 기초로 하여 9수(九數) 혹은 6수(六數)를 써서 득기 후에 병소를 향해 사자(斜刺)하고 다음에 침을 곧게 세워 침하(鍼下)를 향해 안납(安納)하는 방법.

납기법(納氣法) [치법] [추나] [침구] ⇒ 납기(納氣)

납소(納少) [증상] ⇒ 식소(食少)

납자법(納子法) [침구] 동 납지법(納支法) : 침구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針法)에서 시술할 혈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 해당되는 경락의 유주시간에는 해당경락의 기혈순환이 왕성하여 실하기 때문에 해당경의 자혈(子穴)을 사(瀉)하고, 해당경의 유주시간 다음 시진(時辰)에서는 해당경의 순환이 쇠하여 허하기 때문에 그 유주시간에 해당경의 모혈(母穴)을 보하는 보사법(補瀉法).

납지법(納支法) [침구] ⇒ 납자법(納子法)

납지보사법(納支補瀉法) [침구] : 침구 십이경맥의 납지(納支)시각을 기초로 한 침자 보사방법.

납촉감(蠟燭疳) [병증] : 안이 감(疳)이 오래되어 궤파(潰破)되는 것. 즉, 감염 후 2~3일 지나 국부에 붉은 색의 달무리를 가진 소수포(小水疱) 혹은 소농포(小膿疱)가 생기고 이어서 분화구 모양을 나타내는 궤양이 생기며 유연하거나 혹은 융기성 궤양 혹은 궤저성 하감(潰疽性下疳)이 되고, 때로는 침식(侵蝕)이 심하면 남자는 음경(陰莖)이 붕괴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를 지칭한다.

낭독(狼毒) [약물] 동 낭독대극(狼毒大戟) : 본초 대극과(大戟科 : Euphorbiaceae)에 속한 낭독 *Euphorbia fischeriana* Steudel의 근(根). 중국에서는 서향과(瑞香科 : Thymelaeaceae)에 속한 낭독 *Stellera chamaejasme* L.의 뿌리와 대극과(大戟科 : Euphorbiaceae)에 속한 월선대극(月腺大戟) *Euphorbia ebiacteolata* Hayata의 뿌리도 약용.

낭독대극(狼毒大戟) [약물] ⇒ 낭독(狼毒)

ㄴ

낭동(浪動)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희정(喜情)과 낙정(樂情)이 역동(逆動)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 애정(哀情)과 노정(怒情)이 역동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폭동(暴動)이라는 용어와 대비. 희락지기가 역동하면 낭발(浪發)하여 아래에서 합쳐지게 되므로 비폐(脾肺)가 상하게 된다고 하였음.

낭산(狼疝) [병증] : 내과 한사(寒邪)가 응결되어 발생. 소복(少腹)과 음부(陰部)가 서로 땅기고 아프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병증.

낭아(狼牙) [약물] ⇒ 용아초(龍芽草)

낭옹(囊癰) [병증] ⇒ 신낭옹(腎囊癰)

낭종(囊腫) [증상] : 안이 진피(眞皮)내에 존재하는 공동(空洞)으로 여러 가지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낭축(囊縮) [증상] ㊐ 난축(卵縮) : 소아 음낭과 고환이 오그라드는 병증. 음낭이 위로 오그라든 것을 말하는데, 이런 증상은 항상 설권(舌卷)과 함께 발생되는 위중한 질병이다.

낭탕근(莨菪根) [약물] : 본초 가지과(茄科 : Solanaceae)에 속한 낭탕 *Hyoscyamus niger* L.의 根으로, 가을에 포기 째로 뽑아 절단한 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사용.

낭하습양(囊下濕痒) [병증] : 음낭(陰囊) 부위가 늘 축축하고 가려운 것.

내과저(內踝疽) [병증] ㊐ 주대(走緩), 혜대저(鞋帶疽) : 안이 내과 주위[內踝周圍-삼음경(三陰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내과첨(內踝尖) [기혈]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족내과 고점상(足內踝高點上)에 위치.

내관(內關)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의 경혈(PC6)로서 락혈(絡穴)에 해당하고 음유맥에 통함(通于陰維脈). 손목관절 손바닥쪽 가운데 있는 대릉(大陵) 위 2촌으로 노쪽손목굽힘근(요측수근굴근; flexor carpi radialis)과 긴손바닥근(장장근長掌筋; palmaris longus)의 중간에 위치.

내관외격(內關外格) [진찰] : 진단 맥상(脈象). 맥이 척부(尺部)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양기(陽氣)가 내부에서 막히고 음기(陰氣)가 외부에서 가로막히기 때문인데 이를 '내관외격(內關外格)'이라 한다.

내뉵(內衄) [병증] : 내과 노역과도(勞役過度)나 음식과상(飮食過傷)으로 심폐(心肺)간에서 출혈이 일어나 위중(胃中)으로 유입하여 응혈(凝血)이 위중(胃中)에 정류(停留)하므로 위중이 비만(痞滿), 불안한 병증.

내력(奶癧) [병증] ⇒ 유력(乳癧)

내발단독(內發丹毒) [병증] : 안이 늑골(肋骨)에서 발하는 옹저로서, 적색(赤色)을 띠고 이동하며 통증이 불붙여 놓은 것 같은 병증.

내복자(萊菔子) [약물] ㊐ 나복자(蘿菔子) : 본초 십자화과(十字花科 : Cruciferae)에 속한 1년생 또는 2년생 무우 *Raphanus sativus* Linné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익은 종자로, 여름에 과실이 익었을 때 풀을 베어 쇄건(曬乾)한 뒤 비벼서 종자를 꺼내어 불순물을 없앤 후 다시 쇄건하여 사용.

내상(內傷) [병리] [변증] : 병리 ① 병인의 하나. 넓게는 내부의 장기(臟氣)를 손상시켜 발병하게 하는 요소를 가리킴. 예컨대, 칠정부절(七情不節), 기아(飢餓), 포식(飽食), 노권(勞倦), 방사과도(房事過度) 등이 있음. ② 병명. 내손(內損)과 같은 뜻으로 쓰임.

내상병인(內傷病因) [병리] : 병리 내부에서 발생한 발병인자(發病因子). 정지상(情志傷), 노일상(勞逸傷)과 음식상(飮食傷)이 이에 속한다.

내상요통(內傷腰痛) [병증] : 재활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체 내부의 문제로 야기되는 요통. 신허요통(腎虛腰痛), 혈허요통(血虛腰痛), 기체요통(氣滯腰痛), 어혈요통(瘀血腰痛), 식적요통(食積腰痛) 등이 이에 속한다.

내생병사(內生病邪) [병리] ⇒ 내생오사(內生五邪)

내생오사(內生五邪) [병리] 동 내생병사(內生病邪) : 병리 내풍(內風), 내한(內寒), 내습(內濕), 내조(內燥), 내화(內火-내열內熱). 육음(六淫)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사기의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부기능의 실조로 생긴 병리변화(화풍化風, 화조化燥, 화습化濕, 화한化寒, 화열化熱, 화화化火)다. 외감육음과 구별하여 내생오사라 한다.

내선(內旋) [기타] : 재활 관상면을 기준으로 안으로 회전하는 것.

내선(奶癬) [병증] : 소아 어린 아이에게 발생하는 급성 또는 아급성 습진. 태중(胎中)의 혈열(血熱)과 풍사의 감수로 인해 풍습열이 살갗에 뭉쳐서 일어난다. 흔히 어린 아이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생기는데, 때로는 다른 부위까지 퍼지기도 한다. 처음에 좁쌀만한 부스럼이 생겨 드문드문 있거나 또는 촘촘하게 돋는데 빛깔이 빨갛고 긁으면 하얀 비늘이 일어나며 그 모양은 마치 버짐과 같다. 진물이 흐르지 않으면 건렴(乾廉)이라고 하는데 이는 풍열 쪽으로 치우친 경우고, 살갗에 좁쌀 같은 것이 돋으면서 심하게 가렵고 긁으면 물이 흘러 나와 퍼져 점점 조각을 이루고, 심하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습렴(濕廉)이라고 하는데 이는 습열 쪽으로 치우친 경우이다.

내슬안(內膝眼) [기혈]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슬안의 내측을 말함.

내영향(內迎香) [기혈]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콧구멍내의 상영향(上迎香)과 상대처의 비점막상에 위치.

내옹(內癰) [병증] : 내과 장부에 발생하는 옹(癰).

내외치(內外痔) [병증] 동 내외치질(內外痔疾), 혼합치(混合痔) : 안이 항문 치상선(齒狀線)의 상하에 발생하는데, 부어서 괄약근 사이의 홈이 같은 방향으로 소실되는 치질.

내외치질(內外痔疾) [병증] ⇒ 내외치(內外痔)

내유취(內乳吹) [병증] 동 내취유(內吹乳) : 안이 임신 6,7개월 후 화독[火毒-태화(胎火)]이 왕성하여 기가 울결됨으로써 유두(乳頭)에 발하는 옹저.

내인(內因) [병리] : 병리 질병은 정허사실(正虛邪實)할 때 발병하게 되는데, 이때 질병발생의 근거가 되는 '정기(正氣)의 허'를 내인이라고 함. 병인(病因) 참조.

내자(內眥) [진찰] : 진단 눈의 내측(코쪽)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만나 연결된 부위.

내장(內障) [병증] : 안이 안구내부(眼球內部-동공 및 수정체, 안저(眼底) 등의 부위와 안내조직(眼內組織)을 포괄)의 질환을 총칭.

내전(內傳) [병리] : 병리 내부로 전해짐.

내정(內庭)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2)로서 형수혈(滎水穴)에 해당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허리발가락관절(본절; metatarsophalangeal joint) 사이의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부위에 위치.

내조(內釣) [병증] 동 경조(驚釣) : 소아 경풍증상의 하나. 임상에서 내장추철(內臟抽掣), 복통다제(腹痛多啼) 등이 나타남을 특징으로 한다. 대부분 한냉(寒冷)의 내상에 의해 발생. 발병시 대개 먼저 곡요복통(曲腰腹痛)하고 청변(靑便)을 설사하며 구토연말(嘔吐涎沫), 극통광규(極痛狂叫)하고, 계속하면 축닉하며 수족경련이 일어 나는데, 경간의 증후와 매우 비슷하나 안내(眼內)에 홍근혈반(紅筋血斑)이 얽혀 있다.

내촉소장병(內觸小腸病) [사상] ⇒ 태양인내촉소장병(太陽人內觸小腸病)

내취(內取) [치법] ⇒ 내치(內治)

내취유(內吹乳) [병증] ⇒ 내유취(內乳吹)

내취유옹(內吹乳癰) [병증] : 부인 임신말기에 유옹이 발생하는 것. 처음에는 유방이 딱딱해지고 붓고 아프며 피부색의 변화는 없다가 차츰 피부가 붉게 변하며 화농한다.

ㄴ

내치(內痔) [병증] 동 내치질(內痔疾), 내치핵(內痔核) : 안이 항문 안쪽으로 생긴 치핵 또는 치질. 치핵이 항문 안으로 탈출하고, 괄약근 때문에 괄약되어 울혈종창(鬱血腫脹)하여 몹시 아프며 괴저에 빠지는 수가 있다.

내치(內治) [치법] 동 내취(內取) : 안이 내복약으로 몸에 생긴 여러 가지 병증을 제거하는 치료법.

내치루(內痔漏) [병증] : 안이 치루의 하나. 누공(瘻孔)이 항문 및 직장 안에 생긴 것.

내치주사요법(內痔注射療法) [치법] : 안이 약물을 내치(內痔) 내로 주사하여 치질의 알갱이를 단단하게 해주고, 오그라들게 하고, 괴사시켜 빠져 나오도록 해주는 것.

내치질(內痔疾) [병증] ⇒ 내치(內痔)

내치핵(內痔核) [병증] ⇒ 내치(內痔)

내탁치법(內托治法) [치법] : 안이 원기를 돕는 것을 의미. 종창(腫脹)이 형성되어도 돌기하지 않고 또 궤양이나 화농도 잘 되지 않는다던가, 혹은 단단한 종양으로서 색깔이 붉지도 않으면서 통증이 있다던가, 혹은 통증이 없고 농이 적으면서 삼출물이 흘러 창구(瘡口)가 아물지 않을 때 사용.

내풍(內風) [병증] 동 간풍(肝風) : 병리 외부의 풍사가 침범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질병의 전변과정에서 내적 원인에 의해 생긴 풍증. 현훈(眩暈), 축닉(搐搦), 동요(動搖)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허증(虛證)과 실증(實證)으로 분류되는데, 허증은 허풍내동(虛風內動)이라 하고, 실증은 열성풍동(熱盛風動)이라 한다.

냉(冷) [병증] : ① 아랫배가 항상 싸늘한 병. ② 몸, 특히 하체를 차게 하면 발작하는 병. ③ 대하(帶下).

냉감(冷疳) [병증] : 소아 감(疳)으로 내장이 허랭(虛冷)한 증상. 설리(泄利)하며 색깔이 평소와 같지 않고 청백색의 거품이 있으며, 지체(肢體)가 연약하고, 눈이 붓고 얼굴색은 검게 변한다. 또 하나의 증상으로는 조급하고 갈증이 있으면서 마치 열상(熱象)과 비슷하나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활설(滑泄)이 지속되니 이것 역시 냉감(冷疳)이다.

냉궐(冷厥) [병증] : 진단 궐증의 하나. 증상은 사지랭(四肢冷)·신불열(身不熱)·오심(惡心)·불갈(不渴)하고, 웅크려 눕거나 혹은 옷이나 이불을 덮으며, 하리(下利)가 발생하거나, 혹은 대변이 평소와 같으며 맥이 침미불삭(沈微不數)하거나, 혹은 침실(沈實)하지만 누르면 지약(遲弱)함.

냉기심통(冷氣心痛) [병증] ⇒ 냉심통(冷心痛)

냉담증(冷痰證) [병증] ⇒ 한담증(寒痰證)

냉루(冷漏) [병증] : 안이 창공(瘡孔) 내에서 백농(白膿)과 황수(黃水)가 그치지 않는 것.

냉루(冷淚) [병증] : 안이 느낌이 차가운 눈물.

냉리(冷利) [병증] : 소아 장(腸)이 허하여 한사가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질.

냉림(冷淋) [병증] : 내과 찬 자극으로 인해 발생. 오한으로 몸을 떤 후 곧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병증. 임병(淋病)의 일종.

냉막단독(冷膜丹毒) [병증] : 안이 피부에 백색의 반점을 형성하고 열나거나 아프지 않고, 이동이 일정치 않은 단독.

냉병(冷病) [병증] 동 냉증(冷症) : 부인 냉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만 차가움을 느껴 곤란한 상태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전신이 차가움을 느끼는 것. 타각증상과 자각증상 모두 포괄한다.

냉비(冷秘) [병증] : 내과 변비의 하나. 장위(腸胃)에 침입한 찬 기운으로 인해 기와 혈의 순환 장애가 생겨 나타난 변비로 배가 끓으며 아픈 증상을 겸함. 한결(寒結).

냉비(冷痺) [병증] : 내과 한사의 침입으로 신한(身寒)하고 요각(腰脚)이 침중(沈重)하며 수지(手指)가 냉한 병증.

냉설(冷泄) [병증] : 내과 한사를 감수한데다

가 날 것과 찬 것에 의해 속을 상해 발생한 급작스런 설사.

냉수부하(冷水負荷) [진찰] : 진단 부하조정술(負荷調整術) 중 한냉부하조정술(寒冷負荷調整術)의 일종. → 부하조정술(負荷調整術)

냉심통(冷心痛) [병증] 동 냉기심통(冷氣心痛) : 내과 명치 부위가 갑자기 아픈데 그 통증이 가슴에서 등, 등에서 가슴까지 뻗치며, 통증이 멎지 않고 계속되면서 손발이 싸늘하고 온몸에 냉한(冷汗)이 나며 맥이 없고 설사하며 소변이 맑은 증상이 겸해 나타나는 병증.

냉연(冷涎) [병증] : 소아 싸늘한 침을 흘리는 증상. 육연(六涎)의 하나. 비기(脾氣)가 잘 운행되지 않는데다 간기(肝氣)가 승(乘)하면 비기가 숨죽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곡이 정체되어 발생.

냉열감(冷熱疳) [병증] : 소아 발병 시기를 정확히 잡기 어려우며 한열허실이 복합된 감병.

냉열리(冷熱痢) [병증] : 소아 냉열(冷熱)의 사기가 서로 섞여 위장(胃腸)을 손상시켜 발생하는 복사(腹瀉). 소아가 음식에 상해 냉기가 장위지간(腸胃之間)에 머물러 있는데다 다시 열기에 손상되면, 비위는 오랫동안 허한 상태로 있었던 까닭에 열사를 받아 냉열이 교차하니, 하리(下痢)를 함에 때로는 황색으로 때로는 백색으로 나오고, 혹은 물만 나오고, 혹은 소화되지 않은 곡식이 나온다.

냉열위법(冷熱慰法) [치법] : 침구 찬 것으로 치료 부위를 문지른 다음에 더운 것으로 문질러 주고 다시 찬 것으로 문지르는 것을 거듭하는 치료법.

냉요법(冷療法) [치법] : 재활 급성 및 과(過)사용 손상에 대한 치료법. 냉요법은 조직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피하층의 교감신경 수용체를 흥분시켜 국소대동맥 및 대정맥을 수축시키고, 이에 따른 혈관수축은 출혈 및 염증으로 인한 종창을 감소시키게 된다. 마취작용, 해열, 지혈, 진통, 근경축감소, 신진대사감소, 부종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며 흔히 운동 상해를 치료할 때도 사용한다. 분쇄된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급성 손상 후 1~2시간에 15~20분 피부에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증(冷症) [병증] ⇒ 냉병(冷病)

냉초(冷草) [약물] 동 참룡검(斬龍劍) : 본초 현삼과(玄參科 : Scrophulariaceae)에 속한 냉초 *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l 또는 털냉초 *Veronicastrum sibiricum*(L.) Pennell var. *zuccarini* Hara의 근경(根莖)과 근(根).

냉한(冷汗) [증상] ⇒ 유한(柔汗)

냉효(冷哮) [병증] : 내과 찬 기운을 만나면 목안에서 가래소리(효哮)가 그치지 않는 병증.

노(怒) [병리] : 병리 칠정의 하나. 어떠한 사정이나 현상을 접하고서 기분불평(氣憤不平)한 것으로 정서가 발연(勃然)히 격동한 상태.

노(弩) [침구] : 침구 침을 염전(捻轉)하여 긴장시켜 불진불퇴(不進不退)의 상태에서 수지(手指)로 침체(鍼體)를 굽혀 노상(弩狀)을 이루는 것.

노감석(爐甘石) [약물] 동 감석(甘石), 제감석(制甘石) : 본초 탄산염류광물(炭酸鹽類鑛物)인 방해석족(方解石族)의 능자광(菱鋅鑛) *Smithsonite*을 채취한 후 잡석을 제거하고 세정하여 쇄건(曬乾)한 것.

노고초(老姑草) [약물] ⇒ 백두옹(白頭翁)

노관초(老鸛草) [약물] : 본초 쥐손이풀과(牻牛兒苗科 : Geraniaceae)에 속한 일년생초본인 쥐손이풀 및 동속 근연식물의 전초. 중국에서는 우아묘(牛兒苗) *Erodium stephanianum* Willd. 및 노관초(老鸛草) *Geranium wilfordii* Maxim. 혹은 야노관초(野老鸛草) *Geranium carolinianum* L.도 약용.

노궁(勞宮) [경혈] 동 귀굴(鬼窟) : 경혈 수궐음심포경의 경혈(PC8)로 형화혈(滎火穴)에 해당하고 주먹을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위의 중점에 위치.

노권(勞倦) [병리] : 병리 내상병인 중 하나. 육체 및 정신적인 노동과 방노(房勞)가 과도하여 장부기혈에 병리변화를 일으킨 것.

노권상(勞倦傷) [병증] 동 노력상(勞力傷), 노손(勞損) : 병리 ① 내상병증으로 늘 노곤해 하는 증. 흔히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로로 비기(脾氣)가 상하거나 기혈이 허해서 생긴다. 피곤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움직이면 숨이 차며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불안해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② 허손증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정신적 피로나 육체적 피로).

노근(蘆根) [약물] 동 노모근(蘆茅根)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us의 신선한 근(根) 또는 근경(根莖)으로, 전년(全年)에 걸쳐 채취하여 수근(鬚根)과 막상엽(膜狀葉)을 제거하고 선용(鮮用)하거나 쇄건(曬乾)하여 사용.

노기(勞氣) [병증] ⇒ 허로(虛勞)

노담(老痰) [병리] ⇒ 울담(鬱痰)

노력상(勞力傷) [병증] ⇒ 노권상(勞倦傷)

노록후풍(勞碌喉風) [병증] : 안이 간신(肝腎)이 허약한 중에 과로로 인해 발생한 후풍. 후내(喉內)에서 발생하고 창근(瘡根)이 백색을 띠나 종대(腫大)되지 않으며 홍점(紅點)이 입안에 산재하여 있어 피비린내가 난다.

노림(勞淋) [병증] : 내과 임병(淋病)의 일종. 과로로 인해 심해지며, 소변이 임력삽통(淋瀝澁痛)하고, 심음부(深陰部)가 음중(陰重)하며, 소복인통(小腹引痛)하고, 기충혈(氣衝穴)과 고둔부(尻臀部)가 인통(引痛)하는 병증.

노모근(蘆茅根) [약물] ⇒ 노근(蘆根)

노복(勞復) [병증] : 내과 병을 앓고 난 뒤 기혈이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기 전이나 사열이 다 없어지기 전에 다시 과로, 음식 조절 잘못, 지나친 칠정, 성생활 등으로 정기를 상하여 병이 다시 도진 것.

노봉방(露蜂房) [약물] 동 봉방(蜂房), 봉소(蜂巢) : 본초 말벌과(胡蜂科 : Vespidae)에 속한 곤충인 과마봉(果馬蜂) *Polistes olivaceous* (Decker), 일본장각호봉(日本長脚胡蜂) *P. japonicus* Saussure 혹은 이복호봉(異腹胡蜂) *Parapolybia maria* Fabricius의 벌집으로,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거나 약간 삶아 죽은 벌이나 번데기를 제거하고 건조한 후 사용.

노부행경(老婦行經) [병증] 동 연로경수복행(年老經水復行) : 부인 일반적으로 천계가 고갈되는 연령 이후에도 여전히 월경이 내조(來潮)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천품부가 강하여 정상적인 월경 내조(來潮) 기간이 긴 경우에는 생리적이나, 월경주기가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병리적일 수 있다.

노산(勞疝) [병증] : 내과 과로로 기가 하함(下陷)하거나, 지나친 방사(房事)로 정(精)을 손상하여 발생되는 산증(疝證).

노상(勞傷) 병리 : ① [병리] ⇒ 노권(勞倦) ② [병증] ⇒ 노권상(勞倦傷)

노서찬(老鼠鑽) [병증] ⇒ 관저(串疽)

노손(勞損) [병증] ⇒ 노권상(勞倦傷)

노수(勞嗽) [병증] : 내과 허로하여 생긴 기침으로, 권태감, 조열(潮熱) 등 허로 증상과 함께 가래가 많이 나오면서 기침하는 병증.

노수(臑俞)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의 경혈(SI10)로서 어깨뼈가시(견갑극; Spine) 바깥쪽 끝 아래이며 봉우리(견봉; acromion) 뒤쪽 아래 오목한 곳으로 견정(肩貞) 위 1촌에 위치.

노식(顱息)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의 경혈(TE19)로서 각손(角孫)과 예풍(翳風)사이 가정선을 긋고 3등분하여 각손(角孫)부터 노식(顱息), 계맥(瘈脈), 예풍(翳風)을 취하는데, 계맥(瘈脈) 위 1촌에 위치.

노신상(勞神傷) [병리] [병증] : 병리 내상병인

의 하나. 우사울결(憂思鬱結)하여 쌓인 생각이 풀리지 않아 심(心)과 비(脾)를 상하는 것.
노애(怒呃) [병증] : 정신 칠정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애역(呃逆)의 하나로 딸꾹질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정신이 흐릿한 것.
노열(勞熱) [병리] [병증] : 병리 허로 때 나는 열. 기혈 혹은 음양이 허하여 생기는데 주로 골증조열, 오심번열이 있으면서 음, 양, 기혈 부족증이 겸해 나타난다.
노옹(臑癰) [병증] : 안이 상박부(相搏部-노내(臑內)는 수삼음(手三陰), 노외(臑外)는 수삼양(手三陽)에 속함)에서 발생하는 종양.
노육(肭肉) [병증] : 환부의 육아(肉芽)가 높이 돌출하여 농독(濃毒)의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
노육반정(肭肉攀睛) [병증] 동 반정노육(攀睛肭肉) : 안이 익상편(翼狀片)과 유사하며 노육이 자각백정(眥角白睛)에서 점차 흑정(黑睛)으로 침입해 가는 질환.
노장(怒張) [증상] : 내과 혈관 등이 불거져 나온 모양.
노저(爐底) [약물] ⇒ 밀타승(密陀僧)
노증(勞蒸) [병증] : 내과 골증열과 조열이 위주로 나타나는 허로병.
노창(顱脹) [병증] : 소아 두피가 매끄럽고 관자놀이가 불거지는 병증.
노채(勞瘵) [병증] 동 노채(癆瘵), 각로(覺勞), 전시로(傳屍勞), 전시로(傳尸勞), 채(瘵) : 내과 채충(瘵蟲)에 의해 전염되며 조열(潮熱), 도한(盜汗), 객혈(咯血), 담수(痰嗽), 유정(遺精), 설사(泄瀉) 증상을 나타내는 병증.
노채(癆瘵) [병증] ⇒ 노채(勞瘵)
노학(老瘧) [병증] 동 모학(母瘧), 구학(久瘧) : 내과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삼음경으로 깊숙이 들어간 학질.
노학(勞瘧) [병증] : 내과 오래된 학질. 정기가 쇠약하거나 오래 동안 앓아서 허한데 학질의 사기를 받아 발생하며, 오한과 발열은 심하지 않으나 기허로 땀이 많이 나고 입맛이 없다.
노한(勞汗) [병증] : 내과 조금만 과로하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병증.
노해(勞咳) [병증] : 내과 과로로 오장을 손상시켜 나타나는 해수. 피극상간(疲極傷肝), 노신상심(勞神傷心), 노권상비(勞倦傷脾), 규호상폐(叫呼傷肺), 방노상신(房勞傷腎) 하여 해수가 발생.
노황(勞黃) [병증] : 내과 황달의 하나. 황달이 오면서 팔다리에 힘이 없고 관절이 몹시 아프며, 혹, 토하며 잘 먹지 못하고 코가 마르며 몸에 열이 나서 답답하고 괴로우며 점차 몸이 여위고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노회(臑會)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의 경혈(TE13)로서 팔꿈치와 겨드랑 뒤쪽 횡문까지 9촌의 골도법으로 소락(消濼) 위 3촌에 위치.
노회(蘆薈)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알로에, 즉, 호호망봉노회(好望峰蘆薈) *Aloe ferox* Miller, *Aloe africana* Miller, *Aloe spicata* Baker.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엽즙(葉汁)을 건조한 것으로, 연중(年中) 엽(葉)을 꺾어서 흘러내리는 액즙(液汁)을 모아 용기에 넣고 증건(蒸乾)하여 괴상(塊狀)으로 만들어 사용.
녹각(鹿角) [약물] : 본초 사슴과(鹿科; Cervidae)에 속한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e 또는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의 동속 근연 동물 숫사슴의 이미 골질화된 뿔. 노각(老角)이 자연적으로 탈각된 것을 채취하기도 하고 또는 노각을 자른 것도 있음.
녹각교(鹿角膠) [약물] : 본초 녹각을 절단하여 물로 끓여서 농축하여 만든 고체상의 아교질 덩어리.
녹각상(鹿角霜) [약물] : 본초 녹각을 고아서

ㄴ

교질을 뺀 골질을 건조한 것.
녹니석(綠泥石) [약물] ⇒ 청몽석(靑礞石)
녹두(綠豆) [약물] 동 청소두(靑小豆)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녹두 *Phaseolus radiatus* L.의 종자로, 가을에 종자가 성숙할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녹두대(綠豆大) [약물] : 방제 환제(丸劑) 유형의 하나. 환약을 녹두알 크기만 하게 빚는 것을 말함.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0.02~0.04g이며, 환약의 평균 직경은 4.20mm정도임.
녹로(轆轤) [병증] ⇒ 녹로전관(轆轤轉關)
녹로전관(轆轤轉關) [병증] 동 녹로(轆轤) : 안이 공동성 사시질환(共同性斜視疾患)의 하나로 뇌근(腦筋)이 당기는 것 같고 안구가 자유로이 움직이지만, 아래서 위를 볼 수 없고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녹용(鹿茸) [약물] : 본초 사슴과(鹿科 : Cervidae)에 속한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e 또는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의 숫사슴의 털이 밀생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
녹장근(鹿醬根) [약물] ⇒ 패장(敗醬)
녹청(綠靑) [약물] ⇒ 동청(銅靑)
녹풍내장(綠風內障) [병증] 동 녹풍(綠風), 청광안(靑光眼) : 안이 녹내장과 유사. 동신(瞳神)과 기색(氣色)이 혼탁하여 맑지 않거나 동신이 산대되어 담녹색을 나타내고 청풍(靑風)이 중하게 된 것을 말함.
농(膿) [병리] 동 농즙(膿汁) : 병리 창양에 생긴 고름.
농과개(膿窠疥) [병증] : 안이 두립상(豆粒狀)으로 농이 담백색이면서 묽고 농포를 형성하며 아프고 가려운 개창(疥瘡). 신경풍열(腎經風熱)이나 비경(脾經)의 습에 기인.
농구(膿垢) [병증] : 병리 이질 때 나오는 더러운 이물질.
농궤(膿潰) [병증] : 병리 곪아서 터지는 것.
농산(弄産) [병증] : 부인 임신 말기에 태(胎)가 갑자기 움직이지만 맥에는 분만의 징후가 없는 것.
농설(弄舌) [병증] 동 설토롱(舌吐弄), 서설(舒舌) : 정신 안이 아이가 자꾸 혀를 밖으로 내밀었다 다시 거두어들였다 하면서 마치 뱀의 혀처럼 상하 좌우로 가지고 노는 것인데, 오랫동안 혀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과는 다름.
농설후풍(弄舌喉風) [병증] : 안이 인후가 종통하고 담연이 옹색하여 말이 자유롭지 못하며 설출(舌出)하여 수축하지 못하는 것.
농아(聾啞) [병증] : 안이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하며 청력장애로 인해 언어장애까지도 수반된 것.
농이(膿耳) [병증] 동 풍이(風耳) : 안이 급성 중이염 중 홍색을 띤 농을 배출하는 병증.
농즙(膿汁) [병리] ⇒ 농(膿)
농태(弄胎) [병증] 동 시태(試胎) : 부인 분만 직전의 진통을 말하거나 임신 6~7개월 혹은 8~9개월에 태가 움직이는 것을 말함. 모두 정상적인 분만진통과 구분되어야 하는 소견이다.
농통(弄痛) [병증] ⇒ 시통(試痛)
농포(膿疱) [병증] : 안이 수포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용에 농이 함유되어 있는 것.
농포창(膿疱瘡) [병증] : 안이 피부에 여러 개의 작은 물집이 생겼다가 금방 속에 고름이 차는 피부병.
농혈(膿血) [병증] : 병리 피와 고름이 섞여있는 피고름. 주로 창양이 곪아터진 다음에 볼 수 있으며, 혈농(血膿)과 같은 뜻으로 사용.
뇌(腦) [해부] [생리] 동 수해(髓海), 원신지부(元神之府) : 생리 ① 정신활동에 관계하는 두개골 안의 수질(髓質). ② 기항지부의 하나. ③ 수해(髓海)·두수(頭髓).

뇌감(腦疳) [병증] : 소아 머리에 창이 생기는 감질의 하나. 어린아이가 평소에 풍열을 감수하여 발산하지 않고 있다가 유식부조(乳食不調)로 중기가 안에서 허약해지면 풍열이 이를 틈타서 두부를 상범(上犯)하여 발생한다. 머리에 창양이 생기고 열이 나며, 모발이 벼이삭처럼 메마르게 되며, 심하면 머리가 벗겨져 반들반들하고 코가 마르며 가슴이 번거롭고 피곤하여 졸음이 쏟아지고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며, 뺨이 붓고 숨구멍이 부풀어 오르고, 몸에 열이 나는데 땀을 내도 열이 내리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곽(雷廓) [진찰] ⇒ 혈륜(血輪)

뇌공(腦空)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의 경혈(GB19)로서 승영(承靈) 뒤 4촌 5푼, 뇌호(腦戶)와 같은 높이에 위치.

뇌두풍(雷頭風) [병증] 동 뇌두풍내장(雷頭風內障) : 안이 열사가 안정내(眼睛內)에 충입(衝入)하거나 두면에 극렬한 한열을 받아 담습이 축적됨으로써 양쪽 혹은 편측의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여 녹내장이나 망막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의 병증.

뇌두풍내장(雷頭風內障) [병증] ⇒ 뇌두풍(雷頭風)

뇌루(腦漏) [병증] ⇒ 비연(鼻淵)

뇌맥(牢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가라앉거나 잠복한 듯하지만, 세게 누르면 실하고 팽팽하면서 긴 맥. 징가(癥瘕)·비괴(痞塊)·산기(疝氣) 등의 음한적취(陰寒積聚) 증상이 주로 나타남.

뇌명(腦鳴) [병증] : 내과 머리 속에서 벌레우는 소리 같은 것이 나는 병증. 이명과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남.

뇌사(腦砂) [병증] : 소아 코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누런물이 흘러나오면서 머리까지 아픈 병증.

뇌삭(腦爍) [병증] : 안이 독맥경의 침골하(枕骨下) 풍부혈(風府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성생활과도로 인하여 생긴다.

뇌수(腦髓) [생리] : 생리 뇌와 수의 합칭.

뇌역(腦逆) [병증] : 정신 궐역으로 인한 두통·치통.

뇌역두통(腦逆頭痛) [병증] ⇒ 궐두통(厥頭痛)

뇌열(腦熱) [병증] : 소아 뇌에 열이 있어서 비건(鼻乾), 구갈(口渴), 심번(心煩), 불매(不寐)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

뇌옹(腦癰) [병증] : 안이 후두(後頭) 경부(頸部) 발제정중선상(髮際正中線上)에서 발생하는 옹저. 뇌저(腦疽)에 비하여 양증(陽症)·이치(易治)에 해당.

뇌저(腦疽) [병증] : 안이 후두(後頭) 경부(頸部) 발제정중선상(髮際正中線上)에서 발생하는 옹저. 뇌옹(腦癰)에 비하여 음증(陰症)·난치(難治).

뇌전이명(腦轉耳鳴) [병증] : 내과 두목현훈(頭目眩暈)에 이명을 겸한 것.

뇌졸중(腦卒中) [병증] ⇒ 졸중(卒中)

뇌해불합(腦解不合) [증상] : 정신 어린이의 머리뼈가 붙지 않는 것.

뇌호(腦戶) [경혈] : 경혈 독맥의 경혈(GV17)로서 바깥뒤통수뼈융기(외후두융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위에 오목한 곳으로 머리카락 경계면에서 2촌 5푼에 위치.

뇌화침구(雷火鍼灸) [침구] : 침구 애조구법(艾條灸法)의 하나. 쑥과 다른 약을 섞어서 향 모양으로 만들어 뜸을 뜨는 방법.

뇌환(雷丸) [약물] 동 죽령(竹苓) : 본초 구멍쟁이버섯과(多孔菌科 : Polypoeaceae)에 속한 진균인 뇌환균 *Omphalia lapidescens* Schoreter의 균핵으로, 가을에 따서 씻은 뒤 쇄건(曬乾)하여 사용.

뇌후발(腦後發) [병증] : 안이 독맥경의 침골하(枕骨下) 풍부혈(風府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내열울결(內熱鬱結)하여 생김.

ㄴ

누고(螻蛄) [약물] 동 지구(地拘) : 본초 땅강아지과(螻蛄科 : Gryllotalpidae)에 속한 땅강아지 *Gryllotalpa africana* De Beauvois 또는 동속근연 곤충의 건조체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끓는 물에서 탕사(湯死)시킨 다음 햇볕에 말리거나 홍건(烘乾)한 후 사용.

누고관(螻蛄串) [병리] : 안이 비완내측(臂腕內側) 중앙 심포경에서 발생하는 옹저. 두더지가 땅을 뚫어놓은 것 같이 종(腫) 내면으로 서로 통해있고, 외면은 종이 단단함.

누고력(螻蛄癧) [병증] ⇒ 나력(瘰癧)

누고루(螻蛄漏) [병증] : 안이 기육상(肌肉上)에 공혈(孔穴)이 생겨서 농혈(膿血)이 흐르는 것.

누곡(漏谷)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의 경혈(SP7)로서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위 6촌에 위치.

누대(漏帶) [병증] : 부인 먼저 하혈이 있은 다음에 대하가 끊임없이 방울방울 떨어져 나오거나, 또는 대하가 마치 경혈이 누하(漏下)하듯 나오는 것.

누로(漏蘆)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절굿대 *Echinops setifer* L.와 큰절굿대 *Echinops latifolius* Tasch의 근(根)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같은 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뻐꾹채 *Rhaponticum uniflorum*(L) DC.도 약용.

누시루(瘻腮漏) [병증] : 안이 창종(瘡腫)이 갑자기 흑색을 띠고 궤란(潰爛)되어 황흑색의 삼출물을 유출하는 것.

누정(漏精) [병증] 동 정루(精漏) : 내과 이성(異性)에 대한 생각, 시청각적인 자극, 성적(性的) 상상만으로 정액이 자설(自泄)되는 병증. 유정(遺精)의 일종.

누정농출(漏睛膿出) [병증] : 안이 자두(眥頭)가 취결되어 창양을 일으키고 농즙이 유출되나 예장(翳障)이 없고 통증이 없는 질환으로 누낭염과 유사.

누정증(漏睛證) [병증] : 안이 누낭염(淚囊炎)과 유사. 만성적인 경우 항상 누출(淚出)이 되고 누낭 부위를 누르면 점액성 혹은 농성분비물이 누점(淚點)을 따라 누출되며 시일이 경과하면 누낭이 확장되어 내안각 하방에 융기된 종창이 나타남.

누태(漏胎) [병증] 동 누포(漏胞), 태루(胎漏), 태만(胎滿) : 부인 임신부가 통증 없이 소량의 하혈을 하는 것.

누포(漏胞) [병증] ⇒ 누태(漏胎)

누풍(漏風) [병증] 동 주풍(酒風), 누풍증(漏風證) : 내과 술을 마신 뒤에 풍사를 받아 늘 땀을 많이 흘리는 증.

누풍증(漏風證) [병증] ⇒ 누풍(漏風)

누하(漏下) [병증] : 부인 과로에 의한 기혈 손상과 충임맥 허손으로 비정상적인 소량의 하혈이 나타나는 것. → 붕루(崩漏)

누한(漏汗) [병증] ⇒ 관한(灌汗)

눈상지(嫩桑枝) [약물] ⇒ 상지(桑枝)

눌어(訥語) [병증] 동 어눌(語訥), 어삽(語澁), 어언건흘(語言蹇吃), 어언건삽(語言蹇澁) : 정신 안이 생활환경의 변화, 정신적인 긴장, 불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언어장애로 말을 중첩되게 하거나 더듬어 말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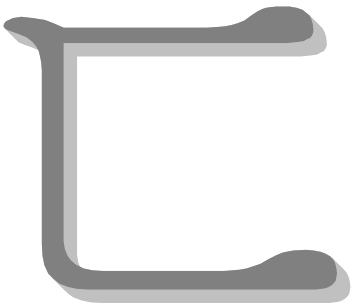
늑저(肋疽) [병증] 동 협형저(夾熒疽) : 안이 늑골사이(족궐음간경)에서 발생하는 옹저.

능리갑(鯪鯉甲) [약물] ⇒ 천산갑(穿山甲)

능소화(凌霄花) [약물] 동 타태화(墮胎花) : 본초 능소화과(紫葳科 : Bignoniaceae)에 속한 낙엽등본인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Thunb.) K. Schum.의 화(花)로, 개화기에 채취하여 음건(陰乾), 또는 쇄건(曬乾)한 후 사용.

니환(泥丸) [생리] [경혈] 동 니환궁(泥丸宮),

천곡(天谷) : 생리 ① 정신활동이 발현되는 뇌 부위. ② 백회혈(百會穴)의 별칭.
니환궁(泥丸宮) [생리] ⇒ 니환(泥丸)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ㄷ

다골저(多骨疽) [병증] 동 잉골저(剩骨疽), 후골저(朽骨疽) : 안이 시악(腮顎), 아상(牙床), 안포(眼胞), 해하(頦下), 수족퇴박(手足腿膊) 등 각처에서 갑자기 종이 발생하여 누르면 딱딱한 골이 만져지고 궤양 되어 터진 후에는 골이 탈출되는 병증.

다관법(多罐法) [침구] : 침구 병변부위가 비교적 넓은 질병에 대해 수개에서 수십여개의 관(罐)을 사용하는 부항법.

다뇨(多尿) [증상] 동 요량증가, 소변다(小便多) : 내과 소변량이 증가하여 하루 동안 전체량이 2,500cc이상인 상태.

다망(多忘) [증상] ⇒ 건망(健忘)

다매(多寐) [증상] ⇒ 기와(嗜臥)

다면(多眠) [증상] ⇒ 기와(嗜臥)

다몽(多夢) [병증] 동 야매다몽(夜寐多夢), 다염(多魘) : 정신 꿈이 많아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시달리거나, 악몽으로 인해 놀라서 잠을 깨게 되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수면부족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수면장애.

다수(多睡) [증상] ⇒ 기와(嗜臥)

다연(多涎) [증상] : 내과 침을 많이 흘리는 증상.

다염(多魘) [병증] ⇒ 다몽(多夢)

다음(多飮) [증상] : 내과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

다타(多唾) [병증] : 내과 침을 많이 뱉는 증상.

다한(多汗) [병증] 동 대한(大汗), 다한증(多汗症) : 내과 땀이 많이 나는 증상. 다한증은 일반사람보다 전신적 혹은 국소적으로 땀이 많이 나며, 또한 본인이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병증을 말한다.

다한증(多汗症) [병증] ⇒ 다한(多汗)

다희(多喜) [병증] 동 희소불휴(喜笑不休) : 정신 기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증.

단(丹) [제제] ⇒ 단제(丹劑)

단(癉) [병증] : 내과 ① 황달과 같은 뜻. ② 열사 또는 열기가 성한 것. ③ 허로병.

단과력(單窠癧) [병증] : 안이 신문(顖門)에 1개가 발생한 나력(瘰癧).

단관법(單罐法) [침구] : 침구 한 개의 관(罐)을 사용하여 병변범위가 비교적 작은 부위, 혹은 압통점에 쓰는 부항법.

단기(短氣) [병증] 동 기단(氣短), 기소(氣少), 호흡기단(呼吸氣短), 단기증(短氣證) : 내과 호흡이 짧고 잘 이어가지 못하는 증상. 혹 숨이 가쁘고 몹시 짧은 증상.

단기증(短氣證) [병증] ⇒ 단기(短氣)

단독(丹毒) [병증] : 안이 열화(熱火)가 임의로 작용할 때 풍열, 습열, 한사 등이 침범하여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발적(發赤)하는 면과 정상피부사이에 경계가 선명하고 피부에 붉은 칠을 해 놓은 것과 같으며, 크기가 손바닥만 하고, 심하면 전신이 가렵고 아픈 병증.

단독발(丹毒發) [병증] : 안이 배부전면(背部全面)에서 발생하며, 끓는 물에 손상을 받은 것처럼 붉은 무늬가 뻗쳐 있는 옹저.

단맥(短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박동하는 것이 비교적 짧아서 촌구(寸口)에 충만하지 못해 관부(關部)를 짚으면 뚜렷하지만 촌부(寸部)·척부(尺部)는 부족한 느낌이 있는 맥. 주로 기병(氣病)을 나타냄.

단면(短眠) [병증] ⇒ 실면(失眠)

단방(單方) [약물] 동 단방요법(單方療法) : 방제 간단한 약미(藥味)를 사용하여 조성한 방제. 주증의 치료를 위해 약력(藥力)을 집중해서 빠른 효과를 취하는 것. 이밖에 단미약(單味藥)을 단방(單方)이라고도 한다.

단방요법(單方療法) [치법] ⇒ 단방(單方)

단복창(單腹脹) [병증] 동 지주창(蜘蛛瘡) : 내과 얼굴과 지체(肢體)는 붓지 않고 배에만 창만이 있는 병증.

단사(丹痧) [병증] : 소아 인후가 벌겋게 붓고 짓무르며 선홍색 발진이 생기는 병증. 발진의 색이 단(丹)처럼 선홍색이므로 단사(丹痧)라 함. 성홍열의 일종. 단사는 역진(疫疹)에 속하는데 대개 겨울과 봄 사이에 유행하며, 2~10세 어린아이에게 많이 나타나고, 인후(咽喉)는 폐(肺)와 위(胃)의 통로로서 열독이 위로 치받으므로 인후가 벌겋게 붓고 짓무르게 된다.

단사(丹痧) [병증] ⇒ 후사(喉痧)

단삼(丹參) [약물] : 본초 꿀풀과 (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단삼 *Salvia miltiorrhiza* Bge.의 뿌리와 근경(根莖)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니사(泥沙)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단순결찰법(單純結紮法) [치법] : 안이 치질을 다스리는 외치법의 하나로 치핵의 밑동을 실로 동여맨 다음 조금씩 조여 떨어지게 하는 치료법.

단식기(斷食期) [기타] : 재활 절식요법에 있어 본격적으로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 시기. 단식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기(3~5일), 중기(7~8일), 장기(10일 이상)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단식기간의 결정은 전신의 건강한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안(單按) [진찰] : 진단 한 손가락으로 어느 한 부위를 짚어서 맥상을 살피는 맥진방식.

단어(團魚) [약물] ⇒ 별갑(鱉甲)

단유(斷乳) [치법] 동 회유(回乳), 소유(消乳) : 부인 수유를 중단하거나 태아 사망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약물을 써서 모체의 유즙분비를 억제시키는 것.

단자(斷子) [치법] : 부인 임신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법.

단자(短刺) [침구] : 침구 십이자(十二刺)의 하나. 침을 꽂은 후 침 자루를 약간 흔들면서 점차 깊게 집어넣어 뼈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한 후 침을 짧고 잽싸게 위아래로 움직여 자극을 주는 방법.

단전(丹田) [경혈] : 경혈 경혈(經穴). 음교(陰交), 기해(氣海), 관원(關元) 등을 단전(丹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 관원(關元)을 단전이라 한다.

단전호흡(丹田呼吸) [기공] ⇒ 태식(胎息)

단제(斷臍) [기타] ⇒ 전제(剪臍)

단제(丹劑) [제제] 동 단(丹) : 방제 내복용(內服用)과 외용약이 있음. 약재를 분말로 하여 풀[호(糊)]이나 점성 약즙을 개어 알약을 만드는 것으로 환제와 엄격한 구별은 없다. 흔히 정련(精練)된 약품이나 귀중한 약재가 많이 포함된 것을 환이라고 하지 않고 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흑석단(黑錫丹), 지보단(至寶丹)같은 것이고 외용약으로는 홍승단(紅升丹), 백강단(白降丹) 등이 있다.

단제(斷臍) [치법] : 안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는 것. 매우 조심하여야 하는데 만일 처리를 잘못하여 사기가 들어가면 각종 병증을 유발한다.

단제제안(端臍提按) [치법] : 재활 정골수법의 일종. 양손 혹은 한손으로 골절된 양상을 엄밀히 살피어 적절한 시기에 정복(整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적으로 기구를 이용하며 아울러 지지력의 과, 불급을 적절히 안배하여 정복과 고정을 시행한 후 뼈가 완전 유합하는 시기까지 적용하면서

근육위축과 뼈마디가 강직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법(手法)이다.

단표초(團螵蛸) [약물] ⇒ 상표초(桑螵蛸)

단행(單行) [약물] : 방제 약물배합에 있어 칠정의 하나. 한 가지 약물만을 사용하여 그 약물 고유의 효능을 얻는 것.

단향(檀香) [약물] ⇒ 백단향(白檀香)

단향매(檀香梅) [약물] ⇒ 황매목(黃梅木)

단후비(單喉痺) [병증] : 안이 후비의 하나. 열독이 궐음경에 침범하여 인후의 한쪽이 종통하며 면적(面赤) 시종(腫種)함.

담(痰) [병리] 동 담음(痰飮), 수음(水飮) : 병리 진단 속발성 병인의 하나. 진액이 정상적으로 운화되지 못해 체내에 머물러 쌓여 있는 병리산물. 이것은 2차적으로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체질과 질병의 성질에 따라 열화하거나 한화하게 되고, 형태상 점조(粘稠)와 청희(淸稀)의 구분이 있으며, 병증과 발병 부위도 각기 편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병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 음(飮)은 대부분 흉강, 복강과 위장 중에 정체되어 있으며, 담(痰)은 기를 따라 다니면서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온 몸에 퍼질 수 있다.

담(膽) [해부] [생리] 동 중정지관(中正之官), 중정지부(中精之府), 중청지부(中淸之腑) : 생리 ① 담즙을 저장·배설하여 소화기능을 보조하고 결단을 주관하는 육부의 하나. ② 중정지부(中正之府).

담간(痰癎) [병증] : 정신 소아 담(痰)으로 인하여 발작하는 간병(癎病), 또는 간증(癎證)에 담이 많은 병증. 소아가 본래 열담이 내복(內伏)한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기절하여 넘어지고, 경체제규(驚掣啼叫), 담연색만후간(痰涎塞滿喉間), 구토담말(嘔吐痰沫) 등의 증상이 있다.

담겁(膽怯) [병증] 동 신허담겁(神虛膽怯) : 내과 담허(膽虛)하여 나타나는 증상. 한숨을 잘 쉬고 잠을 자지 못하며, 얼굴이 퍼렇고 희게 된다.

담격(痰膈) [병증] : 내과 습결(濕結)로 인해 탄인곤란(呑咽困難), 식입즉토(食入則吐), 흉중비만(胸中痞滿), 천식(喘息)하는 병증.

담결(痰結) [병증] : 병리 담이 맺힌 것.

담경(膽經) [경락] ⇒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담경실열증(膽經實熱證) [병증] ⇒ 담열증(膽熱證)

담괴(痰塊) [병증] 동 담핵(痰核) : 병리 피하에 담으로 멍울이 생기는 병증.

담궐(痰厥) [병증] : 내과 담이 중초를 조색(阻塞)하여 폭부지인(暴不知人), 강부졸도(僵仆卒到), 사지궐랭(四肢厥冷), 구토담연(嘔吐痰涎), 기천(氣喘), 후중담여예거(喉中痰如曳鉅)하며 설태(舌苔)는 백이(白膩)하고 맥은 침활(沈滑)한 병증.

담기(膽氣) [생리] : 생리 ① 담(膽)의 정기(精氣) 및 기능. ② 전신의 기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운.

담기교조증(痰氣交阻證) [병증] ⇒ 담기호결증(痰氣互結證)

담기울결증(痰氣鬱結證) [병증] ⇒ 담기호결증(痰氣互結證)

담기허증(膽氣虛證) [병증] : 병리 병을 앓은 후 기허하여 내장의 기능이 실조됨으로 인해 발생. 그 증상은 허번불면(虛煩不眠)하고 쉽게 놀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쓰며 의심, 걱정이 많고 늘 한숨을 쉬는 것.

담기호결증(痰氣互結證) [병증] 동 담기울결증(痰氣鬱結證), 담기교조증(痰氣交阻證) : 병리 칠정, 기체담조(氣滯痰稠) 등으로 인하여 담탁(痰濁)과 기울(氣鬱)이 인후(咽喉), 흉격(胸膈) 등의 부위에 맺혀서 매핵기, 흉격비민(胸膈痞悶) 등의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병증. 매핵기(梅核氣), 흉격비민혹찬통(胸膈痞悶或竄痛), 정지억울(情志抑鬱), 급조이노(急躁易怒) 등이 주증이고, 해수담조(咳嗽痰稠), 선태식(善太息), 월경부조(月經不調) 등이 차증이며, 설태

이(舌苔膩), 맥현활(脈弦滑)하다.
담낭(膽囊) [기혈]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양릉천(陽陵泉) 수직 아래 1촌 5푼에 위치.
담단(膽癉) [병증] 동 담단증(膽癉證) : 내과 담열(膽熱)이 사출(瀉出)되지 않고 상일(上溢)하여 구중(口中)에서 고미(苦味)를 느끼게 되는 병증.
담단증(膽癉證) [병증] ⇒ 담단(膽癉)
담두시(淡豆豉) [약물] ⇒ 두시(豆豉)
담마진(蕁麻疹) [병증] ⇒ 은진(癮疹)
담명(痰鳴) [병증] ⇒ 천명(喘鳴)
담몽심포(痰蒙心包) [병리] ⇒ 담미심규(痰迷心竅)
담미심규(痰迷心竅) [병리] 동 담몽심포(痰蒙心包), 담조심규(痰阻心竅) : 병리 습담이 심규를 막아 의식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정신이 혼미해지고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심하면 정신을 잃고 잘 깨어나지 못한다.
담미심규증(痰迷心竅證) [병증] 동 담폐심규증(痰閉心竅證) : 병리 담탁(痰濁)이 심규(心竅)를 막아서 발생하는 병증. 그 증상은 정신억울(精神抑鬱), 신지치매(神志痴呆), 또는 신지혼몽[神志昏蒙-사명사매(似明似昧)] 또는 졸연혼부(卒然昏仆), 불성인사(不省人事), 구토담연(嘔吐痰涎), 사지축(四肢搐) 등이 주증이고, 면색회체(面色晦滯), 불사음식(不思飮食), 독백자어(獨白自語), 표정담담(表情淡淡), 행동거지이상(行動擧止異常), 흉민담다(胸悶痰多), 후중담명(喉中痰鳴) 등이 차증이며, 태백이(苔白膩), 맥유(脈濡) 혹 활(滑)하다.
담반(膽礬) [약물] : 본초 유산염류(硫酸鹽類)의 황화동광물(黃化銅鑛物)인 담반 *Chalcanthite*의 결정체 또는 인공적으로 제조한 함수유산동(含水硫酸銅). 보통 동광석(銅鑛石) 중에 자연히 생성되는 남색의 초자상결정과립(硝子狀結晶顆粒)으로 옛날에는 천연품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열탕을 가하여 침출하고 증발 결정시킨 것을 사용.
담비(痰痞) [병증] : 내과 담기(痰氣)가 몰려서 속이 그득하고 더부룩한 병증. 비만(痞滿)의 하나.
담삼리습(淡滲利濕) [치법] 동 삼습(滲濕), 이습(利濕), 삼리(滲利), 삼설(滲泄) : 감담삼습(甘淡滲濕)하는 약물로 소변을 통해 습사를 배출시키는 방법.
담상(膽傷) [병증] 동 담상증(膽傷症) : 내과 담기(膽氣)가 패하여 담액을 설(泄)하는 병증.
담상증(膽傷症) [병증] ⇒ 담상(膽傷)
담설(膽泄) [병증] : 내과 담(膽)의 병증으로 인한 설사.
담설(淡舌) [징후] : 진단 정상적인 혀의 색은 담홍색(淡淡紅)인데 이에 비해 담백(淡白)한 상태의 설색. 허한증과 기혈양허증을 나타냄.
담수(痰嗽) [병증] 동 담해(痰咳) : 내과 기침을 하면 가래소리가 나며 가래가 나오면 기침이 멈추고 가슴이 몹시 그득한 병증.
담수(膽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19)로서 중추(中樞)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담습(痰濕) [병리] ⇒ 습담(濕痰)
담습조포증(痰濕阻胞證) [병리] : 병리 습담이 충임맥으로 하주(下注)하여 포궁(胞宮)의 기능을 옹체시켜 나타나는 병증. 월경부조나 혹은 심하면 폐경,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설맥(舌脈)은 설담태백이(舌淡苔白膩), 맥활(脈滑) 혹유세(或濡細) 혹현활(或弦滑)하다.
담습증(痰濕證) [병증] ⇒ 습담증(濕痰證)
담승격(膽勝格) [침구] ⇒ 담승방(膽勝方)
담승방(膽勝方) [침구] 동 담승격(膽勝格) : 침구 족소양담경의 실증에 쓰이는 오행침법의 처방. 상양(商陽) 규음(竅陰) 보(補), 양곡(陽谷) 양보(陽輔) 사(瀉).
담시(淡豉) [약물] ⇒ 두시(豆豉)

담실(膽實) [병증] 동 담실증(膽實證) : 병리 대부분 습열이 성하여 담의 소설기능이 실조됨으로 인해 발생. 그 증상은 협하창통(脇下脹痛), 하열왕래(寒熱往來), 구고구건(口苦口乾)하고, 두통이 심하며, 눈의 예자(銳眥)가 아프고, 대변이 비결(秘結) 혹은 건결(乾結)하며, 황달이 발생하기도 하고, 설질(舌質)이 홍(紅)하며 설태(舌苔)가 황(黃)하고 맥이 현삭(弦數)하다.

담실열(膽實熱) [병리] ⇒ 담열(膽熱)

담열(膽熱) [병리] 동 담실열(膽實熱) : 병리 담경(膽經)에 사열이 왕성하여 담기(膽氣)가 울결 되어 퍼지지 못하는 것.

담실증(膽實證) [병증] ⇒ 담실(膽實)

담연(痰涎) [병증] : 병리 가래침, 담 또는 거품이 섞인 침.

담열(痰熱) [병리] ⇒ 열담(熱痰)

담열(痰噎) [병증] : 내과 담기교조(痰氣交阻)로 인해 사통사지(乍痛乍止), 흉통유담성(胸痛有痰聲) 맥활혹복(脈滑或伏)한 병증.

담열옹폐증(痰熱壅肺證) [병증] 동 담열조폐증(痰熱阻肺證) : 병리 담열이 폐를 막아 폐가 선발숙강 작용을 상실한 병증. 폐병 증상이 열담상(熱痰象)을 동반하는 것으로 담이 누렇고 점도가 높으며, 발열이나 호흡촉급 등이 나타난다. 그 증상은 해천담명(咳喘痰鳴), 담황점조(痰黃粘稠) 등이 주증이고, 발열, 호흡촉급, 담조교고(痰稠膠固), 해토불상(咳吐不爽), 담중대혈(痰中帶血), 흉격비만(胸膈痞滿) 등이 차증이며, 설홍태황이(舌紅苔黃膩), 맥활삭(脈滑數)하다.

담열조폐증(痰熱阻肺證) [병증] ⇒ 담열옹폐증(痰熱壅肺證)

담열증(痰熱證) [병증] ⇒ 열담증(熱痰證)

담열증(膽熱證) [병증] 동 담경실열증(膽經實熱證) : 병리 담열에 의한 병증. 양측두통, 목자통(目眦痛), 목현(目眩), 이롱(耳聾), 구고인건(口苦咽乾), 흉협만통(胸脇滿痛), 왕래한열(往來寒熱) 등이 주증이고, 구토고수(嘔吐苦水), 번조이노(煩躁易怒), 야매불안(夜寐不安), 황달(黃疸) 등이 차증이며, 설홍태황(舌紅苔黃), 맥현삭유력(脈弦數有力)하다.

담울(痰鬱) [병리] : 병리 육울(六鬱)의 하나. 담기(痰氣)가 몰려서 생기는 병증. 기분이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옆구리가 그득하고 아프며 목에 무엇인가 걸린 감을 느낀다.

담울담열증(膽鬱痰熱證) [병증] ⇒ 담울담요증(膽鬱痰擾證)

담울담요증(膽鬱痰擾證) [병증] 동 담울담열증(膽鬱痰熱證) : 병리 정지울결(情志鬱結)로 담열이 내요(內擾)하고 담의 소설기능이 상실된 증. 두훈목현(頭暈目眩), 구고(口苦), 경계불녕(驚悸不寧), 실면(失眠), 협창(脇脹) 등이 주증이고, 식욕부진, 구오(嘔惡), 번조불매(煩躁不寐), 흉민선태식(胸悶善太息), 우협불서(右脇不舒) 등이 차증이며, 설태황이(舌苔黃膩), 맥현활(脈弦滑)하다.

담음(痰飮) [병리] ⇒ 담(痰)

담음류주증(痰飮流走證) [병증] : 내과 갑자기 가슴과 등, 팔과 다리, 허리와 샅이 은근히 참을 수 없이 아프다가 연달아 힘줄과 뼈가 당기면서 아프기 때문에 앉거나 눕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때때로 담이 일정한 곳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병증.

담음요통(痰飮腰痛) [병증] : 재활 체내에 수습이 제거되지 않아 음사(飮邪)가 생겨서 담을 조성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요통.

담음현훈(痰飮眩暈) [병증] ⇒ 담훈(痰暈)

담적(痰積) [병증] : 내과 담이 가슴에 몰려서 생기며, 점조한 가래가 많으면서 기침할 때 잘 뱉어지지 않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은은히 아픈 증상. 적(積)의 하나.

담정격(膽正格) [침구] ⇒ 담정방(膽正方)

담정방(膽正方) [침구] 동 담정격(膽正格) : 침구 족소양담경의 허증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

鍼法)의 처방. 통곡(通谷) 협계(俠谿) 보(補), 상양(商陽) 규음(竅陰) 사(瀉).
담조심규(痰阻心竅) [병증] ⇒ 담미심규(痰迷心竅)
담종(痰腫) [병증] : 안이 담으로 인해 생긴 종기. 압진(壓診)할 때 부드러운 것은 솜과 같고, 딱딱한 것은 만두를 만지는 것과 같으며, 붉지 않고 열이 없는 종(腫).
담주발(痰注發) [병증] : 안이 배척부(背脊部)에서 발생하는 옹저. 나무와 같이 단단하고 다소 통증이 있으나, 열도 없고, 색깔도 붉지 않으며, 피부색깔도 정상.
담죽엽(淡竹葉) [약물]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다년생 상록교목인 솜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Stapf.의 잎으로, 전년(全年)에 걸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담중(痰中) [병증] : 내과 갑자기 눈이 가물거리고 어지러우며 뻣뻣해지고,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팔다리를 들지 못하고 맥은 홍활(洪滑)한 병증. 습중(濕中), 유사중풍의 하나.
담창(膽脹) [병증] 동 담창증(膽脹證) : 내과 간기(肝氣)가 서창(舒暢)하지 못하고, 담경맥이 옹색되어 협하(脇下)가 창통(脹痛)하며, 구고(口苦)하고, 태식(太息-한숨)을 자주 발하는 병증.
담창증(膽脹證) [병증] ⇒ 담창(膽脹)
담천(痰喘) [병증] : 내과 숨찬 증상(喘)이 있으면 곧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痰聲)가 나타나는 병증.
담탁(痰濁) [병리] ⇒ 습담(濕痰)
담탁조폐증(痰濁阻肺證) [병증] ⇒ 한담조폐증(寒痰阻肺證)
담폐심규증(痰閉心竅證) [병증] ⇒ 담미심규증(痰迷心竅證)
담포(痰包) [병증] ⇒ 설하담포(舌下痰包)
담학(痰瘧) [병증] : 내과 머리가 아프고 살이 파르르 떨리며[육도(肉跳)] 음식물과 거품 침을 토하고 심하면 정신이 아찔해 넘어지며, 외감이나 내상으로 울기(鬱氣)가 몰려서 담이 생성되어 나타나는 학질.
담한(膽寒) [병리] [변증] : 병리 담이 허한한 증. 앓고 난 뒤에 담기(膽氣)가 허한(虛寒)하여 생긴다. 醫方類聚에 중병을 앓고 난 뒤 허번(虛煩)증이 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담한(膽寒)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담해(痰咳) [병증] ⇒ 담수(痰嗽)
담해(膽咳) [병증] : 내과 기침을 하면서 담즙을 토하는 병증. 오장육부해(五臟六腑咳)의 하나.
담핵(痰核) [병증] ⇒ 담괴(痰塊)
담허(膽虛) [병증] 동 담허증(膽虛證) : 병리 담기허겁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 그 증상은 걱정, 의심이 많고 늘 한숨을 쉬며 잠을 자지 못하거나, 혹은 구고(口苦), 목황(目黃)하고, 쓴물이 넘어오는 것 등이다.
담허증(膽虛證) [병증] ⇒ 담허(膽虛)
담허한(膽虛寒) [병리] [변증] : 병리 담(膽)의 양기가 부족한 증.
담화(膽火) [병리] : 병리 담열이 화로 된 것. 담실(膽實) 참조.
담화요심증(痰火擾心證) [병증] 동 담화폐심증(痰火閉心證) : 병리 화열(火熱)이 내울(內鬱)하여 담화로 발전하여 심신(心神)을 요란시킨 증. 그 증상은 심계심번(心悸心煩), 신지불청(神志不淸), 실면다몽(失眠多夢), 면적기조(面赤氣粗) 등이 주증이고, 변비뇨적(便秘尿赤), 광망조동(狂妄躁動), 곡소무상(哭笑無常), 호호노매(呼號怒罵), 타인훼물(打人毁物), 호언난어(胡言亂語)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태황후이(舌質紅苔黃厚膩), 맥현활삭(脈弦滑數)하다.
담화폐심증(痰火閉心證) [병증] ⇒ 담화요심증(痰火擾心證)
담황(膽黃) [병증] : 내과 공포감이 지속되며,

혹은 혼침곤권(昏沈困倦)하고, 신체가 점차적으로 발황(發黃)하는 병증.

담훈(痰暈) [병증] 동 담음현훈(痰飮眩暈) : 내과 담이 성해서 토하며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고,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병증.

답수(榻手) [병증] : 안이 배추(背椎) 양방(兩傍)에서 옹저가 발생하는 것.

당격상목(撞擊傷目) [병증] : 안이 안부(眼部)가 끝이 무딘 것에 의해 손상은 되었으나 안구(眼球) 외면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

당귀(當歸) [약물] : 본초 산형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참당귀 *A. gigas* Nakai의 根. 늦가을(상강霜降 이후)부터 이듬해 봄 새싹이 돋기 전에 뿌리를 캐내어 경엽(莖葉) 및 이토(泥土)를 깨끗이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여러 날 건조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당귀 *Angelica sinensis* (Oliv.) Diels를, 일본에서는 대화당귀(大和當歸) *A. acutiloba* Kitag.를 사용.

당랑소(螳螂巢) [약물] ⇒ 상표초(桑螵蛸)

당삼(黨參) [약물] 동 만삼(蔓參) : 본초 초롱꽃과(桔梗科 : Campan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만삼 *Codonopsis pilosula* (Fr.) Nannf.의 뿌리로, 가을에 채취하여 지상(地上)부를 제거하고 이토(泥土)를 씻어내어 쇄건(曬乾)한 후 사용.

당설(溏泄) [병증] ⇒ 설사(泄瀉)

당양(當陽) [기혈]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동공의 수직으로 윗부분으로 이마 쪽 머리카락 경계면에서 위로 1촌에 위치.

대(帶) [병증] ⇒ 대하(帶下)

대가설(大瘕泄) [병증] 동 대하설(大瘕泄), 가사(瘕瀉) : 내과 이급후중(裏急後重)하고 삭지청이불능변(數至圊而不能便), 경중통(莖中痛)한 증상.

대거(大巨)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27)로서 석문(石門) 양쪽 2촌에 위치.

대계(大薊)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숙근(宿根) 초본인 엉겅퀴 *Cirsium japonicum* De Candole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전초(全草)로, 여름과 가을에 꽃이 필 때 지상부(地上部)를 거두거나, 늦가을에 근(根)을 채취하여 잡질을 없애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대골공(大骨空) [기혈] : 경혈 상지부의 기혈로서 수배부 엄지손가락 정중선의 손가락뼈사이 관절(interphalangeal joint) 횡문 중앙에 위치.

대극(大戟) [약물] 동 경대극(京大戟) : 본초 대극과(大戟科 : Euphorb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대극 *Euphorbia pekinensis* Rupr.의 근(根)으로, 봄에 발아 전 또는 가을에 경엽(莖葉)이 고사(枯死)하였을 때 채취하여 줄기와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대기(大氣) [생리] : 생리 ① 공기(空氣). ② 종기(宗氣).

대뇌두풍(大雷頭風) [병증] : 안이 뇌두풍(雷頭風) 중에서 두통의 형상이 상한과 흡사하고 통증이 심하여 눈을 침으로 찌르는 것 같으며 열이 심하고 변비가 있으며 소변이 붉고 깔깔한 것.

대대(對待) [진찰] : 진단 부침(浮沈)·지삭(遲數)·활삽(滑澁)·허실(虛實)·대소(大小) 등과 같이 진맥할 때 형상·성질이 상대적인 두 가지의 맥상(脈象)을 병렬하여 대비시키는 방법.

대도(大都)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의 경혈(SP2)로서 형화혈(滎火穴)에 해당하고 엄지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허리발가락관절(본절; metatarsophalangeal joint)의 오목한 곳으로 엄지발가락 안쪽의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에 위치.

대돈(大敦) [경혈] 동 음지절음(陰之絶陰) : 경혈 족궐음간경의 경혈(LR1)로서 정목혈(井木穴)에 해당하고 엄지발가락 가쪽(외측; lateral) 발톱뿌리 각에서 가 쪽(외측; lateral)으로 1푼

되는 곳에 위치.
대두온(大頭瘟) [병증] : 내과 머리와 얼굴이 붉게 붓는 것이 특징인 역병(疫病).
대두풍(大頭風) [병증] : 내과 전염성 사독(邪毒)을 받아 얼굴과 볼이 붓는 병증. 대두온(大頭瘟)의 다른 이름.
대두화독(大頭火毒) [병증] ⇒ 화창대두(火脹大頭)
대두황권(大豆黃卷) [약물]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검정콩 *Glycine max* Merrill을 발아시킨 것.
대락(大絡) [경락] : 경혈 큰 낙맥(絡脈). 15개의 대락이 있는데 12경맥과 임, 독맥에 각각 하나의 대락(大絡)이 있고, 다시 비(脾)에 하나의 대락(大絡)이 있음.
대루(大僂) [병증] ⇒ 구루(傴僂)
대릉(大陵)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의 경혈(PC7)로서 수토혈(兪土穴),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손바닥 쪽 손목관절 횡문 가운데에 위치.
대마풍(大痲風) [병증] : 안이 문둥병을 말함. 풍토관계(風土關係), 선천적 전염 또는 마풍환자(痲風患者)와 접촉하여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피부와 근육의 감각이 둔해지고, 점차 전신에 홍반이 나타나면서 백설(白屑)이 일어나고, 마치 형상이 뱀허물과 같으며 인설(鱗屑)이 탈락된다.
대맥(帶脈) [경락] : 경혈 ① 족소양담경의 경혈(GB26)로서 신궐(神闕) 양방 7촌 부위 11늑골단과 장골릉(腸骨陵)의 중간점에 위치. ② 기경팔맥의 하나. 요일주(腰一周)를 돌아 직행경맥(經脈)을 약속(約束)하는 맥.
대맥(代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느리고 약하면서 불규칙하게 멎는데 멎는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것. 주로 장기(臟氣)가 허약함을 나타내는데, 심장질환(心臟疾患)·경공(驚恐)·질타중증(跌打重證)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간혹 분만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부에게서도 볼 수 있다.
대맥(大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커서 손가락 전체에서 모두 느껴지고, 맥이 파동하는 폭이 평소의 2배 이상인 것. 맥이 크면서 힘이 있는 경우는 사열실증(邪熱實證)이고, 맥이 크면서 무력한 경우는 허손(虛損)으로서 기(氣)가 내부를 지키지 못한 병증이다.
대맥병(帶脈病) [병증] : 부인 대맥의 기능 이상이나 병리 변화로 인해 발생한 병. 족부, 제복부 및 요척부의 동통 등이 나타난다.
대모(玳瑁) [약물] 동 독모(毒冒), 대목(玳瑁), 문갑(文甲) : 본초 바다거북과(海龜科 : Chelonidiae)에 속한 척추동물인 대모(玳瑁) *Eretmochelys imbricata* (L.)의 배갑(背甲)을 채취하여 끓는 물 또는 식초로 처리하여 건조한 것.
대목(玳瑁) [약물] ⇒ 대모(玳瑁)
대변건결(大便乾結) [증상] ⇒ 변건(便乾)
대변건조비결(大便乾燥秘結) [증상] ⇒ 변건(便乾)
대변결(大便結) [증상] ⇒ 변건(便乾)
대변난(大便難) [병증] ⇒ 변비(便秘)
대변당(大便溏) [병증] ⇒ 설사(泄瀉)
대변당박(大便溏薄) [병증] ⇒ 설사(泄瀉)
대변당설(大便溏泄) [병증] ⇒ 설사(泄瀉)
대변불래(大便不來) [병증] ⇒ 변비(便秘)
대변불통(大便不通) [병증] ⇒ 변비(便秘)
대변비결(大便秘結) [병증] ⇒ 변비(便秘)
대변설사(大便泄瀉) [병증] ⇒ 설사(泄瀉)
대변실금(大便失禁) [병증] 동 유시(遺屎), 유실(遺失) : 내과 대변을 참지 못하고 배설하는 증상.
대변조결(大便燥結) [증상] ⇒ 변건(便乾)
대병(大病) [병리] : 병리 ①중한 병. ②상한.
대복(大腹) [해부] : 윗배. 횡격막 아래에서 배꼽까지의 부위.
대복통(大腹痛) [증상] : 내과 윗배가 아픈 증상.
대복피(大腹皮) [약물] : 본초 종려과(棕櫚科 :

ㄷ

Palmae)에 속한 상록교목인 빈랑(檳榔) *Areca catechu* L.의 과피(果皮). 겨울철부터 다음 봄 사이에 미성숙한 과실을 채취한 다음 삶아 건조하고 두 쪽으로 쪼갠 과피를 대복피(大腹皮)라 하고, 봄부터 가을에 성숙한 과실을 채취한 다음 삶아 건조하고 두들겨 과피를 박취(剝取)하여 건조한 것을 대복모(大腹毛)라 함.

대비령(大鼻羚) [약물] ⇒ 영양각(羚羊角)

대비욕(對比浴) [치법] : 재활 찬물과 더운물을 교대로 교차시키는 목욕법으로 혈관의 능동적 이완수축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

대사(大瀉) [침구] 동 대사자(大瀉刺), 배농자(排膿刺) : 침구 피침(鈹鍼)을 써서 화농한 옹저를 절개하여 배농(排膿)하는 자법(刺法).

대사자(大瀉刺) [침구] ⇒ 대사(大瀉)

대산(大産) [생리] : 부인 10달을 다 채우고 분만하는 만삭 분말.

대상성월경(代償性月經) [병증] ⇒ 착경(錯經)

대소변실금(大小便失禁) [증상] ⇒ 이변실금(二便失禁)

대심발(對心發) [병증] ⇒ 중발배(中發背)

대안(戴眼) [병증] : 내과 눈을 위로 치뜨고 눈알이 돌아가지 않는 병증.

대애주구(大艾炷灸) [침구] ⇒ 대주구(大炷灸)

대양(大陽) [생리] ⇒ 태양(太陽)

대양(戴陽) [병증] 동 대양증(戴陽證) : 내과 하초에는 한증(寒證), 상초에는 가열(假熱)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양 볼이 벌겋게 되고 숨결이 밭으며 권태감이 심해서 말하기 싫어하고 현기증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발이 차고, 입이 마르며 이빨이 들뜨고, 때로 입과 코에서 피가 나오며 맥박 상태는 잘 나타나지 않은 증상.

대양증(戴陽證) [병증] ⇒ 대양(戴陽)

대영(大迎)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의 경혈(ST5)로서 턱뼈각(하악각; angle of mandible) 앞쪽 1촌3푼으로 깨물근(교근; masseter)이 붙는 부위 앞에 위치.

대우(大羽) [경혈] ⇒ 강간(强間)

대자루(大眥漏) [병증] : 안이 대자(大眥) 즉, 내안각 쪽의 누낭염.

대자석(代赭石) [약물] 동 자석(赭石), 적토(赤土) : 본초 삼방정계(三方晶系)에 속한 적철광(赤鐵鑛) Haematites인 삼산화제이철(Fe_2O_3) 광석.

대장(大腸) [해부] [생리] 동 전도지관(傳道之官) : 생리 위로 소장과 서로 통하고 아래로는 항문에 연결되어 소화물을 받아 남아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한 후 분변(糞便)을 만들어 항문으로 배설시키는 장기.

대장경(大腸經) [경락] ⇒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대장불고(大腸不固) [병증] ⇒ 대장허한증(大腸虛寒證)

대장불고증(大腸不固證) [병증] ⇒ 대장허한증(大腸虛寒證)

대장설(大腸泄) [병증] : 내과 식사를 마치면 변의가 급하게 일어나고 대변이 희며 장에서 소리가 나면서 매우 아픈 병증.

대장수(大腸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25)로서 요양관(腰陽關) 양쪽 각 1촌5푼에 위치.

대장습열증(大腸濕熱證) [병증] 동 습열하주대장증(濕熱下注大腸證) : 병리 습열이 대장을 꽉 막아서 하초의 기기(氣機)가 소통되지 않는 증. 복통하리(腹痛下利), 하리점액(下利粘液), 변농혈(便膿血), 이급후중(裏急後重), 변물여장(便物如漿), 여황수(如黃水), 항문작열(肛門灼熱) 등이 주증이고, 흉완만민(胸脘滿悶), 음식무미(飮食無味), 구오(嘔惡), 한열(寒熱), 구갈(口渴), 소변황적(小便黃赤), 오후열성(午後熱盛), 지체침중(肢體沈重) 등이 차증이며, 설태황이(舌苔黃膩), 맥활삭(脈滑數)하다.

대장실(大腸實) [병증] 동 대장실증(大腸實證) :

병리 대장에 사기가 실한 것.

대장실열(大腸實熱) [병증] 동 대장실열증(大腸實熱證), 대장열결증(大腸熱結證) : 병리 대장에 사열이 왕성한 증. 열이 나면서 변비가 오고 배가 아픈 데, 아픈 곳을 눌러주거나 만져주는 것을 싫어하고 때로는 혀끝이 붉어지며 누런 설태(舌苔)가 두텁게 끼고 맥이 활삭(滑數)하거나 침실(沈實)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열이 몹시 나면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얼굴이 붉어지고 목구멍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남.

대장실열증(大腸實熱證) [병증] ⇒ 대장실열(大腸實熱)

대장실증(大腸實證) [병증] ⇒ 대장실(大腸實)

대장액휴(大腸液虧) [병증] 동 대장진휴(大腸津虧) : 병리 대장 병의 하나. 늙은이 혹은 해산 후에 음혈이 부족하거나 열성 병으로 진액이 소모되어 생김. 변비가 있거나 대변누기가 힘들며 겸하여 몸이 여위면서 피곤하고 살갗에 윤기가 없으며 목이 마른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열결증(大腸熱結證) [병증] ⇒ 대장실열(大腸實熱)

대장옹(大腸癰) [병증] 동 대장옹증(大腸癰症) : 안이 대장경의 모혈(募穴)인 천추혈(天樞穴)에서 발하는 옹저로 현대 의학적으로는 맹장염과 유사.

대장옹증(大腸癰症) [병증] ⇒ 대장옹(大腸癰)

대장음허조결증(大腸陰虛燥結證) [병증] ⇒ 대장진휴증(大腸津虧證)

대장조결(大腸燥結) [병리] [병증] : 병리 대장 병의 하나. 대장의 진액이 줄어들어 대변이 굳어진 것. 대장에 열이 몰리거나 음식내상 등으로 생김. 대변이 굳고 배가 불러 오르면서 아파서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한다.

대장진휴(大腸津虧) [병증] ⇒ 대장액휴(大腸液虧)

대장진휴증(大腸津虧證) [병증] 동 대장음허조결증(大腸陰虛燥結證) : 병리 대장의 진액이 소모된 증으로, 대변건조(大便乾結), 배변곤란(排便困難), 노책난하(努責難下), 수일일행(數日一行), 변비(便秘) 등이 주증이고, 형체소수(形體消瘦), 인건소진(咽乾少津), 구건(口乾), 구취(口臭), 두훈목현(頭暈目眩)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舌質紅), 태황조(苔黃燥), 맥삽(脈澁) 혹 세삭(細數)하다.

대장창(大腸脹) [병증] 동 대장창증(大腸脹證) : 내과 창병(脹病)의 하나. 장에서 꿀렁꿀렁 소리가 나면서 겨울에 거듭 찬 기운을 쐬어 전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는 병증.

대장창증(大腸脹證) [병증] ⇒ 대장창(大腸脹)

대장파한증(大腸怕寒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에 서술된 병증. 소음인의 신대비소(腎大脾小)로 인해서 신음(腎陰)이 왕성하면 그의 부(腑)인 대장이 승양작용(升陽作用)을 하지 못하여 울하게 되므로 신수열표열(腎受熱表熱)에 대장파한증(大腸怕寒證)이 된다. 그 증세는 아랫배가 단단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에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 같은 처방으로 화해(和解)시키고 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으로 승보(升補)시킨다.

대장한결(大腸寒結) [병리] 동 대장한증(大腸寒證) : 병리 한기가 대장에 결하여 변비가 되는 병변을 말하는 것으로 복부은통(腹部隱痛), 대변비결(大便秘結), 구담(口淡), 설백소태(舌白少苔), 맥침현(脈沈弦) 등이 나타난다.

대장한증(大腸寒證) [병리] ⇒ 대장한결(大腸寒結)

대장해(大腸咳) [병증] : 내과 기침하면서 대변이 나오는 병증

대장허(大腸虛) [병리] [변증] 동 대장허한(大腸虛寒), 대장허랭(大腸虛冷) : 병리 대장의 기허(氣虛)로서 통상 비허(脾虛) 증후를 겸하는 상태로 탈항(脫肛), 구사부지(久瀉不止), 완곡불

ㄷ

화(完穀不化), 분변색담불취(糞便色淡不臭), 장명(腸鳴) 등이 나타난다.

대장허랭증(大腸虛冷證) [병증] ⇒ 대장허한증(大腸虛寒證)

대장허랭(大腸虛冷) [병리] ⇒ 대장허(大腸虛)

대장허한(大腸虛寒) [병리] ⇒ 대장허(大腸虛)

대장허한증(大腸虛寒證) [병증] 동 대장허랭증(大腸虛冷證), 장허불고증(腸虛不固證), 대장불고(大腸不固), 대장불고증(大腸不固證) : 병리 하초의 양기(陽氣) 부족으로 대장에 한탁(寒濁)이 응취(凝聚)된 증. 복부은통(腹部隱痛), 희열희안(喜熱喜按), 복사(腹瀉), 변당(便溏), 점액변(粘液便) 등이 주증이고, 사지불온(四肢不溫), 장명(腸鳴), 대변실금(大便失禁), 탈항(脫肛)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박백이활(苔薄白而滑), 맥침지(脈沈遲) 혹 침세무력(沈細無力)하다.

대장화골증지신병(大腸火骨蒸之新病)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에서 언급된 병명. 소양인 이지리병(裏之裏病)에 해당. 음허화동(陰虛火動)하여 대장열이 골증하는 병으로 음허오열(陰虛午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처방으로는 수화기제탕(水火旣濟湯), 칠미고삼탕(七味苦參湯), 칠미저령탕(七味猪苓湯),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을 쓰며 계애노단주색(戒哀怒斷酒色)하여야 함.

대저(大杼) [경혈] 동 골회(骨會) : 경혈 족태양방광경의 경혈(BL11)로서 골회혈(骨會穴)에 해당하고 도도(陶道)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대전(大靛) [약물] ⇒ 판람근(板藍根)

대접경(大接經) [침구] : 침구 양경(陽經)에 병이 있으면 표리(表裏)가 되는 음경(陰經)의 정혈(井穴)에 침을 놓아서 양경의 기를 통하게 해주고, 음경에 병이 있으면 표리가 되는 양경의 정혈에 침을 놓아서 음경의 기를 통하게 해주는 자침요법(刺鍼療法).

대제발(對臍發) [병증] ⇒ 하발배(下發背)

대조(大棗) [약물] : 본초 갈매나무과(鼠李科 : Rhamnaceae)에 속한 낙엽관출인 대추 *Zizyphus jujuba* Mill. var. *inermis* Rehder의 성숙한 과실로,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대종(大鍾)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의 경혈(KI4)로서 낙혈(絡穴)에 해당하고 태계(太谿)에서 지면까지 3촌의 골도법으로 태계(太谿) 아래 5푼에 있는 발꿈치뼈안쪽돌기(종골융기; medial process of calcaneus) 바로 위에 위치.

대주구(大炷灸) [침구] 동 대애주구(大艾炷灸) : 침구 천두(蚕頭)만한 크기의 애주(艾炷)로 뜨는 간접구.

대지(代指) [병증] 동 갑저(甲疽) : 안이 수지갑신 내면(手指甲身 內面)에 농(膿)이 형성되어 심하면 손톱이 빠지는 병증.

대청엽(大靑葉) [약물] : 본초 십자화과(十字花科 : Cruciferae)에 속한 이년생 초본인 송람(菘藍) *Isatis indigotica* Fort.의 엽(葉)으로, 여름과 가을에 2~3차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대추(大椎) [경혈] : 경혈 독맥의 경혈(GV14)로서 7 번째 목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대침(大鍼) [침구]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로 침체는 굵고 길며 침첨(針尖)은 약간 둥근 침구.

대포(大包) [경혈] 동 비지대락(脾之大絡) : 경혈 족태음비경의 경혈(SP21)로서 비지대락(脾之大絡)에 해당하고 연액(淵腋) 아래 3촌으로 6·7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대표측정점(代表測定點) [진찰] : 진단 각각의 양도락(12경락)마다 여러 개의 반응 양도점 중에서 각 양도락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점을 말하고, 이는 경락의 원혈(原穴)과 거의 일치함.

대풍자(大風子) [약물] : 본초 대풍자과(大風子科 : Flacourti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대풍자

수(大風子樹) *Hydnocarpus anthelmintica* Pier. 의 성숙한 종자로, 4~6월에 채취하여 과피를 제거하고 종자만 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대하(帶下) [병증] ㊐ 대(帶) : 부인 생리적인 의미에서 대하(帶下)는 정상상태에서 생식기의 점막을 정상적으로 습윤(濕潤)하는 분비물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분비물은 비록 소수의 여성에서는 간혹 외부로 흘러나오지만 정상적으로는 질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병리적인 의미에서 대하는 부인과 질환 전반을 일컫는 의미와 함께 협의로 출혈 이외의 질 분비에 적용되는 말로, 이 경우의 분비는 정상 분비물의 양이 지나치거나 생식 내강의 어느 부위에 병적인 상황이 진행되어 생기는 이상 삼출물을 의미함. 대부분 위중(危重)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자궁 경부, 질, 난관 등의 단순한 감염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하는 부인과적 증상 가운데서 가장 흔하며 환자 중 최소 1/3 이상에서 발생하는데, 색깔에 따라 병기를 분석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임상적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하백후(帶下白候) [병증] ⇒ 백대하(白帶下)

대하적후(帶下赤候) [병증] ⇒ 적대하(赤帶下)

대하황후(帶下黃候) [병증] ⇒ 황대하(黃帶下)

대하흑후(帶下黑候) [병증] ⇒ 흑대하(黑帶下)

대한(大汗) [병증] ⇒ 다한(多汗)

대혁(大赫)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의 경혈(KI12)로서 중극(中極) 양쪽 5푼에 위치.

대황(大黃) [약물]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장엽대황(掌葉大黃) *Rheum palmatum* L., 당고특대황(唐古特大黃) *R. tanguticum Maxim.* et Balf. 혹은 약용대황(藥用大黃) *R. officinale* Baill.의 뿌리줄기로, 늦은 가을에 줄기와 잎이 마를 때 채취하거나 또는 이른 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과 외피를 제거하고 절편 또는 잘라서 쇄건(曬乾)한 후 사용.

대횡(大橫)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5)로서 신궐(神闕) 양쪽 4촌에 위치.

도경(到經) [병증] ⇒ 경단복래(經斷復來)

도경(倒經) [병증] ⇒ 착경(錯經)

도기(導氣) [침구] : 침구 자침 수기법 중 하나로 침을 서서히 찔러 놓고 득기한 후 다시 천천히 뽑아 사기를 유도하여 내보내고 정기(正氣)를 회복시킴.

도도(陶道)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13)로서 첫 번째 등척추 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도량(度量)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언급된 용어. 주책(籌策)·행검(行檢)·경륜(經綸)과 함께 인체의 전면부에 해당하는 함억제복(頷臆臍腹)에서 이루어지는 지(知)의 네 가지 요소로 도량(度量)은 복(腹)에서 발생하며,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적인 능력을 의미.

도법(導法) [치법] ⇒ 도변법(導便法)

도변(導便) [치법] ⇒ 도변법(導便法)

도변법(導便法) [치법] ㊐ 도법(導法), 도변(導便) : 방제 변이 통하게 하는 방법.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이 대변이 굳을 때 설사약을 쓰지 않고 물약으로 관장시키거나 장을 원활하게 하는 좌약을 항문에 꽂아 넣어서 대변을 누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도변법에는 밀전도법·저담즙(猪膽汁)도법·향유도법 등이 있다.

도생(倒生) [병증] : 부인 분만 이상의 한 형태로 족부가 먼저 배출되는 것.

도선(刀癬) [병증] : 안이 정상피부와의 사이에 경계가 선명하지 않고 전신에 퍼져있는 선증(癬證).

도수정복(道手整復) [치법] ⇒ 정골(正骨)

도아(稻芽) [약물] ⇒ 곡아(穀芽)
도약(導藥) [약물] : 방제 쉽게 용해되는 윤활(潤滑)한 약물로 만든 정제(錠劑)로 항문 안에 넣어 장도(腸道)를 윤활하게 하여 건조한 대변이 쉽게 배출되도록 하는 약물. 예를 들어 저담즙, 토과근(土瓜根)즙 등이 도약(導藥)으로 사용됨.
도인(導引) [기공] ㊐ 도인법(導引法), 도인기공요법(導引氣功療法), 도인술(導引術), 도인요법(導引療法), 도인안교(導引按蹻), 도인토납(導引吐納), 도인행기(導引行氣) : 재활 지체운동을 위주로 하면서 호흡운동이나 자아추나(自我推拿)를 배합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신체를 단련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고대의 양생법이기도 하며 후에 도가에 계승되었다.
도인(桃仁) [약물]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낙엽 소교목인 복사나무 *Prunus persica* (L.) Batsch와 산복사 *P. davidiana* (Carr.) Franch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으로, 과실이 성숙한 후 과실을 따서 과육과 핵각(核殼)을 제거하고 종인(種仁)만 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도인기공요법(導引氣功療法) [기공] ⇒ 도인(導引)
도인법(導引法) [기공] ⇒ 도인(導引)
도인술(導引術) [기공] ⇒ 도인(導引)
도인안교(導引按蹻) [기공] ⇒ 도인(導引)
도인요법(導引療法) [기공] ⇒ 도인(導引)
도인추나(導引推拿) [추나] : 추나 근육과 관절의 운동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로 활용되는 수기법.
도인토납(導引吐納) [기공] ⇒ 도인(導引)
도인행기(導引行氣) [기공] ⇒ 도인(導引)
도자(挑刺) [침구] ⇒ 도치법(挑治法)
도첩(倒睫) [병증] : 안이 눈썹의 방향이 불규칙하고 위로 향하고 있어 안구를 자꾸 찔러 자극하는 병증.
도첩권련(倒睫拳攣) [병증] ⇒ 도첩권모(倒睫拳毛)
도첩권모(倒睫拳毛) [병증] ㊐ 권곡(拳曲), 도첩권련(倒睫拳攣), 첩모도입(睫毛倒入), 첩모도자(睫毛倒刺) : 안이 초창(椒瘡) 등의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으며 눈썹이 자꾸 안구(眼球)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거나 환자가 통증, 가려움,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병증.
도치법(挑治法) [침구] ㊐ 도치요법(挑治療法), 도침요법(挑鍼療法), 도자(挑刺), 침도요법(針挑療法), 절근요법(截根療法) : 침구 삼릉침 등 침으로 체표의 특정 부위나 혈자리에 대고 피하의 흰색 섬유질 모양의 물질을 도려 후벼서 끊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도치요법(挑治療法) [침구] ⇒ 도치법(挑治法)
도침법(搗鍼法) [침구] ⇒ 제삽(提揷)
도침요법(挑鍼療法) [침구] ⇒ 도치법(挑治法)
도침요법(陶鍼療法) [침구] ㊐ 도침요법(鎚鍼療法) : 침구 도침(陶鍼)으로 체표의 특정한 부위를 얕게 찔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도침요법(鎚鍼療法) [침구] ⇒ 도침요법(陶鍼療法)
도한(盜汗) [병증] : 내과 야간에 자는 동안 땀이 나지만 느끼지 못하고 깨어나면 땀이 그치는 병증. 대부분 허로병에서 나타나는데 음(陰)이 허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화선(桃花癬) [병증] : 안이 주로 면부에서 처음에는 두드러기 모양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속립상(粟粒狀)의 작은 창종(瘡腫)을 형성하고, 가려움과 통증이 수반되는 선증(癬證). 비위의 풍열이 원인. 이 질환은 부인에게 많으며 봄에 많이 발생한다.
독기(毒氣) [병리] ⇒ 역려(疫癘)
독맥(督脈) [경락] ㊐ 독맥경(督脈經) : 경혈 재활 기경팔맥의 하나. 이 맥은 소복(小腹)의 안쪽에서 비롯되어 아래 회음부로 나가 뒤로 향하여 척주 안쪽을 따라 직상한 후 풍부혈(風

府穴) 부위에서 뇌부(腦部)로 진입하여 전정(顚頂)으로 상행한 다음 전액(前額)의 정중선을 따라 콧등 아래에 이른다. 독맥에 병변이 발생하면 주로 척주강직(脊柱强直)·각궁반장(角弓反張)·두중통(頭重痛)·항강(項强)·현훈(眩暈)·전간(癲癎)·융폐(癃閉)·유뇨(遺尿)·치질(痔疾)·부녀불임(婦女不姙)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독맥경(督脈經) [경락] ⇒ 독맥(督脈)

독맥병(督脈病) [변증] : 부인 독맥의 경기(經氣)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병증. 素問 〈骨空論〉에는 "독맥에 병변이 발생하면 척배(脊背)가 뻣뻣해지면서 활처럼 휘어진다. 남자의 경우 하복부에서 위로 심장부위까지 통증이 오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 충산(衝疝)이라 한다. 여자의 경우 불임증이 발생하고 소변불리, 치질, 유뇨, 인후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독모(毒冒) [약물] ⇒ 대모(玳瑁)

독백자어(獨白自語) [병증] ⇒ 독어(獨語)

독비(犢鼻)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5)로서 무릎을 굽혔을 때 무릎뼈(슬개골; patella) 바깥쪽 아래 오목한 곳으로 무릎뼈(슬개골; patella) 아래와 정강뼈의 가쪽관절융기(경골외측과; lateral condyle of tibia) 윗부분에 생기는 오목한 곳에 위치.

독수(督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16)로서 영대(靈臺)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독어(獨語) [병증] 동 독백자어(獨白自語) : 내과 환자가 정신은 맑으나 혼자서 중얼거리다가도 사람이 나타나면 곧 멈추는 병증.

독옹상초증(毒壅上焦證) [변증] 동 열독상염증(熱毒上炎證) : 병리 온사열독(溫邪熱毒)이 상부의 두면을 공격함으로써 상부 두면에 홍적종통(紅赤腫痛) 등의 증상이 출현하는 병증.

독음(獨陰) [기혈]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둘째발가락 발바닥 쪽에서 두 번째 마디 횡문 중앙에 위치.

독창(禿瘡) [병증] 동 비창(肥瘡), 전선(錢癬) : 안이 유풍(油風)과 유사한 질환으로 두부에 백농가(白膿痂)를 형성하고 매우 가렵지만 아프지 않으면서 모발이 빠지는 병증.

독활(獨活) [약물] : 본초 오가과(五加科 : Araliaceae)에 속한 독활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의 뿌리. 중국에서는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중치모당귀(重齒毛當歸) *Angelica pubescens* Maxim. *f. biserrata* Shan et Yuan.의 뿌리를 사용하며, 초봄에 발아하기 전이나 늦가을에 경엽(莖葉)이 고위(枯萎)한 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돈옹(敦癰) [병증] ⇒ 탈저(脫疽)

돈저(敦疽) [병증] : 안이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발생하는 옹저로서 초기에는 황색의 속립(粟粒)과 같은 소포(小皰)를 형성하고 끓는 물에 덴 것처럼 화끈하고 아픈 병증.

돈해(頓咳) [병증] : 소아 소복(小腹) 아래서부터 역상(逆上)하여 해역(咳逆)이 일어나는데, 연달아서 해역이 십여 차례 일어나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역하고, 심하면 혹 숨이 막히거나 구역(嘔逆)이 일어나며 양쪽 옆구리가 땅기고 눈물과 콧물이 나오는데, 달이 지나도 낫지 않는 병증.

돌기정고(突起睛高) [병증] 동 목정돌출(目睛突出) : 안이 갑자기 안정(眼睛)이 팽창 돌출하여 매우 가렵고 아픈 병증.

돌연혼도(突然昏倒) [병증] ⇒ 졸도(卒倒)

동(動) [증상] : 내과 병으로 몸이 떨리면서 요동치는 증상.

동결견(凍結肩) [병증] : 재활 통증과 운동성의 소실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는 질환으로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여 오십견이라 하기도 함. 관절의 특성인 큰 운동성이 소실됨으로

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유발.
동계(動悸) [병증] ⇒ 심계(心悸)
동과인(冬瓜仁) [약물] ⇒ 동과자(冬瓜子)
동과자(冬瓜子) [약물] 동 동과인(冬瓜仁), 백과자(白瓜子) : 본초 박과(葫蘆科 : Cucurbitaceae)에 속한 일년생 만성초본인 동과(冬瓜) *Benincasa hispida* (Thunb.) Cogn.의 성숙한 종자로, 8~9월 사이에 성숙한 동과를 채취하여 종자를 취출(取出)하여 건조한 후 사용.
동과피(冬瓜皮) [약물] : 본초 박과(葫蘆科 : Cucurbit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동과 Benincasa hispida (Thunb.) Cogn.의 과피(果皮)를 건조한 것.
동규자(冬葵子) [약물] 동 활규자(滑葵子) : 본초 아욱과(錦葵科 : Malv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아욱 *Malva verticillata* L.의 성숙한 종자. 봄에 종자가 성숙할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
동기(同氣) [병리] : 병리 병기(病氣)의 성질이 같아 피차 상전(相傳)하는 상태.
동기(動氣) [진찰] : 진단 ① 맥박이 뛸 때의 동태와 기세를 말함. ② 배꼽 주위의 박동을 지칭.
동록(銅綠) [약물] ⇒ 동청(銅靑)
동맥(動脈) [징후] : 진단 ①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콩알처럼 뛰면서 활삭(滑數)하고 힘이 있으며, 박동하는 부위가 비교적 국한되어 있고 리듬이 고르지 못한 것. ② 전신에서 경맥의 박동을 촉지할 수 있는 곳.
동맥여영(冬脈如營) [징후] : 진단 사시맥(四時脈) 중 겨울철과 상응하는 맥을 말함. 겨울철에는 양기(陽氣)가 안으로 들어가서 피부가 긴밀해지기 때문에 맥상(脈象)이 돌처럼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유연한 특징을 갖는다는 의미.
동변(童便) [약물] 동 동자뇨(童子尿) : 본초 12살 이하 남아의 소변.
동변자(童便炙) [포제] : 본초 약물 포제법(炮製法). 동변(童便)을 약재와 함께 볶는 것을 말함. 향부자 등의 법제에 쓰인다.
동산(凍産) [병증] : 부인 임산부가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해산할 때 아기를 빨리 낳지 못하는 것을 가리킴.
동상(凍傷) [병증] ⇒ 동창(凍瘡)
동석(冬石) [징후] : 진단 사시맥(四時脈)의 하나로 겨울철의 정상적인 맥을 말함. 겨울에는 양기(陽氣)가 잠복하고 피부가 긴장하므로 맥상(脈象)도 이와 같이 다소 가라앉고 팽팽한 것이 특징이다.
동신(瞳神) [해부] 동 금정(金井), 동인(瞳人), 동자(瞳子), 수륜(水輪), 진(睲), 정명지부(精明之府), 수곽(水廓), 감곽(坎廓), 감수곽(坎水廓) : 안이 흑정내면(黑睛內面) 홍채(虹彩)의 중앙에 위치하고 오륜(五輪) 중 수륜(水輪)에 해당하며 신(神)과 상통함. 해부학상의 동공부위(瞳孔部位)로 방수, 수정체, 초자체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총칭.
동신건결(瞳神乾缺) [병증] 동 동인건결(瞳人乾缺) : 안이 홍채모양체염(虹彩毛樣體炎)에 해당하며 동신축소(瞳神縮小)를 잘못 치료하였거나 악화되었을 때 형성됨.
동신반배(瞳神反背) [병증] : 안이 심부(深部)에서 견인되며 소아에 빈발하는 마비성 사시질환의 하나.
동신산대(瞳神散大) [병증] ⇒ 동인산대(瞳人散大)
동신의측(瞳神欹側) [병증] : 안이 눈동자가 살구씨처럼 비뚤어진 병증.
동신촌(同身寸) [침구] 동 동신촌법(同身寸法) : 침구 환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길이의 단위로 정하고 혈자리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것.
동신촌법(同身寸法) [침구] ⇒ 동신촌(同身寸)
동신축소(瞳神縮小) [병증] ⇒ 동인축소(瞳人縮小)
동인(銅人) [기구] : 침구 침구학습에 쓰이는 청동으로 주조한 인체경맥수혈(人體經脈腧穴) 모형.
동인(瞳人) [해부] ⇒ 동신(瞳神)

동인건결(瞳人乾缺) [병증] ⇒ 동신건결(瞳神乾缺)
동인산대(瞳人散大) [병증] 동 동신산대(瞳神散大) : 안이 동공이 확대되는 것.
동인축소(瞳人縮小) [병증] 동 동신축소(瞳神縮小), 간결(肝決) : 안이 동공이 어떤 원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아지는 것.
동자(瞳子) [해부] ⇒ 동신(瞳神)
동자뇨(童子尿) [약물] ⇒ 동변(童便)
동자료(瞳子髎)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로서 눈 바깥쪽 끝 옆 5푼에 위치.
동질려(潼蒺藜) [약물] ⇒ 사원자(沙苑子)
동창(凍瘡) [병증] 동 동상(凍傷) : 안이 극심한 추위에 한랭(寒冷), 풍랭(風冷) 등에 노출되어 피부와 기육이 손상을 받아 형성되는 창증(瘡症).
동청(銅靑) [약물] 동 동록(銅綠), 녹청(綠靑) : 본초 구리그릇(동기銅器)의 바깥에 이산화탄소 또는 식초산의 작용에 의해 생긴 녹색의 녹으로 대부분 염기성 탄산동($CuCO_3 \cdot Cu(OH)_2$)임.
동충하초(冬蟲夏草) [약물] 동 하초동충(夏草冬蟲) : 본초 맥각균과(麥角菌科 : Hypocreaceae)에 속한 진균인 동충하초균 *Cordyceps sinensis* Sacc이 박쥐나방과(Hepialidae) 곤충 유충에서 기생하여 자란 자실체와 유충의 몸체를 건조한 것. 여름에 자실체가 나오고 포자가 아직 발산되지 않았을 때 채취해서 60~70% 정도 건조한 후 섬유 형태의 부착물과 잡질을 제거하고 다시 저온에서 건조하여 사용.
동화(同化) [운기] : 원전 같은 성질의 운(運)과 기가 동류로서 화합하는 것. 동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기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며, 동화의 종류로 천부(天符)·동천부(同天符)·세회(歲會)·동세회(同歲會)·태을천부(太乙天符) 등이 있다. 운기동화(運氣同化)의 준말.
두견요둔(頭肩腰臀)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언급된 용어. 천지지행(天人知行)의 행(行)이 나타나는 부위로 천심(擅心)·치심(侈心)·나심(懶心)·욕심(慾心)의 태행(怠行)이 나타나며 이를 경계하면 식견(識見)·위의(威儀)·재간(材幹)·방략(方略)을 얻을 수 있음.
두구(豆蔻) [약물] ⇒ 초두구(草豆蔻)
두규음(頭竅陰)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1)로서 부백(浮白) 아래 1촌에 위치.
두뇌혼몽(頭腦昏蒙) [증상] ⇒ 신지혼도(神志昏倒)
두란(杜蘭) [약물] ⇒ 석곡(石斛)
두령(兜零) [약물] ⇒ 마두령(馬兜鈴)
두면창(頭面瘡) [병증] : 안이 두면부에 발생하는 습창(濕瘡). 장부에 열사가 쌓인 상태로서 밖으로 풍습사를 감수하여 습과 열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소아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두면의 피부가 축축하고 벌겋게 되며 가려우면서 진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터지면 황수(黃水)가 흘러나오며 반복해서 발작하는데, 심한 경우는 전신에 만연됨.
두목불청리(頭目不淸利) [병증] : 내과 머리와 시야가 맑지 않은 느낌.
두문옹(肚門癰) [병증] : 안이 대퇴 후측의 정중 고이두근(股二頭筋)의 근간(筋間)에서 발생하는 옹저. 족태양방광경에 속하므로 습한 곳에 앉았던 것이 병원(病源)이 되기 쉽다.
두발(頭髮) [생리] ⇒ 발(髮)
두법(抖法) [추나] 동 전법(顫法)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시술자가 두 손으로 환자의 상지나 하지의 원위단을 잡고 힘을 주어 연속적으로 상하방으로 떨어주는 수기법. 떠는 폭이 작아야 하고 빈도는 빨라야 한다. 이 수기법은 사지부에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상지에 상용하며, 임상에서는 차법과 배합하여 치료를 마무리 지을 때 사용한다. 기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등의 작용이 있다.
두불생발(頭不生髮)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모발이 나지 않거나 빠지는 병증. 모발은 혈(血)

의 여(餘)이므로 기혈이 손상되어 혈이 부족해서 모발을 영양할 수 없기 때문에 나지 않는 것이다.

두선(頭旋) [병증] ⇒ 현훈(眩暈)

두시(豆豉) [약물] 동 담두시(淡豆豉), 향시(香豉), 담시(淡豉)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콩 *Glycine max* Merrill의 성숙한 종자를 삶아서 발효시킨 것. 상엽과 청호(靑蒿) 각 70~100g을 물로 전자(煎煮)하여 여과하고, 대두(大豆) 1,000g에 자액(煮液)을 혼합하여 자액이 모두 흡수된 후 쪄서 약간 양건한다. 이것을 용기에 넣고, 삶아 두었던 상엽과 청호 찌꺼기를 덮어 황의(黃衣)가 될 때까지 발효시킨 다음 꺼내어 약의 잔사(殘渣)를 제거하고 세정(洗淨)한다. 이 세정한 콩을 다시 용기에 넣고 15~20일간 충분히 발효시켜 뜨는 냄새가 날 때 꺼내 약간 쪄서 건조하여 만든다.

두시법(豆豉法) [치법] : 소아 체질이 강하지 않은 영아의 태독을 내리는 방법.

두시병구법(豆豉餠灸法) [침구] ⇒ 시병구(豉餠灸)

두역(痘疫) [병증] ⇒ 두창(痘瘡)

두요(頭搖) [병증] : 내과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흔드는 증.

두운(頭暈) [병증] ⇒ 현훈(眩暈)

두운(頭運) [병증] ⇒ 현훈(眩暈)

두유(頭維)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8)로서 이마 양쪽 끝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각진 경계면, 신정(神庭) 양쪽 4촌 5푼에 위치.

두임읍(頭臨泣)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5)로서 신정(神庭)과 두유(頭維) 사이의 중점에 위치.

두저(蠹疽) [병증] ⇒ 결분저(缺盆疽)

두중(頭重) [증상] : 내과 현기성(眩氣性)이나 실신성(失神性) 또는 불균형성(不均衡性)에 의한 것이 아닌 머리속에서 현훈 감각을 느끼는 증상.

두창(豆瘡) [병증] ⇒ 두창(痘瘡)

두창(痘瘡) [병증] 동 두역(痘疫), 천화(天花), 두창(豆瘡) : 소아 급성 발진성 전염병.

두창(頭脹) [병증] : 내과 머리가 무겁고 띵하며 머리속이 부어오르는 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증.

두충(杜仲) [약물] : 본초 두충과(杜仲科 : Eucommi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두충나무 *Eucommia ulmoides* Oliv.의 수피(樹皮). 4~5월에 박취(剝取)하고 조피(粗皮)를 괄거(刮祛)한 다음 쌓아 놓아 내피가 자갈색을 나타낼 때 건조한 후 사용.

두침(頭鍼) [침구] 동 두피침(頭皮鍼), 두침술(頭鍼術), 두침요법(頭鍼療法), 머리침요법 : 침구 두부에 분포한 경혈, 두피의 상응 부위에 자침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두침술(頭鍼術) [침구] ⇒ 두침(頭鍼)

두침요법(頭鍼療法) [침구] ⇒ 두침(頭鍼)

두통(頭痛) [병증] : 내과 머리가 아픈 병증.

두편통(頭偏痛) [병증] ⇒ 편두통(偏頭痛)

두풍(頭風) [병증] : 내과 ① 두통이 낫지 않고 오래 계속되면서 때에 따라 아팠다 멎었다하는 것. ② 머리에 풍사를 받아 생긴 병증을 통틀어 이르는 말. 두통, 어지럼증 등이 이에 속함.

두풍설(頭風屑) [병증] : 내과 머리에 생기는 비듬.

두풍현(頭風眩) [병증] ⇒ 현훈(眩暈)

두풍현운(頭風眩運) [병증] ⇒ 현훈(眩暈)

두피침(頭皮鍼) [침구] ⇒ 두침(頭鍼)

두피통(頭皮痛) [병증] : 내과 두피가 아픈 병증.

두한(頭汗) [병증] : 소아 머리와 얼굴에 땀이 나는 병증. 사열(邪熱), 상한(傷寒), 습(濕)이 승(勝)한 경우, 어혈(瘀血), 어린아이의 체질 허약에서 나타나며, 어린아이의 경우 취침 시 습관적으로 나기도 한다.

두항강통(頭項强痛) [병증] : 내과 목덜미가 뻣

뻣하고 아픈 증.
두항연(頭項軟) [증상] ㊐ 항연증(項軟症) : 소아 오연(五軟)의 하나. 목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거나 놀리지 못하는 증상. 선천적으로 양기가 부족하거나 기혈부족에 의해 생긴다.
두현(頭眩) [병증] ⇒ 현훈(眩暈)
두훈(頭暈) [병증] ⇒ 현훈(眩暈)
둔옹(臀癰) [병증] : 안이 방광경의 습열이 응결되어 엉덩이에 발생하는 옹저.
득기(得氣) [침구] [치법] ㊐ 기지(氣至) : 침구 ① 자침(刺鍼)할 때 환자에게 발생하는 산(酸), 마(痲), 중(重), 창(脹), 동통(疼痛) 혹은 감전된 것 같은 반응, 그리고 의사 편에서 침의 아랫부분이 침긴(沈緊)하다고 느끼는 등의 감각. ② 자침(刺鍼) 후 사기(邪氣)가 소실되는 것. ③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기후 및 인체의 장부생화(臟腑生化) 관계를 파악하고 약을 써야함을 가리키는 것.
득기감(得氣感) [침구] ㊐ 기지감응(氣至感應), 행기감응(行氣感應), 침자감응(鍼刺感應) : 침구 침을 놓을 때 환자와 의사가 느끼는 감각. 즉, 혈위에 자침한 후 수법(手法)의 조작이나 장시간 유침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반응.
득신(得神) [진찰] : 진단 신기(神氣)가 있는 상태. 눈에 광채가 있고 정신이 맑으며 말이 분명하고 안색이 윤택하며 호흡이 고르고 몸이 야위지 않고 대소변이 잘 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神)의 득실을 관찰하여 정기의 성쇠와 질병의 경중, 예후의 길흉을 판단.
등심(燈心) [약물] ⇒ 등심초(燈心草)
등심구(燈心灸) [침구] ㊐ 등화구(燈火灸) : 침구 직접구의 하나로 등심초(燈心草) 끝에다 땅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묻히고 불을 붙인 다음 직접 혈자리 위에 놓고 뜸을 뜨는 뜸 요법.
등심초(燈心草) [약물] ㊐ 등심(燈心) : 본초 골풀과(燈心草科 : Junc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골풀 *Juncus effusus* L. var. *decipiens* Buchen의 경수(莖髓)를 건조한 것. 8~9월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다음 경수를 취출(取出)하여 사용.
등화구(燈火灸) [침구] ⇒ 등심구(燈心灸)
등화요법(燈火療法) [치법] ⇒ 쉬법(焠法)
뜸 [침구] ⇒ 구(灸)
뜸대뜸 [침구] ⇒ 애권구(艾卷灸)
뜸통뜸 [침구] ⇒ 온통구(溫筒灸)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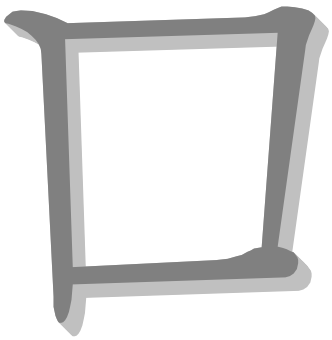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ㄹ

레이저침(레이저鍼) [침구] ㊐ 레이저침술 : 침구

레이저 광선을 자극원으로 이용하는 침술.

레이저침술 [침구] ⇒ 레이저침(레이저鍼)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口

마(摩) [추나] ⇒ 마법(摩法)

마간(馬癎) [병증] 동 마전(馬癲) : →오간(五癎)

마노예(麻瘳翳) [병증] : 안이 결막에 심한 충혈로 각막이 궤양되고 각막실질이 손상을 받아 뚫린 부위로 홍채의 일부가 압력에 의해 탈출되어 갈색의 구형을 형성하며 각막면으로 돌출된 것이 수축된 후 옥돌모양을 형성한 것.

마늘뜸 [침구] ⇒ 격산구(隔蒜灸)

마도나력(馬刀瘰癧) [병증] : 안이 합리상(蛤蜊狀), 적색(色赤), 견경(堅硬), 경통(痙痛)하고 종세(腫勢)가 극심한 나력(瘰癧). 이(耳)의 전후, 이하(耳下), 이함(頤頷) 및 흉(胸), 흉측(胸側), 양협(兩脇), 결분(缺盆), 견상(肩上)에서 발생.

마두령(馬兜鈴) [약물] 동 두령(兜零) : 본초 쥐방울덩굴과(馬兜鈴科 : Aristolochiaceae)에 속한 다년생 덩굴성 식물인 쥐방울덩굴(북마두령北馬兜鈴) *Aristolochia contorta* Bunge과 마두령 *A. debilis* Sieb. et Zucc.의 성숙한 과실로, 9~10월에 과실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할 때 과병(果柄)까지 함께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마두령근(馬兜鈴根) [약물] ⇒ 청목향(靑木香)

마두어(馬頭魚) [약물] ⇒ 해마(海馬)

마목(麻木) [증상] : 재활 '마(痲)'는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지만 기육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으면서 눌러도 멎지 않고 긁을수록 심해지는 것이고, '목(木)'이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지만 눌러도 누르는지 모르며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마치 나무토막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말한다.

마발(馬勃) [약물] 동 마비(馬疕), 회고(灰菇), 마분포(馬糞包) : 본초 먼지버섯과(馬勃科 : Lycoperdaceae)에 속한 담자균류(擔子菌類) 식물인 탈피마발(脫皮馬勃) *Lasiosphaera fenzlii* Reich, 또는 대마발(大馬勃) *Caivatia gigantea* (Batsch ex Pers.) Lloyd 혹은 자색마발(紫色馬勃) *Calvatia lilacina* (Mont. et Berk.) Lloyd의 자실체(子實體)로서 여름과 가을에 성숙한 자실체를 채집하여 건조한 후 사용.

마법(摩法) [추나] 동 마(摩)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시술자의 손가락이나 수장(手掌)으로 환자의 손상 부위를 누른 채 마찰시키면서 이동하거나 회선하는 동작. 이 수기법은 통상 안법(按法)과 배합하여 운용하므로 안마(按摩)라고 하며, 마법은 시술자의 사용부위에 따라 장마법(掌摩法), 지마법(指摩法) 등으로 구분한다.

마분포(馬糞包) [약물] ⇒ 마발(馬勃)

마비(馬疕) [약물] ⇒ 마발(馬勃)

마비불인(痲痺不仁) [병증] : 재활 지체나 국부의 기부가 마비되어 아프고 가려운 것을 자각치 못하는 것.

마비풍(馬脾風)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갑자기 호흡이 가쁘면서 배가 불러 오르는 위급한 병증. 대개 한사(寒邪)가 침범하여 폐기(肺氣)가 통하지 못해 생기거나 흉격(胸膈)에 열이 쌓이고 심화(心火)가 폐를 침범한데다가 담열(痰熱)이 막혀 치성해져 발생한다. 숨이 차서 가슴을 들먹이고 안타까워하며 콧방울을 벌

름거리고 대변을 잘 보지 못한다.
마선(馬癬) [병증] : 안이 ①말버짐을 말함. ②원선(圓癬)의 이명. 무좀 모양이 둥글고 말발자국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
마아(馬牙) [병증] : 소아 갓난아이의 잇몸위에 산재하여 있는 담황색(淡黃色)의 쌀알 크기의 작은 원형결절. 지방사(脂肪渣)를 내함하고 있어 간간이 젖 먹기에 방해가 되어 울게 된다.
마인(麻仁) [약물] 동 화마인(火麻仁) : 본초 삼과(大麻科 : Cannabin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삼 *Cannabis sativa* L.의 성숙한 종자로,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며 쇄건(晒乾)하고, 종피(種皮)를 벗긴 후 사용.
마전(馬癲) [병증] ⇒ 마간(馬癎)
마전자(馬錢子) [약물] : 본초 마전과(馬錢科 : Logani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마전(馬錢) *Strychons nuxvomica* L.의 종자. 종자만 취출(取出)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마증(麻證) [병증] ⇒ 마진(麻疹)
마진(麻疹) [병증] 동 마증(麻證), 사자(痧子) : 소아 마진 병독에 의해 일어나는 어린아이의 급성 발진성 전염병. 홍역을 말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체표에 생긴 피진(皮疹) 모양이 깨 알갱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계절에 모두 발병하나 겨울과 봄에 가장 많이 유행하며, 현재는 마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조치에 의해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병인은 마진 병독이 입과 코로 들어간 때문으로, 마진은 일반적으로 진전기(疹前期), 출진기(出疹期), 진퇴기(疹退期) 3단계로 구분된다.
마질(馬蛭) [약물] ⇒ 수질(水蛭)
마촉맥(麻促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박이 실처럼 미세하고 촉급하면서 어지러운 것으로, 영위(營衛)가 끊어지려고 하는 사맥(死脈).
마치현(馬齒莧) [약물] 동 마현(馬莧), 오행초(五行草) : 본초 쇠비름과(馬齒莧科: Portulac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L.의 지상부분으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세정(洗淨)한 다음 약간 찌거나 끓는 물에 담갔다가 쇄건(曬乾)하여 사용.
마편초(馬鞭草) [약물] 동 철마편(鐵馬鞭) : 본초 마편초과(馬鞭草科 : Verbr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마편초 Verbena officinalis L.의 전초(全草)를 건조한 것으로 6~8월 개화시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마피선(馬皮癬) [병증] ⇒ 송피선(松皮癬)
마현(馬莧) [약물] ⇒ 마치현(馬齒莧)
마황(麻黃) [약물] : 본초 마황과(麻黃科 : Ephed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초마황(草麻黃) *Ephedra sinica* Stapf 또는 동속식물의 초질경(草質莖). 중국에서는 중마황(中麻黃) *E. intermedia* Schrenk et C. A. Mey. 혹은 목적마황(木賊麻黃) *E. equisetina* Bge.을 사용.
마황(螞蟥) [약물] ⇒ 수질(水蛭)
마황근(麻黃根) [약물] : 본초 마황과(麻黃科 : Ephed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상의 소관목(小灌木)인 초마황(草麻黃) *Ephedra sinica* Stapf.과 중마황(中麻黃) *E. intermedia* Schrenk et C.A. Mey.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입추(立秋) 후에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사용.
막입수륜(膜入水輪) [병증] : 안이 각막반흔(角膜瘢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각막실질의 손상이 치유된 후에 섬유배열(纖維排列)의 불규칙 및 광선굴절율(光線屈折率)의 차이로 육안적으로 혼탁해 보이는 것.
막해(膜海)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나오는 용어로 전사해(前四海–진해津海, 고해膏海, 유해油海, 액해液海) 중 하나. 고해의 청기가 목(目)에서 나와서 기가 되며 배려(背膂)로 들어가 막해(膜海)가 됨. 막해는 배려에 위치하며 영(靈)을 장(藏)하고 비(脾)의

ㅁ

근본이 되며 기가 머무르는 곳으로, 막해의 탁재(濁滓)는 수(手)의 능수지력(能收之力)에 의해 단련되어 근(筋)을 형성한다.

만경풍(慢驚風) [병증] ㊐ 천조풍(天吊風) : 정신 경풍 증형(證型)의 하나로 대부분 대병(大病)이나 구병(久病)을 앓은 후에 발생. 하지만 소아의 신체가 허약하여 병에 걸리면 바로 만경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에서는 발병이 완만하고 열이 나지 않으며 때때로 축닉(搐搦)이 발생했다 멎었다하고, 맥이 완(緩)하면서 무력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만비풍(慢脾風) [병증] : 소아 만경풍(慢驚風)의 하나. 대부분 오랜 토설(吐泄)로 인해 비기(脾氣)가 허약하여 간(肝)이 유양(濡養)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병증. 이마에 땀이 나면서 눈을 감은 채 머리를 흔들어 대고, 얼굴과 입술은 검푸른 색을 띠면서 손발이 차갑고 경련이 일어나며 호흡이 미약하고 정신 또한 미약하거나 혼수로 말이 없으며, 혀가 짧아져 말이 잘 안 나오고, 맑은 물을 토하며 지문이 사라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양기(陽氣)는 없고 순전히 음기(陰氣)만 있는 허한패상(虛寒敗象)에 속한다.

만삼(蔓參) [약물] ⇒ 당삼(黨參)

만종(漫腫) [병증] : 안이 넓게 퍼져 부어있는 것.

만침(彎鍼) [침구] : 침구 침을 자입한 후 염전(捻轉)이나 제삽(提揷)을 할 때 침병이 왜사(歪斜)되어 원래의 위치로 고쳐도 쉽게 발침(拔針)되지 않는 것.

만통(滿痛) [증상] : 내과 꽉 막혀 답답하고 그득하게 느끼는 통증.

만형자(蔓荊子) [약물] ㊐ 소형(小荊) : 본초 마편초과(馬鞭草科 : Verben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inné fil. 의 성숙한 과실. 중국에서는 단엽만형(單葉蔓荊) *Vitex trifolia* L. var. *simplicifolia* Cham. 혹은 만형 *Vitex trifolia* L.의 열매를 기원식물로 한다.

만후풍(慢候風) [병증] : 안이 후풍의 하나. 목안이 가볍게 붓고 경과가 완만한 인후병. 신체 허약자가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하여 발생되는데 병의 진행속도가 완만하고 인후가 약간 종대(腫大)되며 담색(淡色)을 띤다.

말(沫) [증상] : 내과 묽은 체액.

말관(末關) [진찰] ⇒ 명관(命關)

말법(抹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한 손이나 양손의 지횡면(指橫面)을 치료부위에 밀착시킨 후, 상하 또는 좌우로 왕복운동을 하는 수법. 말법을 시술할 때는 '경이불부, 중이불체(輕而不浮, 重而不滯)'의 원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데, 주로 두면부, 경항부 등에 상용하는 수법이다.

망색(望色) [진찰] : 진단 망진(望診)의 일종으로 환자의 면부 및 지체에서 나타나는 색의 변화와 광택을 관찰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망색십법(望色十法) [진찰] ㊐ 상기십법(相氣十法) : 진단 환자의 얼굴 기색을 살피는 10가지 방법. 부침(浮沈)·청탁(淸濁)·미심(微甚)·산단(散摶)·택요(澤夭)를 말하는데 질병의 표리·허실·음양을 분별하고, 질병의 경과와 예후 및 사기(邪氣)의 성쇠 등을 변별하는데 활용. 다른 진찰 소견과 결부시켜 활용해야 한다.

망시(妄視) [병증] : 안이 물체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

망양(亡陽) [병증] ㊐ 탈양(脫陽) : 병리 인체의 양에 속하는 기능이 심하게 쇠퇴하여 생명이 위급해진 병리상태. 대량의 한토하(汗吐下), 출혈로 기가 함께 빠져나가 일어나거나, 혹은 만성질환으로 양기(陽氣)가 손상되어 일어난다.

망양증(亡陽證) [병증] ㊐ 양기폭탈증(陽氣暴脫證), 탈양증(脫陽證) : 병리 양기(陽氣)가 갑자기 쇠갈하여 생명이 위급해진 병증. 그 증상은 한출부지(汗出不止), 사지궐랭(四肢厥冷), 호흡미약(呼吸微弱), 정신위미혹황홀(精神萎靡或

恍惚) 등이 주증이고, 외한권와(畏寒蜷臥), 갈희열음(渴喜熱飮), 면색창백(面色蒼白) 등이 차증이며, 설담윤(舌淡潤), 맥미욕절(脈微欲絶), 혹 부대무력(浮大無力)하다.

망양초증(亡陽初證) [변증] : 병리 망양증(亡陽證) 초기로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표정이 냉담해지고, 사지궐랭(四肢厥冷) 등의 증상이 출현하는 병증.

망어(妄語) [병증] ⇒ 망언(妄言)

망언(妄言) [병증] 동 헛소리, 망어(妄語) : 병리 언어착란.

망음(亡陰) [병리] 동 탈음(脫陰) : 병리 인체 중 음(陰)의 기능이 심하게 쇠퇴해 생명이 위급해진 병리 상태. 고열한출(高熱汗出), 대량의 출혈(出血), 토사(吐瀉) 등으로 인체의 음액이 대량으로 급속히 소모되어 형성된다.

망음증(亡陰證) [병증] 동 음액폭갈증(陰液暴竭證), 음액폭탈증(陰液暴脫證) : 병리 인체의 음액이 대량으로 급속히 소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증으로, 그 증상은 한출신열(汗出身熱), 정신번조(精神煩躁－또는 혼미섬망昏迷譫妄), 호흡기조(呼吸氣粗) 등이 주증이고, 기육건조(肌肉乾燥), 피부추절(皮膚皺折), 순건치조(脣乾齒燥), 목광심함(目眶深陷), 갈희열음(渴喜熱飮) 등이 차증이며, 설질건홍(舌質乾紅), 맥허삭 혹 세삭무력(脈虛數或細數無力)하다.

망자(芒刺) [증상] : 진단 ① 혓바늘. 혀에 붉은 좁쌀 같은 것이 돋아나서 쓰리고 깔깔하며 아픈 경우를 말함. 설유두염(舌乳頭炎)에 해당. ② 까끄라기와 가시를 말함.

망자설(芒刺舌) [징후] : 진단 설유두(舌乳頭)가 증식하고 비대해져서 가시 혹은 바늘과 같이 혀에 돋아나는 상태. 열사(熱邪)의 항성으로 인해 홍강(紅絳)한 혀에서 많이 나타난다.

망진(望診) [진찰] : 진단 사진(四診)의 하나. 눈으로 환자의 신색(神色)·동태(動態)·체표의 각 부분·설체(舌體)·설태(舌苔)·대소변 및 기타 분비물을 관찰하여 질병과 유관한 변증자료를 얻는 행위. 일반적으로 신색(神色)·설진(舌診)에 중점을 두는데 소아의 경우는 지문(指紋)의 관찰도 포함된다.

망진액(亡津液) [병리] [병증] : 병리 폐위(肺胃)의 진액손상을 말함. 열성병의 과정이나 사열의 치성으로 폐위(肺胃)의 진액이 모상(耗傷)되어 조열증상(燥熱症狀), 곧, 폐진모상(肺津耗傷)시에는 건해무담(乾咳無痰), 혹 담중대혈(或 痰中帶血), 비건인건(鼻乾咽乾), 후통(喉痛) 등이 나타나고, 위진손상(胃津損傷)시에는 구조인건(口燥咽乾), 번조(煩躁), 갈음부지(渴飮不止) 등이 출현한다.

망초(芒草) [약물] ⇒ 백미(白薇)

망초(芒硝) [약물] 동 황산나트륨(黃酸나트륨) : 본초 유산염류(硫酸鹽類)의 광물인 망초족(芒硝族)에 속한 망초 Mirabilite를 가공 정제(精製)하여 얻은 결정체로 함수(含水)황산나트륨($Na_2SO_4 \cdot 10H_2O$)이다.

망치(望齒) [진찰] : 진단 망진(望診) 내용의 하나. 치아와 잇몸의 두 부분을 포괄하여 살피는데, 신(腎)은 골(骨)을 주관하고 치아는 골의 여분이 되며, 위(胃)의 경락은 잇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망치는 주로 신(腎)과 위(胃)의 병변을 변별하는데 적용된다.

망침(芒鍼) [기구] : 침구 침체가 가늘고 긴 침으로 마치 보리 이삭처럼 생겨 망침이라 한다.

망침법(芒鍼法) [침구] 동 망침요법(芒鍼療法) : 침구 망침(芒鍼)으로 혈자리를 깊게 찌르는 치료 방법. 왼손으로 침병(鍼柄)을 잡고서 돌리고 오른손으로 침체(鍼體)를 아래로 누르며 천천히 일정한 깊이까지 진침(進鍼)하여 비교적 강한 침감(鍼感)이 느껴지면 멈춘다.

망침요법(芒鍼療法) [침구] ⇒ 망침법(芒鍼法)

망혈(亡血) [병리] : 병리 토혈(吐血), 육혈(衄血), 변혈(便血), 요혈(尿血) 등의 출혈(出血)

ㅁ

을 총칭한 것.
매괴화(玫瑰花) [약물] 동 홍매괴(紅玫瑰)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해당화 *Rosa rugosa* Thunb.의 화뢰(花蕾)로, 5월에 채취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 사용.
매병(呆病) [병증] 동 치매(痴呆), 매치(呆痴), 신매(神呆), 백치(白痴), 우치(愚痴), 천치(天痴) : 정신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하던 사람이 정신활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병증으로 기억장애(記憶障碍), 판단장애(判斷障碍), 사유장애(思惟障碍), 계산장애(計算障碍), 감정장애(感情障碍), 인격변화(人格變化) 등 정신의 주증상과 우울증이나 조증(躁症), 망상(妄想), 환각(幻覺), 다동경향(多動傾向) 등 정신적 부증상(副症狀)이 있는 일종의 만성 진행성 정신퇴행질환.
매치(呆痴) [병증] ⇒ 매병(呆病)
매침법(埋鍼法) [침구] : 침구 소침(小鍼)을 혈위의 피내(皮內)에 비교적 장시간 유치(留置)하는 방법.
매핵기(梅核氣) [병증] : 정신 칠정이 울결되거나 혹은 담기응체(痰氣凝滯)로 인해 인후에 이물감이 있어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아 가슴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병증.
매화침(梅花鍼) [침구] 동 매화침요법(梅花鍼療法) : 침구 매화침을 사용하여 자극을 주는 피부침요법의 하나.
매화침요법(梅花鍼療法) [침구] ⇒ 매화침(梅花鍼)
맥(脈) [해부] [생리] [진찰] : 진단 ① 기혈운행의 통로인 맥관(脈管)을 말함. ② 맥박(脈搏)·맥상(脈象)을 가리킴. ③ 맥법(脈法)을 가리킴. → 절맥(切脈), 맥진(脈診)
맥구(脈口) [진찰] ⇒ 촌구(寸口)
맥극(脈極) [병증] 동 혈극(血極) : 내과 혈극의 다른 이름으로 혈맥이 심하게 휴손(虧損)되어 나타나는 위중하고 급한 병증. 얼굴에 핏기가 없고 머리털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남. 육극증(六極證)의 하나.
맥근(脈根) [진찰] ⇒ 맥유근(脈有根)
맥기(脈氣) [생리] ⇒ 경기(經氣)
맥긴(脈緊) [진찰] ⇒ 긴맥(緊脈)
맥도(脈道) [경락] : 경혈 기혈(氣血)이 통하는 길.
맥도(脈度) [기타] : 오도(五度)의 하나. ① 경맥의 장단을 헤아리는 것. ② 맥진에서 맥상(脈象)의 대소(大小), 부침(浮沈), 활삽(滑澁)을 변별하고, 아울러 그 맥의 좌우, 상하, 전후를 구별함으로써 오장의 사시역종(四時逆從)을 파악하는 것.
맥락(脈絡) [경락] : 경혈 ① 낙맥(絡脈). ② 경맥과 낙맥 및 그 관계를 표시하는 말.
맥률(脈率) [진찰] : 진단 일호일흡(一呼一吸)하는 일식(一息) 동안에 뛰는 맥의 박동 수. 호흡주기 값에 대한 맥동주기 값의 비로서 정의.
맥립구(脈粒灸) [침구] : 침구 보리알 크기의 뜸쑥으로 뜸뜨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직접구에 사용.
맥문동(麥門冬)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또는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Ker-Gawl.의 괴근(塊根)으로, 여름철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기타 개맥문동 *Liriope spicata* Lour 등이 있음.
맥박변이도(脈搏變移度) [진찰] : 진단 맥파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중 하나로서, 맥박주기의 변이도를 이용하여 신체의 이상 유무 및 질병의 예후를 검사.
맥법(脈法) [진찰] ⇒ 맥진(脈診)
맥부(脈浮) [징후] ⇒ 부맥(浮脈)
맥비(脈痺) [병증] 동 심비(心痺), 열비(熱痺) : 재활 풍한습사가 혈맥을 가로막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증(痺證). 그 증상은 피부색이 변하고 피모가 건조해지며 기육완비(肌肉頑痺)한다.
열비(熱痺) [병증] ⇒ 맥비(脈痺)

맥삭(脈數) [징후] ⇒ 삭맥(數脈)
맥삽(脈澁) [징후] ⇒ 삽맥(澁脈)
맥상(脈象) [진찰] : 진단 맥진시 맥박이 손가락에 와 닿는 형상. 빈도, 리듬, 충만도, 통창(通暢)하는 상황, 박동의 정상여부, 파동폭 등을 포괄한다.
맥상주병(脈象主病) [진찰] : 진단 맥상에 따라 상응하는 병증이 있음을 말하는 것. 예를 들면 부맥(浮脈)은 주로 표증을, 침맥(沈脈)은 주로 이증을, 지맥(遲脈)은 주로 한증을, 삭맥(數脈)은 주로 열증을 반영한다.
맥신(脈神) [진찰] ⇒ 맥유신(脈有神)
맥아(麥芽) [약물] 동 곡맥(谷麥)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1년생 초본인 대맥(大麥) *Hordeum vulgare* Linné의 익은 과실로, 물에 담군 뒤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하여 어린 싹이 0.5cm 되었을 때 양건(陽乾)하거나 저온건조(低溫乾燥)하여 사용.
맥위(脈胃) [진찰] ⇒ 맥유위(脈有胃)
맥위(脈痿) [병증] : 재활 사지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거동할 수 없고 정강이가 연약해서 일어설 수 없는 것.
맥유근(脈有根) [진찰] 동 맥근(脈根) : 진단 맥(脈)에 근(根)이 있는 맥상(脈象). 침맥(沈脈)은 신(腎)을 나타내고 척맥(尺脈)으로 신(腎)을 살필 수 있으므로 척맥이 침하면서 손가락 끝에 와 닿는 것이 힘이 있다면 이는 근이 있는 맥상이다. 신간동기(腎間動氣)에 의해 생장되는 십이경맥에 신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맥에도 반드시 근이 있게 된다.
맥유신(脈有神) [진찰] 동 맥신(脈神) : 진단 맥(脈)에 신(神)이 있는 맥상(脈象). 맥의 형체가 부드럽고 맥의 흐름이 일정하며 손끝에 와 닿는 것이 힘이 있으면서도 약하거나 강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상태의 맥상을 말한다.
맥유위(脈有胃) [진찰] 동 맥위(脈胃) : 진단 맥에 위기(胃氣)가 있는 맥상(脈象). 맥상이 부(浮)하거나 침(沈)하지도 않고 급하거나 느리지도 않으며 화완(和緩)하여 리듬이 일치되는 맥상을 말한다.
맥응(脈應) [진찰] ⇒ 맥종(脈從)
맥저(脈疽) [병증] ⇒ 백맥저(百脈疽)
맥절(脈絶) [징후] : 진단 고병명(古病名). 혈맥이 마르고 손상되어 통하지 않는 증후.
맥종(脈從) [진찰] 동 맥응(脈應) : 진단 맥상(脈象)이 병증에 맞게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 양증(陽證)에서는 양맥(陽脈)이 나타나고 음증(陰證)에서는 음맥(陰脈)이 나타나는 것이다.
맥증(脈蒸) [병증] : 내과 증병(蒸病)의 하나. 병의 근원이 심(心)에 있으며 증상은 가슴이 답답해서 손발을 내저으면서 물만 마시려 하고, 또 거품이 섞인 흰 가래를 많이 뱉으며, 잠만 들면 헛소리를 잘하며 잘 놀라고 무서워하며 불안해하고 혹 전변(轉變)되어 감증(疳證)이 되면 아랫배가 불러오면서 아프고 계속해서 설사하는 병증.
맥증합참(脈證合參) [진찰] : 진단 변증(辨證)과정에서 맥상(脈象)과 증후(證候)를 서로 참조하여 병정(病情)을 추단하는 방법.
맥진(脈診) [진찰] 동 맥법(脈法), 진맥(診脈), 절맥(切脈), 안맥(按脈), 지맥(持脈) : 진단 맥박을 짚어봄으로써 맥상(脈象)을 살피고 변증(辨證)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고자 하는 진단방법의 일종. 동맥이 체표로 천출(淺出)하는 부위에 뛰는 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상태와 질병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한방진단방법.
맥진기(脈診器) [진찰] : 진단 맥진시 얻어지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표기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맥치(脈痔) [병증] : 안이 장구(腸口)에 과립을 형성하고 가렵고 아프며 출혈이 조금씩 일어나는 치창(痔瘡).
맥탈(脈脫) [징후] : 진단 촌구(寸口) 부위를 꾹

ㅁ

눌러 짚어도 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맥파(脈派) [진찰] : 진단 pulse. 심장박동에 의하여 생기는 동맥계 압파동의 전달. 체동맥계에 있어서는 심장박동에 의해 좌심실내압이 대동맥내압을 능가하는 순간에 대동맥판막의 개방과 더불어 혈액이 구출되면 대동맥기시부에 내압증가를 초래하여 동맥이 확장되고, 다음에 수축이 완료되어 심실내압이 대동맥내압보다 낮아지면 대동맥판이 폐쇄되면서 동시에 내압은 급강하하는데 이때 관벽은 탄성에 의하여 수축하게 된다. 이렇게 대동맥내압이 상승 혹은 하강하는 변화에 따라서 관벽이 확장하였다 수축하였다 하는 동맥벽의 변화가 계속하여 일어나 이와 같은 압파가 혈관벽을 따라서 말초로 파상으로 전파되는 것을 맥파라고 한다.
맥파계(脈波計) [진찰] : 진단 sphygmography. 맥파의 계측을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맥파전달시간(脈派傳達時間) [진찰] : 진단 pulse transit time. 두 동맥 박동처(搏動處) 사이를 맥파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맥학(脈學) [진찰] : 진단 sphygmology. 맥진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한의학의 한 분야.
맥현(脈弦) [징후] ⇒ 현맥(弦脈)
맥현절(脈懸絶) [징후] : 진단 정상적인 맥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맥상(脈象). 주로 병이 위급할 때 나타난다.
맹저(猛疽) [병증] ⇒ 결후옹(結喉癰)
맹충(虻蟲) [약물] 동 비맹(蜚虻) : 본초 등에과(蝱科 : Tabanidae)에 속한 곤충인 복대맹(復帶虻) *Tabanus bivittatus* Mats. 및 동속 근연곤충의 자충체(雌蟲體)를 건조한 것으로, 5~6月에 잡아 끓는 물에 탕포(燙泡) 또는 증(蒸)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머리침요법(머리鍼療法) [침구] ⇒ 두침(頭鍼)
면간(面黕) [병증] ⇒ 간(黕)
면마(綿馬) [약물] ⇒ 관중(貫衆)
면반(面瘢) [병증] : 안이 얼굴에 상처나 창(瘡)이 생겼다가 나은 후 생긴 흉터.
면발독(面發毒) [병증] : 안이 하악골우(下顎骨隅)와 이수(耳垂) 사이, 즉 개구(開口)하면 함요부가 있는 곳으로 양명위경에 속하는 협거골간(頰車骨間)에서 발생하는 옹저. 풍과 열이 양명경을 침범하여 생긴다.
면백(面白) [징후] : 진단 안면 색진(色診)에서 안면의 부분 혹은 전체에서 나타나는 안색이 흰 것. 임상에서는 주로 기허·한증에서 나타난다.
면부(面浮) [증상] : 내과 안면부종.
면수(面瘦) [증상] : 내과 얼굴이 여윈 것.
면실자(棉實子) [약물] 동 면화자(棉花子), 목면자(木棉子) : 본초 아욱과(錦葵科 : Malv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목화 *Gossypium indicum* Lam.와 동속 근연식물의 성숙한 종자. 가을에 채취하여 면(棉)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 후 사용.
면열(面熱) [증상] : 내과 두열(頭熱)을 달리 부른 이름. 머리에 열감이 있는 증.
면유풍(面遊風) [병증] : 안이 면부에서 발생하는 지루성피부염에 해당. 얼굴에 가는 물고기 비늘모양과 같은 백설(白屑)이 일어나며 붓고 가렵고 때때로 아픈 병증.
면적(麵積) [병증] : 내과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적(積)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 면(麵)에 의해 생긴 적.
면적(面赤) [징후] 동 면홍(面紅) : 진단 안면 색진(色診)에서 안면의 부분 혹은 전체에서 나타나는 안색이 붉은 것.
면종(面腫) [병증] : 내과 ① 얼굴이 부은 것. ② 얼굴에 난 종기.
면청(面靑) [징후] : 진단 안면 색진(色診)에서 안면의 부분 혹은 전체에서 나타나는 안색이 푸른 것. 임상에서는 경(驚)·풍(風)·한(寒)·

통(痛)을 주로 반영.
면초(面焦) [증상] : 진단 안면 색진(色診)에서 면부가 메마르면서 그을린 것처럼 검은 병색이 나타나는 것.
면침(面鍼) [침구] 동 면침술(面鍼術), 안면침요법(顔面鍼療法) : 침구 안면부에 분포하는 특수혈에 대한 집중적인 침시술 행위.
면침술(面鍼術) [침구] ⇒ 면침(面鍼)
면포(面胞) [병증] : 부인 쌀알이나 곡물 낱알 크기에 백색을 띤 포(胞)가 생기는 것으로 여드름을 뜻함.
면풍독(面風毒) [병증] : 안이 독맥 위의 양미중간(兩眉中間) 인당혈에서 발생하는 옹저. 미심저(眉心疽)에 비해 양증(陽證)·순증(順證)·이치(易治)인 경우를 지칭.
면홍(面紅) [징후] ⇒ 면적(面赤)
면화자(棉花子) [약물] ⇒ 면실자(棉實子)
면황(面黃) [징후] : 진단 안면 색진(色診)에서 안면의 부분 혹은 전체에서 나타나는 안색이 황색인 것. 임상에서는 습(濕)·혈허증(血虛證)을 주로 반영.
면흑(面黑) [징후] : 진단 안면 색진(色診)에서 안면의 부분 혹은 전체에서 나타나는 안색이 검은 것. 임상에서는 한(寒)·통(痛)·노권(勞倦)·혈어(血瘀)를 주로 반영.
명관(命關) [진찰] 동 말관(末關) : 진단 소아에서 지문(指紋)을 통해 관찰하는 진단법으로 검지의 셋째 마디를 뚫고 나오는 지문을 가리킴. 병세가 위중하여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명당(明堂) [진찰] [경혈] : 진단 망진(望診)부위로 비(鼻)를 가리킴. 양미간의 코가 시작되는 부위 아래를 지칭하기도 한다.
명목(瞑目) [증상] 동 목명(目瞑) : 안이 눈을 감고 뜨려고 하지 않는 것. 대개 환자가 발열하여 심번(心煩)하고 현훈(眩暈)이 있을 때 눈을 감고 잠깐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볼 수 있다.
명문(命門) [생리] 동 원기지근(元氣之根), 정실(精室), 정혈지해(精血之海) : 생리 ① 선천적인 기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인체 생화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본이 되는 무형의 장기. ② 우신(右腎).
명문지화(命門之火) [생리] ⇒ 신양(腎陽)
명문화(命門火) [생리] ⇒ 신양(腎陽)
명문화쇠증(命門火衰證) [병증] ⇒ 신양허증(腎陽虛證)
명반(明礬) [약물] ⇒ 백반(白礬)
명반압축요법(明礬壓縮療法) [치법] : 안이 8~10%의 명반용액을 치핵(痔核) 속에 넣고 아울러 혈관겸(血管鎌)으로 치(痔)를 납작하게 압축하여 오그라들게 하여 치핵이 굳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치법.
명천고(鳴天敲) [기공] ⇒ 고치(叩齒)
명하법(明煆法) [포제] : 본초 약물을 직접 노화(爐火)나 불에 견디는 용기 내에서 하소(煆燒)하는 방법. 명하(明煆)의 목적은 ① 약물을 성기게 하거나 결정수(結晶水)를 없앰으로써 분쇄와 전자(煎煮)을 쉽게 하는 것. 백반, 붕사, 석결명, 대자석 등의 약물이 이에 속한다. ② 약물의 수렴작용을 강하게 하는 것. 모려, 적석지 등의 약물이 이에 속한다. 방법은 질이 딱딱한 광물 약을 노화에 놓고 하(煆)하여 빨갛게 달군 다음 꺼내어 식히는 것인데, 결정수를 가진 광물약, 동물의 패각류 및 화석류의 약물은 불에 견디는 용기 내에서 하투(煆透)한 다음 꺼내어 식힌다.
명향(明香) [약물] ⇒ 유향(乳香)
명현(瞑眩) [증상] : 내과 종종 약물반응과 관련되어 쓰여 지는 안목(眼目)의 혼현(昏眩) 증상.
모(募) [경혈] ⇒ 모혈(募穴)
모(冒) [증상] ⇒ 울모(鬱冒)
모강(毛薑) [약물] ⇒ 골쇄보(骨碎補)
모계(牡桂) [약물] ⇒ 육계(肉桂)

ㅁ

모과(木瓜) [약물] 동 모과실(木瓜實)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Koehne와 명자꽃 *C. lagenaria* (Loisel) Koidz.[=*Chaenomeles spe ciosa* (Sweet) Nakai.]의 성숙한 과실로, 여름과 가을 과실이 익은 것을 따서 끓는 물에 삶아서 외피가 회백색이 될 때 꺼내어 약간 쇄건(曬乾)한 다음 쪼개어 다시 쇄건(曬乾)한 후 사용.

모려(牡蠣) [약물] : 본초 굴과(牡蠣科 : Ostrei- dae)에 속한 연체동물인 굴(長牡蠣) *Ostrea gigas* Thunb.의 패각(貝殼)을 건조한 것. 중국에서는 이외에 대연만모려(大連灣牡蠣) *O. talienwhanensis* Crosse, 근강모려(近江牡蠣) *O. rivularis* Gould를 함께 기원으로 한다.

모서(冒暑) [병증] : 내과 서병(暑病)의 하나. 서사(暑邪)가 위장을 침범하여 생김.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며 배가 아프면서 물 같은 설사를 하고 메스꺼워하며 토하고 머리가 무겁고 현기증이 나타난다.

모양(耗陽)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胃受熱裡熱病論〉에 서술된 병리 용어. 노심초사에 의해 양기(陽氣)가 아래로 떨어져 중탁(重濁)하게 되며 머리, 얼굴, 사지에 울열(鬱熱)이 되는데 이것을 모양(耗陽)이라 함. 원기(元氣) 청양(淸陽)과는 상대되는 개념.

모자(毛刺) [침구] 동 모자법(毛刺法) : 침구 구자(九刺) 중 하나로 살갗에 침을 얕게 찔러 겉의 비증(痺症)을 다스리는 방법.

모자고(毛慈姑) [약물] ⇒ 산자고(山慈姑)

모자법(毛刺法) [침구] ⇒ 모자(毛刺)

모자보사법(母子補瀉法) [침구] ⇒ 자모보사법(子母補瀉法)

모자석(毛磁石) [약물] ⇒ 자석(磁石)

모장(牡臟) [생리] ⇒ 양장(陽臟)

모절(毛折) [병증] : 내과 머리털이 마르면서 윤기가 없어지고 잘 빠지며 쉽게 부스러지는 병증.

모지추법(母指推法) [추나] : 재활 엄지손가락으로 추법을 시행하는 것.

모치(牡痔) [병증] : 안이 항문주위에 육구(肉球)가 돌출하여 서유상(鼠乳狀)과 같고 때때로 농혈이 유출되는 치창(痔瘡).

모학(母瘧) [병증] ⇒ 노학(老瘧)

모혈(募穴) [경혈] 동 복모혈(腹募穴), 모(募) : 경혈 복모혈을 가리키며 장부의 기가 흉복부에 있는 특정 혈에 모이는(聚) 곳이다. 장부와 거리가 가까워 장부에 사기가 있으면 반응이 모혈(募穴)에 잘 나타난다.

목감(目疳) [병증] : 안이 눈 흰자위에 작은 돌기가 생기는 병.

목과실(木瓜實) [약물] ⇒ 모과(木瓜)

목근피(木槿皮) [약물] 동 천근피(川槿皮) : 본초 아욱과(錦葵科 : Malv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의 경피(莖皮)와 근피(根皮)를 건조한 것으로, 4~5月에 벗겨 세정(洗淨)한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목금체질(木金體質) [진찰] : → 목체질(木體質)

목기(木氣) [생리] : 생리 인체의 기를 온양하고 상승시키는 기운. 간(肝)이 목(木)에 해당하므로 간기(肝氣)를 말하기도 함.

목단피(牡丹皮) [약물]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낙엽소관목(落葉小灌木)인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ews의 근피. 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뿌리를 캐어 수염뿌리와 경아(莖芽)를 제거하고 근피를 박취(剝取)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목란(目爛) [병증] : 소아 눈꺼풀 피부나 눈꺼풀 아랫부분이 헐고 아프며 가려움을 느끼는 것.

목력(木癧) [병증] : 안이 목주(木柱)와 같은 모양의 나력(瘰癧).

목맹(目盲) [병증] : 실명(失明)을 가리킴.

목면자(木棉子) [약물] ⇒ 면실자(棉實子)

목명(目瞑) [증상] ⇒ 명목(暝目)
목목체질(木木體質) [진찰] : → 목체질(木體質)
목밀(木密) [약물] ⇒ 지구자(枳椇子)
목별자(木鱉子) [약물] 동 목해(木蟹) : 본초 박과(葫蘆科 : Cucurbitaceae)에 속한 다년생 만생초본(蔓生草本)인 목별자 *Momordica cochinchinensis* (Lour.) Spreng의 성숙한 과실로 가을철에 채취하여 껍질을 제거하고 종자를 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 사용.
목삽(目澁) [병증] 동 양목건삽(兩目乾澁) : 안이 눈이 건조하고 껄끄럽거나, 마치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삽통(澁痛)이 발생하고 거북한 것.
목상찬(目上竄) [증상] ⇒ 상찬(上竄)
목설(木舌) [병증] : 안이 혀끝이 종대(腫大)되어 입안에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것.
목수체질(木水體質) [진찰] : → 목체질(木體質)
목순(目瞤) [병증] ⇒ 포륜진도(胞輪振跳)
목신(木腎) [병증] : 내과 고환이 붓고 단단하며 무감각해지는 병증.
목우(目疣) [병증] : 안이 눈꺼풀 속에 단단한 알갱이가 생기는 병증.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으로 눈꺼풀에서 발생하며 초기에는 콩알크기 정도인데 기혈이 쇠약할 때에는 성장하지 않다가 오랫동안 지속 경과되면 다시 성장한다.
목적(目赤) [병증] 동 적안(赤眼) : 안이 통상적으로 백정(白睛)이 붉은 증후를 가리킴.
목적(木賊) [약물] 동 목적초(木賊草) : 본초 속새과(木賊科 : Equisetaceae)에 속한 다년생 상록초본인 속새 *Equisetum hyemale* Linné의 전초(全草).
목적초(木賊草) [약물] ⇒ 목적(木賊)
목전이명(目轉耳鳴) [병증] : 안이 주변이 빙빙 도는 듯 하면서 귀에서 음원이 없는 소리를 느끼는 것.
목정돌출(目睛突出) [병증] ⇒ 돌기정고(突起睛高)
목창(目窓)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6)로서 두임읍(頭臨泣) 뒤 1촌 5푼에 위치.
목체질(木體質) [진찰] : 진단 운기체질의 한 분류. 변증에서 현재의 병증 이외에 오행 중 목(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목의 태과 불급, 목극토(木剋土), 목종화이생(木從火以生) 하는 등의 병증이 나타남. 목목(木木)체질, 목화(木火)체질, 목토(木土)체질, 목금(木金)체질, 목수(木水)체질로 세분.
목토체질(木土體質) [진찰] : → 목체질(木體質)
목통(木通) [약물] : 본초 으름덩굴과 (木通科 : Lardizabalaceae)에 속한 낙엽성 관목인 으름 *Akebia quinata* Decaisne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줄기로서 주피를 제거하고 가로로 자른 것임.
목폐(目閉) [병증] : 눈을 감고서 뜨려 하지 않는 것.
목필화(木筆花) [약물] ⇒ 신이(辛夷)
목해(木蟹) [약물] ⇒ 목별자(木鱉子)
목향(木香)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 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목향(木香) *Aucklandia lappa* Decne.의 근으로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안혼(眼昏) [병증] 동 목혼(目昏), 목혼무(目昏瞀), 목암(目暗) : 안이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목혼(目昏) [병증] ⇒ 안혼(眼昏)
목혼무(目昏瞀) [병증] ⇒ 안혼(眼昏)
목암(目暗) [병증] ⇒ 안혼(眼昏)
목화체질(木火體質) [진찰] : → 목체질(木體質)
목화형금증(木火刑金證) [병증] ⇒ 간화범폐증(肝火犯肺證)
목황(目黃) [병증] : 양 눈의 공막이 황색을 띠는 것.
목훈(目暈) [병증] : 안이 ① 눈의 흑정(黑睛)과 백정(白睛)의 경계 부위에 회백색 고리모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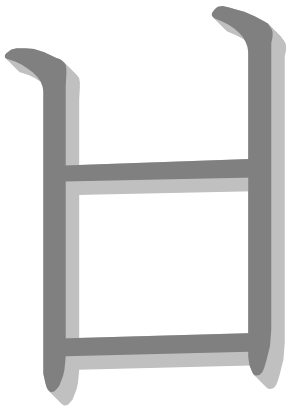
ㅁ

혼탁물이 발생하는 것. ② 안질을 앓아 불빛을 볼 때 그 둘레에 홍녹색의 테가 보이는 것.
몰약(沒藥) [약물] : 본초 감람과(橄欖科 : Bur- seraceae)에 속한 저왜관목(低矮灌木) 혹은 교목(喬木)인 몰약나무 *Commiphora myrrha* Engl. 또는 애륜보몰약나무 *Balsamodendron ehrenbergianum* Berg. 등 식물의 상구(傷口)로부터 유출하여 응고한 수지(樹脂)로, 수간(樹幹)에 절상(切傷)을 입히거나 또는 자연히 유출하여 응고한 수지를 채취하여 사용.
몽석(礞石) [약물] ⇒ 청몽석(靑礞石)
몽설(夢泄) [병증] 동 몽유(夢遺), 몽정(夢精), 몽설증(夢泄證) : 정신 꿈으로 인해 유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킴. 대부분 욕정으로 상화망동(相火妄動)하거나 지나친 사려로 심화항성(心火亢盛)하여 발생. → 유정(遺精)
몽설증(夢泄證) [병증] ⇒ 몽설(夢泄)
몽유(夢遊) [병증] 동 몽유병(夢遊病) : 정신 심담구허(心膽俱虛)로 몽중(夢中)에 좌와(坐臥) 혹은 기립(起立)하여 언어와 동작을 표현하는 것.
몽유(夢遺) [병증] ⇒ 몽설(夢泄)
몽유병(夢遊病) [병증] ⇒ 몽유(夢遊)
몽정(夢精) [병증] ⇒ 몽설(夢泄)
묘(卯) [추나] ⇒ 기관(氣關)
묘계(猫薊) [약물] ⇒ 소계(小薊)
묘안창(貓眼瘡) [병증] 동 한창(寒瘡) : 안이 전신에서 형태가 고양이 눈과 같은 형상으로 광채가 있는 창증(瘡症)이 나타나는 병증.
무(瞀) [병증] : 내과 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눈앞에 꽃무늬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 ② 가슴속이 안타깝게 답답한 것. ③ 정신이 혼몽하거나 혼미한 것. ④ 속이 답답하면서 열이 나는 것.
무계(瞀瘈) [병증] : 정신 '무(瞀)'는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하며, '계(瘈)'는 손발의 근육이 땅기고 경련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화열이 심신(心神)에 영향을 미치고 간풍(肝風)을 동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
무고감(無辜疳) [병증] : 소아 감질(疳疾)의 일종. 목에 핵(核)이 생기는 병증으로 목에 탄환 같은 멍울이 생겨 문지르면 움직이면서도 아프지 않고, 그 속에 쌀가루 같은 물질이 있다(마치 목의 임파 결핵과 같음).
무마(撫摩) [추나] : 재활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치료할 부위에 대고 천천히 가볍고 부드럽게 직선 혹은 원형으로 반복해서 어루만지는 것.
무맥증(無脈證) [병증] : 내과 한쪽 또는 양쪽 촌구(寸口)에서 맥이 느껴지지 않는 것.
무명종독(無名腫毒) [병증] : 병리 ① 도처에 발생하지만 혈(穴)의 순서를 따라 발생하지 않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 ②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그 병세가 험악하며, 생사의 관건이 되는 것.
무민(瞀悶) [병증] : 내과 가슴 속이 그득하고 답답하여 괴롭고 눈앞이 뿌예지면서 잘 보이지 않는 증상.
무시루하(無時淚下) [병증] : 안이 특별한 자극 없는데도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증상.
무시열루(無時熱淚) [병증] : 안이 별다른 병 없이 열루(熱淚)가 아무 때나 흐르는 증상.
무우선(無憂扇) [약물] ⇒ 비파엽(枇杷葉)
무이(蕪荑) [약물] 동 무이인(蕪荑仁) : 본초 느릅나무과(榆科 : Ulmaceae)에 속한 낙엽 소교목인 왕느릅나무 *Ulnus macrocarpa* Hance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종자에 느릅나무 수피(樹皮)와 진흙을 섞어서 발효한 것.
무이인(蕪荑仁) [약물] ⇒ 무이(蕪荑)
무자(繆刺) [침구] ⇒ 교경무자(交經繆刺)
무자법(繆刺法) [침구] ⇒ 교경무자(交經繆刺)
무지안(拇指按) [치법] : 재활 무지(拇指)를 굴곡하여 누르는 안법(按法).
무치(武痴) [병증] ⇒ 광(狂)
무한(無汗) [병증] 동 무한증(無汗症) : 내과 땀

이 나지 않는 증상.
무한증(無汗症) [병증] ⇒ 무한(無汗)
무화(武火) [기타] : 본초 화력이 매우 센 것을 말함. 예를 들어 발산취한(發散取汗)하는 약물은 마땅히 무화(武火)를 사용하되 오랫동안 달여서는 안된다.
무흔구(無痕灸) [침구] ⇒ 간접구(間接灸)
묵한련(墨旱蓮) [약물] ⇒ 한련초(旱蓮草)
문(捫) [진찰] : 진단 손으로 어루만져 보는 진단행위로 절진(切診)의 범주에 속함. → 절진(切診)
문갑(文甲) [약물] ⇒ 대모(玳瑁)
문진(問診) [진찰] : 진단 사진(四診)의 하나. 병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통해 환자의 신상, 과거병력, 발병원인, 발병, 치료경과 및 현재의 자각증상, 생활환경, 가족력, 기타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서 얻는 진단행위.
문진(聞診) [진찰] : 진단 사진(四診)의 하나. 음성을 듣거나 냄새를 맡는 두 가지 진단방식이 이에 해당. 음성을 듣는 행위는 환자의 말, 호흡, 해수, 신음 등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며, 냄새를 맡는 행위는 환자의 구취, 체취 및 배설물의 냄새를 맡는 것을 말한다.
문치(文痴) [병증] ⇒ 전(癲)
문합(文蛤) [약물] : 본초 참조개과(文蛤科 : Ve- neridae)에 속한 연체동물인 무명조개 *Meretrix meretrix* L.와 모시조개(青蛤) *Cyclina si- nensis* Gmelin의 패각(貝殼)으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거육(祛肉)한 다음 세정(洗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문화(文火) [기타] : 본초 화력이 약하면서 온화한 불.
미감수(米泔水) [약물] 동 미감즙(米泔汁) : 본초 쌀을 씻을 때 생기는 회백색의 혼탁한 액체인 쌀뜨물. 이는 전분과 물의 현탁액으로 소량의 전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미감즙(米泔汁) [약물] ⇒ 미감수(米泔水)
미감침(米泔浸) [포제] : 본초 미감수(米泔水)에 약물을 담그는 것. 미감수는 감한무독(甘寒無毒)하여 유질(油質)이 많은 약물에 사용하여 유질을 제거하고 약물의 신조(辛燥)한 성질을 감소시키며 보비화중(補脾和中)의 작용을 강하게 한다.
미골통(眉骨痛) [증상] ⇒ 미릉골통(眉稜骨痛)
미독(黴毒) [병리] : 안이 곰팡이.
미란(糜爛) [병리] [증상] : 안이 피부에 수포가 터진 후 표피가 없고 진물 혹은 소량이 출혈이 보이는 병변.
미려골상(尾閭骨傷) [병증] : 부인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미골을 다친 것.
미릉골통(眉稜骨痛) [증상] 동 미골통(眉骨痛) : 부인 눈 위쪽 가장자리의 액골(額骨)이 아픈 것.
미맥(微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가늘고 작으면서 부드러워 없는 것 같고 끊어질 듯한 것을 말함.
미목(眯目) [병증] ⇒ 이물입목(異物入目)
미심저(眉心疽) [병증] : 안이 독맥의 양미중간(兩眉中間) 인당혈(印堂穴)에서 발생한 옹저. 면풍독(面風毒)에 비해 음증(陰證)·역증(逆證)·난치(難治)인 경우를 지칭.
미예(尾翳) [경혈] ⇒ 구미(鳩尾)
미저골상(尾骶骨傷) [병증] 동 고골상(尻骨傷) : 부인 저추(骶椎)와 미골(尾骨)이 부러진 것.
미저골통(尾骶骨痛) [증상] : 부인 척추의 하단인 미저골(尾骶骨) 부위가 아픈 것. 신정(腎精)이 허해 독맥이 손상되거나, 한습사가 침입하거나, 혹은 혈어기체(血瘀氣滯)로 인해 발생. 보통 동통이 요부까지 파급되어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한다.
미제(未濟) [병리] ⇒ 심신불교(心腎不交)
미충(眉衝)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로서 신정(神庭)과 곡차(曲差)의 중간, 신정(神庭) 양쪽 7푼 5리에 위치.
민사(悶痧) [병증] : ⇒ 민후사(悶喉痧)

ㅁ

민하(悶煆) [포제] ⇒ 밀폐하법(密閉煆法)
민후사(悶喉痧) [병증] : 안이 역후사(疫喉痧) 중 가장 극심한 것으로서 열독이 울결되어 왕성하기 때문에 인후가 부궤(腐潰)되어 물을 연하하기가 곤란하고 고열이 있고 심번(心煩)함.
밀도법(蜜導法) [치법] ⇒ 밀전도법(蜜煎導法)
밀몽화(密蒙花) [약물] : 본초 마전과(馬錢科 : Logani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밀몽화 *Buddleja officinalis* Maximowicz의 화뢰(花蕾)와 화서(花序)로, 봄에 꽃이 미개(未開)했을 때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밀자(蜜炙) [포제] 동 밀자법(蜜炙法) : 본초 씻거나 세절(細切)한 약물을 일정량의 연밀(煉蜜)과 함께 볶는 방법. 봉밀(蜂蜜)은 성미가 감평(甘平)하여 감완익비(甘緩益脾), 윤폐지해(潤肺止咳) 등의 작용을 한다.
밀전도법(蜜煎導法) [치법] 동 밀도법(蜜導法), 밀태법(蜜兌法) : 방제 도변법의 하나. 꿀을 엉기게 졸여서 손가락 굵기만 하게 대를 만든 뒤 5~6㎝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항문에 넣어 대변이 통하게 하는 방법. 꿀로 만든 대에 조각가루를 묻혀 쓰기도 한다.
밀타승(密陀僧) [약물] 동 노저(爐底), 일산화납(一酸化鉛) : 본초 연광석 또는 은광석 등을 제련할 때 생기는 조산화납(租酸化鉛)으로 105℃에서 2시간 건조한 것을 정량할 때 PbO 95.0% 이상을 함유한다.
밀태법(蜜兌法) [치법] ⇒ 밀전도법(蜜煎導法)
밀폐하법(密閉煆法) [포제] 동 민하(悶煆), 암하법(暗煆法) : 본초 약물을 고온의 밀폐상태에서 하소(煆燒)하여 탄(炭)으로 만드는 방법. 하(煆)하면 질이 너무 성기게 되거나, 초탄(炒炭)하면 쉽게 탄화(炭化)되는 약물에 응용.
밀환(蜜丸) [약물] : 방제 꿀을 결합제로 하여 빚은 환.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ㅂ

바라문삼(婆羅門參) [약물] ⇒ 선모(仙茅)

박격법(迫擊法) [추나] : 재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서 서로 붙인 다음 손바닥이 오목하게 허장(虛掌)을 만들어 치료부위를 평온하고 리듬있게 자극하는 수법.

박궐(薄厥) [병증] : 정신 폭노 등 심한 정신자극으로 양기(陽氣)가 항성(亢盛)되고 혈이 기를 따라 역(逆)하여 두부에 울적할 때 발생되는 졸연궐역(卒然厥逆), 두통(頭痛), 현부(眩仆) 등의 혼궐증(昏厥症).

박법(拍法) [추나] : 추나 재활 추나수법 중 하나. 박법(拍法)은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서 서로 붙인 다음, 중수지절관절을 약간 굴곡시켜 손바닥이 오목하게 허장(虛掌)을 만들어 치료부위를 평온하고 리듬 있게 자극하는 수법.

박상(撲傷) [병증] ⇒ 타박상(打撲傷)

박인(薄人)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나오는 단어. '기지이식사자 명왈박인(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의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인(鄙人), 나인(懦人), 박인(薄人) 탐인(貪人)은 맹자의 사부(四夫 ; 鄙夫, 薄夫, 懦夫, 頑夫)의 변형으로서 인의예지의 반대가 되는 심욕(心慾)의 대표적인 사분류적 개념임. 경박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후중(厚重)의 반대개념.

박첩(薄貼) [약물] ⇒ 고약(膏藥)

박태(剝苔) [징후] : 진단 설태(舌苔)가 벗겨지는 것.

박편(薄片) [포제] : 본초 본절편(切片)의 일종. 단단한 약재를 1~2mm의 두께로 얇게 자르는 것. 예를 들어 녹용, 녹각 등에 적용.

박하(薄荷) [약물]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박하 *Mentha arvensis* Linne var. *piperascens* Malinvaud의 잎과 지상부.

박하밀(薄荷蜜) [포제] : 본초 박하를 꿀에다 버무린 것.

박혈망행(迫血妄行) [병리] [병증] ⇒ 혈열망행(血熱妄行)

반(斑) [증상] 동 발반(發斑) : 안이 국소적으로 피부색의 변화가 있으며, 병변 부위가 주위 조직 보다 도드라지거나 함몰되지 않은 것.

반관(反關) [진찰] ⇒ 반관맥(反關脈)

반관맥(反關脈) [진찰] 동 반관(反關) : 진단 생리적으로 보통사람과는 다른 특이한 맥위(脈位)의 일종. 요골 동맥이 완관절(腕關節) 뒤쪽에서 박동하며 이에 따라 절맥(切脈)의 위치도 촌구(寸口)의 뒤쪽이 되는데, 양손에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고 한 손에만 나타날 때도 있다.

반대설(胖大舌) [징후] ⇒ 반설(胖舌)

반대해(胖大海) [약물] : 본초 벽오동과(梧桐科 : Sterculi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반대해(胖大海) *Sterculia scaphigera* Wall.와 신주자(新州子) *S. lychophora* Hance의 성숙한 종자로, 4~6월 사이에 성숙한 종자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반독증(斑禿症) [병증] ⇒ 유풍(油風)

반모(斑蝥) [약물] : 본초 가뢰과(芫靑科 : Meloidae)에 속한 곤충인 남방대반모(南方大斑蝥) *Mylabris phalerata* Pallas 또는 황흑소

반모(黃黑小斑蝥) *M. cichorii* L.의 건조체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탕사(燙死)시킨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반모구(斑蝥灸) [침구] : 침구 반모가루를 혈자리 위에 붙여 물집이 생기게 하는 구법(灸法).

반법(扳法) [추나] ⇒ 반법(搬法)

반법(搬法) [추나] 동 반법(扳法)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척추, 관절의 기능 활동 범위 내에서 이를 최대한도로 선전(旋轉)[회선(回旋)·회전(回轉)]시키거나 신전(伸展)시키는 방법. 환자로 하여금 근육의 긴장을 풀게 한 다음 시술자가 한 손으로 누르면서 환부의 기능 활동 계통을 따라 지체를 선전시켜주며, 활동 및 선전이 일정한 한도에 이르면 시술자는 두 손을 순간적으로 교차하여 힘을 가하면서 환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당겨서 교정하는 수기법이다. 반법은 측반법(側搬法), 사반법(斜搬法), 선전반법(旋轉搬法)으로 구분하며, 시술 부위에 따라 경부반법(頸部搬法), 흉부반법(胸部搬法), 요부반법(腰部搬法), 천장골반법(薦腸骨搬法), 견관절반법(肩關節搬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반법은 근맥을 편안하게 펴주며 관절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유착된 관절을 흔들어서 이완시켜 줌으로써 변위된 소관절을 교정시키며, 경련을 완화하고 자물쇠처럼 잠긴 관절(locked joint)을 풀어주는 수기법이다.

반법(盤法) [침구] [추나] 동 반시법(盤施法) : 침구 ① 자침(刺鍼)요법. 침을 꽂은 후 손으로 침 자루를 잡고 둥근 모양으로 가볍게 돌리면서 흔드는 방법. ② 추나에서 사용하는 수기법. 큰 폭으로 흔들어 주는 요법.

반변련(半邊蓮) [약물] : 본초 초롱꽃과(桔梗科 : Campan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수염가래꽃 *Lobelia chinensis* Lour.의 전초(全草)로, 여름철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반산(盤疝) [병증] : 내과 배꼽 주위에 통증이 있는 것. → 칠산(七疝)

반상(反常) [병리] : 병리 '항이무제(亢而無制)'로서 발병요소의 영향, 사기의 태과 또는 자가 조절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기체의 운동이 '무과(無過)'의 범주를 벗어난 상태.

반설(絆舌) [병증] : 소아 심경(心經)과 비경(脾經)에 열이 있어 혀가 약간 두툼하게 붓고 색깔은 옅으면서 부드럽고 주위에 치흔(齒齦)이 있는 것.

반설(胖舌) [징후] 동 반대설(胖大舌), 설반(舌胖) : 진단 설체(舌體)가 종창반대(腫脹胖大)한 것으로 색이 담백(淡白)한 것은 비신양허(脾腎陽虛)로 인해서 담습이 내부에 정체된 것이고, 심홍(深紅)한 색은 심비열성(心脾熱盛)하고 습열이 내온(內蘊)한 것이다.

반순정(反脣疔) [병증] : 안이 순능편리(脣稜偏裏)에 발생하는 것으로 쇄구정(鎖口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좁쌀모양이고 자색을 띠나 철관과 같이 단단한 것.

반시법(盤施法) [침구] [추나] ⇒ 반법(盤法)

반신마목(半身痲木) [병증] ⇒ 반신불수(半身不隨)

반신불수(半身不隨) [병증] 동 반신불수(半身不遂), 탄풍(瘫風), 편고(偏枯), 편풍(偏風), 편탄(偏癱), 반신마목(半身痲木) : 내과 몸 한쪽을 쓰지 못하는 상태. 반신마목(半身痲木)은 몸의 절반, 즉 몸의 오른쪽 절반이나 왼쪽 절반 또는 몸의 상반신이나 하반신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진 증상.

반신불수(半身不遂) [병증] ⇒ 반신불수(半身不隨)

반예(斑翳) [병증] : 안이 흑정(黑睛) 부위의 질환으로 인해 반흔(瘢痕) 등이 생겨 흑정이 그 투명성을 잃는 병증.

반위(反胃) [병증] 동 위반(胃反), 위번(胃翻), 번위(翻胃), 위반증(胃反證) : 내과 음식물이 들어가면 토하는 병증. 식후에 완복(脘腹)이 창

만하고 조식모토(朝食暮吐) 혹은 모식조토(暮食朝吐)하며,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토출(吐出)하고 정신이 피로하여 힘이 없으며 설(舌)이 담백하고 맥세무력(脈細無力)하다.

반음양(半陰陽) [병증] ⇒ 자웅인(雌雄人)

반응성(反應性) [병리] : 병리 인체의 체질적 특성의 하나. 동일한 병사가 인체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켜도 체질의 차이에 따라 개체에 나타나는 증후가 각각 다른 것.

반응양도점(反應良導點) [진찰] : 진단 피부저항측정기의 전압을 저전압으로 했을 때에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양도점. 피부저항측정기의 전압을 21V로 하여 인체피부의 통전전류량을 조사했을 경우 잘 나타나는 양도점도 12V, 6V로 전압을 내리면 검출이 잘 안되는데 이렇게 전압을 내려서 찾을 경우에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양도점을 반응양도점이라 한다.

반자(半刺) [침구] 동 반자법(半刺法) : 침구 오자(五刺)의 하나. 얕게 찌르고 빠르게 뽑아내어 근육이 상하지 않게 침을 놓는 것으로 털을 뽑듯이 하여 피기(皮氣)를 취하는 것.

반자법(半刺法) [침구] ⇒ 반자(半刺)

반장기통(盤腸氣痛)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속이 차서 배가 아픈 병증. 소아가 비기(脾氣)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사(寒邪)와 풍랭(風冷)을 감수하여 이것이 장(腸)사이에 얽혀서 발생한다. 증상은 복통으로 허리가 휘어지고 울음을 그치지 않으며 젖을 먹지 않고 얼굴이 청백색으로 변하며 푸른 설사를 한다.

반장사(盤腸痧) [병증] ⇒ 교장사(絞腸痧)

반장옹(盤腸癰) [병증] : 안이 급성충수염의 농혈이 배꼽을 통해 나오는 것.

반장치(盤腸痔) [병증] : 안이 발생할 때에 직장이 6~9㎝ 정도 탈출되고 치핵(痔核)은 면자대(綿子大)와 같으며 종통이 극심하여 점차 음낭이 종대(腫大)되는 치창(痔瘡).

반정노육(攀睛胬肉) [병증] ⇒ 노육반정(胬肉攀睛)

반좌법(反佐法) [치법] : 방제 반치법의 하나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음. ① 처방 중 약물을 구성하는 반좌법(反佐法). 즉, 한약(寒藥) 속에 열약(熱藥)을 넣어 보좌하고 열약 속에 한약을 넣어 보좌함으로써 약성을 병이 있는 경(經)으로 이끄는 방법. ② 탕약을 내복함에 있어서의 반좌법. 즉, 열약을 차게 식혀 복용하고, 한약을 따뜻하게 데워 복용함으로써 거부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반지련(半枝蓮) [약물]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일년생 혹은 다년생 초본인 칫솔골무꽃 *Scutellaria barbata* D. Don.의 전초(全草)로 봄, 여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

반진(斑疹) [병증] : 안이 열병을 앓는 동안에 체표에 나타나는 반과 진의 두 증후.

반창(瘢瘡) [병증] ⇒ 반창입안(瘢瘡入眼)

반창입안(瘢瘡入眼) [병증] 동 반창(瘢瘡), 안검두창(眼瞼頭瘡) : 안이 두진(痘疹)에 걸렸을 때 창(瘡)이 안포내(眼胞內)에 침입하여 적색을 띠고 부어서 눈을 뜰 수 없으며 통증이 있고, 눈물이 흐르며 깔깔하여 밝은 곳을 보지 못하는 병증.

반치(反治) [치법] 동 종치(從治) : 방제 일반적으로 규율과 상반되는 치법을 가리킴. 이는 질병에 가상(假象)이 나타나거나, 열증이나 한증이 심해 나타나는 가한증(假寒證)이나 가열증(假熱證)에 정치법을 써서 거부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 방법.

반탈구(半脫臼) [병증] : 재활 탈구란 관절의 완전 파열이나 붕괴가 일어나 서로 접촉해 있던 관절면의 접촉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고, 접촉이 다소 남은 상태를 아탈구 또는 반탈구라고 한다.

반표반리(半表半裏) [병리] : 병리 병변부위가 표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부에 있는 것도 아

니며 표리의 사이에 개재(介在)된 상태.
반표반리증(半表半裏證) [병리] : 병리 사기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증후. 한열왕래, 흉협고만 혹 동통(胸脇苦滿或疼痛)이 주증이고, 심번욕구(心煩欲嘔), 불욕음식(不欲飮食), 구고인건(口苦咽乾), 목현(目眩), 맥현(脈弦) 등이 차증이다.
반하(半夏) [약물] : 본초 천남성과(天南星科 : A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끼무릇 *Pinellia ternata* (Thunb.) Breitenbach의 코르크층을 제거한 괴경(塊莖)으로 7~8月에 채취하여 외피를 벗기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반하국(半夏麴) [약물] : 본초 반하에 밀가루, 생강즙 등을 가해 만든 것.
반흔구(瘢痕灸) [침구] : 침구 뜸을 뜬 후 화농이 되도록 하는 방법.
발(髮) [생리] [병증] : ① 동 두발(頭髮), 혈여(血餘) : 두발은 신(腎)의 외화(外華)로 머리카락의 생장 상태는 신기(腎氣)의 성쇠(盛衰)를 반영한다. ② 면적이 비교적 큰 체표의 옹저.
발계(菝葜)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낙엽 반원관목(攀援灌木)인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의 근경(根莖)으로,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발고(髮枯) [병증] : 내과 머리털이 윤기가 없고 까슬까슬한 것.
발관(拔罐) [침구] ⇒ 부항(附缸)
발관법(拔罐法) [침구] ⇒ 부항(附缸)
발락법(拔絡法) [추나] 동 발락법(撥絡法), 탄발법(彈撥法), 신법(抻法) : 재활 추나수법. 손가락에 적당한 힘을 가해 혈을 눌러 흔드는 것. 이렇게 하면 해경지통력(解痙止痛力)이 있어 조직의 유착을 풀어준다.
발락법(撥絡法) [추나] ⇒ 발락법(拔絡法)
발류(髮瘤) [병증] : 안이 이후면(耳後面) 발제(髮際) 아래에서 발생하는 유증(瘤症).
발반(發斑) [증상] ⇒ 반(斑)
발배(發背) [병증] : 내과 등에 생긴 발저(發疽).
발병(發病) [병리] ⇒ 치병(致病)
발병인자(發病因子) [병리] ⇒ 병인(病因)
발신(拔伸) [치법] 동 발신견인(拔伸牽引), 발신법(拔伸法) : 재활 주로 손이나 기계를 사용하여 환자의 일정부위를 끌어당김으로써 골절과 탈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발신견인(拔伸牽引) [치법] ⇒ 발신(拔伸)
발신법(拔伸法) [치법] ⇒ 발신(拔伸)
발신법(拔伸法) [추나] ⇒ 견인법(牽引法)
발신사판법(拔伸斜板法) [추나] : 재활 환자로 하여금 환측을 위로 측와위를 취하게 하고 환측 고, 슬관절을 충분히 굽히고 건측 고, 슬관절을 곧게 펴게한 후 최대한 환자를 신장시키는 방법.
발열(發熱) [증상] : 내과 인체의 체온이 정상치보다 높거나 혹은 인체의 체온은 정상범위 안에 있지만 환자 스스로가 열감을 느끼는 증상.
발유(發乳) [병증] 동 유발(乳發), 탈각유옹(脫殼乳癰) : 안이 부인 유방에 발생한 옹저(乳癰)가 위중한 경우를 가리킴. 본 병이 발생하면 붉은 색을 띄고 아프며 피부와 기육이 모두 부식(腐蝕)되면서 신속히 확산되는데 만약 치료를 잘못하면 쉽게 낭격(囊隔)이 손상되어 루(漏)가 형성되며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다.
발이(發耳) [병증] 동 이발(耳發) : 안이 현리(懸癘), 객주인(客主人) 두 혈 위에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천초립(川椒粒)과 같은 것이 점차 커져서 5~6일 후에는 호도상(胡桃狀)이나 벌집모양을 하고 갈라진 구멍이 많아지며 적색이나 자색을 띠고 열나고 통증이 심한 것.
발이(發頤) [병증] 동 한독(汗毒) : 안이 상한에 발한을 완전하게 시키지 못하여 위경(胃經)의 이함부(頤頷部) 즉, 하악골우(下顎骨隅)의 골요부(骨凹部)에 발생하는 옹저.
발저(髮疽) [병증] : 안이 저(疽)의 일종. 증상이

ㅂ

심하여 체표에 두드러지는 저를 말함.
발제창(髮際瘡) [병증] : 안이 항후발제(項後髮際)에 발생한 창증(瘡症). 서두상(黍豆狀)과 같고 창두(瘡頭)는 백색을 띠고 주변은 적색을 띤다.
발지(髮遲) [병증] : 소아 오지(五遲)의 하나. 소아가 처음 태어나 머리털이 없는데다가 오래되어도 자라지 않거나 자라도 듬성듬성 하면서 색이 시든 것처럼 노랗게 되는 병증. 모발은 혈(血)의 나머지인데 소아가 선천적으로 혈기(血氣)가 부족하여 모발을 자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진(發疹) [증상] ⇒ 피진(皮疹)
발축(發搐) [병증] : 정신 소아에게 열이 성해 풍이 생긴 경우 소아가 아직 혈기가 충실하지 않아 사기를 이기지 못하므로 축(搐)이 발생한다. 대소변을 의지해야만 볼 수 있고 입안에서 열기가 나온다. → 경축(驚搐)
발침(拔鍼) [침구] 동 거침(去鍼), 출침(出鍼), 퇴침(退鍼), 발침법(拔鍼法), 발침법(撥鍼法), 발침요법(撥鍼療法), 출침법(出鍼法) : 침구 침을 뽑는 것.
발침법(拔鍼法) [침구] ⇒ 발침(拔鍼)
발침법(撥鍼法) [침구] ⇒ 발침(拔鍼)
발침요법(撥鍼療法) [침구] ⇒ 발침(拔鍼)
발포구(發炮灸) [침구] : 침구 뜸쑥으로 태우거나, 자극성 있는 약물을 혈자리에 붙여 국소의 살갗에 물집이 생기도록 하는 치료 방법.
발한법(發汗法) [치법] ⇒ 한법(汗法)
발한요법(發汗療法) [치법] ⇒ 한법(汗法)
발화관(拔火罐) [침구] ⇒ 부항(附缸)
방(方) [기타] : 방제 처방, 즉 방제를 가리킴.
방(鎊) [포제] : 본초 한약 포제법(炮製法)의 하나. 단단하고 딱딱한 약재를 깎기 위해 특별히 만든 도구인 '방도(鎊刀)'를 이용하여 약을 얇게 깎는 것. 예를 들어 영양각, 서각 등에 사용.
방광(膀胱) [생리] 동 옥해(玉海), 주도지관(州都之官), 진액지부(津液之腑), 포(脬), 요포(尿胞) : 생리 ① 수액을 저장하여 기화(氣化)한 후에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장기. ② 정부(淨府)·수부(水府)·옥해(玉海)·포(脬)·요포(尿脬). ③ 진액지부(津液之腑)·주도지관(州道之官).
방광경(膀胱經) [경락] ⇒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방광기(膀胱氣) [병증] 동 방광산기(膀胱疝氣) : 내과 방광경(膀胱經)의 병으로 아랫배가 붓고 아프며, 배뇨가 곤란한 병증. 혹 산(疝)의 이명(異名).
방광기통(膀胱氣痛) [병증] : 내과 배꼽 주위가 교통(絞痛)하는 산기(疝氣).
방광병(膀胱病) [병증] : 병리 방광의 생리기능 실조로 나타나는 모든 병리과정.
방광병증(膀胱病證) [변증] : 병리 방광병으로 나타나는 방광허한증(膀胱虛寒證), 방광습열증(膀胱濕熱證) 등을 말한다.
방광불약(膀胱不約) [병리] ⇒ 방광실약(膀胱失約)
방광산기(膀胱疝氣) [병증] ⇒ 방광기(膀胱氣)
방광수(膀胱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28)로서 두 번째 엉치뼈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방광습열(膀胱濕熱) [병리] [변증] : 병리 습열이 하초방광에 쌓이는 병변.
방광습열증(膀胱濕熱證) [병증] 동 습열온결방광증(濕熱蘊結膀胱證) : 병리 외감이나 음식부절로 습열이 방광에 맺혀 방광의 기화가 이롭지 못한 증. 요빈(尿頻), 요급(尿急), 요삽(尿澁), 요통(尿痛), 요황적혼탁(尿黃赤混濁), 요혈(尿血) 등이 주증이고, 발열, 요통, 요중유사석(尿中有砂石) 등이 차증이며, 설홍(舌紅), 태황이(苔黃膩), 맥활삭(脈滑數)하다.
방광실약(膀胱失約) [병리] 동 방광불약(膀胱不約), 방광허한(膀胱虛寒), 방광허랭(膀胱虛冷) : 병리 방광의 요액을 저장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약해 형성되는 병리.
방광실약증(膀胱失約證) [병증] ⇒ 방광허한증(膀胱虛寒證)
방광해(膀胱咳) [병증] : 내과 기침을 하면서 소변이 나오는 병증.
방광허랭증(膀胱虛冷證) [병증] ⇒ 방광허한증(膀胱虛寒證)
방광허랭(膀胱虛冷) [병리] ⇒ 방광실약(膀胱失約)
방광허한(膀胱虛寒) [병리] ⇒ 방광실약(膀胱失約)
방광허한증(膀胱虛寒證) [병증] 동 방광허랭증(膀胱虛冷證), 방광실약증(膀胱失約證) : 병리 신기(腎氣)가 손상되고 방광이 허한(虛寒)해져서 기화작용이 감약되고 방광의 저장·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긴 병증. 소변빈삭(小便頻數), 소변청장(小便淸長), 소변불금(小便不禁), 요유여력(尿有餘瀝), 유뇨(遺尿) 등이 주증이고, 요후백탁(尿後白濁), 소변점적불상(小便點滴不爽), 무력배출(無力排出), 요산(腰痠), 소복랭통(少腹冷痛) 등이 차증이며, 설담(舌淡), 태박백이윤(苔薄白而潤), 맥침세(脈沈細)하다.
방기(防己) [약물] : 본초 방기과(防己科 : Menispermaceae)에 속한 방기 Sinomenium acutum Rehder et Wilson의 덩굴성 줄기 및 뿌리줄기이다.
방로(房勞) [병리] 동 방사(房事), 방실(房室), 범방(犯房) : 병리 성생활이 과도하여 신정(腎精)이 모손(耗損)된 것으로 노손증(勞損症)의 병인 중 하나임.
방로상(房勞傷) [병리] : 병리 내상병인의 하나. 무절제한 성생활, 수음(手淫), 조혼(早婚) 등 무리한 방사(房事)로 신정(腎精)이 소모되어 신기(腎氣)가 손상되는 것.
방사(房事) [병리] ⇒ 방로(房勞)
방산통(放散痛) [병증] : 재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의 압박이나 또는 여타 말초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양상.
방실(房室) [병리] ⇒ 방로(房勞)
방자(傍刺) [침구] ⇒ 방침자(傍鍼刺)
방촌비(方寸匕) [기구] 동 방촌시(方寸匙) : 본초 고대에 약물의 분말을 재던 기구. 그 모양이 마치 작은 숟가락 같은데, 그 크기가 1촌 정방형이므로 이와 같이 이름하였다. 1방촌비는 약 2.74㎖에 해당하며, 금석 분말을 담으면 약 2g이고, 초목 분말을 담으면 약 1g이다.
방촌시(方寸匙) [기구] ⇒ 방촌비(方寸匕)
방침자(傍鍼刺) [침구] 동 방자(傍刺) : 침구 십이자(十二刺)의 하나로 환부에 곧바로 찌르고 그 옆에도 각각 1대씩 찌르는 것으로서 유비(留痺)가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
방풍(防風) [약물]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방풍(防風)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kin의 뿌리 및 뿌리줄기.
방합(蚌蛤) [병증] : 안이 흑색에 갈색무늬가 있는 타원형의 민물조개모양으로 안검이 부어오른 것을 표현한 것으로 종창여배(腫脹如杯)와 유사.
방향요법(芳香療法) [치법] : 재활 여러 가지 한 약재에서 추출한 방향성 있는 정제유를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 피부에 직접 도포하거나 욕조에 풀어서 목욕하거나 직접 코로 흡입하는 방법이 권장되는데 상처 입은 조직의 재건, 피부질환, 월경통, 두통, 스트레스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
방혈요법(放血療法) [침구] ⇒ 사혈(瀉血)
방혈자(放血刺) [침구] ⇒ 사혈(瀉血)
배(衄) [병리] ⇒ 배혈(衄血)
배겁랭(背怯冷) [병증] ⇒ 배랭(背冷)
배기관법(排氣罐法) [침구] : 침구 관(罐)을 시술부에 부착시키고 흡인기를 이용하여 부착된 관으로부터 공기를 뽑아 감압시켜 흡착시키는 부항요법.
배농자(排膿刺) [침구] ⇒ 대사(大瀉)

ㅂ

배랭(背冷) [병증] ㊐ 배오한(背惡寒), 배겁랭(背怯冷) : 재활 등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것.
배루(背僂) [병증] ⇒ 구루(傴僂)
배법(背法) [추나] ㊐ 배법(揹法)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시술자와 환자가 서로 등을 대고 선 자세에서 의사가 양 팔꿈치를 환자의 팔꿈치에 끼고 환자를 거꾸로 등에 업어주는 자세로 환자의 요척주를 견인해 주면서 동시에 시술자의 둔부로 환자의 허리에 진동을 주거나 흔들어 주는 수기법. 조작시 둔부의 진동과 양 무릎의 굽히는 동작이 협조를 이루어야 함.
배법(揹法) [추나] ⇒ 배법(背法)
배복운동(背腹運動) [치법] : 재활 우리 몸의 등과 배를 이용하여 하는 운동.
배수(背兪) [경혈] ⇒ 배수혈(背兪穴)
배수혈(背輸穴) [경혈] ⇒ 배수혈(背兪穴)
배수혈(背兪穴) [경혈] ㊐ 배수혈(背輸穴), 배수(背兪), 배수혈침술(背兪穴鍼術) : 경혈 오장육부의 기가 수주(輸注)하는 배부(背部)에 있는 특정한 혈위(穴位)들. 배부(背部)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제일선상(第一線上)에 있으며 장부의 병변이 있을 때 배수혈상에 이상반응이 나타난다.
배수혈침술(背兪穴鍼術) [경혈] ⇒ 배수혈(背兪穴)
배열(背熱) [병증] : 재활 잔등이 화끈 달아오르는 감을 느끼는 것.
배오한(背惡寒) [병증] ⇒ 배랭(背冷)
배옹(背癰) [병증] : 안이 옹저의 일종. 등에 생긴 옹.
배지(排指) [진찰] ⇒ 하지(下指)
배진(背診) [진찰] : 진단 등 부위의 진단법으로 망진(望診)과 절진(切診)을 비롯해서 사진(四診)이 모두 동시에 쓰일 수 있으며, 범위는 후두에서 둔부에 걸친 광범위한 부위이고, 대상은 배부(背部)의 형상, 피부의 광택, 근육의 긴장・융기・응결・요함(凹陷)・마비・지각과민・동통 등이다.
배초향(排草香) [약물] ⇒ 곽향(藿香)
배토(培土) [치법] ⇒ 건비(健脾)
배통(背痛) [병증] : 재활 대부분 풍한사기를 외감하여 사기가 족태양방광경에 침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증상은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어깨와 목, 허리에까지 파급되며 오한이 나는 것이다.
배혈(配穴) [침구] ㊐ 배혈법(配穴法) : 침구 임상에서 병을 치료할 때 혈자리를 서로 배합시키는 방법.
배혈(衄血) [병리] ㊐ 배(衄) : 내과 검은 자주빛이 나는 엉긴 피.
배혈법(配穴法) [침구] ⇒ 배혈(配穴)
백(魄) [생리] : 생리 폐의 기능활동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육체의 발달과, 음적(陰的)인 정신활동 및 감각 등 내부로 수장(受藏)되는 형태의 정신활동.
백강잠(白殭蠶) [약물] ㊐ 강잠(姜蠶) : 본초 누에과(蠶蛾科 : Bombycidae)에 속한 곤충인 누에 *Bombyx mori* L.의 유충이 백강병균 *Beauveria bassiana* (Bals.) Vuill의 감염에 의해 백강병으로 경직사한 충체(蟲體)를 건조한 것.
백개자(白芥子) [약물] ⇒ 개자(芥子)
백과(白果) [약물] ㊐ 은행(銀杏) : 본초 은행나무과(銀杏科 : Ginkgo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은행나무 *Ginkgo biloba* L.의 성숙한 종자로, 10~11월에 성숙한 과실을 채취하여 다육질의 외종피를 제거한 다음 세정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백과자(白瓜子) [약물] ⇒ 동과자(冬瓜子)
백굴채(白屈菜) [약물] : 본초 양귀비과(: Papaveraceae)에 속한 애기똥풀 Chelidonium majus Linne의 전초(全草).
백급(白及) [약물] ⇒ 백급(白芨)
백급(白芨) [약물] ㊐ 백급(白及) : 본초 난초과(蘭草科 : Orchid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자란 *Bletilla striata* (Thunberg.) Reichenbach fil.의 덩이줄기. 여름과 가을에 캐어 수염뿌리

를 없애고 씻은 뒤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가운데 흰 부분이 없어지면 햇볕에 반쯤 말려 겉껍질을 없애고 다시 햇볕에 말린 다음 사용.

백단향(白檀香) [약물] 동 단향(檀香) : 본초 단향과(檀香科 : Santalaceae)에 속한 단향 *Santalum album* Linné의 목부의 심재.

백대(白帶) [병증] ⇒ 백대하(白帶下)

백대하(白帶下) [병증] 동 백대(白帶), 대하백후(帶下白候) : 부인 여성의 질에서 분비되는 대하 중 백색 점액상태를 말함. 주로 비허(脾虛), 간울(肝鬱), 습열(濕熱)의 병기로 인해 발생하며 기타 허한(虛寒), 허열(虛熱), 습담(濕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백두구(白豆蔻) [약물]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백두구(原豆蔻) *Amomum krabanh* Pierre ex Cagnep. 와 자바백두구(爪哇白豆蔻) *A. compactum* Soland ex Maton의 성숙한 과실. 10~12월 사이에 과실이 황색으로 성숙하여 갈라지기 전에 채취하여 과병(果柄)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 사용.

백두옹(白頭翁) [약물] 동 노고초(老姑草)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Nakai의 근으로, 중국에서는 *Pulsatilla chinensis* (Bge.) Regel도 약용하며,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백라(白癩) [병증] : 안이 악풍(惡風)이 침범하여 열을 일으키고 이 열이 울결되어 혈액을 소모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부색깔이 흰색 반점으로 변하며, 음성은 목이 쉬어 있는 것 같고, 눈으로 물건을 잘 보지 못하고, 사지가 몹시 아프며, 기육이 침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질환.

백렴(白斂) [약물] : 본초 포도과(葡萄科 : Vita- ceae)에 속한 다년생 반완등본(攀緩藤本)인 가회톱 *Amelopsis japonica* (Thunb.) Makino의 괴근(塊根)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백로(百勞) [기혈]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대추(大椎) 위 2촌에서 양쪽 1촌에 위치.

백루(白漏) [병증] : 부인 경혈이 누하(漏下)할 때 백색을 띤 액체가 섞여 있거나 조금씩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비폐기허(脾肺氣虛)로 인해 발생한다.

백리(白痢) [병증] : 소아 이질의 하나. 옛날에는 백체리(白滯痢)라고 하였다. 대변에 흰 곱이나 고름이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한다.

백리향(百里香) [약물] ⇒ 사향초(麝香草)

백막(白膜) [병증] : 안이 흑정부위(黑睛部位)의 가장자리에 하얀 막처럼 반흔(瘢痕) 조직이 생기는 병증.

백막침정(白膜侵睛) [병증] : 안이 흑정 둘레에 흰잿빛의 작은 막이 생겼다가 흑정 안으로 들어가는 병증. 포성각결막염(泡性角結膜炎)과 유사하며 그 증상이 금감(金疳)보다는 심하고 목감(木疳)보다는 경미하게 나타난다.

백말(白沫) [증상] : 내과 병 증상으로 흰 거품을 토하는 것.

백맥저(百脈疽) [병증] 동 맥저(脈疽) : 안이 측경부 흉쇄유양근 근방에서 발생하는 옹저.

백모근(白茅根) [약물]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띠 *Imperata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Durand et Schinz의 수근(鬚根) 및 근경(根莖)에서 비늘모양 잎을 없앤 것. 봄과 가을에 거두어 지상부를 없애고 씻은 다음 쇄건하여 사용.

백미(白薇) [약물] 동 골미(骨美), 망초(芒草) : 본초 박주가리과(蘿藦科 : Asclepiada 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백미꽃 *Cynanchum atratum* Bunge 및 기타 동속식물의 뿌리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동속식물로는 만생백미(蔓生白薇) *C. versicolor* Bge.가 있고, 기타로 왜백미꽃 *C. japonicum* Morr. et

ㅂ

Decne도 사용.

백박풍(白駁風) [병증] : 안이 양방의 어루레기와 유사한 질환. 풍사가 피부에 오랫동안 울결되어 기혈순환을 장애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피부색깔이 갑자기 백색의 반점을 나타내나 통증과 가려움이 없다.

백반(白斑) [병증] 동 설주(舌珠) : 안이 구강과 설배(舌背)에 하얀 반점이 발생되는 것. 점막표면의 각질층이 두터워지고 하면(下面)의 상피세포 과립층과 유극세포층내의 세포가 변성이 되어 세포체가 종대(腫大), 변형(變形), 핵분열(核分裂), 각화결괴(角化結塊)된다.

백반(白礬) [약물] 동 명반(明礬) : 본초 유산염류광물인 명반석(明礬石) Alunite을 전연(煎煉)하여 만든 것으로 황산알루미늄 칼륨[$KAl(SO_4)_2 \cdot 12H_2O$]을 함유하고 있다.

백복신(白茯神) [약물] ⇒ 복신(茯神)

백부(百部) [약물] ⇒ 백부근(百部根)

백부근(百部根) [약물] 동 백부(百部) : 본초 백부과(百部科 : Stemonaceae)에 속한 다년생 전요초본(纏繞草本)인 직립백부(直立百部) *Stemona sessilifolia* (Miq.) Franch. et Sav., 만생백부(蔓生百部) *S. japonica* (Bl.) Miq. 및 대엽백부(對葉百部) *S. tuberosa* Lour.의 괴근(塊根)으로, 봄철 새싹이 나오기 전이나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세정한 다음 끓는 물에 담그거나, 백심(白心)이 없어질 때 까지 증(蒸)한 후 세절(細切)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백부자(白附子) [약물]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백부자(關白附) *Aconitum koreanum* R. Raymond의 괴근(塊根). 중국에서는 천남성과(天南星科 : A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독각연(獨角蓮; 禹白附) *Typhonium giganteum* Engl.의 괴경(塊莖)으로 8~9월에 채취하여 경엽(莖葉)과 수근(鬚根)을 제거한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백붕(白崩) [병증] : 부인 미감수(米泔水)같은 백대하(白帶下)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것. 대부분 우사과도(憂思過度)로 심비(心脾)가 손상되거나, 허랭(虛冷)이 포맥(胞脈)에 누적되어 손상된 경우에 발생. 여성에게만 있는 포궁병(胞宮病)이다.

백비(白疕) [병증] : 안이 일종의 만성 낙설성 피부병. 풍한 혹은 풍습사기가 기표에 울결됨으로 인해 영위가 실조되거나, 혹은 영혈 부족으로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기표를 영양하지 못하므로 발생. 증상은 대개 사지에 발생하며, 두피 및 몸통에도 대칭으로 생기는데, 초기에는 피부의 경계가 뚜렷하고 크고 작은 홍색 구진이 생기나 그 모양이 진개(疹疥)와 같으며, 점차 확대되어 은백색 비늘이 구진을 덮는다. 표면의 비늘을 긁어내면 붉고 매끄러운 피부 표면이 보이며 개인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가렵기도 함. 질병의 과정이 길고 자주 재발한다.

백사태(白砂苔) [병증] 동 수정태(水晶苔) : 진단 설태(舌苔)가 희고 메말라 단단하며 마치 튼 피부처럼 거친 것.

백삽(白澁) [병증] 동 백안(白眼), 백통(白痛) : 안이 catarrh성 결막염 또는 만성결막염과 유사한 안질환.

백선피(白鮮皮) [약물] 동 북선피(北鮮皮)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백선 *Dictamnus dasycarpus* Turcz.의 근피로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니사(泥沙)와 코르크층을 제거하고 근피를 박취(剝取)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백설풍(白屑風) [병증] : 안이 양방의 지루성피부염에 해당하는 질환이며, 주로 두부안면 쪽의 피부가 건조하면서 백설(白屑)이 일어나고 전신에 파급되기도 한다.

백수(白水) [병증] : 내과 폐에 근본이 있는 수종병(水腫病). 증상은 먼저 다리가 붓다가 상기되고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는 병증.

백수내수(百晬內嗽) [병증] ⇒ 백일해(百日咳)
백수석(白水石) [약물] ⇒ 한수석(寒水石)
백수오(白首烏) [약물] : 본초 박주가리과(蘿藦科 : Asclepiadaceae)에 속한 식물인 은조롱 Cynanchum wilfordii Hemsley의 괴근(塊根).
백안(白眼) 안이 ① [진찰] : ⇒ 백정(白睛), 기륜(氣輪). ② [병증] : ⇒ 백삽(白澁)
백엽(栢葉) [약물] ⇒ 측백엽(側柏葉)
백완(白莞) [약물] ⇒ 자완(紫菀)
백음(白淫) [병증] 동 백음증(白淫證) : 부인 음도(陰道)에서 무색 투명의 끈끈한 액체 또는 백색의 점액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 남자에서 소변에 정액과 같은 흰 물질이 섞여 나오는 것과 여자의 대하병(帶下病) 모두를 가리킨다.
백음증(白淫證) [병증] ⇒ 백음(白淫)
백인(白仁) [해부] ⇒ 백정(白睛)
백인정(白刃疔) [병증] : 안이 비정(鼻疔) 중 백포(白泡)를 일으키는 것.
백일내수(百日內嗽) [병증] ⇒ 백일해(百日咳)
백일해(百日咳) [병증] 동 백수내수(百晬內嗽), 백일내수(百日內嗽), 태수(胎嗽) : 소아 겨울과 봄에 유행하는 전염병의 하나. 5세 이하의 소아가 많이 걸린다.
백자인(柏子仁) [약물] 동 측백인(側柏仁) : 본초 측백나무과(側柏科 : Cupress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 L.의 성숙한 종인(種仁). 중국에서는 측백 *Platycladus orientalis* (L.) Franco의 성숙한 종인을 기원으로 함.
백작약(白芍藥) [약물] ⇒ 작약(芍藥)
백전(白前) [약물] 동 석람(石藍), 수약(嗽藥) : 본초 박주가리과(蘿藦科 : Asclepiad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유엽백전(柳葉白前) *Cynanchum Stauntonii*(Decen) Schltr. et Levl. 또는 원화엽백전(芫花葉白前) *C. glaucescensi* (Dence)Hand-Mazz.의 근경(根莖)과 근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백전풍(白癜風) [병증] : 안이 피부에 흰 반점, 즉 색소탈실반이 생기는 병증. 자백전풍(紫白癜風) 중 기체(氣滯)된 것으로 열이 있을 때 풍사가 기육에 침범하여 열과 풍사가 응결되어 피부에 유체(留滯)된 것이다.
백전후(白纏喉) [병증] : 소아 온독(溫毒)의 하나. 목 안에 흰 막이 생기는 급성 전염병. 백후(白喉)의 초기를 지칭하며, 속칭 백균(白菌)이라 한다.
백정(白睛) [해부] 동 백인(白仁), 백안(白眼) : 안이 오륜(五輪) 중 기륜(氣輪)에 속하고 안주(眼珠)의 외층에 위치하며 폐에 속한다.
백정구청(白睛俱靑) [병증] ⇒ 백정청람(白睛靑藍)
백정일혈(白睛溢血) [병증] : 안이 구결막출혈(球結膜出血)로서 모세혈관이 갈라져 낙맥(絡脈) 밖으로 피가 흘러 나와 백정표면(白睛表面)에 나타난 것.
백정청람(白睛靑藍) [병증] 동 백정구청(白睛俱靑), 백주청람(白珠靑藍) : 안이 백정구청, 백주청람과 함께 심층공막염(深層鞏膜炎)에 해당. 백정의 심층이 열의 작용을 받아 컴컴한 가지색을 띠는 병증. 변화가 빨라 갑자기 백주(白珠) 전체가 청람색(靑藍色)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백주청람(白珠靑藍) [병증] ⇒ 백정청람(白睛靑藍)
백지(百枝) [약물] ⇒ 비해(萆薢)
백지(白芷) [약물]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2~3년생 초본인 구릿대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또는 그 변종의 뿌리. 중국에서는 이외에 항백지(杭白芷)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var. *formosana* (Boiss.) Shan et Yuan 의 뿌리도 기원으로 함.
백지(白芝) [약물] ⇒ 영지(靈芝)
백질려(白蒺藜) [약물] ⇒ 질려자(蒺藜子)
백촉규화(白蜀葵花) [약물] ⇒ 촉규화(蜀葵花)

ㅂ

백출(白朮)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 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삽주 *Atractylo- des japonica* Koidz. 또는 당백출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Atractylis ovata* Thunb.) 의 뿌리줄기로, 상강(霜降)부터 입동(立冬) 사이에 채취하여 경엽(莖葉)과 이토(泥土)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다시 수근(鬚根)을 제거한 것이다. 동속근연식물로는 좁은잎삽주 *A. lancea* (Thunb.) DC. 등이 있다.

백충과(百蟲窩) [기혈] 동 혈극(血極) : 경혈 하지부의 기혈로서 무릎뼈(슬개골; Patella) 내상연 위쪽 3촌에 위치.

백치(白痴) [병증] ⇒ 매병(呆病)

백탁(白濁) [병증] : 내과 ① 소변이 탁한 백색을 띠는 병증, 변탁(便濁), 요탁(溺濁), 요탁(尿濁). ②백색의 탁한 물질이 흘러나오는 병증, 정탁(精濁).

백태(白苔) [징후] : 진단 혀 위의 태상물의 색이 흰 것. 정상적인 백태(白苔)는 위기(胃氣)에서 생겨나는데, 혀의 중앙과 뿌리 부분에 엷고 평평하게 덮여 있으며, 과립이 균일하고 적당히 윤기가 돌며 설색(舌色) 역시 정상이다.

백통(白痛) [병증] ⇒ 백삽(白澁)

백편두(白扁豆) [약물]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 전요초질등본(一年生纏繞草質藤本)인 편두(까치콩) *Dolichos lablab* L.의 종자로, 가을에 완숙한 흰색의 종자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백한(白汗) [병증] : 내과 ①땀을 오색(五色)으로 분류한 것. 흰색을 나타내는 땀으로 폐기(肺氣)가 드러나서 나오는 땀. ② 자한의 잘못된 표현.

백합(百合)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Thunberg.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비늘줄기로, 가을에 채취하여 끓는 물에 약간 삶아서 쇄건(曬乾)하여 사용. 동속근연식물로는 백합 *L. brownii* F.E. Brown var. *viridulum* Baker., 혹은 세엽백합(細葉百合), *L. pumilum* DC. 백합 *L. longiflorum* Thunb.,말나리 *L. distichum* Nakai, 날개 하늘나리 *L. davuricum* Ker-Gawl, 하늘나리 *L. concolor* Salisb. var. *partheneion* Bak., 솔나리 *L. cernum* Kom. 등 매우 많음.

백합병(百合病) [병증] : 부인 정신병의 일종. 말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며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오한과 발열 증상이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정신이 불안하며 간혹 혼자 중얼거리고 입 안이 쓰며 소변이 붉고 맥이 미삭(微數)한 등 내열증상을 수반함.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혹은 일부 열병 후기에 몸이 쇠약해진 경우에도 나타나며, 갱년기증후군에서도 이러한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백호(魄戶)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2)로서 신주(身柱) 양쪽 각 3촌에 위치.

백호병(白虎病) [병증] ⇒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

백호역절(白虎歷節) [병증] ⇒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 [병증] 동 백호병(白虎病), 백호풍(白虎風), 역절(歷節), 역절풍(歷節風), 백호역절(白虎歷節), 통풍(痛風) : 재활 단기(短氣)·자한(自汗)하면서 전신의 관절에 참을 수 없는 동통이 발생하며 굴신할 수 없는 병증.

백호요두법(白虎搖頭法) [침구] 동 요두법(搖頭法) : 침구 행침(行鍼)시에 지부(地部)까지 자침하여 지침(持針)하고 퇴침(退枕)하면서 동요시키는 행기법(行氣法).

백호풍(白虎風) [병증] ⇒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

백화사(白花蛇) [약물] 동 기사(蘄蛇), 은환사

(銀環蛇) : 본초 안경뱀과(眼鏡蛇科 : Elapidae)에 속한 척색동물(脊索動物)인 안경사과(眼鏡蛇科) 은환사(銀環蛇) *Bungarus multicinctus* Blyth.의 건조체로, 봄과 가을에 포착(捕捉)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세정(洗淨)한 다음 죽편(竹片)으로 복부를 벌려 원반상(圓盤狀)으로 만들어 쇄건(曬乾)하여 사용.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 [약물] : 본초 꼭두서니과(茜草科 : Rubiaceae)에 속한 일년생초본인 백운풀 Oldenlandia diffusa (Willd.) Roxb. (=*Hedyotis diffusa* Willd.)의 전초(全草)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백환수(白環兪) [경혈] 동 옥환수(玉環兪)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0)로서 요수(腰兪)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백회(百會) [경혈] 동 이환궁(泥丸宮)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0)로서 삼재혈(三才穴), 중풍칠처혈(中風七處穴)에 해당하고 귀 끝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선과 머리를 지나는 독맥의 정중선이 교차되는 곳에 위치.

백회저(百會疽) [병증] 동 옥정저(玉頂疽) : 안이 백회혈(百會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백후(白喉) [병증] 동 백후증(白喉證) : 안이 인후 사이에 백점(白點), 백조(白條), 백괴(白塊)가 있는 것.

백후증(白喉證) [병증] ⇒ 백후(白喉)

번(煩) [증상] ⇒ 번민(煩悶)

번갈(煩渴) [병증] : 내과 가슴이 답답하여 입안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병증.

번만(煩滿) [증상] 동 흉격번만(胸膈煩滿) : 내과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한 병증.

번민(煩悶) [증상] 동 번(煩) : 내과 마음속으로 부대끼며 안타깝게 괴로워하는 것.

번열(煩熱) [병증] : 내과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

번위(翻胃) [병증] ⇒ 반위(反胃)

번조(煩躁) [증상] 동 번조(煩燥), 심번조요(心煩躁擾), 조번(躁煩) : 내과 가슴 속이 달아오르면서 답답하고 편안치 않아서 팔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

번조(煩燥) [증상] ⇒ 번조(煩躁)

번침(燔鍼) [침구] 동 쉬침(焠鍼), 화침(火鍼), 번침자법(燔鍼刺法), 화침법(火鍼法), 화침요법(火鍼療法) : 침구 불에 달군 침으로 지지듯이 침을 놓는 것.

번침겁자(燔鍼劫刺) [침구] ⇒ 쉬자(焠刺)

번침쉬자(燔鍼焠刺) [침구] ⇒ 쉬자(焠刺)

번침자법(燔鍼刺法) [침구] ⇒ 번침(燔鍼)

벌간(伐肝) [치법] ⇒ 억간(抑肝)

벌심(伐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 나오는 단어. '頷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의 구절에 나오는데 비박탐나(鄙薄貪懶)의 심욕이 사심으로 나타나 표정과 행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범방(犯房) [병리] ⇒ 방로(房勞)

범오(泛惡) [증상] ⇒ 오심(惡心)

법제(法製) [포제] ⇒ 포제(炮製)

벽(癖) [병증] 동 벽괴(癖塊) : 내과 복(腹) 내에 결괴(結塊)가 형성되어, 혹창 혹통(或脹或痛)하는 적취의 일종.

벽(擘) [포제] : 본초 약물 가공방법의 하나. 약물의 씨앗을 발라내고 두드려 잘 달여지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대추, 오매 등을 두들겨 씨를 빼내는 가공 방법이다.

벽곡법(辟穀法) [치법] ⇒ 절식요법(節食療法)

벽괴(癖塊) [병증] ⇒ 벽(癖)

벽기(癖嗜) [병증] : 부인 오랫동안 형성된 좋지 않은 음식 기호. 예를 들어 장기간 음주한 사람은 주벽(酒癖)에 걸리기 쉽다.

벽사(辟邪) [병리] ⇒ 사기(邪氣)

벽음(癖飮) [병증] : 내과 양옆구리에 수벽(水癖-물을 많이 먹어서 생긴 적병)이 있어서 움직이면 물소리가 나는 병증.

벽질(癖疾) [병증] : 소아 양 옆구리에 덩어리가

ㅂ

생긴 것. 소아의 비위(脾胃)가 약하고 장부가 연약한데다가 조리를 잘 못하고 음식 섭취가 고르지 않으면 비위가 손상되어 수곡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데, 수곡이 소화되지 않으면 쉽게 정체하여 습담(濕痰)이 생겨서 사기가 흉중(胸中)에 쌓여 기혈(氣血)의 흐름이 시원하지 못하고, 장부의 기능이 쇠퇴하여 기체혈삽(氣滯血澁)하게 된다. 체내에서 배출된 탁액(濁液)이 외일(外溢)한데다가 한기(寒氣)를 감수하면 응취(凝聚)하여 흩어지지 못하고 맺혀 덩어리를 이루어서 협하(脇下)에 벽질이 생긴다. 증상은 조열(潮熱), 두출허한(頭出虛汗), 복부팽대, 청근이 튀어나오는 것 등이며, 심하면 모발이 마르고 거칠어지며 몸이 여위게 되고 구갈희음(口渴喜飮), 면색청황(面色靑黃)이 수반된다.

벽해독(擘蟹毒) [병증] ⇒ 호구저(虎口疽)

변건(便乾) [증상] 동 대변건결(大便乾結), 대변건조비결(大便乾燥秘結), 대변결(大便結), 대변조결(大便燥結) : 내과 대변이 건조한 상태.

변난(便難) [병증] ⇒ 변비(便秘)

변농혈(便膿血) [병증] : 내과 대변 중 농혈이 섞여 있는 상태.

변당(便溏) [병증] ⇒ 설사(泄瀉)

변독(便毒) [병증] 동 변옹(便癰), 혈산(血疝) : 안이 과도한 성생활이나, 성적 욕구가 있으나 성교를 하지 못하여 대퇴내측 상부 습문봉중(褶紋縫中) 고동맥(股動脈)의 음렴혈(陰廉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옹저.

변락맥(辨絡脈) [진찰] : 진단 망진(望診) 내용의 하나로 낙맥을 변별하는 행위. 낙맥은 피부의 작은 혈관총으로서 장대어제락맥(掌大魚際絡脈)·이후락맥(耳後絡脈) 등을 포함한다. 낙맥의 색과 광택, 충실도를 진찰하여 피부온도를 결합하면 장부기혈(臟腑氣血)의 병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변병(辨病) [병리] : 병리 한의 진단의 일부로서 한의 병명을 도출하는 것. 변증에 상대되는 말.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감각과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구별된다는 점에서 변증과 같지만, 변증은 질병의 경과에 따라 변증명이 달라지는 동태적 감별인데 반해, 변병은 질병에 대한 정태적 감별로서 질병의 발생, 경과, 종료 시점까지 일정한 병명을 가진다. 서양의학에서의 변병은 그 자체가 진단이며 형태학적 변화를 중시하는 병리해부조직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한의 변병과 구별된다.

변비(便秘) [병증] 동 대변불통(大便不通), 대변비결(大便秘結), 변폐(便閉), 대변난(大便難), 변난(便難), 대변불래(大便不來), 불경의(不更衣), 비(閟), 후불리(後不利) : 내과 일반적으로 대변의 배출이 힘들거나 3~4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킴.

변옹(便癰) [병증] ⇒ 변독(便毒)

변위(變位) [추나] 동 착봉(錯逢), 착락(錯落), 아탈구(亞脫臼), 착위(錯位) : 추나 관절의 위치가 정상범위에서 이탈해 있는 현상으로 일부 근육에서 나타난다. 1차 변위(주변위)와 2차 변위(종변위)로 분류하기도 한다.

변의(便意) [증상] : 내과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

변증(辨證) [병리] : 병리 진단 증징(症徵)[증상(症狀)과 징후(徵候)]에 근거하여 증명(證名)을 변별, 확정하는 한의 진단 과정. 사진팔강(四診八綱)·장부(臟腑)·병인병기(病因病機) 등의 기초이론을 통하여 증상과 체증(體證)자료를 수집하고 종합분석해서 질병의 원인, 성질, 부위, 정사(正邪)관계를 분별하여 질병의 증후를 변별하고 분석하는 행위로, 변증론치의 기본단계다. → 변증론치(辨證論治)

변증(變證) [병리] : 병리 치료 상의 착오나 환자의 정기부족(正氣不足), 조리실의(調理失宜) 등으로 인해 질병이 실증에서 허증으로 전변되거나 혹은 간단한 정황이 복잡한 정황으로 바뀌는 것.

변증(變蒸) [생리] : 소아 영아의 생장 과정에서 열이 나고, 맥이 어지럽고,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몸에 큰 병은 없는 생리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

변증구인(辨證求因) [진찰] : 진단 각종 병증의 임상증상을 토대로 질병의 증상과 신체적인 증후를 분석함으로써 병인병기(病因病機)를 찾아내는 것.

변증론치(辨證論治) [기타] 동 변증시치(辨證施治) : 진단 임상에서 이(理)·법(法)·방(方)·약(藥)을 운용하는 과정으로 한의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즉, 사진팔강(四診八綱)·장부(臟腑)·병인병기(病因病機) 등의 기초이론을 기초로 증상과 체증(體證)자료를 수집, 종합분석하여 질병의 원인, 성질, 부위, 정사(正邪)관계를 분별하는데, 질병의 증후를 변별하고 분석하는 행위를 '변증(辨證)'이라 하며, 변증을 토대로 치료방법을 설정하는 행위를 '논치(論治)'라 함.

변증시치(辨證施治) [기타] ⇒ 변증론치(辨證論治)

변증열(變蒸熱) [생리] : 소아 소아 변증(變蒸) 과정에서 생기는 열.

변태잉남녀법(辨胎孕男女法) [진찰] : 부인 임신부의 맥과 복부 형태 및 양쪽 유방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변별하는 방법.

변폐(便閉) [병증] ⇒ 변비(便秘)

변혈(便血) [병증] 동 하혈(下血), 변혈증(便血證) : 내과 혈(血)이 항문에서 하설(下泄)되는 병증. 분변(糞便)에 대혈(帶血)이 되거나, 혹은 단순히 하혈하는 증후를 포괄한다.

변혈증(便血證) [병증] ⇒ 변혈(便血)

별갑(鱉甲) [약물] 동 단어(團魚) : 본초 자라과(鱉科 : Trionychidae)에 속한 동물인 자라 *Trionyx sinensis* Wiegmann(=*Amyda sinensis* Wiegmann)의 배갑(背甲)을 채취하여 잔육(殘肉)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것. 연중 포획하지만 가을과 겨울철의 것이 좋다.

병(病) [병리] 동 한의질병(韓醫疾病) : 병리 인체에 발생한 이상 상태. 전일관(全一觀)을 통해 형태와 기능, 병인과 인체를 일원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에서 서양의학의 질병관과 차이가 있으며, 이상 상태, 즉 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 및 그 정도에 대한 평가, 해석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병근(病根) [병리] : 병리 질병을 최초로 발생시키게 되었던 병인 혹은 병기(病機).

병기(病機) [병리] 동 병리기전 : 병리 질병의 발생, 발전 및 변화의 기전. 병인(病因), 병위(病位), 병성(病性), 병세(病勢)의 4가지 요소에 따라 질병을 분석한다.

병기(病氣) [병리] : 병리 삼음삼양경의 기로 질병을 발생시키는 사기를 통칭.

병기십구조(病機十九條) [병리] ⇒ 십구병기(十九病機)

병기전변(病機傳變) [병리] ⇒ 전변(傳變)

병리(病理) [병리] : 병리 한의학적 해석의 체계(전일관, 항동관), 방법론(기론, 음양론, 오행론), 기초이론(장상론, 경락론, 기미론)에 따라 질병의 원인과 경과, 전귀(轉歸) 등을 분석, 종합하는 질병 이론. 구체적으로 병인과 발병, 병기, 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리기전(病理機轉) [병리] ⇒ 병기(病機)

병맥(病脈) [진찰] : 진단 질병을 반영하는 맥상(脈象).

병명(病名) [병리] 동 한의병명(韓醫病名) : 병리 질병 또는 질환의 이름. 병과 증이 모두 병위(病位), 병인(病因), 병성(病性), 병상(病狀)을 명명(命名)의 주된 근거로 삼기 때문에 혼동되고 있으나 병명은 병의 시종일관된 주요 증상, 체징으로 명명하며, 증명은 전신성 한열허실 등의 병리변화를 위주로 명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서양의학의 병명과는 그 도출방식과 분류체계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

ㅂ

병변(病變) [병리] : 병리 인체 구조의 병리적 변화. 병이 인체 전반의 이상상태를 통칭한다면, 병변은 병의 본질적인 병리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병변부위(病變部位) [병리] ⇒ 병위(病位)
병병(倂病) [병리] : 병리 상한병에서 일경(一經)의 증후가 미유(未癒)한데, 또 다른 일경의 증후가 출현한 상태.
병사(病邪) [병리] ⇒ 사기(邪氣)
병사전변(病邪傳變) [병리] ⇒ 전변(傳變)
병색(病色) [진찰] : 진단 질병이 체표의 색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 진단은 얼굴색을 위주로 하는데, 어떤 색이 나타나든 색이 밝으면서 윤기가 있으면 이는 병세가 경미하거나 예후가 양호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우의 색을 선색(善色)이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색이 튀거나 칙칙하고 윤기가 없으면 병세가 심하고 예후 역시 불량함을 반영하는데 이를 악색(惡色), 요색(夭色)이라 한다.
병성(病性) [병리] : 병리 병변의 성질. 사정상쟁(邪正相爭)의 역량에 따른 허실과 음양성쇠의 정도를 반영하는 한열, 이 두 가지로 병성을 분석한다.
병세(病勢) [병리] : 병리 병변의 진전과 변화의 추세. 병변의 진전과 변화에 있어 이전 단계에서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전변(傳變)이라 하고, 앞으로의 전변과 귀결(歸結)을 전귀(轉歸)라고 한다. 질병의 전변은 표에서 이로, 부에서 장으로, 상에서 하로, 기에서 혈로 전변하는 일반적 규율과, 오장 사이에서 상승상모(相乘相侮)로 전변하는 규율 두 가지가 있다.
병안(病案) [기타] ⇒ 의안(醫案)
병월(幷月) [생리] : 부인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월경이 두 달에 한번 정도 내조하는 것. 임신과 출산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병위(病位) [병리] 동 병변부위(病變部位) : 병리 ①병변의 발생 부위 혹은 주요 병변이 발현되는 부위. ②병변 부위를 인체의 체표와 내부, 상중하, 장부와 경락 등 구조상 부위와 기능상 부위를 함께 고려하여 발병경로 및 예후를 유추하기 위한 병리 개념.
병인(病因) [병리] 동 발병인자(發病因子) : 병리 인체생리의 동태평형상태를 파괴하여 질병이나 병증을 일으키는 원인 또는 조건. 질병발생의 근거가 되는 '정기(正氣)의 허'를 내인이라 하고, 질병발생의 조건이 되는 '사기실(邪氣實)'을 외인이라 하는데, 외인에는 원발성 병인으로 외감병인[육음(六淫), 역려(疫癘)], 내상병인[정지상(情志傷), 노권상(勞倦傷), 음식상(飮食傷)], 속발성 병인으로 담음, 어혈, 기타 병인으로 외상(外傷), 제충(諸蟲), 약사(藥邪), 유전성 병인이 있다.
병인변증(病因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즉 질병의 여러 증상에 따른 병인(病因)과 병리(病理) 변화를 연구하여 치법과 처방의 근거로 삼는 것.
병정(病情) [병리] : 병리 병변의 가볍고 심한 정황.
병정(病程) [병리] : 병리 질병에 이환된 기간.
병증(病證) [병리] : 병리 하나의 병리 기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체 증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단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병천판(病穿板) [병증] ⇒ 용천저(湧泉疽)
병태(病態) [병리] : 병리 질병의 임상 증상 및 병인, 발병, 병기의 총칭.
병풍(秉風)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2)로서 어깨뼈가시(견갑극; spine) 위모서리 가운데, 거골(巨骨)과 곡원(曲垣)의 중간에 위치.
병하(病瘕) [병증] : 안이 손바닥에 발생하는 옹저로 종양의 형태가 새우 모양과 같은 것.
보골지(補骨脂) [약물] 동 파고지(破故紙)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의 덩굴성 초본인 보골지 *Psoralea corylifolia* L.의

성숙한 과실. 가을에 성숙한 과실을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보기법(補氣法) [치법] 동 익기(益氣), 양기(養氣), 고기(固氣), 보기약(補氣藥) : 방제 보법의 하나. 보기약으로 기허증을 치료하는 방법. 기허증이 생기는 것은 주로 폐와 비 두 장기의 장애와 관련되며, 기허에서는 온 몸이 몹시 노곤하면서 힘이 없고 목소리가 약하며 말하기 싫어하고 숨결이 약하며 얼굴이 창백하고 저절로 땀이 나며 바람을 싫어하고 식욕이 부진하며 대변이 묽고 맥이 허약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보기법으로 인삼·당삼·황기·백출·산약·여위·감초·오미자 같은 약이나 사군자탕, 보중익기탕을 쓰는 것을 말한다.

보기약(補氣藥) [약물] ⇒ 보기법(補氣法)

보두(寶豆) [약물] 동 여송과(呂宋果) : 본초 마전과(馬錢科 : Loganiaceae)에 속한 여송두나무(呂宋豆) *Strychnos ignatii* Bergius의 종자.

보랑(步廊)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2)로서 중정(中庭) 양쪽 2촌에 위치.

보류관장(保留灌腸) [치법] : 내과 항문으로 약물을 일정시간 보류시킨 후 통변을 유도하는 관장법.

보명지주(保命之主) [사상] : 사상 성정(性情)의 차이로 인한 장부의 대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호흡, 출납의 태과, 부족으로 나타나는 각 체질의 병적인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주요 구심점을 일컫는 말. 태양인은 호산지기(呼散之氣)의 태과와 흡취지기(吸聚之氣)의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흡취지기가 보명지주가 되고, 태음인은 흡취지기의 태과와 호산지기의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호산지기가 보명지주가 되며, 소양인은 납적지기(納積之氣)의 태과와 출방지기(出放之氣)의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음청지기(陰淸之氣)가 보명지주가 되고, 소음인은 출방지기의 태과와 납적지기의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양난지기(陽煖之氣)가 보명지주가 된다. 그러므로 보명지주의 부족이 병적 상태라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는 무병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보법(補法) [치법] 동 보허(補虛), 보허손(補虛損) : 방제 팔법(八法)의 하나. 인체의 기혈음양이 부족한 것을 보양하여 각종 허증을 치료하는 방법. 허증에는 기허, 혈허, 음허, 양허 등이 있으며, 보법 역시 보기, 보혈, 보음, 보양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병세의 완급과 허약의 정도에 따라 준보(峻補)와 완보(緩補)로 나눈다.

보비(補脾) [치법] ⇒ 건비(健脾)

보사(補瀉) [치법] 동 보사기법(補瀉技法), 보사법(補瀉法) : 침구 보법(補法)과 사법(瀉法)의 치료기법을 함께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정기(正氣)가 허한 허증에는 보하고, 사기가 남아도는 실증에는 사법을 행한다.

보사기법(補瀉技法) [치법] ⇒ 보사(補瀉)

보사배오(補瀉配伍) [기타] : 방제 보약과 사약을 동시에 배합하여 보사겸치하는 약물의 배합방법. 예를 들면, 인삼패독산과 쌍화탕을 합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소시호탕에서 시호, 황금과 인삼, 감초를 배합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보사법(補瀉法) [치법] ⇒ 보사(補瀉)

보상(報償) [추나] : 추나 변위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2차적으로 변위를 나타내는 현상.

보신(補腎) [치법] 동 고신(固腎), 자신(滋腎) : 보법의 하나로, 신(腎)을 보익하는 방법. 보신음(補腎陰)과 보신양(補腎陽)으로 나눈다.

보신양(補腎陽) [치법] : ⇒ 보양(補陽)

보신음(補腎陰) [치법] : ⇒ 보음(補陰)

보양(補養) [치법] ⇒ 보양법(補養法)

보양(補陽) [치법] ⇒ 보양법(補陽法)

보양법(補養法) [치법] 동 보양(補養), 조양(助陽) : 방제 보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보양이라고 하면 음과 혈을 보하는 것을

말함.
보양법(補陽法) [치법] 동 장양(壯陽), 장원양(壯元陽), 보양(補陽), 보양약(補陽藥) : 방제 보법의 하나. 양허증을 치료하는 방법. 신(腎)은 양기(陽氣)의 근본이므로 보양(補陽)은 대부분 신양(腎陽)을 보하는 것을 가리킴.
보양약(補陽藥) [약물] ⇒ 보양(補陽)
보음(補陰) [치법] ⇒ 보음법(補陰法)
보음법(補陰法) [치법] 동 보음(補陰), 육음(育陰), 자음(滋陰), 양음(養陰), 익음(益陰), 강음(强陰), 견음(堅陰), 보음약(補陰藥), 양음약(養陰藥) : 방제 음이 허한 것을 보하는 방법. 예를 들어 심음이 허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건망증이 있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꿈이 많은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심음을 보하는 보심단을 쓰고, 간음이 허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피부의 감각이 둔하며 손발이 떨리고 야맹증이 있을 때에는 간음을 보하는 기국지황환을 쓰며, 폐음이 허하여 기침하다가 사례가 들리고 걸쭉하면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고 오후에 미열이 나며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 안이 마르며 목이 쉬는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폐음을 보하는 백합고금탕을 쓰고, 신음이 허하여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서 힘이 없고 유정, 현기증, 이명, 건망증, 불면증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신음을 보하는 좌귀음이나 육미지황탕을 쓰는 것을 말한다.
보음약(補陰藥) [약물] ⇒ 보음(補陰)
보익(補益) [치법] ⇒ 보익법(補益法)
보익법(補益法) [치법] 동 보익(補益) : 방제 보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익이라고 하면 기와 양을 보하는 것을 말함.
보허(補虛) [치법] ⇒ 보법(補法)
보허손(補虛損) [치법] ⇒ 보법(補法)
보혈(補血) [치법] ⇒ 보혈법(補血法)
보혈법(補血法) [치법] 동 보혈(補血), 양혈(養血), 생혈(生血), 익혈(益血), 보혈약(補血藥) : 방제 보법의 하나. 혈이 허한 것을 보하는 방법. 예를 들어 혈이 허하여 얼굴색이 누르스름하고 입술과 손발톱이 창백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결이 밭고 여자는 월경이 고르지 못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 보혈법으로 사물탕이나 당귀보혈탕을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보혈약(補血藥) [약물] ⇒ 보혈법(補血法)
복가(伏瘕) [병증] 동 복하(伏瘕) : 부인 아랫배에 생긴 징가(癥瘕)의 하나. 아랫배 속에 덩어리가 생겨 이동하기도 하고 만져졌다 안 만져졌다 하기도 하는 것으로, 소장의 열이 대장으로 가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월경이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복결(腹結)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4)로서 음교(陰交) 양쪽 4촌에서 아래로 3푼 되는 곳에 위치.
복기(服氣) [기공] : 재활 기공 용어. 도가의 수련 방법. 흡기(吸氣)와 인기(咽氣)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연공(練功) 방법.
복기(伏氣) [병리] ⇒ 복사(伏邪)
복기(復氣) [운기] : 원전 운기의 성쇠변화 중에 일어나는 보복(報復)하는 기운을 말함. 한 해의 상반기에 모종의 승기(勝氣-과성한 기운)가 발생하면 하반기에 이것을 극제(剋制)하는 기운이 치성해지는데, 이를 복기라고 한다.
복기온병(伏氣溫病) [병리] ⇒ 복사(伏邪)
복동(腹動) [증상] : 내과 복부가 축축연동(築築然動)한 증상.
복랭(腹冷) [증상] : 내과 뱃속에 한기가 머물러 뱃속이 싸늘한 증상. 복중한(腹中寒), 두중한(肚中寒).
복량(伏梁) [병증] ⇒ 심적(心積)
복령(茯苓) [약물] : 본초 잔나비걸상과(多孔菌科 : Polyporaceae)에 속한 진균인 복령 *Poria cocos* (Schw.) Wolf의 바깥층을 거의 제거한

균핵(菌核). 대개 7~8월에 채취. 잡질을 제거하고, 발한(發汗)하여 내부의 수분을 대부분 제거한 다음 음건한 것을 '복령개(茯苓個)'라 하고, 신선한 복령을 거피하고 절제하여 음건하여 괴상(塊狀) 혹 편상(片狀)으로 만든 것을 각각 '복령괴(茯苓塊)' '복령편(茯苓片)'이라 하며, 벗겨낸 피부(皮部)는 '복령피(茯苓皮)'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층(皮層) 아래 담홍색 부분을 '적복령'이라 하고, 적복령을 절편(切片)한 다음 백색 부분은 '백복령'이라 하며, 가운데 송근(松根)이 있는 것을 '복신(茯神)'이라 한다. 야생 복령은 7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송림(松林)에서 채취하고, 인공 재배한 것은 종균을 접종 2~3년 후 7~8월에 채취한다.

복룡간(伏龍肝) [약물] : 본초 가마솥 아래에 오랫동안 불 땐 곳의 황토로서 검게 탄 부분과 잡질을 없앤 후 사용.

복만(腹滿) [증상] : 내과 복부가 창만한 증상.

복만경통거안(腹滿硬痛拒按) [증상] : 병리 복부가 가득하고 단단하여 통증이 있으면서 거안(拒按)이 있는 증상.

복맥(伏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일종. 맥이 잠복하여 있어 뼈에 닿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만 느낄 수 있고, 심할 경우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맥상(脈象)을 가리킴.

복명(腹鳴) [병증] ⇒ 장명(腸鳴)

복모혈(腹募穴) [경혈] ⇒ 모혈(募穴)

복방(複方) [기타] 동 중방(重方) : 방제 ① 두 가지 처방이나 여러 가지 처방을 결합하여 구성한 방제. ② 기본 처방 외에 별도로 다른 약물을 가한 것. ③ 처방 중에서 각 약물의 용량을 같게 하는 것. ④ 칠방(七方), 즉 대방(大方), 소방(小方), 완방(緩方), 급방(急方), 기방(奇方), 우방(偶方), 복방(複方)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

복분자(覆盆子) [약물] 동 결분자(缺盆子)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화동복분자(華東覆盆子) *Rubus chingii* Hu의 과실로, 초여름에 과실이 녹색에서 녹황색으로 변할 때 채취하여 과경(果梗)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2~4분 정도 익힌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복비(複鼻) [병증] : 안이 코의 모양이 이중으로 겹쳐져 나타나는 것.

복사(腹瀉) [병증] ⇒ 설사(泄瀉)

복사(伏邪) [병리] 동 복기(伏氣), 복기온병(伏氣溫病) : 병리 침입한 사기가 미약하여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정기허약 등의 이유로 나중에 온병이 되는 것. 신감(新感)에 반대되는 말이며, 온열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병유형 중 하나로 복기온병의 간칭이다.

복삼(僕參)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1)로서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에서 지면까지를 3촌의 골도법으로 하여 곤륜(崑崙)과 지면까지의 중점에 위치.

복서(伏暑) [병증] 동 복서증(伏暑證) : 병리 여름철에 서독사기(暑毒邪氣)가 침입한 상태에서 즉시 발병하지 않고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발병되기 시작하는 병증. 토사곽란(吐瀉霍亂), 설리복통(洩痢腹痛), 학질한열(瘧疾寒熱) 등이 나타남.

복서증(伏暑證) [병증] ⇒ 복서(伏暑)

복식기(復食期) [기타] : 재활 절식요법의 3번째 단계로 단식 후의 회복 기간을 말함. 보통 단식일수의 2배의 일수에 해당. 최소한 단식일수의 2배 일수 이상 점증식(漸增食)을 수행하고 단식일수의 6배의 기간은 섭생과 절제의 생활과 식염의 제한, 감미류, 지방, 자극성 식품 등에 유의하며, 그 병증에 따라서 균형있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

복신(茯神) [약물] 동 백복신(白茯神) : 본초 잔나비걸상과(多孔菌科 : Polyporaceae)에 속한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복령 *Poria cocos*

ㅂ

Wolf 의 균핵.

복애(腹哀)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6)로서 건리(建里) 양쪽 4촌, 대횡(大橫) 위 3촌에 위치.

복열(伏熱) [병리] : 병리 체내에 열사가 내복(內伏)해 있거나 혹은 기타의 사기가 울하여 열로 화한 상태.

복옹(腹癰) [병증] ⇒ 복피옹(腹皮癰)

복와(伏臥) [기타] : 재활 도인법의 기본 체위 중 하나. 배를 깔고 양다리는 내려서 펴며 두 팔을 위로 굽혀 두 손을 얼굴에서 3촌 되는 거리의 양쪽에 놓고 얼굴을 편한 쪽으로 돌려 베개를 베고 눕는 자세.

복음(伏飮) [병증] : 내과 가슴에 물이 머물러 있어서 그득하고 토하며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열이 나고 오한이 나며 허리와 등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며, 혹 몸이 떨리는 증상. 음병(飮病) 중 하나.

복중뢰명(腹中雷鳴) [병증] ⇒ 장명(腸鳴)

복중태사(腹中胎死) [병증] ⇒ 태사복중(胎死腹中)

복진(腹診) [진찰] : 진단 복부 절진(切診)의 일종으로 복벽의 긴장도, 경결, 압통, 복강 내 상태, 동기 등을 살펴 환자의 병증을 판단하여 인식하는 진단방법.

복창(腹脹) [증상] : 내과 배가 더부룩하면서 불러 오르는 증상.

복충맥(伏衝脈) [경혈] ⇒ 태충(太衝)

복토(伏兎) [경혈] 동 외구(外丘)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2)로서 무릎뼈(슬개골; patella) 위쪽 끝과 비관(髀關)과의 중간으로 넙다리(대퇴; thigh) 가쪽(외측), 무릎뼈(슬개골; patella) 위 6촌에 위치.

복토저(伏兎疽) [병증] : 안이 위경(胃經)의 복토혈에서 발생하는 옹저.

복통(腹痛) [증상] : 내과 완복(脘腹 ; 명치 끝 및 위장 부위의 배), 제복(臍腹 ; 배꼽 주위의 배) 소복(少腹 ; 배꼽 아래부위의 배)부 등이 아픈 증상.

복통거안(腹痛拒按) [증상] : 병리 복통과 함께 거안(拒按)하는 증상.

복통곡(腹通谷)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0)로서 상완(上脘) 양쪽 5푼에 위치.

복통희안(腹痛喜按) [징후] ⇒ 희안(喜按)

복피급(腹皮急) [증상] : 내과 뱃가죽이 땅기는 증상.

복피옹(腹皮癰) [병증] 동 복옹(腹癰) : 안이 복부의 피리(皮裏) 막외(膜外)에서 발생하는 옹저.

복피통(腹皮痛) [증상] : 내과 뱃가죽이 아픈 증상.

복학(腹瘧) [병증] : 내과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며, 왼쪽 갈비뼈 아래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고 학질처럼 오한과 발열이 왔다갔다하고 대변색이 누르스름하며 몸이 점차 쇠약해지는 병증. 학모(瘧母)중 하나.

본(本) [경락] : ⇒ 표본(標本)

본신(本神)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3)로서 신정(神庭) 양쪽 3촌에 위치.

본초(本草) [약물] [기타] : ① 한약을 가리킴. 한약에는 식물, 동물, 광물과 양조된 음료식품 및 소수의 화학제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식물에 관한 종류가 가장 많으므로 본초라 하였다. ② 약물을 기재한 책(그림을 포괄함)을 말함.

봉격법(棒擊法) [추나] : 재활 상지봉(桑枝棒) 길이 1/2이상의 부위가 체표에 닿도록 가격하는 수기법.

봉독(蜂毒) [약물] : 침구 꿀벌과에 속하는 곤충인 토봉(土蜂), 양봉(養蜂)의 꼬리 부분에 있는 석자선(螫刺腺) 내의 유독액체.

봉미저(鳳眉疽) [병증] : 안이 안륜근(眼輪筋-미릉골)위에서 발생하는 옹저.

봉밀(蜂蜜) [약물] : 본초 꿀벌과(蜜蜂科 :

Apidae)에 속한 곤충인 양꿀벌 *Apis mellifera* L. 또는 동양꿀벌 *A. indica* Radoszkowski이 벌집에 모은 감미물(甘味物)로, 봄부터 가을까지 사이에 채취하여 여과한 후 사용.

봉방(蜂房) [약물] ⇒ 노봉방(露蜂房)

봉선자(鳳仙子) [약물] ⇒ 급성자(急性子)

봉소(蜂巢) [약물] ⇒ 노봉방(露蜂房)

봉아출(蓬莪朮) [약물] ⇒ 아출(我朮)

봉약침(蜂藥鍼) [약침] 동 봉침(蜂鍼) : 침구 봉독을 정제한 것을 약침액으로 쓰는 약침요법.

봉와력(蜂窩癧) [병증] : 안이 좌이근(左耳根)에 발생하는 나력(瘰癧).

봉와발(蜂窩發) [병증] : 안이 등이나 견갑부에서 발생하는 옹저. 초기에 거북이 형상의 종양이 점차 창공(瘡孔)이 봉방(蜂房-벌집)과 같아진다.

봉와저(蜂窩疽) [병증] : 안이 창형(瘡形)이 봉방(蜂房)과 흡사하며 흉측 유방상부에서 발생하는 옹저.

봉침(鋒鍼) [기구] ⇒ 삼릉침(三稜鍼)

봉침(蜂鍼) [약침] ⇒ 봉약침(蜂藥鍼)

부(浮) [징후] ⇒ 부맥(浮脈)

부(腑) [해부] [생리] 동 부장(腑腸) : 생리 육부(六腑). 고대에는 '부(府)'와 통용되었는데, '모으다', '창고'라는 뜻으로 쓰였음. 고인들은 체내의 일부 수곡을 전화하는 기관을 통틀어 육부라고 하여, 정기(精氣)를 저장하는 오장과 분별하였다.

부(膚) [해부] [생리] : 생리 ① 피부를 가리킴. ② 기부(肌膚)를 가리킴.

부격(仆擊) [병증] ⇒ 졸중(卒中)

부골저(附骨疽) [병증] : 안이 대퇴외측(족삼양경에 속함)에서 발생하는 옹저. 서양의학적으로는 10세 이하의 남자아이에게서 호발(好發)하는 화농성골수염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한열이 왕래하여 감기와 같으며, 계속하여 근골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나 무열무색(無熱無色)하다.

부궐(趺蹶) [병증] : 내과 발에 병이 생겨 잘 못 걷는 것.

부극(浮郄)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8)로서 위양(委陽) 위 1촌에 위치.

부돌(扶突)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8)로서 갑상연골 가쪽(외측; lateral) 3촌으로 목빗근(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뒤에 위치.

부득면(不得眠) [병증] ⇒ 실면(失眠)

부득언와(不得偃臥) [증상] ⇒ 부득와(不得臥)

부득와(不得臥) [증상] 동 부득언와(不得偃臥) : 정신 난면(難眠), 천면(淺眠), 단면(短眠), 빈각(頻覺)으로 숙면을 이루지 못하면서 식욕부진, 피로감, 안정(眼睛)피로, 정충, 경계, 주의력감퇴, 두통, 설건(舌乾), 변비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수면장애. → 불매(不寐), 부득면(不得眠), 불면(不眠)

부락(浮絡) [경락] : 경혈 천표(淺表) 부위에 위치한 낙맥(絡脈).

부류(復溜)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7)로서 경금혈(經金穴)에 해당하고 태계(太谿) 수직 위로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위 2촌 되는 오목한 곳에 위치.

부맥(浮脈) [징후] 동 부(浮), 맥부(脈浮)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의 위치가 얕고 떠올라 가볍게 잡히는 것으로, 병이 체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맥상.

부백(浮白)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0). 천충(天衝) 뒤 아래 1촌, 천충(天衝)과 완골(完骨)사이를 활모양으로 그은 선을 3 등분하여 위로부터 천충(天衝), 부백(浮白), 두규음(頭竅陰), 완골(完骨)의 네 혈을 취함.

부병구(附餠灸) [침구] ⇒ 격부구(隔附灸)

부분(附分)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1)로서 두 번째 등척추뼈 아래 양쪽 각 3촌에 위치.
부비맥(釜沸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이 매우 부삭(浮數)하여 마치 물이 솥에서 끓는 것처럼 나감만 있고 들어옴이 없으며, 뿌리가 잡히지 않는 맥상(脈象).
부사(府舍)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3)로서 중극(中極) 양쪽 4촌에서 아래로 3푼 되는 곳에 위치.
부석(浮石) [약물] ⇒ 해부석(海浮石)
부소맥(浮小麥) [약물]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인 밀 *Triticum aestivum* L.의 익지 않아 물에 뜨는 종자를 쇄건(曬乾)한 것.
부숙(腐熟) [생리] : 생리 음식물을 죽과 같은 상태로 소화시키는 위(胃)의 기능.
부약(敷藥) [약물] : 본초 외과에서 상용하는 외용약으로 붙이거나 바르는 약을 가리킴.
부약발포요법(敷藥發泡療法) [침구] ⇒ 천구(天灸)
부양(附陽) [경혈] ⇒ 부양(跗陽)
부양(跗陽) [경혈] 동 부양(付陽), 부양(附陽)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9)로서 양교맥(陽蹻脈)의 극혈(郄穴)에 해당하고 곤륜(崑崙) 위 3촌에 위치.
부양(付陽) [경혈] ⇒ 부양(跗陽)
부양론(扶陽論) [기타] 동 부양학설(扶陽學說) : 의사 양기(陽氣)를 북돋아야 한다는 이규준(李圭晙)의 학설.
부양맥(趺陽脈) [진찰] ⇒ 충양맥(衝陽脈)
부양학설(扶陽學說) [기타] ⇒ 부양론(扶養論)
부열(浮熱) [병리] : 병리 음한(陰寒)이 내부에 성(盛)하고 허양(虛陽)이 외부에 부출(浮出)하는 진한가열(眞寒假熱)을 말함.
부예(浮翳) [병증] : 안이 동인(瞳人)을 따라 얼음 색과 같은 백색이 영출(映出)되나 밝은 곳에서 보면 예장(翳障)이 적어 보이는 특징을 지닌 예(翳).
부육(腐肉) [병증] ⇒ 악육(惡肉)
부음저(附陰疽) [병증] : 안이 내과골상 3촌인 삼음교혈에서 발생하는 옹저.
부인음정(婦人陰挺) [병증] ⇒ 음정(陰挺)
부인청후(婦人靑候) [병증] ⇒ 청대하(靑帶下)
부인하적백옥(婦人下赤白沃) [병증] ⇒ 적백대하(赤白帶下)
부인혈격(婦人血膈) [병증] ⇒ 혈격(血膈)
부자(附子) [약물]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오두(烏頭) *Aconitum carmichaeli* Debx.의 자근(子根)을 가공한 것. 6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모근(母根)과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가공하며 방법에 따라 염부자(鹽附子), 흑순편(黑順片), 백부편(白附片)으로 나눔.
부자(浮刺) [침구] 동 부자법(浮刺法) : 침구 십이자(十二刺)의 하나. 환부의 겉을 침으로 비스듬히 얕게 찌르는 자법으로 한사(寒邪)에 의하여 근육이 경련하면서 땅기는 병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부자구(附子灸) [침구] 동 부자구법(附子灸法) : 침구 부자(附子)로 만든 병(餠)을 혈(穴)자리 위에 놓고 그 위에 뜸쑥을 올려 뜸을 놓는 뜸 요법.
부자구법(附子灸法) [침구] ⇒ 부자구(附子灸)
부자법(浮刺法) [침구] ⇒ 부자(浮刺)
부자옹(附子癰) [병증] ⇒ 신낭옹(腎囊癰)
부장(腐腸) [약물] ⇒ 황금(黃芩)
부장(腑腸) [해부] [생리] ⇒ 부(腑)
부저(咬咀) [포제] ⇒ 절편(切片)
부정(扶正) [치법] 동 부정법(扶正法) : 방제 정기(正氣)를 북돋는 것으로, 정기를 강하게 함으로써 병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함.
부정법(扶正法) [치법] ⇒ 부정(扶正)
부종(浮腫) [증상] : 내과 수종(水腫)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로 전신이나 국소 부위에

수기(水氣)가 울체된 병증, 피하조직 간질(間質)에 수분이 과량으로 축적되는 수종.
부중침(浮中沈) [진찰] : 진단 절맥(切脈)하는 방법. 맥을 볼 때 경(輕)·중(中)·중(重)의 세 가지 힘으로 맥을 가늠하는 것.
부증(副證) [병리] ⇒ 겸증(兼證)
부증(腑證) [병증] : 병리 육부(六腑)에 생긴 병증.
부창(膚脹) [병증] : 내과 ① 부종의 하나로 배가 몹시 불러 오르며 몸이 굳고 손가락으로 눌러 보면 오목하게 자리가 나는 병증. ② 창만의 하나로 처음에는 배가 불러 오르나 단단하지는 않다가 오래되면 배가 북처럼 팽팽하게 불러 오르면서 단단해 지는 병증.
부태(腐苔) [징후] : 진단 혀 표면의 태상물이 콩이 썩어 찌꺼기가 쌓인 것과 같고 과립이 크며, 닦으면 쉽게 벗겨지는 경우. 내부에 탁사(濁邪)가 몰려 있음을 나타낸다.
부평(浮萍) [약물] 동 자배부평(紫背浮萍) : 본초 개구리밥과(浮萍科 : Lemnaceae)에 속한 다년생 표부식물(漂浮植物)인 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 Schleider 또는 좀개구리밥 *Lemna paucicostata* Hegelm의 전초.
부하검사(負荷檢査) [진찰] : 진단 각종 자극을 인체에 부가하여 내재된 병적 상태를 경시적(經時的)으로 탐색·평가하기 위한 진단행위.
부하조정술(負荷調整術) [진찰] 동 생기능조절요법(生機能調節療法) : 진단 각종 생기능 검사를 통해 인체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한약이나 침 등과 같은 적절한 자극이나 생체신호 자체를 인체에 부가하여 인체 생리적인 기능을 조정·관리하는 의료행위.
부항(附缸) [침구] 동 발관(拔罐), 부항법(附缸法), 부항요법(附缸療法), 부항치료(附缸治療), 각법(角法), 발관법(拔罐法), 발화관(拔火罐), 흡각요법(吸角療法), 흡통요법(吸筒療法) : 침구 열 또는 음압(陰壓)장치에 의하여 부항단지 안에 음압을 조성하여 피부에 붙임으로써 피를 뽑거나 울혈(鬱血)을 일으키며 물리적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방법.
부항법(附缸法) [침구] ⇒ 부항(附缸)
부항요법(附缸療法) [침구] ⇒ 부항(附缸)
부항치료(附缸治療) [침구] ⇒ 부항(附缸)
부허(浮虛) [병증] ⇒ 기종(氣腫)
부회(腑會) [경혈] ⇒ 중완(中脘)
북선피(北鮮皮) [약물] ⇒ 백선피(白鮮皮)
분기(分氣) [기타] : 재활 인체와 외계의 기체 교환을 가리킴.
분돈(奔豚) [병증] 동 분돈(賁豚), 분돈기(奔豚氣) : 내과 기가 소복부로부터 치솟아 흉완부와 인후를 치받으면서 극렬한 통증이 발생하는 병증.
분돈(賁豚) [병증] ⇒ 분돈(奔豚)
분돈기(奔豚氣) [병증] ⇒ 분돈(奔豚)
분돈산(奔豚疝) [병증] : 내과 아랫배와 고환이 땅기듯 아프면서 기운이 심복(心腹)까지 치받는 병증.
분류(粉瘤) [병증] : 안이 이(耳), 항(項) 주위, 간혹 하체에서 발생하는 유증(瘤症).
분무맛사지(噴霧맛사지) [치법] 동 분무욕(噴霧浴) : 재활 물의 유동성 즉,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치료로, 물기둥을 환자신체에 적용하는 압주욕과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 환자의 신체에 적용하는 분무욕이 있다. 긴장된 근육이나 경직된 관절을 완화시키거나 혈관을 자극하여 말초혈관과 림프액의 순환을 증가시키는 요법이다.
분무욕(噴霧浴) [치법] ⇒ 분무맛사지(噴霧맛사지)
분자(粉刺) [병증] 동 좌창(痤瘡) : 안이 여드름. 피지선의 과다 분비로 인해 얼굴, 가슴 등의 피부에 가시 같은 구진이 생긴 것. 짜면 흰색 분즙이 나오므로 분자라 함.
분자(分刺) [침구] 동 분자법(分刺法) : 침구 구

ㅂ

자(九刺)의 하나. 분육(分肉)사이에 침을 찌르는 방법으로 기육(肌肉)산통(酸痛)을 치료하는데 쓰임.
분자법(分刺法) [침구] ⇒ 분자(分刺)
분체(噴嚏) [증상] : 안이 비(鼻)알레르기와 가장 유사하며 발작할 때에 코 안이 가려우면서 발작하게 되고 코 막힘, 맑은 콧물이 나타남.
불감증(不感症) [병증] : 부인 성적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없거나 너무 미약한 성기능장애. 성적 욕구 장애, 성기 반응 부전, 절정감 장애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불경의(不更衣) [병증] ⇒ 변비(便秘)
불고(不固) [병리] [증상] : 내과 신(腎)의 고섭(固攝)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
불금(不禁) [증상] : 내과 소변이나 대변 등을 참지 못하여 저절로 나오는 상태. 실금(失禁).
불급(不及) [운기] : 원전 한해를 주관하는 운과 기는 대한일(大寒日)을 기점으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운과 기의 세력이 약하여 제 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때를 지나서 들어오는 것.
불내외인(不內外因) [병리] : 병리 내인에 속하지도 않고 외인에 속하지도 않는 병인. 금속성 물질에 손상당하거나 충수상(蟲獸傷), 타박상(打撲傷), 동상(凍傷), 화상(火傷), 약물중독 등을 말한다.
불능식(不能食) [증상] : 내과 식욕이 없어 심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
불류행(不留行) [약물] ⇒ 왕불류행(王不留行)
불매(不寐) [병증] ⇒ 실면(失眠)
불면(不眠) [병증] ⇒ 실면(失眠)
불복수토병(不伏水土病) [병증] : 내과 자연 환경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각종 병증.
불상(不爽) [증상] : 내과 기분이 유쾌하지 못한 것.
불수(不遂) [증상] : 내과 몸의 어느 부위를 못 쓰는 병증.
불수(不收) [증상] : 내과 몸의 어느 한 부위에 운동기능이 장애가 와서 제대로 놀리지 못하는 증상.
불수(不睡) [병증] ⇒ 실면(失眠)
불어(不語) [증상] 동 구불능언(口不能言), 실어(失語), 음부득어(瘖不得語), 실어증(失語症) : 내과 안이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
불용(不容)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9)로서 거궐(巨闕) 양쪽 2촌에 위치.
불월(不月) [병증] ⇒ 경폐(經閉)
불인(不仁) [증상] : 내과 ① 몸의 어느 한 부위에 운동기능 장애가 와서 쓰기가 불편한 것. ② 피부감각이 둔한 것.
불임(不妊) [병증] 동 불잉(不孕), 절사(絶嗣), 절태(絶胎), 절산(絶産), 불임증(不妊症) : 부인 약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함. 과거 한 번도 임신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원발성 불임증이라 하고, 임신경험이 있는 부부가 유산 또는 분만 후 무 월경이 끝난 뒤부터 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속발성 불임이라 한다.
불임증(不妊症) [병증] ⇒ 불임(不妊)
불잉(不孕) [병증] ⇒ 불임(不妊)
불정저(佛頂疽) [병증] 동 정문저(頂門疽) : 안이 독맥경의 상성혈(上星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붕(崩) [병증] 동 경붕(經崩), 혈붕(血崩), 혈붕부지(血崩不止), 붕중(崩中) : 부인 월경주기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인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 대량의 지속적인 질 출혈을 말함.
붕루(崩漏) [병증] 동 붕중루하(崩中漏下) : 부인 월경주기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인 질 출혈이 일어나는 병증. 붕(崩)은 대량의 출혈을 말하고, 누(漏)는 지속적인 소량의 출혈을 말한다.
붕사(硼砂) [약물] 동 월석(月石) : 본초 단사정

계(單斜晶系)의 광물인 붕사 Borax를 채취하여 정제한 결정체.
붕중(崩中) [병증] ⇒ 붕(崩)
붕중루하(崩中漏下) [병증] ⇒ 붕루(崩漏)
붕중루하오색(崩中漏下五色) [병증] ㊐ 붕중오색구하(崩中五色俱下) : 부인 월경주기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불규칙한 질 출혈로서 붕루 속에 청, 적, 황, 백, 흑의 오색이 섞여 있는 것. 옛사람들은 각 장의 허에 따라 색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음.
붕중오색구하(崩中五色俱下) [병증] ⇒ 붕중루하오색(崩中漏下五色)
비(痺) [병증] ㊐ 비증(痺證), 비증(痹症) : 재활 풍한습사가 경락에 침입하여 기혈의 흐름을 가로막음으로 인해 관절과 기육에 산통(痠痛)·구급(拘急) 등이 발생하는 질병.
비(痞) [병증] : 내과 흉복간의 기기(氣機)가 조색불서(阻塞不舒)한 일종의 자각증상. 흉복부가 막혀 그득하되 눌러도 아프지 않은 병증.
비(閟) [병증] ⇒ 변비(便秘)
비(脾) [해부] [생리] : 생리 ① 오장 중의 하나로 토(土)의 특성과 부합하는 장부. ② 횡격막 아래 상복부, 위(胃)의 좌상부(左上部)에 위와 막으로 붙어 있는 장부.
비(痱) [병증] : 내과 ① 풍비(風痱)와 같은 뜻. ② 비자(痱子)와 같은 뜻.
비간(脾癎) [병증] : →오간(五癎)
비감(鼻疳) [병증] ㊐ 감비(疳鼻), 비닉창(鼻匿瘡) : 안이 비전정피부염(鼻前庭皮膚炎)을 말하는 것으로 코의 분비물로 인해 피부염이 생긴 것을 말함.
비감(脾疳) [병증] : 소아 오감(五疳)의 하나. 감질의 가장 기본적인 증후로서 비경(脾經)에 습열(濕熱)이 울결 되어 발생.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에 열이 있으며, 복부는 창대(脹大)하고, 진흙 같은 것을 먹기 좋아하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며, 신 냄새가 나는 설사를 하고,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고, 음식량이 줄고 몸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비강이물(鼻腔異物) [병증] : 안이 주로 소아들이 장난으로 콩, 과일 씨, 유리알, 솜 등을 콧속에 넣음으로써 발생한 병증.
비거음맥(臂鉅陰脈) [경락] ⇒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비경(脾經) [경락] ⇒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비경(痞硬) [병리] : 병리 음식상으로 비위가 휴손됨으로써 사기가 흉중에 쌓여 기도(氣道)가 조색(阻塞)되고 통하지 못하며 이에 담(痰)·식(食)·혈(血)이 함께 상박(相搏)하여 복(腹) 내에 결취(結聚) 혹은 결경(結硬)된 적취.
비기능계(脾機能系) [생리] ㊐ 비계(脾系) : 생리 비(脾)을 중심으로 위(胃)·기육(肌肉)·구순(口脣)·사지(四肢) 등 비(영양, 통합기능)의 생리기능을 발휘하거나 병리적 기능변화를 외부로 발현하는 기능계통.
비고(鼻藁) [병증] : 안이 폐기능의 허약으로 인한 진액부족 때문에 외비(外鼻)가 건조되어 건육(乾肉)과 같아지는 병증.
비관(髀關)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1)로서 엉덩관절(고관절; hip joint)을 굽혀 위앞엉덩뼈가시(전상장골극;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수직 아래로 회음(會陰)과 수평인 곳. 복토(伏兎) 위 6촌에 위치.
비괴(痞塊) [병증] : 내과 복강 내의 적괴(덩어리)가 있는 병증.
비구(鼻鼽) [병증] ㊐ 구비(鼽鼻) : 안이 급성비염과 유사.
비궐(痺厥) [병증] : 내과 비증(痺證)에 궐증(厥證)을 겸한 병증.
비궐(臂厥) [병증] : 수태음경과 수소음경의 경기(經氣)가 역란(逆亂)하는 것.
비궐(痱厥) [병증] : 내과 팔다리를 쓰지 못하면서 싸늘해지는 병증.
비근(痞根) [기혈]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

ㅂ

혈로서 첫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방 3촌 5푼에 위치.

비기(肥氣) [병증] ⇒ 간적(肝積)

비기(脾氣) [생리] : 생리 ① 비의 정기(精氣) 및 기능. ② 전신의 기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비의 중화 또는 수곡의 정기를 산포시키는 기운.

비기불승(脾氣不升) [병리] : 병리 비기(脾氣)가 수곡정미의 기를 심폐로 상수(上輸)하지 못하는 상태. 비양허(脾陽虛)나 중기부족(中氣不足), 또는 습탁(濕濁), 식체(食滯)의 조애(阻碍)에 의해 일어남.

비기성(脾氣盛) [병리] ⇒ 비기실(脾氣實)

비기실(脾氣實) [병리] 동 비기성(脾氣盛), 비실(脾實) : 병리 비습, 위열로 인해 습열이 서로 조체(阻滯)된 경우나 혹은 담즙과 습열이 상결(相結)된 상태.

비기하함(脾氣下陷) [병리] ⇒ 중기하함(中氣下陷)

비기하함증(脾氣下陷證) [병증] ⇒ 중기하함증(中氣下陷證)

비기허(脾氣虛) [병리] 동 비기허약(脾氣虛弱) : 병리 비기의 허약 혹은 비의 운화기능이 무력한 상태.

비기허약(脾氣虛弱) [병리] ⇒ 비기허(脾氣虛)

비기허약증(脾氣虛弱證) [병증] ⇒ 비기허증(脾氣虛證)

비기허증(脾氣虛證) [병증] 동 비기허약증(脾氣虛弱證) : 병리 비기가 부족하여 운화작용을 상실한 증으로, 면색위황(面色萎黃), 권태(倦怠), 기단나언(氣短懶言), 음식부진(飮食不振), 식후복창(食後腹脹), 대변당박(大便溏薄) 등이 주증이고, 사지권태(四肢倦怠), 지체부종(肢體浮腫), 소변불리(小便不利), 월경양소색담(月經量少色淡), 심즉폐경(甚則閉經)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완약(脈緩弱)하다.

비낭창(鼻狼瘡) [병증] : 안이 외비(外鼻), 비전정(鼻前庭)의 피부 및 피부조직의 결핵. 주로 혈행성(血行性)으로 발생하여 점막에도 오는 수가 많다.

비노(臂臑)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4)로서 곡지(曲池)와 견우(肩髃)를 잇는 가정 선에서 견우 아래 3촌으로 어깨세모근(삼각근; deltoid)이 끝나는 곳에 위치.

비뉵(鼻衄) [병증] ⇒ 육혈(衄血)

비닉창(鼻匿瘡) [병증] ⇒ 비감(鼻疳)

비대여권(鼻大如拳) [병증] ⇒ 비종(鼻腫)

비두옹(脾肚癰) [병증] ⇒ 상발배(上發背)

비등팔법(飛騰八法) [침구] ⇒ 영구팔법(靈龜八法)

비로(脾勞) [병증] : 내과 입이 쓰고 혀가 뻣뻣하며 구역질과 생목이 오르면서 기창(氣脹)이 있고 입술이 타는 증상. 혹은 배가 창만하면서 음식을 적게 먹고, 심하면 토하고 설사하며 살이 빠지고 팔다리가 나른한 병증.

비루(鼻漏) [병증] : 내과 코에 생긴 헌데를 잘 치료하지 못하여 생긴 루(漏). 날 때부터 누관이 형성된 병증.

비류(鼻瘤) [병증] : 안이 주사비(酒齇鼻)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코끝의 피부가 불규칙하게 두터워지고 표면의 혈관이 확장되어 적자색이 되어 이것을 압박하면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병증.

비류탁체(鼻流濁涕) [증상] ⇒ 탁체(濁涕)

비륜진도(脾輪振跳) [병증] ⇒ 포륜진도(胞輪振跳)

비마인(萆麻仁) [약물] ⇒ 피마자(蓖麻子)

비마자(萆麻子) [약물] ⇒ 피마자(蓖麻子)

비만(肥滿) [병증] 동 비만증(肥滿症) : 재활 몸의 지방조직에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축적되어 살찐 상태. 보통 몸 질량이 표준 몸 질량보다 20%이상 늘어난 상태를 말함.

비만(痞滿) [병증] : 내과 흉완부(胸脘部)가 막혀 그득하고 답답하되 아프지 않은 병증.
비만증(肥滿症) [병증] ⇒ 비만(肥滿)
비맥(脾脈) [진찰] : 진단 ① 동 황맥(黃脈) : 오장맥(五臟脈)의 일종으로 비(脾)에 속하는 맥(脈). ② 경외기혈(經外奇穴). 치전근혈(治轉筋穴)의 별명(別名).
비맹(蜚虻) [약물] ⇒ 맹충(虻蟲)
비명(鼻鳴) [병증] : 안이 비규(鼻竅)가 막혀 호흡이 순조롭지 않음으로 인해 소리가 나는 경우.
비민(痞悶) [병증] : 내과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을 말함.
비박탐나지심(鄙薄貪懦之心) [사상] : 사상 이제마의 심욕(心慾)·비박탐나지심(鄙薄貪懶之心)은 인의예지가 이심(理心)을 버리고 방종(放縱)·투일(透逸)·식사(飾詐)·극욕(克慾)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각 체질은 심욕에 해당되는 바가 있으니 태양인은 예를 버리고 방종하게 행동하므로 비인(鄙人)이라 하고, 소음인은 의를 버리고 안일을 꾀하므로 나인(懶人)이라 하며, 소양인은 지를 버리고 남을 속이려 하므로 박인(薄人)이라 하고, 태음인은 인을 버리고 지극한 욕심을 부리므로 탐인(貪人)이라고 했다. 이러한 심욕은 심 자체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폐비간신의 사장지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상체질을 분류하는 데는 외형적 분류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내면적 심욕을 이해해야 한다.
비발저(脾發疽) [병증] : 안이 족태음비경에 화열이 축적되어 식두혈(食竇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비번점검(脾飜粘瞼) [병증] ⇒ 피번점검(皮飜粘瞼)
비법(飛法) [침구] : 침구 엄지와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을 맞대어 침 자루를 잡고 비벼 돌려주고 풀어 주는 침자수기법(鍼刺手技法). 꼬고 비빈 다음 마치 새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두 수지를 펴 올리므로 비법(飛法)이라 함.
비벽(痺躄) [병증] : 내과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잘 쓰지 못하는 병증.
비병증(脾病證) [변증] : 병리 비의 생리기능실조로 나타나는 병증들. 비기허증(脾氣虛證), 비양허증(脾陽虛證), 비음허증(脾陰虛證), 한습곤비증(寒濕困脾證), 비위습열증(脾胃濕熱證), 비불통혈증(脾不統血證), 비기하함증(脾氣下陷證) 등이 이에 포함.
비불섭혈(脾不攝血) [병리] ⇒ 비불통혈(脾不統血)
비불섭혈증(脾不攝血證) [병증] ⇒ 비불통혈증(脾不統血證)
비불통혈(脾不統血) [병리] 동 비불섭혈(脾不攝血) : 병리 비기가 허하여 혈액의 통섭(統攝)이 불능한 상태.
비불통혈증(脾不統血證) [병증] 동 비불섭혈증(脾不攝血證) : 병리 구병(久病)이나 노권 등으로 비기가 손상되어 혈액을 통섭(統攝)할 수 없어 혈(血)이 외일(外溢)된 증(證)으로서 반복 발작하는 혈변(血便), 붕루(崩漏) 또는 출혈증상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증상은 면색창백(面色蒼白) 또는 위황(萎黃), 대변당설(大便溏泄), 변혈(便血), 뉵혈(衄血), 피부자반(皮膚紫斑), 월경과다(月經過多), 붕루(崩漏) 등이 주증이고, 식소(食少), 식후창만(食後脹滿), 권태무력(倦怠無力), 단기나언(短氣懶言), 수족불온(手足不溫), 소수(消瘦)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유세약(脈濡細弱)하다.
비비(臂痺) [병증] : 내과 양쪽 팔에 생긴 비증(痺證).
비비(脾痺) [병증] : 내과 비증(痺證)의 하나. 팔다리가 노권하고 권태감이 심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감이 있으며 기침을 하고 멀건 물을 토하며 배가 불러 오르고 그득한 감이 있으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병증.
비사(鼻齄) [병증] 동 주사비(酒齄鼻), 비적(鼻

赤) : 안이 코의 준두(準頭)가 홍적색을 띠는 것.
비산(鼻痠) [병증] : 안이 비강 내에 산감(痠感)을 느끼며 약간의 둔한 통증이 있는 것.
비상증(脾傷證) [병증] : 내과 유소격부(有所擊仆)하거나 취포입방(醉飽入房), 한출당풍(汗出當風)하게 되면 생기는 증상.
비색(鼻塞) [증상] 동 비색질식(鼻塞窒息) : 안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코가 막혀 숨쉬기가 혼란하고 비성(鼻聲)을 발하는 병증.
비색류체(鼻塞流涕) [병증] ⇒ 구체(鼽涕)
비색점병(鼻色占病) [진찰] : 진단 망진(望診)의 한가지로 코의 색깔을 보고 질병을 변별하는 방법.
비색질식(鼻塞窒息) [증상] ⇒ 비색(鼻塞)
비석(砒石) [약물] : 본초 산화물류의 광물인 비화(砒華) Arsenolite 인데 현재는 대개가 유비철광(硫砒鐵鑛) Arsenopyrite과 계관석(鷄冠石) Realgar 등에 함유된 비광석(砒鑛石)을 가공한 제품이다.
비선(脾善) [병증] : 안이 오선(五善)의 하나. 창양이 생겼을 때 순부윤기(脣部潤氣), 선구미(善口味)하면서 다만 농은 끈끈한 황색이며 대변은 정상인 것.
비선(鼻煽) [병증] : 안이 비익선동(鼻翼煽動)을 가리킴. 폐열이 치성(熾盛)하여 열독이 비규(鼻竅)를 훈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콧방울이 벌름거리고 숨이 찬 증상.
비설(脾泄) [병증] : 내과 비병(脾病)에 의한 설사.
비성(鼻聲) [증상] : 안이 비공명(鼻共鳴)이 결핍됨으로써 나는 비정상적인 소리.
비소(脾消) [병증] : 내과 소갈의 한 종류. 비에 원인이 있으며, 갈증이 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형체가 야위는 소갈.
비수(脾水) [병증] : 내과 비허(脾虛)로 인한 수습(水濕)으로 복부종만(腹部腫滿), 사지곤중(四肢困重), 소기(少氣), 소변곤란(小便困難), 피로즉우심(疲勞則尤甚)하는 병증. 오장수종(五臟水腫)의 하나.
비수(鼻祟) [병증] : 안이 부정한 사기에 감촉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코 안에 홍선양(紅線樣)과 같은 것이 발생하여 호흡이 곤란하고 환처(患處)를 만지면 통증이 매우 심한 병증.
비수(脾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20)로서 척중(脊中)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비수한표한병(脾受寒表寒病) [사상] : 사상 ⇒ 소양인비수한표한병
비승격(脾勝格) [침구] ⇒ 비승방(脾勝方)
비승방(脾勝方) [침구] 동 비승격(脾勝格) : 침구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실증(實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대돈(大敦) 은백(隱白) 보(補), 경거(經渠) 상구(商丘) 사(瀉).
비시(飛尸) [병증] ⇒ 중악(中惡)
비신설(脾腎泄) [병증] : 내과 비(脾) 또는 신(腎)이 허약하여 생기는 새벽 설사.
비신양허(脾腎陽虛) [병리] 동 화불생토(火不生土), 비신허한(脾腎虛寒) : 병리 화(火)가 허하여 토(土)가 쇠(衰)하거나 혹은 비양(脾陽)이 오랫동안 허한 것이 진전되어 신양(腎陽)에 손상이 미치는 상태.
비신양허증(脾腎兩虛證) [병증] ⇒ 비신양허증(脾腎陽虛證)
비신양허증(脾腎陽虛證) [병증] 동 비신양허증(脾腎兩虛證) : 병리 비양허와 신양허의 겸증. 수액 대사가 불리한 증으로, 요슬랭통(腰膝冷痛), 소복랭통(少腹冷痛), 대변당설(大便溏泄), 완곡불화(完穀不化), 오경설사(五更泄瀉) 등이 주증이고, 형한지랭(形寒肢冷), 면색황백(面色㿗白), 소기나언(少氣懶言), 정신위약(精神萎弱), 소변불리(小便不利), 면부지종(面浮肢腫), 심즉복만고창(甚則腹滿臌脹)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침세(脈沈細)하다.
비신허한(脾腎虛寒) [병리] ⇒ 비신양허(脾腎

陽虛)
비실(脾實) [병리] ⇒ 비기실(脾氣實)
비실증(脾實證) [병증] : 병리 비병(脾病)에 사기가 왕성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후.
비심통(脾心痛) [병증] : 내과 명치 밑이 갑자기 아프고 메슥메슥하면서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오르며, 옆구리 아래까지 칼로 에이는 것 같이 아픈 병증.
비약(脾約) [병증] 동 실약증(失約證) : 내과 비허진소(脾虛津少)로 장액이 건조하여 대변이 단단하여 잘 나오지 않는 병증. 변비의 일종.
비양(飛揚)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8)로서 낙혈(絡穴)에 해당하고 곤륜(崑崙) 위 7촌에 위치.
비양(鼻痒) [병증] : 콧속이 가려운 것.
비양(脾陽) [생리] : 생리 비의 운화기능 및 운화 과정 중에 온후(溫煦)작용을 일으키는 양기(陽氣).
비양부족(脾陽不足) [병리] ⇒ 비양허(脾陽虛)
비양부진(脾陽不振) [병리] ⇒ 비양허(脾陽虛)
비양허(脾陽虛) [병리] 동 비양부족(脾陽不足), 비양부진(脾陽不振) : 병리 비위의 허한을 말함.
비양허증(脾陽虛證) [병증] 동 중초양허증(中焦陽虛證) : 병리 비기허증(脾氣虛證)이 오래되어 비양(脾陽)이 손상되거나 또는 찬 음식물을 과식하거나 한량약(寒凉藥)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양기가 쇠퇴되고 내한(內寒)이 생겨 비의 운화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증. 그 증상은 식소(食少), 복창(腹脹), 복중랭통(腹中冷痛), 희온희안(喜溫喜按), 사지불온(四肢不溫), 대변희박(大便稀薄) 등이 주증이고, 형한(形寒), 구담불갈(口淡不渴), 지체부종(肢體浮腫), 소변불리(小便不利), 여성백대청희양다(女性白帶淸稀量多)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눈(舌質淡嫩), 태백활(苔白滑), 맥침세(脈沈細) 혹 침지(沈遲)하다.
비연(鼻淵) [병증] 동 뇌루(腦漏) : 소아 코에서 끈적하고 더러운 콧물이 흘러나오는 병증. 축농증과 유사함. 내적인 요인은 담경의 열이 뇌수(腦髓)로 옮겨 간 것이며, 외적인 요인은 풍한으로 화사(火邪)가 뭉쳐서 발생. 급성은 끈적하고 누런 콧물이 나오며, 오한발열하고, 머리가 아프면서 코가 막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은 대부분 코막힘이 오래되어 콧구멍에 맺히고 쌓임으로써 발생하는데 고름처럼 더러운 콧물이 나고 냄새가 나며, 눈썹과 이마가 부풀 듯 아프며 후각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열(脾熱) [병리] 동 비열병(脾熱病), 비열증(脾熱證) : 병리 소아 오장열(五臟熱)의 하나. 외감열사(外感熱邪)가 깊이 잠복하거나 위장적열(胃腸積熱), 기주(嗜酒), 비감조열(肥甘燥熱)한 음식의 과식 등에서 발생.
비열(痺熱) [병증] : 내과 비증(痺證) 때 열이 나는 것.
비열(痞熱) [병증] : 소아 식적(食積)이 비결(痞結)되어 발열하는 것.
비열병(脾熱病) [병리] ⇒ 비열(脾熱)
비열신황(脾熱身黃) [병증] : 소아 소아가 비위(脾胃)에 열이 쌓여서 황달이 생기는 것.
비열증(脾熱證) [병리] ⇒ 비열(脾熱)
비옹(脾癰) [병증] : 안이 비경(脾經)의 모혈(募穴)인 장문혈(章門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비옹(臂癰) [병증] : 안이 비 전면(臂全面) 어디에나 발생하는 옹저. 초기에는 속립상(粟粒狀)을 형성하고 열나고 아프며 종근(腫根)은 수축되고 창두(瘡頭)는 돌기되어있고 적색을 띠면서 윤기가 있음.
비옹(鼻齆) [병증] : 안이 만성 비후성 비염과 유사.
비용(鼻茸) [병증] ⇒ 비치(鼻痔)
비울(脾鬱) [병증] 동 토옹목울(土壅木鬱) : 병리 습곤비위(濕困脾胃)로 인해 비교적 병정(病程)이 길어지고 간장의 소설기능에 영향을 미쳐

ㅂ

발생한 병증.
비위(脾痿) [병증] ⇒ 육위(肉痿)
비위(脾胃) [생리] 동 창름지관(倉廩之官), 후천지본(後天之本) : 생리 ① 비와 위. ②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장부에 대한 통칭.
비위습열(脾胃濕熱) [병리] : 병리 습열이 비위에 내온(內蘊)된 상태.
비위습열증(脾胃濕熱證) [병증] 동 중초습열증(中焦濕熱證), 습열온비증(濕熱蘊脾證), 습열곤비증(濕熱困脾證) : 병리 습열이 중초에 온결(蘊結)하여 비위의 승강과 운화 기능이 상실된 증으로, 완복비민오뇌(脘腹痞悶懊憹), 구고(口苦), 구점(口粘), 구오(嘔惡), 토출음식물 미산고(吐出飮食物味酸苦), 식소(食少), 변당취예(便溏臭穢) 등이 주증이고, 지체곤중(肢體困重), 소변단적(小便短赤), 면목기부발황(面目肌膚發黃), 피부소양(皮膚搔痒), 신열기복(身熱起伏), 한출열불해(汗出熱不解) 등이 차증이며, 설태황니(舌苔黃膩), 맥활삭(脈滑數)하다.
비위양허증(脾胃陽虛證) [변증] 동 비위허한증(脾胃虛寒證) : 병리 비위허약으로 비위양허(脾胃陽虛)하며 한상(寒象)을 나타내는 병증.
비위허한증(脾胃虛寒證) [변증] ⇒ 비위양허증(脾胃陽虛證)
비음(脾陰) [생리] : 생리 비장의 혈액과 진액 등 음액.
비음부족증(脾陰不足證) [병증] ⇒ 비음허증(脾陰虛證)
비음허(脾陰虛) [병리] : 병리 비허의 하나. 비의 음액이 부족한 것.
비음허증(脾陰虛證) [병증] 동 비음휴손증(脾陰虧損證), 비음부족증(脾陰不足證) : 병리 습열사가 비음을 손상하거나 사려노권(思慮勞倦), 실혈(失血), 토설(吐泄) 과다로 비음이 부족해져 허열이 발생하고 유윤(濡潤)기능과 운화기능에 영향을 미친 증으로, 그 증상은 식소(食少), 식후복창(食後腹脹), 구건소진(口乾少津), 대변비결(大便秘結) 등이 주증이고, 권태무력(倦怠無力), 단기나언(短氣懶言), 순설건조(脣舌乾燥), 구갈희음(口渴喜飮), 저열(低熱) 등이 차증이며, 설건태소(舌乾苔少), 맥세약이삭(脈細弱而數)하다.
비음휴손증(脾陰虧損證) [병증] ⇒ 비음허증(脾陰虛證)
비인(鄙人)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나오는 용어. '기예이방종자 명왈비인(棄禮而放縱者名曰鄙人)'의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인(鄙人), 나인(懦人), 박인(薄人) 탐인(貪人)은 맹자의 사부[비부(鄙夫), 박부(薄夫), 나부(懦夫), 완부(頑夫)]의 변형으로서 인의예지의 반대가 되는 심욕의 대표적인 사분류적 개념이다. 예문을 모르는 자를 일컫는다.
비자(榧子) [약물] 동 옥비(玉榧) : 본초 주목과(朱木科 : Tax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비자나무 *Torreya nuncihera* Siebold et Zuccarini의 과실로, 가을에 과실이 익었을 때 따서 육질의 가종피(假種皮)를 없애고 씻어 말린 후 사용.
비저(脾疽) [병증] : 내과 장문혈(章門穴)이 은은통(隱隱痛)한 옹저.
비저(臂疽) [병증] : 안이 비전면(臂全面) 어디에나 발생하는 옹저로, 종양이 함몰되고 자암색(紫暗色)을 띠며 둔한 통증이 있는 것.
비저(鼻疽) [병증] : 안이 외비(外鼻)의 종양을 말하는 것으로 콧마루가 종대(腫大)되고 자색을 띠며 단단하고 때로는 둔한 통증을 느낀다.
비저(疵疽) [병증] : 안이 슬부(膝部)의 화농성 관절염에 해당하며, 슬개가 종대되나 색깔은 변하지 않음.
비적(鼻赤) [병증] ⇒ 비사(鼻皶)
비적(痞積) [병증] : 내과 날것과 찬 것 및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음으로써 생기는 비괴(痞塊).
비적(脾積) [병증] : 내과 오적(五積)의 하나. 위완 부위에 있고 엎어져 있는 크기가 쟁반만하

며 오랫동안 낫지 않고 사지불수(四肢不隨) 황달(黃疸)을 일으키고 먹는 것이 살이 되지 못하는 병증.

비절(脾絶) [병증] : 내과 오장절후(五臟絶後)의 하나로 비기가 끊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위중한 병증.

비정(鼻疔) [병증] : 안이 비내(鼻內)에 정상(釘狀)과 같은 종양이 발생하여 통증이 극심하고 마목감을 느끼는 것.

비정격(脾正格) [침구] ⇒ 비정방(脾正方)

비정방(脾正方) [침구] 동 비정격(脾正格) : 침구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허증(虛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소부(少府) 대도(大都) 보(補), 대돈(大敦) 은백(隱白) 사(瀉).

비제(蠐螬) [약물] ⇒ 제조(螬蠐)

비종(鼻腫) [병증] 동 비대여권(鼻大如拳) : 안이 코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데도 갑자기 종대 되어 점차 커지는 것.

비중식육(鼻中息肉) [병증] ⇒ 비치(鼻痔)

비증(痺症) [병증] ⇒ 비(痺)

비증(痺證) [병증] ⇒ 비(痺)

비지당(脾之黨)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서술된 용어. 중상초인 비의 계열을 지칭한 말로서 위(胃)·양유(兩乳)·눈·배려(背膂)·근(筋) 등이 이에 해당. 위에서 수곡의 열기가 고(膏)로 화하여 젖가슴 사이로 들어가 고해(膏海)가 되며, 고해의 경청한 기운은 눈으로 나와서 기가 되고 배려로 들어가 막해(膜海)가 되는데, 막해의 청즙은 안으로 비의 근원을 북돋우고 탁재는 안으로 胃를 돕고 밖으로 근을 형성한다. 그래서 위·양유·눈·배려·근은 비의 무리가 된다.

비지대락(脾之大絡) [경혈] ⇒ 대포(大包)

비질(鼻窒) [증상] : 안이 코가 만성적으로 막히는 병증. 만성 비염과 유사한데 특히 만성 단순성 비염과 비슷함.

비창(脾脹) [병증] 동 수창(水脹) : 내과 창병(脹病)의 하나. 딸꾹질을 잘하고 사지에 번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 옷 무게도 이기지 못하며 잠자리를 불안해하는 병증.

비창(鼻瘡) [병증] : 안이 비강내(鼻腔內)가 마르고 아프며 속립상(粟粒狀)과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

비창(肥瘡) [병증] ⇒ 독창(禿瘡)

비천발(腓腨發) [병증] : 안이 비천(腓腨) 즉, 하퇴 비장근주위(방광경)에서 발생하는 옹저.

비체(鼻涕) [생리] ⇒ 체(涕)

비초건(鼻焦乾) [증상] : 안이 비내(鼻內) 건조감이 극심한 것.

비출취기(鼻出臭氣) [병증] 동 취비증(臭鼻症) : 안이 비연증의 하나로 코에서 냄새가 나는 병증.

비치(鼻痔) [병증] 동 비중식육(鼻中息肉), 비용(鼻茸), 췌육(贅肉), 식육(瘜肉) : 안이 비공내(鼻孔內)에 물혹이 생겨 코 막힘 등의 증상이 야기되는 병증.

비침(鼻鍼) [침구] 동 비침술(鼻鍼術), 비침요법(鼻鍼療法), 코침요법(코鍼療法) : 침구 비개상에 위치한 특수혈(特殊穴)에 대한 집중적인 시술 행위.

비침사(鼻砧痧) [병증] : 안이 비강 내에 사(痧)가 발생하여 편측 또는 양측의 코가 막히는 것.

비침술(鼻鍼術) [침구] ⇒ 비침(鼻鍼)

비침요법(鼻鍼療法) [침구] ⇒ 비침(鼻鍼)

비탈락(鼻脫落) [증상] : 안이 외비(外鼻)의 외상(外傷)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

비통(鼻通) [기혈] ⇒ 상영향(上迎香)

비파엽(枇杷葉) [약물] 동 무우선(無憂扇)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상록 소교목인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 (Thunb.) Lindl.의 잎으로, 연중 수시로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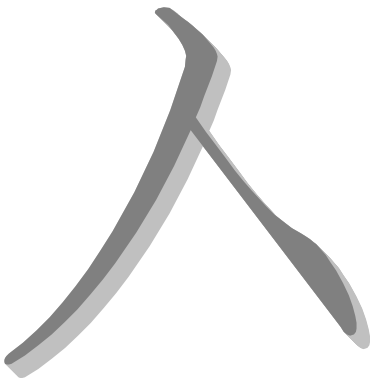
비폐기허증(脾肺氣虛證) [병증] ⇒ 폐비양허증(肺脾兩虛證)

비풍(非風) [병증] ⇒ 유중풍(類中風)

ㅂ

비한(鼻汗) [증상] : 내과 코에서만 땀이 나는 증상.
비해(脾咳) [병증] : 내과 기침을 하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가 아프고 은은히 어깨와 등이 당기면서 심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증.
비해(萆薢) [약물] 동 산비해(山萆薢), 백지(百枝) : 본초 마과(薯蕷科 : Dioscoreaceae)에 속한 도꼬로마 *Dioscorea tokoro* Makino의 근경(根莖). 중국에서는 분배서여(粉背薯蕷) *D. hypoglauca* Palibin의 근경을 기원으로 하고 분비해(粉萆薢) *Dioscoreae Hypoglaucae* Rhizoma라 함.
비허(脾虛) [병증] : 병리 ① 비의 음양이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병증. 대부분 음식실조(飮食失調), 한온부적(寒溫不適), 우사(憂思), 노권과도(勞倦過度) 혹은 오랜 병으로 비가 손상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임상에서는 소수(消瘦), 면황(面黃), 사지핍력(四肢乏力), 소화불량(消化不良), 식욕부진(食欲不振), 장명(腸鳴), 변당(便溏) 혹은 설사(泄瀉), 부종(浮腫), 변혈(便血), 붕루(崩漏)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② 비기허(脾氣虛)와 같은 의미로 사용.
비허구토(脾虛嘔吐) [병증] : 소아 비허습성(脾虛濕盛)으로 생긴 구토.
비허사(脾虛瀉) [병증] : 소아 비위가 허약하여 생긴 만성 설사. 소아의 경우 비위가 허약한데다가 젖이나 음식 때문에 손상되면 비양(脾陽)이 부족해져 수곡을 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설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식후설사(食後泄瀉), 복창변당(腹脹便溏), 수곡불화(水穀不化), 면황형수(面黃形瘦), 정신피곤, 권태 등 증상이 나타난다.
비허습곤증(脾虛濕困證) [병증] ⇒ 한습곤비증(寒濕困脾證)
비허증(脾虛證) [병증] : 병리 비기(脾氣), 비양(脾陽), 비음부족(脾陰不足)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증후.
비허한(脾虛寒) [병증] : 병리 비의 양기가 허하여 운화기능이 저하된 것. 그 증상은 신한지랭(身寒肢冷), 복중랭통(腹中冷痛)하고 따뜻하게 하면 편안해지며, 구범청연(口泛淸涎), 대변당설(大便溏泄), 부종(浮腫), 붕루(崩漏), 백대청희(白帶淸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화농구(非化膿灸) [침구] : 침구 직접구의 하나로 뜸쑥을 직접 혈자리 위에 놓고 뜸을 뜨되 살갗이 데지 않게 조절함으로써 국소에 물집이 생겨 곪지 않게 하는 것.
비황(脾黃) [병증] : 내과 황달의 하나. 황달이 발생했을 때 특히 색깔이 여금(如金)한 병증.
빈각(頻覺) [병증] ⇒ 실면(失眠)
빈뇨(頻尿) [증상] ⇒ 요빈(尿頻)
빈랑(檳榔) [약물] : 본초 야자과(棕櫚科 : Palmae)에 속한 교목인 빈랑나무 *Areca catechu* Linné의 종자로, 늦봄과 이른 가을에 익은 과실을 따서 물에 삶아 말린 뒤 과피를 벗겨 종자를 꺼낸 뒤 다시 건조하여 사용.
빈저(鬢疽) [병증] : 안이 수소양삼초경과 족소양담경의 빈각(鬢角)에서 발생하는 옹저.
빈치(牝痔) [병증] : 안이 항문 주위에서 여러 개의 창종(瘡腫)이 발생하여 종대(腫大) 및 돌기(突起)되고 궤파(潰破)된 후에 농이 배출되면 곧 사라지는 치창(痔瘡).
빙예(氷翳) [병증] 동 수정장예(水晶障翳) : 안이 예(翳)의 모양이 마치 얼음과 같이 견실(堅實)하고 맑으면서 백색을 띤 것이 동인내(瞳人內)에 나타나서 점차 밖으로 투출(透出)되는 것.
빙편(冰片) [약물] ⇒ 용뇌(龍腦)
빙하예(氷瑕翳) [병증] : 안이 숙예(宿翳), 각막운예(角膜雲翳)와 유사. 각막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발생되며 작은 조각이나 점 모양으로 회백색의 광택이 있고 밝은 것이 마치 얼음 위에 흠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임을 표현한 것임.

ㅂ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人

사(痧) [병증] : ① 예탁(穢濁)한 기에 감염되어 복통, 토사(吐瀉) 등이 발생하는 것. 여름·가을철에 많이 발생. ② 진(疹)을 가리킴.
사(瀉) [치법] 동 사(寫), 사법(瀉法) : 침구 인체에 침범하거나 발생한 사기(邪氣)를 빼냄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사(寫) [치법] ⇒ 사(瀉)
사(嗄) [증상] ⇒ 사성(嗄聲)
사가(四街) [경락] 동 사기가(四氣街), 기가(氣街) : 경혈 사기가(四氣街). 머리, 가슴, 배, 정강이 4부위에서 기가 주로 다니는 길. 영위(榮衛)의 기(氣)가 반드시 경유하여 순행하는 경로가 된다.
사가(蛇瘕) [병증] 동 사하(蛇瘕) : 내과 뱀 고기를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늘 배고픈 것 같으나 먹으면 잘 내려가지 않고 혹 먹은 것이 명치까지 내려갔다가 도로 토하거나 배에서 뱀같은 것이 만져지는 증.
사각(蛇殼) [약물] ⇒ 사태(蛇蛻)
사간(射干) [약물] 동 자호접(紫蝴蝶) : 본초 붓꽃과(鳶尾科 : Irid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 (L.) DC.의 근경(根莖)으로,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사간(瀉肝) [치법] : 방제 청법(淸法)의 하나. 고한(苦寒)한 약물을 사용하여 간화(肝火)를 청설하는 방법.
사개(四開) [경혈] ⇒ 사관(四關)
사개(砂疥) [병증] : 안이 혈액의 응체에 기인하여 가는 모래 형상과 같고 작열감이 있고 적색을 띠며, 가렵고 아프면서 궤파(潰破)되면 수분이 있는 개창(疥瘡).
사객자문(邪客子門) [병증] : 부인 자문(子門)이란 자궁지문(子宮之門)이다. 따라서 사객자문은 병사가 산도(産道)에 침입하였다는 의미이다. 현대적으로 질, 자궁경관, 자궁, 난관, 골반에 이르는 내 성기 감염증을 말한다.
사경증(斜頸症) [병증] : 재활 머리가 환측의 어깨 쪽으로 기울고, 목이 회전하면서 얼굴과 턱은 반대편 어깨 쪽으로 편향되는 변형. 대부분 흉쇄유돌기근의 구축에 의해서 생기고 이와 함께 얼굴 비대칭이 생긴다.
사과(絲瓜) [약물] ⇒ 사과락(絲瓜絡)
사과락(絲瓜絡) [약물] 동 사과(絲瓜) : 본초 박과(葫蘆科 : Cucurbitaceae)에 속한 일년생 덩굴성 식물인 수세미오이 *Luffa cylindrica* (L.) Roem.의 성숙한 과실인데, 가을에 채취하여 외피와 과육(果肉)을 제거한 망상(網狀)의 섬유질(纖維質)을 쇄건(曬乾)한 후 사용.
사관(四關) [경혈] 동 사개(四開) : 경혈 ① 경혈(經穴). 좌우 합곡(合谷)과 태충(太衝)의 네 경혈(經穴).
사군자(使君子) [약물] 동 천군자(川君子) : 본초 사군자과(使君子科 : Combretaceae)에 속한 덩굴성 관목인 사군자 *Quisqualis indica* Linné의 과실로, 가을에 껍질이 자흑색(紫黑色)이 될 때 따서 잡질을 없애고 말린 후 사용.
사근(四根) [경혈] : 경혈 영추·근결편(靈樞·根結篇)에 나오는 표현. 사지말단의 정혈(井穴)을 가리킴.

사기(邪氣) [병리] ㊐ 병사(病邪), 벽사(僻邪) : 병리 정기(正氣)에 반대되는 것으로 몸에 해를 끼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운. 사기(邪氣)의 존재 자체가 발병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체의 정기(正氣)가 허한 조건에서 사기가 실한 경우 발병한다. → 병인(病因)

사기(四氣) [약물] ㊐ 한열온량(寒熱溫凉), 사성(四性) : 본초 한열온량 네 종류의 약성.

사기(司氣) [운기] : 원전 한해 기후의 변화를 주재하는 육기 중의 한 기를 말함. 그 해의 지지(地支)에 의해 결정됨. 예를 들어 갑자년(甲子年)에는 소음군화지기가 사기(司氣)가 됨.

사기가(四氣街) [경락] ⇒ 사가(四街)

사당(四黨) [사상] : 사상 수곡지기(水穀之氣)[온열량한(溫熱凉寒)]의 대사경로에 따라 사계열(四系列)로 나눈 것으로 설정 기준은 인체 장부 및 기관조직을 음양편차에 따라 분류하고 이것을 음양기(陰陽氣)의 특성에 따라 동기(同氣)로 일가(一家)를 형성하여 구분된 대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당의 이상(異常)은 사상병증론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폐당(肺黨)은 폐(肺)·위완(胃脘)·설(舌)·이(耳)·두뇌(頭腦)·피모(皮毛)로 구성된다. 비당(脾黨)은 비(脾)·위(胃)·양유(兩乳)·목(目)·배려(背膂)·근(筋)으로 구성된다. 간당(肝黨)은 간(肝)·소장(小腸)·제(臍)·비(鼻)·요척(腰脊)·육(肉)으로 구성된다. 신당(腎黨)은 신(腎)·대장(大腸)·전음(前陰)·구(口)·방광(膀胱)·골(骨)로 구성된다.

사독(四瀆)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9)로서 양지(陽池)과 팔꿈치 사이를 1척의 골도법으로 양지(陽池)와 팔꿈치의 중간으로 자뼈(척골; ulna)와 노뼈(요골; radius) 사이에 위치.

사두정(蛇頭疔) [병증] : 안이 손가락 끝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종(腫)이 단단하고 정상(釘狀)과 같으며 자색(紫色)을 띠고 있는 것.

사리(瀉痢) [병증] ⇒ 이질(痢疾)

사림(沙淋) [병증] ⇒ 석림(石淋)

사림(砂淋) [병증] ⇒ 석림(石淋)

사만(四滿)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4)로서 배꼽아래 2촌 양측 각 5푼에 위치.

사만풍(四彎風) [병증] : 안이 주와(肘窩), 괵와(膕窩)에 발생하는 습창(濕瘡)의 일종. 풍사가 습열을 끼고 주리로 침입함으로 인해 발생. 소아에게 흔히 보이며, 서로 대칭되는 부위인 주와(肘窩), 괵와(膕窩), 과측(踝側)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환부의 피부에 홍반이 생긴 후에 연이어 구진(丘疹), 수포(水疱)가 생겨 가려우며, 긁으면 짓물러 터지고, 가벼웠다 심했다 하며, 오래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두터워지며 잘 낫지 않는다.

사맥(死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에 무신(無神)·무위(無胃)·무근(無根)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장맥(眞臟脈)·십괴맥(十怪脈) 혹은 삭극(數極)·지극(遲極)한 맥(脈) 등이 이에 해당.

사맥종증(捨脈從證) [진찰] : 진단 변증 과정 중에 맥상과 증상 표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분석을 통해 정황을 살펴서 맥상을 버리고 증상으로써 치료원칙을 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

사미(蛇米) [약물] ⇒ 사상자(蛇床子)

사반(痧瘢) [병증] : 안이 반점(斑點) 중 작은 것은 사(痧)라 하고 큰 것은 반(瘢)이라 한다.

사반력(蛇盤癧) [병증] : 안이 요항(繞項-목둘레)으로 발생하는 나력(瘰癧).

사반법(斜搬法) [추나] ㊐ 사반수법(斜扳手法), 요부사반법(腰部斜搬法) : 재활 추나수법. 시술 시에 환자는 옆으로 누워서 위의 다리는 구부리고, 밑의 다리는 곧게 펴게 하며 시술자는 한손으로 어깨의 앞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엉덩이 부위에 댄 후 동시에 양손에 힘을 넣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 그 요추를 비틀어 주는 수법.

사반수법(斜扳手法) [추나] ⇒ 사반법(斜搬法)
사백(瀉白) [치법] ⇒ 사폐(瀉肺)
사백(四白)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로서 눈확아래구멍(안와하골공; infraorbital foramen) 부위로서 앞을 똑바로 보고 있을 때 동공 바로 아래 1촌에 위치.
사법(瀉法) [치법] ⇒ 사(瀉)
사봉(四縫)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수장부의 제 2,3,4,5 중간마디 손가락뼈의 몸 쪽 손가락뼈사이 관절(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횡문(橫紋) 중점에 위치.
사비(斜鼻) [병증] : 안이 코 모양이 어느 한 쪽으로 비뚤어진 것.
사비맥(斜飛脈) [진찰] : 진단 생리적으로 맥이 뛰는 위치가 달라진 맥을 말함. 촌구(寸口)의 척부(尺部)에서는 맥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 관(關)·촌부(寸部)에서는 맥이 뛰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며 손등 쪽에서 박동이 느껴지는 맥을 말하는데, 병적인 것이 아니므로 변화된 위치에 따라 맥진(脈診)을 하면 된다.
사산(死産) [병증] : 부인 이미 죽은 태아를 출산하는 것.
사삼(沙參) [약물] : 본초 초롱꽃과(桔梗科 : Campan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잔대 *Adenophora triphilla* var. *japonica* Hara 및 동속 근연식물의 뿌리로, 가을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동속 근연식물로는 수원잔대 *A. polyantha* Nakai, 털잔대 *A. triphylla* var. *hirsuta* Nakai, 나리잔대 *A. lilifolia* Ledeb., 당잔대 *A. stricta* Miq., 섬잔대 *A. taquetii* Lev., 진퍼리잔대 *A. palustris* Kom., 두메잔대 *A. lamarckii* Fisch, 왕잔대 *A. tyosenensis* Nakai, 넓은잔대 *A. divaricata* var. *manshurica* Kitagawa, 둥근잔대 *A. coronopifolia* Fisch 등이 있음.
사상(四象) [기타] : 진단 태양(太陽)·소양(少陽)·태음(太陰)·소음(少陰)을 가리킴.
사상의학(四象醫學) [사상] 동 사상체질의학(四象體質醫學) : 사상 동무 이제마(東武 李濟馬)가 1894년에 東醫壽世保元에서 처음 창안 발표한 체질의학(體質醫學). 사상의학은 유학(儒學)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내경의학(內經醫學)의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 이론과는 다른 것으로 체질에 따라 성격·심리상태·내부 장기의 기능과 이에 따른 병리·생리·약리·양생법과 음식의 성분에 이르기까지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네 가지 체형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장기의 대소가 결정되어 있어,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으며,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체질이요, 소양인은 비가 크고 신이 작으며, 소음인은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체질인데, 사람의 심성(心性)에는 본질적으로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발로(發露)하게 되고 이 희노애락의 편차에 따라 장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상인(四象人) [사상] 동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 : 사상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말함. 사상인이라는 용어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因前人之述偶得四象人臟腑性理著得一書名曰壽世保元'이라는 문장에 나옴.
사상인병증약리(四象人病證藥理) [사상] : 사상 각 체질에 대해 병증, 투약시 반응과 원리를 설명한 것. 병증은 사상인(四象人)별로 표병(表病)과 이병(裏病)으로 대분되고 각 병론(病論)에서 다시 원인, 증상, 치법, 치방과 체질적 섭생 등이 설명되고 있다.
사상인장부성리(四象人臟腑性理) [사상] : 사상 사상인 각 체질에서 장부의 역학관계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한 것. 본체론(本體論)의 기리형표(氣裏形表)의 삼단계적 설명방법을 인용하면 형표(形表)의 외형은 사심신물(事心身物)에 해당되고 기리(氣裏)인 장부성리는 태극심(太極 心)과 양의심신(兩儀心身)에 해당된다고 본다.

사상자(蛇床子) [약물] 동 사미(蛇米) : 본초 산형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벌사상자 *Cnidium moniere* (L.) Cuss. 또는 사상자 *Torilis japonica* (Houtt.) DC.의 성숙한 과실로 여름과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 사용.

사상체질의학(四象體質醫學) [사상] ⇒ 사상의학(四象醫學)

사선(篩選) [포제] : 본초 약물에 포함된 잡질(雜質)과 성상(性狀)의 크기에 따라 여러 크기의 체나 그물로써 약물 중의 모래, 돌, 잡질 등을 제거하는 것. (예: 반하, 천남성, 천오, 백부자 및 기타 약물 천산갑, 계내금)

사설옹(死舌癰) [병증] : 안이 목설(木舌)과 유사하나 목설은 작으면서 단단한 것이고 사설옹(死舌癰)은 혀가 종대 되면서 백색을 띠는 것이다.

사성(四性) [약물] ⇒ 사기(四氣)

사성(嗄聲) [증상] 동 사(嗄) : 안이 목소리가 쉬는 것.

사태(蛇蜕) [약물] 동 사피(蛇皮), 사퇴(蛇退), 사각(蛇殼) : 본초 뱀과(蛇科 : Colubridae)에 속한 구렁이 *Elaphe schrenckii* Strauch, 무자치 *Elaphe climacophora* Boie. 또는 유혈목이 *Rhabodophis tigrinus* Boie. 등의 탈피막(脫皮膜).

사수(邪祟) [병증] : 정신 원인불명의 괴상한 병. 대개 정신 이상이 생긴 병을 말함.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미신적인 관념에서 귀신이 씌어 들린 병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정신분열증, 히스테리에 해당한다.

사시(斜視) [병증] : 사팔뜨기를 가리킴.

사시맥(四時脈) [진찰] : 진단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오장(五臟)의 맥. 봄에는 간맥(肝脈)인 현맥(弦脈), 여름에는 심맥(心脈)인 구맥(鉤脈)[또는 홍맥(洪脈)], 가을에는 폐맥(肺脈)인 모맥(毛脈)[또는 부맥(浮脈)·삽맥(澁脈)], 겨울에는 신맥(腎脈)인 석맥(石脈)[또는 영맥(營脈)]이 나타난다.

사시창(舍腮瘡) [병증] : 안이 서양의학 병명으로는 이하선염(耳下腺炎)에 속하며, 위경(胃經)의 풍열·습열이 원인이 되어 관골근하부에서 발생한다.

사신총(四神聰) [경혈] ⇒ 신총(神聰)

사실(邪實) [병리] : 사기가 왕성한 것.

사심(邪心) [사상] : 사상 정심(正心)[주책(籌策), 경륜(經綸), 행검(行檢), 도량(度量)]의 반대말로 함억제복(頷臆臍腹)에서 우리 몸속에 잠재해 있는 불식지지(不息之知)가 박통(博通)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그릇된 성품을 말함.

사심(瀉心) [치법] : 방제 사화통강법(瀉火通降法)에 속함. 심(心)이나 위(胃)의 화열(火熱)을 제거하는 것.

사심신물론(事心身物論) [사상] : 사상 동무 이제마(東武 李濟馬) '격치고(格致藁)'의 본체론적(本體論的) 인식체계인 태극인 심(心), 양의(兩儀)의 심신(心身), 사상(四象)의 사심신물(事心身物)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심신물이란 동무의 철학에서 우주와 자연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말한다. 즉 인간존재에 필요한 요소로서 사원적 심신적 존재인 인간과 존재의 터전으로서의 물, 즉 천지자연과 천지자연 가운데의 생존에서 나타나는 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심신사물론(心身四物論)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인체를 형성하고 있다. 동무는 우주만물의 현상과 인사를 심신사물의 사원구조적 형태로 도식하였고 이를 심신의 사상으로 요약하여 도식하였다.

사안(沙眼) [병증] ⇒ 초창(椒瘡)

사안(絲眼) [병증] : 안이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있는 것.

사암오행한열치법(舍岩五行寒熱治法) [침구] ⇒ 사암침법(舍岩鍼法)

사암음양오행침법(舍岩陰陽五行鍼法) [침구] ⇒

사암침법(舍岩鍼法)
사암침법(舍岩鍼法) [침구] 동 사암오행한열치법(舍岩五行寒熱治法), 사암음양오행침법(舍岩陰陽五行鍼法), 사암침술(舍岩鍼術) : 침구 조선중기 사암도인(舍岩道人)이 창안한 침법. 오수혈(五輸穴)을 음양오행 상생(相生) 상극(相剋) 원리에 입각하여 장부의 허실(虛實)에 따라 영수보사(迎隨補瀉), 염전보사(捻轉補瀉) 법 등을 시행하는 침법.
사암침술(舍岩鍼術) [침구] ⇒ 사암침법(舍岩鍼法)
사약(使藥) [약물] → 군신좌사(君臣佐使)
사역(痧疫) [병증] : 안이 홍역 등의 전염성 질환.
사역(四逆) [병증] ⇒ 사지역랭(四肢逆冷)
사역증(四逆證) [증상] ⇒ 사지역랭(四肢逆冷)
사열(邪熱) [병리] 동 열사(熱邪), 열음(熱淫), 음열(淫熱) : 병리 ① 병인의 하나. 열성(熱性), 양성(陽性)을 특징으로 하는 실증(實證)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발열식조(發熱息粗), 홍종(紅腫), 작통(作痛), 변비(便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② 외사에 의해 생긴 열.
사열(思噎) [병증] : 정신 오열(五噎) 중 하나. 사열이란 심계(心悸), 건망(健忘) 및 눈이 가물거리는 것으로, 이는 모두 근심하거나 성낸 데다 한기(寒氣)가 상부의 흉격으로 침입함으로 인해 발생.
사욕(沙浴) [치법] ⇒ 열사요법(熱沙療法)
사원자(沙苑子) [약물] 동 동질려(潼蒺藜), 사원질려(沙苑蒺藜)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편경황기(扁莖黃芪) *Astragalus complanatus* R. Br.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성숙한 과실. 동속 근연식물로는 화황기(華黃芪) *A. chinensis* L. 등이 있음.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과실이 성숙하였지만 아직 꼬투리가 벌어지지 않았을 때 줄기와 함께 잘라서 햇볕에 말린 후 종자를 취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다시 햇볕에 말려 사용.
사원질려(沙苑蒺藜) [약물] ⇒ 사원자(沙苑子)
사음(四淫) [병리] [병증] : 안이 족부 상하로 발생하는 옹저. 큰 종창(腫瘡)과 같고 붉은 색을 띠며 아프고, 궤양이 있으면서 화농된다.
사인(砂仁) [약물]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 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양춘사(陽春砂) *Amomum villosum* Lour.와 녹각사(綠殼砂) *A. villosum* Lour. var. *xantioides* T. L. Wu et Senjen 또는 해남사(海南砂) *A. longiligulare* T. L. Wu.의 성숙한 과실로 여름과 가을 사이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저온에서 건조하여 사용.
사자(痧子) [병증] ⇒ 마진(麻疹)
사자(斜刺) [침구] : 침구 침을 비스듬히 기울여 피부 표면과 60°정도 되게 침을 기울여 찌르는 방법.
사장(蛇瘴) [병증] ⇒ 표저(瘭疽)
사절(四絶) [병증] : 내과 네 가지 나쁜 병증. 신암번화(腎巖翻花), 실영(失榮), 설감(舌疳), 유암(乳巖).
사정(邪正) [병리] ⇒ 정사(正邪)
사죽공(絲竹空)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23)로서 눈썹 바깥쪽 끝 오목한 곳에 위치.
사증종맥(捨證從脈) [진찰] : 진단 맥상(脈象)과 증상(證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병증(病證)을 분석하여 병의 병리기전을 변증할 때 증상을 참조하지 않고 맥상에 근거하여 치료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옛날에 일부 만성 질병의 증상이 복잡하게 나타날 때 사용하던 변증 원칙의 하나.
사지마목(四肢痲木) [병증] 동 수족마목(手足痲木) : 내과 팔다리의 감각이 둔하거나 없는 증.
사지마비(四肢痲痺) [병증] : 재활 상하지가 양측성으로 운동마비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상해부위는 대뇌, 뇌간, 척수, 말초신경, 근육,

신경접합부 등 어디라도 관계없다.
사지불거(四肢不擧) [증상] ⇒ 사지불수(四肢不收)
사지불수(四肢不收) [증상] 동 사지불거(四肢不擧), 사지불용(四肢不用) : 재활 수족이 마비되거나 연약무력(軟弱無力)해져 활동하기 어려운 것. 대개 중풍 때문이거나, 기허(氣虛)로 혈고(血枯)하거나, 담습(痰濕)이 유체(流滯)됨으로 인해 발생.
사지불용(四肢不用) [증상] ⇒ 사지불수(四肢不收)
사지역랭(四肢逆冷) [병증] 동 사역(四逆), 수족궐랭(手足厥冷), 사역증(四逆證) : 재활 수족이 차가운 것이 주슬부(肘膝部)까지 파급되는 증상. 이 증은 상한소음병(傷寒少陰病)에서 흔히 나타난다.
사지열(四肢熱) [병증] : 내과 팔다리가 불로 지지는 것 같이 달아오르는 증상.
사지종(四肢腫) [증상] : 내과 팔다리가 붓는 증.
사지진전(四肢震顫) [증상] 동 사지추축(四肢抽搐) : 내과 ① 팔다리를 떠는 증상. ② 팔다리의 힘줄이 뻣뻣해지면서 오그라들거나 늘어지는 증상이 번갈아 나며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증.
사지추축(四肢抽搐) [증상] ⇒ 사지진전(四肢震顫)
사진(四診) [진찰] : 진단 망진(望診)·문진(問診)·문진(聞診)·절진(切診)을 이르는 말. 한의학에서는 반드시 사진(四診)을 결합하여 운용하고 참조해야 비로소 전반적인 병세를 이해할 수 있으며, 변증과 치료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사진합참(四診合參) [진찰] : 진단 변증하는 과정에서 망(望)·문(問)·문(聞)·절(切)의 사진(四診)에서 얻은 자료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질병의 병기(病機)가 있는 곳과 한열허실(寒熱虛實)·표본(標本)·완급(緩急)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치료원칙을 세우는 행위.
사천(司天) [운기] 동 사천지기(司天之氣) : 원전 운기학에서 객기(客氣)[천기(天氣)] 중 한해 전반년(前半年)의 기후변화를 주재하는 기(氣)를 말함. 예로 갑자년(甲子年)에는 소음군화지기(少陰君火之氣)가 사천(司天)이 된다.
사천지기(司天之氣) [운기] ⇒ 사천(司天)
사천창(蛇穿瘡) [병증] ⇒ 전요화단(纏腰火丹)
사초(四焦) [사상] : 사상 사상의학에서 인체를 나누어 보는 관점. 사상 장부론은 음양 편차에 따른 사심신물(事心身物)의 사상유형적 요약정신을 인체의 생리구조에 적용시켜 상부, 중상부, 중하부, 하부 등 사초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인체의 생리현상을 설명하였다. 사상의학에서는 직립 보행하는 인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의 사초로 나누고 있다.
사총혈(四總穴) [경혈] : 경혈 경혈(經穴). 명나라 이전의 의가들이 임상을 통해 얻은 4개의 경험 경혈(經穴)을 묶어 이르는 말. 족삼리(足三里), 위중(委中), 열결(列缺), 합곡(合谷)을 말한다.
사태(死胎) [병증] ⇒ 태사복중(胎死腹中)
사태불하(死胎不下) [병증] 동 과기유산(過期流産) : 부인 태아가 모체의 자궁 내에서 사망하여 시일이 경과하여도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
사퇴(蛇退) [약물] ⇒ 사태(蛇蛻)
사투자(斜透刺) [침구] : 침구 한 경혈(經穴)에 침을 비스듬히 기울여 피부 표면과 60°정도 되게 침을 기울여 자입(刺入)하여 다른 경혈에까지 침첨(鍼尖)이 이르는 행위.
사편(斜片) [포제] : 본초 절편(切片)의 하나. 한약재를 30~45°각도로 비스듬하게 자르는 것을 말한다. 약재를 비스듬하게 자르면 보기도 좋고 자른 면이 넓어서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날 수 있으며 다시 자르기도 쉬운 장점이 있다.

사폐(邪閉) [병증] : 안이 풍한외감에 의해 영위(營衛)가 혼란되어 막히게 된 것.
사폐(瀉肺) [치법] 동 사백(瀉白) : 방제 폐내(肺內)에 쌓인 열을 청사(淸瀉)하는 방법.
사피(蛇皮) [약물] ⇒ 사태(蛇蛻)
사하(蛇瘕) [병증] ⇒ 사가(蛇瘕)
사하(瀉下) [치법] ⇒ 하법(下法)
사하법(瀉下法) [치법] ⇒ 하법(下法)
사한사열(乍寒乍熱) [병증] ⇒ 한열왕래(寒熱往來)
사합(四合) [경락] : 경혈 수태양경(手太陽經)과 수소음경(手少陰經)이 경별(經別)을 통하여 서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사향(麝香) [약물] : 본초 사향노루과(Moschidae)에 속한 동물인 난쟁이사향노루 *Moschus berezovskii* Flerove, 산사향노루 *Moschus chrysogaster* Hodgson 또는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Linné 수컷의 사향선 분비물로서 그 내용물을 꺼내어 말린 것을 가루사향이라 하고, 주머니 모양의 사낭(麝囊)을 그대로 잘라내어 말린 것을 주머니사향이라고 한다.
사향초(麝香草) [약물] 동 백리향(百里香)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Celakovski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전초(全草).
사혈(瀉血) [침구] 동 자락(刺絡), 방혈요법(放血療法), 방혈자(放血刺), 사혈법(瀉血法), 자락법(刺絡法), 자락요법(刺絡療法), 자혈요법(刺血療法), 방혈요법(放血療法) : 침구 삼릉침(三稜鍼), 피부침(皮膚鍼) 등의 기구를 써서 병인의 신체상 천표(淺表) 혈락(血絡)을 자파(刺破)하여 소량의 혈액을 방출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사혈(死血) [병리] [병증] ⇒ 어혈(瘀血)
사혈법(瀉血法) [침구] ⇒ 사혈(瀉血)
사화(瀉火) [치법] : 방제 청법(淸法)에 속함. '화(火)'는 열(熱)이 심한 것으로, 사화하는 방법은 단순히 청열(淸熱)하는 약물보다는 맹렬하며, 화는 상염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사화할 때는 반드시 하강하거나 사하(瀉下)하는 치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 화증에는 허실의 구분이 있어, 실화(實火)인 경우는 사열(瀉熱)하고, 허화(虛火)인 경우는 보수(補水)하는데, 사화는 실열화증(實熱火證)에 알맞은 치법으로 항상 청열(淸熱)과 사하(瀉下)하는 약물을 조합하여 그 열을 없애는, 즉 '부저추신(釜底抽薪)' 작용을 한다.
삭맥(數脈) [징후] 동 맥삭(脈數)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脈)이 빠르게 뛰는 것으로 한 번 숨을 쉴 때 5회 이상인 경우를 말함. 주로 열증(熱證)에서 나타난다.
삭목(爍目) [병증] : 안이 눈에 뜨거움을 느끼는 것.
삭월행경(數月行經) [병증] : 부인 월경이 세 달 정도에 한 번씩 내조하면서 불규칙적인 것. 몸이 몹시 실(實)하고 습담(濕痰)이 많은 여성에게서 흔히 보인다.
삭흠(數欠) [증상] : 내과 자주 하품을 하는 증상.
산(散) [제제] ⇒ 산제(散劑)
산(酸) [기타] 동 산미(酸味) : 본초 오미의 하나. 산(酸)은 목미(木味)로서 간(肝)으로 들어가며, 간이 주관하는 미(味)이다. 산미 약물(酸味藥物)은 대개 간경(肝經)으로 들어가 양간(養肝), 유간(柔肝), 완급(緩急) 작용을 하며, 이 밖에도 기혈진액을 수렴하는 작용이 있다.
산(疝) [병증] 동 산기(疝氣), 산병(疝病), 산증(疝證), 산증(疝症) : 내과 ① 간기(肝氣)가 조체(阻滯)하여 고환이 창통(脹痛)·하추(下墜)하는 병증. ② 체강(體腔)의 내용물이 밖으로 돌출되면서 통증이 수반되는 증상이나 증후, 혹은 생식기, 고환(睾丸), 음낭(陰囊) 부위의 병증(病證).
산(痠) [증상] : 내과 관절에 시큰시큰한 감이

ㅅ

있는 것.
산골(山骨) [약물] ⇒ 자연동(自然銅)
산곽(山廓) [진찰] ⇒ 혈륜(血輪)
산귀래(山歸來) [약물] ⇒ 토복령(土茯苓)
산기(疝氣) [병증] ⇒ 산(疝)
산내(山柰) [약물]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 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산내 *Kaem- pferia galanga* L.의 근경으로, 겨울철에 채취하여 씻은 후 잔뿌리를 제거하고 절편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
산두근(山豆根) [약물] 동 고두근(苦豆根)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낙엽 소관목인 광두근(廣豆根) *Sophora subprostrata* Chun et T. Chen.의 근과 근경(根莖)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산람(山嵐) [병리] ⇒ 산람장기(山嵐瘴氣)
산람장기(山嵐瘴氣) [병리] 동 산람(山嵐), 산람지기(山嵐之氣), 장독(瘴毒), 장(瘴), 영남독무(嶺南毒霧), 장기(瘴氣) : 병리 더운 지방의 산림지대에서 습열이 훈증(熏蒸), 울결(鬱結)하여 생기는 일종의 병사(病邪). 자연의 유행성 전염병의 성질에 속하는데 보통은 학질(瘧疾)을 말한다.
산람지기(山嵐之氣) [병리] ⇒ 산람장기(山嵐瘴氣)
산맥(散脈) [징후] : 진단 ① 뿌리가 없는 맥상(脈象)의 하나. 맥(脈)이 부산(浮散)하며 모이지 않는데, 가볍게 누르면 분산되어 산만하고, 중간 세기로 누르면 점차 공허(空虛)해지며, 세게 누르면 뿌리가 없는 것 같은 맥. ② 족태음(足太陰)의 별락(別絡).
산문불폐(産門不閉) [병증] 동 산후옥호불렴(産後玉戶不斂) : 부인 산후에 음도(陰道)의 외구가 닫히지 않는 것을 말함. 대개 기혈이 허약하거나 출산시 산도를 손상하여 발생.
산문퇴(産門頹) [병증] : 부인 산후에 자궁이 수렴되지 않은 것을 포괄하여 말함. 여과비요(女科秘要)에서 "산물(産物)이 수건을 드리워 놓은 것 같아 산문퇴(産門頹)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출산시 지나치게 힘을 써 산후에 자궁 하수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산미(酸味) [기타] ⇒ 산(酸)
산병(疝病) [병증] ⇒ 산(疝)
산비해(山萆薢) [약물] ⇒ 비해(萆薢)
산사(山楂) [약물]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 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및 동속 근연식물의 다 익은 과실로 가을에 채취하여 절단하고 건조한 후 사용.
산수유(山茱萸) [약물] : 본초 층층나무과(山茶萸科 : Cornaceae)에 속한 낙엽소교목인 산수유나무 *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의 성숙한 과실로, 늦은 가을과 초겨울에 과피(果皮)가 홍색으로 변한 것을 채취하여 끓는 물에 약간 삶아 핵인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산시병(産時病) [병증] : 부인 임신과 분만시에 발생하는 질병.
산약(山藥) [약물] : 본초 마과(薯蕷科 : Dioscoreaceae)에 속한 다년생 전요초본(纏繞草本)인 마 *D. batatas* Decne.(=*D. opposita* Thunb.)와 참마 *Dioscorea japonica* Thunb.의 주피(周皮)를 제거한 근경(根莖)으로, 11~12月에 채취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세정한 후 죽도(竹刀)로 외피를 괄거(刮祛)하여 쇄건(曬乾) 또는 홍건(烘乾)한 후 사용.
산어(散瘀) [치법] 동 산어혈(散瘀血) : 방제 활혈거어(活血祛瘀)하는 약물로 어종(瘀腫)된 것을 소산(消散)하는 것.
산어혈(散瘀血) [치법] ⇒ 산어(散瘀)
산예(散翳) [병증] : 안이 예막(翳膜)이 눈동자 내부에서 투출(透出)되어 마치 비늘 모양처럼 흩어지는 것. 어떤 경우는 진하고 어떤 경우는 연하며,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황백색을 띤다.

산욕(産褥) [기타] : 부인 태아, 태반 및 그 부속물을 만출 한 후에 생식기관이 비임신 상태로 회복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기간. 대략 6주~8주가 소요되는데, 옛사람들은 이러한 산욕기를 산후 100일 이내를 말하는 '백일위도(百日爲度)', 산후 1개월을 '소만월(小滿月)', 산후 2개월을 '대만월(大滿月)'로 표현하였다.

산자(散刺) [침구] 동 산침법(散鍼法) : 침구 한 점을 중심으로 성형(星形), 혹은 불규칙하게 점자(點刺)하는 것.

산자고(山慈姑) [약물] 동 모자고(毛慈姑) : 본초 난과(蘭科 : Orchid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약난초(杜鵑蘭) *Cremastra appediculata* (D.Don) Makino의 가인경(假鱗莖)으로, 5~7月에 가구경(假球莖)을 채취하여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독산란(獨蒜蘭) *Pleione bulbocodioides* (Franch.) Rolfe 혹은 운남독산란(雲南獨蒜蘭) *Pleione yunnanensis* Rolfe도 약용하며 빙구자(氷球子)라 한다.

산제(散劑) [제제] 동 산(散) : 방제 한약 제형의 하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한약재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것을 말한다. 산제는 복용 후 흡수가 탕제보다는 느리나 환제보다는 약효가 빨리 나타나며, 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필요에 따라 쓰는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만들기도 쉬운 장점이 있다. 주로 내복약을 산제로 만들며 일부 외용약도 산제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한 가지 약재로 된 산제는 약재를 가루내서 해당한 규격의 체로 치면 되고, 여러 가지 약재로 된 산재는 먼저 개별 약재들을 가루내서 처방대로 합하여 만든다.

산조인(酸棗仁) [약물] : 본초 갈매나무과(鼠李科 : Rhamn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묏대추(酸棗) *Zizyphus jujuba* Mill(=*Z. vulgaris* Lamarck var. *spinosus* Bge.)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 중국에서는 산조(酸棗) *Z. jujuba* Mill. var. *spinosa* (Bge.) HU ex H. F. Chou를 기원으로 함. 가을에 성숙한 열매를 따서 과육(果肉)을 제거하고 과핵(果核)을 취하여 절구에 찧어 종자만 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

산증(疝症) [병증] ⇒ 산(疝)

산증(疝證) [병증] ⇒ 산(疝)

산침법(散鍼法) [침구] ⇒ 산자(散刺)

산통(疝痛) [증상] : 내과 산(疝)의 병증에서 나타나는 통증.

산풍안(産風眼) [병증] : 부인 산후에 눈앞이 어지럽고 눈이 벌겋게 짓무르는 것.

산가(疝瘕) [병증] 동 가산(瘕疝) : 내과 비병(脾病)이 신(腎)에 전변(傳變)된 병증.

산후금약(産後禁藥) [기타] : 부인 산후에 복용을 금하는 약물들. 예로부터 산후에 기가 순행하지 않더라도 지실 후박과 같은 기를 소모시키는 약의 복용을 금하고, 상식(傷食)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황 삼릉 봉출을 금하며, 열이 나는 경우에도 황금 연교 치자 황백을 금하고, 7일 이내에는 지황 작약을 금하고, 혈괴(血塊)가 있어도 우슬 봉출 소목 등을 금하고, 대변불통하더라도 대황 망초를 금한다고 하였다.

산후로(産後癆) [병증] ⇒ 욕로(蓐勞)

산후병(産後病) [병증] : 부인 신산후(新産後)나 산욕기에 산모에게 발생하는 분만이나 산욕과 관련된 질병. 신산후(新産後)는 고대에는 산후 1개월 이내를 말하였으나 최근에는 분만 후 7일 이내를 가리킨다. 산후병은 다허(多虛), 다어(多瘀)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정거사(扶正祛邪), 화어법(化瘀法)을 위주로 치료.

산후삼급(産後三急) [병증] : 부인 산후에 나타나는 구토, 도한, 설사를 가리킴. 산후 과다한 출혈로 인해 혈허(血虛)한 상태에서 이러한 질병에 의해 진액이 더욱 손상되고 음혈(陰血)이 폭상(暴傷)하게 되므로 양기가 쉽게 허탈하게 되는 산후의 위급한 병증을 말한다.

산후삼병(産後三病) [병증] : 부인 산후에 나타나는 경(痙), 울모(鬱冒), 대변난(大便難)을 말함. 경은 근병이고, 울모는 신병(神病)이고, 대변난은 액병(液病)이지만 모두 산후 혈허한 상태에서 더욱 망혈상진(亡血傷津)하게 되어 발생하는 산후의 위급한 병증이다.

산후삼심(産後三審) [진찰] : 부인 이는 산후병의 진단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 소복통(小腹痛)의 여부로 오로의 유무를 검증하고, 대변통(大便通)과 불통(不通)으로 진액의 성쇠를 판단하고, 유즙행(乳汁行)과 불행(不行) 및 음식다소(飮食多少)로 위기(胃氣)가 충분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산후삼충(産後三衝) [병증] : 부인 산후에 오로가 배출되어야하나 배출되지 않고 역란(逆亂)하여 패혈(敗血)이 충심(衝心), 충폐(衝肺), 충위(衝胃)함으로써 발생하는 세 가지 위중한 증상.

산후삼탈(産後三脫) [병증] : 부인 기탈(氣脫), 혈탈(血脫), 신탈(神脫)을 말함. 명대(明代) 조정관(趙貞觀)은 "산후에 출혈이 멎지 않는 것을 혈탈이라 하고, 호흡이 짧아 천(喘)과 같은 경우를 기탈이라하고, 망언망견(妄言妄見)하는 것을 신탈이라고 한다."하였다. 산후에 기가 혈을 따라 빠져나가 순백(唇白), 구개(口開), 수살(手撒), 궐랭(厥冷)하고, 육맥이 미세하여 끊어질듯 한 경우도 기탈이라고 하였다.

산후소변불통(産後小便不通) [병증] ⇒ 산후융폐(産後癃閉)

산후여혈분심(産後餘血奔心) [병증] 동 산후혈분(産後血奔) : 부인 산후에 허화(虛火)가 상염(上炎)하고 오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화(火)를 따라 상역(上逆)하여 여혈(餘血)이 심(心)에 들어가 심중(心中)이 비정상적으로 번민(煩悶)하고 구갈(口渴)이 멎지 않는 것.

산후옥호불렴(産後玉戶不斂) [병증] ⇒ 산문불폐(産門不閉)

산후욕로(産後褥癆) [병증] ⇒ 욕로(蓐勞)

산후울모(産後鬱冒) [병증] : 부인 산후에 실혈(失血)하고 한출(汗出)이 과다한데 다시 한사(寒邪)에 감촉되어 유발되는 증상으로 분만 후 및 산욕기의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며, 주로 구불능식(嘔不能食)하고 대변이 굳으며 두한출(頭汗出)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비록 두훈안화(頭暈眼花)하지만 산후혈훈(産後血暈)과는 달리 신지(神志)가 오히려 맑고 오로는 정상인 것이 특징이다.

산후유분(産後遺糞) [병증] 동 산후유분증(産後遺糞症) : 부인 출산이후 대변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는 평소 비위가 허한(虛寒)한데다 산후에 중기가 더욱 허약해짐으로 인해 신(腎)의 개합(開闔)이 실조되어 산후에 유분(遺糞)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후유분증(産後遺糞症) [병증] ⇒ 산후유분(産後遺糞)

산후유즙부족(産後乳汁不足) [병증] ⇒ 유즙불행(乳汁不行)

산후유즙불행(産後乳汁不行) [병증] ⇒ 유즙불행(乳汁不行)

산후유즙자출(産後乳汁自出) [병증] : 부인 산후나 포유기 동안에 영아가 빨지 않아도 유즙이 저절로 유출되는 경우를 말함. 기혈이 왕성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기허(氣虛)하여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

산후유취열(産後乳吹熱) [병증] : 부인 산후 수유기에 유즙축적에 의해 유방울혈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초래되어 체온이 상승되면서 유방통증이 나타나는 것.

산후융폐(産後癃閉) [병증] 동 산후소변불통(産後小便不通) : 부인 신산후(新産後) 6~8시간에 산모가 배뇨가 곤란하고 소변이 방울져 떨어지며 심하면 폐색하여 불통하고 소복(小腹)이 창급동통(脹急疼痛)한 경우를 말함. 이는 산후 3일 내에 흔히 보이며 산욕기에도 발생한다. 방광 내 소변이 저류하는 특징이 있고 소변

생성 장애로 인한 요소(尿少)나 무뇨(無尿)와는 다르므로 반드시 소복창급동통(小腹脹急疼痛)을 동반한다.

산후음식(産後陰蝕) [병증] ⇒ 음식(陰蝕)

산후음탈(産後陰脫) [병증] ㊐ 산후음하탈(産後陰下脫) : 부인 음정(陰挺)과 같은 의미로 자궁하수에 해당. 또한 산모가 분만할 때 포락(胞絡)이 손상되거나 방로(房勞)로 인해 음호가 열려 닫히지 않고, 심하면 종통(腫痛)하면서 소변임리(小便淋漓)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함.

산후음하탈(産後陰下脫) [병증] ⇒ 산후음탈(産後陰脫)

산후정지이상(産後情志異常) [병증] : 부인 출산 후에 불안, 긴장, 우울, 민감, 슬픔, 감정의 불안정, 분노 등의 정서적 변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충분히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산후조리(産後調理) [치법] ⇒ 한방산후관리(韓方産後管理)

산후취유(産後吹乳) [병증] ⇒ 취유(吹乳)

산후파상풍(産後破傷風) [병증] ㊐ 욕풍(褥風) : 부인 산후에 풍사(風邪)가 손상된 창구(瘡口)나 피육(皮肉)으로 침입하여 각궁반장(角弓反張), 구금불개(口噤不開) 증상이 발생하는 것.

산후패혈상충증(産後敗血上衝證) [변증] : 부인 산후에 어혈이 남아 있어서 역상(逆上)하여 나타나는 증상. 충심(衝心) 할 경우 정지착란(情志錯亂), 전광(癲狂)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충위(衝胃) 할 경우 포민(飽悶), 구오(嘔惡), 복부팽만동통(腹部膨滿疼痛)이 발생하며, 충폐(衝肺)할 경우 흉민번조(胸悶煩躁), 면적기급(面赤氣急), 구역(嘔逆), 비뉵(鼻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산후풍(産後風) [병증] : 부인 산욕기에 나타나는 관절이나 지체의 동통, 마목(痲木), 중착(重着), 산초(痠楚), 냉감(冷感) 등의 병증. 비증(痺證)과 비슷하지만 다만 병이 산후에 있고 산욕기의 생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특징. 파상풍과 같은 산후풍경(産後風痙), 경련을 주소로 하는 경풍의 일종인 산후경치(産後風痓) 등의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산후편신동통(産後遍身疼痛)의 범주에서 주로 설명되고 있다.

산후허로(産後虛勞) [병증] ⇒ 욕로(蓐勞)

산후허리(産後虛羸) [병증] ⇒ 욕로(蓐勞)

산후혈기통(産後血氣痛) [병증] : 부인 산후에 어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복통, 신열(身熱)이 발생하는 것.

산후혈분(産後血奔) [병증] ⇒ 산후여혈분심(産後餘血奔心)

살충(殺蟲) [치법] ⇒ 구충법(驅蟲法)

살혈심통(殺血心痛) [병증] : 내과 피를 많이 흘려 일어난 심통.

삼간(三間)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3)로서 수목혈(兪木穴)에 해당하고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검지 손허리손가락 관절(본절) 뒤 노쪽(요골측) 손바닥과 손등의 경계면에서 오목한 곳에 위치.

삼관(三關) [진찰] : 진단 소아 ① 소아의 진단에 쓰이는 손가락의 부위. 소아의 지문이 나타나는 집게손가락 안쪽의 3개 부위인 풍관(風關), 기관(氣關), 명관(命關)을 말한다. → 진지문(診指紋), 소아지문(小兒指紋), 호구삼관(虎口三關) ② 촌구(寸口)를 맥진(脈診)하는 촌(寸)·관(關)·척(尺) 세 부위의 맥진부위를 가리킴.

삼릉(三稜) [약물] : 본초 흑삼릉과(黑三稜科 : Spsrgan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흑삼릉 *Sparganium stoloniferum* Buch. Ham.의 괴경(塊莖)으로, 가을과 겨울에 괴경을 캐어 경엽(莖葉)과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세정(洗淨)한 다음 외피를 깎아내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삼릉침(三稜鍼) [기구] ㊐ 봉침(鋒鍼) : 침구 침

ㅅ

끝이 삼각추 모양으로 생기고 침 날이 세모난 침. 사혈(瀉血)할 때 쓴다.
삼리(滲利) [치법] ⇒ 담삼이습(淡滲利濕)
삼리발(三里發) [병증] : 안이 슬안하(膝眼下) 3촌 외측 족삼리혈(足三里穴)[위경(胃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삼림요법(森林療法) [치법] : 재활 숲이 가진 여러 가지 보건적, 휴양적 기능을 살려 이것을 질병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요법.
삼백육십오회(三百六十五會) [경혈] : 경혈 체내에 있는 경혈(經穴)을 통틀어 이른 말. 회(會)는 혈위(穴位)를 말한다. 인체에는 365개의 혈위가 있는데, 이곳은 경락기혈(經絡氣血)이 출입하고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뜻한다.
삼백초(三白草) [약물] : 본초 삼백초과(三白草科 : Sauru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Baill.의 뿌리와 전초(全草)로 7~8월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
삼부(三部) [병리] [해부] [진찰] : 진단 ① 촌(寸)·관(關)·척(尺)을 가리킴. ② 병이 침입하는 세 부위로서 장부(臟腑)·상부(上部)·하부(下部)를 가리킴. ③ 신체의 상(上)·중(中)·하(下) 세 부위를 가리킴.
삼부맥(三部脈) [진찰] : 진단 ① 촌구(寸口)의 촌(寸)·관(關)·척(尺) 세 부위의 맥. → 촌관척(寸關尺) ② 인영(人迎)·촌구(寸口)·부양(趺陽) 등 세 부위에서 나타나는 맥.
삼부진법(三部診法) [진찰] : 진단 인영(人迎)·촌구(寸口)·부양(趺陽)의 세 부위에서 맥을 보는 방법. → 삼부맥(三部脈)
삼비(三痺) [병증] : 내과 행비(行痺), 통비(痛痺), 착비(着痺)를 지칭. 풍·한·습 사기의 각기 편승한 상태에 따라 나눈 것이다.
삼설(滲泄) [치법] ⇒ 담삼이습(淡滲利濕)
삼소(三消) [병증] : 내과 소갈병(消渴病)인 상소(上消), 중소(中消), 하소(下消)의 합 칭(稱).
삼습(滲濕) [치법] ⇒ 담삼이습(淡滲利濕)
삼양(三陽) [경락] 동 삼양경(三陽經), 삼양맥(三陽脈), 삼양락(三陽絡) : 경혈 ① 삼음삼양(三陰三陽) 중 태양(太陽)을 달리 표현한 말. ② 수족(手足)의 태양경(太陽經). ③ 소양(少陽), 양명(陽明), 태양(太陽)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삼양경(三陽經) [경락] ⇒ 삼양(三陽)
삼양락(三陽絡) [경락] ⇒ 삼양(三陽)
삼양맥(三陽脈) [경락] ⇒ 삼양(三陽)
삼양병(三陽病) [병증] : 병리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의 총칭.
삼양열(三陽壅) [병증] : 병리 대장, 소장, 방광의 열결(熱結)로 인해 음식불하(飮食不下) 종상부출(從上復出) 이변불통(二便不通)하고 맥홍삭유력(脈洪數有力)한 병증.
삼양합병(三陽合病) [병증] : 병리 태양(太陽), 소양(少陽), 양명(陽明) 등 삼양경(三陽經)에 동시에 병이 생긴 것.
삼음(三陰) [경락] 동 삼음맥(三陰脈) : 경혈 ① 삼음삼양(三陰三陽) 중 태음(太陰)을 달리 표현한 말. ② 수족(手足)의 태음경(太陰經). ③ 궐음(厥陰), 소음(少陰), 태음(太陰)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삼음교(三陰交)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6)로서 음양이총혈(陰陽二總穴)에 해당.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위 3촌으로 정강뼈(경골; tibia) 뒷면에 위치.
삼음맥(三陰脈) [경락] ⇒ 삼음(三陰)
삼음병(三陰病) [병증] : 병리 태음병, 소음병, 궐음병의 총칭.
삼인(三因) [병리] : 병리 고대에 세 종류의 병인을 합칭(合稱)한 것. 내인(內因), 외인(外因), 불내외인(不內外因)을 말함.
삼일학(三日瘧) [병증] : 내과 삼일에 한 번 발하는 학질.
삼자(三刺) [침구] ⇒ 제자(齊刺)

삼재(三才) [경혈] : 경혈 백회(百會)는 두정(頭頂)에 있어 천(天)에 상응하고 기를 주관하며, 용천(湧泉)은 족부(足部)에 있어 지(地)와 상응하고 정(精)을 주관하며, 선기(璇璣)는 흉부에 있어 인(人)과 상응하고 신(神)을 주관한다. 이 세 가지를 삼재라고 함.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 [약물] ⇒ 음양곽(淫羊藿)

삼초(三焦) [생리] 동 고부(孤府), 고부(孤腑), 원기지별(原氣之別), 원기지별사(原氣之別使) : 생리 ① 모든 기를 주관하고 수도(水道)를 소통시키는 무형의 장부. ② 인체를 상초·중초·하초로 나눈 세 부분. ③ 외부(外腑)·고부(孤腑).

삼초기기불리증(三焦氣機不利證) [병리] : 병리 삼초 부위 중 간, 비, 폐, 위장, 방광의 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증. 병변 부위 장부의 기능이상이 생기는 외에 병변 부위에 항상 민(悶), 창(脹), 통(痛) 등의 기체(氣滯) 증상이 나타난다.

삼초변증(三焦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주로 온병(瘟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온열병(溫熱病)이 전변되는 상황을 상초·중초·하초 3단계로 나누고, 변증시치의 요강으로 삼은 것이다.

삼초병(三焦病) [변증] : 내과 삼초(三焦)의 병(病). 상초(上焦) 기능 이상으로 천만(喘滿), 중초(中焦) 기능 이상으로 중만(中滿), 하초(下焦) 기능 이상으로 종만(腫滿)이 주로 나타난다.

삼초비(三焦秘) [병증] : 내과 삼초(三焦)가 조화롭지 못해 흉격비민(胸膈痞悶)하고, 음식 소화가 더디며, 장위조삽(腸胃燥澁)하여 대변비결(大便秘結)한 병증.

삼초수(三焦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22)로서 현추(懸樞)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삼초실(三焦實) [병증] : 병리 삼초에 사기가 성한 것. 이명(耳鳴), 인후종대(咽喉腫大)하고, 어깨와 팔이 아프면서 귀 뒤로부터 눈초리에 이르는 부위까지 아프며 머리에 달아오르는 감이 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발생한다.

삼초실열(三焦實熱) [병증] : 병리 ① 상·중·하 삼초에서 동시에 실열(實熱) 병증이 나타나는 것. ② 온병으로 기분(氣分)에 실열(實熱)이 만연한 일종의 증형(證型).

삼초약(三焦約) [병증] 동 삼초약병(三焦約病) : 내과 ① 대소변을 볼 수 없는 병증. ②사기(邪氣)가 삼초(三焦)를 제약(制約)하여 소복통(小腹痛) 종부득소변(腫不得小便)하는 병증.

삼초약병(三焦約病) [병증] ⇒ 삼초약(三焦約)

삼초옹(三焦癰) [병증] : 안이 삼초경의 모혈(募穴)인 석문혈(石門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삼초해(三焦咳) [병증] : 내과 기침이 나면서 배가 그득해지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병증.

삼칠(三七) [약물] 동 전삼칠(田三七), 삼칠근(三七根), 전칠(田七), 금불환(金不換) : 본초 오가과(五加科 : Ara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삼칠 *Panax notoginsengs* (Burk) F. H. Chen 의 뿌리. 가을에 꽃이 피기 전에 캐어 씻은 후 주근(主根)과 지근(支根) 및 경기(莖基)를 나누어 말린다. 지근을 '근조(筋條)', 경기를 '전구(剪口)'라 한다.

삼칠근(三七根) [약물] ⇒ 삼칠(三七)

삼품(三品) [기타] : 본초 神農本草經에서의 약물 분류법. 독성이 전혀 없어 많이 먹거나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상품(上品)이고, 독성이 없거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 치병(治病), 보허(補虛)하는 작용이 있는 것은 중품(中品)이며, 유독(有毒)하거나 성질이 비교적 강하여 장기간 복용할 수 없으나 한열사기(寒熱邪氣)를 제거하고 적취(積聚)된 것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품(下品)으로 분류하였다. 구분하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상품 약 중에 맹독한 약

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삼합(三合) [운기] : 원전 대운(大運)[객운(客運)]과 사천(司天)·년지(年支)의 오행 속성이 상합(相合)하는 것.

삽(澁) [징후] ⇒ 삽맥(澁脈)

삽(揷) [침구] 동 삽법(揷法) : 침구 침첨(鍼尖)이 표피(表皮)를 천투(穿透)한 후 침신(鍼身)을 피하 혹은 근육내로 삽입하는 방법.

삽맥(澁脈) [징후] 동 색맥(濇脈), 삽(澁), 맥삽(脈澁)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의 왕래가 매끄럽지 않아 마치 가벼운 칼로 대나무를 긁는 듯한 것.

삽법(揷法) [침구] ⇒ 삽(揷)

삽설(爨舌) [병증] : 안이 혀가 갑자기 창대(脹大)하여 단단하고 입안이 가득 찬 것 같으며 때때로 기절(氣絶)하기도 하는 병증.

삽예(澁翳) [병증] 동 삽예내장(澁翳內障) : 안이 눈동자 속의 렌즈체가 흐려지는 내장 눈병 중 하나. 안질을 앓는 초기에 마치 옅은 연무(烟霧)가 낀 것처럼 몽롱하다가 점차 실명하는데 사람과 사물을 보지 못하고 삼광(三光)만 변별하게 된다. 예가 마치 엉긴 유지(油脂) 같은 색을 띠고 눈동자가 단정하면 마땅히 금침(金鍼)을 사용한다.

삽예내장(澁翳內障) [병증] ⇒ 삽예(澁翳)

삽정(澁精) [치법] 동 섭정(攝精) : 방제 치료법의 하나. 수삽약(收澁藥)으로 몽정(夢精), 활정(滑精), 누정(漏精), 요정(尿精) 등의 유정(遺精)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삽제(澁劑) [약물] : 방제 십제(十劑)의 하나. 수렴고삽(收斂固澁)하는 약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精氣)를 수렴하는 작용을 한다.

삽통(澁痛) [증상] : 내과 배뇨시 이물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통증을 수반하는 증상.

상(霜) [포제] : 본초 한약 포제품(炮製品)의 하나. 한약 포제품의 성상(性狀)이 서리처럼 흰 가루 모양을 띨 때를 상(霜)이라 하며, 해당 한약재의 이름에 '상(霜)'을 붙여서 부른다. 예를 들면 파두의 기름을 짜낸 것을 파두상이라고 한다.

상거허(上巨虛)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7)로서 대장하합혈(大腸下合穴)에 해당하고 족삼리(足三里) 아래 3촌에 위치.

상검하수(上瞼下垂) [병증] 동 검폐(瞼廢), 상포하수(上胞下垂), 침풍(侵風) : 안이 안검이 마목불인(痲木不仁)하여 들어 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는 것.

상포하수(上胞下垂) [병증] ⇒ 상검하수(上瞼下垂)

검폐(瞼廢) [병증] ⇒ 상검하수(上瞼下垂)

상곡(商曲)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7)로서 하완(下脘) 양쪽 5푼에 위치.

상골(傷骨) [병증] 동 골상(骨傷) : 재활 뼈 조직이 손상된 것.

상과(傷科) [기타] : 재활 질타손상(跌打損傷)을 진단, 치료하는 전문분야. 상과의 진단과 치료범위는 금창(金瘡), 질타손상(跌打損傷), 골절(骨折) 및 관절탈구(關節脫臼), 충수교상(蟲獸咬傷) 등을 포괄한다.

상관(上關) ① [경혈] 동 객주(客主), 객주인(客主人)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로서 하관(下關) 수직 위로, 광대활(협골궁; zygomatic arch) 윗면의 오목한 곳으로 입을 벌렸을 때 오목한 부위가 생기는 곳에 위치. ② [진찰] ⇒ 풍관(風關)

상구(商丘)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5)로서 경금혈(經金穴)에 해당하고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꼭지와 발배뼈 결절(주상골결절; tuberosity of navicular) 사이의 중간에 위치.

상규(上竅) [생리] : 생리 안(眼), 이(耳), 구(口), 비(鼻)를 가리킴.

상극(相克) [기타] : 생리 ① 오행학설 중 상호 제약·조절의 관계 ② 목극토(木克土)·토극수(土克水)·수극화(水克火)·화극금(火克金)·금극목(金克木).

상근(傷筋) [병증] 동 근상(筋傷), 근상증(筋傷症), 근상증(筋傷證) : 재활 기건(肌腱)·기육(肌肉) 등 연조직이 손상된 것. 대부분 질타(跌打)·유좌(扭挫)로 인해 야기되며, 국소가 동통(疼痛)·청자(青紫)·종창(腫脹)하고, 심지어 관절의 굴신이 불리하게 된다.

상기(傷氣) [병증] : 재활 외상(外傷) 후에 기폐(氣閉)·기체(氣滯)로 인해 발생하는 병. 대개 체내의 기기(氣機)가 가로막히거나, 혹은 응체되어 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상기생(桑寄生) [약물] 동 상상기생(桑上寄生), 광기생(廣寄生) : 본초 겨우살이과(桑寄生科 : Loranthaceae)에 속한 상록 기생소관목인 뽕나무겨우살이 *Taxillus chinensis* (DC.) Danser. 의 대엽(帶葉)한 경지(莖枝)인데, 겨울부터 다음 해 봄 사이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거나 증건(蒸乾)하여 사용.

상기십법(相氣十法) [진찰] ⇒ 망색십법(望色十法)

상기증(上氣證) [병증] : 내과 내쉬는 숨이 많아지고 들이쉬는 숨은 적어지면서 숨이 몹시 가쁜 병증.

상탑수(上搭手) [병증] 동 좌우천(左右串) : 안이 폐수혈(肺俞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상렴(上廉)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9)로서 양계(陽谿)와 곡지(曲池)를 잇는 가상선 상에서 팔꿈치 횡문 아래 3촌에 위치.

상료(上髎)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1)로서 첫 번째 엉치뼈 구멍(천골공; sacral foramen)에 위치.

상륙(商陸) [약물] 동 장불로(長不老) : 본초 자리공과(商陸科 : Phytolacc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자리공 *Phytolacca esculenta* V. Houtt. 또는 미국자리공 *P. americana* L.의 근으로, 가을부터 다음 봄 사이에 채취하여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절편(切片)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상률(橡栗) [약물] ⇒ 상실(橡實)

상마옹(上馬癰) [병증] : 안이 좌측둔부 둔육부(臀肉部) 습문중(褶紋中)[족태양방광경]에서 발생하는 옹저.

상맥(常脈) [징후] ⇒ 평맥(平脈)

상명(喪明) [병증] : 안이 시력에 손상을 입음.

상모(相侮) [기타] : 생리 오행학설 중 상극의 역행(逆行).

상반(相反) [기타] ⇒ 상반배오(相反配伍)

상반맥(相反脈) [진찰] : 진단 서로 반대되는 맥상(脈象)을 가리킴. 부맥(浮脈)과 침맥(沈脈), 지맥(遲脈)과 삭맥(數脈), 허맥(虛脈)과 실맥(實脈), 장맥(長脈)과 단맥(短脈), 활맥(滑脈)과 삽맥(澁脈), 홍맥(洪脈)과 세맥(細脈), 긴맥(緊脈)과 완맥(緩脈), 결맥(結脈)과 촉맥(促脈) 등이 서로 상반맥이 된다.

상반배오(相反配伍) [기타] 동 상반(相反) : 방제 상오(相惡)·상반(相反)은 '相反者 兩不相合也 相惡者 奪我之能也 勿用相惡相反者'라 하였듯이 배오(配伍)되는 상대 약물들이 상호간의 약효를 빼앗아 무효화시키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로, 방제 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이 드물다.

상발배(上發背) [병증] 동 비두옹(脾肚癰) : 안이 대추, 도도, 신주혈에서 발생하는 옹저.

상백피(桑白皮) [약물] : 본초 뽕나무과(桑科 : Morac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뽕나무 *Morus alba* L. 및 동속 근연식물의 근피(根皮)로, 겨울에 근피를 채취하여 코르크층을 제거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상부지관(相傅之官) [해부] [생리] ⇒ 폐(肺)

상사배오(相使配伍) [기타] : 방제 상사(相使)란

두 가지 약물이 배오(配伍)될 때 한 약물이 다른 약물의 주작용을 보조하는 배합관계를 말함. 두 가지 약물은 서로 주종관계(主從關係)를 이루는데, 이는 주약(主藥)의 효과를 상승시키거나 증대시키기 위하여 배합되는 경우로서 방제 구성에 상수(相須)와 더불어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상산(傷産) [병증] : 부인 ① 임신하여 산달이 다 차지 않아 움직이다가 손상됨으로 인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혹은 촉진제를 너무 일찍 사용하거나, 혹은 산모가 너무 일찍 힘을 써서 태가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 [양자건(楊子建)의 십산론(十産論)]. ② 산달이 지나 출산하는 것 [왕가모(王嘉謨)의 태산집췌(胎産輯萃)].

상산(常山) [약물] 동 황상산(黃常山) : 본초 범의귀과(虎耳草科 : Saxifrag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황상산 *Dichroa febrifuga* Lour. (=*Orixa japonica* Thunb)의 근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세정(洗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기타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미과(薔薇科)의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의 근을 목상산(木常山), 나마과(蘿摩科)의 백미꽃 *Cynanchum atratum*의 근을 초상산(草常山), 운향과(芸香科)의 일본상산 *Orixa japonica*의 근을 취상산(臭常山), 마편초과(馬鞭草科)의 누리장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의 근을 취오동(臭梧桐) 혹은 해주상산(海州常山)이라 부르며 대용한다.

상상기생(桑上寄生) [약물] ⇒ 상기생(桑寄生)

상색(常色) [징후] ⇒ 정색(正色)

상생(相生) [기타] : 생리 ① 오행학설 중 상호 자생(滋生)·촉진(促進) 관계. ② 목생화(木生火)·화생토(火生土)·토생금(土生金)·금생수(金生水)·수생목(水生木)

상서(傷暑) [병증] : 내과 하계(夏季)에 서사(暑邪)에 상하여 다한신열(多汗身熱), 심번(心煩), 구갈(口渴), 기조(氣粗), 사지피핍(四肢疲乏), 소변적삽(小便赤澁)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병증.

상석저(上石疽) [병증] : 안이 측경부의 간경(肝經)에서 발생하며 도상(桃狀) 및 이상형태(李狀形態)의 단단한 옹저.

상선(上仙) [기혈] ⇒ 십칠추(十七椎)

상성(上星)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B23)로서 십삼귀혈(十三鬼穴)에 해당하고 이마 쪽 머리카락 경계면 1촌 위 오목한 곳에 위치.

상소(上消) [병증] : 내과 갈이다음(渴而多飮)하고, 구건(口乾) 설적(舌赤) 번갈(煩渴)하는 소갈(消渴)의 일종.

상쇄(相殺) [기타] ⇒ 상쇄배오(相殺配伍)

상쇄배오(相殺配伍) [기타] 동 상쇄(相殺) : 방제 상외(相畏)·상쇄(相殺)는 두 가지 약물이 배합될 때 상대 약물로부터 약효나 성미에 영향을 받거나(相畏), 혹은 상대적으로 배합된 약물에 대하여 성미나 효능에 제약을 미치게 하는 배합관계를 말함. 주로 독성이나 약력이 준열(峻烈)하여 그대로 활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며 법제할 때 많이 응용한다.

상수(相須) [기타] ⇒ 상수배오(相須配伍)

상수(常數) [생리] : 생리 경맥을 운행하는 기혈의 다소를 표현하는 정도.

상수배오(相須配伍) [기타] 동 상수(相須) : 방제 기미 약성이 서로 비슷한 약물이 배합되어 약효가 상승되거나 상가(相加)되는 경우. 방제를 구성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됨.

상수어(上水魚) [병증] : 안이 대퇴함요부 위중혈방(委中穴傍) 습문양초(褶紋兩梢)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종양이 돌기되어 물고기 모양 같다.

상습(傷濕) [병리] : 습사를 감수하여 손상되는 것.

상승(相乘) [기타] : 생리 오행학설 중 상극이 지나쳐 정상적 제약의 정도를 초과하는 관계.

상시화홍법(桑柴火烘法) [침구] 동 상지구(桑枝

灸), 상지구법(桑枝灸法) : 침구 안이 상지(桑枝)를 이용한 뜸 요법. 옹저가 막 생겨 부어 아프고, 단단하면서 헐지 않거나 헐더라도 썩지 않아 새살이 돋지 않으며, 한없이 아픈 경우에 적용한다.

상식(傷食) [병증] 동 식상(食傷), 음식상(飮食傷), 음식소상(飮食所傷) : 내과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거나 마셔 비위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병증.

상식설(傷食泄) [병증] ⇒ 식설(食泄)

상식토(傷食吐) [병증] : 소아 음식을 조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토.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기(胃氣)가 쉽게 상하는데, 위기가 상하면 구토를 하게 된다. 이 병의 증상으로는 자주 시큼하고 쉰내 나는 점액을 토하고 누런 물이나 맑은 침을 토하며, 복창(腹脹)이나 애기(噯氣), 염식 등이 나타난다.

상실(橡實) [약물] 동 상율(橡栗), 상자(橡子) : 본초 참나무과(Fagaceae)에 속한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의 과실.

상심(桑椹) [약물] ⇒ 상심자(桑椹子)

상심자(桑椹子) [약물] 동 상심(桑椹) : 본초 뽕나무과(桑科 : Mor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뽕나무 *Morus alba* L. 및 동속 근연식물의 열매가 봄과 여름에 홍자색을 나타낼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거나 약간 쪄서 말린 것.

상악옹(上顎癰) [병증] 동 현옹(懸癰), 수옹(垂癰) : 안이 후옹(喉癰)의 일종. 상악부[上顎部-구개(口蓋)]에 농종(膿腫)이 돌기하여 혀의 신축이 곤란하며 연하(嚥下)가 불리하고 아울러 발열 등의 전신증상을 수반하는 병증.

상악창(上齶瘡) [병증] : 안이 상악(上顎)에 종창(腫脹)이 누런 좁쌀 모양으로 생기고 입안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상초나 비경(脾經)에 열이 축적되었을 때 발생.

상양(商陽)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로서 정금혈(井金穴)에 해당하고 검지 노쪽(요골측) 손톱뿌리 각에서 1푼 되는 곳에 위치.

상양(傷陽) [병리] : 양기(陽氣)의 손상.

상열(上熱) [병리] : 병리 육음(六淫) 중 화열사(火熱邪)는 염상(炎上)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처럼 열이 염상하는 현상을 상열이라 함. 상열은 크게 실열(實熱)과 허열(虛熱)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실열로 인한 상열은 열사치성(熱邪熾盛)이 위주이므로, 장열(壯熱), 번갈(煩渴), 신혼(神昏), 섬어(譫語), 혹복만창통거안(或腹滿脹痛拒按), 대변폐결(大便閉結), 설홍(舌紅), 태황후조(苔黃厚燥), 맥삭혹홍삭(脈數或洪數) 등이 많이 나타나고, 허열(虛熱)로 인한 상열은 음액허손(陰液虛損)이 위주이므로, 소수(消瘦), 피핍(疲乏), 조열(潮熱), 도한(盜汗), 오심번열(五心煩熱), 인건(咽乾), 구조불욕음(口燥不欲飮), 설홍강(舌紅絳), 소태혹무태(少苔或無苔), 맥세삭(脈細數) 등이 많이 나타난다.

상열하한(上熱下寒) [병리] : 병리 환자의 상부에는 열증이 나타나고 이와 동시에 하부에는 한증이 나타나는 것. 상열하한증은 병인상(病因上) 한열착잡(寒熱錯雜)으로 말미암고, 병리상으로는 음양지기가 협조하지 못하여 양이 상에서 성하고 음이 하에서 성한 소치이다.

상엽(桑葉) [약물] 동 경상상엽(經霜桑葉) : 본초 뽕나무과(桑科 : Mor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뽕나무 *Morus alba* Linné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잎.

상엽황(桑葉黃) [병증] : 내과 황반(黃胖)과 같은 뜻. 온몸의 피부가 누렇게 되고 영양상태가 나빠지며 얼굴과 다리가 부어오르고 나른해하는 병증.

상영향(上迎香) [기혈] 동 비통(鼻通)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콧방울고랑(비익구; Alar groove of external nose) 상단(上端)에 위치.

상오(相惡) [기타] ⇒ 상오배오(相惡配伍)

상오배오(相惡配伍) [기타] 동 상오(相惡) : 방제

ㅅ

상오(相惡)·상반(相反)은 '相反者 兩不相合也 相惡者 奪我之能也 勿用相惡相反者'라 하였듯이 배오되는 상대 약물들이 상호간의 약효를 빼앗아 무효화시키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로, 방제 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이 드물다.

상완(上脘)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3)로서 배꼽 위 5촌에 위치.

상외(相畏) [기타] ⇒ 상외배오(相畏配伍)

상외배오(相畏配伍) [기타] 동 상외(相畏) : 방제

상외(相畏)·상쇄(相殺)는 두 가지 약물이 배합될 때 상대 약물로부터 약효나 성미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배합된 약물에 대하여 성미나 효능에 제약을 미치게 하는 배합관계로서 주로 독성이나 약력이 준열(峻烈)하여 그대로 활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며 법제할 때 많이 응용한다.

상위(傷胃) [병증] : 내과 음식대포(飮食大飽)한 후에 위(胃)가 냉(冷)하여 소화시키지 못하며, 복통(腹痛) 번민(煩悶)하는 병증.

상유식사(傷乳食瀉) [병증] : 소아 젖이나 음식을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설사. 젖이나 음식을 조절하지 않아 비위가 손상되면 운화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장명(腸鳴), 동통제규(疼痛啼叫), 구갈요적(口渴尿赤)하고 대변에서 비리고 퀴퀴한 냄새가 나며 젖이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섞여 나온다.

상유토(傷乳吐) [병증] : 소아 젖에 상해서 발생한 구토.

상음(傷陰) [병리] : 진음(眞陰)이 손상된 것.

상자(橡子) [약물] ⇒ 상실(橡實)

상장부(傷臟腑) [병증] : 재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내장 손상의 총칭. 임상에서는 흉협부 및 복부의 내장손상이 흔히 보이며 각 장부마다 상이한 손상 특징을 가진다.

상절(傷折) [병증] ⇒ 골단(骨斷)

상정(傷精) [병리] 동 정상(精傷) : 무절제한 성교, 중병(重病), 혹은 구병(久病)으로 야기된 정기쇠약이나 정혈의 소모.

상제(相制) [기타] : 원전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사물 간에 일어나는 제어관계. 상극(相克)과 의미가 유사.

상주(傷酒) [병증] 동 주상(酒傷) : 내과 술을 지나치게 마셔 생긴 병증.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속이 메스꺼우면서 토하고 번조증(煩躁症)이 나며, 심하면 손과 발이 떨리거나 오그라들며 혼수상태에 빠짐.

상지(桑枝) [약물] 동 눈상지(嫩桑枝) : 본초 뽕나무과(桑科 : Mor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뽕나무 *Morus alba* L.의 수지(樹枝)인데, 늦은 봄과 초여름에 어린 가지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상지구(桑枝灸) [침구] ⇒ 상시화홍법(桑柴火烘法)

상지구법(桑枝灸法) [침구] ⇒ 상시화홍법(桑柴火烘法)

상지마비(上肢痲痺) [병증] : 재활 상지가 마비되는 것.

상진(傷津) [병리] : 진액이 손상된 것.

상진모액증(傷津耗液證) [병증] ⇒ 진액휴손증(津液虧損證)

상찬(上竄) [증상] 동 목상찬(目上竄), 양목상시(兩目上視) : 내과 양 안구가 위로 향하는 증상.

상초(上焦) [생리] [사상] : 생리 ① 인후에서 횡격막까지의 심폐가 위치하는 부위. ② 영위기의 운행을 담당하는 심폐에 원기(元氣)를 공급·조절하는 기능.

상태(傷胎) [병증] : 부인 태아가 손상된 것. 출산에 임박하여 양수가 터지지 않았음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태가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표초(桑螵蛸) [약물] 동 당랑소(螳螂巢), 단표초(團螵蛸) : 본초 사마귀과(螳螂科 : Mantidae)에 속한 곤충인 사마귀 *Paratenodara*

sinensis De Saussure, 좀사마귀 *Statilia maculata* Thunb. 및 넓은배사마귀 *Hierodula patellifera* Serville의 난초(卵鞘)로,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채취하여 나무가지를 제거하고 대바구니에 넣어 증(蒸)하여 충란을 죽인 다음 쇄건(曬乾)한 후 사용.

상품(上品) [기타] : → 삼품(三品)

상풍(傷風) [병증] : ① 풍사가 표에 침입하여 발생한 외감경증(外感輕症)의 일종. ② 상한병인 태양중풍. ③ 풍사를 감수하여 발생한 일종의 외감열병.

상하배혈법(上下配穴法) [침구] : 침구 상지(上肢)와 요이상(腰以上)의 혈(穴)과, 하지(下肢)와 요이하(腰以下)의 혈(穴)을 배합하는 배혈법.

상한(傷寒) [병리] 동 상한병(傷寒病) : 병리 좁은 의미로는 難經 58難에서 언급한 5종 상한[중풍(中風), 상한(傷寒), 습온(濕溫), 열병(熱病), 온병(溫病)] 중의 하나로서 상한을 지칭하며, 증후학상으로는 傷寒論 3조문의 태양상한을 말함. 넓은 의미로는 傷寒論이라 할 때의 상한, 5종 상한을 통칭할 때의 상한을 의미하며, 상한외감질병의 총칭으로 풍한사가 침범하여 일으킨 傷寒 뿐만 아니라 일부 온병과 전염병 및 관련 잡병을 포괄함.

상한망양(傷寒亡陽) [병증] : 병리 한사감수(寒邪感受)로 양기가 심하게 손상된 병증.

상한망음(傷寒亡陰) [병증] : 병리 외감온열사(外感溫熱邪)가 이부(裏部)를 침범해 내부를 졸이거나 열사가 영혈에 들어가 진음(眞陰)을 전오(煎熬)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병증.

상한배추표병경증(傷寒背偪表病輕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篇〉에 서술된 병증. 위완(胃脘)이 쇠약하여 표국(表局)이 허박해져 한사(寒邪)에 촉감하게 되면 그 발현 부위가 안으로는 위완, 밖으로는 배추(背偪) 부근으로 나타나는데, 증상으로는 태양증인 두통(頭痛), 발열(發熱), 골절통(骨節痛), 오한(惡寒), 무한이천(無汗而喘)이 나타나고 치방으로는 마황발표탕(麻黃發表湯)을 쓴다.

상한병(傷寒病) [병리] ⇒ 상한(傷寒)

상한삼양병(傷寒三陽病) [병증] 동 상한삼양증(傷寒三陽證), 상한양증(傷寒陽證) : 병리 3개의 양경(陽經)에 생긴 병증으로,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등 3개의 양병(陽病)을 말함. 태양병은 표증이고 양명병은 이증이며 소양병은 반표반리증(半表半裏證)이다.

상한삼양증(傷寒三陽證) [병증] ⇒ 상한삼양병(傷寒三陽病)

상한삼음병(傷寒三陰病) [병증] 동 상한삼음증(傷寒三陰證), 상한음증(傷寒陰證) : 병리 상한태음·소음·궐음 등 삼음경 증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양경 증후와 상대되는 말. 삼음병은 허한증후에 속하는데 태음병은 장위허한증(腸胃虛寒證)에 속하며, 소음병은 심신허증(心腎虛證)에 속하고, 궐음병은 한열승복(寒熱勝復)·상열하한증(上熱下寒證)에 속한다.

상한삼음증(傷寒三陰證) [병증] ⇒ 상한삼음병(傷寒三陰病)

상한양증(傷寒陽證) [병증] ⇒ 상한삼양병(傷寒三陽病)

상한음증(傷寒陰證) [병증] ⇒ 상한삼음병(傷寒三陰病)

상한표증(傷寒表證) [병증] : 병리 풍한사(風寒邪)가 기표(肌表)에 침습한 병증.

상한표증한궐(傷寒表證寒厥)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篇〉에 서술된 병증으로 태음인이 상한하게 되면 그 증상이 외표로 나타나 발열 없이 오한이 나는 한궐증상(寒厥證狀)이 보이는데 이것을 말함. 태음인은 선천적으로 위완(胃脘)이 쇠약하므로 한사에 쉽게 침범되는데 한궐(寒厥)의 진행과정에서 한궐이 된 지 4~5일 후 열이 나는 것이 주증이다. 만약 태음인이 한궐 후 6~7일에 열이 나지 않고 땀도 나지 않으면 죽는다. 또 한궐 후 4~5일

ㅅ

에 열이 오르고 이마에만 약간 땀이 나면 장감병(長感病)이라 하여 이는 중증이다. 이 증세는 노심초사(勞心焦思) 끝에 위완의 상승력이 약해지고 위기(胃氣)가 허약하여 한기를 이기지 못하는데다가 한사에 에워싸인바 되어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서로 다투는 형세이다. 즉 발한의 유무로 사증(死證)과 중경증(重輕證)을 구분하는 바 이마에서 눈썹 가장자리, 뺨, 입술과 턱, 가슴으로 발한이 이어질수록 병이 풀리는 것이다. 이 증세는 땀이 나거나 나지 않는 것으로 병의 경중을 판단해야 하고 한궐이 심하거나 누그러진 것으로 병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궐이 5일이 지나도 무한(無汗)이면 위험하므로 웅담을 써야 하고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제조(蟾蜍) 5~9개 등을 가하여 쓴다.

상한협경(傷寒挾驚)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놀란 데다 한사(寒邪)를 감수하거나 한사가 오랫동안 울결 되어 열로 변하고, 열이 심해져 발생한 풍(風)이 심(心)을 침범하여 경련이 발생하는 병증. 장열(壯熱), 두통, 콧물, 코막힘과 추위를 싫어하며, 구급(拘急)의 증상이 있다.

상혈(傷血) [병증] : 재활 외상(外傷)을 받은 후에 어혈(瘀血)과 실혈(失血)이 발생하는 병증. 전자는 대부분 어혈종괴(瘀血腫塊)하여 종통(腫痛)이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으며, 후자는 인체 내부에 출혈 혹은 혈(血)이 규(竅)에서부터 체외로 넘쳐 두훈(頭暈)·심계(心悸)·구건(口乾)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상화(相火) [생리] 동 용뇌지화(龍雷之火) : 생리 ① 장부를 온양(溫養)하고 인체의 생리기능을 추동시키는 원동력. ② 심(心)의 군화(君火)에 대비되는 명문의 화.

색궐(色厥) [병증] : 내과 신정(腎精)의 지나친 소모로 생긴 궐증.

색맥(濇脈) [징후] ⇒ 삽맥(澁脈)

색맥합참(色脈合參) [진찰] : 진단 진법(診法)의 하나. 변증 과정에서 맥상(脈象)과 병색(病色)의 변화를 참조하여 분석함으로써 병정(病情)의 신구(新舊)·순역(順逆)을 추단(推斷)하는 행위.

색맹(色盲) [병증] ⇒ 시적여백(視赤如白)

색소반응(色素反應) [진찰] : 재활 부항요법을 실시한 후 피부표면에 남는 색. 질환의 경중과 예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색요(色夭) [징후] ⇒ 악색(惡色)

색진(色診) [진찰] : 진단 망진(望診) 내용의 하나. 주로 안색(顔色)을 관찰하여 병정(病情)을 알아내는 방법임. 진찰시에 안색의 부침(浮沈)·산단(散摶)·윤택(潤澤)·고고(枯槁)와 상하(上下)로 확산된 방향 등의 정보를 사진(四診)과 결합하고 기타 방면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변증한다.

색췌(色悴) [징후] : 진단 안색이 초췌하고 광택이 없는 것. 만성병(慢性病)에서 나타나는 안색으로, 오랜 병으로 장부(臟腑)의 기혈(氣血)이 손상된 표현이다.

색치(色痔) [병증] ⇒ 주치(酒痔)

색택(色澤) [진찰] : 진단 ① 병적(病的)으로 피부색이 선명하고 투명한 것. 대개 수액(水液)이 체표(體表)에 정체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망진(望診)시 색상과 명도·채도의 구분과 그 정도.

생강(生薑) [약물]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 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생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의 신선한 뿌리줄기.

생기(生肌) [병리] [치법] : ① 병리 헌데가 생긴 부위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 ② 방제 새살이 돋아나도록 치료하는 것.

생기(生氣) [생리] : 생리 원기(元氣)의 생성과 운행을 촉진하여 생명활동을 강화시키는 기운.

생기능(生機能) [기타] : 진단 생체기능. 인체의 구조적인 면보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

생기능검사(生機能檢査) [진찰] : 진단 변환기나 전극 등을 사용하여 인체의 각종 기능을 경시적(經時的) 혹은 국소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검사행위.

생기능의학(生機能醫學) [기타] : 진단 인체의 각종 생체기능을 측정 평가하여 변증시치의 관점에서 분석·관리하는 한의학의 한 분야.

생기능조절요법(生機能調節療法) [진찰] ⇒ 부하조정술(負荷調整術)

생식충보지도(生息充補之道) [사상] : 사상 생식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 의해 간간이 손상을 받는다. 이 손상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생식충보지도(生息充補之道)라고 함.

생지(生地) [약물] ⇒ 생지황(生地黃)

생지황(生地黃) [약물] 동 생지(生地), 선지황(鮮地黃) : 본초 현삼과(玄參科 : Scrophulariaceae)에 속한 지황 *Rehmannia glutinosa* Libschitz var. *purpurea* Makino의 신선한 근.

생진(生津) [치법] 동 양진액(養津液) : 방제 진액을 자양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고열 등의 원인으로 인한 진액 손상을 치료하는 방법.

생혈(生血) [치법] ⇒ 보혈법(補血法)

서각(犀角) [약물] : 본초 무소과(犀科 : Rhinoceroti-dae)에 속한 동물인 인도 코뿔소 *Rhinoceros unicornis* L., 자바 코뿔소 *R. sondaicus* Desmarest, 수마트라 코뿔소 *R. sumatrensis* Cuvier, 흑서(黑犀) *R. bicornis* L., 백서(白犀) *R. simus* Burchell의 뿔을 잘라 쇄건(曬乾)한 것.

서간(舒肝) [치법] ⇒ 소간(疏肝)

서갈(暑渴) [병증] : 내과 서열(暑熱)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증.

서권진퇴(舒卷進退) [사상] ⇒ 변정동화(變精動化)

서궐(暑厥) [병증] : 소아 소아 서병(暑病)의 하나. 서사(暑邪)를 감수하여 갑자기 의식을 잃는 병증.

서근법(舒筋法) [치법] : 재활 이근수법(理筋手法). 각완부 외상(脚脘部外傷)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해 근육연축(筋肉攣縮), 관절강직(關節强直)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 굵기가 큰 술잔만 하고 길이는 일 척 남짓한 죽관(竹官)을 사용하는데, 먼저 정좌(正坐)한 후 죽관을 바닥에 놓고, 앓는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앞뒤로 지속적으로 굴리면 효과가 있다.

서근활락(舒筋活絡) [치법] : 재활 경근추나(經筋推拿)의 정형원리(正形原理) 중 하나. 손상 후 근육, 근막, 인대, 관절 등의 손상을 받은 연조직에는 동통이 나타나고 경락계통의 반사작용을 통해 유관조직에 병리 상태가 나타난다. 서근활락(舒筋活絡)은 긴장, 경련된 근육을 이완시켜 기혈을 소통시키는 방법임.

서근활혈(舒筋活血) [치법] : 재활 경근추나(經筋推拿)의 정형원리(正形原理) 중 하나. 기육의 수축과 서장(舒張)을 조절하고, 조직간의 압력도 조절하여 손상조직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조직 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서력(鼠癘) [병증] : 안이 서형상(鼠形狀)과 같은 모양의 나력(瘰癘).

서병(暑病) [병증] : 병리 ① 사기가 내부에 잠복했다가 여름이 되어 발병하는 각종 열성병. ② 서사(暑邪)를 감수하여 발생한 열성병증.

서사(暑邪) [병리] : 병리 외감병인[육음(六淫)]의 하나. 외감질병 가운데 서(暑)의 특성[염열(炎熱), 승산(昇散), 모기상진(耗氣傷津)]과 같은 증후를 일으키는 외사(外邪)를 서사(暑邪)라 함.

서설(舒舌) [병증] ⇒ 농설(弄舌)

서설(舒舌) [병증] : 안이 농설(弄舌)과 유사하나 혀가 입 밖으로 길게 나오되 수완(收緩)하는 것을 말함.

서습(暑濕) [병증] 동 욕서(溽暑) : 병리 서열(暑熱)에 습이 겸해진 병증. 여름에 흔히 보이

ㅅ

는 병증의 하나. 서열이 습기를 훈증하고 요동함으로 인해 야기된다. 발병기전은 서사(暑邪)가 진액을 손상시키고 습탁(濕濁)이 기기(氣機)를 가로막았기 때문으로, 흉완비민(胸脘痞悶), 심번(心煩), 신열(身熱), 설태황이(舌苔黃膩) 증상이 발생한다. 만약 서습(暑濕)이 중초에서 가로막힌 경우는 장열번갈(壯熱煩渴), 다한뇨소(多汗尿少), 흉민신중(胸悶身重)이 발생하고, 서습이 삼초에 가득 찬 경우는 해수(咳嗽), 신열면적(身熱面赤), 흉완비민(胸脘痞悶)하며, 대변이 묽고 소변이 짧고 붉은 색을 띠는데, 청서화습(淸暑化濕)을 위주로 치료한다.

서습곤조중초증(暑濕困阻中焦證) [병증] : 병리 여름철에 열기(熱氣)가 증등(蒸騰)하면서 수습(水濕)이 함께 유동(流動)하여 서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서습이 인체에 육음으로 작용하여 비위의 승강 작용을 실조케 함으로써 식욕부진(食欲不振), 흉민(胸悶), 오심구토(惡心嘔吐), 변당불상(便溏不爽) 등 소화기 증상과 더불어 신열기복(身熱起伏), 사지곤권(四肢困倦), 소변단적(小便短赤), 설태후이(舌苔厚膩), 맥상유삭(脈象濡數)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함.

서열(暑熱) [병리] [병증] : ① 병인, 즉 서사(暑邪)이다. ⇒ 서사(暑邪) ② 서사(暑邪)를 외감한 열증(熱證).

서열상기증(暑熱傷氣證) [병증] : 병리 더우면 주리가 열리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기가 손상되는데, 신피(身疲), 체권(體倦)의 증상과 더불어 한다(汗多), 두통(頭痛), 두훈(頭暈), 핍력(乏力), 구갈욕음(口渴欲飮), 소뇨(少尿), 돌연혼도(突然昏到), 불성인사(不省人事)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서온(暑溫) [병증] : 내과 여름에 발생하는 온병(溫病)으로 장열(壯熱)이 나고 목이 마르며 가슴에 번열(煩熱)이 나고 붉고 땀이 나면서 기운이 줄어들면서 맥이 홍대(洪大)한 병증.

서장경(徐長卿) [약물] 동 천죽(天竹) : 본초 박주가리과(蘿藦科 : Asclepiad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산해박 *Cynanchum paniculatum* Kitag.의 근과 근경(根莖)으로, 여름에 채집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서점근(鼠粘根) [약물] ⇒ 우방근(牛蒡根)

서조역(暑燥疫) [병증] : 내과 서사(暑邪)와 조사(燥邪)로 인해 발생한 강한 유행성과 전염성을 지닌 질병.

서중(暑中) [병증] ⇒ 중서(中暑)

서지전근수법(舒指展筋手法) [치법] : 재활 손가락으로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혈행(血行) 순환을 원활도록 도와 치료하는 수기법.

서질보사(徐疾補瀉) [침구] 동 질서보사(疾徐補瀉), 서질보사법(徐迭補瀉法) : 침구 침을 놓거나 뽑을 때 빠르고 느린 속도로 보사(補瀉)하는 방법.

서질보사법(徐迭補瀉法) [침구] ⇒ 서질보사(徐疾補瀉)

서천(暑喘) [병증] : 내과 여름에 서기(暑氣)에 의해 열이 심하고 번갈하며, 땀이 많이 나고 숨찬 것이 그치지 않는 병증.

서풍(暑風) [병증] : 내과 ① 정신이 흐릿하고 손발이 버둥거리는 증상을 겸하는 중서(中暑). ② 여름에 몸이 가려우면서 붉게 붓는 병증.

서홍화(西紅花) [약물] : 본초 붓꽃과(鳶尾科 : Iridaceae)의 식물인 사프란(番紅花) *Crocus sativus* L.의 주두(柱頭)를 건조한 것.

석결명(石決明) [약물] 동 진주모(珍珠母) : 본초 전복과(鮑科 : Haliotidae)에 속한 동물인 말전복 *Haliotis gigantea* Gmelin 및 동속 근연동물의 패각(貝殼).

석가(石瘕) [병증] : 부인 징가(癥瘕)는 여성의 생식기관에 발생하는 종괴를 말하는 것이며, 석가(石瘕)란 징가 중에서 자궁이 상하여 악혈(惡血)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응결되어 돌처럼

딴딴해진 것을 말함. 靈樞에서는 "한기(寒氣)가 자문(子門)에 침입하여 자문이 막히면 기가 소통되지 않고 악혈이 빠져나가야 함에도 빠져나가지 못해 응결된 채 포중(胞中)에 쌓여 커져서 마치 아이를 밴 것 같고, 월경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석고(石蠱) [병증] : 부인 복부가 창대(脹大)하여 배에 청(靑), 홍근(紅筋)이 드러나는 것을 고창(蠱脹)이라 하는데 이 중 창대된 부위에서 돌처럼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말함.

석고(石膏) [약물] : 본초 황산염류(黃酸鹽類)에 속한 광물(鑛物)인 천연의 석고 Gypsum로, 주로 함수황산(含水黃酸)칼슘($CaSO_4 \cdot 2H_2O$)을 함유하고, 채취 후에 니사(泥砂)와 잡석(雜石)을 제거한 후 사용.

석곡(石斛) [약물] 동 곽석곡(霍石斛), 두란(杜蘭) : 본초 난초과(蘭科 : Orchidaceae)에 속한 다년생 부생(附生) 초본인 금차석곡(金釵石斛) *D. nobile* Lindl.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의 지상부를 개화 전에 채취한 것으로, 여름 이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한다. 이외에 환초석곡(環草石斛) *Dendrobium loddigesii* Rolfe., 마편석곡(馬鞭石斛) *D. fimbriatum* Hook. var *culatum* Hook., 황초석곡(黃草石斛) *D. chysanthum* Wall., 철피석곡(鐵皮石斛) *D. candicum* Wall. eX Lindl., 석곡(石斛) *D. moniliforme* (L.) SW(=*D. crispulum* K.Kimura et Migo) 등이 사용된다.

석관(石關) [경혈] 동 우관(右關)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8)로서 건리(建里) 양쪽 5푼에 위치.

석녀(石女) [병증] 동 실녀(實女) : 부인 ① 질이 좁거나 혹은 자궁의 발육이 불완전한 여자. ② 평생 월경이 없는 여자.

석란(石欄) [약물] ⇒ 석위(石葦)

석람(石藍) [약물] ⇒ 백전(白前)

석력(石癧) [병증] : 안이 여지상(荔枝狀)과 같은 모양의 나력(瘰癧).

석류저(石榴疽) [병증] : 안이 천정혈(天井穴)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종(腫)이 커지면 주발을 엎어놓은 것 같고 궤양(潰瘍)이 되면 석류와 같은 모양과 같은 것.

석류피(石榴皮) [약물] : 본초 석류과(石榴科 : Punicacea)에 속한 낙엽 소교목인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의 성숙한 과실로, 가을에 채취하여 과피(果皮)를 수집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석림(石淋) [병증] 동 사림(砂淋), 사림(沙淋) : 내과 결석(結石)으로 유발되며, 소변삽통(小便澁痛)하고 소변에서 사석(砂石)이 배출되는 병증. 임병(淋病)의 일종.

석문(石門)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5)로서 삼초(三焦)의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배꼽아래 2촌에 위치.

석수(石水) [병증] : 내과 오장수종(五臟水腫)의 하나. 하초양기(下焦陽氣)의 허(虛)로 인해 수기(水氣)가 몰려 발생하며 맥침(脈沈)하고 소복(小腹)이 종창(腫脹)하면서 돌과 같이 단단하나 천식(喘息)하지 않고, 소변불리(小便不利)하는 병증.

석수연(石髓鉛) [약물] ⇒ 자연동(自然銅)

석아(石蛾) [병증] : 안이 간화(肝火)로 말미암아 오래된 담이 울결되어 악혈(惡血)을 형성하고 유아(乳蛾)부위에 발생하여 처음에는 크기가 작다가 과로하면 더욱 심해져 열이 나면서 아프게 되는 병증.

석영(石癭) [병증] : 안이 돌같이 단단하고 밀어도 밀리지 않으면서 돌기되는 영증(癭症). 성생활과도로 신화(腎火)의 작용이 울결되어 골부(骨部)를 영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

석웅황(石雄黃) [약물] ⇒ 웅황(雄黃)

석위(石葦) [약물] ⇒ 석위(石葦)

석위(石葦) [약물] 동 석란(石欄), 석위(石韋) : 본초 고란초과(水龍骨科 : Polypod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석위 *Pyrrosia lingua* (Thunberg.) Farwell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엽으로 봄 여름 가을에 채취하여 근경(根莖)과 근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리거나 음건(陰乾)하여 사용.

석유황(石硫黃) [약물] : 본초 유황광(硫黃鑛)이나 유화광물(硫化鑛物)을 채취하여 가열 융해한 다음 상층의 액상 유황을 취하여 냉각한 것.

석종유(石鐘乳) [약물] 동 종유석(鍾乳石) : 본초 탄산염류강 탄산염류목에 속한 석회암의 일종으로 석회동굴 속에 생긴 젖꼭지 모양의 덩어리.

석창포(石菖蒲) [약물] : 본초 천남성과(天南星科 : A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석창포 *Acorus gramineus* Solander의 뿌리줄기. 중국에서는 석창포 *A. tatarinowii* Schott.를 기원으로 한다.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건조한 후 사용.

선기(璇璣)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21)로서 천돌(天突) 아래 1촌 6푼에 위치.

선기(善饑) [증상] : 내과 쉽게 배고픔을 느끼는 증상.

선기욕산(先期欲産) [병증] : 부인 출산 시기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려는 징후를 보이는 것.

선노(善怒) [증상] 동 희노(喜怒) : 정신 화를 잘 내는데, 심지어 아무런 이유없이 화내는 것을 말함. 쉽게 성을 내는 것이니 대부분 간병(肝病)이다. 간실기체자(肝實氣滯者)는 성을 잘 내고 협통(脇痛) 복만증(腹滿症)이 있으니 소설(疏泄)로서 치료하며, 혈소간조자(血少肝燥者)는 조그마한 자극을 받으면 쉽게 성을 내게 되니 양혈유간(養血柔肝)으로 치료하고, 신수부족(腎水不足)으로 간화(肝火)가 편왕(偏旺)된 자는 심번이노증(心煩易怒症)이 발생하며 밤이 되면 입이 마르고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니 자보신음(滋補腎陰)으로 주하여 치료한다. → 노상(怒傷)

선라첨기(旋螺尖起) [병증] 동 선려범기(旋臚泛起) : 안이 사행성 각막궤양(蛇行性 角膜潰瘍)으로서 각막자상(角膜刺傷)에 의해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며 선나돌기(旋螺尖起)와 유사.

선려범기(旋臚泛起) [병증] ⇒ 선라첨기(旋螺尖起)

선루(鱔漏) [병증] : 안이 하퇴만(下腿彎) 혹은 각만(脚彎)에서 발생하는 옹저. 습창(濕瘡)과 비슷하여 궤파(潰破)되면 삼출물(滲出物)이 계속 흐르고 창공(瘡孔)이 여러 개 생기며, 창공이 안구(眼球)를 빼낸 것처럼 깊다.

선망(善忘) [증상] ⇒ 건망(健忘)

선면(善眠) [증상] ⇒ 기와(嗜臥)

선모(仙茅) [약물] 동 바라문삼(婆羅門參) : 본초 수선화과(石蒜科 : Amaryllid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초본(宿根草本)인 선모 *Curculigo orchioides* Gaertn의 근경(根莖).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근두(根頭)와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세정(洗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선복화(旋覆花) [약물] 동 금불초(金佛草)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금불초 *Inula britannica* var. *chinensis* Regel. 및 동속 근연식물의 두상화서(頭狀花序)로, 여름과 가을에 막 피기 시작한 화서(花序)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선비(善悲) [증상] 동 희비(喜悲) : 정신 슬퍼하거나, 혹은 아무런 까닭 없이 상심하는 병증. 대부분 폐가 건조하고 심간혈허(心肝血虛)로 심화(心火)가 치성(熾盛)해짐으로 인해 발생.

선색(善色) [징후] : 진단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색택(色澤)에 있어 윤기가 나는 경우. 장기(臟氣)가 아직 쇠약하지 않고 병(病)이 비교적 깊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 → 병색(病色)

선이창(旋耳瘡) [병증] ⇒ 월식감창(月食疳瘡)

선전(先煎) [기타] : 방제 전약법(煎藥法)의 하나. 광물류(鑛物類), 개각류(介殼類) 약물, 예컨대 석고, 대자석, 모려, 별갑 등은 약성이 중

(重)하여 달여도 약미가 나오기 어려우므로 분쇄하여 다른 약물보다 먼저 넣고 10분 정도 달인 후 기타 약물을 넣는데 이것을 선전이라 함. 이 외에도 마황은 먼저 3회 끓여 거품을 제거한 후 기타 약물과 함께 달여 복용하면 심번(心煩)함을 면할 수 있다.

선전법(旋轉法) [진찰] : 재활 촉진을 위한 수법의 하나로 손상된 사지의 하단을 붙잡고 가볍게 돌리는 동작을 하면서 손상부위에 통증유무 혹은 운동제한 등의 반응 및 특별한 소리를 관찰하는 진찰법.

선증(癬證) [병증] : 안이 인설(鱗屑)을 동반한 가려움증이 있는 피부질환. 풍·열·습사가 피부에 침범하여 형성. 서양의학에서는 백선균(白癬菌)에 의하거나 유전설, 대사 이상설 등의 원인이 추측되고 있다.

선지황(鮮地黃) [약물] ⇒ 생지황(生地黃)

선창(羨瘡) [병증] ⇒ 저저(杼疽)

선천(先天) [생리] : 생리 부모의 정혈(精血)을 받아 잉태된 때로부터 출생 직전까지의 시기.

선천지화(先天之火) [생리] ⇒ 신양(腎陽)

선태(蟬蛻) [약물] ⇒ 선퇴(蟬退)

선퇴(蟬退) [약물] 동 선태(蟬蛻) : 본초 매미과(蟬科 : Cicadidae)에 속한 곤충인 말매미 *Cryptotympana pustulata* Fabricius 또는 기타 근연 곤충이 성충이 될 때 탈피한 껍데기.

선폐(宣肺) [치법] : 방제 폐기를 통하게 하는 치료법.

선학초(仙鶴草) [약물] ⇒ 용아초(龍芽草)

선혈(選穴) [침구] ⇒ 취혈(取穴)

선혈법(選穴法) [침구] ⇒ 취혈(取穴)

선혈후변(先血後便) [병증] ⇒ 근혈(近血)

선회굴신(旋回屈伸) [치법] : 재활 정골 수법의 일종으로 환자의 환부를 선회시키고 굴곡, 신전시키는 방법.

설(泄) [증상] : 내과 대변이 희박(稀薄)하고, 나오다가 멎다가 하는 증상.

설간(泄肝) [치법] ⇒ 소간(疏肝)

설감(舌疳) [병증] : 안이 심경(心經)과 비경(脾經)의 화독(火毒)이 응결되어 생기는 것으로 설암(舌癌)과 유사하며 버섯모양, 연꽃 모양, 닭벼슬 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님.

설강(舌强) [병증] 동 설강경(舌强硬), 설본강(舌本强) : 설체(舌體)가 잘 펴지거나 수축되지 않는 것.

설강(舌絳) [징후] : 진단 설질(舌質)이 짙은 홍색을 띠는 것.

설강경(舌强硬) [병증] ⇒ 설강(舌强)

설건(舌蹇) [병증] : 안이 설체(舌體)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해 말을 더듬는 것.

설건(舌乾) [징후] : 진단 혀가 마르는 증상. 각종 열성질병(熱性疾病) 및 소모성 질병(消耗性疾病)을 앓을 때 보인다.

설경생의(舌硬生衣) [병증] : 안이 혀가 건조하면서 딱딱해지고 한 층의 설태(舌苔)가 생기는 것.

설구(舌垢) [진찰] ⇒ 설태(舌苔)

설구(雪口) [병증] ⇒ 아구창(鵝口瘡)

설권(舌卷) [병증] : 안이 혀가 오그라드는 증상. 간맥(肝脈)이 설본(舌本)에 락(絡)하기 때문에 상한에 병사가 궐음에 전해지면 설본(舌本)이 말려서 펴지지 못하며 음낭(陰囊)이 동시에 수축됨.

설권낭축(舌卷囊縮) [병증] : 소아 혀가 말려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서 음낭이 위로 오그라드는 병증. 이 병증은 대부분 열사가 안에서 지져 진액이 말라 근맥(筋脈)을 영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열병이 궐음경(厥陰經)으로 깊숙이 들어간 위중한 증후이다.

설균(舌菌) [병증] : 안이 혀 위에 신생물이 생기는 것으로 버섯 모양과 같이 창두(瘡頭)는 크고 창신(瘡身)은 작은 것이 특징임.

설근(舌根) [해부] ⇒ 설본(舌本)

설근(舌根) [해부] ⇒ 설본(舌本)

설급(舌急) [병증] : 안이 혀가 오그라들면서 잘

ㅅ

움직일 수 없는 증상.
설뉵(舌衄) [병증] : 안이 갑자기 설상(舌上)에 공혈(孔穴)이 발생하며, 극심해지면 흑색을 띠며 다량의 출혈이 생기는 질환.
설단(舌斷) [병증] : 안이 혀가 끊어진 병증.
설단(舌短) [병증] ⇒ 설축(舌縮)
설단축(舌短縮) [병증] ⇒ 설축(舌縮)
설담포(舌痰包) [병증] : 안이 화(火)로 말미암아 담연(痰涎)이 유주하여 혀 아래에 담핵(痰核)이 종대(腫大)되어 포상(皰狀)을 이루는 질환.
설란(舌爛) [병증] 동 설본란(舌本爛) : 안이 카타르성 설염(舌炎)으로 설점막(舌粘膜)의 미만성(瀰滿性) 발적(發赤)과 종창(腫脹), 설태(舌苔) 등이 발생되고 구취(口臭)를 유발하는 것.
설렬(舌裂) [징후] 동 설파(說破) : 진단 혀가 갈라져 터지는 증상.
설리(泄痢) [병증] ⇒ 이질(痢疾)
설마(舌痲) [병증] 동 설마목(舌痲木) : 혀가 마비되어 무감각한 것.
설마목(舌痲木) [병증] ⇒ 설마(舌痲)
설막(舌膜) [병증] : 안이 소아가 초생 시에 설상(舌上)에 백막(白膜)으로 싸여 있는 것.
설만(泄滿) [증상] : 내과 설사하면서 배가 그득한 증상.
설면(舌面) [해부] [진찰] : 진단 혓바닥.
설면여경(舌面如鏡) [진찰] ⇒ 경면설(鏡面舌)
설반(舌胖) [징후] ⇒ 반설(胖舌)
설반치형(舌胖齒形) [징후] ⇒ 치흔설(齒痕舌)
설변(舌邊) [해부] : 진단 혀의 가장자리.
설본(舌本) [해부] : 진단 설근(舌根－혀의 뿌리)과 같은 뜻으로 쓰임.
설본강(舌本强) [병증] : 안이 설근(舌根)이 뻣뻣한 것. ⇒ 설강(舌强)
설본란(舌本爛) [병증] ⇒ 설란(舌爛)
설비(舌痺) [병증] : 안이 혀가 뻣뻣하면서 둔해지거나 혹은 혀가 부으면서 마목(痲木)이 되는 것.
설사(泄瀉) [병증] 동 대변당(大便溏), 변당(便溏), 대변당박(大便溏薄), 대변당설(大便溏泄), 대변설사(大便泄瀉), 당설(溏泄), 복사(腹瀉) : 내과 대변이 희박하고, 나오다가 멎다가 하는 것을 설(泄)이라 하고, 대변이 물을 붓는 것처럼 직하하는 것을 사(瀉)라 함. 설사는 이런 증후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
설삽(舌澁) [증상] : 안이 혀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느낌이 깔깔한 것.
설상담핵(舌上痰核) [병증] : 안이 심비경(心脾經)의 이상으로 담연(痰涎)이 발생되고 이에 열이 울결되어 설상(舌上)에 담핵(痰核)을 형성하여 단단하고 통증이 있으며 약간의 강직(强直)이 있어 음식 섭취 및 언어에 장애를 가져오는 병증.
설상생태(舌上生苔) [병증] : 안이 상한에 사기가 표부(表部)에 있으면 설태(舌苔)가 없으나 사기가 이부(裏部)로 들어가 진액과 울결되어 설상(舌上)에 여러 가지 색깔 및 형태의 태(苔)가 발생하는 것.
설상주(舌上珠) [병증] ⇒ 설생포(舌生泡)
설색(舌色) [진찰] : 진단 설질(舌質)의 색. 설질의 색은 설진(舌診)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데, 정상적인 설색(舌色)은 옅은 홍색을 띠며 윤기가 난다.
설생망자(舌生芒刺) [병증] 동 설침(舌鍼) : 안이 장위(腸胃)의 진액 고갈이나 노심(勞心)으로 인한 비열(脾熱)에 의해 발생되는데 건흑색(乾黑色)이나 초황색(焦黃色)의 설태(舌苔)가 나타나고 설상(舌上)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찌르는듯한 통증이 있으며 홍색을 띤 좁쌀 모양의 핵이 설상(舌上) 또는 설변(舌邊)에 발생하는 것.
설생연매(舌生煙煤) [병증] : 안이 폐위(肺胃)가 조열(燥熱)하거나 음한(陰寒)한 기가 상범(上泛)하여 설본(舌本)이 건조하면서 설상(舌上)에 그을음이 심한 연기와 같은 것이 덮히고 구갈(口渴), 번열(煩熱)하는 것.
설생적라(舌生赤瘰) [병증] : 안이 온열병(溫熱

病)으로 영혈(營血)이 열을 받아 울결된 것으로 설첨(舌尖)이나 설양변(舌兩邊)에 작고 붉은 염주 모양의 결핵을 형성하는 것.

설생포(舌生泡) [병증] 동 구감풍(口疳風), 설상주(舌上珠), 설하주(舌下珠), 진주독(珍珠毒), 연주감(連珠疳) : 안이 혀에 물집이 생기는 병증. 비신(脾腎)에 허화(虛火)가 치솟아 발생하거나 혹은 심비(心脾)에 열이 몰려 발생. 비신에 허화가 치솟아 발생한 경우는 혀 밑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흰 물집이 5~6개 연달아 생기는데, 그 색이 붉거나 혹은 누런색을 띠고, 혀가 아프며 가렵고 터져 궤양이 되기도 한다. 심비에 열이 몰려 발생한 경우는 혓바닥에 흰 물집이 5~6개 연달아 생기고 아프며 가렵고 짓무르기도 한다.

설설(嚙舌) [병증] 동 교설(嚙舌) : 안이 혀를 깨무는 것. 소음기가 궐역주상(厥逆走上)하면 혀를 깨물게 됨.

설수(舌崇) [병증] : 안이 설상(舌上)에 종창(腫瘡)이 발생하여 입 밖으로 나오고 황색의 딱지가 앉아 음식을 먹기가 곤란한 것.

설신(舌神) [진찰] : 진단 설진(舌診) 내용의 하나. 설질(舌質)의 영고(榮枯)로 진찰하는데, '영(榮)'이란 선명하게 붉으며 윤기가 있고 혀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며 진액(津液)이 충만하고 생기가 있는 것을 말하고, '고(枯)'란 어둡고 건조하며 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며 진액(津液)이 메마른 것으로 병정(病情)이 위중(危重)한 것을 말한다.

설암(舌癌) [병증] 동 설암(舌岩) : 혀의 악성(惡性) 종유(腫瘤).

설암(舌岩) [병증] ⇒ 설암(舌癌)

설열(泄熱) [치법] ⇒ 청열법(淸熱法)

설옹(舌癰) [병증] : 안이 심화(心火)가 왕성하거나 위내(胃內)에 잠복했던 열이 과다하게 훈증되어 혀가 홍종(紅腫)하며 때로는 표재성(表在性) 또는 심재성(深在性) 농양을 형성하는 것.

설왜(舌歪) [징후] 동 설왜사(舌歪斜) : 진단 혀를 내밀었을 때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설왜사(舌歪斜) [징후] ⇒ 설왜(舌歪)

설위(舌萎) [병증] 동 설위(舌痿), 설위연(舌痿軟) : 안이 비기능허약(脾氣能虛弱)으로 설본(舌本)이 짧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설위(舌痿) [병증] ⇒ 설위(舌萎)

설위연(舌痿軟) [병증] ⇒ 설위(舌萎)

설음(舌瘖) [병증] : 안이 설본(舌本)이 부자유스러워 말을 잘 하지 못하나 후내(喉內)의 음성은 정상인 것.

설전(舌顫) [병증] 동 설전동(舌顫動) : 설두(舌頭)가 떨리는 것. 대부분 내풍(內風) 혹은 주독(酒毒)으로 인해 야기된다.

설전동(舌顫動) [병증] ⇒ 설전(舌顫)

설정(舌疔) [병증] : 안이 혀에 자색의 포진(疱疹)이 콩 모양으로 발생하는데 단단하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것.

설정(泄精) [병증] ⇒ 유정(遺精)

설종(舌腫) [병증] 동 설창(舌脹), 설창대(舌脹大) : 안이 설본(舌本)이 창대(脹大)되어 입안에 가득 차는 것.

설종(舌縱) [병증] : 안이 혀가 토출(吐出)되어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혀가 신장(伸長)되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설주(舌珠) [병증] ⇒ 백반(白斑)

설진(舌診) [진찰] : 진단 망진(望診) 주요 내용의 하나. 설면(舌面) 부위의 설질(舌質)과 설태(舌苔)의 형태·색깔·건조여부 등의 변화를 관찰하여 병사(病邪)의 성질·병세의 경중(輕重)·기혈(氣血)의 성쇠·진액(津液)의 충분 여부와 장부(臟腑)의 허실(虛實) 등을 판별한다.

설질(舌質) [진찰] 동 설체(舌體) : 진단 설진(舌診)시 주된 관찰대상의 하나로 혀의 기육맥락조직(肌肉脈絡組織)을 말함. 일반적으로 혀 끝에서 심폐(心肺)를 살피고, 혀 가장자리에서 간담(肝膽)을 살피며, 혀의 가운데 부위에서

ㅅ

비위(脾胃)를 살피고, 설근(舌根)에서 신(腎)을 살핀다.

설질홍(舌質紅) [징후] ⇒ 설홍(舌紅)

설창(舌瘡) [병증] 동 홍점설(紅點舌) : 안이 심화왕성(心火旺盛) 등으로 인하여 혀에 종창(腫瘡)이 발생하는 것.

설창(舌脹) [병증] ⇒ 설종(舌腫)

설창대(舌脹大) [병증] ⇒ 설종(舌腫)

설첨(舌尖) [해부] : 혀끝.

설첨홍(舌尖紅) [징후] : 진단 설첨(舌尖) 부위가 정상 설색인 담홍색(淡紅色)보다 진한 홍색(紅色)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심화상염(心火上炎) 상태를 반영한다. → 설홍(舌紅)

설체(舌體) [진찰] ⇒ 설질(舌質)

설축(舌縮) [병증] 동 설단(舌短), 설단축(舌短縮) : 안이 혀가 갑자기 단축되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설출(舌出) [병증] 동 설출불수(舌出不收) : 혀가 입 밖으로 늘어져 수렴되지 않는 것.

설출불수(舌出不收) [병증] ⇒ 설출(舌出)

설침(舌鍼) ① [침구] 동 설침술(舌鍼術) : 침구 설상(舌上)의 특정 혈위(穴位)에 대한 집중적인 시술. ② [병증] ⇒ 설생망자(舌生芒刺)

설침술(舌鍼術) [침구] ⇒ 설침(舌鍼)

설태(舌苔) [진찰] 동 설태(舌胎), 태구(苔垢), 설구(舌垢) : 진단 설진(舌診)시 관찰대상으로 설면(舌面) 위에 깔려있는 태상물(苔狀物)을 말함.

설태(舌胎) [진찰] ⇒ 설태(舌苔)

설태니(舌苔膩) [징후] : 진단 태(苔)가 니(膩)한 것은 태질(苔質)이 과립상으로 작고 치밀하며 태(苔)의 표면이 점니(粘膩)한 것으로 중심은 약간 두껍고 주변부로 갈수록 얇고 광활(光滑)하면서 소두(小頭)나 과립은 없는 형태를 취한다.

설태박(舌苔薄) [징후] : 진단 설태(舌苔)가 얇고 흰 상태.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타나지만 표(表)에 사기(邪氣)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혹은 정허(正虛)한 것을 반영하기도 함.

설태후(舌苔厚) [징후] : 진단 설태(舌苔)가 두꺼운 상태. 이미 사기(邪氣)가 깊숙이 들어간 것을 나타내며, 적체(積滯)·담음(痰飮)·습탁(濕濁)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설토롱(舌吐弄) [병증] ⇒ 농설(弄舌)

설파(舌破) [징후] ⇒ 설렬(舌裂)

설풍(泄風) [치법] ⇒ 거풍(祛風)

설하담포(舌下痰包) [병증] 동 담포(痰包) : 안이 담음(痰飮)이 화기(火氣)를 따라 순환하다가 혀 아래에 응주(凝注)하여 생긴 것으로, 혀 아래에 담핵(痰核)이 종대(腫大)되어 있으나 솜과 같이 유연하고 딱딱하지 않으며 광택이 있고 황색을 띠며 둔한 통증이 있는 것.

설하주(舌下珠) [병증] ⇒ 설생포(舌生泡)

설형(舌形) [진찰] : 진단 설질(舌質) 진찰 내용의 하나. 주로 혀의 노눈(老嫩)·혓바늘·열문(裂紋)·창별(脹癟) 등을 관찰. '노눈(老嫩)'이란 설형(舌形)이 딴딴하거나, 혹은 부어 연한 것을 말하는데, '노(老)'는 실증(實證)이고, '눈(嫩)'은 허증(虛證)에 속한다. 혀에 가시처럼 솟아나는 것은 혓바늘이라고 하는데, 주로 위열(胃熱)이 치성(熾盛)하거나, 혹은 사열(邪熱)이 내부에서 엉겼기 때문에 발생한다. 혀에 열문(裂紋)이 있는 것은 열(熱)이 치성(熾盛)하거나, 혹은 혈허(血虛)하고 음(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체(舌體)가 붓고 창만(脹滿)한 것은 병이 대개 혈분(血分)에 있거나, 혹은 담음(痰飮)으로 인하거나, 습열(濕熱)이 내부에서 엉겼기 때문이다. 얇으면서 말라 쭈그러드는 것은 주로 심비(心脾)가 모두 허(虛)하고 기혈(氣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홍(舌紅) [징후] 동 설질홍(舌質紅) : 진단 설질(舌質)이 정상적인 담홍색(淡紅色)보다 진한 색을 띠는 것. 주로 열증(熱證)을 반영한다.

섬관법(閃罐法) [침구] : 침구 재활 부항을 흡착

시킨 후 손목의 힘을 이용해서 발관(拔罐)하는 것을 피부가 홍적색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
섬광증(閃光症) [병증] ⇒ 형성만목(螢星滿目)
섬근(閃筋) [병증] : 재활 넘어지고 부딪치고 눌리거나 삐어서 근육이 손상되는 것. 환부가 아프면서 붓고, 멍이 들며, 누르면 심하게 아프지만 피부는 파손되지 않고 멀쩡하다.
섬망(譫妄) [병증] : 내과 아무 말이나 수다스럽게 지껄이며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는 증후.
섬서(蟾蜍) [약물] 동 하마(蝦蟆), 섬수(蟾酥) : 본초 두꺼비과(蟾蜍科 : Bufonidae)에 속한 동물인 중국두꺼비(中華大蟾蜍) *Bufo bufo gargarizans* Cantor 또는 동속 근연동물의 독선의 분비물을 모은 것.
섬수(蟾酥) [약물] ⇒ 섬서(蟾蜍)
섬어(譫語) [병증] : 정신 정신을 잃고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하는데 말소리는 힘 있고 똑똑한 것. 양명실열(陽明實熱) 혹은 온사(溫邪)가 영혈(榮血)로 들어가, 열사(熱邪)가 신명(神明)을 요동함으로 인해 신지불청(神志不淸)·호언난어(胡言難語) 등의 중증(重症)이 발생한 것을 가리킨다. 실증이 대부분.
섬좌(閃挫) [병증] 동 좌섬(挫閃) : 재활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손상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손상이 일어난 것.
섬화법(閃火法) [침구] : 침구 부항요법시 부항 내에 음압을 주기위해 종이나 알콜 솜에 불을 붙여 부항단지 속에 넣었다가 꺼내고 이내 부항을 해당한 곳에 붙이는 방법.
섭정(攝精) [치법] ⇒ 삽정(澁精)
성(腥) [징후] : 진단 오취(五臭)의 하나. 성(腥)이란 비린내로, 금(金)에 속하며, 폐(肺)와 통하므로 폐(肺)의 냄새이기도 하다.
성기(腥氣) [병리] 동 성취(腥臭), 성취기(腥臭氣), 기성취(氣腥臭), 성조기(腥臊氣) : 진단 환자의 담액(膽液)·한액(汗液)·백대(白帶)·분변(糞便) 등의 분비물 혹은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누린내이다.
성기(性氣) [사상] : 사상 성(性)은 사상인(四象人)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품성을 말함. 태양인의 성기(性氣)는 항상 전진하려 하며 후퇴하려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재주를 돌이켜보아 장엄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 소양인의 성기는 항상 거동하려 하고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돌이켜보되 확고하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다. 태음인의 성기는 스스로 돌이켜보아 주밀(周密)하지 않으면 고요할 수 없다. 소음인의 성기는 항상 들어앉으려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모사(謀事)를 돌이켜보아 광대하지 않으면 들어앉을 수 없다.
성기완상지병(性氣緩傷之病)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 나오는 말로 '久病病症重者性氣緩傷之病也, 新病病症重者情欲暴傷之病也'의 구문에 나온다. 오래된 병중에 중한 것은 성기(性氣)가 천천히 상한 병이라는 뜻이다.
성명(性命)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일장〉에 나오는 말로 본시 '중용(中庸)'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서 연유한 것임. 성명(性命)의 구조에서 천기(天機)는 지방(地方), 인륜(人倫), 세회(歲會), 천시(天時)로 인사(人事)는 거처(居處), 당여(黨與), 교우(交友), 사무(事務)로, 성(性), 즉 지(知)는 턱, 가슴, 배꼽, 배로, 명(命), 즉 행(行)은 머리, 어깨, 허리, 볼기로 연관 지어 상호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지행(知行)이 쌓이면 도덕(道德)이요 도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인성(人性)이니, 도덕이 다름 아닌 지행이요, 성명이 다름 아닌 지행이라고 하였다.
성시(聲嘶) [병증] : 안이 목이 쉬는 증.
성아(聲啞) [병증] ⇒ 성음(聲瘖)
성아후(聲啞喉) [병증] 동 구암(久瘖) : 안이 후

두 부위(喉頭部位) 이상으로 목이 쉬고 말을 잘 못하며 목이 아픈 병증.
성암(聲喑) [병증] ⇒ 성음(聲瘖)
성음(聲瘖) [병증] ㊐ 성암(聲喑), 성아(聲啞) : 안이 사시성(嗄嘶聲)이 되거나 음성을 발하지 못하는 것.
성음장애(聲音障碍) [병증] ⇒ 음아(瘖瘂)
성음저겁(聲音低怯) [병증] ㊐ 성저언미(聲低言微), 어성저미(語聲低微), 언미(言微), 음성저겁(音聲低怯), 언어저미(言語低微) : 내과 목소리가 미약하고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병증.
성저언미(聲低言微) [병증] ⇒ 성음저겁(聲音低怯)
성정(性情) [사상] : 사상 인간의 성품과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상의학과 기존의 다른 체질이론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의 체질구분의 가장 큰 이유를 성정(性情)의 차이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性)이란 본연의 이심(理心)의 애노희락(哀怒喜樂)이고 정(情)이란 이심(理心)의 애노희락(哀怒喜樂)이 촉동되어 나타나는 감정 자체를 말한다. 성정(性情)은 상승, 하강의 음양론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그에 따라 인체의 생리 및 병리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니 성정의 적절한 조절에 의해서 질병의 치료 및 그에 따른 양생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조기(腥臊氣) [병리] ⇒ 성기(腥氣)
성중(聲重) [병증] ⇒ 어성중탁(語聲重濁)
성질재간(性質材幹) [사상] : 사상 사상인(四象人) 변증론에서 사용되는 사상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로 체형기상(體形氣像)과 대비되어 내재적 특성을 설명한다. 태양인의 성질은 무슨 일에나 막힘이 없이 탁 트이게 처리하고, 소양인의 성질은 대쪽같이 곧고 단단하며, 태음인의 성질은 무슨 일이든 일단 착수한 것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강하며, 소음인의 성질은 단정하고 침착하며 무슨 일에나 차분하게 생각한다. 태양인의 재간은 친구들과 사귀는 일에 유능한데 의협심이 선행되고, 소양인의 재간은 공사(公私) 간에 이해를 초월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유능하며, 태음인의 재간은 일정한 곳에 오래 참고 견디며 거처하는데 유능하고, 소음인의 재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과 일을 처리하는데 유능하다.
성취(腥臭) [병리] ⇒ 성기(腥氣)
성취기(腥臭氣) [병리] ⇒ 성기(腥氣)
세락(細絡) [경락] : 경혈 작은 낙맥(絡脈).
세말(細末) [포제] : 본초 ① 한약 제형(劑型)의 하나. 보드라운 가루약. ② 부드럽게 가루를 내는 것.
세맥(細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脈)이 세직(細直)하면서 연(軟)한 것이 마치 실과 같으며, 미맥(微脈)보다는 약간 힘이 있고 뚜렷하다.
세신(細辛) [약물] : 본초 쥐방울덩굴과(馬兜鈴科 : Aristoloch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족도리 *Asarum sieboldi* Miq. 또는 민족도리풀(北細辛) *Asiasarum heterotropoides* Fr. var. *mandshuricum* (Maxim.) Kitag.의 뿌리.
세운(歲運) [운기] : 원전 오운(五運)이 그 해의 천간(天干)에 따라 한 해 기후변화의 운행을 주재하는 것을 말함. 갑기년(甲己年)에는 토운(土運)이, 을경년(乙庚年)에는 금운(金運)이, 병신년(丙辛年)에는 수운(水運)이, 정임년(丁壬年)에는 목운(木運)이, 무계년(戊癸年)에는 화운(火運)이 통괄한다.
세장(洗腸) [치법] : 재활 대장 내의 숙변을 직접 세척하여 제거하고 대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하여 장의 유착 및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한약 탕전액을 직접 팁을 통하여 항문에 주입하는 치료법.
세주(歲主) [운기] : 원전 육기(六氣)가 그 해의 지지(地支)에 따라 사천(司天)과 재천(在泉)으

로 상응하여 각기 한 해의 기후변화를 주재하는 것을 말함.
세회(歲會) [운기] : 원전 그 해의 오행운동을 주재하는 대운(大運)과 년지(年地)의 오행속성이 같은 경우. 60갑자 중 정묘(丁卯)·무오(戊午)·갑진(甲辰)·갑술(甲戌)·기축(己丑)·기미(己未)·을유(乙酉)·병자년(丙子年) 등 8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로 정묘년(丁卯年)은 대운이 목운(木運)이고 년지(年支)가 목(木)이며, 무오년(戊午年)은 대운이 화운(火運)이고 년지(年支)가 화(火)로 같다.
세후(歲候) [운기] : 원전 매년 천지지기(天地之氣)의 시작과 끝.
소(消) [치법] ⇒ 소법(消法)
소간(疏肝) [치법] 동 서간(舒肝), 설간(泄肝), 소간기(疏肝氣) : 방제 화법(和法)의 하나로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소산(疏散)시키는 방법.
소간기(疏肝氣) [치법] ⇒ 소간(疏肝)
소갈(消渴) [병증] : 내과 소곡선기(消穀善飢), 갈이다음(渴而多飮)한 병증(病證). 오늘날의 당뇨병, 뇨붕증 등 만성 소모성 질환을 포함하는 병증임.
소갈토회(消渴吐蛔) [병증] : 내과 소갈(消渴)하면서 회(蛔)를 토하는 병증.
소감(瘙疳) [병증] : 안이 가려움이 심하고 아프며 궤파(潰破)되어도 깊이 침식되지 않고 표피가 박리(剝離)되어 있는 감창(疳瘡).
소계(小薊) [약물] 동 묘계(猫薊)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조뱅이 *Cephalonoplos segetum* Kitamura의 전초(全草)로, 여름과 가을에 꽃이 필 때 거두어 잡질을 없애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소골공(小骨空)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수배부 새끼손가락 정중선의 첫마디 손가락뼈와 중간마디 손가락뼈의 몸 쪽 손가락뼈사이 관절(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횡문(橫紋) 중앙에 위치.
소근산(小根蒜) [약물] ⇒ 해백(薤白)
소기(少氣) [증상] 동 소기증(少氣證) : 내과 기가 약하여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상태.
소기증(少氣證) [병증] ⇒ 소기(少氣)
소뇌두풍(小雷頭風) [병증] : 안이 뇌두풍(雷頭風) 중 두통이 있으나 대변이 처음에는 윤변(潤便)이다가 후에 조결(燥結)해지고 소변도 처음에는 맑다가 삽(澁)하게 되는 것.
소단(消癉) [병증] : 내과 소갈병(消渴病)의 총칭. 혹 열중(熱中)을 지칭.
소담(消痰) [치법] ⇒ 거담법(祛痰法)
소도(消導) [치법] ⇒ 소도법(消導法)
소도(疏導) [치법] ⇒ 소도법(消導法)
소도법(消導法) [치법] 동 소도(消導), 소도(疏導), 소식도체(消食導滯), 소식화체(消食化滯) : 방제 소(消)법의 하나. 음식에 체한 것을 소화시켜 아래로 내려 보내고 비위의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 음식에 체해서 명치 밑이 그득하고 배가 불러 오르면서 아프고 신트림이 나며 식욕이 부진하고 때로 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소도법으로 백출·산사·신곡·맥아·진피·목향·사인·산약·육두구·복령 같은 약을 쓰거나 보화환을 쓰는 것 등이다.
소두(小肚) [해부] ⇒ 소복(小腹)
소락(小絡) [경락] : 경혈 작고 가느다란 낙맥(絡脈).
소락(消濼)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12)로서 팔꿈치와 겨드랑 뒤쪽 횡문까지 9촌의 골도법으로 천정(天井) 위 4촌에 위치.
소료(素髎)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5)로서 코끝 정중앙에 위치.
소목(蘇木) [약물] 동 소방목(蘇方木) : 본초 콩과(荳科: Leguminosae)에 속한 낙엽소교목 혹은 관목(灌木)인 소목 *Caesalpinia sappan* L.의 심재(心材)를 건조한 것으로, 연중 수시로

채취하여 수피(樹皮)와 변재(邊材)를 제거하고 중심부분만 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소방목(蘇方木) [약물] ⇒ 소목(蘇木)
소법(消法) [치법] 동 소(消) : 안이 식체, 기혈 및 열독이 응체되어 생긴 비만과 적취, 옹종을 소통시켜 치료하는 방법
소변난(小便難) [증상] : 내과 소변 양이 적으면서 배출이 쾌통순리(快通順利)하지 못하고 난삽(難澁)한 상태.
소변다(小便多) [증상] ⇒ 다뇨(多尿)
소변불금(小便不禁) [증상] 동 소변실금(小便失禁), 요불금(尿不禁), 요실금(尿失禁) : 내과 소변이 나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소변불리(小便不利) [증상] 동 요불리(尿不利) : 내과 소변양이 적으면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배출(排出)되면서도 쾌통순리(快通順利)하지 못한 증상.
소변불통(小便不通) [증상] 동 소변폐(小便閉), 요폐(尿閉) : 내과 외형적으로 소변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
소변빈삭(小便頻數) [증상] ⇒ 요빈(尿頻)
소변삭(小便數) [증상] ⇒ 요빈(尿頻)
소변실금(小便失禁) [증상] ⇒ 소변불금(小便不禁)
소변여력(小便餘瀝) [증상] 동 요유여력부진(尿有餘瀝不盡), 요후여력부진(尿後餘瀝不盡) : 내과 소변을 다 보고 난 후, 여분의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잔뇨감(殘尿感)을 갖는 증상.
소변융폐(小便癃閉) [병증] ⇒ 융폐(癃閉)
소변임력(小便淋瀝) [증상] ⇒ 임력(淋瀝)
소변자리(小便自利) [증상] : 내과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소변이 순조롭게 배출되는 증상.
소변폐(小便閉) [증상] ⇒ 소변불통(小便不通)
소복(小腹) [해부] 동 소두(小肚) : 하복(下腹)의 중부(中部)를 가리킴.
소복(少腹) [해부] : ① 동 소복(小腹) : 복(腹)의 하부로서, 배꼽과 골반 사이 부위가 해당. ② 배꼽 아래의 양쪽 부위를 가리킴.
소복결통(小腹結痛) [증상] : 내과 아랫배가 뭉치면서 아픈 증상. 어혈방광(瘀血膀胱), 한응하초(寒凝下焦), 체적장부(滯積臟腑) 등 사기가 신(腎)과 혈실(血室)로 들어가서 하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에서 나타난다.
소복동통(小腹疼痛) [증상] ⇒ 소복통(小腹痛)
소복만(少腹滿) [증상] : 내과 배꼽 아랫부분이 더부룩한 병증. 소복창(少腹脹).
소복만(小腹滿) [증상] : 내과 배꼽 아래(臍以下) 부위가 견경(堅硬)하고 창만(脹滿)한 증상.
소복옹(小腹癰) [병증] : 안이 배꼽 아래의 기해혈(氣海穴)과 관원혈(關元穴) 주위의 복피(腹皮)에 옹(癰)이 생긴 것. 부어 불룩하게 솟아오르고 붉으며 윤기가 흐르고 아픈 것이 배부까지 땅기며 쉽게 짓물러 걸쭉한 고름이 생기는 경우는 치료하기 쉽고, 만약 전체가 붓고 딴딴하며 잘 짓무르지 않고 짓물러도 묽은 고름이 생기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소복저(小腹疽) [병증] : 안이 아랫배 즉 기해혈, 관원혈, 단전혈 부위에 종기가 생긴 병.
소복종비(少腹腫痞) [병증] : 내과 아랫배가 붓고 결리는 병증.
소복통(小腹痛) [증상] 동 소복동통(小腹疼痛) : 내과 아랫배가 아픈 증상.
소복통(少腹痛) [증상] : 내과 배꼽 아래(臍以下) 부위의 통증.
소부(少府)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8)로서 형화혈(滎火穴)에 해당하고 손바닥에서 4·5 번째 손허리뼈(중수골; metacarpal) 사이의 중앙에 위치.
소비(消痞) [치법] : 방제 치법의 하나. 비적(痞積), 비만(痞滿)을 치료하는 방법.
소산(小産) [병증] 동 추상(墜傷) : 부인 임신

12주~28주 사이 태아가 이미 형성된 이후에 자연적으로 유산이 발생하는 것.
소산화(燒山火) [침구] ㊐ 소산화기법(燒山火技法), 소산화법(燒山火法) : 침구 자침(刺鍼)시 천(淺) 중(中) 심(深) 3층을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층마다 침을 꼭 잡아 빠르게 내리누르고 느슨히 들어 올리는 것을 9번씩 하여 온열(溫熱)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양기(陽氣)를 보(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산화기법(燒山火技法) [침구] ⇒ 소산화(燒山火)
소산화법(燒山火法) [침구] ⇒ 소산화(燒山火)
소상(少商)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11)로서 정목혈(井木穴), 십삼귀혈(十三鬼穴)에 해당하고 엄지손가락 노쪽(요골측) 손톱뿌리 각에서 1푼 되는 곳에 위치.
소생병(所生病) [병증] : 침구 경맥(經脈)이 연결된 장부본신(臟腑本身)의 병증.
소설(小舌) [병증] ⇒ 현옹수(懸雍垂)
소설(疏泄) [생리] ㊐ 소설작용(疏泄作用) : 생리 ① 간이 기를 소통시키고 담즙을 배설시키는 기능. ②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엉기어 있는 것을 내보내는 기능.
소설작용(疏泄作用) [생리] ⇒ 소설(疏泄)
소소객오(少小客忤) [병증] ⇒ 객오(客忤)
소수(消瘦) [증상] : 내과 몸이 점점 여위는 증상.
소수포(小水疱) [증상] : 안이 구진(丘疹)의 피부가 융기되어 공동성(空洞性)을 가진 피진(皮疹)을 말하며, 내용은 투명하거나 혼탁되어 있다.
소식(消息) [진찰] [치법] [기공] : 진단 ① 상체를 진찰하여 병정(病情)의 진퇴(進退)를 살피는 것. ② 병정(病情)의 진퇴(進退)에 따라 약물이나 음식물로 조리하는 것. ③ 기공(氣功) 용어로 내단술(內丹術)에서 소식(消息)으로 진양화(眞陽火)·퇴음부(退陰符)·문화(文火)·무화(武火)를 비유한 것.
소식도체(消食導滯) [치법] ⇒ 소도법(消導法)
소식화체(消食化滯) [치법] ⇒ 소도법(消導法)
소신(消腎) [병증] : 내과 신(腎)이 쇠약하여 통섭(統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갈병(消渴病).
소심(消心) [병증] : 내과 심화(心火)가 상염(上炎)하여 갈증이 심하고 소변양이 많은 소갈병(消渴病).
소아감안(小兒疳眼) [병증] ㊐ 감질상목(疳疾上目), 감안(疳眼) : 소아 안이 소아감질(小兒疳疾) 때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마르면서 야맹증이 있는 병증. 주로 소아에서 비기손상(脾氣損傷)으로 인한 영양흡수 장애 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안병(眼病)을 말함.
소아구루(小兒拘瘻) [병증] : 재활 동일한 병리기전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미성숙 골격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구루병이라 하고 성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골연화증이라 한다. 칼슘 및 인 대사의 장애로 골 기질에 무기질 침착이 불충분하여, 골조직이 약하고 변형되는 것이 특징.
소아낭종(小兒囊腫) [병증] : 소아 음낭(陰囊)이 빨갛게 붓고 헐어 문드러져 고환(睾丸)이 드러나는 병. 습열(濕熱)이나 화독(火毒)이 내려가 간경(肝經)에 몰리므로 일어난다.
소아농혈리(小兒膿血痢) [병증] : 소아 이질에 농혈(膿血)이 섞인 병증. 습열(濕熱)의 독기가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독기가 열로 변하여 혈의 운행을 방해하면 대장으로 스며들어 대장의 진액(津液)과 섞이고 쌓인 열이 뭉쳐 혈이 농으로 변하므로 이질에 농혈이 섞이고 이급후중(裏急後重)하게 된다.
소아다연(小兒多涎)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침을 많이 흘리는 병증. 비열(脾熱)이 위로 훈증(薰蒸)하거나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여 승강(升降)기능이 상실되고 운화(運化)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비열이 위로 훈증하여 나오는 침은 끈끈하면서 냄새가 나고, 비위가 허한(虛寒)한 경우에 나오는 침은 맑고 묽으며 적게

먹고 대변이 묽다.

소아맥문(小兒脈紋) [진찰] ⇒ 호구삼관맥문(虎口三關脈紋)

소아맥법(小兒脈法) [진찰] : 소아 소아 절진(切診)의 하나. 어린아이는 손목이 짧아 촌(寸), 관(關), 척(尺)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일지정삼관법(一指定三關法)으로 절진. 3세 이하의 아이는 오른손 무지로 아이의 고골맥(高骨脈) 위를 짚어 삼부로 나누고 식수(息數)를 정하며, 4세 이상의 아이는 고골 중선으로 관을 삼아 한 손가락을 양쪽으로 굴려가면서 삼부를 찾고, 7~8세의 아이는 무지를 옮기면서 삼부를 살피며, 9~10세 이상의 아이는 차례로 촌, 관, 척 3부를 짚어 진맥하고, 15세 이상은 성인과 같다.

소아병기(小兒病機) [병리] 동 소아병리(小兒病理) : 소아 소아 질병에 있어 병인(病因), 병위(病位), 증후, 장부기혈허실의 변화 및 경과 과정에서 변화되는 기전 등 병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이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아병리(小兒病理) [병리] ⇒ 소아병기(小兒病機)

소아부종(小兒浮腫) [병증] : 소아 체내에 수액이 고여 있다가 피부로 넘쳐서 머리, 얼굴, 눈 주위와 사지, 복부 및 전신이 붓는 병증. 부종으로 나타나는 병변은 비(脾), 폐(肺), 신(腎) 3장의 기능이 실조(失調)하여 기화(氣化)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액이 모여서 붓는 것이다.

소아생췌(小兒生贅) [병증] : 안이 첩피(睫皮)에 처음에는 삼베 씨 만한 크기로 사마귀가 발생하였다가 점차 콩알크기가 되며 안구를 마찰하면 적색을 띠고 누삽(淚澁)하게 되는 질환.

소아서병(小兒暑病) [병증] : 소아 어린이가 여름에 서사(暑邪)를 감수하여 생긴 병증. 더위는 양사(陽邪)이므로 더위를 먹어 병이 생기면 고열(高熱)과 구갈(口渴) 증상이 나타나며, 서사는 오르고 흩는 성질이 있으므로 사람에 침입하면 주리(腠理)를 열어 땀을 많이 흐르게 한다.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려서 기가 소모되면 기력이 없고 피곤한데 기의 소모가 심하면 갑자기 졸도하기도 한다. 더위는 대개 습(濕)을 수반하는데 서열증(暑熱症) 이외에도 피로, 식욕부진, 구토, 변당(便溏), 맥유(脈濡), 설태이(舌苔膩) 등의 증상이 있다.

소아설사(小兒泄瀉) [병증] : 소아 비위(脾胃)가 수습(水濕)의 침입을 받거나 젖이나 음식을 과식하여, 또 풍한서습(風寒暑濕)의 사기(邪氣)에 감촉되어 비(脾)가 운화기능을 상실하여 발생하는 설사. 본래 체질이 허약한데 갑자기 놀라 기기(氣機)의 승강(升降) 작용이 실조(失調)되거나, 과일이나 찬 것, 날 것을 많이 먹거나 한량(寒凉)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원기(元氣)를 손상시켜 장부가 허한(虛寒)해져서 설사가 나기도 하고, 오랜 병으로 비가 허하여 운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는 경우도 있다.

소아작목(小兒雀目) [병증] 동 간허작목내장(肝虛雀目內障) : 소아 소아의 야맹증(夜盲症). 소아작목은 대개 감질(疳疾)에 의한다.

소아지문(小兒指紋) [진찰] ⇒ 호구삼관맥문(虎口三關脈紋)

소아청맹(小兒靑盲) [병증] : 안이 청맹(靑盲) 중 그 발생 원인이 임신 중에 태가 풍사를 받음으로 인해 오장불화(五臟不和)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소아풍리(小兒風痢) [병증] : 소아 풍독(風毒)이 어린이의 비위(脾胃)를 침습(侵襲)하여 발생하는 이질.

소애주구(小艾炷灸) [침구] ⇒ 소주구(小炷灸)

소양(瘙痒) [병증] 동 소양(搔痒), 피부소양(皮膚瘙痒), 신양(身痒), 피부소양증(皮膚搔痒症), 소양증(搔痒症) : 안이 피부가 가려운 증상. 두드러기, 옴 등에서 보인다.

소양(搔痒) [병증] ⇒ 소양(瘙痒)

소양(少陽) [생리] [경락] ㊐ 소양경(少陽經) : 경혈 ① 음(陰) 안에 있던 양(陽)이 비로소 표출하는 단계를 말함. ② 소양경(少陽經). ③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소양겸위열증(少陽兼胃熱證) [병증] : 병리 소양증(少陽證)과 함께 위열증(胃熱證)이 나타나는 경우.

소양겸이실증(少陽兼裏實證) [병증] ㊐ 소양양명합병(少陽陽明合病) : 병리 소양병(少陽病)이 양명이증(陽明裏證)을 겸하여 완복만통(脘腹滿痛)과 변비불통(便秘不通) 등이 발생하는 것.

소양겸표증(少陽兼表證) [병증] : 병리 소양증(少陽證)에 태양(太陽)의 표증이 겸한 것으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첫째, 소시호탕증이면서 표증이 나타나는 경우로서 갈증이 없고 외부에 미열이 있는 경우, 둘째는, 태양의 표증에서 소양으로 전변하는 과정이지만 아직 표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소양경(少陽經) [경락] ⇒ 소양(少陽)

소양경병(少陽經病) [병증] ⇒ 소양경증(少陽經證)

소양경증(少陽經證) [병증] ㊐ 소양경병(少陽經病) : 사열(邪熱)이 소양경(少陽經)에 울결된 것으로 흉협고만(胸脇苦滿), 한열왕래(寒熱往來), 심번(心煩), 협통(脇痛) 등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熱邪)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으며, 소시호탕으로 치료한다.

소양병(少陽病) [병증] ⇒ 소양병증(少陽病證)

소양병증(少陽病證) [병증] ㊐ 소양병(少陽病) : 병리 육경병(六經病)의 하나. 사열(邪熱)이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어 야기된 것. 구고(口苦), 인건(咽乾), 목현(目眩), 한열왕래(寒熱往來), 흉협고만(胸脇苦滿), 심번희구(心煩喜嘔) 및 말이 없고 식욕이 없으며 맥이 현(弦)한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소양부병(少陽腑病) [병증] ⇒ 소양부증(少陽腑證)

소양부증(少陽腑證) [병증] ㊐ 소양부병(少陽腑病) : 병리 소양병(少陽病)의 하나. 족소양경의 부(腑)인 담(膽)에 사열(邪熱)이 왕성하여 생긴 병증. 구고(口苦), 인건(咽乾), 현훈(眩暈), 심하비민(心下痞悶)하고, 때때로 토하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맥이 현(弦)한 증상이 발생한다.

소양상풍증(少陽傷風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陽人篇〉에 서술된 병증으로 열이 나고 차가운 기운이 싫으며 맥이 부현(浮弦)하고 몸이 쑤시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소양인의 비수한표한병(脾受寒表寒病)에 속하는 병증이다. 병이 깊어지면 입이 쓰고 목이 건조하며 어지럽고 귀가 멍멍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혹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구역질을 하는 증상도 포함된다. 이는 소양인 신국(腎局)의 음기(陰氣)가 열사(熱邪)로 내려앉고 비국(脾局)의 음기가 열사로 응체되어 신국으로 하강하지 못하고 어깨 등골뼈 사이에 응취(凝聚)되어서 나타나는 병증이다.

소양양명합병(少陽陽明合病) [병증] ⇒ 소양겸이실증(少陽兼裏實證)

소양인(少陽人) [사상] : 사상 사상의학(四象醫學) 체질의 하나. 체형기상(體形氣像)은 가슴 부위가 성실하고 충실한 반면 엉덩이 아래로는 약하다. 성질재간(性質材幹)은 굳세고 날랜데 장점이 있고 재간은 일을 꾸리고 추진하는데 능하다. 용모사기(容貌詞氣)는 상체가 실하고 하체가 가벼워 걸음걸이가 날래다. 항심(恒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대변이 잘 통하면 건강한 상태이고 대변이 불통하면 대병(大病)이다. 소양인은 음청지기(陰淸之氣)가 보명지주이며 비수한표한병(脾受寒表寒病)의 표병은 소양상풍증(少陽傷風證), 결흉증(結胸證), 망음증(亡陰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수열이열병(胃受熱裏熱病)의 이병은 흉

격열증(胸膈熱證)과 음허오열증(陰虛午熱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양인은 외형이 흡사 소음인과 비슷하니 병세의 한열을 자세히 살펴 구분해야 한다.

소양인건망(少陽人健忘)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少陽人恒有懼心懼心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懼心益多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若懼心至於恐心則大病作而健忘也健忘者少陽人病之險證也'의 구문에 나온다. 건망증이 소양인의 병 중 위험한 병이라는 설명이다.

소양인결흉증(少陽人結胸證) [사상] : 사상 사상의학에서 소양인 소양상풍증(少陽傷風證) 중(重)증으로, 소양인이 소양증(少陽證)으로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한 증상은 결흉증(結胸證)이 되려는 징조이다. 결국 결흉증이 되면 땀이 조금 나면서 심하(心下)가 답답하고 경만하고 옆구리 밑으로 당기고 아프며 마른 구역질을 하고 숨이 가쁘며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심하(心下)가 경통(硬痛)하여 손을 댈 수가 없으며 갈증이 나고 헛소리를 하며 대변이 딱딱하고 맥이 침실유력(沈實有力)한 것은 결흉(結胸)의 심한 것이다.

소양인공심(少陽人恐心) [사상] :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少陽人恒有懼心懼心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懼心益多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若懼心至於恐心則大病作而健忘也健忘者少陽人病之險證也'의 구문에 나온다. 소양인의 구심(懼心)이 심화되어 공심(恐心)이 된다는 설명이다.

소양인구심(少陽人懼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少陽人恒有懼心懼心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懼心益多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若懼心至於恐心則大病作而健忘也健忘者少陽人病之險證也'의 구문에 나온다. 소양인이 항상 지니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라는 뜻이다.

소양인대변선통(少陽人大便善通)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 草本卷 〈病變五統〉 '少陰人飮食善化則完實而無病少陽人大便善通則完實而無病太陰人汗液通暢則完實而無病太陽人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의 구문에 나온다. 소양인의 건강척도는 대변을 잘 보는 것이라는 뜻이다.

소양인망음병(少陽人亡陰病) [사상] 동 소양인표병망음증(少陽人表病亡陰證) : 사상 망음증(亡陰證)은 음기(陰氣)가 하강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승하여 생기는 소양인 병증으로 신열두통설사(身熱頭痛泄瀉)를 주증으로 하는 신열두통망음(身熱頭痛亡陰)과 신한복통설사(身寒腹痛泄瀉)를 주증상으로 하는 신한복통망음(身寒腹痛亡陰)이 있다. 신열두통설사(身熱頭痛泄瀉)에는 저령차전자탕, 형방사백산을 사용하고 신한복통설사(身寒腹痛泄瀉)에는 활석고삼탕, 형방지황탕을 사용한다.

소양인비수한표한병(少陽人脾受寒表寒病) [사상] : 사상 소양인 병증. 소양인은 비대신소(脾大腎小)한 체질의 특수성 때문에 신음(腎陰)이 항상 부족하고 위(胃)의 양기(陽氣)가 왕성하게 된다. 따라서 비국(脾局)의 음기(陰氣)가 하강하지 못해 배려지간(背膂之間)에 몰려 울체되기 쉬워, 이때 외감에 촉감되면 비수한표한병(脾受寒表寒病)이 생긴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소양상풍증(少陽傷風證)과 망음증(亡陰證)이 나타나는데 그 치료 방법은 청리열이강표음(淸裏熱而降表陰)하고 이수하기(利水下氣)시키고 결흉(結胸)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양인상소(少陽人上消) [사상] : 사상 → 소양인소갈(少陽人消渴)

소양인소갈(少陽人消渴) [사상] : 사상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는 소양인의 당뇨병을 소갈(消渴)이라 하고 이를 상소(上消), 중소(中消), 하소(下消)로 구분하였다. 병자의 가슴속이 너그럽고 활달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 마음이 굳

어지고 소견이 얕고,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급하고, 계책이 골똘하나 생각이 돌지 않으므로 대장의 청양(淸陽)이 흡족하게 상승하지 못해 날이 갈수록 소모되어 이 병이 생기게 된다. 상소는 위국(胃局)의 청양(淸陽)이 올라가되 머리, 얼굴, 사지에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기고, 중소는 대장국(大腸局)의 청양이 올라가되 위국에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긴다. 상소는 중소보다 가벼운 증세이고 중소는 하소보다 가벼운 증세이다. 상소는 열기가 위로 올라가서 가슴이 번조하고 혀가 발갛고 입술이 붉다. 입술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지만 소변을 자주 보되 양은 적다. 중소는 열이 중초에 축적되어 소곡선기(消穀善飢)하고 음식을 보통 때보다 배나 먹으면서도 살은 찌지 않는다. 번조증은 심하지 않고 소변은 자주 보며 맛이 달다. 하소는 열기가 하초에 잠복하면 다리가 가늘어지고 골절산동(骨節痠疼)하고 물은 많이 마시지 않으나 소변양이 많고 탁하다. 상소에는 양격산화탕, 중소에는 인동등지골피탕, 하소에는 숙지황고삼탕을 투여한다.

소양인신열두통설사(少陽人身熱頭痛泄瀉) [사상] : 사상 → 소양인망음병(少陽人亡陰病)

소양인신한복통설사(少陽人身寒腹痛泄瀉) [사상] : 사상 → 소양인망음병(少陽人亡陰病)

소양인약(少陽人藥)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右少陽人藥諸種不可炮炙炒煨用'의 구문에 나온다. 소양인 병증론에 나오는 약재를 일컫는 말.

소양인외감방광병론(少陽人外感膀胱病論) [사상] : 사상 소양인 표병의 1894년 초판본식(初版本式) 표현. 소양인이 비대(脾大)하기 때문에 비(脾) 속의 양기(陽氣)가 커서 이것으로 인해 비속에 있는 음기(陰氣)가 핍박(逼迫)을 받아 하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병증.

소양인운기병(少陽人運氣病) [사상] : 사상 장중경(張仲景)이 논술한 소양반표반리증(少陽半表半裏證)과 양명열증(陽明熱證)을 말함.

소양인위수열이열병(少陽人胃受熱裏熱病) [사상] 동 위수열이열병(胃受熱裏熱病) : 사상 발열과 변폐(便閉)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양인의 이병증(裏病證). 평심정사(平心定思)하여 청양(淸陽)이 맑고 가볍게 위쪽으로 올라 두면사지(頭面四肢)에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심초사(勞心焦思)하여 양기(陽氣)가 아래로 떨어져 중탁해지며 두면사지에 울화가 되어 화기(火氣) 즉 모양(耗陽)이 나타나서 발생한다. 보양승기(補陽升氣)의 치법을 사용하며, 흉격열증(胸膈熱證), 이열변폐증(裏熱便閉證), 음허오열증(陰虛午熱證)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양인음허오열(少陽人陰虛午熱) [사상] 동 소양인이병음허오열증(少陽人裏病陰虛午熱證) : 사상 소양인위수열이열병(少陽人胃受熱裏熱病)으로 속하는 병증. 소양인의 신소(腎小)한 특징으로 인해 표양(表陽)이 상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음(表陰)도 하강하지 못하여 음허화동(陰虛火動)이 나타나는 병증이다. 숙지황고삼탕,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을 사용한다.

소양인음허화동대장열골증지병(少陽人陰虛火動大腸熱骨蒸之病) [사상] : 사상 소양인 이병(裏病)의 1894년 초판본식(初版本式) 표현. 소양인의 도한(盜汗) 소갈(消渴) 음허오열(陰虛午熱)을 말함. 대장의 열기가 뼈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병이니 그 병이 겨우 시작되었을 때는 가볍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있으나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지니 마땅히 수화기제탕, 칠미고삼탕, 칠미저령탕, 육미지황탕을 쓰고, 반드시 애노(哀怒)를 경계하고 음주와 여색(女色)을 끊어야 한다.

소양인음허화동위열육란지병(少陽人陰虛火動胃熱肉爛之病) [사상] : 사상 소양인 이병(裏病)의 1894년 초판본식(初版本式) 표현. 소양인의 소갈(消渴)을 말함. 음허화동(陰虛火動)과 위

열(胃熱)로 인하며, 중소(中消)가 이 병의 주된 증상이고, 상소(上消)는 중소(中消)의 초기 증상이며, 하소(下消)는 중소의 말기(末期) 증상이다. 얼굴, 눈, 입, 코, 인후, 치아의 병은 중소증이 변한 증상이고, 옹저와 강중(强中)의 병은 중소의 위험한 증이다. 치료법은 상소와 중소는 일찍 하는 것이 마땅하고, 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소, 옹저, 강중증(强中證)에는 천천히 하거나 너무 늦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청량산화탕, 방풍통성산, 양독백호탕을 써야 하고, 반드시 애노(哀怒)를 경계하고 음주와 여색(女色)을 끊어야 한다.

소양인이병음허오열증(少陽人裏病陰虛午熱證) [사상] ⇒ 소양인음허오열(少陽人陰虛午熱)

소양인이병흉격열증(少陽人裏病胸膈熱證) [사상] ⇒ 소양인위수열이열병(少陽人胃受熱裡熱病)

소양인중소(少陽人中消) [사상] : 사상 소양인이병(裏病) 소갈병(消渴病)에 속하는 병증. 소양인 대장국(大腸局)의 청양(淸陽)이 올라가되 위국(胃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병증이다. 인동등지골피탕을 사용한다.

소양인표병망음증(少陽人表病亡陰證) [사상] ⇒ 소양인망음병(少陽人亡陰病)

소양인하소(少陽人下消) [사상] : 사상 소양인이병(裏病) 소갈병(消渴病)에 속하는 병증. 소양인의 열기(熱氣)가 하초에 잠복하여 다리가 가늘어지고 골절산동(骨節痠疼)하고 물은 많이 마시지 않으나 소변양이 많고 탁한 병증이다. 숙지황고삼탕을 사용한다.

소양증(搔痒症) [병증] ⇒ 소양(瘙痒)

소용돌이욕(소용돌이浴) [치법] ⇒ 와류욕(渦流浴)

소유(消乳) [치법] ⇒ 단유(斷乳)

소음(少陰) [생리] [경락] ㊐ 소음경(少陰經) : 경혈 ① 새로운 음(陰)이 굳세지는 단계. ② 소음경(少陰經). ③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소음겸표증(少陰兼表證) [변증] ㊐ 태양소음양감(太陽少陰兩感) : 병리 발열, 오한, 무한(無汗)의 표증이 나타면서 소음병맥인 침맥이 나타나는 증.

소음경(少陰經) [경락] ⇒ 소음(少陰)

소음병(少陰病) [병증] ⇒ 소음병증(少陰病證)

소음병증(少陰病證) [병증] ㊐ 소음병(少陰病) : 병리 육경(六經)병의 하나. 대개 사기가 소음경(少陰經)에 전해지고 심신(心腎)의 양기(陽氣)가 쇠미해지며 음한(陰寒)이 내부에서 치성(熾盛)해짐으로 인해 발생. 특징은 맥이 미세하고 단지 잠만 자려고 하며 사지역랭(四肢逆冷), 하리청곡(下利淸穀)하고, 심하면 한출망양(汗出亡陽)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소음양허수범증(少陰陽虛水泛證) [병증] : 병리 신양허쇠(腎陽虛衰)로 수기불화(水氣不化)한 상태에서 음한지기(陰寒之氣)가 서로 결합하여 발생한 소음병 증상.

소음양허음성증(少陰陽虛陰盛證) [병증] : 병리 외감병의 전변 과정에서 병이 소음(少陰)에 있으면서 신양(腎陽)이 허손한 상태로 음양균형(陰陽均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성(陰盛)하게 된 것.

소음양허한응증(少陰陽虛寒凝證) [병증] : 병리 소음병(少陰病) 신양(腎陽)이 허손하여 하초에 음사(陰邪)가 응결된 것.

소음양허활탈증(少陰陽虛滑脫證) [병증] : 병리 소음병(少陰病)으로 하초 대장의 양기(陽氣)가 허약하여 대변이 하리(下利)하여 그치지 않고 심하면 농혈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소음열화증(少陰熱化證) [병증] : 소음병(少陰病)은 대개 양기(陽氣)가 허하여 발생하는 한증(寒證)이지만, 소음의 음(陰)이 허하여 열로 변하는 증상.

소음음성격양증(少陰陰盛格陽證) [병증] : 병리 환자가 본래 양허음성(陽虛陰盛)한데 병사가 소음(少陰)으로 전해오면 종음화한(從陰化寒)하여 음한사(陰寒邪)가 태성(太盛)하게 되고

허양(虛陽)을 핍박외월(逼迫外越)시키므로 음성격양(陰盛格陽)인 진한가열증후(眞寒假熱證候)를 형성하는 것.

소음음성대양증(少陰陰盛戴陽證) [병증] : 병리 소음병으로 신양(腎陽)이 허쇠하고 음기(陰氣)가 성하여, 하초로 귀원(歸元)하지 못하는 허양(虛陽)이 상초로 부월(浮越)되어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일종의 음성격양증(陰盛格陽證)이지만 면적(面赤)이란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소음음허수열호결증(少陰陰虛水熱互結證) [병증] : 병리 일종의 소음 열화증상(熱化證狀)으로서 음허(陰虛)하면서도 소변이 불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소음음허화왕증(少陰陰虛火旺證) [병증] : 병리 한사(寒邪)가 열로 전화하여 음액을 손상시킨 소음열화증(少陰熱化證)의 한 가지.

소음인(少陰人) [사상] : 사상 사상인 중 비소신대(脾小腎大)한 장국(臟局)을 타고난 사람으로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과 위수한표한병(胃受寒裏寒病)이 주로 나타난다.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에는 울광증(鬱狂證)과 망양증(亡陽證)이 있고, 위수한이한병(胃受寒裏寒病)에는 태음증(太陰證)과 소음증(少陰證)이 있다.

소음인건곽란(少陰人乾霍亂)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에 속하는 병증으로, 소음인이 직중음경(直中陰經)하여 생기는 병증. 밥이나 죽을 가까이하는 것을 금하고, 좋은 숭늉이나 미음을 먹게 한다.

소음인관격(少陰人關格)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에 속하는 병증으로, 소음인이 직중음경(直中陰經)하여 생기는 병증. 밥이나 죽을 가까이하는 것을 금하고, 좋은 숭늉이나 미음을 먹게 한다.

소음인냉기핍온기지설사(少陰人冷氣逼溫氣之泄瀉)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 소음증의 설사로, 냉기(冷氣)가 온기(溫氣)를 핍박(逼迫)해서 나타나는 설사.

소음인대장파한증(少陰人大腸怕寒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表病) 망양병(亡陽病)의 표현. 황기계지탕, 보중익기탕, 승양익기탕, 인삼계지부자탕, 승양익기부자탕을 사용한다.

소음인망양말증(少陰人亡陽末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表病) 망양증(亡陽證)의 말증(末證)으로, 양명병에 발열하고 땀이 몹시 흘러나오는 병증.

소음인망양병(少陰人亡陽病) [사상] 동 소음인표병망양증(少陰人表病亡陽證) : 사상 소음인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에 속하는 병증으로, 소음인 표병(表病)에서 유한자(有汗者)를 말함. 황기계지탕, 보중익기탕, 승양익기탕, 인삼계지부자탕, 승양익기부자탕을 사용한다.

소음인망양중증(少陰人亡陽中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망양증(亡陽證)의 중증(中證)으로, 양명병에 있어서 울광증(鬱狂證)은 없고 오히려 오열(惡熱)하며 땀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병증.

소음인망양초증(少陰人亡陽初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망양증(亡陽證)의 초증(初證)으로, 태양병에 발열하고 오한증을 일으키면서 땀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병증.

소음인불안정지심(少陰人不安定之心) [사상] : 사상 소음인의 항심(恒心)임.

소음인비약병(少陰人脾約病)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망양병(亡陽病)에 대한 표현으로, 진액이 점점 말라 비장의 윤기(潤氣)마저 점점 약해지는 병증.

소음인소음병(少陰人少陰病) [사상] 동 소음인이병소음증(少陰人裏病少陰證) : 사상 소음인 위수한이한병(胃受寒裏寒病)에 속하는 병증으로, 구중불화(口中不和) 구갈(口渴) 복통자리(腹痛自利)의 특징이 있음. 관계부자이중탕, 오수유부자이중탕, 독삼부자이중탕을 사용

한다.

소음인신수열표열병(少陰人腎受熱表熱病) [사상] : 사상 발열오한신통(發熱 惡寒 身痛)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인의 표병증. 소음인 비국(脾局)의 양기(陽氣)가 한사(寒邪)에 억눌린 바가 되어서 신국(腎局)의 양기가 그 한사의 저항을 받아 직승(直升)하여 비국에 연접하지 못하여 나타난다. 승양익기(升陽益氣)의 치법을 사용하며, 크게 울광증(鬱狂證)과 망양증(亡陽證)으로 분류되며 이외에 태양병궐음증(太陽病厥陰證) 등이 있다.

소음인신양곤열증(少陰人腎陽困熱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울광병(鬱狂病)의 표현. 천궁계지탕, 궁귀향소산, 십전대보탕, 팔물군자탕, 독삼팔물군자탕을 사용한다.

소음인약(少陰人藥) [사상] : 사상 소음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으로 양난지기(陽暖之氣)를 보강하는 특성이 있음. 인삼, 백출, 건강, 감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음인여간양기곤열(少陰人膂間陽氣困熱) [사상] : 사상 소음인 배려부위(背膂部位)에 있는 비국(脾局)의 양기(陽氣)가 곤열(困熱)되어 있는 것.

소음인열기각한기지한출(少陰人熱氣卻寒氣之汗出) [사상] : 사상 소음인의 열기(熱氣)가 한기(寒氣)를 물리치면서 나타나는 땀.

소음인온기축냉기지설사(少陰人溫氣逐冷氣之泄瀉)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 태음증(太陰證)의 설사로, 온기(溫氣)가 냉기(冷氣)를 쫓아내는 설사.

소음인외감여병론(少陰人外感膂病論)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의 1894년 초판본식(初版本式) 표현. 소음인 표병으로 비국(脾局)의 양기(陽氣)가 한사(寒邪)에 억눌린 바가 되어서 신국(腎局)의 양기가 그 한사의 저항을 받아서 직승(直升)하여 비국에 연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병증.

소음인운기병(少陰人運氣病) [사상] : 사상 장중경(張仲景)이 논술한 태양상풍증(太陽傷風證)과 양명대실대만증(陽明大實大滿證) 그리고 삼음증(三陰證)을 말한다.

소음인울광말증(少陰人鬱狂末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울광병(鬱狂病)의 말증(末證). 양명병에 해질 무렵 조열(潮熱)이 발하여서 미친 소리를 치고 약간 헐떡거리며 눈동자를 곧추세우는 병증.

소음인울광중증(少陰人鬱狂中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울광증(鬱狂證)의 중증(中證). 양명병에 위가(胃家)가 실(實)하게 되고 대변을 보고자 하여도 불통(不通)되는 병증.

소음인울광초증(少陰人鬱狂初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울광증(鬱狂證)의 초증(初證). 태양병 표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이 미친 자와 같이 되는 병증.

소음인울축방광지증(少陰人鬱縮膀胱之證) [사상] : 사상 소음인의 방광부위에 있는 신국(腎局)의 양기(陽氣)가 울축(鬱縮)되는 병증.

소음인위가실병(少陰人胃家實病)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울광병(鬱狂病)에 대한 표현으로, 진액이 이미 말라서 위(胃)의 전체가 조실(燥實)하게 된 병증.

소음인위수한이한병(少陰人胃受寒裡寒病) [사상] 동 위수한이한병(胃受寒裏寒病) : 사상 복통과 하리(下利)를 특징으로 하는 소음인의 이병증(裏病證). 소음인이 위기(胃氣)가 허약한 상태에서 한사(寒邪)를 받아 발생하는데 태음증(太陰證)과 소음증(少陰證)으로 대분된다. 태음증은 위중(胃中)의 온기(溫氣)가 대장(大腸)의 한기(寒氣)를 이기고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증세이고, 소음증은 대장 한기가 위중의 온기를 이기고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증세이다. 태음증에는 온위이강음(溫胃而降陰)하고 소음증(少陰證)에는 건비이강음(健脾而降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음인음성격양(少陰人陰盛隔陽)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에 속하는 병증. 소음인이 선조후번(先躁後煩)하는 병증으로 관계부자이중탕, 오수유부자이중탕, 벽력산을 사용한다.
소음인음식선화(少陰人飮食善化) [사상] : 사상 소음인의 완실무병(完實無病)의 상태. 소음인은 음난지기(陰暖之氣)가 보명지주(保命之主)가 되므로 음식이 선화(善化)하는 것이 완실무병(完實無病)의 상태이다.
소음인이병소음증(少陰人裏病少陰證) [사상] ⇒ 소음인소음병(少陰人少陰病)
소음인이병태음증(少陰人裏病太陰證) [사상] ⇒ 소음인태음병(少陰人太陰病)
소음인장궐(少陰人藏厥)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에 속하는 병증. 소음병(少陰病)에 사지궐랭(四肢厥冷)하고 토(吐)하고 설사를 하면서 조바심을 하는 병증으로 삼유탕, 사역탕, 관계부자이중탕, 오수유부자이중탕을 사용한다.
소음인직중음경(少陰人直中陰經)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 상한병에 한사(寒邪)가 음경(陰經)에 직입(直入)한 것으로, 처음부터 두통(頭痛), 신열(身熱), 갈증(渴症) 같은 증세는 없고 추워서 떨며 허리를 구부리고 누워서 병세가 위중(危重)하여 거듭 잠에 빠지고자 하며 입술이 파랗고 사지가 차가워지며 맥이 가늘어서 끊어지려하고 혹 맥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소음인태양병궐음증(少陰人太陽病厥陰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울광말증(鬱狂末證). 소음인의 태양상풍증(太陽傷風證)에 오한, 발열하며 땀이 저절로 나는 증이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여러 날 풀리지 못해 변하여서 된 증으로 삼유탕, 인삼오수유탕, 팔물군자탕를 사용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기계지탕, 팔물군자탕을 사용한다.
소음인태양병위가실증(少陰人太陽病胃家實證)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 울광병(鬱狂病)에 대한 표현. 진액이 이미 말라서 위(胃)의 전체가 조실(燥實)하게 된 병증.
소음인태음병(少陰人太陰病) [사상] 동 소음인이병태음증(少陰人裏病太陰證) : 사상 소음인 위수한이한병(胃受寒裏寒病)에 속하는 병증. 구중화(口中和), 불구갈(不口渴), 무복통자리(無腹痛自利)의 특징이 있으며 곽향정기산, 향사양위탕, 소합향원, 이중탕, 십이미관중탕, 파두여의단을 사용한다.
소음인태음병음독증(少陰人太陰病陰毒證)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 태음증(太陰證)에 속하는 병증으로 인삼계피탕, 인삼부자이중탕을 사용한다.
소음인태음병황달증(少陰人太陰病黃疸證)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 태음증(太陰證)에 속하는 병증으로 인진귤피탕, 인진부자탕, 인진사역탕, 장달환(瘴疸丸), 파두환(巴豆丸)을 사용한다.
소음인표병망양증(少陰人表病亡陽證) [사상] ⇒ 소음인망양병(少陰人亡陽病)
소음인한기범열기지한출(少陰人寒氣犯熱氣之汗出) [사상] : 사상 소음인의 한기(寒氣)가 열기(熱氣)를 범하면서 나타나는 땀을 말함.
소음인흉간위기파한(少陰人胸間胃氣怕寒) [사상] : 사상 소음인의 흉간부위(胸間部位)에 있는 위중열기(胃中熱氣)가 한기(寒氣)를 두려워하는 형상.
소자(蘇子) [약물] ⇒ 자소자(紫蘇子)
소자루(小眥漏) [병증] : 안이 소자(小眥) 즉, 외안각 쪽의 누낭염.
소장(小腸) [해부] [생리] 동 수성지관(受盛之官), 수성지부(受盛之腑) : 생리 ① 위로는 위(胃)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대장과 연결되어 위에서 부숙된 음식물을 받아들여 비별청탁(泌別淸濁)하는 장부. ② 수성지부(受盛之腑)·수성지관(受盛之官).

소장기체증(小腸氣滯證) [병증] 동 소장기통증(小腸氣痛證) : 병리 칠정울결(七情鬱結), 음한(陰寒)의 응결(凝結) 등으로 소장의 기기 순행이 안 되고 기혈의 통행이 순조롭지 못한 증. 소복교통(少腹絞痛), 일측음낭종창(一側陰囊腫脹), 혹 고환편추(睾丸偏墜), 외랭(畏冷) 등이 주증이고, 복창장명(腹脹腸鳴), 실기즉서(失氣則舒), 소복부혹유취기돌기(少腹部或有聚氣突起), 중추불서(重墜不舒) 등이 차증이며, 설태백활(舌苔白滑), 맥침현(脈沈弦)하다.

소장기통증(小腸氣痛證) [병증] ⇒ 소장기체증(小腸氣滯證)

소장병증(小腸病證) [병리] : 병리 소장의 수성(受盛), 화물(化物), 분별청탁(分別淸濁) 등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병증. 이를 허실로 분별하면 실증으로는 소장기체증(小腸氣滯證)과 소장실열증(小腸實熱證), 허증으로는 소장허한증(小腸虛寒證)이 있다.

소장기(小腸氣) [병증] ⇒ 소장산기(小腸疝氣)

소장기통(小腸氣痛) [병증] ⇒ 소장산기(小腸疝氣)

소장산(小腸疝) [병증] ⇒ 소장산기(小腸疝氣)

소장산기(小腸疝氣) [병증] 동 소장기(小腸氣), 공고(控睾), 소장산(小腸疝), 음호산기(陰戶疝氣), 소장기통(小腸氣痛) : 내과 소장(小腸)이 허(虛)한 틈을 타서 풍랭사기(風冷邪氣)가 침입함으로 인해 소복(小腹)이 고환(睾丸)까지 파급되어 땅기는데, 반드시 요배(腰背)까지 파급되어 아픈 병증.

소장설(小腸泄) [병증] : 내과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대변에 피고름이 섞여 나오고 아랫배가 아픈 병증.

소장수(小腸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27)로서 첫 번째 엉치뼈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소장승격(小腸勝格) [침구] ⇒ 소장승방(小腸勝方)

소장승방(小腸勝方) [침구] 동 소장승격(小腸勝格) : 침구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실증(實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통곡(通谷) 전곡(前谷) 보(補), 삼리(三里) 소해(小海) 사(瀉).

소장실열(小腸實熱) [병리] ⇒ 소장실열증(小腸實熱證)

소장실열증(小腸實熱證) [병리] 동 소장실열(小腸實熱) : 병리 심열(心熱)이 소장에 전해져 이열(裏熱)이 치성(熾盛)해짐으로써 분비기능이 실조되거나 습열화사가 화열(化熱)되어 소장에 축적(蓄積)된 증. 소변단적(小便短赤), 요도작통(尿道灼痛), 구갈(口渴) 등이 주증이고, 심번(心煩), 심즉혈뇨(甚則血尿), 구설생창(口舌生瘡) 등이 차증이며, 설홍태황(舌紅苔黃), 맥삭유력(脈數有力)하다.

소장옹(小腸癰) [병증] : 안이 소장경(小腸經)의 모혈(募穴)인 관원혈(關元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소장저(小腸疽) [병증] : 소장에 저(疽)가 생긴 것. → 소장옹(小腸癰)

소장정격(小腸勝格) [침구] ⇒ 소장정방(小腸正方)

소장정방(小腸正方) [침구] 동 소장정격(小腸正格) : 침구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허증(虛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임읍(臨泣)·후계(後谿) 보(補), 통곡(通谷)·전곡(前谷) 사(瀉).

소장증(小腸蒸) [병증] : 내과 하초(下焦)에 열이 있어 소변을 볼 때 아픈 병증.

소장창(小腸脹) [병증] : 내과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허리가 땅기면서 아픈 병증.

소장풍(小腸風) [병증] 동 소장풍증(小腸風證) : 내과 잘 낫지 않는 음창(陰瘡). 음호(陰戶)에 창(瘡)이 생겨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병증.

소장풍증(小腸風證) [병증] ⇒ 소장풍(小腸風)

소장해(小腸咳) [병증] : 내과 기침을 하면서 방

귀가 나오는 병증.
소장허한(小腸虛寒) [병리] ⇒ 소장허한증(小腸虛寒證)
소장허한증(小腸虛寒證) [병리] 동 소장허한(小腸虛寒) : 병리 생랭지물(生冷之物)의 과식이나 신양허(腎陽虛)로 인해 발생된 비위(脾胃)의 허한(虛寒)이 소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도 및 분비기능이 저하된 소장한성(小腸寒盛)의 증. 대변수곡불화(大便水穀不化), 복통(腹痛), 사지불온(四肢不溫) 등이 주증이고, 소변불리(小便不利), 대변청희(大便淸稀), 형한지랭(形寒肢冷) 등이 차증이며, 설태백활(舌苔白滑), 맥침무력(脈沈無力)하다.
소종(消腫) [치법] : 안이 옹저나 상처가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방법.
소종지통(消腫止痛) [치법] : 재활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법.
소주구(小炷灸) [침구] 동 소애주구(小艾炷灸) : 침구 맥립(麥粒)만한 크기의 애주(艾炷)로 뜨는 직접구.
소중(消中) [병증] ⇒ 중소(中消)
소증(素證) [사상] : 사상 사상 체질별로 각각 타고나는 증후.
소충(少衝)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9)로서 정목혈(井木穴)에 해당하고 새끼손가락 손톱뿌리 각에서 노쪽(요골측)으로 1푼 되는 곳에 위치.
소침자(燒鍼刺) [침구] ⇒ 온침(溫鍼)
소택(少澤)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로서 정금혈(井金穴)에 해당하고 새끼손가락 손톱뿌리 각에서 자쪽(척골측)으로 1푼 되는 곳에 위치.
소파(搔破) [병리] : 안이 조흔(爪痕). 손톱으로 마찰 후에 나타나는 표피손상과 미세출혈 이후 색소침착의 증상.
소풍(疏風) [치법] ⇒ 거풍(祛風)
소합유(蘇合油) [약물] ⇒ 소합향(蘇合香)
소합향(蘇合香) [약물] 동 소합유(蘇合油) : 본초 조롱나무과(金縷梅科 : Hamamelid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소합향수(蘇合香樹) *Liquidambar orientalis* Mill.의 수지. 초여름에 수피에 목부(木部)까지 이르도록 상처를 내어 향지(香脂)를 분비케 해서 수피부분에 스며들게 한다[일차제품(一次製品)]. 이것을 알콜에 용해해서 여과한 다음 알콜을 증발시켜 정제소합향을 제조.
소해(少海)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3)로서 합수혈(合水穴)에 해당하고 팔꿈치를 굽혔을 때 팔꿈치 횡문 안쪽 끝(자쪽; 척측)에 위치.
소해(小海)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8)로서 합토혈(合土穴)에 해당하고 팔꿈치를 굽혔을 때 팔꿈치와 위팔뼈(상완골; humerus) 안쪽위관절융기(내측상과; medial epicondyle)의 사이에 위치.
소형(小荊) [약물] ⇒ 만형자(蔓荊子)
소회향(小茴香) [약물] ⇒ 회향(茴香)
속골(束骨)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5)로서 수목혈(兪木穴)에 해당하고 5 번째 발허리뼈머리(중족골소두; head of metatarsal bone)의 뒤쪽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속골목(續骨木) [약물] ⇒ 접골목(接骨木)
속단(續斷) [약물] : 본초 산토끼꽃과(川續斷科 : Dipsac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천속단 *Dipsacus asper* Wall.의 뿌리. 가을에 채취하여 근두(根頭)와 미초(尾稍) 및 세근(細根)을 제거하고 미화(微火)로 홍건(烘乾)하여 사용.
속발성병인(續發性病因) [병리] : 병리 외감병인, 내상병인 등의 작용으로 체내에 생성된 병리적 산물이 다시 2차적인 병인으로 작용할 때 이 병리적 산물을 속발성 병인이라고 하며, 담음, 어혈이 이에 해당.
속수자(續隨子) [약물] 동 천금자(千金子) : 본초

大戟科(대극과 : Euphorbiaceae)에 속한 이년생 초본인 속수자(續隨子) *Euphorbia lathyris* L.의 성숙한 종자로, 여름과 가을에 종자가 성숙하면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속창(粟瘡) [병증] : 안이 안검 내측에 발생하는 과립성(顆粒性) 질환을 말함.

속태(束胎) [치법] ⇒ 수태(瘦胎)

손락(孫絡) [경락] 동 손맥(孫脈) : 경혈 세소한 낙맥(絡脈). 낙맥(絡脈)에서 갈라진 가지.

손맥(孫脈) [경락] ⇒ 손락(孫絡)

손설(飧泄) [병증] : 내과 분변의 질이 청희(淸稀)하며, 불소화(不消化) 식물잔사(食物殘渣)가 섞이고, 장명복통(腸鳴腹痛)하며, 맥현완(脈弦緩)이 나타나는 병증.

손요(損腰) [병증] : 재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허리에 손상을 입은 것.

손태(損胎) [병증] : 부인 임신시 태아가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된 것. 손태(損胎)가 심하면 유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솔곡(率谷)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8)로서 귀 꼭지의 수직 위 머리카락 나는 경계면 위로 1촌 5푼 되는 오목한 곳에 위치.

송근해응(鬆筋解凝) [치법] : 재활 송(鬆)은 순(順), 동(動) 즉 통(通)의 의미로 근(筋)을 통하게 하여 응체된 담음, 어혈 등을 풀어준다는 의미.

송엽(松葉) [약물] : 본초 소나무과(松科 : Pinaceae)에 속한 상록 교목인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arini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엽(葉).

송자인(松子仁) [약물] ⇒ 해송자(海松子)

송절(松節) [약물] : 본초 소나무과(松科 : Pinaceae)에 속한 상록 교목인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arini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나뭇가지 마디.

송피선(松皮癬) [병증] 동 마피선(馬皮癬) : 안이 피부가 나무껍질과 같고 홍백색의 반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때로 가려운 선증(癬證).

송화(松花) [약물] ⇒ 송화분(松花粉)

송화분(松花粉) [약물] 동 송화(松花), 송황(松黃) : 본초 소나무과(松科 : Pinaceae)에 속한 상록 교목인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arini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화분(花粉).

송황(松黃) [약물] ⇒ 송화분(松花粉)

쇄(曬) [포제] ⇒ 쇄건(曬乾)

쇄(刷) [포제] ⇒ 쇄법(刷法)

쇄건(曬乾) [포제] 동 쇄(曬), 폭건(暴乾), 폭건(曝乾) : 본초 약재 가공법의 일종으로 직접 햇볕에 말리는 것. 일반적으로 뿌리, 껍질, 열매를 약용으로 하는 약물은 쇄건하고, 방향성이 있거나 색소가 들어 있는 약물은 쇄건(晒乾)하지 않는다.

쇄골저(鎖骨疽) [병증] ⇒ 결분저(缺盆疽)

쇄구정(鎖口疔) [병증] : 안이 취각(嘴角)에서 발생한 정창(疔瘡). 반순정(反脣疔)과 같이 초기에는 좁쌀모양이고 자색을 띠나 철판과 같이 단단하다.

쇄두(鎖肚) [병증] : 소아 갓 태어난 아기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 영아가 출생 후 2, 3일이 지나도록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생리적인 기형(畸形) 이외에는 대부분 태열(胎熱)이 울결 되었거나 허약하게 태어나 대장으로 변을 보낼 힘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항문이 막히는 증형(症形)의 하나.

쇄법(刷法) [포제] 동 쇄(刷), 쇄정(刷淨) : 본초 한약재의 겉에 붙어 있는 솜털과 섞인 물질을 솔 같은 것으로 쓸어버리는 것. 석위나 비파엽 같은 것은 이 방법으로 솜털을 없앤다.

쇄양(瑣陽) [약물] ⇒ 쇄양(鎖陽)

쇄양(鎖陽) [약물] 동 쇄양(瑣陽) : 본초 쇄양과(鎖陽科 : Cynomoraceae)에 속한 다년생 육질기생 초본인 쇄양(鎖陽) *Cynomorium songaricum* Ruprecht의 꽃대를 없앤 육질경(肉質

莖).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꽃대를 제거하고 절단한 후 건조하여 사용.
쇄정(刷淨) [포제] ⇒ 쇄법(刷法)
쇄항력(鎖項癧) [병증] : 안이 콩이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나력(瘰癧).
쇄항치(鎖肛痔) [병증] : 안이 항문괄약근 부위에 여러 개의 치핵(痔核)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대변을 볼 때는 돌출되었다가 몸을 일으키면 수축되는 치창(痔瘡).
쇄후독(鎖喉毒) [병증] ⇒ 후독(喉毒)
쇄후풍(鎖喉風) [병증] : 안이 후두(喉頭)가 종대되어 계란모양으로 붓고 폐쇄불통(閉鎖不通)하며 담(痰)이 많아지면서 천증(喘症)을 발하는 병증.
수(輸) [경혈] 동 수(腧) : 경혈 수혈(腧穴)의 별명(別名). 침구치료의 자극점. 경혈(經穴), 경외기혈(經外奇穴), 아시혈(阿是穴)을 포괄하는 말.
수(嗽) [병증] : 내과 가래만 있고 소리가 나지 않는 기침.
수(腧) [경혈] ⇒ 수(輸)
수감(水疳) [병증] : 안이 포성 각결막(泡性 角結膜)과 유사.
수건마찰(手巾摩擦) [치법] 동 수건욕(手巾浴), 스폰지욕(스폰지浴) : 재활 기구를 이용한 수치료법의 하나로 수건이나 스폰지를 이용하여 몸에 마찰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는 치료법.
수건욕(手巾浴) [치법] ⇒ 수건마찰(手巾摩擦)
수고(水蠱) [병증] : 내과 수독(水毒)의 기가 몸 안에 맺혀 배가 커지면서 소리가 나는 병증.
수곡대사(水穀代謝)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언급되어 있는 수곡의 대사. 수곡이 위완(胃脘)에서 胃(위)로 들어가고 소장을 거쳐 대장을 지나 항문으로 나가는 것. 위에 정축(停蓄)되어 훈증(薰蒸)을 거쳐 열기(熱氣)로 변하고, 소장에서 소도되어 평담(平淡)하게 량기(凉氣)가 되며, 열기 중 경청(輕淸)한 것은 상승하여 위완(胃脘)에서 온기(溫氣)가 되고, 량기(凉氣) 중 질중(質重)한 것은 하강하여 대장에서 한기(寒氣)가 된다.
수곡리(水穀痢) [병증] : 소아 전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는 병증.
수곡지기(水穀之氣) [생리] 동 곡기(穀氣), 후천지기(後天之氣) : 생리 음식물의 영양물질.
수곡지해(水穀之海) [생리] ⇒ 위(胃)
수곽(水廓) [해부] ⇒ 동신(瞳神)
수관법(水罐法) [침구] : 침구 재활 부항과 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부항법으로 물에 넣고 끓인 부항을 뜨거운 상태에서 혈자리나 혹은 아픈 자리의 살갗에 엎어 부착시키는 부항요법.
수구(水溝) [경혈] 동 귀궁(鬼宮), 인중(人中), 수구침술(水溝鍼術)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6)로서 십삼귀혈(十三鬼穴)에 해당하고 인중(philtrum) 도랑 중앙에 위치.
수구감(袖口疳) [병증] : 안이 음경(陰莖)에 창종(瘡腫)이 생기고 외피(外皮)가 종창(腫脹)되어 귀두(龜頭)를 감싸는 감창(疳瘡).
수구침술(水溝鍼術) [침구] ⇒ 수구(水溝)
수권(手券) [병증] : 재활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펴지지 않는 것.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경락]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로 천지(天池)에서 기시하여 중충(中衝)에서 종지하고 신경정신(神經精神) 질환, 순환기계(循環器系) 질환 등을 다스리는 경맥.
수금체질(水金體質) [진찰] : → 수체질(水體質)
수기(水氣) ① [병리] : 병리 부종, 수종과 같은 뜻으로 쓰임. 병인으로 볼 때는 수기라 하고 증상으로 볼 때는 수종이라 함. 수음(水飮), 담음의 뜻으로도 쓰임. ② [병증] ⇒ 수기병(水氣病)
수기릉심(水氣凌心) [병리] : 내과 수액(水液)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정체하여 심(心)을 침범하는 병리 기전.
수기릉심증(水氣凌心證) [병증] 동 수음범심증(水飮犯心證) : 병리 수음(水飮)이 정체되어 심

양(心陽)을 조알(阻遏)한 증(證). 심계(心悸), 천식불능평와(喘息不能平臥), 주신부종(周身浮腫), 면색광백(面色晄白) 등이 주증이고, 심황(心慌), 신피권태(神疲倦怠), 기단(氣短), 흉완비만(胸脘痞滿), 외한지랭(畏寒肢冷), 소변단소청백(小便短少淸白)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설반대(舌胖大), 태백활(苔白滑), 맥침세(脈沈細)하다.

수기법(手技法) [치법] 동 수기요법(手技療法), 수기조정법(手技調整法) : 재활 어떤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치료하는 방법.

수기법견인(手技法牽引) [추나] ⇒ 견인법(牽引法)

수기병(水氣病) [병증] 동 수기(水氣) : 내과 수종(水腫)으로 인한 병(病), 먼저 눈 밑에 미미한 부종이 발생하는 병증. → 수종(水腫)

수기요법(手技療法) [치법] ⇒ 수기법(手技法)

수기의학(手技醫學) [추나] : 추나 각종 수기법(手技法)에 의한 치료방법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세계 공통용어. 각각의 특성에 따른 명칭을 살펴보면 massage · chiropractic · osteopathy · muscle energy technique · exercise therapy · applied kinesiology technique · myofascial release technique · pediatry medicine · 파라문안마법(波羅門按摩法) · 조체요법(操體療法) · 지압요법(指壓療法) 및 추나의학(推拿醫學) 등으로 각 나라의 전통적인 언어, 문화적 관습에 따라 고유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수기조정법(手技調整法) [치법] ⇒ 수기법(手技法)

수단(水丹) [병증] 동 풍단(風丹) : 안이 단독(丹毒)의 일종. 전신에 수포(水疱)를 형성하고 또 때로는 농포를 형성하기도 하며, 수분이 피부내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데 광택이 있고 창만하며, 궤파(潰破)가 되면 황색삼출물이 흐르면서 아프고 짓무른다. 주로 퇴슬(腿膝)에 많이 발생.

수도(水道)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8)로서 관원(關元) 양쪽 2촌에 위치.

수독(水毒) [병증] 동 수독기(水毒氣), 계독(溪毒), 계온(溪溫) : 내과 물속에서 얻게 되는 것으로 한열(寒熱)하고 민란(悶亂)하며 두목(頭目)이 구통(俱痛)하여 중시증(中尸證)과 같아서 졸지에 말을 못하게 되는 병증.

수독기(水毒氣) [병증] ⇒ 수독(水毒)

수돌(水突)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0)로서 목빗근(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앞이며 인영(人迎)과 기사(氣舍)의 중간에 위치.

수두(水痘) [병증] : 소아 두진(痘疹)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하지만 겨울과 봄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임상에서는 열이 나면서 피부와 점막에 반진(斑疹), 구진(丘疹)과 창진(瘡疹)이 나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시사풍독(時邪風毒)을 외감하여 습열(濕熱)이 울결 되면 위분(衛分)을 요동시켜 발생한다.

수렴장(垂簾障) [병증] ⇒ 적막하수(赤膜下垂)

수렴장(垂廉障) [병증] ⇒ 적막하수(赤膜下垂)

수륜(水輪) [해부] ⇒ 동신(瞳神)

수륜창(水輪脹) [병증] : 안이 동인(瞳人)이 창출(脹出)하는 것.

수마(水馬) [약물] ⇒ 해마(海馬)

수명(羞明) [병증] 동 수명파백(羞明怕白) : 안이 빛 등 환한 것을 싫어하고 눈부셔하는 것.

수명파백(羞明怕白) [병증] ⇒ 수명(羞明)

수모배혈법(兪募配穴法) [침구] : 침구 장부(臟腑)의 배수혈(背兪穴)과 복모혈(腹募穴)을 배합하는 배혈법.

수모혈(兪募穴) [경혈] : 경혈 수혈(兪穴)과 모혈(募穴)

수목체질(水木體質) [진찰] : → 수체질(水體質)

수발배(手發背) [병증] : 안이 손등(手三陽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수병(水病) [병증] ⇒ 수종(水腫)
수부(手夫) [진찰] ⇒ 일부법(一夫法)
수부(兪府)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7)로서 선기(璇璣) 양쪽 2촌으로 빗장뼈(쇄골; clavicle) 아랫면의 오목한 곳에 위치.
수분(水分)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9)로서 배꼽 위 1촌에 위치.
수비(水飛) [포제] : 본초 약재를 곱게 연말(硏末)하는 방법. 물에 녹지 않는 약재를 물과 함께 세말(細末)한 후 물을 넣고 섞어 주면 비교적 굵은 입자는 아래로 가라앉고, 고운 분말은 물과 섞여 있는데 이를 다른 그릇에 따라 침전시킨 후 물과 분리해서 건조하면 아주 고운 분말이 된다.
수사(水瀉) [병증] 동 수설(水泄) : 내과 비(脾)가 허약하여 습이 성해져서 배가 더부룩하고 물 같은 설사를 심하게 하는 병증.
수산(水疝) [병증] : 내과 음낭(陰囊)이 한습(寒濕)하여 진물이 흐르거나 수정(水晶)처럼 붓는 병증. 산증(疝證)의 하나.
수삼리(手三里)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0)로서 양계(陽谿)와 곡지(曲池)를 잇는 가정선 상에서 팔꿈치 횡문 아래 2촌에 위치.
수삼양(手三陽) [경락] 동 수삼양경(手三陽經) : 경혈 수부(手部)에서 두부(頭部)로 향(向)하는 경락으로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과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과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이 있다.
수삼양경(手三陽經) [경락] ⇒ 수삼양(手三陽)
수삼음(手三陰) [경락] 동 수삼음경(手三陰經) : 경혈 흉부(胸部)에서 수부(手部)로 향(向)하는 경락으로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과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과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이 있다.
수삼음경(手三陰經) [경락] ⇒ 수삼음(手三陰)
수삽(收澁) [치법] ⇒ 고삽법(固澁法)
수삽약(收澁藥) [약물] ⇒ 고삽법(固澁法)
수설(水泄) [병증] ⇒ 수사(水瀉)
수성(受盛) [생리] : 생리 소장이 위(胃)에서 소화시킨 음식물을 받아들여 청탁(淸濁)을 분별하는 기능.
수성지관(受盛之官) [생리] ⇒ 소장(小腸)
수성지부(受盛之腑) [생리] ⇒ 소장(小腸)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 [경락]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로서 관충(關衝)에서 기시하여 사죽공(絲竹空)에서 종지하는 경맥. 신경정신(神經精神) 질환, 열성병(熱性病), 측두부(側頭部), 안(眼), 이(耳) 질환 등을 다스린다.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경락] 동 심경(心經)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로서 극천(極泉)에서 기시하여 소충(少衝)에서 종지하는 경맥. 순환기계(循環器系) 질환, 신경정신(神經精神) 질환 등을 다스린다.
수수(几几) [증상] : 내과 목과 등줄기가 뻣뻣하여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여 부자연스러운 증상.
수수(漱水) [증상] : 내과 물을 머금기만 하고 삼키려고 하지 않는 증상.
수수체질(水水體質) [진찰] : → 수체질(水體質)
수습(水濕) [병리] : 병리 인체 진액이 병리적으로 변한 것. 병인으로 작용할 때 습(濕)이라 하고, 병증(病證) 개념으로 지칭할 때 수(水)라고 한다. 습(濕)은 담음(痰飮)과 유사하나 담음이 속발성 병인인데 반해 습은 외습(外濕)과 내습(內濕)으로 구분하여 육음(六淫)과 내생오사(內生五邪)의 범주로 설명되고 있다.
수습범람(水濕泛濫) [병리] : 병리 기화불리(氣化不利)하여 수습(水濕)이 저류(貯留)하고 기부(肌膚)에 범일(泛溢)하여 두면(頭面)·사지(四肢)·흉복(胸腹)·요배(腰背) 및 전신의 부종으로 나타나는 병리현상.
수습범람증(水濕泛濫證) [병증] 동 양허수범증

(陽虛水泛證) : 병리 외사(外邪)가 양기(陽氣)를 방해하거나, 본래부터 양기부족(陽氣不足)으로 기화(氣化)가 안 되어 수습(水濕)을 운행하지 못하여 기부(肌膚)에 넘쳐서 생기는 증. 안면부종(顔面浮腫), 눈두덩이의 미종(微腫), 사지부종(四肢浮腫), 심하면 흉(胸), 복(腹), 요배(腰背) 등의 수종(水腫), 소변불리(小便不利) 등이 주증이고, 신중흉민(身重胸悶), 오심욕구(惡心欲嘔), 완복창만(脘腹脹滿), 형한지랭(形寒肢冷), 요통산중(腰痛痠重), 발열오한(發熱惡寒) 등이 차증이며, 태백이(苔白膩), 맥부활혹침완(脈浮滑或沈緩)하다.

수승화강(水升火降) [병리] : 병리 심(心)은 주화(主火)하고 신(腎)은 주수(主水)하는데, 심화(心火)가 하강하고 신수(腎水)가 상승하면 수화(水火)가 기제(旣濟)되어 심신(心腎)이 서로 통하여 신기(神氣)가 안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체 하부의 음수(陰水)가 양화(陽火)의 도움으로 상승하고, 상부의 양화가 음수의 도움으로 하강하는 현상을 수승화강(水升火降)이라 한다.

수심독(手心毒) [병증] : 안이 수장부(手掌部) 감염의 총칭.

수심열(手心熱) [병증] : 내과 손바닥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병증.

수아발(手丫發) [병증] : 안이 대지합곡혈(大指合谷穴)을 제(除)하고, 그 외의 지골(指骨)과 지골(指骨) 사이에서 발생하는 옹저.

수약(嗽藥) [약물] ⇒ 백전(白前)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경락] 동 대장경(大腸經)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로서 상양(商陽)에서 기시하여 영향(迎香)에서 종지하는 경맥. 신경정신(神經精神) 질환, 열성병(熱性病), 위장 및 복부기관 질환 등을 다스린다.

수역(水逆) [병증] : 내과 물을 마시면 곧 토하는 병증.

수연(手軟) [병증] : 소아 오연(五軟)의 하나. 사지가 무력한 것으로 쥐거나 들 수 없다.

수오리(手五里) [경혈] 동 척지오간(尺之五間)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3)로서 곡지(曲池)와 견우(肩髃) 사이를 1척의 골도법으로 하여 곡지(曲池) 위 3촌에 위치.

수옹(垂癰) [병증] ⇒ 상악옹(上顎癰)

수우각(水牛角) [약물] : 본초 소과(牛科 : Bovidae)에 속한 무소(水牛) *Bubalus bubalis* L.의 뿔.

수유단(茱萸丹) [병증] : 안이 피부가 건조하고 마두립(麻豆粒)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단독(丹毒).

수음(水飮) [병리] ⇒ 담(痰)

수음내정증(水飮內停證) [병증] 동 수음정취증(水飮停聚證) : 병리 수음(水飮)이 흉협(胸脇), 위장(胃腸), 사지(四肢) 등의 부위에 모이는 증. 위중진수음(胃中振水音), 장간녹녹유성(腸間漉漉有聲), 사지중종(四肢重腫), 흉협철통(胸脇掣痛), 해타인통(咳唾引痛), 배랭여장대(背冷如掌大) 등이 주증이고, 소성금수(素盛今瘦), 완복비창(脘腹痞脹), 기단식촉(氣短息促), 담다(痰多), 구토연말(嘔吐涎沫), 두훈목현(頭暈目眩), 안면부종(顔面浮腫) 등이 차증이며, 태백이(苔白膩), 맥현활혹침현(脈弦滑或沈弦)하다.

수음범심증(水飮犯心證) [병증] ⇒ 수기릉심증(水氣凌心證)

수자(酥炙) [포제] : 본초 한약 법제(法製) 방법의 하나. 한약재에 졸인 젖을 발라 볶는 것. 졸인 젖을 한약재에 고루 바른 다음 가마에 넣고 고루 저으면서 졸인 젖이 모두 스며들 때까지 볶아 식히며, 한약재에 졸인 젖을 발라 굽기도 함. 이 때 쓰이는 젖은 우유, 양유(羊乳) 등이며, 쓰이는 양은 보통 한약의 10~30%로 한다.

수자(水煮) [포제] 동 수전(水煎) : 본초 자(煮)의 하나. 한약을 물에 넣고 삶는 것. 삶는 시간은 보통 한약의 속이 익을 때까지이며, 삶은 다

음 삶은 물이 한약재에 다 흡수되도록 한다. 수자(水煮)하면 한약의 독성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며 약성(藥性)을 변화시킬 수 있음.
수자(輸刺) [침구] : 침구 ① 구자(九刺)의 하나로 특정한 수혈(兪穴)에 침을 놓아 치료하는 방법. ② 십이자(十二刺)의 하나로 사기(邪氣)가 성(盛)하여 열(熱)이 있는 병증을 치료할 때 혈자리를 적게 취하여 곧장 꽂았다 곧장 뽑되 깊이 침을 찔러 치료하는 방법. ③ 오자(五刺)의 하나로 침을 곧장 꽂아 깊이 찔러서 뼈에 이르게 하여 골비(骨痺)를 치료하는 방법.
수장(水臟) [생리] ⇒ 신(腎)
수장각화증(手掌角化症) [병증] ⇒ 아장풍(鵝掌風)
수장어제(手掌魚際) [경혈] ⇒ 어제(魚際)
수저(首疽) [병증] : 안이 계맥(瘈脈), 예풍(翳風) 두 혈(穴)에서 발생하며 유양돌기염에 해당.
수적(水積) [병증] : 내과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적(積)이 형성된 병증. 구적(九積) 중 하나.
수전(水煎) [포제] ⇒ 수자(水煮)
수전(手顫) [병증] 동 수진(手振) : 내과 손이 떨리는 것.
수정(水停) [병리] : 병리 수음(水飮)이 내정(內停)된 병리상태.
수정장예(水晶障翳) [병증] ⇒ 빙예(氷翳)
수정태(水晶苔) [병증] ⇒ 백사태(白砂苔)
수제(水製) [포제] 동 수제법(水製法) : 본초 한약 포제(炮製) 방법의 하나. 한약재를 물로 법제(法製)하는 것. 수제법(水製法)에는 세(洗), 침(沈), 지(漬), 수비(水飛) 등의 방법이 있음.
수제법(水製法) [포제] ⇒ 수제(水製)
수족궐랭(手足厥冷) [병증] ⇒ 사지역랭(四肢逆冷)
수족마목(手足痲木) [병증] ⇒ 사지마목(四肢痲木)
수족번열(手足煩熱) [증상] 동 수족심열(手足心熱) : 내과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만 열감이 있는 증.
수족심열(手足心熱) [증상] ⇒ 수족번열(手足煩熱)
수족육경표본(手足六經標本) [경혈] ⇒ 육경표본(六經標本)
수종(水腫) [병증] 동 수병(水病), 신종(身腫) : 내과 체내 수습(水濕)이 정체되어 면목(面目) 사지(四肢) 흉복(胸腹) 부위와 심하면 전신에 부종(浮腫)이 발생하는 병증.
수중경동(睡中驚動) [병증] : 소아 소아가 잠을 자다 갑자기 놀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증후. 심(心)과 비(脾)가 부족한 까닭이다.
수지(水漬) [포제] 동 수침(水浸), 수지법(水漬法) : 본초 한약 포제(炮製) 방법의 하나. 약재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에 담가두는 것. 또한 유효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는 약재들도 일정한 시간 수지(水漬)함.
수지동신촌법(手指同身寸法) [침구] 동 수지비량법(手指比量法), 지촌법(指寸法) : 경혈 손가락의 장도(長度)를 이용하여 경혈(經穴)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 환자 자신의 체표 일부를 길이의 단위로 정하고 경혈(經穴)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중지촌(中指寸), 무지촌(拇指寸), 횡지촌(橫指寸) 등이 있음.
수지법(水漬法) [포제] ⇒ 수지(水漬)
수지비량법(手指比量法) [침구] ⇒ 수지동신촌법(手指同身寸法)
수지상원(水之上源) [해부] [생리] ⇒ 폐(肺)
수지초흑반창증(手脂焦黑瘢瘡證) [사상] : 사상 손가락이 검게 탄 것처럼 되는 반창병(瘢瘡病)으로 태음인 이병(裏病) 가운데 간조열증(肝燥熱證)에 속함.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대황, 고본을 추가해서 사용한다.
수지침술(手指鍼術) [침구] : 침구 수지부(手指部)의 특정 혈위(穴位)에 대한 집중적인 시술을 통해 병증 치료를 도모하는 기술.

수진(手振) [병증] ⇒ 수전(手顫)
수질(水蛭) [약물] 동 관수질(寬水蛭), 마황(螞蝗), 마질(馬蛭) : 본초 거머리과(水蛭科 : Hirudinidae)에 속한 환절동물(環節動物)인 말거머리(螞蝗) *Whitmania pigra* Whitman와 참거머리(水蛭) *Hirudo nipponica* Whitman 및 유엽마황(柳葉螞蝗) *Whitmania acranulata* Whitman으로 여름과 가을에 잡아 끓는 물에 탕사(燙死)시킨 다음 쇄건(曬乾) 또는 저온(低溫)에서 건조하여 사용.
수창(水脹) [병증] ⇒ 비창(脾脹)
수천(水泉)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5)로서 극혈(郄穴)에 해당. 태계(太谿)에서 지면까지를 3촌의 골도법으로 하여 태계(太谿) 아래 1촌에 위치.
수천(水喘) [병증] : 내과 수기(水氣)로 물소리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찬 병증.
수체질(水體質) [진찰] : 진단 운기체질의 한 분류. 변증을 위한 진찰에서 현재의 병증 이외에 오행 중 수(水)의 특성과 연관된 증상들이 나타남. 수의 하류(下流)하는 성질과 같이 인체의 아래 부위에서 병이 나타나며, 화(火)를 극(剋)하므로 화가 부월(浮越)하여 화의 증상으로 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수(水水)체질, 수목(水木)체질, 수화(水火)체질, 수토(水土)체질, 수금(水金)체질로 세분된다.
수치(修治) [포제] ⇒ 포제(炮製)
수치료(水治療) [치법] 동 수치료법(水治療法) : 재활 치료적 목적을 위해 물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 액체로서의 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고체, 액체, 기포, 얼음, 증기)의 물을 신체에 내적 혹은 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함. 동양에서 수치료는 세법(洗法) 외에 현대적 분류방법으로 증기요법인 훈법(薰法), 습포요법의 일종인 위법(尉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치료법(水治療法) [치법] ⇒ 수치료(水治療)
수침(水浸) [포제] ⇒ 수지(水漬)
수침마취(水鍼麻醉) [침구] : 침구 주사용 물, 혹은 약액(藥液)을 주입하여 경락(經絡)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진통작용을 일으키는 침자마취(鍼刺麻醉).
수침요법(手鍼療法) [침구] : 침구 수부(手部)의 특정 혈에 자침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수침요법(水鍼療法) [침구] : 침구 정제한 약액(藥液)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인체의 경혈(經穴) 뿐 아니라 피하(皮下), 기육(肌肉) 또는 정맥(靜脈) 등에 주사하여 질병을 다스리는 치료법.
수침포(水浸泡) [포제] ⇒ 침(浸)
수태(瘦胎) [치법] 동 속태(束胎), 축태(縮胎) : 부인 임신부의 체질이 비만하거나 임신부가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과식함으로 인해 임신 후기에 태아가 너무 커져서 난산이 야기될 것을 염려하여 임산부가 순산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경락] 동 견맥(肩脈)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로서 소택(少澤)에서 기시하여 청궁(聽宮)에서 종지하는 경맥. 신경정신(神經精神) 질환, 열성병(熱性病), 복부(腹部) 소장(小腸) 질환 등을 다스린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경락] 동 폐경(肺經), 비거음맥(臂鉅陰脈)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의 하나로서 중부(中府)에서 기시하여 소상(少商)에서 종지하는 경맥. 호흡기계(呼吸器系) 질환을 다스린다.
수토(嗽吐) [병증] : 소아 소아의 해수가 멈추지 않았을 때에 젖을 먹이면 구토하는 것. 젖이나 음식을 먹는 도중이나 혹은 먹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수, 구토가 발생하면서 담연(痰涎)과 소화되지 않은 소량의 음식물을 토해낸다.
수토불복(水土不服) [병증] : 내과 어떤 지역에 처음 간 경우, 물 등 자연 환경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식욕부진(食慾不振), 복통설사(腹痛泄瀉) 혹은 월경불조(月經不調) 등이 나타나는 병증.
수토체질(水土體質) [진찰] : → 수체질(水體質)
수포반응(水泡反應) [징후] : 재활 발관 후 치료 부위에 수포가 생기는 반응. 부항요법의 독특한 반응으로 체표상의 분압 차에 의하여 수포액이 투명층까지 나타나는 반응이다.
수풍(首風) [병증] : 내과 목욕 후에 풍한(風寒)에 촉상(觸傷)되어 두면에 다한(多汗)하고 오풍(惡風)하며 두통이 있어 바람 불기 전에는 두통이 심하다가 바람이 불면 가벼워지는 병증.
수한범폐(水寒犯肺) [병리] 동 수한사폐(水寒射肺) : 병리 평소 체내에 정체된 수음(水飮)이 있거나 신양(腎陽)이 허하여 수음이 정체되었는데 다시 한사(寒邪)에 감(感)하여 수한(水寒)이 폐(肺)에 상역(上逆)한 병리상태. 허실을 막론하고 생긴다.
수한범폐증(水寒犯肺證) [병증] 동 수한사폐증(水寒射肺證) : 병리 수한범폐(水寒犯肺)로 인한 증. 그 증상은 해수(咳嗽), 천촉부득와(喘促不得臥), 하지부종(下肢浮腫) 등이 주증이고, 담다희백(痰多稀白), 흉협만민(胸脇滿悶), 소복창만(少腹脹滿), 요부냉통(腰部冷痛), 경슬냉감(膕膝冷感), 요소(尿少), 오한발열(惡寒發熱), 무한(無汗), 신통(身痛) 등이 차증이며, 설태박백이윤(舌苔薄白而潤), 백이(白膩), 맥부긴혹현긴(脈浮緊或弦緊)하다.
수한사폐(水寒射肺) [병리] ⇒ 수한범폐(水寒犯肺)
수한사폐증(水寒射肺證) [병증] ⇒ 수한범폐증(水寒犯肺證)
수해(水咳) [병증] : 내과 다류(茶類)를 마심으로 인해 수음(水飮)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기침.
수해(髓海) [생리] ⇒ 뇌(腦)
수향(水香) [약물] ⇒ 택란(澤蘭)
수혈(輸穴) [경혈] ⇒ 수혈(俞穴)
수혈(溲血) [병증] 동 요혈(溺血), 혈뇨(血尿), 요혈증(尿血證) : 내과 혈(血)이 요도(尿道)를 따라 배출되고 통증(痛症)이 없는 병증.
수혈(嗽血) [병증] ⇒ 해혈(咳血)
수혈(俞穴) [경혈] 동 침혈(鍼穴), 수혈(輸穴) : 경혈 ① 수혈(腧穴). 침구치료의 자극점. 경혈(經穴), 경외기혈(經外奇穴), 아시혈(阿是穴)을 포괄하는 말. 체표(體表)와 경락(經絡), 장부(臟腑) 상통의 점이고 맥기소발(脈氣所發)의 공극(空隙)이며 침구시술의 부위. 수(腧)는 수주(輸注)와 전수(轉輸)의 의의를 내포하고 혈(穴)은 공극(空隙)과 취집(聚集)의 의의를 내포한다. ② 배수혈(背俞穴)을 가리킴.
수홍화자(水紅花子) [약물]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의 식물인 홍료(紅蓼) *Polygonum orientale* L., 산모엽료(酸模葉蓼) *P. lapathifolium* L., 혹은 유엽료(柳葉蓼) *P. lapathifolium* L. var. *salicifolium* Sibth.의 열매로, 8~10월에 과수(果穗)를 잘라내어 햇볕에 말려서 열매를 털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
수화기제(水火旣濟) [생리] 동 수화상제(水火相濟), 심신상교(心腎相交), 기제(旣濟) : 생리 ① 심화(心火)와 신수(腎水) 및 신음(腎陰)과 신양(腎陽)이 상호 협조하여 생리적 조화를 유지하는 관계. ② 수화교제(水火交濟).
수화부제(水火不濟) [병리] ⇒ 심신불교(心腎不交)
수화부제증(水火不濟證) [병증] ⇒ 심신불교증(心腎不交證)
수화상제(水火相濟) [생리] ⇒ 수화기제(水火旣濟)
수화체질(水火體質) [진찰] : → 수체질(水體質)
수황(水黃) [병증] : 내과 황달의 하나. 몸과 얼굴이 푸르고 누르스름하며, 다리와 무릎이 붓고, 명치 아래가 창만(脹滿)하며 기가 치밀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

ㅅ

수회(髓會) [경혈] : 경혈 팔회혈(八會穴) 중 하나. 수회혈(髓會穴)은 현종혈(懸鐘穴:GB39)로서 골수(骨髓)의 이상이나 질병에 이용할 수 있다.

수효(水哮) [병증] : 내과 담수(痰水)가 폐에 쌓여서 숨이 차고 목에 가래소리(효천哮喘)가 나타나는 병증.

숙강(肅降) [생리] 동 숙강작용(肅降作用), 청숙하강(淸肅下降) : 생리 폐기(肺氣)의 청정(淸淨)하게 하고 하강시키는 생리적 특성.

숙강작용(肅降作用) [생리] ⇒ 숙강(肅降)

숙랭(宿冷) [병증] : 부인 오래된 냉병(冷病).

숙변(宿便) [기타] : 재활 제때 배출되지 않고 장벽에 들어붙어 배출되지 않은 변.

숙식불소(宿食不消) [증상] : 소아 음식이 위장에 정체되고 쌓여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는 병증.

숙유(宿乳) [병리] : 소아 오래된 젖이 유선(乳線) 앞부분에 적체되어 있는 것.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는 먼저 숙유(宿乳)를 빼낸 뒤 유방을 주물러서 젖을 잘 나오게 하고 따뜻한 물로 유두를 씻은 후 먹여야 한다.

숙지황(熟地黃) [약물] : 본초 현삼과(玄參科 : Scrophular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지황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var. *purpurea* Makino 또는 지황 *R. glutinosa* Libsch. 및 회경지황(懷慶地黃) *R. glutinos* Libosch. *hueichingensis*(Chao et Schih) Hsia.의 근경(根莖)을 가공한 것.

숙체(宿滯) [병증] : 부인 음식물이 위장에 정체되어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는 병증.

순건(脣乾) [증상] : 내과 입술이 마르는 증상.

순경(循經) [병리] 동 순경전(循經傳) : 병리 증상의 일반적인 발전양상이 육경(六經)의 순서를 따라 표부(表部)에서 이부(裏部)로 전변되는 것.

순경전(循經傳) [병리] ⇒ 순경(循經)

순구순동(脣口瞤動) [병증] ⇒ 순풍(脣風)

순구연동(脣口蠕動) [병증] ⇒ 순풍(脣風)

순균(脣菌) [병증] : 안이 심비경(心脾經)의 열이 축적되어 입술이 갑자기 뒤집어져 돌출된 것이 마치 돼지 입과 같은 것.

순기(順氣) [치법] : 방제 이기법(理氣法)의 하나. 폐기(肺氣), 위기(胃氣)가 상역(上逆)하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

순긴(脣緊) [병증] 동 긴순(緊脣), 심순(瘨脣) : 안이 입이 오므라들고 벌어지지 않는 것.

순동(順動) [사상] : 사상 성정(性情)이 역동(逆動)하지 않게 순조롭게 지니는 것.

순동(瞤動) [증상] : 내과 근육이나 입술, 눈동자 등이 저절로 떨리는 것.

순목(瞤目) [병증] : 정신 상검(上瞼) 혹은 하검(下瞼)이 빈번하게 조동(躁動)하는 것. 목순(目瞤)은 주로 성인에서 혈허생풍(血虛生風)으로 풍사(風邪)에 의해 눈꺼풀이 저절로 떨리는 안검경련이며, 목차(目瞀)는 주로 소아에서 눈꺼풀을 자주 깜박이는 개합이상(開闔異常)이다.

순몽(徇蒙) [증상] : 정신 순(徇)이란 눈앞이 아찔한 것이고, 몽(蒙)이란 눈앞이 흐릿하며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순몽(徇蒙)은 눈앞이 아찔하고 흐릿하여 뚜렷하지 않은 것을 말함.

순미(脣糜) [병증] : 안이 위내(胃內)의 열이 아주 심하여 입과 입술이 모두 미란(糜爛) 되는 것.

순반(脣反) [병증] : 안이 구순(口脣)은 권축(卷縮)되나 인중(人中)은 반대로 풍만해지는 것으로 불치에 속함.

순백(脣白) [병증] : 내과 입술이 하얗게 되는 증상.

순번(脣飜) [병증] : 안이 입술이 불수의적으로 떨리는 것.

순법(循法) [침구] : 침구 침을 꽂은 후 손가락으로 침을 놓은 혈자리가 위치하는 경락(經絡)의 위아래를 밀면서 어루만져 득기(得氣)를 촉

진시키는 방법.
순생백점(脣生白點) [증상] : 안이 입술에 백색 반점이 생기는 것으로 비폐(脾肺)가 모두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하였을 때나 폐내(肺內)에 충(蟲)이 있을 때 발생함.
순순(脣瞤) [병증] ⇒ 순풍(脣風)
순순동(脣瞤動) [병증] ⇒ 순풍(脣風)
순안법(巡按法) [침구] : 침구 혈위(穴位)나 경락(經絡) 등을 더듬고 누르는 법.
순양(脣揚) [병증] : 안이 비위(脾胃)가 조열(燥熱)하거나 산미(酸味)를 과도히 섭취했을 때 입술 피부가 마른 고기와 같으면서 양거(揚擧)되는 것.
순의(循衣) [증상] 동 순의모상(循衣模床) : 정신 환자가 정신이 혼미한 때에 자신도 모르게 침상과 이불 등을 더듬는 증상.
순의모상(循衣模床) [증상] ⇒ 순의(循衣)
순자(脣紫) [증상] [징후] : 진단 입술이 암자색을 띠거나 자주색을 띠는 증상. 주로 열증(熱證)을 반영하는데 혈분(血分)에 열(熱)이 성(盛)한 경우나 혈어증(血瘀證) 등에서 보임.
순저(脣疽) [병증] : 안이 입술 전체에 걸쳐 초기에는 좁쌀 모양으로 갈색이나 대추 빛을 띠다가 점차 흑색으로 변하고 커지며 통증과 가려움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악취가 나는 병증. 비(脾)와 위(胃)에 열이 축적되어 응결되기 때문에 생김.
순전(順傳) [병리] : 병리 병증의 전변이 일반적인 순서를 밟는 것. 역전(逆傳)의 반대개념. 예를 들어 온병(溫病)의 경우 위분(衛分)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분(氣分), 영분(營分), 혈분(血分)의 순서로 전변되거나 상초, 중초를 거쳐 하초로 전변되면 순조롭게 경과하는 것이다.
순전동(脣轉動) [병증] ⇒ 순풍(脣風)
순전동(脣顫動) [병증] ⇒ 순풍(脣風)
순정(脣疔) [병증] : 안이 입술에 생긴 정창(疔瘡). 비위(脾胃)의 화독(火毒)으로 발생되는데 병근(病根)이 깊고 색은 적색이나 백색을 띰. 반순정(反脣疔)과 쇄구정(鎖口疔)으로 분류할 수 있음.
순조열(脣燥裂) [증상] : 안이 입술이 마른 판자처럼 갈라지고 입술 피부에 골이 지는 것. 비열(脾熱)로 인하여 생김.
순종(脣腫) [증상] : 안이 적체(積滯)가 있거나 간비(肝脾)의 열로 인하여 입술이 붓고 발적(發赤) 동통(疼痛)하는 것. 혹은 흑색을 띠고 가렵고 아프며 핵(核)을 형성하기도 함.
순증(順證) [병리] : 병리 질병이 호전될 때 나타나는 병증. 즉,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輕)하게 경과하면서 예후가 좋은 병증을 말한다.
순창(脣瘡) [병증] : 안이 입술에 세립소창(細粒小瘡)이 발생하여 삼출물과 비지 같은 것이 흐르고 통증이 있거나 혹은 가렵기도 한 병증. 과다한 사려로 비기(脾氣)가 울결되어 생김.
순청(脣靑) [증상] [징후] : 진단 입술이 청암색(靑暗色)을 띠는 증상. 대개 한사(寒邪)가 침입하여 혈맥(血脈)에 응체(凝滯)되어 외부를 자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
순초(脣焦) [증상] [징후] : 진단 입술이 검게 타는 증상. 어혈(瘀血)·식적(食積) 및 열병(熱病)으로 인해 진액(津液)이 손상되어 발생.
순축(脣縮) [증상] : 안이 기혈의 고갈로 근맥(筋脈)을 영양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입술이 단축(短縮)되는 병증.
순풍(脣風) [병증] 동 순순(脣瞤), 순순동(脣瞤動), 순전동(脣顫動), 순전동(脣轉動), 순구순동(脣口瞤動), 순구연동(脣口蠕動) : 안이 양명위경의 풍화(風火)가 울결(鬱結)되어 상공(上攻)하는 것으로 아랫입술에서 발생하는데 종통(腫痛)하면서 창(瘡)을 형성함.
순홍(脣紅) [증상] [징후] : 진단 안이 입술이 붉은 자주색을 띠는 증상. 비위(脾胃)에 열이 있기 때문으로 초홍(焦紅)한 것은 큰 이상이 없으나 초홍하면서 흑색을 띠는 것은 사증(死證)임.

순황(脣黃) [증상] : 진단 입술이 황색을 띠는 것. 비(脾)에 열(熱)이 몰려서 발생.
쉬법(焠法) [치법] 동 등화요법(燈火療法) : 침구 등예(燈蘂)를 3~4촌 길이로 자르고 마유(麻油)를 약간 묻혀 불에 홍건(烘乾)한 후에 오른손으로 평형이 되도록 등예를 잡고, 아래로 처진 꼬리 부분을 치료하려는 혈위(穴位)에 가까이 대고 태우는데, 거의 다 타 들어가 피부에 가까워지면 즉시 들어올려 기육(肌肉)의 손상을 예방하는 치료방법. 임상에서는 쉬태한(焠胎寒), 쉬제풍(焠臍風) 등을 상용한다.
쉬자(焠刺) [침구] 동 겁자(劫刺), 번침쉬자(燔鍼焠刺), 번침겁자(燔鍼劫刺) : 침구 구자(九刺)의 하나로 침을 불 위에서 달궜다가 재빨리 혈위(穴位)를 찌르고 곧 뽑아내는 침자법(鍼刺法).
쉬침(焠鍼) [침구] ⇒ 번침(燔鍼)
스폰지욕(스폰지浴) [치법] ⇒ 수건마찰(手巾摩擦)
슬관(膝關)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7). 무릎 관절 2촌 아래 오목한 곳으로 음릉천(陰陵泉) 뒤쪽 1촌에 위치.
슬목(膝目) [기혈] ⇒ 슬안(膝眼)
슬안(膝眼) [기혈] 동 슬목(膝目) : 경혈 하지부(下肢部)의 기혈. 무릎종주뼈 밑 즉 무릎뼈(슬개골; Patella)의 하부에서 취혈하고 무릎뼈(슬개골; Patella)의 하단 양쪽 즉 내외오목한 곳이 슬안(膝眼)이다. 외측은 외슬안(外膝眼)이며 내측은 내슬안(內膝眼)이라 함.
슬안풍(膝眼風) [병증] : 안이 슬개하(膝蓋下)의 슬안혈(膝眼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슬안(膝眼)이 은은하게 통증을 일으키며, 류마티스성 관절염과도 유사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슬양관(膝陽關) [경혈] 동 관양(關陽)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3). 넙다리뼈 가쪽위관절융기(대퇴골외측상과; lateral epicondyle of femur) 위쪽에 있는 오목한 곳으로서 무릎을 굽혔을 때 무릎관절 가쪽(외측; lateral)의 근육과 뼈 사이에 위치.
슬옹(膝癰) [병증] : 안이 슬부(膝部)의 화농성 관절염에 해당. 슬부가 홍색종대(紅色腫大)하며 열이 나며 통증이 있다.
슬정(膝頂) [기혈] ⇒ 학정(鶴頂)
슬통(膝痛) [병증] : 슬부기육(膝部肌肉)·근맥(筋脈) 및 골절(骨節) 사이가 아픈 것.
습(濕) [병리] : 병리 육기(六氣) 중 하나. 여름 장마철의 다습한 기운.
습각기(濕脚氣) [병증] : 내과 각기병(脚氣病)의 하나. 각기병(脚氣病)에 각슬부종(脚膝浮腫)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습각법(濕角法) [침구] : 침구 부항요법(附缸療法)의 일종. 건각법(乾角法)의 반대개념. 어혈(瘀血)을 사출시키는 방법.
습개(濕疥) [병증] : 안이 비경(脾經)의 습(濕)에 기인하여 화농종통(化膿腫痛)하며 궤파(潰破)되면 황색의 삼출물이 흐르고, 심하면 흑즙(黑汁)이 유출되는 개창(疥瘡).
습곽란(濕霍亂) [병증] : 내과 곽란의 하나. 위장(胃腸) 중의 내용물을 토사(吐瀉)하면서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입안이 마르고, 심하면 손발이 싸늘해지고 경련이 일어난다.
습담(濕痰) [병리] 동 담습(痰濕), 담탁(痰濁) : 병리 습탁(濕濁)이 체내에 오래 정체되어 생기는 담(痰). 비허(脾虛)하여 수습을 운화하지 못하거나, 진액을 정상적으로 수포할 수 없어서 정체되면 내습(內濕)이 되고, 적류(積留)되면 담음(痰飮)이 된다.
습담증(濕痰證) [병증] 동 담습증(痰濕證) : 병리 습담(濕痰)에 의한 병증. 해천(咳喘), 담다색백(痰多色白), 흉부비민(胸部痞悶) 등이 주증이고, 식욕부진(食欲不振), 오심구토(惡心嘔吐), 복창변당(腹脹便溏), 현훈심계(眩暈心悸), 지중기와(肢重嗜臥) 등이 차증이며, 설체반대(舌體胖大), 태활이(苔滑膩), 맥활혹완(脈滑或緩)하다.

습독(濕毒) [병리] : 병리 ① 습이 몰려서 생긴 독. 습독에 의해 생긴 병은 경과가 오래고 병소에서 분비물이 많이 흘러나오면서 잘 아물지 않는 특징이 있음. 습독이 대장에 몰리면 습독변혈(濕毒便血)을 일으키고 피부에 몰리면 습독유주(濕毒流注)를 일으킨다. ② 피부에 소양감이 있고 흔히 진물이 나며 잘 도지는 피부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습랭요통(濕冷腰痛) [병증] ⇒ 한습요통(寒濕腰痛)

습농(濕聾) [병증] : 안이 빗물이나 목욕물 등이 귀에 들어가 귀 안이 종통현훈(腫痛眩暈)하며 이농(耳聾)하는 것.

습비(濕痺) [병증] ⇒ 착비(着痺)

습사(濕邪) [병리] : 병리 외감병인 중 육음(六淫)의 하나. 외감질병 가운데 습(濕)의 특성[중탁(重濁), 점체미만(粘滯瀰滿), 이알기기(易遏氣機)]과 같은 증후를 일으키는 외사(外邪)를 말함.

습사(濕瀉) [병증] : 소아 습사(濕邪)로 인한 설사. 비(脾)는 건조함을 좋아하고 습기(濕氣)를 싫어하므로 습이 심하면 비(脾)의 작용이 습(濕)으로 인해 막혀서 수곡(水穀)을 정상적으로 운화(運化)하지 못한다.

습선(濕癬) [병증] : 안이 피부가 짓무르고 진물이 많이 나는 버짐의 일종.

습설(濕泄) [병증] ⇒ 유설(濡泄)

습수(濕嗽) [병증] : 내과 습사(濕邪)가 폐에 침범하여 생긴 기침. 기침을 하면서 몸이 무겁고 뼈마디가 아프고 으슬으슬 추운 증상이 나타남.

습알비양증(濕遏脾陽證) [변증] : 병리 습(濕)이 비양(脾陽)을 상하게 한 병증. 복만(腹滿)하고 아프며(痛) 설사(泄瀉)하고, 사지가 불온(不穩)하며 설윤(舌潤), 백이(白膩)한 태(苔)가 나타나고 맥이 유완(濡緩)한 등 비(脾)의 운화기능이 장애된 증상이 나타난다.

습알열복증(濕遏熱伏證) [병증] ⇒ 습열증(濕熱證)

습열(濕熱) [병리] : 병리 ① 습사(濕邪)와 열사(熱邪)가 상겸(相兼)한 것. ② 습(濕)이 울체된 채 오래되어 열상(熱象)을 나타내는 것.

습열감한산(濕熱感寒疝) [병증] : 소아 산증(疝證)의 하나. 소아가 음식을 탐하며 절제하지 않으면 중초(中焦)의 소화기능에 영향을 주어 오랫동안 적체되어 습이 생기고 습이 울체(鬱滯)되어 열이 발생하면 습열(濕熱)의 기가 아래로 몰려서 음낭(陰囊)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시 풍습(風濕)의 사기가 침입하여 발생한다. 발작시에는 음낭이 빨갛게 붓고 늘어지며 항상 찌르는 듯이 아프다.

습열곤비증(濕熱困脾證) [병증] ⇒ 비위습열증(脾胃濕熱證)

습열교증증(濕熱交蒸證) [병증] ⇒ 습열증(濕熱證)

습열리(濕熱痢) [병증] ⇒ 습열리(濕熱利)

습열리(濕熱利) [병증] ㊐ 습열리(濕熱痢) : 소아 여름이나 가을에 습열(濕熱)을 감수하여 습열이 장위(腸胃)에 쌓였다가 아래로 몰려서 발생하는 이질.

습열미만삼초증(濕熱瀰滿三焦證) [병리] : 병리 습열사(濕熱邪)가 상, 중, 하초 전체에 걸쳐서 작용하는 것. 비위(脾胃), 간담(肝膽)과 심폐(心肺), 신(腎) 등에 모두 영향을 주고 기기역란(氣機逆亂)을 초래한다.

습열범간증(濕熱犯肝證) [변증] ⇒ 간경습열증(肝經濕熱證)

습열온결방광증(濕熱蘊結膀胱證) [병증] ⇒ 방광습열증(膀胱濕熱證)

습열온비증(濕熱蘊脾證) [병증] ⇒ 비위습열증(脾胃濕熱證)

습열요통(濕熱腰痛) [병증] : 재활 요통의 하나. 시령습열(時令濕熱)을 감수하거나, 혹은 후미(厚味)한 음식을 먹어 내부에 습열(濕熱)이 쌓임으로 인해 발생.

습열울우경락증(濕熱鬱于經絡證) [변증] : 병리

습열(濕熱)이 장부와 경락에 머물면서 기기(氣機)를 조애(阻碍)하는 병증. 경락의 기가 통하지 못하면 지절비통(肢節痺痛)하고, 장부의 기가 운행되지 않으면 흉복창만(胸腹脹滿) 한다.

습열증(濕熱證) [병증] ㊐ 습알열복증(濕遏熱伏證), 습열교증증(濕熱交蒸證) : 병리 습열(濕熱)에 의한 병증. 신열불창(身熱不暢), 갈불다음(渴不多飮), 완복창민(脘腹脹悶) 등이 주증이고, 오후열심(午後熱甚), 두창(頭脹), 두중(頭重), 신통신중(身痛身重), 한출열감(汗出熱減)하다가 다시 발열(發熱), 소변단적(小便短赤), 구토(嘔吐), 변당불상(便溏不爽), 인종(咽腫), 목황(目黃) 등이 차증이며, 설태황이(舌苔黃膩), 맥활삭(脈滑數) 또는 유삭(濡數)하다.

습열하주(濕熱下注) [병리] : 병리 항문, 대장 부위에 습열(濕熱)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습(濕)은 수(水)의 종류로서 그 성질이 아래로 내려가므로 항문, 대장 부위에 병증이 잘 나타난다.

습열하주대장증(濕熱下注大腸證) [병증] ⇒ 대장습열증(大腸濕熱證)

습온(濕溫) [병증] : 내과 여름과 가을에 잘 발생하는 온병(溫病). 하부에 발병하면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우며, 상부에 발병하면 머리와 눈이 흐릿하고 갑갑하며, 가슴이 그득하고 배가 더부룩하며, 갑자기 오한이 나다가 발열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며, 대변이 묽고 자주 보되 개운하지 않고 소변은 황적하고 짧으면서 편하지 않은 병증.

습요통(濕腰痛) [병증] : 재활 요통의 하나. 수습(水濕)이 요부에 침입함으로 인해 발생. 허리가 아프고 찬 것이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고, 몸이 무겁거나 붓는데, 흐린 날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맥이 완(緩)한 증상이 발생한다.

습울(濕鬱) [병증] : 병리 습사(濕邪)가 체내에서 울체된 것. 습울(濕鬱)되면 습열(濕熱)로 발전하기가 쉽다. 대체로 기울(氣鬱)이 오래되면 담울(痰鬱), 습울(濕鬱), 식울(食鬱), 열울(熱鬱), 혈울(血鬱) 등으로 발전하는데, 습울은 기울을 바탕으로 발전된다.

습음창(濕陰瘡) [병증] : 안이 음낭이 가렵고 짓물러 창(瘡)이 생기는 증상. 신허(腎虛)한데 풍습사기(風濕邪氣)가 서로 다툼으로 인해 발생.

습전(濕癲) [병증] : → 오전(五癲)

습조기분(濕阻氣分) [변증] ⇒ 습조기분증(濕阻氣分證)

습조기분증(濕阻氣分證) [변증] ㊐ 습조기분(濕阻氣分) : 병리 기분(氣分)이 습사(濕邪)를 받아 조체(阻滯)되는 병리. 주된 임상표현은 신열불양(身熱不揚), 두중여과(頭重如裹), 신중체산(身重體酸), 골절동통(骨節疼痛), 흉민(胸悶), 납매(納呆)[위(胃)의 장애], 복만설사(腹滿泄瀉), 태활이(苔滑膩) 맥유완(脈濡緩) 등이다.

습종(濕腫) [병증] : 안이 피부와 기육(肌肉)이 무겁게 늘어지며, 깊이 누르면 기육이 솜과 같이 잘 헤지고[궤란(潰爛)] 얕게 누르면 말갛게 수포(水疱)를 형성하였다가 파괴되어 누른물[황수(黃水)]이 나오는 종(腫).

습중(濕中) [병증] ⇒ 중습(中濕)

습진(濕疹) [병증] : 안이 풍습열사(風濕熱邪)가 피부에 침입함으로 인해 발생. 국부피부소양(局部皮膚瘙痒), 대칭성 피진(皮疹) 증상이 나타남. 예를 들면 발홍(發紅), 수종(水腫), 구진(丘疹), 수포(水泡), 미란(糜爛) 등으로, 진물이 스며 나오고 일정한 발병 부위는 없지만 대개 면부(面部)와 사지에서 발생한다. 여성은 유방과 외음(外陰)에서, 남성은 음낭 등에서 발생하는데 발병 부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음. 영아에게 발생하는 습진(濕疹)은 면부에 대칭으로 발생하여 넓게 퍼져 벌겋게 짓무르고 진물이 흥건하며 딱지를 형성하고 반복적

으로 발작하면서 전신으로 퍼지는데, 일반적으로 2~3세가 되면 저절로 낫는다.

습찜질(濕찜질) [치법] 동 습포(濕布), 고온습포(高溫濕布), 습포요법(濕布療法) : 재활 찜질을 위한 수단으로 습포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온습포, 소아마비 치료를 위한 캐니팩, 습포, 전신 및 부분 습지 찜질, 실리카겔을 이용하여 습기와 열기를 함유하였다가 서서히 배출하여 국소 온열치료에 이용하는 집수증기 찜질 등이 있음.

습탁(濕濁) [병리] : 병리 비(脾)의 기능실조로 인해 '습탁내생(濕濁內生)'의 병리변화를 일으키는 것. 음식상(飮食傷)은 주로 비(脾)와 위(胃)에 미치는데, 비위(脾胃)가 손상을 받아 수납이 감퇴되고 건운(健運)이 실상(失常)되며 기기(氣機)의 승강(升降)기능이 문란해지면 습탁(濕濁)이 안에 모여 담음이 내생(內生)하거나, 혹은 열로 변하여 먼저 기혈을 상하고 나중에 양기(陽氣)나 음액(陰液)에 손상을 주고, 또 다른 질병으로 변할 수도 있음.

습포(濕布) [치법] ⇒ 습찜질(濕찜질)

습포요법(濕布療法) [치법] ⇒ 습찜질(濕찜질)

습학(濕瘧) [병증] : 내과 오한과 열이 반반이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며, 비를 맞아 습사(濕邪)에 감촉되거나 땀이 났을 때 목욕하여 생긴 학질.

습황(濕黃) [병증] : 내과 열보다 습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황달.

습훈(濕暈) [병증] : 내과 비색성중(鼻塞聲重)하며 어지럼증이 있는 병증.

승각시간(昇脚時間) [진찰] : 진단 맥파주기에 있어 기시점으로부터 충격파까지의 시간. 맥파가 기시점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혈관상태나 심장의 수축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

승강배오(升降配伍) [기타] : 방제 약물을 배오할 때 상하의 승강을 조절하는 약물을 배합하는 것. 예를 들면 변비약에 승마와 윤하약(潤下藥–당귀, 육종용, 우슬)을 배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승강부침(升降浮沈) [약물] : 본초 약물작용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승(升)은 향상(向上), 승제(升提)의 작용을 가리키며, 강(降)은 향하(向下), 강역(降逆)의 작용을 가리키고, 부(浮)는 향외(向外), 발산(發散)의 작용을 가리키며, 침(沈)은 향내(向內), 수렴고장(收斂固藏), 설리(泄利)의 작용을 가리킴. 승과 부, 침과 강의 의미는 서로 상통하며, 승강(升降)은 승강부침(升降浮沈)의 간칭(簡稱)이기도 하다.

승강실상(升降失常) [병리] ⇒ 승강실조(昇降失調)

승강실조(升降失調) [병리] 동 승강실상(升降失常), 승강실직(升降失職) : 병리 위기(胃氣)가 불강(不降)하고, 비양(脾陽)이 불승(不升)하여, 비위(脾胃)의 기능이 실조된 병리현상.

승강실직(升降失職) [병리] ⇒ 승강실조(升降失調)

승강완속(升降緩束) [사상] : 사상 기운의 오르내림과 늦고 빠름. 경혈에도 승강완속(升降緩束)의 이치가 있다고 본다.

승거(升擧) [치법] : 처져 내려간 것을 끌어올리는 것.

승방(勝方) [침구] 동 승격(勝格) : 침구 사암침법(舍岩鍼法)에서 쓰는 허실보사(虛實補瀉)의 하나로 실증(實證)일 때 쓰는 사법(瀉法).

승광(承光)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로서 오처(五處) 뒤 1촌 5푼에 위치.

승근(承筋)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6)로서 위중(委中) 수직으로 아래 5촌에 위치.

승기(勝氣) [운기] : 원전 한 해의 전반년(前半年)에 편승(偏勝)한 기운을 말함.

승령(承靈)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

ㅅ

經)의 경혈(GB18)로서 정영(正營) 뒤 1촌 5푼에 위치.

승마(升麻) [약물]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Komarov 또는 동속식물의 뿌리줄기.

승만(承滿)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0)로서 상완(上脘) 양쪽 2촌에 위치.

승격(勝格) [침구] ⇒ 승방(勝方)

승보(升補) [사상] : 사상 소음인 표병(表病) 울광증(鬱狂證)의 치법으로 천궁계지탕, 황기계지탕, 팔물군자탕을 사용.

승복(勝復) [운기] : 원전 승기(勝氣)와 복기(復氣)의 관계를 말함. 한 해의 전반년(前半年)에 어떤 특정한 기(氣)가 편승하여 승기가 되면, 후반년(後半年)에는 승기를 극제(剋制)할 수 있는 기가 들어와 보복하는데 이를 승복이라고 한다.

승부(承扶) [경혈] 동 음관(陰關)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6)로서 큰볼기근(대둔근; gluteus maximus) 아래 주름 횡문 한 가운데에 위치.

승산(承山)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7). 위중(委中) 아래 8촌으로, 엎드려 발끝에 힘을 주고 발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위중(委中)과 발뒤꿈치의 중간 장딴지근(비복근; gastocnemius)에 나타나는 'ㅅ'자 모양의 오목한 곳에 위치.

승읍(承泣)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로서 앞을 똑바로 보고 있을 때 동공 바로 아래로서, 안구와 눈확아래모서리(안와하연; infraorbital margin) 사이에 위치.

승장(承漿)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24)로서 십삼귀혈(十三鬼穴)에 해당. 아랫입술 가운데 아래 오목한 곳으로 턱끝결절(이결절頤結節; mental tubercle) 위쪽에 위치.

승장저(承漿疽) [병증] : 안이 승장 혈에서 발생하는 옹저.

시궐(尸厥) [병증] : 내과 천지여기(天地戾氣)와 장기(臟氣)가 서로 오역(忤逆)하여 졸연히 복만(腹滿), 부지인(不知人), 수족궐랭(手足厥冷), 두면청흑(頭面靑黑), 아관긴폐(牙關緊閉), 미어성(微語聲)하고, 맥은 극히 미세(微細)하여 거의 반응이 없어서 일별(一瞥)에 사자(死者)와 같은 병증.

시기(時氣) [병리] 동 시사(時邪) : 병리 사시의 기운이 사기(邪氣)로 작용한 것. 계절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시기(矢氣) [병증] 동 시기(屎氣), 전실기(轉失氣), 전시기(轉矢氣) : 방귀. 기체가 항문에서 배출되는 것.

시기(屎氣) [병증] ⇒ 시기(矢氣)

시기(視岐) [증상] ⇒ 시일위이(視一爲二)

시독(時毒) [병증] : 안이 사시의 부정한 사기(邪氣)가 경락에 침범하여 인후(咽喉), 경항(頸項), 함(頷), 시(腮), 이(頤) 등에서 발생하는 옹저.

시동병(是動病) [병증] : 경혈 경맥(經脈) 병후(病候)의 한 종류. ① 본경(本經)의 경기(經氣) 이상 변동으로 인해 관련된 장부에 병증이 일어나는 것. ② 경맥(經脈)이 순행하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병증.

시물모호(視物模糊) [증상] ⇒ 시물혼묘(視物昏渺)

시물전도(視物顚倒) [증상] : 안이 물체를 볼 때 진동하면서 전도(顚倒)되는 것으로서 물체가 빙빙 돌다가 나중에 정착되는 느낌을 가지며 이동하면서 도치(倒置)되는 것.

시물혼묘(視物昏渺) [증상] 동 시물모호(視物模糊), 시물혼화(視物昏花) : 안이 물체가 밝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시물혼화(視物昏花) [증상] ⇒ 시물혼묘(視物昏渺)

시물황적(視物黃赤) [증상] : 안이 시적여백(視赤如白)과 유사하며 색맹 또는 색약질환(色弱疾患)을 말함.
시병구(豉餠灸) [침구] 동 시병구법(豉餠灸法), 두시병구법(豆豉餠灸法) : 침구 담두시(淡豆豉) 가루를 황주(黃酒)에 반죽하여 6mm 두께의 약 떡을 만들고 가는 바늘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그 위에 뜸쑥을 놓고 뜸을 떠 주는 격병구(隔餠灸)의 하나.
시병구법(豉餠灸法) [침구] ⇒ 시병구(豉餠灸)
시사(時邪) [병리] ⇒ 시기(時氣)
시수(試水) [병증] 동 시월(試月) : 부인 임신말기 혹은 출산에 임박하여 양수가 일찍 터진 것, 또는 양수가 터졌는데도 분만되지 않는 것을 가리킴.
시역(時疫) [병증] 동 시행역려(時行疫癘), 유행성역려(流行性疫癘) : 병리 유행성 전염병. 시기(時氣)보다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
시열상(撕裂傷) [병증] : 재활 둔탁한 힘에 의한 자극으로 피부가 찢어진 것. 대개는 손상부의 피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시옹(腮癰) [병증] : 내과 뺨에 생기는 옹(癰). 뺨에 종기가 생겨 부어오르고 후끈거리면서 아프며, 심한 경우 헐어 곪기까지 함.
시월(試月) [병증] ⇒ 시수(試水)
시월양태(十月養胎) [기타] ⇒ 축월양태(逐月養胎)
시인(尸咽) [병증] : 안이 시체에서 생기는 벌레가 발동(發動)하여 후부(喉部)를 침식(侵蝕)하므로 가렵고 아프며 성아(聲啞)가 되는 것.
시일위이(視一爲二) [증상] 동 시기(視岐), 시일위이증(視一爲二症) : 안이 복시(複視)와 유사한데 양안(兩眼)으로 하나의 물체를 볼 때 이중(二重)으로 보이는 것을 말함.
시일위이증(視一爲二症) [증상] ⇒ 시일위이(視一爲二)
시적여백(視赤如白) [병증] 동 색맹(色盲) : 안이 색맹 또는 색약(色弱)에 해당하며 색각(色覺)이 불완전하여 빛깔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나 그러한 사람을 가리킴.
시정반동(視定反動) [병증] : 안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폭(振幅)이 있는 움직임을 느끼는 것. 수정체(水晶體)나 초자체(硝子體)가 열이나 자극에 의하여 변화하여 망막에 고도의 진탕(振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됨.
시정반사(視正反斜) [병증] : 안이 각막표면에 굴곡이 발생하여 바른 물체가 비틀어져 보이며 둥근 것이 타원형으로 나타나는 것.
시첨유이색(視瞻有異色) [병증] : 안이 눈이 가물가물하고 잘 보이지 않아 한 가지 색깔이 마치 두 가지 색처럼 보이는 병증.
시첨혼묘(視瞻昏渺) [병증] : 안이 시첨이색(視瞻異色)이나 청맹(靑盲) 등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안부외면(眼部外面)은 정상이나, 병변이 동신내부(瞳神內部)에 있어 물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시체(柿蒂) [약물] : 본초 감나무과(柿樹科 : Eben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의 열매 꽃받침으로, 가을에 성숙한 감의 꼭지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시추풍(豉搥風) [병증] ⇒ 학슬풍(鶴膝風)
시침(鍉鍼) [기구]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 침체(鍼體)는 길이가 3치 5푼으로 약간 크고 굵으며 침두(鍼頭)는 기장이나 조처럼 둥글면서 약간 뾰족한 침 종류.
시침요법(鍉鍼療法) [침구] : 침구 시침(鍉鍼)으로 혈자리가 있는 살갗을 눌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시태(試胎) [병증] ⇒ 농태(弄胎)
시통(試痛) [병증] 동 농통(弄痛) : 부인 임신부가 산월에 복통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아팠다 안아팠다 하거나 혹은 배는 아픈데 허리는 아

프지 않는 등 정상 진통과 구분되어야 할 양상의 통증.

시행병(時行病) [병증] : 병리 외감으로 발병된 폭발성 유행성 질병. 한역(寒疫)을 시행한역(時行寒疫), 온역(瘟疫)을 시행온역(時行瘟疫) 등으로 부르기도 함.

시행역려(時行疫癘) [병증] ⇒ 시역(時疫)

시호(柴胡) [약물]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시호 *Bupleurum falcatum* Linné의 근.

식(息) [생리] [병증] [기타] : 진단 ①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 ② 천식(喘息). ③ 멎다・모이다・머물다란 뜻. ④ 식(瘜)과 같다. 콧속에 조그맣게 생기는 혹[췌육(贅肉)]. ⑤ 식(熄)・멸(滅)과 상통.

식간(食癎) [병증] : 정신 소아 음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癎病). 면색위황(面色萎黃) 돌연혼부(突然昏仆) 복통구토(腹痛嘔吐) 등의 증상을 나타냄.

식격(食膈) [병증] : 내과 음식상으로 인해 흉중통(胸中痛), 식입즉토(食入則吐), 신음(呻吟), 탄식(嘆息), 구금(口噤)하는 병증

식고(息高) [증상] : 진단 심한 호흡곤란으로 숨이 차서 입을 크게 벌리고 어깨를 들썩이는 증상을 형용한 말. 위중한 질병으로 원기(元氣)가 허(虛)하고 고갈되었을 때 발생.

식구법(拭口法) [치법] 동 초생식구(初生拭口), 식예법(拭穢法), 초생수구법(初生搜口法), 초생해독법(初生解毒法), 옥어(玉御) : 소아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입 안에 있는 분비물을 씻어내 주는 것.

식궐(食厥) [병증] : 내과 음식의 부절제로 인해 야기되는 궐증. 완복(脘腹)이 창만(脹滿)하고 음식의 부미(腐味)를 애출(噯出)하며 설태(舌苔)가 후이(厚膩)하고 맥이 활삭(滑數)하나 단 식물을 토출한 후에는 소성(蘇醒)하는 병증.

식기(食氣) [병리] [생리] [예방] : 병리 ① 수곡의 기운. ② 화사(火邪)에 의해 진액과 기운이 손상되어 원기가 약해지는 것.

식담(食痰) [병증] : 내과 식적담(食積痰).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데 혹 어혈(瘀血)이 겹치게 되면 주머니 같은 것이 생겨 벽괴(癖塊)가 되고 속이 답답하고 가득해지는 병증.

식두(食竇)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7)로서 중정(中庭) 양쪽 6촌으로 5・6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식미(息微) [증상] : 진단 호흡이 얕고 숨소리가 미약한 증상.

식분(息賁) [병증] 동 폐적증(肺積證) : 내과 우협하(右脇下)에 술잔을 엎어 놓은 것 같은 포괴(包塊)가 생기며 급박감을 나타내고 흉배통(胸背痛), 토혈(吐血)을 발하며 한열(寒熱) 해수(咳嗽) 구역(嘔逆) 호흡촉박(呼吸促迫) 등이 나타나는 병증. 오적병(五積病)의 하나.

식비(食痺) [병증] : 내과 음식물이 입위(入胃)한 후 상복부(上腹部)에 민통(悶痛)을 느끼고 토출(吐出)하면 시원해지는 병증.

식상(食傷) [병증] ⇒ 상식(傷食)

식상비위(食傷脾胃) [병리] : 병리 부적절한 음식 섭취에 의해 비위(脾胃)의 수납 및 운화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 그 병기(病機)는 첫째, 음식이 기기(氣機)를 막아 승강 작용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둘째, 음식이 정체하여 소화되지 못해 습(濕)이 생기고 열(熱)이 뭉치게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음식이 정체되면 허(虛)해져서 비위가 손상되는 경우이다. 만약 비(脾)가 병들면 수곡정미(水穀精微)를 운화시키지 못하여 정미(精微)와 조박(糟粕)이 모두 위장(胃腸)에 머무르게 되고 중초의 기기승강(氣機升降) 작용에 이상이 발생해 상하가 불통되며 음식물이 쌓여서 중초에 습열(濕熱)이 고이게 된다. 또한 비위가 허한 상태에서 음식물의 적체(積滯)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적체실사(積滯實邪)와 함께 허증(虛證)이 발생하게

된다.

식상비위증(食傷脾胃證) [병증] 동 식체중완증(食滯中脘證) : 병리 음식상에 의해 비위(脾胃)의 운화와 승강작용이 손상된 병증. 완복창민(脘腹脹悶), 구토산부식취(嘔吐酸腐食臭), 대변조박불화(大便糟粕不化), 대변당설(大便溏泄) 등이 주증이고, 식욕부진(食欲不振), 애기(噯氣), 오심(惡心), 위완조잡창통(胃脘嘈雜脹痛) 등이 차증이며, 설태후이(舌苔厚膩), 맥활(脈滑)하다.

식설(食泄) [병증] 동 상식설(傷食泄) : 내과 지나치게 먹고 마셔 비기(脾氣)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한 설사.

식소(食少) [증상] 동 납곡감소(納穀減少), 납소(納少), 식욕감퇴(食慾減退), 식욕부진(食慾不振), 음식감소(飮食減少) : 내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음식 섭취량이 적어지는 것.

식심통(食心痛) [병증] 동 식적심통(食積心痛) : 내과 무절제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발생한 심통. 명치 아래가 불러 오르고, 배가 그득하며 아프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신트림을 하며 음식 먹기를 싫어하는 병증.

식역(食亦) [병증] 동 식역증(食亦證) : 내과 음식은 많이 먹으면서도 배고파하고, 몸은 도리어 야위며, 권태무력(倦怠無力)한 병증.

식역증(食亦證) [병증] ⇒ 식역(食亦)

식예법(拭穢法) [치법] ⇒ 식구법(拭口法)

식욕감퇴(食慾減退) [증상] ⇒ 식소(食少)

식욕부진(食慾不振) [증상] ⇒ 식소(食少)

식울(食鬱) [병증] : 내과 울증의 하나. 트림을 하면 신물이 넘어오고 배가 그득하며 먹지 못하고 황달이 생기며 배가 북처럼 더부룩하고 속에 덩어리가 있으며 맥이 긴실(緊實)한 병증.

식육(瘜肉) [병증] ⇒ 비치(鼻痔)

식육치(息肉痔) [병증] ⇒ 직장식육(直腸瘜肉)

식육후풍(瘜肉喉風) [병증] ⇒ 후중생육(喉中生肉)

식이요법(食餌療法) [치법] 동 식이조절(食餌調節) : 재활 음식의 질이나 양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예를 들어 비만 치료의 기본 원칙은 열량섭취가 소모보다 적어서 체내에 축적된 지방으로부터 필요한 열량을 공급받는 것인데,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필수영양소 등이 적절하게 배합된 열량이 낮은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식사의 이상적인 영양소 배분은 당질 50%, 지방질 35%, 단백질 15%이다.

식이요법기(食餌療法期) [기타] : 재활 절식요법의 마지막 단계로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하고 약물과 재활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단계.

식이조절(食餌調節) [치법] ⇒ 식이요법(食餌療法)

식적(食積) [병증] : 내과 음식물이 하룻밤을 지나도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정체되어있으면서 흉완(胸脘)이 비민(痞悶)하고 오식(惡食)하며 애부탄산(噯腐呑酸)하고 설태(舌苔)가 후이(厚膩)한 병증.

식적수(食積嗽) [병증] 동 식해(食咳) : 내과 식적(食積)으로 담(痰)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기침으로 가슴이 그득하고 신트림이 나는 기침.

식적심통(食積心痛) [병증] ⇒ 식심통(食心痛)

식적요통(食積腰痛) [병증] : 재활 요통의 하나. 음식물이 정체되어 소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

식적한열(食積寒熱) [병증] : 소아 식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열(發熱), 오한(惡寒). 소아의 식적은 대부분 비위가 허한(虛寒)하여 젖과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오래되어 적(積)이 된 것임. 그 증상은 밤에는 열이 나고 낮에는 다시 추워지며, 배는 아프고 팽창되며 구토(嘔吐)와 탄산(呑酸)이 있고, 다리는 차고 배는 열이 나며 정신은 흐릿해서 잠만 자려 하고, 대변에서는 신 냄새가 난다.

식조(息粗) [증상] : 진단 호흡할 때 숨소리가

거친 것. 폐열(肺熱)이 치성(熾盛)하거나, 혹은 담기(痰氣)·수음(水飮)으로 기도(氣道)가 가로막혔을 때 나타남.

식중(食中) [병증] 동 중식(中食) : 내과 음식의 부절제로 인해 야기되는 궐증. 완복(脘腹)이 창만(脹滿)하고 음식의 부미(腐味)를 애출(噯出)하며 설태(舌苔)가 후이(厚膩)하고 맥이 활삭(滑數)하나 식물(食物)을 토출(吐出)한 후에는 소성(蘇醒)하는 병증.

식창(蝕瘡) [병증] ⇒ 음창(陰瘡)

식천(食喘) [병증] : 내과 상식(傷食)으로 숨이 차며, 속이 답답하고 배가 불러오고 방귀를 뀌며 맥은 홍장(洪壯)한 병증.

식체(食滯) [병증] : 소아 소아가 젖이나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먹어 비위(脾胃)가 운화하지 못하여 음식이 장위에 쌓여 생기는 병증. 트림이 나고 배가 부르며 시큼하고 쉰내 나는 찌꺼기를 토하고 식욕이 감퇴한다. 또 배가 그득하면서 열이 나거나 누르면 아프고, 변비가 생기고 대변에서 심한 악취가 나며, 미열, 구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체중완증(食滯中脘證) [병증] ⇒ 식상비위증(食傷脾胃證)

식태(息胎) [병증] ⇒ 포의불하(胞衣不下)

식통(食痛) [병증] : 소아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장위(腸胃)에 쌓여 발생하는 복통. 소아는 장부가 약하여 비위(脾胃)의 기능이 강하지 못하므로 만일 음식물과 젖을 절제하지 않고 과식하거나 잘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을 먹으면 비위가 손상되어 음식물과 젖이 막히고 습열(濕熱)이 생겨 열이 장위에 맺혀 장기가 통하지 못하므로 복통이 일어난다. 복부가 창만동통(脹滿疼痛)하며 누르면 통증이 심하고 식욕이 없으며 시큼한 악취가 나는 트림을 한다.

식포(息胞) [병증] ⇒ 포의불하(胞衣不下)

식풍(熄風) [치법] : 평식내풍(平熄內風)의 치법. 내장병변(內臟病變)으로 발생한 풍병(風病)을 치료.

식학(食瘧) [병증] 동 위학(胃瘧) : 내과 오한이 멎으면 다시 열이 나고, 열이 멎으면 다시 오한이 나면서 오한과 열이 교대로 나고, 배고파도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먹으면 담(痰)을 토하는 학질.

식해(食咳) [병증] ⇒ 식적수(食積嗽)

식효(食哮) [병증] : 내과 식사시에 발생하며, 기름진 음식에 의한 담(痰)이 쌓여 기를 막아 목에서 가래소리[효증(哮證)]가 나는 병증.

신(腎) [생리] 동 수장(水臟), 위지관(胃之關), 작강지관(作强之官) : 생리 ① 오장 중의 하나로 수(水)의 특성과 부합하는 장부. ② 요부의 십사추하(十四椎下) 양방 1촌 5푼 떨어진 곳에 좌우 두개가 있는 강낭콩 모양의 장부.

신(神) [생리] : 생리 심(心)의 주재 하에 오장기능활동(機能活動)의 협조를 바탕으로 인체 전체 차원에서 나타나는 생명활동현상 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정화로서의 정신활동.

신(辛) [약물] 동 신미(辛味) : 본초 오미(五味)의 하나로 매운 맛. 매운 맛은 발한(發汗)하게 하고 사기를 흩어지게 하며 기와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신미(辛味)를 가진 약물로는 방풍, 형개, 백지, 목향, 천궁, 강황 등이 있다.

신간(腎癎) [병증] : → 오간(五癎)

신간동기(腎間動氣) [생리] : 생리 ① 십이경맥과 오장육부 기능의 근본으로서 생기(生氣)의 근원이 되는 원기(元氣). ② 명문지화(命門之火).

신감(新感) [병리] 동 신감온병(新感溫病), 외감온병(外感溫病) : 병리 풍열(風熱), 조열(燥熱), 습열(濕熱), 온독(溫毒), 여기(癘氣) 등 강한 사기가 침입하여 긴 잠복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온병(溫病)이 발생하는 것. 복사(伏邪)에 반대되는 말이며, 온열병(溫熱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병유형 중 하나로 신감온병(新感溫病)의 간칭(簡稱)이다.

신감(腎疳) [병증] 동 골감(骨疳) : 소아 소아오

감(小兒五疳)의 하나. 선천(先天)의 기가 부족하고 품부(稟賦)가 허약하여 해노(解顱), 학슬(鶴膝), 오지(五遲) 등의 병을 앓은데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먹어 장부에 열이 쌓여 진액이 손상되고 이것이 오래되면 신음(腎陰)이 고갈되어 발생한다.

신감온병(新感溫病) [병리] ⇒ 신감(新感)

신기능계(腎機能系) [생리] ㊐ 신계(腎系) : 생리 신(腎)을 중심으로 방광(膀胱)·골(骨)·수(髓)·발(髮)·이(耳)·이음(二陰)·요(腰)·치아(齒牙) 등 신(腎–배설 및 생식, 침정기능)의 생리기능을 발휘하거나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기능계통.

신고후풍(辛苦喉風) [병증] : 안이 극심한 과로로 인해 유발되며 후두(喉頭)가 종대(腫大)되지도 않고 약간의 미홍색(微紅色)을 띠고 아프며 소설(小舌) 좌우에 항상 출혈(出血)이 일어나는 병증.

신곡(神麴) [약물] ㊐ 신국(神麴) : 본초 밀가루 또는 밀기울, 적소두가루, 행인니(杏仁泥), 개똥쑥즙, 도꼬마리즙, 버들여뀌즙 등의 재료를 반죽하여 누룩같이 만들어 짚이나 마대 또는 삼잎으로 싸서 온실에서 발효한 것.

신광자현(神光自現) [병증] : 안이 눈앞에 신광(神光)이 출현하여 전광(電光)이 섬화(閃火)와 같고 심하게 되면 화염(火炎)이 희미하게 비치는 듯하며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병증. 고정된 어떤 색깔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며 형성만목증(螢星滿目症)보다 더욱 심하다.

신구설(腎久泄) [병증] : 내과 신기부족(腎氣不足), 명문화쇠(命門火衰)로 발생하며 매 오경시(每五更時) 당설일차(溏泄一次)하는 병증.

신국(神麴) [약물] ⇒ 신곡(神麴)

신궐(神闕)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8)로서 배꼽에 위치.

신궐(腎厥) [병증] : 내과 오장궐(五臟厥)의 하나로 신기(腎氣)가 치밀어서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병증.

신기(腎氣) [생리] ㊐ 하원(下元) : 생리 ① 신(腎)의 정기(精氣) 및 기능. ② 전신의 기기(氣機)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신의 함하(陷下) 또는 인체의 정기를 저장시키는 기운.

신기(神氣) [생리] : 생리 ① 신(神)의 작용. ② 생명력.

신기내허(腎氣內虛) [병리] ⇒ 신기허(腎氣虛)

신기부족(腎氣不足) [병리] ⇒ 신기허(腎氣虛)

신기부족증(腎氣不足證) [병증] ⇒ 신기허증(腎氣虛證)

신기불고(腎氣不固) [병리] : 병리 신기부족(腎氣不足)으로 고장(固藏)이 무력해지면 하규(下竅)가 불고(不固)해져 나타나는 하원불고(下元不固)의 증을 총칭한 것. 남자에게서는 조설(早泄), 유정(遺精), 활정(滑精) 등 증상이 나타나며, 여자에게서는 붕루(崩漏), 대하청희(帶下青稀), 활태(滑胎) 등이 나타나고, 남녀 모두에게서 유뇨(遺尿), 소변실금(小便失禁)이나 대변활설(大便滑泄) 등이 나타난다.

신기불고증(腎氣不固證) [병증] ㊐ 하원불고증(下元不固證), 신허불고증(腎虛不固證) : 병리 신기허쇠(腎氣虛衰)하여 봉장고섭(封藏固攝)의 기능을 잃은 증. 소변빈삭이청(小便頻數而淸), 요후여력부진(尿後餘瀝不盡), 유뇨(遺尿), 소변실금(小便失禁), 활정(滑精), 조설(早泄), 태동이활(胎動易滑) 등이 주증이고, 면색황백(面色晄白), 신피무력(神疲無力), 요슬산연(腰膝酸軟), 청력감퇴(聽力減退), 자한(自汗), 백대청희(白帶淸稀)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세약(脈細弱)하다.

신기상역증(腎氣上逆證) [병증] ⇒ 신불납기증(腎不納氣證)

신기쇠약(腎氣衰弱) [병리] ⇒ 신기허(腎氣虛)

신기허(腎氣虛) [병리] ㊐ 신기내허(腎氣內虛), 신기쇠약(腎氣衰弱), 신기부족(腎氣不足), 신기휴손(腎氣虧損) : 병리 신기(腎氣)가 휴허

(虧虛)하여 고장(固藏)과 섭납(攝納)의 기능이 감퇴된 것. 신정(腎精)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연로(年老)하여 신(腎)의 정기(精氣)가 쇠퇴하거나, 혹은 중년에 방로과도(房勞過度)하거나, 구병(久病)으로 신기가 손상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신기허증(腎氣虛證) [병증] ㊐ 신기부족증(腎氣不足證) : 병리 신(腎)의 원기(元氣)가 허쇠(虛衰)하여 신이 주관하는 기능이 감퇴되어 나타나는 증으로서 그 증상은 현훈이명(眩暈耳鳴), 요슬산연(腰膝酸軟), 기단자한(氣短自汗), 권태무력(倦怠無力) 등이 주증이고, 면색황백(面色晄白), 소변빈삭(小便頻數), 유정(遺精), 조설(早泄)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세약(脈細弱)하다.

신기휴손(腎氣虧損) [병리] ⇒ 신기허(腎氣虛)

신낭옹(腎囊癰) [병증] ㊐ 낭옹(囊癰), 부자옹(附子癰) : 안이 간신(肝腎)의 습열(濕熱)이 낭(囊)으로 몰려서 형성되는 옹저.

신낭풍(腎囊風) [병증] : 안이 음낭습진에 해당. 신낭(腎囊)에 적색의 속립상(粟粒狀)이 발생. 피부 감각이 둔해지고 계속해서 가려운데, 긁으면 삼출물이 흐른다.

신당(神堂)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4)로서 신도(神道) 양쪽 각 3촌에 위치.

신도(神道)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11)로서 5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신동통(身疼痛) [증상] ⇒ 신통(身痛)

신로(腎勞) [병증] : 내과 소변이 황적하면서 끝마무리 때 방울방울 떨어지며, 요통, 이명이 있고, 밤에 꿈을 많이 꾸는 병증.

신매(神呆) [병증] ⇒ 매병(呆病)

신맥(申脈)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2)로서 양교맥(陽蹻脈)의 소생지처(所生之處)에 해당하여 통우독맥(通于督脈)함.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아래 5푼되는 오목한 곳에 위치.

신명(神明) [생리] : 생리 생명, 또는 생명의 정화로서의 정신(精神).

신명지심(神明之心) [생리] : 생리 생명활동 중 가장 신령한 것으로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무형의 심(心).

신문(神門) [경혈] ㊐ 예중(銳中)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7)로서 수토혈(兪土穴),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손목관절 횡문 자쪽(척골측) 끝의 오목한 곳에 위치.

신문맥(神門脈) [진찰] : 진단 삼부구후맥법(三部九候脈法) 진맥부위(診脈部位)의 하나로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신문혈(神門穴)이 위치한 동맥(動脈). 장후예골단(掌後銳骨端) 움푹 들어간 곳으로, 동맥(動脈)이 지나가는 부위에 해당.

신미(辛味) [약물] ⇒ 신(辛)

신법(抻法) [추나] ⇒ 발락법(拔絡法)

신병(腎病) [병증] ㊐ 신병증(腎病證) : 병리 오장병후(五臟病候)의 하나. 신장(腎臟)에서 발생한 각종 병증을 말함.

신병증(腎病證) [병증] ⇒ 신병(腎病)

신봉(神封)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3)로서 전중(膻中) 양쪽 2촌에 위치.

신불납기(腎不納氣) [병리] : 병리 신기부족(腎氣不足)으로 섭납(攝納)하지 못해 호흡할 때 흡입한 기가 아래로 귀원(歸元)하지 못하는 것. 신불납기하면 호흡이 얕아져서 움직이면 쉽게 헐떡이게 되는데, 대개 폐기(肺氣)가 장기간 허쇠하거나 구병(久病)이 신(腎)에 영향을 미쳐 신기(腎氣)가 부족해진 까닭이다.

신불납기증(腎不納氣證) [병증] ㊐ 신기상역증(腎氣上逆證), 폐신기허증(肺腎氣虛證) : 병리 신허(腎虛)로 기가 귀원(歸元)되지 못해 납기(納氣)기능이 상실되어 나타나는 증으로서 그

증상은 기단천식(氣短喘息), 호다흡소(呼多吸少), 동즉천심(動則喘甚) 등이 주증이고, 면색황백이허부(面色晄白而虛浮), 심즉면순청자(甚則面脣靑紫), 자한출(自汗出), 외한지랭(畏寒肢冷), 요슬산연(腰膝酸軟)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세약(脈細弱) 또는 허부무근(虛浮無根)하다.

신비(腎痺) [병증] ⇒ 골비(骨痺)

신사지관(臣使之官) [해부] ⇒ 심포(心包)

신사혼궤(神思昏憒) [증상] ⇒ 혼궤(昏憒)

신상(腎傷) [병증] ㊐ 신상증(腎傷證) : 내과 신(腎)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병증(病證). 용력거중(用力擧重)하거나 입방과도(入房過度), 한출욕수(汗出浴水)하면 신(腎)을 상(傷)한다.

신상증(腎傷證) [병증] ⇒ 신상(腎傷)

신선(腎善) [병증] : 안이 오선(五善)의 하나. 창양이 생겼을 때 무오후발열(無午後發熱), 구중불건조(口中不乾燥), 소변청백(小便淸白), 주로 밤에는 안정되는 것을 말함.

신설(晨泄) [병증] ⇒ 신설(腎泄)

신설(腎泄) [병증] ㊐ 신설(晨泄) : 내과 매일 미명시(未明時)에 장명설사(腸鳴泄瀉)하는 병증.

신설(伸舌) [증상] : 내과 혀가 늘어져 입 밖으로 나와 수축되지 않는 것.

신수(晨嗽) [병증] ㊐ 조신수(早晨嗽), 신해(晨咳), 오경수(五更嗽), 오경해(五更咳) : 내과 이른 새벽에 기침이 심한 병증으로 위(胃)속의 식적(食積)으로 인해 발생.

신수(腎水) [생리] [병증] [추나] : 생리 신음(腎陰).

신수(腎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증(足太陽膀胱證)의 경혈(BL23)로서 명문(命門)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신수발(腎兪發) [병증] ⇒ 하탑수(下搭手)

신수부족(腎水不足) [병리] ⇒ 신음허(腎陰虛)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 [사상] ⇒ 소음인 신수열표열병(少陰人腎受熱表熱病)

신수옹(腎腧癰) [병증] : 안이 신수혈(腎腧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과도한 음주나 성생활로 인해 발생.

신수장고증(神水將枯證) [병증] : 안이 결막선(結膜腺)의 분비능력이 장애되면서 결막의 변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 결막건조증(結膜乾燥症)과 유사함.

신수휴(腎水虧) [병리] ⇒ 신음허(腎陰虛)

신승격(腎勝格) [침구] ⇒ 신승방(腎勝方)

신승방(腎勝方) [침구] ㊐ 신승격(腎勝格) : 침구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실증(實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태백(太白)·태계(太谿) 보(補), 대돈(大敦)·용천(湧泉) 사(瀉).

신실증(腎實證) [병증] : 병리 사기(邪氣)가 치성(熾盛)함으로 인해 발생한 신(腎)의 병증.

신심통(腎心痛) [병증] : 내과 ① 가슴과 등이 결리면서 찌르는 듯이 아프고 자주 경련이 일며, 아랫배가 묵직하며 설사하고 뱃속이 찬 감을 느끼면서 때로 배꼽 아래에서 명치까지 치밀면서 몹시 아플 때도 있는 병증. ② 외감육음(外感六淫) 등으로 사실(邪實)하여 나타나는 심통(心痛).

신알비연(辛頞鼻淵) [병증] : 안이 콧마루가 매운 느낌이 있으면서 탁한 콧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것. 부비동염(副鼻洞炎)의 증상이라 볼 수 있음.

신약(臣藥) [약물] : → 군신좌사(君臣佐使)

신양(身痒) [병증] ⇒ 소양(瘙痒)

신양(腎陽) [생리] ㊐ 선천지화(先天之火), 원양(元陽), 원양지기(元陽之氣), 진양(眞陽), 진화(眞火), 명문지화(命門之火), 명문화(命門火), 용화(龍火) : 생리 ① 생명활동의 원동력으로 장부와 경락의 생리기능을 추동하는 에너지의 원천. ② 원양·진양·명문화·진화.

신양곤열(腎陽困熱) [사상] : 사상 발열 오한하며 기인여광(其人如狂)하는 소음인의 병증으로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 울광(鬱狂)에

해당하는 병증. 신국(腎局)의 방출지기(放出之氣)인 하강지력(下降之力)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비국(脾局)의 납적지기(納積之氣)가 약해져 표음(表陰)이 울체되고 이양(裏陽)이 상승하지 못하는 병리현상. 치법은 승양익기(升陽益氣)를 원칙으로 하며 처방은 천궁계지탕, 황기계지탕, 팔물군자탕 등이다.

신양부족증(腎陽不足證) [병증] ⇒ 신양허증(腎陽虛證)

신양부진(腎陽不振) [병리] ⇒ 신양허(腎陽虛)

신양쇠약(腎陽衰弱) [병리] ⇒ 신양허(腎陽虛)

신양허(腎陽虛) [병리] ㊐ 신양허쇠(腎陽虛衰), 신양쇠약(腎陽衰弱), 신양부진(腎陽不振), 진양부족(眞陽不足) : 병리 전신의 온후(溫煦), 추동(推動), 흥분(興奮), 화기(化氣) 등 기능에 대한 신기(腎氣)의 촉진작용이 감약(減弱)된 병변. 평소에 양(陽)이 허하거나, 병이 오래되어 신양(腎陽)이 손상되었거나, 늙어서 신양이 감소되었거나, 방노과도(房勞過度) 등이 원인. 신양은 전신 양의 근본이므로 신양이 허해지면 각 부분에서 양허(陽虛)증상이 나타난다. 신양허로 비양(脾陽)을 온양(溫養)하지 못하면 비신(脾腎)의 양이 모두 허해져 하리청곡(下利淸穀)과 오경설사(五更泄瀉) 등이 나타나고, 신양허하여 진액의 운행을 추동하지 못하면 수액이 정체되어 담음(痰飮)이 생겨나고 심하면 수종(水腫)이 생기며, 신양허하여 심신(心神)을 흥분시키지 못하면 정신이 위축되는데, 傷寒論 〈辨少陰病脈證幷治〉의 "단욕매(但欲寐)" 등의 증상이 나타남. 신(腎)의 양허(陽虛)이기 때문에 전신의 양허증(陽虛證)이 나타나는 동시에 요슬산연(腰膝痠軟), 이명(耳鳴), 양위(陽痿), 정랭(精冷)이나 궁한(宮寒)으로 인한 불임(不姙) 등 신(腎) 자체의 허한증(虛寒證)이 나타는데, 흔히 심신양허(心腎陽虛)와 비신양허(脾腎兩虛)를 겸한다.

신양허쇠(腎陽虛衰) [병리] ⇒ 신양허(腎陽虛)

신양허쇠증(腎陽虛衰證) [병증] ⇒ 신양허증(腎陽虛證)

신양허수범증(腎陽虛水泛證) [변증] ⇒ 신허수범증(腎虛水泛證)

신양허증(腎陽虛證) [병증] ㊐ 신양부족증(腎陽不足證), 신양허쇠증(腎陽虛衰證), 진양부족증(眞陽不足證), 진양쇠미증(眞陽衰微證), 명문화쇠증(命門火衰證) : 병리 원양(元陽)이 부족하여 기화(氣化)작용을 상실함으로서 온후(溫煦)가 안되고 수습이 증가되는 증. 그 증상은 외한지냉(畏寒肢冷), 요슬냉통(腰膝冷痛), 오경설사(五更泄瀉), 소변청장(小便淸長) 등이 주증이고, 면색황백혹여흑(面色晄白或黧黑), 현훈이명(眩暈耳鳴), 남자양위불거(男子陽痿不擧), 조설(早泄), 성욕감퇴(性欲減退), 여자궁한불잉(女子宮寒不孕), 요소부종(尿少浮腫), 백대청희(白帶淸稀) 등이 차증이며, 설담눈(舌淡嫩), 태백활(苔白滑), 맥침지무력(脈沈遲無力)하다.

신연기법(伸挻技法) [추나] : 재활 굴곡신연교정법은 극돌기 사이를 벌려서 추간판의 공간을 넓혀주는 추나수기법이다. 이 때 추간판의 공간 내에는 음압이 생겨서 추간판 뒤쪽의 밀려나와 있던 디스크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추간판의 바로 뒤에 위치한 후종인대가 당겨지며 추간판을 안으로 밀어 넣는 작용을 하고 근육의 이완을 통한 서근통락(舒筋通絡)의 효과로 치료부위의 울체된 기혈의 순환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치료 도중 자연스럽게 변위된 추골을 교정할 수 있으므로 이근정복(利筋整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열(腎熱) [병리] : 소아 오장열증(五臟熱證)의 하나. 신열(腎熱)이 있으면 턱 아래가 먼저 붉어지고 눈에 정광(精光)이 없으며 밝은 곳을 싫어한다. 양쪽 발에 열이 심하고 척추골이 무거우며 열이 심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밤에는 더욱 심해진다.

신옹(腎癰) [병증] : 안이 신경(腎經)의 모혈(募穴)인 경문혈(京門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신위(腎痿) [병증] ⇒ 골위(骨痿)
신음(腎陰) [생리] 동 원음(元陰), 원음지기(元陰之氣), 진수(眞水), 진음(眞陰) : 생리 ① 신양(腎陽)에 상대로 쓰이는 말. 신양 기기활동(機能活動)의 물질적 기초. 신장(腎臟)에 저장된 정(精)을 포함한 음액. ② 원음(元陰)·진음(眞陰)·신수(腎水)·진수(眞水).
신음부족증(腎陰不足證) [병증] ⇒ 신음허증(腎陰虛證)
신음양구허(腎陰陽俱虛) [변증] : 병리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구병(久病), 연로(年老), 노상과도(勞傷過度), 방실부절(房室不節) 등으로 음양이 모두 허하여 발생. 음양양허(陰陽兩虛)에 정기부족(精氣不足)으로 수해(髓海)가 충실함을 잃어 현훈(眩暈), 이명(耳鳴)하고 정(精)이 요슬근골(腰膝筋骨)을 채우지 못하여 요슬산연동통(腰膝酸軟疼痛)한다. 또한, 양허(陽虛)하면 형한(形寒)하면서 사지가 량(凉)하고, 음허(陰虛)하면 오심번열(五心煩熱), 도한(盜汗), 관홍(顴紅)이 있다. 아울러 생식기능이 저하되면 남자의 경우, 유정불육(遺精不育)한다. 또한 맥은 세삭(細數)하거나 침지(沈遲)하다.
신음양구허증(腎陰陽俱虛證) [병증] ⇒ 신음양양허증(腎陰陽兩虛證)
신음양양허증(腎陰陽兩虛證) [병증] 동 신음양구허증(腎陰陽俱虛證) : 병리 원양(元陽)이 부족하고 음정(陰精)이 모자라서 온후(溫煦)가 안되고 장부경락을 유양(濡養)시키지 못하는 증. 신(腎)기능의 저하와 열상(熱象), 한상(寒象)이 동시에 나타남. 그 증상은 현훈이명(眩暈耳鳴), 요슬산연동통(腰膝酸軟疼痛), 오심번열(五心煩熱), 도한(盜汗), 유정(遺精), 수족랭(手足冷), 자한출(自汗出) 등이 주증이고, 면색황백(面色晄白), 관홍(顴紅), 실면건망(失眠健忘), 다몽(多夢), 정신위약(精神萎弱), 치부동요(齒浮動搖), 모발건고(毛髮乾枯), 동즉기천(動則氣喘), 족부부종(足跗浮腫) 등이 차증이며, 설홍무태(舌紅無苔), 맥세삭(脈細數) 또는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침지이약(脈沈遲而弱)하다.
신음허(腎陰虛) [병리] 동 신음휴허(腎陰虧虛), 신수부족(腎水不足), 신수휴(腎水虧) : 병리 전신의 자윤(滋潤), 영양(營養), 양열(陽熱)에 대한 제약, 영정(寧靜)과 성형(成形) 등의 기능에 대한 신기(腎氣)의 촉진작용이 감약(減弱)된 병변. 평소에 음허(陰虛)하였거나, 구병(久病)이나 중병(重病)으로 신음(腎陰)을 상하였거나, 혹은 정지(情志)의 내상으로 울화가 신음(腎陰)을 소삭(消爍)시켰거나, 방로과도(房勞過度)로 신음(腎陰)을 손상시켰거나, 온조(溫燥)한 약을 과도하게 복용한 경우에 나타남. 신음에 속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양열(陽熱)을 제약하지 못하여 음허내열(陰虛內熱)케 되어 오심번열(五心煩熱), 조열(潮熱), 관홍(顴紅), 도한(盜汗), 맥세삭(脈細數), 설홍소태(舌紅少苔) 등이 나타나며, 음이 양을 제약하지 못하면 신중(腎中)의 상화망동(相火妄動)으로 성욕항진, 유정(遺精), 조설(早泄) 등이 나타난다.
신음허증(腎陰虛證) [병증] 동 신음부족증(腎陰不足證), 진음부족증(眞陰不足證) : 병리 신(腎)의 진액이 부족하여 허화(虛火)가 생긴 증. 그 증상은 두훈목현(頭暈目眩), 이명이농(耳鳴耳聾), 요슬산연(腰膝酸軟), 오심번열(五心煩熱), 조열도한(潮熱盜汗) 등이 주증이고, 건망소매(健忘少寐), 유정조설(遺精早泄), 치요발탈(齒搖髮脫), 소아발육지연(小兒發育遲延), 지능저하(智能低下), 남자불임(男子不姙), 여자경소불잉(女子經少不孕), 구건인조(口乾咽燥), 요황변건(尿黃便乾) 등이 차증이며, 설홍소태(舌紅少苔), 맥세삭(脈細數)하다.
신음휴허(腎陰虧虛) [병리] ⇒ 신음허(腎陰虛)
신이(辛夷) [약물] 동 목필화(木筆花) : 본초 목

련과(木蘭科 : Magnoli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ousseaux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꽃봉오리.

신장(神藏)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5)로서 자궁(紫宮) 양쪽 2촌에 위치.

신장풍(腎藏風) [병증] ⇒ 신장풍(腎臟風)

신장풍(腎臟風) [병증] 동 신장풍(腎藏風) : 안이 ① 종아리에 버짐같은 것이 생겨 가려우면서 허는 것이 점점 넓적다리와 온몸에 퍼지는 증. 신장풍이 심해지면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눈이 침침하고 입과 혀가 마르며,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으며 몹시 피곤하고 식은땀이나 열이 나기도 한다. ② 음낭부위가 축축하면서 가렵고 긁으면 허는 병증. → 음낭습양(陰囊濕瘍)

신저(腎疽) [병증] : 내과 오장저(五臟疽)의 하나. 경문혈(京門穴) 부위가 은근히 아픈 것이 특징인 병증.

신적(腎積) [병증] : 내과 오적(五積)의 하나. 소복(少腹)에서 발생하여 위로 심하(心下)에 이르는데 마치 새끼돼지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정해진 시간이 없고 오래되어도 낫지 않는 병증.

신전(囟塡) [병증] : 소아 신문(囟門)이 돌출하여 솟아오르는 현상. 대부분 발열이나 경궐(驚厥)이 있는 아이에게 나타나며 한기(寒氣)로 인해 기가 응체(凝滯)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신절(腎絶) [병증] : 내과 오장절(五臟絶) 중 하나. 신기(腎氣)가 끊어지는 위중(危重)한 증후로 소변실금(小便失禁) 광언(狂言) 목반직시(目反直視)하는 병증.

신정(神庭)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4)로서 이마 쪽 머리카락 경계면 5푼 위 오목한 곳에 위치.

신정(腎精) [생리] : 생리 신(腎)이 봉장(封藏)하고 있는 정기(精氣).

신정격(腎正格) [침구] ⇒ 신정방(腎正方)

신정방(腎正方) [침구] 동 신정격(腎正格) : 침구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허증(虛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경거(經渠)·부류(復溜) 보(補), 태백(太白)·태계(太谿) 사(瀉).

신정부족(腎精不足) [병리] 동 신정휴허(腎精虧虛) : 병리 신(腎)에 저장된 정(精)이 부족해져 인체의 생장, 발육과 생식에 대한 촉진 작용이 감약(減弱)됨과 함께 골(骨), 수(髓), 치(齒), 발(髮)의 자양(滋養) 기능이 감약(減弱)되는 병증. 신정부족(腎精不足)은 선천지정(先天之精)의 부족, 방로과도(房勞過度), 연로체쇠(年老體衰)나 구병(久病) 등으로 인한 신정(腎精)의 손상에 기인한다.

신정부족증(腎精不足證) [병증] 동 신정허증(腎精虛證) : 병리 신정(腎精)이 부족하여 발육이 부진하거나 생식기능이 감퇴하고 골격이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증. 그 증상은 현훈이명(眩暈耳鳴), 요슬산연(腰膝酸軟), 소아발육지연(小兒發育遲延), 남자불임(男子不姙), 여자경폐불잉(女子經閉不孕) 등이 주증이고, 건망소면(健忘少眠), 동작지둔(動作遲鈍), 형체소수(形體消瘦), 치요발탈(齒搖發脫), 소아천문폐지(小兒泉門閉遲), 지능저하(智能低下), 반응지둔(反應遲鈍), 기육위축(肌肉萎縮)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백(舌淡苔白), 맥세약(脈細弱)하다.

신정허증(腎精虛證) [병증] ⇒ 신정부족증(腎精不足證)

신정휴허(腎精虧虛) [병리] ⇒ 신정부족(腎精不足)

신종(身腫) [병증] ⇒ 수종(水腫)

신주(身柱)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12)로서 3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신주장반(神疰將反) [병증] : 안이 마비성 사시 질환의 하나로 근육자체의 병변이나 신경의 마비로 인해 안구회전이 불가능해지는 병증.

신지(神志) [생리] : 생리 정신(精神), 의식(意識).
신지당(腎之黨)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로 하초인 신(腎)의 계열을 지칭한 말. 대장(大腸) 전음(前陰) 구(口) 방광(膀胱) 골(骨) 등을 지칭한다.
신지치매(神志痴呆) [병증] ⇒ 매병(呆病)
신지혼도(神志昏倒) [증상] 동 신지혼몽(神志昏蒙), 신지혼미(神志昏迷), 두뇌혼몽(頭腦魂蒙) : 내과 신지(神志)가 마치 무엇이 덮어씌운 듯 흐릿한 증상.
신지혼몽(神志昏蒙) [증상] ⇒ 신지혼도(神志昏倒)
신지혼미(神志昏迷) [증상] ⇒ 신지혼도(神志昏倒)
신착(腎着) [병증] ⇒ 신착증(腎着證)
신착증(腎着證) [병증] 동 신착(腎着) : 내과 신허(腎虛)할 때 습사(濕邪)가 경맥(經脈)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허리가 차면서 무거운 병증.
신총(神聰) [경혈] 동 사신총(四神聰) : 경혈 독맥(督脈)의 백회(百會) 전후좌우 각 1촌 부위.
신침요법(新鍼療法) [침구] : 침구 한의학의 혈위(穴位), 경락학설(經絡學說), 장상론(臟象論) 등의 기초 위에 서양의학의 해부생리지식을 참고로 각종 약물, 이학요법(理學療法), 외과수술 등의 방법을 결합하여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
신침화구(神鍼火灸) [침구] : 침구 복숭아나무 가지로 만든 침을 참기름에 담갔다가 꺼내어 환부(患部)에 세운 다음 불을 붙여 열기(熱氣)를 전달하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신통(身痛) [증상] 동 신동통(身疼痛) : 내과 전신이 아픈 증상.
신풍(腎風) [병증] : 내과 땀을 많이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면서 얼굴에 부종(浮腫)이 발생하고, 요척부(腰脊部)의 통증으로 똑바로 서지 못하며, 얼굴은 회색이고, 소변이 순조롭지 못한 병증.
신함(囟陷) [병증] : 소아 신문(囟門)이 움푹 가라앉는 증후. 만경(慢驚)이나 오랫동안 설사한 후에 현저하게 신문이 가라앉았거나 심하면 움푹 팬 것을 말함. 생후 6개월 이내의 소아가 전신문(前囟門)이 약간 가라앉은 것은 병리상태가 아니다.
신해(晨咳) [병증] ⇒ 신수(晨嗽)
신허(腎虛) [병리] 동 신허증(腎虛證) : 병리 신정부족증(腎精不足證), 신기허증(腎氣虛證), 신기불고증(腎氣不固證), 신음허증(腎陰虛證), 신양허증(腎陽虛證), 신음양양허증(腎陰陽兩虛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기허증(腎氣虛證)을 말함. → 신기허증(腎氣虛證)
신허담겁(神虛膽怯) [병증] ⇒ 담겁(膽怯)
신허불고증(腎虛不固證) [병증] ⇒ 신기불고증(腎氣不固證)
신허수범(腎虛水泛) [병리] : 병리 신양(腎陽)이 쇠약해져 기화(氣化)작용이 되지 않아 수음(水飮)이 저류된 병리 현상. 증상으로서는 부종(浮腫), 신허(腎虛)증상, 양기허쇠(陽氣虛衰) 증상 등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신허수범증(腎虛水泛證) [변증] 동 신양허수범증(腎陽虛水泛證) : 병리 신양(腎陽)이 쇠약해져 기화(氣化)작용이 되지 않아 수음이 저류된 증. 전신수종(全身水腫－下肢尤甚, 按之沒指)이 주증이고, 요슬산통(腰膝酸痛), 요소(尿少), 심계기단(心悸氣短), 해천담명(咳喘痰鳴), 음낭수종(陰囊水腫) 등이 차증이며, 설담체반(舌淡體胖), 태백활(苔白滑), 맥침현(脈沈弦)하다.
신허요통(腎虛腰痛) [병증] : 재활 요통의 하나. 무절제한 성교나 과로로 인해 신장(腎臟)의 정기(精氣)가 손상되어 발생.
신허증(腎虛證) [병리] ⇒ 신허(腎虛)
신혼(神昏) [병증] 동 혼민(昏悶), 혼미(昏迷) : 정신 정신이 혼미하거나 맑지 못한 것, 혹은 인

ㅅ

사 불성한 것. 대부분 사기(邪氣)가 청규(淸竅)를 막아 정신이 흐려져 발생. 외감, 내상잡병에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모두 위증(危證)에 속한다. 본증은 상한(傷寒), 온병(溫病), 중풍(中風), 궐증(厥證), 전간(癲癎) 등에서 나타나고 외상에서도 볼 수 있다

신회(顖會)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2)로서 상성(上星) 뒤 1촌에 위치.

실(實) [병리] [변증] [약물] [징후] : 병리 ① 팔강(八綱)의 하나. 사기(邪氣)가 인체에 침범하여 왕성한 것을 말함. 허(虛)에 상대되는 말. ② 장기를 손으로 만져서 충실하게 느껴지는 것. 음식물이 육부(六腑)를 통과하면서 충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함. 본초 ③ 식물의 열매를 말함. 예를 들어 검실(芡實), 지실(枳實) 등. 진단 ④ 삼부(三部)의 맥이 모두 힘차게 뛰는 맥상. → 실맥(實脈)

실녀(實女) [병증] ⇒ 석녀(石女)

실맥(實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가볍게 누르거나 세게 누르거나 모두 유력(有力)한 맥(脈). 주로 실증(實證)에서 나타난다.

실면(失眠) [병증] 동 불면(不眠), 불매(不寐), 부득면(不得眠), 불수(不睡), 난면(難眠), 천면(淺眠), 단면(短眠), 빈각(頻覺) : 정신 숙면을 이루지 못하면서 식욕부진, 피로감, 안정(眼睛) 피로, 정충, 경계, 주의력 감퇴, 두통, 설건(舌乾), 변비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수면장애.

실비(實秘) [병증] : 내과 장위(腸胃)를 실사(實邪)가 막음으로써 부기(腑氣)가 통하지 못해 생기는 변비.

실사(實邪) [병리] : 병리 ① 항성(亢盛)한 사기(邪氣). 보통 실증(實證)을 일으키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사(外邪)의 침입이고, 둘째는 담음(痰飮), 어혈(瘀血) 등 병리적 산물이다. ② 오사(五邪)의 하나. 자장(子臟)에서 옮겨진 사기(邪氣)에 의하여 장기에 병이 발생하는 것. 즉 자장에서 들어온 사기.

실성(失聲) [병증] : 내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병증.

실신(失神) [증상] 동 탈신(脫神) : 진단 신기(神氣)가 없다는 의미.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눈에 정기(精氣)가 없으며 숨결이 고르지 못하고 말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며 얼굴에 화색이 없는 상태.

실애(實呃) [병증] : 내과 기가 역상충(逆上衝)하여 후간(喉間)에서 딸꾹질이 연속부단(連續不斷)하는 병증.

실약증(失約證) [병증] ⇒ 비약(脾約)

실어(失語) [증상] ⇒ 불어(不語)

실어증(失語症) [병증] ⇒ 불어(不語)

실열(實熱) [병리] : 병리 ① 실증(實證)의 열(熱). 사기(邪氣)가 실(實)하고 정기(正氣)도 약하지 않은 경우 정사상쟁(正邪相爭)의 결과로 나는 열. 열 자체의 발생은 정사상쟁의 결과이며, 열의 허실(虛實) 판단은 발열의 심한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와 사기의 허실로 판단한다. ② 발광(發狂)하는 등의 정신 이상이 나타나는 열병(熱病).

실열구토(實熱嘔吐) [병증] : 소아 위(胃)에 열이 뭉치고 음식이 쌓여 발생하는 구토.

실열생창(實熱生瘡) [병증] ⇒ 풍적창이(風赤瘡痍)

실열증(實熱證) [병증] : 병리 발열이 있되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모두 실(實)한 병증. 정기와 사기의 허실(虛實) 여부는 발열외의 다른 증상들을 통해 판단하며 특히 구갈 여부, 대소변 상태가 중요한 지표가 됨. 장열(壯熱), 번갈(煩渴), 신혼(神昏), 섬어(譫語), 혹복만창통거안(或腹滿脹痛拒按), 대변폐결(大便閉結), 설홍(舌紅), 태황후조(苔黃厚燥), 맥삭혹홍삭(脈數或洪數) 등이 나타난다.

실영(失榮) [병증] : 안이 경항부(頸項部)에 딴딴한 멍울이 생기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는 병증. 정지(情志)가 손상되어 간(肝)이 울결

되고 락(絡)이 가로막혀 담화가 응결(凝結)됨으로 인해 발생. 경항부에 병이 생기면 초기에는 약간 붓고 피부색이 변하지 않는데, 오래되면 점차 커져 돌처럼 딴딴해지고 고정되어 옮겨지지 않는다. 후기에는 터져 짓물러 자반(紫斑)이 생기고 혈수(血水)가 흐르며 기혈이 점차 쇠약해져 형용(形容)이 야위는 것이 마치 수목이 무성해지지 못하는 것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 붙임.

실영저(失營疽) [병증] : 안이 우사(憂思) 에노(恚怒) 기울(氣鬱) 등으로 울화(鬱火)가 응체되어 이하 양방(耳下兩旁)·항간(項間)에서 발생하는 옹저[암종(癌腫)].

실음(失音) [증상] 동 음(瘖), 후음(喉瘖) : 정신 말을 하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

실정(失精) [병증] : 정신 ① ⇒ 유정(遺精) ②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 재산을 탕진하든가 졸지에 손재(損財)를 당하여 가난해져서 실망과 회한 등의 정신적인 갈등을 나타내는 증상. → 탈영실정(脫營失精)

실종(實腫) [병증] : 안이 고종(高腫)을 지칭함.

실증(實證) [병리] : 병리 팔강(八綱)의 하나. 정기(正氣)가 허약하지 않은 조건에서 사기(邪氣)가 실(實)하거나 담음(痰飮), 어혈(瘀血) 등의 병리적 산물이 정체되어 있는 증후. 열이 높고 목이 마르며 번조(煩燥)하고 헛소리를 지껄이며, 혀가 푸르죽죽하고 설태(舌苔)가 누렇게 되면서 말라 깔깔하며 맥이 실하면서 힘이 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실지(失志) [병증] 동 실지증(失志症) : 정신 정지울결(情志鬱結)로 인해 발생한 정신이상.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거나, 과실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계속 탄식하고 빈 책상에 앉아 홀로 말하는데 마치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경우를 말함.

실지증(失志症) [병증] ⇒ 실지(失志)

실창(實脹) [병증] : 내과 항상 창만동통(脹滿疼痛)하며 안압(按壓)하여도 견경(堅硬)하여 함하(陷下)하지 않고 신열(身熱)하며 인건(咽乾)하는 병증.

실천(實喘) [병증] : 내과 폐가 사기(邪氣)에 의해 막히면서 나타나는 숨찬 증상[천증(喘症)]. 주로 풍한(風寒), 담탁(痰濁), 담열(痰熱)에 의해서 발병되며, 병의 발생이 빠르고 맥이 실(實)하며 사람이 건장하고 숨찬 현상으로 가슴이 가득하고 목소리가 높으며 숨 쉬는 소리가 크고 호기(呼氣)를 출(出)하면 편안해지는 병증.

실침(失枕) [병증] ⇒ 낙침(落枕)

실혈(失血) [병증] : 내과 혈관 벽이 파손되어 몸속에 순환하고 있던 유동성의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는 증상.

실화(實火) [병리] : 병리 ① 외감성 질환에서 발생되는 고열. ② 정지상(情志傷)으로 발생한 화(火).

심(尋) [진찰] : 진단 운지법(運指法)의 하나로 진맥(診脈)할 때 손가락에 적당히 힘을 주어 좌우로 맥상(脈象)을 찾는 방법.

심(心) [해부] [생리] 동 강궁(絳宮), 군주지관(君主之官) : 생리 ① 오장중의 하나로 화(火)의 특성과 부합하는 장부. ② 심장(heart)

심간(心癎) [병증] : → 오간(五癎)

심간양허증(心肝兩虛證) [병증] ⇒ 심간혈허증(心肝血虛證)

심간혈허(心肝血虛) [병리] : 병리 간(肝)과 심(心)의 기능은 장혈(藏血)과 주혈(主血)이므로 혈허(血虛)하면 심간(心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혈허의 증상도 간과 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구병(久病)으로 몸이 허약하여 음혈(陰血)이 감소하거나, 혹은 사려과도(思慮過度)로 음혈(陰血)이 손상되거나, 혹은 실혈과다(失血過多)나 영양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 이것은 먼저 심혈(心血)이 허하여 점차 심·간의 혈이 허해지거나 또는 간혈(肝血)이 허하여 점차 심·간의 혈이 허해져서 발생하

며,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연계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심간혈허증(心肝血虛證) [병증] ㊐ 심간양허증(心肝兩虛證) : 병리 심혈허증(心血虛證)과 간혈허증(肝血虛證)의 겸증으로, 심계정충(心悸怔忡), 건망(健忘), 실면(失眠), 다몽(多夢), 두훈목혼(頭暈目昏), 사지마목(四肢麻木) 등이 주증이고, 면색담백(面色淡白), 경척불안(驚惕不安), 근맥구급(筋脈拘急), 야맹(夜盲)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맥세무력(脈細無力)하다.

심감(心疳) [병증] ㊐ 경감(驚疳) : 소아 오감의 하나. 어린아이가 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음식물이 적체(積滯)되어 생긴 열이 심경(心經)으로 전달되어 발생. 얼굴이 붉고 흰자위에 핏발이 서며 고열이 있고 땀이 나며 때로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를 갈고 혀를 날름거리며, 입이 마르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며, 입과 혀가 헐고, 가슴과 횡격막이 답답하며, 자거나 눕기를 좋아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식욕이 부진하고 몸이 여위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경(心經) [경락] ⇒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심경법(心經法) [추나] : 재활 추나방법. 중지원단(中指遠端)의 지복부(指腹部)에 위치하는 부분으로 퇴열발한(退熱發汗)·통리소변(通利小便)하여 화안(火眼)·구창(口瘡)·경축(驚搐) 등의 증상을 치료.

심계(心悸) [병증] ㊐ 계(悸), 동계(動悸), 심동계(心動悸) : 내과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하는 증상.

심교통(心絞痛) [증상] : 내과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몹시 아픈 것.

심규(心竅) [해부] [생리] : ① 심(心)의 묘규(苗竅)로서, 즉 혀이다. ② 심신(心神)의 규(竅)를 말한다.

심기(心氣) [생리] : 생리 ① 심(心)의 정기(精氣) 및 기능. ② 전신의 기기(氣機)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심의 승염(升炎), 또는 전신의 혈액 순환을 추동하는 기운.

심기능계(心機能系) [생리] ㊐ 심계(心系) : 생리 심(心)을 중심으로 소장(小腸)·면(面)·맥(脈)·설(舌) 등 심(성장, 추진기능)의 생리기능을 발휘하거나 병리적 변화가 발현되는 기능계통.

심기부족(心氣不足) [병리] ⇒ 심기허(心氣虛)

심기부족증(心氣不足證) [병증] ⇒ 심기허증(心氣虛證)

심기성(心氣盛) [병리] ⇒ 심기실(心氣實)

심기실(心氣實) [병리] ㊐ 심기성(心氣盛), 심양성(心陽盛) : 병리 심기(心氣)가 왕성한 증.

심기음양허증(心氣陰陽虛證) [변증] : 병리 심기허증(心氣虛症), 심양허증, 심음허증이 모두 함께 나타나는 병증.

심기허(心氣虛) [병리] ㊐ 심기부족(心氣不足) : 병리 심허의 하나로 심기가 부족한 증. 대개 구병체허(久病體虛)하거나 중병(重病)으로 상기(傷氣)하거나 노인들의 장기쇠약(年老臟氣衰弱)이나 선천 품부부족(稟賦不足) 등으로 인해서 발생. 심기(心氣)는 심장(心臟)이 생리기능을 수행하도록 추동하는 기능으로, 심기부족하면 심의 생리기능이 전반적으로 감퇴함. 심기부족하면 고동무력(鼓動無力)해지고 혈맥불충(血脈不充)하며 혈행무력(血行無力)하게 되는데, 뚜렷한 한상(寒象)이나 열상(熱象)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음양의 편성편쇠(偏盛偏衰)로 설명하지 않고 심기허(心氣虛)라 한다.

심기허증(心氣虛證) [병증] ㊐ 심기부족증(心氣不足證) : 병리 심기부족(心氣不足)으로 혈맥을 추동하는 힘이 약하고 맥기(脈氣)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여 기표(肌表)를 고섭(固攝)하지 못하는 증. 심계기단(心悸氣短), 동즉우심(動則尤甚), 신피무력(神疲無力), 외풍자한(畏風自汗) 등이 주증이고, 흉민(胸悶), 심흉은통(心胸隱痛), 면색창백(面色蒼白), 소기나언(少

氣懶言), 어성저미(語聲低微)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맥세미혹결대(脈細微 或 結代)하다.

심기혈양허(心氣血兩虛) [변증] ⇒ 심기혈양허증(心氣血兩虛證)

심기혈양허증(心氣血兩虛證) [변증] 동 심기혈양허(心氣血兩虛) : 병리 심기허증(心氣虛症)과 심혈허증(心血虛症)이 모두 나타나는 병증.

심담기허증(心膽氣虛證) [병증] ⇒ 심담허겁증(心膽虛怯證)

심담불녕(心膽不寧) [병리] 동 심담허겁(心膽虛怯), 심허담겁(心虛膽怯) : 병리 담(膽)은 중정지관(中正之官)으로 결단(決斷)을 주관하고, 심(心)은 신명(神明)을 주관하는데, 심혈(心血)이 충만하고 기가 왕성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담은 결단을 주관하므로 담기(膽氣)가 호탕해야 정지(情志)가 안정되고 생각이 순조롭게 잘 된다. 그러나 양기(陽氣)가 허약하여 담기가 허한(虛寒)해지거나 혹은 갑자기 충격을 받아 담기가 상하거나 혹은 심허(心虛)로 담이 겁약(怯弱)해지거나 혹은 오래도록 병을 앓았거나, 큰 병으로 고생한 경우, 간기(肝氣)가 허약해 담기가 허한(虛寒)해지면 평소에 작은 일에도 잘 놀래고 겁이 많아지며 두려워하게 된다.

심담불녕증(心膽不寧證) [병증] ⇒ 심담허겁증(心膽虛怯證)

심담허겁(心膽虛怯) [병리] ⇒ 심담불녕(心膽不寧)

심담허겁증(心膽虛怯證) [병증] 동 심담불녕증(心膽不寧證), 심담기허증(心膽氣虛證) : 병리 심기부족(心氣不足)과 담기부족(膽氣不足)이 함께 동반된 증. 경계정충(驚悸怔忡), 이공구(易恐懼) 때로 '여인장포지(如人將捕之)'를 느낌 – 몽매불녕(夢寐不寧) 등이 주증이고, 자한출(自汗出), 기단(氣短), 흉민(胸悶)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박백(苔薄白), 맥현세(脈弦細)하다.

심동계(心動悸) [병증] ⇒ 심계(心悸)

심로(心勞) [병증] : 내과 ① 갑자기 기뻐하고 성내며, 대변보기가 힘들고, 입안이 헐게 되는 병증. ② 피가 적어서 얼굴에 핏기가 없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몽정(夢精)하는 병증. ③ 입과 혀가 헐어서 말을 잘 할 수 없고 살이 빠지는 병증.

심맥비조(心脈痺阻) [병리] 동 심맥어조(心脈瘀阻), 심비(心痺) : 병리 양심(養心)하는 맥이 비조(痺阻)해서 맥 중의 혈행(血行)이 불리해지고 심하면 어체불통(瘀滯不通)하는 병리변화.

심맥비조증(心脈痺阻證) [변증] 동 심맥어조증(心脈瘀阻證), 심혈어조증(心血瘀阻證) : 병리 심(心)의 기혈 운행이 불창하거나 조색(阻塞)되어 어혈(瘀血)이 있는 증으로서 심흉별민동통(心胸憋悶疼痛 – 자통(刺痛), 통인견배내비(痛引肩背內臂), 돌연발작(突然發作), 심통여도할(心痛如刀割)을 특징으로 함), 혼궐(昏厥), 심계정충(心悸怔忡) 등이 주증이고, 구순청자(口脣靑紫), 자한(自汗), 사지궐랭(四肢厥冷) 등이 차증이며, 설질자암(舌質紫暗) 혹 유어점(或有瘀点)·어반(瘀斑), 맥세삽, 혹 결대, 혹 맥미욕절(脈細澁 或結代 或脈微欲絶)하다.

심맥어조(心脈瘀阻) [병리] ⇒ 심맥비조(心脈痺阻)

심맥어조증(心脈瘀阻證) [변증] ⇒ 심맥비조증(心脈痺阻證)

심묘규(審苗竅) [진찰] : 진단 설(舌)·비(鼻)·목(目)·구순(口脣)·이(耳) 등의 묘규(苗竅) 변화를 자세히 살펴 내장(內臟)의 병변(病變)을 식별하는 데 참고한다는 의미.

심번(心煩) [병증] : 내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

심번조요(心煩躁擾) [증상] ⇒ 번조(煩躁)

심병(心病) [병증] : 오장병의 하나. 심에 생긴 여러 가지 병증.

심복통(心腹痛) [병증] : 내과 명치 아래와 배가

함께 아픈 것.
심비(心痺) [병리] ⇒ 심맥비조(心脈痺阻), 맥비(脈痺)
심비구허증(心脾俱虛證) [병증] ⇒ 심비양허증(心脾兩虛證)
심비기혈양허증(心脾氣血兩虛證) [병증] ⇒ 심비양허증(心脾兩虛證)
심비양허(心脾兩虛) [병리] : 병리 심과 비의 기혈이 함께 부족하게 되는 것. 정지(情志)의 손상은 심장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려과도하면 먼저 심신(心神)이 손상되고, 심혈(心血)도 소모되어 심혈허(心血虛)가 발생한다. 사(思)는 오지(五志) 중 비(脾)와 관계되며, 동시에 사는 심장에서 동(動)하고 비(脾)에서 응하는 것으로, 생각이 많으면 기가 응결되고 비기(脾氣)가 응결되면 운화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로 인해 기혈의 화생(化生)이 부족해져서, 결국 비허(脾虛)로 인한 기혈부족증이 나타난다. 또 사려가 지나치면 비의 운화에 장애가 생겨 비가 기혈을 제대로 화생하지 못하면 심혈허를 일으킨다. 또한 실혈(失血) 등으로 심혈이 손상당해 비기에 영향을 준 경우나 음식부절(飮食不節), 노권과다(勞倦過多), 구병(久病)으로 비기가 손상을 받으면 기혈을 생성하지 못해 심(心)을 영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심과 비의 병변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비허로 인해 식사량이 줄면서 변이 묽어지고, 심이 혈의 영양을 받지 못하여 실면(失眠), 신권(神倦), 건망(健忘)게 되며, 동시에 기혈부족으로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거나 기력이 없어진다.
심비양허증(心脾兩虛證) [병증] 동 심비구허증(心脾俱虛證), 심비기혈양허증(心脾氣血兩虛證) : 병리 심(心)과 비(脾)의 협조기능이 상실된 증으로, 심계정충(心悸怔忡), 실면건망(失眠健忘), 식소권태(食少倦怠), 복창변당(腹脹便溏) 등이 주증이고, 면색위황(面色萎黃), 두훈목화(頭暈目花), 월경부조(月經不調), 폐경(閉經), 붕루(崩漏), 피하자반(皮下紫斑)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눈(舌質淡嫩), 맥세무력(脈細無力)하다.
심산(心疝) [병증] : 내과 아랫배에 덩어리진 것이 있어서 아프고 겉으로 도드라져 올라오고 기운이 위로 치밀어 가슴이 몹시 아프며 팔다리는 싸늘하고 입술이 푸르스름하며 맥은 현급(弦急)한 병증.
심상성백반(尋常性白斑) [병증] ⇒ 자백전풍(紫白癜風)
심선(心善) [병증] : 안이 오선(五善)의 하나. 창양이 생겼을 때 정신상쾌(精神爽快), 언어청명(言語淸明), 설윤(舌潤), 무번조(無煩躁)·무번갈(無煩渴), 수면정상(睡眠正常)인 것. 이런 경우 창양의 경과가 순조롭고 쉽게 낫는다.
심수(心水) [병증] : 내과 심양(心陽)의 허(虛)로 인한 수기(水氣)의 침입으로 신중소기(身重少氣) 번조난와(煩燥難臥) 하지부종(下肢浮腫) 하는 병증. 오장수종(五臟水腫)의 하나.
심수(心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경혈(BL15)로서 신도(神道)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심순(瘨脣) [병증] ⇒ 순긴(脣緊)
심승격(心勝格) [침구] ⇒ 심승방(心勝方)
심승방(心勝方) [침구] 동 심승격(心勝格) : 침구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실증(實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음곡(陰谷)·음소해(陰少海) 보(補), 태백(太白)·신문(神門) 사(瀉).
심신불교(心腎不交) [병리] 동 수화부제(水火不濟) : 병리 수승화강(水升火降), 수화기제(水火旣濟)와 반대의 개념. 방로과도(房勞過度) 등 원인으로 신음(腎陰)이 소모되면 심화(心火)를 적셔주지 못해 심화가 홀로 상염(上炎)하니 신(腎)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과도한 정신활동으로 심양(心陽)이 편성(偏盛)되면 하부의 신

수(腎水)를 소작(燒灼)하여 신수가 휴손(虧損)되어 심화가 상부에서 치성(熾盛)하게 되는데, 이처럼 양화(陽火)가 상승(上升)하고 음수(陰水)가 하강(下降)하는 병리현상을 심신불교(心腎不交), 수화부제(水火不濟)라 함.

심신불교증(心腎不交證) [병증] 동 수화부제증(水火不濟證) : 병리 심신불교(心腎不交)로 인한 증으로, 심번경계(心煩驚悸), 건망소면(健忘少眠), 다몽유정(多夢遺精) 등이 주증이고, 현훈이명(眩暈耳鳴), 구건인조(口乾咽燥), 조열도한(潮熱盜汗), 오심번열(五心煩熱), 요슬산연(腰膝酸軟), 요황변건(尿黃便乾) 등이 차증이며, 설홍무태(舌紅無苔), 혹 태박소진(苔薄少津), 맥세삭(脈細數)하다.

심신상교(心腎相交) [생리] ⇒ 수화기제(水火既濟)

심신양기부족증(心腎陽氣不足證) [병증] ⇒ 심신양허증(心腎陽虛證)

심신양허(心腎陽虛) [병리] : 병리 심(心)과 신(腎)은 소음에 속하므로 심신(心腎)의 양허(陽虛) 역시 소음양허화쇠(少陰陽虛火衰)이다. 대부분 노권내상(勞倦內傷), 연로자의 장기쇠미(年老臟氣衰微), 구병(久病)으로 발생. 신양은 오장 양기의 근본이므로 신양이 허해지면 면색불화(面色不華), 지랭(肢冷), 외한(畏寒) 등의 전신 허한(虛寒)증상이 나타나고, 종종 사장(四臟)의 양허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심양이 부진(不振)하여 아래로 신(腎)과 상제(相濟)하지 못하면 화기행수(化氣行水)기능이 실조되어 수기(水氣)가 정체됨으로써 심을 침범하고, 수한(水寒)은 폐를 침범하며, 수기가 범람하는 등의 병변이 발생한다.

심신양허증(心腎陽虛證) [병증] 동 심신양기부족증(心腎陽氣不足證) : 병리 심신(心腎)의 양기(陽氣) 손상으로 온후(溫煦), 행혈(行血), 기화(氣化)작용이 안돼 혈행(血行)이 지체되고 수액이 정체되는 증. 형한지랭(形寒肢冷), 심계기단(心悸氣短-동즉우심動則尤甚), 요소신중[尿少身腫－특히 하지부종(下肢浮腫)] 등이 주증이고, 면색암체(面色暗滯), 심흉별민(心胸憋悶－심하면 동통), 순갑청자(脣甲青紫), 요척냉통(腰脊冷痛), 자한(自汗), 신피체권(神疲體倦) 등이 차증이며, 설암담 혹 청자(舌暗淡 或 青紫), 태백활(苔白滑), 맥침미(脈沈微)하다.

심실(心實) [병리] : 병리 심장에 사기(邪氣)가 실(實)한 것.

심실병증(心實病證) [변증] ⇒ 심실증(心實證)

심실열(心實熱) [병리] 동 심실열증(心實熱證) : 병리 심경(心經)에 사열(邪熱)이 왕성한 증. 좌촌맥(左寸脈)이 실(實)하고 대변이 불통하며 복만(腹滿)하고, 사지중(四肢重)하며 소갈(消渴)한다.

심실열증(心實熱證) [병리] ⇒ 심실열(心實熱)

심실증(心實證) [변증] 동 심실병증(心實病證) : 병리 심기실(心氣實)로 인하여 형성된 병증. 심기(心氣)가 지나치게 왕성해지면 심계(心悸), 불면(不眠), 다몽(多夢)하고 실소(失笑)하거나 때로 악몽(惡夢)을 꾼다.

심양(心陽) [생리] : 생리 ① 심의 양기. 심음의 상대되는 말. 전신의 혈맥을 온통(溫通)시키고 혈행(血行)을 촉진하는 기능을 말함. ② 심기(心氣).

심양부족증(心陽不足證) [병증] ⇒ 심양허증(心陽虛證)

심양부진증(心陽不振證) [병증] ⇒ 심양허증(心陽虛證)

심양성(心陽盛) [병리] ⇒ 심기실(心氣實)

심양폭탈(心陽暴脫) [병리] : 병리 심의 양기가 갑작스럽게 소진되어 쇠약해지는 것. 심양허(心陽虛)는 대개 구병모상(久病耗傷), 선천품부부족(先天稟賦不足)이나, 노년기의 장기쇠약(年老臟氣衰弱)으로 발생. 어떤 급성병의 위중한 단계에서 과성(過盛)한 사기(邪氣)에 정기(正氣)가 대항하지 못하여 심양폭탈(心陽暴

脫)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심양폭탈증(心陽暴脫證) [변증] : 병리 심(心)의 양기(陽氣)가 급속히 쇠약해진 병증. 병정(病情)이 급히 악화될 때에 나타나는 위중한 증후로서 갑자기 면색창백(面色蒼白) 또는 청자(靑紫), 구순청자(口脣靑紫), 사지궐랭(四肢厥冷), 냉한임리(冷汗淋漓), 호흡미약(呼吸微弱), 맥삭질무력(脈數疾無力)이 나타나고, 나아가 신지불청(神志不淸) 또는 혼미(昏迷), 맥미욕절(脈微欲絶) 등이 나타난다.

심양허(心陽虛) [병리] 동 심양허쇠(心陽虛衰) : 병리 심의 양기가 부족한 것. 심양허(心陽虛)는 대개 구병모상(久病耗傷), 선천품부부족(先天稟賦不足) 노년기의 장기쇠약(年老臟氣衰弱)으로 발생. 심양허의 주요 병기(病機)는 심(心)의 추동, 흥분 및 온후 등 양적 기능이 감퇴되어 맥중의 혈행(血行)이 무력해지고 심하면 어체(瘀滯)하거나, 심신(心神)이 부진(不振)하면서 동시에 전신에 한상(寒象)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심양허쇠(心陽虛衰) [병리] ⇒ 심양허(心陽虛)

심양허증(心陽虛證) [병증] 동 심양부진증(心陽不振證), 심양부족증(心陽不足證) : 병리 심양(心陽)이 부족하여 고동력(鼓動力)이 약해지고 온후(溫煦)작용을 상실한 증. 심기허증(心氣虛證)에 허한상[虛寒象－형한지냉(形寒肢冷), 외풍자한(畏風自汗)]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요점이며, 심통의 병력이 있으면 본증의 진단이 확실해진다. 그 증상은 심계기단(心悸氣短), 동즉기촉(動則氣促), 형한지냉(形寒肢冷) 등이 주증이고, 심흉별민동통(心胸憋悶疼痛), 면색황백(面色晄白), 소기나언(少氣懶言), 외풍자한(畏風自汗), 요청변당(尿淸便溏) 등이 차증 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박백이윤(苔薄白而潤), 맥침지무력(脈沈遲無力), 세약 혹 결대(細弱 或 結代)하다.

심열(心熱) [병리] : 병리 소아 오장열(五臟熱)의 하나. 심은 혈맥(血脈)을 주관하고 신(神)을 장(藏)하기 때문에 화기(火氣)가 심으로 뻗치면 화열증이 많이 발생하며 신지 및 혈맥에 영향을 준다. 심중(心中)이 번열(煩熱)하여 잘 때 편하지 않고, 쉬지 않고 웃으며, 의식이 흐리고, 얼굴이 붉고, 갈증이 나고, 소변의 색이 누렇고, 혀가 붉으며, 맥이 삭(數)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열병(心熱病) [병증] 동 심열증(心熱證) : 병리 심열로 인한 병증으로 면적(面赤), 심중번열(心中煩熱), 불면(不眠), 불안하며 때로 광어(狂語), 실소(失笑)하며 갈증이 있고, 토혈(吐血)이나 육혈(衄血)하며, 요적삽(尿赤澁)하다.

심열증(心熱證) [병증] ⇒ 심열병(心熱病)

심옹(心癰) [병증] : 안이 심경(心經)의 모혈(募穴)인 거궐혈(巨闕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심욕(心慾) [사상] : 사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인의예지의 이심(理心)과 대비되는 비박탐나지심(鄙薄貪懦之心)이다. 격치고(格致藁) 〈유략(儒略)〉에는 '사욕방일(私慾放逸)'로 표현되어 있으며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는 '방종지심(放縱之心), 투일지심(偸逸之心), 식사지심(飾私之心), 극욕지심(極慾之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제마(李濟馬)는 이러한 심욕에 빠지는 사람을 각각 비인(鄙人), 나인(懦人), 박인(薄人), 탐인(貪人)이라 하여 인품장리(人品臟理)와 더불어 인추심욕(人趨心慾)이 태소음양 사상인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사욕방일의 심욕은 유학에서 군자지심(君子之心)에 대비되는 소인지심(小人之心)이기도 하다.

심위화성증(心胃火盛證) [변증] : 병리 심영(心營)과 위(胃)에 사열(邪熱)이 몹시 성한 병증. 일반적으로 기분(氣分)의 열이 영분(營分)에 침범해서 생김. 열이 심하면서 번조(煩躁)하고 갈증이 나며 정신이 불안하고 설적(舌赤), 설중(舌中)이 건조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

심음(心陰) [생리] : 생리 심양에 상대되는 말. 심장의 음액.
심음부족증(心陰不足證) [병증] ⇒ 심음허증(心陰虛證)
심음허(心陰虛) [병리] : 병리 심음부족(心陰不足). 대개 노심과도(勞心過度)나 구병실양(久病失養)으로 모상심음(耗傷心陰)하여 발생하거나, 정지내상(情志內傷)으로 인해 심음(心陰)을 암모(暗耗)하거나, 심간화왕(心肝火旺)으로 심음(心陰)을 작모(灼耗)함으로 발생. 그 병기는 주로 심음허(心陰虛)하여 음불제양(陰不制陽)하면 심양편항(心陽偏亢)하여 허열이 나타나는 경우와, 심음부족(心陰不足)으로 영정(寧靜)기능이 감퇴하고 허열이 내요(內擾)하면 심신(心神)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심음허증(心陰虛證) [병증] 동 심음부족증(心陰不足證) : 병리 음혈휴허(陰血虧虛)로 심(心)의 유양(濡養)작용을 상실하고 허양(虛陽)이 심을 요란 시키는 증. 그 증상은 심계심황(心悸心慌), 실면다몽(失眠多夢), 오심번열(五心煩熱), 구건인조(口乾咽燥) 등이 주증이고, 건망(健忘), 경척불안(驚惕不安), 관홍(顴紅), 요황변건(尿黃便乾), 조열도한(潮熱盜汗) 등이 차증이며, 설홍소태(舌紅少苔), 맥세삭(脈細數)하다.
심자(深刺) [침구] 동 심자법(深刺法) : 침구 침을 몸의 깊은 곳까지 찌르는 것.
심자법(深刺法) [침구] ⇒ 심자(深刺)
심적(心積) [병증] 동 복량(伏梁) : 내과 심(心)과 관련되어 생긴 적. 속이 달아오르고 얼굴빛이 벌게지며 목안이 마르고 팔뚝같이 단단한 것이 배꼽에서 일어나 명치까지 뻗치고 오래도록 낫지 않으며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고 심하면 경련이 발생하는 병증. 복량(伏梁). 적(積)의 하나.
심절(心絶) [병증] : 내과 심기(心氣)가 거의 끊어져 가는 증상. 숨이 차서 어깨를 들먹이고 눈에 정기(精氣)가 없어지며 눈을 곧추 뜨는 병증.
심정(心疔) [병증] : 안이 심장과 관련된 특정 혈(穴)이나 혹은 심경(心經)의 끝인 새끼손가락 부위에 생기는 정(疔).
심정격(心正格) [침구] ⇒ 심정방(心正方)
심정방(心正方) [침구] 동 심정격(心正格) : 침구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허증(虛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대돈(大敦)·소충(少衝) 보(補), 음곡(陰谷)·음소해(陰少海) 사(瀉).
심중오뇌(心中懊惱) [증상] ⇒ 오뇌(懊憹)
심통(心痛) [병증] : 내과 심장 부위와 명치 부위의 통증. 거통(擧痛).
심폐기허(心肺氣虛) [병증] : 병리 심기(心氣)와 폐기(肺氣)가 모두 허(虛)한 병증.
심폐기허증(心肺氣虛證) [병증] 동 심폐기휴증(心肺氣虧證), 심폐양허증(心肺兩虛證) : 병리 구병해천(久病咳喘)으로 폐허(肺虛)가 심(心)까지 미치거나 심기부족(心氣不足)이 폐(肺)까지 미쳐 심폐양장(心肺兩臟)의 기능이 쇠갈(衰竭)하여 나타나는 증. 심계기단(心悸氣短), 해수(咳嗽), 동즉기천(動則氣喘) 등이 주증이고, 면색담백무화(面色淡白無華), 신피무력(神疲無力), 해담청희(咳痰清稀), 심흉별민(心胸憋悶), 어성저미(語聲低微), 자한(自汗)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박백(苔薄白), 맥세약(脈細弱)하다.
심폐기휴증(心肺氣虧證) [병증] ⇒ 심폐기허증(心肺氣虛證)
심폐양허증(心肺兩虛證) [병증] ⇒ 심폐기허증(心肺氣虛證)
심포(心包) [해부] 동 심포락(心包絡), 신사지관(臣使之官) : 생리 ① 심장의 기능을 대행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무형의 장부. ② 심장 외부를 둘러싼 조직기관. ③ 심포락(心包絡).
심포락(心包絡) [해부] ⇒ 심포(心包)
심풍(心風) [병증] : 정신 전질(癲疾)의 하나. 대

ㅅ

개 하고자 하는 바를 하지 못하여 정지(情志)가 울결됨으로 인해 심비(心脾)가 모두 허(虛)해지고 기혈이 부족해지거나, 혹은 담탁(痰濁)이 가로막혀 신(神)이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 정신상태가 황당, 혼미해지고 희노불상(喜怒不常)·무어(無語)하고, 때때로 착란(錯亂)하는데 전질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질보다 심하지 않다.

심하(心下) [해부] : 심(心)의 하방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완부를 말함.

심하계(心下悸) [병증] : 내과 명치 밑에서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것.

심하급(心下急) [병증] : 내과 위완부가 급박하며 미통(微痛)하고, 창만불서(脹滿不舒)한 감각.

심하만(心下滿) [병증] 동 심하역만(心下逆滿) : 내과 명치 밑이 그득하면서 기(氣)가 치밀어 오르는 감이 있는 증상.

심하비(心下痞) [병증] : 내과 명치 밑이 그득하면서 더부룩한데 만지면 유연하고 아프지 않은 증.

심하비통(心下痞痛) [병증] : 내과 명치 밑이 더부룩하면서 막힌 것 같고 불러 오르며 아픈 증상.

심하역만(心下逆滿) [병증] ⇒ 심하만(心下滿)

심하지결(心下支結) [병증] : 내과 위완 사이에 마치 물체가 걸려있는 듯한 자각증상이 있어서 번민불서(煩悶不舒)하며, 견경(堅硬)하지도 않고 팽만(膨滿)하지도 않은 병증.

심하지음(心下支飮) [병리] : 병리 음사(飮邪)가 심하(心下)와 흉격(胸膈)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것. 이것이 상부의 폐(肺)를 핍박함으로 인해 폐의 숙강기능(肅降機能)이 실조되어 증상이 발생하는데, 흉민단기(胸悶短氣)하고 해역(咳逆)하기 때문에 기대야만 호흡을 할 수 있고, 바로 눕지 못하고 외형은 마치 부은 것 같이 보이거나, 두훈목현(頭暈目眩)하고 면색여흑(面色黧黑), 심하비견(心下痞堅) 등이 생긴다.

심한(心汗) [병증] : 내과 앞가슴의 중앙부위(中央部位)를 포함한 심장부위에서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심해(心咳) [병증] : 내과 기침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목안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처럼 따끔하게 아프며 심하면 목안이 붓고 후비(喉痺)가 되는 병증.

심허(心虛) [병리] : 병리 심(心)의 음양기혈이 부족한 각종 병증.

심허담겁(心虛膽怯) [병리] ⇒ 심담불녕(心膽不寧)

심허병증(心虛病證) [병증] ⇒ 심허증(心虛證)

심허증(心虛證) [병증] 동 심허병증(心虛病證) : 병리 심허(心虛)로 인한 병증. 기혈이 적어 안색이 누른빛을 띠고 번열하며 대개 두려워하고 즐거운 기색이 없으며 심복통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수시로 맑은 침을 흘리며 심격(心膈)이 창만(脹滿)하고 건망증이 있으며 자주 놀라고 꿈을 자주 꾸며 정신이 황홀해 한다.

심혈(心血) [생리] : 생리 심장이 주관하는 혈(血).

심혈부족(心血不足) [병리] ⇒ 심혈허(心血虛)

심혈부족증(心血不足證) [병증] ⇒ 심혈허증(心血虛證)

심혈어조증(心血瘀阻證) [병증] ⇒ 심맥비조증(心脈痺阻證)

심혈허(心血虛) [병리] 동 심혈부족(心血不足) : 병리 실혈과다(失血過多), 비허(脾虛)로 인한 혈액의 화생부족(化生不足)이나 정지내상(情志內傷) 등의 원인으로 심혈(心血)이 모손된 것. 두 가지 주요한 병기가 있다. 첫째는 혈기부족(血氣不足)으로 혈맥이 공허(空虛)해져 유양(濡養)하는 힘이 감퇴되어 나타난다. 둘째는 심신실양(心神失養)인데 혈허(血虛)로 인해 신실소양(神失所養)하면 정신부진(精神不振)하고 사상난이집중(思想難以集中)하거나 사고불능지구(思考不能持久)하며 심하면 신사황홀(神思恍惚)케 된다. 혈허하여 심양(心陽)

을 함렴(涵斂)하지 못하면 양불입음(陽不入陰)하여 신불수사(神不守舍) 함으로써 실면(失眠)과 다몽(多夢)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혈허증(心血虛證) [병증] ㊐ 심혈부족증(心血不足證) : 병리 심혈허(心血虛)로 인한 병증으로, 심계정충(心悸怔忡), 면색담백무화(面色淡白無華) 또는 위황(萎黃) 등이 주증이고, 실면(失眠), 다몽(多夢), 건망(健忘), 경척불안(驚惕不安), 현훈(眩暈), 구순지갑담백(口脣指甲淡白) 등이 차증 이며, 설질담(舌質淡), 맥세(脈細)하다.

심화(心火) [생리] ㊐ 군화(君火) : 생리 심(心)의 양기 또는 열기.

심화내분(心火內焚) [병리] ⇒ 심화상염(心火上炎)

심화내치(心火內熾) [병리] ⇒ 심화상염(心火上炎)

심화상염(心火上炎) [병리] ㊐ 심화왕(心火旺), 심화내치(心火內熾), 심화내분(心火內焚), 심화치성(心火熾盛), 심화항성(心火亢盛) : 병리 심양(心陽)이 편성(偏盛)한 상태. 대개 화열지사(火熱之邪)가 심(心)을 침범하거나 정지지화(情志之火)가 내발하거나 온열지품(溫熱之品)을 과식하여 발생. 그 병기는 주로 화열이 심중에서 성하여 심신(心神)을 요동하거나 혈행(血行)을 빠르게 하여 맥도를 확장시키거나 동시에 화열이 설(舌)로 상염(上炎)하고 밑으로는 소장으로 옮겨져 현저한 열상(熱象)을 나타낸다.

심화상염증(心火上炎證) [병증] ㊐ 심화항성증(心火亢盛證), 심화치성증(心火熾盛證) : 병리 심경(心經)의 화열이 상승하는 병증. 심화항성(心火亢盛) 혹은 심음휴허(心陰虧虛)로 인해 발생함. 혀에 창(瘡)이 생기고 구강이 짓무르며 심번(心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설첨(舌尖)이 진홍색을 띠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심화왕(心火旺) [병리] ⇒ 심화상염(心火上炎)

심화치성(心火熾盛) [병리] ⇒ 심화상염(心火上炎)

심화치성증(心火熾盛證) [병증] ⇒ 심화상염증(心火上炎證)

심화항성(心火亢盛) [병리] ⇒ 심화상염(心火上炎)

심화항성증(心火亢盛證) [병증] ⇒ 심화상염증(心火上炎證)

심황(心黃) [병증] : 내과 ①황달이 있으면서 목적(目赤), 심민(心悶), 천급(喘急)한 병증. ②우황(牛黃)이 생겨서 죽은 소의 심장 속에 있는 누런 물질.

십간(十干) [운기] ⇒ 천간(天干)

십괴맥(十怪脈) [징후] [진찰] : 진단 생명이 위험할 때 나타나는 열 가지의 이상맥상(異常脈象). 즉, 부비맥(釜沸脈)·어상맥(魚翔脈)·탄석맥(彈石脈)·해삭맥(解索脈)·옥루맥(屋漏脈)·하유맥(蝦游脈)·작탁맥(雀啄脈)·언도맥(偃刀脈)·전두맥(轉豆脈)·마촉맥(麻促脈).

십구병기(十九病機) [병리] ㊐ 병기십구조(病機十九條) : 병리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제시한 19조문의 병기 이론. 증상을 근거로 병변의 위치, 성질 및 발병원인 등을 유추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발전, 변화의 공통적인 규칙들을 찾아냈고, 이를 정리하여 병리 이론의 기초를 이루었음.

십문(十問) [진찰] : 진단 문진(問診)하는데 중요한 10가지 항목. 한열(寒熱), 땀, 머리와 몸, 대변, 음식물, 가슴, 청각상태, 갈증의 유무, 병력(病歷), 원인을 지칭. 혹은 병력과 원인 대신 맥(脈)과 색깔로 음양(陰陽)을 관찰하는 것과 기미(氣味)로 부터 신(神)을 관찰하는 것을 넣기도 한다. 임상(臨床)에서 문진(問診)에 참고가 된다.

십사경(十四經) [경락] : 경혈 십이경맥(十二經脈)과 임맥(任脈), 독맥(督脈)의 총칭.

십선혈(十仙穴) [경혈] 동 십선(十仙) : 경혈 경외기혈(經外奇穴). 손가락의 정중앙 끝을 말함. 오른쪽과 왼쪽을 합하여 모두 10개이므로, 십선혈(十仙穴)이라고 한다.

십오락맥(十五絡脈) [경락] : 경혈 십이경맥(十二經脈) 각각의 별락(別絡)과 임맥락(任脈絡), 독맥락(督脈絡), 비(脾)의 대락(大絡)의 총칭.

십이경(十二經) [경락] 동 십이경맥(十二經脈), 정경(正經) : 경혈 인체의 기본이 되는 12개의 주요 경맥(經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십이경근(十二經筋) [경락] ⇒ 경근(經筋)

십이경맥(十二經脈) [경락] ⇒ 십이경(十二經)

십이경맥지해(十二經脈之海) [경락] ⇒ 충맥(衝脈)

십이경별(十二經別) [경락] : 경혈 십이경맥(十二經脈)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몸통과 머리, 얼굴을 향해 뻗쳐 있는 주요 지맥.

십이경표본(十二經標本) [경혈] ⇒ 육경표본(六經標本)

십이경혈(十二經穴) [경혈] : 경혈 수족삼음삼양(手足三陰三陽)의 십이경맥(十二經脈)에 배속된 경혈(經穴).

십이락맥(十二絡脈) [경락] 동 십이맥락(十二脈絡) : 경혈 십이경(十二經)의 낙맥(絡脈).

십이맥락(十二脈絡) [경락] ⇒ 십이락맥(十二絡脈)

십이원혈(十二原穴) [경혈] : 경혈 십이경(十二經)의 원혈(原穴). 원혈은 장부 원기(臟腑原氣)가 경과(經過)하고 유지(留止)하는 혈위로서 십이원(十二原) 맥기(脈氣)의 성쇠현상을 진단하여 장부(臟腑)의 병정을 진단할 수 있다. 음경(陰經)의 원혈은 오수혈(五腧穴) 중의 수혈(兪穴)과 동일하고 양경(陽經)의 원혈은 별도로 존재한다.

십이자(十二刺) [침구] 동 십이자법(十二刺法) : 침구 영추(靈樞) 〈관침(官鍼)〉에 나오는 옛날에 사용한 12가지 침자법(鍼刺法)의 이름. 우자(偶刺), 보자(報刺), 회자(恢刺), 제자(齊刺), 양자(揚刺), 직침자(直鍼刺), 수자(輸刺), 단자(短刺), 부자(浮刺), 음자(陰刺), 방침자(傍鍼刺), 찬자(贊刺).

십이자법(十二刺法) [침구] ⇒ 십이자(十二刺)

십이지(十二支) [운기] ⇒ 지지(地支)

십이피부(十二皮部) [경락] : 경혈 경피를 말함.

십제(十劑) [약물] : 방제 원래 북제(北齊)의 서지재(徐之才)가 효능에 따라 약물을 분류한 방법인데, 송대(宋代)의 성제경(聖濟經)에서 각종류 뒤에 제자(劑字)를 붙여 방제효능의 분류법으로 변했음. 傷寒方藥明理論에서 "제방지체(製方之體)는 선(宣), 통(通), 보(補), 사(瀉), 경(輕), 중(重), 삽(澁), 활(滑), 조(燥), 습(濕) 등의 십제(十劑)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십제(十劑)라고 이름 하였다.

십종요통(十種腰痛) [병증] : 재활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나온 요통의 분류. 신허요통(腎虛腰痛), 담음요통(痰飮腰痛), 식적요통(食積腰痛), 좌섬요통(挫閃腰痛), 어혈요통(瘀血腰痛), 풍요통(風腰痛), 한요통(寒腰痛), 습요통(濕腰痛), 습열요통(濕熱腰痛), 기요통(氣腰痛).

십천간(十天干) [운기] ⇒ 천간(天干)

십칠추(十七椎) [기혈] 동 요공(腰孔), 요료(腰髎), 상선(上仙)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혈로서 5 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함중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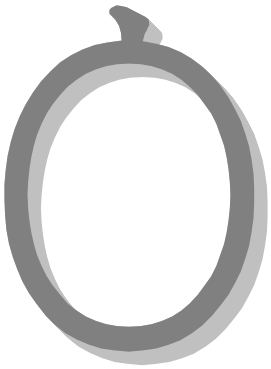
쌍목통정(雙目通睛) [병증] ⇒ 투계안(鬪鷄眼)

쌍보(雙補) [치법] 동 기혈쌍보(氣血雙補), 음

양쌍보(陰陽雙補) : 방제 보법의 하나. 약으로 기와 혈을 같이 보하거나, 음과 양을 같이 보하는 방법을 말함.

쌍태(雙胎) [병증] : 부인 쌍둥이를 임신한 것.

쌍후비(雙喉痺) [병증] : 안이 위경(胃經)에 열이 축적되어 상악관내(上顎關內) 양측에 발생하며 심하게 부어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한 병증.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ㅇ

아감(牙疳) [병증] 동 중악증(重齶證) : 안이 괴사성 은염(壞死性齦炎)과 유사함.
아관긴급(牙關緊急) [증상] ⇒ 구금(口噤)
아관치(鵝管痔) [병증] : 안이 장관으로 루(漏)를 형성하고, gas가 나오기 전에 먼저 종통하여 농이 배출되며, 또한 항문내부에 경관(硬管)을 형성하고 때때로 농수가 유출되는 치창(痔瘡).
아교(阿膠) [약물] : 본초 말과(馬科 : Equidae)에 속한 동물인 당나귀 *Equus asinus* L.의 껍질을 고아서 건조시킨 교괴(膠塊).
아구감(鵝口疳) [병증] ⇒ 아구창(鵝口瘡)
아구창(鵝口瘡) [병증] 동 설구(雪口), 아구감(鵝口疳) : 안이 candida albicans의 감염 등으로 입 안 전체가 백색인 것을 말함.
아늑(牙衄) [병증] ⇒ 치늑(齒衄)
아담자(鴉膽子) [약물] : 본초 소태나무과(苦木科 : Simaroubaceae)에 속한 상록대관목 혹은 소교목인 아담자(鴉膽子) *Brucea javanica* (L.) Merr.의 성숙한 과실로,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아문(瘂門)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15)로서 목뒤 머리카락 경계면 위 5푼에 위치.
아선(牙宣) [병증] 동 치은선로(齒齦宣露) : 내과 잇몸이 벌어져서 이뿌리가 밖으로 드러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병증.
아시혈(阿是穴) [경혈] 동 응통혈(應痛穴), 천응혈(天應穴) 동 아시혈요법(阿是穴療法) : 경혈 경혈(經穴)과 경외기혈(經外奇穴) 이외에 안압(按壓)해 보아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를 가리킴. 일정한 부위가 없으므로 '부정혈(不定穴)'이라고도 하고, 의학강목(醫學綱目)에서는 그 감응을 중시하여 '천응혈(天應穴)'이라고 하였음.
아시혈요법(阿是穴療法) [침구] ⇒ 아시혈(阿是穴)
아위(阿魏) [약물] 동 훈거(熏渠) : 본초 산형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아위(阿魏) *Ferula assafoetida* Linné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줄기를 자른 부위에서 삼출된 수지(樹脂).
아장풍(鵝掌風) [병증] 동 수장각화증(手掌角化症) : 안이 수장(手掌), 족척(足蹠)에 자백색(紫白色)의 반점이 생기면서 건조하며 백색의 두터운 표피가 일어나 통증과 가려움을 느끼는 질환. 매독의 후유증이거나, 성생활을 삼가지 않거나 혈조(血燥)한 사람이 풍한사(風寒邪)에 침범되어 울결됨으로 인해 발생.
아장후풍(啞瘴喉風) [병증] : 안이 후풍(喉風) 초기에 인후가 종대되어 막히고 아프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아관긴급(牙關緊急)되어 위험한 증후를 나타내는 것.
아출(我朮) [약물] 동 봉아출(蓬莪朮)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숙근초본(宿根草本)인 아출(莪朮) *Curcuma zedoaria* Rosc.의 근경(根莖). 겨울에 경엽(莖葉)이 고위(枯萎)한 후에 채취하여 세정(洗淨)하고 쪄서 쇄건(曬乾)한 후 사용. 이 외에 중국에서는 광서아출(廣西莪朮) *Curcuma kwangsiensis* S. G. Lee et C.F Liang, 온울금(溫鬱金) *Curcuma wenyujin* Y.H. Chen et C. Ling의 근경도 사용한다.

아충(牙蟲) [병증] 동 치충(齒蟲) : 내과 이가 벌레 먹어 아픈 것.
아침통(兒枕痛) [병증] ⇒ 괴통(塊痛)
아침통(兒枕痛) [병증] : 부인 출산 후 산모에게 소복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 어혈로 인해 발생하는 산후소복동통을 말함.
아탈구(亞脫臼) [추나] ⇒ 변위(變位)
아통(牙痛) [증상] : 내과 이가 아픈 것으로 원인에는 화(火), 한(寒), 허(虛), 습열(濕熱)의 4가지가 있음.
아풍(啞風) [증상] : 내과 중풍이나 경풍(驚風)으로 말을 못하는 증상.
아후풍(啞喉風) [병증] : 안이 풍한(風寒)으로 인해 아관(牙關)이 긴폐(緊閉)되어 말을 잘 못하는 것.
악기(惡氣) [병리] 동 예기(穢氣), 예악지기(穢惡之氣) : 병리 ① 병사(病邪)로서 육음(六淫) 혹은 역려사기(疫癘邪氣). ② 기혈이 막혀서 발생하는 일종의 병리산물.
악색(惡色) [징후] 동 요색(夭色), 색요(色夭) : 진단 면부(面部)에 반영되는 색택(色澤)이 어둡고 메마른 것. 위기(胃氣)가 고갈되고 장기(臟氣)가 쇠약해진 것이므로 대부분 위험하다. 오랜 병을 앓은 후 혹은 진액기혈(津液氣血)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에게서 보인다.
악실(惡實) [약물] ⇒ 우방자(牛蒡子)
악실근(惡實根) [약물] ⇒ 우방근(牛蒡根)
악육(惡肉) [병증] 동 부육(腐肉) : 썩은 살.
악중(惡中) [병증] ⇒ 중악(中惡)
악창(惡瘡) [병증] : 소아 창양(瘡瘍)으로 인한 농혈(膿血)이 부패하여 오래되어도 낫지 않는 병증.
악혈(惡血) [병리] [병증] ⇒ 어혈(瘀血)
안(按) [진찰] : 진단 운지법(運指法)의 하나로 절맥(切脈) 방법을 가리킴. 손가락으로 맥(脈)을 세게 눌러 깊숙한 부위의 맥상(脈象)을 살피는 행위. → 운지(運指)
안감(眼疳) [병증] : 소아 눈병의 하나. 검은자위에 새까만 예(翳)가 구슬처럼 박혀 있는 병. 감열(疳熱)이 간화(肝火)를 끼고 눈을 침범하여 발생. 초기에는 두 눈이 가렵고 까칠까칠하며 붉고 짓무르다가 나중에는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면서 통증이 있다. 또 수시로 눈물이 나고 밝은 것을 싫어하며, 점차 눈의 흰자위에 예막(翳膜)이 생겨 온 눈을 가리게 된다. 그리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며 몸이 여위고 머리카락이 거칠어지며 설사, 복창(腹脹)이 있고 코가 마른다.
안검내권(眼瞼內卷) [병증] : 안이 안검이 외상, 궤양 및 tracoma 등에 의해 내반(內反)되는 것.
안검두창(眼瞼頭瘡) [병증] ⇒ 반창입안(瘢瘡入眼)
안교(按蹻) [추나] ⇒ 추나(推拿)
안단(眼丹) [병증] : 안이 맥립종(麥粒腫). 일종의 안검연염(眼瞼緣炎) 또는 안검 내의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침안(鍼眼)보다 중증으로 포검(胞瞼)이 미완성으로 붓는 것.
안마(按摩) [추나] ⇒ 추나(推拿)
안마추나(按摩推拿) [추나] ⇒ 추나(推拿)
안맥(按脈) [진찰] ⇒ 맥진(脈診)
안면침요법(顔面鍼療法) [침구] ⇒ 면침(面鍼)
안미도(眼眉跳) [병증] : 정신 안(眼)의 상포(上胞)가 떨리고 눈썹까지 파급되는 것. → 안륜진도(眼輪振跳)
안법(按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엄지 끝 또는 지복(指腹)으로 체표의 일정 부위를 누르는 것. 모지·식지·중지를 굴곡하여 누르는 굴지안법(屈指按法), 한 손바닥으로 누르는 단장안법(單掌按法), 두 손바닥으로 누르는 쌍장안법(雙掌按法)이 있고, 두 손바닥을 겹쳐서 누르는 쌍장중첩안법(雙掌重疊按法)이 있다. 임상에서는 흔히 안압법(按壓法)을 배합하여 사용한다.
안비(鞍鼻) [증상] : 안이 외비(外鼻)의 이상 형

태 중 하나로 코가 말안장 모양을 한 것.
안삽(眼澁) [증상] : 안이 눈에 마치 모래알이 있는 것처럼 껄끄러워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안색(顔色) [진찰] : 진단 면부(面部)에서 나타나는 색의 변화와 광택. 사진(四診) 중 망진(望診)에서 주요하게 관찰하는 요소. → 망색(望色), 망색십법(望色十法)
안식향(安息香) [약물] : 본초 때죽나무과(安息香科 : Styracaceae)에 속한 안식향수(安息香樹) *Styrax benzoin* Dryand.와 월남안식향수(越南安息香樹) *S. tonkinensis* (Pier.) Craib 및 동속 근연식물의 수지(樹脂). 여름에서 가을에 수령(樹齡) 5~10 년생을 지상에서 약 40 ㎝쯤 되는 곳에 삼각형 상처를 많이 만들고 일주일 후 상구(傷口)에서 흘러나오는 백색의 수지를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안신(安神) [치법] ⇒ 안신법(安神法)
안신법(安神法) [치법] 동 안신(安神), 안신약(安神藥) : 방제 치료법의 하나. 정신을 안정시키는 방법. 안신법에는 중진안신법과 양심안신법이 있다.
안신약(安神藥) [약물] ⇒ 안신법(安神法)
안압(按壓) [침구] 동 안압법(按壓法), 안압수법(按壓手法) : 침구 감응(感應)을 상향(上向)시키기 위해 수지(手指)로써 자침혈위(刺鍼穴位)의 하방(下方)을 긴압(緊壓)하거나 하향(下向)시키기 위해 혈위(穴位)의 상방(上方)을 압박하는 것.
안압법(按壓法) [침구] ⇒ 안압(按壓)
안압수법(按壓手法) [침구] ⇒ 안압(按壓)
안올(按扤) [추나] ⇒ 추나(推拿)
안올(案抏) [기공] ⇒ 추나(推拿)
안진(按診) [진찰] ⇒ 촉진(觸診)
안질(眼疾) [병증] : 안이 눈병. 눈의 여러 가지 질환 중 특히 염증성 질환을 가리킴.
안창(眼瘡) [병증] : 안이 안부(眼部)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안침(眼鍼) [침구] 동 안침술(眼鍼術) : 침구 상하안검부(上下眼瞼部)에 분포한 특수혈(特殊穴)에 대한 집중적인 침 시술 방법.
안침술(眼鍼術) [침구] ⇒ 안침(眼鍼)
안태(安胎) [치법] 동 안태법(安胎法) : 부인 태동불안이나 활태(滑胎)가 발생한 적이 있는 임신부에게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
안태법(安胎法) [치법] ⇒ 안태(安胎)
안포균독(眼胞菌毒) [병증] : 안이 목우(目疣) 및 소아생췌(小兒生贅) 등과 동일한 질환으로 두부는 크고 줄기나 밑 부분은 작으며 버섯모양으로 점차 자라서 외면으로 나와 단단하게 뭉치지만 통증은 없는 것.
안포빈동(眼胞頻動) [증상] : 안이 안검이 불수의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것.
안포진도(眼胞振跳) [병증] ⇒ 포륜진도(胞輪振跳)
안피도(眼皮跳) [병증] ⇒ 포륜진도(胞輪振跳)
안현적란(眼弦赤爛) [병증] ⇒ 검현적란(瞼弦赤爛)
안화(眼花) [병증] : 안이 주로 어지럼증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하며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듯한 느낌을 호소하고 사물을 볼 때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암(癌) [병증] : 안이 자흑색을 띠고 단단하며 궤양이 되면 암혈(巖穴)과 같은 상태의 옹저.
암하법(暗煆法) [포제] ⇒ 밀폐하법(密閉煆法)
암산(暗産) [병증] : 부인 한 달이 차지도 않아 유산하는 경우. 이때는 배태(胚胎)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태가 있는지 모르고 정상 월경으로 생각하게 된다.
압맥파(壓脈波) [진찰] : 진단 pressure pulse. 맥파의 전달에 따른 혈관내압의 시간적 변화를 기록한 것.
압박법(壓迫法) [치법] : 재활 압박을 통해 일시적인 허혈상태를 야기하여 혈액순환을 증가하게 하는 방법.

압수(押手) [침구] : 침구 침을 놓을 때 혈자리를 눌러 침을 꽂는 것을 도와주는 손.
압주욕(壓注浴) [치법] : 재활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치료로 물기둥을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적용하는 수(水)치료 방법.
압진(壓診) [진찰] : 재활 절진(切診)의 일종으로 손으로 직접 눌러보아 진단하는 방법. 주로 배수혈을 많이 응용.
압척초(鴨跖草) [약물] : 본초 닭의장풀과(鴨跖草科 : Commelin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L.의 지상부.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압통점(壓痛點) [진찰] : 재활 체표를 눌렀을 때 동통이 발생하는 부위. 침구 취혈 시에는 모두 이를 중시한다. 압통 반응점을 혈위로 삼는 것을 아시혈(阿是穴)이라 함.
앙와(仰臥) [기타] : 재활 두면(頭面), 흉복(胸腹) 및 상하지 앞쪽에 자침할 때 적용하는 자세.
애구초(艾灸草) [약물] ⇒ 애엽(艾葉)
애권구(艾卷灸) [침구] 동 뜸대뜸, 애조구(艾條灸), 약애조구(藥艾條灸), 애권구법(艾卷灸法) : 침구 태을신침(太乙神鍼)과 뇌화침구법(雷火鍼灸法)을 간소화시켜 만든 것으로 애조(艾條)에 불을 붙여 혈자리 혹은 병변(病變)부위에 대고 그을려 뜨겁게 하여 치료효과를 거두는 뜸 요법.
애권구법(艾卷灸法) [침구] ⇒ 애권구(艾卷灸)
애기(噯氣) [병증] 동 희기(噫氣), 희(噫) : 내과 트림. 비위 허약, 위중 담화(胃中痰火), 식체 등으로 기가 중초에 몰려 위기가 상역하여 발생. 위중(胃中)에서 기가 올라오는 듯이 약간의 성향이 나오는데 자주 딸꾹질하는 애역(呃逆)과는 다른 병증.
애부(噯腐) [증상] 동 희부(噫腐), 건애식취(乾噫食臭) : 내과 위내(胃內)의 부취(腐臭)가 입에서 배출되는 것.
애산(碍産) [병증] : 부인 분만 시에 탯줄이 태아의 목이나 어깨에 걸려 야기되는 난산.
애역(呃逆) [병증] 동 흘역(吃逆) : 내과 기가 상충(上衝)하여 후간(喉間)에서 딸꾹질이 연속 부단하는 증상.
애엽(艾葉) [약물] 동 애구초(艾灸草)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황해쑥 *Artemisia argyi* Lev. et Vant., 쑥 *Artemisia princeps* Pamp. var. *orientlis* Hara 또는 산쑥 *Artemisia montana* Pampani의 엽(葉) 및 어린줄기로, 여름에 꽃이 피기 전에 따서 잡질을 없애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애조구(艾條灸) [침구] ⇒ 애권구(艾卷灸)
애주구(艾炷灸) [침구] 동 애주구법(艾炷灸法) : 침구 애주(艾炷)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혈자리 위에 올려놓고 뜸을 뜨는 방법.
애주구법(艾炷灸法) [침구] ⇒ 애주구(艾炷灸)
액(液) [생리] : 생리 골, 관절 등 신체 내부를 자양하는 점조한 음성(陰性)의 체액.
액맥(額脈) [진찰] : 진단 세 손가락(식지·중지·무명지)으로 소아의 앞이마를 짚어 한열(寒熱)상태를 관찰하여 질병상태를 변증하는 진단방법.
액문(液門)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2)로서 형수혈(滎水穴)에 해당. 주먹을 쥐었을 때 4~5 번째 손가락의 손등쪽 손허리손가락관절(metacarpophalengeal joint) 앞의 손등과 손바닥의 경계면에 위치.
액옹(腋癰) [병증] : 안이 일명 협지옹(夾肢癰), 흘지와(肢窩). 흉부와 상박부 사이 액제(腋際)에서 발생하는 옹저. 초기에 급성적으로 단단해지며 열과 함께 붓고 아프다.
액옹(額癰) [병증] : 안이 전두정면(前頭正面)의 독맥경(督脈經)과 양전두측면(兩前頭側面)의 방광경에서 발생하는 옹(癰).
액저(額疽) [병증] : 안이 전두정면(前頭正面)의

ㅇ

독맥경(督脈經)과 양전두측면(兩前頭側面)의 방광경에서 발생하는 저(疽).
액저(腋疽) [병증] : 안이 흉부와 상박부(上膊部) 사이 액제(腋際)에서 발생하는 옹저. 초기에 형상이 결핵상과 같고 산만(散漫)된 종양으로서 단단하나 피부색깔은 정상적이다.
액해(液海) [사상] : 사상 → 전사해(前四海)
앵도치(櫻桃痔) [병증] : 안이 창두(瘡頭)는 크고 창근(瘡根)은 적은 치창(痔瘡).
앵속각(罌粟殼) [약물] : 본초 양귀비과(罌粟科 : Papaverace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인 양귀비 *Papaver somniferum* L.의 과실로, 4~6월에 채취하여 종자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야경(夜驚)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놀라 경련을 일으키는 병증. 자다가 갑자기 놀라 깨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일어나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며, 얼굴에 공포심이 나타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발작은 10여 분간 지속되며, 며칠에 1번 또는 수십일에 1번씩 일어난다.
야교등(夜交藤) [약물]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에 속한 다년생 전요초목(纏繞草木)인 하수오(何首烏) *Polygonum multiflorum* Thunb.의 만경(蔓莖)으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야국화(野菊花)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감국(野菊) *Chrysanthemum indicum* L.의 두상화서(頭狀花序)로, 가을에 꽃이 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또는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uella의 꽃도 약용한다.
야뇨증(夜尿症) [병증] : 내과 야간 유뇨증.
야대황(野大黃) [약물] ⇒ 양제근(羊蹄根)
야매다몽(夜寐多夢) [병증] ⇒ 다몽(多夢)
야명사(夜明砂) [약물] 동 천서시(天鼠屎) : 본초 애기박쥐과(蝙蝠科 : Vespertilionidae)에 속한 안주애기박쥐 *Vespertilio superans* Thom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동물의 분변.
야열(夜熱) [병증] : 소아 밤에만 열이 나거나 밤이 되면 열이 더 높아지는 병증. 대부분 열이 혈실(血室)로 들어가거나 음혈(陰血)이 부족하거나 혈어(血瘀)함으로써 발생한다.
야제(夜啼) [병증] 동 객오야제(客忤夜啼) : 소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낮에는 안정되고 밤에는 계속 울면서 불안해 하다가 날이 새면 다시 안정되는 것. 밤에 울며, 얼굴이 청백색이고, 손과 배가 모두 차며, 젖을 먹으려 하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피지 못하는 것은 비(脾)가 한(寒)하기 때문이고, 또 얼굴과 입술이 붓고 몸과 배에 열이 나며 소변불리(小便不利)하고 번조(煩燥)하여 많이 우는 것은 심(心)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야합피(夜合皮) [약물] ⇒ 합환피(合歡皮)
약관(藥罐) [침구] 동 약관법(藥罐法) : 침구 재활 부항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치료방법. 자약관(煮藥罐)과 저약관(貯藥罐) 2가지가 있음.
약관법(藥罐法) [침구] ⇒ 약관(藥罐)
약교(藥膏) [약물] ⇒ 고제(膏劑)
약맥(弱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일종. 맥(脈)이 올 때 가늘고 부드러우면서 가라앉아 유약무력(柔弱無力)한 것.
약물발포구(藥物發泡灸) [침구] ⇒ 천구(天灸)
약물욕요법(藥物浴療法) [치법] ⇒ 약욕(藥浴)
약물위부법(藥物熨敷法) [침구] 동 약위(藥熨) : 침구 약말(藥末) 혹은 약물로 조성된 입자를 볶아 천에 싸서 뜨거울 때 외부를 찜질하거나, 붙여두는 치료법.
약위(藥熨) [치법] ⇒ 약물위부법(藥物熨敷法)
약물이온도입법(藥物이온導入法) [침구] 동 약물이온혈위도입법(藥物이온穴位導入法) : 침구 직류전류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온화된 약물(ionic drugs)을 피부 또는 점막을 통해 신체

안으로 침투시키는 전기치료 방법.
약물이온혈위도입법(藥物이온穴位導入法) [침구] ⇒ 약물이온도입법(藥物이온導入法)
약병구(藥餠灸) [침구] ⇒ 격부구(隔附灸)
약사(藥邪) [병리] : 병리 기타 병인의 하나. 약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이나 혹은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발병인자로 작용하는 경우.
약선(藥膳) [기타] : 본초 약료(藥料)로써 선식(膳食)을 만든 것. 한의학 이론을 지침으로 삼아 한약과 상용하는 음식물의 원료를 배합하여 독특한 가공기술로 만든 식품으로서 예방, 치료 및 보건작용을 한다. 약선(藥膳)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은 예방, 치료에 쓰이는 약물을 음식 생활에 융화시켜 약물의 효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맛과 영양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약애조구(藥艾條灸) [침구] ⇒ 애권구(艾卷灸)
약연(藥碾) [기타] : 본초 약재를 분말하거나 즙을 내는데 사용하던 기구. 가운데에 배처럼 홈이 파인 그릇에 약재를 넣고 축을 끼운 주판알 모양의 연알을 앞뒤로 굴려서 약재를 빻는다.
약욕(藥浴) [치법] 동 약욕요법(藥浴療法), 약물욕요법(藥物浴療法) : 재활 약물을 적당량을 달여 욕조에 풀어 목욕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질환에 응용하는 요법. 각 환자의 상태, 병증에 따라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겨자욕, 솔욕, 송진욕, 밀기울욕, 유황욕 등이 있다.
약욕요법(藥浴療法) [치법] ⇒ 약욕(藥浴)
약죽(藥粥) [기타] : 본초 한의학 약물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적당한 한약과 미곡(米穀)을 배합하고, 다시 일정한 조미료를 가하여 죽으로 끓인 것.
약침(藥鍼) [침구] 동 약침제제(藥鍼製劑) : 침구 약침요법에서 경혈에 주입하는 한약물 등의 정제액.
약침요법(藥鍼療法) [침구] : 침구 한약물을 용도에 알맞게 정제하여 경혈(經穴)에 주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신침요법(新鍼療法).
약침제제(藥鍼製劑) [침구] ⇒ 약침(藥鍼)
양(陽) [생리] : 생리 음(陰)에 상대되는 말. 사물과 현상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대립되는 상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한랭, 하강, 회암, 억제, 침중, 침체적, 기능저하의 속성[음(陰)]에 대비하여 온열(溫熱), 상승(上升), 광명(光明), 흥분(興奮), 경부(輕浮), 활동적이며 기능항진 경향의 속성을 양(陽)이라고 함.
양간(羊癎) [병증] 동 양전(羊癲) : → 오전(五癲)
양간(陽癎) [병증] : 정신 양증에 속하는 전간(癲癎). 諸病源候論 卷四十五에서 "먼저 신열(身熱)·계종(瘈瘲)·경체(驚滯)가 발생한 후에 간증(癎症)이 발작하고 맥부(脈浮)한 것은 양간(陽癎)이고, 먼저 몸이 차고 경계(驚瘈)하지 않으며 울부짖지도 않고 발병할 때 맥이 침한 경우는 음간(陰癎)이다."고 하였다.
양간(養肝) [치법] 동 유간(柔肝) : 방제 간(肝)의 음혈(陰血)이 부족해진 것을 치료하는 방법.
양강(良薑) [약물] ⇒ 고량강(高良薑)
양강(陽綱)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8)로서 중추(中樞) 양쪽 각 3촌에 위치.
양강(陽强) [병증] 동 강양부도(强陽不倒), 강중(强中), 양강증(陽强症), 강중증(强中證) : 내과 음경(陰莖)이 발기하여 수그러들지 않고 정액(精液)이 저절로 나오는 병증.
양강설(陽强舌) [병증] : 혀가 길게 빠져나와 수렴되지 않는 것. → 설종(舌縱)
양강증(陽强症) [병증] ⇒ 양강(陽强)
양개법(凉開法) [치법] 동 청심개규(淸心開竅) : 방제 개규법의 일종. 온열병으로 인한 정신혼미를 치료하는 방법.
양검점정(兩瞼粘睛) [병증] : 안이 궤양성 안검연염(眼瞼緣炎)과 유사하며 첩모근(睫毛根)의 화농성질환으로 소농포가 발생하고 파열되면

ㅇ

가피(痂皮)가 형성되어 첩모(睫毛)가 서로 붙어버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양결(陽結) [병증] : 내과 사열(邪熱)이 입위(入胃)하여, 대변이 조결(燥結)한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 열결(熱結).
양경(陽經) [경락] : 경혈 경맥(經脈) 중 양(陽)에 속하는 것.
양경(陽痙) [병증] 동 양치(陽痓) : 정신 ① 강치(剛痓), 강경(剛痙)을 가리킴. → 강경(剛痙) ② 경병(痙病)에 사지궐랭 증상이 없는 것.
양계(陽谿)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5)로서 경화혈(經火穴)에 해당. 손등에서 손목관절 횡문의 노쪽(요골측)에 있으며 엄지손가락을 위로 펼 때 긴엄지폄근(장무지신근; extensor pollicis longus)힘줄과 짧은엄지폄근(단무지신근; extensor pollicis brevis)힘줄에 의해 노뼈(요골; radius)와 손배뼈(주상골; scaphoid) 사이에 생기는 오목한 곳에 위치.
양곡(陽谷)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5)로서 경화혈(經火穴)에 해당. 자뼈(척골; ulna) 붓돌기(경상돌기; styloid process)와 세모뼈(삼각골; triquetral) 사이로 등쪽노손목관절인대(배측수근인대; dorsal radiocarpal ligament)의 자쪽(척골측)에 위치.
양관홍적(兩顴紅赤) [증상] ⇒ 관홍(顴紅)
양교(陽交) [경혈] 동 월양(月陽)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5)로서 양유맥(陽維脈)의 극혈(郄穴)에 해당.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위 7寸 종아리쪽(비골측)에 위치.
양교맥(陽蹻脈) [경락] : 경혈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순행노선은 근중(根中)에서 비롯되어 족외과(足外踝)를 따라 위로 행하여 협륵(脇肋)과 견갑부(肩甲部) 외측을 지나 면협(面頰) 부위를 따라 목내자(目內眥)에 이르고, 족태양경(足太陽經)과 음교맥(陰蹻脈)과 만나며, 목을 따라 위로 이마를 지나 올라가서 풍지(風池)혈로 들어가며 풍부(風府)혈이 있는 곳으로부터 뇌로 들어간다.
양구(梁丘)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4)로서 극혈(郄穴)에 해당. 무릎뼈(슬개골; patella) 윗면 가쪽에서 위쪽으로 2촌에 위치.
양궐(陽厥) [병증] : 내과 ① ⇒ 열궐(熱厥) ② 족소양경의 경기(經氣)가 궐역하여 발생하는 병증. ③ 갑자기 과도한 자극을 받음으로써 화를 잘 내고 발광하는 병증.
양기(陽氣) [생리] 동 인기(人氣) : 생리 ① 음기와 상대되는 것으로 인체내에서 기화(氣化)를 주도하는 기운. ② 음혈(陰血)에 대한 상대적 개념.
양기(養氣) ① [치법] ⇒ 보기법(補氣法). ② [기공] : 재활 연기(練氣) 이전의 단계로 몸 안에 기를 기르는 것.
양기부족(陽氣不足) [변증] ⇒ 양허(陽虛)
양기부족증(陽氣不足證) [병증] ⇒ 양허증(陽虛證)
양기석(陽起石) [약물] 동 양기석(羊起石) : 본초 단사정계의 투섬석(透閃石) 혹은 투섬석석면의 광석. 중국에서는 규산염류(硅酸鹽類)에 속한 광물인 양기석(陽起石) Actinolite과 양기석석면(陽起石石綿) Actinolite asbestus의 광석(鑛石)을 기원으로 한다.
양기폭탈증(陽氣暴脫證) [병증] ⇒ 망양증(亡陽證)
양난지기(陽煖之氣) [사상] : 사상 → 보명지주(保命之主), 완실무병(完實無病)
양도락(良導絡) [진찰] : 진단 ① 피부표면에 약한 전기를 통하게 했을 때, 일정한 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기가 잘 통하는 부위. 체표상에 나타나는 양도점의 기능적인 집합. 한의학의 경락유주와 일정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② 양도락 자율신경 조정요법을 이름.
양도점(良導點) [진찰] : 진단 피부저항측정기

의 전압을 21V로 하여 인체피부의 통전전류량을 조사했을 때 나타나는 전기가 잘 흐르는 점.
양독(陽毒) [병리] : 병리 역독(疫毒)을 감수하여 발생하는 병증. 온독발반(溫毒發斑)과 유사한데 얼굴이 붉어지므로 양독(陽毒)이라 함.
양독루(楊毒瘻) [병증] : 안이 치루(痔瘻)의 일종. 누관(瘻管)이 단단하고 빡빡한 농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며 악취가 나는 삼출물이 유출되고 항문 주변이 가렵고 조금씩 궤양이 되어 있는 것.
양락(陽絡) [경락] : 경혈 ① 수족삼양경(手足三陽經)에서 분출된 맥락(脈絡). ② 인체 표면에 있거나 상행하는 맥락.
양로(養老)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6)로서 극혈(郄穴)에 해당. 팔꿈치를 굽히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을 때, 자뼈(척골; ulna) 붓돌기(경상돌기; styloid process) 바로 위 오목한 곳에 위치.
양루(陽漏) [병증] : 안이 주로 낮 시간에 황적색의 눈물이 흐르면서, 하지만 눈물이 지속적으로 흐르지는 않고, 흐르다 멈췄다하는 특징을 지닌 누낭염.
양릉천(陽陵泉) [경혈] 동 근지부(筋之府)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4)로서 합토혈(合土穴), 팔회혈(八會穴) 중 근회혈(筋會穴)에 해당. 무릎뼈(슬개골; patella) 아래 가쪽(외측; lateral) 1촌, 무릎을 굽혔을 때 종아리뼈 머리(비골두; head of fibula)의 앞쪽 아래 오목한 곳에 위치.
양매감(楊梅疳) [병증] : 안이 양매창(楊梅瘡－皮膚梅毒)이 생겼을 때 훈약(薰藥)이나 바르는 약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지나치게 해서 부란(腐爛)되어 움푹 파이는 감창(疳瘡).
양매내감(楊梅內疳) [병증] : 안이 양매창(楊梅瘡－皮膚梅毒) 환자가 경분(輕粉)이나 수은(水銀) 등을 사용하여 소변을 볼 때 요도 속이 아픈 감창(疳瘡).
양매루(楊梅漏) [병증] : 안이 항문주위에서 발생하며 때때로 악취가 나는 삼출물이 흐르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는 치루(痔漏).
양매창(楊梅瘡) [병증] : 매독(梅毒)(syphilis).
양명(陽明) [경락] 동 양명경(陽明經) : 경혈 수양명대장경과 족양명위경.
양명경(陽明經) [경락] ⇒ 양명(陽明)
양명경(陽明痙) [병증] : 양명병에서 나타나는 경증(痙證).
양명경증(陽明經證) [변증] : 병리 傷寒辨證〈六經證治〉에서 "양명경으로 전변되면 목통(目痛) 비건(鼻乾) 불면(不眠)이 발생하는데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으로 치료한다. 본증은 경(經)과 부(腑)의 구별이 있다. 만약 목통(目痛) 비건(鼻乾) 미오한(微惡寒) 신열(身熱) 및 맥이 부홍(浮洪)하면 병이 경(經)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양명경병(陽明經病)에는 표와 본의 구별이 있다는 설도 있는데, 병이 표에 있는 경우는 신량해기법(辛凉解肌法)으로, 본에 있는 경우는 청열보진법(淸熱保津法)으로 치료한다. 醫宗金鑑〈訂正傷寒論注〉에서 "양명은 이(裏)를 주관하는데 그 내후(內候)는 위중(胃中)에 있고 외후(外候)는 기육(肌肉)에 있으므로 경병(經病)과 부병(腑病)으로 나누어진다. 예컨데 상한론 중의 신열(身熱) 번갈(煩渴) 목통(目痛) 비건(鼻乾) 불면(不眠) 불오한반오열(不惡寒反惡熱)은 양명경병(陽明經病)이다."라고 하였다.
양명리실(陽明裏實) [변증] ⇒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
양명리실증(陽明裏實證) [변증] ⇒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
양명병(陽明病) [병증] 동 양명병증(陽明病證) : 병리 육경병(六經病)의 하나. 양명경(陽明經)과 장위(腸胃)에 사기가 실한 병증. 양명병(陽明病)에는 일반적으로 이(裏), 열(熱), 실(實) 증이 있고 변증에는 경증(經證)과 부증(腑證)

의 구분이 있다. 양명경증은 무형의 사열(邪熱)이 경(經)에서 성(盛)함으로 인해 대열(大熱) 대한출(大汗出) 대번갈(大煩渴) 맥홍대(脈洪大)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양명부증은 유형의 조실열(燥實熱)이 부(腑)에 울결된 것이므로 조열(潮熱) 섬어(譫語) 복만통(腹滿痛) 대변불통(大便不通) 맥침실(脈沈實)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양명병비약(陽明病脾約) [병증] : 병리 비(脾)가 허하여 진액이 부족해지고 장액(腸液)이 고갈되어 변비를 일으키는 병증.

양명병증(陽明病證) [병증] ⇒ 양명병(陽明病)

양명부병(陽病腑病) [변증] ⇒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 [변증] 동 양명리실증(陽明裏實證), 양명부증(陽明腑證), 양명리실(陽明裏實), 양명부증(陽明府證), 양명부병(陽病腑病) : 병리 사열(邪熱)이 이(裏)에 전입하여 화조상진(化燥傷津)하며 조실(燥實)과 내결(內結)하여 옹체불통하게 된 증. 조열(潮熱) 섬어(譫語) 복만(腹滿) 통거안(痛拒按) 번조(煩躁) 수족즙연한출(手足濈然汗出) 대변곤란(大便困難) 복창만(腹脹滿) 번민욕구(煩悶欲嘔) 증증발열(蒸蒸發熱)하며 설태(舌苔)가 황조(黃燥)하고 맥이 침실유력(沈實有力)하다.

양명부증(陽明府證) [변증] ⇒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

양명부증(陽明腑證) [변증] ⇒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

양명소양합병(陽明少陽合病) [변증] 동 양명여소양합병(陽明與少陽合病) : 병리 상한(傷寒)에 양명병 증상과 소양병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 양명과 소양 양경(兩經)의 합병으로 인해 양명병에서 나타나는 신열(身熱) 불오한반오열(不惡寒反惡熱) 자한(自汗) 복부창만(腹部脹滿) 변비(便秘)와 소양병에서 나타나는 구고(口苦) 인건(咽乾) 목현(目眩) 외에 반드시 하리(下利)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킴.

양명수열호결증(陽明水熱互結證) [변증] : 병리 사열(邪熱)로 음액(陰液)이 손상되어 발열(發熱) 갈욕음수(渴欲飮水)가 나타나고 열사(熱邪)가 하초에 미치면 하초의 수분대사를 방해하여 소변불리(小便不利)가 생긴다. 주증으로 갈욕음수(渴欲飮水), 소변불리(小便不利) 발열(發熱) 심번부득면(心煩不得眠) 증상이 있다.

양명습열겸표증(陽明濕熱兼表證) [변증] : 병리 양명열이 습과 합하여 습열이 안에서 증등(蒸騰)되고 피부로 훈증(熏蒸)되어 발황(發黃)한 증으로 이 때 표증이 남아 있으면 발열오풍(發熱惡風) 신양맥부(身痒脈浮)가 나타난다.

양명습열리실증(陽明濕熱裏實證) [변증] : 병리 양명습열증이 이실증(裏實證)으로 전화된 것. 심하(心下)가 그득하고 심중오뇌(心中懊憹)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양명습열증(陽明濕熱證) [변증] : 병리 양명열이 습과 합하여 습열이 안에서 증등(蒸騰)되고 피부로 훈증(熏蒸)되어 발황(發黃)한 증.

양명어혈증(陽明瘀血證) [변증] 동 축혈증(蓄血證) : 병리 상한에서 양명경에 열사(熱邪)와 숙어(宿瘀)가 뒤엉겨 발생하는 병증.

양명위가실(陽明胃家實) [병리] [병증] : 병리 상한론(傷寒論)에서 위가실(胃家實)의 의미임.

양목건삽(兩目乾澁) [병증] ⇒ 목삽(目澁)

양목상시(兩目上視) [증상] ⇒ 상찬(上竄)

양문(梁門)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1)로서 중완(中脘) 양쪽 2촌에 위치.

양반(陽斑) [병증] 동 양증발반(陽證發斑) : 병리 실열(實熱)에 속하는 외감열병(外感熱病)으로 인한 발반(發斑). 대부분 사열(邪熱)이 영혈(營血)을 훈증(熏蒸)하여 발생. 홍적색의 비단 무늬 같은 반(斑)이 발생하고, 발열(發熱), 번갈(煩渴), 설질홍(舌質紅), 설태황(舌苔黃)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양백(陽白)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4)로서 눈썹 위 1촌으로 동자 바로 위에 위치.
양보(陽輔) [경혈] 동 절골(絶骨)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8)로서 경화혈(經火穴)에 해당.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위 4촌에 위치.
양부족(陽不足) [변증] ⇒ 양허(陽虛)
양사(陽邪) [병리] : 병리 육음(六淫)의 사기(邪氣) 가운데 풍(風), 서(暑), 조(燥), 화(火) 등 양의 속성을 가진 사기.
양사불거(陽事不擧) [병증] ⇒ 음위(陰痿)
양생(養生) [예방] : 재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여 생명현상을 건강하게 보존, 유지하며 무병장수하기 위해 음식, 운동, 정서, 성생활, 기거 등 섭생을 잘 하는 것.
양성(養性) [예방] : 정신을 조섭(調攝), 수양하는 것.
양성격음(陽盛格陰) [병리] : 병리 몸 안에 열이 극도로 성해 음한을 체표로 밀어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진열가한(眞熱假寒) 증상. 이 때에는 사지궐랭(四肢厥冷) 맥상침복(脈狀沈伏)이 나타나거나 한성(寒性) 약물을 복용시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의 가한(假寒) 증상이 있다. 단, 환자의 심흉부에 번열(煩熱)이 있고 복부에 작열감(灼熱感)이 있으며 몸이 매우 차갑지만 옷을 더 입으려 하지 않는 등 열이 성한 것을 반영하는 증후가 나타난다. 醫宗金鑑 〈傷寒心法要訣〉에서 "양기(陽氣)가 지나치게 성(盛)하면 음기(陰氣)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면 음이 외부에서 막으므로 양성격음(陽盛格陰)이라 한다."고 하였다.
양성격음(陽盛格陰) [병리] ⇒ 진열가한(眞熱假寒)
양성반응점(陽性反應點) [침구] 동 양성반응처(陽性反應處) : 침구 진찰하여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부위.
양성반응처(陽性反應處) [침구] ⇒ 양성반응점(陽性反應點)
양수(羊水) [생리] [병증] ⇒ 태수(胎水)
양수(陽水) [병증] 동 양수부종(陽水浮腫) : 내과 부종과 함께 번갈(煩渴) 소변적삽(小便赤澁) 대변폐(大便閉)하는 병증. 수종병(水腫病)의 하나. 주로 외감실사(外感實邪)에 의한 실증(實證).
양수부종(陽水浮腫) [병증] ⇒ 양수(陽水)
양신(養神) [예방] : 재활 양생 용어. 의식 사유 활동을 조절하여 정신을 보양(保養)함으로써 무병장수하는 것.
양위(養胃) [치법] ⇒ 익위(益胃)
양위(陽痿) [병증] ⇒ 음위(陰痿)
양유맥(陽維脈) [경락] : 경혈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이 맥의 흐름은 여러 양경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맥기(脈氣)는 족태양경(足太陽經)의 금문(金門)혈 부위에서 출발하여 다리의 바깥쪽을 따라 올라가서 장골관절 부위를 지나 옆구리의 뒤쪽으로부터 어깨로 올라가서 앞이마에 이르고, 다시 목 뒤로 가서 독맥(督脈)과 만난다.
양유치(羊乳痔) [병증] : 안이 항문 내(內)가 단단하고 창두(瘡頭)는 적고, 창근(瘡根)은 크며 때때로 통증과 가려움을 수반하는 치창(痔瘡).
양음(養陰) [치법] ⇒ 보음법(補陰法)
양음약(養陰藥) [약물] ⇒ 보음법(補陰法)
양의(瘍醫) [기타] : 안이 중국 주(周)나라 때 종양이나 창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했던 외과의.
양자(揚刺) [침구] 동 양자법(揚刺法) : 침구 십이자(十二刺)의 하나로 환부(患部)의 정중앙에 1개의 침을 얕게 꽂고서 좌우상하에 각기 하나씩 침을 얕게 꽂는 자법(刺法).
양자법(揚刺法) [침구] ⇒ 양자(揚刺)
양자십법(養子十法) [치법] : 소아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유의하여야 할 10가지 방법. 첫째, 등을 따뜻하게 한다(要背暖). 둘째, 배를 따뜻

하게 한다(要肚暖). 셋째, 발을 따뜻하게 한다(要足暖). 넷째, 머리를 서늘하게 한다(要頭凉). 다섯째,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要心胸凉). 여섯째, 소아에게 돌연히 이상한 물건을 보지 않도록 한다(勿令小兒突然看異常之物). 일곱째, 젖과 음식은 따뜻한 것으로 먹인다(乳食要溫). 여덟째, 아이가 울 때는 젖을 먹이지 않는다(夜啼未定 勿使飮乳). 아홉째, 경분(輕粉), 주사(硃砂)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勿服輕粉朱砂). 열째, 적게 씻긴다(宜少洗浴).

양장(陽臟) [해부] [생리] 동 모장(牡臟) : 생리 ① 오장 중 심, 폐를 가리킴. 심과 폐는 심은 양중지태양(陽中之太陽), 폐는 양중지소음(陽中之少陰)으로 모두 횡격막 상부에 위치하는 양의 장부임. ② 오장(五臟) 중 심·간(心·肝)을 가리킴. 내경 영추 순기일일분위사시편(內經 靈樞 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는 심과 간을 모장(牡臟)이라고 하였음. 이것은 심은 양중지태양(陽中之太陽)이고 간은 음중지소양(陰中之少陽)으로 양[군화(君火), 상화(相火)]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양전(羊癲) [병증] ⇒ 양간(羊癎)

양전(陽癲) [병증] : 정신 오전(五癲)의 하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는 증상을 가리킴. 諸病源候論 卷二에서 "양전(陽癲)이 발작하면 마치 죽은 사람과 같고 소변을 지리는데, 한 식경쯤 지나면 해소된다."고 하였다. → 전(癲), 오전(五癲), 간(癎)

양제근(羊蹄根) [약물] 동 야대황(野大黃), 양제대황(羊蹄大黃)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참소리쟁이 *Rumex japonicus* Houttuyn.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뿌리로, 8~9월에 캐서 햇볕에 말려 사용.

양제대황(羊蹄大黃) [약물] ⇒ 양제근(羊蹄根)

양조(凉燥) ① [병증] 동 양조증(凉燥證) : 병리 가을에 조사(燥邪)를 감수하여 한(寒)에 편중된 증상이 나타나는 온병(溫病). 온조(溫燥)와 상대적인 개념. 발병 초기에는 대부분 두통신열(頭痛身熱) 오한(惡寒) 무한(無汗) 비색류체(鼻塞流涕) 증상이 발생하여 마치 풍한과 같지만 입술과 인후가 건조하고 연달아 마른기침을 하며 설태(舌苔)는 박백(薄白)하면서 건조하고 맥은 부현긴(浮弦緊)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② [치법] ⇒ 청조(淸燥)

양조증(凉燥證) [변증] ⇒ 양조(凉燥)

양증(陽證) [변증] : 병리 ① 팔강(八綱)의 하나. 질병의 정황이 양적인 속성을 띤 상태를 말함. 음증(陰證)과 함께 팔강의 총강(總綱)으로 표증(表證), 열증(熱證), 실증(實證)을 포괄. ② 전형적인 실열증(實熱證). 증상은 고열, 면적(面赤), 두통, 신열희량(身熱喜凉), 광조불안(狂躁不安), 구순조열(口脣燥裂), 번갈인음(煩渴引飮), 어성조장(語聲粗壯), 호흡기조(呼吸氣粗), 대변비결취예(大便秘結臭穢), 복통거안(腹痛拒按), 소변단적(小便短赤), 설홍(舌紅), 태황조(胎黃燥), 맥부홍삭유력(脈浮洪數有力)하다.

양증발반(陽證發斑) [병증] ⇒ 양반(陽斑)

양증사음(陽證似陰) [병리] ⇒ 진열가한(眞熱假寒)

양지(陽池)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4)로서 원혈(原穴)에 해당. 손목관절 손등쪽 횡문의 한가운데 부위, 손가락폄근(指伸筋; extensor digitorum)힘줄과 새끼폄근(小指伸筋; extensor digiti minimi)힘줄의 사이에 위치.

양진액(養津液) [치법] ⇒ 생진(生津)

양치(陽痓) [병증] ⇒ 양경(陽痙)

양태(養胎) [기타] 동 임신양태(姙娠養胎) : 부인 임신기에 음식이나 기거에 주의하여 태아를 보호하는 것.

양폐(陽閉) [병증] : 내과 열로 인해 소변이 나오지 않는 병증.

양허(陽虛) [변증] 동 양기부족(陽氣不足), 양부족(陽不足) : 병리 양기부족(陽氣不足)으로 장부, 경락, 기혈 등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
양허비(陽虛痺) [병증] : 재활 양기가 부족하면 표위(表衛)가 불고(不固)하므로 외사(外邪)가 쉽게 침습하게 되어 관절이 간헐적으로 아프게 되는 것.
양허수범증(陽虛水泛證) [병증] ⇒ 수습범람증(水濕泛濫證)
양허증(陽虛證) [병증] 동 양기부족증(陽氣不足證), 허한증(虛寒證) : 병리 양허(陽虛)로 인한 병증. 증상은 외한지랭(畏寒肢冷), 권태무력(倦怠無力), 소기나언(少氣懶言), 자한(自汗) 등이 주증이고, 면색담백(面色淡白), 구담불갈(口淡不渴), 소변처장(小便淸長), 대변당박(大便溏薄)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백혹담반(舌質淡白或淡胖), 맥허지혹침약(脈虛遲或沈弱)하다.
양혈(凉血) [치법] 동 양혈약(凉血藥) : 본초 청열법(淸熱法)의 일종으로서, 혈분(血分)의 열사(熱邪)를 제거하는 치법.
양혈(養血) [치법] ⇒ 보혈법(補血法)
양혈약(凉血藥) [약물] ⇒ 양혈(凉血)
양형(養形) [예방] : 신체를 보양하여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양화곽(養化廓) [진찰] : 안이 풍곽(風廓)에 해당하며 간락중초(肝絡中焦)와 상관관계가 있음.
양황(陽黃) [병증] 동 양황증(陽黃證) : 내과 황달의 발생이 비교적 단기이고 황색이 선명하며 열증, 실증에 속하는 병증.
양황증(陽黃證) [병증] ⇒ 양황(陽黃)
어(瘀) [병리] ⇒ 어혈(瘀血)
어결(瘀結) [병리] [병증] ⇒ 어혈(瘀血)
어괴(瘀塊) [병리] [병증] ⇒ 어혈(瘀血)
어구(魚口) [병증] : 안이 변독(便毒)에 궤양이 일어나 서 있으면 창구(瘡口)가 합하고 몸을 구부리면 창구가 확장되는 형상을 지칭한 말.
어눌(語訥) [병증] ⇒ 눌어(訥語)
어두발(魚肚發) [병증] : 안이 청령혈(靑靈穴)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형상이 물고기 배의 형상과 같은 것.
어미독(魚尾毒) [병증] : 안이 방광경에 습열이 응결되어 항후(項後) 발제양방(髮際兩傍) 각처에서 발생하는 옹저.
어삽(語澁) [병증] ⇒ 눌어(訥語)
어상맥(魚翔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듯한 것을 말함.
어색불통(瘀塞不通) [병리] ⇒ 어혈내조(瘀血內阻)
어성저미(語聲低微) [병증] ⇒ 성음저겁(聲音低怯)
어성중탁(語聲重濁) [병증] 동 성중(聲重) : 내과 병변의 영향에 의해 말소리 또는 기침소리가 무겁고 맑지 못한 병증.
어성초(魚腥草) [약물] ⇒ 즙채(葅菜)
어성효(魚腥哮) [병증] : 내과 생선이나 해물류 등 비린 것을 먹음으로써 목안에서 가래소리(哮)가 나타나는 병증.
어언건삽(語言蹇澁) [병증] ⇒ 눌어(訥語)
어언건흘(語言蹇吃) [병증] ⇒ 눌어(訥語)
어언불리(語言不利) [증상] 동 언어불리(言語不利) : 내과 말이 잘되지 않는 증상.
어요(魚腰) [기혈]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눈썹 속 즉 미모(尾毛) 중에서 취혈하고 동공(瞳孔)과 직상대(直相對) 되는 미모(尾毛)의 정중앙에 위치.
어자석류(魚子石榴) [병증] : 안이 결핵성 각막실질염과 같은 것으로 어자증(魚子症)과 석류증(石榴症)은 증상은 서로 다르나 원인은 동일함. 어자증은 각막 한쪽 외면에 과립이 한 곳에 군집하여 담홍색이나 회백색을 띰. 석류증은 유자상(榴子狀)과 같고 회백색을 띠고 각막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적색을 띤 육과(肉顆)가 4,

ㅇ

6, 8립으로 생김.

어제(魚際) [경혈] 동 수장어제(手掌魚際)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10)로서 형화혈(滎火穴)에 해당. 첫 번째 손허리뼈(중수골; metacarpal) 중앙의 노쪽(요골측)에서 손바닥과 손등의 경계면에 위치.

어조(瘀阻) [병리] ⇒ 어혈내조(瘀血內阻)

어조불창(瘀阻不暢) [병리] ⇒ 어혈내조(瘀血內阻)

어지(語遲) [병증] : 소아 오지(五遲)의 하나. 어린아이는 2~3세가 되면 어느 정도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병증은 4~5세가 되어도 말을 못하는 것을 말함. 말은 심(心)의 소리이며, 신맥(腎脈)은 혀로 이어져 있으니, 어지(語遲)는 소아가 선천적(先天的)으로 신(腎)이 허하고 심기(心氣)가 조화되지 않아 발생한다. 후천적으로 비위가 이지러지고 감소되어 진기(津氣)가 위로 영양하지 못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어척창(魚脊瘡) [병증] : 안이 근골사이에서 발생하는 창증(瘡症). 처음에는 백색의 소포(小皰)를 형성하나 점차 커져서 물고기 등뼈 형상과 같아진다.

어체(瘀滯) [병리] ⇒ 어혈내조(瘀血內阻)

어체통(瘀滯痛) [병증] : 재활 어혈로 인해 기혈의 순환이 조체(阻滯)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통.

어포증(魚胞證) [병증] : 안이 기분병(氣分病)으로 하좌증(蝦座證)과 유사하나 보다 완만함.

어혈(瘀血) [병리] 동 사혈(死血), 악혈(惡血), 오혈(汚血), 패혈(敗血), 어괴(瘀塊), 어결(瘀結), 혈어(血瘀), 어(瘀), 건혈(乾血) : 병리 혈액이 체내에서 응체된 것. 혈액이 경맥 외부(經脈外部)로 넘쳐 조직 사이에 쌓이거나 혈액운행에 장애가 발생하여 경맥 내부 및 기관내에 정체하는 것을 포괄. 질박손상(跌撲損傷) 경폐(經閉) 한응기체(寒凝氣滯) 혈열망행(血熱妄行) 등으로 발생하고 기기조체(氣機阻滯) 경맥조색(經脈阻塞) 어열호결(瘀熱互結) 적어성가(積瘀成痂) 등을 일으킨다.

어혈관정증(瘀血灌睛證) [병증] : 안이 어혈로 생기는 눈병. 하좌증(蝦座證)과 유사하나 예후에 있어 하좌증보다 양호하다.

어혈내조(瘀血內阻) [병리] 동 어색불통(瘀塞不通), 어조(瘀阻), 어조불창(瘀阻不暢), 어체(瘀滯) : 병리 어혈(瘀血)이 기부가 아닌 기관이나 혈맥을 조체(阻滯)하여 혈액순환의 장애나 기기(氣機) 불창(不暢) 등을 일으키는 것. 부인경폐(經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혈비(瘀血痺) [병증] : 재활 외상이나 비증(痺症)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기혈이 응체됨으로써 피하어반(皮下瘀斑), 결절(結節), 관절종통(關節腫痛), 굴신불리(屈伸不利)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어혈요통(瘀血腰痛) [병증] : 재활 요통의 일종. 대부분 삐었거나 요통이 오래된 까닭에 어혈이 쌓여 발생.

억간(抑肝) [치법] 동 벌간(伐肝) : 방제 간기(肝氣)의 편성(偏盛)을 억제하는 치료방법. ① 간왕비허(肝旺脾虛)로 양협창통(兩脇脹痛), 복창장명(腹脹腸鳴), 대변희당(大便溏瀉), 설태백이(舌苔白膩), 맥상현(脈象弦)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상기 방법을 쓴다. ② 간기(肝氣)가 왕성하여 흉민협통(胸悶脇痛), 급조이노(急躁易怒), 신통(身痛)이 발생할 때 적용한다.

언도맥(偃刀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상(脈象)이 현세(弦細)하면서 급(急)하여 마치 손으로 칼날을 만지는 듯한 감이 있는 것.

언미(言微) [병증] ⇒ 성음저겁(聲音低怯)

언어불리(言語不利) [증상] ⇒ 어언불리(語言不利)

언어저미(言語低微) [병증] ⇒ 성음저겁(聲音低怯)

얼(噦) [병증] ⇒ 해역(咳逆)

여구(蠡溝) [경혈] 동 교의(交儀)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5)로서 낙혈(絡穴)에 해당. 음릉천(陰陵泉)에서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까지를 1척 3촌의 골도법으로 하여 안쪽복사 위 5촌으로 정강쪽(경골측)에 위치.

여기(戾氣) [병리] ⇒ 역려(疫癘)

여기(癘氣) [병리] ⇒ 역려(疫癘)

여로(藜蘆) [약물] 동 여로두(藜蘆頭)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참여로 *Veratrum nigrum* L.(=*Veratrum nigrum* L. var. *ussuriense* Loes. fil.)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근경(根莖). 5~6月에 꽃대가 나오지 않았을 때 채취하여 묘엽(苗葉)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하거나 탕침(燙浸)한 후 쇄건(曬乾)하여 사용.

여로달(女勞疸) [병증] : 내과 황달의 일종. 액상흑(額上黑) 미한출(微汗出) 수족심열(手足心熱) 박모즉발(薄暮卽發) 방광급 소변자리(膀胱急 小便自利)의 증상이 있음.

여로두(藜蘆頭) [약물] ⇒ 여로(藜蘆)

여로복(女勞復) [병증] : 내과 병이 거의 다 나아갈 때 지나친 성생활이 원인이 되어 다시 앓게 되는 것.

여송과(呂宋果) [약물] ⇒ 보두(寶豆)

여신주(如神炷) [사상] : 사상 東醫四象新編에 수록된 태음인의 두통(頭痛), 비연(鼻淵), 비색(鼻塞), 유아(乳蛾), 치통(齒痛) 등을 치료하는 약방. 대황(大黃)·고본(藁本)·조각(皁角)·마황(麻黃) 각 3.75g으로 조성되었고 잘게 분말을 내어 칠조권지(七條券紙)에 싸서 태워 그 연기를 코에 쏘인다.

여열(餘熱) [병리] : 병리 소아 열병에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으로 치료를 해서 병이 거의 나았으나 아직 열이 남아 있는 것. 음양(陰陽)과 기혈(氣血)이 모두 허하여 발생.

여옹(厲癰) [병증] : 안이 족부양방(足跗兩傍)에서 발생하는 옹저. 돈저(敦疽)와 유사하여 적은 것이 대추나 밤과 같고 홍색을 띠고 아프며 궤양이 되면 화농(化膿)된다.

여자포(女子胞) [해부] [생리] ⇒ 포(胞)

여정자(女貞子) [약물] : 본초 물푸레나무과(木犀科 : Oleaceae)에 속한 상록 관목 혹은 소교목인 제주광나무 *Ligustrum lucidum* Ait. 및 동속 근연식물의 성숙한 과실로, 겨울철에 채취하여 황주(黃酒)에 증숙(蒸熟)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동속 근연식물로는 광나무 *L. japonicum* Thunb. 등이 있다.

여지(荔枝) [약물] ⇒ 여지핵(荔枝核)

여지핵(荔枝核) [약물] 동 여지(荔枝) : 본초 무환자나무과(無患子科 : Sapindaceae)에 속한 낙엽 또는 상록교목인 여지 *Litchi chinensis* Sonn. 의 성숙한 종자로 여름철에 성숙한 과실을 채취하여 과피와 육질의 가종피(假種皮)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여풍(癘風) [병증] : 안이 나병(leprosy, hansen's disease). 문둥병.

여흑반(黎黑斑) [병증] ⇒ 간(黔)

역(疫) [병리] : 병리 강렬한 유행성 전염성을 가진 질병을 말함. 대부분 시행여기(時行癘氣)가 입이나 코로 침입하여 발생. 시역(時疫) 온역(溫疫) 역려(疫癘) 시독(時毒) 대두온(大頭溫) 교장온(絞腸溫) 흘탑온(疙瘩溫) 양매온(楊梅溫) 등으로 기재되고 있음.

역(逆) [징후] [진찰] : 진단 중경십이맥(仲景十二脈)의 하나. 자모상승(子母相乘)의 맥상(脈象).

역경(逆經) [병증] ⇒ 착경(蹉經)

역경관정(逆經灌睛) [병증] : 안이 월경 때 혈역상행(血逆上行)하여 안구 전체가 충혈되어 깔깔해지고 통증이 있거나 식육(瘜肉)이 생기기도 하는 것.

역독리(疫毒痢) [병증] 동 역리(疫痢) : 소아 전염성이 강하고 병태가 위중한 이질. 대부분 전

염된 역독(疫毒)이 장도를 막고 기혈(氣血)을 달구어 발생. 주요 증상은 발병하는 기세가 빠르고 드세며 고열이 나고 구역질을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목이 마르며, 배가 아주 심하게 아프고 특히 항문이 심하게 무지근하다. 설사하면 피고름이 섞여 나오는데 대부분 자홍색을 띠며 핏물 같기도 하고 배변횟수가 매우 잦다. 심하면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몸이 뒤로 활처럼 휘고 입이 꽉 물리며 사지가 궐냉(厥冷)하다. 어린이는 설사를 하기 전에 언제나 정신이 흐릿해지고 버둥거리며, 심한 경우 팔다리가 차고 숨이 가빠지며 맥이 끊어지려는 듯이 희미한 증상이 나타난다.

역동(逆動) [사상] : 사상 사상의학에서는 인체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기를 넷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기의 작용이 그 기의 특성에 따라 음양 편차적 승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사기(四氣)의 순동(順動)이라 하며 이것이 역행하는 것을 사기(四氣)의 역동(逆動)이라 함. 애노희락지기(哀怒喜樂之氣)의 성질은 애기직승(哀氣直升) 노기횡승(怒氣橫升) 희기방강(喜氣放降) 락기함강(樂氣陷降)하며 애노지기(哀怒之氣)는 양으로 상승하며 희락지기(喜樂之氣)는 음으로 하강한다. 폐비간신지기(肺脾肝腎之氣)는 폐기는 직이신(直而伸)하며 비기는 율이포(栗而包)하고 간기는 관이완(寬而緩)하며 신기는 온이축(溫而縮)하며 사부지력(四腑之力)은 상승(上升－胃脘) 정축(停縮－胃) 소도(消導－小腸) 하강(下降－大腸)한다.

역려(疫癘) [병리] 동 여기(癘氣), 여기(戾氣), 이기(異氣), 잡기(雜氣), 독기(毒氣), 괴려지기(乖戾之氣), 여기(癘氣), 역려지기(疫癘之氣) : 병리 일종의 전염성이 강한 질환을 일으키는 사기. 온병(溫病)을 일으키는 병인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온사(溫邪)에 속하지만, 이것은 온사 중 강한 전염성[역(疫)]을 가지고 있는 사기를 가리킨다.

역려지기(疫癘之氣) [병리] ⇒ 역려(疫癘)

역리(疫痢) [병증] ⇒ 역독리(疫毒痢)

역순예(逆順翳) [병증] : 안이 사상각막염(絲狀角膜炎). 결막에 극심한 충혈이 일어나는데 적맥(赤脈)이 상하, 좌우로 얽혀 굵고 가는 것이 일정치 않다.

역양풍(癮瘍風) [병증] : 안이 풍사(風邪)와 적열(積熱)이 피부에 오랫동안 유체(留滯)되어 있어 경(頸)·항(項)·흉(胸)·액(腋) 등에서 원형의 자백반점(紫白斑點)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통증과 가려움이 없으면서 만연되지 않는 질환.

역절(歷節) [병증] ⇒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

역절풍(歷節風) [병증] ⇒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

역종(逆從) [진찰] : 진단 ① 정(正)·반(反) 양대 치법(治法)의 별칭. 증후(證候)와 반대되는 성질의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을 '역(逆)'이라 하고, 증후와 같은 성질의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을 '종(從)'이라 한다. ② 표병(表病)과 본병(本病)을 치료하는 방법. 역(逆)이란 병이 본(本)에 있을 때 그 표(標)를 치료하고, 병이 표(標)에 있을 때 그 본(本)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종(從)이란 병이 본(本)에 있으면 본(本)을 치료하고, 병이 표(標)에 있으면 표(標)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역증(逆證) [병증] : 병리 병의 경과나 예후가 나빠질 것을 짐작케 하는 증후. 치료를 잘못하거나 간호를 잘못하여 정기(正氣)가 허해지고 사기(邪氣)가 몹시 성(盛)해져서 병이 일반적인 경과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중증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함.

역취(逆取) [치법] : 안이 표(標)와 본(本)을 거꾸로 취하여 효과를 얻는 치료법.

역학(疫瘧) [병증] ⇒ 온학(溫瘧)

역후사(疫喉痧) [병증] ⇒ 후사(喉痧)

연(涎) [생리] 동 연타(涎唾) : 생리 구강을 습윤(濕潤)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는 비(脾)의 진액.
연각풍(軟脚風) [병증] ⇒ 각기(脚氣)
연곡(然谷) [경혈] 동 용연(龍淵), 연골(然骨)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로서 형화혈(滎火穴)에 해당.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앞 아래로서 발배뼈 거친면(주상골조면; tberosity of navicular) 아래의 오목한 곳에 위치.
연골(然骨) [경혈] : 경혈 ① 신체부위. 내과(內踝) 앞쪽 아래의 주골(舟骨). ② 경혈(經穴). 연곡(然谷)의 이명.
연공(練功) [기공] 동 연공단련(練功鍛鍊) : 재활 기공을 수련하는 행위. 기공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행위.
연공단련(練功鍛鍊) [기공] ⇒ 연공(練功)
연광적란(沿眶赤爛) [병증] ⇒ 검현적란(瞼弦赤爛)
연교(連翹) [약물] : 본초 물푸레나무과(木犀科 : Ole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개나리 *Forsythia koreana* Nakai와 의성개나리 *F. viridissima* Lindl.의 과실로, 가을에 과실이 익기 시작할 때 또는 완전히 익었을 때 채취하여 증숙(蒸熟)한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연근(蓮根) [약물] ⇒ 우절(藕節)
연급(攣急) [병증] ⇒ 구련(拘攣)
연기(練氣) [기공] : 재활 기를 단련하는 것.
연로경수복행(年老經水復行) [병증] ⇒ 노부행경(老婦行經)
연단(鉛丹) [약물] 동 황단(黃丹) : 본초 납을 가공하여 만든 정제품으로 사산화삼연(Pb_3O_4 : 685.57) 95% 이상을 함유.
연단술(煉丹術) [기타] : 예방 ① 도가에서 불노장생을 목적으로 금(金)·석(石) 등의 광물을 원료로 삼아 일정한 방법으로 제련하여 만든 것을 단약(丹藥)이라 하는데, 연단술은 단약을 만들고 복용하는 기술이나 행위를 말한다. ② 기공의 연공(練功)을 연단(煉丹)이라 한다. 즉, 내단(內丹)을 연마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이나 행위를 말한다.
연도(軟刀) [기구] : 본초 약재를 임법(淋法), 세법(洗法), 포법(泡法)으로 처리한 후 윤법(潤法)으로 약효의 손실이 없이 절제(切製)에 편리하게 연화(軟化)시키는 것. 윤법은 일반적으로 습윤(濕潤)하게 한 약재를 일정한 용기 내나 평판에 쌓아 놓고 뚜껑을 덮어서 외부의 수분을 서서히 약재의 내부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임.
연미로경수단(年未老經水斷) [병증] : 부인 천계(天癸)가 갈하여 월경이 종지될 연령이 아닌 시기에 폐경이 일어난 것. 서양의학의 조기폐경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신(練神) [기공] : 재활 기공용어. 신(神)을 단련하는 것.
연액(涎腋)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2)로서 겨드랑 횡문 중앙 아래 3촌에 위치.
연와력(燕窩癧) [병증] : 안이 턱(頸)이 홍종(紅腫)되는 나력(瘰癧).
연와창(燕窩瘡) [병증] : 안이 비위의 습열이 축적 응결되어서 하해부(下頦部)에서 발생하는 창증(瘡證).
연자(涎刺) [침구] ⇒ 관자(關刺)
연자대(蓮子大) [약물] : 방제 환제 유형의 하나. 환약을 연씨 크기만 하게 빚는 것.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1~2g이며, 환약의 평균 직경은 1.26mm 정도이다.
연자력(蓮子癧) [병증] : 안이 나력이 한 곳에 여러 개가 생겨서 마치 연밥송이가 달린 것 같은 것.
연자발(蓮子發) [병증] 동 태음저(太陰疽) : 안이 배척(背脊) 및 양협(兩脇)에서 발생하는 옹저. 창내(瘡內)는 연자형(蓮子形)과 같이 돌출된 것이 많다

ㅇ

연자육(蓮子肉) [약물] : 본초 수련과(睡蓮科 : Nymphaceae)에 속한 다년생 수생초본인 연꽃 *Nelumbo nucifera* Gaertn.의 성숙한 종자로,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연방(蓮房)을 쪼개어 종인(種仁)을 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연저(淵疽) [병증] : 안이 우에태과(憂恚太過)가 간담(肝膽)의 기능을 손상함으로 말미암아 늑하(肋下)에서 발생하는 옹저.
연정(練精) [기공] : 재활 기공용어. 정(精)을 단련하는 것.
연좌상(碾挫傷) [병증] : 재활 피육이 손상을 받았으나 표면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이며 손상부위에 동통, 종창, 압통이 현저하고 심한 경우에는 근섬유파열과 심부에 혈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주감(連珠疳) [병증] ⇒ 설생포(舌生泡)
연주발(連珠發) [병증] : 안이 배부전면(背部全面)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종양이 3~5개의 덩어리를 형성하여 구슬을 꿰어 놓은 것 같은 형태의 옹저.
연주아(連珠蛾) [병증] : 안이 유아(乳蛾)의 하나. 열독이 울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유아가 상하로 연속되어 있으며 홍색을 띠고 붓고 아프다.
연타(涎唾) [생리] ⇒ 연(涎)
연피자(沿皮刺) [침구] ⇒ 횡자(橫刺)
연호색(延胡索) [약물] ⇒ 현호색(玄胡索)
연화치(蓮花痔) [병증] : 안이 형상이 마치 연꽃과 같고 층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닭벼슬 모양과 같고 적은 공구(孔口)가 있으며 가렵고 아프면서 농수(膿水)가 흘러나오는 치창(痔瘡).
열(噎) [병증] : 내과 5가지 열(噎)의 총칭. 기열(氣噎), 우열(憂噎), 식열(食噎), 노열(勞噎), 사열(思噎).
열간(熱癎) [병증] : 정신 내부에 열이 쌓여 발생하는 소아 간증. 그 증상은 구안와사(口眼喎斜), 수족경련(手足痙攣), 요배강직(腰背强直), 각궁반장(角弓反張), 장열제곡(壯熱啼哭), 구중토말(口中吐沫)이 발생하고 콧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열감(熱疳) [병증] : 소아 감질(疳疾)의 하나. 감질의 습열(濕熱)이 기부(肌膚)로 침입하여 발생. 코의 아래가 적란(赤爛)하며 두부에는 창(瘡)과 습양(濕痒)이 생기고, 오심(五心)은 번열(煩熱)하며 옷이 들릴 정도로 숨이 거칠고, 갈증으로 냉수를 마시며 번조(煩躁)로 길바닥에 드러눕고, 배는 뜨겁고 다리는 차가우며 조열(潮熱)이 왕래한다.
열격(噎膈) [병증] 동 격색(隔塞), 격색불통(隔塞不通), 격열(膈噎), 격인(鬲咽), 격중(膈中),
열격증(壹膈證) : 내과 음식을 탄인(呑咽)할 때 장애를 받아서 식입즉토(食入則吐)하는 병증.
열격(熱膈) [병증] : 내과 삼양열격(三陽熱膈)으로 인해 인후건조(咽喉乾燥), 구취(口臭), 심흉통(心胸痛), 식입즉토(食入則吐)하는 병증.
열격증(壹膈證) [병증] ⇒ 열격(噎膈)
열결(列缺)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7)로서 낙혈(絡穴), 사총혈(四總穴)에 해당.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의 하나로서 통우임맥(通于任脈)하며 손목관절 횡문위 1촌 5푼, 노뼈(요골, radius) 붓돌기(경상돌기; styloid process) 위쪽으로 긴엄지폄근(장무지신근; extensor pollicis longus)의 힘줄과 노뼈(요골; radius) 사이에 위치.
열결(熱結) [병리] : 병리 사열(邪熱)이 몰린 것.
열결방광(熱結膀胱) [병리] : 병리 열사(熱邪)가 방광을 요동하여 혈과 열이 상박하는 실증이 나타나는 것. 방광은 족태양경의 부(腑)인데 상한태양병(傷寒太陽病)이 해소되지 않고 열로 변해 이(裏)로 들어가 혈과 뒤엉켜 방광에서 울결하면 하복부가 딴딴하면서 그득하고 땅기며 소변자리(小便自利)하고 발열불오한(發熱不惡寒)하며 미친듯한 증상이 나타남.
열결위부(熱結胃腑) [변증] ⇒ 열결위장증(熱

結胃腸證)
열결위장증(熱結胃腸證) [변증] ㊐ 열결위부(熱結胃腑), 열결장위(熱結腸胃) : 병리 위장관(胃腸管)에 열이 몰린 것. 위(胃)에 열이 몰리면 실열내성(實熱內盛)하여 완복창통(脘腹脹痛), 갈희냉음(渴喜冷飮) 변비뇨적(便秘尿赤) 설홍태황조(舌紅苔黃燥) 맥활삭(脈滑數) 등의 증상과 함께 탄산조잡(呑酸嘈囃)이나 치은종통(齒齦腫痛)이 나타나고, 양명이실증(陽明裏實證)의 경우 완복창만(脘腹脹滿)하고 동통거안(疼痛拒按) 증증발열(蒸蒸發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에 열이 몰리면 주로 습열로 인한 병이 생기는데 복통하리(腹痛下利) 하리점액(下利粘液) 변농혈(便膿血) 이급후중(裏急後重) 등이 생기고 혹은 대변경(大便硬) 등의 진액이 손상된 증상이 생긴다.
열결장위(熱結腸胃) [변증] ⇒ 열결위장증(熱結胃腸證)
열결증(結熱證) [병증] : 병리 열결(熱結)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장위(腸胃)에 열이 몰리면 복통(腹痛) 대변불통(大便不通) 조열섬어(潮熱譫語) 맥침지(脈沈遲) 혹은 열결방류(熱結旁流) 등의 증이 생기고 혈분(血分)에 몰리면 축혈증(蓄血證)이 생긴다.
열결하초(熱結下焦) [병리] : 병리 주로 열이 습과 함께 하초, 즉 대장 소장 방광 등에 울결한 것. 열사(熱邪)가 하초에 울결하면 하복창통(下腹脹痛) 대변비결(大便秘結) 소변적삽(小便赤澁) 혹은 요혈(尿血)이 나타나며 심하면 소복부(小腹部)가 딴딴해지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초조불안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구(熱灸) [침구] : 침구 각종 열원(熱源)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뜸 요법.
열궐(熱厥) [병증] ㊐ 양궐(陽厥): 내과 손발에서 열이 나는 것인데, 대개 하체의 음기가 쇠약해지면 발생.
열극생풍(熱極生風) [병리] ㊐ 열성풍동(熱盛風動) : 병리 온열병의 고열기에 장열혼미(壯熱昏迷) 근맥강급(筋脈强急) 축닉(搐搦), 심하면 각궁반장(角弓反張)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 대부분 열사(熱邪)가 치성(熾盛)하여 영혈(營血)을 손상시키고 간경(肝經)을 졸여 발생. 소아고열경궐(小兒高熱驚厥), 유행성뇌척수염(流行性腦脊髓炎), B형간염(B形肝炎), 중독성이질(中毒性痢疾), 패혈증(敗血症) 등에서 흔히 보임.
열극생풍증(熱極生風證) [병증] ㊐ 열극풍동증(熱極風動證) : 병리 내풍(內風)의 하나. 사열(邪熱)의 항성(亢盛)으로 간경(肝經)을 작상(灼傷)시켜 근맥이 영양을 받지 못하고 심신(心神)이 요동된 증. 고열번갈(高熱煩渴), 면홍목적(面紅目赤), 추축구련(抽搐拘攣), 경항강직(頸項强直) 등이 주증이고, 양목상시(兩目上視), 각궁반장(角弓反張), 소변단삽(小便短澁), 대변비결(大便秘結), 신혼섬어(神昏譫語) 등이 차증이며, 설홍태황(舌紅苔黃), 맥현삭(脈弦數)하다.
열극풍동증(熱極風動證) [병증] ⇒ 열극생풍증(熱極生風證)
열기욕(熱氣浴) [치법] : 재활 뜨거운 열기로 치료하는 방법. 수(水) 치료에 비해 고온(120~280°F)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 효과는 체온상승, 진정작용, 내부 울혈경감, 근이완, 통증감소 등이며, 적응증은 관절염, 근육과 관절의 경직, 통증을 수반한 질환, 신경통, 좌상이나 염좌, 통풍, 혈액순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열기훈법(熱氣熏法) [침구] : 침구 약물을 태워서 생기는 연기나 약물을 끓일 때 생기는 증기를 몸에 쏘여서 치료하는 외치법(外治法).
열담(熱痰) [병리] ㊐ 담열(痰熱) : 병리 ① 담수(痰水)와 열이 서로 뒤엉킨 병증. 음양이 상초에서 울결하여 열이 발생하면 열기(熱氣)가 담수와 뒤엉켜 흩어지지 않으므로 몸에서 허

열이 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며 두면부에서 열이 난다. ② 화담(火痰). 번조(煩躁)하고 두면부에서 심한 열이 나며, 간혹 눈이 곪고 인후(咽喉)가 막히며 전광(癲狂) 조잡정충(嘈囃怔忡) 오뇌(懊憹)가 발생한다. ③ 담이 심(心)에 몰린 것. 그 색은 적색이고 아교처럼 엉겨 단단하며 번열심통(煩熱心痛) 구건순조(口乾脣燥) 희소(喜笑) 증상이 발생. 맥은 반드시 홍(洪)하다. ④ 평소에 담질(痰疾)을 앓은 데다 풍한기나 열성 음식물로 인해 기침을 하고 담을 뱉는 것.

열담증(熱痰證) [병증] ㉲ 담열증(痰熱證) : 병리 담음과 열이 서로 결합하여 폐를 막아 폐의 숙강기능이 실조된 병증. 담조색황(痰稠色黃), 담교결난객(痰膠結難咯), 해수천촉(咳嗽喘促), 후중담명(喉中痰鳴) 등이 주증이고, 심중번열(心中煩熱), 흉중민통(胸中悶痛), 구건인조(口乾咽燥), 소변단적(小便短赤), 대변조결(大便燥結)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舌質紅), 태황이(苔黃膩), 맥활삭(脈滑數)하다.

열독(熱毒) [병리] : 병리 ① 온독(溫毒)의 별칭으로 온병 병인의 하나. ② 화열병사(火熱病邪)가 울결하여 열이 매우 심한 것. ③ 창진(瘡疹)의 병인 중 하나.

열독상염증(熱毒上炎證) [변증] ⇒ 독옹상초증(毒壅上焦證)

열독치성증(熱毒熾盛證) [변증] : 병리 열이 매우 심하여 반진(斑疹)이 생기거나 신지(神志) 이상이 나타나는 병증.

열루(熱淚) [병증] : 안이 눈물이 많이 흐르고 눈물이 흐를 때 열감(熱感)이 있는 증상. 특히 사기(邪氣)가 실(實)한 경우 눈물이 매우 뜨겁게 느껴지는 것을 가리킴. 항상 충혈(充血), 종통(腫痛), 수명(羞明)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열리(熱痢)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열사를 감수하여 열이 대장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이질. 하혈(下血)을 하며 손발에 열이 나고 갈증이 나서 물을 자주 마신다.

열림(熱淋) [병증] : 내과 소변색이 황백즙(黃柏汁) 같고, 배뇨시(排尿時) 요도(尿道)가 열삽(熱澁)하거나 작열감(灼熱感)이 있으며, 소복구급동통(小腹拘急疼痛) 하고 혹은 오한발열(惡寒發熱)이 동반되는 병증. 임병(淋病)의 일종.

열모진음증(熱耗津陰證) [변증] : 병리 열로 인해서 진액과 장부의 음액 혹은 영음(營陰)이 손상된 병증. 구갈(口渴) 소변단적(小便短赤) 대변난(大便難)과 피부반진(皮膚斑疹) 단독(丹毒) 설홍태황(舌紅苔黃)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남.

열번(熱煩) [병증] : 소아 표리(表裏)에 모두 열이 있어 나타나는 번조(煩燥)증.

열병오십구수(熱病五十九兪) [경혈] : 경혈 열병(熱病)을 치료할 때 쓰는 59개의 주요한 경혈(經穴).

열부(熱府) [경혈] ⇒ 풍문(風門)

열비(熱痞) [병증] ㉲ 화비(火痞) : 내과 열사(熱邪)로 인해 흉만불통(胸滿不通)한 병증.

열비(熱秘) [병증] : 내과 열이 장위(腸胃)에 몰려서 생기는 변비.

열사(熱邪) [병리] ⇒ 사열(邪熱)

열사(熱瀉) [병증] ㉲ 열설(熱泄), 화설(火泄) : 내과 장부에 본래 열이 쌓여 있거나 서사(暑邪)에 상해 열이 안에 옹결(壅結)한 후 대장에 몰려 생기는 설사.

열사(熱痧) [병증] : 소아 소아사증(小兒痧症)의 하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열로 어찌할 바를 몰라 미친 듯이 날뛰며, 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마신다.

열사요법(熱沙療法) [치법] ㉲ 사욕(沙浴) : 재활 가벼운 차림으로 모래구덩이에 들어가 누워서 목 위만 내놓고 전신을 열사(熱沙)로 묻어 치료하는 방법. 이 때 환부가 저위(低位)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열상(熱傷) [병리] : 안이 고열 혹은 구열(久熱)에 의해 피부가 상하는 것.

열상기음증(熱傷氣陰證) [변증] : 병리 열이 심하여 진액과 양기가 손상된 병증.
열설(熱泄) [병증] ⇒ 열사(熱瀉)
열성풍동(熱盛風動) [병리] ⇒ 열극생풍(熱極生風)
열수(熱嗽) [병증] : 내과 서열(暑熱)에 상하여 나타나는 기침. 맥이 빠르고 번열이 나며, 입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고, 거품 침을 토하며 목이 쉬고 객혈하는 증상을 동반함.
열심통(熱心痛) [병증] : 내과 더위나 성질이 더운약을 늘 먹어서 열(熱)이 몰려 생긴 심통. 명치 부위가 불로 지지는 것처럼 몹시 아프고, 더운 것을 싫어하고 찬 것을 좋아하며, 통증이 때로 멎었다 발작했다 하는 병증.
열안(熱眼) [병증] : 안이 오륜이 돌기되고 이열(裏熱)이 있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것.
열연(熱涎) [병증] : 소아 육연(六涎)의 하나. 과로로 정기(精氣)가 손상되어 수해(髓海)가 텅 비면 허열(虛熱)이 안에서 일어나 진액(津液)을 태우므로 담연(痰涎)이 발생함.
열요법(熱療法) [치법] ㊐ 열치료(熱治療) : 재활 근육의 이완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요법으로 열이 투과되는 깊이에 따라 심부열(深部熱)과 표재열(表在熱)로 나누고 증상과 환부에 따라 응용함.
열위법(熱熨法) [침구] : 침구 약물을 데워 천에 싸거나, 약물을 먹인 천을 데워서 일정한 부위를 찜질해 주는 치료법.
열음(熱淫) [병리] ⇒ 사열(邪熱)
열입기분증(熱入氣分證) [변증] : 병리 온열사기(溫熱邪氣)가 위분(衛分)에서 기분(氣分)으로 전입한 병증.
열입심포(熱入心包) [병리] [병증] : 병리 온사(溫邪)가 화열입리(化熱入裏)하여, 고열(高熱) 신혼(神昏) 섬어(譫語) 혹은 혼침불어(昏沈不語)하는 병증. 역전심포(逆傳心包)와 증상이 대체로 같은데, 병정(病情)의 전변에 역순(逆順)의 차이가 있음.
열입영분증(熱入營分證) [변증] : 병리 사열(邪熱)이 심입(深入)하여 영음(營陰)을 치작(熾灼)하고 심신(心神)을 요란하여 일으킨 증후. 신열야심(身熱夜甚) 구건인조(口乾咽燥) 맥세삭(脈細數) 등의 증상이 나타남.
열입혈분(熱入血分) [변증] ⇒ 혈열증(血熱證)
열입혈분증(熱入血分證) [병증] ⇒ 혈열증(血熱證)
열입혈실(熱入血室) [병증] ㊐ 열입혈실증(熱入血室症) : 부인 부녀자가 월경기 혹은 산후에 허한 틈을 타 사열(邪熱)이 침입하여 혈과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증. 주로 하복부 또는 흉협부가 딴딴하고 그득하며 한열(寒熱)이 왕래하고 낮에는 정신이 맑다가 야간에 헛소리를 하고 정신이 이상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
열입혈실증(熱入血室症) [병증] ⇒ 열입혈실(熱入血室)
열재혈분(熱在血分) [변증] ⇒ 혈열증(血熱證)
열중(熱中) [병리] [병증] : 병리 ① 위화(胃火)가 치성하여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병증. ② 다음(多飮), 다뇨(多尿)하는 병증. ③ 소단(消癉). ④ 목황(目黃)이 주증인 병증. ⑤ 음식이나 노권 등으로 비위(脾胃)를 손상시켜 기허화왕(氣虛火旺)한 병증이 발생하는 것.
열(熱) [변증] ⇒ 열증(熱證)
열증(熱證) [변증] ㊐ 열(熱) : 병리 팔강(八綱)의 하나. 질병의 양상이 열(熱)의 성질에 속하는 증후. 인체 내의 음양성쇠(陰陽盛衰)는 한열(寒熱)로 나타나므로, 양성음쇠(陽盛陰衰)한 정황을 반영함. 전형적인 증상은 신열(身熱), 번조(煩燥), 면홍목적(面紅目赤), 불오한(不惡寒)하고 도리어 오열(惡熱)하며, 구건인조(口乾咽燥), 갈희음랭(渴喜飮冷), 구순건조(口脣乾燥), 대변비결(大便秘結), 소변단적(小便短赤)하며 혀는 붉고, 설태(舌苔)는 마르고 누렇거나 혹은 검다. 맥은 빠르다.

열창(熱脹) [병증] : 내과 열사(熱邪)로 인해 중만고창(中滿鼓脹)한 병증.
열치료(熱治療) [치법] ⇒ 열요법(熱療法)
열토(熱吐) [병증] 동 위열구토(胃熱嘔吐) : 소아 어린아이가 위열(胃熱)로 인하여 구토하는 것.
열통(熱痛) [병증] : 안이 열증을 동반하는 통증, 또는 열로 인한 통증. 아픈 곳의 피부에 열이 있으면서 적색을 띠고 차가운 것을 좋아함.
열학(熱瘧) [병증] : 내과 더울 때 열기(熱氣)에 심하게 감촉되어 생기는 학질.
열홍(熱烘) [치법] 동 열홍법(熱烘法), 열홍법(熱紅法) : 침구 병변(病變) 부위에 약을 바른 후 다시 불을 쬐는 외치법(外治法).
열홍법(熱紅法) [치법] ⇒ 열홍(熱烘)
열홍법(熱烘法) [치법] ⇒ 열홍(熱烘)
열효(熱哮) [병증] : 내과 열담(熱痰)이 몰려 폐기(肺氣)를 막아 발생하며 숨결이 거칠면서 가쁘고 목안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하며 기침을 하는 병증.
열훈(熱暈) [병증] : 내과 번갈인음(煩渴引飮)하면서 어지럼증이 있는 병증.
염구(鹽灸) [침구] 동 염구법(鹽灸法) : 침구 식염(食鹽)으로 제와(臍窩)를 평평하게 메우고, 그 위에 생강편(生薑片)과 애주(艾炷)를 놓고 시구(施灸)하는 뜸 요법.
염구법(鹽灸法) [침구] ⇒ 염구(鹽灸)
염담(恬淡) [예방] ⇒ 염담허무(恬憺虛無)
염담허무(恬憺虛無) [예방] 동 염담(恬淡) : 고대의 양생원칙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욕심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염유보사법(捻留補瀉法) [침구] : 침구 보사법의 일종. 침을 놓고 침감(鍼感)이 나타난 뒤에 침 자루를 비벼 자극을 주면 사법(瀉法)이 되고 꽂아 두고 비비지 않으면 보법(補法)이 됨.
염발음(捻發音) [진찰] : 재활 거칠어진 연골이 반대편 연골과 마찰할 때 또는 악화된 골관절염에서 관절면이 반대편 골부분에 스치면서 나는 소리.
염법(捻法) [침구] [추나] 동 염법(念法) : ① 침구 [침구] ⇒ 염전(捻轉). ② 추나 추나수법중의 하나. 염법은 모지와 식지의 횡문부위를 이용하여 치료 부위를 잡고, 양손가락에 대칭적으로 힘을 주어 비벼주는 수기법. 비비는 동작은 영활(靈活)하고 쾌속(快速)해야 하며 동작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함. 염법은 주로 사지와 소관절에 상용.
염법(念法) [침구] [추나] ⇒ 염법(捻法)
염상(捻傷) [병증] : 재활 외력에 의해 관절, 힘줄, 신경 등이 비틀려서 생기는 손상.
염식(厭食) [증상] ⇒ 오식(惡食)
염음(斂陰) [치법] : 음기(陰氣)를 수렴하는 치료법.
염전(捻轉) [침구] 동 전자(轉刺), 염침(捻鍼), 점침(拈鍼), 차염(搓捻), 염법(捻法), 염전법(捻轉法), 염전기법(捻轉技法) : 침구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침 자루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들이밀었다 하는 식으로 침을 비비는 자침요법.
염전기법(捻轉技法) [침구] ⇒ 염전(捻轉)
염전법(捻轉法) [침구] ⇒ 염전(捻轉)
염전보사(捻轉補瀉) [침구] 동 염전보사법(捻轉補瀉法) : 침구 침을 꽂아 득기(得氣)한 후 침을 비벼 돌리는 방향, 강도, 빈도, 횟수 등으로 보사(補瀉)를 구분하는 방법.
염전보사법(捻轉補瀉法) [침구] ⇒ 염전보사(捻轉補瀉)
염전승강행기법(捻轉升降行氣法) [침구] ⇒ 용호승강(龍虎升降)
염전제삽(捻轉提揷) [침구] : 침구 염전(捻轉)과 제삽(提揷)을 동시에 시행하는 자침요법.
염전제삽보사(捻轉提揷補瀉) [침구] : 침구 염전보사(捻轉補瀉)와 제삽보사(提揷補瀉)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
염좌(捻挫) [병증] : 재활 외력에 의해 관절, 힘

줄, 신경 등이 비틀리거나 꺾여서 생긴 폐쇄성 손상. 운동범위가 적은 슬관절, 족관절 등에 자주 생김. 해당 관절부위가 몹시 아프고 어혈이 생기며 붓고 기능장애가 온다.

염창(臁瘡) [병증] : 안이 하퇴경골부(下腿脛骨部)에서 발생되는 창증(瘡症). 홍색을 띠고 종대(腫大)되며 결가(結痂)를 형성하고 궤파(潰破)되면 자색(紫色)의 삼출물이 흐른다. 악화되면 피부가 흑색을 띠고, 기육이 궤란(潰爛)되고 근골까지도 침식(侵蝕)된다.

염천(廉泉)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23)로서 턱과 후두융기(laryngeal prominence)의 중간에 위치.

염침(捻鍼) [침구] ⇒ 염전(捻轉)

염태(染苔) [징후] 동 가태(假苔) : 진단 음식물이나 약물 등에 의해 설태(舌苔) 원래의 색이 변하는 것.

영(癭) [병증] 동 영기(癭氣) : 안이 서양의학의 갑상선 종대에 속하는 질병으로 유(瘤)와 비교하여 붉은 색을 띄며 돌기되어 있고 양적(陽的)인 것.

영(營) [생리] 동 영(榮), 영음(營陰) : 생리 ① 영기(營氣). ② 수곡(水穀)의 정기(精氣).

영(榮) [생리] ⇒ 영(營)

영구비등(靈龜飛騰) [침구] ⇒ 영구팔법(靈龜八法)

영구팔법(靈龜八法) [침구] 동 기경납괘법(奇經納卦法), 비등팔법(飛騰八法), 영구비등(靈龜飛騰) : 침구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針法)의 하나. 기경팔맥의 교회혈을 구궁수(九宮數)에 배속하고 다시 일시간지(日時干支)의 대표적인 숫자를 결합하여 계산해서 때에 따라 열리는 혈자리를 정하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영기(癭氣) [병증] ⇒ 영(癭)

영기(榮氣) [생리] ⇒ 영기(營氣)

영기(營氣) [생리] 동 영기(榮氣) : 생리 음식물에서 화생(化生)되고 비위에서 발원(發源)하여 중초로 나가 경맥을 통해 운행되는 정기(精氣). 혈액을 화생(化生)하고 혈과 함께 전신을 순환하면서 전신을 영양.

영남독무(岭南毒霧) [병리] ⇒ 산람장기(山嵐瘴氣)

영대(靈臺)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 10)로서 6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 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영도(靈道)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4)로서 경금혈(經金穴)에 해당. 팔꿈치 관절 횡문끝(자쪽; 척측)의 소해(少海-HT3)부터 손바닥쪽 손목관절 횡문(자쪽; 척측)에 있는 신문(神門)까지 1척의 골도법에 의해 손목관절 횡문의 새끼손가락쪽 위 1촌 5푼에 위치.

영류(癭瘤) [병증] : 안이 영(癭)과 유(瘤)의 합칭. 간혹 영만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 영(癭)

영분(營分) [변증] : →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영수보사(迎隨補瀉) [침구] 동 영수보사법(迎隨補瀉法) : 침구 침 끝의 방향과 경맥(經脈) 사이에 역(逆), 순(順) 관계로 보사(補瀉)를 구분하는 방법.

영수보사법(迎隨補瀉法) [침구] ⇒ 영수보사(迎隨補瀉)

영아불수(嬰兒不睡) [병증] : 소아 영아가 잠을 자지 못하는 병증.

영양각(羚羊角) [약물] 동 대비령(大鼻羚) : 본초 소과(牛科)에 속한 동물인 새가영양(賽加羚羊) *Saiga tatarica* L.의 뿔을 8~10월에 잘라 햇볕에 말린 것.

영원법(迎源法) [침구] ⇒ 적봉영원(赤鳳迎源)

영위(營衛) [생리] : 생리 영기(營氣)와 위기(衛氣)의 합칭(合稱).

영음(營陰) [생리] ⇒ 영(營)

영자석(靈磁石) [약물] ⇒ 자석(磁石)

영지(靈脂) [약물] ⇒ 오령지(五靈脂)

영지(靈芝) [약물] 동 적지(赤芝), 흑지(黑芝), 청지(靑芝), 백지(白芝), 황지(黃芝), 자지(紫芝) : 본초 구멍쟁이버섯과(多孔菌科 : Polyporaceae)에 속한 진균(眞菌)인 영지(靈芝－적지赤芝) *Ganoderma lucidum* (Leyss. ex Fr.) Karst. 및 그 근연종의 자실체.

영풍누출(迎風淚出) [병증] ⇒ 충풍누출(衝風淚出)

영풍열루(迎風熱淚) [병증] : 안이 바람을 쐬면 눈물이 자꾸 나오는 증상으로 누관 폐쇄 등에 의해 발생.

영풍유루(迎風流淚) [병증] ⇒ 충풍누출(衝風淚出)

영풍적란(迎風赤爛) [병증] ⇒ 검현적란(瞼弦赤爛)

영향(迎香)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20)로서 콧망울 중앙에서 옆으로 5푼 되는 곳으로 콧망울고랑(비익구; alar groove of external nose) 상의 위치에 위치.

영허(靈墟)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4)로서 옥당(玉堂) 양쪽 2촌에 위치.

영혈(營血) [생리] : 생리 영기(營氣)와 혈(血)의 합칭.

예(翳) [병증] : 안이 일반적으로 흑정(黑睛) 혼탁을 야기하는 외장안병(外障眼病) 및 병변이 치유된 후에 흑정에 반흔(瘢痕), 예컨대 응지예(凝脂翳), 숙예(宿翳) 등이 남는 것을 가리킴.

예기(穢氣) [병리] ⇒ 악기(惡氣)

예독(銳毒) [병증] : 안이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에 속하는 우이후(右耳後) 1촌 3푼 고골(高骨)후, 즉 후두골 외후두 결절의 외방으로 함요처에서 발생하는 옹저.

예막(翳膜) [병증] : 안이 흑정(黑睛)부분의 질환으로 인해 마치 막처럼 반흔(瘢痕) 조직에 의해 가리워진 상태를 이름.

예명(翳明) [기혈]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이수후방(耳垂後方)에서 취혈하고 삼초경(三焦經)의 예풍(翳風) 후방 1촌에 위치.

예악지기(穢惡之氣) [병리] ⇒ 악기(惡氣)

예저(銳疽) [병증] ⇒ 관구저(鸛口疽)

예중(銳中) [경혈] ⇒ 신문(神門)

예지자(預知子) [약물] : 본초 으름덩굴과(木通科 : Lardizabalaceae)에 속한 낙엽 전요등본(纏繞藤本)인 으름덩굴 *Akebia quinata* Decne의 성숙한 과실을 8~9월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것.

예풍(翳風)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17)로서 귓불(이수; lobule)과 꼭지돌기(유양돌기; mastoid process) 사이의 오목한 곳에 위치.

오가피(五加皮) [약물] : 본초 두릅나무과(五加科 : Arali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오갈피 *Acanthopanax sessiliflorus* (Rupr. et Max.) Seem.와 세주오가(細柱五加) *A. gracilistylus* W.W. Smith. 및 동속 근연식물의 근피(根皮)인데,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오간(五癎) [병증] : 정신 간병(癎病)의 총칭으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음. ① 가축의 소리와 병태에 근거하여 명명한 오종(五種) 간병(癎病)을 말함. 마간(馬癎);작마시명 응호심(作馬嘶鳴 應乎心), 양간(羊癎);작양규성 응호비(作羊叫聲 應乎脾), 계간(鷄癎);작계규성 응호간(作鷄叫聲 應乎肝), 저간(猪癎);작저규성 응호신(作猪叫聲 應乎腎), 우간(牛癎);작우규성 응호폐(作牛叫聲 應乎肺)[濟生方]. 견간(犬癎), 양간(羊癎), 우간(牛癎), 계간(鷄癎), 저간(猪癎)[小兒藥證直訣]. 간질발작에 있어서 돌연 졸도할 때 단규성(短叫聲)을 지르는 특징이 있는데, 그 모습이 각기 환자에 따라 오축(五畜)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나눔. ② 오장간(五臟癎)을 가리킴. 간간(肝癎); 면청요두희경 작계명상(面靑搖頭喜驚

作鷄鳴狀), 심간(心癎); 면적구장요두 마시(面赤口張搖頭 馬嘶), 비간(脾癎); 면황하리토설양후(面黃下痢吐舌 羊吼), 폐간(肺癎); 면백토말복장 우후(面白吐沫腹張 牛吼), 신간(腎癎); 면흑직시여시 저규(面黑直視如尸 猪叫)[醫學入門]. ③ 풍간(風癎), 식간(食癎), 경간(驚癎), 담간(痰癎), 음간(陰癎) 등 다섯 가지를 가리킴.

오감(五疳) [병증조] 동 오장감(五臟疳) : 소아 5가지 감증(疳證)의 총칭. 오장감(五臟疳)을 말함.

오결(五決) [진찰] ⇒ 오맥(五脈)

오경(五硬) [병증] : 소아 두항경(頭項硬), 흉복경(胸腹硬), 수경(手硬), 족경(足硬), 기육경(肌肉硬)으로 해당 부위가 강경(僵硬)하여 굴신이 불리한 병증.

오경당설(五更溏泄) [병증] ⇒ 오경설사(五更泄瀉)

오경사(五更瀉) [병증] ⇒ 오경설사(五更泄瀉)

오경설(五更泄) [병증] ⇒ 오경설사(五更泄瀉)

오경설사(五更泄瀉) [병증] 동 오경설(五經泄), 오경당설(五更溏泄), 오경사(五更瀉) : 내과 매일 오경(五更)에 장명설사(腸鳴泄瀉)하는 병증.

오경수(五更嗽) [병증] ⇒ 신수(晨嗽)

오경해(五更咳) [병증] ⇒ 신수(晨嗽)

오곡(五穀) [기타] : 원전 인체를 자양하는 5가지 곡식. 일반적으로 벼 · 깨 · 콩 · 보리 · 기장 등을 말하지만 다른 설도 있음.

오공(蜈蚣) [약물] : 본초 왕지네과(蜈蚣科 : Scolopendridae)에 속한 동물인 왕지네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의 충체(蟲體)를 건조한 것.

오과(五果) [기타] : 원전 대추 · 오얏 · 살구 · 밤 · 복숭아 등 5가지 과실을 말함. 인체를 자양함에 있어 오곡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는 성질이 있음.

오관(五官) [생리] : 생리 오장에 배속되어 있는 코 · 눈 · 입 · 혀 · 귀 등의 다섯 기관.

오금희(五禽戲) [기공] : 재활 동물의 동작을 모방하여 만든 고대의 체조. 後漢書 〈華陀傳〉에 처음 등장하는데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를 본떠 만들었다.

오기(五氣) [생리] [병리] : 생리 ① 목(木) · 화(火) · 토(土) · 금(金) · 수(水)의 오행(五行) 또는 오운(五運)의 기운. ② 조(燥) · 초(焦) · 향(香) · 성(腥) · 부(腐)의 다섯 가지 냄새. ③ 노(怒) · 희(喜) · 사(思) · 우(憂) · 공(恐)의 다섯 가지 정서.

오뇌(懊憹) [증상] 동 심중오뇌(心中懊惱) : 내과 흉격간에서 일종의 소작조잡감(燒灼嘈雜感)을 자각하는 증상.

오달(五疸) [병증] : 내과 5가지 황달. ① 황달(黃疸), 곡달(穀疸), 주달(酒疸), 여로달(女勞疸), 황한(黃汗). ② 황달(黃疸), 곡달(穀疸), 주달(酒疸), 여로달(女勞疸), 흑달(黑疸).

오동자대(梧桐子大) [약물] ⇒ 오자대(梧子大)

오두(烏豆) [약물] ⇒ 흑두(黑豆)

오라(烏癩) [병증] : 안이 처음에는 피부가 흑색으로 변하면서 은진(癮疹)과 같이 나타나는데, 벌레가 기어가는 것과 같이 가렵고, 수족의 감각이 둔해져서 침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는 질환. 악풍(惡風)이 침범하여 열을 일으키고 이 열이 울결되어 혈액을 소모하여 발생.

오란(五亂) [병증] : 정신 장부경맥(臟腑經脈)의 기가 역란(逆亂)하여 발생하는 병증. 素問 〈五亂〉에서 "기(氣)가 심(心)에서 역란(逆亂)하면 심번(心煩)하고 침묵하여 말을 하지 않으며 머리가 숙여지고 움직이기 싫어한다. 기가 폐(肺)에서 역란하면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하고 기침을 할 때 걸걸한 소리가 나며 손으로 흉부를 누르면서 호흡한다. 기가 장위(腸胃)에서 역란하면 토사곽란(吐瀉癨亂)이 발생하고, 기가 비부(臂部)와 족경부(足脛部)에서 역란하면 사지궐랭(四肢厥冷)이 발생하며, 기가 두부(頭部)에서 역란하면 기가 상역(上逆)하여

두부가 무겁고 어지러워 쓰러진다."고 하였다. 素問 〈宣明五氣論〉에서는 "사기(邪氣)가 양분(陽分)에 침입하면 광병(狂病)이 발생하고, 음분(陰分)에 침입하면 비증(痺證)이 발생하며, 양맥(陽脈)에 침입하면 전질(癲疾)이 발생하며, 음맥(陰脈)에 침입하면 음아(瘖痙)가 발생하며, 사기가 양분에서 음분으로 들어가면 조용해지고, 음분에서 양분으로 들어가면 화(火)를 잘 내는데, 이를 오란(五亂)이라 한다."고 하였다.

오령지(五靈脂) [약물] 동 영지(靈脂) : 본초 날쥐과(鼯鼠科 : Petauristidae)에 속한 동물인 날쥐 *Trogopterus xanthipes* (Milne Edwards)의 분변(糞便)으로, 전년(全年)에 걸쳐 채취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오로(惡露) [병리] : 부인 분만 후 자궁 속에 남아 있는 여혈(餘血)과 탁액(濁液). 일반적으로 산후 2~3주 이내에 완전히 배출됨. 만약 2~3주가 지나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 그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병태에 속한다.

오로(五勞) [병증] 동 오로증(五勞證) : 내과 심로(心勞)·간로(肝勞)·비로(脾勞)·폐로(肺勞)·신로(腎勞)로, 허로증의 하나.

오로부절(惡露不絶) [병증] 동 오로부절증(惡露不絶證) : 부인 일반적으로 산후에는 오로가 2~3주간 지속된 후 완전히 배출되는 것이 생리적이나 만약 2~3주가 지나도 오로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병태에 속하며 이를 오로부절(惡露不絶)이라 함.

오로부절증(惡露不絶證) [병증] ⇒ 오로부절(惡露不絶)

오로불하(惡露不下) [병증] 동 오로불하증(惡露不下證) : 부인 태반이 배출되고 난 이후 2~3주간 오로가 배출되어야 하나 포궁 내에 혈이 정체하여 전혀 나오지 않거나 소량만 나오며 소복동통을 동반하는 경우.

오로불하증(惡露不下證) [병증] ⇒ 오로불하(惡露不下)

오로증(五勞證) [병증] ⇒ 오로(五勞)

오륜(五輪) [진찰] : 진단 안이 육륜(肉輪)·혈륜(血輪)·기륜(氣輪)·풍륜(風輪)·수륜(水輪)의 합칭. 안부(眼部)의 조직구조와 생리·병리현상 등을 설명하는데 활용. 안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근거로 삼는다.

오림(五淋) [병증] : 내과 5가지 임병(淋病)을 총괄한 명칭. ①열림(熱淋) 고림(膏淋) 노림(勞淋) 기림(氣淋) 석림(石淋). ②열림(熱淋) 혈림(血淋) 석림(石淋) 냉림(冷淋) 고림(膏淋).

오매(烏梅) [약물] 동 흑오매(黑烏梅)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낙엽소교목인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 et Zuccarini의 덜 익은 과실을 채취하여 매연으로 훈증한 것. 오매(청매靑梅)를 40℃ 내외의 저온으로 2~3시간 불에 쬐어 건조하되 일반적으로 과육이 황갈색을 띠면서 주름이 생길 때까지 말린 다음 2~3일 뚜껑을 덮고 열을 가하여 흑색으로 변한 것을 거핵(祛核)하여 사용. 또는 볏짚이나 왕겨를 태우는 매연 속에서 훈증하여 흑색이 되도록 건조하여 거핵(祛核)하고 사용.

오맥(五脈) [진찰] 동 오결(五決) : 진단 오장(五臟)의 맥(脈). 간맥(肝脈)은 현(弦)하고, 심맥(心脈)은 구(鉤)하며, 비맥(脾脈)은 대(代)하고, 폐맥(肺脈)은 모(毛)하며, 신맥(腎脈)은 석(石)한 것을 오장(五臟)의 맥(脈)이라 함.

오미(五味) [약물] : 본초 약물이 가지고 있는 산(酸), 고(苦), 감(甘), 신(辛), 함(鹹)의 다섯 가지 맛. 과거 선인들은 미(味)는 단순히 구강 내의 미각세포를 통해서 느끼는 맛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약물이 가지고 있는 작용을 오미를 통해 인식하려 하였음. 즉, 산미(酸味)는 주로 아물게 하고 수렴하는 작용이 있으며, 고미(苦味)는 열을 내리고 수습(水濕)을 몰아내는

작용이 있고, 감미(甘味)는 자양하고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신미(辛味)는 땀을 나게 하여 발산시키고 기를 잘 돌게 하는 작용이 있고, 함미(鹹味)는 굳은 것을 유연하게 하고 마른 것을 녹여주는 작용이 있다.

오미자(五味子) [약물] : 본초 오미자과(五味子科 : Schisandraceae)에 속한 낙엽 목질등본인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on의 완숙한 과실로, 서리가 내린 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또는 증숙(蒸熟)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이외에 남오미자南五味子)라 하여 화중오미자(華中五味子) *S. sphenanathera* Rehd. et Wils.도 사용한다.

오미침법(五微鍼法) [침구] : 침구 신(神), 기(氣), 혈(血), 형(形), 지(志)의 태과(太過)와 부족(不足)으로 인한 경증(輕證)을 치료하는 자침법(刺鍼法).

오배자(五倍子) [약물] : 본초 옻나무과(漆樹科 : Anacardiaceae)에 속한 낙엽 소교목인 붉나무 *Rhus chinensis* Mill.의 잎 날개에 오배자진드기 *Melaphis chinensis* (Bell) Baker가 기생하여 만들어진 충영(蟲癭), 또는 청부양(靑麩楊) *Rhus potaninii* Maxim.의 소엽배상(小葉背上)에 배단아(倍蛋蚜) *Melaphis peitan* Tsai et Tang의 기생, 혹은 홍부양(紅麩楊) *Rhus punjabensis* Stew. var. *sinica* (Diels) Rehd. et Wils.의 소엽배상(小葉背上)에 단철배아(蛋鐵倍蚜) *Kaburagia ovogallis* Tsaj et Tang.가 기생하여 만들어진 충영(蟲癭). 입추(立秋)로부터 백로(白露) 전에 벌레집의 외벽이 청색으로부터 황갈색으로 변할 때 채취하여 끓는 물에 넣어 약간 삶는다든가 또는 겉 표면이 회색으로 될 때까지 쪄서 내부에 아충(蚜蟲)이 죽으면 꺼내어 쇄건(曬乾)하여 사용. 두배(肚倍)와 각배(角倍)로 분류한다.

오부(五府) [생리] : 생리 오장과 표리관계에 있는 담・소장・위・대장・방광의 다섯 장부.

오불남(五不男) [병증] : 부인 명대(明代) 만전(萬全)의 광사기요(廣嗣記要)에 기재된 내용으로, 생식기관의 선천적인 기형이나 기타 병변으로 인해 남자에게 생식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킴. 즉, 천(天), 루(漏), 겁(怯), 건(犍), 변(變)을 말함. 천이란 천환(天宦)으로서 선천적인 외생식기 혹은 고환의 결함 및 이차성징의 발육부전을 가리킨다. 루란 정액이 항상 저절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겁이란 음경이 발기되지 않는 양위(陽痿)를 말한다. 건이란 음경 혹은 고환이 절제된 것을 말한다. 변이란 남녀의 성기를 모두 가진 것으로 속칭 음양인(陰陽人)을 말한다.

오불녀(五不女) [병증] : 부인 여자가 선천적인 생리결함으로 생식기능을 상실한 다섯 가지 병증으로 나(螺), 문(文), 시화두(豉花頭), 각화두(角花頭), 맥(脈)을 말함. 나(螺)는 소라모양의 주름이 질 바깥에서부터 내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질이 안으로 말려서 마치 소라모양과 같은 것을 말한다. 문(文)은 문(紋)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이 작아 마치 젓가락의 끄트머리만 하여 통기(通氣)하기는 하지만 교합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이는 석녀(石女)라고도 한다. 시화두는 질 입구가 팽팽하여 마치 구멍이 없는듯 한 것이고 각화두는 음핵이 마치 뿔처럼 뾰족한 것이며, 맥은 월경이 14세가 되지 않아서 이르거나 15~16세가 되어서야 이르거나, 혹은 순조롭지 않거나 전무한 것으로 월경불순을 말한다.

오비(五痺) [병증] : 내과 사기(邪氣)의 침입부위와 비병(痺病)의 발생부위에 따라 비증을 나눈 것. 근비(筋痺) 맥비(脈痺) 피비(皮痺) 골비(骨痺) 기비(肌痺).

오사(五邪) [병리] : 병리 ① 오장병사(五臟病邪)의 합칭. ② 중풍(中風) 상서(傷暑) 음식노권(飮食勞倦) 상한(傷寒) 중습(中濕)의 다섯 가지 병인. ③ 허사(虛邪) 실사(實邪) 적사(賊邪)

미사(微邪) 정사(正邪)의 오행속성과 유관한 다섯 가지 병인. ④ 청사(淸邪), 탁사(濁邪), 대사(大邪), 소사(小邪), 음식사기(飮食邪氣).

오색(五色) [진찰] : 진단 오장(五臟)의 병변(病變) 및 각종 증후가 다섯 가지 병색(病色)으로 반영되는 것.

오색대하(五色帶下) [병증] : 부인 대하를 색에 따라 구분한 것. 청대하, 적대하, 황대하, 백대하, 흑대하를 말하며, 각각 간, 심, 비, 폐, 신의 장기가 손상되어 발생한다고 하였다.

오색리(五色痢) [병증] : 소아 여러 가지 색의 피고름이 섞여 나오는 이질. 예후가 나쁨. 허증과 실증의 구분이 있는데, 실증은 대부분 설사를 너무 일찍 그치게 했거나 완전히 내려 보내지 못해 열독(熱毒)이 장에 머물러 얽혀 발생하고, 허증은 이증(痢證)이 오래되어 장기가 손상되어 비(脾)와 신(腎)이 상하여 발생한다.

오색화(五色花) [병증] : 안이 다섯 가지 안화(眼花), 즉 청화(靑花), 적화(赤花), 황화(黃花), 백화(白花), 흑화(黑花)를 말함.

오선(五善) [진찰] 동 오선증(五善證) : 진단 안이 ① 창양(瘡瘍)의 예후를 판단하는 방법의 하나. 호흡이 편안하고 음식 맛을 아는 것이 '일선(一善)'이고, 대변이 순조롭고 규칙적인 것이 '이선(二善)'이며, 부기가 빠지고 화농(化膿)하되 고름의 색이 선명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삼선(三善)'이고, 정신이 맑고 말이 뚜렷한 것이 '사선(四善)'이며, 체기(體氣)가 조화로운 것이 '오선(五善)'이다. 창양(瘡瘍)환자에게 오선(五善)이 나타나면 순증(順證)으로서 쉽게 치료된다. ② 옹저의 예후가 좋은 경우로 간선(肝善)·심선(心善)·비선(脾善)·폐선(肺善)·신선(腎善)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오선증(五善證) [진찰] ⇒ 오선(五善)

오성(五聲) [생리] : 생리 오장에 배속되어 있는 호(呼)·소(笑)·가(歌)·곡(哭)·신(呻)의 다섯 가지 소리.

오손(五損) [진찰] 동 오패증(五敗症) : 진단 증후명(證候名)으로 마풍독사(痲風毒邪)가 내장(內臟)에 침입한 중증(重症)을 가리킴. 눈이 먼저 손상되면 독(毒)이 심(心)에 있고, 얼굴에 자색(紫色) 포진(疱疹)이 생기면 독(毒)이 간(肝)에 있으며, 전신에 버짐 같은 것이 생기면 독(毒)이 비(脾)에 있고, 눈썹이 먼저 떨어지면 독(毒)이 폐(肺)에 있으며, 발바닥에 먼저 구멍이 생기면 독(毒)이 신(腎)에 있다.

오수배혈법(五兪配穴法) [침구] : 침구 오수혈(五腧穴)의 치료특징에 의해 혈자리를 가려서 배합하는 방법.

오수유(吳茱萸) [약물]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ceae)에 속한 낙엽관목 혹은 소교목인 오수유 *Evodia rutaecarpa*(Juss.)Benth., 석호(石虎) *E. rutaecarpa* Benth. var. *officinalis* Hunang 혹은 모맥오수유(毛脈吳茱萸) *E. rutaecarpa* Benth. var. *bodinieri* Huang의 미성숙 과실. 8~10월에 녹갈색이 되고 심피(心皮)가 갈라지기 전에 채취하여 미화(微火)로 배건(焙乾)한 후 사용.

오수혈(五輸穴) [경혈] 동 오수혈(五兪穴) : 경혈 12경맥 각각의 사지(四肢) 주슬(肘膝)이하에 존재하는 정(井), 형(滎), 수(兪), 경(經), 합(合)의 다섯 개의 특정 혈위. 사지말단(四肢末端)으로부터 주슬(肘膝)방향으로 배열하여 있고 맥기(脈氣)가 소(小)로부터 대(大)로, 천(淺)으로부터 심(深)으로, 원(遠)으로부터 근(近)으로 된다. 정혈(井穴)은 심하만(心下滿)을 주하고, 형혈(滎穴)은 신열(身熱)을 주하고, 수혈(兪穴)은 체중절통(體重節痛)을 주하고, 경혈(經穴)은 천해한열(喘咳寒熱)을 주하고, 합혈(合穴)은 역기이설(逆氣而泄)을 주한다.

오수혈(五兪穴) [경혈] ⇒ 오수혈(五輸穴)

오식(惡食) [증상] 동 염식(厭食) : 내과 식욕저하로 음식섭취를 하지 못하는 상태.

오신(五神) [생리] : 생리 오장에 배속되어 있는 혼(魂)·신(神)·의(意)·백(魄)·지(志)의 다섯 가지 정신활동.
오심(惡心) [증상] 동 범오(泛惡) : 내과 구역(嘔逆)이 나면서도 토(吐)하지 못하고 청연(淸涎) 혹은 산수(酸水)가 범일(泛溢)되는 증상.
오심번열(五心煩熱) [병증] 동 오심열(五心熱) : 내과 손발바닥과 가슴에 열감을 느끼는 증.
오심열(五心熱) [병증] ⇒ 오심번열(五心煩熱)
오십동(五十動) [진찰] : 진단 진맥(診脈) 방법으로서 맥(脈)이 50회 가량 뛸 때까지 살핌으로써 맥상(脈象)을 변별하고, 그 중에 촉(促)·결(結)·대맥(代脈)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
오액(五液) [생리] : 생리 오장에 배속되어 있는 누(淚)·한(汗)·연(涎)·체(涕)·타(唾)의 다섯 가지 체액.
오약(烏藥) [약물] 동 천태오약(天台烏藥) : 본초 녹나무과(樟科 : Lauraceae)에 속한 상록관목인 오약 *Lindera strychnifolia* (Sieb. et Zucc.) Vill.의 괴근(塊根)으로, 겨울과 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오연(五軟) [병증] : 소아 선천적으로 신기(腎氣)가 부족하고 기혈(氣血)이 불충분해 골맥(骨脈)과 근육의 발육이 더디고 약한 병증. 두연(頭軟), 항연(項軟), 수연(手軟), 각연(脚軟), 기육연(肌肉軟)을 말함.
오열(五噎) [병증] : 정신 기열(氣噎), 우열(憂噎), 식열(食噎), 노열(勞噎), 사열(思噎)의 다섯 열증(噎證). 모두 음양의 부조화로 삼초의 기가 막힘으로 인해 진액이 운행하지 못하거나, 근심이나 노여움으로 인해 발생함. 기열(氣噎)은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고 장기가 순조롭지 못하여 냉기가 심(心)에 몰려서 발생하는데, 심계(心悸), 기천(氣喘), 흉배냉통(胸背冷痛)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열(思噎)은 심계(心悸), 건망(健忘) 및 눈이 가물거리는 것으로, 이는 모두 근심하거나 성낸데다 한기(寒氣)가 상부의 흉격(胸膈)으로 침입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열(惡熱) [증상] : 내과 열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하는 증상.
오운(五運) [운기] : 원전 천지의 오행운동(五行運動)을 일으키는 운행능력으로 주운(主運)과 객운(客運)으로 나뉨. 토운(土運)·금운(金運)·수운(水運)·목운(木運)·화운(火運)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운은 매년 일정하고 객운은 그 해의 천간(天干)에 따라 한 운(運)씩 번갈아 든다.
오울(五鬱) [병증] : 정신 목울(木鬱)·화울(火鬱)·토울(土鬱)·금울(金鬱)·수울(水鬱) 등 다섯 가지 울증(鬱證)의 총칭.
오위(五痿) [병증] : 내과 5가지 위증(痿證). 맥위(脈痿), 근위(筋痿), 피위(皮痿), 육위(肉痿), 골위(骨痿).
오음(五音) [기타] : 생리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가지 음.
오자(五刺) [침구] 동 오장자(五臟刺) : 침구 오장병증(五臟病證)에 따라 깊이를 달리하는 자침요법(刺鍼療法). 반자(半刺), 표문자(豹紋刺), 관자(關子), 합곡자(合谷刺), 수자(輸刺).
오자대(梧子大) [약물] 동 오동자대(梧桐子大) : 환제 유형의 일종. 옛날에는 환제의 크기를 보통 오자대(梧子大)로 만들었는데, 약물을 분말한 것에 꿀 등의 결합제를 섞어서 오동나무 씨앗 크기만 하게 빚는 것을 말함. 오자대 1환의 무게는 0.3~0.4g 정도 됨.
오장(五臟) [생리] [해부] : 생리 심(心)·간(肝)·비(脾)·폐(肺)·신(腎) 다섯 장기의 합칭.
오장간(五臟癎) [병증] : 정신 간간(肝癎), 심간(心癎), 비간(脾癎), 폐간(肺癎), 신간(腎癎)의 오종 간증(癎證). 간간이 발생하면 면청(面靑), 양목상시(兩目上視), 수족요동(手足搖動) 증상이, 심간이 발생하면 면적(面赤), 심하발열(心下發熱), 단기식미(短氣息微) 증상이, 비

ㅇ

간이 발생하면 면황(面黃), 복부창대(腹部脹大), 선리(善痢) 증상이, 폐간이 발생하면 면목(面目)이 백색을 띠고 연말(涎沫)을 토(吐)하며, 신간이 발생하면 면흑(面黑), 직시(直視), 강직(强直) 증상이 나타난다. → 간병(癎病)

오장감(五臟疳) [병증] ⇒ 오감(五疳)

오장병증(五臟病證) [병증] : 오장(五臟)에서 발생하는 병증의 총칭.

오장비(五臟痺) [병증] : 내과 간비(肝痺), 심비(心痺), 비비(脾痺), 폐비(肺痺), 신비(腎痺) 등 오장의 비증(痺證)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

오장소오(五臟所惡) [생리] : 생리 오장을 손상시키기 쉽기 때문에 오장이 싫어하는 사기(邪氣). 간오풍(肝惡風)·심오열(心惡熱)·비오습(脾惡濕)·폐오한(肺惡寒)·신오조(腎惡燥).

오장소장(五臟所藏) [생리] : 생리 인체가 오장의 정기(精氣)를 물질적 기초로 하여 발현하는 신지(神志)활동. 심장신(心藏神)·폐장백(肺藏魄)·간장혼(肝藏魂)·비장의(脾藏意)·신장지(腎藏志).

오장소주(五臟所主) [생리] : 생리 오장의 기능과 연계된 인체 부위. 간주근(肝主筋)·심주맥(心主脈)·비주육(脾主肉)·폐주피모(肺主皮毛)·신주골(腎主骨).

오장수(五臟水) [병증] : 내과 오장을 중심으로 한 수종(水腫)의 분류법. 간수(肝水) 심수(心水) 비수(脾水) 폐수(肺水) 신수(腎水).

오장열(五臟熱) [병증] : 소아 간열(肝熱), 심열(心熱), 비열(脾熱), 폐열(肺熱), 신열(腎熱).

오장울증(五臟鬱證) [병증] : 정신 장부의 본기(本氣)가 울결(鬱結)되어 발생하는 병증. (證治彙補 〈五臟鬱證〉에서 "본기(本氣)가 울결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기(心氣)가 울결되면 혼미(昏迷)·건망(健忘)이 발생하고, 간기(肝氣)가 울결되면 협부창만(脇部脹滿)·애기(噯氣)가 발생하며, 비기(脾氣)가 울결되면 중초가 창만(脹滿)하여 소화되지 않고, 폐기(肺氣)가 울결되면 건해(乾咳)·무담(無痰)하며, 신기(腎氣)가 울결되면 요부(要部)가 뻐근하고 탁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며 오래서 있지 못하고, 담기(膽氣)가 울결되면 입안이 쓰고 오후에 열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하다."고 하였다. → 심울(心鬱), 간울(肝鬱), 폐울(肺鬱), 비울(脾鬱), 신울(腎鬱)

오장자(五臟刺) [침구] ⇒ 오자(五刺)

오장적(五臟積) [병증] : 내과 오장 적증(積證)의 총칭. 간적(肝積)을 비기(肥氣), 심적(心積)을 복량(伏梁), 비적(脾積)을 비기(痞氣), 폐적(肺積)을 식분(息賁), 신적(腎積)을 분돈(賁豚)이라 함.

오장해(五臟咳) [병증] : 내과 해수(咳嗽)의 오장별 분류. 간해(肝咳) 심해(心咳) 비해(脾咳) 폐해(肺咳) 신해(腎咳).

오적(五積) [병증] : 내과 간적(肝積) 심적(心積) 비적(脾積) 폐적(肺積) 신적(腎積).

오적골(烏賊骨) [약물] ⇒ 해표초(海螵硝)

오전(五癲) [병증] : 정신 양전(陽癲), 음전(陰癲), 풍전(風癲), 습전(濕癲), 마전(馬癲) [巢氏諸病源候論 卷二]. 양전(陽癲)은 "發時如死人, 遺溺, 有頃乃解". 음전(陰癲)은 "坐初生小時, 臍瘡未癒, 數洗浴, 因此得之". 풍전(風癲)은 "發時眼目相引牽, 縱反急强, 羊鳴, 食頃方解, 由熱作汗出當風, 因以房室過度, 醉欲飽滿行事, 令心氣逼迫, 短氣脈悸得之". 습전(濕癲)은 "眉頭痛, 身重坐熱, 沐髮濕結, 腦汗未止得之". 마전(馬癲)은 "發時反目口噤, 手足相引, 身皆熱, 坐小時膏氣腦熱不和得之". 이들의 증상은 간병(癎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전(癲)과 간(癎)은 증상은 엄연히 다르나 병인은 같기 때문이다.

오절자법(五節刺法) [침구] : 침구 영추(靈樞)·자절진사(刺節眞邪)에 나오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진애(振埃), 발몽(發蒙), 거조(去爪), 철의(徹衣), 해혹(解惑).

오정(五精) [생리] : 생리 오장에 저장되어 생명 활동에 사용되는 정기(精氣). 간장혈(肝藏血)·심장신(心藏神)·비장영(脾藏營)·폐장기(肺藏氣)·신장정(腎藏精).

오정(烏睛) [진찰] ⇒ 흑정(黑睛)

오조(惡阻) [병증] 동 임신오조(姙娠惡阻) : 내과 임신 초기에 속이 메슥거리거나 토하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병증.

오주(五走) [생리] : 생리 오미(五味)가 오장으로 귀입(歸入)하는 관계.

오주(烏珠) [진찰] ⇒ 흑정(黑睛)

오주동인(烏珠瞳人) [진찰] ⇒ 흑정(黑睛)

오지(五遲) [병증] : 소아 어린아이의 5가지 발육이 늦는 병증. 입지(立遲), 행지(行遲), 발지(髮遲), 치지(齒遲), 어지(語遲)를 말함. 소아의 오지증(五遲證)은 대부분 부모의 기혈(氣血)이 허약하여 선천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것이니, 모두 신기(腎氣)가 부족한 까닭이다.

오지(五志) [생리] : 생리 오장의 기능 활동과 연계된 희노사우공(喜怒思憂恐)의 다섯 가지 정서변화.

오지과극화화(五志過極化火) [병리] : 병리 정지(情志)의 변화로 기기(氣機)가 울체되고, 울체가 오래되어 화열(化熱), 화화(化火)하게 되는 병리 변화. 모두 실화(實火)에 해당.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 [치법] : 정신 인체는 외계환경이나 정서적인 자극을 받으면 인체 오장신(五臟神)의 기기(氣機)가 역란(逆亂)해져 희(喜)·노(怒)·사(思)·우(憂)·비(悲)·공(恐)·경(驚)의 정서적인 병변이 생기게 되는데, 오장신(五臟神)의 생(生), 극(克), 승(乘), 모(侮) 이론을 심리치료에 이용하는 한방정신요법.

오체(五體) [생리] : 생리 오장의 기능과 연계된 인체 부위. 간주근(肝主筋)·심주맥(心主脈)·비주육(脾主肉)·폐주피모(肺主皮毛)·신주골(腎主骨).

오초사(烏梢蛇) [약물] : 본초 유사과(遊蛇科 : Colbridae)에 속한 척삭동물(脊索動物)인 오초사(烏梢蛇) *Zaocys dhumnades* (Cantor)의 건조체로, 여름과 가을에 포획하여 내장과 사피(蛇皮)를 제거하고 원반상(圓盤狀)으로 만들어 건조해서 사용.

오추(五樞)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7)로서 대맥(帶脈) 아래 3촌, 관원(關元) 위 2푼에서 양쪽 7촌에 위치.

오취(五臭) [생리] : 생리 오장에 배속되어 있는 조초향성부(臊焦香腥腐)의 다섯 가지 냄새.

오태(五態) [진찰] 동 오태인(五態人), 오태지인(五態之人) : 진단 內經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상이한 유형의 체질. 사람의 형태, 근골(筋骨)의 강약, 기혈(氣血)의 성쇠(盛衰)에 근거하여 태음지인(太陰之人)·소음지인(少陰之人)·태양지인(太陽之人)·소양지인(少陽之人)·음양화평지인(陰陽和平之人)으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질병을 진단하여 치료하는데 참조한다.

오태인(五態人) [진찰] ⇒ 오태(五態)

오태지인(五態之人) [진찰] ⇒ 오태(五態)

오패증(五敗症) [진찰] ⇒ 오손(五損)

오풍(五風) [병리] : 안이 청풍(靑風), 녹풍(綠風), 흑풍(黑風), 오풍(烏風), 황풍(黃風)의 오종 내장(內障). 그 병인은 녹풍내장(綠風內障)과 같다. 각 색풍(色風)은 동공(瞳孔)에 나타나는 색깔의 차이에 따라 명명한 것.

오풍(烏風) [병증] : 안이 눈앞에 오화[烏花–흑화(黑花)]가 나타나고 안광(眼眶)과 비양(鼻梁), 미골(眉骨)이 산통(酸痛)하며 백정(白睛)에 청색 두립(豆粒)과 같은 것이 보이는 병증. 청풍(靑風), 녹풍(綠風)에 비해 병이 중함.

오풍(惡風) [증상] 동 외풍(畏風) : 내과 바람을 싫어하는 증상.

오하(誤下) [병리] : 병리 사하(瀉下)해서는 안 되는 병증에 사하법(瀉下法)을 잘못 사용한 것.

오한(惡寒) [증상] 동 외한(畏寒) : 내과 냉기를

싫어하는 증상.
오행(五行) [기타] : 생리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에서 추상한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다섯 가지 속성.
오행초(五行草) [약물] ⇒ 마치현(馬齒莧)
오행침(五行鍼) [침구] 동 오행침법(五行鍼法), 오행침술(五行鍼術), 오행침자법(五行鍼刺法) : 침구 음양오행의 상생(相生)과 적사(賊邪) 관계를 주슬관절(肘膝關節) 이하에 분포한 십이경맥(十二經脈) 오수혈의 오행(五行) 속성과 결합하여 경락간(經絡間) 기혈(氣血)의 허실(虛實)과 성쇠(盛衰)를 조정하여 음양(陰陽) 평형을 이루는 침자법(鍼刺法).
오행침법(五行鍼法) [침구] ⇒ 오행침(五行鍼)
오행침술(五行鍼術) [침구] ⇒ 오행침(五行鍼)
오행침자법(五行鍼刺法) [침구] ⇒ 오행침(五行鍼)
오혈(汚血) [병리] [병증] ⇒ 어혈(瘀血)
오회(五會) [경혈] ⇒ 인영(人迎)
옥당(玉堂) [경혈] 동 옥영(玉英)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8)로서 천돌(天突)에서 전중(膻中)까지 5 등분하여 전중(膻中) 위 1/5 되는 곳에 위치.
옥루맥(屋漏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박이 한참 있다가 한 번 뛸 뿐만 아니라 간헐적이고 불규칙하게 뛰어 마치 집에 물이 새는 듯한 것을 말함.
옥미수(玉米鬚) [약물] ⇒ 옥촉서예(玉蜀黍蕊)
옥비(玉榧) [약물] ⇒ 비자(榧子)
옥시(玉豉) [약물] ⇒ 지유(地楡)
옥어(玉御) [치법] ⇒ 식구법(拭口法)
옥영(玉英) [경혈] ⇒ 옥당(玉堂)
옥예(屋翳)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5)로서 두 번째 갈비뼈 아래, 자궁(紫宮) 양쪽 4촌에 위치.
옥예부만(玉翳浮滿) [병증] 동 옥예차정(玉翳遮睛) : 안이 미만성 표층 각막염(瀰蔓性表層角膜炎). 흑정(黑睛)에 광택이 있는 백예(白翳)가 미만(瀰蔓)하여 옥예(玉翳)라 칭하며 치료하기 어렵다.
옥예차정(玉翳遮睛) [병증] ⇒ 옥예부만(玉翳浮滿)
옥정저(玉頂疽) [병증] ⇒ 백회저(百會疽)
옥죽(玉竹) [약물] ⇒ 위유(萎蕤)
옥천(玉泉) [경혈] ⇒ 중극(中郄)
옥촉서예(玉蜀黍蕊) [약물] 동 옥미수(玉米鬚)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옥수수 *Zea mays* L.의 화주(花柱)로 6~9월에 채취.
옥침(玉枕)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9)로서 뇌호(腦戶) 양쪽 1촌 3푼에 위치.
옥침저(玉枕疽) [병증] : 안이 옥침골첨상(玉枕骨尖上)의 뇌호혈(腦戶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옥해(玉海) [생리] ⇒ 방광(膀胱)
옥호(玉戶) [경혈] ⇒ 천돌(天突)
옥환수(玉環兪) [경혈] ⇒ 백환수(白環兪)
온(溫) [병리] : 병리 온열(溫熱)의 속성을 통칭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괄한다. ① 기후가 따뜻하거나 무더운 것. ② 온사(溫邪)로써 온병(溫病)의 병인. ③ 증상의 하나. ④ 온열병(溫熱病)의 약칭. 풍온(風溫), 춘온(春溫), 서온(暑溫), 습온(濕溫) 등. ⑤ 봄에 발생하는 열성(熱性) 질병. 약한 열상(熱象)을 띠거나 혹은 봄에 발병하는 온역류(溫疫類)의 병증과 동일하다.
온간(溫肝) [치법] ⇒ 난간(暖肝)
온개법(溫開法) [치법] : 방제 개규법(開竅法)의 하나. 즉 온규법(溫竅法)을 말함. 한습탁담(寒濕濁痰)이 심포(心包)를 가로막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 혼미를 치료하는 방법임. 예를 들어 중풍으로 인해 갑자기 혼절하여 인사불성(人事不省), 안면청백(顔面淸白), 수족랭(手足冷), 맥침(脈沈)한 경우는 소합향환을 사용한다.
온경(溫經) [치법] : 침구 경맥(經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온경락요법(溫經絡療法) [치법] : 재활 경락과 경혈을 따뜻하게 하여 이와 관련된 내부 장기 및 각종 기관에 일반적인 온열효과는 물론, 경락을 통하게 하는 조건을 얻기 위한 치료법. 물을 이용하는 방법, 전기로 발생시킨 전환열을 이용하는 방법 및 광선의 파장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나눈다.

온구(溫灸) [침구] : 침구 온구기(溫灸器)를 이용한 뜸 요법.

온구기(溫灸器) [침구] : 침구 뜸 요법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온달(瘟疸) [병증] : 내과 여러 가지 외감 급성 열병인 온병(瘟病)에서 나타나는 황달.

온독(溫毒) [병리] : 병리 임상 증상이 강렬한 온병 혹은 강렬한 온사의 뜻. 일반적으로는 온열(溫熱)의 독사(毒邪–강렬한 사기)를 감수하여 발생하는 급성 열병을 의미하는데, 그 증상은 일반적인 급성 열병 증상 외에 국소의 홍종열통(紅腫熱痛), 심즉궤란(甚則潰爛), 혹 기부(肌膚)의 현저한 반진(斑疹)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대두온(大頭瘟), 난후사(爛喉痧), 자시(痧腮) 등의 온열성 질병이 포함됨.

온류(溫溜)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7)로서 극혈(郄穴)에 해당하고 양계(陽谿)와 곡지(曲池)를 잇는 가정선의 중간점에 위치.

온리법(溫裏法) [치법] : 방제 속을 따뜻하게 하여 장부의 생리기능을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방법. 이러한 경우 부자, 육계, 건강, 인삼, 감초 등 온열지제를 배합하여 처방으로 활용을 한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이중탕이나 부자이중탕, 부양조위탕, 소건중탕, 건리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온법(溫法) [치법] 동 거한법(祛寒法), 거한(祛寒) : 방제 8법(八法)의 하나. 온열약(溫熱藥)으로 한증(寒證)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리킴.

온병(溫病) [병리] 동 온열병(溫熱病) : 병리 외감 열병을 총칭하는 말. 온사[溫邪–온열병사(溫熱病邪)]로 인해 발병하며 발열을 주증으로 하고 열상(熱象)이 편중되어 쉽게 화조상음(化燥傷陰)하는 특징을 가진 급성 외감 열병의 한 유형 혹은 계통. 외감 열병 중 풍한성(風寒性)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모든 급성 외감 열병이 온병의 범주에 속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풍온(風溫), 춘온(春溫), 서온(暑溫), 습온(濕溫), 추조(秋燥), 복서(伏暑), 대두온(大頭瘟), 난후사(爛喉痧) 등이 있다.

온보(溫補) [치법] : 방제 보법의 일종. 온성(溫性)을 가진 보익약으로 허한증(虛寒證)을 치료하는 방법.

온보명문(溫補命門) [치법] : 방제 장양보화(壯陽補火)하는 약물로 비신(脾腎)의 양기를 회복시키는 방법.

온비(溫脾) [치법] : 방제 온중 거한법(溫中祛寒法)의 일종. 온보약(溫補藥)으로 비위허한(脾胃虛寒)을 치료하는 방법.

온사(溫邪) [병리] 동 온열사(溫熱邪), 온열병사(溫熱病邪) : 병리 여러 가지 온병(溫病)을 일으키는 사기(邪氣)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용례에 따라 육음온사(六淫溫邪–풍열(風熱), 서열(暑熱), 습열(濕熱), 조열(燥熱), 복한화온(伏寒化溫), 화사(火邪) 등), 역려(疫癘–전염성이 강한 것), 온독(溫毒–임상 증상이 강렬한 온병을 일으키는 것) 등으로 구분.

온사(瘟痧) [병증] : 내과 사증(痧證)의 하나. 한기(寒氣)가 맺혀서 기부(肌膚)와 혈육(血肉)에 숨어 있다가 봄이 되면 발하여 온증(溫證)이 되는 병증.

온사침습폐위(溫邪侵襲肺胃) [변증] : 병리 온사(溫邪)에 의해 폐기(肺氣)의 선발숙강(宣發肅降)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위(胃)의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

온사침습폐위증(溫邪侵襲肺胃證) [변증] : 병리

온사(溫邪)에 의하여 폐기(肺氣)의 선발숙강(宣發肅降) 작용과 위(胃)의 소화기능이 실조되어 나타나는 병증. 해수(咳嗽)하거나 천해기촉(喘咳氣促)하며 상역(上逆), 소변난(小便難), 신체동통(身體疼痛), 애역(呃逆), 탄산(呑酸), 오심(惡心) 등의 증이 나타난다.

온신(溫腎) [치법] 동 난신(暖腎), 온신양(溫腎陽), 온신장양(溫腎壯陽), 온신조양(溫腎助陽) : 방제 보양법(補陽法)에 속함. 즉 온신약물(溫腎藥物)로 보신조양(補腎助陽)하는 방법.

온신양(溫腎陽) [치법] ⇒ 온신(溫腎)

온신장양(溫腎壯陽) [치법] ⇒ 온신(溫腎)

온신조양(溫腎助陽) [치법] ⇒ 온신(溫腎)

온역(溫疫) [병리] : 병리 온열한 성질을 가진 사기에 의해 발생한 역병(疫病).

온열(溫熱) [병리] : 재활 병인. 온사(溫邪) 혹은, 열사(熱邪)와 같다. 또한 사기가 경미한 것을 온(溫)이라 하고 엄중한 것을 열(熱)이라 하며, 서서히 감수한 것을 온이라 하고 급작스럽게 발작하는 것을 열이라 하며, 겨울과 봄에 감수한 것을 온이라 하고 여름에 감수한 것을 열이라 한다.

온열병(溫熱病) [병리] ⇒ 온병(溫病)

온열병사(溫熱病邪) [병리] ⇒ 온사(溫邪)

온열사(溫熱邪) [병리] ⇒ 온사(溫邪)

온열요법(溫熱療法) [치법] : 재활 물리치료법의 하나. 손상부위나 치료부위에 따뜻한 열 자극을 가하여 손상부위의 재생, 혈액 순환의 원활화 등을 돕는 치료법.

온위이강음(溫胃而降陰) [사상] : 사상 소음인 이병(裏病)인 태음증(太陰證)에 적용되는 치법. 태음증은 소음인의 복창(腹脹) 하리(下利) 증상에 입이 마른 증상이 없는 경우(無口渴)로 위중(胃中)의 따뜻한 기운이 대장(大腸)의 차가운 기운을 이기면서 설사하게 된다. 이는 이(裏)에는 병이 있고 표(表)에는 병이 없는 것을 뜻한다. 태음증의 대표적 처방으로는 곽향정기산, 향사양위탕, 강출관중탕 등이 있다. → 태음증

온조(溫燥) [병리] 동 온조증(溫燥證) : 병리 가을철에 조사(燥邪)를 감수하여 온병이 된 것 중 열에 치우친 것. 양조(凉燥)와 상대되는 말. 초기에는 대부분 신열두통(身熱頭痛) 건해무담(乾咳無痰)하며 간혹 끈적거리는 소량의 담을 뱉고 기가 상역하여 숨이 차며 인후건통(咽喉乾痛) 비건순조(鼻乾脣燥) 심번구갈(心煩口渴)하고 설태(舌苔)가 얇고 희면서 건조하며 혀의 가장자리가 모두 붉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조증(溫燥證) [병리] ⇒ 온조(溫燥)

온천요법(溫泉療法) [치법] 동 온천욕(溫泉浴) : 재활 지열(地熱)로 땅 속에서 평균 기온 이상의 온도로 데워져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온천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 東醫寶鑑에 "각종 풍증(風症)으로 인한 근골연축과 피부완비(皮膚完痺), 수족불수(手足不遂), 대풍(大風), 개선(疥癬)이 있을 때 이 물로 목욕한다. 온천물에서 유황 냄새가 나기 때문에 풍증이나 냉증을 치료하는데 좋다."고 하였다.

온천욕(溫泉浴) [치법] ⇒ 온천요법(溫泉療法)

온침(溫鍼) [침구] 동 온침구(溫鍼灸), 소침자(燒鍼刺), 온침법(溫鍼法), 온침요법(溫鍼療法) : 침구 침병(鍼柄)에 애주(艾炷) 등의 연소열(燃燒熱)을 가하는 침법.

온침구(溫鍼灸) [침구] ⇒ 온침(溫鍼)

온침법(溫鍼法) [침구] ⇒ 온침(溫鍼)

온침요법(溫鍼療法) [침구] ⇒ 온침(溫鍼)

온통구(溫筒灸) [침구] 동 뜸통뜸, 통구(筒灸) : 침구 특수 제조한 금속구구(金屬灸具) 속에 애융(艾絨)과 약물을 넣고 점화 후 시술 부위를 온위(溫熨)하는 뜸 요법.

온폐(溫肺) [치법] 동 온폐산한(溫肺散寒) : 폐한증(肺寒證)을 치료하는 방법.

온폐산한(溫肺散寒) [치법] ⇒ 온폐(溫肺)

온하(溫下) [치법] ⇒ 온하법(溫下法)
온하법(溫下法) [치법] 동 온하(溫下) : 방제 하법(下法)의 하나. 성질이 더운 설사약만 쓰거나 아니면 성질이 더운 설사약과 찬 설사약을 같이 써서 대변을 나오게 하여 적체를 없애는 방법. 예를 들면 위장에 찬 기운이 몰려 있어서 대변이 나오지 못해 배가 그득하면서 단단하고 손발이 차며 맥이 침지한 이실한증(裏實寒證) 증상이 나타날 때는 온하법(溫下法)으로 성질이 더운 설사약인 파두상을 쓰거나 성질이 더운약인 부자·세신과 성질이 찬 설사약인 대황을 섞어서 쓰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처방은 삼물비급환, 대황부자탕이다.
온학(溫瘧) [병증] 동 역학(疫瘧), 장학(瘴瘧) : 내과 먼저 열이 나고 나서 오한하거나 또는 오한은 나지 않고 단지 열만 나는 병증으로 먼저 풍사(風邪)에 상하고 나중에 한사(寒邪)에 상하여 나타나는 학질.
온화구(溫和灸) [침구] 동 온화구법(溫和灸法) : 침구 ① 완만한 화력으로 불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뜨는 뜸의 보법. ② 점화된 뜸 막대를 시술 부위의 피부 표면과 1촌 정도 떨어지게 하여 뜨거운 느낌만 들게 하는 뜸 요법.
온화구법(溫和灸法) [침구] ⇒ 온화구(溫和灸)
옴 [병증] ⇒ 개창(疥瘡)
옹(癰) [병증] 동 옹증(癰證) : 안이 종양의 표현이 홍(紅)·종(腫)·고(高)·기(起)하고 흔열동통(炊熱疼痛)한 것으로 저(疽)에 비하여 양실(陽·實)한 경우에 해당함.
옹신창(壅腎脹) [병증] ⇒ 충저(衝疽)
옹저(癰疽) [병증] : 안이 ① 창면(瘡面)이 얕으면서 큰 것은 옹(癰)이고, 창면이 깊으면서 모진 것은 저(疽)이다. 기혈이 독사(毒邪)에 의해 가로막혀 기육(肌肉)과 근골(筋骨) 사이에 창종(瘡腫)이 발생하는 것이다. ② 창양(瘡瘍)의 크기를 형용한 것이다. 종기가 1~2촌까지는 절(癤)이고, 2~5촌까지는 옹(癰)이며, 5촌~1척까지는 옹저(癰疽)이다.
옹증(癰證) [병증] ⇒ 옹(癰)
옻나무껍질 [약물] ⇒ 칠피(漆皮)
와롱자(瓦壟子) [약물] ⇒ 와릉자(瓦楞子)
와류욕(渦流浴) [치법] 동 소용돌이욕(소용돌이浴) : 재활 상하지(上下肢) 또는 전신치료를 위하여 탱크에다 치료에 알맞은 온도의 물을 담고 교반기를 작동시켜 물 맛사지를 하는 방법. 외상, 말초신경 손상, 말초혈관 장애, 유착증, 화상, 욕창, 관절염, 염좌 등을 치료하는데 적용.
와릉자(瓦楞子) [약물] 동 와롱자(瓦壟子), 괴합(魁蛤), 감(蚶) : 본초 꼬막조개과(魁蛤科 : Arcidae)에 속한 연체동물인 꼬막 *Tegillarca granosa* Linné 또는 기타 동속조개의 껍질로서,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에 채취하여 니토(泥土)를 제거하고 세정한 다음 끓는 물에 대략 삶은 뒤 육질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사용.
와벽(喎僻)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와벽불수(喎僻不遂)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와사풍(喎斜風)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와상(瓦霜) [약물] ⇒ 와송(瓦松)
와송(瓦松) [약물] 동 작엽하초(昨葉荷草), 와상(瓦霜) : 본초 돌나물과(景天科 : Crassulaceae)에 속한 다년생 육질초본인 바위솔 *Orostachys japonica* A. Berger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전초(全草)로 여름,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와위(臥位) [기타] : 재활 체위명(體位名). 누운 자세를 말함. 앙와위(仰臥位)·부와위(俯臥位)·측와위(側臥位)의 세 가지로 나눔.
와태(臥胎) [병증] ⇒ 태부장(胎不長)
완(喎) [병증] ⇒ 해역(咳逆)
완과침술(腕踝鍼術) [침구] 동 완과침요법(腕踝鍼療法) : 침구 완관절(腕關節)에 있는 6개의 자침경혈(刺鍼經穴)을 응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시술방법.

ㅇ

완과침요법(腕踝鍼療法) [침구] ⇒ 완과침술(腕踝鍼術)

완관절발신법(腕關節拔伸法) [치법] : 재활 시술자가 한 손으로 환자의 전완 하단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환자의 손을 잡아서 양방향으로 협조적으로 힘을 가하는 수기법.

완담(頑痰) [병리] ⇒ 울담(鬱痰)

완두대(豌豆大) [약물] : 방제 환제 유형의 하나. 환약을 완두콩 크기만 하게 빚는 것을 말함.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0.1~0.3g이며, 환약의 평균 직경은 7mm 정도임.

완맥(緩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일종. 한 번 호흡할 때 4번 이르는 것으로 완만하게 오는 맥(脈)을 말함. 맥(脈)이 올 때 조화롭고 고르면 정상적인 맥(脈)이며, 맥(脈)이 올 때 이완(弛緩)되어 느슨하면 병맥(病脈)이다.

완비(頑痺) [병증] : 내과 피부에 감각이 없는 병증.

완선(頑癬) [병증] ⇒ 풍선(風癬)

완실무병(完實無病)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 나오는 용어로 각 체질별 육체적 건강조건을 말하는 것. 태양인은 소변이 잘 배출되는 것이 건강의 지표이고, 소양인은 대변이 시원스레 나가면 건강하며, 태음인은 땀이 시원스레 잘 배출되면 건강하고, 소음인은 음식이 잘 소화되면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완옹(腕癰) [병증] : 안이 수완배면(手腕背面)에서 발생하는 옹저.

완저(緩疽) [병증] : 안이 소복양방(小腹兩傍)에서 발하는 옹저. 단단하고, 불홍불열(不紅不熱)하나 요퇴부가 당기면서 아프다.

완풍(緩風) [병증] ⇒ 각기(脚氣)

완하수(腕下垂) [병증] : 재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손목이 아래로 쳐져 배측(背側) 굴곡이 안 되는 상태.

왕래한열(往來寒熱) [병증] ⇒ 한열왕래(寒熱往來)

왕불류(王不留) [약물] ⇒ 왕불류행(王不留行)

왕불류행(王不留行) [약물] 동 불류행(不留行),

왕불류(王不留) : 본초 석죽과(石竹科 : Caryophyllace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인 장구채 *Melandrium firmum* Rohrbach 및 그 밖의 동속근연식물의 열매가 익었을 때의 지상부이다.

외(煨) [포제] : 본초 한약 포제법(炮製法)의 일종. 약재를 축축한 밀가루로 싸서 뜨거운 활석분(滑石粉) 속에 파묻어 외피가 초황색을 띨 정도로 굽거나, 여러 겹의 종이에 싸서 구움으로써 치료에 이롭지 못한 유지(油脂)와 자극성 휘발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예를 들면 외목향(煨木香) 등이다.

외감(外感) [병리] : 병리 병인 분류의 일종. 육음(六淫)이나 역려(疫癘) 등의 외사를 감수한 것.

외감병(外感病) [병리] 동 외감병증(外感病證) : 병리 외감에 의한 질병, 병증. 병사(病邪)가 인체의 피모기부(皮毛肌膚)나 입, 코 등을 통해 외부에서 침입하면 초기에는 대개 오한발열(惡寒發熱) 및 상기도(上氣道) 증상이 나타난다.

외감병사(外感病邪) [병리] ⇒ 외감병인(外感病因)

외감병인(外感病因) [병리] 동 외감병사(外感病邪) : 병리 외감을 일으키는 육음(六淫)과 역려(疫癘)의 사기(邪氣). → 외감육음(外感六淫)

외감병증(外感病證) [병리] ⇒ 외감병(外感病)

외감온병(外感溫病) [병리] ⇒ 신감(新感)

외감요척병(外感腰脊病) [사상] ⇒ 태양인외감요척병(太陽人外感腰脊病)

외감요통(外感腰痛) [병증] : 재활 외사를 감수하여 발생하는 요통. 중요한 것은 풍습요통(風濕腰痛), 한습요통(寒濕腰痛), 습열요통(濕熱腰痛)의 세 종류이며, 이 밖에 풍요통(風腰痛), 풍한요통(風寒腰痛), 풍열요통(風熱腰痛), 습요통(濕腰痛) 등도 외감요통(外感腰痛)에 속한다.

외감육음(外感六淫) [병리] : 병리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화(火) 6종의 병사를 총칭. 일반적으로 육기(六氣)가 태과 불급하거나 혹은 제철이 아닐 때 나타나서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발병인자로서의 육기를 말함. 육음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체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병원체의 증식을 조장하므로 실제로는 일부 유행성병과 전염병의 병인을 포괄함. 육음은 입과 코 혹은 피부로부터 인체로 침입하는데 모두 외부로부터 침입하여 표증(表證)을 야기하므로 외감육음(外感六淫)이라고도 한다. 발병에 비교적 뚜렷한 계절성이 있어서 봄에는 풍병(風病), 여름에는 서병(暑病), 가을에는 조병(燥病), 겨울에는 한병(寒病)이 많다.

외감육음병증(外感六淫病證) [병증] : 병리 ① 풍사(風邪) : ㉠대부분 인체의 양(陽)부위에 침범. ㉡발병이 급격하고 변화가 빠르며 병위가 일정하지 않음. ㉢"풍은 모든 병의 우두머리이다." ㉣풍사는 쉽게 전변. ; ② 한사(寒邪) : ㉠한사속표(寒邪束表) ㉡한상양기(寒傷陽氣) ㉢한성응체(寒盛凝滯) ㉣한주수인(寒主收引) ; ③ 서사(暑邪) : ㉠계절성을 뚜렷이 가짐. ㉡서열이 울결되면 독이 되어 창양(瘡瘍)을 일으킴. ㉢서열화조(暑熱化燥) ; ④습사(濕邪) : ㉠습성중탁(濕性重濁) ㉡습성점체(濕性粘滯) ㉢습사조체기기(濕邪阻滯氣機) ㉣습사이상양기(濕邪易傷陽氣) ㉤습성하추(濕性下趨) ; ⑤조사(燥邪) : ㉠조승즉건(燥勝卽乾) 이상진액(易傷津液) ㉡조열상진(燥熱傷津) 심즉손음(甚卽損陰) ㉢조이범폐(燥易犯肺) ㉣조사치병급간(燥邪致病及肝) ; ⑥화사(火邪) : ㉠화는 양사이므로 열상을 나타냄. ㉡화성(火性)은 염상(炎上)하므로 쉽게 심신(心神)을 요란케 함. ㉢쉽게 모진상기(耗津傷氣)함. ㉣화사(火邪)는 쉽게 간풍(肝風)을 일으킴. ㉤쉽게 동혈(動血)함. ㉥화사(火邪)가 독(毒)으로 변하면 창양(瘡瘍)이 많이 생김.

외감해수(外感咳嗽) [병증] : 내과 풍(風), 한(寒), 열(熱), 조(燥) 등의 외사에 의해 발병된 기침. 발병은 급하고 병의 과정은 비교적 짧으며, 풍한(風寒)해수, 풍열(風熱)해수, 풍조(風燥)해수로 분류.

외과저(外踝疽) [병증] ㊎ 각괴독(脚拐毒) : 안이 외과(外踝)주위(삼양경)에서 발생하는 옹저.

외과첨(外踝尖) [기혈] : 경혈 하지부(下肢部)의 기혈로서 족외과고점상(足外踝高點上)에 위치.

외관(外關)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5)로서 극혈(郤穴)에 해당. 팔꿈치에서 손목관절 손등쪽 중앙의 양지(陽池)까지 1척의 골도법으로 양지(陽池) 위 2촌 부위, 자뼈(척골; ulna)과 노뼈(요골; radius)의 두 뼈 사이 손등쪽 중간에 위치.

외구(外勾) [경혈] ⇒ 복토(伏兎)

외구(外丘)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6)로서 극혈(郤穴)에 해당.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위 7촌 정강쪽(경골측)에 위치.

외노궁(外勞宮)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수배부 제 2, 3 수지 본절(本節: meta-carpophalangeal joint)의 사이 후방(後方) 5푼 함요처에 위치.

외릉(外陵)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6)로서 음교(陰交) 양쪽 2촌에 위치.

외반(外反) [기타] : 재활 족부에서 발 길이를 축으로 하여 발바닥이 외측을 향하는 움직임을 말함.

외상(外傷) [병리] : 병리 물리적, 화학적 손상을 포함한 외부 자극에 의한 창상(創傷)을 말함. 창상에는 창탄상(槍彈傷), 금인상(金刃傷), 질타손상(跌打損傷), 지중노상(持重努傷) 및 화상(火傷), 동상(凍傷), 충수교상(蟲獸咬傷) 등을 포괄.

외선(外旋) [기타] : 재활 관상면을 기준으로 바깥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외유취(外乳吹) [병증] : 부인 안이 유옹(乳癰)의 일종. 산후에 발생한 유옹. 외유취에 대응하여 임신 중에 발생한 유옹은 내유취라 함.

외인(外因) [병리] : 병리 질병은 정허사실(正虛邪實)할 때 발병하게 되는데, 이 때 질병발생의 조건이 되는 '사기실(邪氣實)'을 외인(外因)이라 함. → 병인(病因)

외자(外眥) : [진찰] 진단 눈의 외측(귀쪽)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만나 연결된 부위.

외장(外障) [병증] : 안이 동신(瞳神) 이외에 포검(胞瞼), 양자(兩眥), 백정(白睛), 흑정(黑睛)의 안병(眼病)을 통틀어 일컫는 말.

외전(外轉) [기타] : 재활 관상면을 기준으로 정중면에서 바깥으로 멀어지는 것.

외전외선수법(外轉外旋手法) [추나] : 재활 추나기법. 요추의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환자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의사는 환자의 액와부 아래 쪽으로 팔을 끼워 역시 손을 깍지 낀다. 환자의 머리 쪽을 향하는 팔의 팔꿈치로 환자의 어깨를 밀고 환자의 다리쪽에 있는 팔의 팔꿈치로 환자의 골반을 당긴다. 저항 가동점까지 끌고 가서 약간 힘을 가하여 교정한다.

외증(外蒸) [병리] : 병리 병의 근원이 비(脾)에 있음. 본래 양성(陽盛)한 사람이 습사곤비(濕邪困脾)케 되면 기기피곤(氣機被困)하고 기울구이화열(氣鬱久而化熱)하여 습열곤비(濕熱困脾)하고 외증(外蒸)의 증상이 나타난다.

외증(外證) [진찰] : 진단 병이 환자의 체표(體表)에 나타나는 것. 주로 망진(望診)·문진(問診)을 통하여 병후(病候)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내증(內證)'과 상대되는 말이다.

외추(外樞) [경혈] ⇒ 유도(維道)

외취(外取) [치법] ⇒ 외치(外治)

외취유옹(外吹乳癰) [병증] : 부인 수유기에 유즙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유옹(乳癰). 유옹 중 가장 흔하며 보통 산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초산부에게 많음.

외측안정성검사(外側安定性檢查) [진찰] : 재활 정형외과 검사법. 외측 측부인대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슬관절이나 주관절의 외측 측부인대에 스트레스를 주는 내반시키는 힘을 가하여 검사한다.

외치(外痔) [병증] : 항문의 치선(齒線) 아래에서 발생하는 치질(痔疾).

외치(外治) [치법] 동 외취(外取), 외치법(外治法) : 안이 재활 약물을 내복하는 것 이외의 체표(體表)나 체외(體外)에서 시행하는 치료방법을 통칭한 것.

외치법(外治法) [치법] ⇒ 외치(外治)

외치핵(外痔核) [병증] : 안이 항문의 치선 바깥쪽에 결절이 생기는 항문병.

외풍(畏風) [증상] ⇒ 오풍(惡風)

외풍(外風) [병리] : 병리 일반적으로 외감(外感) 풍사(風邪)를 가리킴. 질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풍(內風)과 상대되는 개념.

외한(畏寒) [증상] ⇒ 오한(惡寒)

외한범위증(外寒犯胃證) [병증] ⇒ 위한증(胃寒證)

요(搖) [침구] [추나] ⇒ 요법(搖法)

요고통(腰股痛) [병증] ⇒ 요퇴통(腰腿痛)

요고통(腰尻痛) [병증] : 재활 요부의 통증이 고부(尻部)까지 파급되는 것. 고(尻)는 척골의 말단을 가리킨다. 요고통(腰尻痛)은 신(腎)과 독맥(督脈)이 허한(虛寒)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요공(腰孔) [기혈] ⇒ 십칠추(十七椎)

요급(尿急) [증상] : 내과 요의급박(尿意急迫)한 것으로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지 못하고, 즉시 소변을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

요기(腰奇) [기혈]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혈로서 두 번째 엉치뼈(천골; sacrum) 아래에

위치.
요두법(搖頭法) [침구] ⇒ 백호요두법(白虎搖頭法)
요량증가(尿量增加) [증상] ⇒ 다뇨(多尿)
요료(腰膠) [기혈] ⇒ 십칠추(十七椎)
요배통(腰背痛) [병증] : 재활 요부의 동통이 배부(背部)에까지 파급되는 것. 대부분 신기(腎氣)가 허약한데다 풍한사(風寒邪)가 침입하여 발생.
요법(搖法) [침구] [추나] 동 요(搖) : ① 침구 침을 뽑을 때 침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 ② [추나] 동 요황법(搖晃法) : 추나 추나 수법중의 하나. 시술자가 환자의 지체(肢體) 원위단을 잡고 관절을 축으로 돌려주거나, 선회시키거나, 요동시키거나, 굴신시키는 동작. 요법은 두경부(頭頸部), 요부(腰部) 및 사지의 대, 소관절(大, 小關節)에 시술할 수 있다. 작은 부위에서 작은 폭으로 돌려주는 것을 운법(運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厘正按摩要術에서는 "運則行之, 謂四面旋轉環境而運動也, 宜輕不宜重, 宜緩不宜急"이라고 조작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요법은 인체 각 부위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 厘正按摩要術에서는 "搖則動之,… 可以活經絡, 可以和氣血"하고, 아울러 유착된 관절을 풀어주고, 경련을 완화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법은 각 관절의 신, 구손상(新・舊損傷), 관절산통(關節酸痛) 및 기능장애에 적용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근육마비・위축・요배부의 만성적인 피로손상, 풍습병(風濕病) 및 장위창만(腸胃脹滿)에 비교적 좋은 치료효과가 있다. 관절의 부위에 따라 경부요법(頸部搖法), 견관절요법(肩關節搖法), 고관절요법(股關節搖法), 족관절요법(足關節搖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손을 이용하여 상반된 방향이나 동일 방향으로 힘을 주어 순간 교정하는 반법(扳法) 등이 함께 활용된다.
요부사반법(腰部斜搬法) [추나] ⇒ 사반법(斜搬法)
요불금(尿不禁) [증상] ⇒ 소변불금(小便不禁)
요불리(尿不利) [증상] ⇒ 소변불리(小便不利)
요빈(尿頻) [증상] 동 빈뇨(頻尿), 소변빈삭(小便頻數), 소변삭(小便數) : 내과 배뇨 횟수가 잦은 것으로, 성인(成人)의 경우 배뇨횟수가 4~6회 이상인 상태.
요산(腰酸) [병증] 동 요산(腰痠) : 요배부(腰背部)가 시큰거리면서 불편한 것.
요산(腰痠) [병증] ⇒ 요산(腰酸)
요삽(尿澁) [증상] : 내과 소변의 배출이 시원치 않고 잔뇨감(殘尿感)을 갖는 상태.
요상(尿床) [병증] : 소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자리에 소변을 싸는 병증.
요색(夭色) [징후] ⇒ 악색(惡色)
요수(腰兪) [경혈] 동 요호(腰戶)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로서 네 번째 엉치뼈(천골; sacrum) 아래에 위치.
요실금(尿失禁) [증상] ⇒ 소변불금(小便不禁)
요안(腰眼) [기혈]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혈로서 네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방 각 3촌 8푼에 위치.
요양관(腰陽關)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3)로서 네 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요유여력부진(尿有餘瀝不盡) [증상] ⇒ 소변여력(小便餘瀝)
요의(腰宜) [기혈]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혈로서 네 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방 3촌에 위치.
요저(夭疽) [병증] : 안이 족소양담경에 속하는 좌이후(左耳後) 1촌 3푼 고골(高骨) 후, 즉 후두골(後頭骨) 외후두(外後頭) 결절의 외방 함요처에서 발생하는 옹저.
요저(髎疽) [병증] : 안이 수태양소장경의 견정혈(肩貞穴)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견노(肩臑)가 구급(拘急)하여 팔을 들지 못한다.

요적(溺赤) [증상] ⇒ 요적(尿赤)
요적(尿赤) [증상] 동 뇨적(溺赤) : 내과 소변이 붉은 색을 띄는 증상.
요척관절양측배열불대칭(腰脊關節兩側配列不對稱) [병증] : 재활 요추 및 부근 관절의 양쪽 배열이 서로 대칭이 되지 않은 것.
요척통(腰脊痛) [병증] : 재활 요추 및 부근의 동통. 대개 삐었거나 어혈이 정체하였거나 풍한습사(風寒濕邪)가 경락에 침입하였거나 과로로 신(腎)이 손상됨으로 인해 발생.
요추부교정(腰椎部矯正) [추나] : 재활 측와위 요추회전신전법, 측와위 요추교정법 등 추나기법을 이용하여 요부 근육의 긴장, 척추 소관절 증후군, 요추의 후방 변위 및 회전 변위를 바로 잡아 주는 방법.
요충(蟯蟲) [병리] : 병리 인체에 기생하는 9충(九蟲)의 하나. 형태가 매우 가늘고 작다. 장의 아래쪽에서 기생하며 야간에는 항문에서 산란(産卵)하므로 항문이 몹시 가렵다.
요침(搖鍼) [침구] : 침구 침을 놓은 다음 한 손으로 혈자리를 고정하고 침 자루를 이리저리 흔드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요통(腰痛) [증상] : 재활 요부동통.
요통점(腰痛點)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완관절(腕關節; carpal joint) 횡문(橫紋) 전 1촌 제 2, 4 신지근건(伸指筋腱; extensor tendon) 자뼈쪽에 위치.
요퇴통(腰腿痛) [병증] 동 요고통(腰股痛) : 재활 요퇴부에 동통이 발생하는 것.
요폐(尿閉) [증상] ⇒ 소변불통(小便不通)
요포(尿胞) [생리] ⇒ 방광(膀胱)
요혈(溺血) [병증] ⇒ 수혈(溲血)
요혈증(尿血證) [병증] ⇒ 수혈(溲血)
요호(腰戶) [경혈] ⇒ 요수(腰兪)
요황법(搖晃法) [추나] ⇒ 요법(搖法)
요후여력부진(尿後餘瀝不盡) [증상] ⇒ 소변여력(小便餘瀝)
욕득수안(欲得手按) [징후] ⇒ 희안(喜按)
욕로(蓐勞) [병증] 동 산후욕로(産後褥癆), 산후로(産後癆), 산후허리(産後虛羸), 산후허로(産後虛勞) : 부인 산후허약으로 인해 숨이 차고 한열(寒熱)이 왕래하며 마치 학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는 산욕기에 나타나는 발열(發熱)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산욕기 감염과 유사함.
욕매(欲寐) [증상] : 내과 자꾸 잠을 자려고 하는 병증.
욕서(溽暑) [병증] ⇒ 서습(暑濕)
욕아법(浴兒法) [치법] : 소아 갓난아기를 목욕시키는 방법. 갓 태어난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이 함으로써 피부병과 창절(瘡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에는 복숭아나무, 홰나무, 뽕나무, 매화나무, 버드나무의 가지를 끓인 물을 이용했으며, 바람이 없는 곳을 택하여 적당 시간 동안 목욕시킨다. 목욕물에 약간의 돼지 쓸개즙을 넣으면,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 아니라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청열해독(淸熱解毒)하므로 창양(瘡瘍)을 예방할 수 있다.
욕창(蓐瘡) [병증] : 소아 아기가 갓 태어나서 7일이 될 때까지 태독으로 몸에 부스럼이 생기는 것. 얼굴과 팔다리에 나타나며, 점차 퍼지면 아이가 울며 젖을 먹지 못하게 된다.
욕풍(褥風) [병증] ⇒ 산후파상풍(産後破傷風)
용골(龍骨) [약물] : 본초 큰 포유동물의 화석화된 뼈. 주로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포유동물인 상류(象類) 혹은 삼지마(三趾馬), 공룡(恐龍), 우류(牛類), 마류(馬類) 등의 골격화석(骨格化石)을 기원으로 한다.
용뇌(龍腦) [약물] 동 빙편(冰片) : 본초 용뇌향과(龍腦香科 : Dipterocarp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용뇌향수(龍腦香樹) *Dryobalanops aromatica* Gaertner의 수지(樹脂) 혹은 수간(樹幹)과 가지를 썰어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백색의

결정체. 중국약전에는 무색투명 혹은 백색반투명한 빙상송취결정(氷狀松脆結晶)을 기원으로 한다.

용뇌향(龍腦香) [약물] ⇒ 장뇌(樟腦)

용담초(龍膽草) [약물] : 본초 용담과(龍膽科: Gentia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용담 *Gentiana scabra* Bunge(=*Gentiana scabra* var. *buergeri* (Miq.) Max.)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근 및 근경(根莖)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용뢰지화(龍雷之火) [생리] ⇒ 상화(相火)

용모사기(容貌詞氣) [사상] : 사상 사상의학의 체질변증(體質辨證) 기준의 하나. 체형기상(體形氣像)이 장부의 사초(四焦) 개념에 의한 분석적인 방법인데 반해 용모사기(容貌詞氣)는 외부에서 포괄적으로 심성을 파악하는 취상(取象) 방법임. 태양인은 구별하기 어렵지 않지만 수가 희박한 고로 판별하기가 가장 어렵다. 목덜미의 기세가 왕성하고 성질은 소통(疏通)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태양인 여자는 체형은 장실(壯實)하지만 간이 작고 옆구리가 협소하여 자궁이 부족하므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양인은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경솔하고 또 날쌔고 용맹을 좋아한다. 그 수가 많으므로 가장 분별이 쉽다. 태음인의 얼굴 모양과 말솜씨 및 몸가짐은 위의(威儀)가 있고 무슨 일에도 잘 가다듬으며 공명정대한 태도를 갖는다. 소음인의 용모와 말하는 솜씨 및 몸가짐은 자연스럽고 간단하며 잔재주가 있다.

용수증(涌水證) [병증] : 내과 수사(水邪)가 비위(脾胃)로 흘러 들어가 상부의 폐(肺)에 영향을 미치는 병증. 걸을 때 장명(腸鳴)이 있고 천식(喘息)으로 바로 눕지 못함.

용아초(龍芽草) [약물] 동 선학초(仙鶴草), 낭아(狼牙)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짚신나물 *Agrimonia pilosa* Ledebour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전초(全草)로, 여름과 가을에 줄기와 잎이 무성할 때 거두어 잡질을 없애고 말린 후 사용.

용안육(龍眼肉) [약물] : 본초 무환자나무과(無患子科 : Sapindaceae)에 속한 상록 교목인 용안(龍眼) *Dimocarpus longan* Lour.의 가종피(假種皮). 여름과 겨울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과피를 제거하고 가종피만 취하여 햇볕에 건조한 것.

용연(龍烟) [생리] [해부] ⇒ 간(肝)

용연(龍淵) [경혈] ⇒ 연곡(然谷)

용저(龍疽) [병증] ⇒ 중탑수(中搭手)

용저(勇疽) [병증] : 안이 양태양혈[兩太陽穴–동자료(瞳子髎)]에서 발생하는 옹저.

용적맥파(容積脈派) [진찰] : 진단 volume pulse. plethymography. 맥파의 전달에 따른 혈관용적의 시간적 변화를 기록한 것.

용천(湧泉)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로서 정목혈(井木穴)에 해당. 발바닥에서 2·3 번째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의 사이로 십자무늬 중앙 오목한 곳에 위치.

용천저(龍泉疽) [병증] : 안이 수구혈[水溝穴–인중(人中)]에서 발생하는 옹저.

용천저(湧泉疽) ① [병증] 동 각심옹(脚心癰), 각저천심정(脚底穿心疔), 각심독(脚心毒), 족심발(足心發), 천굴천사(穿窟天蛇), 병천판(病穿板) : 안이 신경(腎經)의 용천혈(湧泉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② [병증] : 안이 미려골첨단상(尾閭骨尖端上)의 직하 장강혈(長强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점차 복서상(伏鼠狀)을 형성한다.

용침(用鍼) [침구] ⇒ 운침(運鍼)

용호교등법(龍虎交騰法) [침구] ⇒ 용호승강(龍虎升降)

용호교전(龍虎交戰) [침구] 동 용호교전법(龍虎交戰法) : 침구 침을 찌른 후 먼저 왼쪽으로 9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6번 돌려

주는 것을 반복하는 자침요법. 천층(淺層), 중간층(中間層), 심층(深層)으로 나누어 반복할 수도 있다.

용호교전법(龍虎交戰法) [침구] ⇒ 용호교전(龍虎交戰)

용호승강(龍虎升降) [침구] 동 용호승강법(龍虎升降法), 용호교등법(龍虎交騰法), 염전승강행기법(捻轉升降行氣法) : 침구 천부(天部)에서 선좌후우(先左後右)로 반선법(盤旋法)을 쓰고 긴삽만퇴(緊揷慢退)의 제삽(提揷)을 9회 실시하여 양기(陽氣)를 하향(下向)시킨 후, 지부(地部)에서 선우후좌(先右後左)로 반선법(盤旋法)을 쓰고 긴퇴만삽(緊退慢揷)하는 제삽(提揷)을 6회 시술하여 음기(陰氣)를 하향(下向)시키는 자침요법.

용호승강법(龍虎升降法) [침구] ⇒ 용호승강(龍虎升降)

용화(龍火) [생리] ⇒ 신양(腎陽)

우(憂) [병리] 동 우기(憂氣) : 정신 칠정(七情)의 하나로 지나친 걱정은 내장의 병변을 야기한다.

우(虻) ⇒ 회(蛔)

우간(牛癎) [병증] : ⇒ 오간(五癎)

우공어보(寓功於補) [치법] ⇒ 공보겸시(攻補兼施)

우관(右關) [경혈] ⇒ 석관(石關)

우기(憂氣) [병리] ⇒ 우(憂)

우방근(牛蒡根) [약물] 동 악실근(惡實根), 서점근(鼠粘根)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우엉 *Arctium lappa* Linné의 뿌리.

우방자(牛蒡子) [약물] 동 악실(惡實)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이년생 초본인 우엉 *Arctium lappa* Linné의 성숙한 종자.

우보우공(寓補于攻) [치법] ⇒ 공보겸시(攻補兼施)

우슬(牛膝) [약물] : 본초 비름과(莧科 : Amaranth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Nakai 또는 우슬(牛膝) *Acyranthes bidentata* Blume의 뿌리. 겨울철에 줄기와 잎이 마른 다음에 채취하여 니토(泥土)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우여량(禹餘糧) [약물] : 본초 점토를 내장한 결핵상의 갈철광(褐鐵鑛) Limonite의 일종인 광석(수산화철 $Fe_2O_3 \cdot H_2O$, 적철광 Fe_2O_3, 침철광) 내에 수산화제이철의 상태로 황색 또는 황갈색, 자색을 띠는 것이다.

우열(憂噎) [병증] ⇒ 칠정열(七情噎)

우자(偶刺) [침구] 동 음양자(陰陽刺), 우자법(偶刺法) : 침구 십이자법(十二刺法)의 하나로 손으로 가슴이나 등을 눌러 아픈 곳이 있으면 앞뒤로 마주 보는 자리에 침을 1대씩 꽂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우자법(偶刺法) [침구] ⇒ 우자(偶刺)

우절(藕節) [약물] 동 연근(蓮根) : 본초 수련과(睡蓮科 : Nymphae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연꽃 *Nelumbo nucifera* Gaertner의 근경(根莖) 마디로, 가을과 겨울에 근경을 캐어 마디 부분을 잘라 씻은 뒤 쇄건(曬乾)하고 수근(鬚根)을 없앤 후 사용.

우정건(牛程蹇) [병증] ⇒ 우정족건(牛程足蹇)

우정족건(牛程足蹇) [병증] 동 우정건(牛程蹇) : 안이 족종근(足踵跟)이나 족장피내(足掌皮內)에서 발생하는 옹저. 종양이 돌기되고 창두(瘡頭)는 약간 오목하다.

우치(齲齒) [병증] 동 구닉(口齷) : 소아 벌레 먹은 이가 썩어 들어가는 병증.

우치(愚痴) [병증] ⇒ 매병(呆病)

우피선(牛皮癬) [병증] : 안이 피부가 우령피(牛領皮)와 같아 두텁고 단단한 선증(癬證).

우황(牛黃) [약물] : 본초 소과(牛科 : Bovidae)에 속한 동물인 소 *Bos taurus domesticus* Gmelin의 담낭결석으로, 소의 담낭이나 담관에서 취출(取出)하여 외부로 막질(膜質)을 제

거하고 음건(陰乾)하여 사용.
욱리인(郁李仁) [약물] 동 욱자(郁子)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식물인 이스라지 *Prunus nakii* Leveille 또는 양이스라지나무 *Prunus humillis* Bunge의 종자.
욱자(郁子) [약물] ⇒ 욱리인(郁李仁)
욱중(彧中)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6)로서 화개(華蓋) 양쪽 2촌에 위치.
운기(運氣) [운기] : 원전 오운(五運)과 육기(六氣)를 합칭하여 이르는 말. 黃帝內經에서는 기후의 변화와 질병발생의 관계를 파악할 때 운기의 원리로서 추단한다.
운기법(運氣法) 침구 ① [침구] 동 개합운기법(開合運氣法) : 인부(人部)까지 직자(直刺)하고 천천히 누르고 힘 있게 올리기를 6회 시행하여 득기(得氣)한 후 침을 약간 출(出)하여 다시 병소 방향으로 비스듬히 2~3푼 자입(刺入)하여 침감이 병소까지 확산되게 하는 자침요법. ② [예방] : 기공(氣功)을 수련한 시술자가 외기(外氣)를 내보내 환자의 혈자리에 이르게 하여 내기(內氣)를 자극하는 치료법의 하나.
운기의학(運氣醫學) [진찰] : 진단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학문인 운기학(運氣學)을 운용하여 사람의 특성을 예측하고 질병의 치료·예방과 양생을 도모하는 의학. 한의학의 기본사상 중 하나인 천인상응(天人相應) 사상의 실제 내용으로 자연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음양오행론을 기본이론으로 하고 있다.
운기체질(運氣體質) [진찰] : 진단 운기체질은 운기 교사(交司)일에 따라 각자의 생일이 어느 운(運)과 기(氣)에 속하는가를 찾아서 그 때의 객운(客運)과 객기(客氣)를 자신의 체질로 정한 것. 체질의 명칭은 객운을 앞에, 객기는 뒤에 위치시켜서 오행으로 표시한다.
운기학(運氣學) [기타] 동 운기학설(運氣學說) : 원전 黃帝內經에서 매년(每年) 기후변화와 질병발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학설. 오운(五運)과 육기(六氣)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기학(運氣學)이라고 한다.
운기학설(運氣學說) [기타] ⇒ 운기학(運氣學)
운무이정(雲霧移情) [병증] 동 운무이정증(雲霧移晴證) : 안이 초자체혼탁(硝子體混濁)과 유사하며 환자의 자각증으로 눈앞에 환상이 나타나 운무(雲霧)가 떠다니는 것 같은 병증.
운무이정증(雲霧移晴證) [병증] ⇒ 운무이정(雲霧移情)
운문(雲門)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2)로서 빗장뼈(쇄골; clavicle) 바깥쪽 끝 아래로 가슴정중선 선기(璇璣) 양쪽 6촌에 위치.
운예(雲翳) [병증] 동 운예내장(雲翳內障) : 숙예(宿翳)가 편상(片狀)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옅은 안개 같거나 구름 같은 경우.
운예내장(雲翳內障) [병증] ⇒ 운예(雲翳)
운지(運指) [진찰] 동 운지법(運指法) : 진단 맥진(脈診)할 때 쓰이는 지법(指法). 의사가 손가락을 사용하여 맥위(脈位)의 부침(浮沈)과 맥삭(脈數)의 지삭(遲數) 등을 살펴서 장부(臟腑)의 병변(病變)과 기혈(氣血)의 허실(虛實)을 알아내는 것. 운지법에는 거(擧)·안(按)·심(尋)·추(推)·경(竟)의 다섯 가지가 있음.
운지법(運指法) [진찰] ⇒ 운지(運指)
운침(運鍼) [침구] 동 용침(用鍼), 행침(行鍼) : 침구 자침(刺鍼)하여 득기(得氣)한 후 염전(捻轉), 제삽(提揷) 등의 방법으로 침감(鍼感)을 유지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것.
운화(運化) [생리] : 생리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물질(精氣)의 수송을 담당하는 비(脾)의 생리기능.
울(宛) [병리] ⇒ 울(鬱)
울(鬱) [병리] [병증] 동 울(宛), 울결(鬱結), 울체(鬱滯), 울증(鬱症), 울증(鬱證) : 정신 울체하

ㅇ

여 발월(發越)하지 못해 발생하는 병증을 통칭한 말. 素問 〈六元正紀大論〉에서 목울(木鬱), 화울(火鬱), 토울(土鬱), 금울(金鬱), 수울(水鬱)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오기(五氣)의 울에 속하는 것으로 후세에 이를 합칭하여 오울(五鬱)이라고 함. 丹溪心法에서 기울(氣鬱), 혈울(血鬱), 습울(濕鬱), 열울(熱鬱), 담울(痰鬱), 식울(食鬱)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합칭하여 육울(六鬱)이라고 함. 景岳全書에서는 정지(情志)의 울을 제출하여 노울(怒鬱), 사울(思鬱), 우울(憂鬱), 비울(悲鬱), 경울(驚鬱), 공울(恐鬱) 등의 명칭이 생겼다.

울결(鬱結) [병리] ⇒ 울(鬱)

울광(鬱狂) [병증] 동 울광증(鬱狂證) : 정신 정지불서(情志不舒), 기기울결(氣機鬱結)로 발생되는 광증(狂症).

울광증(鬱狂證) [병증] ⇒ 울광(鬱狂)

울궐(鬱厥) [병증] 동 혈궐(血厥) : 정신 정지불서(情志不舒), 기기울결(氣機鬱結)로 발생되는 궐증(厥症).

울금(鬱金) [약물]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 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숙근초본(宿根草本)인 울금(鬱金) *Curcuma aromatica* Salisb.의 괴근(塊根)으로, 가을과 겨울에 경엽(莖葉)이 고위(枯萎)한 후 채취하여 수근(鬚根)과 니사(泥沙)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쪄서 쇄건(曬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동속식물인 온울금(溫鬱金)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강황(薑黃) *Curcuma Longa* L. 광서아출(廣西莪朮) *C. kwangsiensis* S. Lee et C. F. Liang의 괴근(塊根)도 인정한다.

울기(鬱氣) [병리] ⇒ 기울(氣鬱)

울담(鬱痰) [병리] 동 결담(結痰), 완담(頑痰), 노담(老痰) : 병리 담음(痰飮)의 하나. 칠정울결(七情鬱結)로 인해 폐비(肺脾)의 기가 정체(停滯)되어 생긴 담. 증상은 흉만포창(胸滿飽脹) 구규폐색(九竅閉塞) 오뇌번민(懊憹煩悶) 혹은 인중결핵(咽中結核) 수와불녕(睡臥不寧) 혹은 장위(腸胃)가 불편하고 음식을 먹는데 지장이 있으며 기가 상역(上逆)하여 불리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숨을 헐떡이는 등이다. 완담(頑痰), 노담(老痰), 교담(膠痰), 조담(燥痰) 등의 이름은 매핵기가 있어 잘 뱉어지지 않는 특징 때문이다.

울모(鬱冒) [증상] 동 모(冒) : 정신 '울(鬱)'이란 기가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이고, '모(冒)'란 정신이 맑지 못한 것으로 즉 혼미하여 정신이 맑지 않은 병증을 가리킴.

울수(鬱嗽) [병증] 동 화울수(火鬱嗽) : 내과 기침소리가 있으나 가래가 적고 얼굴이 붉어지는 기침. 화수(火嗽)가 심해진 병증

울증(鬱證) [병증] ⇒ 울(鬱)

울증(鬱症) [병증] ⇒ 울(鬱)

울체(鬱滯) [병리] ⇒ 울(鬱)

울혈(鬱血) [병리] : 병리 재활 어혈의 한 형태로 혈관에 혈액이 정체된 것으로 경락 및 혈맥의 운행이 원활치 못하여 발생. → 어혈(瘀血)

울화(鬱火) [병증] ⇒ 화병(火病)

울화병(鬱火病) [병증] ⇒ 화병(火病)

웅담(熊膽) [약물] : 본초 곰과(態科 : Ursidae)에 속한 동물인 불곰 *Ursus arctos* Linné 또는 기타 근연동물의 담즙을 말린 것.

웅황(雄黃) [약물] 동 석웅황(石雄黃) : 본초 단사정계(單斜晶系)에 속하는 웅황의 광석으로 정량할 때 이황화비소(As_2S_2 : 214.0) 90.0% 이상을 함유.

원(原) [경혈] ⇒ 원혈(原穴)

원근배혈법(遠近配穴法) [침구] : 침구 경락(經絡)의 본부(本部)와 표부(標部)가 상호 호응(呼應)함을 이용하여 병변의 근위혈(近位穴)과 원위혈(遠位穴)을 배합하는 배혈법.

원기(原氣) [생리] ⇒ 원기(元氣)

원기(元氣) [생리] 동 원기(原氣) : 생리 ① 생명

활동의 근본이 되는 기운. ② 선천(先天)의 천지부모(天地父母)로부터 부여받고 후천(後天)의 수곡에 의해 자양되는 근본 생명력.
원기부족증(元氣不足證) [병증] ⇒ 기허증(氣虛證)
원기지근(元氣之根) [생리] ⇒ 명문(命門)
원기지별(原氣之別) [생리] ⇒ 삼초(三焦)
원기지별사(原氣之別使) [생리] ⇒ 삼초(三焦)
원기허증(元氣虛證) [병증] ⇒ 기허증(氣虛證)
원도자(遠道刺) [침구] : 침구 구자(九刺)의 하나. 족삼양경(足三陽經)의 하합혈(下合穴)을 취하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원두침(圓頭鍼) [기구] ⇒ 원침(員鍼)
원락배혈법(原絡配穴法) [침구] : 침구 본경(本經)의 원혈(原穴)과 표리경(表裏經)의 낙혈(絡穴)을 서로 배합시켜 해당 장부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원리침(圓利鍼) [기구] ⇒ 원리침(員利鍼)
원리침(員利鍼) [기구] 동 원리침(圓利鍼)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 길이 1치 6푼으로, 침대가 가늘고 침 끝이 약간 크면서 둥글고 예리한 침의 한 종류.
원방보사법(圓方補瀉法) [침구] : 침구 침을 꽂아 득기(得氣)한 후 염전(捻轉)하는 방향에 따라 보사(補瀉)하는 방법.
원보세(猿步勢) [기공] ⇒ 원세희(猿勢戲)
원부(元府) [해부] ⇒ 현부(玄府)
원세희(猿勢戲) [기공] 동 원희(猿戲), 원보세(猿步勢) : 재활 도인법. 원숭이의 동작을 모방하여 고안한 일종의 보건체조. 雲笈七籤 〈導引按摩〉 처음으로 동작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원희(猿戲)는 물건을 붙잡고 올라가 매달려 몸을 상하로 17번 신축하는 것이다."
원신지부(元神之府) [생리] ⇒ 뇌(腦)
원양(元陽) [생리] ⇒ 신양(腎陽)
원양지기(元陽之氣) [생리] ⇒ 신양(腎陽)
원예(圓翳) [병증] ⇒ 원예내장(圓翳內障)
원예내장(圓翳內障) [병증] 동 원예(圓翳), 은내장(銀內障) : 안이 내장(內障) 질환 중 하나. 은내장(銀內障)과 유사하며 동신(瞳神) 중간에 수은주자(水銀珠子) 모양의 원형 예장(翳障)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킴.
원위자외선(遠位紫外線) [기구] : 재활 1800~2900Å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으로 표피의 각질층에 침투하여 광화학적 효과를 낸다.
원음(元陰) [생리] ⇒ 신음(腎陰)
원음지기(元陰之氣) [생리] ⇒ 신음(腎陰)
원지(遠志) [약물] : 본초 원지과(遠志科 : Polyga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원지 *Polygala tenuifolia* Willd.의 뿌리. 중국에서는 두메애기풀(난엽원지卵葉遠志) *P. sibirica* L.도 인정한다.
원침(員鍼) [기구] 동 원침(圓鍼), 원두침(圓頭鍼)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로 길이 1치 6푼, 침신(鍼身)은 원주형(圓柱形)이고 침첨(鍼尖)은 난원형(卵圓形)인 침.
원침(圓鍼) [기구] ⇒ 원침(員鍼)
원혈(原穴) [경혈] 동 원(原) : 경혈 장부원기(臟腑原氣)가 경과(經過)하고 유지(留止)하는 혈위. 십이원(十二原) 맥기(脈氣)의 성쇠현상을 관찰하여 장부(臟腑)의 병정을 진단할 수 있다. 음경(陰經)의 원혈은 오수혈(五腧穴) 중의 수혈(兪穴)과 동일하고 양경(陽經)의 원혈은 별도로 존재.
원혈(遠血) [병증] 동 선변후혈(先便後血) : 내과 먼저 대변을 배설한 후에 출혈(出血)하며, 혈색(血色)이 암흑색(暗黑色)을 띠는 병증.
선변후혈(先便後血) [병증] ⇒ 원혈(遠血)
장독하혈(臟毒下血) [병증] : 내과 하혈이 대개 편괴상(片塊狀)을 나타내며, 오탁(汚濁) 색암(色暗)하고, 대변이 연변(軟便)이면서 불창(不暢)하고, 식욕부진(食慾不振), 신체권핍(身體倦乏), 설홍(舌紅), 태황니(苔黃膩), 맥유삭(脈濡數)한 병증.
원화(芫花) [약물] : 본초 팥꽃나무과(瑞香科 :

Thymelae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팥꽃나무 *Daphne genkwa* Sieb. et Zucc.의 화뢰(花蕾)로, 봄에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원희(猿戱) [기공] ⇒ 원세희(猿勢戱)

월경(月經) [생리] 동 경후(經候), 계수(癸水), 조수(潮水) : 부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기능적 상호관계의 총화로 말미암아 태아의 착상을 위해 증식, 분화되었던 자궁 내막이 탈락됨으로써 나타나는 성주기의 표지로서 인간을 정점으로 한 영장류에서만 나타나는 주기적 출혈. 일반적으로 14세를 전후하여 월경이 발생하며 49세를 전후하여 월경이 끊어지고, 임신과 수유기를 제외하고 통상 한 달에 1회씩, 3~7일 동안 지속.

월경건기(月經愆期) [병증] ⇒ 월경후기(月經後期)

월경과다(月經過多) [병증] 동 월경량다(月經量多), 과다월경(過多月經), 경행과다(經行過多) : 부인 월경주기는 규칙적이나 월경량이 많은 것. 출혈기간이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출혈량이 80ml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를 말함.

월경과소(月經過少) [병증] 동 과소월경(過少月經), 경소(經少) : 부인 월경주기는 규칙적이나 월경량이 감소된 것.

월경량다(月經量多) [병증] ⇒ 월경과다(月經過多)

월경문란(月經紊亂) [병증] ⇒ 월경부조(月經不調)

월경병(月經病) [병증] : 부인 각종 월경병증을 총칭한 것. 월경의 기간·양·색·질 등의 이상이나, 월경기나 월경전후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을 포괄.

월경부조(月經不調) [병증] 동 경맥부조(經脈不調), 경맥불리(經脈不利), 경부조(經不調), 월경문란(月經紊亂), 경수불리(涇溲不利), 경수불리하(經水不利下), 월수불리(月水不利) : 부인 월경의 주기·양·색·질의 이상을 가리킴. 간혹 월경통을 월경부조의 범주에 포함하여 기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월경선기, 월경후기, 월경과다, 월경과소, 월경선후무정기, 경기연장, 경간기출혈, 붕루 등으로 된 분류법이 임상에서는 더욱 합리적이다.

월경색(月經色) [진찰] : 부인 주기적으로 배출되는 월경 혈(血)의 양상. 한의학에서는 월경색이 변증 진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월경선기(月經先期) [병증] 동 경행선기(經行先期), 경조(經早), 월경전기(月經前期), 조경(早經) : 부인 월경간격이 연속 2주기 이상 21일 미만인 경우. 월경선기를 유발하는 원인들로는 기허(氣虛), 혈열(血熱) 등으로 대별되며, 기허는 비기(脾氣)의 허약과 신기(腎氣)가 견고하지 못한 경우로 분류되고, 혈열(血熱)은 양성혈열(陽盛血熱), 간울혈열(肝鬱血熱), 음허혈열(陰虛血熱) 등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어혈조체(瘀血阻滯) 등도 그 원인이 된다.

월경선후무정기(月經先後無定期) [병증] 동 경란(經亂), 경행선후무정기(經行先後無定期), 경수선후무정기(經水先後無定期), 난경(亂經) : 부인 월경이 주기적이지 않고 7일 이상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것. '경난(經亂)', '경행혹전혹후(經行或前或後)', '경수선후무정기(經水先後無定期)', '경행선후무정기(經行先後無定期)'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출혈 양상은 반상 출혈에서 하혈, 1회의 단기간에서 지속적인 출혈 등으로 출혈량과 기간 모두에서 다양하다. 음식, 칠정, 방실(房室) 등이 간(肝), 비(脾), 신(腎)의 기능을 손상시켜 기혈(氣血)이 실조되고 충임기능(衝任機能)이 문란해짐으로 혈해(血海)가 때에 맞게 축일(蓄溢)하지 못하여 질환이 발생한다. 특히 신허(腎虛)와 간울(肝鬱)은 빈발하는 병인일 뿐 아니라 간신동병(肝腎同病)으로 발전하기 쉬워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월경전(越經傳) [병리] : 병리 육경병(六經病)

에서 일반적인 육경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전변되는 것. 한사(寒邪)가 처음에 태양경에 침입하여 양명경으로 전해지지 않고 소양경으로 전입되는 경우가 있고, 양명경으로 전입되지 않고 양명부로 전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양명경에서 소양경으로 전입되지 않고 본장(本臟)으로 전입되는 경우가 있고, 소양경에서 삼음경으로 전입되지 않고 위부(胃腑)로 전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한, 두경으로 전입되어 멎는 경우가 있고 시종 한 경에만 있는 경우도 있다.

월경전기(月經前期) [병증] ⇒ 월경선기(月經先期)

월경통(月經痛) [병증] ㊐ 통경(痛經) : 부인 월경기간 혹은 월경기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하복부와 치골 상부의 동통. 월경하는 여성의 50%정도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장애이며, 흔히 피로, 오심, 구토, 설사, 요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월경후기(月經後期) [병증] ㊐ 경지(經遲), 월경건기(月經愆期), 건기(愆期), 경행후기(經行後期), 희발월경(希發月經) : 부인 월경주기가 40일 이상 늦어지는 것. 월경후기는 무월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검사와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월사불래(月事不來) [병증] ⇒ 경폐(經閉)

월석(月石) [약물] ⇒ 붕사(硼砂)

월수불리(月水不利) [병증] ⇒ 월경부조(月經不調)

월식감창(月食疳瘡) [병증] ㊐ 선이창(旋耳瘡) : 안이 소아에 빈발하며 보름이 되면 귀 주변으로 창(瘡)이 왕성하고 월말이 되면 창이 소실되어 창의 성쇠가 달의 영휴(盈虧)와 관계된다 하여 이름붙임.

월양(月陽) [경혈] ⇒ 양교(陽交)

월폐(月閉) [병증] ⇒ 경폐(經閉)

위(衛) [생리] ⇒ 위기(衛氣)

위(痿) [병증] ㊐ 위벽(委躄), 위벽(痿躄), 위병(痿病), 위증(痿症), 위증(痿證) : 재활 사지가 연약무력(軟弱無力)한 것. 특히 하지를 쓰지 못하고, 심하면 기육(肌肉)이 위축되는 병증을 가리킴.

위(胃) [해부] [생리] ㊐ 수곡지해(水穀之海), 위위수곡지해(胃爲水穀之海), 위부(胃腑) : 생리 비(脾)와 연접하여 있고 횡격막 아래 복강의 상부에 위치하여, 위로는 식도와 아래는 소장과 연결되어 음식물의 수납과 부숙(腐熟)을 담당하는 장부.

위가실(胃家實) [병증] : 병리 ① 양명경병과 부병(腑病)을 통칭한 것. ② 어혈이 위(胃)를 가로막는 것.

위각(胃胳) [경혈] ⇒ 풍륭(豊隆)

위강비약증(胃强脾弱證) [변증] : 병리 위기(胃氣)가 항성하고 비음(脾陰)이 부족하여 비(脾)의 운화기능과 위(胃)의 진액수포(津液輸布)가 실조되고 따라서 대장의 유윤(濡潤)작용이 상실된 증. 대변건경(大便乾硬)과 소변반삭(小便反數)이 주증이며 복미만이불통(腹微滿而不痛)하고 설질(舌質)이 눈홍(嫩紅)하다.

위경(胃經) [경락] ⇒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위관(胃管) [경혈] ⇒ 중완(中脘)

위관하수삼혈(胃管下俞三穴) [기혈] ⇒ 위완하수삼혈(胃脘下俞三穴)

위기(衛氣) [생리] ㊐ 한기(悍氣), 위(衛) : 생리 인체를 외사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가진 기운. 맥외를 운행하면서 온양내외(溫養內外)·호위기표(護衛肌表)·항어외사(抗御外邪)·자양주리(滋養奏理)·개합한공(開闔汗孔) 등의 기능을 발휘.

위기(胃氣) [생리] : 생리 ① 위(胃)의 생리기능. ② 음식물에서 비롯되는 인체의 정기(精氣). ③ 맥상(脈象)에서 반영되는 비위(脾胃)의 기능.

위기부족(胃氣不足) [병리] ⇒ 위기허(胃氣虛)

위기부족증(胃氣不足證) [병증] ⇒ 위기허증(胃

ㅇ

氣虛證)
위기불고(衛氣不固) [병리] 동 표기불고(表氣不固), 표위불고(表衛不固), 위외불고(衛外不固) : 병리 외부(外部)를 보호하는 양기[陽氣－위기(衛氣), 혹은 표기(表氣)]가 허해져 쉽게 외사(外邪)가 침입하여 발병하게 되는 것. 오풍(惡風) 자한(自汗)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위기상역(胃氣上逆) [병리] : 병리 위(胃)의 통강기능(通降機能)에 장애가 발생하여 위기가 하강하지 못하고 도리어 치밀어 오르는 것.
위기상역증(胃氣上逆證) [변증] : 병리 위기(胃氣)가 음식, 열(熱), 담(痰), 폐기불강(肺氣不降), 기기조체(氣機阻滯) 등으로 인하여 하강하지 못하고 탁기(濁氣)와 함께 거꾸로 상역하는 증. 위부(胃部)가 창만하면서 아프고 애기(噯氣) 애역(呃逆) 구토(嘔吐) 열격(噎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진찰] : 진단 주로 온병(溫病)을 대상으로 하는 변증방법의 하나. 병인 · 단계 · 부위 · 전변(傳變) 및 병변(病變) 정도로부터 변증한다. 위분(衛分) · 기분(氣分) · 영분(營分) · 혈분(血分) 네 단계로 나누어지고 각기 상응하는 증후가 있다.
위기허(胃氣虛) [병리] 동 위기부족(胃氣不足), 위기허손(胃氣虛損) : 병리 위기(胃氣)가 부족하여 음식의 수납과 부숙(腐熟)기능이 감퇴되는 것.
위기허손(胃氣虛損) [병리] ⇒ 위기허(胃氣虛)
위기허증(胃氣虛證) [병증] 동 위기부족증(胃氣不足證) : 병리 위기허(胃氣虛)에 의한 병증. 위완은통[胃脘隱痛－안지통감(按之痛減)], 불사음식(不思飮食), 구토애역(嘔吐呃逆), 소화불량(消化不良), 식입즉토(食入卽吐) 등이 주증이고, 통유정시(痛有定時), 희열희안(喜熱喜按), 소기나언(少氣懶言), 어성저미(語聲低微), 면색위황(面色萎黃)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박백(苔薄白), 맥허약(脈虛弱)하다.
위락(胃絡) [경혈] ⇒ 풍륭(豊隆)
위령선(威靈仙) [약물] 동 철선연(鐵線蓮)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낙엽성 만경식물(蔓莖植物)인 으아리 *Clematis mandshurica* Maximowicz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뿌리로서,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위릉채(委陵菜) [약물] 동 근두채(根頭菜)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딱지꽃 *Potentilla chinensis* Ser.의 전초(全草)로 봄에 줄기가 아직 나오지 않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위모(衛矛) [약물] ⇒ 귀전우(鬼箭羽)
위반(胃反) [병증] ⇒ 반위(反胃)
위반증(胃反證) [병증] ⇒ 반위(反胃)
위번(胃翻) [병증] ⇒ 반위(反胃)
위법(熨法) [치법] 동 위부요법(熨敷療法) : 침구 약 가루 또는 거친 약물을 베로 싸서 따뜻하게 하여 외부에서 찜질하는 외치법(外治法).
위벽(委躄) [병증] ⇒ 위(痿)
위벽(痿躄) [병증] ⇒ 위(痿)
위병(痿病) [병증] ⇒ 위(痿)
위병증(胃病證) [변증] 동 위상증(胃傷證) : 병리 위(胃)에 생긴 병. 음식물을 조절해 먹지 못하고 과식하거나 굶었을 때,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위기허약(胃氣虛弱)과 위음부족(胃陰不足) 등으로 생긴다. 명치 아래가 그득하게 불러 오르며 불쾌하면서 아프고, 토하고 메스꺼우며 식욕이 부진하여 적게 먹으며 트림을 한다. 심하면 가슴과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거북하고 불편하며 먹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으며 배가 창만해지고 대변을 제대로 누지 못한다.
위부(胃腑) [생리] ⇒ 위(胃)
위부요법(熨敷療法) [치법] ⇒ 위법(熨法)
위분(衛分) [변증] : →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

辨證)
위분증(衛分證) [병증] : 병리 온병(溫病) 초기 단계로서 사기(邪氣)가 인체의 위표(衛表)에 침입한 병증.
위상증(胃傷證) [변증] ⇒ 위병증(胃病證)
위설(胃泄) [병증] : 내과 비위가 허한(虛寒)하여 수곡을 소화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설사. 위사(胃瀉).
위소(胃消) [병증] : 내과 소갈병(消渴病)의 일종으로 원인이 위화(胃火)가 치성(熾盛)하여 진액(津液)이 고갈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증.
위수(胃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21)로서 12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위수열이열병(胃受熱裏熱病) [사상] ⇒ 소양인 위수열이열병(少陽人胃受熱裡熱病)
위수한이한병(胃受寒裏寒病) [사상] ⇒ 소음인 위수한이한병(少陰人胃受寒裡寒病)
위승격(胃勝格) [침구] ⇒ 위승방(胃勝方)
위승방(胃勝方) [침구] 동 위승격(胃勝格) : 침구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실증(實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임읍(臨泣)·함곡(陷谷) 보(補), 상양(商陽)·여태(厲兌) 사(瀉).
위신근(胃神根) [진찰] : 진단 정상적인 사람의 맥(脈)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위기(胃氣)·신(神)·근(根)을 지칭함. → 맥유신(脈有神), 맥신(脈神), 맥유위(脈有胃), 맥위(脈胃), 맥유근(脈有根), 맥근(脈根)
위실(胃實) [병리] : 병리 위부병사(胃部病邪)가 실(實)한 병증. 위실(胃實)은 대개 열증(熱症)을 겸한다. 조잡(嘈囃), 열격(噎膈), 소변단적(小便短赤) 신열(身熱) 대변다조(大便多燥), 구고(口苦) 혹 구갈(口渴), 탄산(呑酸)의 증이 있다.
위심통(胃心痛) [병증] : 내과 명치 아래가 아픈데 심하면 가슴까지 아프며 배가 불러 오르는 병증.
위양(胃陽) [생리] : 생리 ① 위(胃)의 양기(陽氣). ② 위음(胃陰)과 상호 작용하여 음식물의 수납과 소화(消化)를 담당하는 기운.
위양허(胃陽虛) [병리] [변증] : 병리 위(胃)의 양기(陽氣)가 허해진 병리상태.
위열(胃熱) [병리] 동 위중열(胃中熱) : 병리 위(胃)에 열(熱)이 있는 병리상태. 평소에 중초위양(中焦胃陽)이 성(盛)하거나, 열사(熱邪)가 위(胃)를 침범하거나, 신열(辛熱)한 음식, 구운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 등을 좋아하여 생김. 증상은 위완작통(胃脘灼痛), 다식선기(多食善飢), 구취변비(口臭便秘), 아은종통출혈(牙齦腫痛出血), 식입즉토(食入卽吐)한다.
위열구토(胃熱嘔吐) [병증] ⇒ 열토(熱吐)
위열증(胃熱證) [변증] 동 위화치성증(胃火熾盛證) : 병리 열사(熱邪)가 이(裏)로 들어가거나 신랄후미(辛辣厚味)의 과식 또는 오지과극(五志過極)으로 위화(胃火)가 발생한 증. 위완작통(胃脘灼痛), 다식선기(多食善飢), 구취변비(口臭便秘), 아은종통출혈(牙齦腫痛出血), 식입즉토(食入卽吐) 등이 주증이고, 갈희랭음(渴喜冷飮), 탄산(呑酸), 발열(發熱), 번갈(煩渴)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舌質紅), 태황후(苔黃厚), 맥홍대(脈洪大) 혹 활삭(滑數)하다.
위옹(胃癰) [병증] 동 위완옹(胃脘癰) : 내과 안이 위경(胃經)의 모혈(募穴)인 중완혈(中脘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대부분 음식, 칠정화울(七情火鬱)과 풍한(風寒)에 감모되어 기전색위완(氣塡塞胃脘)되어 위중청기(胃中淸氣)가 하함(下陷)되고 위맥(胃脈)이 침세(沈細)하여 생긴다.
위완(胃脘) [해부] : 위강(胃腔)을 가리킴.
위완수한표한병(胃脘受寒表寒病) [사상] ⇒ 태음인위완수한표한병(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
위완옹(胃脘癰) [병증] ⇒ 위옹(胃癰)
위완통(胃脘痛) [병증] 동 위통(胃痛) : 내과 위

완부(胃脘部)의 심와(心窩－명치)에 가까운 부위의 동통.

위완하수삼혈(胃脘下兪三穴) [기혈] 동 위관하수삼혈(胃管下兪三穴)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혈로서 8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1혈과 양쪽 각 1촌 5푼, 2혈을 합한 3혈을 말함.

위완한증온병(胃脘寒證瘟病) [사상] : 사상 정충(怔忡), 무한(無汗), 기단(氣短), 결핵(結該)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설사하는 증세가 동반되는 태음인의 표병(表病) 중 중병. 이는 태음인이 위완한병(胃脘寒病)을 본래부터 앓고 있다가 온병(瘟病)에 전염된 경우임. 태음조위탕이 기본방이며 설사가 그치지 않을 경우에 저근백피(楮根白皮)를 가하고 약과 음식을 먹지 못하면 승마와 황금을 가한다. 대변불통(大便不通)에는 갈근승기탕을 사용한다.

위외불고(衛外不固) [병리] ⇒ 위기불고(衛氣不固)

위위수곡지해(胃爲水穀之海) [생리] ⇒ 위(胃)

위유(萎蕤) [약물] 동 옥죽(玉竹)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둥굴레 *Polygonatum odoratum* Druce var. *pluriflorum* Ohwi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의 근경(根莖)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거나 쪄서 말린 후 사용. 동속근연식물에는 둥굴레 *P. robustum* Nak., 옥죽(玉竹) *P. odoratum* (Mill.) Druce, 퉁둥굴레 *P. inflatum* Kom · 용둥굴레 *P. involucratum* Maxim. 등이 있다.

위음(胃陰) [생리] 동 위진(胃津) : 생리 ① 위(胃)의 음기(陰氣). 위양(胃陽)과 상호 작용하여 음식물의 수납과 소화를 담당하는 기운. ② 위(胃)의 음액.

위음부족(胃陰不足) [병리] ⇒ 위음허(胃陰虛)

위음부족증(胃陰不足證) [병증] ⇒ 위음허증(胃陰虛證)

위음허(胃陰虛) [병리] 동 위음부족(胃陰不足) : 병리 위(胃)의 음액이 허해진 병리상태.

위음허증(胃陰虛證) [병증] 동 위음부족증(胃陰不足證) : 병리 만성적인 음액모손(陰液耗損)으로 위음(胃陰)이 손상되고 위(胃)의 자양(滋養), 유윤(濡潤)기능이 상실된 증. 식욕부진(食欲不振), 식소(食少), 위완허비(胃脘虛痞), 위완동통(胃脘疼痛), 건구(乾嘔) 등이 주증이고, 기이불식(飢而不食), 구건인조(口乾咽燥), 대변비결(大便秘結), 심번조열(心煩潮熱) 등이 차증이며, 설질광홍무태(舌質光紅無苔－鏡面舌), 설홍소태(舌紅少苔), 설건소진(舌乾少津), 맥세삭(脈細數)하다.

위저(胃疽) [병증] ⇒ 중완저(中脘疽)

위절증(胃絶證) [병증] : 내과 위기(胃氣)가 몹시 허해진 위급한 상황의 증상. 구목동작(口目動作) 선경망언(善驚妄言) 색황(色黃) 기상하경성불인(其上下經盛不仁)한 병증.

위정격(胃正格) [침구] ⇒ 위정방(胃正方)

위정방(胃正方) [침구] 동 위정격(胃正格) : 침구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허증(虛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양곡(陽谷) · 해계(解谿) 보(補), 임읍(臨泣) · 함곡(陷谷) 사(瀉).

위중(委中)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0)로서 합토혈(合土穴), 사총혈(四總穴) 중의 하나에 해당. 오금 횡문 중앙으로 동맥이 뛰는 곳에 위치.

위중독(委中毒) [병증] : 안이 담이열어방광(膽移熱於膀胱)하여 방광경의 위중혈에서 발생하는 옹저.

위중열(胃中熱) [병리] ⇒ 위열(胃熱)

위증(痿證) [병증] ⇒ 위(痿)

위증(痿症) [병증] ⇒ 위(痿)

위증(危證) [사상] : 사상 사상체질의학 체질병증의 네 가지 단계 중의 하나로, 생리적 조건의 '항심(恒心)' '완실무병(完實無病)'이 깨져 '항심의 우심증(尤甚證)'과 '대병(大病)'의 조

건이 나타나고 이보다 병이 악화되면 '성정편급(性情偏急)'의 심리상태와 '중병증(重病證)'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를 각각 경증(輕證), 중증(重證), 험증(險證), 위증(危證)으로 나눈다.
위지관(胃之關) [생리] ⇒ 신(腎)
위지대락(胃之大絡) [경혈] ⇒ 허리(虛里)
위진(胃津) [생리] ⇒ 위음(胃陰)
위창(胃倉)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0)로서 12번째 등척추뼈 아래 양쪽 각 3촌에 위치.
위창증(胃脹證) [병증] : 내과 위중한(胃中寒)하여 생기는 창만(脹滿)의 병증.
위통(胃痛) [병증] ⇒ 위완통(胃脘痛)
위풍(胃風) [병증] 동 위풍증(胃風證) : 내과 面腫.
위풍증(胃風證) [병증] ⇒ 위풍(胃風)
위학(胃瘧) [병증] ⇒ 식학(食瘧)
위한(胃寒) [병리] [변증] : 병리 위(胃)에 한(寒)이 있는 병리상태. 위의 양기가 허하면서 한상(寒象)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병리상태.
위한증(胃寒證) [병증] 동 한사범위증(寒邪犯胃證), 외한범위증(外寒犯胃證) : 병리 평소 위양허(胃陽虛)한데 한사(寒邪)가 위(胃)를 범하여 한응기체(寒凝氣滯)하고 동시에 위의 화강(和降)작용에 장애가 나타나는 증. 위완냉통(胃脘冷痛), 구토애역(嘔吐呃逆), 구토청수(嘔吐淸水) 등이 주증이고, 희열식(喜熱食), 면백소화(面白少華), 외한과랭(畏寒怕冷), 수족랭(手足冷), 완통거안(脘痛拒按)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백(苔白), 맥지완혹완만(脈遲緩惑弦緩)하다.
위해(胃咳) [병증] : 내과 기침하면서 구역이 나타나고, 심하면 회충이 나오는 병증.
위허(胃虛) [병리] [변증] : 병리 위(胃)가 허(虛)한 병리상태. 위기(胃氣)가 부족하여 위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진액이 부족하여 발생하며, 위기허(胃氣虛)와 위음허(胃陰虛)로 나눈다.
위화(胃火) [병리] [변증] : 병리 위(胃)에 화(火)가 치성(熾盛)한 병리상태. 기체(氣滯), 어혈(瘀血), 담(痰), 습(濕), 식적(食積) 등의 병리산물이 울결되거나, 칠정내상(七情內傷)으로 울화가 위를 침범하여 발생.
위화육란지구병(胃火肉爛之久病)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少陽人內觸大腸病〉에서 위화(胃火)가 원인이 되는 하소(下消)나 강중증(强中證)을 지칭함. "論曰 下消强中胃火肉爛之久病 陰虛午熱大腸火骨蒸之新病 皆數年調治服藥然後 可以免危"라 하여 수년 동안 조치하고 복약하여야 겨우 위험을 면할 수 있는 질병들 가운데 하나이다.
위화치성증(胃火熾盛證) [변증] ⇒ 위열증(胃熱證)
위황(痿黃) [병증] ⇒ 위황(萎黃)
위황(萎黃) [병증] 동 위황(痿黃) : 내과 기혈부족지증(氣血不足之證)으로 면색(面色)이 위황(萎黃)하나 공막(鞏膜)과 점막은 발황(發黃)하지 않는 병증.
유(瘤) [병증] : 안이 체표에 생기는 군더더기로 해석되며, 영(癭)과 비교하여 백색만종(白色漫腫)되어 있으며 음(陰)적이다.
유간(柔肝) [치법] ⇒ 양간(養肝)
유강(柔剛) [병증] : 정신 유경(柔痙)과 강경(剛痙)를 합쳐서 부르는 말.
유결핵(乳結核) [병증] ⇒ 유중결핵(乳中結核)
유경(柔痙) [병증] 동 유치(柔痓), 음경(陰痙), 치(痓) : 정신 경병(痙病)의 일종. 강경(剛痙)과 상대되는 말. 대부분 풍습(風濕)의 사(邪)를 감수한데서 발생되는데 발열하고 한출(汗出)하며 오한이 없고 경항강급(頸項强急), 두요구금(頭搖口噤), 수족축닉(手足搐搦)하며 심하면 각궁반장(角弓反張), 맥현(脈弦) 또는 침지(沈遲)한데 과루계지탕(瓜蔞桂枝湯)에 가감하여 치료한다.
유계(柳桂) [약물] ⇒ 계지(桂枝)

유관법(留罐法) [침구] 동 좌관법(坐罐法) : 침구 부항을 놓은 후 부항이 혈자리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게 하고 건드리지 않는 부항요법.
유구풍(鈕扣風) [병증] : 안이 한출(汗出)한 후에 풍사(風邪)가 피부에 침범하여 경하부(頸下部) 천돌혈(天突穴) 주위에서 속립상(粟粒狀)과 같이 발생하고 가려움이 심하며 긁게 되거나 잘못 물에 씻으면 궤란(潰爛)되며 가피(痂皮)를 형성하는 것.
유궐(幽闕) [병증] : 재활 궐증의 하나.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증상.
유근(乳根)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8)로서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 중정(中庭) 양쪽 4촌에 위치.
유기노(劉寄奴)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기호(寄蒿) *Artemisia anomala* S. Moore의 전초(全草)로서, 8~9月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유기법(留氣法) [침구] ⇒ 유기법(流氣法)
유기법(流氣法) [침구] 동 유기법(留氣法) : 침구 먼저 침을 7푼쯤 찔러 약간 끌어올렸다 찔렀다 하는 자극을 몇 번하여 침감이 나타난 다음에 5푼쯤 더 찔렀다가 다시 본래의 깊이대로 약간 빼 올리는 자침요법.
유날(揉捏) [추나] : 재활 추나수법 명(名). 시술할 때 엄지는 밖을 향해 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모아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펴서 피부위에 밀착시킨 후 엄지 혹은 장근(掌根)에 약간의 힘을 가하면서 돌려 유법(揉法)과 날법(捏法)을 시행하는데, 엄지와 장근으로는 유법을, 그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는 날법을 사용하여 앞쪽을 향해 나선형으로 나아간다. 사지 및 요배부의 연조직 손상에 사용한다.
유뇨(遺尿) [병증] 동 유뇨(遺溺), 유수(遺溲), 유뇨증(遺尿症) : 내과 스스로 자각(自覺)하지 못하고 소변이 저절로 흘러나오는(不知不覺而尿出) 불수의적 배뇨.
유뇨증(遺尿症) [병증] ⇒ 유뇨(遺尿)
유뉵(乳衄) [병증] : 부인 유두에서 혈성 분비물이 배출되는 것. 간혹 출혈과 황색 수양 분비물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며 유방 종괴(腫塊)를 동반하기도 함. 유방암이 아닌지에 대한 감별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유선관내 유두종이 흔한 원인이다. 그 외 섬유낭성 변화, 유선관 확장증, 만성 유선염 및 유선 결핵 등에서 볼 수 있다.
유뇨(遺溺) [병증] ⇒ 유뇨(遺尿)
유담(流痰) [병증] 동 골로(骨癆), 골로(骨勞) : 내과 뼈마디가 서서히 썩어가면서 아울러 고름집이 생기는 병.
유도(維道) [경혈] 동 외추(外樞)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8)로서 오추(五樞) 비스듬하게 안쪽 아래 5푼, 관원(關元) 아래 3푼 양쪽 6촌에 위치.
유두저(乳頭疽) [병증] : 부인 유두에 발생한 양성창양(陽性瘡瘍). 초기에는 환부에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흰색을 띤 좁쌀 모양의 창두(瘡頭)가 발생하므로 이렇게 명명.
유두풍(乳頭風) [병증] : 부인 유두균열. 젖을 먹이는 여성의 유두가 파열된 것을 가리킴. 유두 및 유두 주위가 갈라져 아프고 닦으면 피가 나오거나 끈적이는 액체가 흐르거나 누런 딱지가 생긴다. 계속되면 유옹(乳癰)이 되기 쉽다.
유력(乳癧) [병증] 동 내력(奶癧) : 부인 유중결핵(乳中結核)의 일종. 초경전후에 유훈(乳暈) 부위에 동통성 종괴(腫塊)가 발생하는 것.
유로(乳癆) [병증] : 부인 안이 유방의 노병(癆病). 초기에는 매실이나 오얏 같은 결핵이 발생하고 딴딴하면서 아프지 않으며 피부색은 정상적이다. 며칠이 지나면 종괴(腫塊)가 점차 커지며 피부와 달라붙고 은근히 아프며 피부색은 옅은 홍색을 띠고 종괴가 점차 고름으로 변해 묽은 백즙이 흐르며 썩은 살이 잘 제거되지 않고 주위의 피부색은 어두운 홍색을 띠며

창구(瘡口)가 잘 수렴되지 않는다. 병변이 흉협이나 액하(腋下)로 파급된다. 유중결핵(乳中結核)의 오치(誤治)로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도록 소멸되지 않고 점차 커져서 형성됨.

유루(流淚) [병증] ⇒ 유목증(流目症)

유루(乳漏) [병증] : 안이 부인 유옹(乳癰), 유발(乳發), 유저(乳疽), 유로(乳癆) 등으로 인해 유락(乳絡)이 손상되거나 혹은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짓물러 오랫동안 수렴되지 않아 유방 혹은 유훈(乳暈)에 누관(漏官)이 생기는 것.

유루증(流淚證) [병증] ⇒ 유목증(流目症)

유맥(濡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일종. 맥상(脈象)이 부소(浮小)하면서 무력(無力)하여 가볍게 누르면 느껴지고,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분명하지 않은 것.

유목증(流目症) [병증] 동 유루(流淚), 유루증(流淚證) : 안이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 주로 누점(淚點) 및 누소관(淚小管) 질환을 포함함.

유문(幽門)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1)로서 거궐(巨闕) 양쪽 5푼에 위치.

유발(乳發) [병증] ⇒ 발유(發乳)

유방창통(乳房脹痛) [증상] 동 경행유방창통(經行乳房脹痛) : 부인 월경 전 혹은 월경이 막 이르렀을 때 유방이 팽창하면서 흉협 혹은 유두가 딴딴하고 가려우며 아픈 증상. 심한 경우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이고 옷만 스쳐도 아프다. 대부분 간기울결(肝氣鬱結)로 인해 유발됨.

유백피(楡白皮) [약물] : 본초 느릅나무과(楡科 : Ulm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느릅나무 *Ulmus pumila* L.의 수피(樹皮) 및 근피(根皮)로 봄, 가을에 내피(內皮)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유법(揉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시술자가 손이나 팔로 환자의 지체나 혈위(穴位) 표면을 누르면서 회선하며 문질러서 피하조직이 손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추나 수기법. "揉者, 醫以指按揉經穴, 不離其處而旋轉之." 라고 保赤推拿法에서 유법의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유법은 시술자의 손의 모양이나 사용부위에 따라 지유법(指揉法), 어제유법(魚際揉法), 장근유법(掌根揉法), 전완유법(前腕揉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상에서는 흔히 안유법(按揉法)을 배합한다.

유벽(乳癖) [병증] 동 유율(乳栗) : 부인 유방에 다양한 형태, 크기, 수량의 종괴(鍾塊)가 나타나는 것. 유중결핵(乳中結核)의 일종.

유사(濡瀉) [병증] ⇒ 유설(濡泄)

유산(流産) [병증] : 부인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최종월경일로부터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임.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으로 구분하며 자연유산은 유산의 경과와 임상증상에 따라 절박유산, 불가피 유산, 계류유산, 불완전유산, 습관성 유산 등으로 나누며, 인공유산은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눈다.

유상(扭傷) [병증] : 병리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 건 등이 심한 외력을 받아 꼬이거나 당겨진 것.

유상한(類傷寒) [병증] : 병리 증상이 상한과 비슷한 병증. 동온(冬溫), 온병(溫病), 습온(濕溫), 곽난(霍亂), 경(痙), 상식(傷食), 담음(痰飮), 각기(脚氣), 내옹(內癰), 축혈(蓄血) 등의 증상은 모두 오한, 발열이 있는 것이 마치 상한과 비슷하여 이렇게 이름 붙임.

유설(濡泄) [병증] 동 습설(濕泄), 유사(濡瀉) : 내과 습이 성하여 비(脾)를 손상시켜 발생하는 설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설사가 물같이 나오나 배는 아프지 않거나 아파도 미약하게 아픔.

유설(遺泄) [병증] ⇒ 유정(遺精)

유설(遺洩) [병증] ⇒ 유정(遺精)

유소(類消) [병증] : 내과 중기(中氣)가 허한(虛

寒)하여 음화(陰火)가 부유(浮遊)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갈(消渴)과 유사한 병증(病證).
유수(遺溲) [병증] ⇒ 유뇨(遺尿)
유슬풍(遊膝風) [병증] ⇒ 학슬풍(鶴膝風)
유시(遺屎) [병증] ⇒ 대변실금(大便失禁)
유식적체(乳食積滯) [병증] : 소아 어린 아이가 젖이나 음식을 먹고 체한 병증.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여 유식(乳食)이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고 적체되어 발생. 젖만 적체된 것을 유적(乳積)이라 하고, 젖과 음식이 모두 적체된 것을 숙식불소(宿食不消)라 함.
유실(遺失) [병증] ⇒ 대변실금(大便失禁)
유아(乳蛾) [병증] : 안이 인후측방(咽喉側傍)의 편도선이 누에 모양, 대추 모양 등으로 부어오르는 것.
유암(乳巖) [병증] ⇒ 유암(乳岩)
유암(乳岩) [병증] 동 유암(乳癌), 유암(乳巖) : 부인 안이 유방에서 발생하는 옹저. 중년이후의 부녀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현대의 유방암을 말함. 초기에는 유중(乳中)에 대추만한 결핵이 생겼다가 점차 커지면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홍색을 띠지도 열이 나지도 않는다. 1~3년 동안 점차 종대(腫大)해져 통증이 발생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유암(乳癌) [병증] ⇒ 유암(乳岩)
유옹(乳癰) [병증] 동 유풍(乳瘋) : 부인 안이 유방에 발생한 옹종농양(癰腫膿瘍). 초기에는 유방이 딱딱해지고 창통(脹痛)이 발생하며, 유즙이 잘 나오지 않고, 전신에 오한발열이 발생하며, 계속되면 종괴(腫塊)가 점차 커져 벌겋게 부으면서 심하게 아프고 한열이 물러가지 않으며 내부에 쌓여 농이 형성된다. 서양의학의 급성 유방염과 유사.
유옹(幽癰) [병증] : 부인 안이 배꼽 위 7촌 상완혈(上脘穴) 부위의 복피(腹皮)에 옹(癰)이 생긴 것.
유율(乳栗) [병증] ⇒ 유벽(乳癖)
유음(留飮) [병리] [병증] : 병리 담음의 하나. 수음(水飮)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흩어지지 않는 것.
유음(流飮) [병리] [병증] : 병리 ① 좁은 의미에서 담음(痰飮)과 같은 뜻. ② 담음(痰飮)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
유읍(乳泣) [병증] 동 유태(乳胎) : 부인 고전에서는 임신기에 유즙이 저절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따라서 고프로락틴혈증에 의한 유즙분비와 산후 유즙자출(乳汁自出) 등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에는 비수유기의 유즙 배출도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다. 만약 비수유기에 유즙이 배출된다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기능이상이나 뇌하수체 미세선종에 의한 고프로락틴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유저(乳疽) [병증] : 부인 안이 유방에 발생한 옹종농양(癰腫膿瘍)인 유옹(乳癰)의 다른 증상으로 유옹이 벌겋게 부으면서 열이 나고 아픈 것에 비해, 유저(乳疽)는 딴딴하게 붓고 터지지만 짓무르지는 않으며 붓지만 사그러들지 않는 증상을 나타낸다.
유절(乳癤) [병증] : 부인 절(癤)이 유방부위에 생기는 것. 절이란 창옹(瘡癰) 중에 1촌 이하로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을 말함.
유정(遺精) [병증] 동 유설(遺泄), 유설(遺泄), 설정(泄精), 정설(精泄) : 내과 성교(性交)없이 정액(精液)이 흘러나오는 병증.
유종(乳腫) [병증] : 부인 유옹의 초기증상으로 유방이 붓는 증상.
유주(流注) [병리] [병증] : ① 안이 기육심부(肌肉深部)에 발생하는 전이성 다발성 농종(膿腫). 서양의학적으로는 농혈증(膿血症)에 해당. ② 재활 인체의 기혈이 쉬지 않고 흘러 각부로 관주하는 것.
유주동통(流走疼痛) [병증] 동 찬통(竄痛) : 내과 정해진 부위가 없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통증.

유주력(流注癧) [병증] : 안이 전신이 만종(漫腫)으로서 유연하며 낭내(囊內)에 경핵(硬核)이 있는 나력(瘰癧).
유주혈비옹(遊走血脾癰) [병증] ⇒ 관저(串疽)
유중(類中) [병증] ⇒ 유중풍(類中風)
유중(乳中)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7)로서 젖꼭지 가운데, 전중(膻中) 양쪽 4촌, 네 번째 갈비뼈 아래에 위치.
유중결핵(乳中結核) [병증] 동 유결핵(乳結核) : 부인 안이 유력(乳瀝), 유벽(乳癖), 유로(乳癆), 유암(乳岩) 등 유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종 유방병의 총칭.
유중풍(類中風) [병증] 동 유중(類中), 유풍(類風), 비풍(非風) : 내과 ① 중풍과 비슷한 병증. 정신을 잃고 갑자기 넘어지는 것은 중풍과 같으나 입과 눈이 틀어지거나 반신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 비풍(非風)은 내상(內傷)으로 오는 중풍을 말함. ② 원인이 외감풍사(外感風邪)가 아니고 화(火), 기(氣), 습(濕) 등 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풍.
유즙불통(乳汁不通) [병증] ⇒ 유즙불행(乳汁不行)
유즙불행(乳汁不行) [병증] 동 결유(缺乳), 유즙불통(乳汁不通), 산후유즙불행(産後乳汁不行), 유즙불행병(乳汁不行病), 산후유즙부족(産後乳汁不足) : 부인 출산 후에는 곧바로 유즙분비가 있고 일반적으로 산후 12시간이 지나면 포유가 시작된다. 유즙불행(乳汁不行)은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산후에 유즙이 심하게 적거나 전혀 없는 것을 지칭하며, 보통 산후 2~3일부터 15일 이내에 많이 발생하고 포유기에 발생할 수 있다.
유즙불행병(乳汁不行病) [병증] ⇒ 유즙불행(乳汁不行)
유즙일(乳汁溢) [병증] 동 유즙자용(乳汁自湧), 유즙자출(乳汁自出) : 부인 산후에 유즙 분비가 과다하여 넘치는 것. 기혈이 왕성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기허(氣虛)하여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일 수도 있음.
유즙자용(乳汁自湧) [병증] ⇒ 유즙일(乳汁溢)
유즙자출(乳汁自出) [병증] ⇒ 유즙일(乳汁溢)
유증(乳蒸) [병증] 동 증유(蒸乳), 유팽(乳膨) : 내과 산후(産後)에 유즙(乳汁)이 통하지 않거나, 수유(授乳)하지 못해 유방창통(乳房脹痛), 오한발열(惡寒發熱)한 병증.
유창(乳脹) [증상] : 내과 사열(邪熱)로 인하거나 수유를 못해 나타나는 유방의 창만감(脹滿感).
유체(流涕) [병증] : 내과 콧물이 흐르는 증상.
유축증(乳縮症) [병증] : 부인 유두가 수축하여 안으로 함몰되는 것.
유취(乳吹) [병증] : 부인 유아가 젖을 문채 잠들어 소아 구중(口中)의 담열(痰熱)이 유방으로 흡입되고 이에 따라 유관이 불통하게 되어 결절을 형성하는 것을 말함. 발적(發赤), 종창(腫脹), 동통(疼痛) 등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때때로 점차 종대(腫大)하거나 동통이 생기고 유옹(乳癰)으로 변하는 것도 있음. 발생 시기에 따라 산전유취(産前乳吹)는 내유취(內乳吹)라 하고 산후유취(産後乳吹)는 외유취(外乳吹)라고 구별하나 증상은 동일함.
유치(柔痓) [병증] ⇒ 유경(柔痙)
유침(留鍼) [침구] 동 유침법(留鍼法) : 침구 침을 꽂아 득기(得氣)한 후 침을 일정 시간 혈자리에 그대로 꽂아 두는 것.
유침법(留鍼法) [침구] ⇒ 유침(留鍼)
유침보사(留鍼補瀉) [침구] : 침구 유침(留鍼)시 조작에 따라 보사(補瀉)를 가리는 방법으로 득기(得氣)후 약간 염침(捻鍼)한 후 뽑아 보(補)하고, 득기(得氣) 후에도 사기(邪氣)가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염침(捻鍼)한 후 뽑아 사(瀉)하는 방법.
유태(乳胎) [병증] ⇒ 유읍(乳泣)
유투(乳妬) [병증] 동 투유(妬乳) : 부인 유두에 창(瘡)이 생겨서 딴딴하게 붓고 가려운 병증을

말하는 것으로 유방습진에 해당. 대부분 산후에 젖을 먹이지 않거나 산모의 젖이 많아 먹고 남은 젖이 쌓여 기혈과 엉킴으로 인해 생기며 유방이 붓고 단단해지며 아파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간혹 유두에 작은 창(瘡)이 생겨 가려우면서 아프며 긁으면 누런 물이 스며나오기도 한다.

유팽(乳膨) [병증] ⇒ 유증(乳蒸)

유풍(類風) [병증] ⇒ 유중풍(類中風)

유풍(乳瘋) [병증] ⇒ 유옹(乳癰)

유풍(油風) [병증] 동 반독증(斑禿症) : 안이 원형탈모증으로, 모발의 건조로 가피(痂皮)를 형성하여 탈락하며, 원형 혹은 타원형의 독반(禿斑)이 되는 것.

유한(柔汗) [증상] 동 유한(油汗), 냉한(冷汗), 점한(粘汗), 한출여유(汗出如油) : 내과 차가운 땀, 기름땀 혹은 끈적끈적한 땀.

유한(油汗) [증상] ⇒ 유한(柔汗)

유해(油海) [사상] : 사상 → 전사해(前四海)

유행성역려(流行性疫癘) [병증] ⇒ 시역(時疫)

유향(乳香) [약물] 동 명향(明香) : 본초 감람과(橄欖科 : Burseraceae)에 속한 유향나무 *Boswellia carterii* Birdwood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간피(幹皮)에서 삼출한 수지(樹脂)로, 봄에서 여름 사이에 수간(樹幹)에 상처를 내어 흘러나오는 수지(樹脂)를 응고시켜 채취.

유현(乳懸) [병증] : 부인 유방하수증(乳房下垂症)을 말함. 유방하수는 주로 갱년기 이후에 유방조직이 위축되어 유방이 탄력을 상실하여 일어나며 때때로 유방결체조직의 이상증식으로 발생하기도 함. 산후에는 어혈(瘀血)이 상부를 공격하여 갑자기 양쪽 유방이 늘어나서 마치 창자처럼 가늘어지고 소복부(小腹部)까지 쳐져 심하게 아픈 것을 가리키며 위급한 증후.

유황구(硫黃灸) [침구] : 침구 애융(艾絨)에 석유황 가루를 섞어서 애주(艾炷)를 만들어 뜨는 뜸 요법.

유흔구(有痕灸) [침구] ⇒ 유흔구(遺痕灸)

유흔구(遺痕灸) [침구] 동 유흔구(有痕灸) : 침구 뜸을 뜬 후 화농(化膿)이 되도록 하는 뜸 요법.

육(肉) [해부] [진찰] : ① 기육(肌肉). ② 살찐 사람 유형 중의 하나. 피부(皮膚)와 기육(肌肉)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사람을 육형(肉型)이라고도 함.

육가(肉瘕) [병증] : 부인 육류(肉類)를 무절제하게 섭취하여 발생한 가병(瘕病). 육징(肉癥)과 유사.

육가(肉苛) [병증] : 내과 기육(肌肉)이 무감각하여 가려움이나 아픔, 한열(寒熱)을 느끼지 못하는 병증

육갑(六甲) [운기] : 원전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상합(相合)하여 생겨나는 60갑자(甲子)의 약칭. 60갑자는 천간의 머리인 갑(甲)과 지지(地支)의 머리인 자(子)를 합칭한 것.

육강(六綱) [진찰] : 진단 변증(辨證)의 여섯 가지 강령(綱領)으로서, 팔강(八綱) 즉 한(寒)·열(熱)·허(虛)·실(實)·표(表)·리(裏)·음(陰)·양(陽)에서 음양(陰陽)을 제외한 한(寒)·열(熱)·허(虛)·실(實)·표(表)·리(裏)를 가리킴.

육경(六經) [경락] : 경혈 십이경맥(十二經脈)을 음양(陰陽)의 속성에 따라 6부류로 나눈 것.

육경궐(六經厥) [병증] : 내과 태양(太陽), 양명(陽明), 소양(少陽), 태음(太陰), 소음(少陰), 궐음(厥陰)의 궐증(厥證)을 총칭

육경변증(六經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육경(六經)은 태양(太陽)·양명(陽明)·소양(少陽)·태음(太陰)·소음(少陰)·궐음(厥陰)을 말함. 傷寒論의 외감열병(外感熱病) 전변 상황을 총괄한 6가지의 변증 강령으로 외감열병 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증후(證候)를 변증하는 방법.

육경병(六經病) [병증] ⇒ 육경병증(六經病證)

육경병증(六經病證) [병증] ㊐ 육경병(六經病) : 병리 태양병(太陽病), 양명병(陽明病), 소양병(少陽病), 태음병(太陰病), 소음병(少陰病), 궐음병(厥陰病)의 6가지 병증. 한대(漢代)의 중경(仲景) 장기(張機)가 저술한 傷寒論에서 외감열병(外感熱病)이 발전, 변화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각종 증후를 사기(邪氣)가 침범한 경락, 장부와 병변부위, 사기의 경중(輕重), 정기(正氣)의 허실(虛實)에 근거하여 음양(陰陽), 표리(表裏), 한열(寒熱), 허실(虛實)로 분별하고 6가지 병증으로 구분한 것.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은 삼양병(三陽病)에 속하고, 태음병, 소음병, 궐음병은 삼음병(三陰病)에 속함.

육경중풍(六經中風) [병증] : 내과 삼양경(三陽經)과 삼음경(三陰經)이 풍사(風邪)에 상한 것.

육경표본(六經標本) [경혈] ㊐ 십이경표본(十二經標本), 수족육경표본(手足六經標本) : 경혈 수족육경(手足六經) 분포 특징의 하나. 수족육경(手足六經)의 끝으로 뻗는 표부(標部)와 뿌리가 되는 본부(本部)를 말함.

육경피부(六經皮部) [경락] : 경혈 육경(六經)이 지나가는 부위의 살갗.

육계(肉桂) [약물] ㊐ 모계(牡桂) : 본초 녹나무과(樟科 : Laur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육계 *Cinnamomum cassia* Presl의 수피(樹皮)로, 8~10월 사이에 채취하여 음건(陰乾)한 후 사용.

육고(肉枯) [증상] : 내과 기혈(氣血)이 쇠약해짐으로써 기육(肌肉)이 자양받지 못해 마르고 위축되는 증상.

육구(肉龜) [병증] : 안이 배부양측(背部兩側)에서 발생하여 피부색이 붉고 형상(形狀)이 황조상(黃爪狀)과 같은 옹저.

육극(六極) [병증] ㊐ 육극증(六極證) : 내과 근극(筋極), 골극(骨極), 혈극(血極), 육극(肉極), 정극(精極), 기극(氣極). 허로(虛勞)의 하나.

육극증(六極證) [병증] ⇒ 육극(六極)

육기(六氣) [생리] [병리] : 병리 ①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화(火) 등 여섯 가지 기(氣)로 자연계의 기후현상을 요약한 것. ② 인체의 기(氣), 혈(血), 진(津), 액(液), 정(精), 맥(脈) 등 여섯 가지 기본물질. 모두 후천 수곡정기로 말미암아 생성됨.

육기(六紀) [운기] : 원전 육기(六氣)의 기(紀). 육기는 상하승강(上下升降)을 반복하니, 승천(升天) 3년에는 반드시 하강하고 하강(下降) 3년에는 반드시 상승하는데, 이러한 승강왕래가 육기(六紀)다.

육두구(肉豆蔻) [약물] : 본초 육두구과(肉豆蔻科 : Myristic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육두구 *Myristica fragrans* Houttuyn의 종자로서, 사용할 때 가종피 및 씨껍질을 벗김. 4~6월 또는 11~12월에 채취하여 과피(果皮)를 벗기고 종인(種仁)을 채취하여 석회수에 1일간 담근 후 저온에서 건조하거나, 채취 후 60℃에서 직접 건조하여 사용.

육류(肉瘤) [병증] : 안이 비위(脾胃)의 손상으로 인해 연약한 솜과 같고 만두와 같으며 흡사 간장(肝臟)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유증(瘤症).

육륜(肉輪) [진찰] ㊐ 토륜(土輪) : 진단 눈의 오륜(五輪)의 하나. 안검(眼瞼)부위에 해당하며, 대개 비위(脾胃)질환과 관련이 있는 부위. →오륜(五輪)

육맥(六脈) [경락] : 경혈 삼음삼양(三陰三陽)의 경맥(經脈).

육법(扭法) [추나] ㊐ 추뉵법(推扭法) : 재활 손가락의 지복부(指腹部) 혹은 손바닥으로 치료할 부위를 가볍게 눌러 해당 부위의 피하조직을 가벼우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방법으로 조기혈(調氣血), 활근락(活筋絡)하여 장부(臟腑)가 막히지 않도록 하며 거어활혈(祛瘀活血), 소종산결(消腫散結), 완통해경(緩痛解痙) 및 송해점연(鬆解粘連) 등의 작용이 있음.

육부(六腑) [해부] [생리] ㊐ 육부병증(六腑病

ㅇ

證) : 생리 ① 담(膽)·위(胃)·대장(大腸)·소장(小腸)·삼초(三焦)·방광(膀胱)의 여섯 기관의 합칭. ② 음식물의 수납(受納)·소화(消化)·전화(傳化)·전수(轉輸)를 담당하는 장기.

육부병증(六腑病證) [병리] 동 육부에서 발생하는 병증의 총칭. → 육부(六腑)

육부해(六腑咳) [병증] : 내과 해수(咳嗽)의 분류. 담해(膽咳) 소장해(小腸咳) 위해(胃咳) 대장해(大腸咳) 방광해(膀胱咳) 삼초해(三焦咳).

육비(肉痺) [병증] : 비록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사지의 활동이 둔하고 추스르지 못하는 증상.

육송용(肉松蓉) [약물] ⇒ 육종용(肉蓯蓉)

육순(肉瞤) [증상] : 정신 기육(肌肉)이 무단히 벌레 기어가듯이 조동(躁動)하는 것.

육영(肉癭) [병증] : 안이 비위(脾胃)의 손상으로 인해 피부색깔이 변하지 않고 돌기되는 영증(癭症).

육요맥(六要脈) [진찰] : 진단 표(表)·리(裏)·한(寒)·열(熱)·허(虛)·실(實)을 개괄하는 맥. 표맥(表脈)은 부(浮), 이맥(裏脈)은 침(沈), 한맥(寒脈)은 지(遲), 열맥(熱脈)은 삭(數), 허맥(虛脈)은 소(小), 실맥(實脈)은 대(大)한 것.

육울(六鬱) [병증] : 정신 기울(氣鬱), 습울(濕鬱), 열울(熱鬱), 담울(痰鬱), 혈울(血鬱), 식울(食鬱) 등 여섯 가지 울증의 총칭.

육위(肉痿) [병증] 동 비위(脾痿) : 재활 위증(痿症)의 하나. 비기(脾氣)가 열(熱)함으로 인해 기육(肌肉)이 자양 받지 못하거나, 습사(濕邪)가 비(脾)를 핍박하여 기육(肌肉)이 손상됨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기육마비불인(肌肉痲痺不仁), 구갈(口渴), 심하면 사지를 추스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한다.

육음(六淫) [병리] 동 육음사기(六淫邪氣) : 병리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화(火) 등 여섯 가지 외감병사로 육기(六氣)가 지나쳐서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

육음(育陰) [치법] ⇒ 보음법(補陰法)

육음변증(六淫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기운이 시기에 맞추어 이르지 않고 태과(太過)하거나 불급(不及)하게 되면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의 육기(六氣)가 육음(六淫)이라는 사기(邪氣)로 변화되어 만물이 훼손되고 인체에 대해서도 발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육음변증은 이러한 육음(六淫)의 특성과 임상적 표현에 근거하여 질병을 변별하고 치료원칙을 세우는 변증방법.

육음사기(六淫邪氣) [병리] ⇒ 육음(六淫)

육자(肉刺) [병증] 동 계안(鷄眼) : 발가락이나 족근전단(足跟前端) 등에 잘 생기는 티눈. 신발이 너무 작거나 본래부터 기형적인 족골 부위가 장기적으로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 생긴다. 계안(鷄眼)은 원추형으로 각질이 딱딱하게 결집된 것. 그 수는 일정하지 않고 뿌리는 비교적 깊으며, 피부가 두껍게 되고 정점부가 돌출되며 언제나 통증이 있으므로 보행에 지장을 줌.

육적(肉積) [병증] : 내과 제반식물(諸般食物)로 인하여 생긴 적(積)의 하나.

육종심통(六種心痛) [병증] : 내과 6가지 종류의 심통. 비심통(脾心痛)·위심통(胃心痛)·신심통(腎心痛)·적심통(積心痛)·궐심통(厥心痛)·진심통(眞心痛).

육종용(肉蓯蓉) [약물] 동 육송용(肉松蓉) : 본초 열당과(列當科 : Orobanchaceae)에 속한 다년생 육질의 기생초본인 육종용 *Cistanche deserticola* Y. C. Ma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육질경(肉質莖)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며, 봄의 것이 양호하다. 화서(花序)를 제거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동속근연식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육탈(肉脫) [병증] : 기육(肌肉)이 몹시 야위어 앙상한 것.

육합(六合) [경락] [기타] : 경혈 ① 십이경맥(十二經脈)을 표리관계(表裏關係)에 따라 6쌍으로 짝지어 놓은 것. ② 상하사방(上下四方)의 공간을 이르는 말.
육혈(衄血) [병증] 동 비뉵(鼻衄) : 안이 비출혈(鼻出血).
윤법(潤法) [치법] : 본초 약재를 절제(切製)하기에 적당하게 연화(軟化)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습윤하게 한 약재를 일정한 용기 내나 평판에 쌓아 놓고 뚜껑을 덮어서 외부의 수분을 서서히 약재의 내부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
윤조(潤燥) [치법] : 방제 자윤(滋潤)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조증(燥證)을 치료하는 방법.
윤하(潤下) [치법] ⇒ 윤하법(潤下法)
윤하법(潤下法) [치법] 동 윤하(潤下) : 방제 하법(下法)의 하나. 장(腸)을 윤활하게 하는 약으로 대변을 나오게 하는 방법. 대장에 진액이 부족해서 생긴 변비인 노인의 변비, 습관성 변비, 임신부 및 산후 변비에 주로 사용. 약으로는 주로 화마인·욱리인·봉밀 등이 들어 있는 윤장환이나 오인환을 씀. 윤하(潤下)에는 진액을 불려서 장을 원활하게 하는 약으로 대변을 나오게 하는 증액윤하(蒸液潤下)법도 있음.
율자(栗子) [약물] ⇒ 건율(乾栗)
융(癃) [병증] : 내과 요삽임력(尿澁淋瀝) 점적이출(點滴而出)하여 소변이 조금씩 자주 나오는 병증. 융폐(癃閉) 중 구병(久病)에 속함.
융배(隆背) [병증] ⇒ 귀배(龜背)
융폐(癃閉) [병증] 동 소변융폐(小便癃閉), 폐융(閉癃) : 내과 요(尿)가 방광에 정체(停滯)되어 소변(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병증. 소변이 갑자기 불통(不通)되면 폐(閉), 요삽임력(尿澁淋瀝) 점적이출(點滴而出)하여 조금씩 자주 나오는 것을 융(癃)이라 한다.
은교(齦交)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8)로서 윗입술 안쪽면의 중앙과 잇몸의 부착부 정중앙에 위치.
은내장(銀內障) [병증] ⇒ 원예내장(圓翳內障)
은문(殷門)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7)로서 승부(承扶)와 위중(委中) 중간에 위치.
은백(隱白) [경혈] 동 음백(陰白)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로서 정목혈(井木穴), 십삼귀혈(十三鬼穴)에 해당하고 엄지발가락 발톱뿌리 각 안쪽(내측) 1푼에 위치.
은시호(銀柴胡) [약물] : 본초 패랭이꽃과(石竹科 : Caryophyl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대나물 *Gypsophila oldhamiana* Miquel.의 근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중국에서는 은시호(銀柴胡) *Stellaria dichtoma* L. var. *lanceolata* Bunge를 기원으로 한다.
은종(齦腫) [병증] : 안이 잇몸 부위가 부어오른 것.
은진(癮疹) [병증] 동 은진(隱疹), 담마진(蕁麻疹), 팽진(膨疹) : 안이 흔히 말하는 두드러기를 지칭하며, 폭넓게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속한다. 국소적인 부종과 가려움이 있으면서 피부가 편평하게 융기하는데, 수 시간 내에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은진(隱疹) [병증] ⇒ 은진(癮疹)
은침(銀鍼) [기구] : 침구 은으로 만든 침.
은행(銀杏) [약물] ⇒ 백과(白果)
은환사(銀環蛇) [약물] ⇒ 백화사(白花蛇)
을계동원(乙癸同源) [생리] ⇒ 간신동원(肝腎同源)
음(音) [기타] [진찰] : 진단 ① 음조(音調)를 가리킴.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음(五音) 등. ② 문진방법(問診方法)으로,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킴. 환자의 언어(言語)·호흡(呼吸)·해수(咳嗽)·구토(嘔吐)·애역(呃逆)·얼기(噦氣)·제곡(啼哭) 등을 소리로 변증하는 방법.
음(淫) [병리] : 병리 지나치게 많아서 몸에 해를 주는 병사(病邪). 육음(六淫)이 대표적.

ㅇ

음(飮) [병증] : 병리 수액대사의 장애로 형성된 병리적 산물로 담(痰)에 비해 비교적 맑고 옅은 것.
음(陰) [생리] : 생리 양(陽)에 상대되는 말. 사물과 현상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대립되는 상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즉, 온열(溫熱), 상승(上升), 광명(光明), 흥분(興奮), 경부(輕浮), 활동적이며 기능항진 경향의 속성[양(陽)]에 대비하여 한랭(寒冷), 하강(下降), 회암(晦暗), 억제(抑制), 침중(沈重), 정적(靜的), 침체적, 기능저하의 속성을 음(陰)이라고 함.
음(瘖) [증상] ⇒ 실음(失音)
음간(飮癎) [병증] : 내과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고 갑자기 3~5일간 식욕이 없어지며 손과 발이 요동하고, 대개 꿈에서 배부르게 먹으며 갑자기 발작하기도 하는 간증(癎證).
음간(陰癎) [병증] : 정신 음증(陰證)이 위주로 나타나는 간증(癎症). 諸病源候論 卷四十五에서 "먼저 몸이 차고 경계(驚瘈)하지 않으며 울부짖지도 않고 발병할 때 맥(脈)이 침(沈)한 경우는 음간(陰癎)이고, 먼저 신열(身熱)·계종(瘈瘲)·경체(驚滯)가 발생한 후에 간증(癎症)이 발작하고 맥부(脈浮)한 것은 양간(陽癎)이다."고 하였음.
음갈양탈(陰竭陽脫) [병리] : 병리 음기(陰氣)가 몹시 소모되면 양기(陽氣)도 같이 소실되는 병리상태. 병이 매우 위중한 때 나타난다.
음결(陰結) [병증] : 내과 ① 비신(脾腎)이 허한(虛寒)하여 대변비결(大便秘結)이 된 병증. ② 맥상(脈象) 중 하나.
음경(陰經) [경락] : 경혈 음(陰)에 속하는 경맥(經脈). 수족삼음경(手足三陰經), 임맥(任脈), 충맥(衝脈), 음유맥(陰維脈), 음교맥(陰蹻脈) 등을 포괄.
음경(陰痙) [병증] ⇒ 유경(柔痙)
음경통(陰莖痛) [증상] : 내과 음경(陰莖)에 발생한 통증(痛症).
음곡(陰谷)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0)로서 합수혈(合水穴)에 해당하고 오금 안쪽, 반힘줄모양근(반건양근; semitendinosus) 힘줄의 끝과 반막모양근(반막양근; semimembranosus) 힘줄의 끝 사이에 위치.
음관(陰關) [경혈] ⇒ 승부(承扶)
음교(陰交)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7)로서 배꼽 아래 1촌에 위치.
음교맥(陰蹻脈) [경락] : 경혈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족소음경(足少陰經)에서 분출되어 연곡(然谷)의 뒤 조해(照海)혈에서 비롯되며 내과(內踝)를 지나 위로 대퇴부 안쪽을 따라서 음기(陰器)로 진입되며, 다시 위로 흉부를 지나 결분(缺盆)에 이르고 인영(人迎)의 앞으로 나와 관부(觀部)에 이르러 목내자(目內眥)에 속하여, 족태양(足太陽), 양교맥(陽蹻脈)과 합하여 위로 행한다.
음궐(陰厥) [병증] : 내과 궐증(厥證)의 하나로 양정(陽精)이 손상되어 사지궐역(四肢厥逆)한 병증.
음균(陰菌) [병증] ⇒ 음정(陰挺)
음극(陰郄)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6)로서 극혈(郄穴)에 해당하고 새끼손가락 쪽 손목 관절 위 5푼으로 자쪽손목굽힘근(장측수근굴근; flexor carpi ulnaris)의 노쪽(요골측)에 위치.
음기(淫氣) [병리] : 병리 ① 음양(陰陽)이 혼란된 기. ② 몸에 해를 주는 기운. 병사(病邪). ③ 정기(正氣) 혹은 사기(邪氣)가 침습하거나 흘러들어감.
음기(陰氣) [생리] : 생리 양기(陽氣)와 상대되는 기운. 인체에서 기화(氣化), 동화(動化), 열화(熱化) 현상을 일으키는 양기에 대비되어 인체에서 형화(形化), 정화(靜化), 한화(寒化) 현상을 일으키는 세력.
음기(音氣) [진찰] : 진단 소리를 내는 힘.

음기수(飮氣嗽) [병증] : 내과 숨차고 기침하고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고, 흉격이 막혀서 답답하고 눕기가 어려운 병증. 흉(胸)에 정음(停飮)이 있고 수기(水氣)가 폐(肺)를 충(衝)할 때 발생.
음낭습양(陰囊濕痒) [병증] : 내과 음낭(陰囊) 부위에 땀이 차면서 가려운 증상.
음낭한(陰囊汗) [병증] ⇒ 음한(陰汗)
음달(陰疸) [병증] ⇒ 음황(陰黃)
음도(陰都)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9)로서 중완(中脘) 양쪽 5푼에 위치.
음독(陰毒) [병증] : 병리 역독(疫毒)을 감수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병증. 金匱要略 〈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治〉에서 "陰毒之爲病, 面目靑, 身痛如被杖, 咽喉痛."이라 하였는데, 그 증은 후대에서 이른바 온역(溫疫)과 온독(溫毒)의 발반(發斑)으로 면목청(面目靑), 신통(身痛)하는 것과 비슷하다.
음독팔혈(陰獨八穴) [기혈] ⇒ 팔풍(八風)
음두옹(陰頭癰) [병증] : 내과 음경의 귀두 부위가 자색(紫色)으로 부으면서 아픈 병증.
음두한(陰頭寒) [증상] : 내과 귀두(龜頭) 부위가 차가운 증상.
음락(陰絡) [경락] : 경혈 양락(陽絡)에 상대되는 용어. ① 수족삼음경(手足三陰經)에서 분출되는 낙맥(絡脈). ② 하행하거나 또는 비교적 심층(深層)에 위치하는 낙맥(絡脈).
음란(陰爛) [병증] ⇒ 음식(陰蝕)
음랭(陰冷) [병증] ⇒ 음한(陰寒)
음렴(陰廉)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11)로서 기충(氣衝) 아래 2촌에 위치.
음루(陰漏) [병증] : 안이 안루(眼漏)가 황혼시에 발생하며 양목(兩目)이 삽통(澀痛), 종창(腫脹)하고 증상이 낮에는 가볍고 밤에는 심한 특징을 지닌 누낭염.
음릉천(陰陵泉)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9)로서 합수혈(合水穴)에 해당하고 무릎을 굽혔을 때 정강뼈안쪽관절융기(경골내측과; medial condyle of tibia) 아래로 정강뼈(경골; tibia)와 장딴지근(비복근; gastocnemius) 사이에 위치.
음맥(陰脈) [경락] : 경혈 ① 오장(五臟)에 속하는 경맥(經脈), 곧 수족삼음경(手足三陰經). ② 임맥(任脈), 음유맥(陰維脈), 음교맥(陰蹻脈) 등 음(陰)의 속성을 지닌 경맥(經脈).
음맥지해(陰脈之海) [경락] ⇒ 임맥(任脈)
음박양별(陰搏陽別) [진찰] : 진단 임신(妊娠)에서 나타나는 맥상(脈象). 음(陰)은 척맥(尺脈)을 양(陽)은 촌맥(寸脈)을 가리키는데, 척맥(尺脈)의 박동이 뚜렷하게 활리(滑利)하여 촌맥(寸脈)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말함.
음반(陰斑) [병증] ㊇ 음증발반(陰證發斑) : 반(斑)의 일종. 반(斑)이 허한(虛寒)에 속하는 경우를 가리킴.
음백(陰白) [경혈] ⇒ 은백(隱白)
음병(飮病) [병증] ㊇ 음증(飮證) : 병리 수음(水飮)이 인체 내의 일정 부위에 정체되어 생긴 병증.
음부득어(瘖不得語) [증상] ⇒ 불어(不語)
음부족(陰不足) [병리] ⇒ 음허(陰虛)
음부족증(陰不足證) [병증] ⇒ 음허증(陰虛證)
음사(陰邪) [병리] : 병리 ① 육음(六淫)의 사기(邪氣) 중 한(寒), 습(濕) 등 음(陰)의 속성을 가진 사기(邪氣). 풍(風), 서(暑), 조(燥), 화(火) 등의 양(陽)의 속성을 가진 사기(邪氣)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한 것. ② 음경(陰經)을 침범하는 사기(邪氣).
음사(淫邪) [병리] : 병리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몸으로 퍼지는(浸淫散溢) 사기.
음산(陰疝) [병증] : 내과 소복(小腹)이 땅기면서 아픈 병증, 궐산(厥疝) 혹은 장퇴(腸癀) 난창(卵脹) 수퇴(水癀)의 합칭(合稱).

ㅇ

음성격양(陰盛格陽) [병리] ⇒ 진한가열(眞寒假熱)
음성격양증(陰盛格陽證) [병증] : 병리 음한(陰寒)이 내성(內盛)하여 양(陽)을 외표(外表)로 핍박하므로 음양한열(陰陽寒熱)이 격거(格拒)하여 내부에는 진한(眞寒)이 있고 외표(外表)로는 가열(假熱)의 증후가 나타나는 증.
음성저겁(音聲低怯) [병증] ⇒ 성음저겁(聲音低怯)
음수(陰水) [병증] ㊐ 음수부종(陰水浮腫) : 내과 부종과 함께 발열오한(發熱惡寒) 등 표증(表證)은 없고, 완복창민(脘腹脹悶) 면색위황(面色萎黃)하는 병증. 수종병(水腫病)의 하나. 주로 내상허손(內傷虛損)에 의한 허증(虛證).
음수부종(陰水浮腫) [병증] ⇒ 음수(陰水)
음시(陰市)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3)로서 무릎뼈(슬개골; patella)와 복토(伏兎)의 중간, 무릎 위 3촌에 위치.
음시(音嘶) [병증] : 안이 폐기(肺氣)가 불리하고 인후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원인으로 인해 성음(聲音)이 맑지 못하고 말할 때에 성시(聲嘶)가 되는 것.
음식(陰蝕) [병증] ㊐ 음란(陰爛), 산후음식(産後陰蝕) : 부인 음부가 허는 병증. 음부가 짓물러 궤양이 발생하고 농혈이 방울방울 떨어지며, 아프거나 혹은 가렵고 종창타통(腫脹墮痛)하는데, 대개 적백대하(赤白帶下) 등이 수반된다.
음식감소(飮食減少) [증상] ⇒ 식소(食少)
음식부절(飮食不節) [병리] ㊐ 음식부조(飮食不調), 음식실양(飮食失養), 음식실절(飮食失節), 자식(恣食) : 병리 음식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먹지 못하는 것. 즉 식사섭생을 잘하지 못하는 것.
음식부조(飮食不調) [병리] ⇒ 음식부절(飮食不節)
음식상(飮食傷) [병증] ⇒ 상식(傷食)
음식소상(飮食所傷) [병증] ⇒ 상식(傷食)
음식실양(飮食失養) [병리] ⇒ 음식부절(飮食不節)
음식실절(飮食失節) [병리] ⇒ 음식부절(飮食不節)
음심통(飮心痛) [병증] : 내과 수음(水飮)과 담연(痰涎)이 심(心)으로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심통(心痛). 명치 밑이 찌르는 듯이 아프고 헛구역을 하면서 느침(길게 질질 흐르는 끈적끈적한 침)을 토하며 메스꺼워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 아래에서 물소리가 나며 맥은 현활(弦滑)한 병증.
음아(音啞) [병증] ⇒ 음아(瘖瘂)
음아(瘖瘂) [병증] ㊐ 음아(音啞), 성음장애(聲音障碍) : 안이 어음(語音)이 낮으면서 모래를 문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음액(陰液) [생리] : 생리 정(精)·혈(血)·진(津)·액(液) 등 체액의 총칭.
음액폭갈증(陰液暴竭證) [병증] ⇒ 망음증(亡陰證)
음액폭탈증(陰液暴脫證) [병증] ⇒ 망음증(亡陰證)
음양(陰痒) [병증] : 부인 여성의 외음 및 질에 심한 가려움증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하량의 증가를 수반하기도 하는 병증. 양방의 외음소양증에 해당. 부인과적 질환으로는 각종 질염 및 외음부 염증, 영양실조증, 암등으로 유발될 수 있으며, 그 외 전신적인 요인으로 당뇨병이나 피부질환, 약에 대한 과민반응,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음양(陰陽) [생리] ㊐ 음양병증(陰陽病證) : 생리 자연계의 사물·현상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대적인 속성으로서 음(陰)과 양(陽)의 합칭.
음양격거(陰陽格拒) [병리] ㊐ 음양관격(陰陽關格) : 병리 음양(陰陽) 가운데 어느 하나가 극단적으로 성(盛)해져 양자(兩者)간에 성쇠(盛衰)의 차이가 현저해지면 과성(過盛)한 것이 미약해진 상대방을 바깥으로 몰아내게(格) 되며 이로써 음과 양의 연계가 서로 끊어져서 진한

가열(眞寒假熱)이나 진열가한(眞熱假寒) 등이 나타나는 병리상태.

음양곽(淫羊藿) [약물] ㊐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 : 본초 매자나무과(小蘗科 : Berberid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또는 기타 동속 근연 식물의 지상부로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지상부위의 전초(全草)를 채취하여 햇볕 또는 그늘에서 건조한 후 사용.

음양관격(陰陽關格) [병리] ⇒ 음양격거(陰陽格拒)

음양교사혈(陰陽交四穴) [경혈] : 경혈 경혈(經穴). 음교맥(陰蹻脈)의 조해혈(照海穴)과 양교맥(陽蹻脈)의 신맥혈(申脈穴)을 이르는 말.

음양구손증(陰陽俱損證) [병증] ⇒ 음양양허증(陰陽兩虛證)

음양구허(陰陽俱虛) [병리] ㊐ 음양양허(陰陽兩虛), 음양허(陰陽虛), 음양허쇠(陰陽虛衰) : 병리 인체의 음(陰)과 양(陽)이 모두 부족하여 장부(臟腑)의 기능과 음정(陰精)이 휴손된 병리상태.

음양구허증(陰陽俱虛證) [병증] ⇒ 음양양허증(陰陽兩虛證)

음양병증(陰陽病證) [병증] : 병리 음기와 양기의 평형실조로 발생한 음양차질 현상. "陽虛則外寒, 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陰盛則內寒"한다.

음양실조(陰陽失調) [병리] ㊐ 음양망실(陰陽亡失), 음양괴려(陰陽乖戾) : 병리 체내 음양(陰陽)의 평형과 협조가 상실된 병리상태. 인체가 평형 조절을 잃은 모든 병기(病機)에 대한 총괄적 표현.

음양쌍보(陰陽雙補) [치법] ⇒ 쌍보(雙補)

음양양허(陰陽兩虛) [병리] ⇒ 음양구허(陰陽俱虛)

음양양허증(陰陽兩虛證) [병증] ㊐ 음양구손증(陰陽俱損證), 음양구허증(陰陽俱虛證) : 병리 음양이 모두 허해진 병증. 외한지랭(畏寒肢冷), 권태무력(倦怠無力), 소기나언(少氣懶言), 자하도한(自汗盜汗), 오후조열(午後潮熱), 오심번열(五心煩熱) 등이 주증이고, 형체위약(形體萎弱), 정신위돈(精神萎頓), 심계실면(心悸失眠), 두훈목현(頭暈目眩) 등이 차증이며, 설질반눈(舌質胖嫩), 맥세삭무력(脈細數無力)하다.

음양역(陰陽易) [병증] [진찰] : 병리 진단 ① 상한(傷寒) 혹은 온역(瘟疫) 등의 병을 앓은 후 여열(餘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옮기는 것. ② 음(陰)의 부위에서 양맥(陽脈)이 나타나거나, 양(陽)의 부위에서 음맥(陰脈)이 나타나는 것.

음양예(陰陽翳) [병증] : 안이 흑정(黑睛)이 궤양(潰瘍)이 된 후 2개의 백예(白翳)가 유착되어 하나는 중앙이 허(虛)하고 하나는 중앙이 실(實)하면서 서로 환상(環狀)으로 연결되어 음양권(陰陽圈)과 같음을 표현한 것으로 각막염이나 모양체염으로 충혈이 되고 각막궤양이 되어 발생함.

음양이결(陰陽離決) [병리] : 병리 체내 음양(陰陽)의 관계가 분리되어 결렬된 병리상태.

음양이기저(陰陽二氣疽) [병증] : 안이 배척주위(背脊周圍)에서 발생하는 옹저. 화농이 되었다간 없어지고 종창(腫瘡)이 때로는 부드럽던 것이 때로는 단단해 진다.

음양자(陰陽刺) [침구] ⇒ 우자(偶刺)

음양허(陰陽虛) [병리] ⇒ 음양구허(陰陽俱虛)

음양허쇠(陰陽虛衰) [병리] ⇒ 음양구허(陰陽俱虛)

음열(淫熱) [병리] ⇒ 사열(邪熱)

음위(陰痿) [병증] ㊐ 양위(陽痿), 전음위(前陰痿), 양사불거(陽事不擧) : 신기(腎氣)가 쇠약해질 연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음경(陰莖)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는 되지만 단단하지 않은 것.

음유맥(陰維脈) [경락] : 경혈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여러 음경(陰經)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어, 그 맥(脈)은 족소음경(足少陰經)의

축빈(築賓)혈에서부터 출발하고 위로 다리의 안쪽을 따라 올라가 아랫배로 들어가고 옆구리를 따라 흐르면서 가슴과 횡격막으로 올라가서 목구멍을 끼고 흐르며, 임맥의 천돌(天突)혈 및 염천(廉泉)혈과 만나 위로 앞머리 꼭대기에 이르러 끝을 맺음.

음자(飮子) [약물] : 방제 탕제를 시간에 관계없이 냉복(冷服)하는 것. 예를 들면 지황음자.

음장(陰臟) [해부] [생리] : 생리 빈장(牝臟). 비(脾)·폐(肺)·신(腎)을 가리킴.

음저(陰疽) [병증] : 안이 우대퇴내측(右大腿內側) 상부(上部) 고동맥(股動脈)이 있는 부위에서 발하는 옹저로 나머지는 횡현저(橫痃疽)와 동일함.

음전(陰癲) [병증] → 오전(五癲)

음절(陰絶) [징후] : 진단 맥박이 척부(尺部)에서만 나타나고 촌·관부(寸·關部)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것. 음기(陰氣)가 끊어진 상태.

음정(陰挺) [병증] 동 음균(陰菌), 부인음정(婦人陰挺) : 부인 음부에서 마치 버섯 같은 것이 빠져 나오는 것. 현대에서는 자궁하수(子宮下垂) 및 자궁탈(子宮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음정(陰精) [생리] : 생리 음액(陰液).

음정석(陰精石) [약물] ⇒ 현정석(玄精石)

음종(陰縱) [병증] : 내과 음경(陰莖)이 열사(熱邪)를 받아 근완(筋緩)해져서 수축(收縮)하지 못하는 증상.

음종(陰腫) [병증] : 부인 안이 외음부가 종대(腫大)해지는 병증. 남성의 음낭이 종대된 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여성의 음호(陰戶)가 종창된 것을 가리키기도 함.

음중복양(陰中伏陽) [징후] : 진단 맥(脈)의 음양(陰陽)이 상승(相乘)·상복(相伏)하는 맥상(脈象). 음맥(陰脈)이지만 잠깐 부활(浮滑)하면서 장(長)한 양(陽)의 맥상(脈象)이 나타나는 것이 이에 해당.

음증(飮證) [병증] ⇒ 음병(飮病)

음증(陰證) [변증] : 병리 ① 팔강(八綱)의 하나. 질병의 속성이 음적인 것. 양증(陽證)과 함께 팔강의 총강(總綱)으로 이증(裏證), 한증(寒證), 허증(虛證)을 포괄함. ② 음(陰) 자체에 생긴 병증. 음허증(陰虛證), 망음증(亡陰證) 등. 안이 ③ 옹저 초기에 속립대(粟粒大) 종창(腫瘡)으로서 불홍(不紅)·불종(不腫)·불열(不熱)·불통(不痛)하며 나무를 만지는 것과 같이 딱딱하고, 근핵(根核)이 미만성(瀰滿性)으로 퍼져 있으며, 암자색(暗紫色)을 띠고 광택도 없으며, 7일이 경과되어도 종창이 파괴되거나 부식되지도 않고 창내면(瘡內面)에 농을 형성하지도 않고 창상(瘡上) 외면피층(外面皮層)이 딱딱한 것.

음증발반(陰證發斑) [병증] ⇒ 음반(陰斑)

음증사양(陰證似陽) [병리] ⇒ 진한가열(眞寒假熱)

음증상한(陰證傷寒) [병증] : 병리 병사(病邪)가 음경(陰經)으로 직중(直中)하여 발생한 허한증(虛寒證). 한중태음(寒中太陰)·한중소음(寒中少陰)·한중궐음(寒中厥陰) 세 종류로 나눔. → 직중(直中)

음지절음(陰之絶陰) [경혈] ⇒ 대돈(大敦)

음창(陰瘡) [병증] 동 식창(蝕瘡), 음견(陰繭) : 부인 여성의 음호(陰戶)에 생긴 창(瘡)의 일종. 국부에 홍(紅), 종(腫), 열(熱), 통(痛)을 동반할 수 있으며 오래되면 덩어리를 형성하거나 혹은 화농부란(化膿腐爛)되어 농수(膿水)가 흐르며 심하면 벌레먹은 것처럼 궤양이 되는 것을 말함. 서양의학에서의 외음부궤양, 외음종유(外陰腫瘤), 베체트병, 바르톨린선염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과에서는 음저(陰疽)를 음창(陰瘡)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욕창(蓐瘡)을 음창(陰瘡)이라 하기도 한다.

음청지기(陰淸之氣) [사상] : 사상 소양인(少陽人)에게 부족하기 쉬운 신(腎)의 기운. 소양인

은 납적지기(納積之氣)가 태과하고 출방지기(出放之氣)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음청지기(陰淸之氣)가 보명지주(保命之主)가 된다.

음축(陰縮) [병증] 동 경축(莖縮) : 소아 전음(前陰)이 안으로 수축되는 것. 남성의 음경(陰莖), 음낭(陰囊), 고환(睾丸)이 수축되거나 여성의 음호(陰戶)가 땅기면서 뱃속까지 아픈 병증이 이에 포함됨.

음출지양(陰出之陽) [징후] : 진단 음분(陰分)의 사기(邪氣)가 양분(陽分)으로 나오는 것으로, 깊숙이 내장(內臟)에 잠복한 병사(病邪)가 외부의 맥상(脈象) 및 정지변화(情志變化)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음취(陰吹) [병증] : 부인 여성의 질에서 수시로 방귀를 뀌는 것처럼 기(氣)가 배출되는 것.

음치(陰痔) [병증] : 내과 부인의 음부(陰部)에 하추물(下墜物)이 있는 것, 혹은 질구(膣口) 밖으로 돌출하는 병증.

음탈(陰脫) [병증] 동 자궁하수(子宮下垂), 자장불수(子腸不收) : 안이 산후(産後)에 위(胃)가 허약하거나 과도한 사려로 음문(陰門)이 개방되어 폐쇄(閉鎖)되지 않고 가렵고 아프며 삼출물이 흐르는 병증.

음통(陰痛) [병증] 동 가통(嫁痛) : 부인 여성의 음중(陰中) 혹은 음호(陰戶)에 통증이 있거나 때로는 음부에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고, 심한 경우 소복부와 위로 유방까지 통증이 미치는 경우로 음창(陰瘡)에 의한 것을 제외한 질환. 통증과 함께 질 건조나 외음부의 홍종동통(紅腫疼痛)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통(嫁痛－성교통)을 포괄하고 있으며, 음통(陰痛)이 지극히 가볍거나 우연히 한번 발작한 경우 혹은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음호가 손상되어 음호동통출혈(陰戶疼痛出血)이 발생하는 것은 제외된다.

음퇴(陰癩) [병증] : 안이 선천적으로 기혈이 허약하거나 혹은 중병 후에 원기(元氣)가 없고 전신이 무력하여 자궁이 탈출된 것.

음폐(陰閉) [병증] : 내과 한습사기(寒濕邪氣)로 인해 발생하는 소변불통(小便不通)한 병증.

음포(陰包)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9)로서 무릎 위 4촌으로 넙다리빗근(봉공근; sartorius)과 반막모양근(半膜樣筋; semimembranosus) 사이의 오목한 곳에 위치.

음한(陰汗) [병증] 동 음낭한(陰囊汗) : 내과 ① 전음(前陰)과 음낭(陰囊) 및 그 주위에 땀이 많이 나는 병증. ② 음증(陰證)에 속하는 한증(汗證)으로 항상 땀이 나면서 냉(冷)한 병증.

음한(陰寒) [병증] 동 음랭(陰冷) : 부인 외음(外陰)과 음중(陰中)에 한랭(寒冷)을 느끼고 심하면 냉기가 아랫배와 서혜부까지 미치는 것. 성욕저하와 불감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음허(陰虛) [병리] 동 음부족(陰不足) : 병리 인체의 음(陰)에 속하는 기능이 감퇴된 병리 상태. 주로 진액(津液), 정(精), 혈(血) 등의 음액(陰液)이 부족하여 자윤(滋潤)·유양(濡養) 기능이 저하된 병리상태.

음허비(陰虛痺) [병증] : 재활 구병(久病)과 온조지제(溫燥之劑)의 과용은 간신(肝腎)의 음(陰)을 쉽게 손상시켜 음허(陰虛)와 간신부족(肝腎不足)의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에 따라 근골이 실양(失養)하게 되고 혈허생풍(血虛生風)하여 근맥구급(筋脈拘急), 근골동통(筋骨疼痛)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특히 운동시 심하게 나타난다.

음허증(陰虛證) [병증] 동 음휴증(陰虧證), 음부족증(陰不足證) : 병리 음허(陰虛)로 인한 병증. 조열도한(潮熱盜汗), 오심번열(五心煩熱), 오후관홍(午後顴紅) 등이 주증이고, 형체소수(形體消瘦), 구건인조(口乾咽燥), 현훈실면(眩暈失眠), 요소색황(尿少色黃), 대변건결(大便乾結) 등이 차증이며, 설홍소태(舌紅少苔), 맥세삭(脈細數)하다.

음허풍동증(陰虛風動證) [변증] : 병리 열병(熱病)의 후기나 구병(久病)시에 음액(陰液)이 허손되어 근맥(筋脈)이 유양(濡養)되지 못하므로 허풍(虛風)이 내동(內動)하는 증. 임상적으로는 근연육순(筋攣肉瞤), 수족연동(手足蠕動) 및 음액부족(陰液不足)으로 인한 허열내생증후(虛熱內生症候)가 나타난다.

음허화동(陰虛火動) [병리] ⇒ 음허화왕(陰虛火旺)

음허화왕(陰虛火旺) [병리] ㊐ 음허화동(陰虛火動) : 병리 음정(陰精)이 부족해져서 허화(虛火)가 치성(熾盛)해진 병리상태.

음허화왕증(陰虛火旺證) [변증] : 병리 음허화왕(陰虛火旺)으로 인한 증. 음허내열(陰虛內熱)에 비해 화열(火熱)이 인체의 일부분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번조이노(煩躁易怒), 승화관홍(昇火顴紅), 구건인통(口乾咽痛), 성욕항진(性欲亢進)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음혈(陰血) [생리] : 생리 ① 혈(血)이 음(陰)적인 속성을 띠는데 따른 명칭. ② 양기(陽氣)에 대한 상대적 개념.

음호산기(陰戶疝氣) [병증] ⇒ 소장산기(小腸疝氣)

음황(陰黃) [병증] ㊐ 음달(陰疸), 음황증(陰黃證) : 내과 황달의 일종. 황달의 발생이 비교적 장기적이고 황색이 회암(晦暗)하며 허(虛)증, 한(寒)증에 속하는 병증.

음황증(陰黃證) [병증] ⇒ 음황(陰黃)

음휴증(陰鬱證) [병증] ⇒ 음허증(陰虛證)

응고반응(凝固反應) [진찰] : 재활 부항요법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피부반응의 일종. 부착시에 건강반응을 나타내고 발관 후에 부항자국이 응고되며 부착표면에 모공이 커져서 딸기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반응은 국소에 비생리적인 체액이 응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응신(凝神) [기공] : 재활 기공(氣功) 용어. 의념을 모으는 것을 가리키는데 기공 중에 각종 잡념을 배제하고 사유 활동을 연공에 집중하는데 연공의념 이외의 기타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일종의 고요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응유(膺乳) [경혈] : 경혈 경혈(經穴). ① 좌우의 대저(大杼), 응수(應兪), 결분(缺盆), 배수(背兪) 이상 8개의 혈. 가슴 속의 열(熱)을 사(瀉)함. ② 앞가슴 양쪽으로 있는 경혈(經穴)로 운문(雲門), 중부(中府), 주영(周榮), 흉향(胸鄕), 천계(天谿), 식두(食竇)를 말한 것으로 좌우 12개.

응중수(膺中兪) [경혈] ⇒ 중부(中府)

응지(應指) [진찰] ⇒ 인수(引手)

응지예(凝脂翳) [병증] : 안이 흑정(黑睛)에 예막(翳膜)이 응지(凝脂)와 같이 나타나는 것. 녹농균성(綠膿菌性) 각막궤양(角膜潰瘍)에서 볼 수 있다.

응창(膺窓)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16)로서 세 번째 갈비뼈 아래, 옥당(玉堂) 양쪽 4촌에 위치.

응통혈(應痛穴) [경혈] ⇒ 아시혈(阿是穴)

의(意) [생리] : 생리 비(脾)의 기능 활동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정보를 기억(회상)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정신활동.

의려조지(意慮操志) [사상] : 사상 물사단(物四端)인 의려담지(意慮膽志)에서 담(膽)이 조(操)로 바뀐 개념으로 인간의 의지나 의식과 관계된 기능.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의하면 의려조지는 전사해(前四海)에 담겨진 기능으로서 의(意)는 진해(津海)에, 려(慮)는 고해(膏海)에, 조(操)는 유해(油海)에, 지(志)는 액해(液海)에 소장되어 있다.

의사(意舍)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9)로서 척중(脊中) 양쪽 각 3촌에 위치.

의수(意守) [기공] : 예방 기공(氣功) 단련 중에 심신(心身)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의념(意念)을

신체의 어떤 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의안(醫案) [기타] 동 병안(病案) : 원전 지금의 진료기록부를 말함. 그 내용은 병상·변증·입법·용약 등 진료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성명·성별·연령·직업 등을 포괄한다.
의이인(薏苡仁) [약물] : 본초 벼과(禾本科 : Poace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인 율무 *Coix lachymajobi* var. *mayuen* (Roman.) Satpf의 성숙한 종인(種仁)으로 가을에 과실이 성숙하였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다음 외각(外殼)과 황갈색 외피(外皮)를 제거하여 사용.
의희(譩譆)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5)로서 영대(靈臺) 양쪽 각 3촌에 위치.
이간(二間)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2)로서 형수혈(滎水穴)에 해당하고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검지 손허리손가락 관절(본절) 앞 노쪽(요골측) 손바닥과 손등의 경계면에서 오목한 곳에 위치.
이감(耳疳) [병증] : 안이 만성 중이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흑색(黑色)을 띤 농을 배출하고 악취가 나는 것.
이경맥(離經脈) [징후] : 진단 맥(脈)이 너무 빠르거나 느려 정상적인 맥박수를 벗어난 경우.
이경배혈법(離經配穴法) [침구] : 침구 다른 경(經)의 혈(穴)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방법.
이공상(耳控傷) [병증] 동 이절(耳癤) : 안이 국한성(局限性) 외이도염(外耳道炎)과 유사.
이구전(耳垢栓) [병증] : 안이 귀지가 외이도를 폐색한 것.
이규(利竅) [치법] : 방제 치법의 하나. 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것. ② ⇒ 개규(開竅)
이근독(耳根毒) [병증] : 안이 담핵(痰核)과 같은 것이 귀의 뒷면에 발생하는 것.
이근수기법(理筋手技法) [추나] 동 이근수법(理筋手法) : 재활 외치수법(外治手法). 염좌상(捻挫傷)으로 인해 근락(筋絡)이 꼬이거나 뒤틀린 경우를 치료할 때 서근활락(舒筋活絡)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기본수법으로 안법(按法), 마법(摩法), 유법(揉法), 날법(捏法), 추법(推法), 나법(拿法), 제법(提法), 두법(抖法), 탄법(彈法) 등을 포괄한다.
이근수법(理筋手法) [추나] ⇒ 이근수기법(理筋手技法)
이근옹(耳根癰) [병증] : 안이 이근독(耳根毒)과 유사하며 이근(耳根)이 결핵처럼 생기는 것. 눌러도 움직여지지는 않으나 약간의 통증이 있다.
이근추나(理筋推拿) [추나] : 재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인체의 척추 뼈와 관절 및 위축된 근육을 밀거나 당겨서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리는 치료법. 특히 근육의 위축상태 개선 및 경결상태를 풀어주는 추나법이다.
이급(裏急) [증상] : 내과 대변(大便)을 보기 전에 복통하고, 대변을 보려고 할 때 참을 수 없는 상태.
이급후중(裏急後重) [증상] : 내과 대변(大便)을 보기 전에 복통하고, 대변을 보려고 할 때 참을 수 없는 상태를 '이급(裏急)', 대변을 볼 때 군박(窘迫)한데 시원히 배출되지 않고, 항문에 중추(重墜)한 감각이 있는 상태를 '후중(後重)'이라 한다. 이질의 주요 증상의 하나.
이기(理氣) [치법] ⇒ 이기법(理氣法)
이기(異氣) [병리] ⇒ 역려(疫癘)
이기법(理氣法) [치법] 동 이기(理氣) : 방제 치료법의 하나. 기체(氣滯)·기역(氣逆)·기허(氣虛) 증을 치료하는 방법. 이기법(理氣法)에는 행기(行氣)·정기(正氣)·익기(益氣) 등이 있다. 이기는 기를 다스린다, 기병을 치료한다는 뜻으로도 쓰임.
이내생충(耳內生蟲) [병증] : 안이 이내(耳內)에서 충이 발생하여 농혈이 계속되는 것.
이농(耳膿) [병증] : 안이 귀 안에서 농이 배출되는 것. 급·만성 중이염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뉵(耳衄) [병증] : 안이 귀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 중이의 편평상피암(扁平上皮癌) 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이당(飴糖) [약물] ⇒ 교이(膠飴)
이동관(移動罐) [침구] ⇒ 주관(走罐)
이란(耳爛) [병증] ⇒ 이창(耳瘡)
이롱(耳聾) [병증] : 안이 이중청(耳重聽)과 유사하며 점차 청력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명(耳鳴) [병증] : 안이 귓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목비구(耳目鼻口) [사상] : 사상 사상의학의 본체론적 인식방법인 사심신물(事心身物)에 의해 인체를 구분하는 현상적 기능구조의 하나로 이를 사관(四官)이라 함. 이목비구(耳目鼻口)는 천기(天機)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어 인사(人事)를 받아들이는 폐비간신(肺脾肝腎)과 함께 중요한 사상의학의 기능구조가 된다.
이문(耳門) [경혈] 동 곤(顃)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21)로서 귀구슬(이주耳珠; tragus) 위 앞쪽의 오목한 곳에 위치.
이문골상(耳門骨傷) [병증] : 안이 측두골 골절과 유사.
이문독(耳門毒) [병증] ⇒ 이풍독(耳風毒)
이문옹(耳門癰) [병증] 동 이옹(耳癰) : 안이 일종의 화농성 질환으로 이근(耳根)이 발열(發熱) 종창(腫脹) 동통(疼痛)하고 이규(耳竅)가 막히게 되며 한열(寒熱)이 때때로 발작하여 이규(耳竅) 내외가 홍색을 띠고 종대(腫大)되며 통증이 극심한 병증.
이물경통(異物硬痛) [병증] ⇒ 인두이물(咽頭異物)
이물입목(異物入目) [병증] 동 미목(眯目) : 안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생기는 병증.
이발(耳發) [병증] ⇒ 발이(發耳)
이발저(耳發疽) [병증] : 안이 귀 뒤가 벌집모양을 하면서 돌기되는 것.
이방풍(耳防風) [병증] : 안이 삼초 및 담경의 풍열(風熱)이 상승하여 이내(耳內)가 종통(腫痛)하거나 혹은 이외(耳外)가 종대(腫大)되며 이내(耳內)에서 농혈이 배출되기도 하는 병증.
이백(二白)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전비 굴측(前臂 屈側: forearm flexor site) 완관절(腕關節; carpal joint) 상 5촌 처에서 요측수근굴근(撓側手根屈筋; flexor carpi radialis) 노뼈쪽 1혈과 장장근(長掌筋; longus palmaris) 자뼈쪽 1혈, 양측 4혈을 말함.
이변불통(二便不通) [증상] 동 전후불통(前後不通) : 내과 대소변불하(大小便不下).
이변실금(二便失禁) [증상] 동 대소변실금(大小便失禁) : 내과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이수(羸瘦) [증상] : 내과 몸이 마르고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
이습(利濕) [치법] ⇒ 담삼리습(淡滲利濕)
이실(裏實) [병리] : 병리 ① 외사(外邪)가 이(裏)로 들어가면서 열(熱)이 되어 위장(胃腸)에 몰린 병리상태. ② 체내 기혈이 울결되거나, 담음(痰飮), 식체(食滯), 충적(蟲積)이 생긴 병리상태.
이실증(裏實證) [병증] : 병리 이실(裏實)로 인한 병증. 장열(壯熱), 번갈(煩渴), 복통(腹痛), 변비(便秘) 등 부실(腑實)의 증후를 나타냄.
이심(耳蕈) [병증] : 안이 식육(瘜肉)이 생긴 형태가 마고(麻姑-손톱이 길었다는 옛날 선녀의 모습)와 같고 두대체소(頭大蒂小)한 버섯모양인 것.
이십팔맥(二十八脈) [경락] [진찰] : 경혈 ① 28개의 맥(脈). 수족삼음삼양(手足三陰三陽)으로서 십이경맥(十二經脈)이 좌우에 있으므로 모두 합하면 이십사맥(二十四脈)이 되고 여기에 독맥(督脈), 임맥(任脈), 음교맥(陰蹻脈), 양교맥(陽蹻脈)을 합치면 이십팔맥(二十八脈)이 됨. ② 28개의 맥상(脈象).

이십팔회(二十八會) [경혈] : 경혈 ① 이십팔맥(二十八脈)이 회합하는 곳. ② 이십팔맥(二十八脈)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이양(耳痒) [병증] : 안이 이개(耳介) 및 외이도 피부염으로 인해 귀 및 귀 주변으로 가려움을 느끼는 것.

이양(裏陽) [사상] : 사상 위와 대장의 청양지기(淸陽之氣)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양인 위수열이열병(胃受熱裏熱病)의 소갈병(消渴病)의 병리 과정에 나옴. 위국(胃局)과 대장국(大腸局)의 청양(淸陽)의 상승지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위(胃)의 청양이 두면사지(頭面四肢)에 상승하지 못하면 상소(上消)가 되고 대장(大腸)의 청양이 위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중소(中消)가 된다. 이양(裏陽－胃, 大腸局의 淸陽)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옹졸하게 하여 울화를 생기게 하여 청양을 고갈시킨 까닭이다.

이양병병(二陽併病) [병증] : 병리 태양병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양명병이 나타나는 병리상태.

이양승기(裏陽升氣) [사상] : 사상 이양승기(裏陽升氣)란 소양인 위수열이열병(胃受熱裏熱病)의 대표적 병인 소갈병(消渴病)의 치법. 위국(胃局)과 대장국(大腸局)의 청양(淸陽)을 상승시켜 주는 방법으로 상소(上消)에는 양격산화탕, 중소(中消)에는 인동등지골피탕, 하소(下消)에는 숙지황고삼탕을 투여한다.

이열(裏熱) [병리] : 병리 ① 위장(胃腸)이나 폐위(肺胃)에 실열(實熱)이 있거나 간담(肝膽)에 울열(鬱熱)이 있는 병리상태. ② 체내에 열(熱)이 있는 병리상태.

이열증(裏熱證) [병증] : 병리 체내에 사열(邪熱)이 치성(熾盛)한 증. 병사(病邪)가 내전(內傳)하거나, 장부에 적열(積熱)하여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위장(胃腸)이나 폐위(肺胃)에 실열(實熱)이 있거나 간담(肝膽)에 울열(鬱熱)이 있는 증으로, 이실열증(裏實熱證)과 이허열증(裏虛熱證)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실열증(裏實熱證)을 가리킨다.

이옹(耳癰) [병증] ⇒ 이문옹(耳門癰)

이음강기(裏陰降氣) [사상] 동 이음온기(裏陰溫氣) : 사상 소음인의 이병(裏病) 즉 태음병과 소음병의 치료원칙인 온위이강음(溫胃而降陰)과 건비이강음(健脾而降陰)이 이의 범주에 속한다. 태음병에 있어서는 온기(溫氣)가 한기(寒氣)를 밀어내는 것인즉 그 온기를 더욱 도와주면서 이음(裏陰)을 내려주면 되고, 소음병은 냉기(冷氣)가 온기를 쫓아내는 병인즉 그 대세가 기울어져 있어 소음인의 비기(脾氣)를 도와주면서 이음(裏陰)을 내려야 하기에 건비(健脾)시키면서 강음(降陰)시킨다.

이음온기(裏陰溫氣) [사상] ⇒ 이음강기(裏陰降氣)

이절(耳癤) [병증] ⇒ 이공상(耳控傷)

이정(耳疔) [병증] 동 흑정(黑疔) : 안이 이규내(耳竅內)에서 발생하며 종기의 모양이 못 모양으로 병근(病根)이 깊은 것.

이정(耳挺) [병증] : 안이 식육(瘜肉)이 생긴 형태가 대추씨와 같고 길고 가느다란 줄기가 귀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정법(移精法) [치법] ⇒ 이정변기(移精變氣)

이정변기(移精變氣) [치법] 동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療法), 이정법(移精法) : 정신 '이정변기(移情變氣)'란 그 정(情)을 옮기고 기(氣)를 개변한다는 것을 의미. 즉 기분전환을 시킨다는 뜻.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療法)'은 신(神)의 치료를 위해 정(精)과 기(氣)를 바꾸어 고치는 것으로 곧 모든 사기(邪氣)로써 정기(正氣)를 상하지 않고 환자의 기분을 전환시킨다거나 신전(神殿)에서 병의 원인을 풀어헤치는 기도를 올림으로서 정신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한방정신요법이다.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療法) [치법] ⇒ 이정변

ㅇ

기(移精變氣)
이중(理中) [치법] : 중초의 비위(脾胃)를 조리하는 치법.
이중생핵(耳中生核) [병증] : 안이 귓속에 핵이 있는 병증.
이중유물(耳中有物) [병증] : 안이 외이도(外耳道)에 장난감, 콩, 쌀, 모래 등이 들어가 이상을 초래하는 것.
이중청(耳重聽) [병증] 동 중청(重聽) : 안이 신체가 허약해지면서 소리 듣기가 어려워지는 병증.
이증(裏證) [병리] : 병리 표병(表證)과 상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병(病)이 장부, 기혈, 골수 등의 내부에 심재(深在)한 증후.
이지(移指) [진찰] : 진단 절맥방법(切脈方法). 절맥(切脈)할 때 촌(寸)·관(關)·척(尺) 세 부위의 맥형(脈形)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평상시의 절맥법(切脈法)으로 맥을 짚지 않고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손가락을 이동하면서 맥을 짚는 방법.
이지리병(裏之裏病)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에서는 병증의 표리(表裏)구분에 있어서 표지표병(表之表病), 표지리병(表之裏病), 이지표병(裏之表病), 이지리병(裏之裏病)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 여기서 용어의 앞에 나오는 표(表) 또는 이(裏)는 전통적 개념의 표병(表病)과 이병(裏病)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표(表) 또는 이(裏)는 병증의 경중순역(輕重順逆) 또는 병증의 원인과 예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경중순역으로 보자면 표증은 비교적 경증이고 순증이며, 이증은 비교적 중증이고 역증이라 할 수 있다. 원인과 예후로 보자면 이증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내상진기자 위주증(內傷眞氣者 爲主證)이므로 약력(藥力)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조양에 의존해야 되는 병증이다. 다음은 갑오구본에 따른 각 체질의 병증 구분이다. 少陰人 ; 表之表病－太陽病, 表之裏病－陽明病, 裏之表病－太陰病, 裏之裏病－少陽人 ; 表之表病－大靑龍湯證, 小柴胡湯證, 表之裏病－李子建所論 腹痛泄瀉證, 裏之表病－王好古所論 上消中消下消證, 裏之裏病－張仲景所論 傷寒譫語證, 龔信所論 陰虛午熱證. 太陰人 ; 表之表病－惡寒發熱長感病, 表之裏病－陽毒燥澁, 裏之表病－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有腹痛中風, 裏之裏病－虛勞夢泄無腹痛中風.
이지표병(裏之表病) [사상] : 사상 → 이지리병(裏之裏病)
이질(痢疾) [병증] 동 사리(瀉痢), 설리(泄痢), 체하(滯下) : 내과 복통하고, 점액농혈양(粘液膿血樣)의 대변으로 회수가 증다(增多)하는데 양소(量少)하며, 이급후중(裏急後重)함이 주증이 되는 하추(夏秋)의 계절에 상견(常見)되는 장(腸)의 급성전염병.
이창(耳瘡) [병증] 동 이란(耳爛) : 안이 귀 뒷면에 종창이 발생하여 헤지는 것.
이창(耳脹) [병증] : 안이 이내(耳內)에 종창을 형성하여 두중(頭重) 목적(目赤)하는 것.
이첨(耳尖) [기혈] : 경혈 두경부의 기혈로서 이곽(耳郭)의 상방, 귀를 앞으로 접어 첨단처(尖端處)에 위치.
이추저(泥鰍疽) [병증] : 안이 지부(指部－10지 어디에나 발생)에서 발생하며, 일지(一指) 전체가 종대되고 색깔은 자색을 띠며 형상이 니추(泥鰍－진흙에 있는 미꾸라지)와 흡사한 것.
이치(耳痔) [병증] : 안이 이규내(耳竅內)에 우췌(疣贅)가 발생하는 것.
이침(耳鍼) [침구] 동 이침법(耳鍼法), 이침술(耳鍼術), 이침요법(耳鍼療法) : 침구 이개(耳介)에 분포한 특수혈(特殊穴)에 대한 집중적인 시술 행위.
이침마취(耳鍼痲醉) [침구] : 침구 이침요법(耳鍼療法)을 토대로 이혈(耳穴)에 자침하는 침술마취법.

이침법(耳鍼法) [침구] ⇒ 이침(耳鍼)
이침술(耳鍼術) [침구] ⇒ 이침(耳鍼)
이침요법(耳鍼療法) [침구] ⇒ 이침(耳鍼)
이태(膩苔) [징후] 동 태니(苔膩) : 진단 설태(舌苔)가 치밀하고 과립(顆粒)이 가늘면서 기름지며, 가운데가 약간 두텁고 주변은 비교적 희박한데, 문질러도 제거되지 않고 긁어도 떨어지지 않으며, 설면(舌面)이 마치 점액(粘液)으로 뒤덮인 것 같고 기름기가 도는 설상(舌象).
이토요법(泥土療法) [치법] : 재활 찜질을 위한 치료 도구로 진흙을 이용하는 치료법.
이통(耳痛) [병증] : 안이 귀의 안 또는 바깥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
이풍(痢風) [병증] ⇒ 학슬풍(鶴膝風)
이풍독(耳風毒) [병증] 동 이문독(耳門毒) : 안이 귀 주위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주위가 종대(腫大)되고 발적(發赤)하거나 혹은 통증을 수반함.
이학요법(理學療法) [치법] : 재활 인체에 이학적 자극 또는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하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를 말함. 한의학에서는 기혈영위(氣血營衛)의 순행로인 경락과 내부장기의 반응점인 경혈에 자극을 주어 전신적이며 생리적인 내부장기의 균형조절과 기능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한(裏寒) [병리] [변증] : 병리 체내 장부의 양기(陽氣)가 부족하고 찬 병리상태.
이한증(裏寒證) [병증] : 병리 ① 체내 장부에 생긴 한증(寒證). 양기(陽氣)가 부족하거나 한사(寒邪)가 이부(裏部)로 들어가서 발생하며, 이실한증(裏實寒證)과 이허한증(裏虛寒證)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허한증(裏虛寒證)을 가리킴. ② 상한음증(傷寒陰證) 즉 중한증(中寒證)을 가리킴.
이해(膩海) [사상] : 사상 진해(津海)의 청기(淸氣)가 이(耳)에서 나와서 신(神)이 되며 두뇌(頭腦)로 들어가서 이해(耳海)가 되는데, 이해란 신이 머무는 곳이다. 이(耳)의 광박천시지청력(廣博天時之聽力)은 진해의 청기를 제출하여 상초에 충만하게 하여 신을 형성케 하고 두뇌에 주(注)하여 이를 만들며 이것이 쌓여 이해가 된다. 이해의 탁재(濁滓)는 두(頭)의 직신지력(直伸之力)에 의해 단련되어 피모(皮毛)를 형성한다. → 후사해
이허(裏虛) [병리] : 병리 장부의 음양기혈이 부족한 병리상태.
이허증(裏虛證) [병증] : 병리 이허(裏虛)한 병증.
이혈(理血) [치법] ⇒ 이혈법(理血法)
이혈(耳穴) [경혈] : 경혈 귀에 위치한 특정한 혈위.
이혈법(理血法) [치법] 동 이혈(理血) : 방제 치료법의 하나. 혈분의 병 또는 혈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혈에는 보혈(補血)·양혈(養血)·온혈(溫血)·거어활혈(祛瘀活血)·지혈(止血) 등 5가지가 포함됨.
이환(泥丸) [예방] [경혈] 동 이환궁(泥丸宮) : ① 예방 기공(氣功)에서 의념(意念)을 집중하는 부위의 명칭으로 의가들은 상단전(上丹田)을 이환궁(泥丸宮)이라 하는데, 이는 양미간(兩眉間)을 말함. ② 경혈 ⇒ 백회(百會)
이환궁(泥丸宮) [예방] [경혈] ⇒ 이환(泥丸)
익건(嗌乾) [증상] 동 인건(咽乾), 인조(咽燥) : 안이 인두(咽頭) 하부, 즉 식도(食道) 상구(上口)의 건조감.
익기(益氣) [치법] ⇒ 보기법(補氣法)
익기이승양(益氣而升陽) [사상] : 사상 소음인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의 망양초증(亡陽初證)과 울광증(鬱狂證)의 치료방법으로서 비(脾)의 기운을 북돋아 양기(陽氣)를 상승시키는 방법.
익모초(益母草) [약물]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인 익모초 *Leonurus sibiricus* L.의 지상부로 여름철에 경엽(莖葉)이 무성하고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ㅇ

익모초자(益母草子) [약물] ⇒ 충위자(茺蔚子)
익비(益脾) [치법] ⇒ 건비(健脾)
익위(益胃) [치법] 동 : 위허(胃虛)를 치료하는 방법.
익음(益陰) [치법] ⇒ 보음법(補陰法)
익종(嗌腫) [병증] : 안이 식도의 상구(上口)가 부어오르는 것.
익지인(益智仁) [약물]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익지 *Alpinia oxyphylla* Miq.의 성숙한 과실로서, 5~6월에 과실이 녹색에서 홍색으로 변할 때 채취하여 햇볕이나 저온에서 건조한 후 사용.
익혈(益血) [치법] ⇒ 보혈법(補血法)
인건(咽乾) [증상] ⇒ 익건(嗌乾)
인경(引經) [약물] 동 인입(引入) : 본초 한가지의 약물이 어느 특정한 장부와 경락의 병변에 대하여 현저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학설은 장결고(張潔古)의 창안(創案)으로 이동원(李東垣), 공정현(龔廷賢), 이천(李梴) 등이 체계화하였다. 이 학설에 의해 약물의 귀경성능(歸經性能)이 변화되고 약의 작용방(作用方)이 직접 병소에 도달되므로 발병의 원인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작용을 인경(引經)이라 하고 인경작용(引經作用)을 하는 약물을 인경약이라 한다.
인경보사(引經報使) [치법] : 침구 본초 약효가 제대로 작용하도록 증상이 속해 있는 부위로 약력(藥力)을 이끌어주는 것.
인기(人氣) [생리] ⇒ 양기(陽氣)
인당(印堂) [진찰] [기혈] 동 궐(闕) : ① 미간(眉間). 고대인들은 폐부질환(肺部疾患)을 살필 때 이 부위를 참고하였음. ② 경외기혈명(經外奇穴名). 양미두(兩眉頭)의 연결선 중점에 위치.
인동(忍冬) [약물] 동 인동등(忍冬藤) : 본초 인동과(忍冬科 : Caprifoliaceae)에 속한 다년생 반상록 전요관목(半常綠 纏繞灌木)인 인동 *Lonicera japonica* Thunb.의 경지(莖枝)로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인동등(忍冬藤) [약물] ⇒ 인동(忍冬)
인두이물(咽頭異物) [병증] 동 이물경통(異物硬痛), 곡적(穀賊) : 안이 어류(魚類)의 가시나 과일의 씨, 곡식의 가시 등을 잘못 먹거나 기타 물질이 인두(咽頭)를 조색(阻塞)하여 삼켜지지도 않고 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인모이치태병(因母而致胎病) [병증] : 부인 임신에 원인적 관계가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모체의 질환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유지에 영향을 주어 태동불안(胎動不安)을 초래할 수 있는 병증.
인삼(人蔘) [약물] : 본초 두릅나무과(五加科 : Ara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인삼 *Panax ginseng* C.A Mey.의 뿌리로, 재식(栽植) 4~6년 후 가을에 줄기와 잎이 마를 때 캐어 쇄건(曬乾)한 것을 인삼(人蔘)이라 하고,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쪄서 건조한 것을 홍삼(紅蔘)이라 함.
인생백점(咽生白點) [병증] : 안이 음허(陰虛)한 자에게서 화(火)가 훈증(薰蒸)하여 인후가 건조하고 아프며 양변(兩邊)에 광량(光亮)한 진주양(珍珠樣) 백점(白點)이 3~5개정도 발생하는 것.
인수(引手) [진찰] 동 응지(應指) : 진단 창양(瘡瘍)이 있을 경우 안에 화농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 손으로 눌렀다가 손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농(膿)이 있는 것이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농(膿)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영(人迎) [경혈] 동 오회(五會)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9)로서 갑상연골 양쪽 1촌5푼으로 목빗근(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앞이며 온목동맥(총경동맥;

common carotid artery)이 뛰는 곳에 위치.
인영맥(人迎脈) [진찰] : 진단 ① 동 인영(人迎) : 후절(喉節) 양쪽의 경동맥(頸動脈) 박동부위. ② 왼쪽 손의 촌구맥(寸口脈)을 가리킴.
인입(引入) [약물] ⇒ 인경(引經)
인조(咽燥) [증상] ⇒ 익건(嗌乾)
인종(咽腫) [병증] : 안이 인두(咽頭)가 부어오르는 증상.
인중(人中) [경혈] ⇒ 수구(水溝)
인진(茵蔯) [약물] ⇒ 인진호(茵陳蒿)
인진호(茵陳蒿) [약물] 동 인진(茵蔯)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의 전초(全草)이다. 중국에서는 비쑥 *A. scoparia* Waldst. et Kit.도 기원으로 함.
인창(咽瘡) [병증] : 안이 인두(咽部)에 좁쌀만한 홍황색의 창(瘡)이 발생하여 점차 인후와 구부(口部)에 퍼지고, 오래되면 자흑색(紫黑色)으로 변하여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오한발열이 발생하는 병증.
인창풍(咽瘡風) [병증] : 안이 풍열(風熱)이 내울(內鬱)되거나 매독(梅毒), 천포창(天疱瘡) 등에 의해 인두에 창(瘡)이 발생하여 목안이 충만하게 되어 통증을 가져오는 것.
인태이치모병(因胎而致母病) [병증] : 부인 임신으로 인해 유발된 질병이므로 임신시에만 발병할 수 있는 병증.
인통(咽痛) [병증] : 안이 인후동통(咽喉疼痛).
인황(人黃) [병증] : 안이 환자의 안색이 푸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인기척을 싫어하고 간혹 광증(癲狂)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
인후불리(咽喉不利) [병증] : 안이 인후에 불쾌감, 혹은 건조, 혹은 동통, 혹은 이물감이 있고 호흡과 탄인(呑咽)이 모두 곤란한 것. 흔히 보이는 인후 질환의 하나.
인후생창(咽喉生瘡) [병증] : 인후 창옹(瘡癰)이 인후에 발생하여 인후가 붓고 아프며 붉은색을 띠고 통증으로 음식물을 넘기기 어려운 증상.
인후옹색(咽喉壅塞) [병증] : 인후 기기(氣機)의 승강이 불리하여 호흡이 곤란하고 인후가 막혀서 잘 통하지 않는 것.
인후종통(咽喉腫痛) [병증] : 안이 허화(虛火) 또는 실화(實火)로 인해 인후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것.
인후홍종(咽喉紅腫) [병증] : 안이 음허(陰虛)한 자에게서 혈분(血分)의 복화(伏火)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후가 건조하면서 아프고 양변(兩邊)이 홍색을 띠고 종대되는 것.
일광구(日光灸) [침구] : 침구 태양열을 열원(熱源)으로 삼아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일광요법(日光療法) [치법] 동 일광욕(日光浴) : 재활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료법. 보통 나체로 보호경을 끼고 침대 등에 편안히 누워 치료한다. 전신 상태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조사시간이나 부위를 알맞게 조절. 결핵성 질환을 위시하여 구루병, 빈혈증, 만성 창상, 궤양 및 그 밖의 회복기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일광욕(日光浴) [치법] ⇒ 일광요법(日光療法)
일부법(一夫法) [진찰] 동 수부(手夫) : 진단 촌법(寸法)의 하나. 환자의 식지(食指)·중지(中指)·무명지(無名指)·소지(小指)를 나란히 뻗었을 때 중간 마디의 횡문(橫紋) 폭이 삼촌(三寸)인데 이를 일부(一夫)라 한다.
일산화납(一酸化鉛) [약물] ⇒ 밀타승(密陀僧)
일상(逸傷) [병리] : 병리 지나치게 안일하고 한가하거나,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여 의지가 박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쇠퇴하며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서 기혈이 울체되고 장부가 허약한 병리상태.
일수맥(一手脈) [징후] : 진단 한 손에는 맥(脈)이 있고, 한 손에는 맥(脈)이 없는 것.
일양(溢陽) [징후] : 진단 양기(陽氣)의 항성(亢盛)이 극에 달하여 넘치는 맥상(脈象). 극도로

성한 양기(陽氣)가 내부의 음기(陰氣)가 나오지 못하게 외부를 막아서 인영맥(人迎脈)이 촌구맥(寸口脈)보다 네 배나 크게 뛰면서 빠른 상태를 말한다.

일월(日月)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4)로서 담의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기문(期門) 아래 5푼, 젖꼭지 아래로 7·8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일유(溢乳) [증상] : 소아 어린아이가 젖을 많이 먹은 뒤 이내 젖이 넘쳐 나오는 것.

일음(溢飮) [병증] : 내과 마신 물이 돌아다니다 사지에 머물러있으면서 땀을 내야 할 때 땀을 내지 않아 신체가 무겁고 아프거나, 혹은 수기(水氣)가 팔다리에 있어 몸이 무겁고 아픈 증상

일음(溢陰) [징후] : 진단 음사(陰邪)가 쌓여서 내부에서 만연한 맥상(脈象). 극도로 성해진 음기(陰氣)가 양기(陽氣)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막아서 촌구맥(寸口脈)이 인영맥(人迎脈)보다 네 배나 크면서 빠른 상태를 말한다.

일자양(日眥瘍) [병증] : 안이 맥립종(麥粒腫)에 해당.

일주(一周) [기타] [운기] : 원전 ① 위기(衛氣)가 신체 내외(內外)를 완전히 1번 도는 것. ② 오운(五運)이나 육기(六氣)가 순환하여 원래의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것. 오운은 5년, 육기는 6년, 운기는 60년을 일주로 한다.

일지선추법(一指禪推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시술자가 엄지의 손끝이나 엄지의 요측지복(橈側 指腹)을 치료부위나 혈위(穴位)에 갖다 댄 다음 앞을 향해 밀어나가면서 완관절의 파동 동작과 동시에 엄지의 지절관절(指節關節)을 가볍게 굴신시켜주는 수기법. 압력·빈도·파동의 폭이 일정하고 균균(均勻)해야 하며 동작은 민첩해야 한다. 일지선추법(一指禪推法)의 가장 큰 특징은 접촉면적은 비교적 작으나 침투력은 강하다는 것이며, 120~160회/분의 속도가 필요하다.

일포발열(日晡發熱) [증상] ⇒ 일포조열(日晡潮熱)

일포조열(日晡潮熱) [증상] 동 일포발열(日晡發熱) : 내과 열이 비교적 높고 오후 3~5시(日晡)에 열이 심해지는 증상.

임(淋) [병증] 동 임병(淋病), 임증(淋症) : 내과 배뇨(排尿)가 임력삽통(淋瀝澁痛)한 병증. 소변이 빈뇨단삽(頻尿短澁) 적력부진(滴瀝不盡)하고 요도자통(尿道刺痛)하며 소복구급(小腹拘急)하거나 통인요복(痛引腰腹)하다.

임력(淋瀝) [증상] 동 소변임력(小便淋瀝), 임리(淋漓) : 내과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배뇨시(排尿時) 통증이 있는 증상.

임리(淋漓) [증상] ⇒ 임력(淋瀝)

임맥(任脈) [경락] 동 음맥지해(陰脈之海), 회음지맥(會陰之脈), 임맥락(任脈絡) : 경혈 기경팔맥(奇經八脈) 중의 하나. 회음(會陰)에서 기시하여 승장(承漿)에서 종지하는 경맥으로 남자의 내결칠산(內結七疝)과 여자의 대하가취(帶下痂聚) 등의 질환을 다스린다.

임맥락(任脈絡) [경락] ⇒ 임맥(任脈)

임병(淋病) [병증] ⇒ 임(淋)

임산(臨産) [기타] 동 좌초(坐草), 초욕(草蓐), 입월(入月) : 부인 출산이 임박하여 분만기에 진입한 것.

임산칠후(臨産七候) [징후] : 부인 분만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곱 가지 증후. 즉, 제복급통(臍腹急痛)·요산중타(腰酸重墮)·안중출화(眼中出火)·곡도정진(穀道挺進)·실호종만(室戶腫滿)·수중지근맥조동(手中指筋脈躁動)·포장(胞漿) 혹은 혈(血)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

임신간증(姙娠癎症) [병증] ⇒ 자간(子癎)

임신경래(妊娠經來) [병증] ⇒ 격경(激經)

임신금기약(姙娠禁忌藥) [기타] : 부인 임신시 복용함으로 인해 태기불안(胎氣不安)을 조성할 수 있는 약물로 독성이 있는 약물, 활혈작용(活血作用)이 강한 약물, 사하작용(瀉下作用)

이 강한 약물, 지나치게 열성(熱性)인 약물. 예를 들어 부자, 반묘, 수은, 파두, 삼릉, 망초 등. 미국의 FDA에서는 임신 중 약물복용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A, B, C, D, X의 5단계로 분류.

임신맥(姙娠脈) [징후] [진찰] : 진단 임신부(姙娠婦)의 맥상(脈象). 활(滑)하면서 조화롭거나, 활삭(滑數)하면서 유력(有力)하거나, 척맥(尺脈)이 활삭(滑數)하고 촌맥(寸脈)은 미소(微小)한 등의 특징이 있다.

임신목병(姙娠目病) [병증] 동 겸태증(兼胎症) : 부인 임신 후에 태열(胎熱)이 치솟아 발생하는 안과질환.

임신소변임통(姙娠小便淋痛) [병증] 동 자림(子淋) : 부인 임신 중에 나타나는 요빈삭(尿頻數), 요급박(尿急迫), 임력삽통(淋瀝澁痛) 등의 증상.

임신양태(姙娠養胎) [기타] ⇒ 양태(養胎)

임신오조(姙娠惡阻) [병증] ⇒ 오조(惡阻)

임신요복통(姙娠腰腹痛) [병증] : 부인 임신 중 요통에 복통하타감(腹痛下墮感)이 동반되는 것. 이는 유산 전조증 중의 하나이므로 먼저 유산 전조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질출혈이 지속되면서 요통이 심해지고 복통이 치골까지 미치면서 하타감(下墮感)이 심해진다면 유산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임신유연(姙娠流涎) [병증] : 부인 임신 중에 비위허한(脾胃虛寒)이나 위열(胃熱) 등으로 인해 구강에 타액이 과다하게 고이고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

임신장조(姙娠臟躁) [병증] 동 잉비(孕悲) : 부인 임신 후 슬퍼서 곡(哭)을 하는 것이 귀신에 씌인 듯하고 하품을 자주 하는 것으로 임신 중의 정지이상(情志異常)을 가리킴.

임신종창(姙娠腫脹) [병증] : 부인 임신 5~6개월 후에 임부의 지체면목(肢體面目)이 부어오르는 것. 金匱要略에서는 임신유수기(姙娠有水氣)라고 칭하였으며 후세의 의가들이 종창(腫脹) 부위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자기(子氣)', '자종(子腫)', '자만(子滿)', '추각(皺脚)', '취각(脆脚)' 등으로도 불렀다.

임신타혈(姙娠唾血) [병증] ⇒ 타혈(唾血)

임신태비(姙娠胎肥) [병증] : 소아 태중(胎中)에 있을 때 임신부가 달고 기름진 음식물을 많이 먹어 습열(濕熱)이 깊이 포중(胞中)까지 들어가 태비(胎肥)가 된 것.

임신하리(姙娠下痢) [병증] ⇒ 자리(子痢)

임신하혈(姙娠下血) [병증] : 부인 임신 중 질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 출혈이 임신초기에 발생할 경우 Hartman의 placental sign, 절박유산, 자궁외임신 등을 감별해야 하며, 임신 후반기 출혈일 때는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등을 감별해야 한다.

임신현훈(姙娠眩暈) [병증] 동 자현(子眩), 자훈(子暈) : 부인 임신시 발생하는 현훈(眩暈) 증상. 심한 경우 갑자기 쓰러져서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되었다가 잠시 후 깨어나는데, 깨어나면 정상인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보통 임신 7~8개월쯤에 많이 나타난다.

임읍(臨泣) [경혈] : 경혈 두임읍(頭臨泣)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5)로서 신정(神庭)과 두유(頭維) 사이의 중점에 위치. 족임읍(足臨泣)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41)로서 수목혈(兪木穴)에 해당하고 4·5 번째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 접합부의 앞에 있는 오목한 곳, 협계(俠谿) 뒤쪽 1촌 5푼에 위치.

임증(淋症) [병증] ⇒ 임(淋)

입식(立式) [기공] : 재활 기공요법시 행하는 자세 중의 일종으로 자연스럽게 발바닥을 땅에 닿고 온 몸에 힘을 뺀 상태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하는 자세.

입월(入月) [기타] ⇒ 임산(臨産)

입위(立位) [기타] : 재활 체위명(體位名). 선 자세를 말함.

입지(立遲) [병증] : 소아 오지(五遲)의 하나. 어린아이가 돌이 지난 후에도 혼자 서지 못하는 것. 간(肝)은 근(筋)을 주관하고 신(腎)은 골(骨)을 주관하는데. 소아의 간과 신이 부족하거나 양육의 잘못으로 근골(筋骨)의 발육에 영향을 끼치면 슬개골이 무르고 족경(足脛)에 힘이 없어 혼자 서지 못한다.

잉골저(剩骨疽) [병증] ⇒ 다골저(多骨疽)

잉비(孕悱) [병증] ⇒ 임신장조(姙娠臟躁)

잉옹(孕癰) [병증] : 부인 임부의 복내(腹內)에 옹(癰)이 발생한 것.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자

자(煮) [포제] 동 자법(煮法) : 본초 약물에 보조 재료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은 채로 용기에 넣어서 적당량의 물을 부어 함께 삶는 방법. 고형 보조 재료는 먼저 빻아야 함.

자(炙) [포제] : 본초 약물을 씻거나 세절(細切)한 후 일정량의 액체 보조 재료와 함께 초(炒)함으로써 보조 재료가 약물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포제(炮製)방법.

자가추나법(自家推拿法) [치법] ⇒ 건욕(乾浴)

자간(子癎) [병증] 동 임신간증(姙娠癎症), 자모(子冒), 자간증(子癎症) : 부인 임신 중 간질(癎疾)로 임신, 분만, 산욕기에 돌연히 발생하는 강직성 또는 간대성의 경련을 주증으로 하는 급성병증. 흔히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하여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며 경련이나 혼수를 동반한다. 자간전증(子癎前症)에서 진행되어 발생하며 자간전증과의 구별은 경련과 혼수의 증상이다.

자간전증(子癎前症) [병증] : 부인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 부종, 단백뇨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있을 때를 말함. 고혈압은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이 각각 140mmHg와 90mmHg 이상이거나 환자의 평소 혈압에 비하여 각각 30mmHg와 15mmHg 이상 상승(上升)된 경우. 단백뇨는 요단백이 (+) 혹은 (++) 정도로 24시간 요중 총 단백이 0.3mg 또는 1L당 1mg 이상의 단백이 검출되는 경우. 부종은 산모의 체중이 일주일에 2kg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간전증(子癎前症)은 경련과 혼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자간증(子癎症) [병증] ⇒ 자간(子癎)

자경보사(自經補瀉) [침구] : 침구 해당되는 경락의 유주시간에는 해당경락의 기혈순환이 왕성하여 실(實)하기 때문에 해당경의 자혈(子穴)을 취하고 해당경의 유주(流注) 시진(時辰) 다음 시진(時辰)에서는 해당경의 순환이 쇠(衰)하여 허(虛)하기 때문에 차시(此時)에 해당경의 모혈(母穴)을 취하는 보사법(補瀉法).

자경오행보사침법(自經五行補瀉鍼法) [침구] : 침구 허즉보기모(虛則補其母), 실즉사기자(實則瀉其子)의 원칙에 따라 허증(虛證)에는 자경(自經)의 모혈(母穴)을 보하고 적성혈(賊性穴)을 사(瀉)하며, 실증(實證)에는 자경(自經)의 자혈(子穴)을 사(瀉)하고 적성혈(賊性穴)을 보(補)하는 방법.

자궁(子宮) ① [기혈] 동 협옥천(俠玉泉) : 경혈 흉복부의 기혈로서 화개(華蓋) 아래 1촌 6푼에 위치한다. ② [해부] [생리] ⇒ 포(胞)

자궁하수(子宮下垂) [병증] ⇒ 음탈(陰脫)

자수기(子水氣) [병증] ⇒ 자기(子氣)

자기(子氣) [병증] 동 자수기(子水氣) : 부인 수습(水濕)의 사기(邪氣)가 다리부위에 편중되어 하지부종(下肢浮腫)을 나타내는 임신부종의 한 유형. 보통 임신 3~4개월에 무릎에서 발까지 붓고 소변청장(小便淸長)하다.

자동피(刺桐皮) [약물] ⇒ 해동피(海桐皮)

자락(刺絡) [침구] ⇒ 사혈(瀉血)

자락관(刺絡罐) [침구] 동 자혈관(刺血罐), 자락발관(刺絡撥罐), 자락발관법(刺絡拔罐法), 자락부항법(刺絡附缸法) : 침구 재활 부항과 방혈

요법(放血療法)을 동시에 사용하는 부항법. 소독한 피부에 먼저 피부침(皮膚鍼)으로 두드리거나, 혹은 삼릉침(三稜鍼)이나 납작한 작은 칼로 얕게 찔러 피를 뽑아 낸 후에 부항을 뜨는 종합적인 치료법이다.

자락발관(刺絡撥罐) [침구] ⇒ 자락관(刺絡罐)

자락발관법(刺絡拔罐法) [침구] ⇒ 자락관(刺絡罐)

자락법(刺絡法) [침구] ⇒ 사혈(瀉血)

자락부항법(刺絡附缸法) [침구] ⇒ 자락관(刺絡罐)

자락요법(刺絡療法) [침구] ⇒ 사혈(瀉血)

자루(眥漏) [병증] : 안이 누정증(漏睛證)과 유사하며 누낭염을 말함.

자리(自利) [병증] : 내과 사하(瀉下)나 통리(通利)시키는 약을 복용하지도 않고 소변이나 대변이 저절로 순조롭게 배출되는 증상.

자리(子痢) [병증] 동 임신하리(姙娠下痢) : 부인 임신 중에 적백농혈(赤白膿血)의 하리(下痢)가 밤낮으로 나타나고 복통이 있으며 이급후중(裏急後重)이 나타나는 경우.

자림(子淋) [병증] ⇒ 임신소변임통(姙娠小便淋痛)

자만(子滿) [병증] ⇒ 태수종만(胎水腫滿)

자명(子鳴) [병증] ⇒ 태명(胎鳴)

자모(子冒) [병증] ⇒ 자간(子癎)

자모(子母) [침구] : 침구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鍼法) 등의 보사법(補瀉法)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오수혈(五腧穴)의 운용에 있어서 오행(五行)의 모자(母子)관계를 따라 형성된 관계.

자모력(子母癧) [병증] : 안이 대소(大小)가 일정하지 않은 나력(瘰癧).

자모보사법(子母補瀉法) [침구] 동 모자보사법(母子補瀉法), 자모혈보사법(子母穴補瀉法) : 침구 장부나 경락 질병에서 허실(虛實)에 따라 오행배속상 모(母)에 해당하는 장부를 보(補)해주거나, 혹은 자(子)에 해당하는 장부를 사(瀉)하는 침자보사법(鍼刺補瀉法).

자모학(子母瘧) [병증] ⇒ 간일학(間日瘧)

자모혈보사법(子母穴補瀉法) [침구] ⇒ 자모보사법(子母補瀉法)

자반(紫斑) [병증] : 외감 열병에서 자색의 반점이 발생하는 것.

자반반응(紫斑反應) [진찰] : 재활 발관 후 부착 표면에 속립상(粟粒狀)의 작은 것부터 지대(指大)만한 것이 자색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색소반응이나 응고반응과는 다른 것.

자발(髭發) [병증] ⇒ 자시(痔腮)

자배부평(紫背浮萍) [약물] ⇒ 부평(浮萍)

자백전풍(紫白癜風) [병증] 동 심상성백반(尋常性白斑), 한반(汗斑) : 안이 중년에 많이 발생하는데 국한된 후천성의 색소탈출(色素脫出)로 그 주변은 피부의 색소가 증가되어 선명하게 정상피부와 경계를 이룬다. 반점(斑點)이 유주(遊走)하고 처음에는 통증과 가려움이 없다가 오랫동안 경과하면 다소 가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번(子煩) [병증] : 부인 임신 기간 중에 임산부에게 발생하는 번민불안(煩悶不安), 울울부진(鬱鬱不盡) 혹 심경담겁(心驚膽怯)한 것.

자법(煮法) [포제] ⇒ 자(煮)

자법(刺法) [침구] ⇒ 침법(鍼法)

자병(自病) [병리] : 병리 어느 한 장부에 생긴 병이 다른 장부로는 파급되지 않았을 때 그 병을 가리킴.

자병(子病) [병증] : 병리 임신오조(姙娠惡阻)의 다른 말.

자보(滋補) [치법] : 방제 숙지황, 산수유, 토사자, 구기자, 귀판, 녹각교 등 자양강장(滋養强壯)하는 농후(濃厚)한 맛의 약물을 사용해서 신음(腎陰)을 보충하는 치법.

자보신음(滋補腎陰) [치법] ⇒ 보신음(補腎陰)

자사(子嗣) [기타] ⇒ 구사(求嗣)

자사복중(子死腹中) [병증] ⇒ 태사복중(胎死腹中)

자삼(紫參) [약물] ⇒ 권백(卷柏)

자삼(刺參) [약물] ⇒ 해삼(海參)

ㅈ

자상(刺傷) [병증] : 재활 송곳같이 가늘고 뾰족한 물건 등에 의한 손상. 손상구(損傷口)는 크지 않지만 손상깊이는 대개 깊다. 이 때문에 심부(深部)의 장기나 조직이 손상될 수 있음.
자석(磁石) [약물] 동 모자석(毛磁石), 지남석(指南石), 영자석(靈磁石) : 본초 등축정계(等軸晶系)의 천연 자철광의 광석으로서 사삼화철, 과산화철의 혼합물.
자석(赭石) [약물] ⇒ 대자석(代赭石)
자설(子泄) [병증] 동 임산설사(臨産泄瀉) : 부인 임신 중 대변보는 횟수가 증가하고 양이 많으며 질이 희박(稀薄)하고 심하면 수양변(水樣便)이 나오는 경우, 즉 임신 중 설사를 말함.
자설(紫舌) [병증] : 안이 혀가 창대(脹大)되어 자색을 띤 것이 마치 간(肝)과 흡사하고 단단하며 아픈 것.
자설창(紫舌脹) [병증] : 안이 자색이 마치 간(肝)의 색과 같고 혀가 뿌듯하게 자주 부으면서 충만감을 느끼고 호흡이 곤란한 것.
자소엽(紫蘇葉) [약물]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소엽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Kudo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잎 및 끝가지로, 여름에 줄기와 잎이 무성할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자소자(紫蘇子) [약물] 동 소자(蘇子)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소엽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Thunb.) Kudo 또는 주름소엽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crispa* Decne.의 종자.
자수(子嗽) [병증] : 부인 임신기간에 기침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
자시(疵腮) [병증] 동 자발(髭發), 함시창(含腮瘡) : 안이 온독의 하나. 이하선염과 유사하고 주로 시협외면(腮頰外面)에서 발생하는 것.
자식(恣食) [병리] ⇒ 음식부절(飮食不節)
자신(滋腎) [치법] ⇒ 보신(補腎)
자약관(煮藥罐) [침구] 동 자약관법(煮藥罐法) : 침구 약액(藥液) 속에 죽관(竹罐)이나 부항을 넣고 끓인 후 뜨거운 상태에서 혈자리나 혹은 아픈 자리의 살갗에 엎어 부착시키는 부항요법.
자약관법(煮藥罐法) [침구] ⇒ 자약관(煮藥罐)
자연동(自然銅) [약물] 동 산골(山骨), 석수연(石髓鉛) : 본초 유화물류(硫化物類)의 광물인 황철광족(黃鐵鑛族)에 속한 황철광(黃鐵鑛) Pyrite의 함유화철(含硫化鐵(FeS_2)광석.
자오가(刺五加) [약물] : 본초 두릅나무과(五加科 : *Araliaceae*)에 속한 가시오가피 *Acanthopanax senticosus* Rupr. et Maxim.의 뿌리, 뿌리줄기, 줄기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자오도구(子午搗臼) [침구] 동 자오도구법(子午搗臼法) : 침구 침을 찔러 넣어 득기(得氣)한 다음 먼저 긴삽만퇴(緊揷慢退)하며 시계 방향으로 9번 돌리고, 다시 만퇴긴삽(慢退緊揷)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6번 돌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침자 수기법(鍼刺手技法).
자오도구법(子午搗臼法) [침구] ⇒ 자오도구(子午搗臼)
자오보사(子午補瀉) [침구] 동 자오영수(子午迎隨) : 침구 ① 자(子)에 해당하는 양수(陽數) 9와, 오(午)에 해당하는 음수(陰數) 6을 사용하여 염전제삽(捻轉提揷)하는 방법. ② 좌우로 침을 돌려 보사(補瀉)하는 자침법.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 자위(子位)에서 오위(午位)로 돌리는 것으로 순(順), 양(陽)에 속하고 보법(補法)이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역(逆), 음(陰)에 속하고 사법(瀉法).
자오영수(子午迎隨) [침구] ⇒ 자오보사(子午補瀉)
자오유주(子午流注) [침구] 동 자오유주법(子午流注法), 자오유주침술(子午流注鍼術) : 침구 십이경(十二經)의 5개 수혈(輸血)을 기초로 기혈(氣血)이 경맥(經脈)을 순행할 때 시간에 따른 성쇠개합(盛衰開闔)에 따라 일(日)과 시(時)의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변이(變易)

를 배합하여, 언제 어느 혈위를 취하여 병을 치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침법.
자오유주법(子午流注法) [침구] ⇒ 자오유주(子午流注)
자오유주침술(子午流注鍼術) [침구] ⇒ 자오유주(子午流注)
자옹(蔗癰) [병증] ⇒ 천장독(穿掌毒)
자옹(子癰) [병증] : 부인 고환에 생긴 옹(癰).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며, 급성은 거의 습열(濕熱)이 아래로 흘러들어가고 기혈(氣血)이 응체되어 발생하는데 대부분 한쪽 고환이 단단하게 붓고 동통이 극심하면서 작열감이 있고 음낭의 피부가 팽팽하면서 번들거리고, 만성은 간신음허(肝腎陰虛)하여 담습(痰濕)의 사기(邪氣)가 뭉쳐서 발생하는데 고환이 커지며서 딴딴하게 뭉치지만 동통이 뚜렷하지 않고 음낭이 벌개지지도 않으면서 열도 나지 않는다.
자완(紫菀) [약물] 동 백완(白菀)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개미취 *Aster tataricus* L.의 근과 근경(根莖)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자외선혈위조사법(紫外線穴位照射法) [침구] : 침구 자외선을 이용하여 혈위(穴位)를 자극하여 치료하는 광선침술.
자웅루(雌雄漏) [병증] : 안이 항문주위에서 발생하며, 하나의 구멍에서 삼출물이 흐르면 또 하나의 구멍은 막히고, 막혔던 구멍에서 삼출물이 흐르면 다른 구멍은 또 막히는 형상의 치루.
자웅인(雌雄人) [병증] 동 반음양(半陰陽) : 부인 여자의 음핵이 지나치게 커서 마치 뿔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양성(兩性)의 기형. 오불녀(五不女)의 하나.
자유적란(眥帷赤爛) [병증] : 안이 검현적란(瞼弦赤爛)과 유사하나 병변이 내외자(內外眥)부위에 국한되어, 경증(輕症)은 눈이 깔깔하며 가렵고 중증(重症)은 내외자(內外眥)가 파열되어 출혈이 되는 것.
자음(滋陰) [치법] ⇒ 보음법(補陰法)
자음(子瘖) [병증] : 부인 임부의 음아증(音瘂症). 임신 9개월에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음성이 저미(低微)해지거나 또는 발성(發聲)이 안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러나 대부분 출산과 동시에 해소.
자이자(刺梨子) [약물] ⇒ 금앵자(金櫻子)
자임파절요법(刺淋巴節療法) [침구] : 침구 임파절(淋巴節)에 자침(刺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자입(刺入) [침구] ⇒ 자침(刺鍼)
자장(子臟) [해부] [생리] ⇒ 포(胞)
자장불수(子腸不收) [병증] ⇒ 음탈(陰脫)
자전풍(紫癜風) [병증] : 안이 자백전풍(紫白癜風) 중 혈체(血滯)된 것, 즉 풍습사(風濕邪)가 피부에 침범하여 기혈이 응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위(營衛)의 운행이 장애되고 풍랭(風冷)이 기육에 유체되어서 발생하는 것.
자제(子啼) [병증] ⇒ 태명(胎鳴)
자종(子腫) [병증] : 부인 비교적 중증의 임신부종. 보통 임신 5~6개월이 되면 태아가 점차 자라면서 모체의 수습운화(水濕運化)가 실조되어 팔다리 및 전신이 붓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자지(紫芝) [약물] ⇒ 영지(靈芝)
자처(子處) [해부] [생리] ⇒ 포(胞)
자초(紫草) [약물] : 본초 지치과(紫草科 : Boragi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지치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의 뿌리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자충(蟅蟲) [약물] 동 지별(地鱉), 지별충(地鱉蟲), 토별(土鼈) : 본초 왕바퀴과(鱉蠊科 : Blattidae)에 속한 곤충인 지별(地鱉) *Eupolyphaga sinensis* Walker 또는 기지별(冀地鱉) *Steleophaga plancyi* Boleny의 자충(雌蟲)으로, 여름철에 잡아 끓는 물에 넣어 죽인 후 쇄건(曬乾) 또는 홍건(烘乾)하여 사용.

ㅈ

자침(刺鍼) [침구] 동 자입(刺入) : 침구 각종 침구(鍼具)를 이용한 기계적 자극.
자침기법(刺鍼技法) [침구] 동 자침조작(刺鍼操作), 침자수법(鍼刺手法) : 침구 침을 찔러 득기(得氣)가 빨리 되도록 하거나 침감(鍼感)을 유지, 강화시키는 등 각종 침자보사(鍼刺補瀉)의 방법.
자침보사(刺鍼補瀉) [침구] 동 침자보사법(鍼刺補瀉法), 침망보사법(鍼芒補瀉法) : 침구 침을 이용하여 몸의 혈(穴)자리에 자극을 주어 보사(補瀉)하는 방법.
자침조작(刺鍼操作) [침구] ⇒ 자침기법(刺鍼技法)
자하거(紫河車) [약물] 동 태반(胎盤), 포의(胞衣) : 본초 건강한 사람의 태반 *Homo sapiens* L.으로, 혈관을 절개하고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불에 쬐어 말려서 사용.
자한(自汗) [병증] 동 자한출(自汗出) : 소아 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땀이 나는 병증. 임상에서는 허실(虛實)의 구별이 있으니, 표허(表虛)하여 위양(衛陽)이 허하면 항상 발열, 오한이 있고 물 흐르듯 땀이 나며, 위에 열이 있어 땀이 나면 열은 있으나 오한이 없으며 찌는 듯이 땀이 나면서 피부가 타는 듯하다.
자한출(自汗出) [병증] ⇒ 자한(自汗)
자현(子懸) [병리] [병증] ⇒ 태기상역(胎氣上逆)
자현(子眩) [병증] ⇒ 임신현훈(妊娠眩暈)
자혈(子穴) [경혈] : 경혈 경혈(經穴). ① 오행침(五行鍼)에서 해당 경맥(經脈)의 오행 속성에 따라 그의 상생(相生)관계에서 아들에 해당하는 혈을 말함. ② 오수혈의 합혈(合穴)을 말함.
자혈관(刺血罐) [침구] ⇒ 자락관(刺絡罐)
자혈요법(磁穴療法) [치법] 동 혈위자기술(穴位磁氣術) : 침구 자장작용(磁場作用)을 인체의 경락혈(經絡穴)에 이용하는 치료방법.
자혈요법(刺血療法) [침구] ⇒ 자락법(刺絡法)
자호접(紫蝴蝶) [약물] ⇒ 사간(射干)
자화지정(紫花地丁) [약물] : 본초 제비꽃과(菫菜科 : Vio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제비꽃 *Viola mandshurica* W. Becker 및 동속근연식물의 대근전초(帶根全草)로, 5~8月 열매가 성숙하면 뿌리째 뽑아서 니토(泥土)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자훈(子暈) [병증] ⇒ 임신현훈(妊娠眩暈)
작강지관(作强之官) [생리] ⇒ 신(腎)
작맹(雀盲) [병증] ⇒ 작목(雀目)
작목(雀目) [병증] 동 작목내장(雀目內障), 작맹(雀盲) : 안이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증상 및 질환.
작목내장(雀目內障) [병증] ⇒ 작목(雀目)
작반(雀斑) [병증] : 부인 피부에 흑갈색이나 담흑색의 반점이 산재하는 것으로, 크기가 작은 것은 침의 끝부분만하고 큰 것은 녹두만하며, 그 수가 일정하지 않고, 심하면 얼굴전체에 퍼지는 것으로 흔히 기미를 말함.
작설(雀舌) [병증] : 안이 혀 위에 군살이 돋아 작은 혀가 생긴 것.
작약(芍藥) [약물] 동 백작약(白芍藥), 적작약(赤芍藥)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작약 Paeonia lactiflora Pall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뿌리로서, 여름과 가을철에 뿌리를 캐어 깨끗이 씻고 노두와 아래 끝 그리고 수염뿌리를 제거함. 중국에서는 백작약과 적작약을 구분하여 백작약은 조피(粗皮)를 벗겨내고 끓는 물에 넣어 잠깐 삶거나, 끓는 물에 넣어 잠깐 삶은 뒤 조피를 벗겨내고 햇볕에 말려 사용하고, 적작약은 작약 *Paeoniflorin lactiflora* Pall. 이나 천작약(川芍藥) *Paeoniflorin veitchii* Lynch의 근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작열(灼熱) [병증] : 재활 마치 불타는 듯 고열이 발생하여 손으로 환자의 피부를 만져 보면 손이 타는듯한 느낌이 드는 것. 대부분 각종 열성

병에서 볼 수 있음.
작엽하초(昨葉荷草) [약물] ⇒ 와송(瓦松)
작탁구(雀啄灸) [침구] : 침구 뜸 막대의 한쪽에 불을 붙이고 시술하려는 부위에 가까이 댔다 멀리 뗐다 하면서 뜸을 뜨는 치료기구.
작탁맥(雀啄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급삭(急數)하고 박동이 일정하지 않으며 멎었다가 다시 뛰었다를 반복하는 맥상(脈狀).
작탁법(雀啄法) [침구] ⇒ 제삽(提揷)
작탁술(雀啄術) [침구] ⇒ 제삽(提揷)
잠간양(潛肝陽) [치법] ⇒ 잠양(潛陽)
잠분(蠶糞) [약물] ⇒ 잠사(蠶沙)
잠사(蠶沙) [약물] 동 잠분(蠶糞) : 본초 누에과(蠶蛾科 : Bombycidae)에 속한 집누에(가잠아家蠶蛾) *Bombyx mori* L.의 분변(糞便)으로, 6~8월에 두 잠부터 세 잠잘 때 배설한 분변을 수집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잠순(蠶脣) [병증] : 소아 입술에 생기는 종물(腫物). 구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칠정(七情)으로 비위를 상해서 발생하며, 허약한 체질에서 신음허손(腎陰虛損)으로도 발생.
잠양(潛陽) [치법] 동 잠간양(潛肝陽), 잠렴부양(潛斂浮陽) : 음허(陰虛)로 인한 간양상항(肝陽上亢)을 치료하는 방법.
잠렴부양(潛斂浮陽) [치법] ⇒ 잠양(潛陽)
잡기(雜氣) [병리] ⇒ 역려(疫癘)
잡병(雜病) [병증] : 병리 상한, 온병 등 외감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통틀어 일컬는 말. 한대(漢代)에 중경(仲景) 장기(張機)가 저술한 傷寒雜病論에서 상한 이외 각종 병증을 통칭하여 잡병이라 하였고, 후대에는 상한, 온병 이외의 내과 병증을 잡병이라 하였으며, 東醫寶鑑에서는 내경(內景), 외형(外形)의 병을 제외한 다른 병증을 잡병에 소속시켰다.
잡설옹(咂舌癰) [병증] : 안이 주독(酒毒)과 습담(濕痰)이 위(胃)부를 훈증(薰蒸)하고 풍열(風熱)을 겸하여 아근(牙筋)속에서 옹(癰)이 발생되어 혀를 둘러싸고 설첨이 단대(短大)하게 되며 파괴되기도 하는 병증.
잡설후풍(匝舌喉風) [병증] : 안이 폐(肺)와 간(肝)에 병독(病毒)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인두상하(咽頭上下) 양변(兩邊)에 발생하며 소설(小舌)을 압박하며 포(泡)가 나타나는 것.
잡증(雜證) [병증] : ① ⇒ 잡병(雜病). ② 어떤 병증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나타나는 별개의 증상.
장(藏) [해부] ⇒ 장(臟)
장(瘴) [병리] ⇒ 산람장기(山嵐瘴氣)
장(壯) [침구] : 침구 뜸쑥을 뜰 때 개수를 세는 단위.
장(臟) [해부] 동 장(藏) : 체내의 장기를 가리킨다.
장간진음회(獐肝鎭陰膾)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에 나오는 소음인 방제. 장간(獐肝) 1개를 절편 하여 먹는데 주로 부종으로 표한(表寒)한 자, 인후통(咽喉痛) 등을 치료한다.
장감(長感) [병리] 동 장감병(長感病) : 병리 돌림열병으로 열이 계속 나는 것.
장감병(長感病) [병리] ⇒ 장감(長感)
장강(長强)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1)로서 낙혈(絡穴)에 해당하고 꼬리뼈(미골; coccyx) 아래 3푼에 위치.
장격법(掌擊法) [추나] : 재활 손가락을 모두 편 채 손바닥부위를 이용하여 두드리는 수기법.
장결(臟結) [병증] 동 장결(藏結), 장결(腸結), 장결병(臟結病) : 내과 ①결흉증과 유사. 발열 번조증이 없고, 환자가 음식은 여상(如常)하면서 때로 설사하고, 맥상은 촌맥(寸脈)이 부(浮)하고, 관맥(關脈)은 세소침긴(細小沈緊)하며, 설태가 백활(白滑)한 병증. ②병인(病人)의 협하(脇下)에 평소 적취(積聚) 비괴(痞塊)가 있어서, 그것이 제방(臍傍)까지 연(連)하여, 동통하며 땅기는 것이 소복(小腹)에 까지 미치는 병증.
장결(腸結) [병증] ⇒ 장결(臟結)
장결(藏結) [병증] ⇒ 장결(臟結)

ㅈ

장결병(臟結病) [병증] ⇒ 장결(臟結)
장골전위교정(腸骨轉位矯正) [추나] : 재활 장골의 변위를 바로잡는 것. 장골은 두개가 쌍을 이루고 있으며 골반 강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한쪽이 변위를 일으키면 반대쪽은 보상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변위를 일으키게 된다. 장골의 변위는 모두 후상(後上) 장골극을 기준으로 삼아 변위를 결정하며 장골의 변위는 상, 하방과 내, 외방으로 변위되며 모두 전상방 변위와 후하방 변위, 내방 변위, 외방 변위 및 복합변위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장구(腸垢) [병증] : 내과 장(腸)에 남아있는 숙변(宿便).
장국(臟局)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에 나오는 용어로 장(臟)이 위치하고 있는 부위적 개념. 폐국(肺局)은 뇌추(腦顀) 부위를, 비국(脾局)은 배려(背膂) 부위를, 간국(肝局)은 요척 부위를, 신국(腎局)은 방광 부위를 가리킨다.
장군지관(將軍之官) [생리] [해부] ⇒ 간(肝)
장궐(臟厥) [병증] 동 장궐(藏厥), 장궐증(臟厥證) : 내과 양기(陽氣)가 쇠약해져 사지궐랭(四肢厥冷)한 병증.
장궐(藏厥) [병증] ⇒ 장궐(臟厥)
장궐증(臟厥證) [병증] ⇒ 장궐(臟厥)
장근안(掌筋按) [치법] : 재활 손바닥 뿌리로 일정 부위를 누르는 안법(按法).
장기(瘴氣) [병리] ⇒ 산람장기(山嵐瘴氣)
장뇌(樟腦) [약물] 동 용뇌향(龍腦香) : 본초 장과(樟科-녹나무과 : Lauraceae)에 속한 낙엽대형교목(大形喬木)인 녹나무 *Cinnamomum camphora* (L.) Sieb.의 근(根), 간(幹), 지(枝), 엽(葉)을 증류 정제하여 얻은 과립결정체이다. 보통 9~12月 사이에 노목(老木)을 베어서 수근(樹根), 수간(樹幹), 수피(樹皮)를 자르거나 잘게 썰어서 증류기에 넣고 증류하여 냉각하면 조제장뇌(粗製樟腦)가 얻어진다. 이를 다시 승화(昇華) 정제(精製)하면 정제장뇌분(精製樟腦粉)이 되며, 이 장뇌분(樟腦粉)을 틀에 넣어 압착하면 투명한 장뇌괴(樟腦塊)가 된다.
장담(腸覃) [병증] : 부인 하복부에 생기는 장외(腸外)의 종괴. 한탁(寒濁)이 응결하여 복부에 식육(息肉)이 생기는 것이 처음에는 계란과 같고, 크기는 임신한 것 같으며, 만져보면 단단하고 밀면 움직이고, 월경은 주기에 맞게 있다. 월경이 규칙적으로 내조하지 않는 석가(石瘕)와 구분하여 난소낭종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으며 여성에게 나타나는 종괴성 질환을 부인과적인 것과 내과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보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장도(臟度) [진찰] : 장부의 강약, 크기, 위치 및 기능의 허실(虛實)정황을 가늠하는 것.
장독(瘴毒) [병리] ⇒ 산람장기(山嵐瘴氣)
장독(臟毒) [병증] : 안이 과도한 노력이나 신고(辛苦)한 사람이 과음이나 지방성 음식물을 섭취하여 습열(濕熱)이 항문주위에 울결(鬱結)되거나, 음분(陰分)이 허약하였던 사람이 습열에 감촉되어 항문주위에 발생한 옹저.
장리(臟理)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나오는 용어로 태소음양인의 장부 대소(大小)를 낳는 원리. 인품장리(人稟臟理).
장맥(臟脈) [경락] [징후] [진찰] : 진단 ① 오장(五臟)의 경맥(經脈)을 가리킴. ② 진장(眞臟)의 맥(脈)을 지칭. → 진장맥(眞臟脈)
장맥(長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脈)이 길어서 본래의 위치를 초과하고, 처음과 끝이 곧아서 긴 막대를 만지는 것 같은 맥상(脈象).
장명(腸鳴) [병증] 동 장명(臟鳴), 복명(腹鳴), 복중뇌명(腹中雷鳴) : 내과 뱃속에서 꾸르륵하는 소리가 나는 병증.
장명(臟鳴) [병증] ⇒ 장명(腸鳴)
장문(章門)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

經)의 경혈(LR13)로서 비(脾)의 모혈(募穴), 팔회혈(八會穴) 중 장회혈(臟會穴)에 해당하고 하완(下脘-CV10) 양쪽 6촌, 11번째 갈비뼈 끝에 위치.

장벽하혈(腸澼下血) [병증] : 내과 장벽(腸澼)으로 인해 발생한 변혈(便血). 장비(腸痺)는 비증(痺症)이 대소장(大小腸)에 영향을 미쳐 갈음(渴飮)하면서 소변이 불리(不利)하고 복명설사(腹脹泄瀉)하는 병증.

장부(臟腑) [해부] : 생리 오장육부의 약칭(略稱).

장부변증(臟腑辨證) [병리] : 병리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장부의 생리적·병리적 특징을 기초로 사진(四診)·팔강(八綱)을 통해 증후를 분석, 귀납하여 오장육부의 음양(陰陽)·기혈(氣血)·허실(虛實)·한열(寒熱) 등 변화를 변별함으로써 치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

장부병기(臟腑病機) [병리] : 병리 장부의 생리기능실조로 인해 질병이 발생, 발전,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변화의 핵심요소 및 포괄적인 기전. 장부병기는 오장, 육부와 기항지부(奇恒之腑) 각각의 병기(病機), 질병과정 중에 각 장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영향, 장부 병변이 경락, 형체, 구규(九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그 내용으로 함.

장부학(丈夫學) [기타] : 내과 8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의 발달, 성기의 구조, 성교의 능력, 생식의 기능과 성기의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

장불로(長不老) [약물] ⇒ 상륙(商陸)

장비(腸痺) [병증] : 내과 음수과다(飮水過多)나 음식실절(飮食失節)로 사기(邪氣)가 대소장(大小腸)에 침입하여 소변이 불리하고 복창설사(腹脹泄瀉)한 병증.

장사구(長蛇灸) [침구] 동 포구(鋪灸) : 침구 마늘을 찧어 등쪽 척추 위에 평평하게 깔고 뜸쑥을 각각 대추혈(大椎穴) 및 요수혈(腰兪穴) 위까지 한 줄로 뜸을 뜨는 뜸 요법.

장상(臟象) [생리] ⇒ 장상(藏象)

장상(藏象) [생리] 동 장상(臟象) : 생리 인체 내 장부가 인체외부 환경변화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작용이 외부로 드러난 현상,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모습이나 일부 기관의 형상 등 인체 밖에서 인체 내 장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징상(徵象).

장상론(藏象論) [기타] ⇒ 장상학(臟象學)

장상학(臟象學) [기타] 동 장상론(藏象論), 장상학설(藏象學設), 장상학설(臟象學說) : 인체 내 오장과 오장활동으로 인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형상을 통해 인체의 장부활동법칙 및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 인체는 심(心)·간(肝)·비(脾)·폐(肺)·신(腎)의 오장이 중심이 되고, 담(膽)·위(胃)·소장(小腸)·대장(大腸)·방광(膀胱)·삼초(三焦)의 육부가 오장과 표리상합하며, 기(氣)·혈(血)·정(精)·진액(津·液)을 물질적인 기초로 삼아, 경락을 통해 장과 장, 장과 부, 부와 부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밖으로 오관구규(五官九竅), 사지백해(四肢百骸)와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전일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장상학의 기초가 된다.

장상학설(臟象學說) [기타] ⇒ 장상학(臟象學)

장상학설(藏象學設) [기타] ⇒ 장상학(臟象學)

장수(臟輸) [경혈] ⇒ 장수(藏兪)

장수(藏兪) [경혈] 동 장수(臟兪), 장수(臟輸), 장수오십혈(臟兪五十穴) : 경혈 오장(五臟)에 속해 있는 각 음경(陰經)의 정형수경합(井滎兪經合)에 해당하는 모든 혈. 경(經)마다 5개의 혈(穴)이 있으므로 25혈(穴)로서 좌우를 합치면 모두 50개의 혈이 된다.

장수오십혈(臟兪五十穴) [경혈] ⇒ 장수(藏兪)

장심독(掌心毒) [병증] 동 탁반정(托盤疔) : 안이 수장심(手掌心)의 노궁혈(勞宮穴-심포경(心包經)에 속한다)에서 발생하는 옹저.

장양(壯陽) [치법] ⇒ 보양(補陽)

ㅈ

장열(壯熱) [증상] 동 고열(高熱), 흡흡발열(翕翕發熱) : 내과 소아 열이 나는 기세가 매우 드센 병증으로 지속적인 고열과 함께 얼굴이 붉어지고 구갈하여 찬물을 찾으며 땀을 많이 흘리고 맥이 홍대(洪大)한 것. 장열(壯熱)은 한번 시작하면 그치지 않으니, 기혈(氣血)이 쌓여 충실해져서 오장(五臟)이 열을 내는 것으로, 이 병증은 대부분 외감병(外感病)으로 사열(邪熱)이 왕성하고 실(實)한 환자에게 나타난다.

장옹(腸癰) [병증] : 내과 대장옹(大腸癰)과 소장옹(小腸癰)을 통칭. 습열(濕熱), 기체(氣滯), 혈어(血瘀) 등이 장중(腸中)에 유주(留注)되어 기혈이 울저(鬱阻)된 소치다.

장원양(壯元陽) [치법] ⇒ 보양(補陽)

장저(瘴疽) [병증] : 안이 산람장기(山嵐瘴氣)가 기육과 근골에 침입하여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옹저. 근골이 아프고 처음 발생할 때에 흑색을 띠고 마비가 되어 목석(木石)과 같다.

장절(腸絶) [징후] : 진단 위중(危重)한 증후의 하나. 몸이 뻣뻣해져서 구부리거나 젖히지 못하고 자한(自汗)이 멎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

장조(臟躁) [병증] 동 장조증(臟躁症) : 정신 정신 이상인 경우와 같이 별 이유없이 자주 슬퍼하며 발작적으로 잘 울기도 하고 하품과 기지개를 자주 켜는 등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신경장애 증상의 하나. 이 때는 甘麥大棗湯 혹은 대추(大棗)를 소탄존성(燒炭存性)하여 미음에 충복(沖服)한다고 하였다. 주로 여성 환자들에게서 많은데, 오늘날 히스테리성 발작과 유사.

장조증(臟躁症) [병증] ⇒ 장조(臟躁)

장충(長蟲) ⇒ 회(蛔)

장치(腸痔) [병증] : 안이 항문 내에 결핵이 되어 있고, 출혈이 조금씩 일어나며 한열(寒熱)이 왕래하고 대변을 볼 때 탈항(脫肛)이 되는 치창(痔瘡).

장침(長鍼) [기구] 동 환도침(環跳鍼)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로 길이가 7치이며 호침(毫鍼)처럼 생긴 치료기구.

장침형(長鍼形) [진단] : 침구 소아지진법(小兒指診法) 십삼지형(十三指形)의 하나. 명관(命關)을 지나서 쌀알 크기만 한 것이 1, 2개 나타나는 것으로 심간(心肝)에 열(熱)이 심하여 풍(風)이 생길 때 볼 수 있음.

장풍(腸風) [병증] 동 장풍하혈(腸風下血) : 내과 ① 선혈후변(先血後便) 혈색은 선홍색으로 나타나는 병증. → 근혈(近血) ② 변혈(便血)을 주증으로 하는 질환.

장풍하혈(腸風下血) [병증] ⇒ 장풍(腸風)

장학(瘴瘧) [병증] ⇒ 온학(溫瘧)

장한(臟寒) [병리] [병증] : 병리 ① 뱃속이 찬 것.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한 것. ② 신생아가 100일 안에 속이 한(寒)해서 설사하고 우는 병증.

장허불고(腸虛不固) [병리] : 병리 오래된 설사가 낫지 않아 비신(脾腎)이 모두 허(虛)하고 중기(中氣)가 하수(下垂)한 병리상태.

장허불고증(腸虛不固證) [병증] ⇒ 대장허한증(大腸虛寒證)

장화(壯火) [병리] 동 장화지기(壯火之氣) : 병리 지나치게 왕성하여 체내의 정기(正氣)를 소모시키는 화(火). 소화(少火)에 상대되는 용어로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장애하는 병리적인 화.

장화지기(壯火之氣) [병리] ⇒ 장화(壯火)

장회(臟會) [경혈] : 경혈 팔회혈(八會穴) 중의 장회혈(臟會穴)은 장문혈(章門穴:LR13)로서 오장(五臟)의 이상이나 질병에 이용할 수 있음.

재감(再感) [병리] : 병리 이미 병사(病邪)가 침범하였는데 같은 사기나 비슷한 사기가 다시 침입한 것.

재경(再經) [병리] 동 재전(再傳) : 병리 ① 상한이 처음부터 다시 전경(傳經)하는 것. 상한은 태양경에서 시작하여 하루에 한 경씩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궐음의 순서로 전하는데, 차례로 육경(六經)을 다 전경하였으나 병이 낫지 않고 칠일째 다시 태양경으로, 8일째 양명경으로 전경하는 것. ② 태양병이 낫지 않고 다른 한 경으로 전하는 것.

재전(再傳) [병리] ⇒ 재경(再經)

재천(在泉) [운기] : 원전 매 해 후반년(後半年)의 기후변화를 주관하는 객기(客氣). 재천지기(在泉之氣)는 전반년(前半年)의 기후변화를 주재하는 사천지기(司天之氣)에 상응하여 정해지니, 사천지기가 소음군화지기(少陰君火之氣)이면 재천지기(在泉之氣)는 양명조금지기(陽明燥金之氣)이고, 사천지기가 소양상화지기(少陽相火之氣)이면 재천지기는 궐음풍목지기(厥陰風木之氣)이며, 사천지기가 태음습토지기(太陰濕土之氣)이면 재천지기는 태양한수지기(太陽寒水之氣)이다. 이는 역으로도 성립함.

저(疽) [병증] 동 저증(疽證) : 안이 종양(腫瘍)이 편평하고 색불변(色不變), 불열불통(不熱不痛)한 것으로 옹(癰)에 비하여 음(陰)·허(虛)한 경우.

저간(猪癎) [병증] : 정신 → 오간(五癎)

저근(苧根) [약물] ⇒ 저마근(苧麻根)

저근백피(楮根白皮) [약물] ⇒ 저백피(楮白皮)

저담(猪膽) [약물] : 본초 멧돼지과(猪科 : Suidae)에 속한 멧돼지 *Sus scrofa* Linne의 담즙.

저령(猪苓) [약물] : 본초 잔나비걸상과(多孔菌科 : Polyporaceae)에 속한 진균인 저령(猪苓) *Polyporus umbellatus* (Pers.) Fries의 균핵(菌核)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

저마근(苧麻根) [약물] 동 저근(苧根) : 본초 쐐기풀과(蕁麻科 : Urtic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모시풀 *Boehmerita frutescens* Thunberg.의 근으로, 봄과 겨울에 캐어 흙을 없애고 씻은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저근피(楮根皮) [약물] ⇒ 저백피(楮白皮)

저근백피(楮根白皮) [약물] ⇒ 저백피(楮白皮)

저백피(楮白皮) [약물] 동 춘피(椿皮), 저피(楮皮), 저근백피(楮根白皮), 저근피(楮根皮) : 본초 소태나무과(苦木科 : Simaroub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의 근피나 수간피를 박취(剝取)하여 조피(粗皮)를 긁어서 제거하고 건조한 것.

저실자(楮實子) [약물] : 본초 뽕나무과(桑科 : Mor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닥나무 *Broussonetia kazinoki* Sieb. 또는 꾸지나무 *B. papyrifera* (L.) Vent.의 과실로, 8~10월 사이에 과실이 붉은색을 띨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저약관(貯藥罐) [침구] 동 저약관법(貯藥罐法) : 침구 시술하기 전에 먼저 약액(藥液)을 부항 속에 넣고 공기를 뽑아내어 부착시키는 부항요법.

저약관법(貯藥罐法) [침구] ⇒ 저약관(貯藥罐)

저저(杼疽) [병증] 동 선창(羨瘡), 화골창(化骨瘡) : 안이 유양돌기염과 유사. 처음에는 크게 종대되지 않으나 통증과 가려움증이 있으며 발열이 되면서 장액(漿液)이 흐르고 점차 커져서 기육에 침식된다. 혹 농(膿)의 색깔이 메주와 같이 흑색을 띠고 혈액과 함께 유출되기도 한다.

저증(疽證) [병증] ⇒ 저(疽)

저피(楮皮) [약물] ⇒ 저백피(楮白皮)

적(積) [병증] 동 적증(積症) : 내과 복내(腹內)의 적괴(積塊). 유형이며,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고, 통처도 일정. 병이 장(臟)에 있고, 혈분(血分)에 속하며 중초의 병변에 많음.

적괴(積塊) [병증] : 내과 배와 옆구리 부위에 덩어리가 단단하게 맺혀 만져지는 병증.

적단(赤丹) [병증] ⇒ 계관단(鷄冠丹)

적대하(赤帶下) [병증] 동 대하적후(帶下赤候) : 부인 질에서 담홍색의 혈(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점액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 근

ㅈ

심걱정으로 심비(心脾)를 손상하고, 간기(肝氣)가 울결되어 회(火)가 치성(熾盛)하여 충(衝)·임(任)·대맥(帶脈)을 작상(灼傷)해서 발생.

적두(赤豆) [약물] ⇒ 적소두(赤小豆)

적류(赤柳) [약물] ⇒ 정류(檉柳)

적리(赤利) [병증] : 소아 어린아이의 설사한 변이 붉은색인 것. 설사에 붉은 빛깔이 섞여 나오거나 순수한 피가 나오며, 번갈(煩渴), 맥삭(脈數) 등의 증상을 수반함.

적리(積利) [병증] : 소아 음식이 쌓여 안을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질. 본래 비기(脾氣)가 허약한 경우에 음식이 쌓이면 비(脾)가 운화(運化)시킬 수 없으므로 적체되어 오래되면 이질이 된다. 설사를 하되 붉으면서 뿌옇거나 고름처럼 누렇거나, 마치 물고기의 내장 같거나 오리똥처럼 묽으면서 절인 생선 냄새가 나며, 배꼽 주위가 꼬집히는 듯이 아프고 아프면서 바로 설사가 나며 설사를 하고 나면 아픔이 좀 가신다.

적막하수(赤膜下垂) [병증] 동 수렴장(垂簾障), 수렴장(垂廉障) : 안이 각막혈관신생과 유사.

적맥(赤脈) [증상] ⇒ 적사(赤絲)

적백대하(赤白帶下) [병증] 동 적백력(赤白瀝), 적백루하(赤白漏下), 부인하적백옥(婦人下赤白沃) : 부인 질에서 붉은색에 백색이 섞인 점액이 배출되는 것. 이는 습열(濕熱)이 임맥(任脈), 대맥(帶脈)을 손상시켜 발생한다.

적백력(赤白瀝) [병증] ⇒ 적백대하(赤白帶下)

적백루하(赤白漏下) [병증] ⇒ 적백대하(赤白帶下)

적백리(赤白痢) [병증] : 소아 곱과 피고름이 섞인 대변을 보는 이질. 끈끈하게 덩어리진 피고름이 나오는데 적색과 백색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서 많이 일어나니 불결한 음식을 먹거나 비위불화(脾胃不和)로 습열(濕熱)이 서로 훈증(薰蒸)하여 기혈(氣血)이 모두 병들어 발생한다.

적백유풍(赤白遊風) [병증] : 안이 피부에 작열감이 있으면서 적색을 띠고 통증이 있다. 전신에 이행(移行)되는데, 혈분(血分)에 울체되면 적색을 띠고, 기분(氣分)에 울체되면 백색을 띠게 된다.

적백체하(赤白滯下) [병증] : 소아 적백색의 곱이 서로 섞여 나오는 이질.

적봉영원(赤鳳迎源) [침구] 동 적봉영원법(赤鳳迎源法), 영원법(迎源法) : 침구 침을 깊숙이 심부(深部)로 찔렀다가 천부(淺部)로 빼서 득기(得氣)한 후 다시 중부(中部)까지 침을 찌르고 즉시 큰 폭으로 빠르게 염전(捻轉)하며 잡았다 놨다 하는 침자수기법(鍼刺手技法).

적봉영원법(赤鳳迎源法) [침구] ⇒ 적봉영원(赤鳳迎源)

적사(赤絲) [증상] 동 적맥(赤脈) : 안이 결막이나 공막, 각막 등에 붉은 충혈이 생긴 것.

적사규맥(赤絲虯脈) [병증] : 안이 안과(眼科) 병증. 이 병증은 보통 기륜(氣輪)에 실핏줄이 종횡으로 뻗는데, 그 굵기와 조밀함이 일정하지 않은 것. 심한 경우는 밝은 빛을 싫어하고 은근히 껄끄러우며 눈물이 나면서 간혹 가렵거나 아프고,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으면서 눈이 흐릿하기만 하고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

적사당(赤砂糖) [약물] ⇒ 흑사당(黑砂糖)

적사만목증(赤絲滿目症) [병증] : 안이 백정상(白睛上)의 충혈(充血)상태. 마치 눈에 붉은 실이 가득 찬 듯하다.

적석지(赤石脂) [약물] 동 적석토(赤石土) : 본초 삼사정계에 속한 규산염류광물인 다수고령토(多水高嶺土) Halloysite로 함수규산알루미늄 [$Al_4(Si_4O_{10})\cdot(OH)_8\cdot 4H_2O$]을 함유한 일종의 홍색 괴상체(塊狀體)를 채취한 것.

적석토(赤石土) [약물] ⇒ 적석지(赤石脂)

적소두(赤小豆) [약물] 동 적두(赤豆)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팥(赤豆) *P. angularis* Wight 또는 덩굴팥

(赤小豆) *Phaseolus calcaratus* Roxburgh의 성숙한 종자로,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

적소두대(赤小豆大) [약물] : 방제 환제 유형의 하나. 환약을 팥 크기만 하게 빚는 것을 말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0.1~0.2g이며, 환약의 평균 직경은 5.70mm 정도.

적시(赤施) [병증] ⇒ 고음저(股陰疽)

적시발(赤施發) [병증] ⇒ 고음저(股陰疽)

적심통(積心痛) [병증] : 내과 적체(積滯)가 장위(腸胃)를 침입함으로써 심복부(心腹部)가 아픈 병증.

적안(赤眼) [병증] ⇒ 목적(目赤)

적열(積熱) [병증] : 내과 소아 열이 속에 쌓여 있는 병증.

적유단(赤游丹) [병증] : 안이 혈분(血分)에 열이 있을 때 풍사(風邪)에 감촉되어 발열 건조하며, 적색을 띠고 가려우며 운편(雲片)과 같은 모양의 단독(丹毒).

적작약(赤芍藥) [약물] ⇒ 작약(芍藥)

적전(赤箭) [약물] 동 적전지(赤箭芝) : 본초 난초과(蘭科 : Orchidaceae)에 속한 천마 *Gastrodia elata* Blume의 지상부.

적전지(赤箭芝) [약물] ⇒ 적전(赤箭)

적정류(赤檉柳) [약물] ⇒ 정류(檉柳)

적증(積症) [병증] ⇒ 적(積)

적지(赤芝) [약물] ⇒ 영지(靈芝)

적체(積滯) [병증] : 소아 숙식(宿食)이 소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생기는 질환. 대개 음식을 조절하여 먹이지 않았거나, 찬 것, 날 것, 단 것, 기름진 것을 과식하였거나, 단단하고 마른 음식을 많이 먹어 비위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음식물이 위장에 정체되어 온다. 외적 요인으로는 풍한(風寒)에 상하여 음식이 체하여 적체가 생긴다. 적체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으면 장기간 미열이 있거나, 발열 시간이 일정치 않아 아침에는 열이 나고 저녁이 되면 내리다가 밤이 되면 더 심하고 낮에는 때때로 내리기도 하며 얼굴이 누렇고 수척해지며,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허약해진다.

적취(積聚) [병증] : 내과 복내(腹內)의 적괴(積塊)로 때로 동통(疼痛)하는 일종의 병증.

적탁(赤濁) [병증] : 내과 소변 등 분비물이 혼탁(混濁)하면서 적색(赤色)을 띄는 증상.

적토(赤土) [약물] ⇒ 대자석(代赭石)

적통여사(赤痛如邪) [병증] : 안이 주로 체질적으로 허약한 자에게 매년 여러 차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백정(白睛)이 적색을 띠나 심홍(深紅)하지 않고 통증이 완만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홍채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적풍(賊風) [병리] [병증] 동 적풍사기(賊風邪氣) : 병리 이상기후(바람)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사기.

적풍사기(賊風邪氣) [병리] [병증] ⇒ 적풍(賊風)

적하수오(赤何首烏) [약물] ⇒ 하수오(何首烏)

전(癲) [병증] 동 전병(癲病), 전증(癲證), 전증(癲症), 전질(癲疾), 문치(文痴) : 정신 정신이상. 과도한 사려(思慮)·우울(憂鬱)로 심비(心脾)가 손상되거나 혹은 포락(包絡)이 막히고 담열(痰熱)이 심(心)을 가로막아 발생. 그 증상은 우울해하고 무표정하며, 혹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혹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헛소리를 하며, 혹은 말을 조리 없이 뒤죽박죽하고, 혹은 노래를 부르며, 혹은 울고, 혹은 웅얼거리며, 혹은 웃고, 혹은 더럽고 깨끗한 것을 몰라 오물을 집어먹는 것 등이다. 이 병은 오늘날 정신분열병, 조울병 등과 유사함. → 치매(痴呆), 매병(呆病), 오전(五癲), 화전(花癲), 실심풍(失心風)

전간(癲癎) [병증] ① 동 간풍(癎風) : 정신 ⇒ 간병(癎病) ② 전증과 간병의 합칭. → 전(癲), 간병(癎病)

전갈(全蝎) [약물] 동 전충(全蟲) : 본초 전갈과

ㅈ

(鉗蝎科 : Buthidae)에 속한 곤충인 전갈 *Buthus martensi* Karsch을 끓는 물이나 끓는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말린 것.

전경(傳經) [병리] : 병리 사기(邪氣)가 한 경(經)에서 다른 경으로 전해지면서 병이 진전되는 것.

전경(專經) [병리] : 병리 상한의 태양경병이 다른 경(經)으로 전해지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양경에만 있는 것.

전경진(傳經盡) [병리] : 병리 '전경(傳經-어느 한 경의 증후가 다른 한 경의 증후로 바뀌는 것)을 다했다.'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전경은 육경(六經)의 순서에 따라 태양경 → 양명경 → 소양경 → 태음경 → 소음경 → 궐음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증후가 궐음경까지 발전하여 끝나는 것을 전경진(傳經盡)이라 한다.

전곡(前谷)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2)로서 형수혈(滎水穴)에 해당하고 새끼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본절; metacarpophalangeal joint) 앞 오목한 곳에 위치.

전광(癲狂) [병증] 동 광전(狂癲), 광전병(狂癲病) : 정신 신지[神志-사려(思考), 기억(記憶)]가 상실(insanity)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병(Psychoses)으로 전(癲)과 광(狂)은 병리변화상 연관되어 임상적으로 통상 전광(癲狂)이라 병칭. 그러나 같은 정신병이라도 그 증상이 양, 동적(陽, 動的)이어서 광란(狂亂), 흉폭(兇暴)한 증상을 광증이라 하고, 음적(陰的)이며 침정적(沈靜的)인 증상을 전증(癲症)이라 칭한다. 즉 전증(癲症)은 침울상태(沈鬱狀態)로 표정냉담(表情冷淡), 침묵치매(沈默痴呆), 언어착란(言語錯亂), 정이다희(靜而多喜) 증상을 주로 나타내며 광증(狂症)은 흥분상태로 동이다노(動而多怒), 가소불휴(歌笑不休), 타인매인(打人罵人), 기의이주(棄衣而走), 유원상옥(踰垣上屋) 증상을 수반한다.

전궐(煎厥) [병증] 동 전궐증(煎厥證) : 내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잘 듣지 못하고, 마치 도시가 무너지는 것처럼 세찬 물결소리가 그치지 않으며 혼궐(昏厥)하는 병증.

전궐증(煎厥證) [병증] ⇒ 전궐(煎厥)

전귀(轉歸) [병리] : 병리 → 병세(病勢)

전근(轉筋) [병증] : 내과 근육에 쥐가 나는 것.

전기구(電氣灸) [침구] : 침구 열원(熱源)으로서 애구(艾灸) 대신에 전기의 열작용을 이용하는 뜸 요법.

전기요법(電氣療法) [치법] 동 전기치료(電氣治療), 전기자극(電氣刺戟), 전기자극치료(電氣刺戟治療) : 재활 전류의 열 효과, 전자기 효과, 화학적 효과를 이용하여 인체의 경혈(經穴-경락), 반응양도점(反應良導點), 압통점(壓痛點), 발통점(發痛點), 전기 운동점, 신경학적 포인트, 신경차단의 자입점(刺入點) 등에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의 전류를 통하게 하여 혈액순환의 증진, 통증조절, 조직의 생리활동 회복의 촉진, 관절가동 범위의 증가 등 치료효과를 얻는 치료법.

전기자극(電氣刺戟) [치법] ⇒ 전기요법(電氣療法)

전기자극치료(電氣刺戟治療) [치법] ⇒ 전기요법(電氣療法)

전기지방분해침요법(電氣脂肪分解針療法) [치법] : 재활 침에 전기 자극을 주어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방법. 전류가 흐르면 열의 증가를 가져오며 세포의 신진대사를 전체적으로 방해하게 되어 세포는 수동적으로 감극되고 에너지가 멈추게 되고 다시 활발한 편극 작용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에너지를 이동시키기 위해 triglyceride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 때 triglyceride는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 되어 미세순환을 통해 제거된다.

전기치료(電氣治療) [치법] ⇒ 전기요법(電氣療法)

전기침(電氣鍼) [침구] ⇒ 전침(電鍼)

전도(顚倒) [병증] ⇒ 졸도(卒倒)

전도지관(傳道之官) [생리] ⇒ 대장(大腸)
전두맥(轉豆脈) [징후] 동 전환맥(轉丸脈)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로 맥이 마치 콩이 구르는 것처럼 일정하지 않은 것.
전두침(箭豆鍼) [기구] ⇒ 참침(鏨鍼)
전라포(田螺皰) [병증] : 안이 족저면[足底面-족장(足掌)]에서 발생하는 옹저로서, 갑자기 화상(火傷)을 입은 것같이 열이 나고 자백색(紫白色) 황포(黃皰)를 형성하여 창통(脹痛)하는 것.
전맥(顫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한 번 뛰는 사이에 무수히 작은 파동이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것.
전법(顫法) [추나] ⇒ 두법(抖法)
전변(傳變) [병리] 동 전변(轉變), 병기전변(病機傳變), 병사전변(病邪傳變) : 병리 병증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것. → 병세(病勢)
전변(轉變) [병리] ⇒ 전변(傳變)
전병(癲病) [병증] ⇒ 전(癲)
전복(煎服) [기타] : 방제 약을 달여 먹는 것. 일정한 양의 물이나 술에 약재를 넣고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먹는 것.
전본(傳本) [병리] : 병리 태양육전(太陽六傳)의 한 가지 형태로 태양병증이 표(標)에서 본(本)으로 전변되는 것.
전사해(前四海)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 전사해(前四海)는 신체의 전면부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진해(津海), 고해(膏海), 유해(油海), 액해(液海)를 말한다.
전삼칠(田三七) [약물] ⇒ 삼칠(三七)
전선(錢癬) [병증] ⇒ 독창(禿瘡)
전송곽(傳送廓) [진찰] : 안이 천곽(天廓)에 해당하며 폐(肺), 대장(大腸)과 상관관계가 있음.
전시기(轉矢氣) [병증] ⇒ 시기(矢氣)
전시로(傳尸勞) [병증] ⇒ 노채(勞瘵)
전시로(傳屍勞) [병증] ⇒ 노채(勞瘵)
전실기(轉失氣) [병증] ⇒ 시기(矢氣)
전요화단(纏腰火丹) [병증] 동 사천창(蛇穿瘡) : 안이 허리부위 피부에 물집이 줄지어 생기고 아프고 열감이 나는 일종의 대상포진 질환.
전위(轉位) [병리] : 재활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동한 것.
전율(戰慄) [증상] : 내과 갑작스럽게 한사(寒邪)를 감수하거나 심(心)에 화열(火熱)이 심하여 양기(陽氣)가 막혀서, 몸이 떨리고 추위를 심하게 타는 증상.
전음(專陰) [병리] : 병리 ① 음(陰)만 있고 양(陽)이 없는 병리상태. ② 위기(胃氣)가 없는 진장맥(眞藏脈). 음맥(陰脈)만 나타나고 양맥(陽脈)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음위(前陰痿) [병증] ⇒ 음위(陰痿)
전이(纏耳) [병증] : 안이 만성 중이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백색의 농을 배출하는 병증.
전자(轉刺) [침구] ⇒ 염전(捻轉)
전자침(電子鍼) [침구] ⇒ 전침(電鍼)
전자침술(電磁鍼術) [침구] ⇒ 전침(電鍼)
전장(傳藏) [병리] : 병리 한 장부의 병이 다른 장부로 옮겨가거나 병을 생기게 하는 것.
전정(前頂)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1)로서 백회(百會) 앞 1촌 5푼에 위치.
전정통(巔頂痛) [병증] : 내과 정수리가 몹시 아픈 두통.
전제(剪臍) [기타] 동 단제(斷臍) : 부인 신생아의 탯줄을 끊는 것. 이 때는 반드시 신중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병독(病毒)이 뚫고 들어가게 되어 안으로 장부에 침입하면 제풍(臍風)이 발생하고, 밖으로 기부(肌膚)에 침입하면 제습(臍濕), 제창(臍瘡), 제출혈(臍出血) 등의 병증이 발생한다.
전중(膻中) [경혈] : 경혈 임맥의 경혈(CV17)로서 심포의 모혈(募穴), 팔회혈(八會穴) 중 기회혈(氣會穴)에 해당하고 전정중선(前正中線)

ㅈ

의 양쪽 젖꼭지 사이 정중앙에 위치.
전중발(膻中發) [병증] ⇒ 전중저(膻中疽)
전중발저(膻中發疽) [병증] ⇒ 전중저(膻中疽)
전중저(膻中疽) [병증] 동 전중발(膻中發), 전중발저(膻中發疽) : 안이 양유두간(兩乳頭間) 함중(陷中) 전중혈(膻中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전증(癲症) [병증] ⇒ 전(癲)
전증(癲證) [병증] ⇒ 전(癲)
전진(顫振) [증상] ⇒ 진전(震顫)
전질(癲疾) [병증] ⇒ 전(癲)
전청근(靛靑根) [약물] ⇒ 판람근(板藍根)
전충(全蟲) [약물] ⇒ 전갈(全蝎)
전칠(田七) [약물] ⇒ 삼칠(三七)
전침(電鍼) [침구] 동 전기침(電氣鍼), 전자침(電子鍼), 전침법(電鍼法), 전침요법(電鍼療法), 전자침술(電磁鍼術) : 침구 호침(毫鍼)을 2대 이상 꽂고 침 자루에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 침자극과 함께 전기 자극을 주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전침(轉鍼) [침구] : 침구 침을 놓은 후 다시 돌리는 것.
전침기(電鍼機) [침구] : 침구 전침요법과 침자마취(鍼刺麻醉)에 사용하는 출력변압기의 하나.
전침마취(電鍼麻醉) [침구] : 침구 자침(刺鍼) 후 전침기를 사용해 호침(毫鍼)에 전류를 보내 국소에 무통상태를 유도하는 침술마취법의 일종.
전침법(電鍼法) [침구] ⇒ 전침(電鍼)
전침요법(電鍼療法) [침구] ⇒ 전침(電鍼)
전태(轉胎) [병증] 동 시통(試痛) : 부인 ① [병증] ⇒ 시통(試痛). ② [치법] : 비정상적인 태아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
전포(轉胞) [병증] 동 전포(轉脬), 포전(胞轉), 포전(脬轉), 전포증(轉脬證), 전포증(轉胞症) : 부인 임신기간에 요(尿)가 저류(尿瀦留)하며 소변불통(小便不通)한 것. 주로 임신 3개월 전후에 발생하고 또 임산 시에 발생함. 소변불통의 증상과 함께 소복창급동통(少腹脹急疼痛)하고 심번부득와상(心煩不得臥床)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전포(轉脬) [병증] ⇒ 전포(轉胞)
전포증(轉胞症) [병증] ⇒ 전포(轉胞)
전포증(轉脬證) [병증] ⇒ 전포(轉胞)
전풍(癜風) [병증] : 안이 사상균(絲狀菌)에 의한 백반(白斑).
전한(戰汗) [증상] : 내과 외감 열병의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고 잇달아 온몸에서 땀이 나는 병증.
전현(顚眩) [병증] ⇒ 현훈(眩暈)
전호(全胡) [약물] ⇒ 전호(前胡)
전호(前胡) [약물] 동 전호(全胡)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바디나물 *Angelica decursiva* Franchet et Savatier(=*Peucedanum decursivum* Maximowicz), 또는 백화전호(白花前胡) *Peucedanum praeruptorum* Dunn 의 근으로, 가을 또는 겨울에 잎과 줄기가 말라죽었을 때 뿌리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전환맥(轉丸脈) [징후] ⇒ 전두맥(轉豆脈)
전후배혈법(前後配穴法) [침구] : 침구 흉복부(胸腹部)와 요배부(腰背部)의 혈자리를 서로 배합시키는 방법.
전후불통(前後不通) [증상] ⇒ 이변불통(二便不通)
전후폐(纏喉閉) [병증] ⇒ 전후풍(纏喉風)
전후풍(纏喉風) [병증] 동 전후폐(纏喉閉) : 안이 담연(痰涎)이 옹성(壅盛)하여 인후의 내외가 모두 종통(腫痛)하며 신속히 경(頸), 악(顎), 시(腮), 치은(齒齦) 등의 처로 만연되며 심한 경우 전 흉부(前胸部)까지 미치고 호흡이 촉박해지는 것.
절(癤) [병증] 동 절증(癤證) : 안이 종근(腫根)이 뚜렷하지 않고 약간 붓고 적색을 띠었으며 크기가 1~2촌 정도인 옹저.
절(切) [진찰] [가공] [기타] : 진단 ① 절맥(切脈)의 약칭으로 안맥(按脈)과 같은 의미. ② 누

르는 것을 말함. ③ 극심함을 말함. ④ 급속함을 말함. ⑤ 절편(切片)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절경(絶經) [병증] ⇒ 폐경(閉經)
절골(絶骨) [경혈] ⇒ 양보(陽輔)
절골(折骨) [병증] ⇒ 골단(骨斷)
절근요법(截根療法) [침구] ⇒ 도치법(挑治法)
절맥(切脈) [진찰] ⇒ 맥진(脈診)
절법(切法) [침구] [추나] : 침구 ① 침을 찌를 때 엄지손가락 손톱 끝으로 혈자리를 눌러주어 그곳의 기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하여 침을 놓기 편하게 하는 방법. ② 추나의 수기법으로 손바닥 척골 쪽에 있는 작은 두덩을 두드리는 방법.
절사(絶嗣) [병증] ⇒ 불임(不姙)
절산(絶産) [병증] ⇒ 불임(不姙)
절상(折傷) [병증] ⇒ 골단(骨斷)
절식(節食) [증상] : 재활 치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절식요법(節食療法) [치법] 동 벽곡법(辟穀法) : 재활 절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치료법. 감식기, 단식기, 복식기, 식이요법기의 4단계의 절식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모든 의학적 치료.
절양(折瘍) [병증] ⇒ 골단(骨斷)
절요(折腰) [병증] : 재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요통.
절제(切製) [포제] ⇒ 절편(切片)
절증(癤證) [병증] ⇒ 절(癤)
절진(切診) [진찰] : 진단 사진(四診)의 하나. 맥진(脈診)과 안진(按診)을 포괄. 의사가 진찰할 때 손과 손가락 끝으로 환자의 일부 체표부위를 짚어 보거나 눌러 보며 검사하는 방법. 맥상(脈象)의 변화, 복부의 비괴(痞塊), 피부의 종창, 손발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아픈 부위 등을 검사하며, 절진의 결과와 사진의 나머지 망진(望診)·문진(問診)·문진(聞診)을 서로 참조해서 질병을 진단한다.
절척(切脊) [병증] : 재활 요척(腰脊)이 끊어질 듯이 아픈 것. 독맥(督脈)은 신(腎)에 속하면서 척(脊)을 관통하므로 신허(腎虛)하면 독맥이 느슨해져 요척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절침(切鍼) [침구] ⇒ 절침(折鍼)
절침(折鍼) [침구] 동 절침(切鍼) : 침구 침을 놓을 때에 몸 안에서 침이 부러지는 것.
절태(絶胎) [병증] ⇒ 불임(不姙)
절패모(浙貝母)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절패모(浙貝母) *Fritillaria Thunbergii* Miq.의 인경(鱗莖)으로, 초여름에 줄기가 마를 때 채집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심아(芯芽)를 제거한 것을 대패(大貝)라 부르고, 작고 심아(芯芽)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주패(珠貝)라 부르며, 심아(芯芽)를 제거하고 두텁게 쪼갠 것을 절패편(浙貝片)이라 부름.
절편(切片) [포제] 동 절제(切製), 부저(咬咀) : 본초 한약 가공 방법의 하나. 일정한 규격으로 자른 약재를 말함. 약편에는 박편(薄片), 후편(厚片), 사편(斜片), 장편(長片), 직편(直片), 절괴(切塊)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한약재를 절편하면 법제(法製), 조제(調製)하는데 편리하며, 보관이 간편하다.
절한(絶汗) [병증] 동 탈한(脫汗) : 내과 위급 상태에서 보이는 대량의 땀으로 기름과 같은 땀이 멎지 않고 계속 흐르는 현상.
점법(點法) [추나] [치법] : ① 추나 시술(施術)하는 부위는 작게, 그러나 비교적 세게 누르는 방법. ② 방제 점약(點藥)을 사용하는 방법.
점복(點服) [기타] : 방제 복약(服藥) 방법의 하나. ① 산제(散劑)를 물, 술, 미음(米飮) 등에 타서 복용하는 것. ② 약을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복용하는 것.
점자(點刺) [침구] : 침구 도침요법(陶鍼療法)에서 쓰는 8종 침자 요법의 하나로 한 점에 단자

ㅈ

(單刺)하는 것을 말하며 삼릉침(三稜鍼)으로 시술하는 점자출혈(點刺出血)과 같음.
점침(拈鍼) [침구] ⇒ 염전(捻轉)
점한(粘汗) [증상] ⇒ 유한(柔汗)
점혈(點穴) [침구] [추나] ㊐ 점혈법(點穴法) : ① 침구 침(鍼)이나 뜸 놓을 혈(穴)자리를 잡는 것. ② 재활 추나수법명. 손가락으로 혈(穴)을 찍어 누르거나 때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경통(頸痛)·견통(肩痛)·요퇴통(腰腿痛)·섬좌상(閃挫傷)·두통(頭痛)·치통(齒痛)·복통(腹痛)·소화불량(消化不良)·유뇨(遺尿)·불면(不眠)·탄탄(癱瘓) 등의 증상에 상용.
점혈법(點穴法) [침구] [추나] ⇒ 점혈(點穴)
점혈탄법(點穴彈法) [추나] : 재활 추나수법명. 손가락으로 혈을 찍어 누르거나 때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접골목(接骨木) [약물] ㊐ 속골목(續骨木) : 본초 인동과(忍冬科 : Caprifoliaceae)에 속한 딱총나무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의 줄기 및 가지.
접골발(接骨發) [병증] : 안이 하퇴부(下腿部)의 하부, 경골(脛骨), 비골(腓骨)과 족후종골(足後踵骨)이 접합하는 부위(膀胱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접기운경법(接氣運經法) [침구] : 침구 옛날에 경맥(經脈)의 길이와 경기(脈氣)가 운행하는 속도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자침(刺鍼)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 것.
접기통경(接氣通經) [침구] : 침구 경맥(經脈)의 길이와 맥기(脈氣)가 운행하는 속도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자침(刺針)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 것.
정(井) [경혈] ⇒ 정혈(井穴)
정(精) [생리] : 생리 ①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물질. ② 신장(腎臟)에 저장되어 인체의 생장발육과 생식기능을 담당하는 정기(精氣).
정갈(精竭) [병리] ㊐ 정모(精耗) : 병리 정기(精氣)가 매우 허손하여 부족해진 것.
정방(正方) [침구] ㊐ 정격(正格) : 침구 오행침법(五行鍼法)에서 보법(補法)에 쓰는 처방.
정경(正經) [경락] ⇒ 십이경(十二經)
정경(停經) [병리] : 부인 월경이 정지되는 것으로 대부분 경폐(經閉)나 월경이 끝난 후를 가리킴.
정경락요법(整經絡療法) [치법] : 재활 동시에 여러 경락에 자극을 주어 체내의 음양균형을 맞추는 것. 이는 한의학의 전일관(全一觀)과 표본동치(標本同治) 및 부정거사(扶正祛邪)의 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성적이고 허증에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체내 장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수적인 통증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골(正骨) [치법] ㊐ 도수정복(道手整復), 정골법(正骨法) : 재활 의료인이 자신의 수지(手指), 수장(手掌), 수권(手拳)을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표면, 즉 경혈(經穴)과 경락(經絡) 등을 자극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기혈(氣血)의 조화(調和), 경락(經絡)의 소통(疏通), 신진대사의 촉진, 저항력의 증진, 국부(局部)의 혈액순환과 영양상태의 개선 및 정골작용(正骨作用)을 한다.
정골법(正骨法) [치법] ⇒ 정골(正骨)
정골작용(正骨作用) [치법] : 재활 변위된 해부학적 구조를 교정해 주는 것. 척추관절에 변위가 발생하였거나 근육 인대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유관조직의 해부학적 위치이상으로 통증(痛症)이나 비증(痺症) 등이 나타나는 병증을 외력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정골추나(正骨推拿) [추나] : 추나 접골(接骨) 및 관절의 변위를 교정하는 수기법.
정골팔법(正骨八法) [치법] : 재활 골절, 탈구 및 연조직손상의 여덟 가지 정복치료법(整復治療

法). 모법(摸法), 접법(接法), 단법(端法), 제법(提法), 안법(按法), 마법(摩法), 추법(推法), 나법(拿法)을 말함.

정공출혈(精孔出血) [증상] : 내과 남성 요도구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증상.

정규(精竅) [해부] : 남성의 요도구.

정극(精極) [병증] : 내과 육극증(六極證)의 하나. ①기운이 적고 힘이 없으며, 피부에 윤기가 없고 몸이 몹시 여위고 눈에 정기가 없으며 바로 서있지 못하고 몸이 몹시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나는 증상. ②오장육부(五臟六腑)가 쇠약하여 형체 쇠약(形體 衰弱)이 극에 달하므로, 눈이 어두워지고 이가 검어지면서 모발이 빠지며 몸이 무겁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병증.

정기(正氣) [병리] : 병리 정기(正氣)는 인체의 생리기능으로 주로 사기(邪氣)에 대한 저항역과 회복능력을 의미. 기(氣), 혈(血), 정(精), 진(津), 액(液) 등을 물질적 기초로 삼고, 인체의 구조적 특성, 기혈진액 및 생리활동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체의 방어기능, 조직손상에 대한 재생과 복구, 기능대상 및 면역기능 등이 모두 정기의 범주에 속한다.

정기(情氣)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 나오는 용어로, 이제마(李濟馬)는 인간의 본성을 성(性)과 정(情)으로 구분하고 성과 정이 기의 형태로 표출될 때 이를 성기(性氣), 정기(情氣)라고 말하였다. 태양(太陽)의 정기는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고 암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소음(少陰)의 정기는 항상 암컷이 되고자 하고 수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소양(少陽)의 정기는 항상 밖으로 이기고자 하고 안으로 지키고자 하지 않으며, 태음(太陰)의 정기는 항상 안으로 지키고자 하고 밖으로 이기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단(頂端) [기구] ⇒ 침미(鍼尾)

정담(停痰) [병리] : 병리 담음(痰飮)이 체내의 일정부위에 머물러 있는 것.

정두통(正頭痛) [병증] : 내과 머리 전반이 아픈 증상.

정랭(精冷) [증상] 동 정한(精寒) : 내과 배출되는 정액(精液)이 청랭(淸冷)한 상태. 정한(精寒).

정력(丁歷) [약물] ⇒ 정력자(葶藶子)

정력자(葶藶子) [약물] 동 정력(丁歷) : 본초 십자화과(十字花科 : Cruciferae)에 속한 이년생 초본인 꽃다지 *Draba nemorosa* L. var. *hebecarpa* Ledebour 또는 다닥냉이 *Lepidium apetalum* Willdenow의 종자로, 여름에 과실이 성숙하였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정루(精漏) [병증] ⇒ 누정(漏精)

정류(檉柳) [약물] 동 적정류(赤檉柳), 적류(赤柳) : 본초 위성류과(檉柳科 : Tamaricaceae)에 속한 초본인 위성류 *Tamarix juniperina* Bunge의 어린가지와 잎.

정맥(正脈) [징후] : 진단 기본이 되는 맥(脈). 정맥(正脈)에는 부(浮)·침(沈)·지(遲)·삭(數)·홍(洪)·미(微)·활(滑)·삽(澁)·현(弦)·규(芤)·긴(緊)·완(緩)·결(結)·복(伏)·허(虛)·실(實) 등 16맥이 속함.

정명(睛明)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1)로서 눈 안쪽 끝에서 1푼 떨어진 오목한 곳에 위치.

정명지부(精明之府) [해부] ⇒ 동신(瞳神)

정모(精耗) [병리] ⇒ 정갈(精竭)

정문저(頂門疽) [병증] ⇒ 불정저(佛頂疽)

정격(正格) [침구] ⇒ 정방(正方)

정복(整復) [정골] 동 정복수법(整復手法) : 재활 경락(經絡), 관절(關節)을 통순(通順)케 한다는 순즉통(順則通)의 원리로 골착봉(骨錯縫), 인대손상(靭帶損傷) 등에는 정형하여 각각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면 근육경련의 완화와 관절기능의 회복이 쉽게 된다는 것.

정복수법(整復手法) [정골] ⇒ 정복(整復)

ㅈ

정사(正邪) : 병리 ① [병리] 동 사정(邪正) : 정기(正氣)와 사기(邪氣). ② [병리] : 오사(五邪)의 하나로 어느 한 장부에 병을 일으킨 사기.
정사상쟁(正邪相爭) [병리] : 병리 정기(正氣)와 사기(邪氣)의 투쟁. 이 투쟁의 승부는 질병의 발생, 발전, 전귀(轉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병의 측면에서 정기가 강하면 사기가 강해도 발병하지 않으나 정기가 허약하면 약한 사기가 침입해도 발병하게 된다. 질병이 된 후에는 정사(正邪)의 성쇠에 따라 정기가 허약하면 허증(虛證), 사기가 강하며 정기도 약하지 않아 정사 투쟁이 매우 강렬하면 실증(實證)으로 나타난다.
정산(正産) [생리] : 부인 정상적인 출산. 양자건(楊子建)이 쓴 십산론(十産論)에서 "부인이 임신한지 10개월이 되면 갑자기 진통이 오고 이어서 태기(胎氣)가 아래로 쏠리며 제복(臍腹) 부위가 극심하게 아프면서 요간(腰間)까지 심하게 아프며 곡도(穀道)가 약간 빠져 나오며, 계속해서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는데 이를 정산(正産)이라 한다."고 하였다.
정상(精傷) [병리] ⇒ 상정(傷精)
정색(正色) [징후] 동 상색(常色) : 진단 위기(胃氣)와 신(神)이 있는 상(象)으로 병이 없는 정상적인 색. 건강한 사람의 안색. 밝고 윤택하면서 은은한 홍황색(紅黃色)을 띠면서 환하게 빛난다. 이는 기혈(氣血)이 조화롭고 정기가 내부에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 → 주색(主色), 객색(客色)
정설(精泄) [병증] ⇒ 유정(遺精)
정성(鄭聲) [병증] : 정신 환자가 중복해서 말을 하며, 말소리가 낮고 약하면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위중한 징후. 대개 질병의 말기에 정기(正氣)가 쇠약하고 정신이 흩어짐으로 인해 의식이 맑지 못하여 발생.
정소(精少) [증상] : 내과 성교(性交)시 배출되는 정액(精液)이 희소(稀少)한 병증(病證). 칠상증(七傷證)의 하나.
정수(正水) [병증] : 내과 맥(脈)은 침지(沈遲)하고 천증(喘證)이 나타나며 사지(四肢) 및 두면(頭面)에 부종(浮腫)이 나타나는 병증. 수종병형증(水腫病 形證)의 하나.
정시자하(精時自下) [병증] ⇒ 활정(滑精)
정실(精室) [생리] ⇒ 명문(命門)
정열(精熱) [병증] : 내과 성교(性交)를 오래 지속한 상태에서 남자가 사정(射精)할 때 여성의 포궁(胞宮)에 작열감(灼熱感)이 있는 병증.
정영(正營)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17)로서 목창(目窓) 뒤 1촌 5푼에 위치.
정예(釘翳) [병증] ⇒ 정예근심(釘翳筋深)
정예근심(釘翳筋深) [병증] 동 정예(釘翳) : 안이 결핵성 각막 실질염으로서 결핵균에 의해 각막궤양이 되어 생긴다. 예(翳)가 깊고 광택이 있으며 잘 제거되지 않는다 하여 정예(釘翳)라 한다.
정음(停飮) [병리] : 병리 체내 일정부위에 머물러 있는 수음(水飮).
정음천(停飮喘) [병증] : 내과 수음(水飮)이 가슴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숨찬 병증.
정이(停耳) [병증] ⇒ 정이(聹耳)
정이(耵耳) [병증] ⇒ 정이(聹耳)
정이(聹耳) [병증] 동 정이(耵耳), 정이(停耳) : 안이 만성 중이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황색을 띤 농(膿)이 배출되는 것.
정저(井疽) [병증] : 안이 심경(心經)에 화열(火熱)이 축적되어 임맥(任脈)의 중정혈(中庭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정종(怔忪) [병증] ⇒ 정충(怔忡)
정좌법(靜坐法) [기공] : 재활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 앉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하고 자세는 똑바로 가지되 자연스러워야하며 두 손은 허벅다리에 올려놓고 두 다리는 어깨의 넓이와 비슷할 정도로 벌린 뒤 눈은 가늘게 뜨

고 코끝을 보며 입은 다문다.

정즙(精汁) [생리] : 생리 ① 장부가 저장하고 있는 정미물질(精微物質). ② 담즙(膽汁). ③ 혈액(血液).

정지(情志) [생리] : 생리 정서(情緖).

정지상(情志傷) [병리] : 병리 인체 내 음양기혈과 장부경락의 기능을 실조(失調)시켜 병인(病因)으로 작용하는 장기간 혹은 급격한 정신적 자극이나 정지[情志;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공(恐), 경(驚)]의 변동. 작업환경이나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기 쉽다.

정창(睛脹) [병증] : 안이 안구(眼球)가 돌출되는 것.

정창(疔瘡) [병증] : 안이 정(疔)이란 정정(丁釘)의 상태로서 창형(瘡形)은 적고 창근(瘡根)은 깊게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정창(疔瘡)은 이러한 형태로 전신에 발생하는 급성 화농성 창증을 지칭.

정창(精瘡) [병증] ⇒ 감창(疳瘡)

정천(定喘) [기혈]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혈로서 대추(大椎) 양쪽 각 5푼에 위치.

정청(精淸) [병증] : 내과 성교시 배출되는 정액(精液)이 청랭(淸冷) 청박(淸薄)한 병증. 칠상증(七傷證)의 하나.

정체관(整體觀) [기타] ⇒ 정체관념(整體觀念)

정체관념(整體觀念) [병리] 동 정체관(整體觀) : 병리 한의학의 특징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 인체 내 각 조직, 기관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간주하는 동시에 자연환경, 사회환경 등의 변화가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인체내부의 협조와 완정성(完整性)을 강조하며, 또한 인체와 외계환경과의 통일성을 중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해부조직학적 변화를 중시하는 서양의학과 차이가 있음.

정충(怔忡) [병증] 동 정종(怔忪), 종계(忪悸) : 내과 심장순환계의 적응에 의해 심박출량(心搏出量)과 심박수(心搏數)가 증가하게 되어 심장활동의 증가와 심계항진을 느끼게 되고, 빈맥(頻脈)과 맥압 증가가 나타나며, 가벼운 운동에도 피로나 호흡곤란과 같은 산소결핍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 병증.

정치(正治) [치법] : 방제 역치법을 달리 이른 말.

정탁(精濁) [병증] : 내과 소변의 색은 맑지만 요도 끝 부분에 때로 풀처럼 탁한 물질이 있는 병증.

정탈(精奪) [병증] : 내과 신정(腎精)이 고섭(固攝)되지 못하고 빠져나간 병증.

정한(精寒) [증상] ⇒ 정랭(精冷)

정해(精海)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로, 후사해(後四海) 가운데 하나이며 방광에 위치하여 백(魄)을 장하며 신(腎)의 근본이 됨.

정해감(丁奚疳) [병증] : 소아 소아의 몸 전체에 골(骨)이 노출(露出)한 형상이 '정(丁)'과 같다고 하여 정해(丁奚)라고 함. 음식태과(飮食太過)로 비위손상이 원인으로 배꼽돌출과 엉덩이 살이 빠져 있고, 마르고 얼굴색이 거칠고 흑색인 증상이 나타난다.

정향(丁香) [약물] : 본초 도금낭과(桃金娘科 : Myrt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정향수(丁香樹) *Eugenia caryophyllata* Thunb.의 화뢰(花蕾)로, 화뢰가 녹색에서 홍색으로 될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정혈(井穴) [경혈] 동 정(井) : 경혈 인체경맥(人體經脈)의 기유주(氣流注)를 샘물에 비유하여 표현한 용어로 기가 소출(所出)하는 곳을 의미. 사지조갑(四肢爪甲) 측면에 위치하며 주로 심하만(心下滿)을 다스리며 구급처치혈로서 작용이 있다.

정혈지해(精血之海) [생리] ⇒ 명문(命門)

정형추나(正形推拿) [추나] : 추나 근육의 경결(硬結), 관절의 고착(固着)이나 변위의 정형(正形)에 주안점을 두는 수기치료법.

ㅈ

정활탈(精滑脫) [병증] ⇒ 활정(滑精)
정황시묘(睛黃視渺) [병증] : 안이 풍륜(風輪)이 황색을 띠고 밝으며 마치 금색과 같으면서 물체가 혼묘(昏渺)하게 보이는 것.
제(提) [침구] 동 제법(提法) : 침구 ① 침을 혈(穴)자리에 꽂은 후 위로 뽑아 올리는 자침요법(刺鍼療法). ② 추나(推拿)에 사용하는 수기법(手技法)으로 살갗을 꼬집은 후 힘을 주어 위로 끌어당기는 방법.
제감석(制甘石) [약물] ⇒ 노감석(爐甘石)
제기법(提氣法) [침구] : 침구 사법(瀉法)에 해당하는 침자(針刺) 수기법(手技法)으로 45도 방향으로 사자(斜刺)한 후 대지(大指)를 후퇴하며 6회 염전(捻轉)한 후 잠시 쉬고 이것을 2회 더 반복하는 것.
제니(薺苨) [약물] : 본초 초롱꽃과(桔梗科 : Campan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모시대 *Adenophora remotiflorus* Mique.의 뿌리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제대법(臍帶法) [치법] : 소아 옛날에 태독(胎毒)을 푸는 방법의 하나로 탯줄을 기와 위에 얹어 놓고 구워 가루를 낸 후 진사(辰砂), 황련(黃連), 감초(甘草)가루 각각 5푼을 넣고 꿀과 섞어 유모의 젖꼭지에 3~5차례 나누어 바르고 아이가 빨아먹게 함. 반드시 하루 안에 다 먹게 하는데, 다음날이 되면 나쁜 독기가 모두 대변과 함께 나온다.
제돌(臍突) [병증] 동 제산(臍疝) : 소아 배꼽이 겉으로 튀어 나오고 심하면 빨갛게 붓는 병. 대부분 외부로부터 나쁜 독에 감염되어 태속에서 열이 쌓였거나 태어난 뒤 지나치게 울거나 자주 기침을 쉬지 않고 하므로 발생한다.
제법(提法) [침구] ⇒ 제(提)
제복통(臍腹痛) [증상] : 내과 제 주위의 복통.
제산(臍疝) [병증] ⇒ 제돌(臍突)
제삽(提揷) [침구] 동 진퇴(進退), 제삽법(提揷法), 도침법(搗鍼法), 작탁법(雀啄法), 작탁술(雀啄術), 진퇴제삽법(進退提揷法) : 침구 침첨(鍼尖)이 표피(表皮)를 천투(穿透)한 후 침신(鍼身)이 피하(皮下) 혹은 근육 내를 상하(上下)로 진행하는 진퇴운동(進退運動).
제삽법(提揷法) [침구] ⇒ 제삽(提揷)
제삽보법(提揷補法) [침구] : 침구 힘주어 침을 찌른 다음 힘을 빼면서 뽑아 올리는 것.
제삽보사(提揷補瀉) [침구] 동 제삽보사법(提揷補瀉法) : 침구 침을 꽂아 침감을 얻은 후, 침감(鍼感)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와 힘의 강약에 따라 보사(補瀉)를 구분하는 방법.
제삽보사법(提揷補瀉法) [침구] ⇒ 제삽보사(提揷補瀉)
제삽사법(提揷瀉法) [침구] : 침구 힘있게 뽑아 올린 다음 힘없이 찌르는 것.
제습(臍濕) [병증] : 소아 신생아의 탯줄이 떨어진 후, 습기가 마르지 않고 심하면 물이 흐르거나 주위가 약간 붉어지며 붓는 것. 이는 탯줄을 자른 후, 잘못 조리하여 수습(水濕)이 침습한 것으로 아이를 씻긴 후 잘 닦아 주지 않았거나, 기저귀가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습기가 배꼽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압법(擠壓法) [추나] : 재활 추나수법. 손가락, 손바닥 혹은 척골주두의 돌기를 이용하여 힘껏 아래로 누르는 것으로 기육(肌肉)이 많은 부위에 적용. 행기활혈(行氣活血), 서근활락(舒筋活絡) 등의 작용이 있다.
제옹(臍癰) [병증] : 안이 제중앙(臍中央)의 신궐혈(神闕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제융(製絨) [포제] : 본초 한약 포제법(炮製法)의 하나. 약재의 섬유질을 찧어서 융모처럼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애엽(艾葉)으로 애융(艾絨)을 만들어 불이 쉽게 붙도록 한 후 구법(灸法)에 사용하는 등이다.
제자(齊刺) [침구] 동 삼자(三刺) : 침구 십이자법(十二刺法)의 하나. 침을 1대 놓고, 그 양 옆으로 각각 1대씩 더 놓는데, 한기(寒氣)가 좁

은 범위에서 깊이 침입한 것을 치료한다.
제조(蠐螬) [약물] ㊐ 비제(蟦蠐), 금구자(金龜子) : 본초 풍뎅이과(金龜科 : Scarabacidae)에 속한 곤충인 검은풍뎅이의 유충인 금색굼벵이 *Holotrihia diompharia* Bates 또는 기타 근연(近緣) 곤충의 유충(幼蟲).
제종(臍腫) [병증] : 소아 영아의 배꼽이 붓는 것. 대부분 습사(濕邪)에 손상되어 발생.
제중(除中) [병증] : 내과 위기(胃氣)가 끊어져 음식을 먹지 못해야 마땅하나 오히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중(危重)한 병증.
제창(臍瘡) [병증] : 소아 배꼽에 생긴 창양(瘡瘍). 제창은 제습(臍濕)이 있는데다 피부가 손상되고 다시 독사(毒邪)에 외감되어 사기(邪氣)가 배꼽에 옹체(壅滯)된 채 발산되지 않아 발생. 배꼽 주위가 빨갛게 붓는데 경증은 배꼽 부위에 국한되나, 중증이면 주위로 번져 가고 심하면 미란(糜爛)되고 고름이 나오며, 동시에 발열(發熱), 번조(煩燥), 순홍구건(脣紅口乾)의 증상이 나타난다.
제충(諸蟲) [병리] : 병리 외상(外傷-기타 병인의 한 부류)의 하나.
제풍(臍風) [병증] : 소아 신생아 파상풍. 탯줄을 자를 때 청결히 하지 않아 외사(外邪)에 감염되어 발생. 대개 4~7일 이내에 발병하는데, 발병하면 전신에 강직성 경련이 오며 아관긴폐(牙關緊閉)되고 쓴웃음을 짓는 것 같은 표정이 되는 것이 특징.
제하계(臍下悸) [병증] : 내과 하복부(下腹部)가 박동(搏動)하여 불녕(不寧)한 것.
제한사(臍寒瀉) [병증] : 소아 신생아의 탯줄을 자른 후 잘못 관리하여 풍랭(風冷)이 침입하여 장부(臟腑)로 전해져 나오는 설사. 대변의 빛깔이 맑은 흰색이며 복통, 장명(腸鳴) 등이 많다.
제형(製型) [약물] : 방제 약물의 제제(製劑). 한약의 제형(劑型)에는 탕(湯), 주(酒), 환(丸), 산(散), 고(膏), 단(丹), 정(錠), 편(片), 로(露), 상(霜), 교(膠), 다(茶), 국(麴) 등이 있다.
조(臊) [기타] : 오취(五臭)의 하나. 조(臊)는 목취(木臭)로서 간(肝)과 통하므로 간의 취(臭)가 됨. 임상에서 환자의 소변, 백대하(白帶下), 한액(汗液) 등의 배설물에서 누린내가 나는 것은 보통 간경(肝經)의 습열(濕熱)이 아래로 흘러 들어간 경우의 징후다.
조(燥) [병리] ㊐ 조기(燥氣), 조사(燥邪), 조음(燥淫), 조병(燥病), 조증(燥證) : 병리 ① 육기(六氣)의 하나로 가을의 주되는 건조한 기후. ② 외감병인 중 육음(六淫)의 하나. 외감 질병 가운데 조(燥)의 특성[건삽(乾澁), 조열상진(燥熱傷津)]과 같은 증후를 일으키는 외사(外邪)를 조사(燥邪)라 한다.
조사(燥邪) [병리] ⇒ 조(燥)
조(躁) [병증] : 내과 신체를 계속해서 움직이며 초조, 불안해하거나 혹은 손발을 어지럽게 움직이는 증상.
조각(皂角) 약물 ⇒ 조협(皂莢)
조각자(皂角刺) [약물] ㊐ 조협자(皂莢子)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Miquel var. *koraiensis* Nakai의 가시로, 전년(全年)에 걸쳐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조협(皂莢) *Gleditasia sinensis* Lam.을 기원으로 함.
조갑고취(爪甲枯脆) [증상] ⇒ 조고(爪枯)
조갑불영(爪甲不榮) [증상] ⇒ 조고(爪枯)
조강황(條薑黃) [약물] ⇒ 강황(薑黃)
조결(燥結) [병리] : 병리 병사(病邪)가 화열(化熱)한 후 사열(邪熱)이 위장(胃腸)에 결(結)하여 위장의 진액이 수상(受傷)하는 병리.
조경(早經) [병증] ⇒ 월경선기(月經先期)
조경(調經) [기타] : 부인 부인과에서 월경병을 치료하는 법칙의 하나로 월경부조(月經不調) 및 통경(通經), 경폐(經閉), 월경과다(月經過多), 월경과소(月經過少)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ㅈ

조고(爪枯) [증상] 동 조갑고취(爪甲枯脆), 조갑불영(爪甲不榮) : 내과 손톱과 발에 윤기가 없고 건조하며, 심하면 변형되고 부스러지는 증상.
조구(條口)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8)로서 독비(犢鼻)와 해계(解谿)까지 1척 6촌의 골도법으로 독비(犢鼻) 아래 8촌으로서 독비(犢鼻)와 해계(解谿)의 중간에 위치.
조구등(釣鉤藤) [약물] 동 구등(鉤藤), 조등구(釣藤鉤) : 본초 꼭두서니과(茜草科 : Rubiaceae)에 속한 화구등(華鉤藤) *Uncaria sinensis* (Oliv.) Havil. 및 동속 근연식물의 가시가 달린 가지를 건조한 것.
조기(燥氣) [병리] ⇒ 조(燥)
조기(調氣) [치법] 동 조기법(調氣法) : 침구 ① 기체(氣滯), 기역(氣逆)을 치료하여 기기(氣機)를 조달평순(調達平順)시키는 치료방법. ② 침자보사법(鍼刺補瀉法)으로 기기(氣機)를 조절하여 질병저항능력을 증강시켜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침요법(刺鍼療法).
조기법(調氣法) [치법] ⇒ 조기(調氣)
조기상폐증(燥氣傷肺證) [병증] ⇒ 조사범폐증(燥邪犯肺證)
조담(燥痰) [병리] [병증] : 병리 담음의 일종으로 몹시 찐득찐득하고 걸쭉한 담.
조담(稠痰) [병리] 동 교담(膠痰) : 병리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옷과 이불을 너무 두껍게 덮어 화사(火邪)가 진액을 훈증(熏蒸)하여 걸쭉하고 탁한 담(痰)을 형성한 것. 심폐(心肺)에 화(火)가 울결되어 발생하기도 함.
조담증(燥痰證) [병증] : 병리 외감 추조사(秋燥邪)가 진액을 말려서 담을 이루거나 음허내열(陰虛內熱)로 허화(虛火)가 진액을 소모시켜 발생하는 증. 담소교점(痰少膠粘), 구비건조(口鼻乾燥), 해수기촉(咳嗽氣促), 인후건양(咽喉乾癢) 등이 주증이고, 구갈희음(口渴喜飮), 요소변건(尿少便乾), 피부건조(皮膚乾燥) 등이 차증이며, 설홍소진(舌紅少津), 맥현세삭혹 세삽(脈弦細數或細澀)하다.
조동(躁動) [증상] : 내과 신체 일부의 불규칙한 움직임. 주로 심박동의 불규칙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각증상.
조등구(釣藤鉤) [약물] ⇒ 조구등(釣鉤藤)
조등력(爪藤癧) [병증] : 안이 흉액(胸腋)으로 파급되는 나력(瘰癧).
조랑파(潮浪波) [진찰] : 진단 Tidal wave. 충격파에 이어서 형성되는 작은 양성파(陽性波). 좌심실로부터 구출된 혈액이 대동맥 벽에 충돌하여 대동맥 벽이 급하게 외방으로 팽창될 때 형성됨.
조루(早漏) [병증] ⇒ 조설(早泄)
조말(粗末) [포제] 동 추말(麤末) : 거칠게 분말하는 것.
조박(糟粕) [생리] : 생리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
조번(躁煩) [증상] ⇒ 번조(煩躁)
조법(抓法) [추나] ⇒ 나법(拿法)
조병(燥病) [병증] ⇒ 조(燥)
조사범폐(燥邪犯肺) [병리] 동 조사상폐(燥邪傷肺) : 병리 조열사(燥熱邪)가 폐(肺)를 침범한 병리상태.
조사범폐증(燥邪犯肺證) [병증] 동 조기상폐증(燥氣傷肺證) : 병리 조사(燥邪)나 풍열(風熱)에 폐진(肺津)이 손상되어 폐기(肺氣)가 선발숙강(宣發肅降)하지 못하는 증으로서 폐병(肺病)증상이 조상(燥象)을 보이는 것으로 건해무담(乾咳無痰), 비조인건(鼻燥咽乾)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 증상은 건해무담(乾咳無痰), 비조인건(鼻燥咽乾) 등이 주증이고, 담소이점(痰少而粘), 해담불상(咳痰不爽), 해인흉통(咳引胸痛), 객담대혈(咯痰帶血), 오한발열(惡寒發熱), 두통(頭痛), 신초(身楚)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소진(舌質紅少津), 태박황이조(苔薄黃而燥), 맥부세삭(脈浮細數)하다.

조사상폐(燥邪傷肺) [병리] ⇒ 조사범폐(燥邪犯肺)
조산(調産) [기타] : 부인 해산하는 산부(産婦)를 처리할 때의 주의사항.
조산(早産) [병증] : 부인 임신 2주 이후부터 38주 전까지 기간에 분만이 이루어지는 것.
조상폐위증(燥傷肺胃證) [변증] : 병리 조사(燥邪)가 침범하여 폐(肺)와 위(胃)의 음진(陰津)이 손상되고 숙강(肅降)하지 못하는 증.
조설(早泄) [병증] 동 조루(早漏) : 내과 성교(性交)를 할 때 지나치게 빨리 사정(射精)하는 병증.
조수(潮水) [생리] ⇒ 월경(月經)
조습(燥濕) [치법] : 방제 고조(苦燥)한 약물로 습사(濕邪)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중초습증(中焦濕證)에 적용.
조시(燥屎) [병리] [병증] : 병리 건조하여 경결(硬結)한 분변(糞便). 대변이 건조경결하고 장열(壯熱), 번갈(煩渴), 복창통거안(腹脹痛拒按) 등의 증상을 수반하면 양명경(陽明經) 실열증(實熱證)에 속하고, 수일간 대변을 보지 못해도 복창통(腹脹痛)이 없으면 진허(津虛)로 인한 조결(燥結)에 해당한다.
조식(調息) [기공] : 재활 호흡을 조절하는 도인법의 하나.
조신(調身) [기공] : 재활 몸을 가지런히 하고 조심하여 조화롭게 하는 것.
조신수(早晨嗽) [병증] ⇒ 신수(晨嗽)
조심(調心) [기공] : 재활 마음을 다스려서 폭노(暴怒), 폭희(暴喜)하지 않고 평정지심을 잃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조양(助養) [치법] ⇒ 보양법(補養法)
조열(潮熱) [증상] : 내과 일정한 시각에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조수(潮水)와 같이 열감이 일정한 시각에 맞추어 나타나거나 열이 심해지는 증상.
조열증(肝燥熱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肝受熱裡熱病論〉서 언급된 병증명(病證名). 태음인(太陰人)이 폐소(肺小)로 인하여 간화(肝火)를 억제할 수 없어 폐음(肺陰)이 실윤(失潤)하게 되어 조(燥)가 나타나는 병증. 이러한 병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치와 향락(侈樂無厭)으로 욕화외치(慾火外馳)하여 간열(肝熱)이 성하고 폐가 조(燥)하게 된 까닭이다. 조열증(燥熱證)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양이 많은 소갈증(消渴證)과 손가락이 검게 타는 수지초흑반창병(手指焦黑瘢瘡病)이 있다. 처방으로는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藁本)·대황(大黃)을 가하여 사용한다.
조음(燥淫) [병리] ⇒ 조(燥)
조잡(嘈雜) [병증] : 내과 위완심구(胃脘心口)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의 일종. 기(飢)한듯 하면서 기(飢)하지 않고 아픈듯 하면서 아프지 않고 오뇌(懊儂)하여 편안치 않은 병증.
조저(調疽) [병증] : 안이 엄지손가락(手太陰肺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조제(調劑) [약물] : 방제 십팔제(十八劑)의 하나. 조화시키는 약재(藥材)나 약제(藥劑). 예를 들면 감초 또는 조위승기탕이 조제(調劑)에 속한다.
조종(操縱) [진찰] 동 조종지법(操縱指法) : 진단 맥(脈)을 짚을 때 먼저 가볍게 짚었다가 세게 누르거나 혹은 가볍고 세게 짚기를 반복함으로써 맥상(脈象)을 파악하는 것.
조종지법(操縱指法) [진찰] ⇒ 조종(操縱)
조증(燥證) [병증] ⇒ 조(燥)
조취(臊臭) [징후] : 진단 오취(五臭)의 하나로 누린내를 말함.
조해(照海)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6)로서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아래 4푼에 위치.
조협(皂莢) [약물] 동 조각(皂角)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Miquel. var. *koraiensis* Nakai의 과실로서, 가을에 채취한다. 중국에서는 조협(皂莢) *Gleditsia sinensis* Lam.의 덜

ㅈ

익은 과실을 기원으로 한다.
조협자(皂莢子) [약물] ⇒ 조각자(皂角刺)
조화예(棗花翳) [병증] 동 조화장(棗花障) : 안이 풍륜(風輪)주변 동자상(瞳子上)에 백예(白翳)가 영출(映出)하고 조화(棗花) 혹은 거치상(鋸齒狀)과 같은 것이 4~5매 가량 상합(相合)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예(翳). 주맹(晝盲)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화장(棗花障) [병증] ⇒ 조화예(棗花翳)
조휴(蚤休)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 ceae)에 속한 삿갓나물 *P. verticillata* Bieb.의 근경(根莖)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세정(洗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운남중루(雲南重樓) *Paris polyphylla* Smith var. *yunnanensis*(Franch.) Hand-Mazz 또는 칠엽일지화(七葉一枝化) *P. polphylla* Smith var. *chinensis* (Franch.) Hara을 기원으로 한다.
조희(鳥戲) [기공] : 재활 도인법. 조류(鳥類)의 동작을 모방하여 만든 일종의 체조임. 雲笈七籤 〈導引按摩〉에 처음으로 동작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조희(鳥戲)는 양손을 세우고 한 발을 발돋움하여 양팔을 뻗고 눈썹에 힘을 주며, 앉아서 다리를 뻗은 후 손으로 발을 각기 7회씩 끌어당기고 양팔을 각기 7회씩 오그렸다 폈다 한다."
족관절교정(足關節矯正) [치법] : 재활 족관절의 아탈구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증상을 교정으로 해결하는 방법.
족궐음(足厥陰) [경락] ⇒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경락] 동 족궐음(足厥陰), 족궐음맥(足厥陰脈)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 대돈(大敦)에서 기시하여 기문(期門)에서 종지하고 신경정신(神經精神)질환, 비뇨생식기(泌尿生殖器)질환, 소복(小腹)질환, 간담(肝膽)질환, 근육(筋肉)질환 등을 다스린다.
족궐음맥(足厥陰脈) [경락] ⇒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족규음(足竅陰)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44)로서 정금혈(井金穴)에 해당하고 4번째 발가락 가쪽(외측; lateral) 발톱뿌리 각에서 가쪽(외측; lateral)으로 1푼 되는 곳에 위치.
족근저(足跟疽) [병증] 동 각연근(脚攣根) : 안이 족종근(足踵跟-膀胱經)에서 발생하는 옹저를 지칭.
족근통(足跟痛) [병증] 동 각근통(脚跟痛) : 재활 대개 신허(腎虛)·혈열(血熱)·담습(痰濕)으로 인해 발생하며, 보통 한쪽이나 양쪽 족근(足跟)이 아프지만 벌개지거나 붓지는 않으며 걷기가 불편한 증상.
족발배(足發背) [병증] 동 각발(脚發), 족부발(足附發) : 안이 족배부(足背部-膽經·胃經)에서 발생하는 옹저를 지칭.
족부발(足附發) [병증] ⇒ 족발배(足發背)
족삼리(足三里)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6)로서 합토혈(合土穴), 육부하합혈(六腑下合穴), 사총혈(四總穴), 중풍칠처혈(中風七處穴)에 해당. 독비 아래 3촌으로 무릎을 'ㄱ'자로 굽혔을 때 정강뼈거친면(경골조면; tuberosity of tibia)과 종아리뼈머리(비골소두; head of fibula) 사이로서 정강뼈거친면(경골조면; tuberosity of tibia) 쪽의 앞정강근(전경골근; tibialis anterior) 안쪽에 위치.
족삼양(足三陽) [경락] 동 족삼양경(足三陽經) : 경혈 두부(頭部)에서 족부(足部)로 향(向)하는 경락으로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과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과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있다.
족삼양경(足三陽經) [경락] ⇒ 족삼양(足三陽)
족삼음(足三陰) [경락] 동 족삼음경(足三陰經) : 경혈 족부(足部)에서 복부(腹部)로 향(向)하는 경락으로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과 족궐음간

경(足厥陰肝經)과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이 있다.

족삼음경(足三陰經) [경락] ⇒ 족삼음(足三陰)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경락]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 동자료(瞳子髎)에서 기시하여 족규음(足竅陰)에서 종지하고 신경정신(神經精神)질환, 열성병(熱性病), 간담(肝膽)질환, 측두부(側頭部), 흉협부(胸脇部) 등의 질환을 다스린다.

족소음(足少陰) [경락] ⇒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경락] 동 족소음(足少陰)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 용천(湧泉)에서 기시하여 수부(兪府)에서 종지하고 신경정신(神經精神)질환, 비뇨생식(泌尿生殖)질환 등을 다스린다.

족수냉온욕법(足首冷溫浴法) [치법] : 재활 족(足)은 따뜻하게 하고 수(首)는 냉하게 하기 위하여 발은 따뜻한 물로 머리는 차가운 물로 침수하여 치료에 이용하는 목욕법.

족심발(足心發) [병증] ⇒ 용천저(湧泉疽)

족양명(足陽明) [경락] ⇒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양명맥(足陽明脈) [경락] ⇒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경락] 동 족양명(足陽明), 족양명맥(足陽明脈), 위경(胃經)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 승읍(承泣)에서 기시하여 여태(厲兌)에서 종지하고 신경정신(神經精神)질환, 소화기계(消化器系)질환 등을 다스린다.

족연(足軟) [병증] ⇒ 각연(脚軟)

족오리(足五里)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10)로서 기충(氣衝) 아래 3촌에 위치.

족욕(足浴) [치법] : 재활 침수욕의 일종으로 다리를 침수하는 방법.

족임읍(足臨泣)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41)로서 수목혈(兪木穴)에 해당하고 4~5번째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 접합부의 앞에 있는 오목한 곳, 협계(俠谿) 뒤쪽 1촌 5푼에 위치.

족정(足疔) [병증] : 안이 발에 생긴 정창(疔瘡)을 통틀어 말함.

족침술(足鍼術) [침구] ⇒ 족침요법(足鍼療法)

족침요법(足鍼療法) [침구] 동 족침술(足鍼術) : 침구 족부(足部)의 특정혈위(特定穴位)에 자침(刺鍼)하여 질병(疾病)을 치료(治療)하는 일종(一種)의 자침요법(刺鍼療法).

족태양(足太陽) [경락] ⇒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족태양맥(足太陽脈) [경락] ⇒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경락] 동 방광경(膀胱經), 족태양(足太陽), 족태양맥(足太陽脈)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 정명(睛明)에서 기시하여 지음(至陰)에서 종지하고 신경정신(神經精神)질환, 열성병(熱性病), 비뇨생식기(泌尿生殖器) 질환 등을 다스린다.

족태음(足太陰) [경락] ⇒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태음맥(足太陰脈) [경락] ⇒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경락] 동 족태음(足太陰), 족태음맥(足太陰脈), 비경(脾經) : 경혈 십이정경(十二正經) 중 하나. 은백(隱白)에서 기시하여 대포(大包)에서 종지하고 소화기계(消化器系)질환, 비뇨생식기(泌尿生殖器) 등을 다스린다.

족통곡(足通谷)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6)로서 형수혈(滎水穴)에 해당하고 5번째 발허리뼈머리(중족골소두; head of metatarsal bone)의 앞쪽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ㅈ

족팔사(足八邪) [기혈] ⇒ 팔풍(八風)
존신(存神) [기공] : 재활 양생(養生) 용어. '신(神)'이란 생각과 정신을 가리키므로 존신(存神)이란 생각을 제어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
졸궐(卒厥) [병증] ⇒ 중악(中惡)
졸도(卒倒) [병증] 동 폭부(暴仆), 졸연혼도(卒然昏倒), 돌연혼도(突然昏倒), 졸연혼부(卒然昏仆), 졸연강부(卒然僵仆), 졸연강와(卒然僵臥), 홀연민도(忽然悶倒), 졸연혼민(卒然昏悶), 전도(顚倒), 혼도(昏倒), 혼부(昏仆) : 내과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서 넘어지는 증상.
졸심통(卒心痛) [병증] : 내과 갑자기 가슴이나 명치 밑이 아프고 차가워지면서 숨이 막힐 것 같고 얼굴이 파랗고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병증.
졸아(猝瘂) [증상] ⇒ 졸연무음(卒然無音)
졸암(卒喑) [증상] ⇒ 졸연무음(卒然無音)
졸연강부(卒然僵仆) [병증] ⇒ 졸도(卒倒)
졸연강와(卒然僵臥) [병증] ⇒ 졸도(卒倒)
졸연무음(卒然無音) [증상] 동 폭음(暴瘖), 졸아(猝瘂), 졸암(卒喑) : 안이 갑자기 성사(聲嗄)가 되거나 무음(無音)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졸연혼도(卒然昏倒) [병증] ⇒ 졸도(卒倒)
졸연혼민(卒然昏悶) [병증] ⇒ 졸도(卒倒)
졸연혼부(卒然昏仆) [병증] ⇒ 졸도(卒倒)
졸오(卒忤) [병증] ⇒ 객오(客忤)
졸중(卒中) [병증] 동 뇌졸중(腦卒中), 졸중풍(卒中風), 격부(擊仆), 부격(仆擊), 초중증(初中證) : 내과 갑자기 풍을 맞아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병증.
졸중풍(卒中風) [병증] ⇒ 졸중(卒中)
종(從) [생리] [병리] [치법] : 병리 오치(五治)의 하나로 종치법(從治法)을 가리키며, 역(逆)에 상대됨. 병증의 가짜 증상을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
종계(忪悸) [병증] ⇒ 정충(怔忡)
종고(腫蠱) [병증] ⇒ 고종(蠱腫)
종골(棕骨) [약물] ⇒ 종려피(棕櫚皮)
종근(宗筋) [해부] : ① 종근(宗筋)은 제근(諸筋)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근(大筋)이며, 그 주된 기능은 골절(骨折)을 제약하여 관절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 ② 음경(陰莖)을 가리킴.
종기(宗氣) [생리] : 생리 ① 비위(脾胃)에서 소화 흡수된 수곡(水穀)의 기와 호흡을 통하여 흡입한 대기(大氣)가 결합하여 형성된 기운. ② 기혈운행(氣血運行)·지체운동(肢體運動)·호흡(呼吸)·발성(發聲)을 추동하는 기운.
종란후풍(腫爛候風) [병증] : 안이 풍화(風火)가 내부에 치성(熾盛)하여 인후양변(咽喉兩邊)이 홍색을 띠고 종대(腫大)되고 궤란(潰爛)되는 것.
종려피(棕櫚皮) [약물] 동 종판(棕板), 종골(棕骨), 진종피(陳棕皮) : 본초 야자과(棕櫚科 : Palmae)에 속한 상록교목인 종려 *Trachycarpus fortunei* Wendland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엽병(葉柄)이 오래 묵어 이루어진 가경(假莖)의 겉껍질과 섬유질을 제거한 수피(樹皮)로, 섬유상의 모(毛)는 없애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종류(腫瘤) [병증] : 안이 결절(結節)보다 더욱 융기된 것을 말함.
종맥(宗脈) [생리] : 생리 경맥(經脈)이 모인 곳.
종선(腫癬) [병증] : 안이 가렵고 아프며 피부를 긁으면 더욱 심해지는 선증(癬證).
종양(腫瘍) [병증] : ① 무명종독(無名腫毒)의 이명. ② 창(瘡)이 아직 돋아나지 않았는데 화농(化膿)하는 것.
종외반족(踵外反足) [병증] : 재활 종족과 외반이 병합된 상태.
종유석(鍾乳石) [약물] ⇒ 석종유(石鐘乳)
종창(腫脹) [병증] : 재활 수기(水氣)가 기부(肌膚)로 넘치는 것이 '종(腫)'이고, 기(氣)가 중초에 정체되는 것이 '창(脹)'임.
종창여배(腫脹如瓿) [병증] : 안이 주로 포검종창(胞瞼腫脹) 중 실증(實證)으로 안포(眼胞)가 적색을 띠고 단단하며 종창(腫脹)되어 엎어놓

은 술잔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
종치(從治) [치법] ⇒ 반치(反治)
종통(腫痛) [증상] : 재활 피부가 부으면서 동통이 있는 것을 말함.
종판(棕板) [약물] ⇒ 종려피(棕櫚皮)
종포(腫胞) [증상] : 부인 부으면서 여드름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말함.
종합가시광선(綜合可視光線) [기구] : 재활 이학적 자극인자로 이용함으로 광선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인체에 투입되어 체력을 보강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자연치유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요법. 두 개의 탄소봉을 아크방전시켜 빛과 열을 발생시켜 치료에 사용하며, 탄소봉의 종류에 따라 방사되는 파장이 다르다.
종합보사법(綜合補瀉法) [침구] : 침구 각종 보사법(補瀉法)을 배합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보사법(補瀉法).
좌(痤) [병증] : ① 작은 절(癤). ② ⇒ 분자(粉刺)
좌(剉) [포제] 동 좌(銼) : 본초 약재 중에는 관례적으로 분말로 하는 것이 있음.
좌(銼) [포제] ⇒ 좌(剉)
좌관법(坐罐法) [침구] ⇒ 유관법(留罐法)
좌금진 우옥액(左金津 右玉液) [경혈] ⇒ 금진옥액(金津玉液)
좌기안화(坐起眼花) [병증] : 안이 안내(眼內)에 별다른 증상 없이 동작을 할 때나 앉았다 섰다 할 때, 오랫동안 물체를 주시할 때에 갑자기 두현(頭眩)하면서 안화(眼花)가 나타나는 것.
좌당(挫撞) [기공] : 재활 양발을 교차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붙인 후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양팔은 뒤로 뻗으면서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며, 두 눈은 앞쪽을 향하는 것.
좌둔생(坐臀生) [병리] 동 좌생(坐生) : 부인 출산할 때 아이의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것.
좌마옹(坐馬癰) [병증] : 안이 미려골첨단상(尾閭骨尖端上)에서 발생하는 옹저.
좌비(痤痱) [병증] : 안이 폐열비습(肺熱脾濕)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여름철에 풍열사독(風熱邪毒)이 기부(肌膚)에 엉김으로 인해 발생. 그 증상이 큰 경우를 '좌(痤)'라 하고, 작은 경우를 '비(痱)'라 함. 좌(痤)는 열절(熱癤)로서 큰 것은 산조인, 작은 것은 황두(黃豆)만 하고 피부가 적홍색을 띠며 안에 농혈(膿血)이 들어 있고, 비(痱)는 비창(痱瘡)으로서 피부에 작은 물집이 생기다가 점차 농포로 변하고 가려우면서 아프다.
좌비창(痤痱瘡) [병증] : 안이 넓적다리와 엉덩이 사이에 발생하는 창양(瘡瘍).
좌산(坐産) [기타] : 부인 고대의 조산방법(助産方法)으로 앉은 자세에서 출산하는 것. 양자건(楊子建)의 십산론(十産論)에서 "태아가 막 나오려 할 때 높은 곳에 천을 매달아 놓고 산모(産母)로 하여금 윗몸을 약간 구부려 이를 잡게 한 다음 아기를 낳도록 하는 것인데, 산모를 완전히 앉혀 아기가 나오는 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좌생(坐生) [병리] ⇒ 좌둔생(坐臀生)
좌섬(挫閃) [병증] ⇒ 섬좌(閃挫)
좌섬요통(挫閃腰痛) [병증] : 재활 요통의 하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떨어지면서 허리를 접질려서 발생. 허리의 굴신이 힘들고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진다.
좌약(坐藥) [약물] : 방제 약제를 환제 또는 정제(錠劑), 편제(片劑)로 조제하거나 혹은 가제로 약 가루를 싸서 음도(陰道)나 항문에 넣어 백대하(白帶下), 음부소양(陰部瘙痒) 혹은 치질(痔疾) 등을 치료하는 것.
좌약(佐藥) [약물] ⇒ 군신좌사(君臣佐使)
좌우개궁(左右開弓) [추나] [기공] : 재활 자아추나법(自我推拿法). 한 팔은 옆으로 평평하게 들고 다른 한 팔은 가슴 쪽으로 구부려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듯 한 자세를 취하면서 두 눈

ㅈ

은 구부린 쪽의 손을 쳐다보는 것. 왼팔과 오른팔을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좌우천(左右串) [병증] ⇒ 상탑수(上搭手)
좌우배혈법(左右配穴法) [침구] : 침구 좌우 양쪽에 있는 똑같은 혈자리를 함께 쓰는 방법.
좌우측전위(左右側轉位) [병리] : 재활 제자리에서 좌우로 회전하는 것. 즉 척추가 좌측으로 회전변위 된다면 해당 극돌기 역시 좌측으로 회전 변위할 것이고 우측으로 회전 변위된다면 해당 극돌기 역시 우측으로 회전 변위됨.
좌우하방전위(左右下方轉位) [병증] : 재활 상하변위 중 하방으로 변위되는 것. 이것은 상하변위라기 보다는 해당 척추의 아래쪽에 있는 추간판과 척추의 관계 그리고 측만과 척추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좌우후방전위(左右後方轉位) [병증] : 재활 전후변위 중 후방으로 변위되는 것. 하부추체를 기준으로 상부 추체의 변위를 판정한다.
좌위(座位) [기타] : 재활 체위명(體位名). 앉은 자세.
좌창(痤瘡) [병증] ⇒ 분자(粉刺)
좌초(坐草) [기타] ⇒ 임산(臨産)
주(酒) [약물] : 본초 미곡류(米穀類)를 발효하여 만든 담황색의 맑고 투명한 액체로 기미(氣味)가 순향(醇香)한 것으로, 감신(甘辛)하고 대열(大熱)하여 능히 혈맥을 통하고 약의 기운을 잘 행하게 하며 산한(散寒)하고 교미교취(矯味矯臭)하고, 좋은 유기용매도 가능하다.
주갈(酒渴) [병증] : 내과 술을 마신 후에 생긴 갈증. 가슴이 답답하면서 갈증이 나서 물을 켜고 찬 것을 먹기 좋아한다.
주감(蛀疳) [병증] : 안이 음경(陰莖)에 발생되는 감창(疳瘡).
주객배혈법(主客配穴法) [침구] : 침구 본경(本經)의 원혈(原穴)과 표리경(表裏經)의 낙혈(絡穴)을 서로 배합시켜 해당 장부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주관(走罐) [침구] 동 이동관(移動罐), 주관법(走罐法) : 침구 부항요법(附缸療法)의 일종으로 흡착(吸着) 후 피부표면(皮膚表面)을 이동(移動)시키는 방법.
주관법(走罐法) [침구] ⇒ 주관(走罐)
주궐(酒厥) [병증] : 내과 궐증(厥症)의 하나. 술을 많이 마신 다음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말을 못하고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숨이 차고 손발이 싸늘해지는 병증.
주기(主氣) [운기] : 원전 매년 각 계절의 정상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육기(六氣). 주기의 육기는 궐음풍목지기(厥陰風木之氣)를 초지기(初之氣)로 하여 소음군화지기(少陰君火之氣)·소양상화지기(少陽相火之氣)·태음습토지기(太陰濕土之氣)·양명조금지기(陽明燥金之氣)·태양한수지기(太陽寒水之氣)의 순서대로 각자 2개월씩[약 60일] 번갈아 주재하여 일상적인 사계절의 기후특성을 만들어 간다.
주달(酒疸) [병증] 동 주황달(酒黃疸) : 내과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생긴 황달.
주담(酒痰) [병증] : 내과 술 마신 것이 소화되지 않았거나 술 마신 뒤에 차를 많이 마셔서 생긴 담(痰)으로 술을 마시면 다음날 토하고 음식 맛이 없으며 신물을 토하는 병증. 담병(痰病)의 하나.
주대(走緩) [병증] ⇒ 내과저(內踝疽)
주도지관(州都之官) [생리] ⇒ 방광(膀胱)
주독(酒毒) [병리] 동 주독증(酒毒症) : 병리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술이 일종의 병사(病邪)로 작용하는 것.
주독발(酒毒發) [병증] : 안이 음주(飮酒) 및 지방질(脂肪質)이 많은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배척부(背脊部)에서 발생하는 옹저.
주독증(酒毒症) [병리] ⇒ 주독(酒毒)
주돌출광(珠突出眶) [병증] : 안이 안구탈출(眼球脫出)을 말하는 것으로 안근의 마비나 국부

조직이 이완되어 발생한 것.

주료(肘髎)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2)로서 팔을 굽혔을 때 곡지(曲池) 뒤로 1촌 5푼 되는 곳으로 위팔뼈(상완골; humerus) 가쪽위관절융기(외측상과; lateral epicondyle) 뒤에 위치.

주리(腠理) [생리] : 재활 피부(皮膚)·기육(肌肉)·장부(臟腑)의 문리(紋理) 및 피부와 기육(肌肉)을 연결시키는 결체조직(結締組織). 피주(皮腠)·기주(肌腠)·조리(粗理)·세리(細理)·소리(小理)·초리(焦理) 등으로 나뉜다. 체액을 배설시키고 기혈을 유통시키는 문호(門戶)이며, 외사(外邪)의 내침(內侵)을 막는 기능이 있다.

주마후비(走馬喉痺) [병증] : 안이 갑자기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목소리가 잘나오지 않고 음식물도 넘기기 어려우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병증.

주문법(呪文法) [기타] 동 주법(呪法), 축유(祝由), 축유법(祝由法) : 원전 병의 유래를 따져 축원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심리적 치료법.

주법(呪法) [기타] ⇒ 주문법(呪文法)

주벽(酒癖) [병증] 동 주징(酒癥) : 내과 벽(癖)의 하나. 술을 많이 마셔 뱃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긴 병증으로 옆구리 밑이 때때로 아프며 몸이 여위고 심해지면 배에 물이 차고 피부가 누렇고 거무스레해지며 식욕이 떨어진다.

주보좌사(主輔佐使) [약물] ⇒ 군신좌사(君臣佐使)

주사(朱砂) [약물] 동 진사(辰砂) : 본초 유화물류(硫化物類)의 광물인 진사족(辰砂族)에 속한 진사(辰砂) Cinnabar의 광석으로, 황화수은 HgS을 채취하여 정선한 것.

주사비(酒齄鼻) [병증] ⇒ 비사(鼻齄)

주상(酒傷) [병증] ⇒ 상주(傷酒)

주색(主色) [진찰] : 진단 사람의 기본적인 피부색 및 개인의 정상적인 생리적 피부색을 지칭. 병색(病色)인 객색(客色)과는 반대적 개념으로, 주색과 객색은 모두 정색(正色)의 범주에 속한다. → 정색(正色), 객색(客色)

주설(酒泄) [병증] : 내과 술을 지나치게 마셔 비위(脾胃)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설사.

주세(酒洗) [포제] : 주제(酒製)의 하나. 약재를 술에 씻는 것. 주제하면 약기운이 온 몸에 잘 퍼지고 또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 예를 들면 승마, 시호 등을 주세(酒洗)하기도 한다.

주수(酒嗽) [병증] : 내과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기침으로 담(痰)이 생기고 기침을 하는 병증.

주쉬(酒淬) [포제] : 본초 주제(酒製)의 하나. 광물성 한약을 벌겋게 달구었다가 신속하게 술에 담금질하는 것.

주신권태핍력(周身倦怠乏力) [증상] ⇒ 권태무력(倦怠無力)

주심통(注心痛) [병증] 동 주심통(疰心痛) : 내과 ① 갑자기 놀라거나 무서움을 타면 생기며, 갑자기 불쾌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아프고 정신을 잃고 넘어지거나 혼미해서 헛소리를 하며 얼굴과 눈언저리가 파래지면서 어두워지고 맥이 불규칙한 병증. ② 더럽고 탁한 기(氣)를 감촉함으로써 발생한 심통(心痛).

주심통(疰心痛) [병증] ⇒ 주심통(注心痛)

주약(主藥) [약물] : 방제 처방에서 주요 병인 혹은 주요 병기 및 주요 증후에 대해 주된 치료작용을 발휘하는 약물.

주열(晝熱) [병증] : 소아 열이 낮에만 나거나 낮이 되면 높아지는 병증.

주영(周榮)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20)로서 자궁(紫宮) 양쪽 6촌으로 2·3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주옹(肘癰) [병증] : 안이 주관절 주위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급성적으로 종양이 돌기되고 열이 나면서 아픈 것.

주운(主運) [운기] : 원전 목운(木運)·화운(火

ㅈ

運)·토운(土運)·금운(金運)·수운(水運) 등으로 나뉘며, 계절의 정상적인 기후변화를 주재.

주자(酒煮) [포제] : 본초 주제(酒製)의 하나. 한약을 술에 넣고 삶는 것.

주자(酒刺) [증상] ⇒ 폐풍분자(肺風粉刺)

주적(酒積) [병증] : 내과 음주로 인하여 적취가 형성되어 면색이 황흑(黃黑)하며 복창(腹脹)하여 때때로 담수(痰水)를 구토하기도 하는 병증.

주제(酒製) [포제] : 본초 한약법제 방법의 하나. 한약을 술에 법제하는 것. 주제(酒製)에는 술 씻기, 술 담그기, 술 찌기, 술 삶기, 술 볶기, 달구어서 술에 담금질하기 등으로, 몸을 덥게 하며 또 약기운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기와 혈액순환을 촉진함. 또 약의 효력이 빨리 나타나게 한다. 예를 들면 대황을 술에 불렸다가 볶아 쓰게 되면 기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강해지고 당귀를 주제하면 행혈(行血) 작용이 강해지며 시호를 주제하면 기를 끌어올리는 작용이 강해진다고 했다.

주제(酒劑) [약물] : 방제 한약 제형의 하나. 옛날 명칭은 주례(酒醴), 현재 명칭은 약주(藥酒). 약물(藥物)을 술에 일정 시간 동안 담가두거나 중탕(重湯)으로 끓여서 찌꺼기를 제거한 후 복용하는 것.

주증(主症) [병리] : 병리 변증(辨證)에서 한 증(證)의 진단 요건상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 주요 증징(症徵). 증의 확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주증의 소실, 악화, 경감은 때로 증(證)의 전변을 의미.

주증(酒蒸) [포제] : 본초 주제(酒製)의 하나. 한약을 술에 재었다가 찌는 것. 한약에 일정한 양의 술을 붓고 2~3시간 동안 뚜껑을 덮어두었다가 밀폐된 이중 가마에 넣고 속이 익을 때까지 충분히 찐 다음 꺼내어 겉면에 물기가 없을 때까지 말린다. 이 때 쓰는 술의 양이 따로 규정된 것이 없으면 한약재의 20%로 한다. 예를 들면 지황, 대황, 토사자 등을 주증(酒蒸)하면 소화흡수가 잘 되고 보하는 작용이 강해진다.

주지(酒漬) [포제] ⇒ 주침(酒浸)

주징(酒癥) [병증] ⇒ 주벽(酒癖)

주책(籌策)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과 〈擴充論〉에 나오는 용어.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에서는 지(知)를 신체의 전면부인 함억제복(頷臆臍腹)과 연결하여 설명하며 이러한 지(知)의 4가지 단계 중 하나에 해당한다. 東醫壽世保元의 〈擴充論〉에서는 사상인의 절세지지(絶世之知)를 설명할 때 태음의 함(頷)이 교심(驕心)을 경계하라고 하였으며 태음의 함에 교심이 없다면 세상에 뛰어난 주책(籌策)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주첨(肘尖)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상완골 내측상과(上腕骨 內側上顆; medial epicondyle of humerus)의 고점처(高點處)에 위치.

주치(酒痔) [병증] 동 색치(色痔) : 안이 술을 과음한 후에 종통(腫痛)하며 혈액이 유출되는 치창(痔瘡).

주침(酒浸) [포제] 동 주지(酒漬) : 본초 주제(酒製)의 하나. 한약재를 술에 담그는 것. 한약재를 술에 일정한 시간 담그되 술이 약재 속까지 스며들도록 담가 두었다가 꺼내서 약간 촉촉할 정도로 말려 사용한다.

주풍(酒風) [병증] ⇒ 누풍(漏風)

주하(注下) [병증] ⇒ 통설(洞泄)

주하(注夏) [병증] 동 주하(疰夏), 주하병(注夏病), 주하증(注夏證) : 소아 서병(暑病)의 하나. 늦봄과 초여름 무렵에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열이 나는 병증. 비위(脾胃)가 허약한데다가 여름철의 축축한 기후 때문에 습열(濕熱)을 감수하여 발생한다.

주하(疰夏) [병증] ⇒ 주하(注夏)

주하리(注下痢) [병증] : 내과 설사하는 환자의 대변이, 물을 하향(下向)으로 경주(傾注)하는 정황과 같다고 형용한 병증.
주하병(注夏病) [병증] ⇒ 주하(注夏)
주하증(注夏證) [병증] ⇒ 주하(注夏)
주황달(酒黃疸) [병증] ⇒ 주달(酒疸)
죽관(竹罐) [기구] : 침구 죽(竹)으로 만든 부항(附缸).
죽력(竹瀝) [약물] : 본초 대나무과(竹科 : Bam- busaceae)에 속한 솜대 *Phyllostachys nigra* Munro var. *henonis* Stapf의 경(莖)을 불에 구어서 빼낸 액즙으로, 신선한 죽간(竹稈)을 30~50cm로 잘라서 양끝의 마디를 제거하고 세로로 쪼갠 것을 선반에 걸쳐놓고 불로 구어 양끝에서 흘러내린 액체를 그릇에 받아 모은다.
죽령(竹苓) [약물] ⇒ 뇌환(雷丸)
죽여(竹茹) [약물] : 본초 대나무과(竹科 : Bam- busaceae)에 속한 다년생 상록목본인 솜대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var. *henonis* (Bean) Stapf의 줄기의 외피를 제거한 중간층으로, 녹색을 띤 중간층을 실 모양 또는 얇은 선 모양으로 만들어 음건(陰乾)하여 사용.
죽엽(竹葉) [약물]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다년생 상록교목인 솜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Stapf.의 잎으로, 전년(全年)에 걸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준게(皴揭) [병증] ⇒ 균열창(皸裂瘡)
준보(峻補) [치법] : 방제 보법(補法)의 하나. 준열(峻烈)한 보익약(補益藥)을 사용해 기혈대허(氣血大虛)나 음양폭탈(陰陽暴脫)을 치료하는 방법. 극도로 허약하거나 위중(危重)한 증후에는 준열한 보약을 많이 쓰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
준하(峻下) [치법] : 방제 공하법(攻下法)의 하나. 준열(峻烈)한 사하약(瀉下藥)을 사용해 이실(裏實)을 공하(攻下)시키는 방법. 정기(正氣)가 아직 쇠퇴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중갈(中暍) [병증] ⇒ 중서(中暑)
중강(重强) [병리] : 병리 비병(脾病)으로 다른 네 개 장(臟)을 유양(濡養)하지 못하여 신중(身重), 사지불거(四肢不擧), 구규불통(九竅不通) 등 장기의 기능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것.
중객오(中客忤) [병증] ⇒ 객오(客忤)
중경(中經) [병증] 동 중락(中絡), 중경락(中經絡) : 병리 중풍 유형 중 하나. 풍(風)이 경맥(經脈) 혹은 경락(絡脈)을 傷한 것.
중경락(中經絡) [병증] ⇒ 중경(中經)
중경십이맥(仲景十二脈) [진찰] : 진단 장중경(張仲景)이 논한 12종의 맥상(脈象). 종(縱)·횡(橫)·역(逆)·순(順)·반(反)·복(覆)·고(高)·장(章)·강(綱)·첩(堞)·비(卑)·손(損)을 가리킨다.
중관(中關) [추나] ⇒ 기관(氣關)
중괴(中魁)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수배부(手背部) 중지 정중선의 첫마디 손가락뼈와 중간마디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사이 관절(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횡문(橫紋) 중점에 위치.
중극(中郤) [경혈] 동 옥천(玉泉)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3)로서 방광(膀胱)의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배꼽아래 4촌에 위치.
중기(中氣) [생리] [운기] : 생리 ① 음식물의 소화흡수(消化吸收)·승청강탁(升淸降濁) 등을 유지하는 비위(脾胃)의 기운. ② 삼음삼양경(三陰三陽經)의 표본(標本)관계에 있으면서 겸하여 발현되는 기운.
중기부족(中氣不足) [병리] [병증] ⇒ 중기하함(中氣下陷)
중기증(中氣證) [병증] : 병리 유중풍(類中風) 중의 하나로 기중(氣中)의 증. 내상(內傷)으로 기(氣)가 치밀어 올라서 생기며, 갑자기 손발이 싸늘해지면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며 이를 악무는 것이 마치 중풍(中風)과 비슷하다.
중기하함(中氣下陷) [병리] [병증] 동 중기부족

ㅈ

(中氣不足), 중기허함(中氣虛陷), 비기하함(脾氣下陷) : 병리 비기(脾氣)가 허하여 비기의 끌어 올리는 기능에 장애가 생겨 청양(淸陽)이 상승하지 못하는 병리상태.

중기하함증(中氣下陷證) [병증] 동 비기하함증(脾氣下陷證) : 병리 중기하함(中氣下陷)으로 인한 증으로, 그 증상은 기단무력(氣短無力), 식입즉창(食入則脹), 완복중추(脘腹重墜), 변의빈삭(便意頻數), 구사탈항(久瀉脫肛), 위하수(胃下垂), 자궁하수(子宮下垂) 등이 주증이고, 두훈목현(頭暈目眩), 언어저미(言語低微), 자한(自汗), 식소(食少), 정신권태(精神倦怠), 대변당설(大便溏泄)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박백(舌淡苔薄白), 맥허약(脈虛弱)하다.

중기허함(中氣虛陷) [병리] [병증] ⇒ 중기하함(中氣下陷)

중대나력(重臺瘰癧) [병증] : 안이 나상(瘰上)에 퇴류(堆纍)되어 3, 5매(枚) 있는 것으로 항부전체(項部全體-少陽, 陽明 二經)에서 발생한다.

중도(中都)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6)로서 극혈(郄穴)에 해당하고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위 7촌, 정강뼈(경골; tibia) 안쪽에 위치.

중독(中瀆)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GB32)로서 풍시(風市) 아래 2촌에 위치.

중락(中絡) [병증] ⇒ 중경(中經)

중려수(中膂俞)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29)로서 세 번째 엉치뼈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중료(中髎)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3)로서 세 번째 엉치뼈 구멍(천골공; sacral foramen)에 위치.

중만(中滿) [병증] : ① 완복부(脘腹部)가 창만(脹滿)하고, 심하면 덩어리가 있어 딴딴하고 아픈 것. ② 종창(腫脹) 증상의 하나. 종창에는 원래 내외의 구분이 있는데, 대개 중만(中滿)인 경우는 창(脹)이라 하고, 기부(肌膚)가 창한 것 역시 창이라고 한다.

중발배(中發背) [병증] 동 대심발(對心發) : 안이 신도(神道), 영대(靈臺), 지양혈(至陽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중발저(中發疽) [병증] ⇒ 충저(衝疽)

중방(重方) [기타] ⇒ 복방(複方)

중복파(重複波) [진찰] : 진단 dictric wave. 조랑파에 이어서 형성되는 뚜렷한 양성파(陽性波). 대동맥판막이 폐쇄할 때에 대동맥내의 혈주가 동맥내압을 하강하게 한 심실방향으로 충돌하여 판막 및 심근의 탄력성에 의하여 재차 진동하여 형성된다.

중봉(中封)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4)로서 경금혈(經金穴)에 해당하고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아랫면 앞쪽 1촌, 해계(解谿)와 상구(商丘)의 중간에 위치.

중부(中府) [경혈] 동 응중수(膺中俞)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1)로서 모혈(募穴)에 해당하고 가슴 바깥쪽 위, 빗장뼈(쇄골; cavicle) 아래 1촌 6푼으로 가슴정중선(華蓋) 양쪽 6촌, 1~2 번째 갈비뼈(肋骨) 사이에 위치.

중부(中腑) [병증] : 병리 중풍(中風) 증후(證候)의 하나. 병정(病情)이 중장(中臟)보다 가볍다. 졸도(卒倒)하고 깨어난 후에 반신불수(半身不遂), 구안와사(口眼喎斜), 언어곤란(言語困難) 증상이 발생하며, 간혹 대소변불통(大小便不通)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중상초(中上焦)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로, 이제마(李濟馬)는 인체의 부위를 상,하(上下)로 사초(四焦)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초(上焦), 중상초(中上焦), 중하초(中下焦), 하초(下焦)의 네 가지를 말한다. 중상초(中上焦)는 여격지간(膂膈之間)으로 비(脾)와 위(胃)가 여기에 배속된다.

중서(中暑) [병증] 동 중서(中署), 중갈(中暍), 중열(中熱), 서중(暑中) : 병리 ① 서사(暑邪)를 감수하여 발생한 일종의 급성병증. 돌연혼도(突然昏倒), 인사불성(人事不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서풍(暑風)을 말함. ③ 음서(陰暑)를 말함. ④ 여름에 한사(寒邪)를 감수하여 복통(腹痛), 토사(吐瀉) 증상이 발생한 것을 말함.

중서(中署) [병증] ⇒ 중서(中暑)

중석저(中石疽) [병증] : 안이 요과(腰胯) 사이에서 발생하는 옹저. 둔한 통증을 느끼고 단단하며 피부색은 변하지 않는다.

중설(重舌) [병증] : 소아 혀 밑에 혀 모양의 군살이 돋는 병증. 타석(唾石)으로 인한 증상과 유사하며 설하선(舌下腺)이나 악하선(顎下腺)의 수출관(輸出管)이 막혀 소설(小舌) 형상을 형성한다. 혀 밑에 작은 혀가 또 생겨 빨갛거나 검붉고, 혀가 부어 탱탱하거나 말리며 말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며, 심하면 추웠다 더웠다 한다. 이것은 심(心)과 비(脾)에 있는 적열(積熱)이 위로 훈증하여 오는 것이다.

중소(中消) [병증] 동 소중(消中) : 내과 소곡선기(消穀善飢)하고 이외 신체소수(身體消瘦) 대변비결(大便秘結) 소변황적(小便黃赤)하는 병증. 소갈(消渴)의 일종.

중습(中濕) [병증] 동 습중(濕中) : 내과 산람장기(山嵐瘴氣) 및 구와습지(久臥濕地) 등 외감습사(外感濕邪)로 인해 생담(生痰)하고, 생열(生熱)하고, 생풍(生風)하는 과정을 밟는 동안 혼모(昏冒)하여 부지인(不知人)하고 두중체통(頭重體痛), 퇴슬종통(腿膝腫痛), 신중부종(身重浮腫), 변설(便泄), 요황적(尿黃赤)하며 맥은 침완(沈緩)하거나 침미세(沈微細)하는 병증.

중식(中食) [병증] ⇒ 식중(食中)

중악(重顎) [병증] : 안이 심장과 비장의 열이 극심하여 상악(上顎)에서 종창(腫瘡)이 발생하는 질환.

중악(中惡) [병증] 동 악중(惡中), 졸궐(卒厥), 비시(飛尸), 귀격(鬼擊) : 소아 오염된 독기와 부정한 기운을 쐬어 갑자기 졸도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증. 가슴이 아프고 배가 부르며, 대변불통, 졸도, 구불능언(口不能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악증(重齷證) [병증] ⇒ 아감(牙疳)

중약(重藥) [약물] ⇒ 즙채(葅菜)

중열(中熱) [병증] : 병리 ① ⇒ 중서(中暑). ② 흉중(胸中)이 번열(煩熱)한 것.

중열심통(中熱心痛) [병증] : 내과 열을 받아 명치 밑이 아픈 증.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손바닥이 달아오르고 입이 마르며 대변이 굳고 얼굴이 벌겋게 되고 눈이 충혈되고 배가 불러오르며 만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식욕이 없는 병증.

중오(中忤) [병증] ⇒ 객오(客忤)

중온욕(中溫浴) [치법] : 재활 수(水) 치료의 일종. 온수(溫水)로 근육의 진정, 이완작용을 나타내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며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완(中脘) [경혈] 동 태창(太倉), 부회(腑會), 위관(胃管)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2)로서 위(胃)의 모혈(募穴), 팔회혈(八會穴) 중 부회혈(腑會穴)에 해당하고 배꼽 위 4촌에 위치.

중완저(中脘疽) [병증] 동 위저(胃疽) : 안이 제상(臍上) 4촌 중완혈에서 발생하는 옹저.

중은(重齦) [병증] : 소아 신생아의 잇몸이 빨갛게 부어 마치 2개의 잇몸이 겹친 것처럼 보이는 병증. 입 안이 깨끗하지 않거나 더러운 병독에 감염되면 장위에 있던 열이 경맥(經脈)을 따라서 잇몸을 훈증하므로 발생한다. 잇몸이 빨갛게 붓고 자주 울며 젖을 빨지 못하고 얼굴과 입술이 붉으며 침을 흘리고 설태황건(舌苔

ㅈ

橫乾), 지문자체(指紋紫滯) 등 증상이 있다.
중자침(重刺鍼) [침구] : 침구 강자극(强刺戟)으로 자침하는 것.
중장(中臟) [병리] : 병리 중풍(中風) 증후의 하나.
중장부(中臟腑) [병증] : 병리 중풍(中風) 증후의 하나. 사기(邪氣)가 장(臟)과 부(腑)에 침입한 중장(中臟)과 중부(中腑)를 통틀어 이르는 말. 졸도 초기에는 탈증(脫證) 혹은 폐증(閉證)이 나타나며, 후유증으로 반신(半身)을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대소변(大小便)을 가리지 못하는 것과 함께 각종 증상들이 수반된다.
중장증(中臟證) [병증] : 병리 중풍증(中風證)이 비교적 위중한 것. 갑자기 혼미(昏迷)하고 말을 하지 못하며 입술이 늘어져 침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한다.
중저(中渚)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3)로서 수목혈(兪木穴)에 해당하고 주먹을 쥐었을 때 4~5 번째 손가락의 손등쪽 손허리손가락관절(metacarpophalengeal joint) 뒷부분으로 관절부 뒤쪽 1촌에 위치.
중정(中庭)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6)로서 단중(膻中) 아래 1촌 6푼에 위치.
중정지관(中正之官) [생리] ⇒ 담(膽)
중정지부(中精之府) [생리] ⇒ 담(膽)
중족통(中足痛) [병증] : 재활 중족부 부위의 동통.
중주(中注)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5)로서 음교(陰交) 양쪽 5푼에 위치.
중증(重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 나오는 용어로, 병의 경중(輕重)을 이야기할 때 경증(輕證), 중증(重證), 험증(險證), 위증(危證)으로 구분하였다.
중천(中泉) [기혈] : 경혈 상지부(上肢部)의 기혈로서 완관절(腕關節; carpal joint) 횡문상(橫紋上), 양지(陽池)와 양계(陽谿)의 중간에 위치.
중청(重聽) [병증] ⇒ 이중청(耳重聽)
중청지부(中淸之腑) [생리] ⇒ 담(膽)
중초(中焦) [생리] : 생리 ① 횡격막에서 배꼽까지의 비위(脾胃)가 위치하는 부위. ②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담당하는 비위에 원기(元氣)를 공급·조절하는 기능.
중초습열증(中焦濕熱證) [병증] ⇒ 비위습열증(脾胃濕熱證)
중초양허증(中焦陽虛證) [병증] ⇒ 비양허증(脾陽虛證)
중추(中樞)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7)로서 10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중충(中衝)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경혈(PC9)로서 정목혈(井木穴)에 해당하고 가운데 손가락 손톱부위 한 가운데 끝에서 1푼 떨어진 곳에 위치.
중탑수(中搭手) [병증] 동 용저(龍疽) : 안이 고황혈(膏肓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중통(重痛) [증상] : 안이 옹저에서 근골(筋骨)이 아프게 됨을 말함.
중품(中品) [기타] : → 삼품(三品)
중풍(中風) [병증] : 내과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나타내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사불성(人事不省), 수족탄탄(手足癱瘓), 구안와사(口眼喎斜), 언어건삽(言語蹇澁), 편신마목(偏信痲木)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이다.
중풍전조증(中風前兆症) [병증] : 내과 중풍의 증상 이전에 미리 나타나 보이는 조짐.
중풍치매(中風痴呆) [병증] : 정신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하던 사람이 중풍이 발생한 후 기억장애, 판단장애, 사유장애, 계산장애 등의 인지기능장애가 동반하여 나타난 것으로 오늘날 혈관성 치매에 해당.
중풍탈증(中風脫證) [병증] ⇒ 탈증(脫證)

중풍폐증(中風閉證) [병증] ⇒ 폐증(閉證)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병증] : 내과 중풍을 앓고 난 후 회복한 뒤에도 남아 있는 병적 증세.
중하초(中下焦)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로, 이제마(李濟馬)는 인체의 부위를 상하(上下) 사초(四焦)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초(上焦), 중상초(中上焦), 중하초(中下焦), 하초(下焦)의 네 가지가 이것. 중하초(中下焦)는 요제지간(腰臍之間)으로 간(肝)과 소장(小腸)이 여기에 배속된다.
중한(中寒) [병리] [병증] 동 한중(寒中) : 병리 ① 유중풍(類中風)의 하나. 갑자기 한사(寒邪)를 감수하여 발생함. 신체강직(身體强直), 구금불어(口噤不語), 사지전도(四肢戰掉) 및 갑작스런 현훈(眩暈), 무한(無汗) 증상이 나타난다. ② 한사(寒邪)가 삼음(三陰)으로 직중(直中)한 것. 한사(寒邪)가 기표(肌表)를 상(傷)하여 위양(衛陽)을 울알(鬱遏)케 되면 상한(傷寒)이 되고, 한사(寒邪)가 장부(臟腑)에 직중(直中)하면 음성상양(陰盛傷陽)하여 중한(中寒)이 됨. 비위양기(脾胃陽氣)의 승강실상(升降失常)을 초래하여 완복냉통(脘腹冷痛), 구토소식(嘔吐少食), 장명복사(腸鳴腹瀉)가 발생하며, 항상 오한(惡寒), 두신통(頭身痛)을 수반한다. ③ 중초가 허한(虛寒)한 것. 양기부족(陽氣不足)으로 인해 비위기능이 쇠약해지면 복통(腹痛), 외한지랭(畏寒肢冷), 구담범오(口淡泛惡), 식소(食少), 변당(便溏)이 발생한다.
중혈맥(中血脈) [병리] [병증] 동 풍중혈맥(風中血脈) : 병리 중풍(中風) 유형의 하나. 주증은 구안와사(口眼喎斜), 반신불수(半身不遂), 피부불인(皮膚不仁) 등이다.
중화(中火) [병증] : 유중풍(類中風)의 하나. 휴식이 적당치 않아서 심화(心火)가 매우 성(盛)한데 신수(腎水)가 허쇠(虛衰)하여 이를 제약하지 못해서 발생. 그 증상은 갑자기 쓰러져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되고 말을 하지 못하며 구안와사(口眼喎斜), 탄탄(癱瘓), 면적(面赤), 번갈(煩渴), 변비(便秘) 등이 나타난다.
즙채(葅菜) [약물] 동 어성초(魚腥草), 중약(重藥) : 본초 삼백초과(三白草科 : Saururaceae)에 속한 일년생 본초인 약모밀 *Houttuynia cordata* Thunb.의 지상부로, 여름철에 경엽(莖葉)이 무성하고 화수(花穗)가 많을 때 잘라서 쇄건(曬乾)하여 사용.
증(症) [병리] 동 증상(症狀), 징후(徵候) : 병리 질병과 증후의 표현. 증(症)은 증상과 징후를 포괄. 증상(症狀, 症候; symptom)은 환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주관적인 것을 말하며, 징후(徵候, 體徵; sign)는 의사의 진찰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객관적 소견을 말한다. '증(症)'자는 명, 청 대에 '증(證)'자의 속자(俗字)로 나온 글자다.
증(證) [병리] 동 증후(證候) : 병리 질병 과정 중 특정 단계의 개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여러 증상(症狀)과 징후(徵候)들의 상관성 있는 조합. 이 증상과 징후들의 조합은 특정수준에서 단일한 내재관계가 있어 질병의 병인(病因), 병기(病機), 병위(病位), 병성(病性) 및 발전 추세를 제시하며, 치료의 근거를 제공한다.
증(蒸) [포제] 동 증법(蒸法) : 본초 약물을 깨끗이 한 후 술, 식초 등의 보조 재료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지 않고 용기에 넣고 쪄서 일정한 정도로 만드는 방법.
증기요법(蒸氣療法) [치법] : 재활 증기를 이용해 열 치료를 하는 방법. 체온상승, 진정작용, 발한, 내부 울혈경감, 근 이완, 통증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대지수(增大指數) [진찰] : 진단 augmentation index. 맥파에 있어서 첫 번째 수축기 정점과 두 번째 수축기 정점의 파고차를 전체 파고로 나눈 값.
증명(證名) [병리] 동 증후명(證候名) : 병리 증

ㅈ

(證) 혹은 증후(證候)의 이름. → 병명(病名)
증법(蒸法) [포제] ⇒ 증(蒸)
증병(蒸病) [병증] : 내과 조열(燥熱)과 허(虛)로 인해 열(熱)이 내부로부터 밖으로 훈증(薰蒸)하는 병증.
증상(症狀) [병리] ⇒ 증(症)
증위(蒸熨) [치법] : 내과 환부를 뜨겁게 하여 치료하는 치료법.
증유(蒸乳) [병증] ⇒ 유증(乳蒸)
증한(憎寒) [증상] : 내과 겉으로는 오한(惡寒)하고, 속으로는 번열(煩熱)하는 증상.
증후(症候) [병리] ⇒ 증(症)
증후(證候) [병리] ⇒ 증(證)
증후명(證候名) [병리] ⇒ 증명(證名)
지(痣) [병증] : 안이 검은 사마귀(흑지黑痣).
지(志) [생리] : 생리 신(腎)의 기능 활동(機能活動)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결정 또는 판단 및 정보를 기억(저장)하는 정신활동.
지(智) [생리] : 생리 인식(認識)과 대응(對應)이 온전하도록 처리하는 정신활동.
지(遲) [진찰] 동 지맥(遲脈)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박이 느려서 정상적으로 1회 호흡할 동안 맥박이 4회 이하인 것.
지각지둔(知覺遲鈍) [병증] : 재활 병증명. 자극에 대한 감각이나 반응이 느리거나 둔한 것.
지결(支結) [병증] 동 지결증(支結證) : 병리 명치 아래가 거북하고 답답한 증상.
지결증(支結證) [병증] ⇒ 지결(支結)
지골피(地骨皮) [약물] 동 구기근피(枸杞根皮) : 본초 가지과(茄子科 : Solanaceae)에 속한 낙엽 소교목인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의 근피(根皮)로, 입춘(立春)이나 입추(立秋) 후 채취하여 근피를 벗겨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영하구기(寧夏枸杞) *L. barbarum* L.도 인정한다.
지곽(地廓) [진찰] : 안이 → 육륜(肉輪)
지구(地拘) [약물] ⇒ 누고(螻蛄)
지구(支溝)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6)로서 경화혈(經火穴)에 해당하고 양지(陽池) 위 3촌으로 자뼈와 노뼈 사이에서 노쪽(요골측)에 위치.
지구자(枳椇子) [약물] 동 목밀(木密) : 본초 갈매나무과(鼠李科 : Rhamn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헛개나무 *Hovenia dulcis* Thunb.의 육질이 있는 과실 꼭지가 달린 열매나 종자. 10~11월에 성숙했을 때 열매꼭지가 붙은 과실을 따서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열매를 찧어 종자만 빼내서 햇볕에 말려 사용.
지규(地葵) [약물] ⇒ 지부자(地膚子)
지기(地機)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8)로서 극혈(郤穴), 삼부혈(三部穴)에 해당하고 음릉천(陰陵泉)에서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까지를 1척 3촌의 골도법으로 무릎 아래 5촌, 삼음교(三陰交) 위 5촌에 위치.
지남석(指南石) [약물] ⇒ 자석(磁石)
지룡(地龍) [약물] 동 구인(蚯蚓) : 본초 지렁이과(巨蚓科 : Lumbricidae)에 속한 환절동물(環節動物)인 삼환모인(參環毛蚓) *Pheretima aspergillum* (E. Perrier)과 정인과(正蚓科) 호구인(縞蚯蚓) *Allolobophora caliginosa* (Savigny) var. *trapezoides* (Ant. Duges)으로, 중국에서는 전자를 '광지룡(廣地龍)'으로, 후자를 '토지룡(土地龍)'으로 사용.
지만(支滿) [증상] : 내과 속이 치받치는 것 같으면서 그득한 증상.
지맥(持脈) [진찰] ⇒ 맥진(脈診)
지맥(遲脈) [진찰] ⇒ 지(遲)
지모(知母)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 ceac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지모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의 근경(根莖)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과 니사(泥沙)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것을 모지모(毛知母)라 하고, 외피(外皮)를 제거한 후

쇄건(曬乾)한 것을 지모육(知母肉)이라 함.

지목(指目) [진찰] : 진단 손끝으로 혈맥(血脈)의 융기 부위를 절맥(切脈)하는 방법.

지문(指紋) [진찰] ⇒ 호구삼관맥문(虎口三關脈紋)

지법(指法) [진찰] : 진단 진맥(診脈)할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맥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활용하는 방법.

지별(地鱉) [약물] ⇒ 자충(蟅蟲)

지별충(地鱉蟲) [약물] ⇒ 자충(蟅蟲)

지부자(地膚子) [약물] 동 지규(地葵) : 본초 명아주과(藜科 : Chenopodi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댑싸리 *Kochia scoparia* Scharder의 성숙한 과실.

지식(止息) [기공] : 재활 기공(氣功) 용어로 숨을 멈추고 있는 순간.

지실(志室)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2)로서 명문(命門) 양쪽 각 3촌에 위치.

지실(枳實) [약물]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 ceae)에 속한 상록 소교목인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in.의 유과(幼果)로, 5~6월에 미성숙 과실을 채취하여 가로로 쪼개어 두 쪽이 되게 한 다음 쇄건(曬乾)하거나 저온에서 건조. 중국에서는 산등(酸橙) *Citrus aurantium* L.을 기원으로 함.

지압(指壓) [치법] 동 경혈지압(經穴指壓), 지압법(指壓法), 지압요법(指壓療法) : 재활 손가락으로 세게 혈위(穴位)를 누르는 것으로, 비교적 세게 혈위를 누른 후 일정한 방향으로 활동하는 활동지압법(滑動指壓法)과 중간 정도의 세기로 혈위를 지속적으로 누르되 손가락을 활동하지 않는 지속지압법(持續指壓法)의 두 가지가 상용된다.

지압법(指壓法) [치법] ⇒ 지압(指壓)

지압요법(指壓療法) [치법] ⇒ 지압(指壓)

지양(至陽)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9)에 해당하고 7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치법] : 정신 대화로서 설유(說喩)하여 치료하는 법. 상대에 대해 보증(保證), 설득(說得), 재교육(再教育) 등으로 안정시켜서 자신을 되찾도록 용기를 주는 한방정신요법. 지지적 정신요법과 유사.

지오회(地五會)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42)로서 4·5번째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 사이, 협계(俠谿) 뒤쪽 1촌에 위치.

지유(地楡) [약물] 동 옥시(玉豉)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오이풀 *Sanguisorba officinalis* Linné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근으로 봄에 싹이 돋을 때나 가을에 풀이 마른 뒤에 캐어 수근(鬚根)을 없애고 씻은 뒤 말리거나 신선할 때 절단하여 말린 후 사용.

지음(至陰)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7)로서 정금혈(井金穴)에 해당하고 5 번째 발가락 발톱뿌리 각에서 가쪽(외측)으로 1푼되는 곳에 위치.

지음(支飮) [병리] [병증] : 병리 담음(痰飮), 수기(水氣)가 흉격부(胸膈部), 위완부(胃脘部)에 정체(停滯)되는 병증(病證). 폐기(肺氣)가 상박(相搏)하므로 폐(肺)가 숙강기능(肅降機能)을 잃고 기기(氣機)의 승강(升降)이 저해(沮害)되기 때문에 흉격이 불리(不利)해진다. 주요 증상은 천해상역(喘咳上逆)하고 흉만단기(胸滿短氣)하며 기식(氣息)이 평와(平臥)하지 못하며 심하면 부종(浮腫)이 생긴다. 만성폐기종(慢性肺氣腫) 및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폐심병(肺心病) 등의 질병에 속한다.

지절굴신불리(肢節屈伸不利) [증상] ⇒ 굴신불리(屈伸不利)

지절통(肢節痛) [병증] : 재활 사지관절동통. 대개 풍습(風濕)·담음(痰飮)·어혈(瘀血)이 경

ㅈ

락(經絡)에서 정체되거나, 혹은 혈허(血虛)로 근을 자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정(支正)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7)로서 낙혈(絡穴)에 해당하고 자뼈(척골; ulna) 붓돌기(경상돌기; styloid process)와 팔꿈치의 한 가운데로 자뼈(척골; ulna) 등쪽에 위치.

지주고(蜘蛛蠱) [병증] ⇒ 고창(蠱脹)

지주교상(蜘蛛咬傷) [병증] ⇒ 천사창(天蛇瘡)

지주창(蜘蛛瘡) [병증] ⇒ 단복창(單腹脹)

지지(地支) [운기] 동 십이지(十二支) : 원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총칭. 고대에 시간과 달[月]을 표기할 때 쓴 용어.

지창(地倉)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4)로서 입을 다물었을 때 양쪽 입 꼬리(구각; lateral angle of mouth) 옆 4푼에 위치.

지체산통(肢體痠痛) [병증] : 재활 사지관절과 신체가 시린 듯이 아픈 상태.

지체탄탄(肢體癱瘓) [병증] : 재활 사지를 쓰지 못하는 병증.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을 '탄(癱)'이라 하고,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을 '탄(瘓)'이라 하기도 한다. 한쪽 지체(肢體)만 쓰지 못할 경우는 편고(偏枯) 혹은 반신불수(半身不遂)라 한다.

지체폐용(肢體廢用) [병증] : 재활 사지와 신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지촌법(指寸法) [침구] ⇒ 수지동신촌법(手指同身寸法)

지침(持鍼) [침구] 동 지침술(指鍼術) : 침구 수지(手指)로 혈위(穴位)를 압박하고 자극하여 치료하는 방법.

지침술(指鍼術) [침구] ⇒ 지침(持鍼)

지토법(止吐法) [치법] : 방제 치료법의 하나. 토(吐)하는 것을 멎게 하는 방법.

지혈법(止血法) [치법] : 방제 출혈(出血)을 멎게 하는 방법. 지혈법(止血法)에는 청열지혈(淸熱止血)・거어지혈(祛瘀止血)・보기지혈(補氣止血)법 등이 있다.

지황(地黃) [약물] : 본초 현삼과(玄參科 : Scro- phular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지황 *Rhe- 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itz의 뿌리로서, 봄과 가을에 채취함. 신선한 뿌리를 생지황(生地黃-중국에서는 鮮地黃)이라 하고, 뿌리를 쇄건(曬乾)한 것을 건지황(乾地黃-중국에서는 生地黃)이라 한다.

직시(直視) [증상] : 내과 양쪽 눈의 안구가 전방을 향해 응시하는데,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증상.

직자(直刺) [침구] 동 직침자(直鍼刺), 직자법(直刺法) : 침구 살갗에 수직이 되게 침을 놓는 방법.

직자법(直刺法) [침구] ⇒ 직자(直刺)

직장식육(直腸瘜肉) [병증] 동 식육치(息肉痔) : 내과 대개 습열사(濕熱邪)가 대장(大腸)을 핍박하여 항문 안에 식육(息肉)이 발생한 병증.

직접구(直接灸) [침구] 동 직접뜸 : 침구 체표(體表) 위에 쑥뜸을 뜨거나, 화농(化膿) 되도록 하는 치료법.

직접뜸 [침구] ⇒ 직접구(直接灸)

직중(直中) [병리] [병증] 동 직중삼음(直中三陰) : 병리 병사(病邪)가 삼양경(三陽經)을 거쳐 전변(傳變)하지 않고, 직접 삼음경(三陰經)을 침범하는 것. 발병시에 삼양경(三陽經)의 증후는 없고, 삼음경(三陰經)의 증후가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직중삼음(直中三陰) [병리] [병증] ⇒ 직중(直中)

직침자(直鍼刺) [침구] ⇒ 직자(直刺)

직투자(直透刺) [침구] : 침구 투혈법(透穴法)의 일종. 상대측면에 있는 두 개혈 위(穴位)에 쓰인다.

직편(直片) [포제] : 본초 절편(切片)의 하나. 뿌리 약재, 특히 살이 많은 뿌리 약재를 길이가 15~20mm 되게 자른 후에, 다시 두께가 3~4mm 되게 세로로 자르는 것. 예를 들면 갈근, 대황 등을 직편(直片)으로 할 수 있다.
진(津) [생리] : 생리 신체 외부를 자양하는 청(淸)한 양성(陽性)의 체액.
진(疹) [증상] ⇒ 피진(皮疹)
진(診) [진찰] : 진단 병을 진찰하다란 뜻.
진(眹) [해부] ⇒ 동신(瞳神)
진간맥(眞肝脈) [징후] : 진단 진장맥(眞臟脈)의 하나.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 짚으나 세게 눌러 짚으나 칼날이 닿는 것처럼 날카로운 감을 주면서 가야금 줄처럼 팽팽하게 톡톡 치받치는 맥. 간병(肝病)이 몹시 중(重)하여 간(肝)의 진기(眞氣)가 몹시 허손(虛損)된 경우에 발생한다.
진고혈조증(津枯血燥證) [병증] ⇒ 혈조증(血燥證)
진교(秦艽) [약물] : 본초 용담과(龍膽科 : Gentia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큰잎용담 *Gentiana macrophylla* Pallas의 뿌리로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중국에서는 이외에 마화진교(麻花秦艽) *G. straminea* Maxim, 조경진교(粗莖秦艽) *G. crassicaulis* Duthie ex Burk. 혹은 소진교(小秦艽) *G. dahurica* Fisch. 도 인정하는데, 큰잎용담, 마화진교, 조경진교를 형상에 따라 진교(秦艽)와 마화진교(麻花秦艽)로 구분한다.
진기(眞氣) [생리] : 생리 안이 우리 몸의 일원적인 기. 수곡지기, 호흡지기, 선천지기가 합하여 생성된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는 진기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진기가 존재하는 부위나 작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름붙인다.
진기법(進氣法) [침구] : 침구 침을 자입(刺入)한 뒤 순발력을 써서 안으로 밀어넣어 보하는 침구기술.
진두통(眞頭痛) [병증] : 내과 두통이 심하여 뇌까지 동통하고, 수족궐랭(手足厥冷), 지절동통(肢節疼痛)하는 병증.
진맥(眞脈) [징후] ⇒ 진장맥(眞臟脈)
진맥(診脈) [진찰] ⇒ 맥진(脈診)
진목(瞋目) [증상] : 안이 눈을 부릅뜸. 눈에 노기(怒氣)를 띰.
진발배(眞發背) [병증] : 안이 배부(背部)에서 옹저가 발생할 때 정중선(正中線)에서 발생하는 것.
진법(診法) [진찰] : 진단 병을 진찰하는 방법. 사진(四診)과 변증(辨證) 두 과정을 포괄. 망(望)·문(聞)·문(問)·절(切) 등의 방법을 통해 병정(病情)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변증(辨證)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진법(振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진법(振法)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체표에 대고 전완과 수부(手部) 근육을 이용하여 진동을 만들어 주는 수기법. 지진법(指振法)과 장진법(掌振法)으로 나뉜다.
진비맥(眞脾脈) [징후] : 진단 진장맥(眞臟脈)의 하나. 약하면서 잠깐 빨리 뛰다가 잠깐 느리게 뛰는 등 고르지 못하게 뛰는 맥. 비병(脾病)이 몹시 심해 비(脾)의 진기(眞氣)가 몹시 쇠약한 경우에 나타난다.
진사(辰砂) [약물] ⇒ 주사(朱砂)
진수(眞水) [생리] ⇒ 신음(腎陰)
진신맥(眞腎脈) [징후] : 진단 진장맥(眞臟脈)의 하나. 딴딴한 감을 주면서 때때로 멎곤 하는 맥. 신병(腎病)이 몹시 중하여 신(腎)의 진기(眞氣)가 몹시 쇠약한 경우에 나타난다.
진심맥(眞心脈) [징후] : 진단 진장맥(眞臟脈)의 하나. 딴딴하면서 톡톡 치받치는 감을 주는 맥. 심병(心病)이 몹시 중하여 심(心)의 진기(眞氣)가 몹시 쇠약할 때 나타난다.
진심통(眞心痛) [병증] : 내과 매우 위중한 심통. 심장 부위가 발작적으로 터지는 듯이 몹시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하면 땀이 몹시 나고 팔다리는 싸늘해지면서 자남색(紫藍色)이 나

ㅈ

타나는 병증.

진액(津液) [생리] : 생리 ① 체내에 있는 모든 수액(水液). ② 장부의 생리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영양물질.

진액곽(津液廓) [진찰] : 안이 택곽(澤廓)에 해당하며 신(腎), 방광(膀胱)과 상관관계가 있음.

진액변증(津液辨證) [진찰] : 진단 변증방법의 하나. 주로 내상잡병(內傷雜病)을 대상으로 하며, 인체의 구성요소인 진액(津液)의 병증(病證)을 강령으로 삼아 변증하는 것으로 기혈진액변증(氣血津液辨證)의 일부분이다.

진액병(津液病) [변증] ⇒ 진액병증(津液病證)

진액병증(津液病證) [변증] 동 진액병(津液病) : 병리 진액부족(津液不足)과 수액정체(水液停滯), 이에 대한 2차적 산물로서 담음(痰飮) 등의 병증을 말함. 진액변증(津液辨證)으로 진액휴손증(津液虧損證), 수음내정증(水飮內停證), 수습범람증(水濕泛濫證), 한습증(寒濕證), 습열증(濕熱證)이 있고, 담음(痰飮)으로 풍담증(風痰證), 한담증(寒痰證), 열담증(熱痰證), 조담증(燥痰證), 습담증(濕痰證), 담기호결증(痰氣互結證)이 있다.

진액부족(津液不足) [병리] 동 진액휴손(津液虧損), 진액휴허(津液虧虛) : 병리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에 필요한 각종 수액(水液) 즉 땀(汗液), 침(唾液), 위액(胃液), 장액(腸液), 요액(尿液) 등이 부족하여 국부 혹은 전신적 '건조(乾燥), 진소(津少)' 등이 나타나는 상태. 조열(燥熱)이 내적(內積)하거나 음진(陰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며, 조사(燥邪)가 화열(化熱)하여 진액(津液)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갈증이 많이 나타난다. 진액(津液)의 생성(生成) 수포(輸布) 배설(排泄)은 폐비신(肺脾腎) 삼장(三臟)과 삼초(三焦) 등의 장부와 관련이 많으므로 이러한 장부의 기능이 실조하면 진액휴손(津液虧損)이 되기 쉽다. 폐실선숙(肺失宣肅)하여 기불화진(氣不化津)하거나, 비실건운(脾失健運)하여 진액(津液)이 생화수포(生化輸布)되는 근원(根源)이 부족해지거나, 신양부족(腎陽不足)하여 진액(津液)을 증등(蒸騰)하여 기화(氣化)시키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삼초실사(三焦失司)하여 진액기혈(津液氣血)의 통로가 장애를 받아 수액(水液)의 부포(敷布)와 배설(排泄)이 불리해져서 발생한다.

진액부족증(津液不足證) [병증] ⇒ 진액휴손증(津液虧損證)

진액지부(津液之腑) [생리] ⇒ 방광(膀胱)

진액휴손(津液虧損) [병리] ⇒ 진액부족(津液不足)

진액휴손증(津液虧損證) [병증] 동 진액부족증(津液不足證), 상진모액증(傷津耗液證), 진휴증(津虧證) : 병리 외감온열(外感溫熱)의 사(邪), 기타 병사(病邪)의 화조생열(化燥生熱), 과한(過汗), 실혈(失血), 토사(吐瀉), 오치(誤治) 등과 같은 진액 손실에 의해 일어나는 증. 구갈(口渴), 인건설조(咽乾舌燥), 구건소진(口乾少津), 피부불윤(皮膚不潤) 등이 주증이고, 비순건조(鼻脣乾燥), 건해소담(乾咳少痰), 진소설강(津少舌强), 목삽소루(目澁少漏), 소변단소(小便短少), 대변건결(大便乾結), 다식반수(多食反瘦), 구토(嘔吐), 피부건고(皮膚乾枯) 등이 차증이며, 설홍차건(舌紅且乾), 태건 혹 박(苔乾或剝), 맥세 혹 삽(脈細或澁)하다.

진액휴허(津液虧虛) [병리] ⇒ 진액부족(津液不足)

진양(眞陽) [생리] ⇒ 신양(腎陽)

진양부족(眞陽不足) [병리] ⇒ 신양허(腎陽虛)

진양부족증(眞陽不足證) [병증] ⇒ 신양허증(腎陽虛證)

진양쇠미증(眞陽衰微證) [병증] ⇒ 신양허증(腎陽虛證)

진열가한(眞熱假寒) [병리] 동 양성격음(陽盛格陰), 양증사음(陽證似陰), 한열격거(寒熱格拒) : 병리 내부(內部)에는 진열(眞熱)이 있는데 외표(外表)로는 가한(假寒)의 증후(證候)가 나타나는 것. 사기(邪氣)가 체내에 울체되어

내열(內熱)이 과성(過盛)한데 이 울체된 사기(邪氣) 때문에 양기가 체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가한(假寒)이 나타난다.

진열가한증(眞熱假寒證) [병증] : 병리 진열가한(眞熱假寒)에 의한 병증. 증상은 지랭(肢冷), 신열불오한(身熱不惡寒), 반오열(反惡熱), 맥침삭유력(脈沈數有力)하고 나아가 번갈희랭음(煩渴喜冷飮), 인건(咽乾), 구취(口臭), 섬어(譫語), 소변단적(小便短赤), 대변조결 혹열리하중(大便燥結 或熱痢下重), 설색심홍(舌色深紅), 태황이건(苔黃而乾) 하다. 수족역랭(手足逆冷)과 맥침(脈沈)은 가한(假寒)의 현상.

진음(眞陰) [생리] ⇒ 신음(腎陰)

진음부족증(眞陰不足證) [병증] ⇒ 신음허증(腎陰虛證)

진이(震耳) [병증] : 안이 급성 중이염에 속하며 청색을 띤 농(膿)을 배출한다.

진자(疹子) [증상] ⇒ 피진(皮疹)

진장맥(眞臟脈) [징후] 동 진맥(眞脈) : 진단 오장(五臟)의 진기(眞氣)가 심하게 노출된 맥상(脈象). 오장(五臟)의 병(病)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해당하는 장기(臟器)의 정기(精氣)가 쇠잔해지고, 위기(胃氣)가 끊어지게 되므로 각각 특수한 맥상(脈象)을 나타내는데 모두 위(胃)·신(神)·근(根)의 맥기(脈氣)가 없으며 특히 완화되고 부드러운 맥상(脈象)이 없다.

진장병(眞臟病) [병증] : 내과 오장(五臟) 진기(眞氣)가 패(敗)하여 나타나는 위중한 질병군.

진장색(眞臟色) [징후] : 진단 색진(色診)에 있어서 얼굴에 윤기가 없고 거칠며 메마른 상태로 위기(胃氣)가 없고, 오장(五臟)의 정기(精氣)도 쇠잔한 상태. 이것은 비교적 내장(內藏)의 질병이 심함을 나타낸다.

진전(震顫) [증상] 동 진전(振顫), 전진(顫振) : 정신 머리 몸체 팔다리를 요동하며 떠는 것을 주요 임상증상으로 하는 병증. 가벼운 경우 머리가 흔들리고 손발이 약간 떨려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아주 심하게 흔들고 심지어 경련(痙攣), 유전(扭顫)하는 양상의 동작을 보이며, 양손에서 상하지(上,下肢)가 진동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혹은 항강(項强), 사지구급(四肢拘急)을 겸하기도 한다.

진전(振顫) [증상] ⇒ 진전(震顫)

진전법(震顫法) [추나] ⇒ 진전법(振顫法)

진전법(振顫法) 동 진전법(震顫法) ① [추나] : 재활 추나(推拿)에 사용하는 수기법(手技法)으로 시술자의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을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대고 누르면서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박자에 맞추어 떨리게 움직여주는 방법. ② [침구] : 침구 침 자극법의 하나. 자침(刺針)한 후 엄지손가락과 둘째·셋째 손가락으로 침병(針柄)을 잡고 빠른 속도로 침을 가볍게 제삽(提揷)·염전(捻轉)하여 침 끝에 가벼운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득기(得氣)를 촉진시키고 침감(針感)을 촉진시키는 수법.

진정파손(眞睛破損) [병증] : 안이 금속 파편, 돌가루, 먼지 등이 눈으로 들어가거나 갑작스런 질부(跌仆)나 둔기(鈍器)에 맞았을 때 안주(眼珠)가 파손, 천공(穿孔)되어 신수(神水)가 흘러나오고 홍채가 탈출되어 해정(蟹睛)을 형성하고 심하면 흑백(黑白)의 끈끈한 신고(神膏)가 흘러나와서 실명하게 되는 것.

진종피(陳棕皮) [약물] ⇒ 종려피(棕櫚皮)

진주(眞珠) [약물] ⇒ 진주(珍珠)

진주(珍珠) [약물] 동 진주(眞珠) : 본초 진주조개과(珍珠貝科 : Pteridae)에 속한 연체동물인 진주조개(珍珠貝) *Pteria martensii* Dunker 및 동속 근연동물이 자극을 받아 형성된 진주(珍珠)를 체내에서 꺼내어 세정(洗淨)한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진주독(珍珠毒) [병증] ⇒ 설생포(舌生泡)

진주모(珍珠母) [약물] ⇒ 석결명(石決明)

진중풍(眞中風) [병증] 동 진풍(眞風) : 내과 외감풍사(外感風邪)로 인해 발생한 중풍.

ㅈ

진지문(診指紋) [진찰] : 진단 소아진법(小兒診法)의 하나. 검지 지복부(指腹部)에 엷게 나타나는 정맥(靜脈)을 지문(指紋)이라고 하는데, 소아(小兒)의 피부는 연약하여 지문(指紋)이 비교적 뚜렷하므로, 소아를 절진(切診)할 때는 항상 지문(指紋)의 변화를 참조한다. 지문(指紋)을 진단할 때는 주로 그 색깔과 충실 정도를 관찰한다. 의사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소아 검지의 끝부분을 잡고, 오른손의 엄지로는 소아 지첨(指尖)에서부터 지근(指根)쪽으로 지복부(指腹部)를 가볍게 밀어주어 지문(指紋)이 더욱 선명하도록 한 후 관찰하며, 정상적인 지문(指紋)은 은은하면서 선명한 홍황색(紅黃色)을 띤다. → 소아지문(小兒指紋), 호구삼관(虎口三關), 삼관(三關)

진척부(診尺膚) [진찰] : 진단 양손 주관절내측(肘關節內側)[척택혈(尺澤穴)]에서 촌구(寸口) 부위까지의 피부를 척부(尺膚)라고 하는데, 이 부분 피부의 완급(緩急)·활삽(滑澁)·한열(寒熱) 등의 상황을 살펴서 전신의 증상(症狀)과 맥상(脈象)을 결합하여 질병을 변증하는 것.

진침(進鍼) [침구] 동 하침(下鍼), 진침법(進鍼法) : 침구 침을 혈(穴)자리에 꽂은 후 계속하여 아래로 눌러 집어넣는 것.

진침법(進鍼法) [침구] ⇒ 진침(進鍼)

진퇴(進退) [침구] ⇒ 제삽(提揷)

진퇴제삽법(進退提揷法) [침구] ⇒ 제삽(提揷)

진폐맥(眞肺脈) [징후] : 진단 진장맥(眞臟脈)의 하나. 대(大)하면서 허(虛)한 감을 주는 맥. 폐병(肺病)이 몹시 중하여 폐(肺)의 진기(眞氣)가 몹시 쇠약한 때 나타난다.

진풍(眞風) [병증] ⇒ 진중풍(眞中風)

진피(秦皮) [약물] : 본초 물푸레나무과(木犀科 : Ole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물푸레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d의 지피(枝皮)와 간피(幹皮)로, 봄과 가을에 벗겨 쇄건(曬乾)하여 사용.

진피(陳皮) [약물]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 ceae)에 속한 상록 소교목인 귤 *Citrus unshiu* Markovich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성숙한 과피(果皮)인데, 11월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진한가열(眞寒假熱) [병리] 동 음증사양(陰證似陽), 음성격양(陰盛格陽), 격양(格陽) : 병리 체내의 음한(陰寒)이 과성(過盛)하여, 양기(陽氣)를 외(外)에서 거격(拒格)하므로, 내부(內部)는 진한(眞寒)이고 외부(外部)는 가열(假熱)의 증후가 나타나는 것.

진한가열증(眞寒假熱證) [병증] : 병리 진한가열(眞寒假熱)로 인한 병증. 신열(身熱), 면홍(面紅), 구갈(口渴), 맥대(脈大) 등이 있어 흡사 열증(熱證)인 것 같지만 신열(身熱)하되 반대로 옷이나 이불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구갈희열음(口渴喜熱飮), 맥대이무력(脈大而無力), 사지궐랭(四肢厥冷), 요청(尿淸), 변당(便溏), 설담(舌淡), 태백(苔白)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 병의 본질이 한증(寒證)임을 알 수 있다.

진해(津海)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로, 전사해(前四海) 중 하나이며 설하(舌下)에 위치하여 의(意)를 장하며 이(耳)의 근본이 된다.

진허리(診虛里) [진찰] : 진단 흉복부절맥법(胸腹部切脈法)의 하나. 심첨(心尖) 박동부위에 해당하며 위(胃)의 대락(大絡)에 속하는 허리(虛里)를 살펴서 병증(病證)을 파악하는 것.

진화(眞火) [생리] ⇒ 신양(腎陽)

진휴증(津虧證) [병증] ⇒ 진액휴손증(津液虧損證)

진흙욕(진흙浴) [치법] : 재활 진흙은 높은 비열과 낮은 전도율이 있어 진흙욕은 피부의 삼투성 변화를 유도하여 병적 산물의 용해나 연화 또는 흡수에 의한 제거 효과의 증가 작용이 있다.

질(疾) [병리] [징후] : 진단 ① 몸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로 병이 생긴 것. ② 동작이 빠른 것. ③ 맥상(脈象)의 하나. → 질맥(疾脈)

질경(膣痙) [병증] : 부인 질의 경련성 수축으로 인해 성관계에 곤란을 겪거나 성교 도중 통증을 느끼게 되는 상태.

질려자(蒺藜子) [약물] 동 백질려(白蒺藜) : 본초 남가새과(蒺藜科 : Zygophyllace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인 남가새(蒺藜) *Tribulus terrestris* L.의 과실.

질맥(疾脈) [징후] 동 극맥(極脈)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는 것으로, 한 번 호흡하는 동안 환자의 맥박(脈搏)이 7~8회에 달한다.

질박(跌撲) [병리] 동 질박손상(跌撲損傷) : 재활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손상된 것. 타박(打撲)과 같은 뜻으로도 쓰임.

질박손상(跌撲損傷) [병리] ⇒ 질박(跌撲)

질변(秩邊)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4)로서 네 번째 엉치뼈 아래 양쪽 각 3촌에 위치.

질서보사(疾徐補瀉) [침구] ⇒ 서질보사(徐疾補瀉)

질타섬좌(跌打閃挫) [병증] : 재활 도창(刀槍)·질복(跌扑)·섬압(閃壓)·자상(刺傷)·찰상(擦傷) 및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포괄. 손상된 부위에는 대개 동통(疼痛)·종창(腫脹)·상근(傷筋)·파손(破損) 혹은 출혈(出血)·골절(骨折)·탈구(脫臼) 등이 발생하며, 일부 내장손상(內臟損傷)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집증(執證) [진찰] : 진단 병증(病證)을 파악하는 것.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 나타난 증상을 종합하여 어떤 병증(病證)에 속하는가를 확진하는 것. 변증(辨證)과 같은 뜻.

징(癥) [병증] : 내과 뱃속에 덩어리가 생겨 딴딴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병증.

징가(澄茄) [약물] ⇒ 필징가(蓽澄茄)

징가(癥瘕) [병증] : 동 징하(癥瘕) 부인 여성생식기에 발생하는 종괴(腫塊).

징결(癥結) [병증] 동 징괴(癥塊), 징적(癥積) : 부인 병사(病邪)가 적취(積聚)된 것.

징괴(癥塊) [병증] ⇒ 징결(癥結)

징산(癥疝) [병증] : 내과 기기(氣機)가 막혀 갑자기 상복부(上腹部) 동통(疼痛), 복창(腹脹), 기괴(氣塊)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징적(癥積) [병증] ⇒ 징결(癥結)

징하(癥瘕) [병증] ⇒ 징가(癥瘕)

징후(徵候) [병리] ⇒ 증(症)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차

차(搓) [침구] [추나] ⇒ 차법(搓法)
차경(差經) [병증] ⇒ 착경(蹉經)
차념(搓捻) [침구] ⇒ 염전(捻轉)
차독(叉毒) [병증] ⇒ 호구저(虎口疽)
차료(次髎)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2)로서 두 번째 엉치뼈 구멍(천골공; sacral foramen)에 위치.
차법(搓法) [침구] [추나] 동 차(搓) : 침구 ① 침을 꽂은 후 엄지와 집게 두 손가락으로 침을 잡고 실을 비벼 말듯이 한쪽 방향으로 비벼 돌리는 방법. ②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차법(搓法)은 두 손의 손바닥(掌面)으로 지체(肢體)의 일정 부위를 끼우고 두 손에 힘을 주어 빠른 속도로 비벼주면서 동시에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주는 기법(技法). 이 때에 양손의 힘이 대칭을 이루어야 하며 비비는 동작은 빠르게, 상하로 이동하는 동작은 느리게 해야 한다. 차법은 요배부(腰背部)나 협륵(脇肋)·사지(四肢)부위에 적용하며 상지부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추나요법을 마무리 지을 때 사용하는 수기법으로서 기혈을 조화시키고 서근통락(舒筋通絡)하는 작용을 한다. 주우번(周于蕃)의 厘正按摩要術에서는 "搓以轉之, 謂兩手相合而交轉以相搓也, 或兩手指合搓…"라고 차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醫宗金鑑에서는 "先以手輕輕搓摩, 令其骨合筋舒"라고 하였다. 임상에서는 주로 시술전후에 사용하는데, 차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련을 해소하며 연부조직의 유착을 풀어주고 근육의 산창감(酸脹感)과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법이다.
차전자(車前子) [약물] : 본초 질경이과(車前科 : Plantagi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질경이 *Plantago asiatica* Linné의 씨로서, 여름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과수(果穗)를 거두어들여 햇볕에 말리고 비벼 씨를 털어내고 잡질을 없앤 후 사용. 중국에서는 평차전(平車前) *Plantago depressa* Willd.도 인정.
차증(次證) [병리] ⇒ 겸증(兼證)
차증(次症) [병리] 동 겸증(兼症), 첨증(添症) : 병리 변증(辨證)에서 한 증(證)의 진단 요건상 가중치가 적게 부여되거나 혹은 가중치가 없는 증징(症徵). 출현 빈도수가 적거나 증의 확정에 없어도 되는 증상 혹은 징후.
차침(車鍼) [기구] : 침구 피부침요법(皮膚鍼療法)에서 쓰는 침구(鍼具)의 하나로 롤러의 바퀴 부분에 여러 개의 침을 붙여 굴리면서 자극하는 침.
착경(錯經) [병증] 동 차경(差經), 착경망행(錯經妄行), 토뉵(吐衄), 경종구비출(經從口鼻出), 경종상역(經從上逆), 역경(逆經), 도경(倒經), 대상성월경(代償性月經) : 부인 월경주기에 일치하여 주기적으로 자궁외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출혈. 가장 흔한 출혈 부위는 비(鼻)점막의 출혈이며, 이 외에 위(胃), 장(腸), 폐(肺), 유선(乳腺), 피부(皮膚), 신장(腎臟), 복강부(腹腔部), 제부(臍部), 외이도(外耳道), 안검부(眼瞼部) 등에도 출혈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착락(錯落) [추나] ⇒ 변위(變位)

착란(錯亂) [병리] : 내과 체내 기혈의 흐름이 정도를 벗어난 상태.
착봉(錯逢) [추나] ⇒ 변위(變位)
착비(着痺) 재활 ① [병증] 동 습비(濕痺) : 습기(濕氣)가 치성(熾盛)하여 발생한 비(痺). ② [병증] : 각기병(脚氣病)의 일종.
착어(錯語) [증상] : 정신 정신은 뚜렷하나 말이 혼란스러우며 말하고 난 후에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것을 아는 것. 대부분 심기허(心氣虛), 정신부족(精神不足)에서 발생.
착위(錯位) [추나] ⇒ 변위(變位)
찬시(竄視) [증상] : 내과 안구가 위나 아래로 돌아가는 증상.
찬자(攢刺) [침구] : 침구 십이자(十二刺)의 일종. 수직으로 자침(刺鍼)·발침(拔鍼)하되 여러 차례 천자(淺刺)하여 출혈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刺法).
찬죽(攢竹)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2)로서 눈썹 안쪽 끝 오목한 곳으로 정명(睛明) 바로 위쪽에 위치.
찬통(竄痛) [병증] ⇒ 유주동통(流走疼痛)
찰과상(擦過傷) [병증] ⇒ 찰상(擦傷)
찰목(察目) [진찰] : 진단 망진내용(望診內容)의 하나. 눈의 안신(眼神)·색택(色澤)·형태(形態)를 살펴서 오장(五臟)의 변화를 헤아리는 진단방식.
찰법(擦法) [추나] 동 평추법(平推法)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손바닥의 대어제(大魚際)나 장근(掌根) 또는 소어제(小魚際)를 일정 부위에 대고 직선 또는 회선형으로 왕복하며 마찰하는 수기법. 찰법(擦法)을 시술할 때는 완관절을 펴주고 전완과 손이 평행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주고 전체 지장(指掌)을 환자의 체표 치료부위에 붙여주고 견관절을 지지점으로 상완을 주로 움직이며 손바닥을 전후 또는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준다. 손바닥의 압력은 너무 강해서는 안 되지만 밀어주는 폭은 커야 한다.
찰상(擦傷) [병증] 동 찰과상(擦過傷) : 재활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것.
찰색(察色) [진찰] : 진단 망진(望診)의 일종. 혈색을 살펴서 병을 진찰하는 방법. 넓은 의미로는 피부(皮膚)·담(痰)·설태(舌苔)·대소변(大小便)·입술·반진(斑疹) 등의 색을 살피는 것을 포괄한다.
참룡검(斬龍劍) [약물] ⇒ 냉초(冷草)
참석(鏨石) [기구] ⇒ 폄석(砭石)
참침(鏨鍼) [기구] 동 전두침(箭豆鍼)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 침의 머리부위는 부푼 듯이 크고, 끝머리는 화살촉처럼 뾰족하여 주로 얕게 찔러서 피나게 하는데 쓰는데, 머리와 몸의 열병(熱病), 피부질환 등을 치료한다.
창(瘡) [병증] : 안이 피부 표천부(表淺部)에 발생하는 질환의 총칭.
창(脹) [병증] : ① ⇒ 창병(脹病) ② 창민(脹悶)하고 거북함을 느끼는 일종의 자각증상. 예를 들면 두창(頭脹), 협창(脇脹), 복창(腹脹) 등.
창구(創口) [병리] : 재활 창·총검·칼 등에 의해 다쳐서 생긴 구멍.
창귀탐혈(蒼龜探穴) [침구] 동 창귀탐혈법(蒼龜探穴法), 탐혈법(探穴法) : 침구 침을 꽂아 득기(得氣)한 후 위아래와 좌우 사방으로 침을 비스듬히 기울여 각 방향마다 모두 천(淺), 중(中), 심(深) 3가지 깊이로 3번 집어넣고 1번 빼내는 침자수기법(鍼刺手技法).
창귀탐혈법(蒼龜探穴法) [침구] ⇒ 창귀탐혈(蒼龜探穴)
창롱(窓籠) [경혈] ⇒ 천창(天窓)
창룡파미(蒼龍擺尾) [침구] [추나] 동 창룡파미법(蒼龍擺尾法) : 침구 ①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추나(推拿)방법의 일종. ② 청룡파미법(靑龍擺尾法)으로 불리는 침자수기법(鍼刺手技法).
창룡파미법(蒼龍擺尾法) [침구] [추나] ⇒ 창룡

ㅊ

파미(蒼龍擺尾)
창루(瘡漏) [병증] : 안이 창공(瘡孔)에서 삼출물이 유출되어 그치지 않는 것.
창루(瘡瘻) [병증] : 안이 종창(腫瘡)이 오래도록 수렴되지 않아 누(瘻)가 형성된 것. 농수(膿水)가 흐르면서 악취가 나고 내면에는 기육(肌肉)이 없다.
창유(瘡瘤) [병증] : 안이 헌 데가 무엇에 부딪히거나 사독(邪毒)을 감수하여 열이 나고 벌겋게 붓는 것.
창름지관(倉廩之官) [생리] ⇒ 비위(脾胃)
창만(脹滿) [병증] : 내과 복부만 창대(脹大)하고 면목사지(面目四肢)에는 부종(浮腫)이 없는 증상.
창병(脹病) [병증] : 내과 복부창만(腹部脹滿)이 주증인 질환.
창상(創傷) [병증] : 재활 창·총검·칼 등에 의해 다쳐서 생긴 상처.
창식후풍(嗆食喉風) [병증] : 안이 급성후두기관지염과 유사.
창양(瘡瘍) [병증] 동 창종(瘡腫) : 안이 고대에는 각종 외과질환을 지칭하는데 사용하였음. 후세에는 외과를 크게 창양(瘡瘍), 잡증(雜證)으로 분류하였는데, 창양은 체표에 발생하는 종양(腫瘍), 궤양(潰瘍), 옹(癰), 저(疽), 정창(疔瘡), 절종(癤腫), 유주(流注), 유담(有痰), 나력(瘰癧) 및 피부병(皮膚病) 등을 총칭한 것. 독사(毒邪)가 침입하여 사열(邪熱)이 혈을 졸임으로 인해 기혈이 정체되어 발생한다.
창이자(蒼耳子) [약물] 동 권이(卷耳)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도꼬마리 *Xanthium strumarium* Linne의 열매.
창종(瘡腫) [병증] ⇒ 창양(瘡瘍)
창진(瘡疹) [병증] : ① ⇒ 두창(痘瘡) ② 헌 데가 있는 발진(發疹).
창출(蒼朮)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가는잎삽주(모창출茅蒼朮) *Atractylodes lancea* DC. 또는 만주삽주(북창출北蒼朮) *A. chinensis* Koidzumi의 근경(根莖)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
채(瘵) [병증] ⇒ 노채(勞瘵)
채교법(踩蹺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한 발이나 두 발로 일정 부위를 밟아주는 것. 환자는 복와위(腹臥位)를 취하고 흉부와 대퇴부에 각각 베개를 고여서 요부가 들리도록 한다. 시술자는 두 손으로 미리 설치된 철봉대를 잡고서 자신의 체중을 조절하여 채교시(踩蹺時)의 강도를 정해야 하며, 동시에 발로 환자의 요부를 밟고 적당하게 탄력을 주어 튀어오른다. 이 때 발끝은 허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채교시, 환자도 튀어 오르고 내릴 때 호흡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튀어 오를 때 환자는 흡기하고, 밟을 때 호기하도록 하며 절대 숨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채교 속도는 균등하고 율동적이어야 한다. 임상에서는 추간판성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극이 강하므로 응용시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며 체질이 약하거나 척추골에 병변이 있는 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채독증(菜毒症) [병리] [병증] : 내과 채소를 날것으로 먹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병증.
척(尺) [진찰] : 진단 ① 척맥(尺脈)의 약칭. → 촌관척(寸關尺). ② 척부(尺膚)의 약칭. → 척부(尺膚)
척감(脊疳) [병증] : 소아 감질로 등의 살이 빠져 척추골이 드러나는 병증. 감질이 오래되어 습탁온열(濕濁蘊熱)이 풀리지 않으면 감충(疳蟲)이 안에서 생겨 척추골을 침식하므로 발생. 매우 야위어 척추골이 마디마디 드러나며 손으로 뼈를 두드리면 마치 북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또한 발열, 번갈이 있고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열 손가락에 창(瘡)이 생기고 손톱을

자꾸 깨무는 증상이 있다.
척강(脊强) [병증] 동 척배강(脊背强), 척배강직(脊背强直) : 내과 독맥, 방광경의 병변으로 척추의 근육, 근맥이 당겨 몸을 앞으로 숙이지 못하는 병증.
척담(滌痰) [치법] ⇒ 거담법(祛痰法)
척맥(尺脈) [진찰] : 진단 촌구맥(寸口脈) 삼부(三部)의 하나. → 촌관척(寸關尺)
척배강(脊背强) [병증] ⇒ 척강(脊强)
척배강직(脊背强直) [병증] ⇒ 척강(脊强)
척부(尺膚) [진찰] : 진단 전비(前臂) 내측의 주부(肘部)에서부터 완부(腕部)까지의 피부로서, 망진(望診)과 절진(切診)하는 체표(體表) 부위.
척중(脊中)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6)로서 11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척중(尺中) [진찰] : 진단 ① 진맥(診脈) 부위의 하나. 촌구(寸口)의 척부(尺部). ② 척맥(尺脈)을 가리킴. → 촌관척(寸關尺)
척지오간(尺之五間) [경혈] ⇒ 수오리(手五里)
척추조정술(脊椎調整術) [치법] : 재활 질환이나 사고(事故)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원인에 의해 손상된 척추의 정렬(척추의 탈구나 아탈구)을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정렬을 유지하게 하여 인체의 여러 기관과 조직의 기능적 장애, 생화학적 변화, 신경 생리학적 변화 및 통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척택(尺澤)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5)로서 합수혈(合水穴)에 해당하고 손바닥을 위로하여 팔꿈치를 굽혔을 때, 팔꿈치 횡문상에서 위팔두갈래근(상완이두근; biceps) 힘줄의 바깥쪽에 위치.
천(喘) [병증] 동 천역(喘逆), 천병(喘病), 천증(喘證), 천증(喘症) : 내과 숨결이 가쁜 상태로 숨쉬기 가빠하면서 헐떡거리고 숨결이 잦으며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몸과 배를 움직이고 흔드는 병증.
천간(天干) [운기] 동 십간(十干), 십천간(十天干) : 원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총칭. 중국 고대에 초목(草木)의 생장화수장(生長化收藏)을 기준으로 시간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 발원하여 십이지(十二支)와 더불어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됨. 운기학설에서는 천지의 순환을 상징하는 오운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음.
천계(天谿)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8)로서 단중(膻中) 양쪽 6촌으로 4・5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천계(天癸) [생리] : 생리 신기(腎氣-腎의 精氣)의 충실과 관련되어 '지(至)', '갈(竭)'하면서 남자와 여자로서 이차 성징을 일으키고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남자의 정(精)을 충만하게 하고 여자의 월경(月經)이 시작되게 하는 기운.
천곡(天谷) [생리] ⇒ 니환(泥丸)
천골(川骨) [약물] 동 평봉초(萍蓬草) : 본초 수련과(睡蓮科 : Nymphaeaceae)에 속한 개연꽃 *Nuphar japonicum* De Candole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뿌리줄기.
천골저(穿骨疽) [병증] : 안이 간사혈(間使穴)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궤양이 되었을 때 농독(膿毒)이 근골부(筋骨部)로 관통되어 비완외측(臂腕外側)으로 농이 유출되는 것.
천과저(穿踝疽) [병증] : 안이 초기에는 하퇴내과(下腿內踝)에서 발생하여 종통(腫痛)하면서 점차 외과로 천관(穿串)되어 종통하는 옹저.
천곽(天廓) [진찰] : 안이 기륜(氣輪)에 해당. → 기륜
천구(天灸) [침구] 동 부약발포요법(敷藥發泡療法), 약물발포구(藥物發泡灸) : 침구 구법(灸法)의 일종으로,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약물(藥物)을 혈위(穴位) 혹은 환부(患部)에 부첩(敷貼)하여 국소(局所)를 충혈(充血), 발포(發

ㅊ

泡)시켜 병을 치료하는 방법.
천군자(川君子) [약물] ⇒ 사군자(使君子)
천굴천사(穿窟天蛇) [병증] ⇒ 용천저(湧泉疽)
천궁(川芎) [약물]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의 근경(根莖)으로 평원(平原)에서 재배한 것은 소만(小滿)후 4~5일, 산지(山地)에서 재배한 것은 가을에 채취하여 경엽(莖葉)과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세정(洗淨)한 다음 쇄건(曬乾) 또는 홍건(烘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천궁 *Ligusticum chuanxiong* Hort을 기원으로 함.
천근(茜根) [약물] ⇒ 천초근(茜草根)
천근피(川槿皮) [약물] ⇒ 목근피(木槿皮)
천금자(千金子) [약물] ⇒ 속수자(續隨子)
천급(喘急) [증상] 동 천촉(喘促), 천급상역(喘急上逆) : 내과 숨이 가쁘고 급한 증상.
천급상역(喘急上逆) [증상] ⇒ 천급(喘急)
천기(天氣) @운기 ⇒ 객기(客氣)
천남성(天南星) [약물] : 본초 천남성과(天南星科 : A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천남성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및 동속 근연식물의 코르크층을 벗긴 덩이뿌리로, 가을 겨울에 잎과 줄기가 마를 때 캐내어 수근(鬚根)과 외피(外皮)를 없애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천당독(穿襠毒) [병증] : 안이 우수 사려 및 과도한 노력을 한 중에 습열(濕熱)의 침범을 받아 남자는 항문과 음낭사이, 여자는 항문과 후음순 연합과의 사이 즉, 회음부 전면에 발생하는 옹저.
천돌(天突) [경혈] 동 옥호(玉戶)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22)로서 복장뼈자루(흉골병; manubrium) 윗면으로 목아래패임(흉골절흔; jugular notch) 윗면 가운데 오목한 곳에 위치.
천련자(川楝子) [약물] 동 금령자(金鈴子) : 본초 멀구슬과(楝科 : Meli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멀구슬나무 *Melia azedarach* Linné var. *japonica* Makino의 과실로 가을과 겨울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건조 후 사용. 중국에서는 천련(川楝) *Melia toosendan* Sieb. et Zucc.을 기원으로 함.
천료(天髎)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15)로서 견정(肩井)과 곡원(曲垣)의 중간에 위치.
천마(天麻) [약물] : 본초 난초과(蘭科 : Orchidaceae)에 속한 천마 *Gastrodia elata* Bl.의 괴경(塊莖)을 건조한 것.
천만(喘滿) [병증] : 내과 숨이 가쁘고 가슴이 그득한 증상.
천면(淺眠) [병증] ⇒ 실면(失眠)
천명(喘鳴) [병증] 동 담명(痰鳴) : 내과 숨이 가쁘고 급하면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병증.
천명정(天名精) [약물] ⇒ 학슬(鶴虱)
천문동(天門冬)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반원상(攀援狀)의 다년생 초본인 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nsis* Merr.의 괴근(塊根)으로,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증숙(蒸熟)하고 외피를 제거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천백의(天白蟻) [병증] ⇒ 후선(喉癬)
천법(燀法) [포제] : 본초 약재를 끓는 물에 넣고 단시간 동안 삶은 다음 꺼내어 종피(種皮)를 분리하는 방법.
천병(喘病) [병증] ⇒ 천(喘)
천부(天府)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3)로서 팔 앞쪽, 겨드랑 횡문에서 팔꿈치 횡문까지 9촌의 골도법(骨度法)으로 겨드랑 아래 3촌이며 위팔두갈래근(상완이두근; biceps)의 안쪽에 위치.
천사독(天蛇毒) [병증] : 안이 손가락 끝에서 발생하는 옹저. 종두(腫頭)가 없고 색깔은 홍색을 띠고 불에 타는 것처럼 매우 아프다.
천사창(天蛇瘡) [병증] 동 지주교상(蜘蛛咬傷) : 안이 풀섶에 있는 지주(蜘蛛)에게 물리고 이슬

(露水)에 접촉되어 피부에 발생하는 창증(瘡症). 종통하고 적사(赤絲)가 전신을 감은 것 같다.
천산갑(穿山甲) [약물] ㊐ 능리갑(鯪鯉甲) : 본초 능리과(穿山甲科 : Mamidae)에 속한 동물인 천산갑 *Manis pentadactyla* L.의 인갑(鱗甲)으로, 전년(全年)에 걸쳐 잡아 살사(殺死)한 후 끓는 물에 약간 탕포(燙泡)한 다음 인갑을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천서시(天鼠屎) [약물] ⇒ 야명사(夜明砂)
천수요법(泉水療法) [치법] : 재활 맑은 샘물을 마시거나 목욕 등의 외부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건강을 회복케 하고 질병을 고치는 치료법.
천역(喘逆) [병증] ⇒ 천(喘)
천오두(川烏頭) [약물]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오두(烏頭) *Aconitum carmichaeli* Debx.의 괴근(塊根)으로, 초하(初夏)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천용(天容)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7)로서 턱뼈각(하악각; angle of mandible) 뒷면과 목빗근(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앞면 사이에 위치.
천유(天牖)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16)로서 꼭지돌기(유양돌기; mastoid process)의 뒤쪽 아래, 목빗근(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뒷면으로 천용(天容)과 천주(天柱)의 중간에 위치.
천응혈(天應穴) [경혈] ⇒ 아시혈(阿是穴)
천입상(穿入傷) [병증] : 재활 고속의 총탄이나 파편 등에 의한 손상이며 대개 조직손상이 크다. 가해물체가 체내에 남아 있으며 오물이 조직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천자(淺刺) [침구] ㊐ 천자법(淺刺法) : 침구 침을 얕게 찌르는 것. 침을 놓을 때 침이 조직의 비교적 얕은 곳 혹은 겨우 살갗에만 꽂힐 정도로 찌르는 것.
천자법(淺刺法) [침구] ⇒ 천자(淺刺)
천자법(穿刺法) [침구] ⇒ 투혈(透穴)
천장독(穿掌毒) [병증] ㊐ 자옹(蔗癰) : 안이 손바닥 가장 자리에 발생하는 옹저.
천적풍(天吊風) [병증] ⇒ 만경풍(慢驚風)
천정(天頂) [경혈] ⇒ 천정(天鼎)
천정(天鼎) [경혈] ㊐ 천정(天頂)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7)로서 목의 외측으로 목빗근(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뒤에 있으며, 갑상연골 가쪽(외측; lateral) 3촌에 있는 부돌(扶突) 아래 1촌에 위치.
천정(天井)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10)로서 합토혈(合土穴)에 해당하고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 끝의 위쪽 약 1촌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천정(天庭) [진찰] [추나] [기공] : 진단 ① [진찰] ㊐ 궐정(闕庭) : 이마의 중앙에 위치하며, 망진(望診)하여 두면부(頭面部)의 질환을 진찰하는 데 참고로 삼는다. ② [추나] : 이마위 미심혈(眉心穴)의 위쪽에 위치하며 다른 혈위(穴位)와 배합하면 발한(發汗)하는 효능이 있음. 천문혈(天門穴). ③ [기공] : 양 눈썹 사이 부위.
천정위(遷正位) [운기] : 원전 주기(主氣)와 사천지기(司天之氣)가 때를 맞추어 기후가 정상인 것.
천조(天吊) [병증] ⇒ 천조(天釣)
천조(天釣) [병증] ㊐ 천조(天弔), 천조(天吊), 천조경풍(天吊驚風), 천조경풍(天釣驚風), 풍중(風中) : 소아 경풍(驚風)의 하나. 어린아이에게 생기며 고열(高熱), 경궐(驚厥)과 머리를 뒤로 젖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풍열(風熱)의 사기가 침입하였거나 젖의 온도가 적당하지 않아 사열담연(邪熱痰涎)이 상초(上焦)에 쌓여서 기가 소통되지 못하므로 발생.
천조(天弔) [병증] ⇒ 천조(天釣)
천조경풍(天吊驚風) [병증] ⇒ 천조(天釣)
천조경풍(天釣驚風) [병증] ⇒ 천조(天釣)

ㅊ

천종(天宗)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1)로서 가시아래오목(견갑극하와; infraspinous fossa)의 가운데 부위로 어깨뼈가시(견갑극; spine) 중간에 있는 병풍(秉風)의 1촌 5푼 아래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천주(天柱)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10)로서 아문(瘂門) 양쪽 1촌 5푼에 위치.

천주저(天柱疽) [병증] : 안이 뒷목 고골 즉 천주골(天柱骨)에서 발생하는 옹저.

천죽(天竹) [약물] ⇒ 서장경(徐長卿)

천증(喘症) [병증] ⇒ 천(喘)

천증(喘證) [병증] ⇒ 천(喘)

천지(天池)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경혈(PC1)로서 젖꼭지 바깥쪽 1촌, 4~5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천창(天窓) [경혈] 동 창롱(窓籠)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6)로서 목빗근(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뒷면, 턱뼈각(하악각; angle of mandible) 아래로 부돌(扶突) 바깥쪽 1촌 5푼에 위치.

천천(天泉) [경혈] : 경혈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경혈(PC2)로서 겨드랑 앞쪽 횡문 끝에서 곡택(曲澤)까지 9촌의 골도법으로 겨드랑 아래 2촌에 위치.

천초(茜草) [약물] ⇒ 천초근(茜草根)

천초근(茜草根) [약물] 동 천초(茜草), 천근(茜根), 홍천근(紅茜根) : 본초 꼭두서니과(茜草科 : Rub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의 근으로, 봄과 가을에 캐어 흙을 없애고 말린 후 사용.

천촉(喘促) [증상] ⇒ 천급(喘急)

천추(天樞)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5)로서 신궐(神闕) 양쪽 2촌에 위치.

천축황(天竺黃) [약물] 동 축황(竺黃) : 본초 대나무과(竹科 : Bambusaceae)에 속한 다년생 상록교목인 청피죽(靑皮竹) *Bambusa textilis* Mc Clure과 화사노죽(華思勞竹) *Schizostachyum chinense* Rend. 등에 기생하는 죽황봉(竹黃蜂)이 교상(咬傷)한 후 죽절간(竹節間)에 분비액이 고여 응결한 괴상(塊狀)의 물질로, 가을과 겨울에 채집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천충(天衝)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9)로서 솔곡(率谷) 뒤 위쪽 5푼에 위치.

천치(天痴) [병증] ⇒ 매병(呆病)

천태오약(天台烏藥) [약물] ⇒ 오약(烏藥)

천투(穿透) [침구] ⇒ 투혈(透穴)

천패모(川貝母)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천패모 *Fritillaria cirrhosa* D. Don., 암자패모(暗紫貝母) *F. unibracteata* Hsiao et K.C. Hsia, 또는 능사패모(棱砂貝母) *F. delavayi* Frandh., 감숙패모(甘肅貝母) *F. przewalskii* Maxim.의 인경(鱗莖)으로, 여름과 가을에 채집하여 쇄건(曬乾) 또는 저온에서 건조하여 사용. 성상에 따라 송패(松貝) 및 청패(靑貝)로 구분한다.

천포창(天疱瘡) [병증] : 안이 서열(暑熱)·증열(蒸熱) 등이 폐(肺)에 침범하여 피부에 울결되어 발생한 창양. 화적창(火赤瘡)과 같이 처음에는 작은 것은 황실(黃實)과 같고, 큰 것은 기자대(棋子大)와 같다. 작열감이 있고 간장빛깔의 수포(水疱)를 형성하나 창두(瘡頭)는 백색을 띠고 근핵(根核)은 적색을 띤다.

천행(天行) [병리] 동 천행여기(天行癘氣) : 병리 유행성이 강한 점염병. 역려(疫癘)가 발병한 후의 구체적인 유행상황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 산발적(散發的), 폭발적(暴發的), 유행적(流行的)으로 광범위하게 유행한다. 구체적인 유행상황은 일정한 환경조건, 병사의 성질, 전파경로 및 인체의 방역능력에 따라 결정되

는데 傷寒總病論에 "天行之病, 大則流毒天下, 次則一方, 次則一鄕, 次則偏着一家"라 함이 이를 말한 것이다.
천행기운(天行氣運) [병증] ⇒ 천행적목(天行赤目)
천행여기(天行癘氣) [병리] ⇒ 천행(天行)
천행적목(天行赤目) [병증] ㊟ 천행적안(天行赤眼), 천행기운(天行氣運), 홍안(紅眼), 화안(火眼) : 안이 급성 catarrh성 결막염과 유사하고 급속히 발병하며 전염성을 갖고 결막충혈과 점액 및 농성분비물 유출을 수반하는 눈병.
천행적안(天行赤眼) [병증] ⇒ 천행적목(天行赤目)
천행후비(天行喉痺) [병증] : 안이 전염성으로 인후가 종통하는 것.
천화(天花) [병증] ⇒ 두창(痘瘡)
천화분(天花粉) [약물] ⇒ 괄루근(栝樓根)
천화탈목병(天火奪目病) [병증] : 안이 目經大成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로 백정(白睛)이 자적색(紫赤色)을 띠고 종창외는 질병. 형여하좌증(形如蝦座證)과 유사.
철관(鐵罐) [기구] : 침구 철(鐵)로 만든 부항.
철마편(鐵馬鞭) [약물] ⇒ 마편초(馬鞭草)
철선연(鐵線蓮) [약물] ⇒ 위령선(威靈仙)
첨내반족(尖內反足) [병증] : 재활 첨족과 내반이 병합된 상태.
첨예습우(尖銳濕疣) [병증] : 안이 사마귀의 일종. 외음부나 항문에 생기는 것으로 끝이 뾰족하며, 습열(濕熱)이 하주(下注)하여 뭉쳐서 생긴다. 처음에는 분홍빛 혹은 어두운 붉은빛 혹은 어지러운 잿빛에 젖꼭지 모양의 작은 구진(丘疹)이 생겨나고, 점차 많아져서 서로 융합된다. 진물이 생기기 쉽고 역한 냄새가 나며 처음에는 가렵고 나중에는 아픔.
첨외번족(尖外翻足) [병증] : 재활 첨외반족과 같이 쓰임. 첨족과 외반이 병합된 상태.
첨족(尖足) [병증] : 재활 발꿈치 및 족부의 변형을 가리키는 말로 발끝이 지면을 향하게 변형된 상태.
첨증(添症) [병리] ⇒ 차증(次症)
첩근(輒筋)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3)로서 연액(淵腋) 앞쪽 1촌에 위치.
첩면법(貼棉法) [침구] : 침구 화관법(火罐法)의 일종. 면괴(棉塊)를 알코올에 담갔다가 관내벽(罐內壁)의 상, 중단에 첩부(貼付)하여 점화해서 시치(施治) 부위에 쓰워 흡착시키는 부항법.
첩모도입(睫毛倒入) [병증] ⇒ 도첩권모(倒睫拳毛)
첩모도자(睫毛倒刺) [병증] ⇒ 도첩권모(倒睫拳毛)
첩약(貼藥) [약물] : 방제 한약 제형의 하나.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한 것으로서 전제(煎劑)로 쓸 수 있도록 한 것.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으로 한다.
청감피(靑柑皮) [약물] ⇒ 청피(靑皮)
청광안(靑光眼) [병증] ⇒ 녹풍내장(綠風內障)
청궁(聽宮)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19)로서 귀구슬(이주; Tragus) 앞 한 가운데로 입을 벌렸을 때 오목한 곳이 생기는 곳에 위치.
청규(淸竅) [해부] : 머리와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등 구멍을 통틀어 이르는 것.
청규피몽증(淸竅被蒙證) [병증] ⇒ 기폐증(氣閉證)
청기(淸氣) [생리] : 생리 ① 음식물에서 흡수된 가볍고 맑은 기운. ② 대기.
청기법(淸氣法) [치법] : 기분(氣分)의 열을 제거하는 방법.
청기불승증(淸氣不升證) [병증] ⇒ 청양불승증(淸陽不升證)
청냉연(淸冷淵)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11)로서 팔을 굽혔을 때 천정(天井) 위 1촌에 위치.
청대(靑黛) [약물] : 본초 쥐꼬리 망초과(爵床科 : Acanthaceae)에 속한 마람(馬藍) *Baphicacanthus cusia*(Nees) Bremek과 마디풀과(蓼科 : Poygonaceae)에 속한 요람(蓼藍) *Polygoum*

ㅊ

tinctorium Ait. 및 십자화과(十字花科 : Cruciferae)에 속한 송람(菘藍) *Isatis indigo tica* Fort.의 잎이나 경엽(莖葉)을 가공하여 얻은 분말이나 덩어리로, 여름과 가을에 경엽의 생장이 무성할 때 채취하여 2~3일 동안 맑은 물에 담가 잎이 부풀어 올라 떨어질 정도가 되면 가지를 건져내고 잎과 석회를 10 : 1의 비율로 넣고 휘저어 섞어 침액이 오록색(烏綠色)에서 자홍색으로 변하면 액면(液面)의 거품을 걷어내고 햇볕에 말려 사용.

청대하(靑帶下) [병증] 동 부인청후(婦人靑候) : 부인 질에서 청록색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배출되는 것. 이는 대부분 출산 후에 포맥(胞脈)이 허한 틈을 타서 습탁예사(濕濁穢邪)가 침입하거나, 간경(肝經)의 습열(濕熱)이 하주(下注)하여 임맥을 손상시켜 발생한다.

청령(靑靈)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2)로서 겨드랑 중앙의 극천(極泉)과 팔꿈치 횡문 끝의 소해(少海) 사이를 9촌의 골도법으로 하여 소해(少海) 위 3촌 부위로 위팔두갈래근(상완이두근; Biceps)에 위치.

청룡파미(靑龍擺尾) [침구] [기공] 동 청룡파미법(靑龍擺尾法), 파미법(擺尾法) : 침구 ① 침을 꽂아 득기(得氣)한 후 병이 있는 곳을 향하여 침을 비스듬히 기울여 주고 있다가 좌우로 서서히 침 자루를 흔들어 주는 침자수기법(鍼刺手技法). ② 기공(氣功)을 수련하는 방법의 하나로 두 팔을 앞으로 향하였다가 두 손바닥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서서히 흔들어 주는 방법.

청룡파미법(靑龍擺尾法) [침구] [기공] ⇒ 청룡파미(靑龍擺尾)

청리법(淸利法) [치법] : 치료법의 일종.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습열(濕熱)을 없애는 방법.

청이열이강표음(淸裏熱而降表陰)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에 나오는 용어로, 소양인비수한표한병(少陽人脾受寒表寒病)의 치법에 해당하는 용어. 소양인은 신국음기(腎局陰氣)가 열사로 인하여 내려 앉고 비국음기(脾局陰氣)가 열사로 인하여 막혀 하강할 수 없어 신국에 이어서 접하게 되고 하여 여간(膂間)에 응체하여 음기(陰氣)가 하강하지 못할 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청맹(靑盲) [병증] : 안이 시력이 점차 하강하여 최후에는 실명(失明)하게 되나 외형으로 동신(瞳神)에 이상이 없고 외장(外障)이 없는 것.

청맹내장(靑盲內障) [병증] : 안이 시력저하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실명(失明)에 이르게 되는 내장(內障)질환으로 보통 외관상의 변화는 없다.

청목향(靑木香) [약물] 동 마두령근(馬兜鈴根) : 본초 쥐방울과(馬兜鈴科 : Aristoloch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의 근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마두령 *A. debilis* Sleb. et Zucc.의 근을 기원으로 한다.

청몽석(靑礞石) [약물] 동 녹니석(綠泥石), 몽석(礞石) : 본초 변질암류(變質岩類)에 속한 흑운모편암(黑雲母片岩) 혹은 녹니석화운모탄산염편암(綠泥石化雲母炭酸鹽片岩)을 채취하여 니사(泥沙)와 잡석(雜石)을 제거한 것.

청법(淸法) [치법] ⇒ 청열법(淸熱法)

청사독(靑蛇毒) [병증] : 안이 옹저의 일종. 하퇴두부하(下腿肚部下-膀胱經)에서 발생하여 형상이 2~3촌 가량으로 뱀 형상과 같다.

청상자(靑葙子) [약물] 동 계관현(鷄冠莧) : 본초 비름과(莧科 : Amaranth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개맨드라미 *Celosia argentea* L.의 성숙한 종자로, 가을철에 열매가 성숙했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청소두(靑小豆) [약물] ⇒ 녹두(綠豆)

청숙하강(淸肅下降) [생리] ⇒ 숙강(肅降)

청심(淸心) [치법] : 열사(熱邪)가 심포(心包)에 침입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

청심개규(淸心開竅) [치법] ⇒ 양개법(凉開法)

청양(淸陽) [생리] [사상] : 생리 가볍고 맑으며 상승하는 기운.
청양불승(淸陽不升) [병리] : 병리 비주승청(脾主升淸)의 기능이 실조(失調)된 병리상태. 음식부절(飮食不節), 과로(過勞) 및 구병(久病) 등으로 비기(脾氣)가 손상되어 비위(脾胃)의 승강(升降)이 실조(失調)되어 나타나므로 비허(脾虛)의 병기와 유관하다. 비기(脾氣)가 청양(淸陽)을 상승(上升)시키지 못하면 두부(頭部), 기육(肌肉), 사지(四肢) 및 관련 장기를 온양(溫養)하지 못하며, 아울러 운화실조(運化失調)와 중기하함(中氣下陷)이 주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청양불승증(淸陽不升證) [병증] 동 청기불승증(淸氣不升證) : 병리 비(脾)의 운화기능이 상실되어 비기(脾氣)가 청양(淸陽)을 상승시키지 못하여 두부(頭部), 기육(肌肉), 사지(四肢) 및 관련 장기를 온양(溫養)하지 못해 생기는 증. 그 증상은 두훈목현(頭暈目眩), 기단나언(氣短懶言), 곤권핍력(困倦乏力), 복창설사(腹脹泄瀉) 등이 주증이고, 청각실조(聽覺失調), 기수(嗜睡), 식욕부진(食欲不振) 등이 차증이며, 설담(舌淡), 태박백(苔薄白), 맥약혹허(脈弱或虛)하다.
청열(淸熱) [치법] ⇒ 청열법(淸熱法)
청열법(淸熱法) [치법] 동 청열(淸熱), 설열(泄熱), 청법(淸法), 청열약(淸熱藥) : 방제 한량(寒凉)한 약물을 사용하여 화열증(火熱證)을 깨끗이 제거하는 치료법.
청열약(淸熱藥) [치법] ⇒ 청열법(淸熱法)
청영(淸營) [치법] 동 청영설열(淸營泄熱) : 영분(營分)에 있는 열성병사(熱性病邪)를 제거하는 방법.
청영설열(淸營泄熱) [치법] ⇒ 청영(淸營)
청정곽(淸淨廓) [진찰] ⇒ 혈륜(血輪)
청조(淸燥) [치법] 동 양조(凉燥) : 윤조법(潤燥法)의 하나. 조열(燥熱)을 외감하여 폐(肺)가 손상된 것을 치료하는 방법.
청지(靑芝) [약물] ⇒ 영지(靈芝)
청체(淸涕) [증상] : 내과 맑은 콧물을 흘리면서 재채기를 하는 증상.
청초법(淸炒法) [포제] : 본초 보조 재료를 넣지 않고 약재만 용기에 넣고 볶는 방법으로 볶는 정도에 따라 초황(炒黃), 초초(炒焦), 초탄(炒炭)으로 나뉜다.
청퇴아감(靑腿牙疳) [병증] : 안이 대퇴(大腿)가 청색을 띠면서 종대되며 운편(雲片)의 형상을 이루고, 색깔은 가흑(茄黑)과 같고 기육(肌肉)이 단단해져서 보행이 불편하고 또한 아감(牙疳)을 형성하여 부식출혈(腐蝕出血)되는 병증.
청풍(靑風) [병리] [병증] : 안이 오풍내장의 하나. 녹풍(綠風)에 비해 병세가 비교적 가벼우며 만성적인 것.
청피(靑皮) [약물] 동 황귤피(黃橘皮), 청감피(靑柑皮)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ceae)에 속한 상록 소교목인 귤나무 *Citrus unshiu* Markovich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덜 익은 과피(果皮)로서, 여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후 사용. 중국에서는 귤(橘) *Citrus reticulata* Blanco 과 재배변종을 기원으로 함.
청혈(淸血) [병증] [치법] : ① ⇒ 변혈(便血). ② 선홍색을 띤 하혈(下血). ③ 혈분(血分)의 열을 제거하는 방법.
청호(靑蒿) [약물] 동 초호(草蒿), 취호(臭蒿), 황화호(黃花蒿)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이년생 본초인 개사철쑥 *A. apiacea* Hance의 지상부분으로, 가을철 꽃이 필 때 채취하여 노경(老莖)을 제거한 다음 음건(陰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개똥쑥(黃花蒿) *Artemisia annua* L.을 기원으로 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황화호(黃花蒿)라 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청호의 기원은 황화호가 옳은 것으로 알려졌음.
청화(靑花) [증상] : 안이 안화(眼花)의 일종으

ㅊ

로 눈앞에 푸른빛이 도는 것.
청회(聽會)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로서 귀구슬(이주耳珠; tragus)의 앞 아래부위로 입을 벌릴 때 오목한 곳이 생기는 곳으로 청궁(聽宮) 밑에 위치.
체(涕) [생리] 동 비체(鼻涕) : 생리 ① 콧물. ② 비액(鼻液)·비체(鼻滯).
체(噦) [증상] : 안이 재채기를 말하며 코 안이 가려워 이로 인해 기(氣)가 분출되면서 소리를 내는 것.
체(掣) [증상] : 병리 경풍팔후(驚風八候)의 하나. 양쪽 어깨가 위아래로 떨리는 것.
체구(噦嘔) [병증] : 안이 재채기하면서 토(吐)하는 것.
체기(滯氣) [병증] : 내과 안색이 어둡고 때가 낀 것 같은 것. 습기담탁(濕氣痰濁)이 가로막은 증후로서, 서습(暑濕), 습온(濕溫), 담음(痰飮) 등의 병에서 나타난다.
체산(滯産) [병증] : 부인 산도의 협착과 같은 산모측 요인이나 거대아(巨大兒) 등 태아측 요인에 의해 분만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태아가 산도에 정체되어 분만시간이 지연되는 난산(難産).
체앙(噦鴦) [증상] : 안이 코 안이 가려워 재채기하는 것.
체이(滯頤)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침을 많이 흘려 턱을 적시는 것. 비액(脾液)은 침이며 비(脾)는 입으로 개규(開竅)하고 있는데, 소아의 비기(脾氣)가 허약하여 고섭(固攝) 기능을 상실하거나, 비위(脾胃)에 습열(濕熱)이 쌓여 있다가 입으로 쪄 오르므로 발생한다. 비기가 허약한 경우는 입주위에 맑고 묽은 침을 흘리며 얼굴은 희고 입술은 흐릿하다.
체정(蒂丁) [병증] ⇒ 현옹수(懸癰垂)
체조요법(體操療法) : 재활 허리뼈의 움직임과 피 순환을 좋게 하고, 아울러 복근과 배근을 강화시켜 자세를 바르게 하여 만성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
체침(體鍼) [침구] 동 체침요법(體鍼療法) : 침구 인체 전(全) 부위를 자침(刺鍼) 부위로 하는 침법(鍼法). 국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구침법(分區鍼法)과 상대적으로 쓰이는 용어. 전통적인 침자요법.
체침(滯鍼) [침구] : 침구 침놓는 과정에서 침 끝이 빡빡하여 침을 돌릴 수도 뺄 수도 없는 현상.
체침마취(體鍼痲醉) [침구] : 침구 체침(體鍼)을 이용한 침술마취법.
체침요법(體鍼療法) [침구] ⇒ 체침(體鍼)
체하(滯下) [병증] ⇒ 이질(痢疾)
체형기상(體形氣像)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辨證論〉에 나오는 용어로, 체질진단의 방법 중 외형에 대한 정적관찰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상인의 특징적인 외형과 기상(氣像)을 동시에 포괄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음.
초(焦) [기타] : 오취(五臭)의 하나. 탄내란 화취(火臭)인데, 심(心)과 통하므로 심의 취(臭)라고 함.
초(炒) [포제] : 본초 포제법(炮製法)의 하나. 약재를 솥에 넣고 필요한 만큼 볶는 것. 초(炒)할 때 별도의 보조 재료를 넣지 않는 것을 청초(淸炒)라고 한다. 보조 재료를 가하여 함께 초하는 것으로는 부초(麩炒), 토초(土炒), 미초(米炒), 주초(酒炒), 초초(醋炒) 등이 있다.
초(膲) [병증] : 야윈 것을 말함.
초과(草菓) [약물] 동 초과자(草果子) : 본초 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초과 *Amomum tsaoko* Crevost et Lemaire의 성숙한 과실로,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거나 혹은 저온건조하여 사용.
초과자(草果子) [약물] ⇒ 초과(草菓)
초관(初關) [진찰] ⇒ 풍관(風關)
초두구(草豆蔻) [약물] 동 두구(豆蔻) : 본초 생

ㅊ

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초두구(草豆蔻) *Alpinia katsumadai* Hayata의 성숙한 종자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90%정도 햇볕에 말리거나 혹은 끓는 물로 약간 데치고 50%정도 햇볕에 말린 후 과피(果皮)를 제거하고 종자단(種子團)을 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초생무피(初生無皮)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피부가 없이 태어난 것. 조산으로 발육이 완전하지 못한 것 외에도 부모가 매독을 앓아 유전된 경우에 나타난다. 임상에서는 상반신이나 하반신이 빨갛게 헐고 심하면 자흑색(紫黑色)을 띠며 특히 콧구멍, 항문, 음낭 등 부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산에 의한 경우는 온몸이 붉고 여리고 광택이 있으며 얼굴이 희고 사지가 차가움.

초생부제(初生不啼) [병증] : 소아 난산(難産)하였거나 한기(寒氣)의 침습으로 어린아이의 숨이 막혀 울지 못하는 것. 심하면 숨이 끊겨 죽게 됨. 모두 신생아가 질식한 것에 속한다. 증상이 가벼우면 입술이 청자색(青紫色)으로 변하고 호흡이 미약하며, 심하면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며 호흡이 매우 약한 증상이 나타난다.

초생불뇨(初生不尿) [병증] : 소아 영아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출생 후 36시간 이내에 처음 배뇨를 하게 되고 매일 4~5회에서 점차 10여 회까지 늘다가 1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출생한 지 2일이 지나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신기(腎氣)가 부족하거나 요도의 기형으로 오는 것 외에, 대개 태열(胎熱)이 방광에 울결(鬱結)하거나 태품부족(胎稟不足)으로 방광의 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초생불유(初生不乳) [병증] : 소아 영아가 출생한 지 12시간이 지나도 젖을 빨지 못하는 것.

초생수구법(初生搜口法) [치법] ⇒ 식구법(拭口法)

초생식구(初生拭口) [치법] ⇒ 식구법(拭口法)

초생아구(初生鵝口) [병증] : 소아 신생아, 영아의 설사 및 영양부족 또는 마진의 후기에 발생하는 구강질환으로 입 안의 점막이나 혀에 둥근 하얀 반점이 생기는 병증.

초생아구토(初生兒嘔吐) [병증] : 소아 신생아의 구토. 신생아가 구토부지(嘔吐不止)하는 원인 중에는 출생 후에 입안을 깨끗이 닦지 않아 예오(穢惡)를 삼켜 위내(胃內)에 정류해 있거나, 태전수한(胎前受寒)과 태전수열(胎前受熱) 그리고 임신시 풍한(風寒)을 감수하여 장위(腸胃)를 내침(內侵)하고 중양수조(中陽受阻)로 승강(升降)기능이 실조하여 냉역작토(冷逆作吐)하는 것 등이다.

초생해독법(初生解毒法) [치법] ⇒ 식구법(拭口法)

초오(草烏) [약물] 동 토부자(土附子)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놋젓가락나물 *Aconitum ciliare* Decaisne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괴근으로, 가을에 잎이 말랐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북오두(北烏頭) *Aconitum kusnezoffii* Reichb.를 기원으로 함.

초욕(草蓐) [기타] ⇒ 임산(臨産)

초제(醋製) [포제] : 본초 한약 포제법(炮製法)의 하나. 식초를 보조 재료로 하여 약재를 법제하는 것. 초침(醋浸), 초초(醋炒), 초자(醋煮), 초증(醋蒸), 초쉬(醋淬) 등이 있는데, 수렴작용을 하고 기를 잘 통하게 하며, 분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초조(初潮) [생리] : 부인 초경(初經).

초중증(初中證) [병증] ⇒ 졸중(卒中)

초지(初持) [진찰] : 진단 진맥(診脈)을 시작하는 행위를 가리킴.

초창(椒瘡) [병증] 동 사안(沙眼) : 안이 만성 여포성(濾胞性) 질환으로 안포내(眼胞內)에 미세한 과립상의 병변이 생기는데 그 형상이 초

ㅊ

화(椒花)와 같아서 붙인 이름. 이후 반흔(瘢痕)을 남기며 각막에도 특이한 변화를 나타내어 실명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tracoma와 유사.
초창효(醋瘡哮) [병증] : 내과 식초로 인해 목에 가래소리(哮)가 나타나는 병증.
초초(炒焦) [포제] : 본초 약물의 표면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내부도 역시 약간 누렇게 될 때까지 볶는 방법. 이 때에는 초황(炒黃)할 때보다 온도를 약간 높이고 시간도 약간 길게 하여야 함.
초탄(焦炭) [포제] ㊎ 초흑(焦黑) : 본초 약물의 표면은 검게 타고 내부는 황갈색으로 될 때까지 볶는 방법.
초호(草蒿) [약물] ⇒ 청호(靑蒿)
초황(炒黃) [포제] : 본초 약물의 표면이 약간 누렇게 되고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초흑(焦黑) [포제] ⇒ 초탄(焦炭)
촉(促) [징후] : 진단 촉맥(促脈)의 약칭. 맥(脈)이 올 때 삭(數)하고 때때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는 것. → 촉맥(促脈)
촉규근(蜀葵根) [약물] ⇒ 황촉규(黃蜀葵)
촉규화(蜀葵花) [약물] ㊎ 백촉규화(白蜀葵花) : 본초 아욱과(錦葵科 : Malvaceae)에 속하는 이년생 초본인 접시꽃 *Althaea rosea* Cavanil의 화(花).
촉맥(促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로 맥(脈)이 급촉(急促)하면서 힘이 있고 간헐적으로 불규칙하게 오는 것.
촉안(觸按) [진찰] ⇒ 촉진(觸診)
촉진(觸診) [진찰] ㊎ 촉안(觸按), 안진(按診) : 진단 손으로 체표를 촉(觸)·모(摸)·안(按)·압(壓)하여 진찰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 안기표(按肌表)·안수족(按手足)·안흉복(按胸腹)·안액부(按額部)·안수혈(按兪穴) 등의 방법을 포괄.
촉초(蜀椒) [약물]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 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초피나무 *Zanthoxy- lum piperitum* A.P. DC., 화초(花椒) *Z. bungea- num* Maxim.와 산초나무 *Z. schinifolium* S. et Z.의 성숙한 과피(果皮)로, 8~10월에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과피만을 취함.
촌(寸) [진찰] : 진단 ① 촌구맥(寸口脈)의 약칭. ② 촌관척(寸關尺) 중의 촌부(寸部).
촌관척(寸關尺) [진찰] ㊎ 촌구맥(寸口脈) : 진단 촌구맥(寸口脈)을 세 부분으로 나눈 명칭. 요골경(撓骨莖)이 돌출한 곳이 관(關)이고, 관의 앞쪽이 촌(寸)이며, 관의 뒤쪽이 척(尺)임. 촌관척 세 부분의 맥박을 각기 촌맥(寸脈), 관맥(關脈), 척맥(尺脈)이라 한다.
촌구(寸口) [진찰] ㊎ 기구(氣口), 맥구(脈口) : 진단 양손의 요골(橈骨) 부분 안쪽에 맥(脈)이 뛰는 부위.
촌구맥(寸口脈) [진찰] ⇒ 촌관척(寸關尺)
촌구맥진법(寸口脈診法) [진찰] ⇒ 촌구진법(寸口診法)
촌구진법(寸口診法) [진찰] ㊎ 촌구맥진법(寸口脈診法), 기구진법(氣口診法) : 진맥 방법의 하나. 촌관척(寸·關·尺) 세 부위에서 부중침(浮·中·沈)의 세기로 맥을 짚는 것을 말함. → 촌관척(寸關尺), 부중침(浮中沈)
촌맥(寸脈) [진찰] : 진단 촌구맥(寸口脈) 삼부(三部)의 하나. → 촌관척(寸關尺)
총백(葱白) [약물] ㊎ 파뿌리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파 *Allium fistulosum* Linne의 신선한 뿌리.
총안(總按) [진찰] : 진단 세 손가락으로 동시에 촌(寸)·관(關)·척(尺) 세 부위를 눌러 맥상(脈象)을 헤아리는 방법.
총자(叢刺) [침구] ㊎ 총침(叢鍼) : 침구 ① 도침요법(陶鍼療法)에서 쓰는 8종 침자요법(鍼刺療法)의 하나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점자(點刺)하는 것. ② 봉침요법(蜂鍼療法)에서 쓰는 자침방법(刺鍼方法)으로 시술할 부위가 좁거

나 압통점이 비교적 넓지 않은 곳에 집중적으로 총총히 대여섯 곳을 직자법(直刺法)이나 발침자법(拔鍼刺法)으로 자침하는 방법.
총침(叢鍼) [침구] ⇒ 총자(叢刺)
촬구(撮口) [병증] 동 구긴(口緊), 촬구풍(撮口風) : 소아 제풍삼증(臍風三證)의 하나. 입술이 오그라들어 물고기 입처럼 오므라드는 것이 주증. 모체의 장부에 열이 있어 태아의 심(心)과 비(脾)를 작열(灼熱)한데다가 생후에 풍사(風邪)의 침습(侵襲)을 받아 생긴다. 일반적으로 젖을 빠는데 장애가 되며 혀가 굳고 입술이 푸르며 얼굴이 적황색(赤黃色)이고 입에 담연(痰涎)이 가득하며 호흡이 촉박하고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음. 심하면 배에 핏줄이 나타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신열(身熱)이 나며 잘 놀라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증상이 있다.
촬구풍(撮口風) [병증] ⇒ 촬구(撮口)
최기(催氣) [침구] 동 최기기법(催氣技法) : 침구 침을 놓을 때 여러 가지 자극 수법을 사용하여 침감(鍼感)이 빨리 나타나도록 촉진시키는 방법.
최기기법(催氣技法) [침구] ⇒ 최기(催氣)
최산(催産) [치법] 동 최생(催生), 최산제(催産劑) : 부인 해산할 때 임부에게 약을 먹여 해산이 쉽고 빠르도록 하는 것.
최산제(催産劑) [치법] ⇒ 최산(催産)
최생(催生) [치법] ⇒ 최산(催産)
최유(催乳) [치법] 동 통유(通乳), 하유(下乳), 하유즙(下乳汁), 최유제(催乳劑) : 부인 산후에 젖이 모자라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
최유제(催乳劑) [치법] ⇒ 최유(催乳)
최토(催吐) [치법] ⇒ 토법(吐法)
최토법(催吐法) [치법] ⇒ 토법(吐法)
최토약(催吐藥) [치법] ⇒ 토법(吐法)
추(推) [진찰] : 진단 맥진(脈診)할 때 사용되는 운지법(運指法)의 하나. 손가락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내외(內外)로 추측(推測)하는 것으로 규(芤)·혁(革) 등의 맥을 진찰하는데 사용. → 운지(運指)
추각(皺脚) [병증] : 부인 경도의 임신종창(妊娠腫脹)의 하나로 양 다리가 붓고 피부가 두꺼운 것.
추골전위(椎骨轉位) [병증] : 재활 변위는 정상적인 위치에서의 이동을 말하는데, 추골의 전위는 중심축을 극돌기에 두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변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표시한다.
추기법(推氣法) [침구] : 침구 침을 자입(刺入)한 뒤 재빨리 밖으로 끌어 올려 사(瀉)하는 침수기술(鍼手技術).
추나(推拿) [추나] 동 파근(播筋), 교마(喬摩), 안마(按摩), 안교(按蹻), 안올(按扤), 안올(案抏), 교인(矯引), 안마추나(按摩推拿), 추나법(推拿法), 추나기법(推拿技法) : 재활 의사가 손이나 상지(上肢)로 환자의 운동을 돕는 의료기술. 기혈조화(氣血調和), 경락소통(經絡疏通), 신진대사촉진(新陳代謝促進), 저항력제고(抵抗力提高), 국부혈액순환(局部血液循環) 및 영양상태개선(榮養狀態改善) 등의 작용을 한다. '추(推)'란 손으로 밀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나(拿)'란 양손이나 한 손으로 환부를 잡고 손힘의 경중 여부를 참작하여 천천히 제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추나17법(推拿17法) [추나] : 재활 추나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각종 기교와 동작. 여러 가지 형식의 시술 방법을 통해 혈위(穴位)를 자극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안날(按捏)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안법(按法), 압법(壓法), 점법(點法), 마법(摩法), 날법(捏法) 등이 있고, 마찰을 위주로 하는 것은 평추법(平推法), 찰법(擦法), 마법(摩法), 차법(搓法), 유법(揉法) 등이 있으며, 지체진동(肢體振動)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는 박법(拍法), 두법(抖法) 등이 있고 지체관절(肢體關節)의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는 요법(搖法), 반법(扳法), 인신법(引伸法) 등이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응용한다.

ㅊ

추나기법(推拿技法) [추나] ⇒ 추나(推拿)
추나법(推拿法) [추나] ⇒ 추나(推拿)
추뉵법(推扭法) [추나] ⇒ 육법(扭法)
추둔납과법(推臀拉踝法) [치법] : 재활 둔부를 눌러 고정시킨 다음 족과(足踝) 부위를 당겨서 견인하는 방법.
추말(麤末) [포제] ⇒ 조말(粗末)
추모(秋毛) [징후] : 진단 사시맥(四時脈)의 일종으로 가을의 정상적인 맥(脈)을 가리킴. → 추맥여모(秋脈如毛)
추반수법(推扳手法) [추나] : 재활 추나수법의 일종으로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근육 및 관절의 이완을 도모하는 수법.
추법(推法) [추나] :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시술자가 손끝이나 대어제부(大魚際部), 소어제부(小魚際部) 및 장근부(掌根部) 등으로 환자의 손상부위의 경중, 손상 범위의 대소 및 환자의 체격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부위에 적당한 힘을 가하여 전후, 좌우 등 직선 방향으로 미는 기법을 추법이라고 한다. 추법에는 지추법(指推法), 장추법(掌推法), 주추법(肘推法)이 있고, 한 손으로 밀면 단수추법(單手推法), 두 손으로 밀면 쌍수추법(雙手推法), 두 손을 겹쳐서 밀면 쌍수중첩추법(雙手重疊推法)이라고 하며, 의사의 접촉부위에 따라 모지추법(拇指推法), 어제추법(魚際推法), 장근추법(掌根推法), 주추법(肘推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추상(墜傷) [병증] ⇒ 소산(小産)
추요관각법(推腰板脚法) [추나] : 재활 환자의 요추를 밀면서 최대한도로 선전시키거나 신전시키고 일정한 한도에 이르면 두 손을 순간적으로 교차하여 힘을 가하면서 다리를 당기는 방법.
추요관견법(推腰板肩法) [추나] : 재활 환자의 요추를 밀면서 최대한도로 선전시키거나 신전시키고 일정한 한도에 이르면 두 손을 순간적으로 교차하여 힘을 가하면서 어깨를 당기는 방법.
추정안(墜睛眼) [병증] : 안이 풍한(風寒)이 동인(瞳人)에 침범하여 안대(眼帶)를 공격하고 동인(瞳人)이 견인되어 하향(下向)하는 것.
추침(推鍼) [침구] : 침구 시침(鍉鍼). 구침(九鍼)의 하나. 3촌(寸) 5푼(分)의 길이로 침체(鍼體)가 약간 크고 굵으며 침두(鍼頭)는 기장이나 조처럼 둥글면서 약간 뾰족하다. 경맥(經脈)을 눌러 도기화혈(導氣和血)시키는데 사용.
추타(墜墮) [병증] : 재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손상을 입는 것.
추태(墜胎) [병증] ⇒ 타태(墮胎)
추판수법(推板手法) [추나] : 재활 추나수법 명. 손가락으로 기육을 세게 누르고 근치유와 수직방향에서 앞쪽으로 밀면서 누르거나 뒤쪽으로 잡아당겨 경련하는 기육이 풀어지도록 하는 것. 연조직손상, 경련, 유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통(酸痛) 등의 증상을 치료.
추풍(抽風) [병증] ⇒ 축닉(搐搦)
추휵(抽搐) [병증] ⇒ 축닉(搐搦)
축근(縮筋) [병증] ⇒ 근축(筋縮)
축닉(搐搦) [병증] 동 추축(抽搐), 추풍(抽風) : 소아 팔다리가 펴지고 뒤틀어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추동(抽動)이 멈추지 않는 병증. 축닉(搐搦)은 일반적으로 외감열병(外感熱病), 간(癎), 파상풍 등의 병증에서 발생된다.
축빈(築賓)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9)로서 음유맥(陰維脈)의 극혈(郤穴)에 해당하고 무릎 횡문 안쪽 끝에서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까지를 1척 3촌의 골도법에 의하여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위 5촌으로 장딴지근(비복근; gastocnemius)과 가자미근(평근鮃筋; soleus)의 중간에 위치.
축수(蓄水) [병리] : 내과 태양병(太陽病)이 낫지 않고 사열(邪熱)이 태양부(太陽府)로 들어가 방광 기화(膀胱 氣化)에 문제를 일으켜 소변불리(小便不利)가 나타나는 병리.

축수(逐水) [치법] 동 축수법(逐水法) : 하법(下法)의 일종. 사수(瀉水)작용을 하는 준열(峻烈)한 약물로 수종실증(水腫實證)을 치료하는 방법.
축수법(逐水法) [치법] ⇒ 축수(逐水)
축수증(蓄水證) [병증] : 내과 태양부증(太陽府證)의 하나로 소변불리(小便不利), 소복만미열(小腹滿微熱), 소갈(消渴), 음수즉토(飮水卽吐)가 나타나는 병증.
축어(逐瘀) [치법] ⇒ 파혈(破血)
축어약(逐瘀藥) [치법] ⇒ 파혈(破血)
축어활혈(逐瘀活血) [치법] : 재활 외부의 손상이나 혈맥(血脈)의 순환 저체(循環沮滯)로 인해 나타난 병리적 산물인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방법.
축월양태(逐月養胎) [기타] 동 시월양태(十月養胎), 축월양태법(逐月養胎法) : 부인 장부경락의 이론에 근거하여 태아의 발육상태를 설명한 것. 즉, 임신 1개월에는 족궐음간경이, 임신 2개월에는 족소양담경이, 임신 3개월에는 수궐음심포경이, 임신 4개월에는 수소양삼초경이, 임신 5개월에는 족태음비경이, 임신 6개월에는 족양명위경이, 임신 7개월에는 수태음폐경이, 임신 8개월에는 수양명대장경이, 임신 9개월에는 족소음신경이, 임신 10개월에는 족태양방광경이 태아 발육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임신 경과 및 치료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축월양태법(逐月養胎法) [기타] ⇒ 축월양태(逐月養胎)
축유(祝由) [기타] ⇒ 주문법(呪文法)
축유법(祝由法) [기타] ⇒ 주문법(呪文法)
축태(縮胎) [치법] ⇒ 수태(瘦胎)
축혈(蓄血) [병리] [병증] 동 축혈(畜血), 축혈증(蓄血證) : 내과 혈액의 순환장애로 인해 혈관 내나 기관 내에 어혈(瘀血)이 축적된 것. 희망(喜忘-或迷忘) 발광(發狂)하며 신황(身黃) 변흑(便黑)하고 혹은 담구(痰嘔) 조갈(燥渴)하며 혼궤미망(昏憒迷忘)하고 병이 주간에는 경하며 야간에는 중하고 조갈(燥渴)하여 탕수(湯水)를 요구하면서도 함수(含漱)만 하고 연하(嚥下)하지는 않는 등의 병증.
축혈(畜血) [병리] [병증] ⇒ 축혈(蓄血)
축혈증(蓄血證) [변증] ⇒ 양명어혈증(陽明瘀血證)
축혈증(蓄血證) [병리] [병증] ⇒ 축혈(蓄血)
축황(竺黃) [약물] ⇒ 천축황(天竺黃)
춘피(椿皮) [약물] ⇒ 저백피(樗白皮)
춘현(春弦) [징후] : 진단 사시맥(四時脈)의 일종으로 봄철의 정상적인 맥(脈)을 가리킴. → 춘맥여현(春脈如弦)
출구(出臼) [병증] ⇒ 탈구(脫臼)
출침(出鍼) [침구] ⇒ 발침(拔鍼)
출침법(出鍼法) [침구] ⇒ 발침(拔鍼)
충개(蟲疥) [병증] : 안이 간경(肝經)의 풍(風)에 기인하여 가려움은 아주 심하지만 통증은 없는 개창(疥瘡).
충격파(衝擊波) [진찰] : 진단 percussion wave. 맥파주기에서 동맥내압이 최대가 되는 점 또는 동맥용적이 최대가 되는 점.
충고(蟲蠱) [병리] ⇒ 고충(蠱蟲)
충기(衝氣) [병리] [병증] : 병리 충맥(衝脈)의 기가 위로 역행하는 질환. 대부분 음사(飮邪)가 안에 잠복하여 있고 신양(腎陽)이 허쇠하여 충맥의 기가 음(飮)을 끼고 위로 역행함으로써 발생한다. 기가 아랫배에서 가슴과 인후로 치받치고 아울러 손발이 궐역(厥逆)하며 배뇨가 어렵고 맥이 침미(沈微)하며 얼굴에서 취한듯한 열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눈이 아른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충두통(衝頭痛) [병증] : 내과 뒷머리와 양미간이 아픈 두통.
충맥(衝脈) [경락] 동 경맥지해(經脈之海), 십이경맥지해(十二經脈之海), 태충맥(太衝脈) : 경혈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이 맥은 아랫배에

ㅊ

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서 회음부로 나오고, 위로 향하여 등골의 속으로 흐르며, 그 중에서 밖으로 흐르는 것은 기충(氣衝)혈 부위를 지나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과 만나고, 배의 양쪽을 따라 위로 인후(咽喉)에 이르고 입술을 휘감는다.

충문(衝門)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2)로서 곡골(曲骨) 양쪽 4촌에 위치.

충병(蟲病) [병증] : 내과 제충(諸蟲)으로 인한 병증.

충복(沖服) [기타] : 방제 복약법의 일종. 몇몇 약물들은 달이지 않고 먼저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달여진 탕약을 부은 다음 잘 섞어서 복용하는데, 이를 충복(沖服)이라 함.

충수교상(蟲獸咬傷) [병리] : 병리 충수교상(蟲獸咬傷)은 독사(毒蛇), 맹수(猛獸), 광견(狂犬) 혹은 독충(毒蟲) 등에 물리거나 쏘여서 생긴 손상. 가벼운 경우에는 출혈(出血), 피육손상(皮肉損傷), 동통(疼痛)을 일으키고, 중한 경우에는 독사(毒邪)가 혈맥을 통하여 전신에 파급되어 혼미(昏迷), 발열(發熱), 추축(抽搐), 정신실상(精神失常) 등과 같은 전신성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충심(衝心) [병리] : 병리 ① 기상충심(氣上衝心). 한 가닥의 기(氣)가 하복부(下腹部)에서 심흉부(心胸部)로 상충(上衝)함을 환자가 자각하는 증상. 대개는 한사(寒邪)가 하초(下焦) 및 위장(胃腸)을 침범했거나 혹은 간위(肝胃)의 기(氣)가 상역(上逆)한 소치임. ② 패혈충심(敗血衝心). 산후(産後)에 오로(惡露)가 불하(不下)하므로, 발열(發熱)하고, 고함치며 광언(狂言)하고, 심하면 발광분주(發狂奔走)하는 등의 정신증상을 나타내는 것.

충심통(蟲心痛) [병증] : 내과 벌레가 요동하여 발생하는 심통(心痛). 충교심통(蟲蛟心痛).

충양(衝陽)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42)로서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발등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동맥이 뛰는 곳에 위치.

충양맥(衝陽脈) [진찰] 동 부양맥(趺陽脈) : 진단 절진(切診) 부위의 하나로, 충양혈(衝陽穴) 주변의 박동(搏動)처. 주로 비위(脾胃)의 성쇠를 판단.

충위자(茺蔚子) [약물] 동 익모초자(益母草子)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익모초 *Leonurus sibiricus* L.의 과실을 건조한 것으로 8~10月에 과실이 성숙하였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충임불고(衝任不固) [병리] : 병리 비위(脾胃)가 허약해져 기혈이 제대로 화생(化生)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임맥(衝任脈)의 기혈(氣血)이 줄어들어 여자포(女子胞)로 가는 기혈(氣血)이 부족해지는 것. 포중(胞中)의 기(氣)가 허해지면 고섭(固攝)이 무력해지고, 기(氣)가 혈(血)을 고섭(固攝)하지 못하면 월경이 제 때보다 일찍 시작되고, 심하면 붕루(崩漏)가 나타난다. 기(氣)가 정(精)을 고섭(固攝)하지 못하면 임신하기가 어렵고 만약 임신하더라도 쉽게 유산한다. 포중(胞中)의 혈(血)이 허해지면 유양(濡養)을 잃게 된다. 혈(血)이 적어지면 월경(月經)이 늦게 시작되면서 양이 적어지고 색이 묽어지며 월경 후 소복부(少腹部)가 빈듯한 느낌이 들고 심하면 폐경(閉經)케 된다. 혈(血)이 태(胎)를 기르기에 부족하면 임신이 쉽지 않으며, 임신하더라도 쉽게 유산한다. 비록 태아가 장성(長成)하더라도 마르고 약하다.

충임불고증(衝任不固證) [병리] 동 포궁기혈양허증(胞宮氣血兩虛證) : 병리 충임불고(衝任不固)로 인한 증.

충임어결증(衝任瘀結證) [변증] ⇒ 충임어조증(衝任瘀阻證)

충임어조증(衝任瘀阻證) [변증] 동 충임어결증(衝任瘀結證), 포궁기체혈어증(胞宮氣滯血瘀

證) : 병리 정지손상(情志損傷)으로 인해 간(肝)의 소설(疏泄)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해 충임맥(衝任脈)의 기능이 실조되어 어혈(瘀血)이 발생한 병증. 월경부조(月經不調), 월경 전 소복통(少腹痛,) 경행불창(經行不暢)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어괴(瘀塊)가 많이 나타난다. 산후에 숙혈(宿血)이 포중(胞中)에 머물러 있으면 소복동통(少腹疼痛)과 함께 출혈이 그치지 않는다.

충임열증(衝任熱證) [변증] 동 포궁열증(胞宮熱證) : 병리 열사(熱邪)가 포궁(胞宮)을 침범하거나 음허화왕(陰虛火旺)한 경우 열박혈망행(熱迫血妄行)으로 출혈성 병증이 나타나는 것. 월경이 빨라지거나 양이 많아지고 짙은 붉은색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붕루(崩漏)가 발생한다.

충임허한증(衝任虛寒證) [변증] 동 포궁한증(胞宮寒證) : 병리 포궁(胞宮)이 한사(寒邪)의 침입을 받았거나 혹은 양허(陽虛)로 온후(溫煦)가 무력해진 병증. 소복냉통(少腹冷痛), 월경부조(月經不調)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경혈(經血) 중에 자암색(紫暗色)의 혈괴(血塊)가 보인다.

충저(衝疽) [병증] 동 중발저(中發疽), 옹신창(壅腎瘡) : 안이 제하(臍下) 3촌, 하완혈(下脘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충적(蟲積) [병증] : 내과 습열울적(濕熱鬱積) 생충(生蟲)하여 적체된 병증.

충풍루출(衝風淚出) [병증] 동 영풍유루(迎風流淚), 영풍누출(迎風淚出), 풍루안(風淚眼) : 안이 영풍누출(迎風流淚), 풍루안(風淚眼)과 유사. 바람에 노출되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눈물의 흐름이 아닌 병적인 상태를 말함.

췌육(贅肉) [병증] ⇒ 비치(鼻痔)

췌자(悴刺) [침구] : 침구 십이자(十二刺)의 일종. 침(鍼)을 붉게 달구어 체표(體表)에 자입(刺入)하는 방법. 비병(痺病)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취(聚) [병리] : 부인 복중에 종괴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취각(脆脚) [병증] : 부인 경도의 임신종창(姙娠腫脹)의 하나. 양 다리가 부으면서 피부가 얇고 번들거리며 탄력이 없어 누르면 그대로 함몰되는 것.

취비증(臭鼻症) [병증] ⇒ 비출취기(鼻出臭氣)

취성장(聚星障) [병증] : 안이 초기에 흑정상(黑睛上)에 미세한 성점(星點)이 출현하여 그것들이 모여서 발생하므로 그 모양을 보고 이름붙인 것. 천증점상각막염(淺層點狀角膜炎)과 유사.

취오동(臭梧桐) [약물] : 본초 마편초과(馬鞭草科 : Verbenaceae)에 속한 누리장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 Thunb.의 어린 가지와 잎으로, 8~10월의 개화 후 또는 6~7월에 개화 전에 어린 가지와 잎을 따서 쇄건(曬乾)하여 사용.

취유(吹乳) [병증] 동 산후취유(産後吹乳) : 부인 유즙이 나오지 않고 뭉쳐서 종통(腫痛)한 것으로 유옹(乳癰)의 초기증상.

취전라(臭甸螺) [병증] 동 난각아(爛脚丫) : 안이 하퇴횡인대주위 각아(下腿橫靭帶周圍 脚丫)에서 발생하여 궤란(潰爛)이 되고 가려움이 극심하고, 삼출물이 배출되면서 비린내와 악취가 나는 옹저.

취정(聚精) [기공] : 재활 기공 또는 명상 그리고 도인안교 등의 방법으로 몸의 신정(腎精)을 축적시키는 것.

취천(聚泉) [기혈] : 경혈 두경부(頭頸部)의 기혈로서 혓바닥 위에서 취혈하고 혀 바닥의 정중앙 점에 위치.

취혈(取穴) [침구] 동 선혈(選穴), 취혈법(取穴法), 취혈술(取穴術), 선혈법(選穴法) : 침구 병세(病勢)에 따라 유효한 혈위(穴位)를 취하는 것.

취혈법(取穴法) [침구] ⇒ 취혈(取穴)

취혈술(取穴術) [침구] ⇒ 취혈(取穴)

ㅊ

취호(臭蒿) [약물] ⇒ 청호(靑蒿)
측격법(側擊法) [추나] : 재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벌려서 약지(藥指) 측면이나 소어제(小魚除) 측면으로 두드리는 수기법.
측맥파(側脈波) [진찰] : 진단 간접측정 방식으로 얻어진 압맥파의 일종. 맥파 전달에 의해 동맥관 내압이 팽창 또는 수축하여 그 압력이 변환기에 전달되는 동시에 혈관 자체가 측방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변화를 기록한 것.
측백엽(側柏葉) [약물] 동 백엽(栢葉) : 본초 측백나무과(側柏科 : Curpressaceae)에 속한 상록 교목인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 Linné의 눈지(嫩枝)와 엽(葉)으로, 여름과 가을에 주로 따서 음건(陰乾)한 후 사용.
측백인(側柏仁) [약물] ⇒ 백자인(柏子仁)
측와(側臥) [기타] : 재활 체위 명. 와위(臥位)의 하나로 옆으로 누운 자세.
치(痓) [병증] ⇒ 유경(柔痙)
치(痔) [병증] 동 치창(痔瘡) : 안이 ① 인체의 구규(九竅)에서 작은 육(肉)이 돌기하는 것을 모두 치(痔)라고 함. ② 각종 항문 질병을 광범위하게 가리킴. 현대에는 치를 직장 하단의 점막 하부와 항관(肛管)피부의 하치정맥(下痔靜脈) 팽창·곡창(曲脹)으로 인해 형성된 정맥류로 인식하는데, 생장 부위에 따라 내치(內痔), 외치(外痔), 혼합치(混合痔) 등으로 나눈다. 평소에 습열(濕熱)이 쌓여 있는데다 매운 것을 과식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혹은 출산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대변비결(大便秘結), 구사(久瀉), 구리(久痢)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치(痓) [병증] ⇒ 경(痙)
치경(痓痙) [병증] ⇒ 경(痙)
치뉵(齒衄) [병증] 동 아뉵(牙衄) : 내과 잇몸에서 피가 나는 병증.
치루(痔瘻) [병증] : 내과 치창(痔瘡)이 진행되어 누(瘻)를 이룬 병증.
치루(痔漏) [병증] : 안이 치창(痔瘡)이 오래 경과한 중에 성생활(性生活)을 삼가지 않아 궤파(潰破)되어 농(膿)이 유출되고 창구(瘡口)가 수렴되지 않는 것.
치루(眵淚) [병증] : 안이 눈곱과 눈물. 염증성 질환시 일반적으로 증가.
치매(痴呆) [병증] ⇒ 매병(呆病)
치병(致病) [병리] 동 발병(發病) : 병리 각종 병인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기는 것. 병인이 인체에 작용한 후에 발병에 이르기까지는 정기(正氣)의 강약, 개인의 타고난 체질적 특징이나 정신상태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치심(侈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 나오는 용어로, 행(行)을 행(行)할 때 견유위의(肩有威儀)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치심(侈心)이 없어야 함. 견(肩)에는 치심(侈心)이 있고 치심은 자존(自尊)이라고 하였음.
치은선로(齒齦宣露) [병증] ⇒ 아선(牙宣)
치은출혈(齒齦出血) [증상] : 내과 잇몸에서 출혈이 되는 증상.
치자(梔子) [약물] : 본초 꼭두서니과(茜草科 : Rubiaceae)에 속한 상록관목인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열매로, 9~11월에 열매가 성숙하여 홍황색(紅黃色)을 띨 때 채취하여 건조 후 사용.
치지(齒遲) [병증] : 소아 오지(五遲)의 하나. 어린아이의 유치는 대략 6~10개월 이내에 나는데, 이가 날 때가 지나서도 나지 않는 것을 치지(齒遲)라고 한다. 대부분 타고난 바탕이 부족하여 신기(腎氣)가 충실하지 못하여 일어난다.
치질(痔疾) [병증] : 항문 안팎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통칭한 것.
치창(痔瘡) [병증] : 안이 항문에 군살이 밖으로 비집고 나오면서 분비물이 생기는 병증.
치창(痔瘡) [병증] ⇒ 치(痔)
치창(恥瘡) [병증] ⇒ 감창(疳瘡)

치충(齒蟲) [병증] ⇒ 아충(牙蟲)
치핵(痔核) [병증] : 안이 치창(痔瘡) 초기에 직장내(直腸內)에 팽만, 압박, 작열 등의 감각이 있고, 심하면 항문 내부 또는 외부에 정맥류성 결절(靜脈瘤性 結節)이 생기는 데 이를 지칭.
치흔설(齒痕舌) [징후] 동 설반치형(舌胖齒形) : 진단 혀의 가장자리에 잇자국이 보이는 것. 설체(舌體)가 부어 치아에 눌려서 발생. 대부분 비(脾)가 허(虛)한 경우다.
칠독(漆毒) [병리] : 병리 옻독. 칠창(漆瘡)을 일으킨다.
칠산(七疝) [병증] : 내과 7종의 산병(疝病)을 합칭한 것. ① 오장산(五臟疝) 및 호산(狐疝) 퇴산(癩疝). ② 궐산(厥疝), 징산(癥疝), 한산(寒疝), 기산(氣疝), 반산(盤疝), 부산(附疝), 낭산(狼疝). ③ 한산(寒疝), 수산(水疝), 근산(筋疝), 혈산(血疝), 기산(氣疝), 호산(狐疝), 퇴산(癩疝).
칠상(七傷) [병증] 동 칠상증(七傷證) : 내과 ① 비상(脾傷)·간상(肝傷)·폐상(肺傷)·신상(腎傷)·심상(心傷)·형상(形傷)·지상(志傷). ② 음부가 찬 것(陰寒), 음경이 발기되지 않는 것(陰痿), 뱃속이 댕기는 것(裏急), 정액이 절로 나오는 것(精漏), 정액이 적은 것(精少), 정액이 희박한 것(精淸), 오줌이 잦은 것(小便數)의 일곱 가지 증상. 혹 음한(陰汗), 정한(精寒), 정청(精淸), 정소(精少), 낭하습양(囊下濕痒), 소변삽삭(小便澁數), 야몽음인(夜夢陰人)의 일곱 가지 증상. 허로증(虛勞證)의 하나.
칠상증(七傷證) [병증] ⇒ 칠상(七傷)
칠성침(七星鍼) [기구] : 침구 피부침(皮膚鍼)의 하나. 침병(鍼柄)의 한쪽 끝에 7개의 작은 침이 북두칠성처럼 꽂혀 있다.
칠신(七神) [생리] : 생리 오신(五神)에 지(智)와 정(精)을 합한 것.
칠악(七惡) [병증] ⇒ 칠악증(七惡證)
칠악증(七惡證) [병증] 동 칠악(七惡) : 안이 옹저의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7가지 증후. ① 정신혼궤(精神昏潰), 심번(心煩), 설건조(舌乾燥), 창색자흑(瘡色紫黑) ② 신체근육강직(身體筋肉强直), 안정부정시(眼睛不正視), 창두(瘡頭)에서 혈수(血水)가 흐르고, 경계(驚悸) ③ 신체수척(身體瘦瘠), 종창함몰견경(腫瘡陷沒堅硬), 불능음식(不能飮食), 악취(惡臭) ④ 피부건조(皮膚乾燥), 담다천성불청(痰多喘聲不淸), 천급이비선동(喘急而鼻搧動) ⑤ 시시음수(時時飮水), 인후건조(咽喉乾燥), 발열동통(發熱疼痛), 안흑(顔黑), 낭축(囊縮) ⑥ 부종(浮腫), 장명(腸鳴), 구애(嘔噯), 설사(泄瀉) ⑦ 창면무피(瘡面無皮), 때때로 오예(汚穢)된 삼출물이 흐르고, 사지궐역(四肢厥逆)하고 한성(寒性)을 발한다.
칠정(七情) [생리] : 생리 오장에 배속되어 있는 노희사우비공경(怒喜思憂悲恐驚)의 일곱 가지 정지.
칠정내상(七情內傷) [병증] : 내과 칠정으로 인해 내부가 손상되는 병증.
칠정설(七情泄) [병증] : 내과 정지(情志)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설사를 하는 병증. 배가 늘 비어 있는데도 막히는 것으로 변을 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고 변을 보아도 시원치 않은 병증.
칠정심통(七情心痛) [병증] : 정신 칠정(七情)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슴부위 통증.
칠정열(七情噎) [병증] 동 우열(憂噎) : 내과 울화(鬱火)로 인해 식후희타(食後喜惰) 상복부은은통(上腹部隱隱痛) 대변비(大便秘) 맥침이색(脈沈而澁)한 병증.
칠진(七診) [진찰] : 진단 ① 맥상(脈象)을 이른다. 구후맥상(九候脈象)의 이상변화를 관찰하여 병변(病變)의 소재를 알 수 있는데, 어느 한 후(候)에만 홀로 소(小)·대(大)·질(疾)·지(遲)·열(熱-활滑)·한(寒-긴緊)·함하(陷下-침복沈伏)에 해당되는 맥상(脈象)이 나타나

ㅊ

면 이는 모두 상응하는 장부(臟腑)에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일후(一候)에 칠맥(七脈) 중의 하나라도 보이면 병맥(病脈)이다. ② 절맥칠법(切脈七法).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신(神)이 존재하도록 하고, 바깥일을 잊어버림으로써 근심을 씻으며, 호흡을 고르게 함으로써 중기(中氣)를 안정시키고, 피부 사이를 가볍게 누름으로써 그 부맥(腑脈)을 찾으며, 기육(肌肉) 사이를 약간 세게 눌러 그 위기(胃氣)를 찾고, 골(骨) 위를 세게 눌러 그 장맥(臟脈)을 찾으며, 위로는 어제(魚際)를 찾고 아래로는 척택(尺澤)을 찾아 그 종시(終始)를 구하는 것.

칠창(漆瘡) [병증] : 안이 칠독(漆毒)에 접촉되어 발생하는 창증(瘡症). 은진(癮疹)과 같은 것이 피부에 나타나고 반진(斑疹)이 궤란(潰爛)되면 삼출물이 흐르면서 통증이 있다.

칠표맥(七表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 분류의 하나. 부(浮)·규(芤)·활(滑)·삭(數)·현(弦)·긴(緊)·홍(洪)의 일곱 가지 맥(脈).

칠피(漆皮) [약물] 동 옻나무껍질 : 본초 옻나무과(漆科 : Anacardiaceae)에 속한 옻나무 *Rhus verniciflua* Stokes의 껍질.

침(針) [기구] ⇒ 침(鍼)

침(鍼) [기구] 동 침(針) : 침구 침자(鍼刺)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 이것을 사용하여 인체에 있는 혈(穴)자리에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

침(浸) [포제] 동 포(泡), 수침포(水浸泡) : 본초 한약 포제법(炮製法)의 일종. 약물을 물에 불리는 것. 예컨대 지각, 작약 등을 물에 불려 사용하면 부드러워져 절편(切片)하기 쉽다. 당귀, 길경 등은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 둔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절편 하는데, 이를 주복(做伏)이라 하고, 도인, 행인 등은 끓는 물에 불려야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 이를 주천(做燀)이라 한다.

침(沈) [징후] : 진단 ① 침맥(沈脈)의 약칭. ② 월경이 침체(沈滯)되어 오지 않는 것. ③ 치창(痔瘡).

침관(鍼罐) [침구] 동 침관법(鍼罐法) : 침구 유침(留鍼)과 부항(附缸)을 놓는 방법을 결합하여 응용한 방법으로 먼저 혈자리에 침을 놓고, 득기(得氣)한 후 침을 꽂아 둔 상태에서 다시 그 위에 부항을 놓는 것.

침관법(鍼罐法) [침구] ⇒ 침관(鍼罐)

침구(鍼灸) [침구] 동 침구요법(鍼灸療法) : 침구 침자(鍼刺) 및 애구(艾灸)의 합칭.

침구요법(鍼灸療法) [침구] ⇒ 침구(鍼灸)

침근(鍼根) [기구]: 침구 침체(鍼體)와 침병(鍼柄)을 연접(連接)하는 부위.

침뇌저(侵腦疽) [병증] : 안이 족태양방광경의 오처혈(五處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침도요법(針挑療法) [침구] ⇒ 도치법(挑治法)

침두보사법(鍼頭補瀉法) [침구] : 침구 침첨(鍼尖)의 방향과 경락 유주방향의 순역(順逆)으로 보사(補瀉)를 결정하는 방법.

침망보사법(鍼芒補瀉法) [침구] ⇒ 자침보사(刺鍼補瀉)

침망행기기법(鍼芒行氣技法) [침구] 동 침향행기법(鍼向行氣法) : 침구 침을 찌르는 방향을 조절하여 침감(鍼感)이 전달되는 방향을 조정하는 방법.

침맥(沈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가라앉아 있어 살짝 눌렀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세게 눌러야만 느껴지는 것.

침미(鍼尾) [기구] 동 정단(頂端) : 침구 침병(鍼柄)의 말단(末端).

침법(鍼法) [침구] 동 자법(刺法) : 침구 침(鍼)으로 체표(體表)의 혈위(穴位)를 자극하여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

침병(鍼柄) [기구] : 침구 침체(鍼體)의 뒷부분.

침석(鍼石) [기구] ⇒ 폄석(砭石)

침수욕(沈水浴) [치법] : 재활 물을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몸을 물에 담그는 방법으

로 전신침수욕, 온천욕, 지속탕욕, 부분침수욕 등이 있음.

침수향(沈水香) [약물] ⇒ 침향(沈香)

침술마취(鍼術痲醉) [침구] ⇒ 침자마취(鍼刺痲醉)

침안(鍼眼) [병증] ㊐ 투침(偸鍼), 토감(土疳), 토양(土瘍) : 안이 안검(眼瞼)의 주변부에 생기는 소절(小癤).

침약관(鍼藥罐) [침구] ㊐ 침약관법(鍼藥罐法) : 침구 침관법(鍼罐法)과 약관법(藥罐法)을 결합시킨 부항요법의 일종.

침약관법(鍼藥罐法) [침구] ⇒ 침약관(鍼藥罐)

침예(沈翳) [병증] : 안이 원예내장의 하나. 백색의 예(翳)가 흑정(黑睛) 속에 감추어져 있으나 햇빛에 자세히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침자감응(鍼刺感應) [침구] ⇒ 득기감(得氣感)

침자마취(鍼刺痲醉) [침구] ㊐ 침술마취(鍼術痲醉) : 침구 일정한 경혈에 침을 찔러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마취방법.

침자보사법(鍼刺補瀉法) [침구] ⇒ 자침보사(刺鍼補瀉)

침자수법(鍼刺手法) [침구] ⇒ 자침기법(刺鍼技法)

침제(鍼劑) [제제] : 방제 약물 제형의 일종. 추출·정제(精製)·배제(配製)를 거쳐 만들어진 멸균용액을 병에 담아 피하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에 사용하는 것. 효과가 신속하고 약물의 결합이 편리하며 소화액이나 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인체 조직에 약효가 작용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한약을 각종 주사액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침첨(鍼尖) [기구] : 침구 침(鍼) 선단(先端)의 뾰족한 부분.

침체(鍼體) [기구] : 침구 침첨(鍼尖)과 침병(鍼柄)의 사이.

침취(沈取) [진찰] : 진단 부, 중, 침(浮中沈)의 일종으로 맥(脈)이 뛰는 부위에 손가락을 세게 누르고 진맥(診脈)하는 것. → 안(按)

침폄(鍼砭) [기구] ⇒ 폄석(砭石)

침풍(侵風) [병증] ⇒ 상검하수(上瞼下垂)

침한고랭(沈寒痼冷) [병증] : 내과 체내 양기가 부족하여 음한(陰寒)한 기운이 오래 머물러 있는 병증.

침향(沈香) [약물] ㊐ 침수향(沈水香) : 본초 팥꽃나무과(瑞香科 : Thymel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침향 *Aquilaria agallocha* Roxb.의 수지(樹脂)가 함유되어있는 목재(木材)로서, 전년(全年)에 걸쳐 채취한 후 수지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제거하고 음건(陰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백목향 *Aquilaria sinensis* (Lour.) Gilg을 기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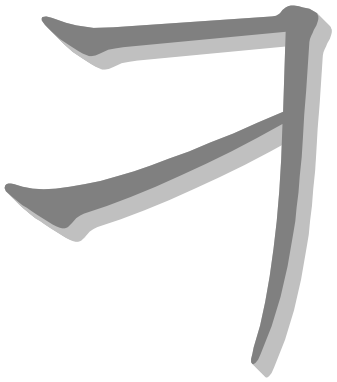
침향(鍼響) [침구] : 침구 치료에 적합한 침자극의 감응(感應).

침향행기법(鍼向行氣法) [침구] ⇒ 침망행기기법(鍼芒行氣技法)

침혈(鍼穴) [경혈] ⇒ 수혈(兪穴)

침훈(鍼暈) [침구] ⇒ 훈침(暈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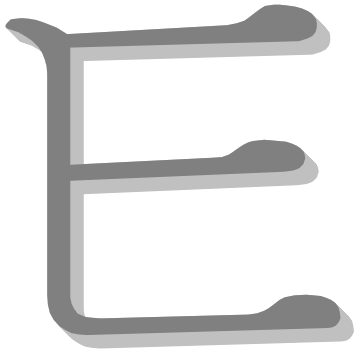
ㅊ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ㅋ

코침요법(코鍼療法) [침구] ⇒ 비침(鼻鍼)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ㅌ

타(打) [추나] 동 타격(打擊) : 재활 격법(擊法)의 일종으로 근육을 두드리는 수기법(手技法)으로 오래된 근상이나 피로손상 부위에 사용.
타격(打擊) [추나] ⇒ 타(打)
타경보사(他經補瀉) [침구] : 침구 오행(五行)의 상생(相生)·상극(相剋) 관계를 이용하여 자경(自經)이 아닌 타경(他經)에서 혈(穴)을 취하여 보사(補瀉)하는 것.
타경오행보사침법(他經五行補瀉鍼法) [침구] : 침구 허즉보기모(虛則補其母), 실즉사기자(實則瀉其子)의 원칙에 따라 허증(虛證)에는 모성경(母性經)의 모혈(母穴)을 보(補)하고 적성경(賊性經)의 적성혈(賊性穴)을 사(瀉)하며, 실증(實證)에는 자성경(子性經)의 자혈(子穴)을 사(瀉)하고 적성경(賊性經)의 적성혈(賊性穴)을 보(補)하는 방법.
타박상(打撲傷) [병증] 동 박상(撲傷), 타상(打傷) : 안이 타(墮), 전도(顚倒), 질박(跌撲), 타박(打撲), 둔(鈍)에 의하여 발생되며, 대개는 피부에 손상이 없고 피하조직 혹은 다른 조직이 상해되어 피하출혈(皮下出血)이 일어난다.
타상(打傷) [병증] ⇒ 타박상(打撲傷)
타태(墮胎) [병증] 동 태락(胎落), 추태(墜胎) : 부인 임신 3개월 이전, 태아가 형상을 갖추기 전에 유산되는 것.
타태화(墮胎花) [약물] ⇒ 능소화(凌霄花)
타혈(唾血) [병증] 동 임신타혈(姙娠唾血) : 내과 선혈(鮮血)이 타액을 따라 배출되는 병증.
탁기불강증(濁氣不降證) [병증] ⇒ 탁음불강증(濁陰不降證)
탁반정(托盤疔) [병증] ⇒ 장심독(掌心毒)
탁법(托法) [추나] : 재활 추나수법의 일종으로 양 손 혹은 한 손으로 환부를 미는 것. 소종산적(消腫散積)하는 효능이 있다. 예를 들면 탁복법(托服法)이 있다.
탁음불강증(濁陰不降證) [병증] 동 탁기불강증(濁氣不降證) : 병리 비위(脾胃)의 양기(陽氣)가 부족하여 운화기능과 강탁(降濁)기능이 상실되어 수곡과 조박(糟粕)이 정상적으로 승강배출(升降排出)되지 않는 증. 그 증상은 흉부비민(胸部痞悶), 애기애역(噯氣呃逆), 오심구토(惡心嘔吐), 완복창만(脘腹脹滿) 등이 주증이고, 두중체곤(頭重體困), 불사음식(不思飮食), 요소변당(尿少便溏) 등이 차증이며, 설태탁이(舌苔濁膩), 맥현활(脈弦滑)하다.
탁체(濁涕) [증상] 동 비류탁체(鼻流濁涕) : 안이 비열(鼻熱)이 심한 경우에 코에서 누렇고 탁한 분비물이 분비되는 것.
탁치(琢齒) [기공] ⇒ 고치(叩齒)
탄(彈) [침구] [추나] ⇒ 탄법(彈法)
탄근법(彈筋法) [침구] : 침구 힘줄을 다듬어 주는 수기법(手技法)의 일종으로 제법(提法)과 탄법(彈法)을 포괄한 것.
탄발법(彈撥法) [추나] ⇒ 발락법(拔絡法)
탄법(彈法) [침구] [추나] 동 탄(彈) : ① 침구 유침(留鍼)과정 중의 일종의 최기기법(催氣技法)으로 조작시에 수지(手指)로써 침미(鍼尾)를 경탄(輕彈)하여 침체(鍼體)를 미세(微細)하게 진동(振動)시켜 득기(得氣)의 감응(感應)을 가강(加强)하는 방법. ② 추나 추나수법 중 하나.

탄법은 한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의 손톱 위에 부착시켰다가 순간적으로 치료부위를 튕겨주는 수법. 튕기는 힘은 균등하게 1분에 약 120~160회 정도로 시술. 두면부나 경항부에 상용함.
탄산(呑酸) [증상] : 내과 위중(胃中)에 신물이 넘치는 증상.
탄석맥(彈石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상(脈象)이 매우 침실(沈實)하여 마치 손가락으로 돌을 튕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맥.
탄성고정(彈性固定) [진찰] : 재활 관절을 타동적으로 움직일 때 볼 수 있는 탄력성 저항과 힘을 풀었을 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으로 관절의 변형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
탄탄(癱瘓) [병증] : 내과 중풍(中風)으로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증. 옛날에는 왼쪽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은 탄(癱),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은 탄(瘓)이라 하였다.
탄풍(瘓風) [병증] ⇒ 반신불수(半身不隨)
탈각유옹(脫殼乳癰) [병증] ⇒ 발유(發乳)
탈골저(脫骨疽) [병증] ⇒ 탈저(脫疽)
탈골정(脫骨疔) [병증] ⇒ 탈저(脫疽)
탈교(脫膠) [병증] ⇒ 탈구(脫臼)
탈구(脫臼) [병증] 동 탈위(脫位), 출구(出臼), 골출(骨出), 탈교(脫膠) : 재활 관절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로, 외상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하며 탈구의 정도에 따라 전탈(全脫)과 반탈(半脫)로 나누며, 탈출 방향에 따라 전, 후, 상, 하 및 중심탈구 등으로 나눈다.
탈기(脫氣) [병리] ⇒ 기탈(氣脫)
탈신(脫神) [병리] [증상] ⇒ 실신(失神)
탈양(脫陽) [병증] ⇒ 망양(亡陽)
탈양증(脫陽證) [병증] ⇒ 망양증(亡陽證)
탈영(脫營) [병증] : 정신 ① 귀한 신분에 있던 자가 갑자기 그 지위를 잃어서 오는 정신적 충격과 갈등이 원인이 되어 오는 증상. ② 정지(情志) 손상으로 야기된 일종의 허로증(虛勞症)을 가리킴. → 탈영실정(脫營失精)
탈영실정(脫營失精) [병증] : 정신 정지내상(情志內傷)으로 영혈(營血)과 정(精)이 소모되어 발생하며, 형체소수(形體消瘦)·정신위폐(精神萎廢)·음식무미(飮食無味)·외한(畏寒)·선경(善驚)·건망(健忘)·사지위폐(四肢萎廢)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탈옹(脫癰) [병증] ⇒ 탈저(脫疽)
탈위(脫位) [병증] ⇒ 탈구(脫臼)
탈음(脫陰) [병리] ⇒ 망음(亡陰)
탈저(脫疽) [병증] 동 각지흑사(脚指黑痧), 탈골저(脫骨疽), 탈옹(脫癰), 탈골정(脫骨疔), 돈옹(敦癰), 갑저(甲疽), 감갑(嵌甲) : 안이 동맥강의 협착이나 혈관내막염에서 기인하여 수족십지(手足十指, 주로 足指間)에서 발생하며, 현대의학의 혈전성 폐쇄성 혈관염(Buerger's Disease)에 해당하는 질환.
탈증(脫證) [병증] 동 중풍탈증(中風脫證) : 내과 ① 중풍 병증 중의 하나.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허증(虛證)인 상태. 심한 혼수상태에서 눈은 감았으나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숨결이 약하고 팔다리가 싸늘하며 힘없이 늘어져 있고 땀을 몹시 흘리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맥박(脈搏) 상태는 세약(細弱). ② 음양기혈(陰陽氣血)이 몹시 허손(虛損)되어 나타나는 증. 구슬같은 땀이 나고 팔다리가 차며 입을 다물고 눈은 감으며 손을 늘어뜨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맥은 미세.
탈한(脫汗) [병증] ⇒ 절한(絶汗)
탈항(脫肛) [병증] : 내과 직장 혹은 직장점막이 항문 외로 탈출되는 병증.
탈혈(脫血) [병증] 동 혈탈(血脫) : 병리 대량 출혈(出血)을 통하여 기(氣)도 혈액의 유실(流失)을 따라 탈산(脫散)하여 형성되는 기혈병탈(氣血幷脫)의 병리상태. 일반적으로 외상실혈(外傷失血), 부녀붕루(婦女崩漏), 혹은 산후출혈(産後出血) 태과(太過) 등에 의해서 발생. 혈(血)은 기(氣)를 싣는 몸이므로 혈탈(血

脫)하면 기(氣)도 역시 혈(血)을 따라 폭탈망실(暴脫亡失)하게 된다. 따라서 혈탈(血脫)하게 되면 기탈양망(氣脫陽亡)의 병리상태가 나타나게 됨.

탈혈증(脫血證) [병증] ⇒ 혈탈증(血脫證)

탐인(貪人)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나오는 용어로, 이제마(李濟馬)가 인추심욕(人趨心慾)을 이야기할 때 비인(鄙人), 나인(懦人), 박인(薄人), 탐인(貪人)으로 설명하며 그 중 기지이식사자(棄智而飾私者)를 탐인(貪人)이라고 하였음.

탐혈법(探穴法) [침구] ⇒ 창귀탐혈(蒼龜探穴)

탕(湯) [제제] ⇒ 탕제(湯劑)

탕세요법(燙洗療法) [치법] : 재활 탕액(湯液)으로 신체의 환부를 세척하는 외용요법.

탕액(湯液) [제제] ⇒ 탕제(湯劑)

탕제(湯製) [포제] ⇒ 탕포(湯炮)

탕제(湯劑) [제제] 동 탕액(湯液), 탕(湯), 탕포(湯泡) : 방제 한약 법제 방법의 하나. 한약재를 고체 보조 재료를 뜨겁게 달군데다 넣고 튀겨내는 것. 고체 보조 재료로는 합분·활석가루·석고가루 등을 씀. 법제 가마에 해당 보조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뜨거워진(120~171℃) 다음 한약 조각을 넣고 빨리 저으면서 튀긴다. 한약 조각이 부풀어 올라 속까지 푸석푸석해지면 불에서 내리고 빨리 체로 쳐서 보조 재료를 갈라낸다. 탕제하면 한약을 가루내기 쉽고 유효성분이 잘 우러나며 맛과 냄새를 좋게 한다.

탕포(湯泡) [제제] ⇒ 탕제(湯劑)

탕포(湯炮) [포제] 동 탕제(湯製) : 본초 법제(法製)방법의 일종. 고체 보조 재료를 뜨겁게 달군데다 약재(藥材)를 넣고 볶는 것. 고체 보조 재로로는 합분(蛤粉), 활석분(滑石粉), 석고말(石膏末) 등을 사용. 법제 가마에 상술한 보조 재료를 넣고 가열(120~170℃)하여 뜨거워진 다음 약재를 넣고 빨리 저으면서 볶는다. 약재가 부풀어 올라 속까지 푸석푸석해지면 꺼내어 신속히 체로 쳐서 보조 재료를 골라낸다. 이 방법은 약재를 분말하기 쉽고 유효성분이 잘 우러나면서 맛과 냄새가 좋게 한다.

태(胎) [생리] : 부인 모체 내에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체(幼體). 일반적으로 임신 2주를 잉란(孕卵)이라 하고, 이후에 각 기관이 형성되면 배태(胚胎)라고 하며, 임신 4개월을 시태(始胎), 임신 6개월을 태아(胎兒)라 한다.

태겁(胎怯) [병증] 동 태수(胎瘦) : 소아 소아의 태품부족(胎稟不足)과 기혈허약(氣血虛弱)을 이르는 말. 출생 후 피부가 얇고 약하며 모발이 나지 않으며 몸과 사지가 차고 얼굴에 혈색이 없으며 몸이 여위고 근골불리(筋骨不利), 요슬산연(腰膝酸軟)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태경야제(胎驚夜啼) [병증] : 소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놀라 생후 밤에 우는 것. 잠을 자다가 놀라 깨며 갑자기 몸을 쭉 뻗고 소리 높여 운다. 한증(寒證)을 겸하고 있으면 새벽녘에 많이 나타나며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눈알을 위로 치뜨며 손발이 오그라든다. 열증(熱證)을 겸하고 있으면 초저녁에 많이 나타나며 몸을 반듯이 하고 누워 땀을 흘리며 낯이 붉고 몸에 열이 난다.

태계(太谿)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3)로서 수토혈(兪土穴),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안쪽복사(족내과; medial malleolus) 꼭지와 아킬레스 힘줄의 사이에 위치.

태고(胎枯) [병증] ⇒ 고태(枯胎)

태과(太過) [병리] : 병리 음양(陰陽)의 성쇠변화(盛衰變化) 중의 하나로 정상보다 크게 지나친 것. 음양의 동태적 평형이 정상 범위의 변화를 벗어나 태과, 불급하는 것은 병리적 측면에서 정기(正氣)의 평형조절력(平衡調節力) 상실을 의미한다.

태교(胎敎) [기타] 동 교태(敎胎) : 부인 선인들이 제시한 임신 기간의 섭양, 기거에 대한 주의

사항으로 임부의 건강을 지키고 태아의 발육불량을 예방하며, 유산 조산 및 난산을 방지하며 심신(心身)이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기 위한 방법.

태구(苔垢) [진찰] ⇒ 설태(舌苔)

태극침법(太極鍼法) [침구] : 침구 사상의학(四象醫學)적 관점에서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에서 취혈하되 대장기(大臟器)의 오행속성(五行屬性)을 억제할 수 있는 속성의 오수혈(五輸穴)을 취하는 침법.

태기(胎氣) [생리] : 부인 ① 임신 기간 중에 태(胎)를 기르는 기(氣). ② 임신 중 부종(浮腫).

태기공심(胎氣攻心) [병리] [병증] : 부인 임신 후에 매운 음식을 과식하여 열독(熱毒)이 태중(胎中)에 쌓임으로 인해 태아가 불안하여 손발을 어지럽게 움직이면서 심(心)을 치받는 것. 변조통고(煩躁痛苦), 양협동통(兩脇疼痛)이 나타난다.

태기불안(胎氣不安) [병증] : 부인 임신불안(姙娠不安)의 뜻으로 임신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 중의 복통과 하혈은 태기불안의 객관적 증거다.

태기상역(胎氣上逆) [병리] [병증] 동 자현(子懸), 태상핍심(胎上逼心), 태역(胎逆) : 부인 임신 후에 태기(胎氣)가 상역(上逆)해서 심흉부(心胸部)를 치므로 인해 흉격창만(胸膈脹滿) 증상이 발생하는 것. 태기가 상역해서 폐(肺)를 압박하면 천촉(喘促) 증상이 수반되기도 한다.

태니(苔膩) [징후] ⇒ 이태(膩苔)

태단(兌端)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27)로서 인중의 아래쪽 끝 중앙에 위치.

태달(胎疸) [병증] 동 태황(胎黃) : 소아 신생아에서 황달이 나타나는 것.

태독(胎毒) [병리] [병증] : 소아 갓난아이가 뱃속에서 받은 독(毒) 기운으로 태어나자마자 생긴 부스럼, 창절(瘡癤), 개선(疥癬), 진두(疹痘)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태독창양(胎毒瘡瘍)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태독에 의해 창양이 생기는 것.

태동(胎動) [병증] : 부인 ① 태아 운동 또는 태기동요(胎氣動搖)의 뜻으로 임신후반기에 태아의 사지운동 및 양수내유영(羊水內遊泳)으로 오는 복중미동(腹中微動) 현상. ② 태기불안에 동반하는 병적인 복통현상.

태동불안(胎動不安) [병증] : 부인 임신 기간 중 갑자기 복통이 생기면서 하혈이 수반되는 증상.

태락(胎落) [병증] ⇒ 타태(墮胎)

태루(胎漏) [병증] ⇒ 누태(漏胎)

태류(胎瘤) [병증] : 소아 갓난아이의 머리나 앞가슴에 검붉은 혹이 생기는 병. 산모의 몸에 열이 뭉친데다 혈이 엉겨 맺히므로 생김. 갓난아이의 머리나 가슴의 젖꼭지 사이에 퍼지지 않고 그대로 응어리가 생기는데, 빛깔은 검붉고 약간 굳으며, 넓게 부으면서 약간 아프고 크기는 여러 가지다.

태만(胎滿) [병증] ⇒ 누태(漏胎)

태명(胎鳴) [병증] 동 자제(子啼), 자명(子鳴) : 부인 임신 중에 복내(腹內)에서 종명(鍾鳴)이 있는 것. 포태(胞胎)가 성장함에 따라 생기는 마찰음 또는 장명(腸鳴), 태아심음(胎兒心音) 등이 이상 증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태기불안(胎氣不安)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태반(胎盤) [약물] ⇒ 자하거(紫何車)

태백(太白)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3)로서 수토혈(兪土穴),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발 안쪽의 종자뼈(核骨; sesamoid bone) 아래 오목한 곳에 위치.

태병(胎病) [병증] : 부인 어머니 뱃속에서 얻은 병이란 뜻으로 태아가 태어날 때부터 전간(癲癎)을 앓는 것.

태부장(胎不長) [병증] 동 태위부장(胎萎不長), 와태(臥胎) : 부인 임신 5~6개월에 복부가 정

ㅌ

상 임신 개월 수에 비해 뚜렷하게 작은 것으로, 태아가 살아 있지만 성장이 느린 경우를 말함.
태비(胎肥)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에 살이 찌고 살색이 온통 붉다가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점차 수척해지는 것. 흰 동자가 분홍색이며 오심열(五心熱)이 있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때로 침을 토한다.
태사복중(胎死腹中) [병증] 동 자사복중(子死腹中), 복중태사(腹中胎死), 사태(死胎) : 부인 태아가 모체의 복중에서 사망한 것.
태산(胎疝) [병증] : 소아 선천적으로 허약하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복(少腹) 아래쪽이 단단하게 뭉쳐 아픈 것. 또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음낭이 부어 커진 병.
태상핍심(胎上逼心) [병리] [병증] ⇒ 태기상역(胎氣上逆)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 [사상] ⇒ 사상인(四象人)
태수(胎嗽) [병증] ⇒ 백일해(百日咳)
태수(胎瘦) [병증] ⇒ 태겁(胎怯)
태수(胎水) [생리] [병증] : 부인 ① [생리] 동 양수(羊水) : 양수(羊水)를 뜻하는 것으로 양막강 안에 차 있는 액체. ② [병증] ⇒ 태수종만(胎水腫滿)
태수불리(胎水不利) [병증] : 부인 임부의 흉복부가 창만(脹滿)하고 변비가 있으며 전신이 붓는 것. 태수종만(胎水腫滿)을 뜻함.
태수종만(胎水腫滿) [병증] 동 자만(子滿), 태수(胎水) : 부인 복창(腹脹)과 천만(喘滿)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임신부종의 한 유형. 임신 5~6개월에 양수가 과다하여 복부 크기가 커지고, 흉격만민(胸膈滿悶)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전신이 붓고 숨이 가빠 눕지 못하는 것.
태식(胎息) [기공] 동 호흡법(呼吸法), 단전호흡(丹田呼吸) : 재활 기공(氣功) 용어. 최근에 태식(胎息)을 단전호흡(丹田呼吸), 제호흡법(臍呼吸法)이라고 함. 연공(練功)할 때 의념(意念)을 단전(丹田)에 모아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기(氣)를 단전으로 빨아들여 기가 단전으로 들어가도록 하며 숨을 들이쉰 후에는 잠시 멈추었다가 내뱉는다. 숨을 내쉴 때는 기가 단전으로부터 나온다고 상상하면서 내쉰 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숨을 들이 쉰다.
태식(太息) [증상] : 내과 한숨 혹 숨을 내쉬는 것을 위주로 하는 심호흡.
태심(怠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 나오는 용어로, 중인(衆人)의 함어제복(頷臆臍腹)과 두견요둔(頭肩腰臀)에 사심(私心)과 태심(怠心)이 무쌍(無雙)이라고 함. 지행(知行)에서 행(行)을 행하는 데에 태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태심(怠心).
태양(太陽) ① [기혈] : 경혈 경외기혈(經外奇穴). 눈꼬리와 눈썹 바깥 끝을 이은 선의 중선에서 후방으로 1촌 뒤에 위치. ② [생리] 동 거양(巨陽), 대양(大陽) : 양이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는 단계.
태양경(太陽經) [경락] : 경혈 수태양소장경과 족태양방광경을 아울러 부르는 말.
태양병(太陽病) [병증] 동 태양병증(太陽病證) : 병리 육경병(六經病)의 하나. 풍한(風寒)이 기표(肌表)에 침습한 병증. 감수(感受)된 사기(邪氣)의 종류나 병정(病程)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맥부(脈浮), 두항강통(頭項强痛), 오한(惡寒)이 나타나면 태양병.
태양병궐음증(太陽病厥陰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 나오는 용어로, 처음에 복통(腹痛), 설사(泄瀉)와 같은 증상이 없다가 6, 7일 되어서 갑자기 궐증(厥證)을 일으키고 손발이 궐랭(厥冷)해진다면 이는 음증(陰證)의 종류가 아니라고 보고 태양병궐음증(太陽病厥陰證)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소음인의 태양상풍증(太陽傷風證)에 오한(惡寒), 발열(發熱)하며 땀이 저절로 나는 증이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여러 날 풀리지 못해 변하여서 된 것이라고 하였다.

ㅌ

태양병위가실증(太陽病胃家實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泛論〉에 나오는 용어로, 소음인병 육대병증(少陰人病 六大病證) 중의 하나. 발열육일 부득한해(發熱六日 不得汗解)하여 발생하며 정사옹고지병(正邪壅錮之病)이므로 불가불대용약(不可不大用藥)하라고 하였다.

태양병증(太陽病證) [병증] ⇒ 태양병(太陽病)

태양부증(太陽腑證) [병증] : 병리 사기(邪氣)가 태양경(太陽經)에서 제거되지 않고 방광(膀胱)까지 전입(傳入)한 병증. 축혈증(蓄血證)과 축수증(蓄水證)으로 나뉨.

태양상한(太陽傷寒) [병증] 동 태양상한증(太陽傷寒證), 표실증(表實證) : 병리 태양경병(太陽經病)의 하나. 외사(外邪), 특히 한사(寒邪)가 표(表)에 침범하여 양기(陽氣)가 기표(肌表)에 몰리고 사기(邪氣)와 정기(正氣)가 싸우면서 주리(腠理)가 치밀해지기 때문에 오한(惡寒)이 나고 땀은 나지 않으며 머리와 몸이 아프고 부(浮)하면서 힘이 있는 맥(脈)이 나타난다.

태양상한겸증(太陽傷寒兼證) [병증] : 병리 태양상한증(太陽傷寒證)에 기타 증후가 더해진 것.

태양상한증(太陽傷寒證) [병증] ⇒ 태양상한(太陽傷寒)

태양소양병병(太陽少陽幷病) [병증] : 병리 태양병증(太陽病證)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소양병증(少陽病證)이 나타나는 것. 두통(頭痛), 항통(項痛)의 태양증(太陽證)과 두현(頭眩), 혼모(昏冒), 흉협비만(胸脇痞滿)의 소양증(少陽證)이 나타난다.

태양소양합병(太陽少陽合病) [병증] 동 태양여소양합병(太陽與少陽合病) : 병리 합병(合病)은 육경병(六經病) 중 양경(兩經)이나 삼경(三經)의 증상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으로, 태양소양합병(太陽少陽合病)은 태양경(太陽經)과 소양경(少陽經)이 동시에 사기(邪氣)를 감수하여 발병 즉시 양경(兩經)의 증후(證候)가 같이 나타나는 병증.

태양소음양감(太陽少陰兩感) [변증] ⇒ 소음겸표증(少陰兼表證)

태양양명병병(太陽陽明幷病) [병증] : 병리 태양양명병병(太陽陽明幷病)은 태양경병(太陽經病)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양명경(陽明經) 증후가 나타나는 것.

태양양명합병(太陽陽明合病) [병증] 동 태양여양명합병(太陽與陽明合病) : 병리 태양(太陽)과 양명(陽明)이 동시에 사기(邪氣)를 감수하여 발병 즉시 양경(兩經)의 증후(證候)가 나타나는 것.

태양여소양합병(太陽與少陽合病) [병증] ⇒ 태양소양합병(太陽少陽合病)

태양여양명합병(太陽與陽明合病) [병증] ⇒ 태양양명합병(太陽陽明合病)

태양인(太陽人) [사상] : 사상 사상인 중 하나. 형체기상(體形氣像)은 가슴 윗부분이 발달하여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머리가 큰 대신 허리 아랫부분이 약하다. 성질재간(性質才幹)은 다른 사람과 사교하는데 소통을 잘하는 장점이 있고 과단성이 있다. 항심(恒心)은 항상 급박한 마음이 있고 소변량이 많고 잘 나오면 건강하다. 입에서 침이나 거품이 자주 나오는 상태이면 대병(大病)이다. 태양인은 흡취지기(吸聚之氣)가 보명지주(保命之主)이며 병증(病證)에는 외감요척병(外感腰脊病)의 표병(表病)과 내촉소장병(內觸小腸病)의 이병(裏病)이 있다.

태양인급박지심(太陽人急迫之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辨證論〉에 나오는 용어로, 이제마(李濟馬)가 말하기를, 사상인은 항심(恒心)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하며 태양인은 급박지심(急迫之心)을 가지고 있으며 급박지심(急迫之心)이 편안해지면 간혈즉화(肝血則和)한다고 하였다.

태양인내촉소장병(太陽人內觸小腸病) [사상] 동

ㅌ

내촉소장병(內觸小腸病) : 사상 태양인에게서 나타나는 이병(裏病). 태양인내촉소장병(太陽人 內觸小腸病)은 폐대간소(肺大肝小)하므로 간양(肝陽)이 과항(過亢)하여 호산지기(呼散之氣)가 왕성하고 간음(肝陰)이 부족하여 흡취지기(吸聚之氣)가 모자라서 발생하며, 주된 병증은 열격반위증(噎膈反胃證)이다. 음식물이 밖에서 들어갈 때 방해되는 것을 열(噎)이라고 하며, 안에서 받아가지고 거부하는 것을 격(膈)이라고 한다.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이 되어 토하거나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이 되어 토하는 것을 반위(反胃)라고 한다. 치법으로는 원진노, 단후미(遠鎭怒, 斷厚味)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미후등식장탕(獼猴藤植腸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태양인병증(太陽人病證) [사상] : 사상 태양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병증. 태양인 병증은 표병(表病)과 이병(裏病)으로 나눌 수가 있다. 표병은 외감요척병(外感腰脊病)이고 이병(裏病)은 내촉소장병(內触小腸病)이다. 태양인은 흡취지기(吸聚之氣)를 보명지주(保命之主)이므로 삼고 있어 태양인의 병증은 태음인 병증과 마찬가지로 기액지기(氣液之氣)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병증의 발현은 흡수기능이상과 성정(性情)의 부조화에서 나타나는 심신(心身)증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태양인소변왕다(太陽人小便旺多)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오는 용어로, 각 사상인(四象人)에게 완실무병(完實無病)이라고 하는 생리적으로 표리기(表裏氣)가 충분히 갖추어진 무병상태의 건강조건이 있는데, 태양인은 흡취지기(吸聚之氣)가 보명지주(保命之主)되므로 소변왕다(小便旺多), 즉 완실무병(完實無病)한 상태가 됨을 일컫는다.

태양인열격병(太陽人噎膈病) [사상] : 사상 태양인 병증 중에서 이병증(裏病證)에 해당하는 용어로, 음식물이 밖에서 들어갈 때 방해되는 것을 열(噎)이라고 하며, 안에서 받아가지고 거부하는 것을 격(膈)이라고 한다. 태양인의 노심(怒心)이 이기(裏氣)를 상하여 발생함.

태양인외감요척병(太陽人外感腰脊病) [사상] : 사상 상체는 완건(完健)하나 하체가 풀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하는 태양인의 표병증(表病證)으로 해역증(解体證)을 말함. 태양인은 원래 의지가 강하고 지조가 약한데 의지가 강하면 위완(胃脘)의 기운이 위(胃)로 올라가서 호산(呼散)하는 기운이 넘치고 지조가 약하면 소장(小腸)의 기운이 중초(中焦)에 붙잡혀 흡취(吸聚)하는 기운이 지탱하지 못하여 주리게 되어 나타난다. 깊이 슬퍼함을 경계해야 하고 분노를 멀리하며 맑은 마음을 간직하고 안정을 되찾도록 한 연후에 오가피장척탕(五加皮壯脊湯)을 쓰는 것을 치법으로 한다.

태양인의강조약(太陽人意强操弱) [사상] : 사상 태양인 병증 중에서 이병증(裏病證)에 해당하는 열격반위증(噎膈反胃證)이 생기는 원인. 의강(意强)하면 위완(胃脘)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호산(呼散)하는 기운이 너무 넘치게 되고, 조약(操弱)하면 소장(小腸)의 기운이 중초(中焦)에 잡혀서 흡취(吸聚)하는 기운이 지탱하지 못하여 주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열격반위(噎膈反胃)가 된다.

태양인해역병(太陽人解体病) [사상] : 사상 태양인 표병증(表病證)의 하나. 상체(上體)는 완전하나 하체(下體)가 풀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것. 태양인의 애심(哀心)이 깊어져서 표기(表氣)를 상하여 발생한다.

태양중풍(太陽中風) [병증] ㉾ 태양중풍증(太陽中風證), 표허증(表虛證) : 병리 태양경병(太陽經病)의 하나. 땀이 나고 맥박이 느려지는 증상과 태양병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병. 오싹오싹 춥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땀이 나며 완(緩)하면서 힘이 없는 맥이 나타난다.

태양중풍증(太陽中風證) [병증] ⇒ 태양중풍(太陽中風)
태양축수증(太陽蓄水證) [변증] : 병리 태양병(太陽病)을 잘못 치료하여 대한출(大汗出)이 된 후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허약해진 비(脾)가 물을 전수(轉輸)시키지 못해서 방광에 쌓인 채 소변불리(小便不利)가 되는 것.
태양축혈증(太陽蓄血證) [변증] : 병리 태양병(太陽病)에서 사기(邪氣)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으면 열(熱)로 변화하여 내전(內傳)되기 때문에 열(熱)과 혈(血)이 방광(膀胱) 부위에서 결취(結聚)될 수 있고, 이 어열(瘀熱)이 위로 신명(神明)을 침범하여 신지착란여광(神志錯亂如狂) 증상을 일으키는 것.
태역(胎逆) [병리] [병증] ⇒ 태기상역(胎氣上逆)
태연(太淵)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9)로서 수토혈(兪土穴), 원혈(原穴), 팔회혈(八會穴) 중 맥회혈(脈會穴)에 해당하고 손바닥 쪽 손목관절 횡문 위에서 노동맥(요골동맥; radial artery)이 뛰는 곳에 위치.
태열(胎熱) [변증] ⇒ 태열증(胎熱證)
태열단독(胎熱丹毒) [병증] : 소아 소아단독(小兒丹毒)의 하나. 태독(胎毒)이 내부에 잠복하여 혈(血)과 뒤엉킨데다 풍사(風邪)가 이를 틈타 침입하거나, 옷을 너무 덥게 입거나, 모유 속의 열(熱)이 사기(邪氣)를 부추겨 발생한다. 초기에는 벌겋게 부어 번들거리고, 두부(頭部), 사지(四肢) 혹은 흉복부(胸腹部)에 퍼지며 발생부위가 일정하지 않다. 복부(腹部)와 배부(背部)에서 팔다리로 옮겨가는 경우는 순증(順證)이고, 팔다리에서 복부(腹部), 배부(背部) 및 음낭(陰囊)으로 퍼지는 경우는 역증(逆證)이다.
태열야제(胎熱夜啼) [병증] : 소아 갓난아이가 태열로 밤에 우는 병증.
태열증(胎熱證) [변증] 동 태열(胎熱) : 소아 어린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 사(邪)를 감수하여 발생하는 병증.
태위부장(胎萎不長) [병증] ⇒ 태부장(胎不長)
태위부정(胎位不正) [병증] 동 태위이상(胎位異常) : 부인 태위(胎位)란 태아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태아의 종축과 자궁의 종축과의 상호관계로 표시하는데, 출산시 태위가 태아의 두부가 골반을 향하도록 위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을 태위부정(胎位不正)이라 함. 보통 임신 35주까지 태위부정일 경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태위이상(胎位異常) [병증] ⇒ 태위부정(胎位不正)
태윤(苔潤) [징후] : 진단 설태(舌苔)가 습윤(濕潤)한 것.
태을(太乙)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3)로서 하완(下脘) 양쪽 2촌에 위치.
태을신침(太乙神鍼) [침구] 동 태을신침구(太乙神鍼灸) : 침구 약애구(藥艾灸)의 일종. 쑥에 각종 약물을 섞어 애조(艾條)를 만들어 사용할 때 불을 붙여 천을 7겹으로 싸서 뜸을 놓을 자리나 혹은 아픈 부위에 누른다.
태을신침구(太乙神鍼灸) [침구] ⇒ 태을신침(太乙神鍼)
태을천부(太乙天符) [운기] : 원전 천부(天符)이면서 세회(歲會)인 해로, 사천지기(司天之氣)·중운지기(中運之氣)·세지지기(歲支之氣)의 속성이 동일하다. 기후 변화가 매우 심함. 무오(戊午)·을유(乙酉)·기축(己丑)·기미년(己未年) 등은 모두 태을천부지년(太乙天符之年)에 속한다. 무오년(戊午年)을 예로 들면, 대운(大運)이 중운(中運)이고 사천지기(司天之氣)가 군화지기(君火之氣)이며 세지지기(歲支之氣)가 화기(火氣)이다.
태음(太陰) [생리] [경락] 동 태음경(太陰經) : 경혈 ① 음(陰)이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는 단계. ② 태음경(太陰經). ③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태음경(太陰經) [생리] [경락] ⇒ 태음(太陰)

ㅌ

태음경병(太陰經病) [변증] ⇒ 태음경증(太陰經證)
태음경증(太陰經證) [변증] ㊐ 태음경병(太陰經病) : 병리 태음경(太陰經)이 사기(邪氣)를 감수하여 발생한 질환. 허(虛)와 실(實)을 구분해야 함.
태음병(太陰病) [변증] ⇒ 태음병증(太陰病證)
태음병음독증(太陰病陰毒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陰人泛論〉에 나오는 용어로, 소음인병 육대병증(少陰人病 六大病證) 중의 하나. 복통하리이기병 반해반불해(腹痛下利而其病 反解反不解)하여 발생하며 정사상경지병(正邪相傾之病)이므로 불가불예용약(不可不預用藥)하라고 하였다.
태음병증(太陰病證) [변증] ㊐ 태음병(太陰病), 태음증(太陰證) : 병리 육경병(六經病)의 하나. 삼양병(三陽病)에서 전변(傳變)하거나, 한사(寒邪)가 직중(直中)하거나, 비허(脾虛)로 운화기능이 실상되어 한습(寒濕)이 막혀 발생. 주요 증상은 복만이토(腹滿而吐), 식불하(食不下), 자리(自利), 구불갈(口不渴), 시복자통(時腹自痛)이다.
태음병황달증(太陰病黃疸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陰人泛論〉에 나오는 용어로, 소음인병 육대병증(少陰人病 六大病證) 중의 하나. 식체육일 불능화하(食滯六日 不能化下)하여 발생하며 정사옹고지병(正邪壅錮之病)이므로 불가불대용약(不可不大用藥)하라고 하였다.
태음인(太陰人) [사상] : 사상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분류한 네 가지 체질 중 하나. 체형기상(體形氣像)은 허리부위의 형세가 성장하여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나 반면에 목덜미의 기세가 약하다. 성질재간(性質才幹)은 꾸준하고 침착하여 맡은 일을 이루어 성취하는데 장점이 있다. 항심(恒心)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땀이 잘나면 건강하고 땀이 안 나오면 병이다. 태음인은 호산지기(呼散之氣)가 보명지주(保命之主)이며 태음인의 병증은 위완수한표한(胃完受寒表寒)병의 표병(表病)과 간수열이열(肝受熱裏熱)병의 이병(裏病)으로 나뉜다.
태음인간수열이열병(太陰人肝受熱裡熱病) [사상] ㊐ 간수열이열병(太陰人肝受熱裡熱病) : 사상 태음인 병증 중 이병증(裏病證)에 해당하는 병증. 태음인 치락무염(侈樂無厭)으로 욕화(慾火)가 외치(外馳)하여 간열(肝熱)이 폐(肺)로 올라가서 폐조(肺燥)를 일으킨 것으로서 조열증(燥熱證)과 음형모갈증(陰血耗渴證)으로 대분하며 양독발반(陽毒發斑), 온병합병(溫病合病) 등이 발생한다.
태음인간열열증온병(太陰人肝熱熱證瘟病) [사상] : 사상 태음인 병증 중 이병증(裏病證)에 해당하는 병증. 태음인 중 간조열(肝燥熱)이 있는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바르지 못한 악한 사기에 감염되어서 발생한다. 땀구멍을 열어 사기를 땀으로 밖으로 발산시키고 속에 있는 열화(熱火)와 사기(邪氣)를 설사(泄瀉)로 아래로 통하게 하여 치료한다. 증상에 따라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태음조위탕 가 승마 황금(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을 사용한다.
태음인겁심(太陰人怯心)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 각 체질별로 있는 항심(恒心)에 대해 서술되어있으며 태음인은 항상 겁심(怯心)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겁심이 지나치면 파심(怕心)이 된다.
태음인두면항협적종증(太陰人頭面項頰赤腫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肝受熱裡熱病論〉에 나오는 증상표현으로 태음인의 온병(溫) 발현 증상 중의 하나. 간수열이열병(肝受熱裏熱病)의 범주에 속함.
태음인병증(太陰人病證) [변증] : 병리 태음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증. 태음인의 병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위완수한표한병증(胃完受寒表寒病證)과 간수열이열병증(肝受熱裏熱病證)

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완수한표한병증(胃完受寒表寒病證)은 태음인의 배추표병(背佳表病)과 위완한증(胃脘寒證)이 기본이 되며 마황발표탕(麻黃發表湯),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 한다열소탕(寒多熱少湯)이 기본적인 처방이다. 간수열이열병증(肝受熱裏熱病證)은 양독증(陽毒證) 간열열증온병(肝熱熱證溫病) 조열병(燥熱病) 음혈모갈병(陰血耗竭病)이 기본이 되며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 공진흑원단(拱辰黑元丹) 등이 기본적인 처방이다.

태음인상한배추혈표병경증(太陰人傷寒背佳頁表病輕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 나오는 증상으로 태음인의 표병(表病) 중에서 경증에 해당. 두통발열(頭痛發熱) 신동요통(身疼腰痛) 골절개통(骨節皆通) 오하무한이천(惡寒無汗而喘) 하는 증상을 가리킨다.

태음인상한표증한궐(太陰人傷寒表證寒厥) [사상] ㊎ 한궐증(寒厥證) : 사상 태음인위완수한표한병(太陰人胃完受寒表寒病)의 증상 중 하나. 발열(發熱)없이 오한(惡寒)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때 궐(厥)이란 수족궐역(手足厥逆)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태음인이 위완(胃脘)이 쇠약해지고 표(表)가 허박(虛薄)해졌을 때 한사(寒邪)가 침입하여 사기(邪氣)가 실(實)할 때는 한궐(寒厥)이 발생하고 정기(正氣)가 우세하면 발열(發熱)과 함께 한출(汗出)이 된다.

태음인위완수한표한병(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 [사상] ㊎ 위완수한표한병(胃脘受寒表寒病) : 사상 무한(無汗) 골절동통(骨節疼痛) 정충(怔忡) 기단(氣短)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태음인의 표병증(表病證). 위완(胃脘)이 허약해지고 표(表)가 허박(虛薄)해져서 한사(寒邪)를 이기지 못하고 외표(外表)에 침범을 받아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싸우는 것으로 배추혈표병(背佳頁表病)과 태양한궐증(太陽寒厥證), 위완한증(胃脘寒證)으로 분류되며 발한(發汗)의 상태에 따라 병정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 치법은 보명지주(保命之主)인 호산지기(呼散之氣)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폐양승기(肺陽升氣)를 위주로 함.

태음인위완한증(太陰人胃脘寒證) [사상] : 사상 광범위하게는 위완수한표한병(胃完受寒表寒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작은 개념으로는 태음인의 위완(胃脘)부위가 차가워서 발생하는 평소의 병증을 말함.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면색청백(面色淸白), 표한증(表寒證), 설사증(泄瀉證) 등이 있다.

태음인위완한증온병(太陰人胃脘寒證溫病) [사상] : 사상 평소 위완한증(胃脘寒證)이 있는 상태에서 온병(溫病)이 겹친 상태.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 그 임상 예가 나와 있음. 또 온병 체열복만자리증(溫病 體熱腹滿自利證)이 나타날 때 열이 심하면 이증온병(裏證溫病)에 속하고 한(寒)이 심하면 표증온병(表證溫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온병의 표리허실(表裏虛實)을 판단하는 법에 대해 이제마(李濟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체로 환자의 소병(素病)이 한증(寒證)인 사람은 온병을 해도 역시 한증이며 소병이 열증(熱證)인 사람은 온병을 해도 역시 열증이다. 본병(本病)이 경(輕)한 사람이 온병을 하면 즉 중증(重證)이며, 본병이 중(重)한 사람이 온병을 하면 험증(險證)이 된다."

태음인이병음혈모갈증(太陰人裏病陰血耗竭證) [사상] ⇒ 태음인음혈모갈증(太陰人陰血耗竭證)

태음인음혈모갈증(太陰人陰血耗竭證) [사상] ㊎ 태음인이병음혈모갈증(太陰人裏病陰血耗竭證) : 사상 태음인의 음혈(陰血)이 소모된 허증(虛證). 이롱(耳聾), 목암(目暗), 각약(脚弱), 요통(腰痛) 등의 증상이 발생. 표증한증다자(表症寒證多者)는 녹용대보탕을 쓰고 이증다자(裏症多者)는 공진흑원단을 쓴다.

ㅌ

태음인이병조열증(太陰人裏病燥熱證) [변증] : 병리 태음인(太陰人) 조열병(燥熱病)은 치락(侈樂)이 과도하고 욕화(慾火)가 밖으로 달려 간열대성(肝熱大盛)하고 폐조태고(肺燥太枯)하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지초흑반창병(手指焦黑瘡瘡病)과 음일수이병(飮一溲二病)이 있으며,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이 기본 처방으로 마음을 공경(恭敬)하고 욕화(慾火)를 안정시켜야 한다.

태음인정충(太陰人忡忡) [사상] : 사상 태음인은 항상 겁심(怯心)이 있는데 겁심이 조절이 안 되어 심해지면 파심(怕心)에 이르게 되는데, 파심의 주요한 임상증상이 정충(怔忡)이다. 정충증(怔忡症)은 태음인 병의 중증(重證)이다.

태음인조열증(太陰人燥熱證) [사상] : 사상 태음인 간수열이열(肝受熱裏熱)병의 하나. 원인은 치락무염(侈樂無厭) 욕화외치(慾火外馳)하여 간열대성(肝熱大盛) 폐조태고(肺燥太枯)하였기 때문. 주요증상은 인음(引飮) 소변다(小便多) 대변비(大便秘) 수지초흑반창병(手指焦黑瘡瘡病) 면색황적흑(面色黃赤黑) 등. 기존 의서에서 말하는 소갈증(消渴證)은 태음인에 있어서는 조열증(燥熱證)에 해당된다. 치법은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 대황 등을 가하여 쓴다.

태음인증한장열조삽증(太陰人增寒壯熱燥澁證) [사상] : 사상 태음인 온병(溫病)이 이열증(裏熱證)의 양상으로 발생했을 경우의 임상증상 중 하나로, 오한(惡寒)이 있고 열(熱)이 심하게 나며 대변이 막히는 증상. 여기서 조삽증(燥澁證)은 조삽변폐(燥澁便閉)를 말함.

태음인체열복만자리증(太陰人體熱腹滿自利證) [사상] : 사상 태음인 온병(溫病)의 임상증상 중 하나. 이 경우 열증(熱症)이 우세하면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을 쓰고 한증(寒症)이 우세하면 표증(表證)의 중증(重證)이니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에 승마, 황금을 가하여 쓴다. 한증(寒證)이 우세하다는 것은 체열(體熱)이 있지만 자각적으로 오한증(惡寒證)이 더 심한 것을 말한다.

태음인파심(太陰人怕心) [사상] : 사상 → 태음인정충(太陰人怔忡)

태음인표병배추표병증(太陰人表病背頴表病證) [변증] : 병리 태음인(太陰人)이 상한(傷寒)하여 두통(頭痛), 발열(發熱), 신동(身疼), 요통(腰痛), 골절개통(骨節皆痛), 오한(惡寒), 무한(無汗), 천(喘)을 주 증상으로 하는 병증. 마황발표탕(麻黃發表湯)을 사용함.

태음인표병위완한증(太陰人表病胃脘寒證) [변증] : 병리 태음인(太陰人)의 위완한증(胃脘寒證)은 면색(面色)이 청백(靑白)하면서 표한(表寒)하여 설사(泄瀉)를 주증(主證)으로 하는 병증으로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과 한다열소탕(寒多熱少湯)을 기본 처방으로 사용함.

태음인표한증설사(太陰人表寒證泄瀉) [사상] : 사상 태음인의 위완한증(胃脘寒證)에 병발하는 설사증(泄瀉證)으로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이 기본방.

태음인한액통창(太陰人汗液通暢) [사상] : 사상 태음인이 완실무병(完實無病)하려면 땀이 잘 나야 한다는 말.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 "太陰人汗液通暢則完實無病"이라고 하였으며 태음인 위완수한표한병론(胃脘受寒表寒病論)에 한출(汗出)의 양상에 따른 병의 진퇴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태음저(太陰疽) [병증] ⇒ 연자발(蓮子發)

태음증(太陰證) [변증] ⇒ 태음병증(太陰病證)

태음한습울결증(太陰寒濕鬱結證) [변증] : 병리 태음인의 표병(表病)증인 위완수한표한병(胃脘受寒表寒病)증을 지칭하는 것.

태의불하(胎衣不下) [병증] ⇒ 포의불하(胞衣不下)

태의조파(胎衣早破) [병증] : 부인 분만 제 2기에서 진통이 있으면서 태두가 하강되면 양막이 파열되는데 진통이 개시되기 전에 파수가 되는

것을 조기양막파수라 하고 이를 태의조파(胎衣早破)라 한다.

태자병(胎自病) [병증] : 부인 태아자체의 질병 혹은 이상의 뜻으로 임란(姙卵) 및 그 부속물의 질환을 포괄. 태아, 태반, 제대의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태저(兌疽) [병증] : 안이 태연혈(太淵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통증이 극심하고 수박(手膊)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태적(胎赤) [병증] : 소아 신생아의 머리, 팔다리, 피부가 붉은 것. 대부분 태중(胎中)에서 열독(熱毒)을 감수한 때문이다.

태적안(胎赤眼) [병증] : 소아 갓 태어난 아이의 눈꺼풀과 결막이 충혈, 미란(糜爛)되는 병증.

태전병(胎前病) [병증] 동 태전제증(胎前諸症) : 부인 임신 성립으로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 기간 중에 임부 및 태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통칭한 것.

태전제증(胎前諸症) [병증] ⇒ 태전병(胎前病)

태질(胎疾) [병증] : 소아 아이가 태어나서 1개월 혹은 1년 안에 생긴 병. 대부분 태품부족(胎稟不足), 또는 임신부가 임신 중에 조섭(調攝)을 잘못하였거나 태독(胎毒) 등으로 일어난다.

태창(太倉) [경혈] ⇒ 중완(中脘)

태충(太衝) [경혈] 동 복충맥(伏衝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3)로서 수토혈(兪土穴), 원혈(原穴)에 해당하고 발등에서 1·2 번째 발가락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 사이의 오목한 곳에 위치.

태충맥(太衝脈) [경락] ⇒ 충맥(衝脈)

태투(胎妬) [병증] : 부인 아이가 임신한 엄마의 젖을 먹거나 혹은 유식정체(乳食停滯)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불량성 질병.

태풍(胎風) [병증] : 소아 영아의 천품(天稟)이 부족한데다가 풍한(風寒)을 감수하여 경련이 일어나는 병증.

태풍적란(胎風赤爛) [병증] ⇒ 검현적란(瞼弦赤爛)

태한발독(胎寒發毒) [병증] ⇒ 태한증(胎寒證)

태한증(胎寒證) [병증] 동 태한발독(胎寒發毒) : 병리 ① 어린아이가 태중(胎中)에 있을 때에 한기(寒氣)를 맞아서 오는 병증. ② 임신부가 찬 것, 날 것 등을 과식한데다가 풍한사(風寒邪)를 감수하여 생긴 태동불안(胎動不安).

태환내장(胎患內障) [병증] : 안이 태내(胎內)에서 그 어머니가 자극성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함으로 인해 열(熱)이 태아(胎兒)의 뇌(腦)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내장(內障).

태활(苔滑) [징후] ⇒ 활태(滑苔)

태황(胎黃) [병증] ⇒ 태달(胎疸)

택곽(澤廓) [진찰] ⇒ 혈륜(血輪)

택란(澤蘭) [약물] 동 수향(水香)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쉽싸리 *Lycopus coreanus* Leveille의 꽃이 피기 전의 지상부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경엽(莖葉)이 무성했을 때 전초(全草)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모엽지과아묘(毛葉地瓜兒苗) *Lycopus lucidus* Turcz. var. *hirtus* Regel.를 기원으로 함.

택사(澤瀉) [약물] : 본초 택사과(澤瀉科 : Alis- mat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소택식물(沼澤植物)인 질경이택사 *Alisma orientale* Juzepczuk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덩이줄기로서, 겨울에 경엽(莖葉)이 마르기 시작할 때 채취하여, 수염뿌리와 조피(粗皮)를 제거하고 건조한 후 사용.

택요(澤夭) [진찰] : 진단 망색십법(望色十法)의 하나. 안색을 살펴 질병의 예후를 추단하는 것.

택칠(澤漆) [약물] : 본초 대극과(大戟科 : Euphorbiaceae)에 속한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인 등대풀 *Euphorbia helioscopia* L.의 전초(全草)로 4~5월에 개화할 때 채취하여 건조 후 사용.

토(吐) [증상] : 내과 사기(邪氣)가 위(胃)에 있어서 위가 화강(和降)하지 못하고 기(氣)가 역

상(逆上)함으로써 출현하는 증상. 유성무물(有聲無物)을 구(嘔), 무성유물(無聲有物)을 토(吐)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확연한 구분이 어려워져 일반적으로 모두 구토(嘔吐)라고 총칭.

토감(土疳) [병증] ⇒ 침안(鍼眼)

토고납신(吐古納新) [기공] : 재활 기공의 호흡법으로 체내의 낡은 공기를 토해내고 신성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

토곽향(土藿香) [약물] ⇒ 곽향(藿香)

토금체질(土金體質) [진찰] : → 토체질(土體質)

토뉵(吐衄) [병증] ⇒ 착경(錯經)

토륜(土輪) [진찰] ⇒ 육륜(肉輪)

토리(吐利) [병증] ⇒ 토사(吐瀉)

토목체질(土木體質) [진찰] : → 토체질(土體質)

토목향(土木香)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목향(木香) *Inula helenium* L.의 뿌리로, 상강(霜降) 후 잎이 말랐을 때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토법(吐法) [치법] 동 최토(催吐), 최토법(催吐法), 최토약(催吐藥) : 방제 최토약(催吐藥)이나 기타 구토(嘔吐)를 야기하는 물리적인 자극(예컨대 깃털을 인후 깊숙이 넣어 구토를 야기하는 것)을 사용하여 정체한 담(痰)이나 숙식(宿食) 혹은 독물(毒物)을 토출(吐出)시키는 방법.

토별(土鼈) [약물] ⇒ 자충(蠐螬)

토복령(土茯苓) [약물] 동 산귀래(山歸來)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 속한 다년생 반원상 관목(攀援狀 灌木)인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의 근경(根莖)으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며 건조하거나 썰어 쇄건(曬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광엽발계(光葉菝葜) *Smilax glabra* Roxe.를 기원으로 함.

토부자(土附子) [약물] ⇒ 초오(草烏)

토사(吐瀉) [병증] 동 토리(吐利) : 내과 상토하사(上吐下瀉)가 동시에 일어나는 병. 곽란(霍亂)의 범주에 속함.

토사자(菟絲子) [약물] 동 금사초(金絲草) : 본초 메꽃과(旋花科 : Convolvulaceae)에 속한 일년생 기생초본인 갯실새삼(菟絲子) *Cuscuta chinensis* Lamark 및 동속 근연식물의 성숙한 종자로, 7~9월에 걸쳐 종자가 성숙했을 때 기주(寄主)와 함께 잘라서 쇄건(曬乾)하여 사용.

토설(吐舌) [병증] : 내과 → 농설(弄舌)

토수체질(土水體質) [진찰] : → 토체질(土體質)

토순(兎脣) [병증] : 소아 구개열(口蓋裂). 선천성기형으로 입술이 갈라진 병.

토양(土瘍) [병증] ⇒ 침안(鍼眼)

토옹목울(土壅木鬱) [병증] ⇒ 비울(脾鬱)

토유(吐乳) [병증] : 소아 젖을 토하는 병증.

토율(土栗) [병증] : 안이 족근양방(足跟兩傍)에서 발생하는 옹저로 조율(棗栗)과 같은 모양을 하고, 황색을 띠고 맑으며 추자(錘刺)하는 것같이 통증이 심한 것.

토체질(土體質) [진찰] : 진단 운기체질의 한 분류. 변증에서 현재의 병증 이 외에 오행 중 토(土)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토태과(土太過)하여 나타나는 토극수(土剋水), 토모목(土侮木)의 병증과 조습(燥濕)의 병증이 나타난다. 토토(土土)체질, 토금(土金)체질, 토화(土火)체질, 토수(土水)체질, 토목(土木)체질로 세분.

토토체질(土土體質) [진찰] : → 토체질(土體質)

토혈(吐血) [병증] 동 토혈증(吐血證) : 내과 구역성(嘔逆聲)이 없이 구강으로 대량 출혈하는 병증.

토혈증(吐血證) [병증] ⇒ 토혈(吐血)

토화체질(土火體質) [진찰] : → 토체질(土體質)

토회(吐蛔) [병증] : 내과 회충(蛔蟲)을 토하는 것.

통경(痛經) [병증] ⇒ 월경통(月經痛)

통경(通經) [치법] : 병리적인 경폐(經閉)를 치료하여 월경이 재개되게 하는 방법.

통경락요법(通經絡療法) [치법] : 재활 주로 기(氣)의 소통이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국소 및 전신의 통증과 종창 등을 치료하는 방법. 경

락의 기 소통(氣疏通)을 주목적으로 한다. 전기자극을 이용하거나 음압을 이용한 부항요법 등이 있다.

통곡(通谷) [경혈] : 경혈 복통곡(腹通谷)은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20)로서 상완(上脘) 양쪽 5푼에 위치. 족통곡(足通谷)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66)로서 형수혈(滎水穴)에 해당하고 5번째 발허리뼈머리(중족골소두; head of metatarsal bone)의 앞쪽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통구(筒灸) [침구] ⇒ 온통구(溫筒灸)

통기(通氣) [침구] [기공] ⇒ 행기(行氣)

통리(通里) [경혈] : 경혈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경혈(HT5)로서 낙혈(絡穴)에 해당하고 새끼손가락쪽 손목 관절 위 1촌에 위치.

통리(通裏) [치법] ⇒ 하법(下法)

통맥(通脈) [치법] : 치법의 하나. ① 양기(陽氣)를 온통(溫通)케 함으로써 심맥(心脈)을 진작시키는 것. ② 산후에 기혈허약으로 인해 유즙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경우에 보익기혈(補益氣血)하는 방약(方藥)을 써서 유즙이 충분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 → 최유(催乳)

통비(痛痺) [병증] 동 한비(寒痺) : 재활 비증의 하나. 증상은 심한 동통(疼痛)이 발생하고 손발이 땅기며 열기(熱氣)를 얻으면 약간 경감되고 한기(寒氣)를 만나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통설(洞泄) 동 주하(注下) : 내과 ① [치법] 대장(大腸)을 통리(通利)케 함으로써 이열(裏熱)을 청제(淸除)하는 방법. ② [병증] 설사(泄瀉)의 일종으로 설사의 양상이 물을 아래로 쏟아내는 것과 같은 것.

통유(通乳) [치법] ⇒ 최유(催乳)

통정(通睛) [병증] ⇒ 투계안(鬪鷄眼)

통천(通天)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경혈(BL7)로서 백회(百會)(GV20) 양쪽 각 1촌 5푼 부위에 위치.

통초(通草) [약물] 동 통탈목(通脫木) : 본초 두릅나무과(五加科 : Araliaceae)에 속한 관목인 통탈목 *Tetrapanax papyriferus* K. Koch의 경수(莖髓)로 가을에 2~3년 된 것을 골라 지상경(地上莖)을 절단하여 수부(髓部)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

통탈목(通脫木) [약물] ⇒ 통초(通草)

통풍(痛風) [병증] ⇒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

통하(通下) [치법] ⇒ 하법(下法)

퇴(癀) [병증] 동 퇴병(癀病) : 내과 음낭(陰囊)이 붓거나, 짓물러서 농혈(膿血)이 흐르는 병증(病證).

퇴법(退法) [침구] [추나] : 침구 ① [침구] 침을 위로 끌어올린 후 뽑아내는 자침요법(刺鍼療法). ② [추나]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평평하게 밀어주는 추나수기법(推拿手技法).

퇴병(癀病) [병증] ⇒ 퇴(癀)

퇴산(癀疝) [병증] 동 궤산(潰疝), 퇴산(癩疝) : 내과 산병(疝病)의 일종. 음낭이 커진 것. 음낭 내용물(陰囊內容物)의 종창(腫脹), 궤류(潰瘤), 견경(堅硬), 종양(腫瘍), 종대(腫大)되거나 유성무통(有聲無痛), 유통결괴(有痛結塊) 등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병증,

퇴산(癩疝) [병증] ⇒ 퇴산(癀疝)

퇴침(退鍼) [침구] ⇒ 발침(拔鍼)

투계안(鬪鷄眼) [병증] 동 쌍목통정(雙目通睛), 통정(通睛), 투정(鬪睛) : 안이 한쪽 눈 혹은 양쪽 눈의 흑정(黑睛)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려는 방향의 정반대 쪽에 있다가 머리를 흔들면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소아에게 다발하는데, 경풍(驚風) 후유증이나 심한 뇌진탕으로 인해 발생.

투뇌저(透腦疽) [병증] : 안이 백회전(百會前) 신문(顖門) 근처, 즉 두부정중선(頭部正中線) 전발제(前髮際)에서 2촌 가량 들어간 곳에서 발생하는 옹저.

투유(妬乳) [병증] ⇒ 유투(乳妬)

ㅌ

투자법(投刺法) [침구] : 침구 서로 다른 두 경혈(經穴)에 대한 침자술(鍼刺術)로 한 경혈(經穴)에 자입(刺入)하여 다른 경혈(經穴)에까지 침첨(鍼尖)이 이르는 행위.
투자법(透刺法) [침구] ⇒ 투혈(透穴)
투정(鬪睛) [병증] ⇒ 투계안(鬪鷄眼)
투정창(透頂瘡) [병증] ⇒ 감창(疳瘡)
투진(透疹) [치법] : 진독(疹毒)을 투설(透泄)시켜 진자(疹子)가 돋아나도록 하는 치법.
투천량(透天凉) [침구] ㊐ 투천량법(透天凉法) : 침구 침자(鍼刺) 깊이를 천(淺), 중(中), 심(深)의 3층으로 나누어, 시술할 때 깊은 층에서 얕은 층에 이르는 순서대로 매층 마다 긴제만안(緊提慢按; 힘주어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누르는 것)을 6번 반복하여 환자가 어느 한 국부나 온몸이 시원하여지는 것을 느낄 때 침을 뽑는 방법.
투천량법(透天凉法) [침구] ⇒ 투천량(透天凉)
투침(偸鍼) [병증] ⇒ 침안(鍼眼)
투피(透皮) [침구] : 침구 피부를 자통(刺通)하는 것.
투혈(透穴) [침구] ㊐ 천투(穿透), 투혈법(透穴法), 투혈자침(透穴刺鍼), 투혈침법(透穴鍼法), 투자법(透刺法), 천자법(穿刺法) : 침구 자침요법(刺鍼療法)의 일종. 한 번에 여러 혈(穴)을 찌르는 방법. 어느 혈에 침을 찌른 후 침 끝이 가까운 혈자리에 이르게 하되 살갗을 뚫고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투혈법(透穴法) [침구] ⇒ 투혈(透穴)
투혈자침(透穴刺鍼) [침구] ⇒ 투혈(透穴)
투혈침법(透穴鍼法) [침구] ⇒ 투혈(透穴)
투화법(投火法) [침구] : 침구 세장(細長)한 종이에 점화(點火)해서 관내에 투입하는 화관법(火罐法)의 일종.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파

파고지(破故紙) [약물] ⇒ 보골지(補骨脂)
파극(巴戟) [약물] ⇒ 파극천(巴戟天)
파극천(巴戟天) [약물] 동 파극(巴戟) : 본초 꼭두서니과(茜草科 : Rubiaceae)에 속한 상록의 덩굴성 식물인 파극천 *Morinda officnalis* How의 뿌리로, 겨울에서 이듬해 봄 사이에 뿌리를 캐어 씻어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60 ~70% 정도 말랐을 때,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납작하게 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 또는 먼저 쪄서 반쯤 건조하여 납작하게 펴서 햇볕에 말림.
파근(播筋) [추나] ⇒ 추나(推拿)
파기(破氣) [치법] : 방제 기기(氣機)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울결, 적체된 기(氣)를 풀어주는 치법.
파두(巴豆) [약물] : 본초 대극과(大戟科 : Euphor- biaceae)에 속한 상록 교목인 파두(巴豆) *Croton tiglium* L.의 성숙한 종자로, 가을에 완숙한 과실을 채취하여 거각(祛殼)하고 종자만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고 종피(種皮)를 벗겨서 씀.
파미법(擺尾法) ① [침구] 침구 ⇒ 청룡파미(靑龍擺尾). ② [기공] : 기공(氣功)을 수련하는 방법의 하나. 두 팔을 앞으로 향하였다가 두 손바닥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서서히 흔들어 주는 방법.
파뿌리 [약물] ⇒ 총백(葱白)
파상풍(破傷風) [병증] : 안이 풍사(風邪)가 창구(瘡口)로 침입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발열(發熱), 오한(惡寒), 두통(頭痛), 근육강직(筋肉强直), 창상부(創傷部)의 견인감(牽引感) 등이 있다가 아관긴급(牙關緊急), 각궁반장(角弓反張), 연말토출(涎沫吐出), 사지축닉(四肢搐搦)이 됨.
파어(破瘀) [치법] ⇒ 파혈(破血)
파혈(破血) [치법] 동 파어(破瘀), 축어(逐瘀), 파혈약(破血藥), 축어약(逐瘀藥) : 거어약(祛瘀藥) 중에서 비교적 약성이 강렬한 약물을 사용하여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것.
파혈약(破血藥) [치법] ⇒ 파혈(破血)
판람근(板藍根) [약물] 동 대전(大靛), 전청근(靛靑根) : 본초 십자화과(十字花科 : Cruciferae)에 속한 이년생 초본인 대청 *Isatis tinctoria* L.의 근으로, 겨울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중국에서는 동속 근연식물인 숭람(崧藍) *Isatis indigotica* Fort.도 기원으로 함.
판퇴수법(板腿手法) [추나] : 재활 넓적다리를 잡아 회선시키면서 당기어 고관절의 교정하는 방법.
팔각회향(八角茴香) [약물] : 본초 목련과(木蘭科 : Magnoliaceae)에 속한 상록교목인 팔각회향(八角回香) *Illicium verum* Hook. f.의 성숙한 과실로서 가을~다음해 봄까지 채취하여 약한 불에 말리거나 물에 침포(浸泡)하여 과실이 붉게 되면 쇄건(曬乾)하여 사용.
팔강(八綱) [진찰] : 진단 변증(辨證)의 여덟 가지 강령(綱領). 한(寒)·열(熱)·허(虛)·실(實)·표(表)·리(裏)·음(陰)·양(陽)으로 구성.
팔강변증(八綱辨證) [진찰] : 병리 진단 가장 기본적인 변증방법의 하나. 사진(四診)을 통해

증상을 종합 분석하여 사기(邪氣)의 성질, 정사(正邪)의 성쇠, 질병의 심천(深淺) 등의 정황을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 음(陰), 양(陽)의 8가지로 귀납하여 변증(辨證)의 기초로 삼는 방법.

팔곽(八廓) [진찰] : 진단 안이 눈의 바깥 부분을 여덟 부위 혹은 방위로 나눈 것.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여덟 가지 물질현상 혹은 팔괘(八卦)의 명칭을 적용하여 명명하였음. 즉 천곽(天廓-乾廓), 지곽(地廓-坤廓), 풍곽(風廓-巽廓), 뇌곽(雷廓-震廓), 택곽(澤廓-兌廓), 산곽(山廓-艮廓), 화곽(火廓-離廓), 수곽(水廓-坎廓)을 말함.

팔교(八髎) [경혈] ⇒ 팔료(八髎)

팔료(八髎) [경혈] 동 팔교(八髎) : 경혈 경혈(經穴).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에 속함. 방광경의 상료(上髎), 차료(次髎), 중료(中髎), 하료(下髎) 등 양쪽의 8개의 혈을 합하여 이르는 말.

팔리맥(八裏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 분류의 일종. 미(微)·침(沈)·삽(澁)·완(緩)·지(遲)·복(伏)·유(濡)·약맥(弱脈)을 가리킴.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 [경혈] : 경혈 십이경맥(十二經脈)과 기경팔맥(奇經八脈)이 교회상통(交會相通)하는 사지부의 8개 수혈(腧穴) 부위. 내관(內關:음유맥), 공손(公孫:충맥), 신맥(申脈:양교맥), 후계(後谿:독맥), 외관(外關:양유맥), 족임읍(足臨泣:대맥), 조해(照海:음교맥), 열결(列缺:임맥)이 있음.

팔사(八邪) [경혈] 동 팔사혈(八邪穴) : 경혈 경외기혈(經外奇穴). 손등쪽 열 손가락이 갈라진 사이에 있는 8개의 혈.

팔사혈(八邪穴) [기혈] ⇒ 팔사(八邪)

팔체질침(八體質鍼) [침구] : 침구 장부의 선천적 강약에 따라 팔 체질로 나누어 각 체질의 고유한 개성인 선천적 불균형이 과도하게 된 병리현상을 경락(經絡), 음양(陰陽), 오행(五行)의 법칙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침법.

팔충(八衝) [기혈] ⇒ 팔풍(八風)

팔풍(八風) [기혈] 동 팔충(八衝), 음독팔혈(陰獨八穴), 족팔사(足八邪) : 경혈 하지부(下肢部)의 기혈로서 각 다섯 개 발가락 사이의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에 위치.

팔허(八虛) [병리] : 병리 오장(五臟)에 있던 병사(病邪)가 경맥을 따라 옮겨가서 머무르는 팔꿈치(肘), 겨드랑이(腋), 장딴지(腓), 오금(膕) 등의 8개 관절을 이르는 말. 여기에서 허(虛) 8개의 공간이라는 뜻에서 쓰인 것이다. 〈靈樞邪客〉에서 "사람에게는 팔허(八虛)가 있는데, …이로써 오장의 상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음.

팔회(八會) [경혈] 동 팔회혈(八會穴) : 경혈 장(臟), 부(腑), 기(氣), 혈(血), 근(筋), 맥(脈), 골(骨), 수(腧)의 회합혈(會合穴). 장문(章門:장회혈), 중완(中脘:부회혈), 전중(膻中:기회혈), 격수(膈俞:혈회혈), 양릉천(陽陵泉:근회혈), 태연(太淵:맥회혈), 대저(大杼:골회혈), 현종(懸鐘:수회혈)이 있음.

팔회혈(八會穴) [경혈] ⇒ 팔회(八會)

패란(佩蘭)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벌등골나물 *Eupatorium fortunei* Turcz.의 전초(全草)로, 여름철 개화 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음건(陰乾)하여 사용.

패장(敗醬) [약물] 동 패장초(敗醬草), 녹장근(鹿醬根) : 본초 마타리과(敗醬科 : Valeria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뚝갈(白花敗醬) *Patrinia villosa* (Thunb.) Juss와 마타리(黃花敗醬) *P. scabiosaefolia* Fisch.의 뿌리가 달린 전초(全草)로, 여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패장초(敗醬草) [약물] ⇒ 패장(敗醬)

패증(敗證) [병증] : 병리 몹시 위중한 병증.

패혈(敗血) [병리] [병증] ⇒ 어혈(瘀血)

팽진(膨疹) [병증] ⇒ 은진(癮疹)

팽진(膨疹) [병증] ⇒ 담마진(蕁麻疹)

ㅍ

편고(偏枯) [병증] ⇒ 반신불수(半身不隨)
편급(偏急) [병증] [사상] : 내과 한쪽으로 치우쳐서 조화를 잃은 상태.
편뇌저(偏腦疽) [병증] : 안이 족태양방광경상의 승모근건(僧帽筋腱) 주위에서 발생하는 옹저.
편두통(偏頭痛) [병증] 동 두편통(頭偏痛) : 내과 머리 한쪽이 아픈 병증. 아픔은 흔히 관자놀이, 머리의 옆모서리, 왼쪽 머리나 오른쪽 머리가 아프며 혹 두통이 좌우로 옮겨가면서 아프고 눈까지 아프며 메스꺼움과 구토증상을 겸한다.
편두풍(偏頭風) [병증] : 안이 오른쪽 또는 왼쪽 어느 한 편에 두풍(頭風)이 나타나는 것.
편력(偏歷)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6)로서 낙혈(絡穴)에 해당하고 양계(陽谿)와 곡지(曲池) 사이를 1척의 골도 법으로 하여 양계(陽谿) 위 3촌에 위치.
편마타(騙馬墮) [병증] ⇒ 과마옹(跨馬癰)
편산(偏産) [병증] : 부인 분만 과정에서 임부가 힘을 잘못 쓰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태아의 머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즉시 나오지 않는 것.
편제(片劑) [약물] : 방제 약물 형태의 하나. 한 약재를 고루 섞어서 가루낸데다 부형제를 넣고 압착하여 만든 약.
편죽(萹竹) [약물] ⇒ 편축(萹蓄)
편축(萹蓄) [약물] 동 편죽(萹竹)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마디풀 *Polygonum aviculare* Linne의 전초(全草)로 여름철 잎이 무성할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
편탄(偏癱) [병증] ⇒ 반신불수(半身不隨)
편평우(扁平疣) [병증] : 편평한 모양의 사마귀.
편평족(扁平足) [병증] : 재활 족저부의 내측 세로궁이 소실되어, 족저부가 편평하게 되는 변형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술어. 발뒤꿈치의 외반, 거골하 관절 아탈구, 중족근 관절의 외반 등의 변형을 동반할 수도 있다.
편풍(偏風) [병증] ⇒ 반신불수(半身不隨)
폄석(砭石) [기구] 동 참석(鑱石), 침석(鍼石), 폄침(砭鍼), 침폄(鍼砭), 폄자요법(砭刺療法) : 침구 석기시대에 만들어 쓴 돌침. 돌을 뾰족하게 갈아서 종기가 난 부위를 째는데 주로 사용.
폄자요법(砭刺療法) [기구] ⇒ 폄석(砭石)
폄침(砭鍼) [기구] ⇒ 폄석(砭石)
평간(平肝) [치법] 동 평간약(平肝藥) : 간기(肝氣)가 몰리거나 상역(上逆)한 경우, 혹은 간양(肝陽)이 왕성한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법.
평간맥(平肝脈) [징후] : 진단 정상적인 맥상(脈象)의 하나. 부드럽고 연약하면서 약간 현(弦)한 맥상(脈象)을 가리킴.
평간약(平肝藥) [약물] ⇒ 평간(平肝)
평기(平氣) [운기] [기타] : 원전 정상적인 기후.
평맥(平脈) [징후] 동 상맥(常脈) : 진단 ① 정상적인 맥상(脈象)을 말함. 맥이 올 때 위기(胃氣)가 있고 신(神)·근(根)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② [진찰] 맥상(脈象)을 변별하는 것.
평보(平補) [치법] : 방제 보법(補法)의 일종으로서 완보법(緩補法)에 속함. 즉 감평화완(甘平和緩)한 약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대부분 오래된 상초(上焦)의 질병, 체질허약, 병세의 발전이 비교적 완만한 경우에 사용.
평봉초(萍蓬草) [약물] ⇒ 천골(川骨)
평비맥(平脾脈) [징후] : 진단 정상적인 맥상(脈象)의 하나. 부드러우면서 균일한 맥을 가리킴.
평상침대법(平床寢臺法) [추나] : 재활 평평한 침대에서 시행되는 추나수법.
평식(平息) [생리] [진찰] : ① 생리 정상적이고 안정된 호흡. ② 진단 일호일흡(一呼一吸)을 일식(一息)이라고 하는데, 평식이란 의사의 일식(一息)의 시간으로 환자의 맥의 지수(至數)을 세는 것을 이름.
평신맥(平腎脈) [징후] : 진단 정상적인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올 때 가라앉으면서도 매끄러운 것을 가리킴.

평심맥(平心脈) [징후] : 진단 정상적인 맥상(脈象)의 하나. 활리(滑利)한 맥상(脈象)을 가리킴.
평인(平人) [진찰] : 진단 기혈(氣血)이 조화로운 건강한 사람.
평천(平喘) [치법] : 천(喘)을 치료하는 방법.
평추법(平推法) [추나] ⇒ 찰법(擦法)
평폐맥(平肺脈) [징후] : 진단 정상적인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올 때 가볍고 허(虛)하면서도 떠올라 완만한 것을 가리킴.
폐(閉) [병증] : 내과 대변이나 소변이 막혀 통하지 않는 병증.
폐(肺) [해부] [생리] 동 상부지관(相傅之官), 수지상원(水之上源) : 생리 ① 오장(五臟)중의 하나로 금(金)의 특성과 부합하는 장부. ② 횡격막상의 흉중에 위치하여 세 번째 척추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오장을 덮고 있는 장부.
폐간(肺癎) [병증] : 정신 → 오간(五癎), 오장간(五臟癎)
폐감(肺疳) [병증] : 소아 오감(五疳)의 하나. 젖이나 음식물을 잘못 먹어 이것이 적체되어 발생한 열이 폐경(肺經)을 상하는 데에서 오는 것. 면백해수(面白咳嗽), 모발고초(毛髮枯焦), 피부가 건조하여 비늘이 생기고, 부스럼이 나며, 오한과 발열이 나며 눈물이 자주 나는 증상이 있다.
폐경(肺經) [경락] ⇒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폐경(閉經) [병증] 동 절경(絶經) : 부인 천계가 갈하여 월경이 영구히 종지되는 것.
폐기(閉氣) [기공] : 재활 호흡법의 일종. 숨을 들이 쉰 다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참고 있다가 내쉬는 방법. 폐를 단련하고 튼튼하게 함.
폐기(肺氣) [생리] : 생리 ① 폐장(肺臟)의 정기(精氣) 및 기능. ② 전신(全身)의 기기(氣機)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폐(肺)의 선발(宣發)·숙강(肅降)시키는 기운.
폐기능계(肺機能系) [생리] 동 폐계(肺系) : 생리 폐(肺)를 중심으로 대장(大腸)·피모(皮)·비(鼻) 등 폐(肺)의 생리기능을 발휘하거나 병리적 기능변화를 외부로 발현하는 기능계통.
폐기부족(肺氣不足) [병리] ⇒ 폐기허(肺氣虛)
폐기부족증(肺氣不足證) [병증] ⇒ 폐기허증(肺氣虛證)
폐기쇠절증(肺氣衰絶證) [병증] 동 폐기패절증(肺氣敗絶證) : 병리 폐(肺)의 숙강(肅降)기능이 쇠절(衰絶)하여 승강출입(升降出入)의 기기(氣機)가 끊어지려고 하는 증. 천식비창(喘息鼻脹), 해불능해(咳不能咳), 호흡소기(呼吸少氣), 불능식(不能息) 등이 주증이고, 면색황백(面色晄白), 피모건고(皮毛乾枯), 형체소수(形體消瘦), 동즉한출기천(動則汗出氣喘), 인건(咽乾)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소(舌淡苔少), 맥미약 혹 맥부산무륜(脈微弱 或 脈浮散無倫)하다.
폐기음부족증(肺氣陰不足證) [병증] ⇒ 폐기음양허증(肺氣陰兩虛證)
폐기음양허증(肺氣陰兩虛證) [병증] 동 폐기음부족증(肺氣陰不足證) : 병리 노권(勞倦)이나 구해(久咳), 구천(久喘)으로 폐기(肺氣)가 허약해지고 폐(肺)의 음진(陰津)이 부족한 증. 해천무력(咳喘無力), 동즉기단(動則氣短), 구건인조(口乾咽燥), 자한도한(自汗盜汗), 오심번열(五心煩熱) 등이 주증이고, 신피소기(神疲少氣), 음악저미(音聲低微), 면색무화(面色無華), 관홍(顴紅), 담소이조(痰少而稠), 해담대혈(咳痰帶血), 형체소수(形體消瘦), 오후조열(午後潮熱) 등이 차증이며, 설담눈홍(舌淡嫩紅), 맥세약(脈細弱)하다.
폐기패절증(肺氣敗絶證) [병증] ⇒ 폐기쇠절증(肺氣衰絶證)
폐기허(肺氣虛) [병리] 동 폐기부족(肺氣不足), 폐기허손(肺氣虛損) : 병리 폐허의 일종. 폐기가 부족하거나 약한 것. 폐실선숙(肺失宣肅)이

ㅍ

오래도록 낫지 않아 폐기(肺氣)를 상하게 되거나, 노상과도(勞傷過度)하여 폐기(肺氣)를 모상(耗傷)하거나, 구병모기(久病耗氣)로 폐기(肺氣) 역시 상하거나, 비허(脾虛)하여 운화(運化)가 무력(無力)하고 기(氣)의 화원(化源)이 부족해져 폐기(肺氣) 또한 허해져 생긴다. 주로 호흡기능의 저하와 위기(衛氣)의 허약으로 수곡(水穀)의 한기(悍氣)를 기부(肌膚)로 보내는 힘이 저하되어 위기부족(衛氣不足)하게 되고 위외공능(衛外功能)이 저하되어 자한(自汗) 및 외사(外邪)에 잘 감수하게 된다.

폐기허손(肺氣虛損) [병리] ⇒ 폐기허(肺氣虛)

폐기허증(肺氣虛證) [병증] ㊐ 폐기부족증(肺氣不足證) : 병리 기(氣)의 화생(化生)이 부족하여 폐기(肺氣)가 허약해지거나 구천구해(久喘久咳)로 폐기를 손상하여 선발(宣發)과 숙강(肅降)기능을 상실한 증. 해수무력(咳嗽無力), 단기(短氣) 등 폐(肺)의 기능이 쇠약한 증상과 일반적 기허(氣虛)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 증상은 면색황백(面色晄白), 해천무력(咳喘無力), 동즉기단(動則氣短), 자한파랭(自汗怕冷) 등이 주증이고, 정신권태(精神倦怠), 성음저미(聲音低微), 단기나언(短氣懶言), 담다청희(痰多淸稀) 등이 차증이며, 설담태박백(舌淡苔薄白), 맥허약(脈虛弱)하다.

폐기허한증(肺氣虛寒證) [병증] ⇒ 폐양허증(肺陽虛證)

폐로루(肺癆瘻) [병증] : 안이 치루(痔瘻) 중 농색(膿色)이 흑색(黑色) 혹은 황색(黃色)을 띠고 묽으면서 악취가 나고 마찰하여 단단하지 않은 것.

폐로(肺癆) [병증] ⇒ 폐로(肺勞)

폐로(肺勞) [병증] ㊐ 폐로(肺癆) : 내과 숨결이 가쁘고 얼굴이 붓고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기침하며 가래를 뱉고, 양쪽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프며, 계속 숨찬 증상, 혹 기가 부족해지고 심복(心腹)이 차고 아프며 심하면 머리털이 마르고 진액이 고갈되어 기침하고 열이 나는 병증.

폐륭(閉癃) [병증] ⇒ 융폐(癃閉)

폐맥(肺脈) [징후] : 진단 오장맥(五臟脈)의 하나로 폐(肺)에 소속시킨 맥상(脈象). 사시맥(四時脈)에서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오장맥으로 가을에는 폐맥(肺脈)인 모맥(毛脈)[또는 부맥(浮脈)]을 배속하였다. → 사시맥(四時脈)

폐비(肺痺) [병증] ㊐ 폐비증(肺痺證) : 내과 춥고 열이 나며 기침과 숨이 차고 가슴이 가득 차오르며 속이 메스껍고 기(氣)가 위로 치밀며 마른기침이 나타나는 병증. 오장비증(五臟痺證)의 하나.

폐비간신(肺脾肝腎) [사상] : 사상 사상체질의학에서 몸을 이루는 사장(四臟). 위로부터 상초(上焦), 중상초(中上焦), 중하초(中下焦), 하초(下焦)의 부위에 각각 폐비간신(肺脾肝腎)이 배속되어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장부(臟腑)의 대소(大小)에 차이가 있으니 폐대간소자(肺大肝小者)는 태양인(太陽人)이요 간대폐소자(肝大肺小者)는 태음인(太陰人)이요 비대신소자(脾大腎小者)는 소양인(少陽人)이요 신대비소자(腎大脾小者)는 소음인(少陰人)이 된다. 또 인사(人事)를 행할 때 각 장(臟)에서 주로 하는 일이 있으니 즉 폐달사무(肺達事務), 비합교우(脾合交友), 간립당여(肝立黨與), 신정거처(腎定居處)한다. 또한 폐기직이신(肺氣直而伸)하고 비기율이포(脾氣栗而包)하고 간기관이완(肝氣寬而緩)하고 신기온이축(腎氣溫而蓄)한다.

폐비양허증(肺脾兩虛證) [병증] ㊐ 비폐기허증(脾肺氣虛證) : 병리 비(脾의) 운화(運化)가 안 되어 담습(痰濕)이 중초(中焦)에 생기고 폐(肺)의 숙강(肅降)작용이 안 되어 분포되지 못하는 증. 해수기단(咳嗽氣短), 담다청백(痰多淸白), 복창변당(腹脹便溏) 등이 주증이고, 면색무화(面色無華), 신피나언(神疲懶言), 음식감소(飮食減少), 신형소수(身形消瘦) 등이 차

증이며, 설담태박백(舌淡苔薄白), 맥세약(脈細弱)하다.

폐비증(肺痺證) [병증] ⇒ 폐비(肺痺)

폐상(肺傷) [병증] 동 폐상증(肺傷證) : 내과 폐가 상(傷)한 병증. 주로 몸을 차게 하고 찬 것을 마실 때 나타나고, 폐창증(肺脹證), 폐위증(肺痿證) 그리고 폐옹증(肺癰證)이 있다.

폐상증(肺傷證) [병증] ⇒ 폐상(肺傷)

폐선(肺善) [징후] : 진단 안이 오선(五善)의 하나. 음성청(音聲淸), 무천식(無喘息)·무해수(無咳嗽)·무객담(無喀痰), 피부광택(皮膚光澤), 호흡정상(呼吸正常).

폐소(肺消) [병증] : 내과 양(陽)이 허(虛)하여 폐(肺)가 한(寒)함으로써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은 양의 소변을 보는 병증.

폐수(肺水) [병증] : 내과 폐(肺)의 선발숙강(宣發肅降) 기능의 실조(失調)로 전신부종(全身浮腫) 호흡불리(呼吸不利) 신중(身重) 소변난(小便難) 대변압당(大便鴨溏)하고 불갈(不渴)하는 병증. 오장수종(五臟水腫)의 하나.

폐수(肺兪)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13)로서 신주(身柱)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폐승격(肺勝格) [침구] ⇒ 폐승방(肺勝方)

폐승방(肺勝方) [침구] 동 폐승격(肺勝格) : 침구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실증(實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소부(少府)·어제(魚際)·보(補)·음곡(陰谷)·척택(尺澤)·사(瀉).

폐신기허증(肺腎氣虛證) [병증] ⇒ 신불납기증(腎不納氣證)

폐신음허증(肺腎陰虛證) [병증] 동 폐신음휴증(肺腎陰虧證) : 병리 폐음허(肺陰虛)와 신음허(腎陰虛)의 겸증으로 자윤(滋潤)기능이 상실된 증. 해수기촉(咳嗽氣促), 담중대혈(痰中帶血), 각혈(咯血), 요슬산연(腰膝酸軟), 골증조열(骨蒸潮熱) 등이 주증이고, 해담불상(咳痰不爽), 구건인조(口乾咽燥), 성음시아(聲音嘶啞), 형체소수(形體消瘦), 관홍(顴紅), 오심번열(五心煩熱), 도한(盜汗), 남자유정(男子遺精), 여자월경량소(女子月經量少), 경폐(經閉) 등이 차증이며, 설홍소태(舌紅少苔), 맥세삭(脈細數)하다.

폐신음휴증(肺腎陰虧證) [병증] ⇒ 폐신음허증(肺腎陰虛證)

폐실(肺實) [병리] [병증] 동 폐실증(肺實證), 폐실병증(肺實病證) : 병리 폐경(肺經)의 사실(邪實)을 말함. 풍한(風寒) 담열(痰熱) 담습(痰濕) 담화(痰火) 등 각종 병인(病因)에 의해 발생한다. 임상표현은 병인(病因)에 따라서 다르다. 천해식조(喘咳息粗), 흉만창통(胸滿脹痛), 담연옹성(痰涎壅盛), 객담조황혹대혈(喀痰稠黃或帶血), 돌연실음(突然失音) 등은 대개 폐실(肺實)에 속하는 증상이다.

폐실병증(肺實病證) [병증] ⇒ 폐실(肺實)

폐실증(肺實證) [병증] ⇒ 폐실(肺實)

폐양부족증(肺陽不足證) [병증] ⇒ 폐양허증(肺陽虛證)

폐양허증(肺陽虛證) [병증] 동 폐양부족증(肺陽不足證), 폐기허한증(肺氣虛寒證) : 병리 구해(久咳)로 폐기(肺氣)를 손상하여 기(氣)의 허손이 양(陽)에까지 미치거나 또는 양허(陽虛)한 상태에서 폐기(肺氣)를 상하여 생긴 증. 청희(淸稀)하고 많은 양의 담(痰)을 토(吐)하면서 힘없는 해천(咳喘)을 하며 기허(氣虛) 증상과 함께 형한지랭(形寒肢冷)이 있다. 그 증상은 해천무력(咳喘無力), 면색황백(面色晄白), 형한지랭(形寒肢冷), 동즉기단(動則氣短) 등이 주증이고, 신피소기(神疲少氣), 음성저겁(音聲低怯), 자한(自汗), 배한(背寒), 담청희(痰淸稀), 해토연말(咳吐涎沫)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박백(苔薄白), 맥허약(脈虛弱)하다.

폐열(肺熱) [병리] [병증] 동 폐열병(肺熱病),

ㅍ

폐열증(肺熱證) : 병리 소아 오장열(五臟熱)의 하나. 열사(熱邪)가 폐(肺)를 범하여, 폐(肺)가 열작(熱灼)됨으로써 나타나는 병증. 임상표현으로는, 면협홍적(面頰紅赤), 해수담조(咳嗽痰稠), 흉통(胸痛)하며, 심하면 천촉(喘促) 객혈(喀血)하는 것이 특징임.

폐열병(肺熱病) [병증] ⇒ 폐열(肺熱)

폐열증(肺熱證) [병증] ⇒ 폐열(肺熱)

폐옹(肺癰) [병증] 동 폐옹증(肺癰證) : 안이 수태음폐경의 모혈(募穴)인 중부혈(中腑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폐옹증(肺癰證) [병증] ⇒ 폐옹(肺癰)

폐위(肺痿) [병증] 동 폐위증(肺痿證) : 내과 기침을 하면서 입안에 끈끈한 가래침이 나오며 촌구맥(寸口脈)이 삭(數)한 병증. 혹 기침할 때 끈끈한 가래침과 더불어 약간의 피가 있거나 피고름이 나오는 병증.

폐위증(肺痿證) [병증] ⇒ 폐위(肺痿)

폐음(肺陰) [생리] 동 폐진(肺津) : 생리 폐(肺)의 음혈(陰血)과 음액(陰液).

폐음부족증(肺陰不足證) [병증] ⇒ 폐음허증(肺陰虛證)

폐음허(肺陰虛) [병증] ⇒ 폐음허증(肺陰虛證)

폐음허증(肺陰虛證) [병증] 동 폐음허(肺陰虛), 폐음부족증(肺陰不足證) : 병리 조열사(燥熱邪)나 구해(久咳) 등으로 인하여 폐음(肺陰)이 소모되고 진액(津液)이 부족하여 폐(肺)의 자윤(滋潤)기능과 숙강(淸肅)기능을 상실하고 허화(虛火)가 생겨난 증. 건해소담(乾咳少痰)과 함께 음허(陰虛)의 일반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병정(病程)이 비교적 길다. 그 증상은 건해소담(乾咳少痰), 오후관홍(午後顴紅), 구건인조(口乾咽燥), 조열도한(潮熱盜汗) 등이 주증이고, 담소이조(痰少而稠-유시대혈有時帶血), 오심번열(五心煩熱), 형체소수(形體消瘦), 상음시아(聲音嘶啞) 등이 차증이며, 설홍강소진(舌紅絳少津), 맥세삭(脈細數)하다.

폐저(肺疽) [병증] : 내과 술을 많이 마셔서 위(胃)를 손상시킴으로써 피를 토하는 병증.

폐적증(肺積證) [병증] ⇒ 식분(息賁)

폐절(肺絶) [징후] ⇒ 폐절후(肺絶候)

폐절후(肺絶候) [징후] [병증] 동 폐절(肺絶) : 진단 ① 오장절후(五臟絶後)의 하나. 폐기(肺氣)가 끊어져 나타나는 위중한 맥증(脈證). 얼굴이 붉고 우측 촌맥(寸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땀이 나서 축축하고 천식(喘息)이 멎지 않는 경우를 말함. ② 중풍탈증(中風脫證)의 하나. 중풍(中風)으로 졸도(卒倒)한 상태에서 코를 고는 것을 이름. → 중풍탈증(中風脫證)

폐정격(肺正格) [침구] ⇒ 폐정방(肺正方)

폐정방(肺正方) [침구] 동 폐정격(肺正格) : 침구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허증(虛證)에 쓰이는 오행침법(五行鍼法)의 처방. 태연(太淵)·태백(太白)·보(補)·소부(少府)·어제(魚際)·사(瀉).

폐조(肺燥) [병리] [병증] : 병리 조사(燥邪)가 폐(肺)를 상(傷)하거나, 혹은 폐(肺)가 음허(陰虛)하여 진액(津液)을 상해서 화조(化燥)한 폐조증(肺燥證)을 말함. 주요증상은, 건해(乾咳), 객혈(喀血), 비인건조(鼻咽乾燥), 혹은 인후흔통(咽喉�either痛), 음시(音嘶), 구건이갈(口乾而渴), 설홍태백이건(舌紅苔白而乾) 등이다.

폐증(閉證) [병증] 동 중풍폐증(中風閉證) : 내과 중풍 병증의 하나.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꽉 쥐고 펴지 못하며 몸에는 열이 있으나 손발은 싸늘한 것이 특징.

폐지당(肺之黨)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서술된 용어로, 상초(上焦)인 폐(肺)의 계열을 지칭한 말로서 위완(胃脘), 설(舌), 이(耳), 두뇌(頭腦), 피모(皮毛)를 말한다. 위완에서 수곡의 온기(溫氣)가 진(津)으로 화(和)하여 혀 밑으로 들어가 진해(津海)가 되며 진해의 경청(輕淸)한 기운은 귀로 나와서 신(神)이 되고 두뇌(頭腦)로 들어가 이해(膩海)

가 되며 이해의 청즙(淸汁)은 안으로 폐(肺)의 근원을 북돋우고 탁재(濁滓)는 안으로 위완을 돕고 밖으로 피모(皮毛)를 형성한다.
폐진(肺津) [생리] ⇒ 폐음(肺陰)
폐창(肺脹) [병증] 동 폐창증(肺脹證) : 내과 기침이 나고 기가 치밀어 오르며 번조(煩燥)하면서 숨찬 병증.
폐창증(肺脹證) [병증] ⇒ 폐창(肺脹)
폐평맥(肺平脈) [징후] ⇒ 평폐맥(平肺脈)
폐풍분자(肺風粉刺) [병증] 동 곡취창(穀嘴瘡), 주자(酒刺) : 안이 면비부(面鼻部)에 면포(面皰)와 같은 것이 생기고 인설(鱗屑)이 있으며 적색을 띠고 종통(腫痛)하는 것. 흔히 여드름이라고 한다.
폐풍창(肺風瘡) [병증] : 안이 폐위(肺胃)의 실열상승(實熱上升)으로 인해 비첨부(鼻尖部)의 혈관이 확장해서 적색(赤色)을 보이는 것. 주사비(酒齄鼻)와 유사.
폐한(肺寒) [병증] 동 폐한증(肺寒證) : 병리 폐경(肺經)에 한사(寒邪)가 있는 것. 양허증(陽虛證)에 속한다. 증상은 폐위(肺痿)와 유사하며, 입안에서 진액이 저절로 생겨나며 설태(舌苔)가 백활(白滑)하다.
폐한증(肺寒證) [병증] ⇒ 폐한(肺寒)
폐해(肺咳) [병증] : 내과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차고 목에서 소리가 나고 심하면 피를 뱉는 병증.
폐허(肺虛) [병리] [변증] : 병리 폐(肺)의 기혈(氣血), 음양(陰陽)이 부족하거나 약해진 상태.
폐허병증(肺虛病證) [변증] ⇒ 폐허증(肺虛證)
폐허증(肺虛證) [변증] 동 폐허병증(肺虛病證) : 병리 폐(肺)의 음양기혈(陰陽氣血)이 부족한 여러 가지 병증.
포(炮) [포제] : 본초 한약 포제법(炮製法)의 일종. 약물을 뜨겁게 달군 철기(鐵器)에 넣고 빨리 볶되 약물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는다. 예컨대 건강, 부자, 천웅 등을 포(炮)하면 극렬한 성미(性味)를 완화시킬 수 있다.
포(泡) [포제] ⇒ 침(浸)
포(胞) [해부] [생리] 동 포궁(胞宮), 여자포(女子胞), 자궁(子宮), 자장(子臟), 자처(子處) : 생리 여자의 자궁(子宮)과 남자의 정실(精室).
포(脬) [생리] ⇒ 방광(膀胱)
포검종창(胞瞼腫脹) [병증] : 안이 안검(眼瞼) 및 안포(眼胞)가 부어오른 것. 그 모양 및 허실(虛實)에 따라 포종여도(胞腫如桃), 포허여구(胞虛如球), 종창여배(腫脹如盃) 등으로 부른다.
포공영(蒲公英) [약물] 동 황화지정(黃花地丁)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민들레 *Taraxacum platycarpum* H. Dahlstedt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전초(全草)로서, 봄과 여름에 꽃이 피기 전이나 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포구(鋪灸) [침구] ⇒ 장사구(長蛇灸)
포궁(胞宮) [해부] [생리] ⇒ 포(胞)
포궁기체혈어증(胞宮氣滯血瘀證) [변증] ⇒ 충임어조증(衝任瘀阻證)
포궁기혈양허증(胞宮氣血兩虛證) [병리] ⇒ 충임불고증(衝任不固證)
포궁열증(胞宮熱證) [변증] ⇒ 충임열증(衝任熱證)
포궁한증(胞宮寒證) [변증] ⇒ 충임허한증(衝任虛寒證)
포기(胞氣) [생리] 동 포기(脬氣) : 생리 방광(膀胱)의 기화작용(氣化作用).
포기(脬氣) [생리] ⇒ 포기(胞氣)
포도근(葡萄根) [약물] : 본초 포도과(葡萄科 : Vitaceae)에 속한 전요등본(纏繞藤本)인 포도 *Vitis vinifera* L.의 뿌리로, 10~11월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하거나 생용(生用)함.
포도태(葡萄胎) [병증] 동 포상기태(胞狀奇胎), 귀태(鬼胎) : 부인 이상 임신의 하나로 융모막 융모가 상피세포의 증식으로 간질의 부종(浮腫) 및 퇴행변성(退行變成) 때문에 포상(胞狀)으로 변화하는 것. 임신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자궁은 급속한 증대로 임신일수에 비

해 크게 증대되어 있으며 오조(惡阻) 증상이 강하고 타각증상으로 부정자궁출혈(不正子宮出血)이 나타난다.

포락(胞絡) [경락] 동 포락(包絡), 포맥(胞脈) : 경혈 포궁(胞宮, 자궁)과 연결된 낙맥(絡脈).

포락(包絡) [경락] ⇒ 포락(胞絡)

포륜진도(胞輪振跳) [병증] 동 비륜진도(脾輪振跳), 안포진도(眼胞振跳), 안피도(眼皮跳), 목순(目瞤) : 안이 안검경련증(眼瞼痙攣症).

포말욕(泡沫浴) [치법] : 재활 물속에서 작은 기포들이 몸에 부딪힐 때 초음파가 발생하는데 몸의 조직에 수축과 이완의 기계적 자극을 주어 온열 효과를 높이는 목욕법. 미용효과, 어깨통, 요통, 근육통, 관절통, 피로회복, 외상후유증 등에 효과가 있다.

포맥(胞脈) [경락] ⇒ 포락(胞絡)

포법(泡法) [포제] : 본초 단단한 약재를 물에 침포(浸泡)하는 방법. 약재에 따라서는 임법(淋法), 세법(洗法)이 부적당한 약재가 있으므로 연화(軟化)시키기 위한 것.

포비증(胞痺證) [병증] : 내과 풍한습사(風寒濕邪)가 방광(膀胱)에 오래 머물러 방광 기화(氣化)가 실조되어 나타나는 소복창만(少腹脹滿)하고 동통(疼痛)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병증.

포상기태(胞狀奇胎) [병증] ⇒ 포도태(葡萄胎)

포생담핵(胞生痰核) [병증] : 안이 검판선낭종(瞼板腺囊腫) 혹은 산립종(霰粒腫)과 유사하며 포검내(胞瞼內)의 일종의 핵상경결(核狀硬結)이 생기는 것.

포아로(抱兒癆) [병증] : 부인 임부의 폐결핵. 해수(咳嗽), 발열골증(發熱骨蒸), 토혈(吐血), 몽교(夢交)가 발생한다.

포양곽(胞陽廓) [진찰] ⇒ 혈륜(血輪)

포유감(哺乳疳) [병증] : 소아 젖을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질(疳疾). 아기가 장기적인 영양결핍, 또는 젖이나 음식 때문에 비(脾)를 상하면 비위(脾胃)에 열이 쌓여 진액(津液)을 태워 발생함. 증상은 몸이 여위고, 모발이 누렇게 변하며 잘 빠지고, 얼굴빛이 누렇고도 검게 변하며, 배가 크게 부르며, 때때로 조열(潮熱)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늘어지며, 신문(囟門)이 움푹 들어가거나 닫혀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있다.

포육교응(胞肉膠凝) [병증] : 안이 결막(結膜) 매독(梅毒)과 유사. 결막에 처음 발생되면 국소적으로 경결과 부종이 생기고 끝이 궤양이 되어 통증은 없으나 신속히 확산된다.

포의(胞衣) [약물] ⇒ 자하거(紫何車)

포의불하(胞衣不下) [병증] 동 식태(息胎), 식포(息胞), 태의불하(胎衣不下) : 부인 태반은 태아가 분만된 후 수분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배출된다. 그러나 태아가 만출(滿出)된 후 30분이 경과하고도 태반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포전(胞轉) [병증] ⇒ 전포(轉胞)

포전(脬轉) [병증] ⇒ 전포(轉胞)

포제(炮製) [포제] 동 법제(法製), 수치(修治) : 본초 전통적인 약물 제조 기술로서 '포자(炮炙)', '포제(炮製)', '수치(修治)', '수제(修製)', '수사(修事)', '치삭(治削)' 등으로 불린다. '포제(炮製)'는 '수치'와 '포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선(淨選) 및 절제(切製)의 과정을 '수치'라고 하며, 음편(飮片)의 가공방법을 '포자'라고 한다.

포조(胞阻) [병증] : 부인 임신복통.

포종여도(胞腫如桃) [병증] : 안이 주로 포검종창(胞瞼腫脹) 중 실증(實證)으로 안포(眼胞)가 적색을 띠고 단단하며 종창(腫脹)되어 복숭아나 배의 모양과 같이 변함을 가리킴.

포주고정(抱肘捂定) [치법] : 재활 손상된 주관절의 고정을 통해 더 이상의 손상이나 침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절을 싸서 고정하는 방법.

포지(布指) [진찰] ⇒ 하지(下指)
포허여구(胞虛如球) [병증] : 안이 주로 포검종창(胞瞼腫脹) 중 허증(虛證)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수반하지 않다가 안포(眼胞)의 부종이 공 모양이 됨을 가리킴.
포황(胞肓)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3)로서 두 번째 엉치뼈 아래 양쪽 각 3촌에 위치.
포황(蒲黃) [약물] 동 향포(香蒲) : 본초 부들과(香蒲科 : Typh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부들 *Typha orientalis* Presl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꽃가루로서, 여름에 포황 줄기 위의 노란 빛 수꽃 화서(花序)를 따서 쇄건(曬乾)한 뒤 갈고 체로 쳐서 꽃가루를 얻는다.
폭간(暴癎) [병증] : 정신 소아 소아가 평소에 다른 질병이 없는데도 갑자기 간증(癎證)이 발생하는 것. 備急千金要方 卷五에서 "소아폭간(小兒暴癎)은 몸이 뻣뻣해져 마치 죽은 사람과 같고 복중(腹中)에서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난다. 태창혈(太倉穴) 및 제부(臍部)의 상하 각 1촌 부위 등 여섯 곳을 뜸뜬다."고 하였다.
폭건(曝乾) [포제] ⇒ 쇄건(曬乾)
폭건(暴乾) [포제] ⇒ 쇄건(曬乾)
폭맹(暴盲) [병증] : 안이 시력이 정상이다가 갑자기 시력이 하강하여 실명이 되는 것. 외형상 이상이 없다.
폭부(暴仆) [병증] ⇒ 졸도(卒倒)
폭사(暴瀉) [병증] 동 폭설(暴泄) : 내과 갑자기 물 같은 설사를 심하게 하는 병증.
폭설(暴泄) [병증] ⇒ 폭사(暴瀉)
폭음(暴瘖) [증상] ⇒ 졸연무음(卒然無音)
폭적생예(暴赤生翳) [병증] : 안이 갑자기 눈이 적색이 되고 부으면서 예막(瞖膜)이 발생되며 통증과 가려움이 심하고 때로는 열루(熱淚)가 흐르면서 밝은 곳을 보지 못하는 증상.
폭풍객열(暴風客熱) [병증] : 안이 외장 눈병의 일종. 급성결막염과 유사하고 주로 외감풍열에 의해 급성적으로 발병하며 홍열종통(紅熱腫痛)하는 특징이 있다.
표(標) [경혈] : 경혈 수혈(腧穴)의 위치 또는 경맥(經脈)의 분포에 따라 상하(上下), 내외(內外)의 부위적 구별이 있고, 상하(上下), 내외(內外)의 각 부위는 서로 대응성(對應性)이 있으며, 질병의 치료에 있어 표(標)와 본(本)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데, 상(上)의 위치인 두(頭), 면(面), 흉(胸), 배부(背部)가 표부(標部)에 해당된다.
표(表) [생리] [진찰] : ① 생리 [생리] 피모(皮毛), 기부(肌膚), 경락(經絡) 등 인체의 표부. ② 진단 [진찰] 팔강(八綱)의 하나로 표증(表證). 외감한 사기(邪氣)가 위분(衛分)이나 태양경(太陽經)에 있는 경우. ③ 생리 이(裏)와 상대적으로 쓰이는 말.
표(瘭) [병증] : 안이 사반(四畔)이 우순(牛脣)과 같은 흑색을 띠고 단단한 형태의 옹저.
표기불고(表氣不固) [병리] ⇒ 위기불고(衛氣不固)
표리(表裏) [생리] : 생리 팔강(八綱) 중에서 병위(病位)의 얕고 깊음으로서 원인과 경중(輕重)을 변별하는 두 가지 강령.
표리배혈법(表裏配穴法) [침구] : 침구 표리(表裏)관계의 경맥(經脈)에서 혈위(穴位)를 선택, 배합하여 해당 장부(臟腑)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표리쌍해(表裏雙解) [치법] : 방제 표증(表證)과 동시에 이증(裏證)을 치료하는 방법.
표리전(表裏傳) [병리] 동 표리출입(表裏出入) : 병리 표(表)에서 이(裏)로 전변되는 것을 통틀어 말함.
표리출입(表裏出入) [병리] ⇒ 표리전(表裏傳)
표문자(豹文刺) [침구] : 침구 오자(五刺)의 일종으로 혈위(穴位)의 좌우(左右) 전후(前後)를 산자(散刺)하여 세소혈맥(細小血脈)을 자(刺)해서 경락(經絡)중의 울혈(鬱血)을 방출하는 자법(刺法).

표본(標本) [경혈] : 경혈 수혈(腧穴)의 위치 또는 경맥(經脈)의 분포에 따라 상하(上下), 내외(內外)의 부위적 구별이 있고, 상하(上下), 내외(內外)의 각 부위는 서로 대응성(對應性)이 있으며, 질병의 치료에 있어 표(標)와 본(本)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데, 상(上)의 위치인 두(頭), 면(面), 흉(胸), 배부(背部)가 표부(標部)에 해당하고, 하(下)의 위치인 사지말단(四肢末端)은 본부(本部)에 해당됨.

표본중기(標本中氣) [운기] : 원전 운기학(運氣學)에서 육기(六氣)의 변화를 표(標)·본(本)·중기(中氣-中現之氣)로 나누어 설명한 것. 예로 태양한수(太陽寒水)는 본(本)이 한수(寒水)이고 표(標)는 태양(太陽)이며 중기(中氣)는 소음군화(少陰君火)임.

표사(表邪) [병리] : 병리 표에 있는 사기(邪氣).

표실(表實) [병리] [변증] : 병리 표에 사기(邪氣)가 성한 것.

표실증(表實證) [병증] ⇒ 태양상한(太陽傷寒)

표양승기(表揚升氣)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 나오는 용어로, 소음인(少陰人)이 헛소리하며 아랫배가 급하게 뭉치는 것을 역대의 의가들은 설사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이제마(李濟馬)는 소음인의 비국(脾局)의 양기(陽氣)가 한사(寒邪)로 인하여 갇히고 신국(腎局)의 양기(陽氣)는 사기(邪氣)로 인하여 멀어져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방광(膀胱)에 울축(鬱縮)되어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양기(陽氣)를 상승(上昇)시키서 한기(寒氣)를 떨쳐버리는 온기(溫氣)의 개념으로 표양승기(表揚升氣)를 설명하였다.

표열(表熱) [병리] : 병리 표(表)에 있는 열(熱).

표열증(表熱證) [변증] : 병리 체표에 풍열사(風熱邪)가 침범하여 생긴 병증. 열이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약간 오싹오싹 춥고 머리가 아프며 갈증이 나고 맥이 부삭(浮數)한 증상이 나타남.

표위불고(表衛不固) [병리] ⇒ 위기불고(衛氣不固)

표음강기(表陰降氣)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陽人病證論〉에 나오는 용어로, 비국음기(脾局陰氣)는 신국음기(腎局陰氣)로 잘 이어져 하강(下降)해야 하는데 소양인이(少陽人)의 경우 신국음기(腎局陰氣)가 열사소함(熱邪所陷)하고 비국음기(脾局陰氣)가 열사소옹(熱邪所壅)이 되어 불능하강연접어신국(不能下降連接於腎局)하는 상황이 잘 일어난다. 이것이 소양인의 비수한표한병(脾受寒表寒病) 원인이 되며 울체(鬱滯)된 비국(脾局)의 표음(表陰)을 하강하게 하는 것이 치료목표가 된다. 治法은 청이열이강표음(淸裏熱而降表陰)하는 것이다.

표저(瘭疽) [병증] 동 사장(蛇瘴) : 안이 수족지간(手足之間)·둔(臀)·비(臂)·구치(口齒)·두제(肚臍) 등에서 발생하는 옹저.

표증(表證) [병리] : 병리 팔강(八綱)의 하나. 병이 기부(肌膚)에 있는 증후(證候). 일반적으로 육음(六淫)이 피모(皮毛), 구비(口鼻)를 따라 인체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외감병(外感病)의 초기단계를 가리킴. 특징은 발병이 급하고 병정(病程)이 짧다.

표지리병(表之裏病) [사상] : 사상 → 이지리병(裏之裏病)

표지표병(表之表病) [사상] : 사상 → 이지리병(裏之裏病)

표한(表寒) [병리] : 병리 표가 차다는 말.

표한증(表寒證) [변증] : 병리 표(表)에 한사(寒邪)가 침범한 병증. 오싹오싹 춥고 열이 나며 온몸이 아프고 맥이 부긴(浮緊)한 증상을 나타낸다.

표허(表虛) [병리] [변증] : 병리 표가 허하다는 말.

표허증(表虛證) [병증] ⇒ 태양중풍(太陽中風)

품부부족(稟賦不足) [병리] : 병리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것.

품산(品産) [병증] : 부인 세 쌍둥이를 출산하는

것.
품태(品胎) [병증] : 부인 세 쌍둥이를 임신한 것.
풍(風) [병리] : 병리 육기(六氣)의 하나. → 육기(六氣)
풍간(風癎) [병증] : 정신 소아 평소 몸이 허약하고 열이 쌓여 있는 데다 풍사(風邪)의 침입을 받거나, 혹은 간경(肝經)에 열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증(癎症).
풍감(風疳) [병증] ⇒ 간감(肝疳)
풍견검출(風牽瞼出) [병증] ⇒ 피번점검(皮翻粘瞼)
풍견와벽(風牽喎辟)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풍견와사(風牽喎斜)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풍견편(風牽偏)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풍견편시(風牽偏視) [병증] ⇒ 구안와사(口眼喎斜)
풍경(風驚) [병증] : 정신 몸이 허약하고 심기(心氣)가 부족한데다 풍사(風邪)가 침입함으로 인해 발생. 심(心)은 신(神)을 장하고 혈맥을 주관하므로 심기가 부족하면 혈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血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면 기가 혈로 몰리는데, 여기에 풍사(風邪)가 침입하여 놀라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황홀(精神恍惚)·경계불안(驚悸不安)·건망(健忘)·다몽악몽(多夢惡夢)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할 때는 양심안신(養心安神)·거풍정경(祛風定驚)해야 하므로 소정심탕(小定心湯)·대정심탕(大定心湯)을 사용함.
풍곽(風廓) [진찰] ⇒ 흑정(黑睛)
풍관(風關) [진찰] 동 상관(上關), 초관(初關) : 소아 소아 지문을 통한 진단 부위의 하나. 둘째 손가락 밑 마디의 손바닥쪽 가로무늬를 가리킴. → 소아지문(小兒指紋), 진지문(診指紋)
풍궐(風厥) [병증] : 내과 간기(肝氣)가 풍(風)으로 변해 발생하는 궐증(厥證).
풍단(風丹) [병증] ⇒ 수단(水丹)
풍담(風痰) [병리] : 병리 담탁(痰濁)이 내조(內阻)하고 간울(肝鬱)로 화풍(化風)되었을 때 담(痰)이 풍(風)을 따라서 동(動)하게 된 증. 응급 시에는 중풍(中風)·전간(癲癎)처럼 졸연혼도(卒然昏倒)·구안와사(口眼喎斜)·반신불수(半身不隨)가 있고, 평소에는 두훈목현(頭暈目眩)·구토담연(嘔吐痰涎) 등이 있으며 열성(熱性)인 경우가 많다. 또한 주로 풍증(風症)과 담증(痰症)을 특징으로 감별한다.
풍담증(風痰證) [병증] 동 간풍협담증(肝風挾痰證) : 풍담(風痰)으로 인한 증(證). 두훈목현(頭暈目眩), 구토담연(嘔吐痰涎), 심하면 졸연혼도(卒然昏倒), 구안와사(口眼喎斜), 반신불수(半身不隨) 등이 주증이고, 흉협만민(胸脇滿悶), 후중담명(喉中痰鳴), 추축경궐(抽搐痙厥) 등이 차증이며, 설태박이(舌苔薄膩), 맥현활(脈弦滑)하다.
풍담효(風痰哮) [병증] : 내과 풍담(風痰)이 폐에 모여 목에서 가래소리(哮)를 나타내는 병증.
풍두선(風頭旋) [병증] 동 풍두선증(風頭旋症) : 정신 간풍(肝風)이 성(盛)해져 통증은 별로 자각되지 않으면서 머리만 흔들게 되는 두선증(頭旋症)이 온 것. 정신적인 긴장이나 흥분 시에는 더 심해진다.
풍두선증(風頭旋症) [병증] ⇒ 풍두선(風頭旋)
풍력(風癧) [병증] : 안이 형상(形狀)이 적고 가려움이 아주 심한 나력(瘰癧).
풍롱(風聾) [병증] : 안이 맥락(脈絡)이 허약할 때 풍사(風邪)가 침입하여 귀 안에 들어와 경락(經絡)의 기가 원활하지 못하여 청력장애가 나타난 것.
풍루(風漏) [병증] : 안이 창공내면(瘡孔內面)의 소양(搔痒)이 심한 것.
풍루안(風淚眼) [병증] ⇒ 충풍루출(衝風淚出)
풍륜(風輪) [진찰] ⇒ 흑정(黑睛)
풍륭(豐隆) [경혈] 동 위각(胃脚), 위락(胃絡)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40)로서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위 8촌으로 독비(犢鼻)와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ㄱㅍ

malleolus)꼭지를 이은 선을 1척 6촌으로 계산하고 독비(犢鼻)와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꼭지의 중간에 위치.

풍문(風門) [경혈] 동 열부(熱府)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12)로서 열부혈(熱府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양쪽 각 1촌 5푼에 위치.

풍병(風病) [병증] 동 풍증(風症), 풍질(風疾), 풍증(風證) : 병리 안이 외풍(外風)과 내풍(內風)에 의해서 생긴 병증의 통칭. 풍사(風邪)가 침입하거나 질병 중에 음혈(陰血)이 허손(虛損)되거나 열(熱)이 몹시 성(盛)하여 생긴다. 피부질환에 있어서 풍병(風病)이란 피부가 건조(乾燥)하고 모발(毛髮)이 꺼칠하며 가피(痂皮)를 형성하여 탈락(脫落)되는 것을 지칭한다.

풍부(風府)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16)로서 목뒤 머리카락 경계면 위 1촌에 위치.

풍비(風痺) [병증] 동 행비(行痺), 근비(筋痺), 풍비증(風痺證) : 재활 비증의 하나. 비증은 풍(風)·한(寒)·습(濕) 사기가 수족 관절과 경락을 침범하여 생기는데 그 중 풍사가 성한 비증. 상하로 옮겨 다니는데, 허사(虛邪)와 기혈(氣血)이 뒤엉킨 곳을 따라 관절에서 몰리며, 근맥(筋脈)이 이완되어 추스르지 못한다. 증상은 동통이 상하좌우로 돌아다녀 일정하지 않다.

풍비(風痱) [병증] : 내과 사지불수(四肢不遂), 특히 반신불수(半身不遂)의 편마비(偏痲痺)가 있으나 고수(枯瘦)와 동통이 없으며, 언변(言變), 지란(志亂)이 경미하게 있는 병증.

풍비증(風痺證) [병증] ⇒ 풍비(風痺)

풍사(風痧) [병증] : 소아 사증(痧症)의 하나. 풍진(風疹). 대부분 풍열(風熱)이나 철따라 유행하는 사기(邪氣)가 폐(肺)와 위(胃)에서 뭉쳐 머물러 있다가 피부로 퍼져서 일어남. 임상에서는 살갗에 갑자기 작고 빨간 두드러기가 나타나 보통 하루 안에 온몸으로 번지면서 가렵다가 2~3일 만에 가라앉는데, 두드러기가 가라앉은 후에는 살갗에 벗겨진 비듬이나 얼룩이 남지 않는다. 이 병은 흔히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 발진되기 전에 보통 가볍게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며 입맛이 떨어지고 설사와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풍사(風邪) [병리] : 병리 외감병인 중 육음(六淫)의 하나. 외감질병 가운데 풍(風)의 특성(선행삭변(善行數變), 거래신속(去來迅速), 경양개설(輕揚開泄), 주동(主動) 등)과 같은 증후를 일으키는 외사(外邪)를 말함.

풍선(風癬) [병증] 동 완선(頑癬) : 안이 구진(丘疹), 결가(結痂), 인설(鱗屑) 등이 혼재(混在)하고 피부에 감각이 둔해진 것 같고 통증과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선증(癬證).

풍선(風選) [포제] : 본초 약물과 잡질(雜質)의 무게가 다른 것에 근거하여 바람의 힘을 빌어서 잡질을 제거하는 방법.

풍설(風泄) [병증] : 내과 봄에 풍사(風邪)에 손상된데다가 여름에 습사(濕邪)에 손상되어 발생하는 설사.

풍수(風水) [병증] : 내과 외감(外感)에 의해 부종(浮腫)이 나타나고, 맥부(脈浮), 신중(身重), 한출(汗出), 오풍(惡風)의 표증(表證)이 동반되는 병증. 수종병 형증(水腫病 形證)의 하나.

풍수(風嗽) [병증] : 내과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탁하고,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가려우며 말을 끝맺지 못하고 기침을 하며, 풍사(風邪)에 더욱 심해지는 병증.

풍습(風濕) [병리] [병증] : 병리 풍사(風邪)와 습사(濕邪)가 겹친 것으로 관절이 아프고, 만지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

풍습병(風濕病) [병증] 동 풍습증(風濕證) : 재활 ① 풍(風)·한(寒)·습사(濕邪)를 감수함으로 인해 신통(身痛) 혹은 신중(身重) 혹은 관절동통 굴신불리(關節疼痛 屈伸不利) 등의 주증이

나타나는 질병. ② 풍습사(風濕邪)를 감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병증을 통칭한 것.
풍습산통(風濕痠痛) [병증] : 재활 풍습사(風濕邪)를 감수함으로 인해 시린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
풍습증(風濕證) [병증] ⇒ 풍습병(風濕病)
풍시(風市)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1)로서 무릎뼈(슬개골; patella) 가쪽(외측; lateral) 위 7촌으로 넙다리두갈래근(대퇴이두근; biceps femoris) 사이에 위치.
풍심통(風心痛) [병증] 동 혈풍심통(血風心痛) : 내과 풍혈(風血)이 상박(相搏)하여 나타나는 심통(心痛). 심장 부위가 아프면서 양쪽 옆구리가 켕기며 가슴이 그득하고 숨결이 빠르며 침을 흘리는 병증.
풍열(風熱) [병리] [병증] 동 풍열증(風熱證) : 병리 풍사와 열사가 겹친 것으로, 열이 심하고 오한은 약하며 기침과 갈증이 나고 혀가 붉어지며 약간 누런 설태(舌苔)가 끼고 맥이 부삭(浮數)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풍열백후(風熱白喉) [병증] : 안이 풍열(風熱)로 인한 디프테리아를 말함.
풍열범폐증(風熱犯肺證) [병증] 동 풍열습폐증(風熱襲肺證) : 병리 풍열사(風熱邪)에 의하거나, 풍한(風寒)이 울체되어 열(熱)로 화(化)하여 폐기(肺氣)의 선발숙강(宣發肅降)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증. 장열(壯熱), 해수담조황(咳嗽痰稠黃), 기천(氣喘) 등의 풍열상(風熱象)이 나타남. 또한 이열(裏熱)이 왕성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번조불안(煩躁不安), 대변건결(大便乾結), 소변황적(小便黃赤) 등도 동반함. 겨울과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그 증상은 발열(發熱), 미오풍한(微惡風寒), 해수담황조(咳嗽痰黃稠) 등이 주증이고, 인후동통(咽喉疼痛), 비류탁체(鼻流濁涕), 구갈희음(口渴喜飮), 기천(氣喘), 비선(鼻煽), 번조불안(煩躁不安) 등이 차증이며, 설질홍(舌質紅), 태황(苔黃) 혹 황이(黃膩), 맥부삭(脈浮數) 혹 활삭(滑數)하다.
풍열습폐증(風熱襲肺證) [병증] ⇒ 풍열범폐증(風熱犯肺證)
풍열증(風熱證) [병증] ⇒ 풍열(風熱)
풍온(風溫) [병증] : 내과 풍열(風熱)에 의해 발생한 온병(溫病)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기침이 나고 목이 마르고 맥이 부삭(浮數)한 병증.
풍요법(風療法) [치법] : 재활 몸의 독소제거가 가장 큰 효과이며 옷을 벗고 자연 상태의 공기를 피부에 접촉시킴으로써 모공을 통하여 피부가 호흡하는 것을 도와준다.
풍요통(風腰痛) [병증] : 재활 풍사(風邪)에 의해 신경(腎經)이 손상되어 좌측 혹은 우측의 허리가 땅기는 것처럼 아프고 통증부위가 일정하지 않으며 간혹 견부(肩部)와 배부(背部) 혹은 양족(兩足)까지 파급되며, 간혹 오한발열(惡寒發熱), 맥부(脈浮)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
풍의(風懿) [병증] : 내과 홀연히 혼미(昏迷)하여 부도(仆倒)한 후 설강불어(舌强不語)하고 후중(喉中)이 질색(窒塞)되어 희희(噫噫)하는 담성(痰聲)이 있게 되는 졸중기(卒中期). 풍억(風癔)이라고도 함.
풍이(風耳) [병증] ⇒ 농이(膿耳)
풍저(風疽) [병증] : 안이 풍사(風邪)가 혈맥에 계류상박(稽留相搏)하여 위경(胃經)의 해계혈(解溪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풍적창이(風赤瘡痍) [병증] 동 실열생창(實熱生瘡) : 안이 안검(眼瞼)이 적색을 띠고 포진(疱疹)이 생겼다가 궤양이 된 후 결가(結痂)가 되는 병.
풍전(風癲) [병증] : 정신 → 전증(癲症), 오전(五癲)
풍종(風腫) [병증] : 안이 피부가 쭈글쭈글하며, 색깔은 붉지 않고 피부표면에 경미한 열(熱)이나 통증이 있는 종(腫).
풍중(風中) [병증] ⇒ 천조(天釣)
풍중혈맥(風中血脈) [병리] [병증] ⇒ 중혈맥

ㅍ

(中血脈)
풍증(風證) [병증] ⇒ 풍병(風病)
풍증(風症) [병증] ⇒ 풍병(風病)
풍지(風池)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20)로서 바깥뒤통수뼈융기(외후두융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바로 아래의 오목한 곳과 꼭지돌기(유양돌기; mastoid process) 사이에 위치.
풍진(風疹) [병증] : 소아 비교적 가벼운 출진성 전염병(出疹性傳染病)의 하나. 대부분 5살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며 겨울과 봄 사이에 유행함. 진점(疹點)이 세소(細小)하고 담홍색이며, 출진(出疹)과 침진(浸疹)이 비교적 빠르고, 나은 후에는 낙설(落屑)과 진흔(疹痕)이 없으며, 그 증상은 마치 사자(痧子)와 같기 때문에 풍사(風痧)라 하기도 함. 주로 풍열시사(風熱時邪)를 외감하여 사(邪)가 기표(肌表)에 쌓였다가 외부로 나오는 데에서 오는 것.
풍질(風疾) [병증] ⇒ 풍병(風病)
풍학(風瘧) [병증] : 내과 먼저 열이 나다가 오한(惡寒)이 나며, 풍사(風邪)에 감촉되어 생기는 학질.
풍한(風寒) [병리] [병증] 동 풍한사(風寒邪), 풍한증(風寒證) : 병리 풍사(風邪)와 한사(寒邪)가 겹친 것. 풍한(風寒)이 표에 침범하면 위양(胃陽)을 상하기 때문에 바람을 싫어하고 오한(惡寒)이 나면서 열이 나고 머리와 온몸이 아프며 코가 메고 기침과 재채기가 나며 혀에 이끼가 끼고 맥이 부(浮)한 증상이 나타남.
풍한범폐증(風寒犯肺證) [병증] ⇒ 풍한속폐증(風寒束肺證)
풍한사(風寒邪) [병리] ⇒ 풍한(風寒)
풍한속폐증(風寒束肺證) [병증] 동 풍한범폐증(風寒犯肺證) : 병리 풍한(風寒)이 침입하여 폐기(肺氣)가 폐울(閉鬱)되어 선발(宣發)과 숙강(肅降)작용이 안 되는 증(證). 외사(外邪)가 폐(肺)에 침입하여 해수(咳嗽), 비색(鼻塞), 비명(鼻鳴), 담다청희(痰多淸稀) 등의 증상을 동반함. 또한, 발병이 급작스럽고 병정(病程)이 짧으며 발병은 기후의 이상변화와 관련이 있음. 그 증상은 해수(咳嗽), 객담청희(喀痰淸稀), 비색(鼻塞), 비류청체(鼻流淸涕) 등이 주증이고, 성중(聲重), 분체(噴嚏), 두통(頭痛), 오한발열(惡寒發熱), 무한(無汗), 주신산통(周身酸痛) 등이 차증이며, 설태박백(舌苔薄白), 맥부긴(脈浮緊)하다.
풍한증(風寒證) [병증] ⇒ 풍한(風寒)
풍한천(風寒喘) [병증] : 내과 풍(風)이나 한(寒)을 만나면 숨찬 증상[천증(喘症)]이 심해지는 병증.
풍현(風眩) [병증] ⇒ 풍훈(風暈)
풍현적란(風眩赤爛) [병증] ⇒ 검현적란(瞼眩赤爛)
풍훈(風暈) [병증] 동 풍현(風眩) : 내과 오풍(惡風), 자한(自汗)하면서 어지럼증이 있는 병증.
피관현긴(皮寬弦緊) [병증] : 안이 초창(椒瘡)으로 인한 도첩권모증(倒睫拳毛症)의 형상을 표현한 것.
피급긴소(皮急緊小) [병증] : 안이 안검내반(眼瞼內反)으로 인한 검열축소(瞼裂縮小)를 이름.
피내추침법(皮內推鍼法) [침구] ⇒ 피내침(皮內鍼)
피내침(皮內鍼) [침구] 동 피내침법(皮內鍼法), 피내침요법(皮內鍼療法), 피내추침법(皮內推鍼法) : 침구 소침(小鍼)을 혈위(穴位)의 피내(皮內)에 비교적 장시간 유치(留置)하는 방법.
피내침법(皮內鍼法) [침구] ⇒ 피내침(皮內鍼)
피내침요법(皮內鍼療法) [침구] ⇒ 피내침(皮內鍼)
피년(避年) [생리] : 부인 월경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가리킴. 경폐(經閉)와는 다르며 임상에서 드물게 보이는 생리적 현상이다.
피로손상(疲勞損傷) [병증] : 재활 반복적인 부하를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손상.
피마자(篦麻子) [약물] 동 비마자(萆麻子), 비마인(萆麻仁) : 본초 대극과(大戟科 : Euphorbiaceae)에 속한 일년생초본인 피마자 *Ricinus*

communis Linne의 종자로, 가을철에 과실이 갈색으로 변하고 과피(果皮)가 개열(開裂)할 때 채취하여 과피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한 후 사용.

피모(皮毛) [해부] : 체표의 피부(皮膚)와 피부에 붙어 있는 털.

피모위(皮毛痿) [병증] : 내과 위증(痿證)의 일종. 폐열(肺熱)로 인해 폐엽(肺葉)이 마르고 병(病)이 피모(皮毛)에 파급되어 발생. 피모가 메말라 약해지거나, 해창(咳嗆), 기식(氣息) 등의 증상이 나타남. 만약 병사(病邪)가 머물러 제거되지 않으면 근(筋), 맥(脈), 골(骨), 육(肉)을 자양하지 못하여 위벽(痿躄)이 발생한다.

피번점검(皮翻粘瞼) [병증] 동 풍견검출(風牽瞼出), 비번점검(脾翻粘瞼) : 안이 비번점검(脾翻粘瞼), 풍견검출(風牽瞼出)과 유사. 안검외반증(眼瞼外反症)으로 검결막(瞼結膜)이 바깥쪽으로 반전(反轉)하는 것.

피부소양(皮膚瘙痒) [병증] ⇒ 소양(瘙痒)

피부소양증(皮膚搔痒症) [병증] ⇒ 소양(瘙痒)

피부저항(皮膚抵抗) [진찰] : 진단 피부의 통전저항. 양도점은 통전저항이 적은 부위.

피부침(皮膚鍼) [침구] 동 피부침요법(皮膚鍼療法) : 침구 다침(多鍼)을 천자(淺刺)하여 피부(皮膚)에만 자침(刺鍼)하는 방법.

피부침요법(皮膚鍼療法) [침구] ⇒ 피부침(皮膚鍼)

피비(皮痺) [병증] 동 피비증(皮痺證) : 내과 피부가 차고 마비가 되는 병증. 비증(痺證)의 하나.

피비증(皮痺證) [병증] ⇒ 피비(皮痺)

피수(皮水) [병증] : 내과 수기망행(水氣妄行)하여 피부(皮膚)로 넘쳐서 붓고, 동시에 사지(四肢)가 무겁고 바람을 싫어하지 않으며 맥부(脈浮)하는 병증. 수종병 형증(水腫病 形證)의 하나.

피열(皮熱) [증상] : 내과 살갗에서 열이 나는 병증.

피위(皮痿) [병증] : 내과 폐(肺)에 열(熱)이 있어 살갗과 털이 시드는 병증. 위증(痿證)의 하나.

피증(皮蒸) [병증] : 내과 원인이 폐(肺)에 있으며 숨이 가쁘고 코가 마르며 입이 말라 침이 없고 설태(舌苔)가 희며 소변이 피처럼 붉은 병증.

피진(皮疹) [증상] 동 진(疹), 발진(發疹), 진자(疹子) : 안이 발진(發疹). 피부에 나타나는 육안적(肉眼的)인 증적(症的) 변화.

피침(鈹鍼) [기구]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 길이가 4촌(寸), 너비는 2.5푼(分)이며, 모양이 칼처럼 생겨 양쪽에 날이 있어 창양(瘡瘍)의 고름을 빼고 피를 내는데 사용.

피풍(皮風) [병증] : 내과 피부가 소름끼칠 때처럼 되면서 가려운 것. 아피(鵝皮)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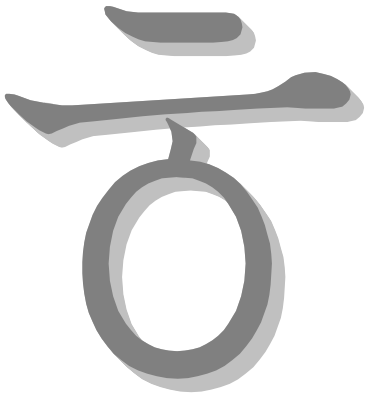
피한(皮寒) [증상] : 내과 살갗이 추워지는 증상.

필발(畢撥) [약물] ⇒ 필발(蓽撥)

필발(蓽撥) [약물] 동 필발(畢撥) : 본초 후추과(胡椒科 : Pip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질등본(草質藤本)인 필발(蓽撥) *Piper longum* L.의 미숙한 과수(果穗)로, 9~10월에 과수가 황색에서 흑색으로 변할 때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필징가(蓽澄茄) [약물] 동 징가(澄茄) : 본초 녹나무과(樟科 : Lauraceae)에 속한 낙엽관목 혹은 소교목인 산계초(山鷄椒) *Litsea cubeba* (Lour.) Pers. 의 성숙한 과실로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핍력(乏力) [증상] : 내과 기허(氣虛) 또는 양허(陽虛)로 인해 힘이 부족하거나 쉽게 지치는 증상.



KOMS 대한한의학회 | 대한한의사협회

하

하(煆) [포제] ⇒ 하법(煆法)
하(瘕) [병증] ⇒ 가(瘕)
하(下) [치법] ⇒ 하법(下法)
하감(下疳) [병증] : 안이 마구하[馬口下-요도구(尿道口)]에서 발생되는 감창(疳瘡).
하감창(下疳瘡) [병증] ⇒ 감창(疳瘡)
하거허(下巨虛)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39)로서 소장하합혈(小腸下合穴)에 해당하고 상거허(上巨虛) 아래 3촌, 조구(條口) 아래 1촌에 위치.
하검외번(下瞼外翻) [병증] : 안이 안검외반증(眼瞼外反症)으로 하안검결막(下眼瞼結膜)이 외반(外反)되는 것.
하고초(夏枯草) [약물]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꿀풀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의 꽃 이삭으로, 여름철에 꽃 이삭이 반쯤 시들어 홍갈색을 띨 때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하관(下關)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7)로서 귀 앞, 광대활(협골궁; zygomatic arch) 아래에 위치하며 입을 벌리면 오목한 부위가 없다가 입을 다물면 오목한 부위가 나타나는 곳에 위치.
하구(夏鉤) [징후] ⇒ 하홍(夏洪)
하극수(下極兪) [기혈] ⇒ 극수(極兪)
하기(下氣) [치법] ⇒ 강기(降氣)
하기증(下氣證) [병증] : 내과 ① 심맥(心脈)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면 기설(氣泄-기로 인해 생긴 설사,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되는 병증. ②기가 위로 치민 것이 가라앉는 것. ③ 방귀가 나가는 것.
하늘타리씨 [약물] ⇒ 괄루인(栝樓仁)
하탑수(下搭手) [병증] 동 신수발(腎兪發) : 안이 신수결핍(腎水缺乏)으로 말미암아 황문혈(肓門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하렴(下廉)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8)로서 양계(陽谿)와 곡지(曲池)를 잇는 가정선상에서 팔꿈치 횡문 아래 4촌에 위치.
하료(下髎)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4)로서 네 번째 엉치뼈 구멍(천골공; sacral foramen)에 위치.
하리(下利) [병증] ⇒ 하리(下痢)
하리(下痢) [병증] 동 하리(下利) : 내과 일반적인 복사[腹瀉-설사(泄瀉)]하는 병증.
하마(蝦蟆) [약물] ⇒ 섬서(蟾蜍)
하마온(蝦蟆瘟) [병증] : 내과 온역(瘟疫)의 하나로 두면(頭面)이 벌겋게 붓는 특징을 갖는 역병(疫病).
하마옹(下馬癰) [병증] : 안이 우측 둔부 둔육부 습문중(褶紋中-足太陽膀胱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하발배(下發背) [병증] 동 대제발(對臍發) : 안이 독맥경상(督脈經上)의 척중(脊中)에서 발생하는 옹저.
하법(煆法) [포제] 동 하(煆) : 본초 약물을 직접 가마나 불에 견디는 용기 내에서 고열로 가열하는 방법.
하법(下法) [치법] 동 하(下), 공하(攻下), 공하법(攻下法), 사하(瀉下), 통리(通裏), 통하(通下),

사하법(瀉下法) : 방제 팔법(八法)의 하나. 사하(瀉下), 공축(攻逐), 윤하(潤下)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통도대변(通導大便), 소제적체(消除積滯), 탕척실열(蕩滌實熱), 공축수음(攻逐水飮)하는 치법. 위장(胃腸)에 실열(實熱)이 적체되었거나, 조시(燥屎)가 내부에 울결되었거나, 체내에 수기(水氣)가 쌓였거나, 냉적(冷積) 등의 사기(邪氣)가 실(實)한 병증이 있으면서 정기(精氣)가 아직 허(虛)하지 않은 경우에 모두 사용이 가능함. 한하(寒下), 온하(溫下), 윤하(潤下) 등으로 나뉘는데, 비교적 화완(和緩)한 약성의 윤하약(潤下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약성이 준열(峻烈)한 편이므로 노약자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하고, 임신부나 월경기의 여성에게는 사용을 금하며, 실결(實結)이 없는 환자에게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사태(下死胎) [치법] : 부인 자궁 안에서 죽은 태아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하석저(下石疽) [병증] : 안이 슬개골 및 그 주위(足三陰經)에서 발생하는 옹저로서 단단한 것이 돌과 같은 것이 진단 상의 요점.

하소(下消) [병증] : 내과 소변을 특히 많이 보는데, 소변이 기름 같고 달기도 한 것이 주증(主證)이며,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얼굴과 귀가 검어지며 날로 야위게 되는 병증. 소갈(消渴)의 일종.

하수오(何首烏) [약물] 동 적하수오(赤何首烏)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에 속한 다년생 전요초본(纏繞草本)인 하수오 *Polygonum multiflolum* Thunb.의 괴근(塊根)으로, 가을 겨울에 잎이 마른 뒤에 캐서 양끝은 잘라 버리고 씻은 뒤 큰 것은 큼직하게 잘라 건조하여 사용.

하쉬(煆焠) [포제] : 본초 약물을 명하법(明煆法)으로 가열하여 빨갛게 달군 다음 식기 전에 일정량의 쉬액(焠液)이나 찬물에 담궈 냉각시킴으로써 질을 성기게 하는 방법. 목적은 약물의 이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고, 치료효과를 높이며,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약물을 성기게 하여 분쇄와 유효성분의 추출이 쉽게 하는 것이다.

하엽(荷葉) [약물] : 수련과(睡蓮科) 식물인 연(蓮) *Nelumbo nucifera* Gaertn.의 잎.

하완(下脘)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0)로서 배꼽 위 2촌에 위치.

하원(下元) [생리] ⇒ 신기(腎氣)

하원불고증(下元不固證) [병증] ⇒ 신기불고증(腎氣不固證)

하유(下乳) [치법] ⇒ 최유(催乳)

하유맥(蝦游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이 분명하지 않게 뛰다가 사라질 때 크게 한 번 뛰고 사라지는 것이 마치 개구리가 노는 것 같은 것.

하유즙(下乳汁) [치법] ⇒ 최유(催乳)

하응중구(夏應中矩) [징후] ⇒ 하응중구(夏應中鉤)

하응중구(夏應中鉤) [징후] 동 하응중구(夏應中矩) : 진단 사시(四時) 가운데 여름에 상응하는 맥(脈)으로 맥(脈)이 홍대(洪大)하여 마치 사각형의 구(矩-곱자) 같은 것.

하지(下指) [진찰] 동 포지(布指), 하지법(下指法), 배지(排指) : 진단 진맥(診脈)할 때 손가락을 짚는 방법. 진맥(診脈)할 때는 보통 중지 끝을 먼저 환자의 손목 촌구(寸口)의 관부(關部)에 대고 그 다음에 검지 끝을 촌부(寸部)에, 무명지(無名指) 끝을 척부(尺部)에 댄다. 환자의 팔이 길 때는 손가락들을 좀 더 벌려서 짚고, 팔이 짧을 때는 손가락들을 붙여서 짚는다.

하지골절(下肢骨折) [병증] : 재활 외부압력이나 혹은 골결핵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다리 부위의 골절.

하지마비(下肢痲痺) [병증] : 재활 다리의 기부(肌膚)가 마비되어 아프고 가려운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하지법(下指法) [진찰] ⇒ 하지(下指)

하지부채운동(下肢부채運動) [치법] : 재활 환자에게 발을 모은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벌리게 하여 무릎이 벌어짐에 따라 후상장골극이 내측으로 이동하고 천추가 앞으로 이동하는 듯함을 느끼게 하여 양측의 후상장골극의 운동을 비교함.

하지위연(下肢痿軟) [병증] : 재활 다리를 쓰지 못하고 심하면 기육(肌肉)이 위축되는 병증.

하찬(下竄) [병증] : 내과 찬시(竄視)의 하나로 안구가 아래로 향하는 증상.

하초(下焦) [생리] : 생리 ① 배꼽아래의 간신(肝腎)이 위치하는 부위. ② 진액의 소통을 담당하는 간신(肝腎)에 원기(元氣)를 공급·조절하는 기능.

하초동충(夏草冬蟲) [약물] ⇒ 동충하초(冬蟲夏草)

하초신국(下焦腎局) [사상] : 사상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인체를 상초(上焦), 중상초(中上焦), 중하초(中下焦), 하초(下焦)로 나누고 각각 폐(肺), 비(脾), 간(肝), 신(腎)의 장부를 배속시켰다. 신국(腎局)은 이러한 하초 신(腎)의 부위, 즉 신(腎), 방광(膀胱), 둔부(臀部) 등을 통칭하는 표현.

하침(下鍼) [침구] ⇒ 진침(進鍼)

하태독법(下胎毒法) [치법] : 소아 신생아를 보살피는 방법의 하나.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입속의 악혈(惡血)을 깨끗이 씻어 낸 후에 약물을 내복시켜 뱃속의 나쁜 것과 제분(臍糞)을 제거하여 태중에서 쌓인 열독을 풀어 준다. 감초(甘草)법, 황련(黃連)법, 구즙(韭汁)법, 주밀(朱蜜)법, 우황(牛黃)법, 홍분(汞粉)법, 저유(猪乳)법, 제대(臍帶)법 등이 있다.

하퇴욕(下腿浴) [치법] : 재활 신체의 일부인 발과 다리 부위를 온수에 침수하는 방법. 상처, 말초신경손상, 말초혈관장애, 유착증, 관절염, 염좌 등 병변부위를 온수에 담근다.

하품(下品) [기타] : → 삼품(三品)

하합혈(下合穴) [경혈] : 경혈 수삼양경(手三陽經)의 하합혈(下合穴)과 족삼양경(足三陽經)의 합혈(合穴) 모두 6개의 합혈(合穴)을 칭한 것. 수삼양경(手三陽經)의 하합혈(下合穴)은 각각 족양명경(足陽明經)과 족태양경(足太陽經)의 경맥상(經脈上)에 분포하며, 위경(胃經)의 상거허(上巨虛), 하거허(下巨虛)와 방광경(膀胱經)의 위양(委陽)이 이에 해당. 족삼양경(足三陽經)의 하합혈(下合穴)은 오수혈(五輸穴) 중의 합혈(合穴)과 동일하고, 모두 그 본경상(本經上)에 있다.

하혈(下血) [병증] ⇒ 변혈(便血)

하홍(夏洪) [징후] 동 하구(夏鉤) : 진단 여름철에는 홍맥(洪脈)이 나타난다는 것.

학(瘧) [병증] 동 학질(瘧疾), 해학(痎瘧), 해학(瘧瘧), 해학증(痎瘧證) : 내과 여름철에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학질(瘧疾)이 생긴다. 한열(寒熱)이 간헐적으로 발하는 병으로 하루건너 한 번 발하는 것을 해(痎), 매일 한번 발하는 것을 학(瘧)이라 하며,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솜털이 일어나고 하품이 나고 춥고 떨리면서 턱이 떨리고 허리와 등이 아프며, 춥던 것이 멎으면 겉과 속이 다 열이 나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갈증이 나서 찬물만 마시려는 병증.

학슬(鶴虱) [약물] 동 천명정(天名精)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담배풀 *Carpesium abrotanoides* Linné의 과실로, 가을에 과실이 익으면 따서 쇄건(曬乾)하고 잡질을 없앤 후 사용.

학슬풍(鶴膝風) [병증] 동 유슬풍(遊膝風), 시추풍(豉搥風), 이풍(痢風) : 안이 ① 슬관절이 붓고 아프면서 고경(股脛)의 기육이 말라 마치 학의 무릎과 같이 생긴 것. 대개 역절풍에서 발전하여 생긴다. ② 외증(外證) 중의 패증(敗證)으로 슬개가 은은히 아프고 종양(腫瘍)은 솜과 같고 피부색은 변하지 않는 것.

학정(鶴頂) [기혈] 동 슬정(膝頂) : 경혈 하지부(下肢部)의 기혈로서 무릎뼈(슬개골; patella)상

에서 취혈하고 무릎뼈(슬개골; patella)의 정중앙점이 학정(鶴頂). 무릎뼈(슬개골; patella) 상연정중(上緣正中)의 함요부를 취혈하기도 함.
학질(瘧疾) [병증] ⇒ 학(瘧)
한(寒) 병리 ① [생리] : 육기(六氣)의 하나인 한기(寒氣). 겨울철의 주기(主氣). ② [병리] ⇒ 한사(寒邪). ③ [병리] ⇒ 한증(寒證)
한(鼾) [병증] : 안이 잠을 잘 때 나는 코고는 소리.
한격(寒膈) [병증] : 내과 생랭물과식(生冷物過食)으로 인해 식입즉토(食入則吐), 사지궐랭(四肢厥冷), 액상 냉한출(額上冷汗出), 요청(尿淸)하는 병증.
한결(寒結) [병증] 동 한비(寒秘) : 내과 음한(陰寒)의 응체에 기인한 대변의 비결(秘結). 냉비(冷秘).
한궐(寒厥) [병증] : 내과 궐증(厥證)의 하나. 양쇠음성(陽衰陰盛)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지궐랭(四肢厥冷)한 병증.
한궐증(寒厥證) [사상] ⇒ 태음인상한표증한궐(太陰人傷寒表證寒厥)
한기(悍氣) [생리] ⇒ 위기(衛氣)
한담(寒痰) [병리] : 병리 외감풍한(外感風寒)이나 비신양허(脾腎陽虛)로 인한 담(痰)이나 신(腎)에 정류(停留)되는 습담(濕痰) 등이 원인이 되어 한담(寒痰)을 형성하는 증. 담증(痰證)이 있으면서 한상(寒象)이 나타난다.
한담조폐증(寒痰阻肺證) [병증] 동 담탁조폐증(痰濁阻肺證) : 병리 한사(寒邪)와 담탁(痰濁)이 합쳐져 기도를 막아 폐기(肺氣)가 선강(宣降)하지 못하는 증. 담(痰)이 묽고 양이 비교적 많으며 형한외랭(形寒畏冷) 등의 한담상(寒痰象)과 해수(咳嗽), 천촉(喘促)의 폐(肺)증상이 같이 나타남. 그 증상은 해수(咳嗽), 담희백(痰稀白), 천촉(喘促), 불능평와(不能平臥) 등이 주증이고, 담량교다(痰量較多), 객출용이(喀出容易), 형한외랭(形寒畏冷), 흉격만민(胸膈滿悶) 등이 차증이며, 설태백이(舌苔白膩), 맥침지(脈沈遲)하다.
한담증(寒痰證) [병증] 동 냉담증(冷痰證) : 병리 한담(寒痰)에 의한 병증. 담백청희(痰白淸稀), 해수천촉(咳嗽喘促), 형한지랭(形寒肢冷) 등이 주증이고, 흉부만민(胸部滿悶), 구담불갈(口淡不渴), 대변당설(大便溏泄)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백윤(苔白潤), 맥침활(脈沈滑)하다.
한독(汗毒) [병증] ⇒ 발이(發頤)
한랭욕(寒冷浴) [치법] : 재활 찬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 전신의 피부를 마찰하는 목욕법. 냉수에 의한 한랭 자극효과와 마찰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한련초(旱蓮草) [약물] 동 묵한련(墨旱蓮)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한련초 *Eclipta prostrata* L.의 전초(全草)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 혹은 음건(陰乾)하여 사용.
한반(汗斑) [병증] ⇒ 자백전풍(紫白癜風)
한방산후관리(韓方産後管理) [치법] 동 산후조리(産後調理) : 부인 출산 후 산욕 기간 동안 산욕의 복구를 촉진하고 허약으로 인한 합병증 내지 병발증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력의 회복을 위해 시행되는 생활 섭생 관리 및 한방적 치료. 산욕기는 대략 6~8주 정도로 잡고 있으나 한의학적으로는 100일까지를 산욕기로 보기도 함.
한방재활요법(韓方再活療法) [치법] : 재활 인체의 이학적 자극, 기계적 기전을 이용하여 질병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로 근골격계통에 발생하는 질환, 재활치료를 요하는 질환, 양생과 식이요법을 요하는 질환들이 대상.
한벽(寒癖) [병증] : 내과 한사(寒邪)나 수음(水飮)이 몰려서 생기며 옆구리 아래에 활줄 같은 것이 치미는데 찬 기운을 받으면 이내 아픔을 느끼는 병증. 벽(癖)의 하나.
한비(寒痺) [병증] ⇒ 통비(痛痺)

한비(寒秘) [병증] ⇒ 한결(寒結)

한비(寒痞) [병증] : 내과 한사로 인하여 뱃속이 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한사(寒邪) [병리] 동 한(寒) : 병리 육음(六淫)의 하나. 외감병(外感病) 가운데 한(寒)의 특성[한랭(寒冷), 빙동(氷凍), 응결(凝結), 수인(收引)]과 같은 증후(症候)를 일으키는 외사(外邪)를 한사(寒邪)라 함. 음사(陰邪)에 속하며 양기를 쉽게 상하게 하며, 기혈의 활동을 방해하고 통증의 원인이 된다.

한사범위(寒邪犯胃) [병리] 동 한사범위증(寒邪犯胃證), 한사범위탁음상역증(寒瀉犯胃濁陰上逆證) : 병리 평소 위양허(胃陽虛)한데 한사(寒邪)가 위(胃)를 범(犯)하여 한응기체(寒凝氣滯)하고 동시에 위(胃)의 하강(下降)작용에 장애가 나타나는 증.

한사범위증(寒邪犯胃證) [병리] ⇒ 한사범위(寒邪犯胃)

한사범위증(寒邪犯胃證) [병증] ⇒ 위한증(胃寒證)

한사범위탁음상역증(寒瀉犯胃濁陰上逆證) [병리] ⇒ 한사범위(寒邪犯胃)

한산(寒疝) [병증] : 내과 음낭(陰囊)이 차면서 단단하게 뭉치고 아픈 병증. 산병(疝病)의 일종. 혹은 칠산(七疝)의 총칭(總稱).

한설(寒泄) [병증] : 내과 비위(脾胃)에 한(寒)이 성(盛)하여 발생하는 설사. 한사(寒瀉). 목당(鶩溏).

한속단(韓續斷) [약물]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한속단 *Phlomis umbrosa* Turczaninow의 뿌리.

한수(寒嗽) [병증] : 내과 찬 것을 싫어하고 열이 나며 땀은 없고 오한(惡寒)이 나며, 번조(煩燥)하고 갈증은 없고 찬 기운을 만나면 기침하는 병증.

한수석(寒水石) [약물] 동 백수석(白水石) : 본초 황산염류(黃酸鹽類) 광물(鑛物)인 석회망초(石灰芒硝) Glauberite $Na_2Ca(SO_4)_2$의 천연결정체(天然結晶體).

한습(寒濕) [병리] : 병리 한사(寒邪)와 습사(濕邪)가 겹친 것으로 한습(寒濕)이 몸에 침범하면 위기와 혈이 잘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기부와 근육이 아프며 골절이 뻣뻣해지고 저리면서 아프다.

한습곤비증(寒濕困脾證) [병증] 동 비허습곤증(脾虛濕困證) : 병리 내습(內濕)으로 비(脾)가 손상을 받았거나 비(脾)가 허(虛)하여 한습(寒濕)이 생겨서 발생된 증. 그 증상은 완복창민(脘腹脹悶), 복통당사(腹痛溏瀉), 두신곤중(頭身困重), 구담불갈(口淡不渴) 등이 주증이고, 불사음식(不思飮食), 오심욕토(惡心欲吐), 구점무미(口粘無味), 지체부종(肢體浮腫), 면색회황(面色晦黃), 여성대하면면(女性帶下綿綿) 등이 차증이며, 설반태백이(舌胖苔白膩), 맥유완(脈濡緩)하다.

한습요통(寒濕腰痛) [병증] 동 습랭요통(濕冷腰痛) : 재활 요통의 하나. 한습사(寒濕邪)가 요부(腰部)를 손상함으로 인해 발생.

한습증(寒濕證) [변증] : 병리 한습사(寒濕邪)에 의한 병증으로 비양(脾陽)과 신양(腎陽)이 허한 사람에게 잘 생김. 추운 것을 싫어하고 팔다리가 시리며 소화가 잘 안되고 배가 불러오르며 설사하고 때로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한열(寒噎) [병증] : 내과 한사(寒邪), 생랭물(生冷物)에 식상(食傷)하여 흉격부에 냉감(冷感), 장명(腸鳴), 맥미활(脈微滑)한 병증.

한열격거(寒熱格拒) [병리] ⇒ 진열가한(眞熱假寒)

한열배오(寒熱配伍) [기타] : 방제 약성이 찬 약과 열한 약을 동시에 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 소시호탕에서 시호, 황금과 인삼, 감초를 배오한 경우나 자신환에서 지모, 황백과 육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한열보사(寒熱補瀉) [침구] 동 한열보사법(寒熱補瀉法) : 침구 장부(臟腑)의 한열병증(寒熱病證)에 대해 자경(自經)의 화(火), 수(水)혈과

화경(火經)의 화혈(火穴), 수경(水經)의 수혈(水穴)을 이용하여 보사(補瀉)하는 방법.
한열보사법(寒熱補瀉法) [침구] ⇒ 한열보사(寒熱補瀉)
한열온량(寒熱溫凉) [약물] ⇒ 사기(四氣)
한열왕래(寒熱往來) [병증] 동 왕래한열(往來寒熱), 사한사열(乍寒乍熱) : 병리 갑자기 한(寒)하고 열(熱)한 것인데, 한(寒)과 열(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발작하는 것을 가리킴.
한열착잡(寒熱錯雜) [병증] 동 한열착잡증(寒熱錯雜證) : 병리 한증(寒證)과 열증(熱證)이 뒤섞여서 동시에 발생하는 병증.
한열착잡증(寒熱錯雜證) [병증] ⇒ 한열착잡(寒熱錯雜)
한열침법(寒熱鍼法) [침구] : 침구 한증(寒證)·열증(熱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한격(寒格)은 한병(寒病)을 치료하는 처방으로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격(熱格)은 해열(解熱)하는 처방으로 인체에 열사(熱邪)가 침입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염증(炎症), 발열(發熱)을 치료한다.
한요통(寒腰痛) [병증] : 재활 요통(腰痛)의 하나. 한사(寒邪)를 외감(外感)하거나 양허(陽虛)로 한(寒)이 생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통.
한울(寒鬱) [병증] : 병리 울증(鬱證)의 하나. 한사(寒邪)가 안에 울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증. 구역질이 나고 멀건 물을 토하며 허리와 배가 아프고 전산(癲疝)과 징가(癥瘕)가 생기며 소화되지 않아 희끄무레한 대변을 본다.
한율(寒慄) [증상] ⇒ 한전(寒戰)
한응간맥(寒凝肝脈) [병증] ⇒ 한체간맥증(寒滯肝脈證)
한의병명(韓醫病名) [병리] ⇒ 병명(病名)
한의질병(韓醫疾病) [병리] ⇒ 병(病)
한인진(韓茵蔯)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관목인 더위지기 *Artemisia iwayomogi* Kitamura의 지상부.
한입혈실(寒入血室) [병증] 동 한입혈실증(寒入血室症) : 부인 한기(寒氣)가 자궁에 들어간 것. 한입혈실(寒入血室)하면 월경이 나오지 않고 배꼽 주위가 차며, 아랫배가 아프고 맥이 침긴(沈緊)한 증상이 나타남.
한입혈실증(寒入血室症) [병증] ⇒ 한입혈실(寒入血室)
한전(寒戰) [증상] 동 한율(寒慄) : 내과 한기(寒氣)를 만나면 몸을 떠는 증상.
한종(寒腫) [병증] : 안이 나무와 같이 딱딱하며 색깔은 암자색(暗紫色)이나 청색(靑色)을 나타내는 종(腫).
한중(寒中) [병리] [병증] ⇒ 중한(中寒)
한증(汗症) [병증] ⇒ 한증(汗證)
한증(寒證) [병리] 동 한(寒) : 병리 팔강(八綱)의 하나. 양기(陽氣)가 허하여 기능이 쇠퇴한 병증. 인체 내의 음양성쇠(陰陽盛衰)는 한열(寒熱)로 나타나므로, 음성양쇠(陰盛陽衰)한 정황을 반영. 주요 증상은 안색이 창백하고 추위를 타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며, 손발이 차고 갈증은 없으며, 배가 차면서 아프고 대변은 묽고 오줌은 맑으며, 혀의 빛깔이 연해지고 백태(白苔)가 끼며 맥이 침지(沈遲)한 것 등이다.
한증(汗證) [병증] 동 한증(汗症) : 내과 땀이 나는 증상. 자한(自汗), 도한(盜汗), 두한(頭汗), 심한(心汗), 수족한(手足汗), 음한(陰汗), 반신한(半身汗–편한偏汗), 황한(黃汗), 혈한(血汗), 절한(絶汗), 유한(油汗), 점한(粘汗) 등으로 분류.
한증요법(汗蒸療法) [치법] : 재활 특수하게 만든 한증탕에 일정한 시간 동안 들어가 있음으로써 땀을 내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한창(寒瘡) [병증] ⇒ 묘안창(貓眼瘡)
한창(寒脹) [병증] : 내과 한랭(寒冷)한 음식의 과식이나 비위(脾胃)가 오랫동안 허한(虛寒)하여 나타나는 복창.
한체간맥증(寒滯肝脈證) [병증] 동 한응간맥(寒

ㅎ

凝肝脈) : 병리 한사(寒邪)가 간경(肝經)에 침범하여 간경(肝經)의 기혈(氣血)이 응체되어 경기(經氣)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증. 소복창통(少腹脹痛), 통인고환(痛引睾丸), 외한희난(畏寒喜暖) 등이 주증이고, 음낭냉축(陰囊冷縮), 형한지랭(形寒肢冷), 구담불갈(口淡不渴), 소변청장(小便淸長) 등이 차증이며, 태백활(苔白滑), 맥침현(脈沈弦)하다.

한출여유(汗出如油) [증상] ⇒ 유한(柔汗)

한통(寒痛) [병증] : 안이 옹저(癰疽)의 통처(痛處)가 일정하여 옮기지 않고 피부색깔도 변치 않고 따뜻하게 하면 편안해하고 통증이 감소되는 것.

한하(寒下) [치법] ⇒ 한하법(寒下法)

한하법(寒下法) [치법] 동 한하(寒下) : 방제 하법(下法)의 하나. 성질이 찬 설사약으로 대변이 나오게 하는 방법. 예를 들면 대장에 열이 성하여 대변이 몹시 굳고 아랫배가 불러 오르면서 그득하고 해질 무렵이면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며 누렇고 마른 설태(舌苔)가 끼며 맥박상태가 활삭(滑數)하면서 힘이 있는 등 이실열증(裏實熱証)이 나타날 때에 한하법(寒下法)으로 성질이 찬 설사약인 대황·망초같은 약이 들어 있는 대승기탕, 소승기탕, 조위승기탕을 쓰는 것. 임신부와 몸이 허약한 환자. 해산 후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정기가 허약한 사람이 한하법(寒下法)을 쓸 때는 반드시 보기약(補氣藥)과 같이 써야 한다.

한학(寒瘧) [병증] : 내과 오한(惡寒)이 심하고 열은 조금 나는 병증으로 찬 기운에 감촉되어 생긴 해학(痎瘧).

할법(割法) [침구] 동 할치료법(割治療法) : 침구 혈위(血位)를 절개하여 소량의 혈액이나 피하지방조직을 방출하는 치료법.

할상(割傷) [병증] : 재활 칼날과 같이 예리한 도구로 손상된 까닭에 손상구가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직선상을 띠고 있는 상처.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심부의 혈관, 신경, 건 등이 절단될 수 있으며 비교적 출혈이 많다.

할지(割脂) [치법] : 소아 감질(疳疾) 치료 방법의 하나. 어복혈(魚腹穴) 부위를 칼로 째는 것. 어복혈은 손바닥의 대어제(大魚際) 측변의 연선(緣線) 위에 있는 것으로서, 식지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선과, 무지의 장지(掌指) 관절에서 장심(掌心)을 향하여 그은 횡선이 서로 교차한 곳.

할치료법(割治療法) [침구] ⇒ 할법(割法)

함곡(陷谷)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43)로서 수목혈(兪木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과 세 번째 발허리뼈(중족골; metatarsal bone) 사이의 오목한 곳에 위치.

함시창(含腮瘡) [병증] ⇒ 자시(痄腮)

함억제복(頷臆臍腹) [사상] : 사상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인체의 전후를 함억제복(頷臆臍腹)과 두견요둔(頭肩腰臀)으로 각각 구분하였음. 함억제복에는 각각 주책(籌策), 경륜(經綸), 행검(行檢), 도량(度量)이라는 지혜가 들어있는데 동시에 탈치나절(奪侈懶竊)이라는 사심(邪心)이 함께 들어있어 매번 어리석음에 빠지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심(責心)하여 존심양성(存心養性)해야 한다.

함염(頷厭)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4)로서 두유(頭維)와 곡빈(曲鬢)을 4 등분하여 두유(頭維)에서 1/4 되는 곳에 위치.

함예(陷翳) [병증] : 안이 간(肝)에 풍열사(風熱邪)가 있으면 예막(翳膜)이 생기는데, 그 사기(邪氣)가 깊이 응체되어 예막이 완고하면서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함예(陷翳)에 속함.

함종(頷腫) [병증] : 안이 후두(喉頭)의 갑상연골부(甲狀 軟骨部) 상방(上方)의 연육부(軟肉部)가 부어오르는 것.

합개(蛤蚧) [약물] 동 합해(蛤蟹) : 본초 합개과

(壁虎科 : Geckonidae)에 속한 동물인 합개 *Gekko gecko* Linné로, 연중 포획할 수 있으며 내장(內臟)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은 다음 대나무를 꼽아 넓게 펴서 온몸이 편편하고 똑바로 한 뒤 저온에서 건조하여 사용.

합곡(合谷) [경혈] ㊐ 호구(虎口)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4)로서 원혈(原穴), 사총혈(四總穴)에 해당하고, 첫 번째 손허리뼈(중수골; metacarpal)와 두 번째 손허리뼈(중수골; metacarpal) 사이로서 두 번째 손허리뼈(중수골; metacarpal) 노쪽(요골측) 가운데에 위치.

합곡자(合谷刺) [침구] ㊐ 합곡자법(合谷刺法) : 침구 오자(五刺)의 일종. 근육(筋肉) 중에 사자(斜刺)하여 계조(鷄爪)의 형태와 같이 몇 개의 방향으로 투자(透刺)하는 일종의 자법(刺法)이며 근비(筋痺)를 치료한다.

합곡자법(合谷刺法) [침구] ⇒ 합곡자(合谷刺)

합병(合病) [변증] : 병리 2~3개의 경락(經絡)에 병이 동시에 생긴 것.

합양(合陽)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5)로서 위중(委中) 수직으로 아래 2촌에 위치.

합장합척법(合掌合蹠法) [추나] : 재활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대고 합장한 손을 머리 위로 밀었다가 다시 가슴까지 당기고 다시 머리위로 밀기를 반복하는 동작. 합장합척(合掌合蹠)을 하면 몸의 힘이 증진되고 아랫배가 강해지므로 지구력이 강화된다.

합해(蛤蟹) [약물] ⇒ 합개(蛤蚧)

합혈(合穴) [경혈] : 경혈 인체경맥(人體經脈)의 기유주(氣流注)가 충영하여 샘물에 비유한다면 수류(水流)의 회합(匯合)에 해당하는 혈(穴). 주슬관절(肘膝關節) 부위에 위치하며 주로 역기이설(逆氣而泄)을 다스리며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

합환피(合歡皮) [약물] ㊐ 야합피(夜合皮) : 본초 콩과에 속한 낙엽소교목인 자귀나무(合歡) *Albizia julibrissin* Durazz.의 수피(樹皮)로, 여름과 가을에 수피를 벗겨 쇄건(曬乾)한 후 사용.

항강(項强) [병증] ㊐ 경항강급(頸項强急) : 재활 경항부(頸項部)의 기육(肌肉)·근맥(筋脈)이 강하게 땅겨서 뻣뻣한 것.

항루(肛瘻) [병증] : 내과 항문 둘레에 창구(瘡口)가 있으면서 관도(管道)와 서로 통하고, 항상 고름이 흘러나오며, 아프거나 가려운 병증.

항문내합(肛門內合) [병증] : 소아 갓난아기의 항문이 막혀 버린 병증.

항배강(項背强) [증상] ㊐ 항배강수수(項背强几几) : 내과 목덜미와 등의 기육(肌肉)과 근맥(筋脈)이 당기면서 뻣뻣한 증상. 항배강수수(項背强几几)는 목덜미와 등이 뻣뻣해서 목을 움츠리고 있는 자세.

항배강수수(項背强几几) [증상] ⇒ 항배강(項背强)

항심(恒心) [사상] : 사상 각 체질인이 항상 가지고 있는 심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즉 태음인은 항유겁심(恒有怯心)하고, 소양인은 항유구심(恒有懼心)하고, 소음인은 항유불안정지심(恒有不安定之心)하고, 태양인은 항유급박지심(恒有急迫之心)함.

항연증(項軟症) [증상] ⇒ 두항연(頭項軟)

항통(項痛) [증상] : 내과 목덜미가 아픈 증상.

항해승제(亢害承制) [기타] : 병리 素問 〈六微旨大論〉의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에서 따온 것으로 어떤 한 기운이 지나치게 항성하면 사물의 생화작용에 해를 끼치므로 이것을 제압하는 기운이 나와서 제어하면 정상적인 생화작용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즉, 음평양비(陰平陽秘)와 함께 인체나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동태적 평형유지 작용을 말한다.

해(咳) [병증] : 내과 기침할 때 소리만 나고 가래가 나오지 않는 증상.

해계(解谿)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41)로서 경화혈(經火穴)에 해

당하고 발목관절 앞면의 횡문 중앙으로 십자인대 한 가운데에 위치.

해구(海狗) [약물] ⇒ 해구신(海狗腎)

해구신(海狗腎) [약물] 동 올눌제(膃肭臍), 해구(海狗) : 본초 물개과(海豹科 : Otariidae)에 속한 동물인 물개 *Callorhinus ursinus* L.(=*Otaria ursinus* Gray)의 음경과 고환으로, 이를 절취하여 주위의 육질과 지방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사용.

해금사(海金砂) [약물] ⇒ 해금사(海金沙)

해금사(海金沙) [약물] 동 해금사(海金砂) : 본초 실고사리과(海金沙科 : Schizaeaceae)에 속한 실고사리 *Lygodium japonicum* Swartz의 성숙한 포자(胞子). 가을에 포자가 탈락되지 않았을 때 등엽(藤葉)을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다음 포자(胞子)를 털어 모아 사용.

해기(解肌) [치법] : 방제 기표(肌表)의 사기(邪氣)를 제거하는 것인데, 외감증의 초기에 발한(發汗)시키는 치법.

해대(海帶) [약물] 동 해마린(海馬藺) : 본초 거머리말과(海帶科 : Zosteraceae)에 속한 거머리말 *Zostera marina* Linné의 전초(全草).

해독법(解毒法) [치법] : 방제 몸 안이나 몸 겉면에 있는 독을 없애는 방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해독에는 ㉠ 혈분에 있는 열독을 양혈해독법(凉血解毒法)으로 푸는 것. ㉡ 한사(寒邪)가 몹시 성해서 생긴 독을 온중산한법(溫中散寒法)으로 푸는 것. ㉢ 뱀, 벌레, 개 등 짐승에게 물려서 생긴 독을 푸는 것. ㉣ 잘못 먹은 음식이나 피부에 묻은 독성 물질을 없애는 것. ㉤ 특수한 법제 방법이나 약물 배합으로 약물의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해동피(海桐皮) [약물] 동 자동피(刺桐皮) : 본초 두릅나무과(五加科 : Araliaceae)에 속한 엄나무 *Kalopanax pictus* Nakai의 수피(樹皮)임. 중국에서는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자동(刺桐) *Erythrina variegata* L. var. *orientalis* (L.) Meer.을 기원으로 하며, 초여름에 수피를 박취(剝取)하여 가시를 긁어낸 다음 쇄건(曬乾)하고, 엄나무는 자추수피(刺楸樹皮)라 함.

해로(解顱) [병증] : 소아 어린아이가 일정한 연령기에 접어들어도 신(囟)이 봉합되지 않고 열려 있어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 신문(囟門)이 큰 병태. 일반적으로 시상봉합 및 기타 두골의 봉합은 대부분 생후 6개월이 되면 골화된다. 영아가 갓 태어났을 때 전신의 사경(斜徑)은 약 2.5cm로서 생후 12~18개월에 폐합(廢合)되며, 후신은 태어날 때부터 폐합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열려 있기도 한데, 늦어도 생후 2~4개월에는 폐합된다. 폐합이 지연되는 것은 대부분 태품부족(胎稟不足)으로 신기가 선천적으로 휴허(虧虛)하여 뇌수를 충분히 기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해마(海馬) [약물] 동 수마(水馬), 마두어(馬頭魚) : 본초 실고기과(海龍科 : Syngnathidae)에 속한 동물인 천문해마 *Hippocampus coronatus* L. 등의 동물체로, 여름과 가을에 잡아 씻은 뒤 햇볕에 말리거나, 껍질과 내장을 없애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해마린(海馬藺) [약물] ⇒ 해대(海帶)

해백(薤白) [약물] 동 소근산(小根蒜), 해백두(薤白頭)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산달래 *Allium macrostemon* Bunge 또는 염 *Allium bakeri* Regel의 근경(根莖)으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씻고 수염뿌리를 없앤 뒤 찌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어 스며들게 한 뒤 쇄건(曬乾)하여 사용.

해백두(薤白頭) [약물] ⇒ 해백(薤白)

해부석(海浮石) [약물] 동 부석(浮石) : 본초 화산에서 분출된 암석이 녹아 응고하여 이루어진 구멍이 많은 광물질.

해분(海粉) [약물] 동 홍해분(紅海粉) : 본초 군소과(海粉科 : Aplysiidae)에 속한 군소 *Notar-*

chus leachii freeri (Griftin)가 얕은 바닷가에서 실(絲)같이 낳은 알을 긁어모은 덩어리.
해삭맥(解索脈) [징후] : 진단 십괴맥(十怪脈)의 하나. 맥상(脈象)이 갑자기 드문드문했다가 촘촘했다가 하고 풀어졌다 꼬였다 하는 등 그 리듬이 불규칙한 것.
해삼(海參) [약물] 동 자삼(刺參) : 본초 자삼과(刺參科 : Stichopusceae)에 속한 극피동물인 해삼 *Stichopus japonicus* Selenka 및 동속 근연동물의 몸체. 동속 근연동물로는 가시해삼 *S. horrens* Selenka · 푸른해삼 *S. chloronotus* Brandt · 꽃해삼 *S. variegatus* Semper 등이 있음.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적당한 소금물에 담가 약 1시간 정도 졸였다가 꺼내서 식혀 햇볕이나 온돌에 말린 다음 이것을 재차 쑥즙액에 넣고 졸여서 검게 되었을 때 꺼내 햇볕에 말린다. 또는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을 냉수에 담가 소금물을 우려내고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해송자(海松子) [약물] 동 송자인(松子仁) : 본초 소나무과(松科 : Pinaceae)에 속한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arini의 종자.
해수(咳嗽) [병증] : 내과 기침할 때 소리도 나고 가래도 나오는 증상.
해역(咳逆) [병증] 동 얼(噦), 완(咹) : 내과 기(氣)가 위로 치밀어 올라와서 나는 소리로 딸꾹질이라 하며, 해역(咳逆)이 심하면 얼(噦)이 되고 완(咹)은 헛구역질을 의미한다.
해역(解㑊) [병증] 동 해역증(解㑊證) : 내과 해(解)는 살이 늘어지는 것 같고 역(㑊)은 힘줄이 뻐를 가누지 못하는 증상으로 한증(寒症)같으나 한증같지 않고, 열증(熱症)같으나 열증같지 않으며, 팔다리의 뼈마디가 풀리어 흩어지는 것 같고 나른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음식 맛이 없는 병증 혹 다리가 시고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걷지 못하는 병증.
해역증(解㑊證) [병증] ⇒ 해역(解㑊)
해울(解鬱) [치법] ⇒ 개울(開鬱)
해울약(解鬱藥) [치법] ⇒ 개울(開鬱)
해정(蟹睛) [병증] : 안이 외상(外傷)이나 각막궤양(角膜潰瘍) 등에 의해 각막이 천공(穿孔)되어 고액(膏液)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안압(眼壓)에 변화가 생겨 홍채(虹彩)의 일부가 공구(孔口)로 탈출하여 갈색의 작은 구형이 각막상면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마치 게의 눈과 같음을 표현한 것.
해조(海藻) [약물] 동 감태(甘苔), 해호자(海蒿子) : 본초 해마조과(馬尾藻科 : Sargassaceae)에 속한 다년생 갈조식물(褐藻植物)인 양서채 *Sargassum fusiforme* (Harv.) Setch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전초로, 여름과 가을에 바다 속에서 채취하여 담수(淡水)로 세정한 다음 쇄건(曬乾)하여 사용.
해천(海泉) [기혈] : 경혈 두경부(頭頸部)의 기혈로서 혓바닥 밑에서 취혈하고 혓바닥 밑에 있는 설소대(舌小帶)의 중앙점에 위치.
해표(解表) [치법] ⇒ 한법(汗法)
한법(汗法) [치법] 동 해표(解表), 발한요법(發汗療法), 발한법(發汗法), 해표법(解表法), 해표약(解表藥) : 제활 치료 8법의 하나. 개설주리(開泄腠理) · 조화영위(調和營衛) · 발한거사(發汗祛邪)를 통해 표사(表邪)를 풀고 제거하는 치법.
해표법(解表法) [치법] ⇒ 한법(汗法)
해표약(解表藥) [약물] ⇒ 한법(汗法)
해표초(海螵硝) [약물] 동 오적골(烏賊骨) : 본초 갑오적과(甲烏賊科 : Sepiidae)에 속한 동물인 갑오징어 *Sepia esculenta* Hoyle 또는 동속동물의 갑골(甲骨).
해풍등(海風藤) [약물] : 본초 후추과(胡椒科 : Piperaceae)에 속한 상록 목질등본(木質藤本)인 풍등(風藤) *Piper kadsura* (Choisy) Ohwi의 등경(藤莖)으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근(根)과 엽(葉)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해학(咳瘧) [병증] ⇒ 학(瘧)
해학(瘕瘧) [병증] ⇒ 학(瘧)
해학증(咳瘧證) [병증] ⇒ 학(瘧)
해혈(咳血) [병증] ㊐ 수혈(嗽血), 해혈증(咳血證) : 내과 기침을 할 때 피가 나는 증상. 해혈(咳血)은 폐(肺)에, 수혈(嗽血)은 비(脾)에 원인이 있는 병증이다.
해혈증(咳血證) [병증] ⇒ 해혈(咳血)
해호자(海蒿子) [약물] ⇒ 해조(海藻)
핵도(核挑) [약물] ⇒ 호도(胡桃)
행간(行間) [경혈] : 경혈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혈(LR2)로서 형화혈(滎火穴)에 해당하고 엄지발가락과 2 번째 발가락의 발허리뼈 머리(중족골소두; head of metatarsal bone)의 앞쪽에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
행검(行檢) [사상] : 사상 제(臍)에 있는 지혜. 자기의 행동을 검토하는 것. 즉 품행이 좋아서 자체를 통제하는 것.
행기(行氣) [침구] [기공] [치법] ㊐ 통기(通氣), 행기법(行氣法), 행기방법(行氣方法), 행기약(行氣藥) : ① 침구 자침(刺鍼)의 감응(感應)이 일정한 부위를 향하여 확산(擴散)되고 전도(傳導)되는 현상(現象). ② 재활 기공(氣功) 용어. 자신의 귀에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많이 들이키고 적게 내쉬되, 깃털을 입과 코 위에 두고 숨을 내쉴 때도 깃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함.
행기감응(行氣感應) [침구] ⇒ 득기감(得氣感)
행기방법(行氣方法) [치법] ⇒ 행기(行氣)
행기법(行氣法) [치법] ⇒ 행기(行氣)
행기약(行氣藥) [약물] ⇒ 행기(行氣)
행비(行痺) [병증] ⇒ 풍비(風痺)
행수(行水) [치법] : 기기(氣機)를 잘 통하게 하고 수도(水道)를 소통·조절하여 이수화습(利水化濕)하는 방법의 하나.
행인(杏仁) [약물] : 본초 장미과(薔薇科 : Rosa- 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Linné var. *ansu* Maximowicz 및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Koehne var. *glabra* Nakai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 (장미과 Rosaceae)의 종자로서, 여름에 과실이 성숙할 때 과육(果肉)과 핵(核)의 각(殼)을 제거하고 종자만 취하여 쇄건(曬乾)하여 사용.
행자(行刺) [침구] : 침구 도침요법(陶鍼療法)에서 쓰는 8종 침자요법(鍼刺療法)의 하나로 세로로 나란히 점자(點刺)하는 방법.
행지(行遲) [병증] : 소아 오지(五遲)의 하나로 어린아이가 돌이 지나고, 2~3세가 되도록 걷지 못하는 것. 간(肝)은 근(筋)을 주관하고 신(腎)은 골(骨)을 주관하는데 만일 어린아이의 간신(肝腎)이 부족하거나 포양실의(哺養失宜)로 비위(脾胃)가 허약하여 원기(元氣)가 불충분하면, 근골의 발육에 영향이 미치므로 걸음이 더디다.
행침(行鍼) [침구] ⇒ 운침(運鍼)
행혈(行血) [치법] ㊐ 활혈(活血), 행혈약(行血藥), 활혈약(活血藥) : 방제 치법의 하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어혈증(瘀血證)에 적용함.
행혈약(行血藥) [약물] ⇒ 행혈(行血)
향기요법(香氣療法) [치법] : 재활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인 정유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자연의학의 한 형태.
향부자(香附子) [약물] : 본초 방동사니과(莎草科 : Cyp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향부자 *Cyperus rotundus* L.의 근경(根莖)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모수(毛鬚)를 불사질러 없앤 뒤 끓는 물로 데치던가, 찐 뒤 쇄건(曬乾)하거나, 불사지른 뒤 바로 쇄건(曬乾)하여 사용.
향시(香豉) [약물] ⇒ 두시(豆豉)
향약(鄕藥) [약물]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약재를 가리키는 말. 중국 약재에 대해 상대적인 말.

향여(香茹) [약물] ⇒ 향유(香薷)
향유(香薷) [약물] 동 향여(香茹)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향유 *Elsholtzia ciliata* Hylander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꽃필 때의 전초로 여름과 가을에 줄기와 잎이 무성하거나 과실이 익을 때 채취하여 잡질을 없애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석향유(石香薷) *Mosla chinensis* Maxim.를 기원으로 함.
향포(香蒲) [약물] ⇒ 포황(蒲黃)
허(虛) [변증] ⇒ 허증(虛證)
허간(虛癎) [병증] : 정신 본허표실(本虛標實)한 간병(癎病). 발작빈번(發作頻繁) 일수십차(日數十次), 추축무력(抽搐無力), 면색무화(面色無華), 수족청랭(手足淸冷), 출한(汗出) 신혼(神昏), 구부제(口不啼) 규매납소식(叫呆納少食), 소아의 경우는 오지(五遲) 오연(五軟)을 동반함. → 간병(癎病)
허란후풍(虛爛候風) [병증] : 안이 원기허약자(元氣 虛弱者)가 허화(虛火)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두관내(咽頭關內) 상하(上下)에 발생하는데 홍색 중에 백색 반점(斑點)이 나타나 있고 동통(疼痛)하고 궤란(潰爛)되나 종대(腫大)되지는 않는 것.
허로(虛勞) [병증] 동 노기(勞氣) : 내과 원기(元氣)가 휴손(虧損)되고 장부(臟腑)가 수상(受傷)한 소치(所致)로 허손(虛損)이 누적되어 점차 쇠약(衰弱)하여지는 만성질환(慢性疾患). 음식 먹는 것이 줄며 정신이 혼미하고 유정(遺精)과 몽정(夢泄)이 있고 요배흉협근골(腰背胸脇筋骨)이 당기면서 아프고 조열(潮熱)과 땀이 나고 가래가 성하여 기침을 하는 것이 허로증(虛勞證)의 일반증상이다. 오로증(五勞證), 육극증(六極證), 칠상증(七傷證)이 있다.
허로루(虛勞瘻) [병증] : 안이 치루(痔瘻) 중 농색(膿色)이 묽고 희면서 비린내가 나고, 유지(油脂)가 겸하여 있는 것.
허리(虛里) [경혈] 동 위지대락(胃之大絡) : 경혈 십육락맥(十六絡脈)의 하나. 왼쪽 유방 아래 심장 박동이 짚이는 곳. 위(胃)의 대락(大絡).
허리(虛痢) [병증] : 내과 기약곤권(氣弱困倦) 곡식난화(穀食難化) 복미통혹대통(腹微痛或大痛) 병무노책(幷無努責)하는 병증.
허맥(虛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연약무력(軟弱無力)하고, 누르면 공허(空虛)한 느낌이 있는 것.
허번(虛煩) [병증] : 정신 허증(虛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흉번열(心胸煩熱).
허비(虛痞) [병증] : 내과 가슴이 그득하고 아프지 않는 증상[비증(痞症)] 중 대변이 보기 쉽거나 설사하는 병증.
허비(虛秘) [병증] : 내과 정혈(精血)과 진액(津液)이 휴손되어 발생한 변비(便秘).
허사(虛邪) [병리] : 병리 ① 병을 일으키는 사기(邪氣)의 통칭. 허한 틈을 타서 침입한 사기(邪氣)라는 뜻. ② 오사(五邪)의 하나. 오장전변(五臟傳變) 중 모장부(母臟腑)의 병이 자장(子臟)에 파급되어 발병했을 때 모장(母臟)에서 전해진 사기를 말함.
허설(虛泄) [병증] : 내과 ① 대변 당설(溏泄)이 비위(脾胃)가 허약하거나 신(腎)의 양기가 허하여 나타나는 병증. ② 맥이 허하면서 설사하는 병증.
허손(虛損) [병증] 동 허손병(虛損病) : 병리 각종 내상병인(內傷病因)으로 음양기혈(陰陽氣血)이 허해진 병증.
허손병(虛損病) [병증] ⇒ 허손(虛損)
허실(虛實) [변증] [병리] : 병리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팔강에서 사기(邪氣)와 정기(正氣)의 성쇠를 판별하는 강령. 사기가 성한 것은 실증이고 정기가 쇠한 것은 허증이다.
허실보사(虛實補瀉) [치법] : 방제 병의 허실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정기(正氣)가 허(虛)하면 보법(補法)을 쓰고, 사기(邪氣)

가 실(實)하면 사법(瀉法)을 쓴다. 정기가 허한 경우는 내상병(內傷病)이 많고 사기가 실한 경우는 외감(外感)에 의한 경우가 많다.

허심통(虛心痛) [병증] ⇒ 계심통(悸心痛)

허심합도(虛心合道) [치법] : 정신 사람이 무심(無心)하면 도(道)와 합(合)하는 법이요, 유심(有心)하면 도(道)와 멀어진다. 도가(道家)의 수양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먼저 세상만사에 대한 욕심, 근심, 분노 등에 일단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통찰하여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공요법에 해당하는 한방정신요법이다.

허열(虛熱) [병증] 허열증 : 병리 내과 ① 음양기혈(陰陽氣血)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열. ② 정신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열병(熱病). ③ 기허(氣虛) 혈허(血虛) 음중양허(陰中陽虛)하여 흉중열색(胸中噎塞) 비민(痞悶) 맥무력(脈無力)한 병증.

허열증(虛熱證) [병증] ⇒ 허열(虛熱)

허장박(虛掌拍) [추나] : 재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서 붙인 다음 손바닥이 오목하게 허장(虛掌)을 만든 후 허장(虛掌)으로 치료부위를 평온하고 리듬있게 자극하는 것.

허종(虛腫) [병증] : 안이 만종(漫腫)을 지칭함.

허증(虛證) [변증] 동 허(虛) : 병리 팔강(八綱)의 하나. 인체의 정기(正氣)가 허약하여 항병력(抗病力)이 떨어지고 생리기능이 부족 또는 쇠퇴하는 증후. 의기소침하고 낯빛이 희번덕거리며 몸이 나른하면서 힘이 없고 가슴과 손발바닥에서 번열(煩熱)이 나며 몸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짧고 자한(自汗)이나 도한(盜汗)이 나며, 대변이 묽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지 못하며 혀가 흐릿하면서 붓거나 진홍빛이고 맥이 허세(虛細)하면서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허창(虛脹) [병증] : 내과 토리불식(吐利不食)하며, 창증(脹證)이 때때로 감소되기도 하고, 안압(按壓)하면 함하(陷下)하며 연(軟)한 병증.

허천(虛喘) [병증] : 내과 폐약(肺弱) 혹은 신허(腎虛)할 때 발생되는 숨찬 증상. 병의 발생이 느리고 맥(脈)은 허(虛)하고 사람이 피로해 보이며 숨찬 현상으로, 소리가 적고 호흡이 짧으며 움직이면 숨찬 것이 더 심해지며 길게 숨을 한번 쉬면 나아지는 병증.

허폐(虛肺) [병증] : 안이 연로(年老)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기력(氣力)이 쇠(衰)하여 발생한 것.

허한증(虛寒證) [병증] ⇒ 양허증(陽虛證)

허혈성구축(虛血性拘縮) [병증] : 재활 꼭 조이는 지혈대 등에 의한 압박, 상해, 동상 등으로 발생하는 순환장애에 의한 근의 구축이나 연축.

허화(虛火) [병증] [병리] : 병리 ① 진음(眞陰)이 부족하여 생기는 화(火). 양 볼이 빨개지고 미열이 나며 가슴에 번열(煩熱)이 나면서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오며 식은땀이 나고 입과 목이 마르며 골증로열(骨蒸勞熱)이 있고 맥이 가늘고 빨리 뛰면서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② 음성격양(陰盛格陽)으로 발생하는 가열(假熱) 증상.

허훈(虛暈) [병증] : 내과 기허증(氣虛證)과 혈허증(血虛證), 신허증(腎虛證)이 각각 나타나면서 현훈(眩暈)이 있는 병증.

험증(險證)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질병의 중(重)한 정도를 경증(輕證), 중증(重證), 험증(險證), 위증(危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험증(險證)은 매우 위급한 상태이고 위증(危證)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응급상황으로 설명하였는데 험증(險證)과 위증(危證)을 합하여 위험증(危險證)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음. 소음인의 망양증(亡陽證)과 소음증(少陰證), 그리고 소양인의 망음증(亡陰證)과 중소(中消)·하소증(下消證)은 발병 초기부터 바로 험증(險證)이다. 소음인의 위가실증(胃

家實證)과 소양인의 결흉증(結胸證)은 병정을 오래 끌다가 낫지 않으면 험증(險證)에 빠져들게 되며, 또 소양인에 있어서는 건망증도 험증(險證)이고, 소양인의 배옹(背癰), 뇌저(腦疽), 순종(脣腫), 전후풍(纏喉風), 인후(咽喉) 등의 병은 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위험증(危險證)이며, 양독발반(陽毒發斑), 유주단독(流注丹毒), 황달(黃疸) 등의 증상 역시 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험증(險證)이다. 태음인의 험증(險證)은 한궐오일(寒厥五日)에 무한(無汗)한 것과 소병중자(素病重者)가 온병(溫病)을 얻을 때 험증(險證)이 되며 복창부종병(腹脹浮腫病) 역시 매우 위험한 증상이다. 동무(東武)는 사상인변증론(四象人辨證論) 말미에서 중병(重病)의 험증(險證)에는 경솔히 한첩의 약을 잘못 써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으므로 몇 번이고 관찰하고 연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재삼 당부하고 있다.

헛소리 [병증] ⇒ 망언(妄言)

혁맥(革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침복실대(沈伏實大)하여 마치 북의 가죽을 누르는 것 같은 것.

혁옹(嚇癰) [병증] : 안이 제상(臍上) 3촌 건리혈(建里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현구(懸球) [병증] : 안이 마치 공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안포(眼胞) 및 안검(眼瞼)이 부어오른 것.

현기(眩氣) [병증] ⇒ 현훈(眩暈)

현로(懸顱)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5)로서 두유(頭維)에서 곡빈(曲鬢)까지를 4등분한 선의 중점에 위치.

현리(懸釐)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6)로서 두유(頭維)에서 곡빈(曲鬢)까지를 4등분하여 위로부터 두유(頭維), 함염(頷厭), 현로(懸顱), 현리(懸釐), 곡빈(曲鬢)의 5혈을 취한다.

현맥(弦脈) [징후] 동 맥현(脈弦)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곧고 길어서 손가락으로 짚으면 마치 거문고의 현을 누르는 것 같은 것.

현모(眩冒) [병증] ⇒ 현훈(眩暈)

현벽(痃癖) [병증] : 내과 제복(臍腹)의 한쪽이나 협륵부(脇肋部)에 근맥(筋脈)이 불거지고 땅기면서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는 병증.

현부(眩仆) [병증] 동 현훈도부(眩暈倒仆), 현훈욕도(眩暈欲倒), 현훈욕부(眩暈欲仆) : 내과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고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넘어지는 병증. 현훈(眩暈)의 하나.

현부(玄府) [해부] 동 원부(元府) : 땀구멍.

현삼(玄參) [약물] : 본초 현삼과(玄參科 : Scro- phular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현삼 *Scrophularia buergeriana* Miq.의 근으로, 겨울철에 경엽(莖葉)이 말랐을 때 채취하여 근경(根莖)과 유아(幼芽)와 수근(鬚根)과 흙을 없앤 뒤 쇄건(曬乾)하거나 홍건(烘乾)하여 반쯤 마른 것을 3~6日동안 쌓아 놓고 내부(內部)를 검게 변색(變色)시키는 것을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반복한다. 중국에서는 현삼 *S. ningpoensis* Hemsl.을 기원으로 함.

현옹(懸癰) [병증] : 안이 ① 과도한 성생활로 말미암아 신기(腎氣)가 손상을 입어 남자는 항문과 음낭 사이, 여자는 항문과 후음순 연합과의 사이 즉 회음부에 발생하는 옹저. ② ⇒ 상악옹(上顎癰)

현유(哯乳) [병증] 동 전유(轉乳) : 소아 젖을 먹자마자 토하는 병증. 수유기의 갓난아이에게 흔히 볼 수 있다. 위기(胃氣)가 상역(上逆)하여 유즙(乳汁)을 토하게 된다.

현음(懸飮) [병증] : 내과 물이 흘러내려 가다가 옆구리아래에 정체하여 기침하거나 침을 뱉을 때 당기면서 아픈 병증.

현정석(玄精石) [약물] 동 음정석(陰精石) : 본초 오랜 세월에 걸쳐 뭉쳐진 함수황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광석.

현종(懸鍾)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9)로서 팔회혈(八會穴) 중 골

회혈(髓會穴)에 해당하고 가쪽복사(족외과; lateral malleolus) 위 3촌 종아리뼈(비골; fibular) 앞에 위치.

현추(懸樞)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5)로서 첫 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 위치.

현호색(玄胡索) [약물] 동 연호색(延胡索) : 본초 양귀비과(罌粟科) : Papaver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연호색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 및 동속 근연식물의 괴경(塊莖)으로, 5~6월에 경엽(莖葉)이 고사(枯死)한 후 괴경(근경根莖)을 채취하여 외측의 박피(薄皮)는 제거하고 세정(洗淨)한 다음 탕수(湯水)에 넣고 아래위로 저어가면서 내부의 백심(白心)이 없어지고 황색이 될 때까지 삶아지면 건져내어 쇄건(曬乾)한 후 사용.

현훈(眩暈) [병증] 동 현기(眩氣), 두운(頭暈), 두운(頭運), 두현(頭眩), 두훈(頭暈), 두선(頭旋), 전현(顚眩), 현모(眩冒), 두풍현(頭風眩), 두풍현운(頭風眩運) : 안이 목현(目眩)과 두훈(頭暈)을 총칭하는 것. 목현(目眩)은 안흑(眼黑)하면서 현(眩)하거나 안화(眼花), 안전흑화(眼前黑花), 좌기안화(坐起眼花)로 물체가 혼모(昏冒)해지는 것이며, 두훈(頭暈)은 자기 자신이나 외계의 물체가 움직이거나 돌거나 하여 회전(回轉)하는 것을 말한다. 이증(二症)이 항상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훈(眩暈)이라고 한다.

현훈도부(眩暈倒仆) [병증] ⇒ 현부(眩仆)

현훈욕도(眩暈欲倒) [병증] ⇒ 현부(眩仆)

현훈욕부(眩暈欲仆) [병증] ⇒ 현부(眩仆)

혈(穴) [경혈] ⇒ 경혈(經穴)

혈(血) [생리] : 생리 음식물의 정기(精氣)로부터 생성되어 영기(營氣)와 함께 맥관내를 순행하는 적색의 음액(陰液).

혈가(血瘕) [병증] 동 혈하(血瘕) : 부인 가(瘕)는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덩어리로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함. 이 중 혈가(血瘕)는 월경기에 노동을 해서 한사(寒邪)를 감수함으로 인해 사기(邪氣)가 경락(絡脈)에 머물러 제거되지 않아서 요복(腰腹)에 급통(急痛)이 발생하는 것.

혈갈(血竭) [약물] 동 기린갈(麒麟竭), 기린혈(麒麟血) : 본초 종려과(棕櫚科 : Palmae)에 속한 다년생 상록등본인 기린갈(麒麟竭) *Daemonorops draco* Bl.의 과실에서 채취한 수지(樹脂)를 가공한 것.

혈감(血疳) [병증] ⇒ 혈풍창(血風瘡)

혈격(血膈) [병증] 동 부인혈격(婦人血膈) : 부인 혈기가 중초(中焦)에서 가로막혀 월경이 중단되는 것. 흉격부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심한 경우 물과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위로는 적소두즙(赤小豆汁)과 같은 것이나 자주색을 띠는 혈(血)을 토하고 아래로는 월경이 중단되며 대변이 말라 검고 양(羊)의 똥처럼 딴딴한 증상이 나타난다.

혈결(血結) [병증] : 부인 혈허(血虛), 혈조(血燥), 혈열(血熱) 등으로 대변이 굳어져서 잘 나오지 않는 병증을 통틀어 일컫는 말. 또는 혈(血)이 몰려서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혈고(血蠱) [병증] : 내과 혈(血)의 정체로 인해 복부가 팽창되면서 북처럼 창만(脹滿)해지는 병증.

혈고(血枯) [병증] : 부인 부녀자의 혈해(血海)가 고갈됨으로 인해 경폐(經閉)가 발생하는 것.

혈관동신(血灌瞳神) 안이 [병증] 동 혈관동인(血灌瞳人) : 혈액이 동신(瞳神) 안으로 들어가 잘 보지 못하는 병증.

혈관동인(血灌瞳人) [병증] ⇒ 혈관동신(血灌瞳神)

혈궐(血厥) [병증] ⇒ 울궐(鬱厥)

혈극(血極) ① [경혈] ⇒ 백충과(百蟲窩) ② [병증] ⇒ 맥극(脈極)

혈기(血氣) [생리] : 생리 혈(血)과 기(氣).

혈기심통(血氣心痛) [병증] : 내과 주로 여성에

게 생기며 기혈이 허한데 풍사(風邪)가 심포락(心包絡)에 침입하여 생긴 병증.
혈뇨(血尿) [병증] ⇒ 수혈(溲血)
혈락(血絡) [경락] 동 혈맥(血脈) : 경혈 낙맥(絡脈). 표층에 분포되어 있는 낙맥(絡脈)으로, 인체의 얕은 표층에 있는 가늘고 작은 동맥, 정맥과 모세혈관을 가리킴.
혈락자법(血絡刺法) [침구] : 침구 피부 혹은 얕은 혈관을 소형 칼로 절개하여 몇 방울 또는 수십cc의 혈을 제거하는 방법.
혈력(血瘧) [병증] : 안이 핵(核)이 홍종(紅腫)하며 통증이 있는 나력(瘰癧).
혈루(血漏) [병증] : 안이 때때로 선혈(鮮血)이 그치지 않는 것.
혈루(血淚) [병증] : 안이 피눈물.
혈류(血瘤) [병증] : 안이 심기울결(心氣鬱結)과 장부혈어(臟腑血瘀)로 인해 약간의 자색이나 홍색을 띠고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중등도로 피부 내에 은은히 나타나고 홍사(紅絲)가 얽혀 있는 유증(瘤症).
혈륜(血輪) [진찰] 동 간곽(艮廓), 화곽(火廓), 산곽(山廓), 택곽(澤廓), 뇌곽(雷廓), 청정곽(淸淨廓), 포양곽(胞陽廓) : 진단 눈의 오륜(五輪) 가운데 하나로 내자(內眦)와 외자(外眦)를 가리킴. 관련되는 질환은 대부분 심(心)·소장(小腸)과 유관하다. → 오륜(五輪), 팔곽(八廓)
혈림(血淋) [병증] : 내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병증. 임병(淋病)의 일종.
혈맥(血脈) [경락] ⇒ 혈락(血絡)
혈병(血病) [병증] [변증] 동 혈병증(血病證) : 병리 혈분의 병.
혈병증(血病證) [병증] [변증] ⇒ 혈병(血病)
혈분(血分) [변증] 동 혈분증(血分證) : 병리 온병변증에서 혈에 해당한 부분과 거기에 병이 생기는 단계를 이르는 말. →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혈분증(血分證) [변증] ⇒ 혈분(血分)
혈붕(血崩) [병증] ⇒ 붕(崩)
혈붕부지(血崩不止) [병증] ⇒ 붕(崩)
혈비(血痺) [병증] : 내과 신체가 마목(麻木)되고 동통(疼痛)이 있으며 목암(目暗)하고 맥도 미삽(微澁)한 병증.
혈산(血疝) ① [병증] ⇒ 변독(便毒) ② 내과 어혈이 소복(少腹)에 맺혀 소복결통(少腹結痛), 대변비결색흑(大便秘結色黑), 월경부조(月經不調) 등이 나타나는 병증.
혈소(血少) [병리] ⇒ 혈허(血虛)
혈수(血嗽) [병증] : 내과 어혈(瘀血)로 생긴 기침으로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나고 혹 피를 뱉거나 토하는 기침증상. 타박손상으로 발생.
혈수(血水) [병증] : 부인 질, 요도 혹은 항문으로 혈성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 혹은 병리적인 자로 작용한 혈(血)과 수(水)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
혈실(血室) [생리] : 생리 ① 충맥(衝脈). ② 간(肝). ③ 자궁(子宮).
혈어(血瘀) [병리] ⇒ 어혈(瘀血)
혈어증(血瘀證) [병증] 동 혈응증(血凝證) : 병리 어혈(瘀血)이 정체된 병증. 그 증상은 국부동통(局部疼痛), 종창(腫脹)[종괴불이(腫塊不移), 자통(刺痛), 거안(拒按), 일점상통(一点常痛)], 면색여흑(面色黧黑), 구순청자(口脣靑紫), 피부어반(皮膚瘀斑), 출혈(出血) 등이 주증이고, 구갈욕수이불욕음(口渴欲漱而不欲飮), 기부갑착(肌膚甲錯), 복벽청근노창(腹壁靑筋怒脹), 피부사상홍루(皮膚絲狀紅縷), 어제부위홍반(魚際部位紅斑), 월경시복통혈괴색자암(月經時腹痛血塊色紫暗), 혹경폐(或經閉) 등이 차증이며, 설청자유어점(舌靑紫有瘀點), 맥삽혹침세(脈澁或沈細)하다.
혈여(血餘) [생리] ⇒ 발(髮)
혈열(血熱) [병증] ⇒ 혈열증(血熱證)
혈열망행(血熱妄行) [병리] [병증] 동 박혈망행(迫血妄行) : 병리 혈분에 열이 몹시 성하여

혈이 혈맥을 따라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혈맥 밖으로 나와 출혈이 되는 것.

혈열증(血熱證) [병증] ㊐ 열입혈분증(熱入血分證), 혈열(血熱), 열입혈분(熱入血分), 열재혈분(熱在血分) : 병리 본래 양성(陽盛)한 체질, 신랄(辛辣)한 음식을 과식하거나 혹은 분노가 과도한 사람에게 열독이 혈분(血分)을 침입하거나 온열사독(溫熱邪毒)이 혈분에 영향을 미쳐 혈열(血熱)이 치성하고 박혈망행(迫血妄行)하는 증. 출혈증과 야간발열이 요점. 증상은 출혈선홍(出血鮮紅－비뉵(鼻衄), 토혈(吐血), 요혈(尿血), 변혈(便血) 등), 신열야중(身熱夜重), 반진(斑疹) 등이 주증이고, 심번이노(心煩易怒), 면홍목적(面紅目赤), 월경선기이양다색홍(月經先期而量多色紅), 신지혼호(神志昏糊), 섬어광란(譫語狂亂), 번조불녕(煩躁不寧), 치은종(齒齦腫) 등이 차증이며, 설심강(舌深絳), 태초황소진(苔焦黃少津), 맥세삭혹현삭(脈細數或弦數)하다.

혈영(血癭) [병증] : 안이 심기울결(心氣鬱結)과 장부혈어(臟腑血瘀)로 인하여 적색(赤色)의 맥락(脈絡)이 얽혀 있고 돌기되는 영증(癭症).

혈예포정(血翳包睛) [병증] : 안이 사안성각막혈관예(沙眼性角膜血管翳). 즉 사안(沙眼)에 의해 발병하는 일종의 각막병발증(角膜幷發症)으로 적막하수(赤膜下垂)에 비해 진행이 급속하고 흑정(黑睛)에 적맥(赤脈)이 퍼져 있어 혈장(血障)을 형성하고 흑정(黑睛)을 가려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혈울(血鬱) [병증] ㊐ 혈울(血菀), 혈울증(血鬱證) : 병리 육울(六鬱)의 하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넘어지고 삐거나 음식 조절을 잘못하여 발생. 증상은 가슴과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며 맥이 침삽(沈澁)하다.

혈울(血菀) [병증] ⇒ 혈울(血鬱)

혈울증(血鬱證) [병증] ⇒ 혈울(血鬱)

혈위(穴位) [경혈] ⇒ 경혈(經穴)

혈위자기술(穴位磁氣術) [치법] ⇒ 자혈요법(磁穴療法)

혈위주사요법(穴位注射療法) [침구] : 침구 수침요법(水鍼療法). 정제한 약액(藥液)을 주사기로 혈(穴)자리에 주입하여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혈위첩부술(穴位貼付術) [침구] ㊐ 혈위첩부요법(穴位貼付療法) : 침구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약물을 수혈(兪穴)이나 병변(病變) 부위에 붙여서 국소(局所)가 충혈(充血)되도록 하거나 수포(水泡)를 발생시켜 치료하는 방법.

혈위첩부요법(穴位貼付療法) [침구] ⇒ 혈위첩부술(穴位貼付術)

혈육지심(血肉之心) [생리] : 생리 혈액의 운행을 담당하는 유형의 심(心).

혈응증(血凝證) [병증] ⇒ 혈어증(血瘀證)

혈적(血積) [병리] [병증] : 병리 구적(九積)의 하나. 어혈(瘀血)이 응결하여 적(積)이 되는 것.

혈조(血燥) [병리] : 병리 어혈(瘀血), 구병(久病) 및 노쇠(老衰)로 인하여 자양(滋養)되지 않고 조(燥)한 병리 상태.

혈조증(血燥證) [병증] ㊐ 진고혈조증(津枯血燥證), 혈허내조증(血虛內燥證) : 병리 혈조(血燥)상태에서 나타나는 증.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며, 혈허증(血虛證)도 수반될 수 있다. 그 증상은 구순건열(口脣乾裂), 인건객통(咽乾喀痛), 수조족열(手燥足裂), 피부건조(皮膚乾燥), 모발건고(毛髮乾枯), 비강건조출혈(鼻腔乾燥出血), 대변건결(大便乾結) 등이 주증이고, 건해무담(乾咳無痰), 구건각혈(口乾咯血), 두훈안화(頭暈眼花), 기부갑착(肌膚甲錯), 지연근위(肢軟筋萎), 지갑발취(指甲髮脆), 경소경폐(經少經閉) 등이 차증이며, 설조무진(舌燥無津), 맥세삭혹침삽(脈細數或沈澁)하다.

혈종(血腫) [병증] : 재활 어혈(瘀血)을 위주로 하는 수종(水腫). 증상은 사지(四肢)가 붓고 피부에 붉은 실 같은 혈흔(血痕)이 있거나, 혹은

ㅎ

먼저 월경이 오지 않고 수종(水腫)이 발생하며, 소복창통거안(小腹脹痛拒按), 소변청장(小便淸長)한 등이다.

혈증(血證) [병리] : 병리 각종 출혈증. 예컨대, 해혈(咳血), 객혈(喀血), 토혈(吐血), 구혈(嘔血), 늑혈(衄血), 변혈(便血), 요혈(尿血), 피하출혈(皮下出血) 등. 상음(傷陰)하여 허화망동(虛火妄動)하거나 기허(氣虛)하여 혈(血)을 통섭(統攝)하지 못하는 것은 허증(虛證)이고, 화성기역(火盛氣逆)하여 혈열망행(血熱妄行)하는 것은 실증(實證)이다.

혈지(血痣) [병증] : 안이 간경노화(肝經怒火)로 혈울(血鬱)되어 홍색(紅色)을 띠고 점차 커져서 두립상(豆粒狀)과 같이 되고 궤파(潰破)하면 출혈(出血)이 계속되는 지증(痣症).

혈징(血癥) [병증] : 부인 징(癥)은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단단한 덩어리이며 이 중 혈징(血癥)은 장부(臟腑)의 기(氣)가 허(虛)한 상태에서 풍랭사(風冷邪)가 침입하거나 부적절한 식생활을 해서 혈(血)과 기(氣)가 서로 다투어 월경을 해야 할 때 경락을 가로막음으로 인해 악혈(惡血)이 제거되지 못하고 뭉쳐서 괴(塊)를 형성한 것.

혈창(血脹) [병증] : 내과 번조(煩躁)하여 물로 양치만 하고, 미망(迷忘)하며, 경광(驚狂)하고, 통민(痛悶)하며, 구역(嘔逆)하고, 소변이 많고, 대변이 변흑(變黑)하며, 협부(脇部)와 소복(小腹)이 창만(脹滿)하고, 전신에 혈선(血線)이 나타나기도 하는 병증.

혈치(血痔) [병증] : 안이 대변을 볼 때마다 출혈이 계속되는 치창(痔瘡).

혈탈(血脫) [병증] ⇒ 탈혈(脫血)

혈탈증(血脫證) [병증] 동 탈혈증(脫血證) : 병리 외상(外傷), 객혈(喀血), 토혈(吐血), 붕루(崩漏), 신후대량출혈(産後大量出血) 등 혈(血)이 돌발적으로 대량 소실되어 출현하는 증. 대량출혈과 함께 신지(神志) 증상이 나타남. 그 증상은 출혈[외상성 대출혈(外傷性 大出血), 해혈(咳血), 토혈(吐血), 붕루(崩漏), 산후출혈부지(産後出血不止)], 면색창백(面色蒼白), 섬망신혼(譫妄神昏) 등이 주증이고, 한출여주(汗出如珠), 이변실금(二便失禁), 구순조갑담백(口脣爪甲淡白), 동공산대(瞳孔散大)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맥산대 혹 규(脈散大或芤)하다.

혈폐(血閉) [병증] ⇒ 경폐(經閉)

혈폐불통(血閉不通) [병증] ⇒ 경폐(經閉)

혈풍심통(血風心痛) [병증] ⇒ 풍심통(風心痛)

혈풍창(血風瘡) [병증] 동 혈감(血疳) : 안이 과도한 음주나 비위(脾胃)에 습열(濕熱)이 있을 때 풍사(風邪)가 피부에 침범하여 폐경(肺經)에 응결되기 때문에 생기는 창증(瘡症). 속립상(粟粒狀)과 같고 가려움이 극심하다. 긁으면 삼출물이 흐르고, 피부가 궤란(潰爛)되고 기육이 부식(腐蝕)된다.

혈한(血寒) [병리] : 병리 한사(寒邪)가 경락(經絡), 혈맥(血脈), 포궁(胞宮) 등에 침입하여 혈맥이 응체되고 불통되는 병리상태.

혈한(血汗) [병증] 동 홍한(紅汗) : 내과 ① 피처럼 약간 붉은 땀이 나오는 병증. ② 무병자(無病者)가 땀이 나면서 옷이 더러워지고 심하면 더럽게 물든 것같이 되는 경우.

혈한증(血寒證) [병증] 동 혈랭증(血冷證), 혈허한응증(血虛寒凝證) : 병리 한사(寒邪)가 경락(經絡), 혈맥(血脈), 포궁(胞宮) 등에 침입하여 혈맥이 응체되고 불통되는 병증. 그 증상은 동통(疼痛)[두(頭)·사지(四肢)·흉(胸)·소복(少腹) 등 부위], 수족랭(手足冷), 색청자(色靑紫) 등이 주증이고, 사지연급(四肢攣急), 기육마비(肌肉痲痺), 흉통철배(胸痛徹背), 배통철심(背痛徹心), 완복랭통(脘腹冷痛), 월경동통(月經疼痛), 월경량소(月經量少), 월경혈색암유괴(月經血色暗有塊), 폐경(閉經) 등이 차증이며, 설암담혹청자(舌暗淡或靑紫), 태백니(苔

白膩), 맥긴 혹 침세(脈緊或沈細)하다.

혈해(血海)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0)로서 무릎 뼈 위 2촌, 넙다리뼈(대퇴골; femur) 안쪽에 넙다리빗근(봉공근; sartorius) 갈래(내측두)의 불룩한 곳에 위치.

혈허(血虛) [병리] 동 혈소(血少) : 병리 평소 체력허약, 피로누적, 사려과도(思慮過度) 등으로 인해 혈(血)의 생화(生化)작용이 안 되거나 만성적인 실혈(失血)로 혈(血)의 소실이 지나쳐서 혈의 유양기능이 감퇴되는 병리상태.

혈허내조증(血虛內燥證) [병증] ⇒ 혈조증(血燥證)

혈허발열(血虛發熱) [병증] : 소아 혈이 허해서 열이 나는 병증. 대개 코피를 쏟거나 혈변을 보거나하는 출혈에 의해 발생. 또한 음식 및 노권(勞倦) 등으로 비위(脾胃)를 상해서 정혈(精血)을 생성하지 못한 데서 발생되기도 한다. 열이 나고 얼굴이 거칠하며 갈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못 이루며 맥이 크면서도 허하고, 힘없이 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허생풍증(血虛生風證) [병증] 동 혈허풍동증(血虛風動證) : 병리 간혈(肝血)부족이 주로 근맥(筋脈)의 영양에 영향을 미쳐 생긴 증. 그 증상은 지체마목(肢體痲木), 근맥구급(筋脈拘急), 근척육순(筋惕肉瞤), 시물혼화(視物昏花) 등이 주증이고, 수족경련(手足痙攣), 면색창백(面色蒼白), 구순지갑담백(口脣指甲淡白), 조갑고취(爪甲枯脆), 협륵은통(脇肋隱痛)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맥현세(脈弦細)하다.

혈허증(血虛證) [변증] 동 혈휴증(血虧證) : 병리 혈(血)의 생화(生化)작용이 안되거나 만성적인 실혈(失血)로 혈의 유양기능이 감퇴된 병증. 면백무화혹위황(面白無華或萎黃), 안검구순창백(眼瞼口脣蒼白), 조갑담백(爪甲淡白), 두훈안화(頭暈眼花), 심계건망(心悸健忘), 실면다몽(失眠多夢), 수족마목(手足痲木) 등이 주증이고, 정충(怔忡), 모발불택(毛髮不澤), 조갑취박(爪甲脆薄), 두통은은(頭痛隱隱), 월경연기양소색담(月經衍期量少色淡), 혈고경폐(血枯經閉), 태루태활(胎漏胎滑), 산후혈훈(産後血暈), 변난(便難) 등이 차증이며, 설질담(舌質淡), 태박(苔薄), 맥세무력 혹 규(脈細無力或芤)하다.

혈허통(血虛痛) [병증] : 재활 혈허(血虛)로 인해 각 장부나 조직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동통.

혈허풍동증(血虛風動證) [병증] ⇒ 혈허생풍증(血虛生風證)

혈휴증(血虧證) [변증] ⇒ 혈허증(血虛證)

협거(頰車) [경혈] 동 곡주(曲周)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6)로서 십삼귀혈(十三鬼穴)에 해당하고 귀구슬(이주; tragus) 끝과 턱뼈각(하악각; angle of mandible)의 중점에서 앞으로 1촌 되는 곳으로 씹을 때 깨물근(교근; masseter)이 불룩 올라오는 부위에 위치.

협계(俠谿)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43)로서 형수혈(滎水穴)에 해당하고 4·5 번째 발가락 사이로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에 위치.

협백(俠白) [경혈] : 경혈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경혈(LU4)로서 팔 앞쪽, 겨드랑 횡문 아래 4촌이며 위팔두갈래근(상완이두근; biceps)의 안쪽에 위치.

협양(頰瘍) [병증] : 안이 하악골우(下顎骨隅)와 이수(耳垂)의 사이, 즉 개구(開口)하면 함요부가 있는 곳으로 양명위경에 속하는 협거골간(頰車骨間)에서 발생하는 옹저. 위경(胃經)에 열이 축적되어서 생김.

협형저(夾熒疽) [병증] ⇒ 늑저(肋疽)

협옥천(俠玉泉) [기혈] ⇒ 자궁(子宮)

협옹(脇癰) [병증] : 안이 늑하 협부(肋下 脇部)[소양경(小腸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초기에는 매리상(梅李狀)과 같던 것이 점차 커져서 주발(豌大)만큼 커짐.

협잡(挾雜) [병리] : 병리 서로 대립적인 증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한열착잡(寒熱錯雜), 허실협잡(虛實挾雜) 등.

협저(脇疽) [병증] : 안이 늑하 협부(肋下 脇部–소양경小腸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단단한 것이 창두(瘡頭)가 편평하고 산만(散漫)된 종양으로서 둔한 통증을 느낀다.

협지압수자침법(挾持押手刺鍼法) [침구] : 침구 침을 놓을 때 왼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오른손과 더불어 힘을 주어 침을 혈(穴)자리에 꽂는 압수법(押手法).

협척(夾脊) [기혈] 동 화타협척(華佗夾脊) : 경혈 요배부(腰背部)의 기혈. 협척혈(夾脊穴)은 본시 화타협척(華佗夾脊)[타척(佗脊)]에 7혈, 즉, 양쪽 14혈을 더 추가한 것임. 취혈은 첫 번째 등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에서 5번째 허리척추뼈 가시돌기(극돌기; spinous process) 아래 오목한 곳 양쪽 0.5~1촌 이내에서 취혈하며 양쪽 48혈이다. 이 혈의 명칭은 각 척추번호를 붙여 호칭한다.

협통(脇痛) [병증] : 내과 일측(一側) 혹은 양측(兩側)의 협륵동통(脇肋疼痛).

협후옹(夾喉癰) [병증] : 안이 결후옹(結喉癰)의 양방(兩傍)[간경(肝經)·위경(胃經)]에서 발생하는 옹저.

형개(荊芥) [약물]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형개 *Schizonepeta tenuifolia* Briquet의 화수(花穗). 중국에서는 전초(全草)를 약용부위로 함.

형도(形度) [진찰] : 진단 환자 형태(形態)의 성쇠(盛衰)와 체질(體質)의 강약(强弱)을 망진(望診)하여 변증치료(辨證治療)의 참고로 삼는 것.

형성만목(螢星滿目) [병증] 동 섬광증(閃光症) : 안이 초발시(初發 時)에는 현훈(眩暈)이 있고 시력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반복발작하며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눈앞에 많은 미세한 별빛이나 반딧불 같은 것이 현란하게 나타나는 병증.

형여하좌증(形如蝦座證) [병증] : 안이 급성안광염(急性眼眶炎)과 유사하며 기륜(氣輪)에 마치 두꺼비가 앉아있는 모양으로 혈창(血脹)이 되어 있는 것.

형혈(滎穴) [경혈] : 경혈 인체경맥(人體經脈)의 기유주(氣流注)를 샘물에 비유하면 수원(水源)의 소류(小流)에 해당하는 혈(穴). 지장부(指掌部)에 위치하며 주로 신열(身熱)을 다스리며 열성질환(熱性疾患)에 대한 치료 작용이 있다.

혜대력(惠袋癧) [병증] : 안이 우이근(右耳根)에 발생하는 나력(瘰癧).

혜대저(鞋帶疽) [병증] ⇒ 내과저(內踝疽)

호가(狐瘕) [병증] 동 호하(狐瘕) : 부인 소복(少腹) 사이를 출입하면서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종괴(腫塊)로, 남자의 경우는 호산(狐疝)이라 하고, 여자의 경우는 호가(狐瘕)라 한다.

호경골(虎脛骨) [약물] ⇒ 호골(虎骨)

호골(虎骨) [약물] 동 호경골(虎脛骨) : 본초 고양이과(猫科 : Felidae)에 속한 동물인 호랑이 *Panthera tigris* L.의 골격으로, 두골(頭骨)과 사지골(四肢骨)을 약용으로 하고, 웅호(雄虎)의 전경골(前脛骨)이 더욱 좋다.

호구(虎口) [경혈] ⇒ 합곡(合谷)

호구문(虎口紋) [진찰] ⇒ 호구삼관맥문(虎口三關脈紋)

호구삼관(虎口三關) ① [추나] : ⇒ 삼관(三關) ② [진찰] : ⇒ 호구삼관맥문(虎口三關脈紋)

호구삼관맥문(虎口三關脈紋) [진찰] 동 소아지문(小兒指紋), 소아맥문(小兒脈紋), 지문(指紋), 호구문(虎口紋), 호구삼관(虎口三關) : 소아 소아진찰에 특수한 진단방법의 하나. 1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를 진단(診斷)하는데 사용. 소아의 식지(食指) 내연에 붉은 문선(紋線)이 나타나면 질병의 발생을 뜻하며 질병에 따라 문선(紋線)의 형상이나 색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문선(紋線)에 의하여 진단한다. 그 부위의 구

분은 제 1절 풍관(風關)에 나타날 때는 병사가 처음 침입된 것으로 병세가 아직 경(輕)한 것이고, 제 2절 기관(氣關)에 나타날 때는 병세가 진행 또는 전성하는 것이며, 제 3절 명관(命關)까지 나타날 때는 병이 매우 중한 것을 의미한다. 지문의 색과 깊고 얕은 것을 보아서 질병의 표리(表裏) 한열(寒熱) 허실(虛實)을 판단한다.

호구저(虎口疽) [병증] 동 차독(叉毒), 벽해독(擘蟹毒) : 안이 합곡혈(合谷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호뇨자(狐尿刺) [병증] : 안이 당낭(螳螂)이 여름철에 교구(交媾)할 때 정즙(精汁)이 수족이나 피부에 접촉이 되어 발생하는 옹저. 처음에는 홍자색(紅紫色)을 띤 반점(斑點)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고 종대(腫大)되며 작열감이 있고, 통증이 있어 잠을 자지 못한다.

호도(胡桃) [약물] 동 핵도(核挑) : 본초 가래나무과(胡桃科 : Juglandaceae)에 속한 호두나무 *Juglans sinensis* Dode의 종자.

호도육(胡桃肉) [약물] : 본초 가래나무과(胡桃科 : Jugland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호두나무 *Juglans sinensis* Dode의 성숙한 종자로,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육질과피를 없애고 쇄건(曬乾)한 뒤 다시 핵각(核殼)과 목질의 격막을 없앤 후 사용.

호련(胡蓮) [약물] ⇒ 호황련(胡黃連)

호로파(胡蘆巴) [약물] 동 호파(胡巴)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호로파 *Trigonella foe numgraecum* L.의 성숙한 종자로,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호마(胡麻) [약물] ⇒ 흑지마(黑芝麻)

호망(好忘) [증상] ⇒ 건망(健忘)

호박(琥珀) [약물] 동 홍송지(紅松脂) : 본초 소나무과(松科 : Pinaceae)에 속한 소나무속 식물 *Pinus* spp.의 수지(樹脂)가 지하에 매몰되어 오랫동안에 걸쳐 응결한 화석모양의 물질.

호보세(虎步勢) [기공] ⇒ 호세희(虎勢戲)

호산(狐疝) [병증] : 내과 어떤 덩어리가 음낭(陰囊)으로 들어가 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병증(病證).

호산지기(呼散之氣) [사상] : 사상 사상체질의학에서 폐(肺)와 간(肝)은 기액(氣液)을 호흡하는 문호가 되는데 호산(呼散)하는 힘은 폐에서 나오고 흡취(吸聚)하는 힘은 간에서 나온다. 폐소간대(肺小肝大)한 태음인은 항상 호산지기(呼散之氣)가 부족하고, 폐대간소(肺大肝小)한 태양인은 항상 흡취지기(吸聚之氣)가 부족해서 서로 반대가 된다. 태음인의 질병이 치유되는데 있어서 흡산기기(呼散之氣)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며 태양인에 있어서는 흡취지기(吸聚之氣)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호세희(虎勢戲) [기공] 동 호희(虎戲), 호인(虎引), 호보세(虎步勢) : 재활 도인법. 호랑이의 동작을 모방한 일종의 보건체조. 雲笈七籤 〈導引按摩〉 동작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땅에 사지를 짚고 앞으로 세 발짝 가고 뒤로 두 발짝 가며 허리를 쭉 늘어뜨렸다가 뒤로 뒤집어 하늘을 보고 다시 뒤집어 앞뒤로 각기 7발씩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연지기(浩然之氣)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나오는 말로, 폐비간신(肺脾肝腎)에서 나오는 인체 내에 충만한 기(氣)를 말함. 사장(四臟)의 기(氣)를 충만하게 한다면 호연지기(浩然之氣)는 거기서 나오며 일심의 욕(慾)을 분명하게 가려낸다면 호연지리(浩然之理)는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음. 호연지기(浩然之氣)는 맹자가 처음 말한 용어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으며 바르고 강한 큰 원기이며 도의에 뿌리박고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를 말함. 동무(東武)는 폐비간신(肺脾肝腎)의 기(氣)를 인의예

지(仁義禮智)와 같은 도덕적 기로 인식하여 결국 폐비간신(肺脾肝腎)의 기가 충만 되면 도덕적 용기인 호연지기(浩然之氣)가 나온다고 하였음.

호연지리(浩然之理) [사상] : 사상 → 호연지기

호인(虎引) [기공] ⇒ 호세희(虎勢戲)

호자독(虎髭毒) [병증] : 안이 액옹(額癰), 승장저(承漿疽). 승장혈(承漿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호장(虎杖) [약물] 동 호장근(虎杖根), 고장(苦杖) : 본초 마디풀과(蓼科 : Polygo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호장근 *Polygonum cuspidatum* Sieb. et Zucc. 또는 동속식물의 근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세정(洗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호장근(虎杖根) [약물] ⇒ 호장(虎杖)

호초(胡椒) [약물] : 본초 후추과(胡椒科 : Pipe- raceae)에 속한 상록등본(常綠藤本)인 후초(胡椒) *Piper nigrum* L.의 거의 성숙한 과실로, 가을부터 다음해 봄 사이에 과실이 암녹색(暗綠色)을 띨 때 채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

호초구(胡椒灸) [침구] : 침구 백호초(白胡椒)가루로 병(餠)을 만든 후 그 위에 애주(艾炷)를 세워 뜸을 뜨는 방법.

호침(豪鍼) [침구] ⇒ 호침(毫鍼)

호침(毫鍼) [침구] 동 호침(豪鍼), 호침요법(毫鍼療法), 호침자법(毫鍼刺法) : 침구 구침(九鍼)의 하나. 길이는 1촌(寸) 9푼(分) 또는 3촌(寸) 6푼(分)이며, 침대가 가늘고 침 끝은 더욱 가는 형태를 보인다.

호침요법(毫鍼療法) [침구] ⇒ 호침(毫鍼)

호침자법(毫鍼刺法) [침구] ⇒ 호침(毫鍼)

호파(胡巴) [약물] ⇒ 호로파(胡蘆巴)

호하(狐瘕) [병증] ⇒ 호가(狐瘕)

호혹(狐惑) [병증] ⇒ 호혹창(狐惑瘡)

호혹병(狐惑病) [병증] ⇒ 호혹창(狐惑瘡)

호혹창(狐惑瘡) [병증] 동 호혹병(狐惑病), 호혹(狐惑) : 안이 베체트씨 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병증은 사지침중(四肢沈重), 묵묵욕면(默默欲眠), 기와불안(起臥不安), 설백치암(舌白齒暗) 등이며 충(蟲)이 장(臟)을 침식하여 상순(上脣)에 창(瘡)이 생긴 것을 혹(惑)이라 하고 항문을 침식하여 하순(下脣)에 창(瘡)이 생긴 것을 호(狐)라 함.

호황련(胡黃連) [약물] 동 호련(胡連) : 본초 현삼과(玄參科 : Scrophular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호황련(胡黃連) *Picrorhiza scrophulariiflora* Pennell의 근경(根莖)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을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호흡기단(呼吸氣短) [병증] ⇒ 단기(短氣)

호흡법(呼吸法) ① [기공] ⇒ 태식(胎息) ② [침구] : 침구 호흡과 자침(刺鍼)을 결합시켜 자침의 감응(感應)을 제어(制御)하는 방법.

호흡보사(呼吸補瀉) [침구] 동 호흡보사법(呼吸補瀉法) : 침구 환자의 호흡을 기준으로 침을 꽂거나 뽑음으로써 보(補)하고 사(瀉)하는 방법.

호흡보사법(呼吸補瀉法) [침구] ⇒ 호흡보사(呼吸補瀉)

호흡후침법(呼吸候鍼法) [침구] : 침구 병인(病人)에게 호흡을 시켜 그 호흡에 따라 용침(用鍼)하는 침법(鍼法).

호희(虎戲) [기공] ⇒ 호세희(虎勢戲)

혼(魂) [생리] : 생리 간(肝)의 기능 활동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정신의 발달과 양적(陽的)인 정신활동 및 외부로 드나드는 형태의 정신활동.

혼권(昏倦) [증상] : 정신 정신이 희미하고 팔다리가 노곤해지는 것을 말함.

혼궐(昏厥) [병증] : 내과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증상.

혼궤(昏憒) [증상] 동 신사혼궤(神思昏憒) : 정신 정신이 흐릿해져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혼도(昏倒) [병증] ⇒ 졸도(卒倒)

혼모(昏冒) [증상] : 내과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
혼문(魂門)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47)로서 근축(筋縮) 양쪽 각 3촌에 위치.
혼미(昏迷) [병증] ⇒ 신혼(神昏)
혼민(昏悶) [병증] ⇒ 신혼(神昏)
혼부(昏仆) [병증] ⇒ 졸도(卒倒)
혼수(昏睡) [증상] : 내과 의식혼란상태가 심해지고, 점차 잠자는 시간이 더욱 길어져서 깨우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
혼정(混睛) [병증] : 안이 회백색(灰白色)의 혼탁(混濁)과 함께 예막(翳膜)이 흑정(黑睛)을 가려서 혼암(昏暗)하여 맑지 못한 것. 각막실질염(角膜實質炎)과 유사.
혼합치(混合痔) [병증] ⇒ 내외치(內外痔)
혼화(昏花) [병증] : 안이 눈이 침침하며 안화(眼花)가 나타나는 것.
홀연민도(忽然悶倒) [병증] ⇒ 졸도(卒倒)
홍매괴(紅玫瑰) [약물] ⇒ 매괴화(玫瑰花)
홍맥(洪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크게 왔다가 약하게 가는 것.
홍배법(烘焙法) [포제] : 본초 약물을 약한 불로 간접 혹은 직접 가열하여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
홍송지(紅松脂) [약물] ⇒ 호박(琥珀)
홍안(紅眼) [병증] ⇒ 천행적목(天行赤目)
홍안변(紅眼邊) [병증] ⇒ 검현적란(瞼弦赤爛)
홍점설(紅點舌) [병증] ⇒ 설창(舌瘡)
홍천근(紅茜根) [약물] ⇒ 천초근(茜草根)
홍한(紅汗) [병증] ⇒ 혈한(血汗)
홍해분(紅海粉) [약물] ⇒ 해분(海粉)
홍화(紅花) ① [약물]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잇꽃 *Carthamus tinctorius* L.의 화(花)로서, 7~8월에 꽃잎이 황색(黃色)에서 홍색(紅色)으로 변할 때 통상화(筒狀花)를 따서 쇄건(曬乾)하거나 음건(陰乾)하여 사용. ② [병증] : 안이 안화(眼花)의 일종으로 눈앞에 붉은빛이 도는 것을 표현함.
화(和) [치법] ㉥ 화법(和法) : 방제 조화(調和), 화해(和解), 완화(緩和)시키는 치법. 발한법(發汗法), 토법(吐法), 하법(下法)을 적용하지 못하는 병증에 사용. 또한 경미한 한증(寒證)이나 열증(熱證)에 경제(輕劑)의 온약(溫藥)이나 양약(凉藥)을 사용하여 화(和)하게 해서 기혈(氣血)이 순조롭도록 하면 자연히 미약한 사기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 역시 화법(和法)에 속한다. 화법(和法)을 사용해도 낫지 않으면 취법(取法)을 사용해야 한다.
화감(火疳) [병증] : 안이 백정청람(白睛青藍)과 함께 공막염(鞏膜炎)에 해당하는 질환.
화개(華蓋)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20)로서 선기(璇璣) 아래 1촌 6푼에 위치.
화골창(化骨瘡) [병증] ⇒ 저저(杼疽)
화곽(火廓) [진찰] ⇒ 혈륜(血輪)
화관법(火罐法) [침구] : 침구 재활 소연법(燒燃法)의 화도(火焘)의 열력(熱力)으로 배기(排氣)하여 관내(罐內)를 감압(減壓)해서 관(罐)을 피부(皮膚)에 흡착(吸着)시키는 부항법.
화금체질(火金體質) [진찰] : → 화체질(火體質)
화농구(化膿灸) [침구] : 침구 직접구(直接灸)의 하나로 뜸쑥을 혈자리 위에 직접 놓고 불을 붙여 국소의 살갗에 포진(泡疹)을 만들어 곪게 하는 방법.
화담(化痰) [치법] ⇒ 거담법(祛痰法)
화담약(化痰藥) [치법] ⇒ 거담법(祛痰法)
화료(和髎)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22)로서 이곽근 전방(耳廓根 前方) 약 5푼 관골궁 상연(顴骨弓 上緣) 함요처(陷凹處)에 위치.
화료(禾髎) [경혈] : 경혈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경혈(LI19)로서 콧구멍 아래로 수구(水溝) 양쪽 5푼에 위치.
화마인(火麻仁) [약물] ⇒ 마인(麻仁)

화목체질(火木體質) [진찰] : → 화체질(火體質)
화목피(樺木皮) [약물] ⇒ 화피(樺皮)
화법(和法) [치법] ⇒ 화(和)
화병(火病) [병증] ㊐ 울화(鬱火), 울화병(鬱火病), 화병(火病) : 정신 화병(火病)은 '울화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울화란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는 가운데 장기간 누적되어 생기는 신경성적인 화를 말하는 것으로 화병은 이러한 울화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환임.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여 가슴부위가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느낌, 두통, 어지러움증 등과 같은 신체증상과 우울, 불안, 신경질, 이경이노(易驚易怒) 등의 정신증상이 있다.
화불생토(火不生土) [병리] ⇒ 비신양허(脾腎陽虛)
화비(火痞) [병증] ⇒ 열비(熱痞)
화사(火邪) [병리] : 병리 외감병인 중 육음(六淫)의 하나. 외감질병 가운데 화(火)의 특성[번작염상(燔灼炎上), 이생조열(易生燥熱), 생풍동혈(生風動血)]과 같은 증후를 일으키는 외사(外邪). 온(溫), 열(熱), 서(暑) 등의 병사(病邪)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열(熱)의 속성이 더 심하다.
화상(火傷) [병증] : 병리 안이 외상(外傷-기타 병인의 한 부류)의 하나. 열상(熱傷). 화염(火焰), 열상(熱傷), 증기(蒸氣), 작열금속(灼熱金屬)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아 나타나는 창증(瘡症).
화설(火泄) [병증] ⇒ 열사(熱瀉)
화수(火嗽) [병증] : 내과 기침소리만 있고 가래는 적으며, 얼굴이 붉게 되고 혹 번갈(煩渴)하고 물을 마시면서 맥은 홍삭(洪數)한 병증.
화수체질(火水體質) [진찰] : → 화체질(火體質)
화습(化濕) [치법] : 방제 거습법(祛濕法)의 하나. 방향거습(芳香祛濕)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상초(上焦)의 습사(濕邪)를 선화(宣化)하는 방법.
화안(火眼) [병증] ⇒ 천행적목(天行赤目)
화어(化瘀) [치법] ⇒ 거어(祛瘀)
화어약(化瘀藥) [치법] ⇒ 거어(祛瘀)
화예백함(花翳白陷) [병증] : 안이 예막(翳膜)이 산재(散在)된 꽃잎 모양과 같고 가운데가 함몰되어 있는 것. 계지상각막염(桂枝狀角膜炎)과 유사.
화예석(花蕊石) [약물] ㊐ 화유석(花乳石) : 본초 칼슘과 마그네슘의 탄산염이 주성분인 사문암(蛇紋巖).
화울(火鬱) [병리] [병증] : 병리 ① 오울(五鬱)의 하나. 심화(心火)가 뭉친 증상. ② 육울(六鬱)의 하나인 열울(熱鬱).
화울수(火鬱嗽) [병증] ⇒ 울수(鬱嗽)
화울천(火鬱喘) [병증] ⇒ 화천(火喘)
화유석(花乳石) [약물] ⇒ 화예석(花蕊石)
화적창(火赤瘡) [병증] : 안이 심화(心火)의 작용이나 혹서(酷暑)에 감촉되어 열사(熱邪)가 폐(肺)에 복결(伏結)되기 때문에 발생. 처음에는 작은 것은 황실(黃實)과 같고, 큰 것은 기자대(棋子大)와 같다. 작열감(灼熱感)이 있고, 간장(肝臟)빛깔의 농포(膿疱)를 형성하고 적색(赤色)을 나타내는 창증(瘡症)을 지칭함.
화전(花癲) [병증] : 정신 남자를 보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 한 남자를 사모했으나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갑자기 병이 생기며, 병의 증상이 매우 빠르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남자를 보면 애인으로 생각한다.
화제(火製) [포제] : 본초 한약 법제(法製) 방법의 하나. 불로 법제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화제(火製)에는 초(炒), 작(炸), 하(煆), 배건(焙乾), 자(炙), 외(煨) 등이 있다. 약물을 화제(火製)하면 찬 성질이 약해지고 독, 자극, 부작용, 효소 등의 성분이 파괴되며 수분의 함량이 낮아진다. 또한 광물성, 뿔, 뼈 등의 약재는 잘 부스러져 분말하기 쉽게 된다.

화종(火腫) [병증] : 안이 홍색(紅色)을 띠고, 피부가 맑고 발열(發熱)하지만, 부식(腐蝕)이 되지 않고 단단한 종(腫).
화창대두(火脹大頭) [병증] 동 대두화독(大頭火毒) : 안이 전염병의 일종. 대두상한(大頭傷寒), 대두화독(大頭火毒)과 유사. 처음에는 두면(頭面)에 부종(浮腫)이 있고 안적통(眼赤痛)으로 눈을 뜰 수가 없고 피부 내면이 적조(赤燥)하며 설건(舌乾) 구조(口燥)하고 천식(喘息), 인통(咽痛)하는 증상을 수반함.
화천(火喘) [병증] 동 화울천(火鬱喘) : 내과 가만히 있으면 숨쉬기가 편하고 움직이면 숨이 차는 병증. 충맥(衝脈)의 화(火)로 인해 발생.
화체질(火體質) [진찰] : 진단 운기체질의 한 분류. 변증에서 현재의 병증 이외에 오행 중 화(火)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화극금(火剋金), 화식기(火食氣)의 병증이 나타남. 화화(火火)체질, 화토(火土)체질, 화금(火金)체질, 화수(火水)체질, 화목(火木)체질로 세분된다.
화침(火鍼) [침구] ⇒ 번침(燔鍼)
화침법(火鍼法) [침구] ⇒ 번침(燔鍼)
화침요법(火鍼療法) [침구] ⇒ 번침(燔鍼)
화타협척(華佗夾脊) [기혈] ⇒ 협척(夾脊)
화토체질(火土體質) [진찰] : → 화체질(火體質)
화폐(火閉) [병증] : 안이 경락의 화(火)가 울체되어 폐색(閉塞)된 것.
화피(樺皮) [약물] 동 화목피(樺木皮) : 본초 자작나무과(樺木科 : Betul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자작나무 *Betula platyphylla* Suk. var. *japonica* Hara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수피(樹皮).
화해(和解) [사상] : 사상 ①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 나오는 말로, 대장파한증(大腸怕寒證)에 쓰이는 치법으로 소복경만증(小腹硬滿證)이 있을 때 곽향정기산이나 향사양위탕 등의 따뜻한 약을 사용하여 이랭(裏冷)을 풀어주는 방법. 기존 의가들은 도인승기탕을 사용하여 사하(瀉下)시켰다. ②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에서 기존 의가들이 소양병(少陽病)을 치료할 때 소시호탕을 이용하여 화해(和解)시켰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동무(東武)는 이 증상에 소시호탕의 청담조담(淸痰稠痰)하는 방법은 평균하게 화해하는 방법이 못되고 형방패독산으로 청이열이강표음(淸裏熱而降表陰)하여 담이 저절로 흩어지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해이준보(和解而峻補)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 나오는 말로, 신양곤열(腎陽困熱)과 대장파한증(大腸怕寒證)이 겸해져서 외열포이랭(外熱包裏冷)의 양상이 되어 독기(毒氣)가 안으로 거듭 맺혀있어서 병이 심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파두단(巴豆丹)을 써서 한 두 차례 사하(瀉下)를 시키고 이어서 곽향정기산, 팔물군자탕으로 화해(和解)하고 준보(峻補)하라고 하였다.
화화체질(火火體質) [진찰] : → 화체질(火體質)
환도(環跳) [경혈] : 경혈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경혈(GB30)로서 큰 돌기(대전자; great trochanter)의 가장 높은 점과 볼기고랑(둔열횡문; natal cleft) 위로 손가락 2개 높이되는 점과의 거리를 3 등분하여 큰 돌기 쪽 ⅓되는 점에 위치.
환도저(環跳疽) [병증] : 안이 고관절 대전자(股關節 大轉子)의 전방 환도혈(環跳穴)에서 발생하는 옹저. 급성화농성 고관절염에 해당.
환도침(環跳鍼) [기구] ⇒ 장침(長鍼)
환식(環息) [기공] : 재활 기공용어로 토고납신(吐古納新), 지식(止息) 등의 방법으로 호흡을 계속하는 것.
환약(丸藥) [제제] ⇒ 환제(丸劑)
환자(環刺) [침구] : 침구 봉쇄곡선상(封鎖曲線狀)으로 환형(環形) 점자(點刺)하는 것.
환제(丸劑) [제제] 동 환약(丸藥) : 방제 한약 제형의 하나. 보드랍게 가루 낸 한약 또는 한약

전탕농축액에 결합제. 부형제들을 섞어서 둥근 모양으로 만든 먹는 알약. 환제(丸劑)에는 결합제의 종류에 따라 밀환·수환·호환·약즙환·납환·엑스환·혈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환제는 먹기 편리하고 흡수가 비교적 완만하며 약효력이 비교적 오래 간다. 한약재 중 높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하고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쉽게 휘발되고 독성이 비교적 센 약들은 환제를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 환제는 보통 만성 질병에 쓰이며, 급성 질병에 쓸 때는 물이나 술에 풀어서 복용한다.

활규자(滑葵子) [약물] ⇒ 동규자(冬葵子)

활담(豁痰) [치법] ⇒ 거담법(祛痰法)

활리(滑痢) [병증] : 내과 부드러운 이질설사(痢疾泄瀉).

활맥(滑脈) [징후] : 진단 맥상(脈象)의 하나. 맥의 왕래(往來)가 막힘이 없으며 마치 쟁반 위에 구르는 구슬처럼 매끄럽게 손가락에 와 닿는 것. 담음(痰飮)·식적(食積)·실열(實熱) 등의 병증(病證)을 주로 나타내는데, 임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

활석(滑石) [약물] : 본초 규산염류의 광물인 활석의 덩어리.

활설(滑泄) [병증] : 내과 오랫동안 계속되는 심한 설사.

활예(滑翳) [병증] : 안이 동인(瞳人)의 중심과 내면에 일점(一點)의 백막(白膜)이 수은주상(水銀珠狀)과 같으며 다소 황색을 띠는 것.

활육문(滑肉門) [경혈] : 경혈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경혈(ST24)로서 수분(水分) 양쪽 2촌에 위치.

활정(滑精) [병증] ㊐ 정시자하(精時自下), 정활탈(精滑脫) : 내과 유정(遺精)의 일종으로 꿈을 꾸지 않으면서 정액(精液)이 배출되는 병증.

활태(滑胎) [병증] [치법] : 부인 습관성 유산. 그러나 備急千金要方이나 景岳全書 〈婦人規〉에서는 출산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활태(滑苔) [징후] ㊐ 태활(苔滑) : 진단 설태(舌苔)가 촉촉하고 매끄러운 것. 진액(津液)이 있는 설상(舌象)으로, 열병(熱病)에 설태(舌苔)가 활(滑)한 경우는 이열(裏熱)이 아직 울결(鬱結)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설질(舌質)이 담(淡)하면서 설태(舌苔)가 백활(白滑)하거나 회활(灰滑)하면 음한(陰寒)이 응체(凝滯)되었거나 담습(痰濕)이 내부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상한론(傷寒論) 〈태양병편하(太陽病篇下)〉에서 "장결(臟結)에 양증(陽證)이 없고 오한발열(惡寒發熱)하지 않으며, 환자가 도리어 정적(靜的)이고 설태(舌苔)가 활(滑)한 경우는 공하(攻下)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활혈(活血) [치법] ⇒ 행혈(行血)

활혈약(活血藥) [약물] ⇒ 행혈(行血)

홧병(홧病) [병증] ⇒ 화병(火病)

황갈반(黃褐斑) [병증] ⇒ 간(黯)

황개자(黃芥子) [약물] ⇒ 개자(芥子)

황과옹(黃瓜癰) [병증] : 배부(背部)의 척추(脊椎) 양 옆에 생기는 옹(癰). 비화(脾火)가 쌓여 독이 되어 발생. 피육(皮肉)이 홍색을 띠고, 그 모양이 황과(黃瓜) 같으며, 높이 1촌 정도에 너비 1척 정도로 붓고, 사지마목(四肢麻木)하며, 동통(疼痛)이 심(心)까지 파급됨.

황귤피(黃橘皮) [약물] ⇒ 청피(靑皮)

황금(黃芩) [약물] ㊐ 부장(腐腸) : 본초 꿀풀과(脣形科 : Labia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속썩은풀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의 주피(周皮)를 벗긴 근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과 주피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눈근(嫩根)으로 내외가 모두 실(實)하며 황색(黃色)으로 미록(微綠)을 띤 것을 자금(子芩) 또는 조금(條芩)이라 하고, 노근(老根)으로 중심이 비어 있고 겉면은 황색이고 내부는 흑색을 띤 것을 고금(枯芩), 숙금(宿芩) 또는 편금(片芩)이라 함.

황기(黃芪) [약물]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황기 *Astragalus membranceus* Bunge의 주피(周皮)를 거의 벗긴 뿌리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과 두부(頭部)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황납구(黃蠟灸) [침구] : 침구 간접구(間接灸)의 일종. 밀병으로 종양(腫瘍)의 근부(根部) 주위에 울타리처럼 둘러싼 후 용화(熔化)된 납설(蠟屑)을 조금씩 부어 둘레의 높이까지 차도록 반복하는 것.
황단(黃丹) [약물] ⇒ 연단(鉛丹)
황달(黃疸) [병증] 동 황병(黃病) : 내과 신(身)·목(目)이 발황(發黃)하며, 소변도 황색(黃色)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증.
황대(黃帶) [병증] ⇒ 황대하(黃帶下)
황대하(黃帶下) [병증] 동 황대(黃帶), 대하황후(帶下黃候) : 부인 질에서 담황색(淡黃色)의 걸쭉하고 끈끈한 액체가 분비되는 것. 심하면 그 색이 다즙(茶汁)처럼 진하며, 악취가 나기도 한다. 대부분 체내에 습사(濕邪)가 지나치게 성(盛)해서 울결되어 열(熱)로 변하여 임맥(任脈)·대맥(帶脈)을 손상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황련(黃連) [약물] : 본초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 : Ranuncu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황련 *C. japonica* Makino, 황련(黃連) *Coptis chinensis* Franch., 삼각엽황련(三角葉黃連) *C. deltoidea* C.Y. Cheng et Hsiao 또는 운련(雲連) *C. teeta* Wall.의 뿌리를 제거한 뿌리줄기로, 가을에 채취하여 수근(鬚根)과 니사(泥沙)를 제거하고 건조하여 사용.
황막상충(黃膜上衝) [병증] 동 황액상충(黃液上衝) : 안이 전방축농(前房蓄膿)과 유사. 흑정내(黑睛內)의 홍채 전면에서 발생하는 황색 농액(黃色膿液)이 점차 증가되는 병증.
황매목(黃梅木) [약물] 동 단향매(檀香梅) : 본초 녹나무과(樟科 : Lauraceae)에 속한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Blume의 싹이 트기 전에 채취한 어린 가지.
황맥(黃脈) [진찰] ⇒ 비맥(脾脈)
황문(肓門)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51)로서 현추(懸樞) 양쪽 각 3촌에 위치.
황백(黃柏) [약물] : 본초 운향과(芸香科 : Rut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의 주피(周皮)를 벗긴 수간피(樹幹皮)로서, 3~6월에 채취하여 주피를 제거하고 쇄건(曬乾)하여 사용. 중국에서는 이 외에 황피수(黃皮樹) *P. chinense* Schneid.도 기원으로 하며, 전자(前者)를 관황백(關黃柏), 후자(後者)를 천황백(川黃柏)이라고 함.
황병(黃病) [병증] ⇒ 황달(黃疸)
황산나트륨(黃酸나트륨) [약물] ⇒ 망초(芒硝)
황상산(黃常山) [약물] ⇒ 상산(常山)
황수(肓俞) [경혈] : 경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경혈(KI16)로서 신궐(神闕) 양쪽 5푼에 위치.
황심백예(黃心白翳) [병증] 동 황심예(黃心翳) : 안이 사변(四邊)은 백색(白色)을 띠나 중심 일점(一點)은 미황색(微黃色)을 띠고 흑주내(黑珠內)에 은재(隱在)하여 있다가 주회(珠外)로 영출(映出)하는 특징이 있는 예(翳).
황심예(黃心翳) [병증] ⇒ 황심백예(黃心白翳)
황액상충(黃液上衝) [병증] ⇒ 황막상충(黃膜上衝)
황유장(黃油障) [병증] : 안이 검열반(瞼裂斑)과 유사. 담황색(淡黃色)의 삼각형반(三角形斑)이 검열부의 구결막상(球結膜上)에 위치하고 비측(鼻側)에서 많이 나타나고 조금 융기되어 있는 병증.
황정(黃庭) [기공] : 재활 기공용어. 기공할 때 의수할 수 있는 부위로 고대의 기공에서 인체 부위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
황정(黃精) [약물] : 본초 백합과(百合科 :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층층갈고리둥굴

래 *Polygonatum sibiricum* Redoute의 근경을 그대로 또는 외피를 벗겨서 찐 것.

황조옹(黃爪癰) [병증] : 안이 육구(肉龜). 배부 양측(背部兩側)에서 발생하여 피육색(皮肉色)이 붉고 형상(形狀)이 황조(黃爪)와 같은 옹저.

황지(黃芝) [약물] ⇒ 영지(靈芝)

황창(黃脹) [증상] : 안이 누렇게 부어오른다는 의미로 작목증(雀目症)이 목기(木氣)가 쇠(衰)하고 토기(土氣)가 왕성해져 이와 같이 변한 것.

황촉규(黃蜀葵) [약물] 동 촉규근(蜀葵根) : 본초 아욱과(葵科 : Malvaceae)에 속한 닥풀 *Hibiscus manihot* Linné의 근.

황추옹(黃鰍癰) [병증] 동 경음저(脛陰疽) : 안이 하퇴두(下腿肚) 내측에서 발생하여 수 촌(數寸)이 미종(微腫)하여 있어 큰 부분이 체부(體部) 작은 부분이 미부(尾部)로 되어있는 옹저.

황태(黃苔) [징후] : 진단 설태(舌苔)의 하나. 혀 위 태(苔)의 색이 누런색을 띄는 상태로 주로 이열증(裏熱證)을 나타낸다.

황토구(黃土灸) [침구] 동 황토구법(黃土灸法) : 침구 뜸 요법의 일종. 깨끗한 진흙을 물에 개어 약 2~3㎜ 두께로 엽전만하게 빚어서 그 위에 애주(艾柱)를 좀 크게 해서 뜨는 방법.

황토구법(黃土灸法) [침구] ⇒ 황토구(黃土灸)

황풍(黃風) [병증] : 안이 오풍내장(五風內障) 중 황풍내장(黃風內障). 청풍(靑風)이 보다 악화되어 회황색(灰黃色)으로 변한 것.

황한(黃汗) [병증] : 내과 신체가 부종, 발열하며 황색의 땀이 스며 나와 입고 있는 옷이 누렇게 되는 병증.

황화지정(黃花地丁) [약물] ⇒ 포공영(蒲公英)

황화호(黃花蒿) [약물] ⇒ 청호(靑蒿)

회(蛔) [기타] 동 우(蚘), 장충(長蟲), 교회(咬蛔), 회충(蛔蟲) : 병리 회충(蛔蟲). 후미생랭물(厚味生冷物), 과과물(瓜果物) 등을 잡식(雜食)하거나 마음대로 먹은 경우의 음식상(飮食傷), 회충의 좋은 생장조건인 습열적체(濕熱積滯), 장부의 허약 등이 회충병(蛔蟲病)의 원인이 된다.

회감(蛔疳) [병증] : 소아 회충으로 일어나는 감질. 어린아이의 장부가 허약한데다 만일 음식이 불결하여 회충에 감염되거나, 달고 기름진 음식물을 즐겨 먹어 비위(脾胃)를 상하면 습탁(濕濁)이 소화되지 않아 기생충병이 발생하기 쉬움. 뱃속이 심하게 아픈 것이 때때로 누그러지거나 그치며 맑은 침을 토하고 배가 불룩하며 안색이 푸르면서 누렇고 입술이 하얘지며 눈에 광채가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다.

회고(灰菇) [약물] ⇒ 마발(馬勃)

회궐(蛔厥) [병증] : 병리 회충(蛔蟲)으로 인해 아프면서 궐(厥)증이 발생한 경우.

회선(回旋) [추나] 동 회선교정(回旋矯正) : 재활 측굴 기법과 굴곡전화 기법을 혼합한 형태의 교정수법. 접촉한 주동수를 고정시키고 추나 치료 테이블의 손잡이를 보조수로 이용한다. 치료대의 골반부분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측굴 시킨 뒤 굴곡전환기법을 이용하여 다시 중앙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추간판 질환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며 척추 소관절 증후군, 척추관 협착증, 추골 변위의 치료에 많이 쓰인다.

회선교정(回旋矯正) [추나] ⇒ 회선(回旋)

회양(會陽) [경혈] : 경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경혈(BL35)로서 장강(長强) 양쪽 각 5푼에 위치.

회유(回乳) [치법] ⇒ 단유(斷乳)

회음(會陰) [경혈] : 경혈 임맥(任脈)의 경혈(CV1)로서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

회음곽(會陰廓) [진찰] : 진단 팔곽(八廓)의 하나. 간곽(艮廓), 즉 산곽(山廓)에 해당됨. → 산곽(山廓)

회음지맥(會陰之脈) [경락] ⇒ 임맥(任脈)

회자(恢刺) [침구] 동 회자법(恢刺法) : 침구 십이자(十二刺)의 하나. 환부의 옆에 수직으로

침을 놓아 앞이나 뒤로 염전(捻轉), 제삽(提揷)하여 근맥경련(筋脈痙攣)을 완화시켜 근비(筋痺)를 치료하는 것.

회자법(恢刺法) [침구] ⇒ 회자(恢刺)

회종(會宗) [경혈] : 경혈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경혈(TE7)로서 극혈(郤穴)에 해당하고 양지(陽池) 위 3촌으로 지구(支溝)에서 자쪽으로 1촌에 위치.

회충(蛔蟲) ⇒ 회(蛔)

회충류(蛔蟲瘤) [병증] : 안이 회충이 들어 있는 혹이 옆구리 밑에 생기는 병증.

회태(灰苔) [진찰] : 진단 설태(舌苔)의 하나. 혀 위의 태상물이 회색(灰色)을 나타내는 것. 이증(裏證)에서 주로 나타난다.

회향(茴香) [약물] 동 소회향(小茴香) : 본초 미나리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회향 *Foeniculum vulgare* Mill.의 성숙한 과실로 9~10월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횡개예(橫開翳) [병증] ⇒ 횡예(橫翳)

횡산(橫産) [병증] : 부인 분만할 때 태아의 손이 먼저 나오는 것.

횡예(橫翳) [병증] 동 횡개예(橫開翳) : 안이 검척예(劍脊翳), 횡개예(橫開翳)와 유사. 내장(內障)이 전극(前極)이나 후극(後極)에 부착되어 검 모양과 같으므로 방추상 백내장(紡錘狀 白內障)이라하며 회백색에 초황색(焦黃色)을 띠고 동공(瞳孔)을 가린다.

횡자(橫刺) [침구] 동 연피자(沿皮刺) : 침구 침을 놓을 때 침과 혈자리의 살갗 사이가 15°정도 되게 침을 뉘어서 찌르는 방법.

횡침투자(橫鍼透刺) [침구] ⇒ 횡투자(橫透刺)

횡투자(橫透刺) [침구] 동 횡침투자(橫鍼透刺) : 침구 투혈법(透穴法)의 일종. 피부(皮膚)를 연(沿)하여 투자(透刺)하는 방법이며 피부(皮膚)가 천박(淺薄)한 부위에 적용된다.

횡현(橫玄) [병증] : 서혜부에 발생하는 매독(梅毒).

횡현저(橫玄疽) [병증] : 안이 좌대퇴 내측 상부 고동맥(左大腿 內側 上部 股動脈)이 있는 부위[합봉습문간(合縫褶紋間) 즉 삼음경(三陰經)에 속함]에서 발생하는 옹저. 고환이 당기면서 통증이 있고 단단한 것으로서 감별함.

효(哮) [병증] 동 효병(哮病), 효증(哮證), 효후(哮吼) : 내과 목안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병증.

효병(哮病) [병증] ⇒ 효(哮)

효증(哮證) [병증] ⇒ 효(哮)

효천(哮喘) [병증] : 내과 숨쉬기 가빠하면서 헐떡거리고 숨결이 잦으면서 목안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병증.

효후(哮吼) [병증] ⇒ 효(哮)

후(候) [징후] [진찰] : 진단 ① 기후(氣候), 시절(時節). ② 징후, 징조. ③ 진맥(診脈)의 부위. ④ 진찰, 추측.

후감(猴疳) [병증] : 소아 신생아의 둔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 심하면 온몸에 번지고 피부가 붉어지면서 얇고 크게 벗겨지는 병증.

후감증(喉疳證) [병증] : 안이 후내(喉內)가 궤란(潰爛)되어 부식된 표피가 하피(蝦皮)와 같이 일어나는 것.

후계(後谿) [경혈] : 경혈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경혈(SI3)로서 수목혈(兪木穴)에 해당하고 새끼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본절; metacarpophalangeal joint) 뒤 오목한 곳에 위치.

후골저(朽骨疽) [병증] ⇒ 다골저(多骨疽)

후관상한(喉關傷寒) [병증] ⇒ 후양(喉癢)

후균(喉菌) [병증] : 안이 후롱(喉嚨) 양방(兩傍)에서 발생하며 후두(喉頭)가 울결되어 괴(塊)를 형성하고 단단하게 부어올라 버섯이나 개구리밥 모양과 같고 비후되어 연하(嚥下)가 곤란해지는 병증.

후기(候氣) [침구] : 침구 ① 침을 놓고 득기(得氣)하지 못하였을 때 침을 그대로 두고, 잠시

동안 조용히 살피며 기(氣)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 ② 병기(病氣)의 변화를 파악하여 침자(鍼刺)치료할 시기를 정하는 것.

후기미(嗅氣味) [진찰] : 진단 문진(聞診) 내용의 하나. 환자의 몸이나 구강(口腔) 및 각종 배설물(排泄物)의 냄새를 맡는 것.

후단(喉單) [병증] : 안이 간화울결(肝火鬱結)로 풍(風)이 발생하여 관구상부(關口上部)가 하수(下垂)되고 근대두소(根大頭小)하며 홍색을 띠고 통증이 아주 심한 병증.

후독(喉毒) [병증] 동 쇄후독(鎖喉毒) : 안이 후독(喉毒)이 청회혈상(聽會穴上)에서 발생하여 나력상(瘰癧狀)과 같은 것.

후두용(喉頭茸) [병증] 동 후중식육(喉中瘜肉) : 안이 성대연(聲帶緣)에 호발(好發)하는 유종성(乳腫性) 종유(腫瘤).

후류(喉瘤) [병증] : 안이 관내(關內) 양방(兩傍) 또는 편측(片側)에서 발생하는데 형상이 둥글고 혈사(血絲)가 외부를 둘러싸서 유(瘤)와 유사한 것.

후박(厚朴) [약물] : 본초 목련과(木蘭科 : Magnoliaceae)의 낙엽교목인 후박(厚朴) *Magnolia officinalis* Rehder et Wilson, 요엽후박(凹葉厚朴) *Magnolia officinalis* Rehder et Wilson var. *biloba* Rehder et Wilson 또는 일본목련 *Magnolia ovobata* Thunberg.의 수피(樹皮). 4~6월에 15~20년생의 수간피(樹幹皮), 근피(根皮), 지피(枝皮)를 벗긴 후 코르크층을 제거하고 음건하거나, 수간피(樹幹皮)를 끓는 물에 약간 감은 다음 음습한 곳에 깔아 놓고 발한(發汗)시켜 내표면이 자갈색(紫褐色)으로 변할 때 쪄서 부드럽게 되면 통상(筒狀)으로 말아서 쇄건(曬乾)하여 사용.

후법(鶲法) [치법] : 내과 약을 먹을 수 없을 때 코로 약냄새를 맡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

후불리(後不利) [병증] ⇒ 변비(便秘)

후비(喉痺) [병증] 동 후비증(喉痺證) : 안이 후내(喉內)가 아프고 부어올라 폐색(閉塞)되는 것.

후비증(喉痺證) [병증] ⇒ 후비(喉痺)

후사(喉痧) [병증] 동 단사(丹痧), 난후사(爛喉痧), 역후사(疫喉痧) : 안이 성홍열(猩紅熱)과 유사한데 후두(喉頭)가 아프며 신열(身熱)이 있고 사반(痧癍)이 나타나는 병증.

후사해(後四海)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의 용어로, 신체 후면부에 있어서 생리적 기능의 근본이 되는 사해(四海)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膩海), 막해(膜海), 혈해(血海), 정해(精海)가 그것이다. 이목비구(耳目鼻口)는 진해(津海), 고해(膏海), 유해(油海), 액해(液海) 즉, 전사해(前四海) 중의 맑은 기운을 끌어내어 신기혈정(神氣血精)을 형성하고 신기혈정(神氣血精)의 기능이 더욱 응집되어 후사해(後四海)를 형성한다. 이해(膩海)는 폐(肺) 및 피모(皮毛)의 근본이 되고, 막해(膜海)는 비(脾) 및 근(筋)의 근본이 되고, 혈해(血海)는 간(肝) 및 육(肉)의 근본이 되고, 정해(精海)는 신(腎) 및 골(骨)의 근본이 된다. 또한 폐비간신(肺脾肝腎)은 후사해(後四海)를 원동력으로 진고유액(津膏油液)의 형성을 도움으로써 전사해(前四海)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 전사해(前四海)

후산(後産) [생리] : 부인 분만 제 3기에 태반이 나오는 것.

후선(喉癬) [병증] 동 천백의(天白蟻) : 안이 인익(咽嗌)이 건조하고 후두(喉頭)가 가렵고 태선(苔癬)이 발생하는 것.

후신내선수법(後伸內旋手法) [치법] : 재활 신전한 후에 내선(內旋)하는 수기법.

후양(喉癢) [병증] 동 후관상한(喉關傷寒) : 안이 풍사(風邪)가 후두(喉頭)에 침범하여 가려워 참기가 어렵고 물이 올라 오는 것.

후오(喉忤) [병증] : 안이 풍화(風火)가 폐위(肺胃)에 축적되어 후내(喉內)의 통증이 아주 심하면서 부어오르는 것.

후옹(喉癰) [병증] : 안이 ① 인후농양(咽後膿瘍)과 유사하며 갑자기 발열(發熱)이 되고 비색(鼻塞)과 인두통(咽頭痛)이 있으면서 호흡곤란(呼吸困難)과 연하장애(嚥下障碍) 등이 나타나는 병증. ② 후간(喉間)이 홍종(紅腫)하면서 부어오르는 것.

후음(喉瘖) [증상] ⇒ 실음(失音)

후익중명(喉嗌中鳴) [병증] : 안이 후두와 식도 상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후자(喉刺) [병증] : 안이 허로(虛勞)로 음화(陰火)가 상승하여 후간 상악(喉間上顎)에 홍색 반점이 모기 물린 자국처럼 밀집하여 발생하는 병증.

후정(後頂) [경혈] : 경혈 독맥(督脈)의 경혈(GV 19)로서 백회(百會) 뒤 1촌 5푼에 위치.

후정(喉疔) [병증] : 안이 사열(邪熱)이 폐위(肺胃)에 내침(內侵)하여 화독(火毒)이 후두부(喉頭部)로 상결(上結)하여 발생. 그 창(瘡)이 후두(喉頭)의 양방(兩傍)에 생겨 뿌리가 깊고 형상이 정(釘)과 같다.

후중(後重) [병증] : 내과 배가 급박하게 아프며 항문이 무거워 처지는 듯 불편한 병증.

후중결괴(喉中結塊) [병증] : 안이 담기(痰氣)가 교결(膠結)되어 후내(喉內)에 갑자기 단단한 덩어리가 발생하여 탄토(呑吐)하여도 나오지 않고 심하면 음식물이 연하(嚥下)하지 못하여 위험하게 되는 병증.

후중생육(喉中生肉) [병증] 동 식육후풍(癔肉喉風) : 안이 후두용(喉頭茸)과 유사. 그 크기가 다양하며 성대연(聲帶緣)에 호발(好發)한다.

후중성취(喉中腥臭) [병증] : 안이 폐위(肺胃)의 열독(熱毒)으로 인해 인건(咽乾) 구조(口燥)하고 후내(喉內)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후중식육(喉中癔肉) [병증] ⇒ 후두용(喉頭茸)

후창(喉瘡) [병증] : 후간(喉間)에 적색(赤色)의 살이 층층으로 겹쳐 생겨 음식을 삼키는데 지장을 주고 입안에서 악취가 나는 것.

후천(後天) [생리] : 생리 선천(先天)에 상대되는 말로서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의 시간.

후천지기(後天之氣) [생리] ⇒ 수곡지기(水穀之氣)

후천지본(後天之本) [생리] ⇒ 비위(脾胃)

후축닉(喉搐搦) [증상] : 안이 경련성 후두염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천명(喘鳴)을 수반하게 된다.

후태(候胎) [진찰] : 부인 산과의 진단법으로, 한약을 복용해서 임신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婦人大全良方에서는 "부녀자가 월경이 3개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임신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말한 생천궁(生川芎) 6g을 진하게 달인 애탕(艾湯)에 타서 공복에 복용했을 때 복내(腹內)에 미동(微動)이 있으면 임신이다."라고 하였다.

후통(喉痛) [증상] : 안이 후두부(喉頭部)에 통증이 있는 것.

후편(厚片) [포제] : 본초 절편(切片)의 하나. 약재를 2~4mm 정도의 두께로 써는 것. 일반적으로 뿌리, 줄기, 열매 등의 약재를 후편(厚片)으로 자른다.

후폐(喉閉) [병증] : 안이 후두부(喉頭部)가 막혀서 성음(聲音) 및 호흡(呼吸)이 나오지 않는 것.

후풍(喉風) [병증] : 안이 후내(喉內)가 홍종(紅腫)하여 외항(外項)으로 파급되는 것.

후하(後下) [기타] : 방제 전약법(煎藥法)의 하나. 박하, 목통, 사인 등과 같은 방향성 약물은 그 휘발성분에 효능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달이면 유효한 성분이 모두 날아가게 된다. 따라서 다른 약물을 먼저 적당히 달인 후에 넣고 약간만 달여야 한다. 이 밖에 대황은 후하(後下)하면 사하(瀉下)작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후합(鮦鮯) [병증] : 소아 소아에게 담모(痰母)가 있어서 기촉천급(氣促喘急)하고 목구멍에서 톱질하는 소리가 나는 병증. 소아의 비폐(脾

肺)가 약하여 음식이 정체되어 발생.
훈거(熏渠) [약물] ⇒ 아위(阿魏)
훈세법(熏洗法) [치법] : 부인 훈법(熏法)과 세척법(洗滌法)을 함께 실시하는 치료법. 약물을 물에 넣고 끓여서 이 때 나오는 증기에 환부를 쏘이고 다음에 그 물로 환부를 씻거나 그 물에 천을 적셔서 따뜻하게 하여 환부를 씻거나 그 물에 천을 적셔서 따뜻하게 하여 환부에 붙이는 방법.
훈제법(熏臍法) [치법] : 내과 배꼽(臍部)을 훈구(薰灸)하는 치료법.
훈증(熏蒸) [치법] 동 훈증(薰蒸) : 내과 외치법(外治法)의 하나. 약을 태우는 연기나 끓일 때 나오는 김을 몸에 쏘이는 치료법.
훈증(薰蒸) [치법] ⇒ 훈증(熏蒸)
훈침(暈鍼) [침구] 동 침훈(鍼暈) : 침구 자침(刺鍼)으로 인해 발생되는 훈궐(暈厥)현상.
휴목(睢目) [병증] : 안이 안검하수(眼瞼下垂)로 인해 자꾸 눈을 부릅뜨게 되는 증상.
휴식리(休息痢) [병증] : 소아 거듭 재발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이질.
흉격번만(胸膈煩滿) [증상] ⇒ 번만(煩滿)
흉결해(胸結咳)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 나오는 말. 결해(結咳)라는 것은 애써서 기침하는데 가래가 나올 듯 말듯하면서 간혹 나오는 것을 말함. 소음인의 결해를 흉결해(胸結咳)라고 하며, 태음인의 결해를 함결해(頷結咳)라고 한다.
흉만(胸滿) [병증] : 내과 가슴이 그득한 병증. 풍한사(風寒邪), 풍열사(風熱邪), 기(氣), 수음(水飮), 어혈(瘀血) 등이 가슴에 몰려서 생긴다.
흉민(胸悶) [병증] : 내과 가슴이 답답한 증.
흉비(胸痞) [병증] : 내과 가슴이 막히는 듯하면서 아픈 것을 위주로 하는 병증.
흉비(胸痺) [병증] : 내과 흉배통(胸背痛), 흉중기색(胸中氣塞), 호흡천촉(呼吸喘促), 해수(咳嗽), 담성(痰盛) 등의 병증. 흉만(胸滿)과 동일.
흉추부교정(胸椎部矯正) [추나] : 재활 흉추부의 교정방법. 자세관찰, 정적 촉진, 동작 촉진, 관절가동 범위, 방사선 검사, 이학적 검사 등의 소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흉추의 신전법이나 교정법을 선택해야 하며 환자를 복와위(腹臥位)에서 주로 시행하는데 늑골에 무리한 힘을 가해져서 늑골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만큼 치료에 주의해야 한다.
흉통(胸痛) [병증] : 내과 가슴부위에서 일어나는 통증과 불쾌감.
흉향(胸鄕) [경혈] : 경혈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경혈(SP19)로서 옥당(玉堂) 양쪽 6촌으로 3·4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
흉협고만(胸脇苦滿) [병증] ⇒ 흉협만(胸脇滿)
흉협만(胸脇滿) [병증] 동 흉협고만(胸脇苦滿), 흉협지만(胸脇支滿) : 병리 흉협부(胸脇部)가 창만(脹滿)하면서 편안하지 않은 것.
흉협작통(胸脇作痛) [병증] ⇒ 흉협통(胸脇痛)
흉협지만(胸脇支滿) [병증] ⇒ 흉협만(胸脇滿)
흉협통(胸脇痛) [병증] 동 흉협작통(胸脇作痛) : 내과 가슴과 옆구리가 아픈 증상.
흑대두(黑大豆) [약물] ⇒ 흑두(黑豆)
흑대하(黑帶下) [병증] 동 대하흑후(帶下黑候) : 부인 질에서 검은 콩물 같은 액체가 배출되는 것. 적백대하(赤白帶下) 안에 흑색이 섞여 있기도 한다. 대부분 열사(熱邪)가 임맥, 대맥(任脈·帶脈)을 손상하고 신수(腎水)가 휴허(虧虛)해져서 발생한다.
흑두(黑豆) [약물] 동 흑대두(黑大豆), 오두(烏豆) : 본초 콩과(荳科 : Leguminosae)에 속한 1년생 초본인 콩 *Glycine max* Merrill의 종자.
흑사당(黑砂糖) [약물] 동 적사당(赤砂糖) : 본초 벼과(禾本科 : Gramineae)에 속한 사탕수수 *Saccharum sinensis* Roxburg의 경즙(莖汁)을 건조시키어 얻은 조결정체로 자당으로서 80% 이상을 함유함.
흑사류(黑砂瘤) [병증] : 안이 둔퇴부(臀腿部)에

ㅎ

서 발생하는 유증(瘤症).
흑색설(黑色舌) [징후] 동 흑설(黑舌), 흑설병(黑舌病) : 진단 설진의 하나. 혀가 전체적으로 검지만 설태(舌苔)나 혓바늘은 없는 상태.
흑설(黑舌) [징후] ⇒ 흑색설(黑色舌)
흑설병(黑舌病) [병증] ⇒ 흑색설(黑色舌)
흑수응예(黑水凝翳) [병증] ⇒ 흑화예(黑花翳)
흑안(黑眼) [진찰] ⇒ 흑정(黑睛)
흑야정명(黑夜睛明) [병증] : 안이 어두운 곳이나 밤에 갑자기 물체가 잘 보이다가 점차 보이지 않으며 수일 후에는 시력이 감퇴되는 병증.
흑예여주(黑翳如珠) [병증] : 안이 catarrh性 각막궤양(角膜潰瘍)이나 각막천공(角膜穿孔) 때에 발생한다고 보며 수포(水泡)를 병발(並發)하는 것으로 각막포진(角膜疱疹)이라고 한다.
흑오매(黑烏梅) [약물] ⇒ 오매(烏梅)
흑정(黑疔) [병증] ⇒ 이정(耳疔)
흑정(黑睛) [진찰] 동 흑안(黑眼), 오주(烏珠), 오정(烏睛), 오주동인(烏珠瞳人), 흑주(黑珠), 풍륜(風輪), 풍곽(風廓) : 안이 안구의 외관상 흑색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해부학의 각막에 해당된다.
흑주(黑珠) [진찰] ⇒ 흑정(黑睛)
흑지(黑痣) [병증] : 안이 혈(血)이 위분(衛分)에서 울체, 양기(陽氣)가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면부(面部)에 서미대(黍米大)에서 두립대(豆粒大) 사이의 검은 사상(絲狀)의 반점이 발생하는 질환.
흑지(黑芝) [약물] ⇒ 영지(靈芝)
흑지마(黑芝麻) [약물] 동 흑호마(黑胡麻), 호마(胡麻) : 본초 참깨과(胡麻科 : Pedaliace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참깨 *Sesamum indicum* L.(=*S. orientale* L.)의 흑색종자로, 8~9月에 채취하여 조금씩 묶어서 세워 말린 후 종자를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흑축(黑丑) [약물] ⇒ 견우자(牽牛子)
흑태(黑苔) [징후] : 진단 설태(舌苔)의 하나. 검은색을 띠는 설태(舌苔)를 말하는데, 잿빛·그을음색·밤색 등이 섞여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혀 뒷부분은 진한 검은색을 띠고 혀끝쪽으로 오면서 색이 점차 연해진다. 주로 설유두(舌乳頭)가 증식되어 검게 된 것인데, 흔히 이증(裏證)과 병(病)이 위중(危重)한 경우에 나타난다.
흑풍(黑風) [병증] : 안이 오풍(五風) 중의 하나. 동인(瞳人)이 혼흑색(昏黑色)으로 변하는 것.
흑호마(黑胡麻) [약물] ⇒ 흑지마(黑芝麻)
흑화(黑花) [병증] : 안이 안화(眼花)의 하나로 눈앞이 검게 보이는 것.
흑화예(黑花翳) [병증] 동 흑수응예(黑水凝翳) : 안이 황색(黃色) 또는 흑색(黑色)을 띠다가 예(翳)가 응결(凝結)되면 동자(瞳子)가 희미하게 되면서 커지고 동자내(瞳子內)에 청백색(靑白色)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
흑황(黑黃) [병증] : 내과 황달(黃疸)의 하나. 얼굴빛이 누렇거나 거멓고 눈알은 푸르며 허리와 등뼈가 켕기는 병증.
흘역(吃逆) [병증] ⇒ 애역(呃逆)
흡각요법(吸角療法) [침구] ⇒ 부항(附缸)
흡취지기(吸聚之氣) [사상] : 사상 → 호산지기(呼散之氣)
흡통요법(吸筒療法) [침구] ⇒ 부항(附缸)
흡혈배농(吸血排膿) [치법] : 재활 부항요법의 목적 중 하나로 부항을 체표에 흡착시켜 창양농종(瘡瘍膿腫)을 치료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
흡흡발열(翕翕發熱) [증상] ⇒ 장열(壯熱)
희(噫) [병증] ⇒ 애기(噯氣)
희기(噫氣) [병증] ⇒ 애기(噯氣)
희냉음(喜冷飮) [징후] : 진단 시원한 음료 마시기를 좋아하는 증상.
희노(喜怒) [증상] ⇒ 선노(善怒)
희노애락(喜怒哀樂) [사상] : 사상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동무(東武)는 사람의 감정을

4가지로 크게 나누어 이를 각각의 4장기에 대입하였으니 폐(肺)에는 애(哀), 비(脾)에는 노(怒), 간(肝)에는 희(喜), 신(腎)에는 낙(樂)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질마다 감정을 치우치게 가지고 있으니, 태양인은 애성(哀性)이 원산(遠散)하고 노정(怒情)이 촉급(促急)하며 소양인은 노성(怒性)이 굉포(宏抱)하고 애정(哀情)이 촉급하며 태음인은 희성(喜性)이 광창(廣脹)하고 낙정(樂情)이 촉급하며 소음인은 낙성(樂性)이 심확(深確)하고 희정(喜情)이 촉급하다고 하였다.

희렴(稀薟) [약물] 동 희첨(稀薟), 희선(稀仙) : 본초 국화과(菊花科 : Compositae)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털진득찰 *Siegesbeckia pubescens* Makino 또는 진득찰 *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의 지상부 전초(全草)로서, 여름과 가을철에 꽃이 피기 전 및 꽃이 핀 시기에 채취하여 쇄건(曬乾)한 후 사용.

희망(喜忘) [증상] ⇒ 건망(健忘)

희발월경(希發月經) [병증] ⇒ 월경후기(月經後期)

희부(噫腐) [증상] ⇒ 애부(噯腐)

희비(喜悲) [증상] ⇒ 선비(善悲)

희선(稀仙) [약물] ⇒ 희렴(稀薟)

희소불휴(喜笑不休) [병증] ⇒ 다희(多喜)

희안(喜按) [징후] 동 욕득수안(欲得手按), 복통희안(腹痛喜按) : 진단 복통(腹痛)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경감되는 증상. 주로 이허증(裏虛證)에 속한다.

희열음(喜熱飮) [징후] : 진단 뜨거운 물 마시기를 좋아하는 증상.

희첨(稀薟) [약물] ⇒ 희렴(稀薟)

힐초(纈草) [약물] : ⇒ 길초근(吉草根)